평택시

평택마을기록사업 ⑨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
.
.

진위면

은산리

동천리

고현리

청호리

갈곶리

.
.
.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제 출 문

평택시장 귀하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평택문화원 원장 **이 보 선**

목 차

Ⅰ. 사업개요 7

1. 개요 9
2. 사업대상지역 9
3. 조사지역 10
4. 화보 12

Ⅱ. 진위면의 공간현황 및 공간조직(장수아) 35

1. 진위면의 공간적 현황과 마을 38
2. 진위면의 변화 60
3. 진위면 마을공간조직의 특징 94
   1) 갈곶리 98
   2) 청호리 106
   3) 고현리 112
   4) 동천리 118
   5) 은산리 126
   6) 마산리 140

Ⅲ. 진위면 은산리 마을조사(김해규) 153

1. 조사 배경과 목적 155
2. 지리적 환경과 지명 156
3. 역사와 마을 182
4. 경제생활 197
5. 사회생활 223
6. 교육과 문화 255
7. 은산리 구술조사 274
   · 정광섭(남, 1960년생, 은산1리) 274
   · 정중임(여, 1935년생, 은산1리) 282
   · 정병근(남, 1961년생, 은산2리) 302
   · 윤여창(여, 1945년생, 은산3리) 306
   · 민오순(여, 1940년생, 은산5리) 337
   · 진홍섭(남, 1935년생, 은산5리) 356
   · 최재성(남, 1932년생, 은산5리) 374

Ⅳ. 진위면 동천리 마을조사(장연환) 389

목 차

1. 지리적 환경 391
2. 역사적 환경 419
3. 경제생활 441
4. 사회생활 474
5. 문화생활 495
6. 동천리 구술조사 519
· 조영배(남, 1943년생, 동추골) 519
· 홍찬의(남, 1934년생, 동추골) 527
· 차옥순(여, 1947년생, 사후동) 542
· 최창렬(남, 1947년생, 사후동) 560

Ⅴ. 진위면 고현리 마을조사(장연환) 579
1. 역사와 지리 581
2. 사회 · 경제 · 문화 586
3. 마을 현황 586
4. 고현리 구술조사 589
· 고만석(남, 1952년생, 고현리) 589
· 전태상(남, 1944년생, 고현리) 597

Ⅵ. 진위면 청호리 마을조사(김해규) 607
1. 역사 · 지리적 환경 609
2. 마을의 변화와 삶 610
3. 지명유래 613
4. 성씨 · 경제 · 문화 614

Ⅶ. 진위면 갈곶리 마을조사(장연환) 617
1. 역사와 지리 619
2. 지명 621
3. 마을의 변화 622
4. 마을 현황 624
6. 갈곶리 구술조사 628
· 김봉자(여, 1957년생, 갈곶1리) 628
· 박봉만(남, 1942년생, 갈곶1리) 637

목 차

Ⅷ. 토지대장을 통한 변화양상 분석과 해석(윤한택) 645

1. 20세기 초 진위군(振威郡) 일북면(一北面) · 마산면(馬山面)의 토지 소유 양상을 토지 소유 양상을 통해서 본 사회 구성 변화의 일단 647

1) 들어가며 647
2) 자연동별 현황 648
3) 주요 성씨별, 호주(법인)별 현황 682
4) 나가며 687

부록) 표1. 일북면(동별) 688
표2. 마산면(동별) 746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

사업개요

- 화보

여 백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
- 주　　최 : 평택시
- 주　　관 : 평택문화원
- 대상지역 : 진위면(은산리, 동천리, 고현리, 청호리, 갈곶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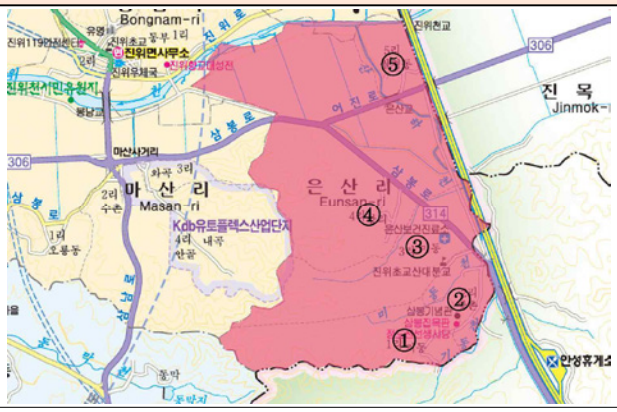
- 내　　용
  - 인문지리, 구술조사, 사진자료 확보 등 마을조사 진행
  - 역사적 사건 및 일상생활의 기억과 증언을 녹취 및 촬영
  - 항공사진, 지도 및 도면으로 마을공간조직 분석
  - 토지대장을 통한 시대적 변화 양상 분석과 해석
  - 자료 분류 및 업로드를 통한 기초 아카이브 구축

2. 사업대상지역

3. 조사지역

조사지역

은산리(조사자 김해규)



① 1리 기동 ② 2리 방촌 ③ 3리 미동
④ 4리 상리 ⑤ 5리 월경

동천리(조사자 장연환)

① 1리 동추골 ② 2리 사후동

고현리(조사자 장연환)

조사지역

청호리(조사자 김해규)

갈곶리(조사자 장연환)

① 1리 ② 2리

-진위면의 공간현황 및 공간조직(조사자 장수아)

-토지대장을 통한 변화양상 분석과 해석 (조사자 윤한택)

사라지기전 그리움을 남기다

진위면 은산리들

은산리

태봉산에서 본 은산리 전경

은산리 황승이들

정도전 단묘(왼쪽)와 정도전 사당(가운데)이 있는 은산1, 2리 전경

은산리 수로

은산양수장

은산1, 2리 마을 입구에 있는 봉화정씨 세거비와 삼봉집 목판 안내판

은산1리, 2리 정월대보름 윷놀이

은산1리 기동마을 정병억, 이은태, 정치섭

은산1리 기동과 2리 방촌 전경

은산1, 2리 전경

은산1, 2리 전경

은산1, 2리 공동창고

은산1리 마을회관

은산2리 버스 종점

은산2리 버스종점 앞 풍경

은산2리 버스종점 앞 누정

은산3리 미동 전경

은산4리 상리 전경

은산5리 파노라마

은산5리 월경 전경

은산5리와 용인시 진목리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지하도

삼봉 정도전선생 사당(문헌사)와 희절사

문헌사

삼봉집 목판

심봉기념관 내부

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장

1993년 개설 된 경부고속도로 아래 농업용 통로

동천리

동천1리 동추골 전경

동천2리 사후동 전경

동천1리 경주이씨 상서공파 묘역

동천리고인돌

만기사 전경

만기사철조여래좌상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입구와 만기사 일주문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만기사

동천1리 아랫말저수지

동천1리 마을 입구

학농원 관계자와 대담중인 연구자들

학농원(이탈리아노)

동천1리 마을 풍경

동천1리 버스정류장

평택시 가장 북단인 동천2리 사후동 저수지

동천2리 사후동의 가을

동천2리와 고현리 경계에 있는 광은기도원

고현리

경부고속도로와 고현리

고현리에서 본 진위일반산업단지 전경

경부고속도로 밑 진위면 고현리와 오산시 고현동을 잇는 통로

1993년 준공된 통로 표지판

고현리에서 동천2리 사후동으로 넘어가는 치고개

고현저수지에서 본 오산시내 전경

청호리

LG전자를 중심으로 본 청호리. 왼쪽은 오산시 청호동, 오른쪽은 가곡리다.

진위일반산업단지로 변한 청호리

LG로 표지석

LG전자 정문 앞 남부대로

LG전자 전경

LG전자 정문 앞 풍경

갈곶리

가운데 엘지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갈곶1리 왼쪽이 2리

갈곶1리 전경

갈곶1리 마을 입구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섬처럼 남은 갈곶1리

도로가 끊긴 갈곶1리 마을 입구

갈곶1리 마을 풍경

갈곶2리 한일아파트

갈곶초등학교

연구진

동천1리 학농원 답사중, 왼쪽부터 장연환, 윤한택, 최치선, 이규상(학농원), 장수아, 김해규

〈2022 평택학 학술토론회〉 왼쪽부터 장연환, 김해규, 황수근, 최치선, 윤한택, 홍원의(안성시 학예사)

여 백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I.

진위면의 공간현황 및 공간조직

DIRACE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장수아

여 백

목차

1. 진위면(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동천리, 은산리, 마산리)의 공간현황과 마을
2. 진위면(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동천리, 은산리, 마산리)의 공간변화
3. 진위면(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동천리, 은산리, 마산리)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평택시 진위면

면적 : 34.02 km^2

법정리 : 12 개소

가곡리(佳谷里), 견산리(見山里), 동천리(東泉里), 마산리(馬山里)

봉남리(鳳南里), 신리(新里), 고현리(高峴里), , 갈곶리(葛串里), 야막리(野幕里), 청호리(靑湖里), 은산리(銀山里), 하북리(下北里)

행정리 : 37개소 114반

인구 : 11,448 명

인구밀도 : 336명/ km^2

세대수 : 6,123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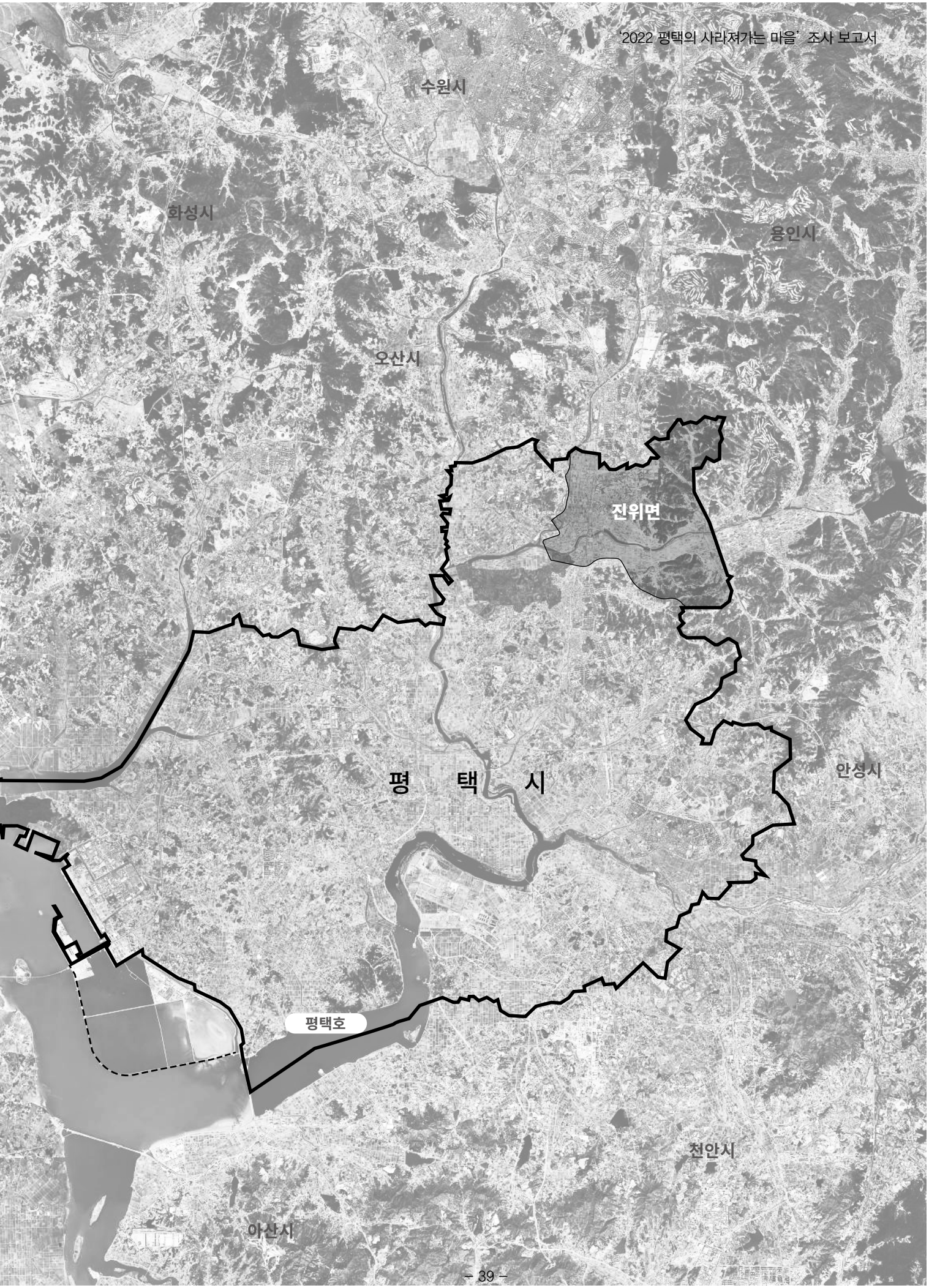
[출처: 2022년, 평택시 진위면 일반현황,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contents.do?mId=2001050200]

남양만

아산만

당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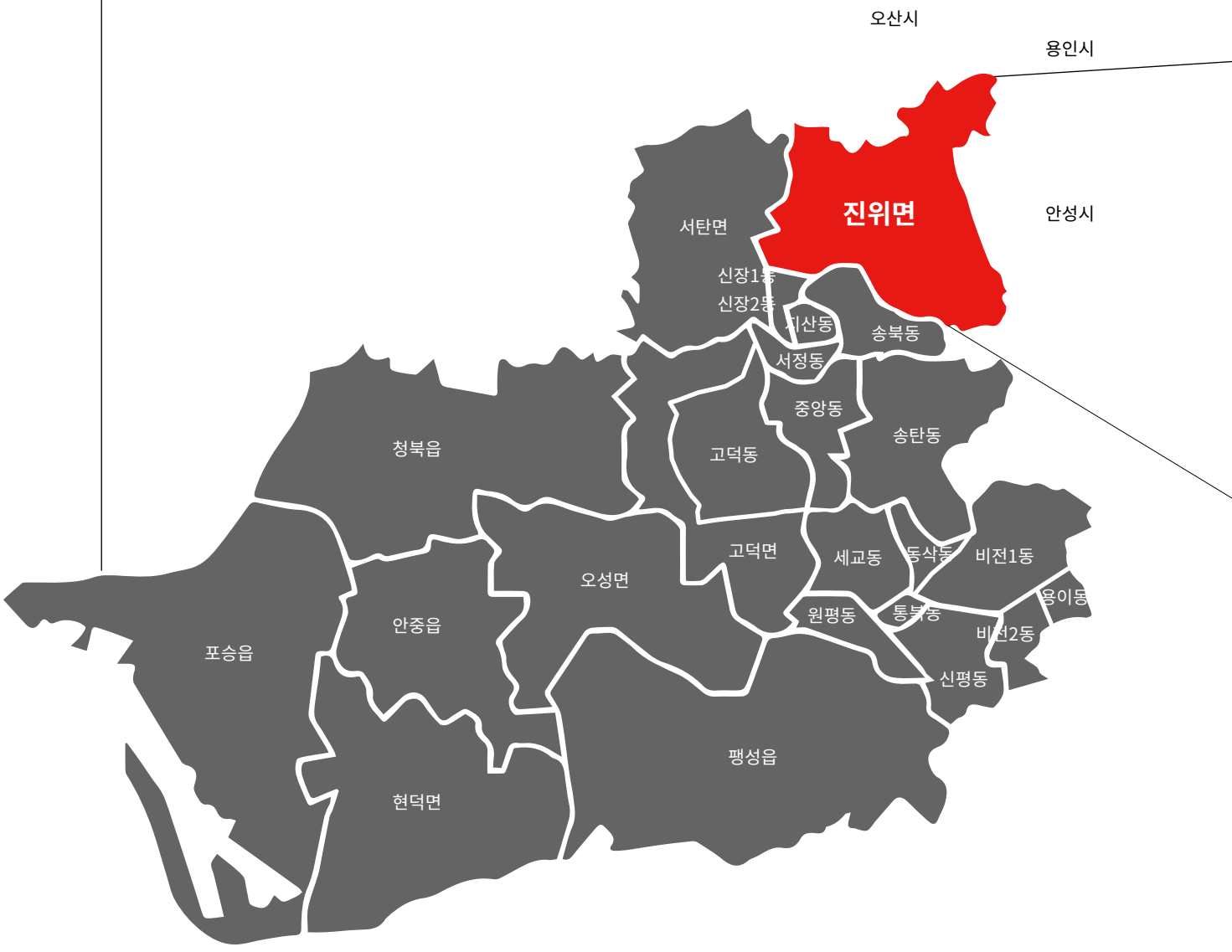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배경 항공사진 출처 : 2018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진위면
평 택 시
안성시
평택호
천안시
아산시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평택시 행정구역 현황

4개 읍, 5개면, 16개 동으로 구성되어있는 평택시의 행정구역에서 진위면은 동북 측 끝 부분에 위치하여 오산시, 안성시, 용인시 경계와 인접하여 면 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자치단체와 인접하고 있다. 진위면 남서 측으로 서탄면, 신장동, 송북동과 인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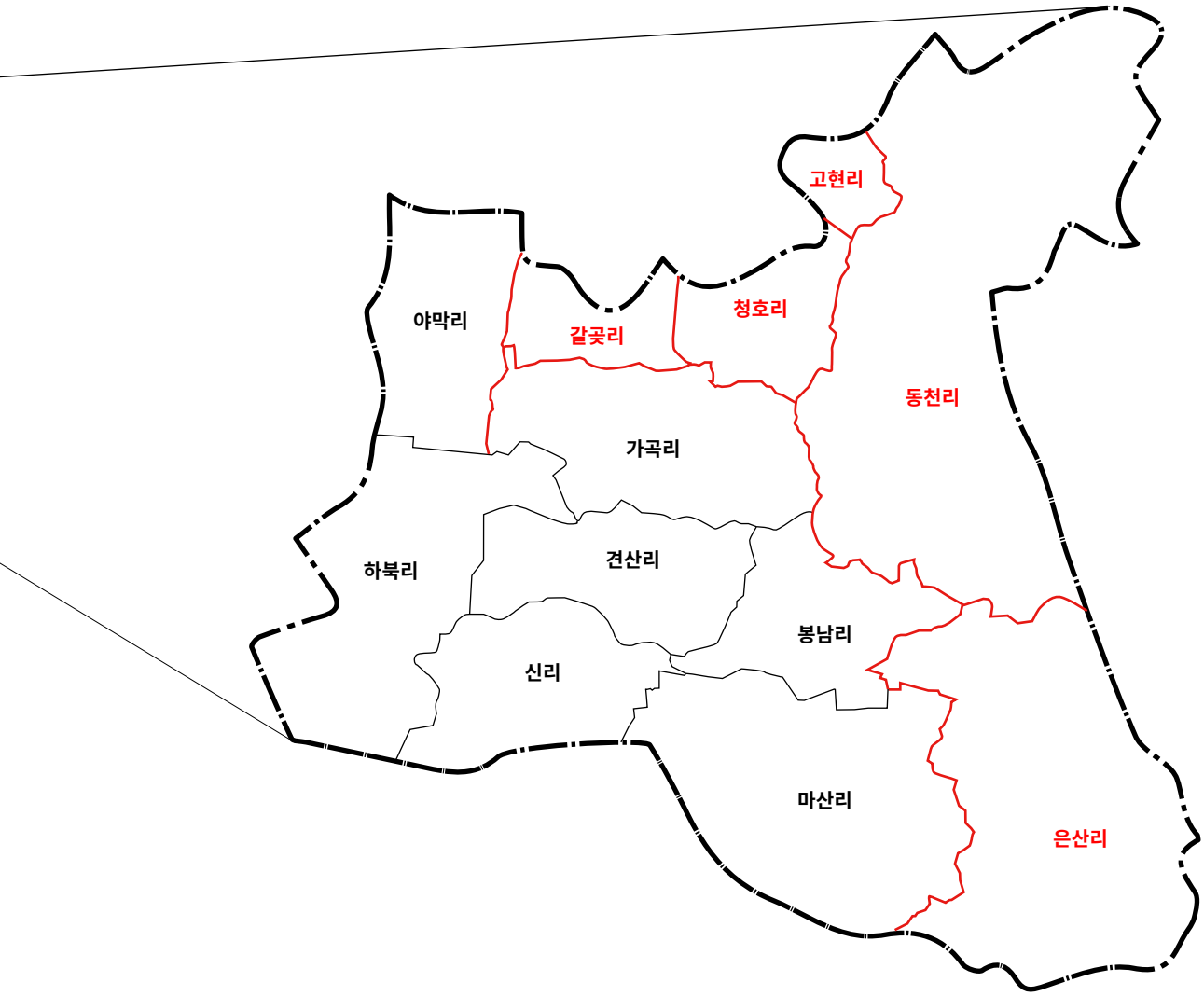


진위면 행정구역 및 마을 현황

진위면은 조선 말기까지의 진위군의 중심지로 1914년까지 진위군의 군청 소재지였으며 1938년 진위군에서 평택군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북측의 오산시와 인접한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일부가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진위면의 면적은 약 34.02㎢로 인구 11,44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123세대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37개 행정리 114반으로 구성되어있다. 진위면의 법정동 - 리의 구성은 봉남리, 마산리, 은산리, 동천리, 청호리, 갈곶리, 야막리, 가곡리, 견산리, 하북리, 신리, 고현리 등 12개 법정리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서 사라지는 마을 조사 대상은 갈곶리(2리), 청호리, 고현리, 동천리(2리), 은산리(5리) 등 11개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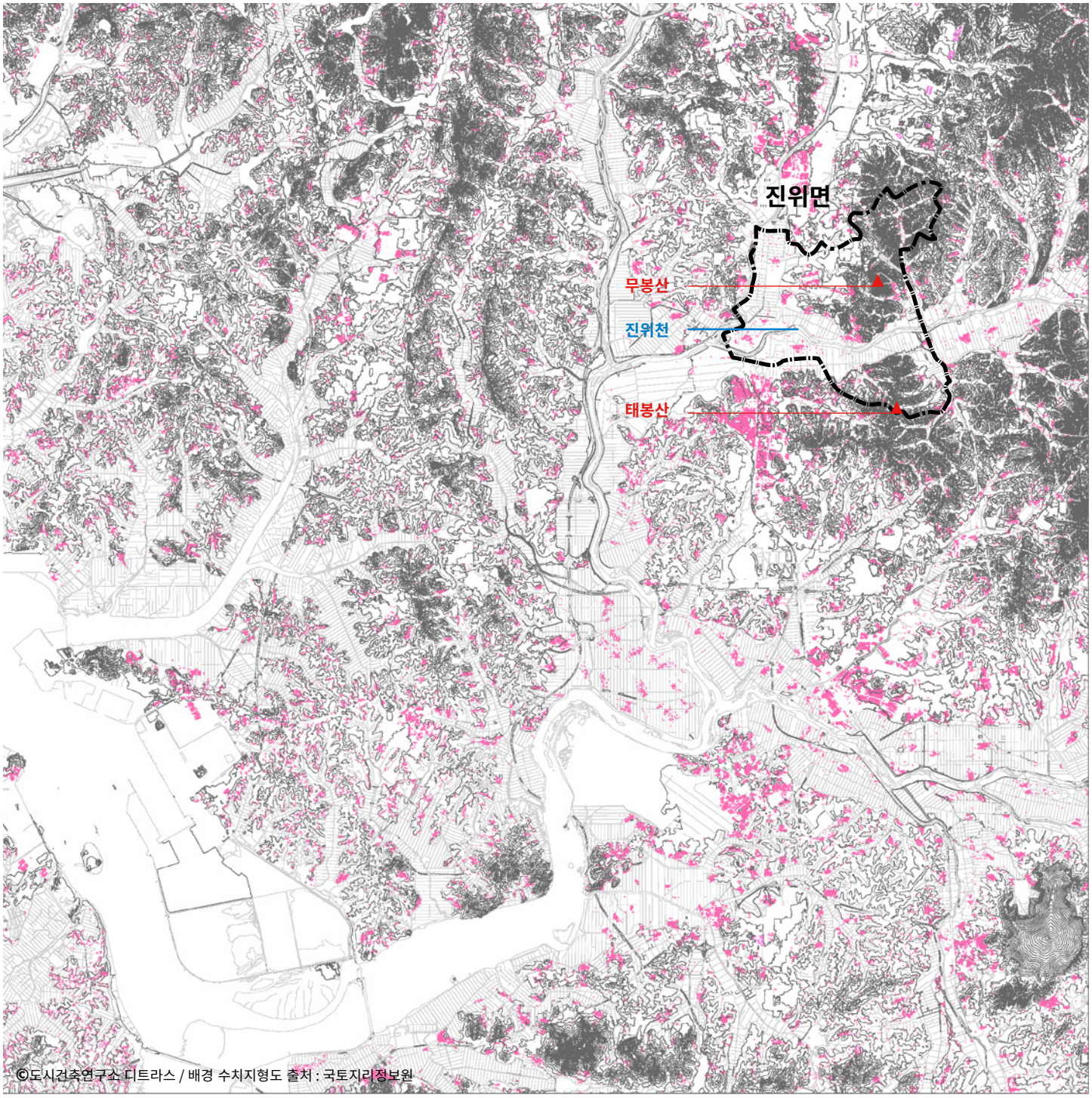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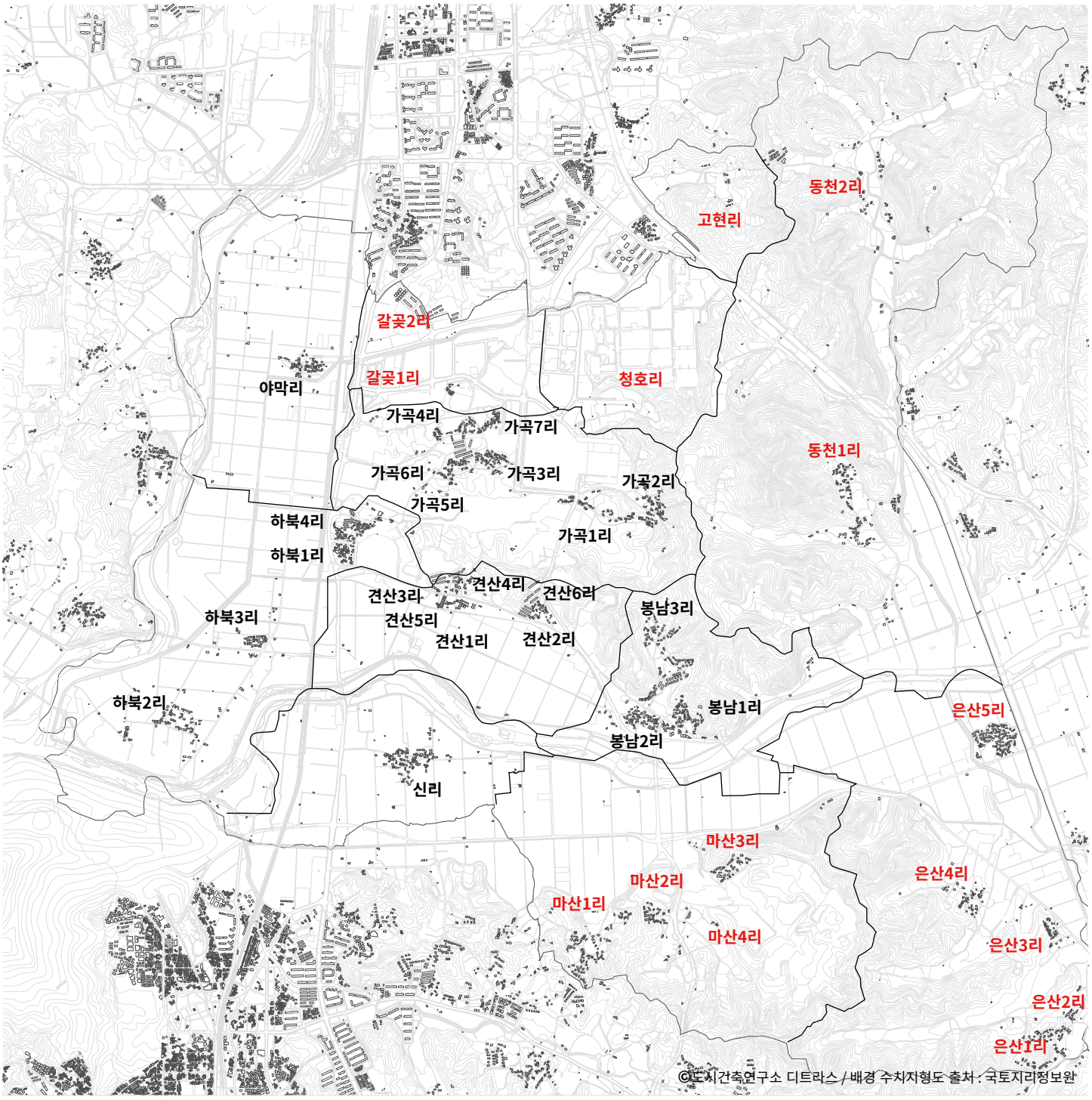
진위면 - 지형과 마을분포 현황

평택시에서 진위면은 북동 측 끝에 위치하면서 북측의 오산시 화성시와 인접하고, 동쪽으로 용인시, 안성시와 인접하고 있다. 용인시로부터 남서 측 방향으로 내려오는 산맥 줄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마등산과 무봉산이 진위천을 만나는 지점에 진위면이 위치하여 진위천 북동 측으로는 경사가 비교적 급한 산지형이 분포하며 진위면 봉남리 서 측으로는 오산천이 남북방향으로, 남 측에는 진위천이 동서 방향으로 형성되어있고, 이 두 개의 하천이 진위면 남서 측 끝에서 만나면서 넓은 경작지가 남북축 - 동서축으로 형성되어있다. 진위면의 마을들은 두 하천변의 논 경작지의 평야 지대에 위치한 마을과 무봉산과 태봉산 끝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진위면 마을 - 9개 법정리 37개소 행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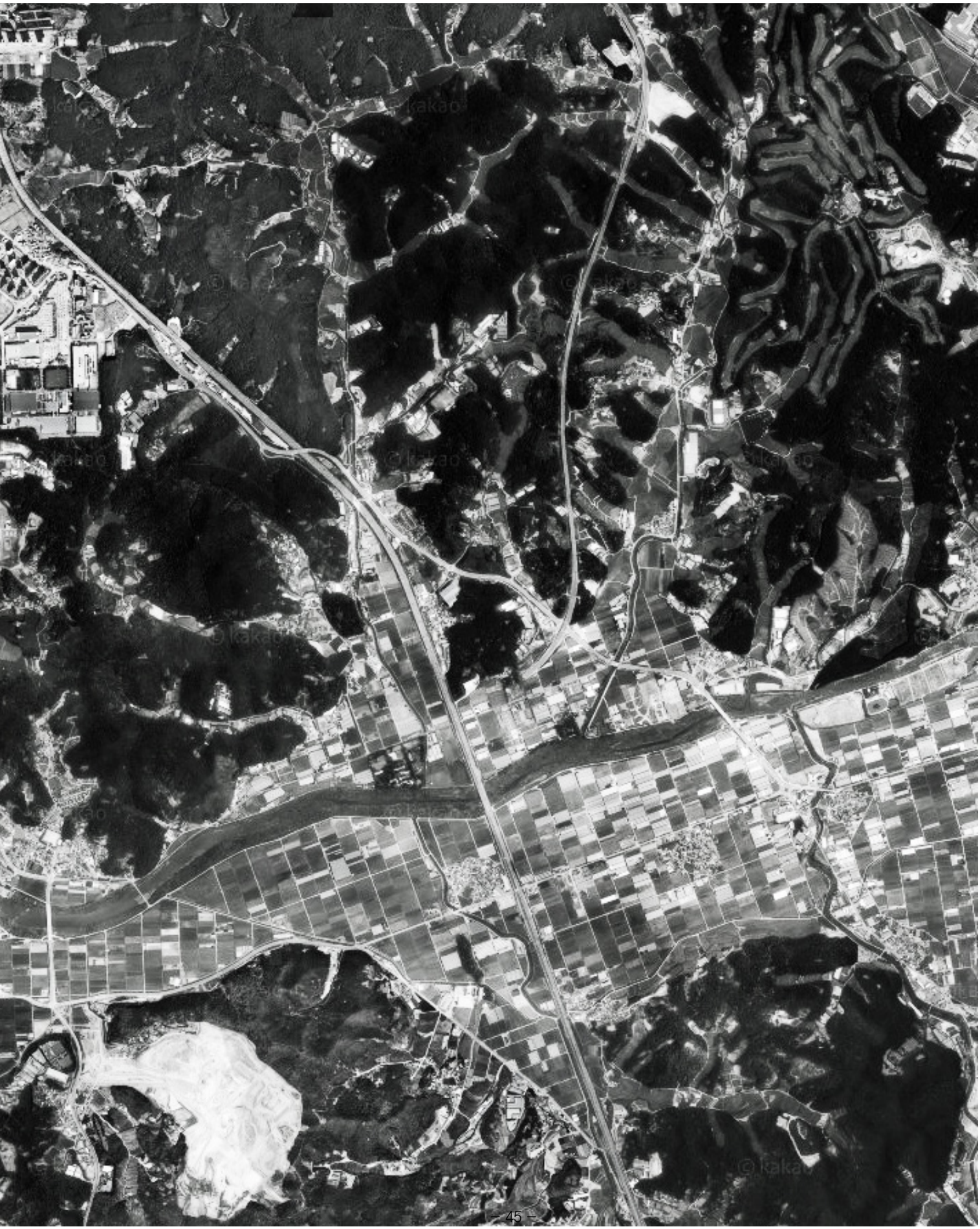
진위면은 가곡리(佳谷里), 견산리(見山里), 동천리(東泉里), 마산리(馬山里), 봉남리(鳳南里), 신리(新里)-고현리(高峴里), 갈곶리(葛串里)-야막리(野幕里)-청호리(靑湖里), 은산리(銀山里), 하북리(下北里) 등의 마을은 12개의 법정리와 37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인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무봉산 서측에 위치하며 동천리는 용인과이 행정경계를 이루는 동측 골짜기에 위치하고, 은산리는 진위천 남측 경부고속도로 서측 태봉산 줄기의 골짜기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등은 경부선철로와 가곡리등의 다른 마을들과 근접 위치하나 동천리, 은산리 마산리 등은 각각의 마을들이 각각이 서로 다른 골짜기에 분포하고 있다.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2018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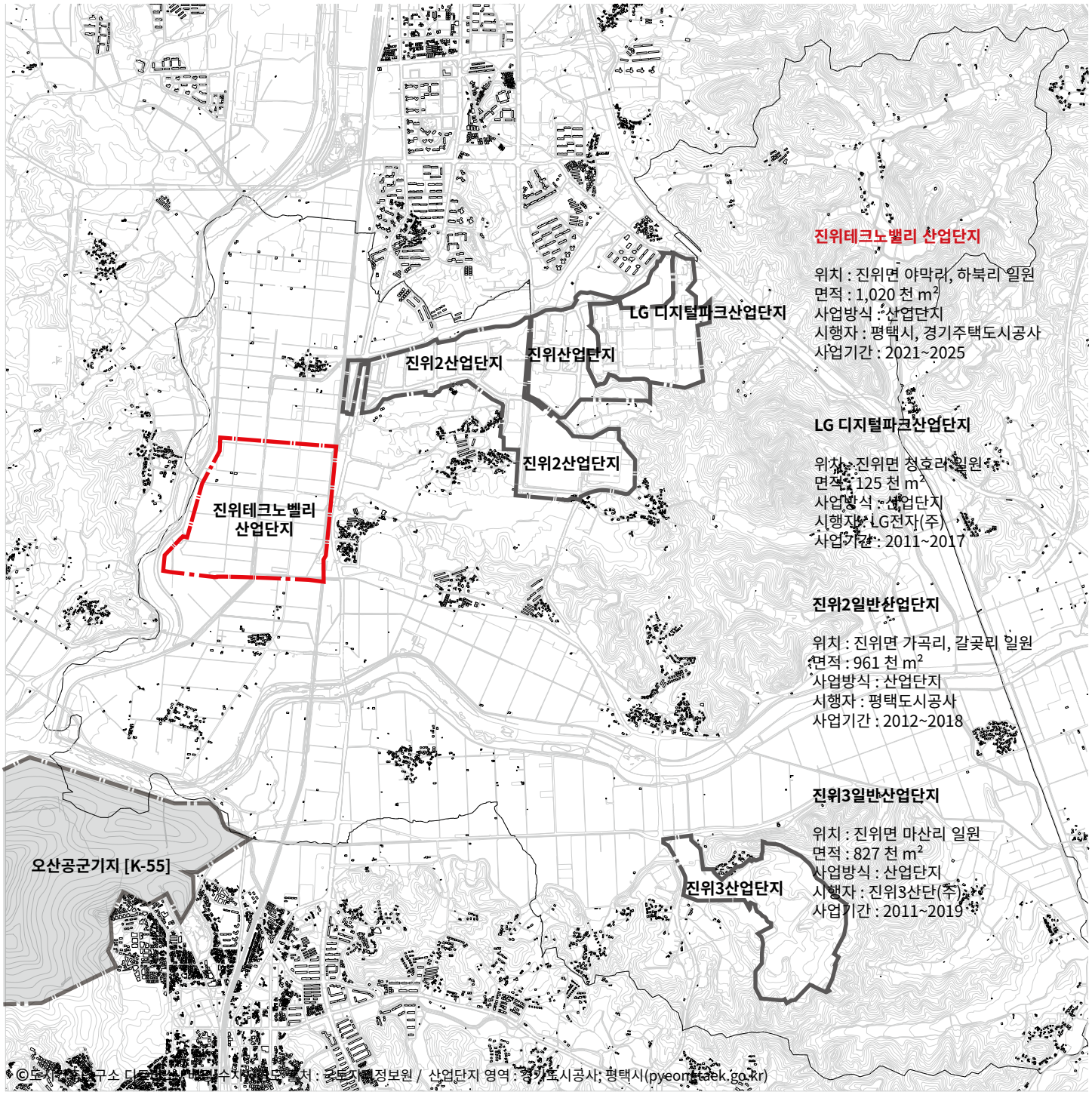
©항공사진 출처 : 2018년 국토지리정보원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산업단지 분포 현황

진위면은 청호리와 가곡리 일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어 대규모 공장들이 분포하고 있고, 경부선 서 측 오산천변의 논 경작지대에 새로이 조성계획이 발표된 LG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마을들은 단절 분리 고립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산업단지 관련 시설들이 점차 마을 곳곳을 점유하고 있고, 도로구조 또한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어 자연마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들의 점유로 마을들의 관계는 단절 고립되고 있으며 자연마을의 경관도 공장과의 모순된 구조로 점차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평택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마을 조사는 매우 긴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부선 철로로 인한 동서 단절

경부선-1호선 국철 철로가 진위면 중심을 남북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어 서측의 오산천 주변의 야막리와 하북리 일대와는 물리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가곡리, 견산리 하북1리 신리등은 경부선 철로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동천리, 은산리는 경부고속도로에 인접 위치하고 있다.
고가도로, 진위역, 하천변 보행로, 육교의 형태로 7곳의 연결 지점들이 형성되어있지만 경부선 철로, 경부고속도로, 산업 단지들의 점유로 인해 진위면의 마을은 공간적 분리, 고립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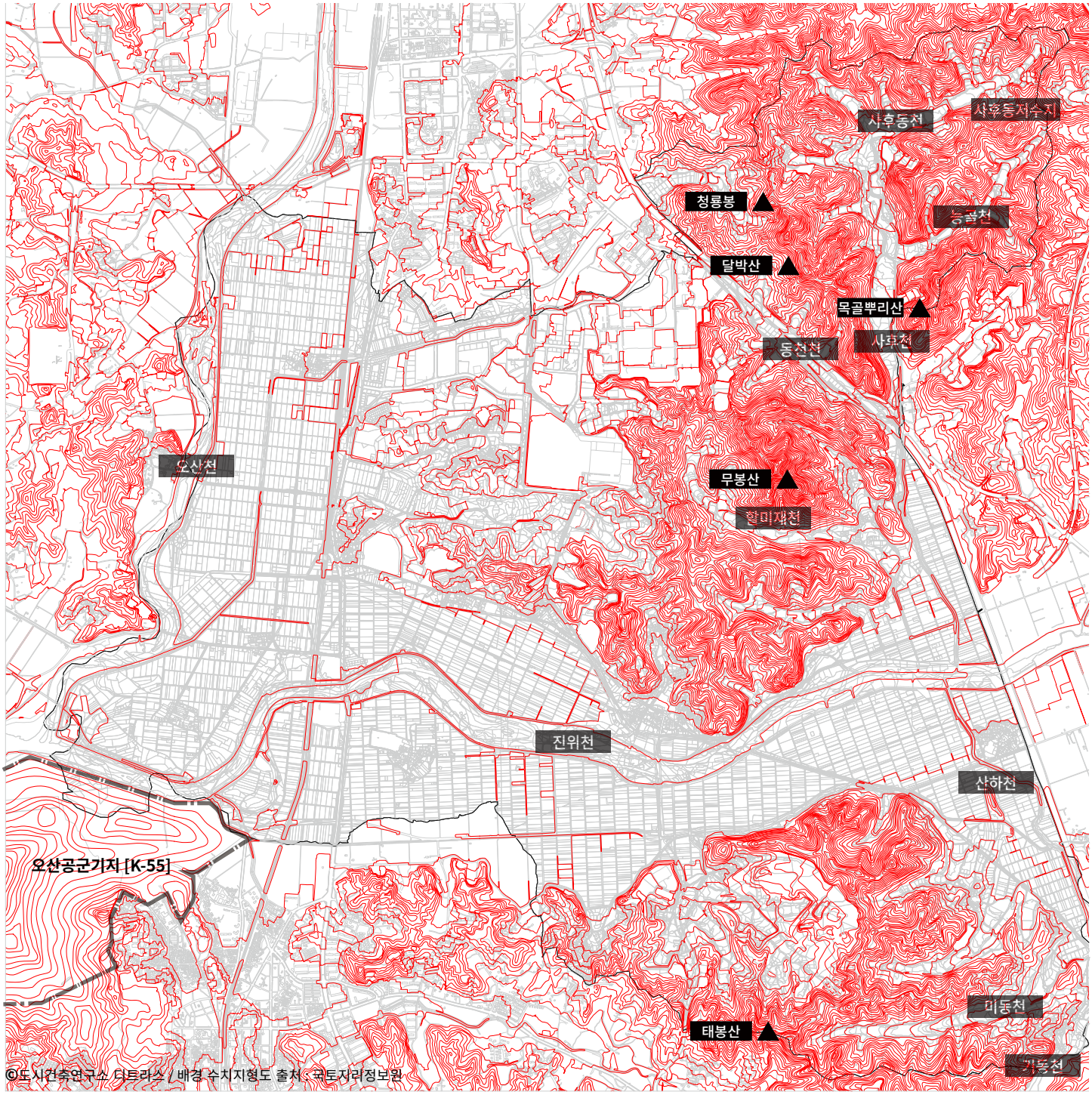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배경 수치지형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지형과 마을 분포 현황

진위면 서북 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등산과 무봉산이 서측의 오산천과 남측의 진위천을 경계로 끝나면서 경사지형을 만들고, 마을들은 산 경사 지형과 논 경작 지형의 평야 지대가 만나는 경계부에 가곡리 하북리 견산리 봉남리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 외에 야막리 신리 하북리 등은 하천변의 논 경작지대 한가운데 분포하고 있다.

서측의 무봉산 자락의 산 경사 지형은 해발고도 200m 내외의 높이가 굴곡진 골짜기 지형을 만들고 있고, 서측으로 길게 형성되어있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골짜기 지형에는 가곡리, (청호리) 등이 분포하고, 남측의 진위천을 바라보며 짧지만 비교적 경사가 급한 골짜기 지형에는 봉남리와 견산리가 위치하고 있다. 동측으로는 동천리가 깊은 골짜기들의 산지형에 분포하고 있으며 진위천 남측 태봉산과 덕암산 자락의 골짜기를 따라 은산리가 위치하고, 진위천과 경부고속도로 결절지점에 은산5리가 위치하고 있다



진위면 동측에 위치한 동천리, 은산리는 무봉산과 태봉산 자락의 골짜기에 위치하는 마을로 "경사를 갖는 골짜기 지형내에 위치한 마을" 형태를 나타내며, 은산5리는 신리나 야막리와 유사한 형태로 "하천과 근접하여 논 경작지 평야지대에 위치한 마을"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진위면 서측에서 조사한 마을과 달리 동천리와 은산리가 위치한 지형의 골짜기는 매우 긴 골짜기를 형성하고 마을은 골짜기 초입 또는 남향의 경사지에 주거지가 밀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항공사진 출처: 카카오맵 스트리트뷰, 2021]

하천과 근접하며 논경작지 평야지대위에 위치한 마을

은산 5리

완만한 구릉지형에 위치한 마을

갈곶리

골짜기 하부에서 남향경사면에 위치한 마을

은산1리

경사를 갖는 골짜기 지형내에 위치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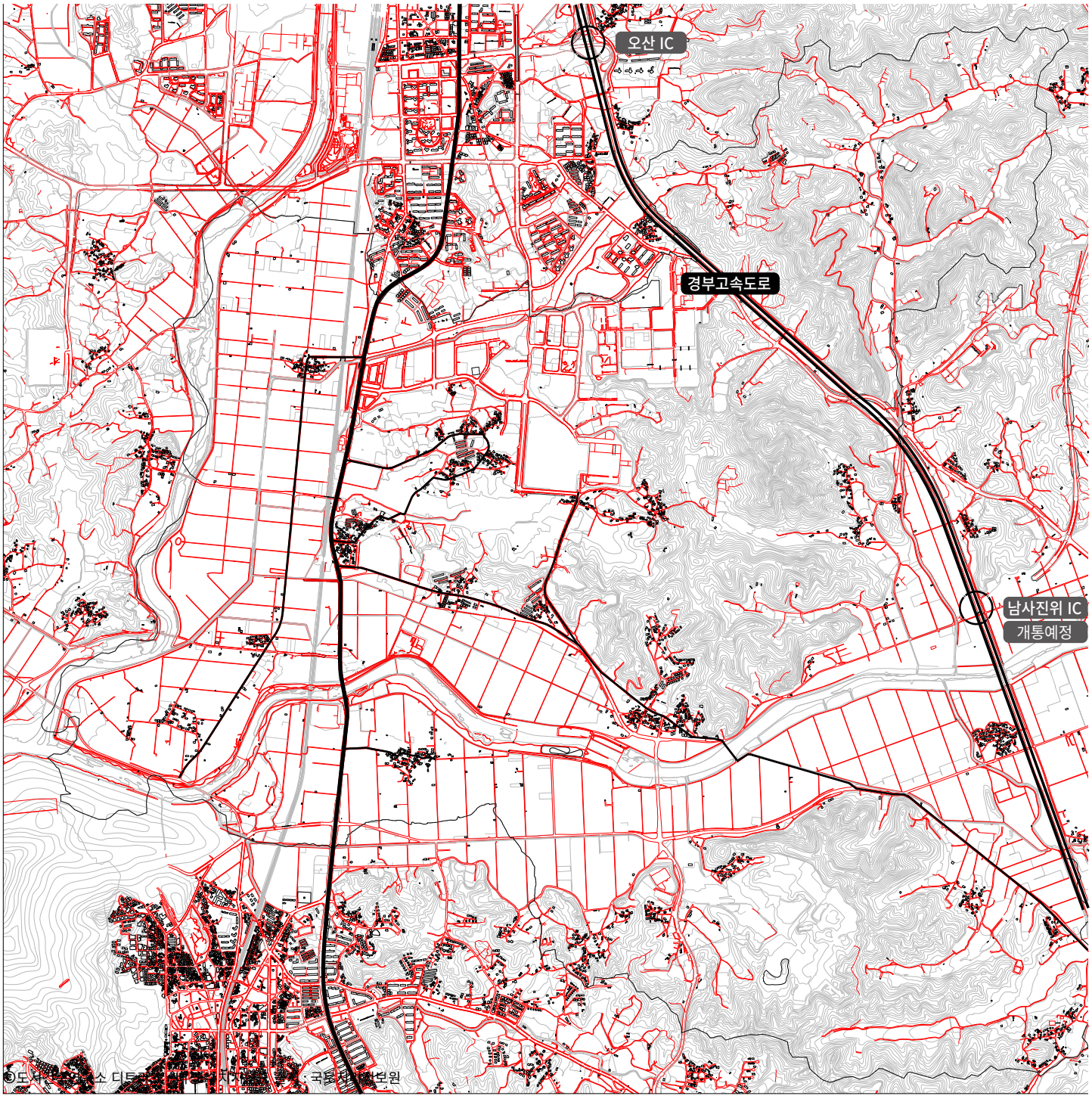
동천리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도로 구조와 마을 분포 현황

진위면 일대의 도로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형과 경부선 철로를 따라 구조화되어있다. 오산천과 진위천 주변은 경작지가 질서있는 격자형으로 구조화 되어있으며, 산 주변의 경사 지형 지역은 지형에 순응하고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왔던 소로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면서 마을들을 연결하고 있다.
경부선 철로와 나란히 남북을 관통하는 1번 국도는 진위면 일대의 중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진위면 동북 측의 경부선과 연결되고 있는 310번 국도, 그리고 진위역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314번 국도가 기본 도로 구조로 형성되어있다.

마을들은 주요한 도로로부터 골짜기나 구릉능선을 따라 하위 위계를 갖는 도로로 이격된 위치에 이격되어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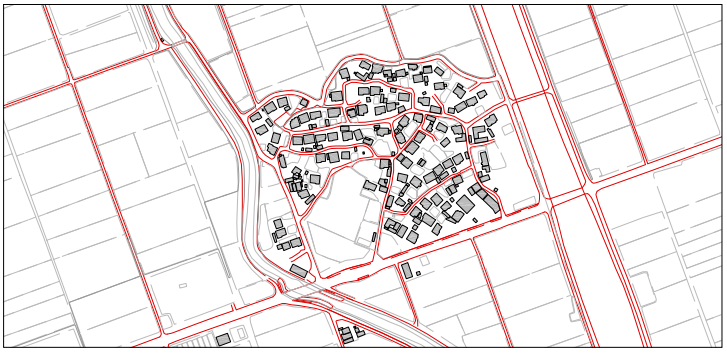
진위면 동측에 위치한 동천리, 은산리는 무봉산과 태봉산 자락의 골짜기에 위치하는 마을로 "경사를 갖는 골짜기 지형내에 위치한 마을" 형태를 나타내며, 은산5리는 신리나 야막리와 유사한 형태로 "하천과 근접하여 논 경작지 평야지대위에 위치한 마을"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진위면 서측에서 조사한 마을과 달리 동천리와 은산리가 위치한 지형의 골짜기는 매우 긴 골짜기를 형성하고 마을은 골짜기 초입 또는 남향의 경사지에 주거지가 밀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소로의 불규칙 도로구조를 갖는 마을

사례, 갈곶리(마을원형, 현 오산시 편입지역)

격자형 논 경작지에 소로의 불규칙 도로구조를 갖는 마을

사례, 은산5리



경사지에 계단형 도로구조- “干”형 구조를 갖는 마을

사례, 은산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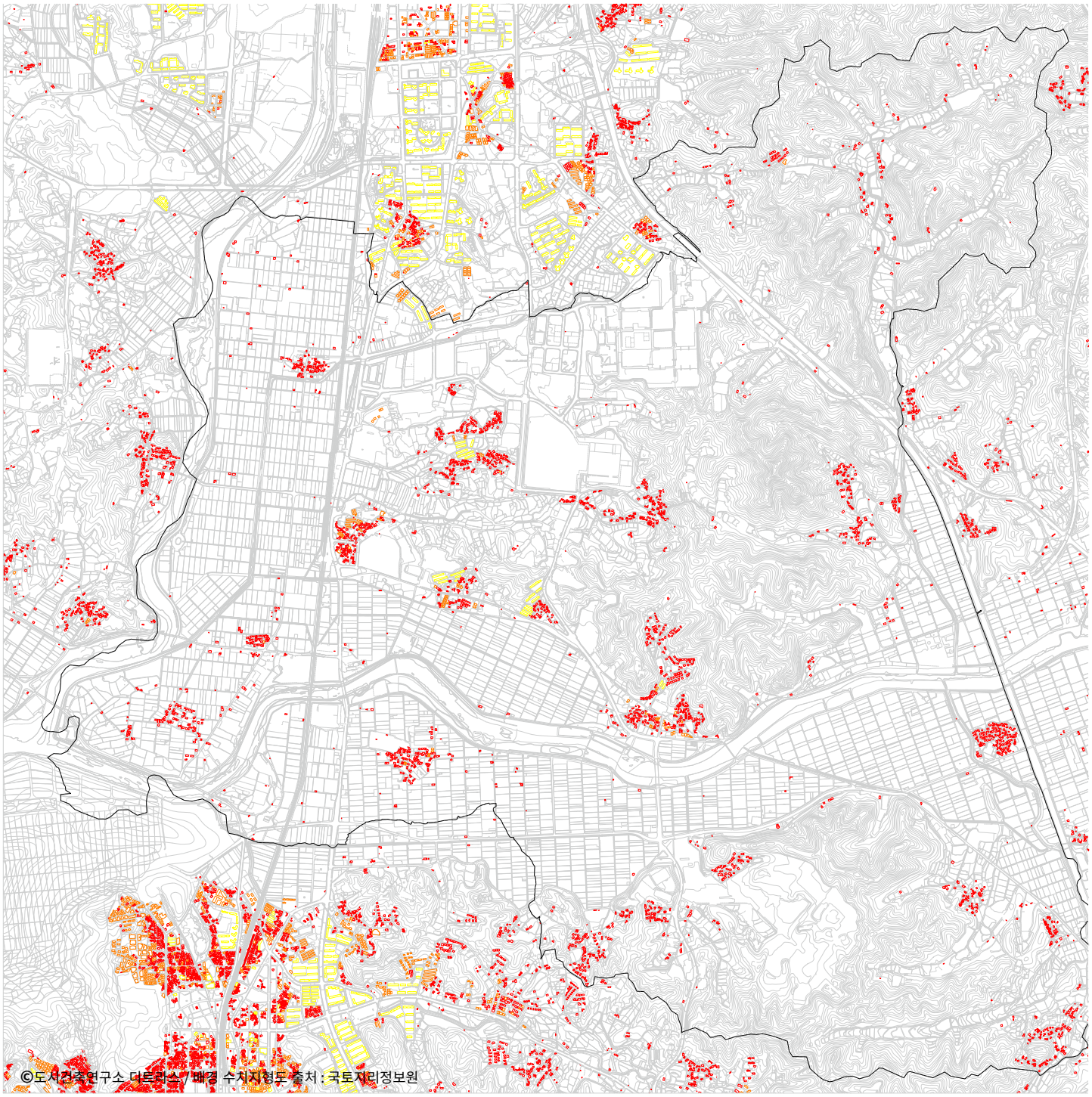
주 도로 축을 중심으로 불규칙한 도로구조를 갖는 마을

사례, 고현리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건축물 현황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에서 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만을 선별하여 분포를 확인할때, 대부분의 마을들이 1960-70년대에 형성된 민가 주거유형의 건축물 중심으로 분포되어있으나, 1980년대 초반 공장주변으로 맨숀,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이 나타나고 1990년대 이후로 10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물이 나타난다.
또한, 오산천과 경부선 철로 사이에 위치한 논 경작지와 진위천 남측 논 경작지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업 시설물들이 점차 확산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은 1960-70년대 민가유형의 개별 주택과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장 등의 산업시설들은 마을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는 마을조직을 침범 및 점유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진위면 동측의 동천리와 은산리 등은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면서 1층 전통주거 또는 196-70년대 주택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으며, 부분적으로 빌라나 최근의 건축재료 등으로 교체된 건축물들도 존재한다.



- 범례 -

진위면 행정구역 경계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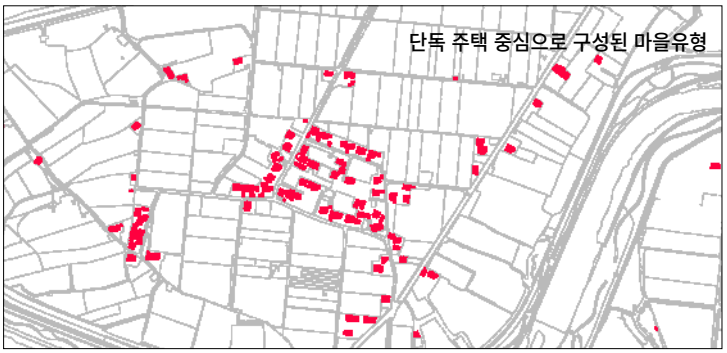
산업시설

[사진 출처: 카카오맵 스트리트뷰,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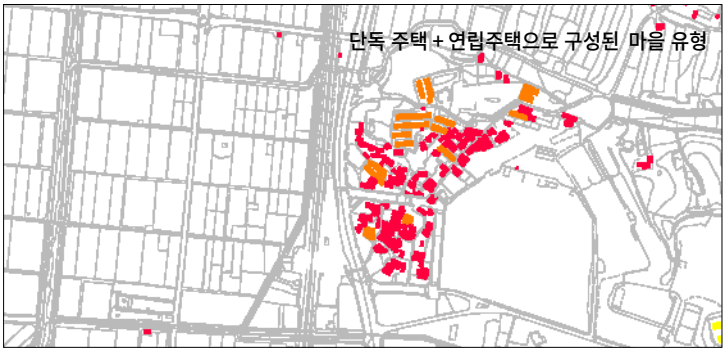
[수치지형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020]

하북3리 비닐하우스 전경[사진 최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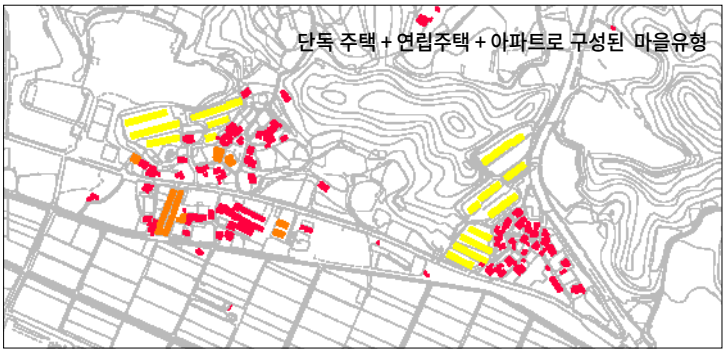
야막리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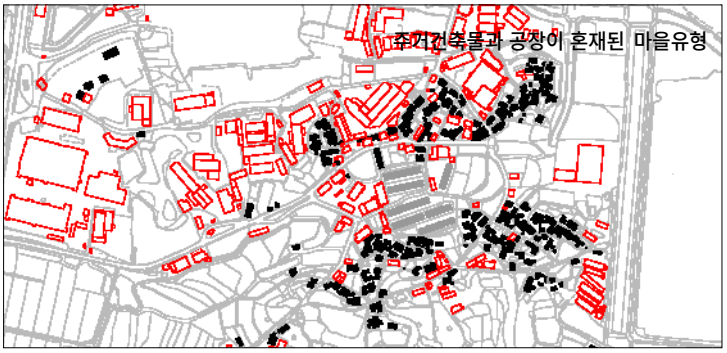
가곡리 화영아파트[연립주택]



견산리 한승 아파트[사진 최차선]



하북리 흥원제지 공장[사진 최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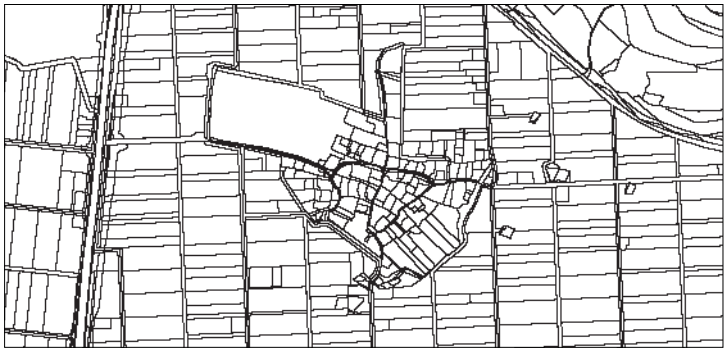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지적(필지) 현황

진위면 필지의 구성은 두 하천을 중심으로하는 경작지역은 규칙성을 갖는 직사각형의 구성으로 일정한 배열을 갖고 있으며, 경사지형이 시작되는 산지나 구릉지에서는 다양한 불규칙성을 갖는 필지들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마을지역의 필지구성은 부분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갖는 필지들이 구성되어있고, 필지의 방향은 도로와의 관계와 필지들의 군집성을 볼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논경작지의 규칙성을 갖는 필지는 1960년대 후반 경지정리를 통해 형성되었으나 정방형 형태의 필지나, 불규칙 형태를 갖는 필지들로 구성된 마을의 필지유형은 조선시대 말기 또는 일제강점기의 필지들의 흔적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세장형 필지로 구성된 마을

정방형 필지와 세장형 필지가 혼재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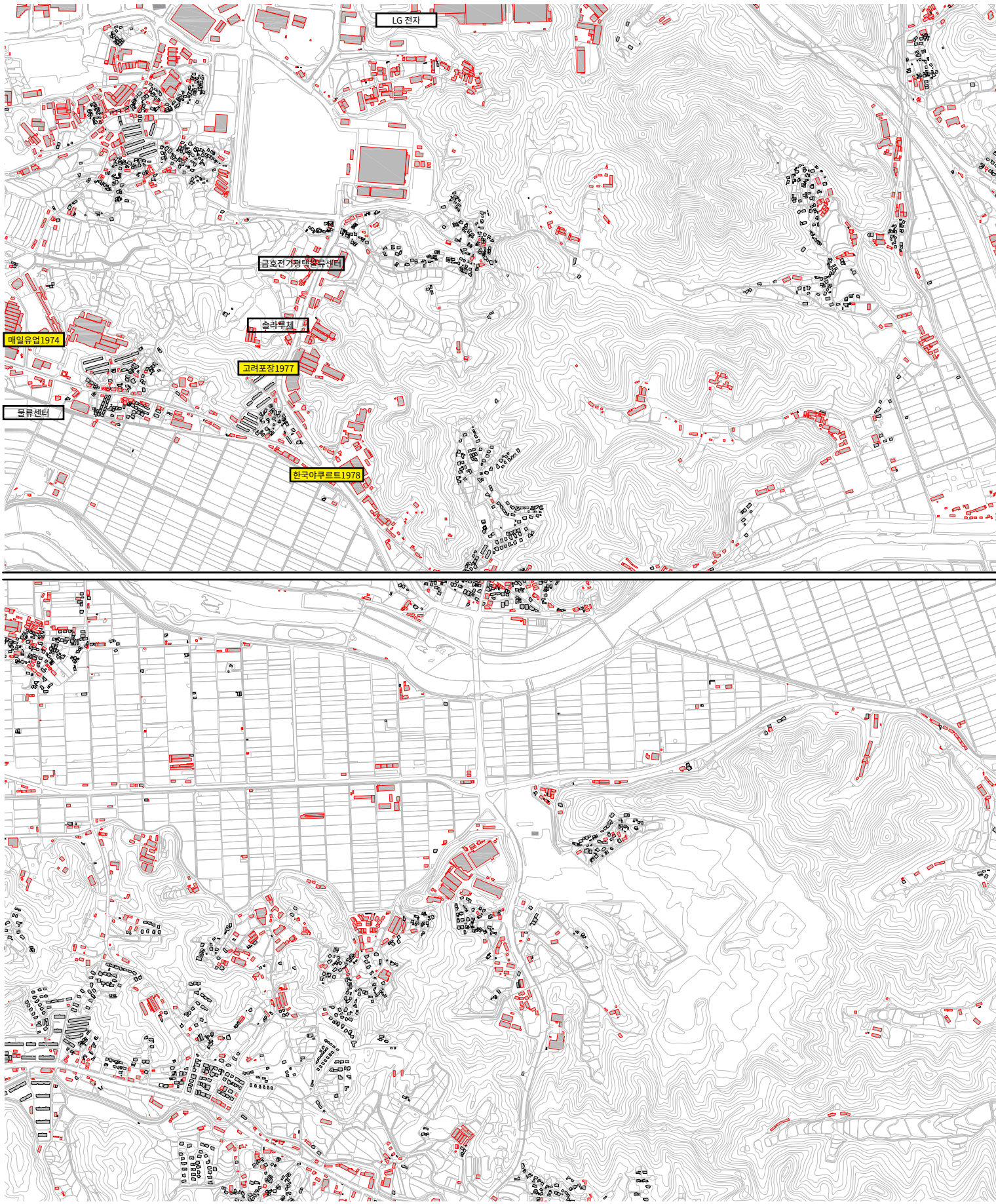


정방형 필지와 불규칙 형태의 필지가 혼합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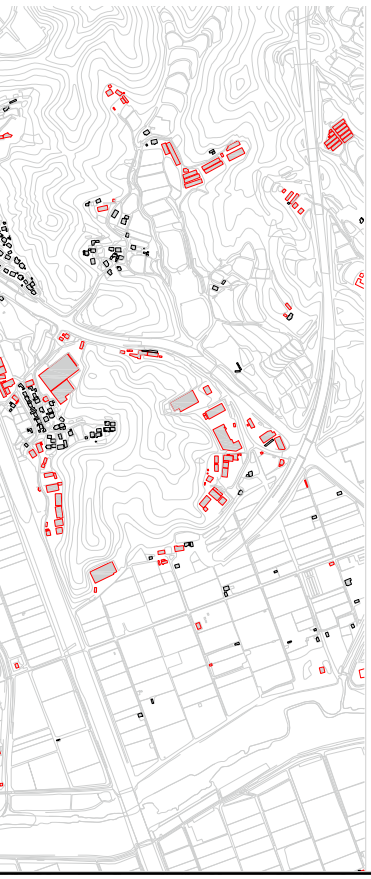
불규칙한 형태의 필지로 구성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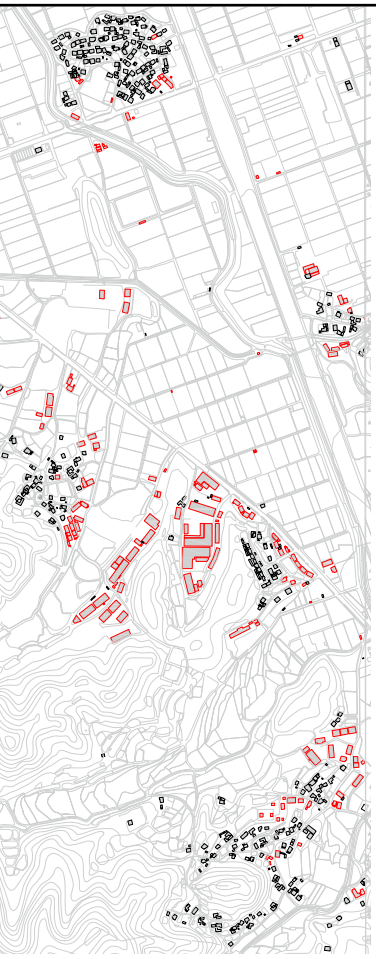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주요 산업시설 분포 현황



[사진 출처: 카카오맵 스트리트뷰, 2021]





대우 일렉트로닉스
진입로 수목 및 정문
이외의 공장 및 대부분 공장터는 철거됨

롯데제과 공장 1983년 준공
[현, 신축추정]

동양잉크 공장 1975년 준공
[현, 부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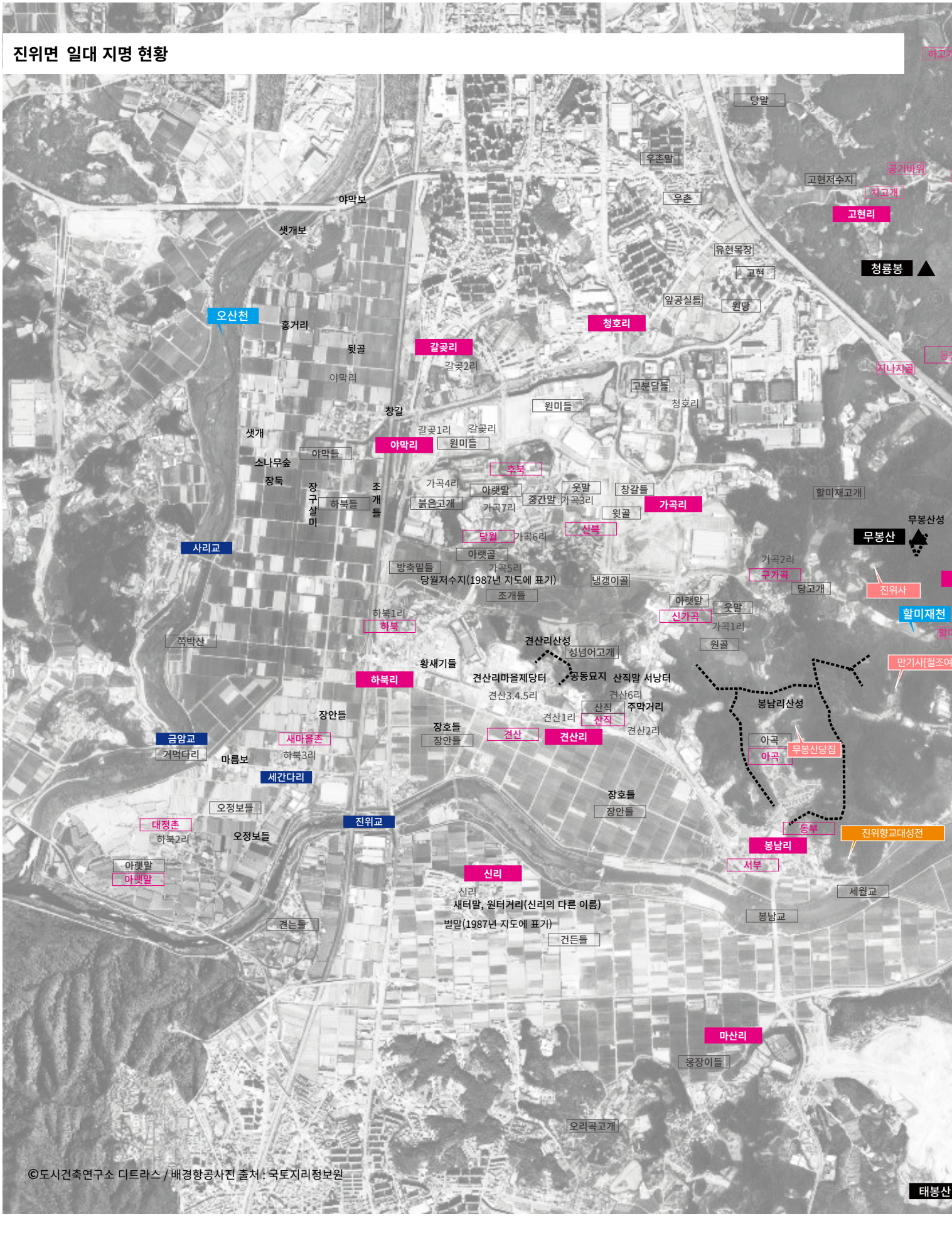
오뚜기 공장, 준공년도 미상
[현, 부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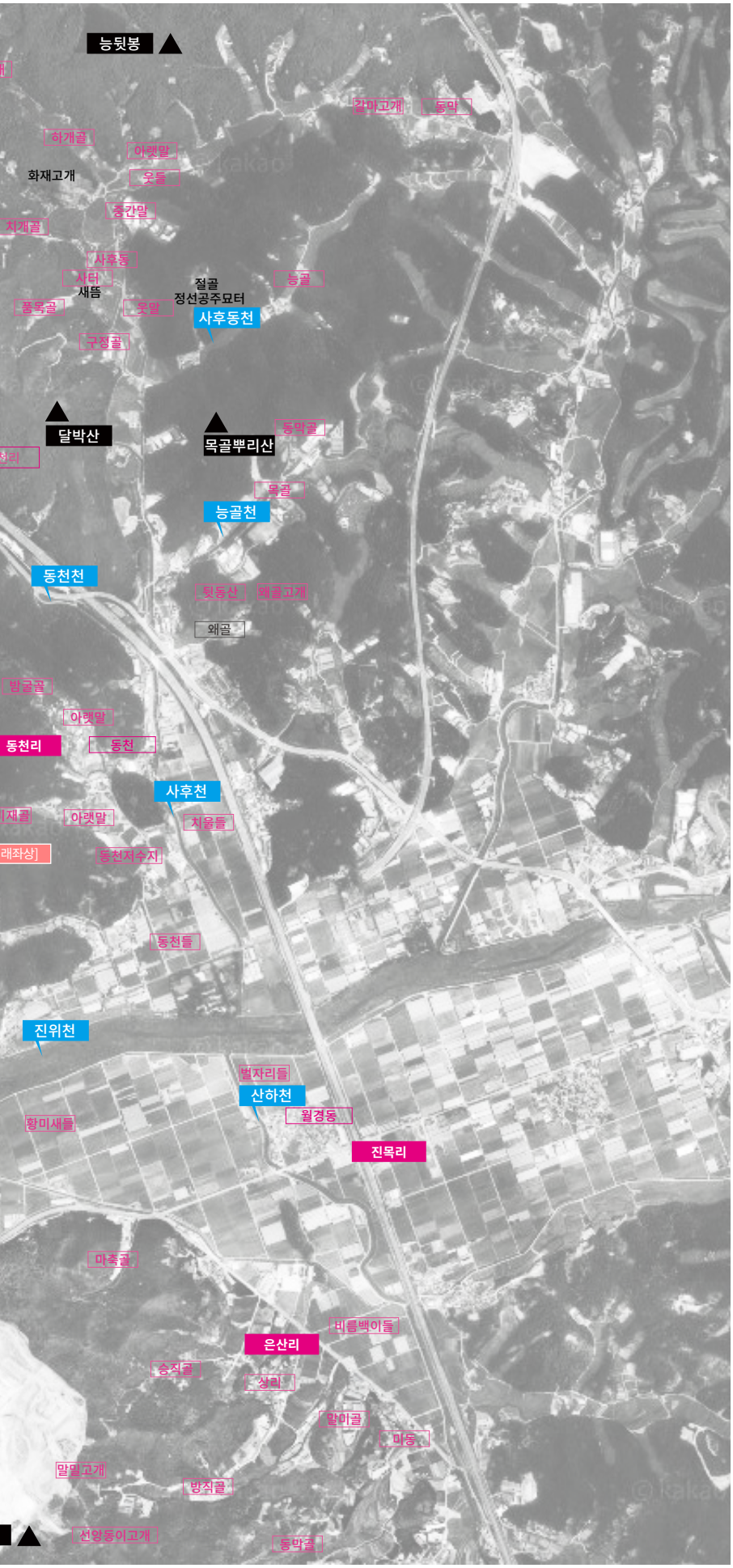
홍원제지 공장 1957년 준공
[현, 80년대(추정) 건물 부분 존재]

매일유업 공장 1974년 준공
[현, 신축 추정]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일대 지명 현황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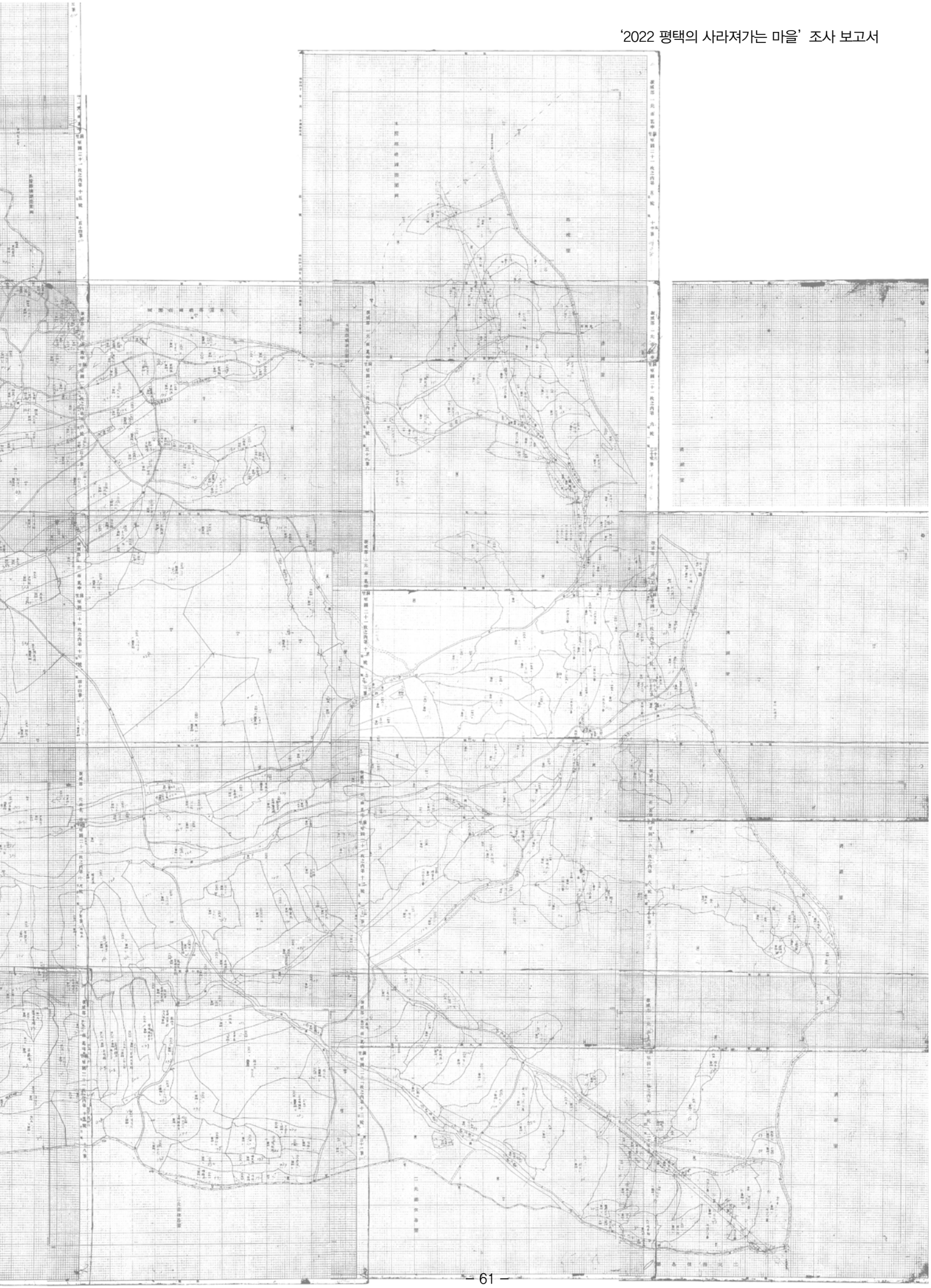
가곡리	1960~70년대 지도에 나타난 마을명
동천	1975~76년대 지도에 나타난 지명(출처:국토지리정보원)
소나무숲	마을주민 인터뷰 조사를 통한 지명(장연환 조사)
장안들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07-9, 문화유적분포지도 -평택시편-. 2007년" 보고서 지도에 나타나는 지명 및 산성
가곡리	현재 지명
사후동천	하천명
진위사	주요지정 문화재 및 역사 유적지
무봉산	주요 산 및 봉우리 명칭
진위교	교량 명칭

항공사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8년
수치지형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1975, 76년 지도)

2. 진위면의 공간변화

갈곶리(마을원형-오산시편입지역) 지적원도 | 1910~1918년

- 지적원도출처 : 국가기록원
- 자료수집 및 조사 / 장연환 연구자
-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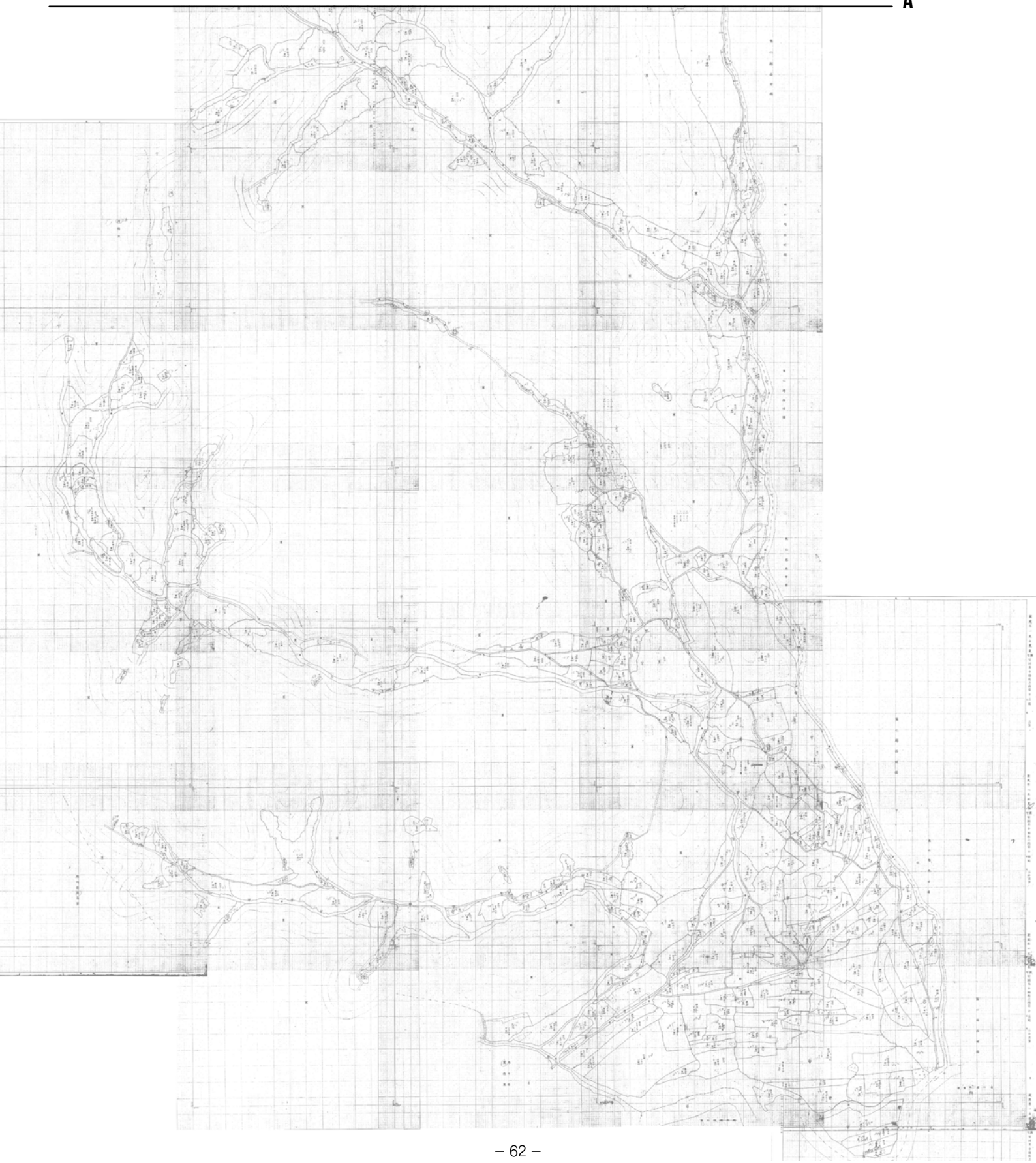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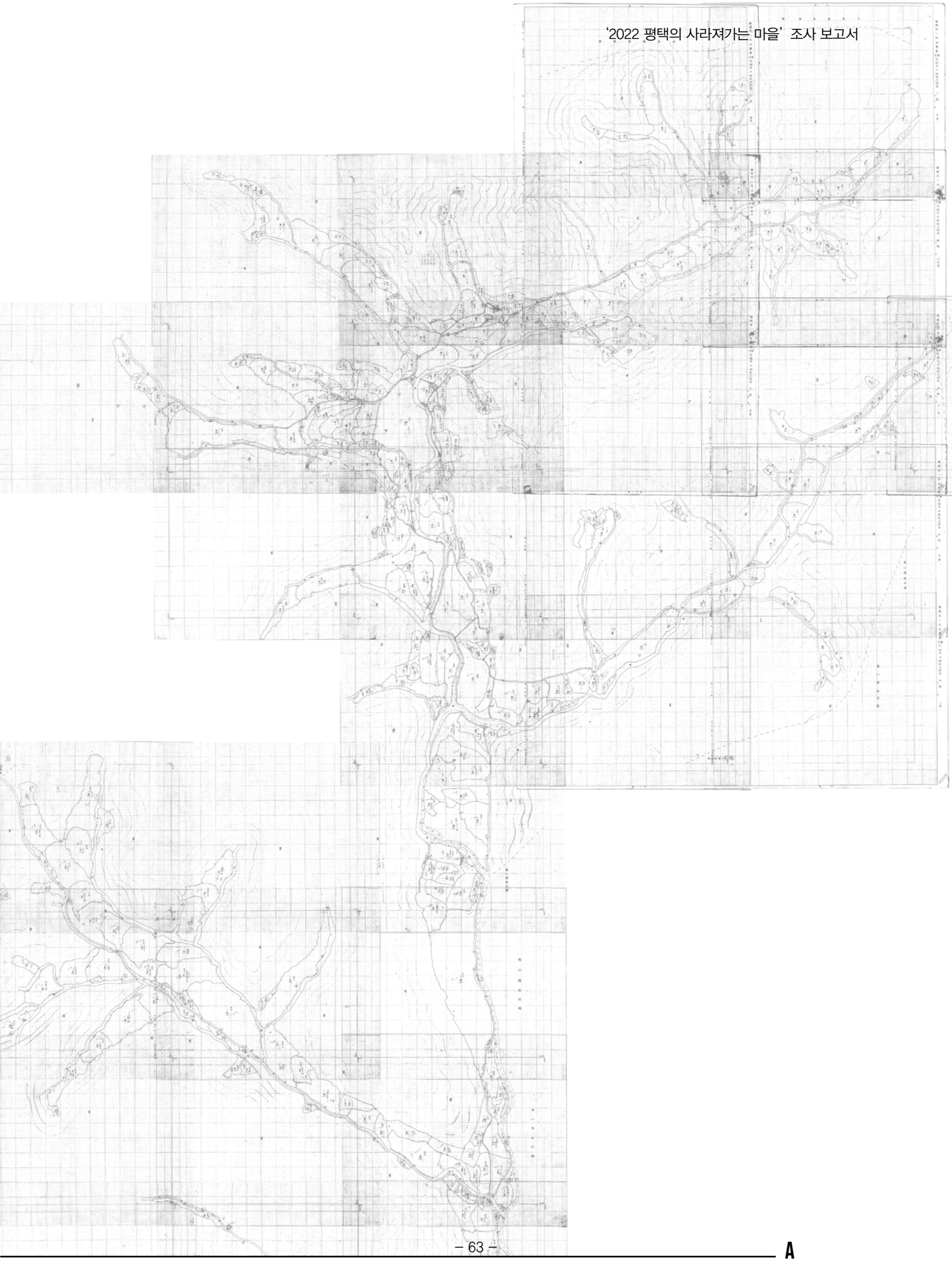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동천리 지적원도 | 1910~1918년

- 지적원도출처 : 국가기록원
- 자료수집 및 조사 / 장연환 연구자
-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재구성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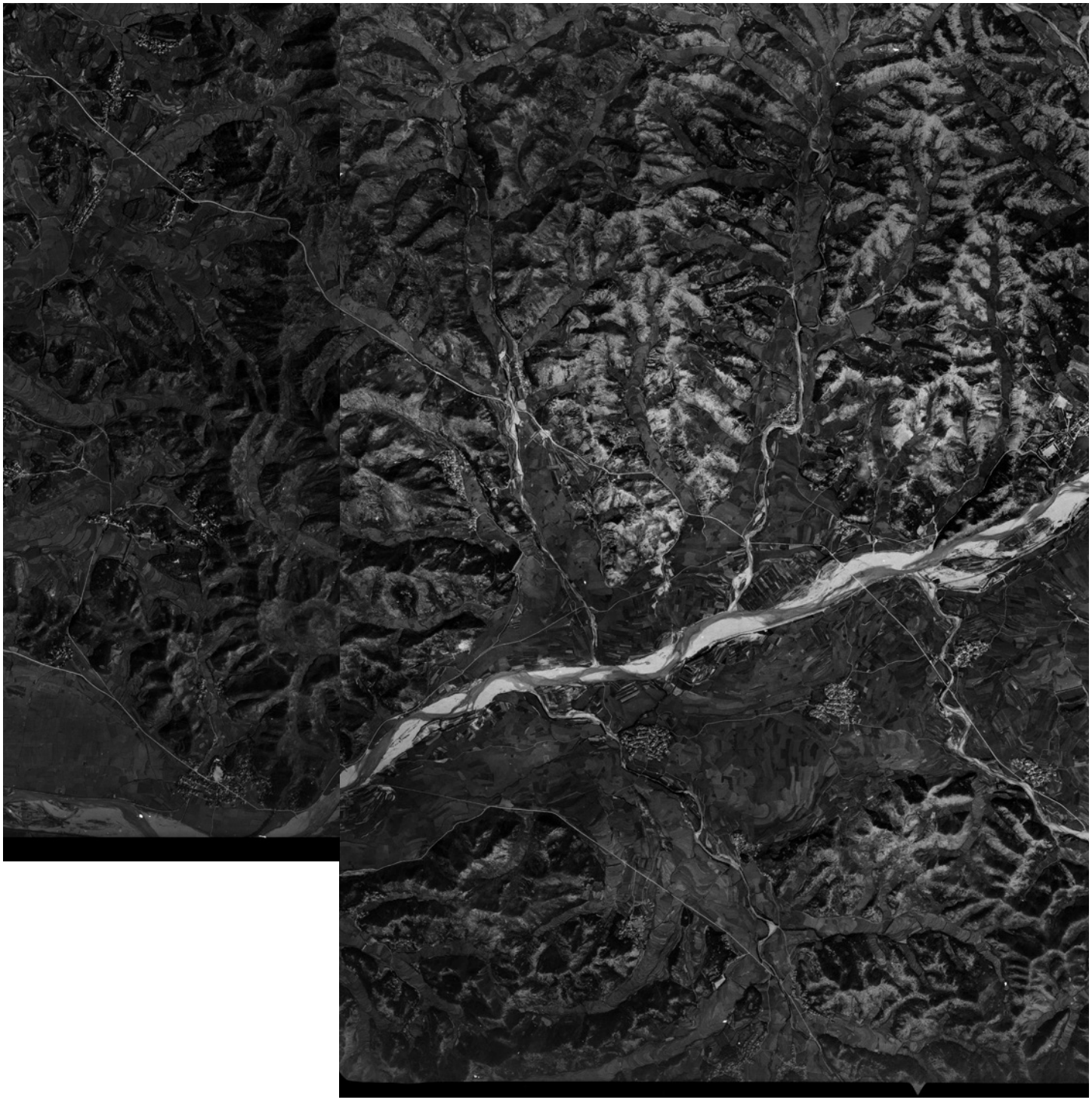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동측)-항공사진 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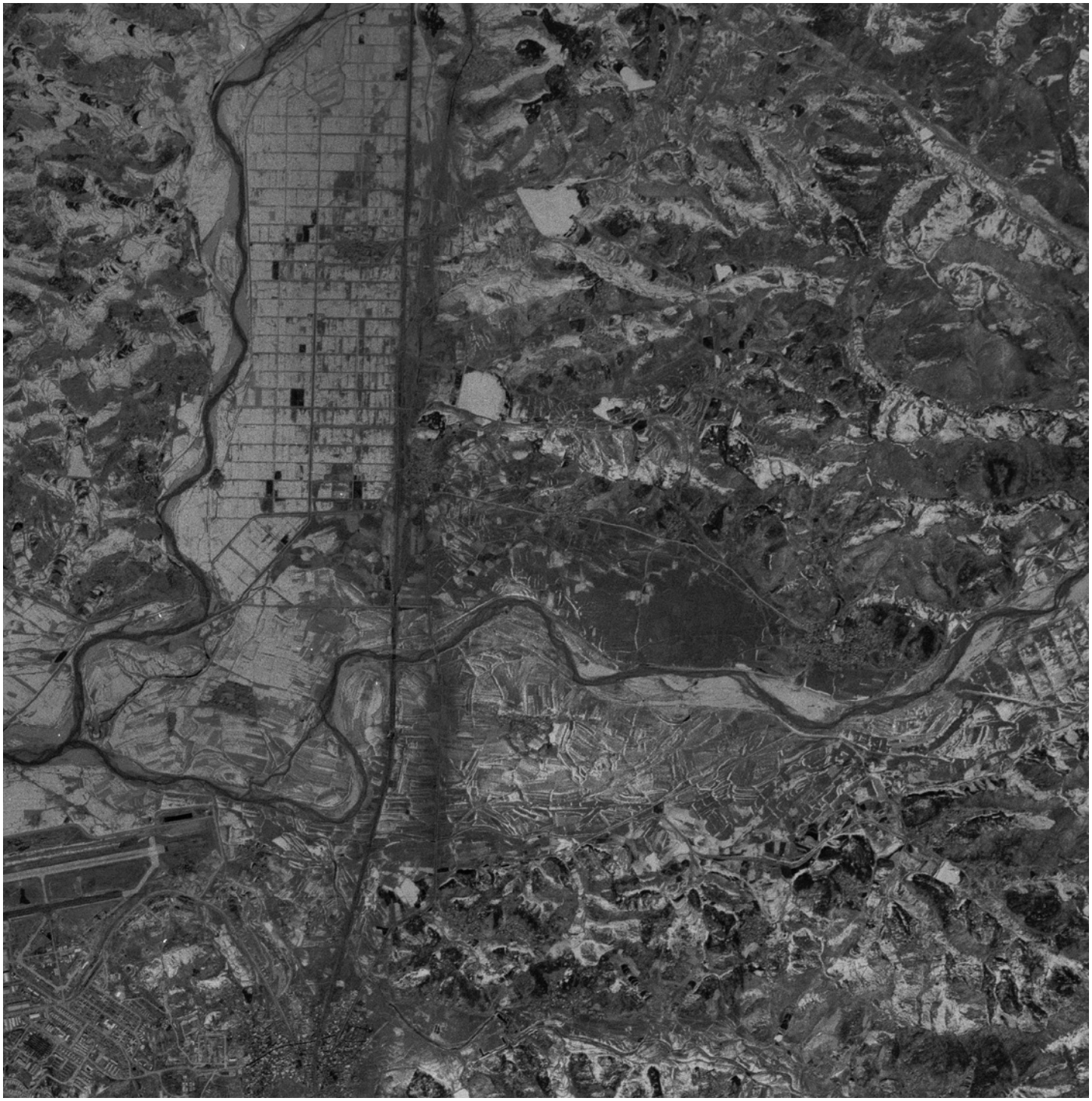
마을의 정확한 공간적 원형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진위면 일대의 초기 항공사진은 1967년, 1969년, 1974년에 제작된 항공사진이다. 1960년대 후반~1970년대의 경지정리, 도로 변화, 산업 시설(공장)의 출현 이전을 진위면 마을의 원형으로 가정할때, 1967년 항공사진은 자연발생마을의 원형으로서의 공간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69년 항공사진은 마을의 위치 및 개략적인 건축물 분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해상도가 낮아 세세한 마을 공간을 확인하기 어렵다.
마을 공간 원형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1967년 항공사진을 마을별로 확대하였다.

1967년 항공사진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진위면-항공사진 1969년 A

1969년 항공사진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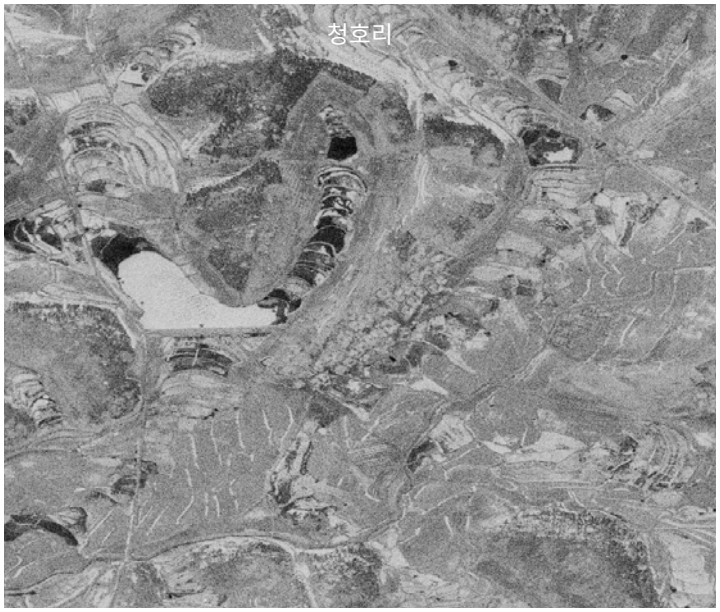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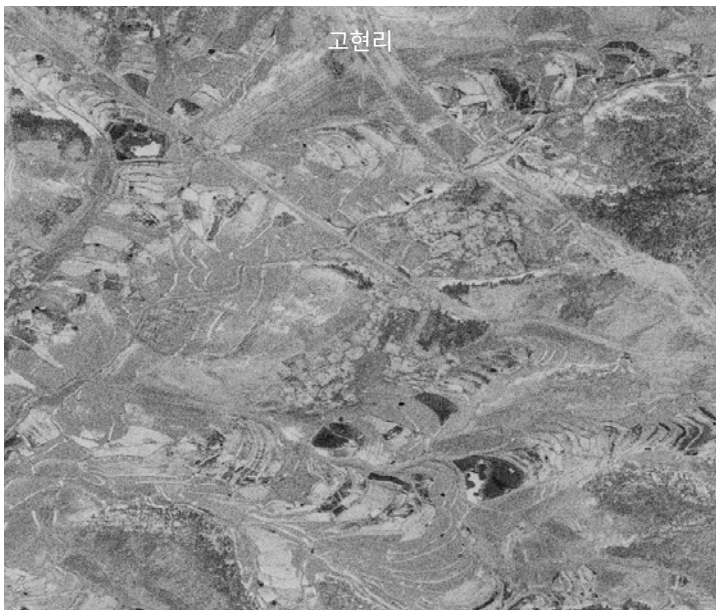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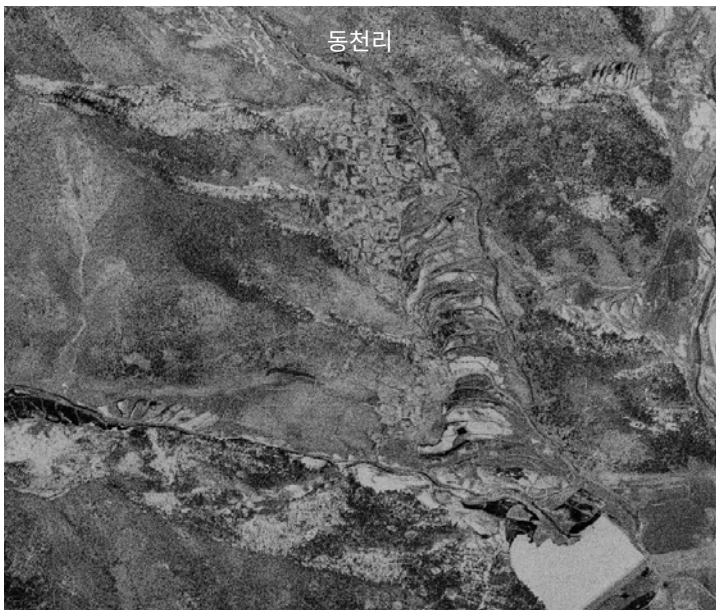
진위면-항공사진 1969년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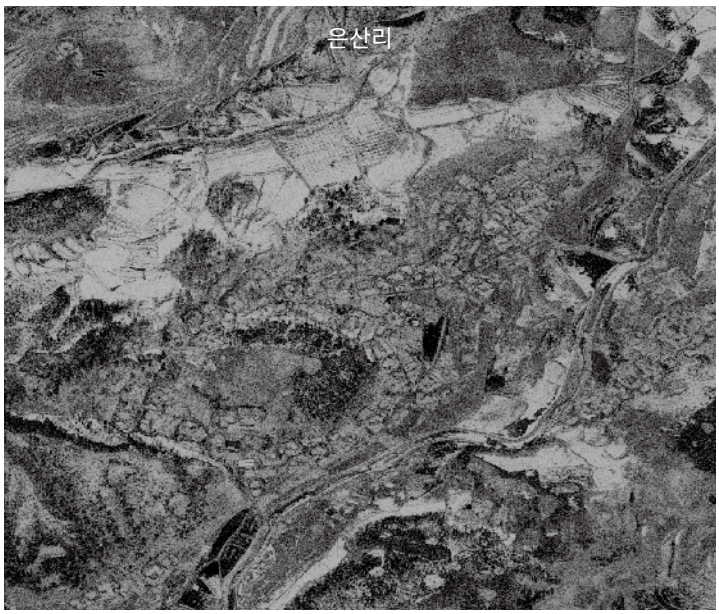
1969년 항공사진 [(B040)항공사진_196902055400010246]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9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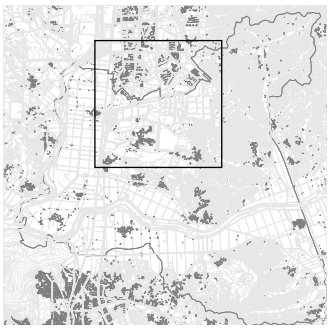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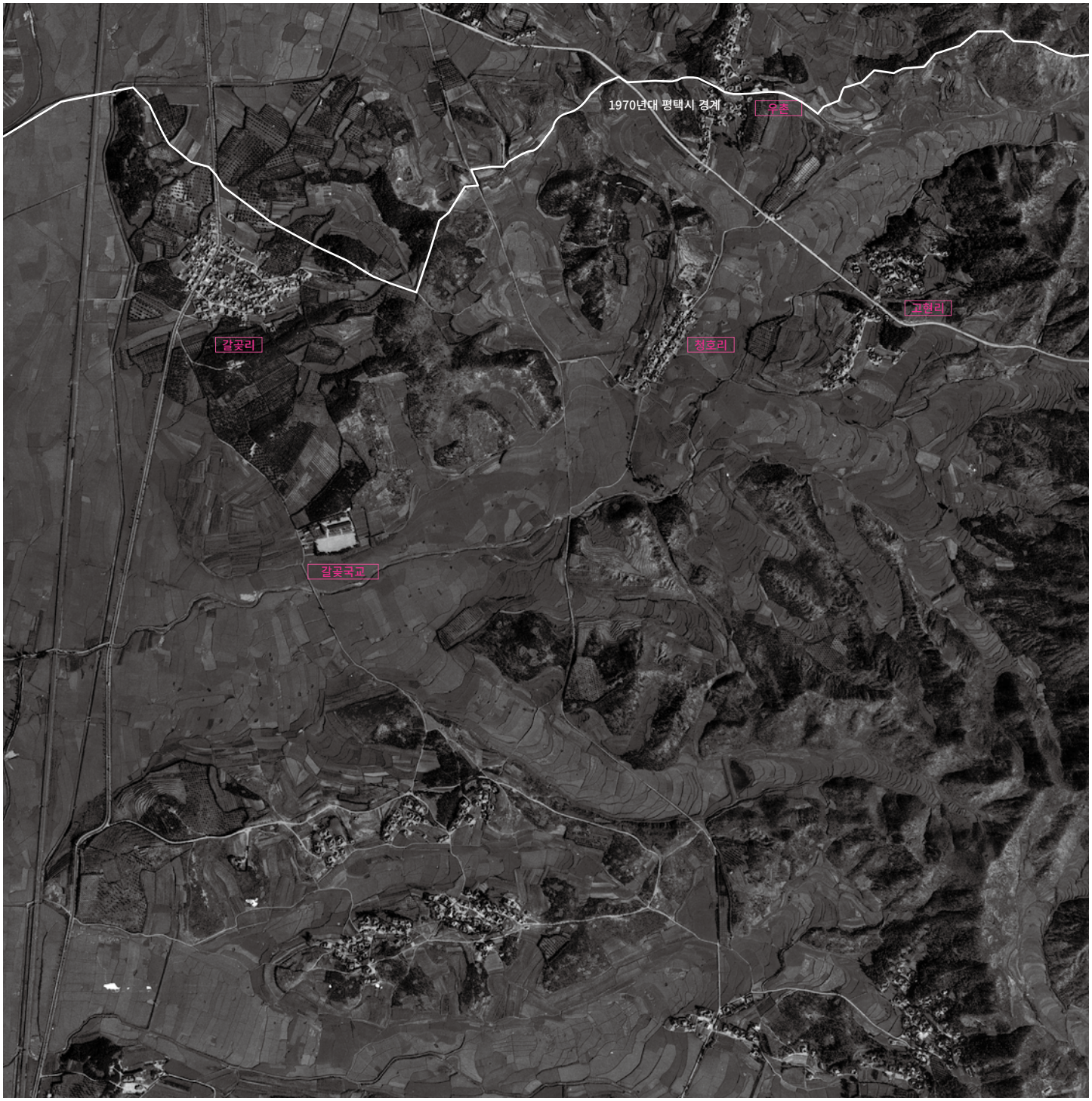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1967년- 갈곶리(1,2리), 청호리, 고현리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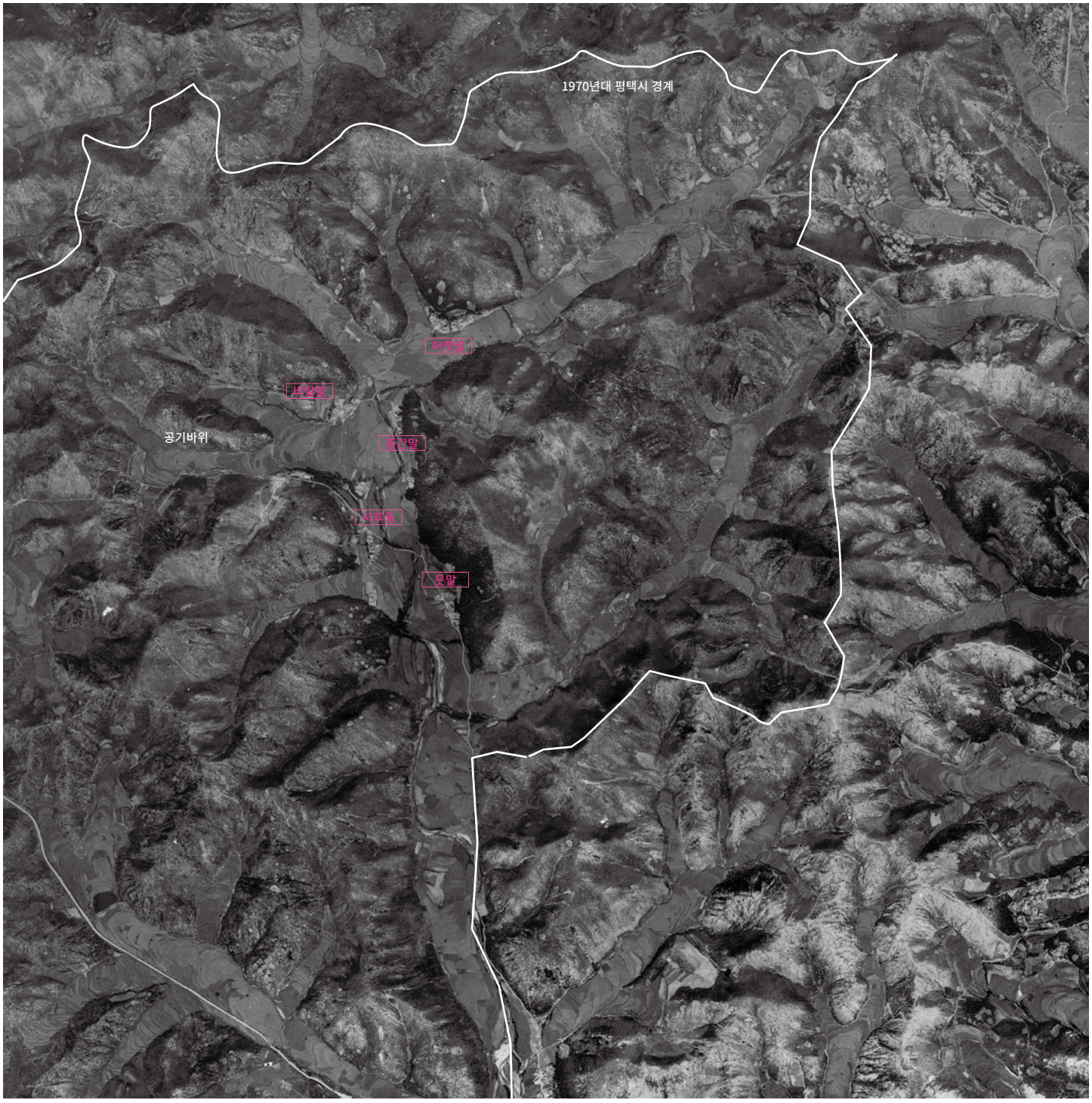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1967년 - 동천리 (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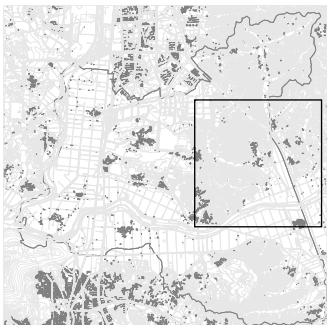
지명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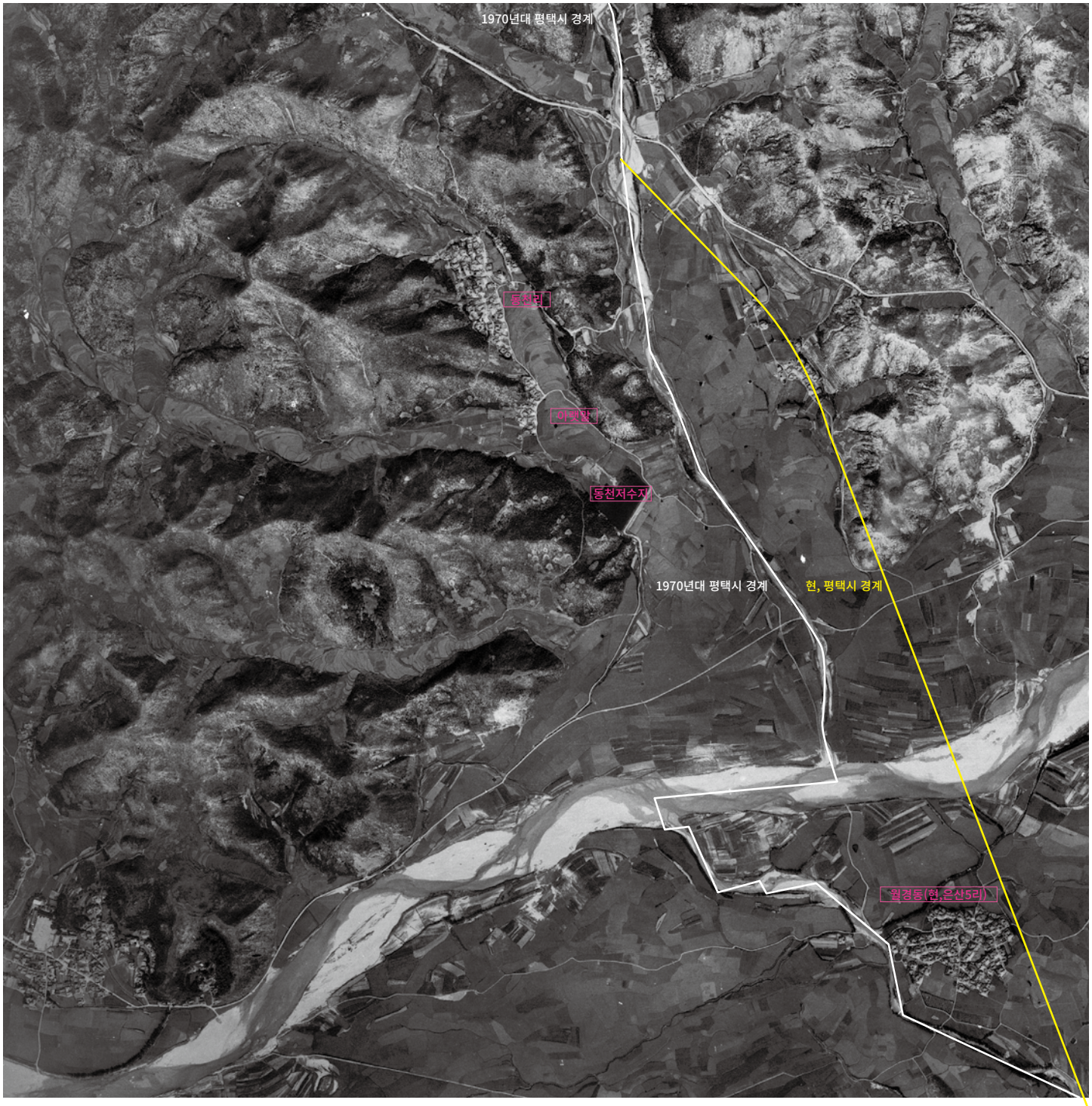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1967년- 동천리 (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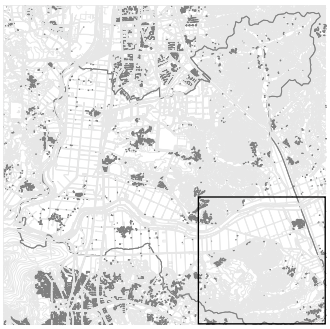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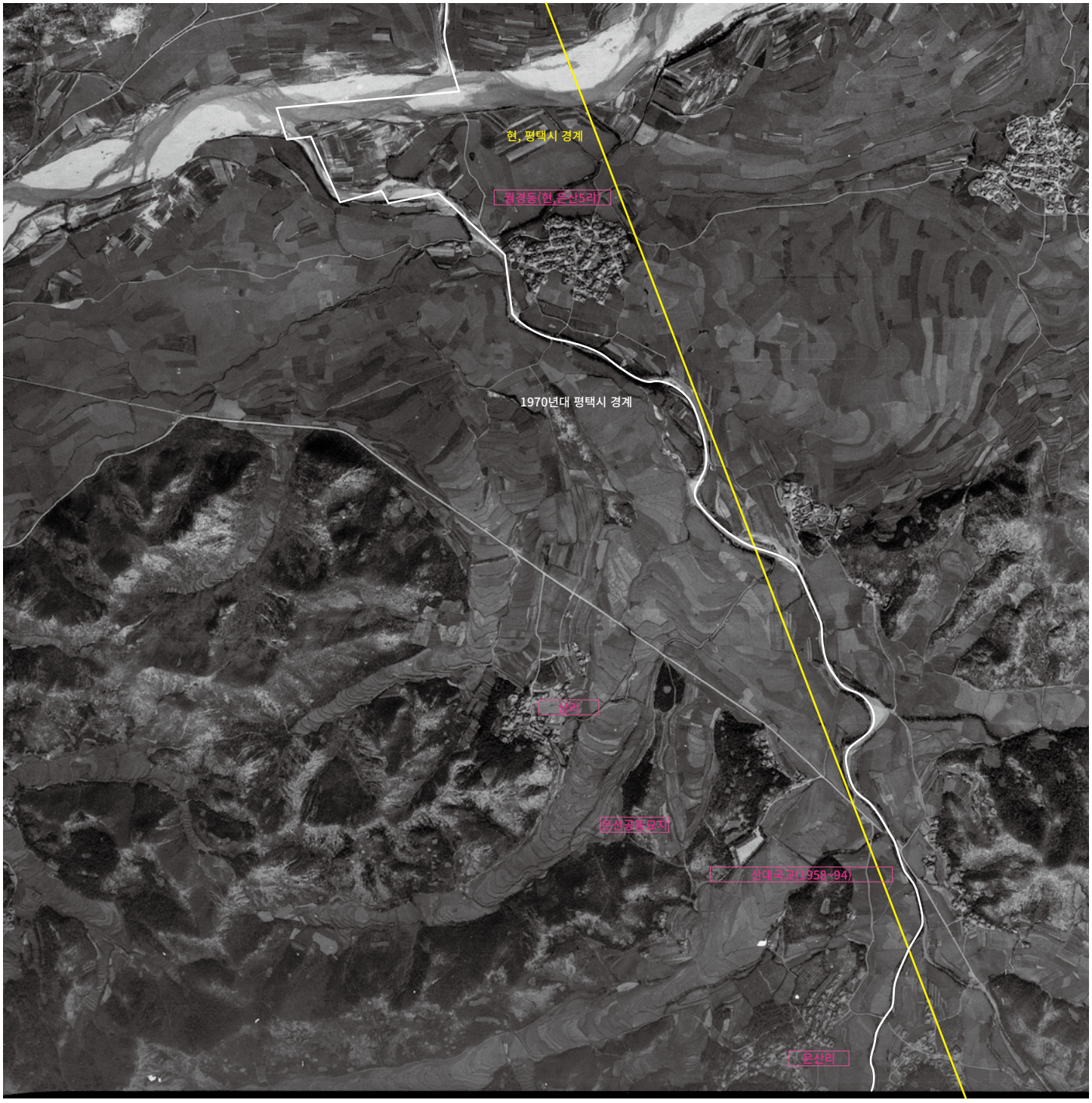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1967년 - 은산리 (1,2,3,4,5 리)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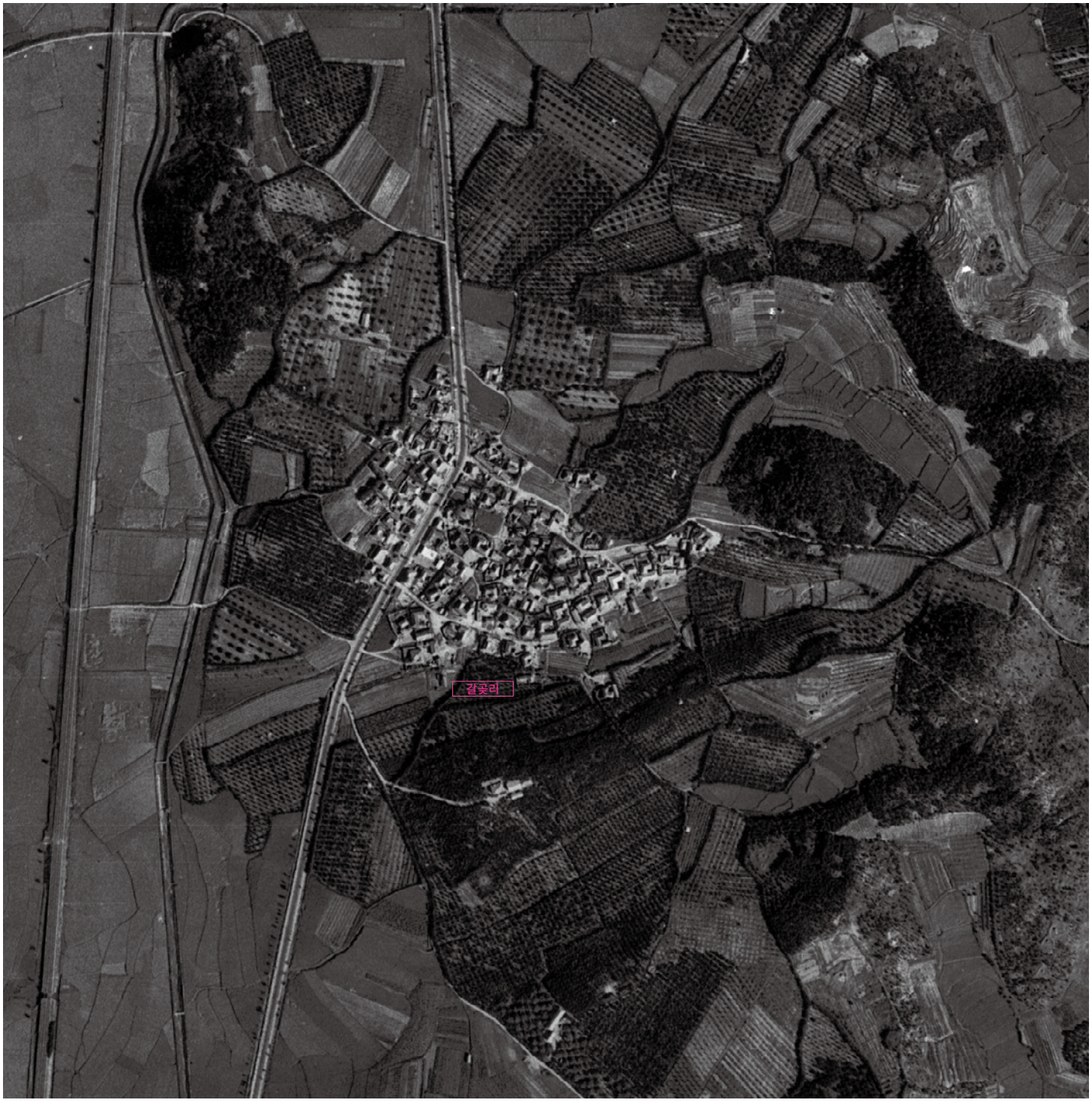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1967년- 갈곶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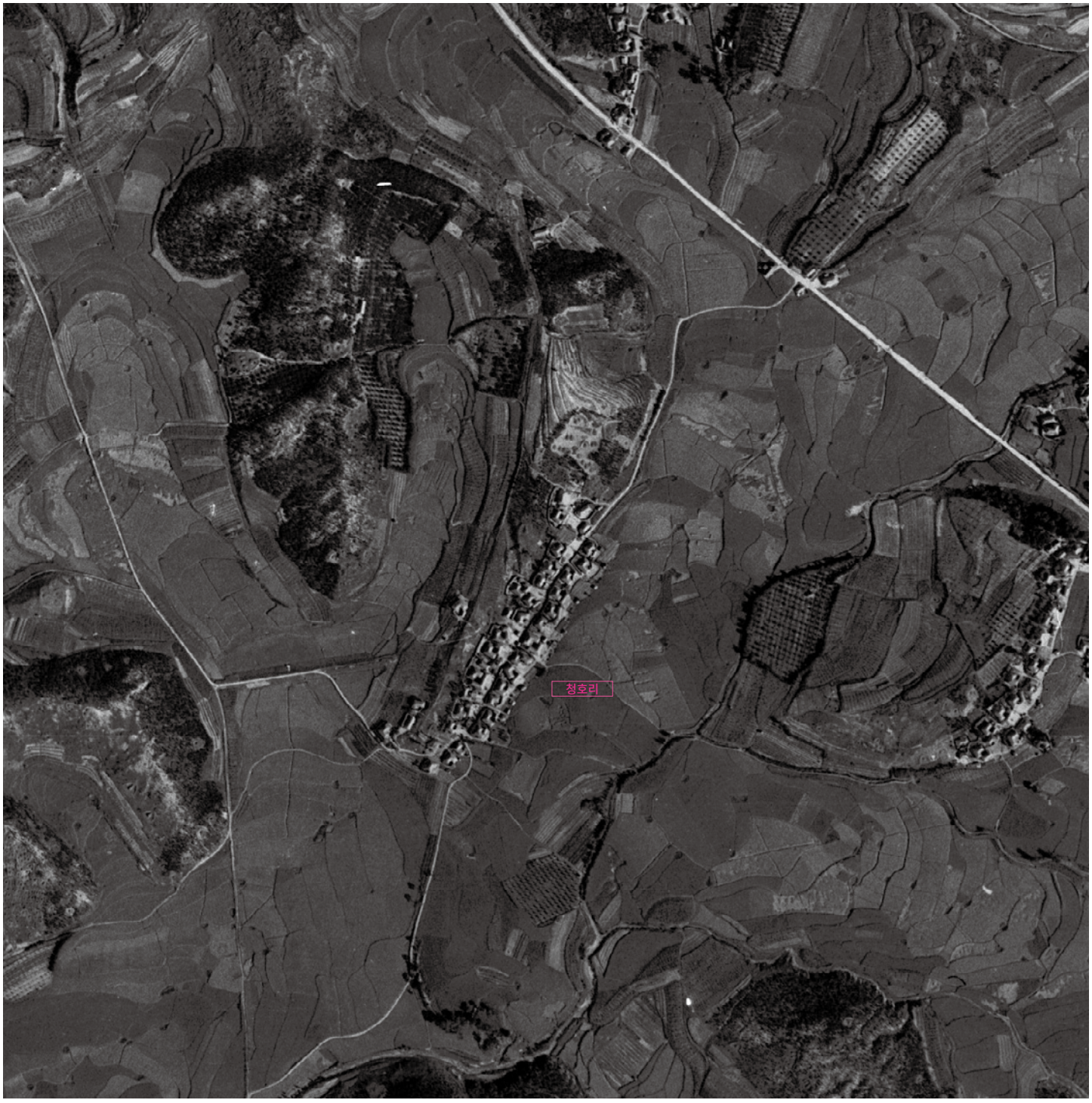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1967년- 청호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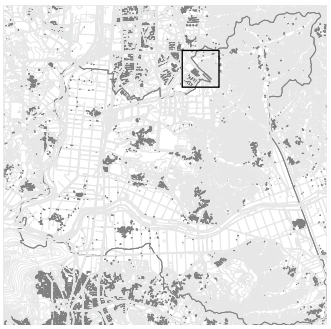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지명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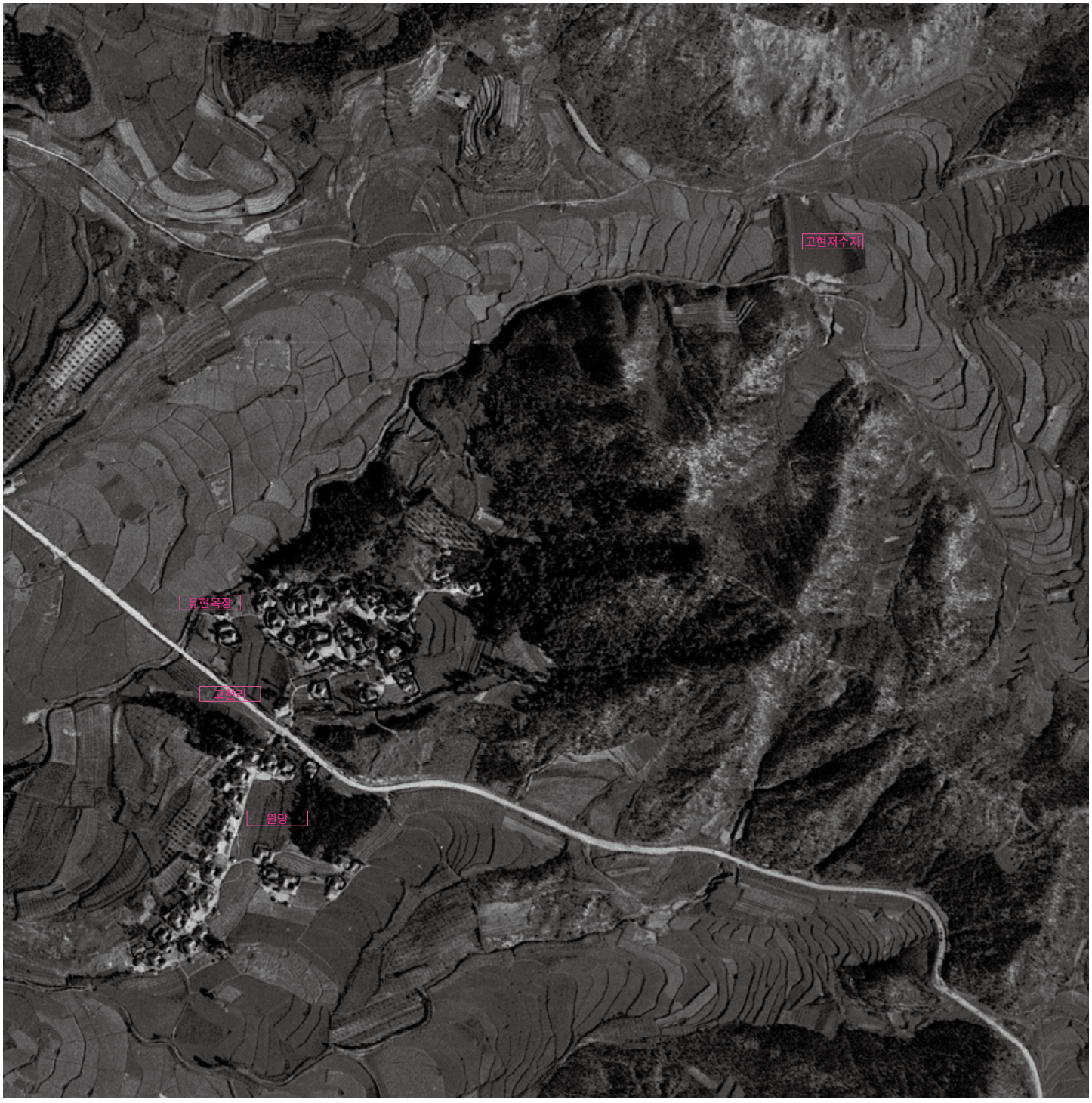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1967년- 고현리 (서측)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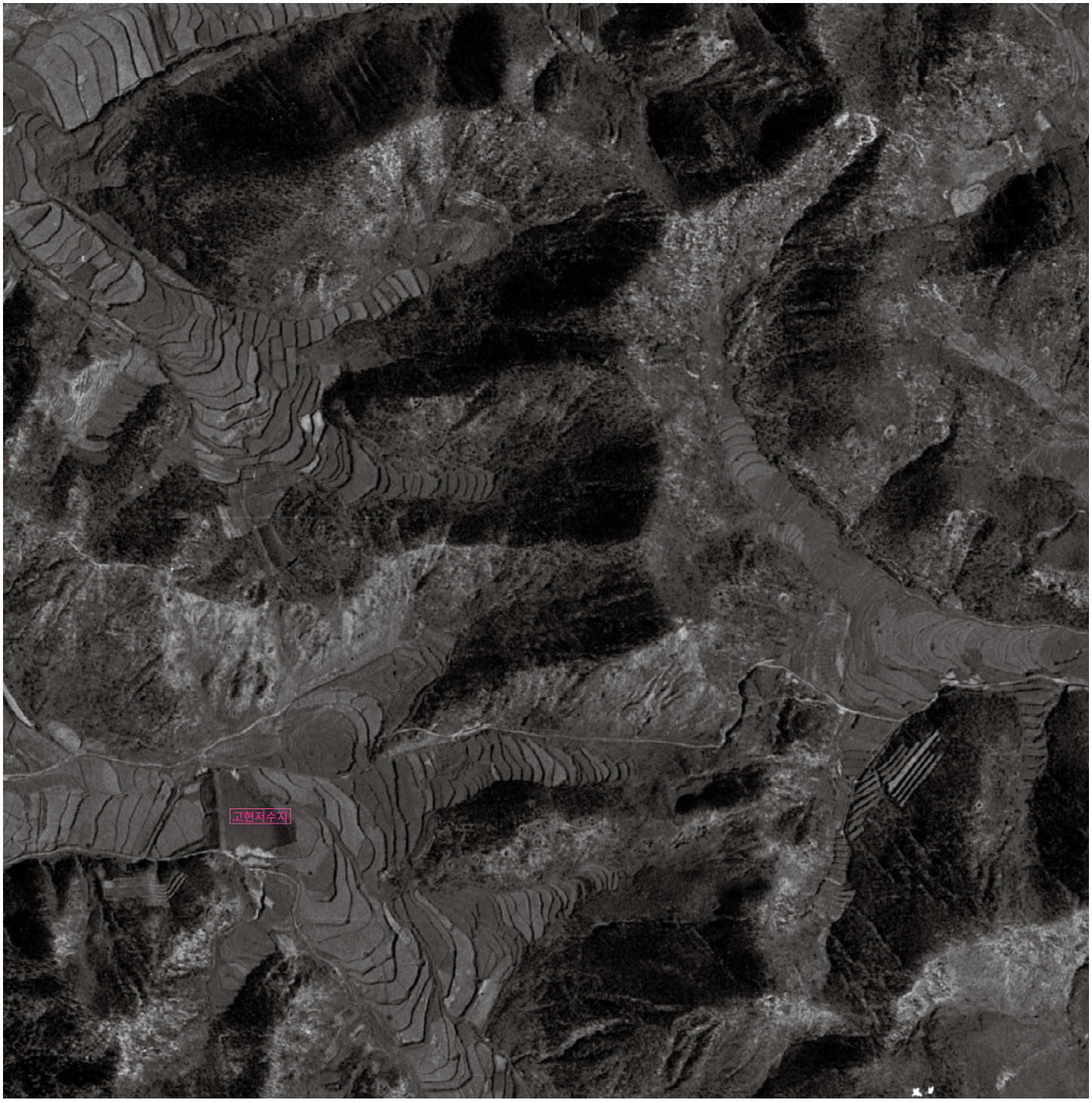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1967년- 고현리 (북동측)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지명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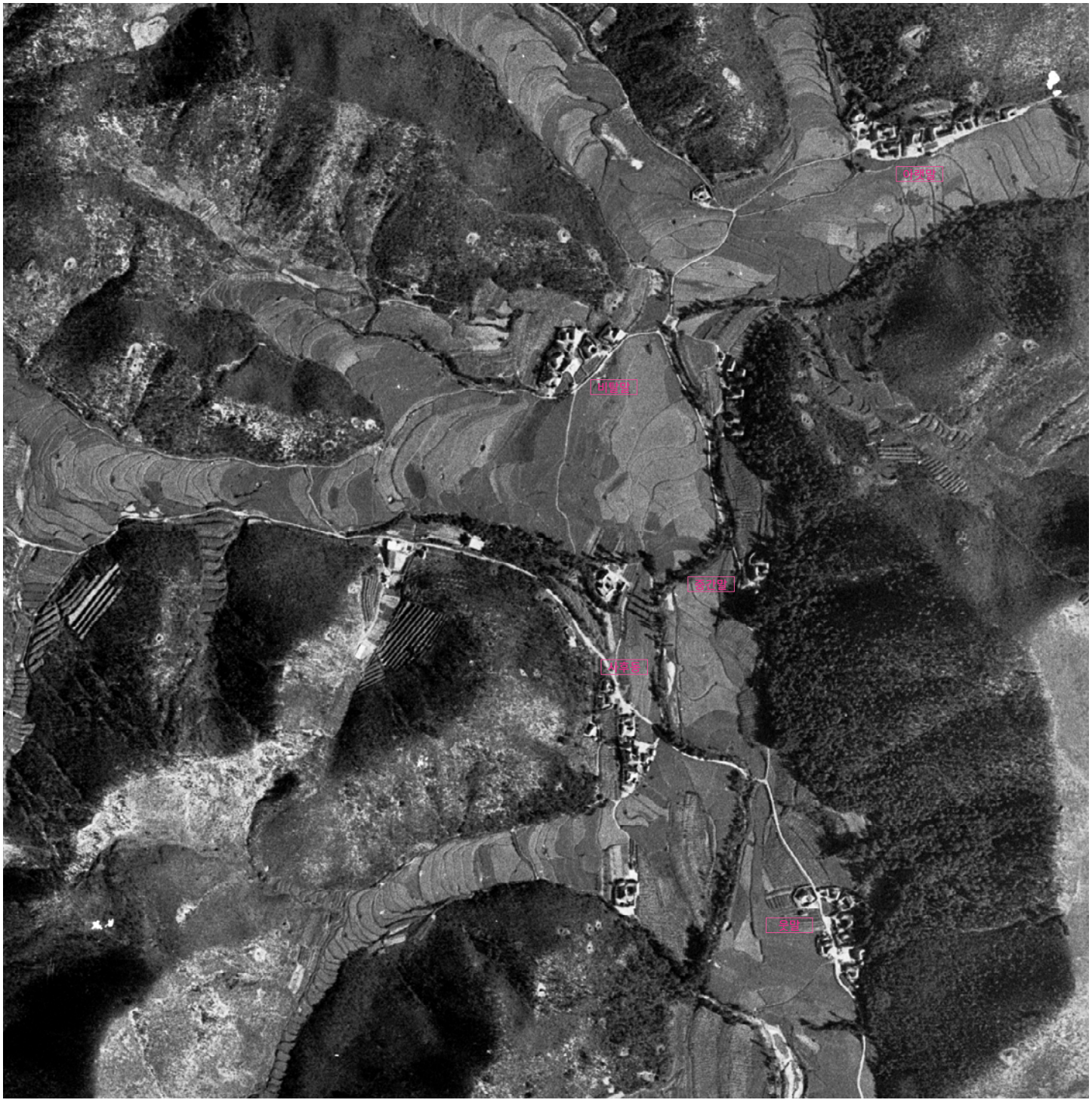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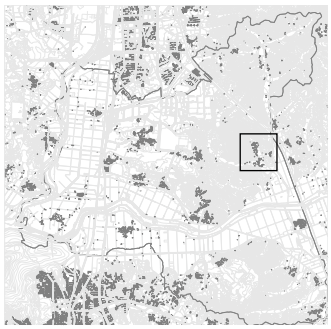
1967년- 동천리 (2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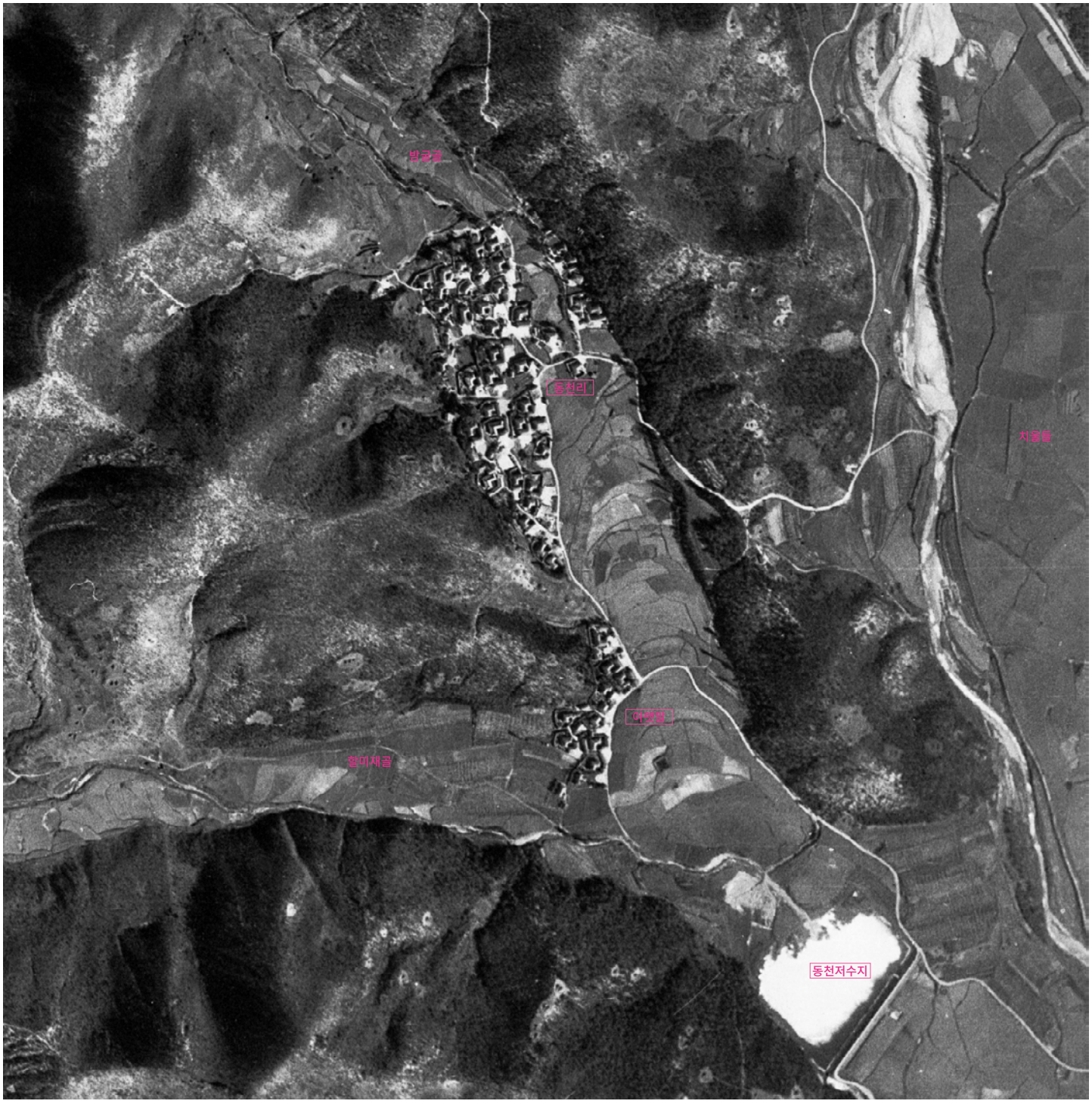


1967년 - 동천리 (1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지명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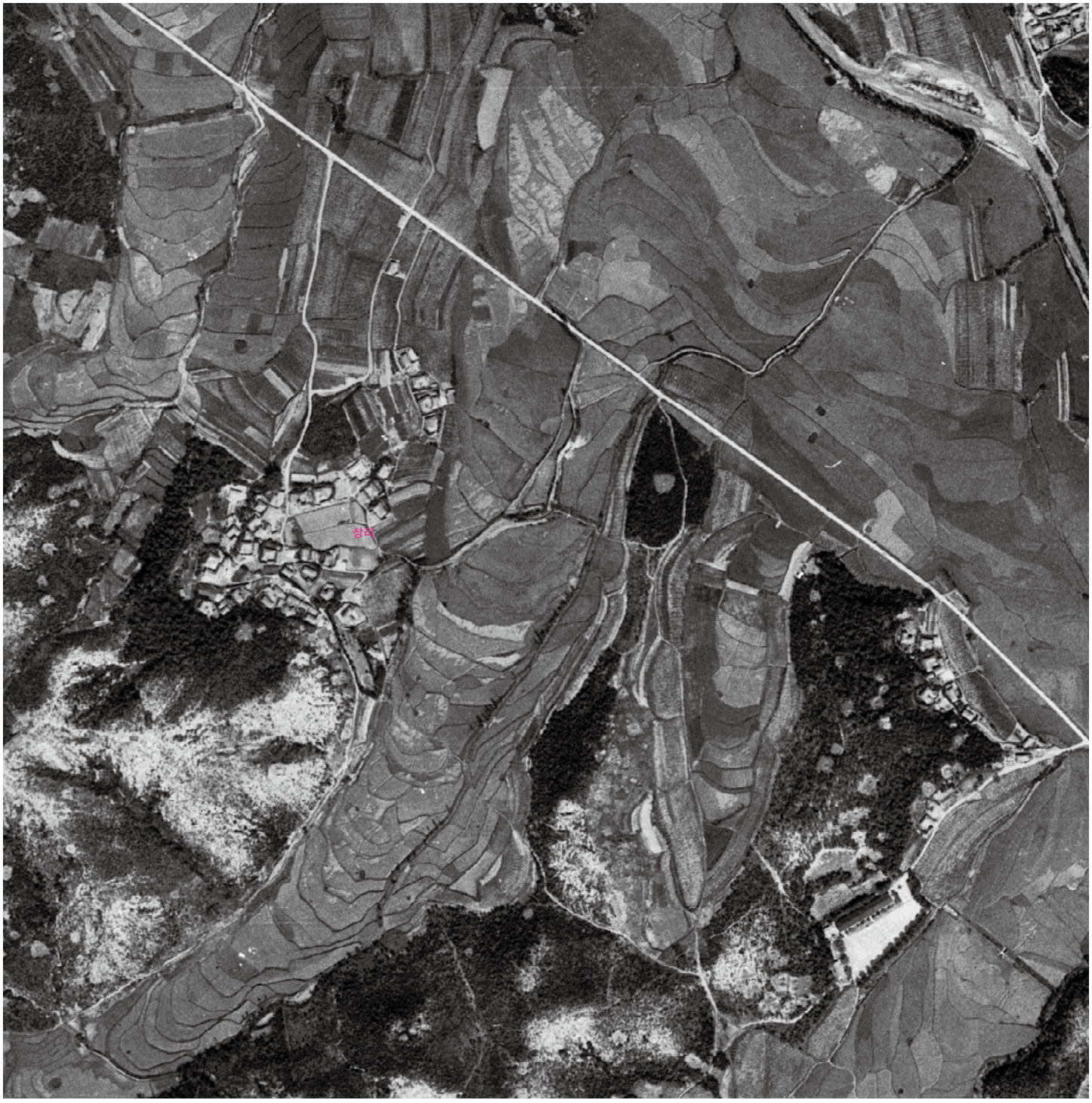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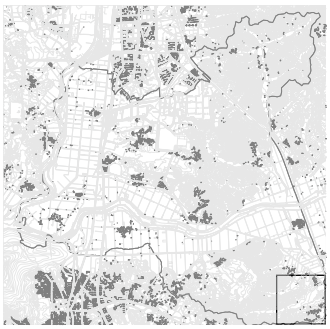
1967년- 은산리 (3,4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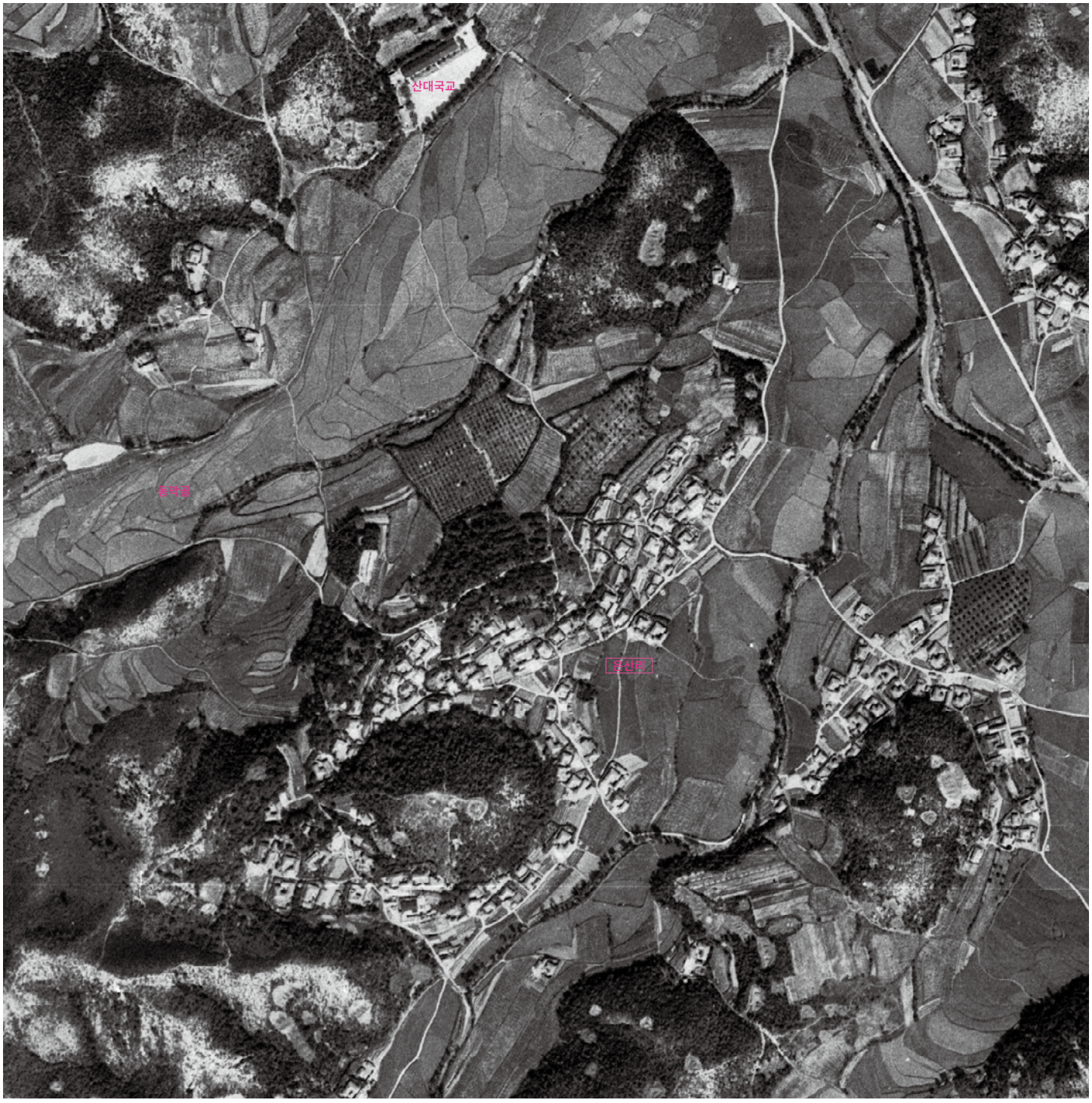


1967년 - 은산리 (1,2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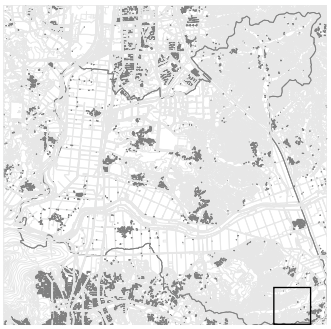


지명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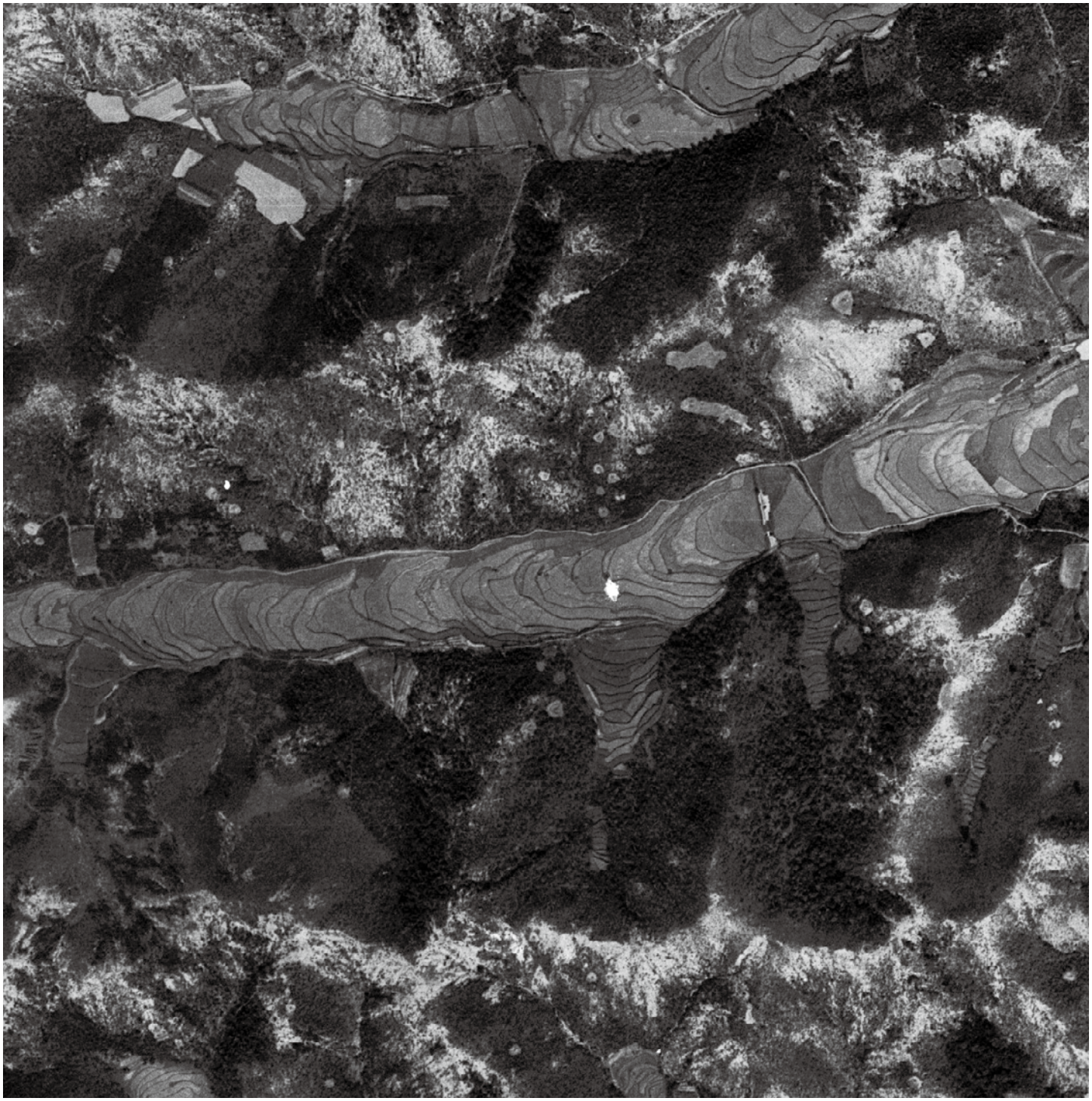


1967년- 은산리(1리) 동막골(은산리 서측 골짜기)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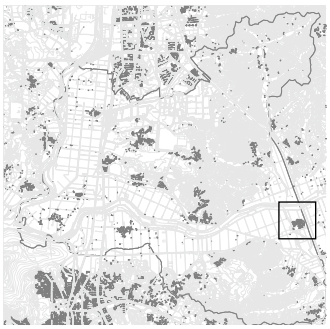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1967년 - 은산리 (5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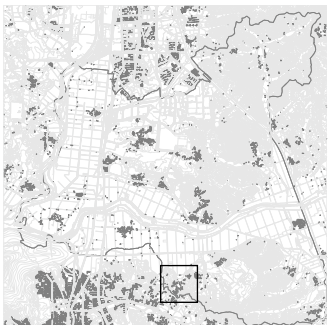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지명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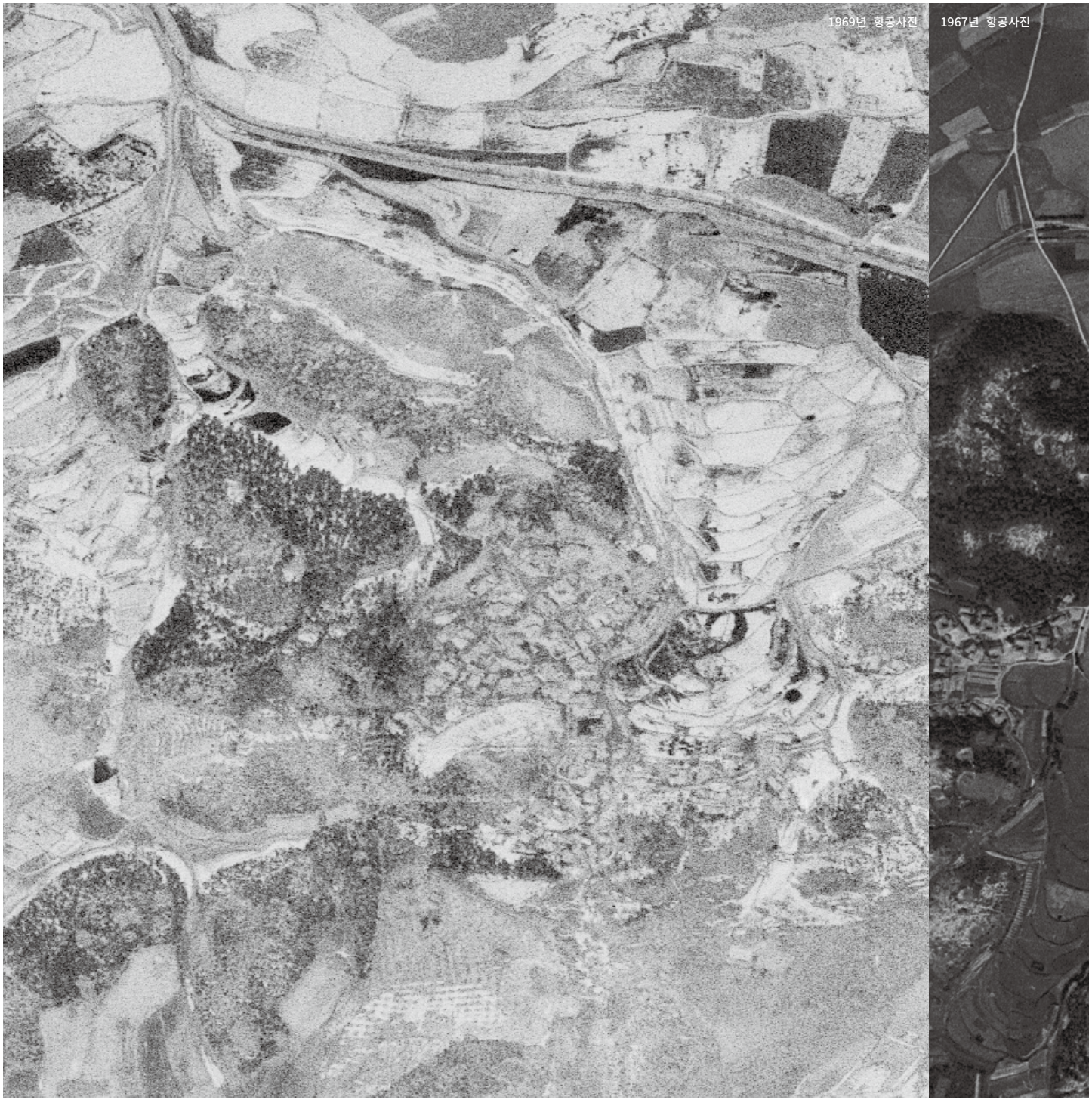
2. 진위면의 공간변화

1969년- 마산리(1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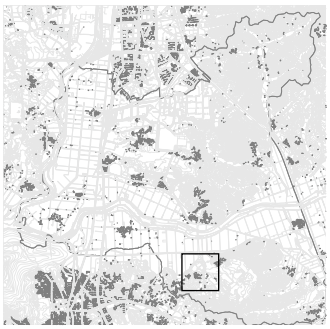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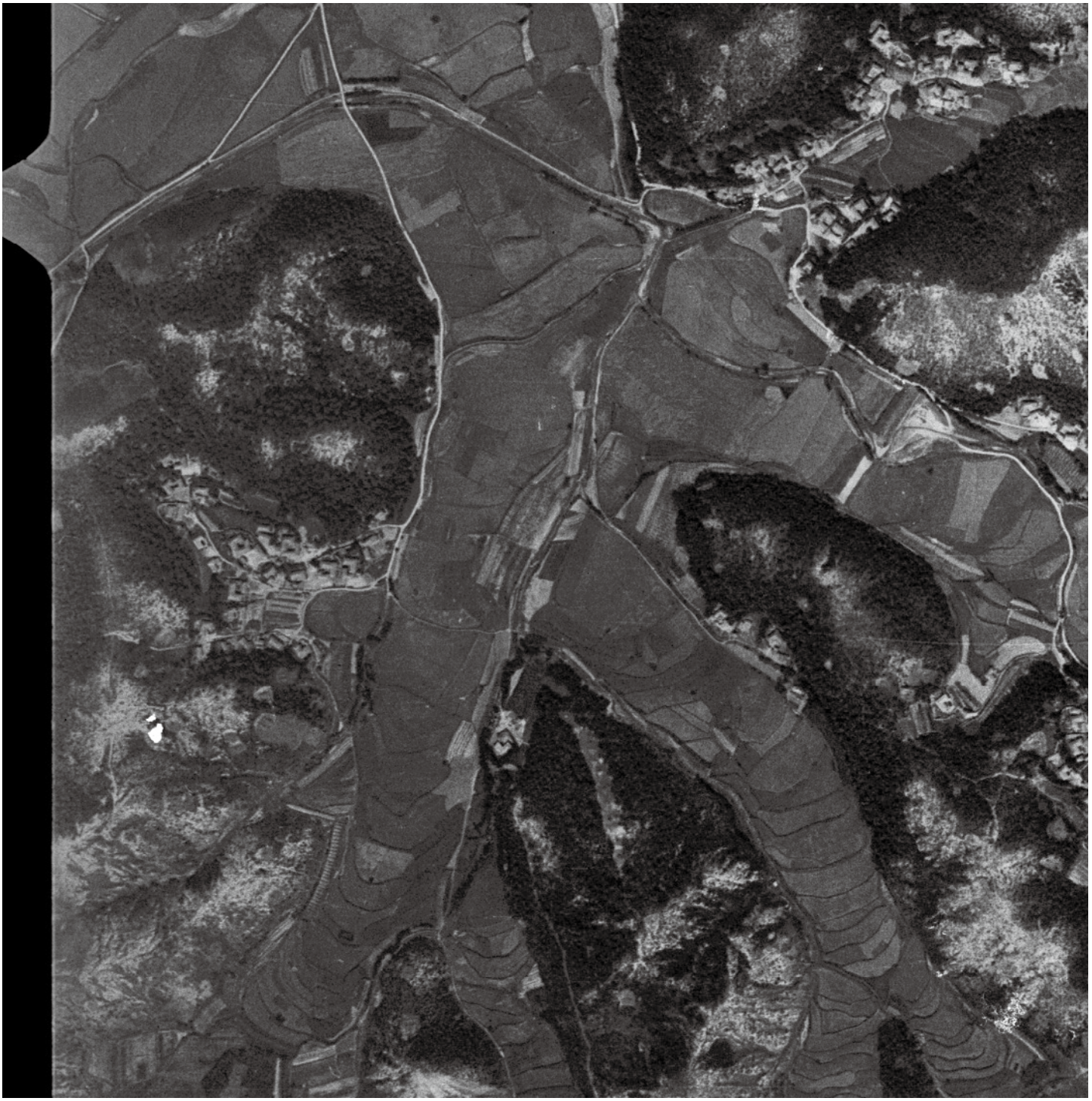


1967년 - 마산리 (2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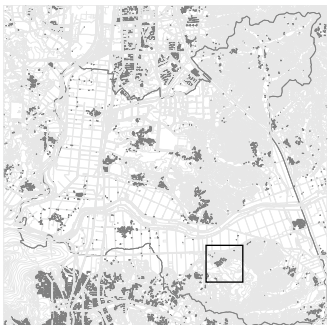


지명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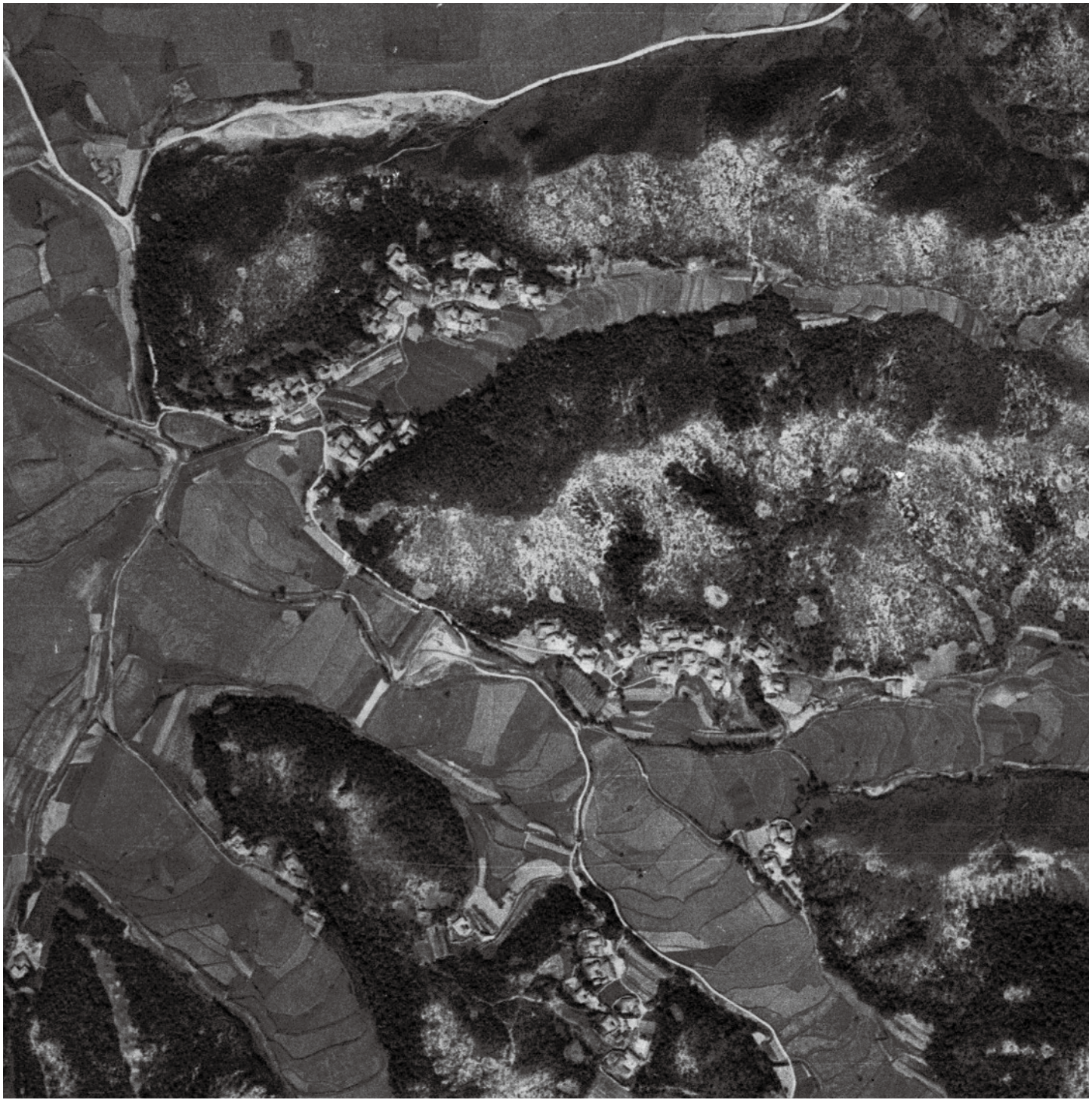


1969년- 마산리(3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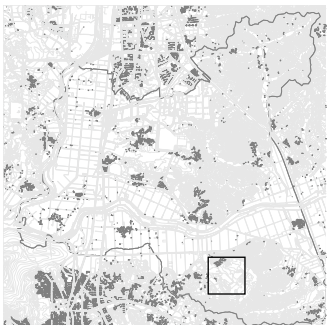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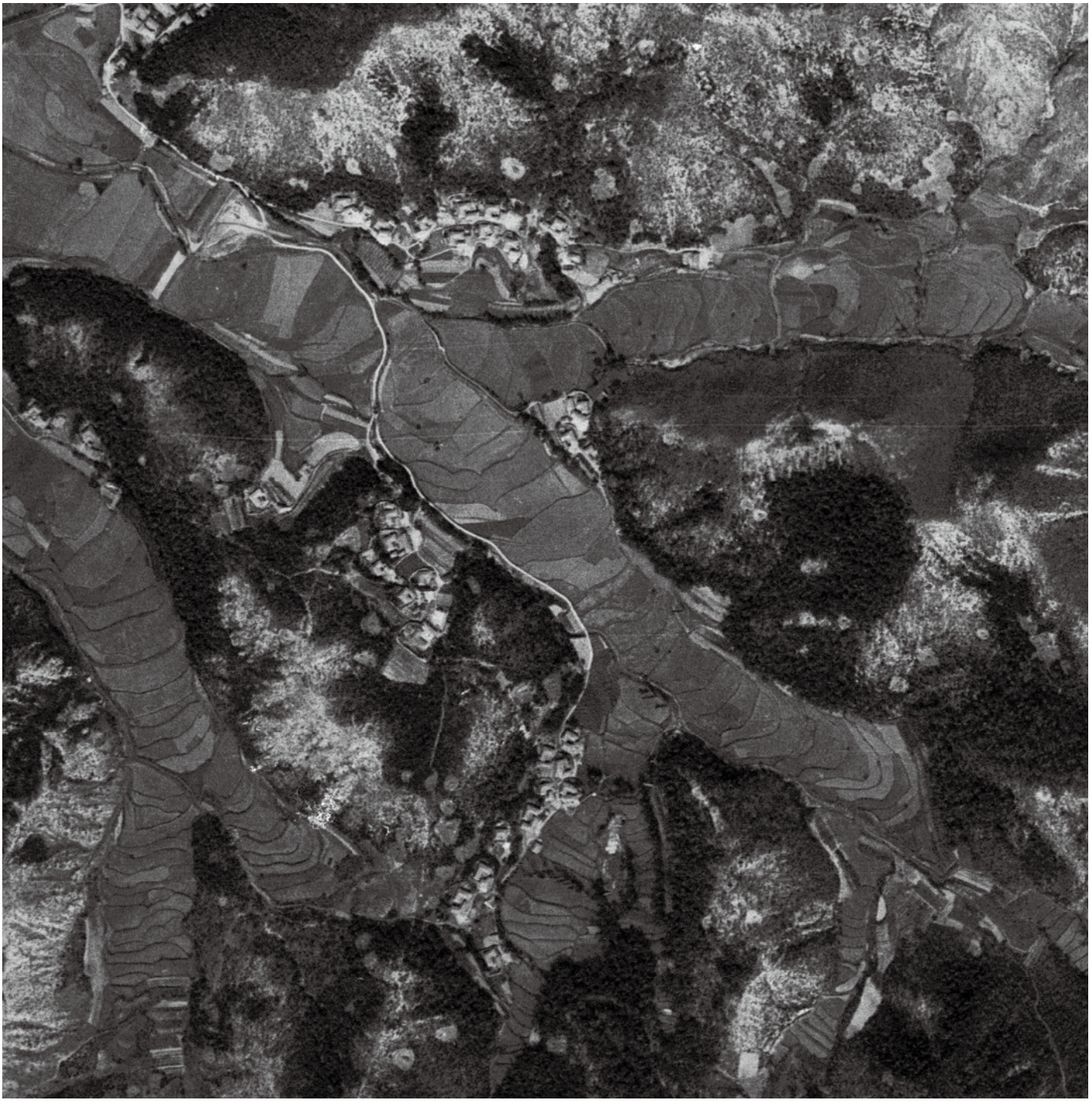


1967년 - 마산리 (4리) / 마을단위 항공사진 확대



지명 1975-76년 지도에 표기된 지명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디트라스 편집]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 1910년대 지도

1914년 지도
(일제강점기 제작지도 - 오산 / 충주14 / 측도연도 1914년 / 수정측도 1919 제1회)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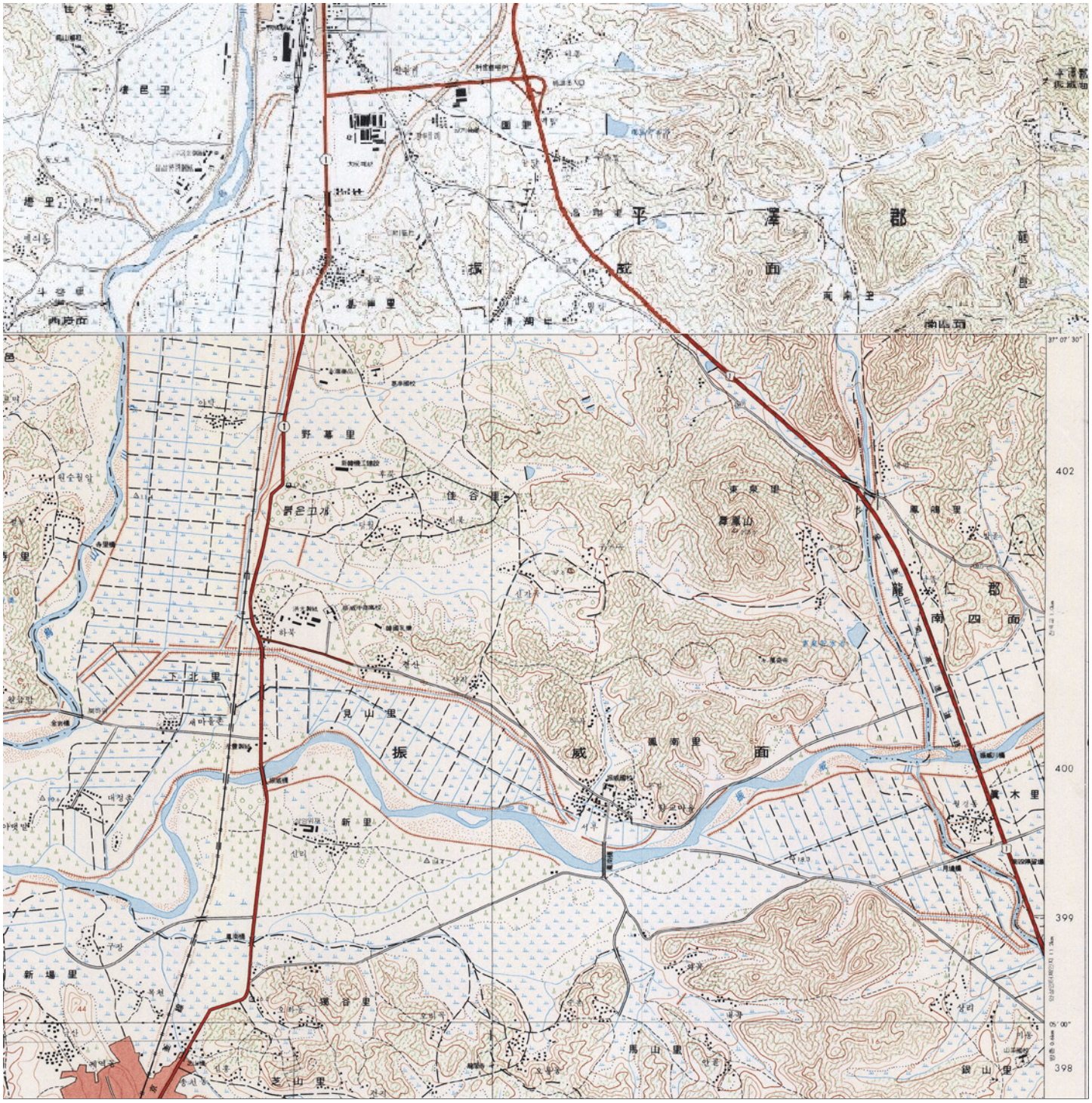
진위면 1960년대 지도

1963년 편집
1969년 11월 추가복제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 : 국립건설연구소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 진위면의 공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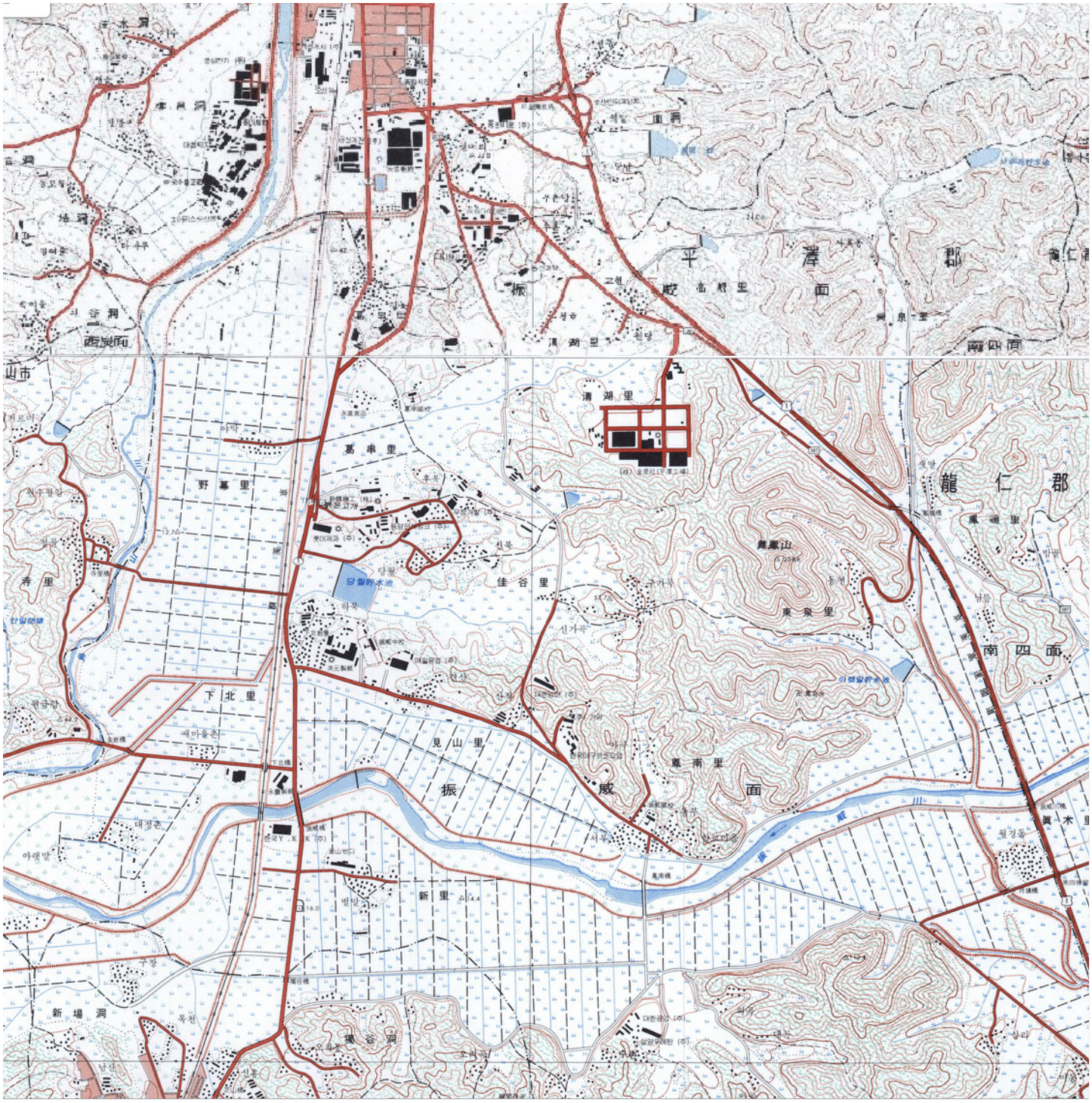
진위면 1970년대 지도

1969년 편집 1977년 수정
항공사진촬영 1974년 / 지리조사 1976년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진위면 1980년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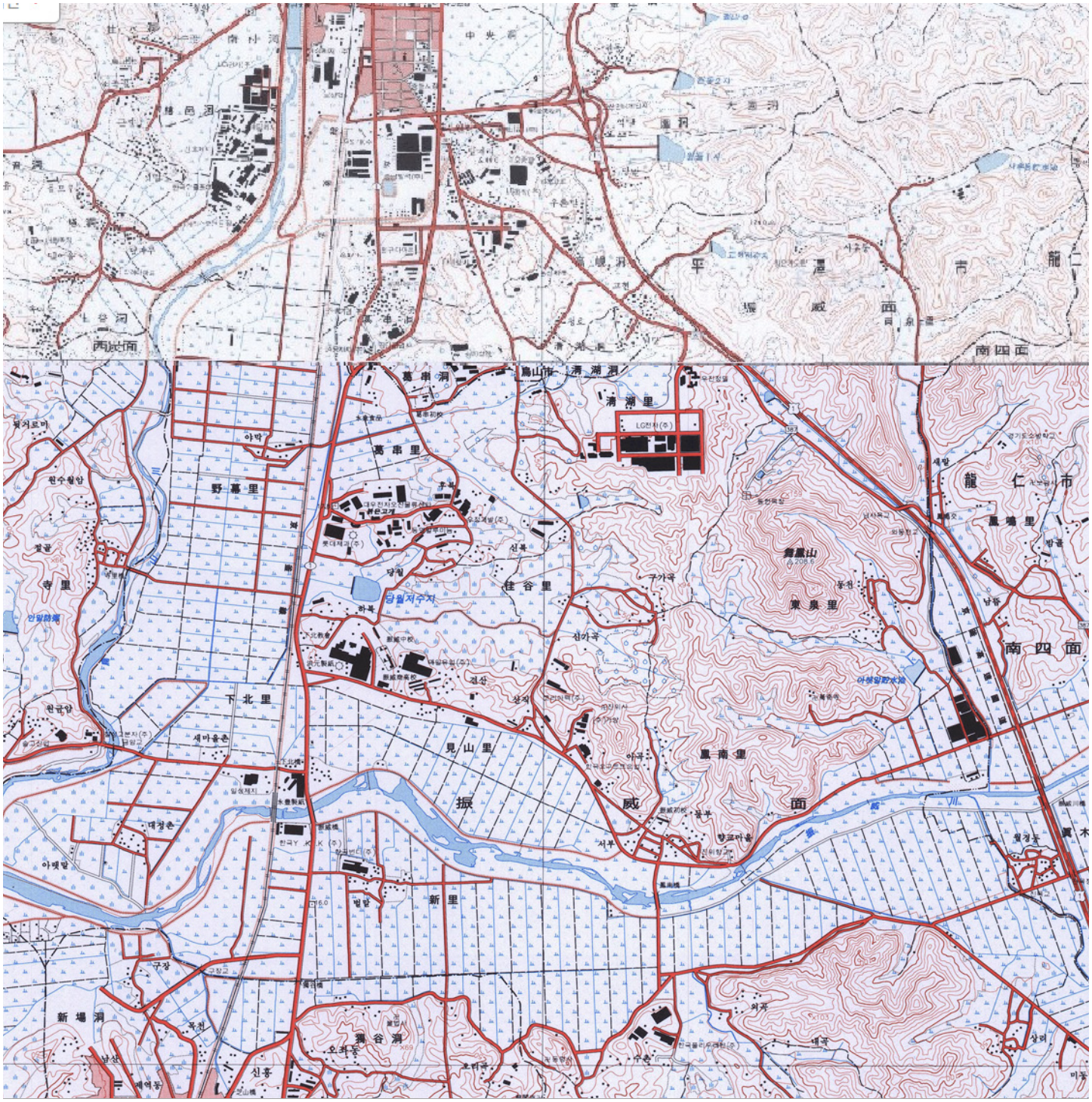
1987년 편집
항공사진촬영 1987년 / 지리조사 1987년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 1990년대 지도

1999년 편집
항공사진촬영 1995년 / 지리조사 1995년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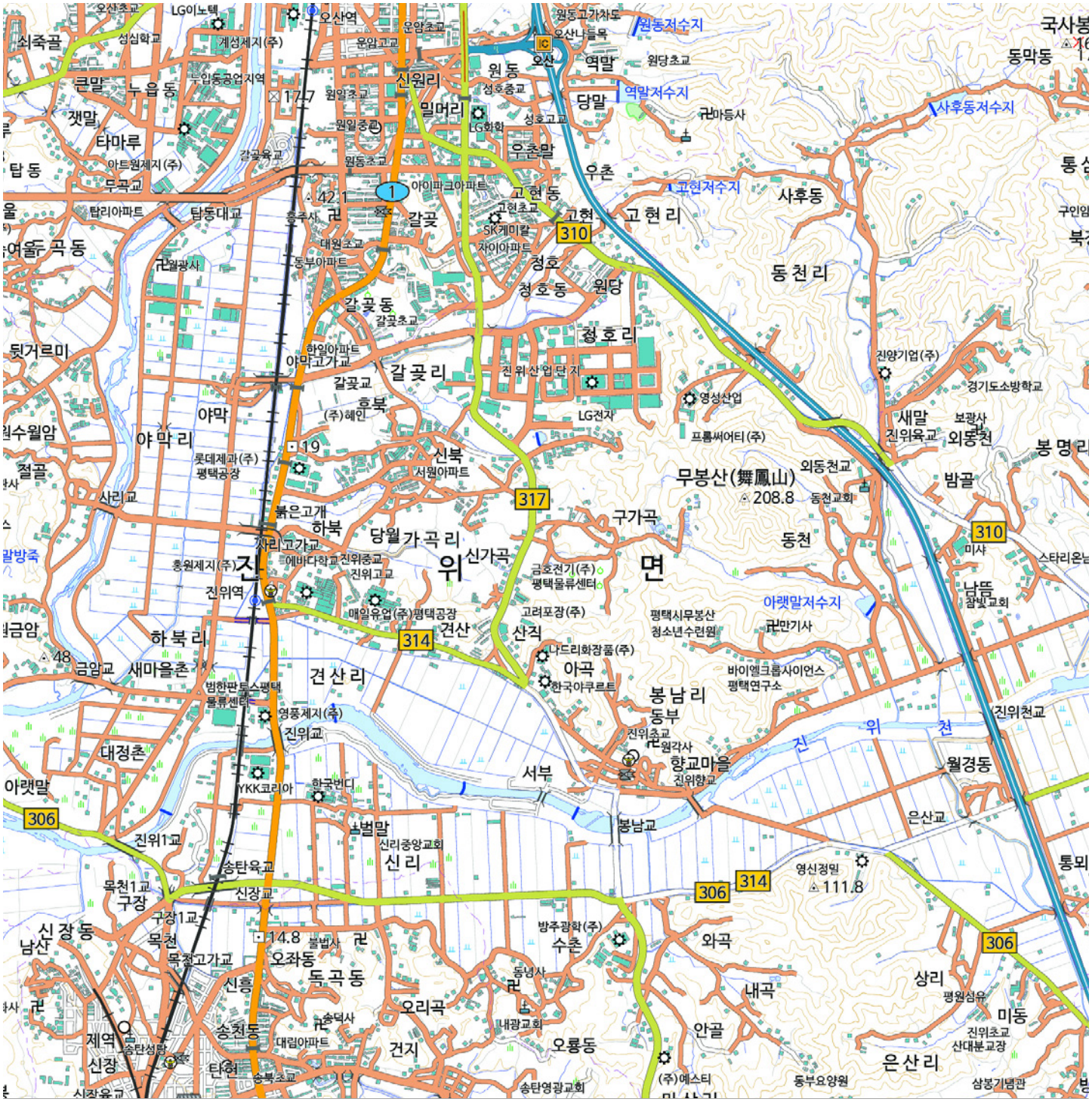
진위면 2000년대 지도

2001년 편집 2007년 수정 2008년 인쇄
2006년 촬영, 2007년 조사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 2010년대 지도

2015년 제작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여 백

진위면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을 공간조직
앞서 살펴본 공간 현황과 마을 분포 현황 조사가 진위면 전체의 거시적 스케일 관점의 조사였다면, 이제는 마을 단위 스케일로 축소하여 구체적인 마을의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형태유형학"의 방법론을 마을 단위에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마을은 도시형성의 초기 또는 원형적 형태로 간주하는데, 이때의 질문은 '마을의 공간 형태'에 있다. '마을의 공간적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와 이 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의 단위를 "공간조직"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간조직'의 요소를 '지형', '필지', '도로', '건축물' 등 4가지로 두고, 이들 요소의 구성 관계의 특징을 "공간조직의 특징"으로 본다.
이러한 도시 또는 마을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는 관점은 생물의 단위를 세포조직과 세포조직의 총체적 결합을 개체로 보는 방식과 유사한 관점으로 단위요소와 이 단위요소들의 결합 양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통해 "마을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요소와 요소들 간의 결합 양상은 일정한 사회,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축적 체로서의 공간'의 관점을 갖고 있다.

마을 공간조직 요소
마을 공간 조직의 요소는 '지형', '도로', '필지', 건축물'로 설정한다. '지형'은 등고선을 통해 나타나며 주로 산, 구릉 및 경사지, 하천 등의 형태로 표현되며, '도로'는 도로의 위계, 도로 구성의 형태 등으로 표현되고, '필지'는 크기, 형태, 용도,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건축물'은 용도, 필지의 점유 방법,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마을 공간조직의 변화
마을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의 모습을 나타낸다. 경지정리, 기반시설, 토지매매를 통한 필지의 변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철거와 신축 등 시간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에 따라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정한 변화유형이 발견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공시적 관점에서의 마을 형태 특징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마을의 형태는 '시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통시적 관점으로 한 시기를 기준으로 공간의 특징을 조사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경우 요소, 요소들의 관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다른 하나는 공시적 관점으로 여러시기를 나누어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공시적 관점의 경우 공간 현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항공사진, 지도, 사진 등의 자료가 시기별로 확보 가능할 때 분석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공시적 관점에서 '자연 발생 마을의 공간적 원형'으로서 1967년 항공사진을 공간조직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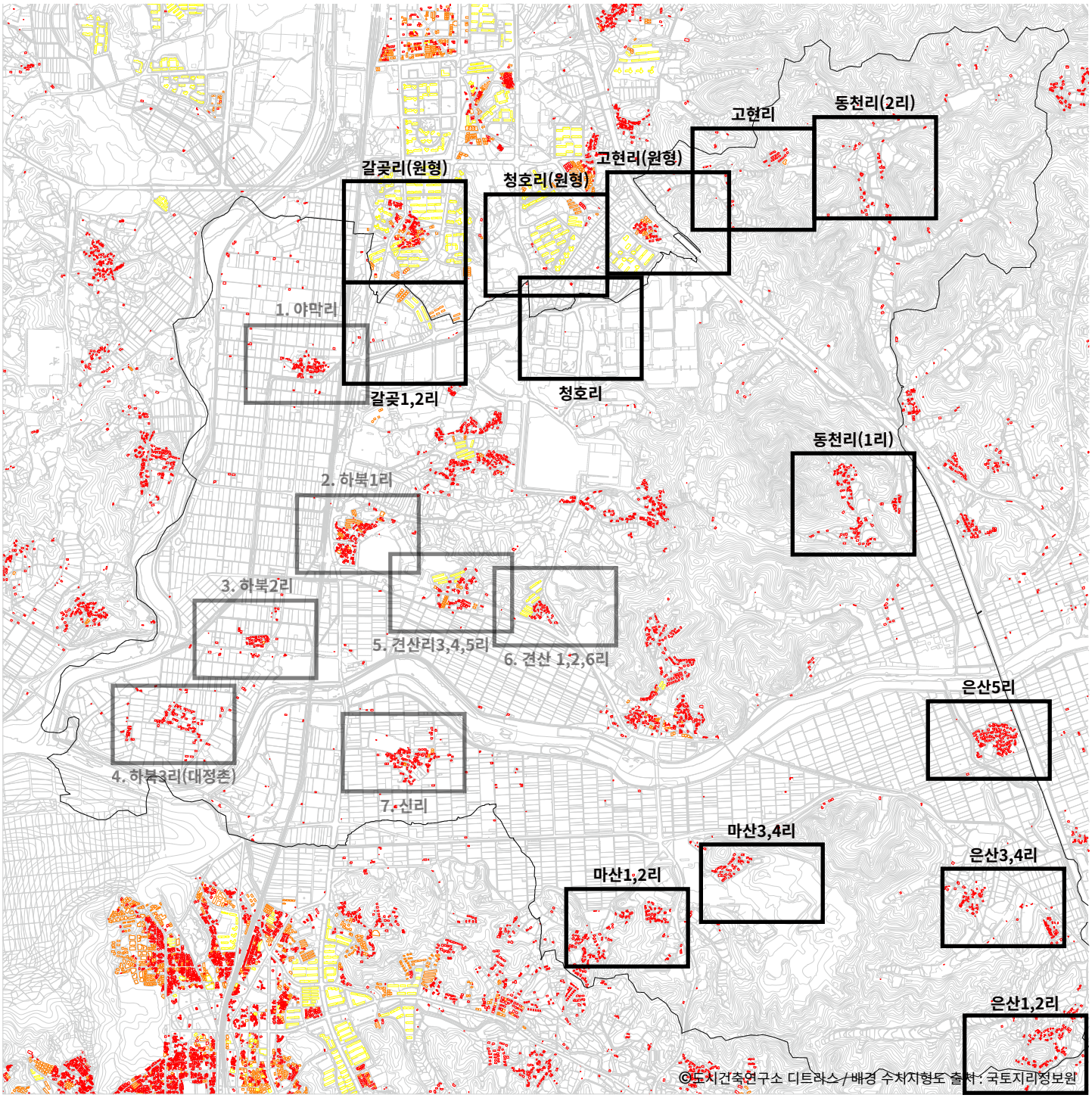
오산시에 편입된 3개 마을(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의 마을은 1995년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갈곶리는 자연발생 마을의 형태가 비교적 보존되어 있고, 청호리는 온전히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고현리의 초기 마을은 현재 남아있으며, 이외 평택시 진위면의 갈곶1리, 2리, 청호리, 고현리는 마을이 없던 경작지나 산 등지에 현재의 마을로 행정구역 개편되었고, 현재 공장등과 같은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가나 부분적으로 택지개발되어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다.

동천리, 은산리, 마산리
촌락으로 구성된 '주거 건축물의 군집'의 마을은 동천리 1,2리, 은산리 1~5리, 마산1~4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마을은 조사대상 마을인 "동천리, 은산리, 마산리" 등 3개의 법정리 마을의 범위 내에 분포하며, 37개 행정리에 해당하는 15개 마을은 갈곶1리, 2리, 청호리, 고현리, 동천1리, 2리, 은산1~5리, 마산1~4리 등이다.

마을 공간조직 분석 자료
마을 공간조직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서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지도 등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하며, 수치지형도의 지형을 표현하는 등고선과 하천, 도로, 건축물, 필지 등의 4가지 요소를 분리 및 재구성을 통해 건축물-지형, 건축물-필지, 건축물-도로, 필지-지형, 필지-도로, 도로-지형 등 6가지의 2가지 요소별 재구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항공사진'은 비교적 마을의 형태와 경작지의 형태가 명확하게 표현되된 2018년 항공사진(카카오맵 캡쳐)을 이용하였다.
이외, 최근변화가 발생한 마산리는 2008년의 항공사진을 현재와 비교할수 있도록 재구성 하였다.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DXF) 파일의 지도 레이어를 재구성하였다.
'지도'는 마을의 세세한 공간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나 개략적인 마을 공간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변화에 초점을 두어 자료를 구성하였다.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을공간조직의 단위 요소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마을의 공간형태를 결정짓는 "도로-필지-건축물"의 관계를 단위필지 사례 일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필지는 현재(2018년 수치지형도 기준) 시점에서 전통민가유형, 필지의 보편성과 특이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담장유무, 대문 및 진입동선, 건물종류 및 배치에 따른 마당 또는 밭등의 외부공간 유형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단, 오산시에 편입된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등은 "도로-건축-지형"의 관계만을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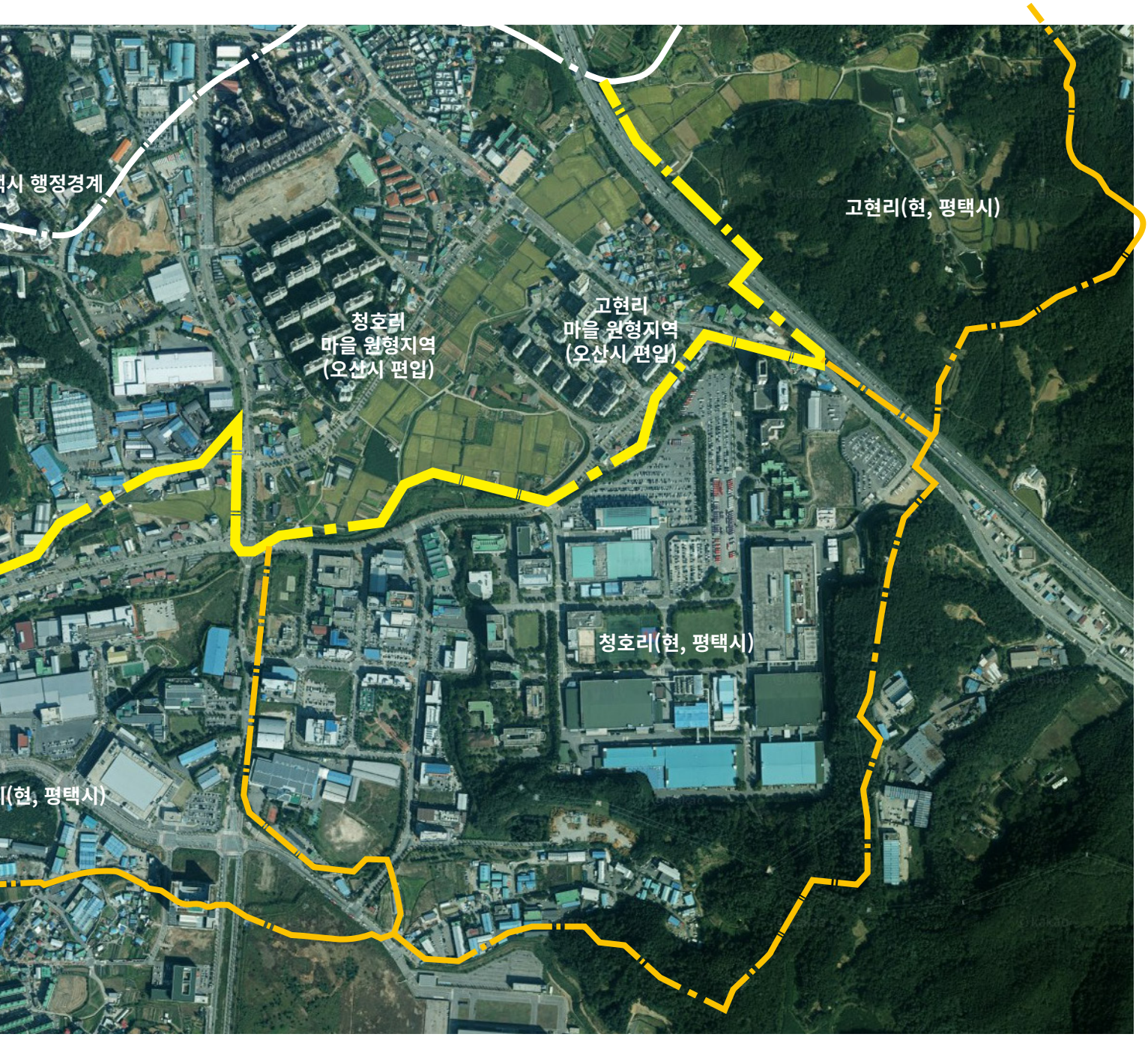

고현리
동천리(2리)
갈곶리(원형)
고현리(원형)
청호리(원형)
1. 야막리
갈곶1,2리
청호리
동천리(1리)
2. 하북1리
3. 하북2리
5. 견산리3,4,5리
6. 견산 1,2,6리
은산5리
4. 하북3리(대정촌)
7. 신리
마산3,4리
은산3,4리
마산1,2리
은산1,2리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배경 수치지형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행정경계 변화

마을원형으로서의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오산시에 편입되고, 남측으로 평택시의 현재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등은 1960-70년대 항공사진과 지도를 분석해 볼때 마을을 구성하는 촌락이 형성되지 않은 구릉, 경작지, 산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마을공간조직의 특징 조사는 오산시로 편입되어있는 마을원형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갈곶, 청호, 고현리 지역은 개략적 현황을 기술한다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택시 행정경계
청호리
마을 원형지역
(오산시 편입)
고현리
마을 원형지역
(오산시 편입)
고현리(현, 평택시)
청호리(현, 평택시)
리(현, 평택시)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갈곶리(마을원형- 오산시 편입지역) / 갈곶1~2리(현 평택시 지역)

갈곶리 마을 원형 지역은 1995년 행정개편과정에서 오산시로 편입되었다. 현재 경부선 철로 동측 구릉 위에 위치하며, 자연발생마을조직의 형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있지만 크게 훼손되지않고 도로의 규칙성과 필지의 규칙화등의 합리적 진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1번국도의 중요한 평택 초입 지역이었으며, 이 지점을 중심으로 동측의 고현리, 동천리, 은산리 방향으로 도로가 진행되며, 남측으로 가곡리, 서정리와 평택 중심방향으로 향하는 분기점에 형성된 마을이다.

갈곶리(마을원형- 오산시편입지역)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서측 논 경작지와 남북축 경부선과 나란한 1번국도가 구릉을 만나면서 남서측으로 휘어진 1위계를 갖는 도로에 'ㅁ'자형의 공간을 만들고, 이외의 도로들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구릉지의 경사면을 따라 휘어진 도로 구조를 만들고 있다.
건축물은 동서남북 사면을 고층아파트들이 점유하여 마을을 에워싸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 점차 빌라와 같은 주거형태들로 변화되고 있다.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갈곶1리(현- 평택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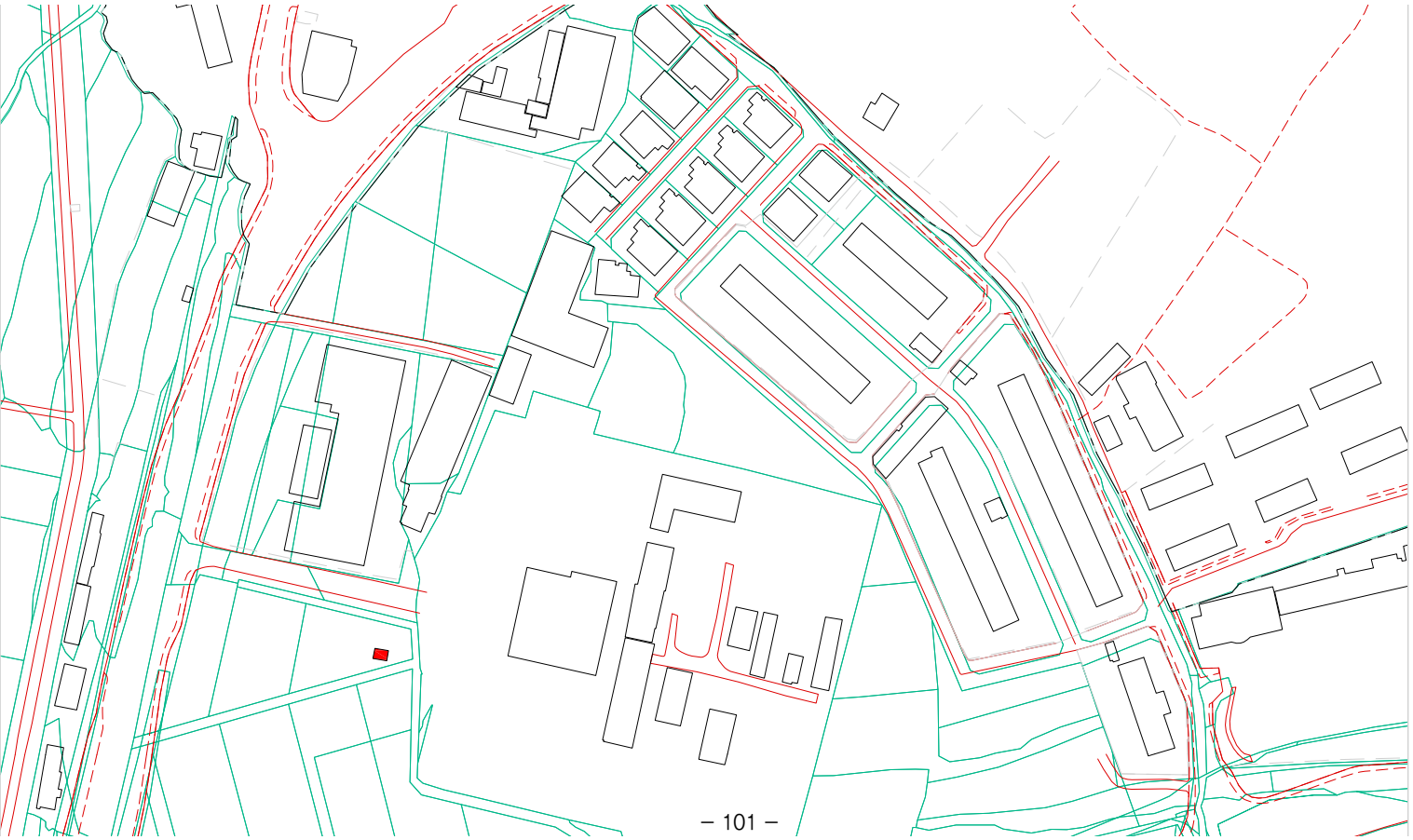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갈곶2리(현- 평택시 지역)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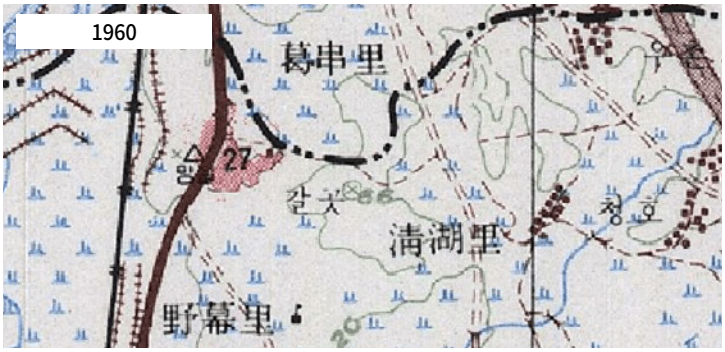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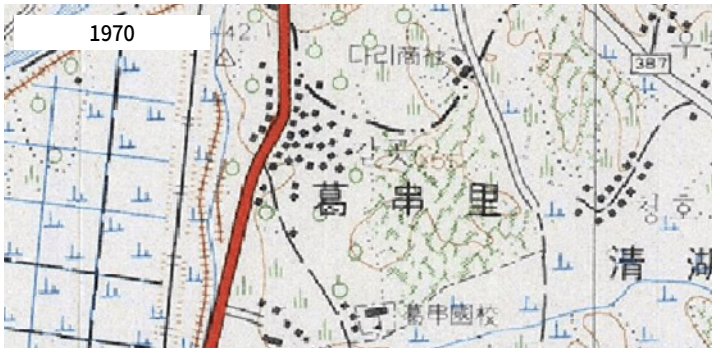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갈곶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갈곶리의 공간구조는 구릉이라는 지형적 특징이 서측의 논 평야지와 남북으로 나란한 경부선과 1번국도가 서로 만나면서 독특한 공간구조를 만들고 있다. 청호리와 고현리를 따라 동서방향의 긴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동서방향의 도로들이 결합되면서 불규칙한 'X'자형 도로구조를 만들고 있다. 서측의 질서정연한 공간구조가 인접해 있음에도 복잡한 도로구조가 형성된 배경에는 지나치게 산업단지 중심의 도로 또는 통과지역에 대한 소홀함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갈곶리 일대의 공간구조는 "계획된"공간구조라기 보다는 "결과론적"공간구조로 보인다. 도로의 위계는 남북축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나 남북축의 또다른 산업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IC를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도로들이 등장하면서 위계가 점차 동서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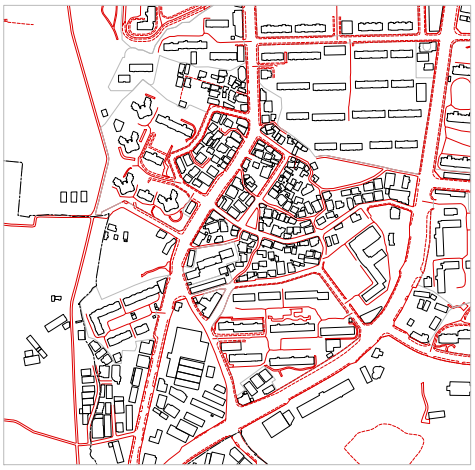


1.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갈곶리-마을원형, 오산시 편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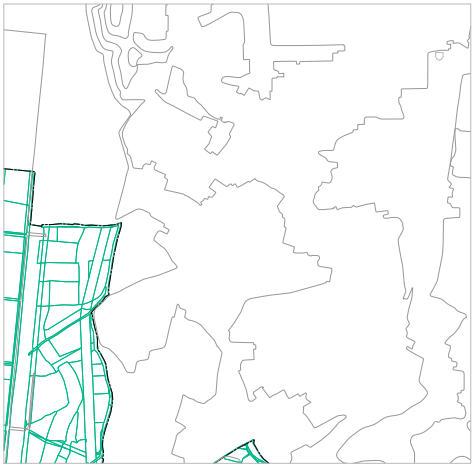
오산시 갈곶동으로 편입된 갈곶리 마을원형 지역은 필지(지적도) 파일정보없음으로, "도로-지형-건축물" 간의 관계에 한정해서 분석할 수 있다.
건축물들은 구릉지형 위쪽에 모여 배치되어있다. 마을은 주 도로를 중심으로 서측과 동측으로 나뉘는데, 촌락들이 동측 경사면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골짜기 내측남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필지구성에 있어서 도로간의 간격이 협소한 부분에서는 마주한 건축물들이 나란히 배치되기도 하고, 3개 이상의 건축물들이 구성될경우에는 사이를 관통하는 작은도로들이 막다른 골목길형태로 동선을 연결하고 있다.
공간형태적으로 특이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갈곶리 공간조직의 특징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는 구릉이라는 지형과 1번국도로 추정된다.

건축물 - 지형

필지 -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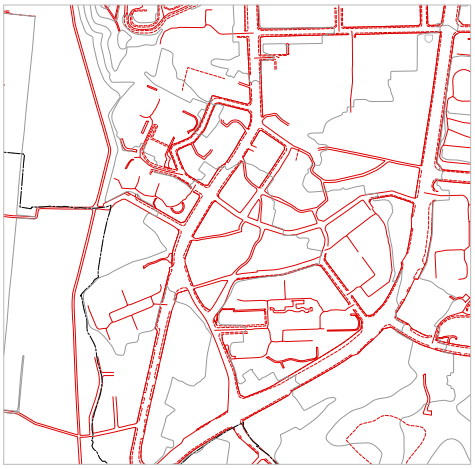


도로 -건축물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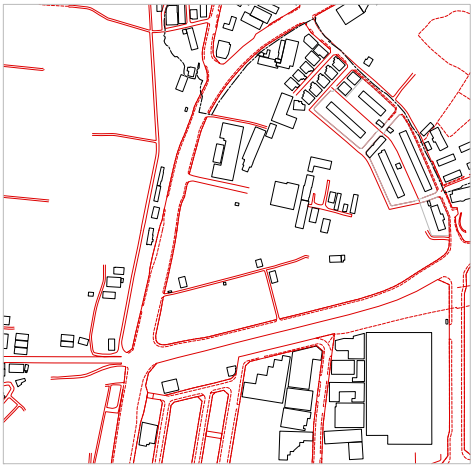
도로 - 지형

2.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갈곶2리-현, 평택시 편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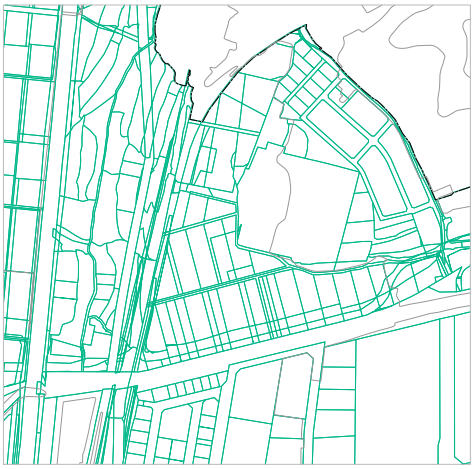
현, 갈곶2리 지역은 원 갈곶리 마을 남측에 위치한 평지로 1995년 행정개편된 지역으로 갈곶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한 논경작지가 현재는 산업공단지역으로 점차 변화중에 있다.
1960-70년대 지도에 의하면, 이곳에는 영진약품 공장이 있었고, 공장 북동측으로2000년대에 평택한일아파트가 건설되었다.
현재는 평택진위서희스타힐스 주택홍보관이위치하고 있으며 필지나 도로체계는(2018년 수치지형도 기준) 옛 영진약품을 중심으로 삼각형 형태의 공간구조를 만들고 있다.

필지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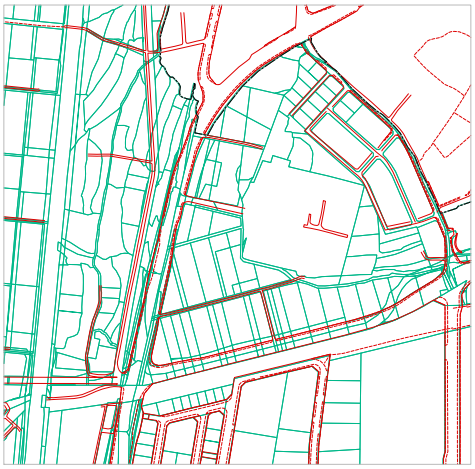
필지 - 건축물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도로 - 필지

건축물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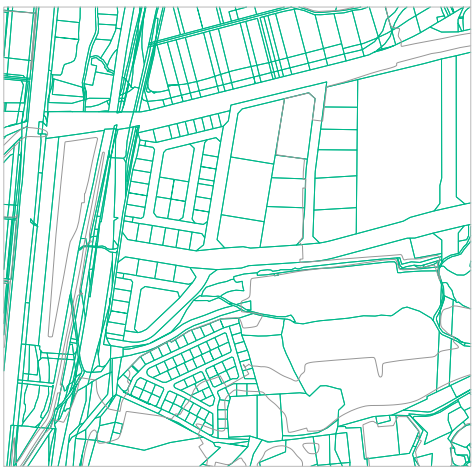
3.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갈곶1리-현, 평택시 편입지역)

이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산업시설물 조성에 의해 형성된 지역으로 사라지는 자연발생적 전통마을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도로와 산업단지 시설물의 점유과정에서 절토와 성토등의 토목사업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나타난다.

필지 - 지형

필지 - 건축물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도로 - 필지

건축물 - 도로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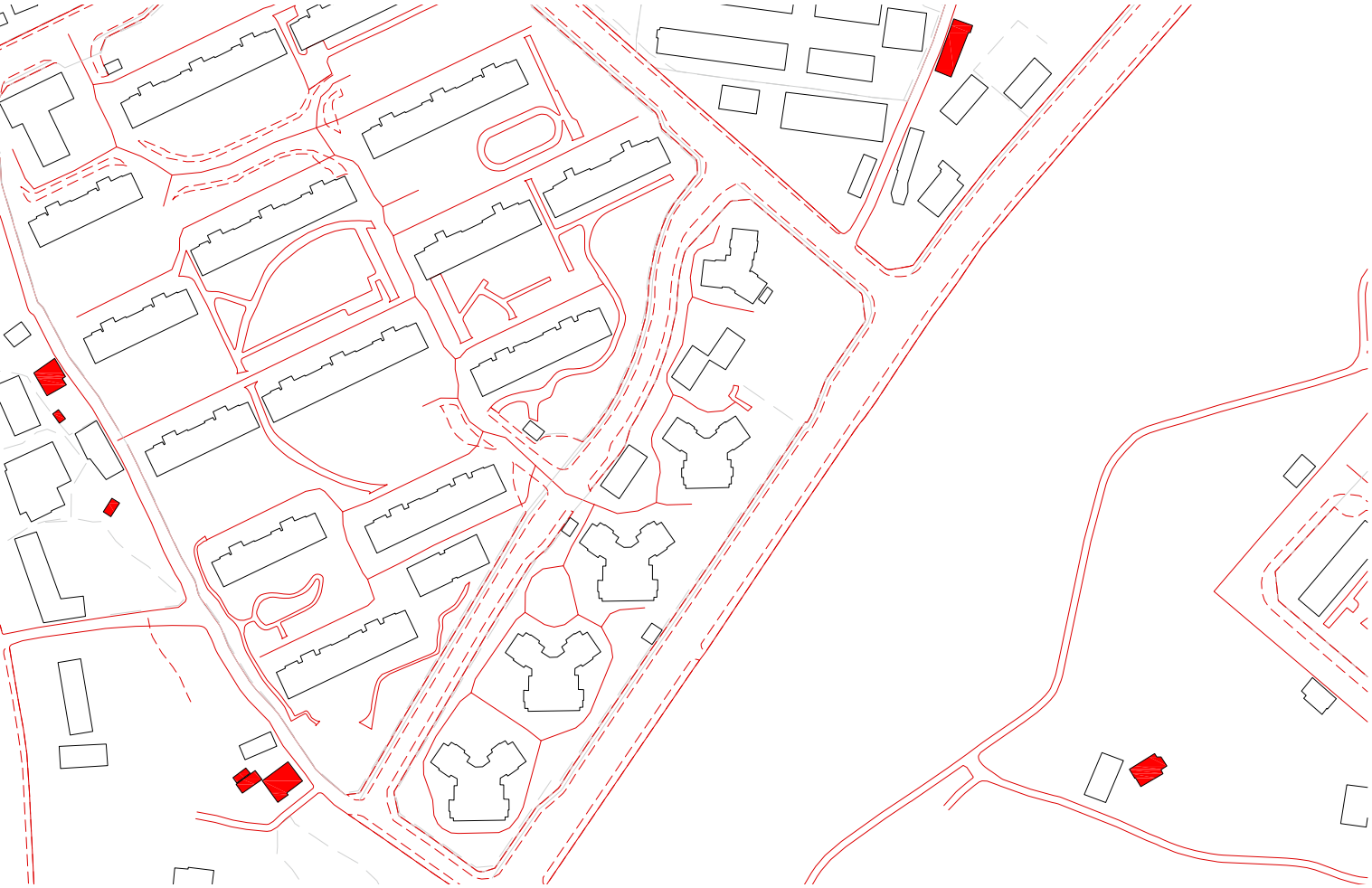
청호리(마을원형-오산시편입지역)

청호리는 남동방향의 논 경작지와 인접한 구릉지에 나란히 선형형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있었으나 현재는 마을의 공간조직과 건축물등은 온전히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오산청호엘리시아아파트, 오산자이아파트)로 점유되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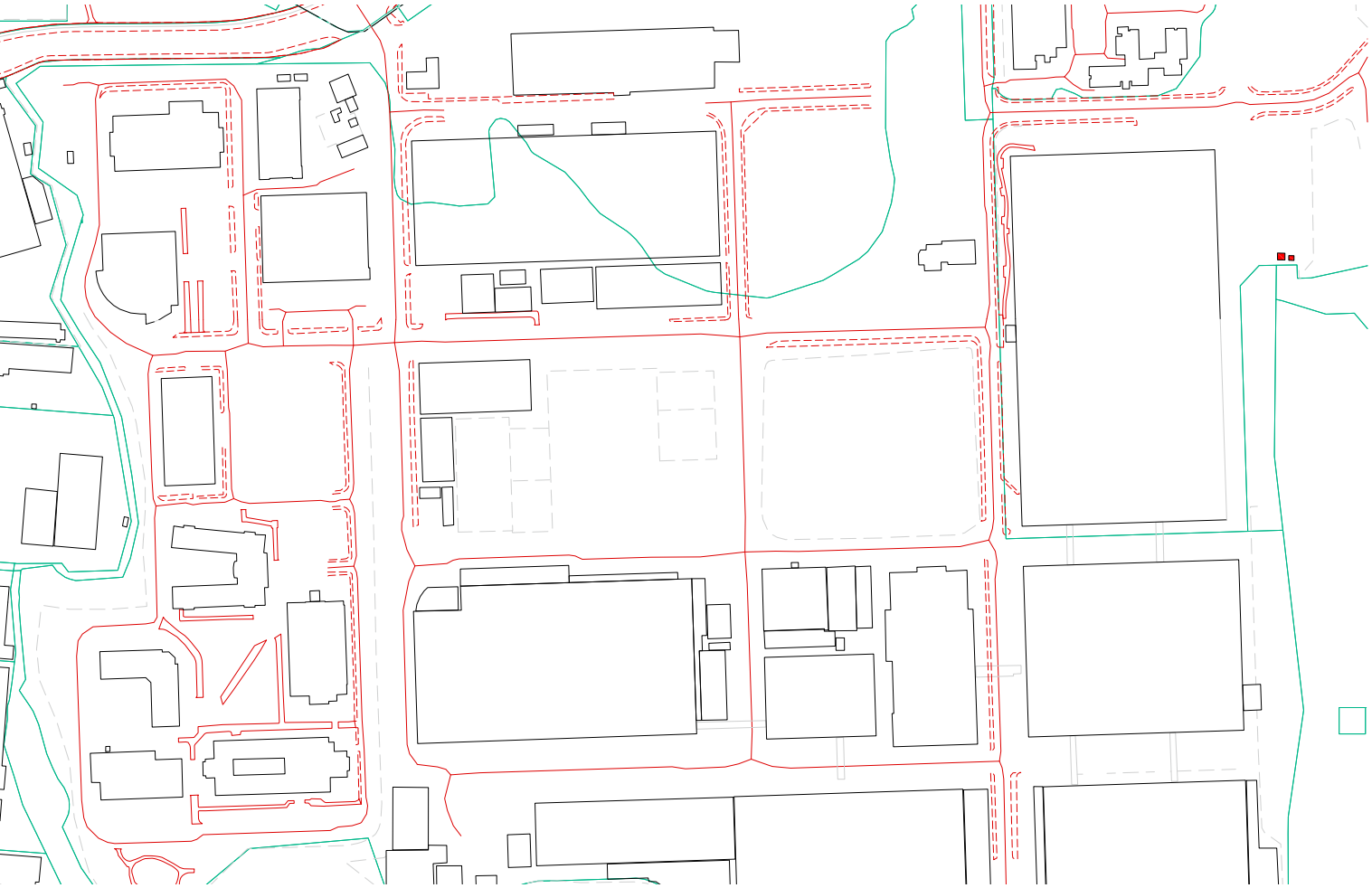
청호리(현-평택시편입지역)

현재의 진위면 청호리는 과거 청호리마을 하천 건너편 남측에 위치한다. 과거남측 구릉지 경사면의 산지였으나, 현재는 진위산업단지와 LG 디지털파크산업단지가 대부분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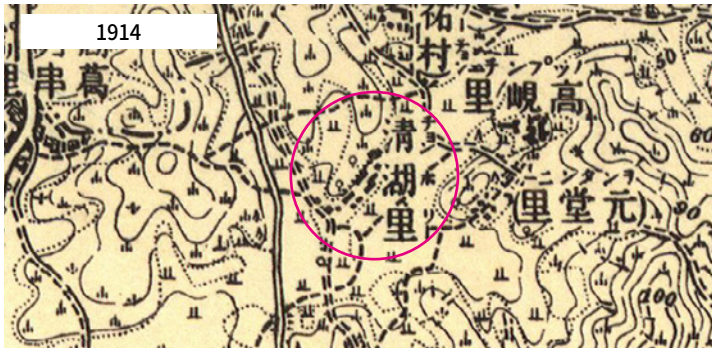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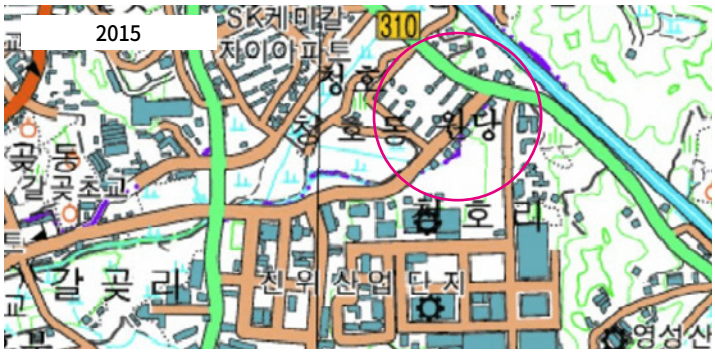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청호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청호리의 공간구조는 1번국도와의 관계보다는 310번 국도(남부대로)와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오산에서 무봉산 북측으로 동천리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에서 사선방향으로 소로가 나타나고 여기에 도로 양옆으로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다. 1970년대 지도에서 1980년대 지도를 통해 변화양상을 보면, 주택의 위치가 도로 한쪽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한 310번 국도를 중심으로 점차 서측의 1번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나타나고, 1990, 2000 년대를 거치면서 산업단지들이 등장하면서 격자형 도로구조와 거대한 산업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선 방향의 경부고속도로에 정 남북축을 갖는 격자형 도로구조가 결합한 형태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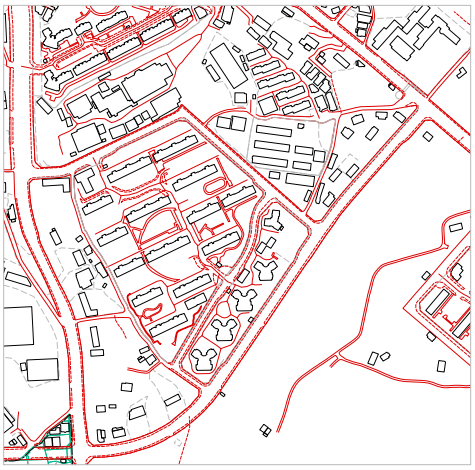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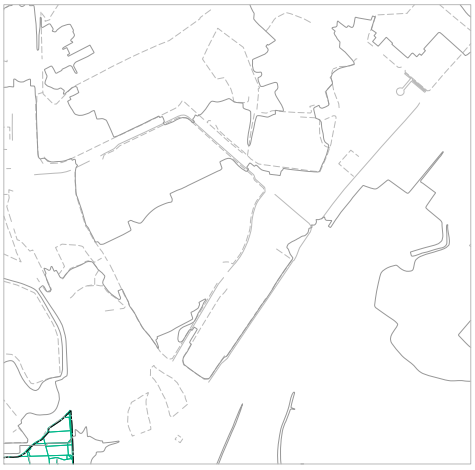
필지-지형-도로-건축물의 관계는 오늘날 아파트 단지의 점유로 초기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며, 촌락이 분포했던 범위만큼 점유한 "오산청호엘리시아아파트"가 초기 마을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다

필지 - 지형

필지 -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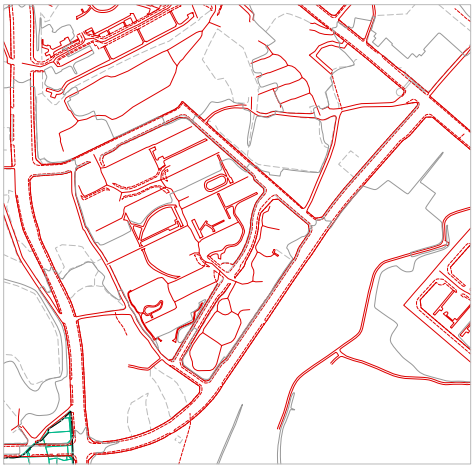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건축물 - 지형

도로 - 필지



도로 - 지형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고현리(마을원형-오산시편입지역)

고현리는 경부고속도로 남측에 위치한다. "i"형태로 310번 국도 북측과 남측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지만 현재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서 오산시에 편입되었으며, 초기마을의 공간구조는 310번 국도 경사지 위쪽에 남아있다(남측은 오산청호LH 2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점유로 사라짐). 마을 도로는 310번 국도에 나란히 기울은 "ㄹ"자형 소로가 마을의 기본 공간구조를 만들고 있다. 건축물은 이 "ㄹ" 도로를 따라 남동향으로 배치하고 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고현리(현-평택시편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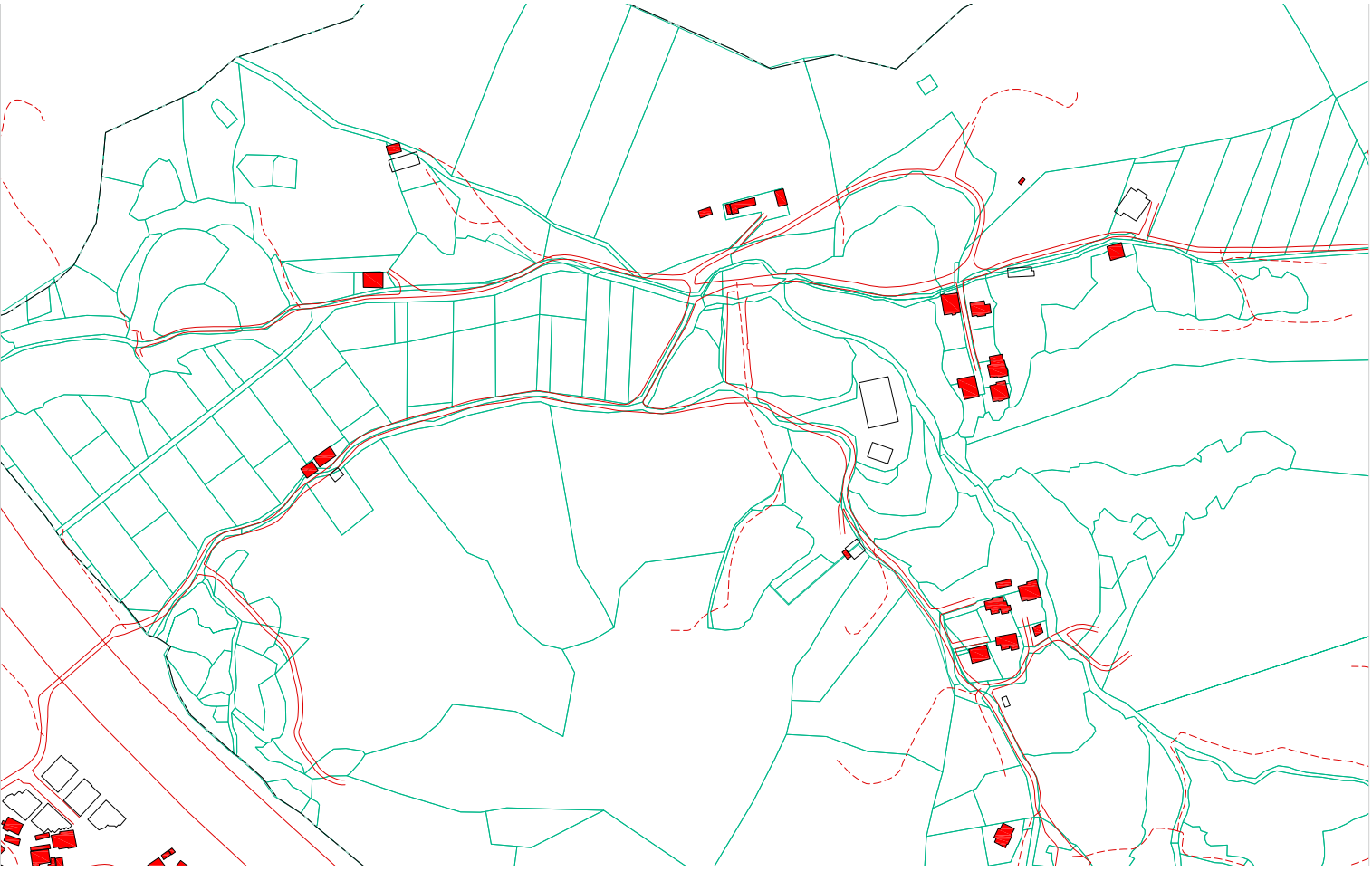
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의 위치는 원래 마을에서 경부고속도로 북동측 산 골짜기 지역에 위치한다. 고현저수지가 있으며, 골짜기는 동천2리로 연결된다.

골짜기를 따라 양 옆으로 도로가 가운데 경작지를 두고 동천2리로 연결되며, 소규모 주택단지개발을 통해 들어선 몇채의 주택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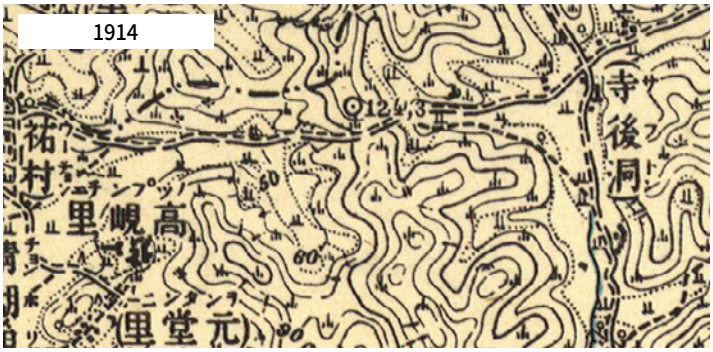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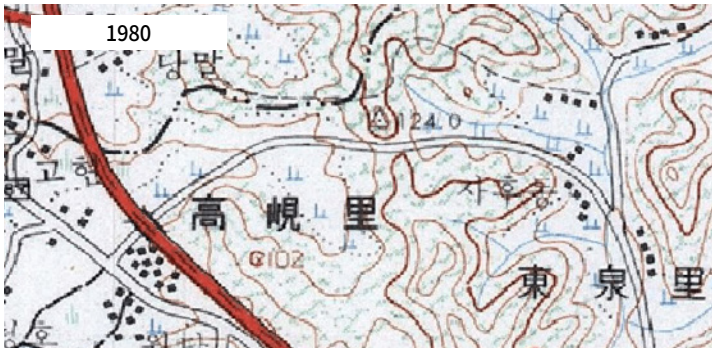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고현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고현리는 경부고속도로 형성이전 동측(동천2리) 방향으로 형성된 골짜기의 남측 경사면에 위치하여 남서향으로 배치된 마을이다. 지형적으로는 동서방향의 골짜기로 인해 북측과 서측으로 열린공간구조를 갖지만 경부고속도로 형성이후 고현리는 남서측방향으로 310번 국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간이 분화된것을 볼수 있다. 고현리는 경부고속도로, 310번국도, 동천리 방향의 골짜기 지형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어졌다.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마을원형-오산시편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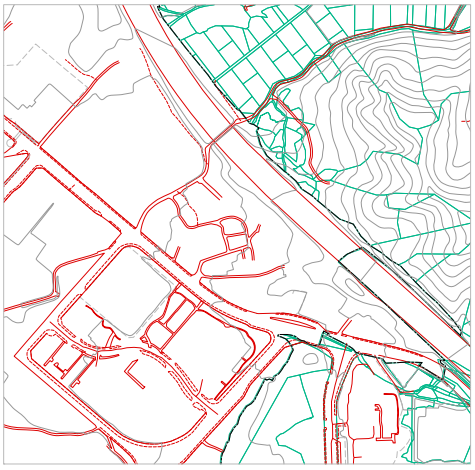
필지 - 지형

건축물 - 필지

건축물 - 도로

건축물 - 지형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 범례 -
등고선
도로
필지구획선(지적선)
건축물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동천2리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동천리는 평택시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마을로 동측의 용인, 북측의 오산과 인접하여 다른 행정권역과 연결되어있는 산 골짜기 지형에 위치한다. 남북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골짜기를 따라 9개의 긴 골짜기가 형성되어있고, 이 9개의 골짜기에는 소규모 골짜기들이 마치 거대한 손가락들처럼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지형적으로 1960년대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초기 마을은 동천1리와 2리 골짜기들이 한곳으로 모아지는 지점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골짜기의 공간구조적 특징인 계단형 논 경작지들이 나란히 구성되고, 양옆으로 두 도로가 나란히 골짜기를 따라연결된 공간구조를 띄고 있다.

이러한 골짜기가 만들어 내는 공간구조는 평택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동천리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 이중에서 동천2리는 이러한 골짜기들이 모이는 곳 경사면에 분포한다.
촌락의 분포는 밀집된 형태가 아닌 긴 골짜기의 도로를 따라 산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기도원과 같은 종교시설의 수련원 등이 분포하고 있다.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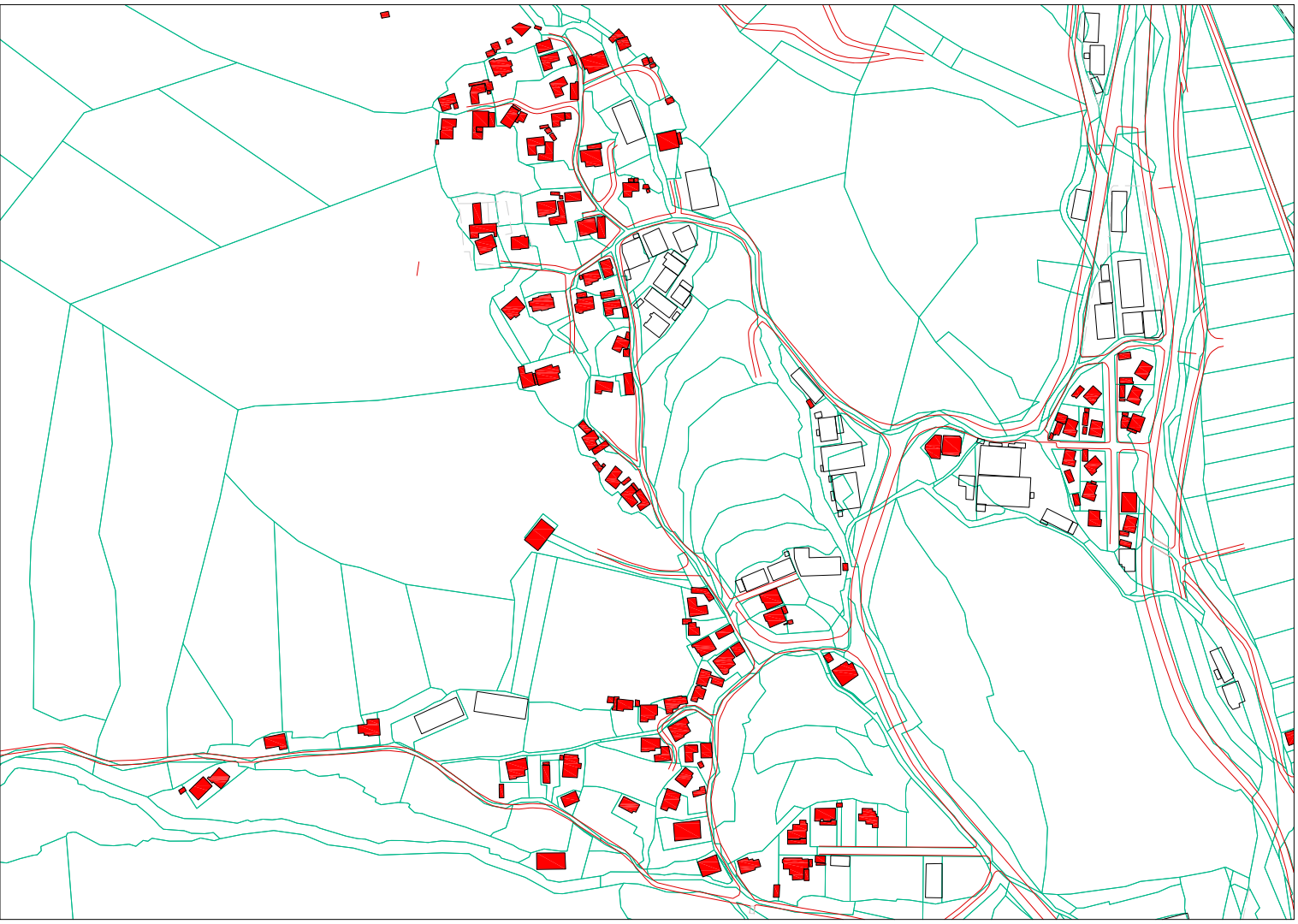
동천1리

동천1리는 남향으로 열린 긴 골짜기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다른 골짜기의 공간구조와 달리, 두개의 양측 도로 사이의 경작지가 마을 전면 남측에 위치하고 마을은 가운데의 중심도로를 따라 밀도높은 촌락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서측 경사면에 더 많은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두 개의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아랫마을이 형성되어있다. 동천리 마을은 진위면에서 발견되는 가장 전형적인 골짜기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윗마을의 묘지 분포를 비교해보면, 서측에는 주거지가 분포하고, 동측은 묘지가 분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2021년 마을 조사 대상지였던 도일동과 비교할때, 마을 전면에 저수지를 두고 경작지가 남측에 위치하는 마을공간구조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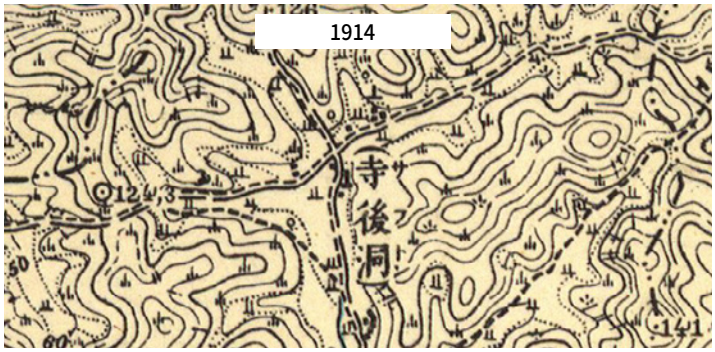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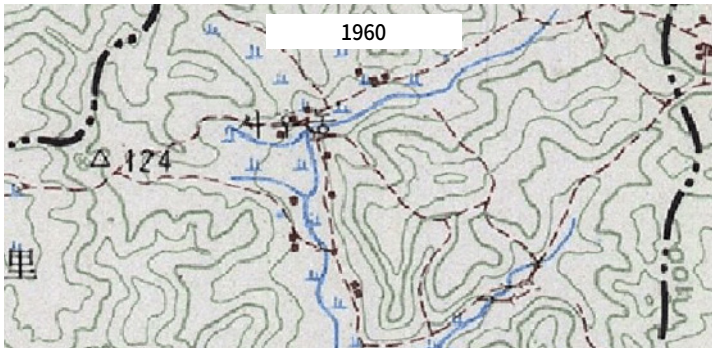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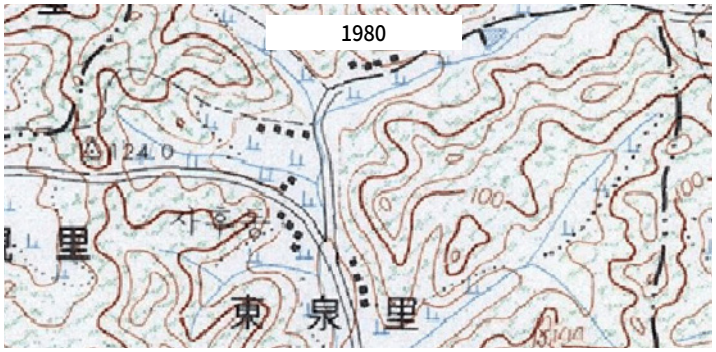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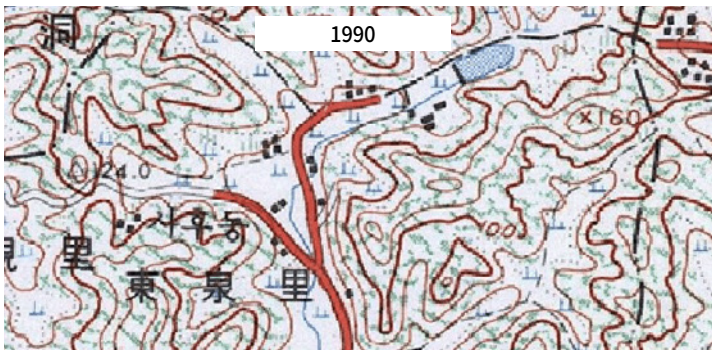
동천2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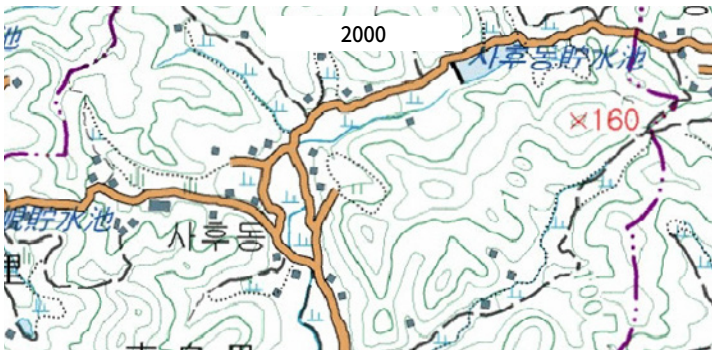
동천2리의 공간구조는 깊은 골짜기 지형특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구조의 분화 속도는 늦게 나타난다. 지형과 도로에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는 두개의 도로가 경작지를 사이에 두고 나란한 현재의 구조와는 다른모습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골짜기의 한쪽은 도로가, 다른 한쪽은 하천을 나란히 두며 공간구조가 형성되었으나, 현재의 두개의 도로가 나란한 공간구조는2000대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골짜기 지형에 따란 기본적인 공간구조는 "Y"형의 보이드에 도로도 나란히 "Y"형 구조를 만들고 있다. 동측으로는 용인과 연결되고, 서측으로는 고현리와 오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구조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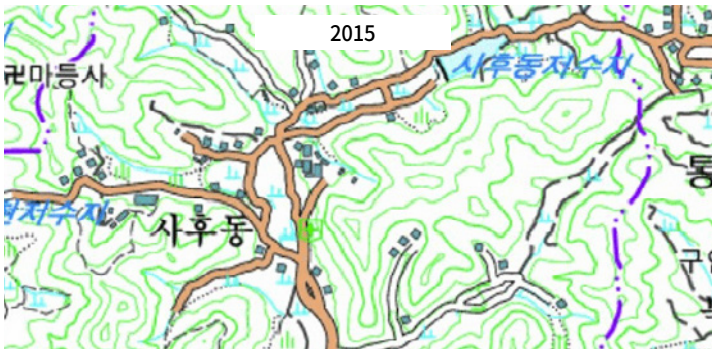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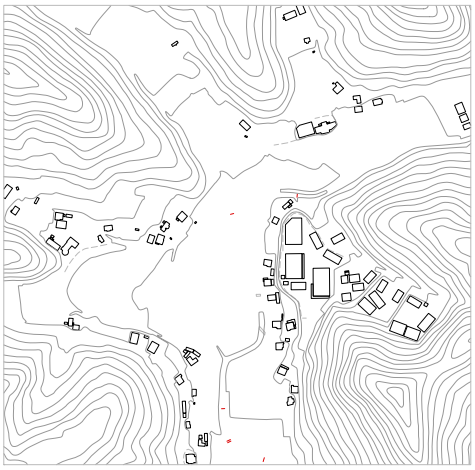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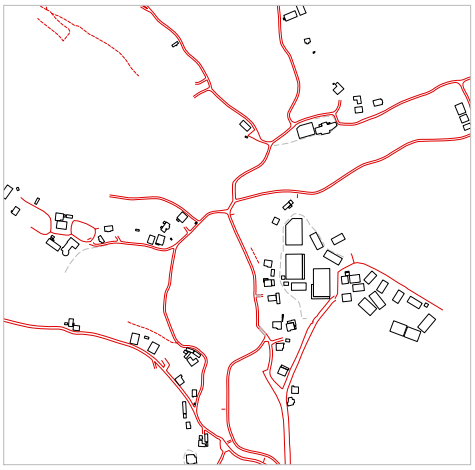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골짜기의 형태를 지형도를 통해 살펴보면 동천2리는 6개의 골짜기가 하나로 모아져 남측의 동천1리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논 경작지의 형태는 논경지정리를 통해 변형된것으로 추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위쪽으로는 상당부분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는 자연발생적 필지구획과 다랭이 논의 구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60년대 항공사진 참고)
건축물들은 남향의 일조권을 주어진 경사면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위치에 분포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일조권보다는 조망을 선택한 분포들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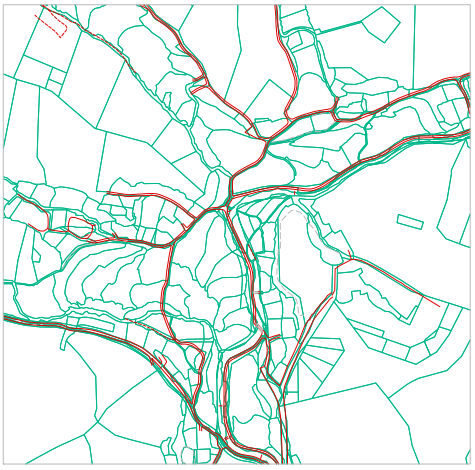
건축물 - 지형

건축물 - 필지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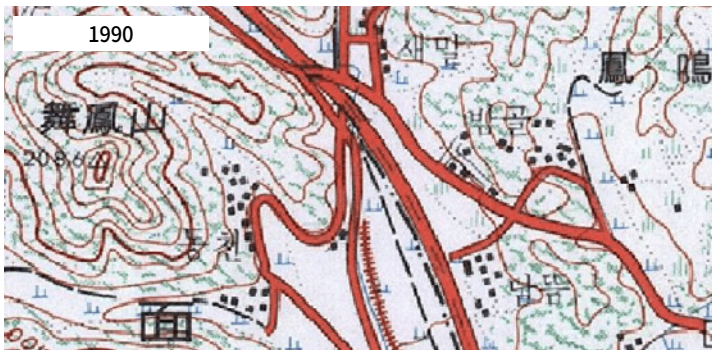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동천1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 앞 수직방향으로 직선 교차하고 여기에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가 후순위로 연결된 공간구조가 아닌, "U"자형의 도로가 그대로 골짜기 안쪽을 따라 마을까지 굽은 형태로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로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310번국도와 동천2리 방향의 도로들이 마을 북동측에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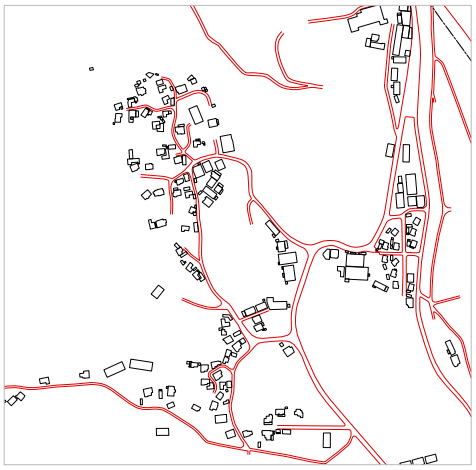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동천1리 마을 공간조직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지형, 도로, 건물, 필지등은 동천리 마을 공간조직을 분석하는데 좋은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다. 건축물은 골짜기 경사면이 비교적 완만한 서측에 밀도 높게 분포하고, 전체적으로는 3개 방향으로 건축물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동측의 건축물들은 최근에 점유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원형은 역"V"형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두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환형도로 위쪽으로 주택들이 분포하며, 윗 마을의 경우 경작지를 남측에 두고 북측에 주택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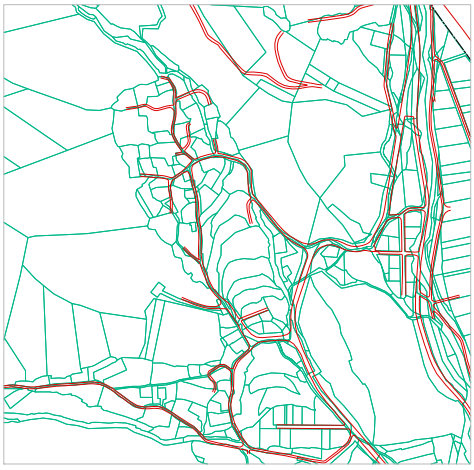
건축물 - 지형

건축물 -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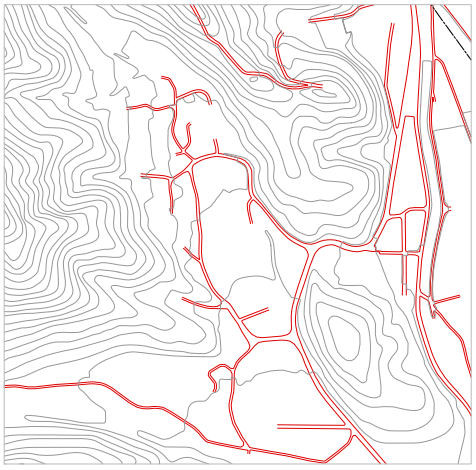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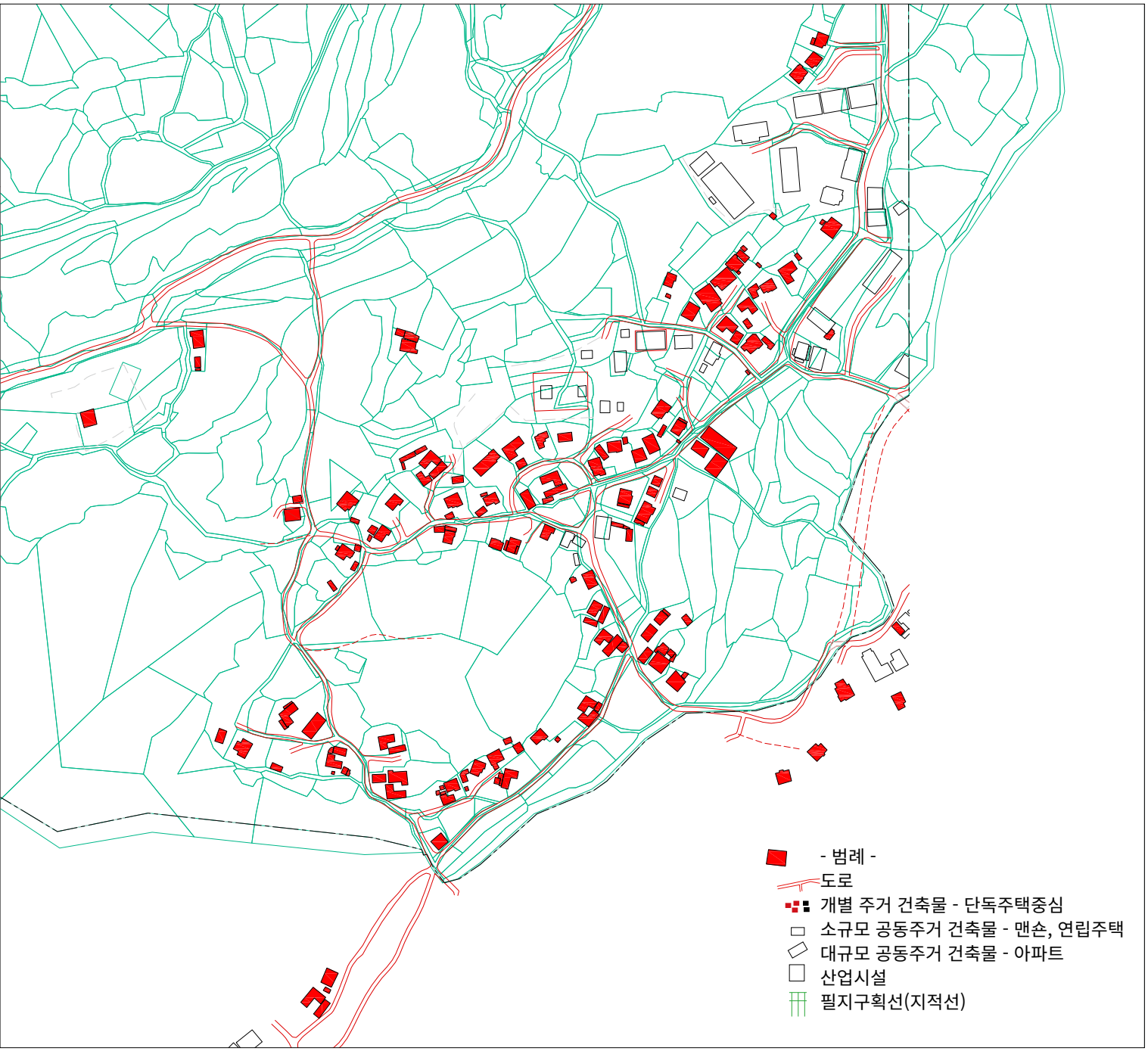
은산1,2리

은산리는 진위면 남동측 끝 부분에 위치하며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 / 안성, 그리고 남측으로는 태봉산과 덕암산 자락의 산 지형을 접하고 형성된 골짜기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골짜기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바라보며 동측으로 열린구조를 만들고 마을들은 골짜기 끝자락의 남동측 경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은산 1리와 2리는 촌락들이 인접하여 형성되어있고, 1리는 정도전 사당이 위치한 곳이며, 2리는 서측의 골짜기 방향으로 위치한다. 도로구조는 점차 구릉 주변을 에워싸는 "D"형태의 도로가 형성되었으며 마을의 주 도로는 경사지 위쪽의 동서방향의 도로이다.
서측의 골짜기는 매우 좁고 길게 형성되어있는데, 덕암산 약수터까지의 골짜기 길이가 약 2.7KM 이르며, 서측 골짜기에는 4~5채의 건축물 외에는 순수 자연경관의 모습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은산3리

은산3리는 1919년 지도에도 촌락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나,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형성이후 구릉지 위쪽 "T"형 도로 구조에 가지런한 단독주택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정비된 마을의 촌락을 선전용으로 계획되었다고 전해진다. (김해규 연구자 증언) 또한 나란한 필지구성과 주거시설의 배치가 일조권을 위한 남향 배치가 아닌 전체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구성된 점도 의도적인 배치로 보여진다.
마을 아랫쪽에는 일부 단독주택들과 창고형태의 시설물들과 구릉지 너머 서측에 거대한 산업시설물들이 골짜기를 점유하고 있다. 도로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반듯한 논 경작지들이 경부고속도로 공간구조에 순응한 채 분포하고 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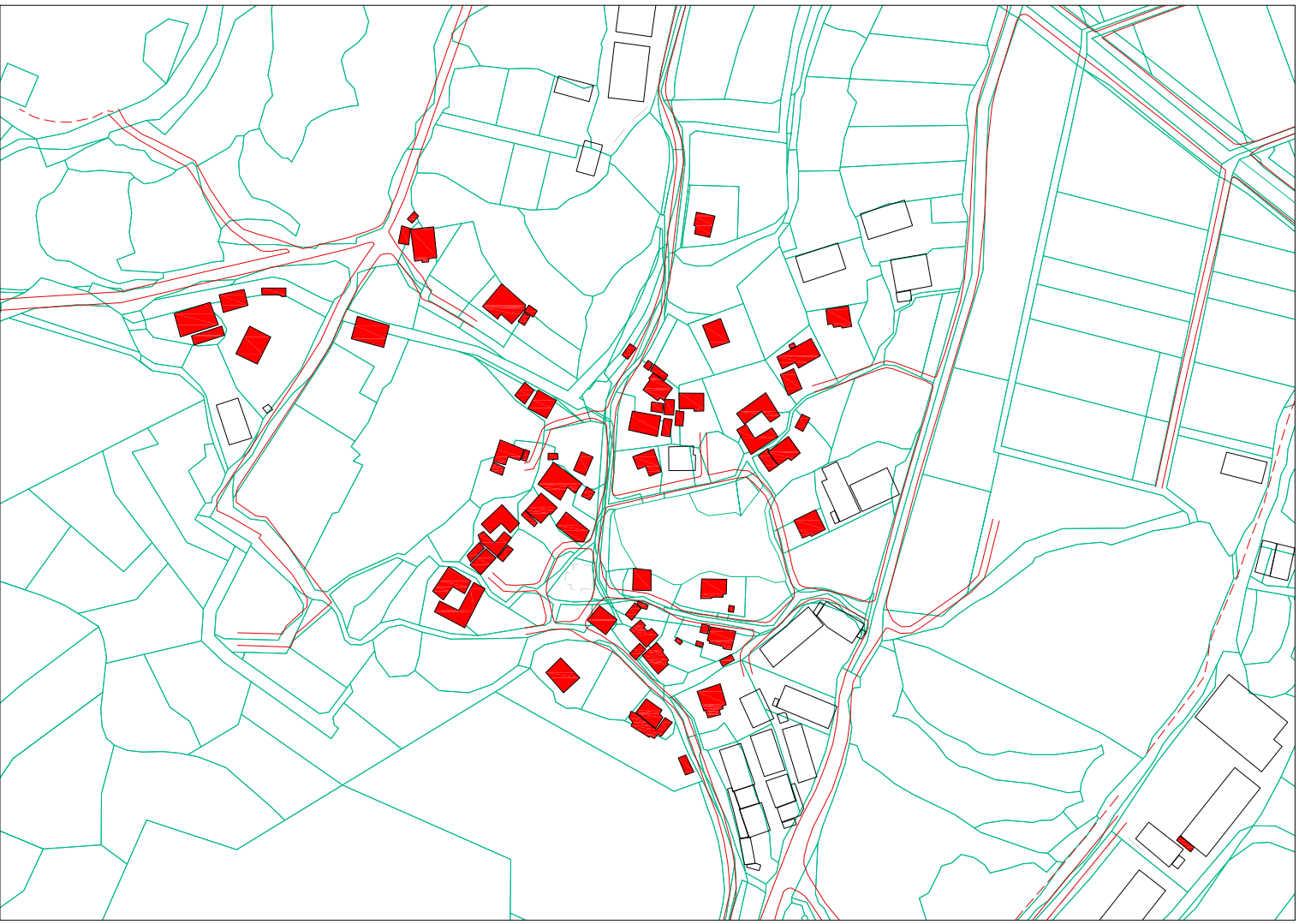
은산4리

은산 4리는 골짜기 안쪽에 위치하지 않고, 골짜기들이 시작되는 초입부에 구릉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ㅁ" 논 필지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들이 경사 위쪽 3면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도로 구조는 사선형 도로 구조에 가지처럼 연결된 도로들로 구성되고 있다.
은산리는 1,2, 4리는 골짜기의 지형중에서 남동측의 조망과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사면에 마을들이 위치하고 있다.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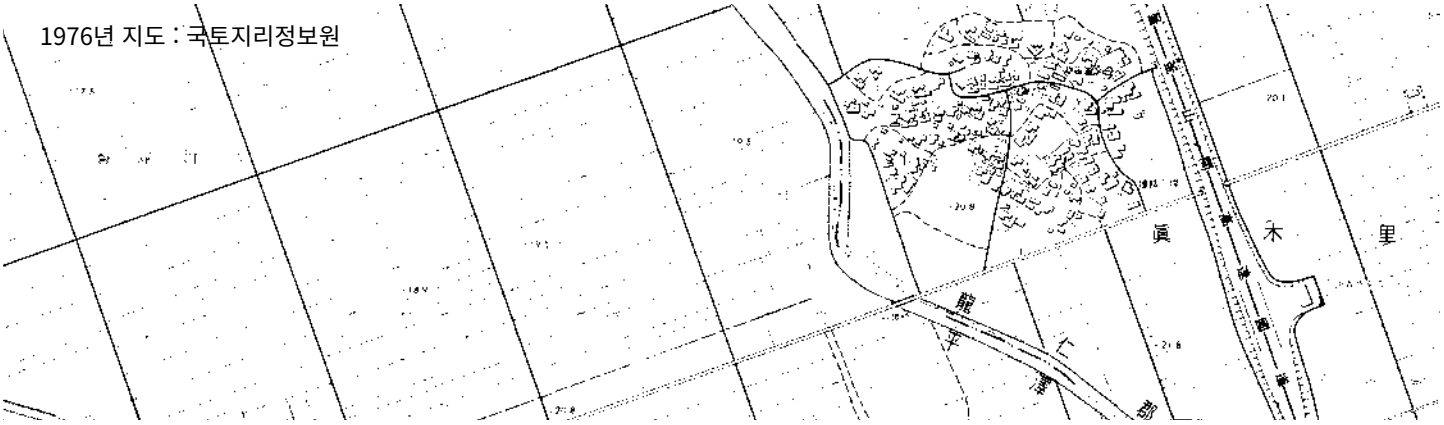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은산5리

은산5리는 경부고속도로 형성 이전까지 용인에 포함되어 있었다. 산하천 동측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논 경작지 한가운데 위치한 전형적인 "섬"형태의 촌락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조사 마을 대상지인 진위면 신리, 야막리, 하북2리 와 비교할 수 있다.
불규칙한 도로구조의 형태는 논경지정리 사업 이전의 하천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논 필지구획의 흔적으로 보이며, 현재는 마을을 순환하는 환형 구조의 도로에 둘러싸여있다. 일부 필지에서는 긴 세장형 필지의 모습도 나타나며 세장형 필지 양 끝부분에 필지가 분화된 형태로 도로와 연결되고 주택이 들어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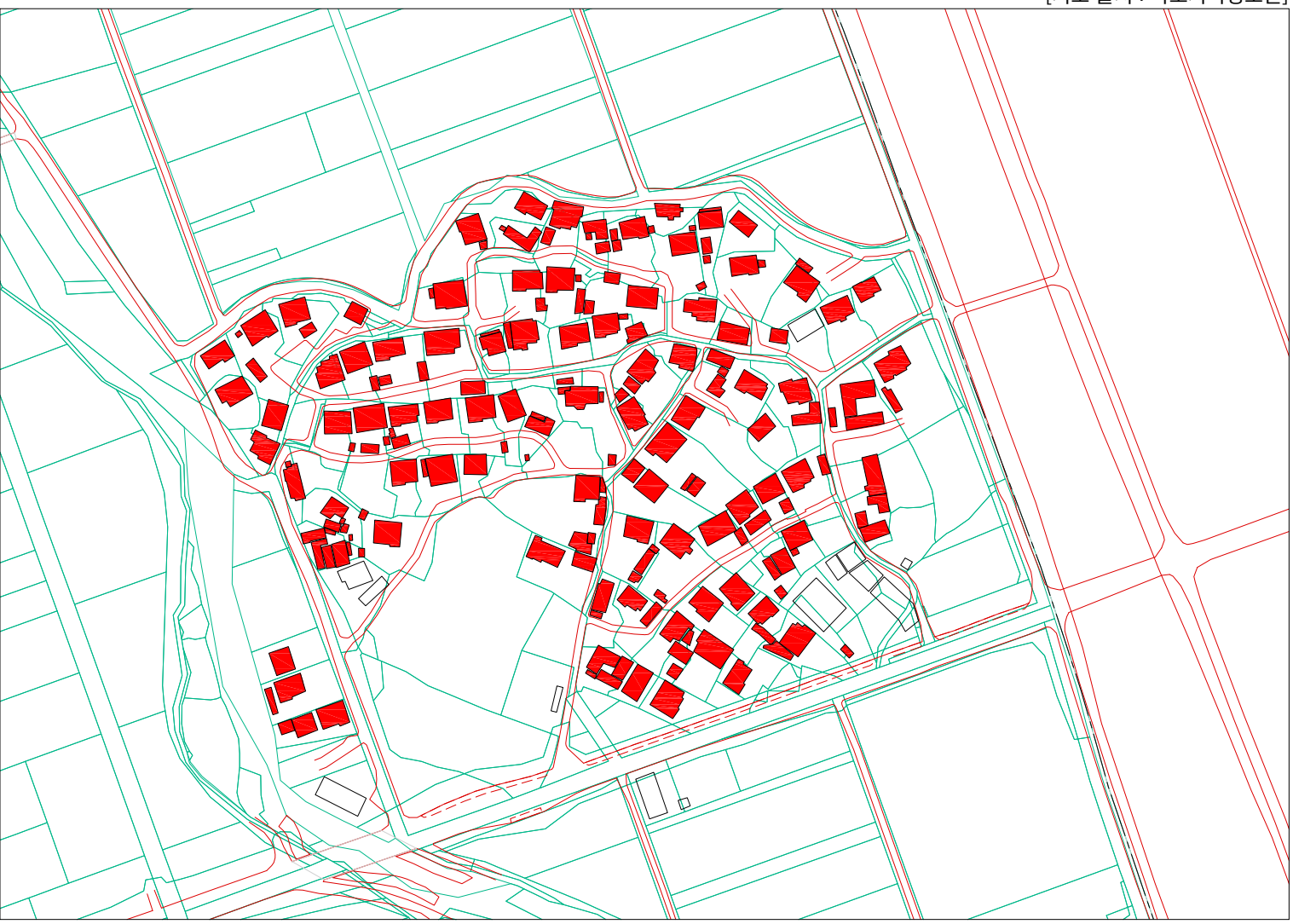
1976년 지도 : 국토지리정보원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도로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필지구획선(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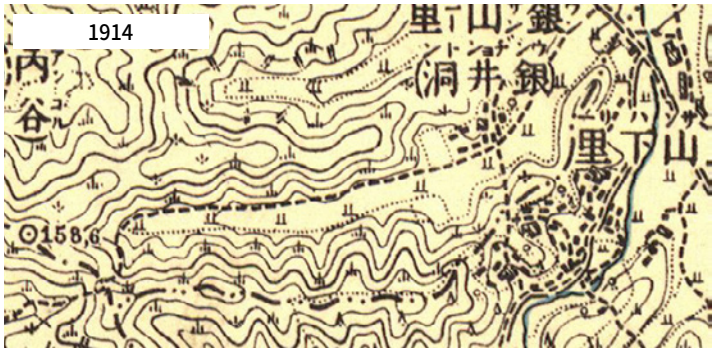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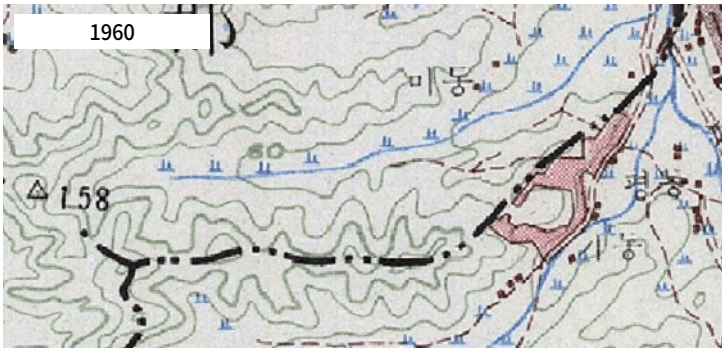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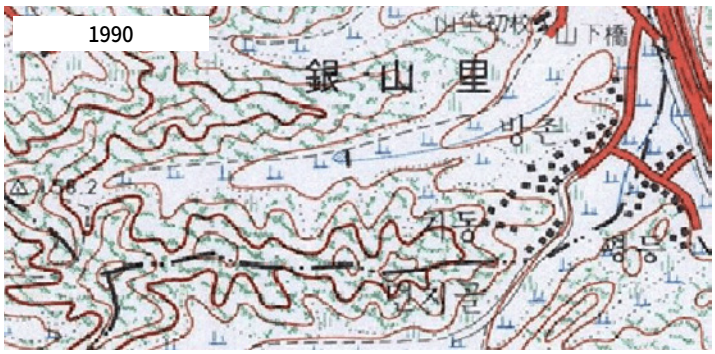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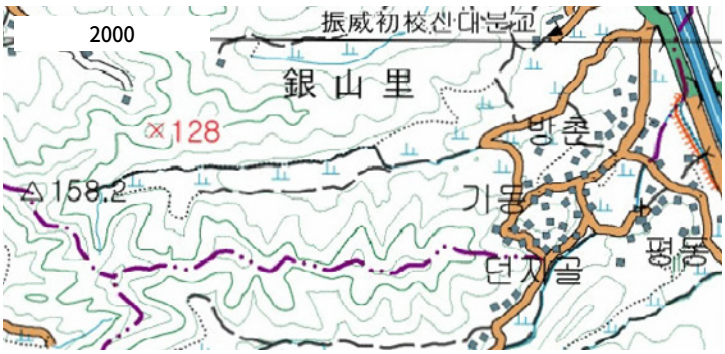
은산1,2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은산1,2리는 동서방향의(동측으로 열린) 긴 골짜기의 일조권을 갖는 남향 경사면에 위치한다. 정도전 사당이 위치한 마을로 사당은 안산으로 덕암산을 바라보고 배치되어있으며, 마을은 골짜기가 길게 형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구측에 밀도높게 분포하고 있다.
공간구조는 경사면위 동측으로부터 진입하는 도로들이 논경작지 경계를 따라 서측으로 연결되고, "D"형태의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에 주거시설들이 분포하고 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도로위 마을의 형태가 1970년대 중심도로의 위계가 바뀌면서 현재는 비정형 격자형 구조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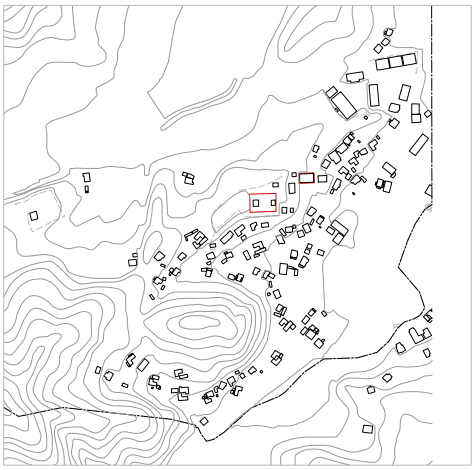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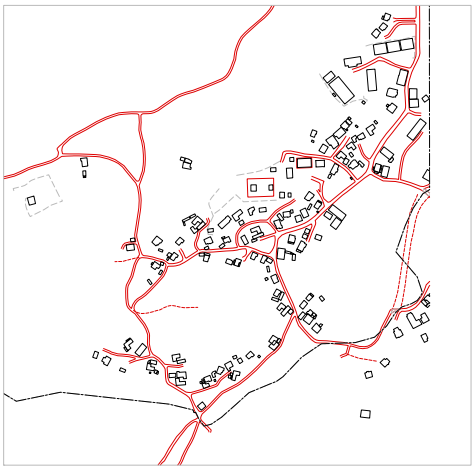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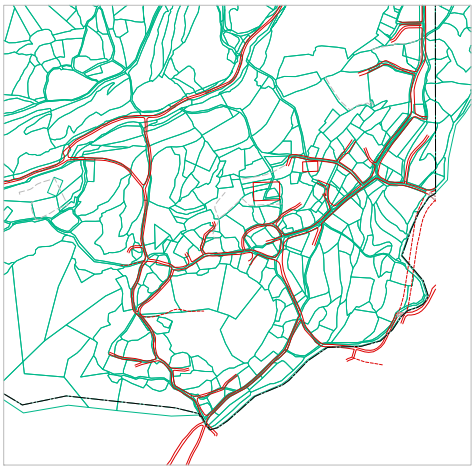
건축물 - 지형

건축물 -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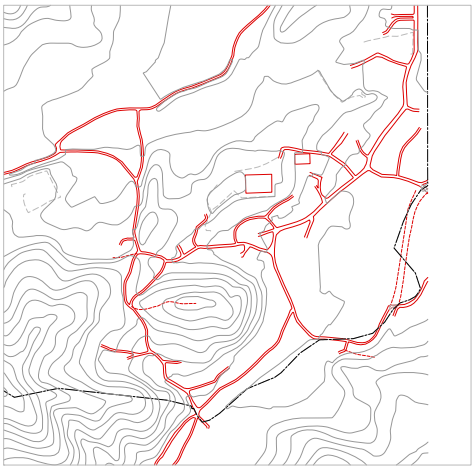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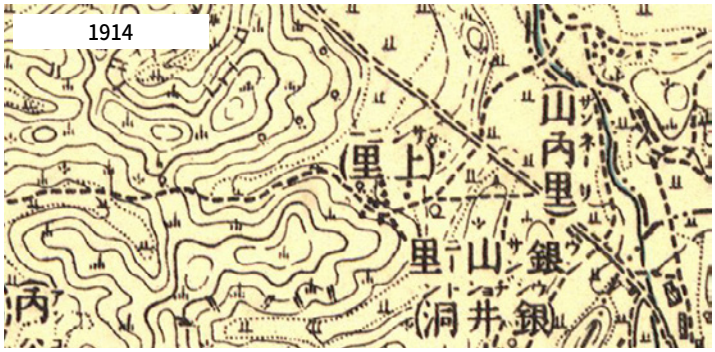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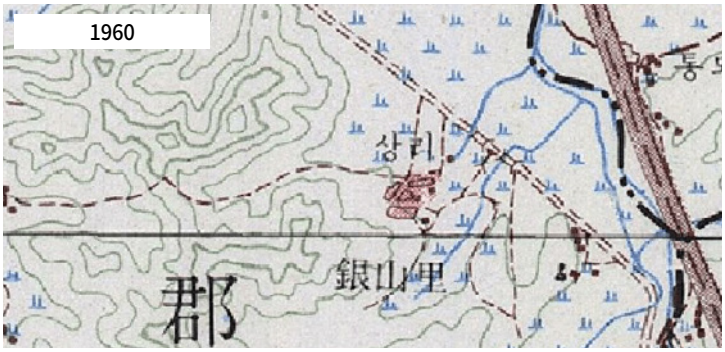
도로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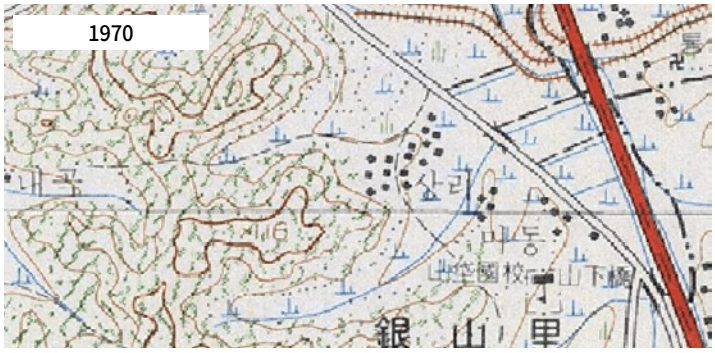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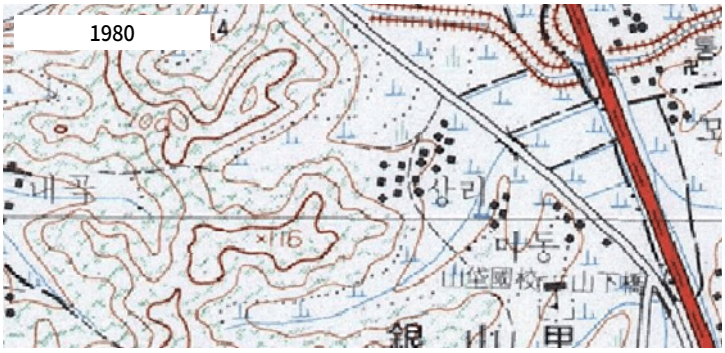
은산3,4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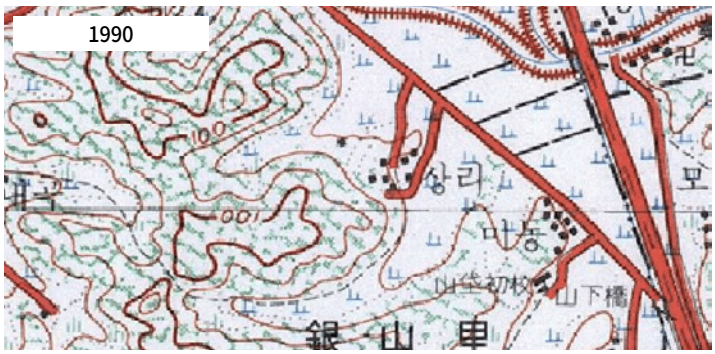
은산 3, 4리는 골짜기 안쪽에 위치하지 않고, 골짜기들이 시작되는 초입부에 구릉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등장하면서 초등학교 주변 몇채의 건축물이 나타나며, 197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바라보는 배치형태로 주거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인 도로 구조는 사선형 도로 구조(306번 국도)에 가지처럼 연결된 도로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 도로구조의 분화는 중심도로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로 변화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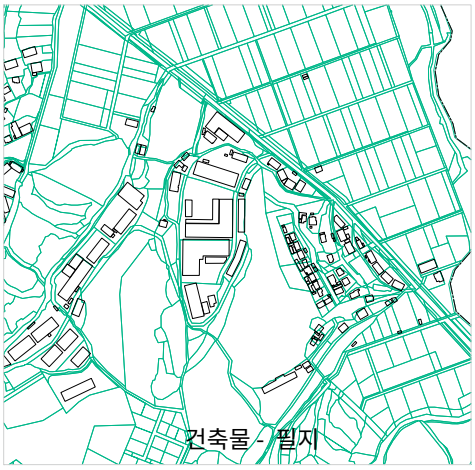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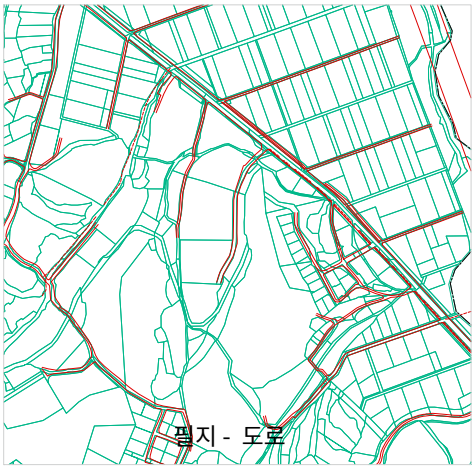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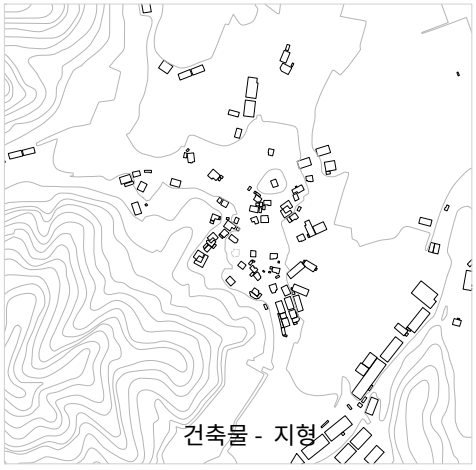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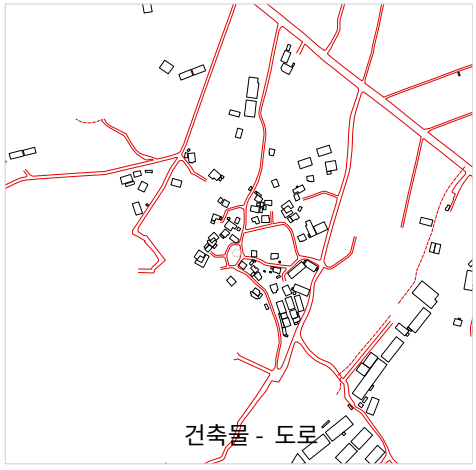
은산3리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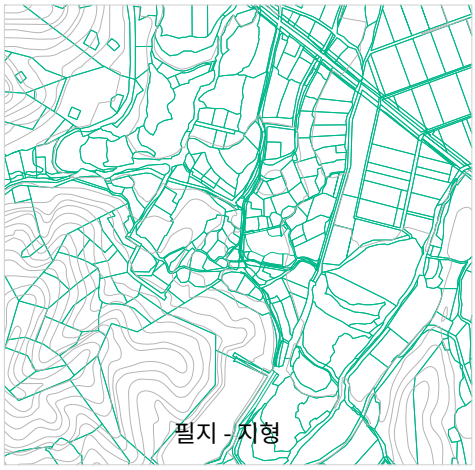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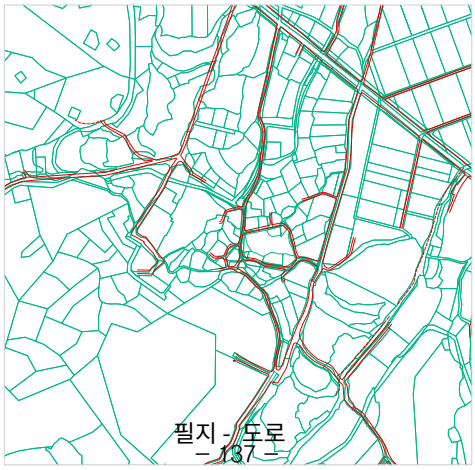


은산4리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은산5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은산5리 진목은 본래 월경과 통미로 나눠져 있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인군 남사면에 편입된 지역으로 1983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평택시에 속하게 되었다(출처 : 평택시민신문(http://www.pttimes.com) 산하천 동측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논 경작지 한가운데 위치한 전형적인 "섬"형태의 촌락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조사 마을 대상지인 진위면 신리, 야막리, 하북2리 와 비교할 수 있다.
1919년의 동서방향 도로 구조가 경부고속도로가 등장하는 1960년대에 이르러 산하천 주변의 제방과 1970년대 논 경지정리이후로는 변경된다. 오늘날의
불규칙한 도로구조의 형태는 논경지정리 사업 이전의 하천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논 필지구획의 흔적으로 보이며, 현재는 마을을 순환하는 환형 구조의 도로에 둘러싸여있다. 일부 필지에서는 긴 세장형 필지의 모습도 나타나며 세장형 필지 양 끝부분에 필지가 분화된 형태로 도로와 연결되고 주택이 들어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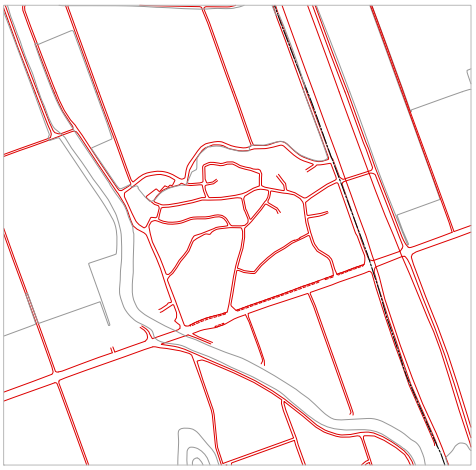
건축물 - 지형

건축물 - 필지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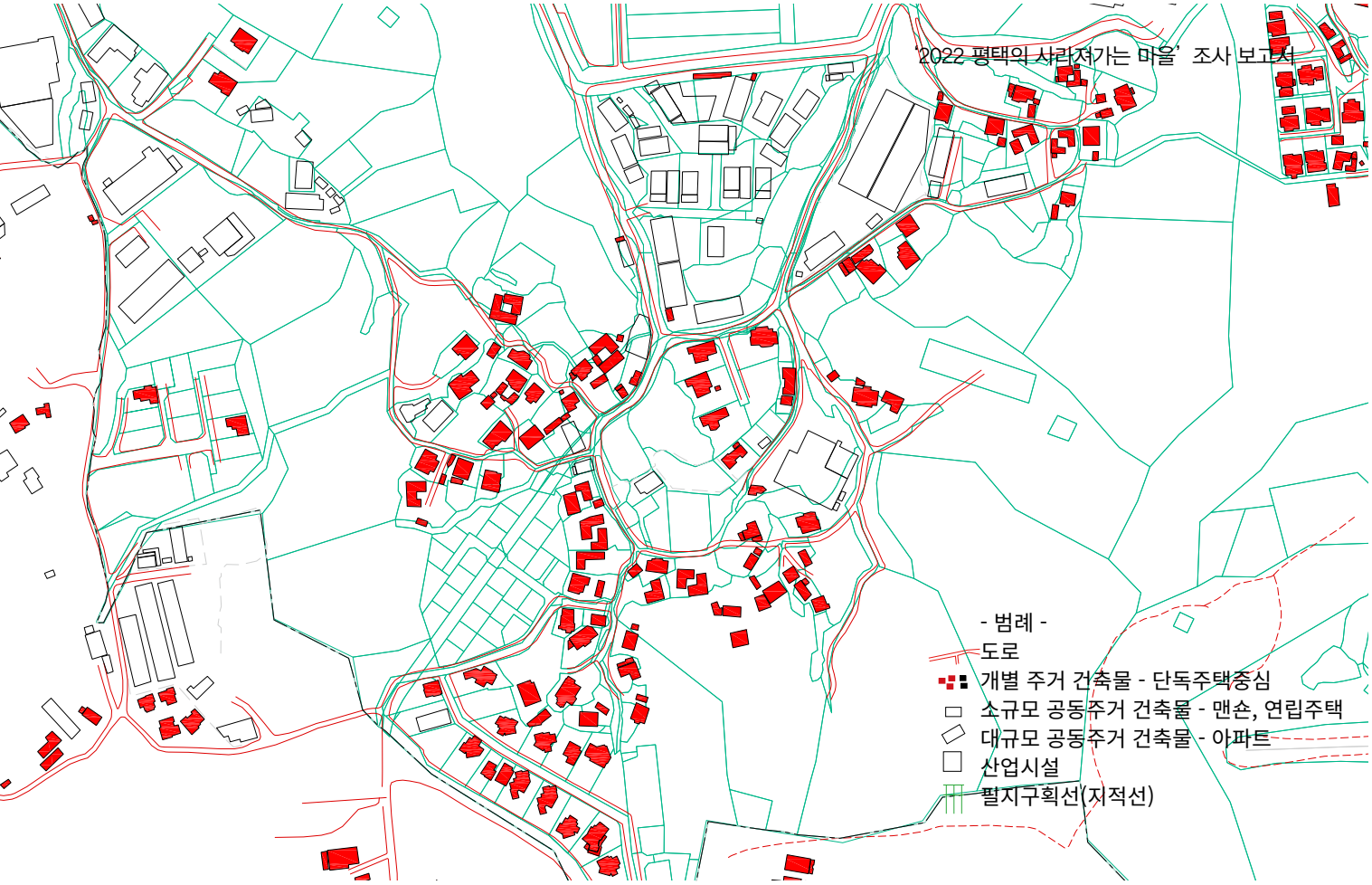


도로 - 지형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산1리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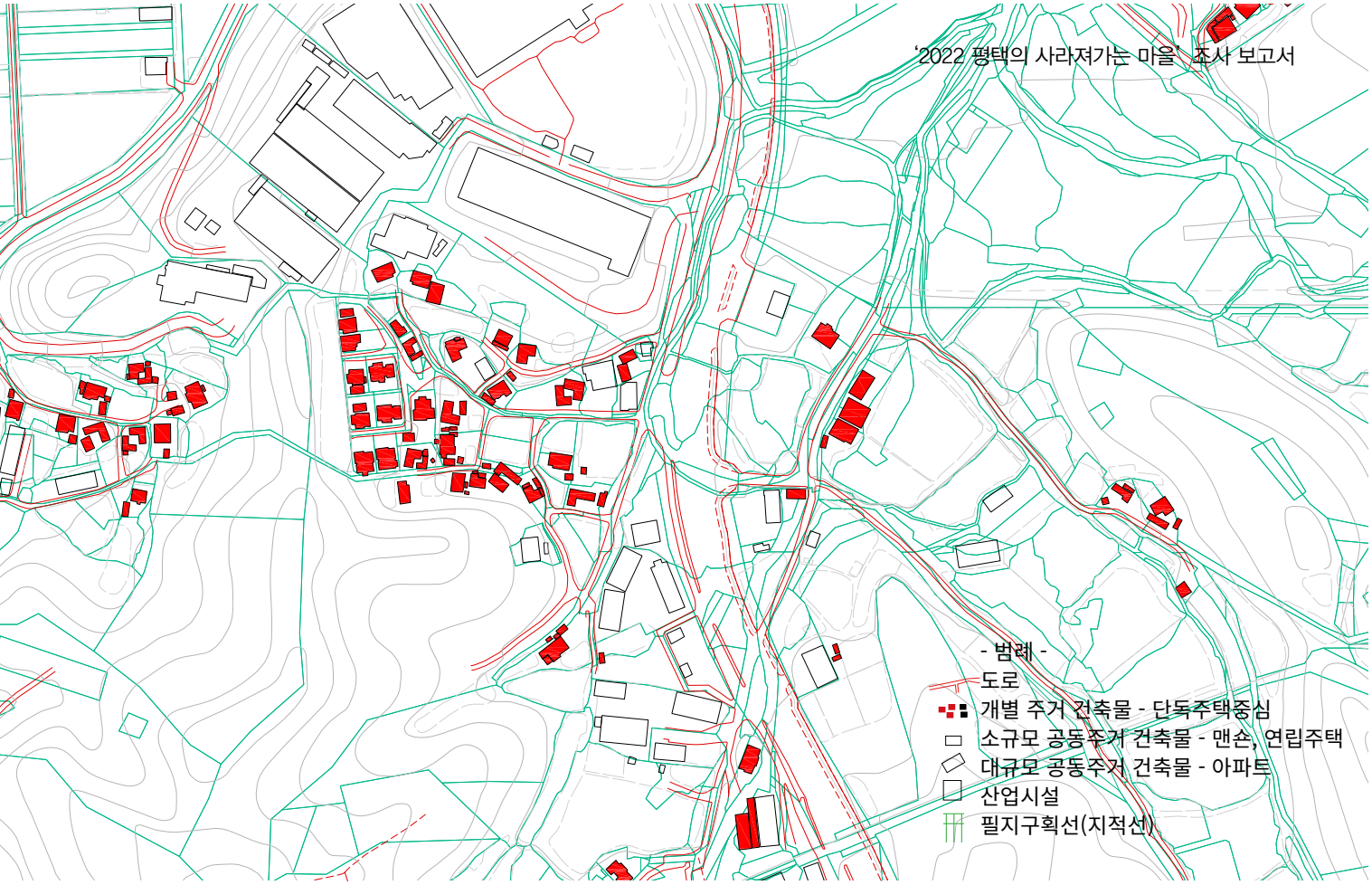


상>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하>2008년 항공사진 (산업단지 조성이전의 마을)[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산2리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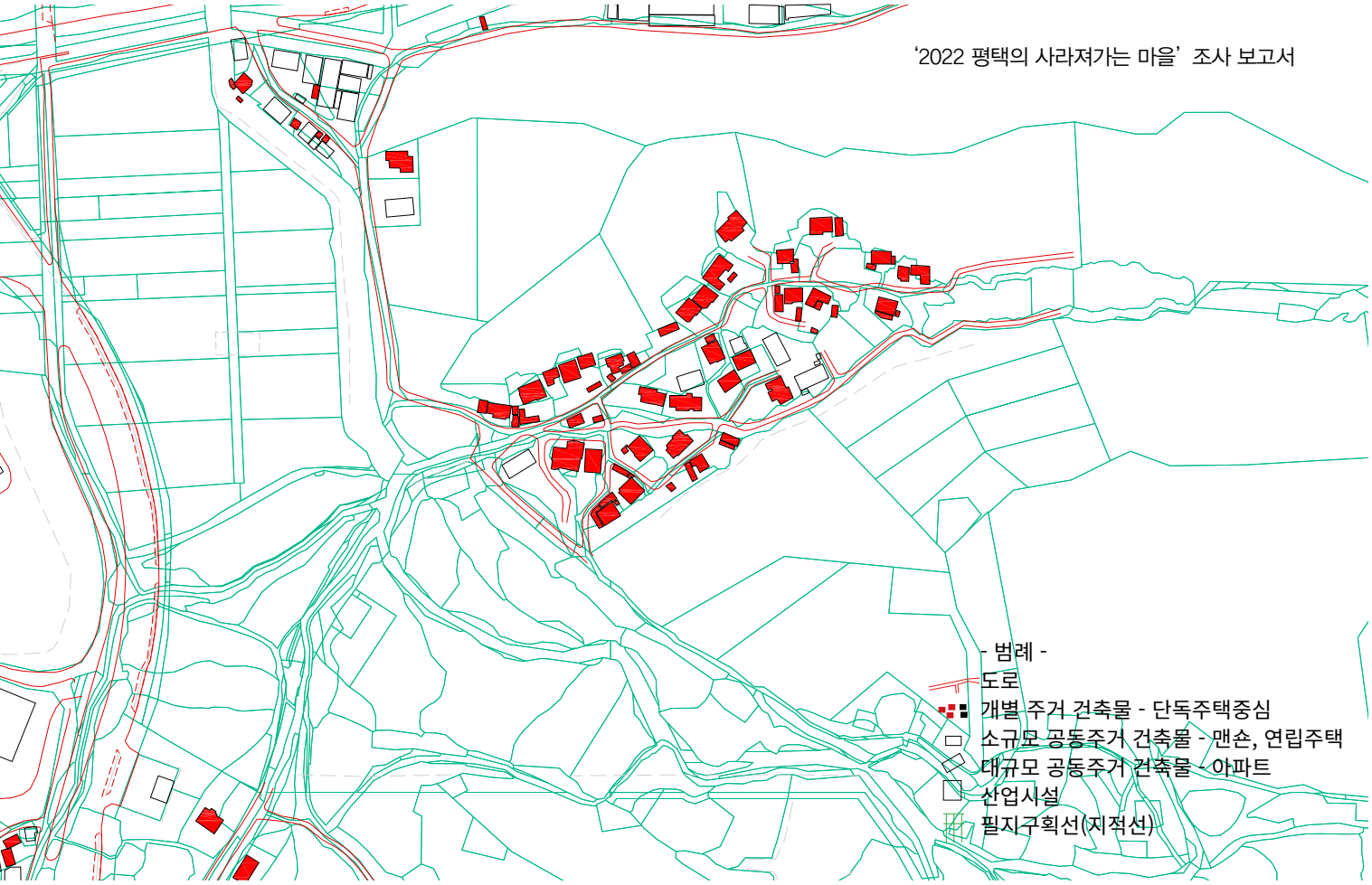


상>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하>2008년 항공사진 (산업단지 조성이전의 마을)[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산3리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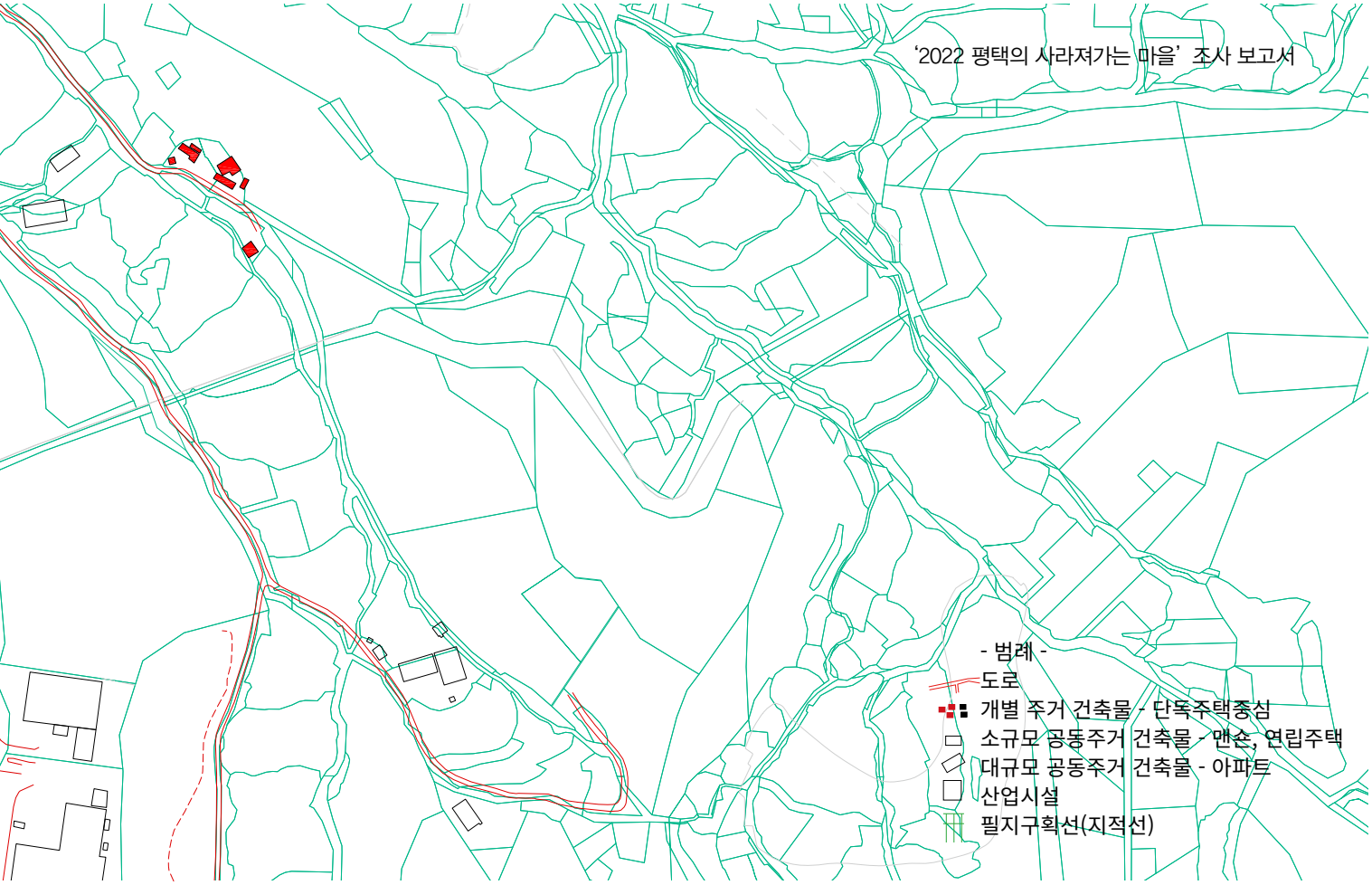


상>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하>2008년 항공사진 (산업단지 조성이전의 마을)[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산4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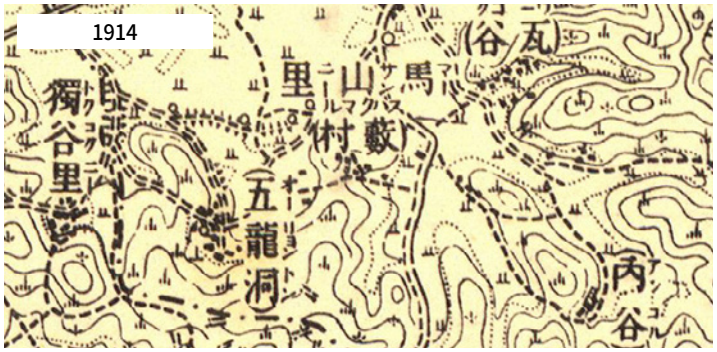
2022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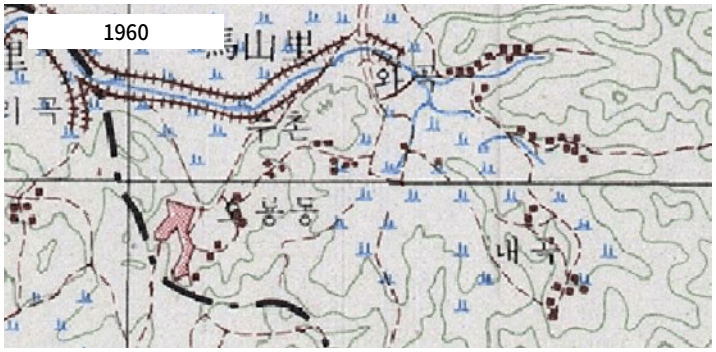


상>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하>2008년 항공사진 (산업단지 조성이전의 마을)[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산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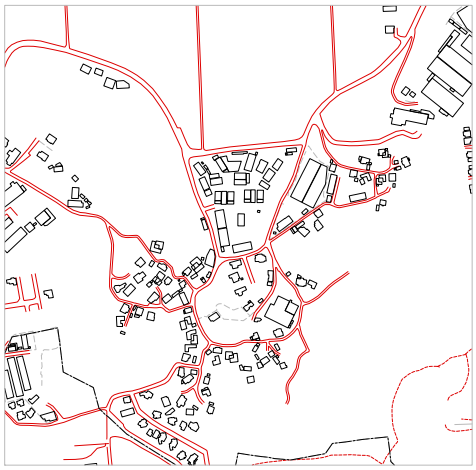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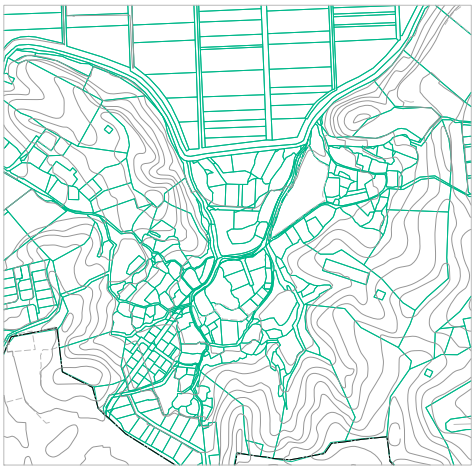
마산1리 /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건축물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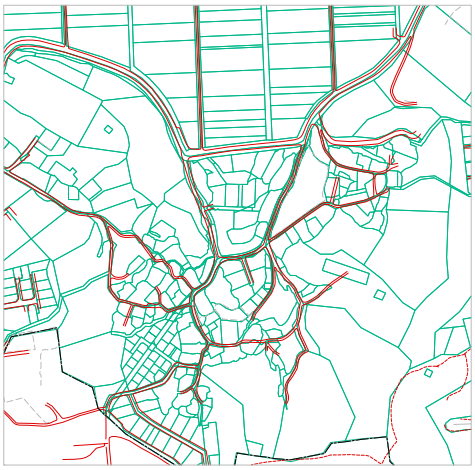
건축물 -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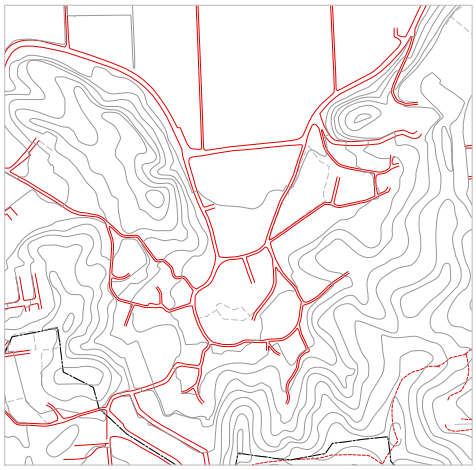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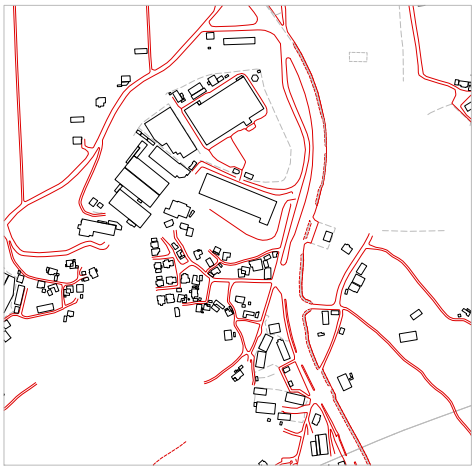
도로 - 지형

마산2리 /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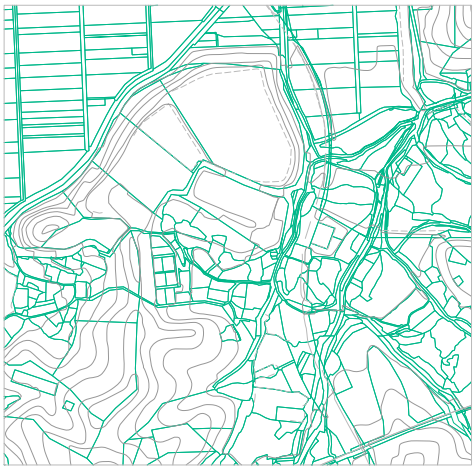
-

건축물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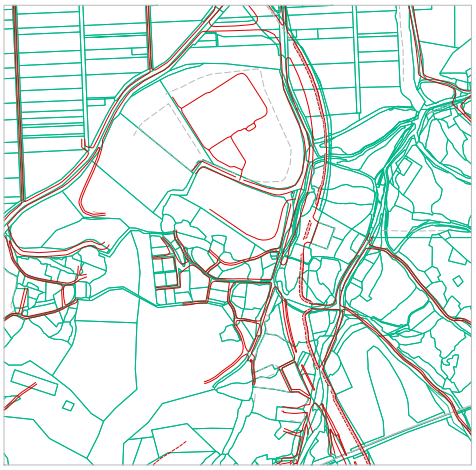
건축물 -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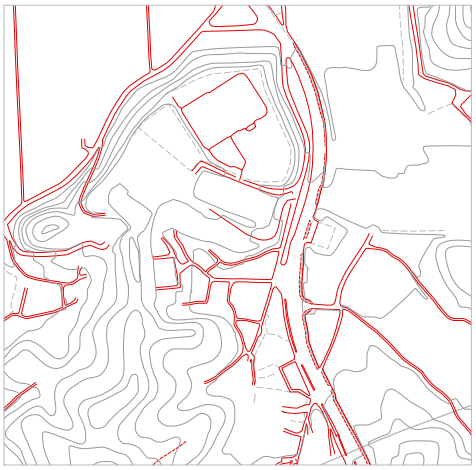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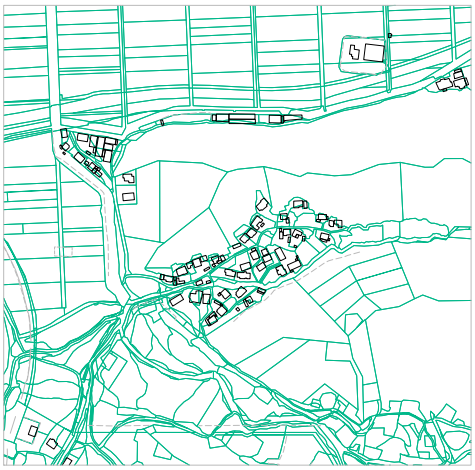


도로 - 지형

마산3리 /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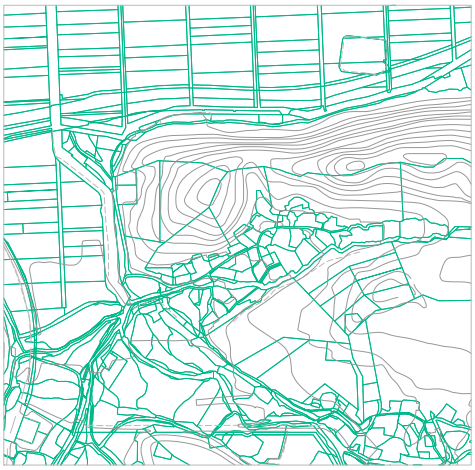
-

건축물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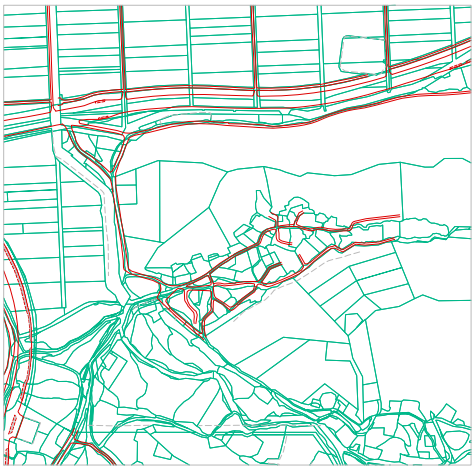


건축물 -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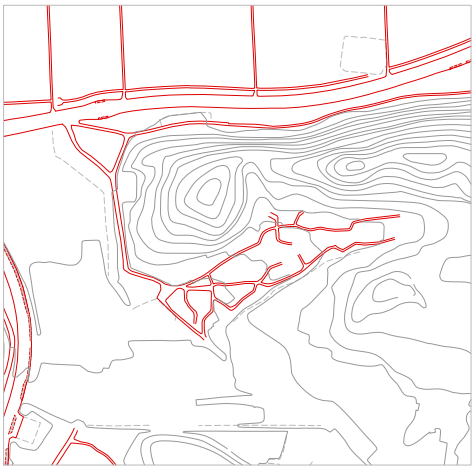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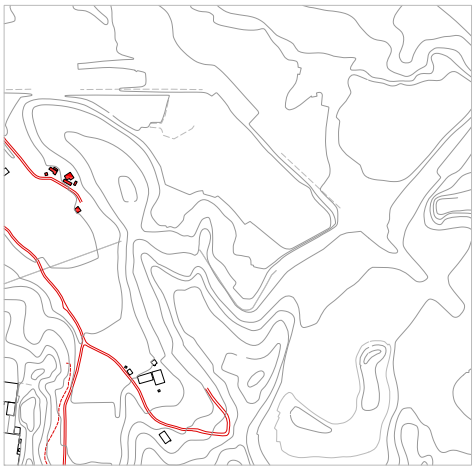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마산4리 /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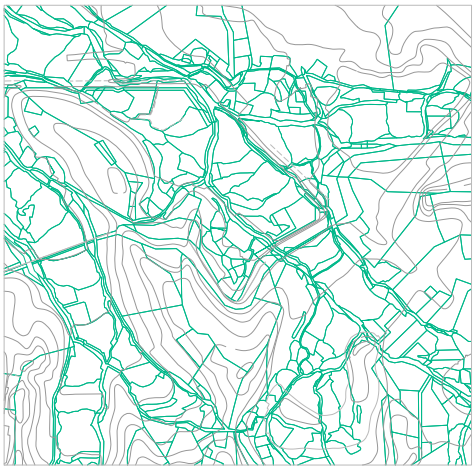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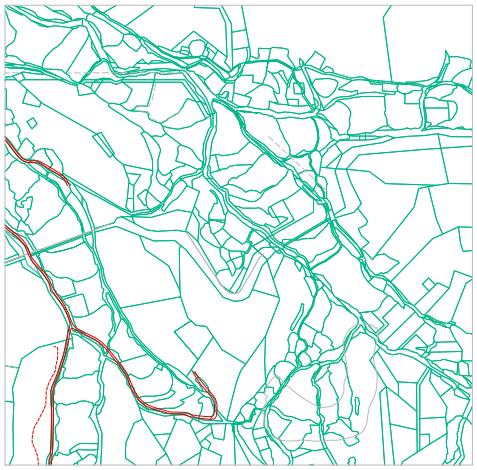
건축물 - 지형

건축물 -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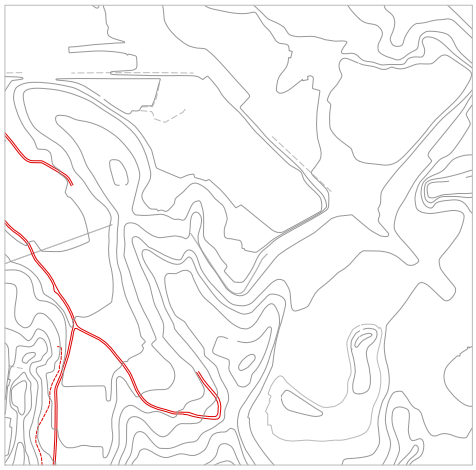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II.

진위면 은산리 마을조사

김해규

여 백

Ⅲ. 은산리 마을조사

1. 조사 배경과 목적

1) 조사 개요

진위면 은산리는 평택지역에서도 가장 북동쪽에 위치했다. 동북쪽으로는 경부고속국도를 경계로 용인시 남사읍과 경계이며, 남쪽으로는 산하천을 경계로 안성시 원곡면과 나뉜다. 진위천을 경계로 동천리와 은산리가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태봉산을 경계로 진위면 마산리와 경계이고, 서남쪽의 덕암산은 평택시 도일동과 경계이다.

이 지역은 태봉산(158.2m)과 덕암산(164.5m) 줄기에 마을과 경작지가 형성되어 평야지대인 평택지역에서도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산촌과 농촌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 골짜기에 형성된 경작지는 풍부한 농업용수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수전농업이 발달했고 농업생산력이 매우 높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안겼다.

이와 같은 지형적, 경제적 조건 때문에 은산리 일대에는 오래전부터 집성촌이 형성되었다. 먼저 은산1, 2리는 이웃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통미마을과 함께 봉화 정씨의 600년 세거지로 일명 ‘산대(山垈)’ 라고 불렀다. 은산3리는 파평 윤씨, 4리는 단양 우씨, 은산5리는 경주 김씨와 경주 최씨가 대성(大姓)을 이루며 입향 시기가 짧게는 200년, 길게는 300년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래서 해방 전후까지만 해도 신분제적 관념이나 친족 관계가 강했고, 유교 문화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화적으로도 교육열과 교육수준이 높았다. 은산3리의 산대분교는 주민들의 교육적 열망과 재정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상급학교 진학률이나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산대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줄다리기가 발달했으며, 은산4리, 5리는 두레와 당제, 우물고사와 같은 마을민속이 발달했다.

2) 조사방법

은산리는 전형적인 전통마을이고, 집성촌이며, 전통적인 농경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농경문화 중에서도 논농사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며 진위면의 다른 마을보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나 축산업의 비율이 매우 낮다. 마을의 정서와 문화도 다른 마을에 비해 변화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의 급격한 산업화와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해체는 은산리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마을의 완전한 해체 이전에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아카이브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은산리의 조사 기간과 조사방법, 조사 인원은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2022.02.01.~2022.12.31.
조사방법	문헌조사, 구술조사, 유물수집
조사자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소장) 최치선(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①집성촌의 형성과정과 특징
②집성촌의 마을운영과 사회조직
③집성촌의 친족 관계와 문화
④전통적 경작지의 생산활동과 농경문화
⑤진위천, 산하천 변의 개간과 농경문화의 특징
⑥마을별 민속문화와 특징

2. 지리적 환경과 지명

1) 자연환경

태봉산에서 본 은산리 전경

평택지역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우리나라 지형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하여 구릉과 평야가 발달하였다. 대체로 구릉은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남서 쪽으로 갈수록 저습한 평야지대가 발달했다. 평택지역의 해발고도는 동북쪽은 최고 200m에 달하지만 남서 쪽은 최저 10m 내외다.

대표적인 산으로는 무봉산, 덕암산, 백운산, 팔용산, 태봉산, 부락산, 오봉산, 고등산, 마안산, 자미산, 비파산, 무성산, 대덕산, 승배산, 괴태산 등이 꼽힌다. 진위면 동천리의 무봉산(208.6m)은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다. 무봉산에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만기사가 있고 산기슭에는 몇백 년 내력의 전통마을이 형성되었다. 무봉산에서 약 4~6km 남쪽에는 덕암산(164.5m), 팔용산(122.2m), 태봉산(158.2m), 백운산(192m)이 있다. 진위면 마산리, 은산리, 평택시 도일동, 지산동에 걸쳐 있는 덕암산(해발 164.5m), 태봉산(158.2m)은 고려시대 영신현의 주산이다. 그래서 진주 소씨, 봉화 정씨, 원주 원씨, 단양 우씨같은 명문가가 세거했으며 민속문화도 발달했다.

진위면은 평택지역의 지형에서도 가장 동북쪽에 위치했다. 그래서 구릉과 계곡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문화가 발달했다. 동쪽으로는 경부고속국도를 경계로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와 나뉜다. 남동쪽으로는 산하천을 경계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와 경계이며, 서쪽으로는 태봉산과 덕암산을 경계로 지산동 동막마을과 마산4리 안골, 도일동 상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북쪽으로는 과거 진위현 읍치였던 봉남리와 경계다.

은산리는 진위면서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했다. 마을 뒤쪽으로는 덕암산과 태봉산이 있고 동막골, 사낭골, 반자울 같은 비옥한 경작지가 형성되어 옛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 근대 전후로는 산하천 좌우와 진위천 은산5리 일대로 경지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식수와 농업용수, 땔감을 구하기 쉬웠고, 밭농사와 논농사가 고루 발달하여 물산이 풍부했다. 은산리 일대에는 여말선초부터 명문 세가들이 자리를 잡았다. 은산1, 2리의 봉화 정씨를 비롯해서, 은산 5리의 단양 우씨, 은산5리의 경주 김씨와 경주 최씨가 그들이다. 이중에서 봉화 정씨는 삼봉 정도전의 후손들로 은산리 일대의 넉넉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누대에 걸쳐 지역의 대표적인 토호로 역할했다.

진위천과 산하천

태봉산과 비석산

평택지역은 예로부터 들이 넓고 하천이 발달하였다. 큰 하천으로는 안성천과 진위천, 발안천이 있으며 이밖에도 오산천, 황구지천, 도대천, 통복천, 소사천 등 약 50여 개의 하천이 흐른다. 은산리 북쪽으로는 진위천이 흐른다. 진위천은 은산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했고 드넓은 충적지를 제공하여 경지면적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산하천은 원곡면 산하리 사낭골에서 발원하여 은산리와 원곡면 산하리 사이를 흘러 진위천으로 유입된다. 산하천은 은산리 일대에 농업용수 뿐아니라 식수를 제공했다.

진위천은 동천리 일대에서 물줄기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용인의 처인 쪽의 것을 장호천(長好川), 양지현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을 구천(龜川)이라고 하였다. 문헌 상으로 살펴보면 15세기 후반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진위현에서는 '장호천(長好川)'이라고 하였으며, "현 남쪽 1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용인 속현으로 되어있는 처인(處仁) 동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옛 양지현 서편에서 나와서 합류한다. 객관 남쪽을 지나 다시 서편으로 흘러 수원부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1843년에 편찬된『진위현 읍지』에서는 장호천과 귀천으로 구분하여 소개했는데, "장호천(長好川)은 현의 남쪽 1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용인의 옛 속현(屬縣)인 처인(處仁) 동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양지현(陽智縣)에서 나와 합류한다"라고 했으며, 또 "귀천(龜川)은 현의 동쪽 3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왔는데 갈라져서 북쪽으로 몇 리를 흐르다가 다시 장호천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하였다.

진위면 동천리, 봉남리, 은산리, 견산리, 마산리 일대에서는 진위천과 지류에 보(洑)를 막아 농업용수로 사용했다. 1891년『진위현 읍지』에서는 '장호평보(長好坪洑)', '황승보(黃承洑)', '대야소보(大也所洑)' 등이 소개되었다. 이 가운데 '장호평보'와 '대야소보[1]'는 '현(縣)의 동쪽 3리와 2리 지점에 있으며 현내면(縣內面)과 일탄면, 이탄면에 관개(灌溉)한다'고 하여, 진위면 봉남리 진위향교 앞과 동천리 학농원 부근에 있었으며 봉남리, 동천리, 신장동, 독곡동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했음을 말해준다.

제언(堤堰)도 있었다. 1899년『진위군 읍지』의 "사발동언(沙鉢洞堰) 현 동쪽 10리 마산면 상리(馬山面 上里)에 있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 둑을 허물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마산면 상리는 현재 은산4리 말미 마을인데, 이곳의 사발동언(沙鉢洞堰)은 계곡에 둑을 쌓아 조성했는데 가뭄으로 물이 마르자 허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위천이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총 유로 연장 50㎞

1) 1899년『진위군 읍지』에는 '대야보'라고 했다.

인데 이 가운데 은산리, 봉남리, 견산리 일대 18km는 지방 2급 하천 구간이며 서남쪽으로 흘러 안성천과 만나 아산만까지 흐르는 32km 구간은 국가하천이다.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기 전까지 진위천으로는 아산만으로부터 바닷물이 역류하여 일상생활 뿐 아니라 농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바닷물은 1974년 당시 서탄면 회화리 인근까지 들어왔다. 이것도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다.

산하천(山下川)은 진위천의 제1지류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서 발원하여 은산리와 동천리를 거쳐 진위천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하천연장은 3.71㎞이고, 유로 연장은 5.72㎞, 유역면적은 11.52㎢이다. 산하천 유역은 대부분 저습한 농경지가 발달하여 일찍부터 논농사와 밭농사가 발달했다. 또 수질이 깨끗해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은산5리와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 통미마을의 주요 식수원, 은산3리~5리의 농업용수 역할도 했다.

마을들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은산1리~4리가 위치한 태봉산 자락은 골짜기가 깊고 땅이 비옥해서 논농사와 밭농사에 적합했다. 특히 은산리 일대에서는 사낭골, 동막골 등 1~2km 이상 깊숙하게 형성된 계곡을 배경으로 논농사가 발달했고 단위면적 당 생산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1~2배가량 높아서 매우 풍요로웠다. 특히 봉화정씨의 600년 세거지 은산1, 2리와 이웃 마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일대는 일명 ‘산대(山垈)’라고 부르는데 예로부터 농업생산력이 높았고 생활환경이 유리해서 인구 밀도가 높았다. 반면 산하천 좌우의 배후습지는 범람이 빈번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천수답이었다. 이들 논은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천부지를 간척하거나 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도 산하천 배후습지의 논을 파면 1m 50cm까지는 진흙층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아래로는 개흙이 나온다고 하여 간척의 흔적을 증명한다. 간척으로 형성된 산하천 습지는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가뭄이 심해서 농업생산력이 매우 낮았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논으로 경작하지 못해 밭농사를 짓는 땅들이 많았다.

은산리 일대는 집성촌이 많고 농업생산력이 안정되어서 인심이 좋다. 19세기에 편찬된『진위현읍지』에도 “진위현은 민예(民藝)와 무(武)는 많은데 문(文)은 적다. 농사에 힘쓰고 상업은 적다”라고 하였고, 1899년『양성군지』에서는 풍속이 “순순하다[2)]”라고 하여 고을의 성격과 특징을 말해준다. 조선 후기의 읍지(邑誌)와 지리지(地理志)에는 토산물로 붕어, 게, 지황, 향부자, 금은화를 언급한다. 이것은 주로 진위천과 지류에서 잡히는 어물과 밭에서 재배하는 약초인데 근대 이전만해도 마을의 가장 대표적인 생산물이었음을 말해준다.

마을은 덕암산과 태봉산 사이 사낭골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된다. 은산1리 기동은 봉화 정씨가 처음 터를 잡아서 유래된 마을이다. 2리 방촌은 봉화 정씨가 융성하면서 마을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은산3리 미동은 파평 윤씨가 많으며, 은산4리 상리는 단양 우씨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다. 은산5리 월경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에 편입되었지만 1969년 9월 경부고속국도 오산-천안 간 제3공구가 준공되면서 진위면 은산5리로 재편입된 마을이다. 현재도 원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만 은산2리~4리 방면에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전통의 마을 경관이 변하고 있다.

2) 19세기 말 은산1, 2리는 양성군 승량원면 지역이었다.

2) 인구와 성씨

은산리는 근대 전후 진위현 마산면, 양성현 승량원면, 용인군 남사면의 경계에 위치했고 행정구역의 변화가 많아서 인구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1789년에 편찬된『호구총수』에는 진위현 마산면의 호(戶)는 120호이며, 구(口)는 남정(男丁)이 200명, 여정(女丁)이 203명 도합 403명이라고 했다. 당시 마산면의 자연마을은 상리와 하리뿐이었으므로 은산4리에 속했던 상리는 약 60호 200여 명은 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1891년『진위현 읍지』에는 호(戶)가 144호로 증가한 반면 구(口)는 남녀 195명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은산1, 2리가 속했던 양성현 승량원면에는 상리, 중리, 하리와 같은 마을이 있었고 인구는 150호(戶) 453명이었다. 그런데 인구 가운데 남정(男丁)이 320명, 여정(女丁)이 132명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의구심이 든다. 은산1, 2리의 인구는 승량원면의 150호(戶) 453명 가운데 약 1/3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11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조선지지자료』가운데 양성군 승량원면에는 성주동(승주골), 망해암, 와곡동(왯고지), 후곡(뒷골), 통심리, 시곡(감나무골), 곡촌(골말), 산직촌(산직말), 기동(터골), 대촌(큰말), 재평동(재푸랑이), 신촌과 같은 마을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은산1, 2리에 속한 마을은 기동과 대촌이다. 기동은 은산1리 자연마을이며, 대촌은 은산2리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자연마을의 수와 규모를 볼 때 1899년『양성군지』승량원면의 상리, 중리, 하리 가운데 한 마을만이 은산리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은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진위군 마산면의 월경리, 산내리, 양성군 승량원면의 방촌과 기동, 신촌 일부, 상리, 은정동, 양성군 면하촌, 중리, 하중리, 상촌을 편입하여 ' 은산리 '라고 했다. 이때부터 비로소 마을별 인구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 후 두 번째로 편찬된『진위군 통계연보』(1962)에는 진위군 전체에 1,361호 8,064명이 거주했지만 마을 별 인구는 파악되지 않았다. 1964년『진위군 통계연보』에는 1,375호 8,404명으로 약간 상승했다. 이때부터 마을별 인구가 파악됐는데 은산리에는 111호 824명이 거주했다. 다음은 1965~1985년 사이 은산리의 인구 변동 추이다.

표1) 1965~1985년 은산리 인구 변동[3)]

연도	세대(호) 수	인구	남	여	비고
1965	116	820	398	422	
1970	134	768	379	389	
1975	133	722	342	380	
1980	132	661	322	339	
1985	232	1,078	552	528	

은산리의 인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1983년 크게 증가했다. 그것은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에 속했던 월경마을이 평택시 진위면 은산5리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월경마을은 100여 호에 약 400여 명이 넘어서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은산리는 1987년에도 242세대(호) 1,103명(남자 568명, 여자 535명)의 인구를 유지하여 1985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1980년대 초부터 남녀별 인구가 역전되면서 남초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점은 주

3) 평택군,『평택군 통계연보 』, 1965~1985

목할 내용이다. 다음은 2022년 6월 28일 진위면 은산리의 인구다.

표2) 2022년 6월 27일 은산리 인구[4)]

마을 명	세대 수	인구	남	여	비고
은산1리	34	70	37	33	
은산2리	55	112	57	55	
은산3리	43	79	42	37	
은산4리	55	83	50	33	
은산5리	125	274	147	127	

은산리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예컨대 2021년 진위면의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은산1리는 39세대 85명이 거주했지만 불과 1년 뒤인 2022년에는 34세대 7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은산2리도 2021년에는 60세대 118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55세대 112명으로 감소했다. 은산4리는 57세대 94명이서 소폭 감소했고, 은산3리와 은산5리만 40세대에서 43세대, 126세대에서 125세대로 소폭 상승하거나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은산1, 2리의 경우 젊은층의 도시 이주 및 정착이 증가하고 노령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50~60대의 비교적 젊은층들은 인근의 이충동이나 지산동 등 도시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마을을 오가며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았다.[5)]

은산리는 봉화 정씨가 대성(大姓)이다. 그밖에도 3리에는 파평 윤씨가 많고, 4리에는 단양 우씨, 5리에는 경주 김씨와 경주 최씨가 많다.

표3) 조선시대 진위현의 성씨

지역	출처	시기	성씨		
진위현	세종실록지리지	1454(단종2)	土姓	亡姓	續姓
			李·金·崔	柳·宋	趙(稷山來)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중종25)	金 · 李 · 柳 · 崔 · 宋		
	여지도서	1757~1765	金 · 李 · 柳 · 崔 · 宋 · 吳 · 黃		
	진위현 읍지	1843(헌종9)	金 · 李 · 柳 · 崔 · 宋		
	진위현 읍지	1891(고종28)	金 · 李 · 柳 · 崔 · 宋		

표3)은 조선시대 진위현의 읍지(邑誌)와 지리지(地理志)에 나타난 성씨 변화다. 당시의 읍지·지리지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를 베끼는 경우가 많아서 신뢰성은 적지만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진위현의 성씨는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金·李·柳·崔·宋 다섯 성씨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양반 사족이

4) 진위면사무소 제공
5) 은산1리 이장 정병억(남, 1952년생), 은산3리 이장 윤정희(남, 1968년생) 등은 과거 회사를 다녔거나 현재 공인중개사를 하는 사람들로 구 송탄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마을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안동 권씨, 진주 소씨, 봉화 정씨, 단양 우씨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은 언급한 성씨가 지역 사족층(士族層)에 속하지 못했거나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각 성씨에 대한 소개다.

① 봉화 정씨(奉化鄭氏)

은산2리 입구 봉화정씨 세거비 및 삼봉 정도전 신도비

봉화 정씨의 시조는 정공미(鄭公美)다. 고려 초 경상도 봉화지역의 호부령(戶部令)을 지냈고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면서 호장(戶長)이 되었다. 정공미의 증손 정운경(1305~1366)은 1330년 문과에 급제하여 개경으로 상경했고 1359년 형부상서에 올랐다. 정운경의 아들 문헌공(文憲公)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이성계를 받들어 조선을 건국했고『조선경국전』,『경제문감』,『경제육전』등을 저술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했으며 한양천도를 주도하여 봉화백(奉化伯)에 봉해졌다. 하지만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에게 피살되면서 후손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큰아들 정진(鄭津)은 삭직되어 수군에 충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재기하여 충청도 관찰사와 공조판서, 형조판서를 지냈다. 희절공 정진(鄭津)의 장남 용인공 정래는 용인현감을 지낸 뒤 진위면 은산1리에 입향했다. 이후 후손들이 일명 '산대(山垈)'라고 부르는 은산1리, 2리,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통미 등에 폭넓게 분동하여 큰 세력을 이뤘다. 진위면 지역에서는 봉화 정씨를 '산대 정씨'로도 부른다.

② 단양 우씨

진위면 마산리 단양 우씨 묘역 및 입향조 우원유의 묘

단양 우씨는 고려(1014)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조호장(正朝戶長)을 지낸 우현(禹玄)이 시조다.

우현의 9세손이며 공양왕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오른 우현보(禹玄寶)가 단양부원군에 봉해지면서 단양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홍수, 홍부, 홍강, 홍득, 홍명 등 우현보의 아들 5형제는 문과에 급재하여 가문의 명망을 높였다. 하지만 고려 말의 격변기에 이색, 정몽주와 함께 이성계, 정도전이 주도했던 조선왕조 개국에 반대하면서 조선 건국 후 홍부, 홍강을 제외한 세 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 큰 화를 입었다. 하지만 이방원이 주도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큰 공을 세워 우현보는 추성보조공신, 아들들은 추성원종공신에 봉해지면서 가문이 다시 일어섰다. 평택 입향조는 안정공(安靖公) 우홍강의 넷째 우원유(禹元瑜)다. 우원유는 진위면 마산리로 입향했으며 이후 독곡동 오리골, 은산4리 상리, 지제동[6] 등으로 확산되었다. 입향 후 우원유의 손자 우신은 예종 때 순천 부사를 지냈으며, 증손 우윤공은 여주목사와 내금위장을 지내면서 막대한 부를 축재했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에 따르면 단양 우씨는 예로부터 양반으로 대우받았다고 말한다. 현재 진위면과 지제동 일대에는 30호 내외가 거주하고, 은산4리에는 14대손 우담의 후손들이 많다. 가장 많이 거주할 때는 전체 32호 중에서 10여 호쯤 되었지만 현재는 6호가 거주한다. 근래의 인물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제항이 은산4리 출신이다.

③ 파평윤씨(坡平尹氏)

시조는 윤신달(尹莘達)이다. 윤신달은 고려 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통합삼한벽상익찬공신(開國慟合三韓壁上翊贊功臣)에 올라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가 되었다. 5세손 윤관은 여진정벌에 공을 세워 영평현 개국백(開國伯)에 봉해졌다. 평택지역에는 조선 정조 때 25세손 윤호(尹昊)가 지제동으로 입향했으며, 소정공파(昭靖公派)·판도공파(版圖公派)를 비롯해 여러 파(派)가 거주한다. 현재 은산3리에는 소정공파와 판도공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후손 윤정희(남, 1968년생)에 따르면 입향조는 본래 서산에 거주했다고 말한다. 후손이 없어 위로 6대조인 일명 ‘진사할아버지’가 판도공파에서 소정공파로 양자를 오게 되었는데 양부가 사망하면서 양모께서 양아들인 ‘진사할아버지’를 데리고 은산3리로 이거했다고 한다. 이후 8대(약 200여 년)를 거주했으며 현재는 은산3리에만 6호가 거주한다.

④ 경주김씨(慶州金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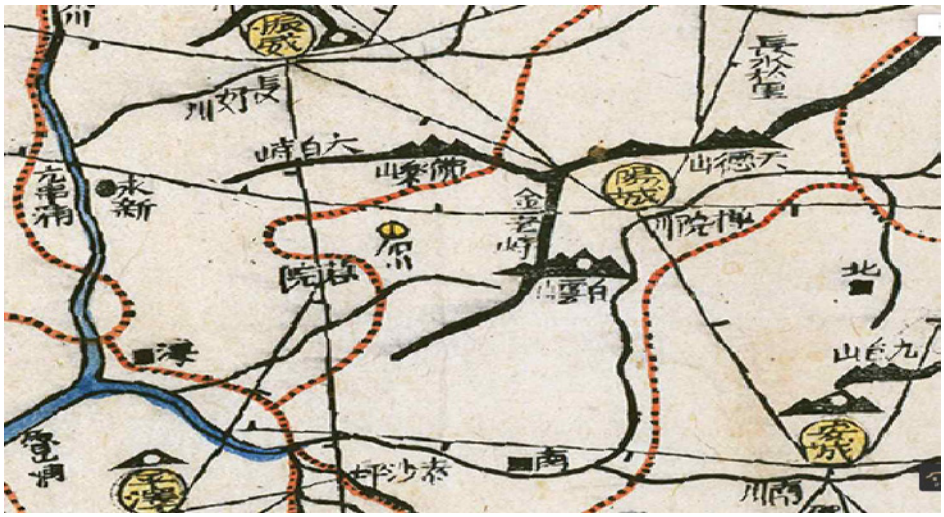
신라의 김알지(金閼智)를 시조로 한다. 알지계(閼智系) 가운데서도 그 대종을 이루는 경주김씨(慶州金氏)는 분파와 지파가 수십 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대표적인 분파로는 영분공파(永芬公派)·대안군파(大安君派)·태사공파(太師公派)·판도판서공파(判圖判書公派)·장군공파(將軍公派)가 있다. 조선 시대에 6명의 정승과 3명의 왕비를 배출했다. 경주 김씨는 은산5리에 거주한다. 김학섭(남, 1955년생)은 조부 때 용인에서 이주했다고 했으며, 많을 때는 20호가 넘어서 마을 정치와 사회를 좌우했지만 지금은 10호 내외라고 했다.

⑤ 경주최씨(慶州崔氏)

6) 지제동에는 11대손과 13대손의 후손들이 거주한다.

신라 때 학자 최치원이 시조다. 신라의 대표적인 6두품 가문으로 학문에 능했고 고려왕조에 적극 협조하여 고려 성종 때의 최승로(崔承老), 현종 때의 최항(崔沆), 충숙왕 때의 최해를 배출했다. 은산5리에 거주하는 경주 최씨는 화숙공파다. 화숙공파의 파조(派祖)는 최애(崔藹)의 장남 현우(玄祐)다. 최현우는 고려 충숙왕 때 서해도 안렴사를 지냈으며 화숙공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후손 최재성(남, 1932년생)은 최치원의 31세손이다. 최제성에 따르면 은산리의 경주 최씨는 본래 충남 홍성에 살다가 위로 6대조가 은산5리로 이주하면서 세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최재성까지 6대, 증손자까지 9대를 거주했다. 1960, 70년대만 해도 9호가 거주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지금은 6호뿐이다.

3) 교통



대동여지도 은산리 일대 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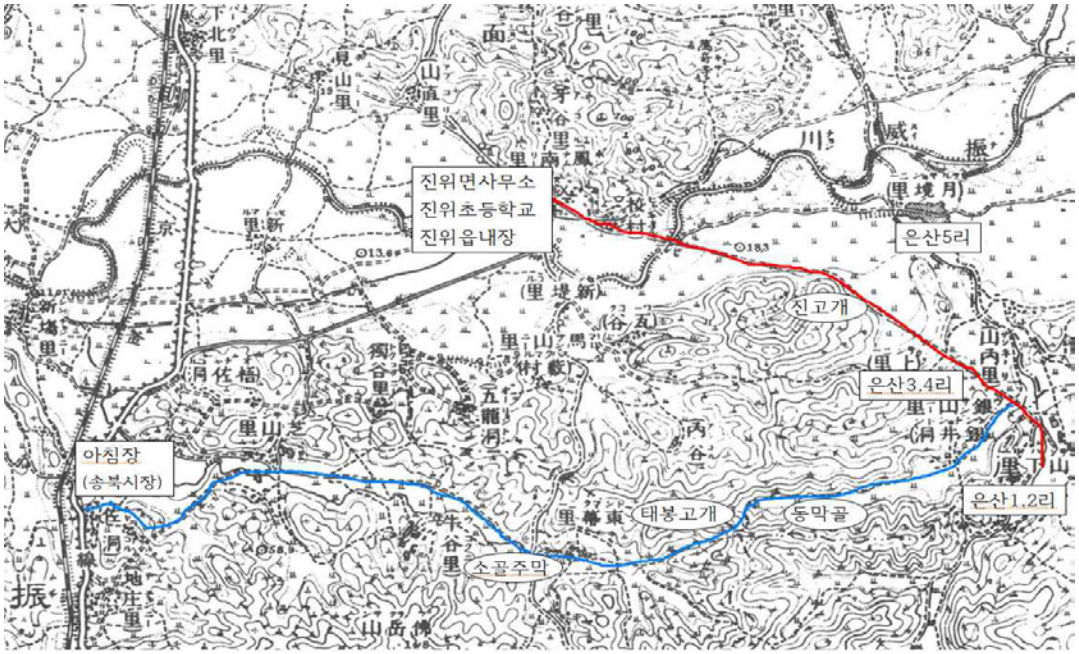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진위현은 “동쪽으로 양성현 경계까지 13리이고, 북쪽은 용인현 경계까지 33리이며, 서울까지는 118리” 라고 했다. 이것은 1843년에 편찬된『진위현 읍지』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양성현 경계’ 는 진위면 은산1, 2리를 말하고, 용인현 경계는 은산5리와 동천리를 말한다. 1891년『진위현 읍지』는 기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아닌 치소(治所)에서 치소(治所)까지의 거리로 표기했다. 당시 진위현에서 용인현까지는 70리이며. 충청도 평택현까지 40리, 수원부까지 50리, 양성현까지 20리, 서울까지는 120리고 했다. 1899년『양성군 읍지』에는 은산1, 2리가 포함되었던 승량원면까지가 “북쪽으로 17리” 라고 했다. 이것은 근대이전 양성현과 용인현의 경계에 위치했던 은산리에서 진위현의 읍치 봉남리까지의 거리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다.

근대이전까지만 해도 은산리의 교통은 나쁘지 않았다. 용인에서 은산리-덕암산(부인터고개)-도일동으로 연결된 도로가 칠원1동에서 삼남대로와 연결되었고, 진위현의 읍치(邑治) 봉남리와도 육로로 연결되었으며, 주요 장시(場市)였던 진위면 봉남리의 진위읍내장, 양성면 동항리의 양성 읍내장과도 10리~20리 거리였다.

근대 이후에는 장시(場市) 이용 외에도 관청 및 공공시설의 이용, 철도와 근대교통의 이용,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교 통학이 생활에 중요한 내용이었다. 은산리에서는 행정사무는 5리~10리

거리인 진위면 봉남리의 진위면사무소에서 처리했고 철도교통은 15리 떨어진 중앙동 서정리역을 이용했다. 장시(場市)는 오산장과 진위읍내장, 서정리장, 평택장을 이용했다. 초등교육기관은 진위면 봉남리의 진위초등학교를다녔지만 1954년 은산3리에 산대분교가 개교하면서 이곳으로 다녔다. 1950년대 신장동 일대에 미군기지촌이 발달하고 지산동에 송북시장(아침장)이 발달하면서 송북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부 주민들은 신장동의 중앙국제시장에서 땔감을 판매하기도 했다. 1960, 70년대부터는 중등학교 진학자가 많아졌다. 중등학교는 1953년 진위고등공민학교로 시작하여 1965년에 진위중학교가 설립되었지만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서울로 유학하거나 평택이나 장당동 효명중고등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이들 학교를 오가는 통학 교통로도 매우 중요했다. 다음은 지역별 도보 교통로다.

① 은산리-봉남리 및 은산리-지산동 송북시장(아침장)[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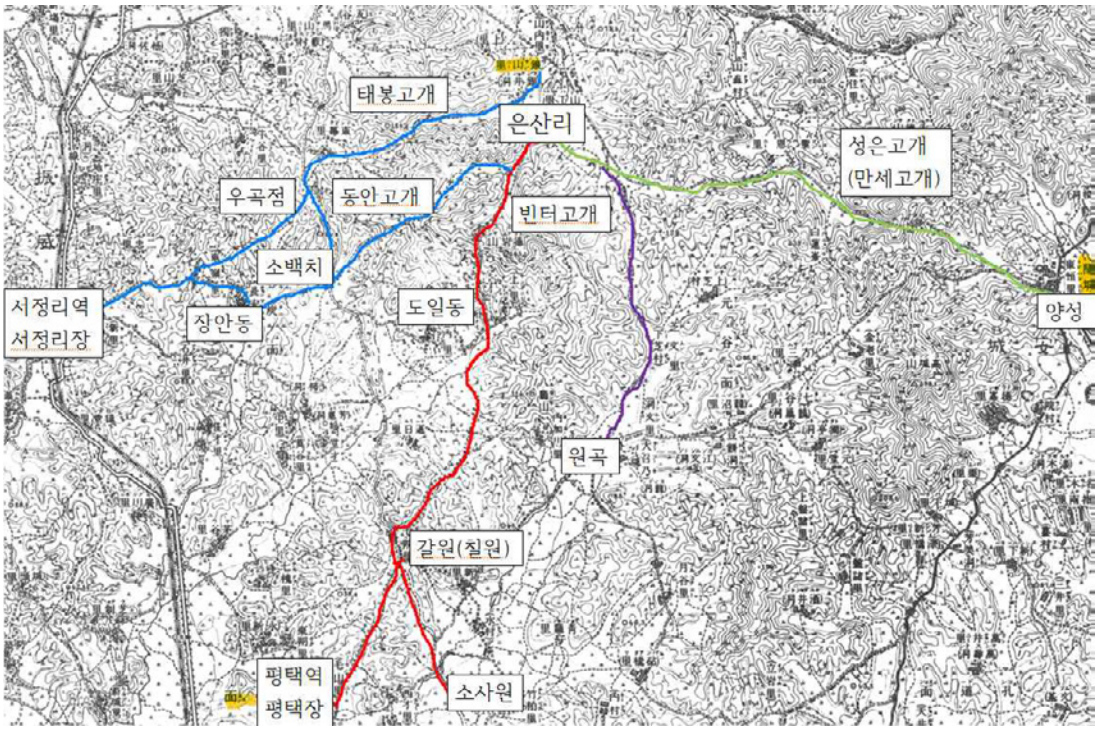
진위면 봉남리는 조선시대 진위현의 읍치(邑治)였다. 그래서 관아(官衙)와 향교(鄕校)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오가야 하는 곳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견산리-신리-마산1리를 거쳐 가던 삼남대로가 견산2리-봉남리-마산3리 신제점-대백치로 바뀌었다. 교통로가 발달하면서 봉남리에는 진위 읍내장이 형성되었다. 장시(場市)가 발달하면서 봉남리를 오갈 이유는 더욱 많아졌다. 근대 이후에는 진위군청 옆에 진위공립보통학교(현 진위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근대학교가 생기면서 근대교육을 받기 위해 통학하는 어린이들도 봉남리를 오갔다. 정중임(여, 1935년생)은 봉남리를 오갈 때 은산1리에서 마루테기를 넘어 은산3리 은정골의 공동묘지 옆을 지나갔다고 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지름길이었다. 은산3리, 4리 주민들은 구도로(산 밑을 따라 형성되었던 마차길)를 따라 걸어가다 향교 앞 뛰엄다리(징검다리, 현 세월교)를 건너갔다고 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상급학년들이 저학년 학생을 업고 건너기도 했고 신리교가 있었던 국도 1호선까지 걸어서 돌아가기도 했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은 마을 앞 진등을 넘어서 진위향교 앞 세월교를 건너 봉남리와 오산을 오갔다고 말했다. 세월교는 해방 전후까지만 해도 징검다리였

7) 1914년 행정구역개편을 반영한 1921년 지도

다가 나중에 섶다리가 되었고 나중에 재일교포 실업가 정동순의 도움을 받아 콘크리트 다리가 되었다고 했다.

은산1리 뒤 동막골을 지나 태봉고개-동막-소골주막(우곡점)-송북시장(아침장)으로 가는 길은 1950년대 신장동에 미군기지촌이 형성되면서부터 많이 다녔다. 미군기지촌은 소비도시였다. 그래서 농산물을 갖고 지산동 좌동마을 앞 송북시장(아침장)으로 가면 금세 팔렸다. 겨울철에는 땔감을 해서 가져다 팔기도 했다.

② 은산리-서정리장, 은산리-평택역 및 평택장, 은산리-원곡, 은산리-양성 지도[8)]



서정리역에서 열차를 타거나 서정리장을 보려면 은산2리와 3리 사이의 동막골을 지나 태봉고개를 넘었다. 태봉고개 너머는 지산동 동막마을이다. 동막에서 삼남대로 대백치를 오르다 정상부에서 장안동 방면의 소백치-장안동-서두물-서정리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서정리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은산1리와 산하리 사이의 반자울로 해서 우렁속의 동안고개(우렁고개)로 넘어가도 동막마을이 나왔다.

정병한(남, 1954년생)은 서정리장은 은산1리와 산하리 사이의 반자울에서 동막으로 넘어가서 우곡(소골)과 옛 파라다이스 유원지를 지나갔다고 기억했다. 아침장도 송북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직진하면 되었다.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은 '동막골-동막마을-소백치-장안동-서두물-서정리역' 으로 연결되었던 길을 주로 이용했다. 은산3리에서 서정리역까지는 15리였다. 주로 장날에 곡식이나 나뭇짐을 지고 넘어다녔는데, 평택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서정리역에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평택까지 가기도 했다. 지산동 송북시장(아침장)도 15리쯤 되었다. 아침장에도 곡식과 채소, 땔감을 이거나 지고 가서 팔았다.

은산4리 김순자(여, 1947년생)는 송탄의 송북시장(아침장)을 주로 다녔다고 말했다. 은산4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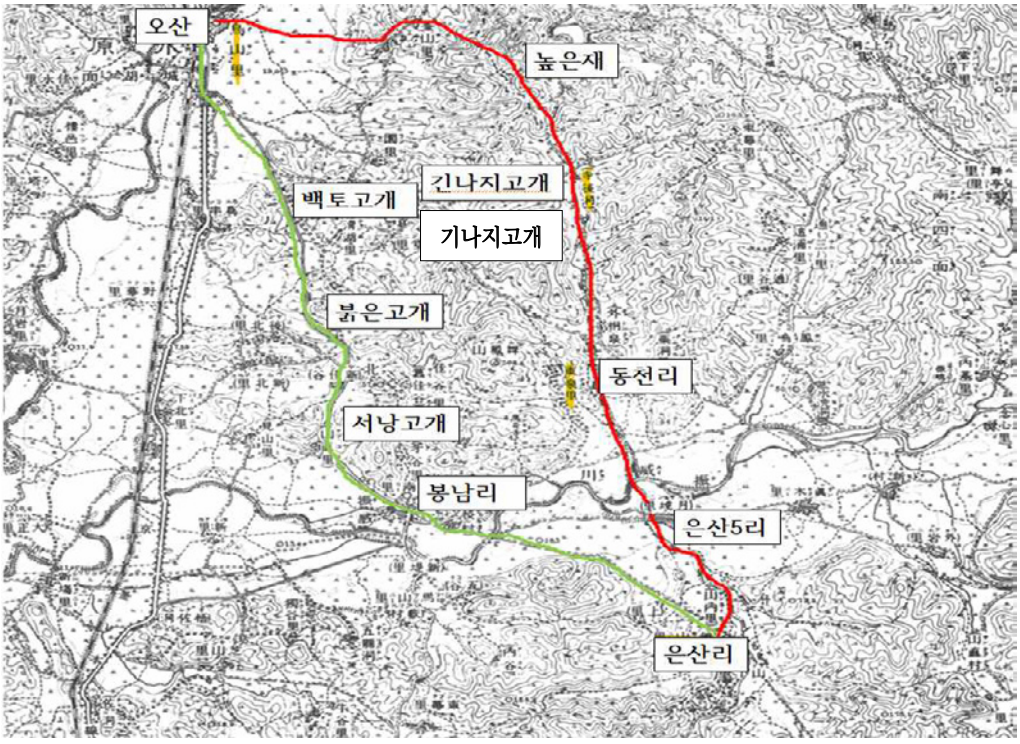
8) 1914년 행정구역개편을 반영한 1921년 지도

서는 진등을 거쳐 마산리를 지나 산 아래로 연결되었던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걸어갔다. 서정리장, 오산장, 필요할 때는 50리나 떨어진 안성장도 봤다. 안성장은 성은리 고개를 넘어 양성을 지나서 걸어다녔다. 평택장도 김순자(여, 1945년생)는 버스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결혼 후 4년 뒤(1974년)에 마을로 버스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평택장을 볼 때도 걸어다녔다. 평택을 갈 때는 사낭골-덕암산 빈터고개-도일동 상리 안골-칠원1동-동삭동-통복동으로 걸어다녔다. 은산1리와 산하리 경계에 살았던 정병한(남, 1954년생)도 “사낭골을 지나 도일리 서낭나무(빈터고개의 서낭)를 지나 걸어다녔다”고 말했다. 은산3리 노인회장 윤여창(여, 1945년생)도 “예제울(도일동) 빈터고개를 넘어 칠원리 쌍용자동차 옆을 지나갔다”고 증언했다. 정병한(남, 1954년생)은 도보로 평택까지는 30리였다고 말했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은 평택까지 거리를 25리로 기억했다. 은산4리에서는 은산3리 뒷길과 은산1리 마루턱, 사낭골을 지나 빈터고개를 넘어다녔다고 했다.

원곡으로 가는 길은 지금 경부고속도로 구간과 같았다. 기본 구간은 은산1리에서 산하리 평동마을을 지나 보가재미고개를 넘으면 원곡면 지문리가 나왔고 조금 더 걸으면 원곡면 내가천리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은산1, 2리 이웃마을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 아이들 중에는 이 길을 따라 원곡초등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자동차 길이 남아 있다. 안성휴게소 앞으로 지나는 원곡과 성은리 방면 길은 고속도로 건설 뒤에 재정비했다.

③ 은산리-오산 구간[9)]



오산까지 걸어가는 길은 두 갈래였다. 은산리 사람들은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통미(산)마을과 은산5리 월경마을을 지나 현재 경부고속도로 다리 아래의 징검다리로 진위천을 건넌 뒤 동천리와 고현리 사이 기나지고개(높은재)를 넘어서 오산장까지 갔다. 마차로 갈 때는 진위천의 얕은 곳

9) 1914년 행정구역개편을 반영한 1921년 지도

을 그냥 건넜다. 무봉산 자락의 기나지고개는 길고 험했다. 도둑과 강도들도 자주 출몰해서 장꾼들은 긴장했다.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도 "거기가 도둑놈이 많이 나오는데 저쪽에서 넘어오는 거기가 도둑놈이 많이 나오고 거기를 기나지고개라고 했어. 거기 넘으면 고현리 청호리 잖어" 라고 말했다.

다른 길은 봉남리-견산2리 산직말-서낭고개-가곡삼거리-백토고개-오산으로 가는 경로였다. 이 경로는 봉남리부터 오산까지가 삼남대로 구간이었다. 하지만 근대 전후의 삼남대로는 가마나 마차가 지날 수 있었고 근대 이후로는 도로정비도 거의 하지 않아서 좁고 험했다. 은산리에서 오산까지는 20리였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도 20리로 기억했다. 우종갑은 기나지고개로 넘지 않고 봉남리-삼남대로를 따라 오산을 오갔다. 기나지고개로 가나 삼남대로를 따라 가나 거리는 비슷했다. 지금에야 20리를 걷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옛날에는 10리, 20리를 걷는 것은 서민들의 일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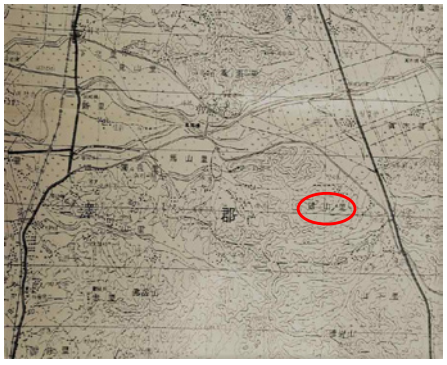
은산1리와 산하리 경계에 거주하는 정병한(남, 1954년생)은 오산장을 많이 다녔다. 1970년 전후에는 평택까지는 버스노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걸어다녀야 했지만 오산은 봉남리를 지나 하북까지 걸어가면 나머지 10리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말 하북-오산 간에 운행되었던 버스는 용남여객이라는 시외버스였다.

은산1리 이장 정병억(남, 1952년생)은 1964년까지만 해도 진위면 신리 옆으로 지나는 국도 1호선은 포장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국도가 비포장이어서 지나다니는 버스나 자동차도 거의 없었다. 은산리-마산리-송탄으로 연결된 306번 지방도는 1964년 전후 주민들이 부역으로 만들었다. 정병억은 '1963~1965년 사이에 주민들이 마산리까지 마차를 끌고 가서 낸 길'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친 부역 갔을 때 자신이 도시락을 배달해서 기억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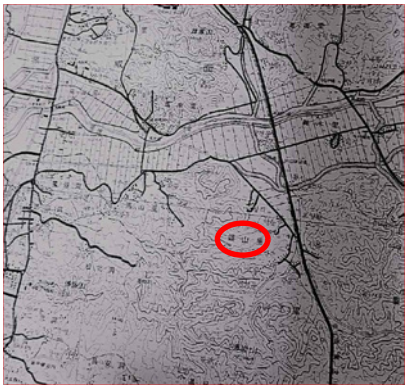
반면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은 새마을운동 때 도로확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본래 도로는 3~4m에 불과해서 마차들만 겨우 다녔는데 이것을 마을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확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1963년 지도에도 은산리 일대의 근대 도로망은 전무하지만 1975년 지도에는 306번 지방도가 건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로포장은 1980년대에 이뤄졌다. 처음에는 시멘트로 포장했다가 1990년대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1968년부터는 은산리와 산하리 경계에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평택은 제2구간이었다. 당시 정부는 논 한 평에 쌀 1말 했던 땅을 강제 수용하면서 쌀 1되 반에서 3되 가격으로 보상했다. 은산1, 2리와 산하리 일대 도로확장은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에 거주하는 정종호가 주도했다. 정종호는 일제강점기 공도면장을 지내기도 했고 은산리 근처에 양묘장을 만들어 플라타나스 묘목을 경기도 일대에 공급했으며, 산대초등학교 설립에도 앞장섰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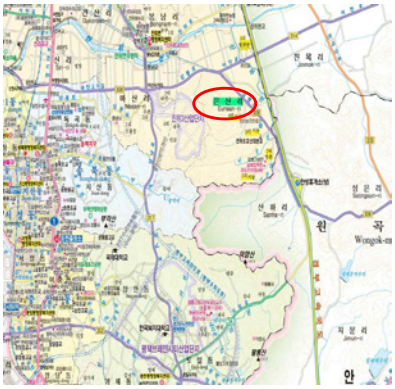
1963년 도로망



1975년 도로망



1992년 도로망



2021년 도로망 해방 후 은산리 일대 도로망의 변화

1960년대 중반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에는 미군기지와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성은리 기지촌까지는 오산에서 경남여객 시외버스가 다녔다. 그러다가 1964년 전후 은산리 앞 도로가 확장되자 시외버스와 K-59 미군트럭도 은산리 길을 지나 성은리로 돌아 오산으로 갔다. 경남여객 시외버스는 오산을 지나 서울까지 연결되었다. 1965년경에는 하루 3회 운행했는데, 시외버스의 운행으로 은산리 사람들 가운데 서울로 유학 간 사람들이 많았다.

1968년부터 은산리 마을 안으로는 합승버스가 다녔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도 1960년대 말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은산1리 정병억(남, 1952년생)은 ‘경남여객 시외버스가 더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봉화 정씨 집안에서 인맥을 이용해 버스회사에 부탁해서 운행하게 되었다’ 고 했다. 합승버스는 12인승 또는 15인승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1970년 전후에는 하루 16회 정도 다녔다. 버스 4대가 봉남리와 송탄종합터미널까지 순환으로 운행했고 당시만 해도 은산리 일대에 이용객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봉로(306번 지방도), 은산2리 버스종점, 진위여객 마을버스, 요금표(2022)

정병억(남, 1952년생)은 협진여객 시내버스가 1970년대에 들어왔을 거라고 말했다. 반면 은산2리 버스종점 주인 강옥분(여, 1948년생)은 본인이 1970년에 시집왔는데 4년 뒤부터 합승버스운행이 시작됐고 협진여객은 1980년대 초부터 운행되기 시작되었다고 해서 정병억과 다른 의견을 밝혔다. 시내버스는 송탄을 거쳐 평택까지 운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하루 10회 이상(12회라고도 함) 운행되었고 통학시간에 집중되어서 마을 아이들이 송탄이나 평택까지 통학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 현재에는 진위여객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협진여객은 주민들의 노령화와 자가용 이용으로 운영이 어려워 노선을 줄였는데 2022년까지만 해도 노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고 새벽 첫차(오전 6시 50분경)로 한 대만 운행하다가 폐지했다. 진위여객 마을버스는 평택시의 보조를 받아 운행된다. 버스 두 대가 은산리-송탄까지 순환 운영하는데 하루 16회 정도 들어온다.

강옥분(여, 1948년생)은 1970년대 후반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부터 버스종점에서 '종점식당'을 운영한다. 당시에는 주택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초기 식당은 초가집 부뚜막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84년 주택을 개조하여 식당과 구멍가게를 함께 만들었다. 처음에는 백반을 주로 팔았지만 지금은 닭볶음탕을 비롯한 전골 메뉴도 함께 팔고 있다.

4) 인물

(1) 정도전(鄭道傳, 1342~1398)

본관은 봉화(奉化)이며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峰)이다. 봉화 호장(戶長) 정공미(鄭公美)의 고손자이며, 부친은 형부상서 정운경(鄭云敬)이다.[10]

어려서 봉화와 영주에서 수학하다가 아버지 정운경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면서 개경으로 올라왔다. 개경에서는 부친 정운경과 이곡(李穀)의 교우관계가 인연되어 이곡의 아들 이색(李穡)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색의 문하에서는 정몽주(鄭夢周)·박상충(朴尙衷)·박의중(朴宜中)·이숭인(李崇仁)·이존오(李存吾)·김구용(金九容)·김제안(金齊顔)·윤소종(尹紹宗)과 교유했다.

삼봉 정도전 사당 문헌사와 영정

10)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62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21세에 관직에 진출했다. 성균관 박사로 있을 때는 정몽주 등과 개성 성균관 명륜당에서 성리학을 강론했다. 이후 태상박사를 지냈지만 권신 이인임의 친원정책에 반하여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로 대립하다가 전라도 나주 회진현의 거평부곡에 유배되었다. 1377년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등용되지 못하여 서울의 삼각산 아래와 부평 등을 오가며 권토중래하였다. 1383년 역성혁명(易姓革命)에 뜻을 두고 동북면도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가 인연을 맺었다.

1384년 전교부령으로 복직하여 성절사 정몽주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이성계의 도움으로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으며 1388년 위화도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밀직부사로 승진하여 조준 등과 전제개혁을 주도했고, 조민수 등 구 세력을 제거했다. 1389년에는 이성계, 정몽주 등과 손을 잡고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했다. 그 뒤로 정당문학에 승진했고 1391년에는 삼군도총제부 우군총제사(三軍都摠制府右軍摠制使)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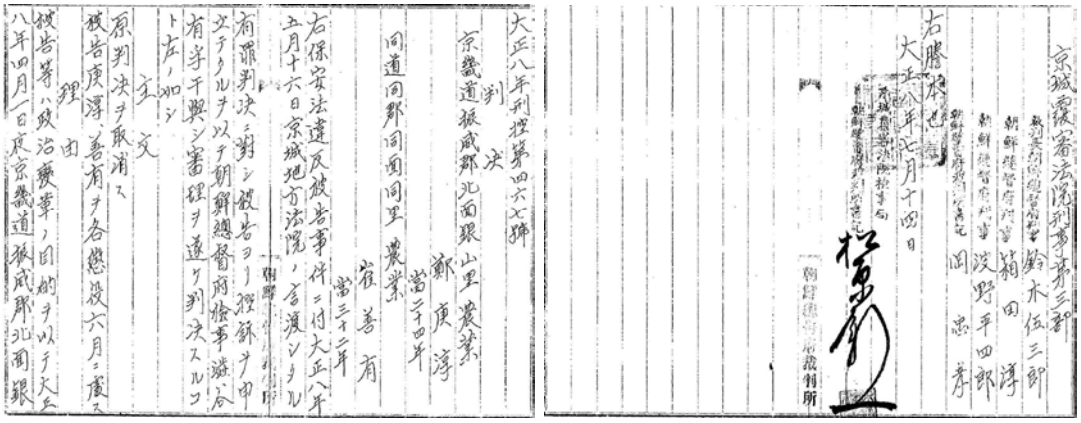
하지만 권문세족의 탄핵으로 봉화에 유배되었다가 이성계가 사냥 중 낙마하는 사고를 계기로 온건개혁파였던 정몽주 등의 탄핵을 받아 보주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러다가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격살되면서 풀려나와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 건국 후에는 개국1등공신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 동판도평의사사사 · 판호조사(判戶曹事) · 겸판상서사사(兼判尙瑞司事) · 보문각대학사(寶文閣大學士) · 지경연예문춘추관사(知經筵藝文春秋館事) · 겸의흥친군위절제사(兼義興親軍衛節制使)를 겸직하고 정권과 병권을 장악했다. 또 한양천도를 주도했으며, 사병혁파와 군비를 정비하고, 명나라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며, 동북면 개척과 요동수복에도 힘썼다.『조선경국전』,『경제문감』,『경제육전』을 저술하여 유교국가로서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으며,『고려국사』를 저술하여 조선건국의 명분을 입증했다.

정도전은 맹자가 주장했던 ‘민본정치’와 ‘왕도정치’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전제적 왕권보다 성리학의 수련을 쌓은 군자(君子)들이 재상에 오라 나라의 정치를 운영하기 바랐다. 하지만 정도전의 이상은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이방원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남은, 심효생, 박위 등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도전의 모든 훈작은 박탈되었고, 둘째 아들 유(遊)도 살해되었으며, 셋째 아들 담(湛)은 집에서 자결했다. 다행히 왕을 따라서 안변의 석왕사에 갔던 큰아들 진(津)은 살아남아서 관직이 박탈당하고 수군에 충군되었지만 나중에 복직되어 세종 때 형조판서에 올랐고 증손 정문형은 우의정에 올랐다.

정조(1791) 15년에는 왕명으로『삼봉집』목판이 간행되었고 1865년(고종2)에는 경복궁 중건의 명분으로 훈작을 회복했다. 1870년(고종7)에는 문헌(文憲)이라는 시호와 ‘유종공종(儒宗功宗)’ 편액도 내렸고, 1872년(고종9)에는 치제문이 내려지고 죽산부사 이현경 등 일곱 고을의 수령들이 참여하여 제를 올렸다. 1912년에는 양성현 산하리(현 은산1리 텃골)에 문헌사가 건립되었다.

(2) 정경순(鄭庚淳, 1892~1959)[11], 최선유(崔善有, 1884~미상)



정경순, 최선유 판결문

1919년 진위군(현재 平澤郡) 북면(北面) 은산리(銀山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향리인 진위군에서 이에 호응하는 시위운동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4월 1일 정재운(鄭在雲)의 집에서 정문학(鄭文學) 등과 함께 거사를 계획하였다. 정경순은 ‘지금 나가서 만세부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강권하며 독려하였다.

「판결문」[12]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시위계획을 알려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은산리 뒷산에 집결하자 독립만세를 불렀고 정성숙의 권유로 최선유와 함께 진위면 봉남리 헌병주재소를 향해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정경순은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며 주재소로 몰려가 주위를 둘러싸고 기세를 올리며 3번에 걸쳐 만세를 불렀다. 최선유도 신문조서에서 ‘정경순이 주도했다’고 말했고, 정재운도 ‘4월 1일 저녁 식사 후 자신의 집에서 4~5명이 짚신을 삼고 있다가 정경순이 우리도 만세를 부르자고 하여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자 마을 사람들도 나와 합세했으며, 최선유가 봉남리 주재소에 가서도 만세부르자’고 하였다며 증언했다.

정경순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여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2000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최선유(이명 최재식)은 2019년 역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봉섭(남, 1946년생)[13]은 정경순의 손자이고, 정기홍(남, 1952년생)은 증손자다. 정봉섭에 따르면 정경순의 동생은 정인순, 아들은 정병수, 정병희이고 손자는 정원섭, 정봉섭이다. 정봉섭은 생전의 정경순은 조용한 성품이면서 술을 좋아했다고 평가한다. 동생 정인순은 한학을 공부하여 은산리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노력했다. 집안은 농사를 지었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렵지도 않았다. 정경순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뒤에도 줄곧 농사를 지으며 은산리에 거주했다. 그러다가 손자 정원섭(남, 1932년생) 때 이웃 마을 산하리 신촌마을로 이주했다. 정원섭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4.19혁명 뒤 제2공화국에서 원곡면장에 출마하여 당선되

11) 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 2000
12)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자료집』 5, 삼일운동 재판기록
13) 정원섭, 정기홍과는 2023년 1월 18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었다. 원곡면장을 지낸 뒤에는 교직에 투신하여 평택고등학교 등에서 봉직하다가 정년퇴임했다. 정봉섭은 정원섭의 사촌동생이다.

(3) 정동순(1909~1990)[14]

정동순 송덕비

정동순은 진위면 은산1리에서 태어났다. 1923년 진위공립보통학교(현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11월 17세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일본에는 형님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일하면서 학업에도 열중해서 고학으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야간부를 졸업했다. 대학졸업 후 호전건설(戶田建設)에 입사하여 15년 동안 근무했다. 해방 후 호텔 및 유흥업에 투신하여 크게 재산을 일궈 재일교포 가운데 대표적인 실업인으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일거류민단(이후 민단) 도쿄지부장을 지내며 재일교포의 권익을 위해 힘썼다. 정동순은 재산을 축재하자 이것으로 은산1리의 큰아들을 비롯해 자녀들의 경제기반을 마련했으며, 산대초등학교와 진위종합고등학교, 평택경찰서 진위지서 건립, 진위향교 충효회관 건립 등에 많은 지원을 하였고 진위향교 앞 세월교를 건설하기도 했다. 또 은산1, 2리에 전기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돈으로 전기도입을 해주었고 은산1, 2리의 마을공동답을 구입하여 희사했다. 산대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매년 일제 연필과 연필깍기, 필통 등 학용품을 나눠줬으며, 학교에 영사기를 기증하여 학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악기를 기증하여 학교에 밴드부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진위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도 많은 기부를 실천했다.[15] 이밖에도 재일본 조선경제인 연합회장을 지냈으며 제3공화국 시기에는 ‘60만 재일동포 고국 나무심기’ 를 전개했다. 이와 같은 공로로 대한민국 훈장 목련장(1972)과 모란장(1979)을 수여받았다. 1990년 일본에서 83세로 사망했으며, 2014년 봉화정씨 효림공 종회에서 산대초등학교(현 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 입구에 송덕비를 건립했다.

14) 평택시 진위면 은산3리 입구 ‘정동순 송덕비’ 비문 참조.
15) 정광순(남, 1960년생), 은산 1리 거주, 진위향교 전교.

(4) 우종옥(1937~)

한국천문연구원 창립 34주년 기념식의 우종옥 박사(원안)

진위면 마산4리에서 태어났다. 진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20살에 안성시 양성면의 양성중학교에 입학했다. 양성중학교에서 3개월을 공부한 뒤에는 서울로 유학하여 동도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16] 다시 마포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했다. 마포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학과에 입학했다. 동 대학원에서 천문기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프랑스로 유학하여 엑스마르세이유대학교 대학원에서 천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CNRS 천체물리학 연구소 연구교수를 지냈고, 귀국하여 한국교원대 교수, 대학원장, 과학교육연구소장, 교수부장을 하였고, 1996~2000년까지 제5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한국천문학회장, 한국지구과학회장, 한국과학교육학회장, 한국창의력교육회장, 전국대학과학영재교육원 총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 『2,000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양천문학』, 『과학교육론』 등 다양한 책과 논문이 있다.

(5) 우제항(1948~)

국회의원 출마 시기의 우제항 및 생가

진위면 은산4리에서 출생했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

16) 동생 우종갑(남, 1938년생)에 따르면 당시 양성중학교에 사촌이모부가 근무하고 있어서 3개월 학교 다닌 것으로 중학교 졸업장을 발급받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고 산업자원부를 거쳐 경찰청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1992년 평택경찰서장을 지냈으며,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장안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내다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6) 기타

위 인물들 외에도 은산리에는 각계 각층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많다. 1887년생 정종인은 일제강점 전후에 측량학교를 졸업했다. 일제강점 초기 토지조사사업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1912년 대구 용연사에 보관 중이던 삼봉집 목판을 옮겨오는데도 중심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축재하여 은산2리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지었다. 장남 정장순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공화당 사무국장을 지냈다. 동생들도 서울대학교 사범대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으며, 경기여고 교사를 했던 딸은 KBS 아나운서 이광재와 결혼했다. 은산1리 정회식은 지주이며 한학자였다.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간재 전우 계보에서 학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당을 열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쳐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독립운동가 정경순의 손자 정원섭은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하고 원곡면장과 평택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정호신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우중공업 부회장을 지냈다. 동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정병목은 건국대학교 동문회장을 지냈다.

1901년에 태어난 정종호[17]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에 거주했다. 일제강점기 양정고보를 졸업하고 일찍부터 양묘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은산2리 근처에 5만여 평의 양묘장을 조성하여 플라타나스를 길러내 산림녹화에 기여했다. 공도면장을 지냈으며, 산대초등학교 설립과 은산리 앞 도로확장 사업, 문헌사 이전사업도 주도했다.

5) 지명유래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은산리	마을	은산리	대한제국시기 진위군 마산면과 양성군 승량원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진위군 마산면의 월경리, 산내리, 양성군 승량원면 상리, 은정리, 방촌, 기동, 신촌 일부, 양성군 면하촌, 상리, 중리, 하중리를 통폐합하여 은정동과 산대에서 한 글자씩 취하여 은산리라고 했다.
		산대(山垈)	덕암산과 태봉산, 천덕산 자락에 세거한 봉화 정씨 마을에 대한 총칭이다. 1914년 이전에는 산내리라고 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은산1, 2리와 원곡면 산하리, 남사읍 진목리 통미마을을 의미한다. 산하리 평동마을

17) 이계은, 「펜화로 만나는 평택섶길 풍경18-정도전길 문헌사와 삼봉의 후예들」, 『평택시민신문』, 2022년 10월 19일자 ; 정광섭, 2022년 9월 30일 인터뷰 참조.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정광순(남, 1938년생)은 '산이 띠를 두르고 있어'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동 (텃골)	은산1리 자연지명으로 '텃골'이라고 부른다. 봉화 정씨 입향조 정래가 처음 터를 잡았던 곳이다.
		윗말	은산1리의 자연마을이다. 남산 동북쪽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다. 은산2리 아랫말의 위쪽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겨둔말	은산1리 자연마을이다. 남산 남쪽 모퉁이에 형성된 마을이다.
		엄나무모랭이	은산1리의 자연마을이다. 엄나무 모퉁이에서 유래되었다.
		마루태기	은산1리에서 동막골로 넘어가는 산마루턱에 형성된 마을로 정도전 사당인 문헌사와 삼봉기념관 등이 있다.
		방촌	은산2리의 자연마을이다. 봉화 정씨가 분동하면서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아랫말	은산2리 아래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솔무랭이	송우동이라고도 한다. 은산2리의 마을 입구 공장지대에 있었다. 소나무가 많았던 구릉이 있었다.
		주막거리	은산2리와 동막골이 갈라지는 지점으로 주막이 있어 유래되었다.
		미동	은산3리의 자연지명이다. 본래 미등골이라고 불렀던 것을 한자 지명으로 미동이라고 표기했다. 파평 윤씨가 대성이고 산대분교가 위치한다.
		상리(말미)	은산4리의 자연지명이다. 조선 시대 진위현 마산면 상리였고 마산면의 동남쪽 끝에 위치하여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윗말과 아랫말로 구분된다.
		월경	은산5리의 자연마을이다. 조선 후기에는 진위현에 속했지만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에 편입되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고속도로 서쪽에 마을이 위치하여 1983년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평택시 진위면 은산5리로 다시 편입되었다. 고을의 경계에 위치하여 유래되었다.
		평동 (재푸랭이)	은산1, 2리 경계의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의 자연지명이다. 1911년경 편찬된『조선지지자료』에는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재평동으로도 표기되었다. 봉화 정씨 집성촌이다.
		통미	은산2, 3리와 하천을 경계로 있는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의 자연마을이다. 통산이라고도 부른다. 봉환 정씨가 많이 거주했다.
		신촌	은산1, 2리 경계의 원곡면 산하리 자연마을이다. 봉화 정씨의 집성촌이다.
		모정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 앞 306번 지방도 변에 있었던 구릉이다.
	들 · 골짜기 · 고개	사낭골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과 은산1리 사이, 덕암산 동남쪽에 형성된 골짜기다. 큰사낭골과 작은 사낭골로 나눠지며, 해방 전후에는 사낭골과 덕암산 빈터고개를 넘어 도일동 상리와 평택을 오갔던 교통의 요충이었다.
		반재동 (반자울)	반자울이라고도 부른다. 문헌공의 14대손 정동성(1611~1669)가 개척한 경작지로 해발고도는 높지만 태봉산에서 계곡물이 흘러내려 논농사가 발달했고 생산력이 높았다.
		우렁속	은산1리 서북쪽 반자울 위쪽에 형성된 골짜기다. 우렁의 속처럼 깊다고 해서 유래되었다.
		동막골	은산1리와 3리 사이에서 서쪽 지산동 동막마을 방향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다. 은산1, 2리의 주경작지로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옥토다.
		가마골	동막골 중간지점에서 좌측으로 형성된 골이다. 옛날에 숯을 굽던 가마터로 알려진다.
		동안골	동막골 입구의 골짜기다.
		은정(銀井) (은정굴)	은산3리 뒤쪽에 있는 골짜기다. 은산리라는 지명의 기원이 되며, 20세기 초반에는 마을이 있었다. 은을 캐던 은구덩이가 있었지만 점차 메워져서 지금은 없다. 은적골이라고도 부른다.
		숫돌고지	은정골 옆에 있다. 숫돌을 만들기 좋은 돌을 채취하였던 곳이다.
		무랑골	은산4리 진고개를 지나 마산리 방면으로 돌아가는 모퉁이 부근의 골짜기다.
		무랑모퉁이	무랑골을 돌아 마산리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퉁이다. 도로 건너편에 은산양수장이 있다.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말미골	은산3리의 골짜기다.
		미등골	은산3리의 골짜기다.
		비릉뱅이들	은산3리 마을 앞에 형성된 들판이다.
		방직골	은산3리와 4리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다.
		둔전곡	은산1리 윗말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명이다.
		개야동, 의신동	은산1리 기동 남쪽 원곡면 산하리에 속한 마을이다. 기동의 봉화 정씨가 분동되면서 형성되었다.
		개골	원곡면 산하리 의신동의 남동쪽에 형성된 들판이다. 큰개골, 작은 개골로 구분되며 진목리 통미(산) 주민들이 농사지었다.
		던지골	은산1리 기동과 원곡면 산하리 분토동 사이의 골짜기다. 평동의 끝에 위치하고 민가 5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병한 가옥 1집만 남았다.
		분토동	던지골이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당골	은산리의 골짜기 지명이다.
		승주골	은산4리와 비석산 사이의 골짜기다. 승지 벼슬을 했던 사람의 묘가 있어서 '승지골' 이라고 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방죽골	은산4리 우측(남쪽) 골짜기다. 방죽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진등말레	은산4리 앞 들판 이름이다. ㈜셀그린 농업회사가 있다.
		보가재미들	은산4리 앞 축사가 있는 들판 이름이다.
		자기말못들	은산5리 서쪽 보가재미들 아래의 들이다.
		말미들	은산4리 말미 앞의 들판 이름이다.
		황승이들	은산5리 서북쪽과 진위천 사이의 들판이다. 진위천의 보(洑)에서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생산력이 높았다.
		벌자리	은산5리 북쪽과 진위천 사이의 들판이다. 진위천에 만든 보(洑)의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봇들' 이라고도 불렀다.
		마루들	황승이들 왼쪽 들판이다. 지대가 높고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경지정리 전에는 천수답이었다.
		구레들	은산4리와 5리 사이의 들판이다.
		모단이	은산5리 북쪽의 들이다. 봇물이 공급되어 농사가 잘 되었다.
		개울	은산5리에서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통미마을까지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산하천을 따라 좌우에 형성된 들이다.
		태봉고개 (동안고개)	은산1리와 2리 사이 동막골을 거쳐 지산동 동막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다. 송탄 지산동의 아침장(송북시장)과 중앙동 서정리장으로 가는 최단거리다.
		진고개 (장등)	은산3, 4리에서 마산리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로의 긴 고개. 길어서 ‘긴고개’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음이 변해서 ‘진고개’가 되었다는 설과, 땅이 질퍽해서 ‘진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우렁고개	은산1리와 산하리 평동마을 사이 반자울 위쪽 우렁속을 넘어 지산동 동막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다.
		빈터고개	은산1리에서 산하리 사낭골로을 거쳐 덕암산을 넘어 도일동 상리와 평택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본래 부인터 고개에서 유래되었지만 통상 빈터고개, 본토고개라고 불렀다.
		은산낚시터	은산1리에서 반재동(반자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 조성된 저수지다. 현재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다.
		승주골저수지	은산4리 승주골에 있었던 저수지다.
		방죽골저수지	은산4리 방죽골에 있던 저수지다.
	산 · 하천 · 민속 · 문화재 · 공동시설	덕암산 (장군봉)	은산1리와 산하리 평동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주민들은 장군봉이라고 하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덕암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태봉산	진위면 은산1~4리, 마산3, 4리, 지산동 동막마을에 걸쳐 형성된 산이다. 누산(婁山)이라고도 했으며 임진왜란 때 도일동의 원연이 의병을 일으켜 군대를 주둔시켰다.
		장구목산	은산4리와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통미 마을 사이에 야트막하게 속은 구릉이다. 장구의 목처럼 잘룩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유래되었다.
		하가산	원곡면 산하리 신촌마을 뒷산이다.
		외딴봉	은산1리 동막골 중간쯤에 봉긋하게 솟아오른 봉우리다.
		남산	은산1리의 중심에 있는 산(봉우리)다. 정상에는 삼봉 정도전의 가묘(假墓)와 시비(詩碑)가 있다.
		비석산	은산4리 좌측(북쪽)의 산이다. 전주 이씨 집안의 비석이 있어 유래되었다.
		용의눈 연못	덕암산(장군봉)에서 산하리 평동 쪽 주루골에 있는 작은 웅덩이다. 용의 눈처럼 두 개가 있고 위쪽에는 용의 눈썹이라고 부르는 참나무도 있다.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문헌사	조선 개국공신 삼봉 정도전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1872년(고종9)에는 죽산부사 이현경의 노력으로 양성현 승량원동(현 원곡면 산하리)에 사당이 건립되었고, 1912년 삼봉집 목판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1930년 은산1리로 옮겼으며, 1970년 중수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
		희절사	은산2리에 있다. 형조판서를 지낸 정진(鄭津)과 그의 두 아들 정래, 정속의 위패를 모셨다.
		정도전 단묘	1910년경 은산1리 남산 정상부에 조성된 삼봉 정도전의 가묘이다.
		은산리 공동묘지	은산3리 은정골에 있는 공동묘지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었다고 전한다.
		산하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서 발원하여 진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연장 3.71km, 유로 연장 5.72km, 유역면적 11.52㎢의 진위천 제1지류다. 산하천을 경계로 평택시와 안성시가 나눠진다.
		은산정미소	은산2리 마을 입구에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은산1리 정병기가 설립했고 주변 3개 마을의 정미소를 통폐합하면서 규모가 확장되었다. 1980, 90년대에는 정병기의 아들 정홍섭이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고 2000년대 초반에 폐업했다.
		삼정정미소	은산5리에 있었다. 1960년대 초 정택진이 설립했고 운영자가 바뀌다가 공길영이 운영했다. 2000년 진위면 야막리로 이전했다.
		은산양수장	은산4리 무랑모퉁이 부근에 있는 양수장이다. 2001년 은산1, 2리에 수로를 만들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설치되었다.
		건는들보	은산5리 북쪽 진위천에 설치되었다. 은산5리 일부와 마산3리 사이의 건는들에 물을 공급했다.
		장안보	진위향교 부근에 쌓았다. 견산리 장안들이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황승이보	은산5리에서 남사면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 다리 부근에 있었던 보(洑)이다. 은산5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	1954년 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로 개교하여 1958년 산대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산하리 평동의 정종호를 비롯한 마을주민들, 봉화정씨 종중에서 기금을 모아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교육청의 허락을 받아 학교를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세웠다. 1980, 90년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1994년 다시 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가 되었다.

은산1리, 2리의 지명

은산3, 4리의 지명

은산5리의 지명

3. 역사적 환경과 마을

진위면 은산리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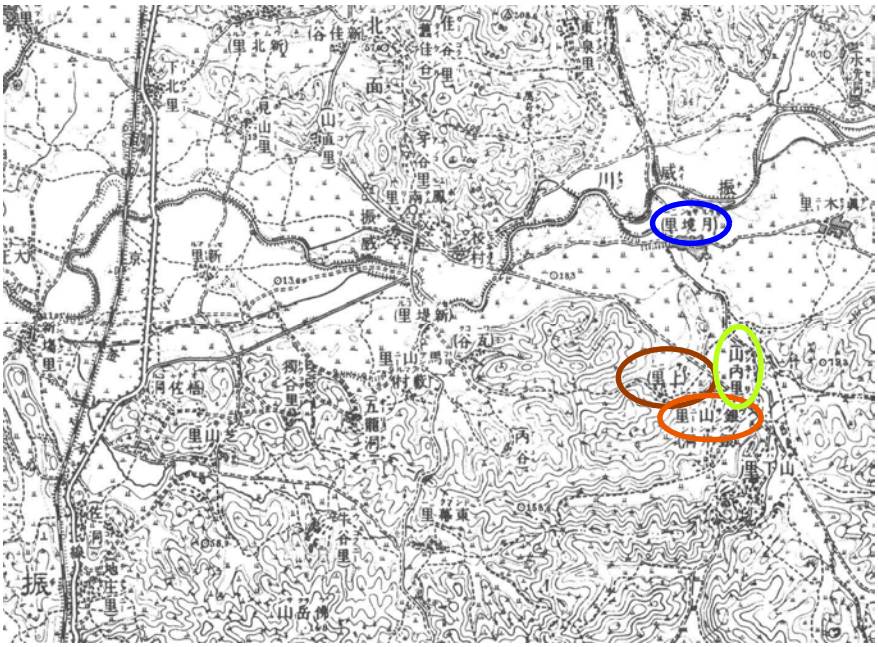
1) 마을의 형성과 행정구역 변화

은산리는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의 경계에 위치했다. 그래서 근대 전후 행정구역의 변화가 많았다. 은산리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최소한 60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 정도전의 장남 정진이 형조판서를 지낸 뒤 1427년(세종 9)에 사망했고, 정진의 장남 정래가 용인현령을 지내고 1430년 전후에 은산리로 입향했으며, 입향 전에도 조씨 등이 거주했다고 하므로 최소한 600년 전에는 마

을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래가 정착한 곳은 은산1리 기동(텃골)이다. 이후 분토동(골)과 윗말, 겨둔말, 방촌, 아랫말, 평동 등으로 분동되면서 마을이 확대되었다. 은산1리 일대는 우측에 사낭골과 반자울(반재동), 좌측에 동막골 같은 문전옥답을 둔 최상의 농업지대로 사족층이 정착하여 세력을 확대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용인방면에서 삼남대로나 충청수영로와 연결된 도로가 마을을 지났고,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전쟁이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봉화 정씨는 기동에서 사낭골, 반자울, 동막골로 경제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17~18세기에는 원곡면 산하리에 속하는 모정, 분토동, 개야동, 둔전곡, 송우동, 여동, 의신동, 재평동, 통산 등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이와 같은 경제기반의 확대와 분동(分洞)에 따라 산하리 일대에도 크고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은산3리 미동은 본래 은정골에서 시작된 마을이지만 현재는 마을의 자취는 없고 지금의 마을은 미등골에서 비롯되었다. 파평 윤씨의 집성촌으로 현재 마을의 역사는 150~200년으로 추정된다. 은산4리 말미(상리)는 마을 동쪽의 비석산 아래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18] 초기에는 남양 홍씨가 마을을 개척했고 그 뒤로 순흥 안씨가 입향했으며, 나중에 진위면 마산리 오룡동 일대에 거주하던 단양 우씨가 이주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300여 년 전(추정) 세력가였던 이씨들이 비석산 아래에 종중 묘를 조성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현재 은산4리 지역으로 집단 이주했다고 한다. 단양 우씨가 은산4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300여 년 전부터다. 후손 우종갑(남, 1938년생)은 12대조 산소가 마을에 있으므로 최소 12대는 거주했을 거라고 추정했다. 은산5리는 경주 김씨와 경주 최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5, 6대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진위천변의 개간과 역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은산1, 2리는 최소한 600여 년 전부터 마을을 형성했고, 은산 3, 4, 5리도 최소한 200~300년 이전부터 마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다.



1922년 은산리 일대 마을 위치

18) 은산4리에 거주하는 토박이 우종갑(남, 1938년생)의 인터뷰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1789년 편찬된『호구총수』에는 진위현 마산면의 자연마을로 상리와 하리를 언급했다. 여기에서 상리는 은산4리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산1, 2리는 양성현 승량원면에 속했다. 승량원면에는 상리, 중리, 하리와 같은 마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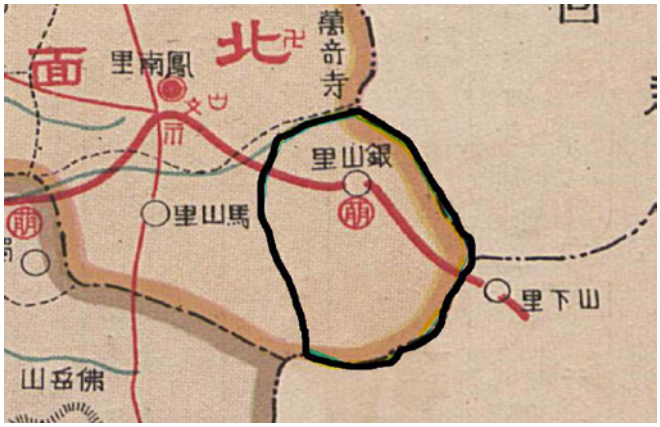
1911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조선지지자료』의 양성군 승량원면에는 성주동(승주골), 망해암, 와곡동(왯고지), 후곡(뒷골), 통심리, 시곡(감나무골), 곡촌(골말), 산직촌(산직말), 기동(터골), 대촌(큰말), 재평동(재푸랑이), 신촌(새말)과 같은 마을 이름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은산1, 2리에 속한 마을은 기동과 대촌이다. 기동은 은산1리 자연마을이며, 대촌은 은산2리를 말한다.

1912년에 편찬된『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19]의 양성군 승량원면에는 망해암, 와곡, 성주동, 후곡, 통심리, 시촌, 곡촌, 산진촌, 평리, 신촌, 하촌, 상촌, 기동, 하중리, 중리, 방촌 등 16개 자연마을이 나온다. 이 가운데 평리와 신촌은 원곡면 산하리의 평동과 신촌인 것은 확인되고, 기동과 방촌은 은산1, 2리인 것은 알 수 있다. 다만 하촌, 상촌, 하중리, 중리와 같은 마을의 존재인데 이들이 은산1, 2리와 산하리의 소규모 자연마을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같은 자료에 은산3리의 옛 지명인 은정동이 나타난다. 또 은산4리인 상리, 은산 5리 월경리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산내리' 의 존재인데 1922년 지도를 통해 추정하면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통미(산) 마을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런데 주변마을이나 통미마을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의아하다.

은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진위군 마산면의 월경리, 산내리, 양성군 승량원면의 방촌과 기동, 신촌 일부, 상리, 은정동, 양성군 면하촌, 중리, 하중리, 상촌을 편입하여 ' 은산리 '라고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월경리는 얼마 뒤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내용을 반영한 1922년 지도에도 '월경리' 는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다음은 1922년 지도이다.

1922년 지도를 보면 당시 '은산리' 라는 법정 리에는 은정동, 상리, 산내리같은 마을이 있었고, 월경(越境)은 용인군으로 편입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은산4리 앞 들판의 산내리나 은산3리 남서쪽의 은정동은 현재 없는 마을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월경' 은 1917년 편찬된『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일람』에는 진위면 은산리에 통폐합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1922년 지도에는 용인군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와 있어 두 시기 사이에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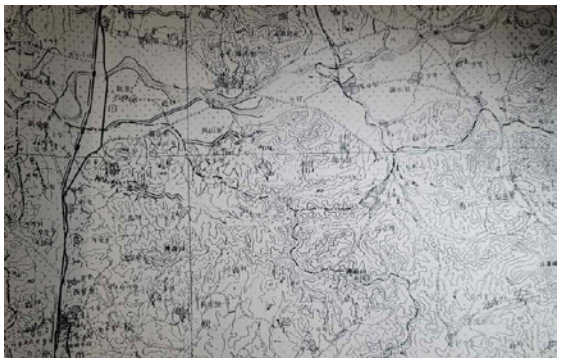


1929년『진위군세일반』의 은산리 면적

19) 조선총독부,『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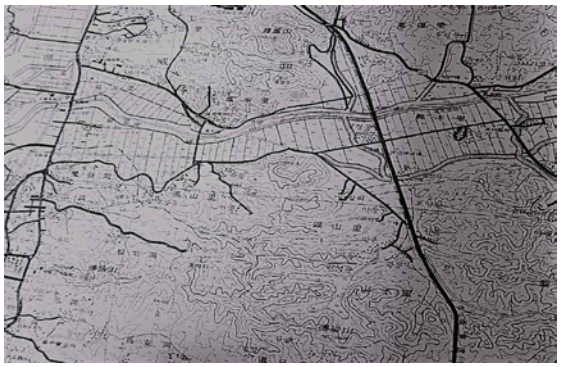
1963년 지도에는 기동, 미동, 상리와 같은 마을이 나타나고 월경은 여전히 용인시에 포함되어 있다. 기동과 방촌은 본래 하나의 마을이었다가 분동되었으므로 납득할 수 있지만 1922년 지도에 있었던 산내리와 은정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폐동(廢洞)되었는지 알 수 없다.

1975년 지도에서도 마을의 변화는 없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여전히 월경마을은 용인군에 속했고 군(郡) 간 경계도 변함 없다.



1963년 지도

1975년 지도



1992년 지도

1992년 지도에는 기동과 방촌 뿐아니라 산하리의 작은 마을 던지골까지 표기되었다. 또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영향으로 1983년 행정구역 조정에서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 월경(동)이 평택시 진위면 은산5리로 편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은산리는 현재와 같은 1개 법정 리(里), 5개 행정 리(里)를 갖춘 마을이 되었다.

2) 역사적 경험

(1) 은산리의 3.1운동

은산리 3.1운동 표석, 정경순 등이 만세를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뒷산(문헌사 일대)

3.1운동 당시 진위지역의 만세시위는 3월 21일 천도교 진위교구장 박창훈 등이 주도한 야막리 만세시위, 3월 31일 박성백, 최구홍이 주도한 봉남리 시위, 4월 1일 정경순, 정문학, 최선유 등이 주도한 은산리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들 시위를 주동한 인물들은 천도교인이거나 농민들이었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봉남리 시위를 주동한 박성백, 최구홍, 유동환, 전영록 등 6명의 판결문에는 손병희 등이 제창하는 조선 독립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전에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시위를 모의하다가 3월 31일 오후에 봉남리에서 만세시위를 했다고 말한다. 이들이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손병희 등을 언급했고 당시 봉남리에도 다수의 천도교인들이 거주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은 천도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은산리에서 전개된 1919년 4월 1일 만세시위는 농민들이 주도했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정경순, 정문학은 삼봉 정도전의 후손으로 봉화 정씨의 집성촌 은산1, 2리에 거주했다. 최선유도 봉화 정씨와 관계로 마을에 정착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정경순과 최선유의 「판결문」에는 봉기를 모의한 곳이 정재운의 사랑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정경순이 24세였고 다른 사람들도 20~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함께 짚신을 삼고 있다가 정경순이 '다른 곳에서도 만세를 부르니 우리도 부르자' 고 권유했다. 이들이 말한 '다른 곳' 은 다름 아닌 3월 31일에 전개된 봉남리 만세시위와 원곡면 만세시위를 의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경순이 만세를 부르자고 하자 정문학과 정재운은 머뭇거렸다. 그러자 정경순이 '만약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방화를 당한다' 고 하며 강권하자 세 사람은 정재운의 사랑방을 나와 마을 뒷산(현재 문헌사와 삼봉기념관이 있는 언덕으로 추정함)에 올라 3회 정도 만세를 불렀다.

이들의 만세소리에 동네 사람들 30여 명이 산 아래쪽에 모이자 다시 만세를 불렀고, 정성숙과 최선유(당시 32세)가 '봉남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가세 만세부르자' 고 군중들을 선동했다. 이들은 봉남리 헌병주재소 앞에서 최선유의 선창으로 만세를 불렀다. 이 사건으로 정경순, 정재운, 정문학, 최선유 등은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 가운데 정경순, 최선유는 1919년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인정하여 정경순은 2,000년에 대통령 표창, 최선유는 2019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았다. 현재 삼봉기념관 주차장 입구에는 '은산리 3.1운

동’ 표석이 설치되었다.

(2) 한국전쟁 경험

은산5리 최재O(남, 1932년생)은 경주 최씨로 마을에서 6대(손자까지 8대)를 살아오는 토박이다.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의 마름을 하며 축재했고, 해방 후에도 마을 지주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 한국전쟁 당시 부친은 용인군 남사면 대동청년단 간부를 지냈다. 당시에는 은산5리 뿐 아니라 동천리, 남사면 봉명리, 가곡리는 좌익세력이 무척 강했다.

1947년부터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이 점점 기정사실화되자 좌익들은 ‘단독정부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남로당 진위면당위원장은 최경환이었고 중심인물은 최경환 외에도 유춘연과 이대성이 있었다. 최경환과 유춘연은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사회주의를 받아들였고 선전 선동에 능했다. 일제 말 일본해군시설대 301부대가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비행장을 건설할 때 징용되어 일했는데 숙식이 너무 열악해서 고통을 겪자 수백 명의 징용자들을 선동하여 일제에 대응했을 정도로 뛰어났다. 최경환은 해방정국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은산5리 최재성과 가옥(우측 파란지붕)

1947년 무봉산 농민폭동은 유춘연과 이대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각 마을에 삐라를 뿌리며 선전전을 펼쳤다. 이에 우익들은 경찰과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과 같은 공적조직과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맞섰다. 1947년 가을, 경찰과 우익청년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오산방면에서 쳐들어왔다. 좌익세력이 강했던 가곡리, 봉남리, 동천리,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의 좌익들은 미처 대항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무봉산으로 쫓겨 올라갔다. 이때 무봉산으로 올라간 좌익들은 1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총을 쏘며 밀고 오는 경찰과 우익청년들에게 마땅히 대응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동천리와 봉명리에서 만들어온 주먹밥으로 허기를 때우며 버텼다. 다음 날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춘연, 이대성 등 지도부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익들의 공세에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잡혔다.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1949년 보도연맹이 조직될 때 감담했다가 한국전쟁 초기 국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처형되었다. 진위면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이대성은 경기도당 소속의 내무서 책임자였다. 지역에서는 박기O 등을 중심으로 면(面) 당 위원장과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오면서 좌익 중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인민군을 따라 서둘러 올라갔고 활동이 비교적 경미했던 단순가담자들은 마을에 남았으며, 후퇴하는 과정에서 상당 수의 우익인사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인민군 치하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고통당했던 우익들은 가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좌익부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했다.

최재O의 부친은 인천상륙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오자 스스로 무장하고 좌익활동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여 자신의 집 창고에 가두었다. 그러자 인민군 치하에서 진위면 인민위원장을 지냈던 박기O을 비롯한 좌익들이 구출하기 위해 쳐들어왔다. 좌익들이 쳐들어오자 최재O을 비롯한 가족들은 안성으로 피난을 떠났고 대동청년단을 중심으로 우익들은 대항했다. 당시 은산5리에는 군대에서 낙오된 병사가 갖고 있었던 카빈 소총과 실탄이 남아 있었다. 우익들은 소총을 쏘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진위면 인민위원장 박기O이 사망했다. 좌익과 우익의 교전 과정에서 은산5리 마을 주민 5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우익들은 좌익들에게 잡혀 인민군이 후퇴할 때 진위면, 서탄면의 우익인사들과 함께 끌려가다가 안성시의 안성여고 뒷산에서 사살당했다. 당시 이곳에서 사살된 진위면과 서탄면의 우익인사들은 30여 명에 달했다. 최재O은 아버지가 안성여고 뒷산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익인사 가족들과 함께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모셔다가 장례를 치렀다. 최재O은 '나의 인생은 거기에서 마감된 거여' 라고 말했다.

(3) 면(面) 의원 및 농업이동협동조합 경험

은산5리 최재성과 은산5리 전경

은산5리 최재성(남, 1932년생)은 한국전쟁 뒤 용인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용인군 남사면 면의원,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 농업협동조합장 및 남사면 농업협동조합장, 용인군 농협조합 이사 등을 지냈고, 1990년대 이후에는 평택군의회 의원, 진위향교 전교 및 경기도향교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전쟁 뒤 재향군인회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도 재향군인회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다. 1956년부터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남사면에도 면(面)의회가 설치되었다. 최재성은 면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최연소 최고 득표로 당선되었고 남사면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면의원은 재향군인회 임원들이나 지역유지들이 출마했다. 최재성은 20대의 젊은 나이였지만 지역유지이면서 용인군 재향군인회 부회장이며 남사면 회장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 용인군에서 최고 득표로 당선될 수 있었다. 남사면의회에서는 최고 득표자에 대한 예우로 의장을 시키려고 했지만 나이가 28세밖에 안 되어서 부의장을 맡았다.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는 매우 미흡했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역할 60%에 지방자치 40% 수준으로 지방정치를 한다고 표방했지만 실제로 자치단체의 역할은 30%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면(面)의 고유한 사무 보다는 정부 측 사무가 더 많았다. 당시 면(面)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개

선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의회의 주요 업무는 행정감사와 예결산 심의가 대부분이었다. 행정감사에서 중요했던 것으로는 미국의 전쟁구호품 배급과 관련된 일도 있었다.

5.16군사정변 뒤로는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1956년 정부는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금융조합을 농협은행으로 개편했다. 1958년에는 마을마다 농업협동조합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동농업협동조합은 바른 마을에서는 1958년부터 설치했지만 늦은 마을은 1960년 전후에 설치되었다. 당시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에 속했던 은산5리에서도 진목리 농업협동조합이 설치되었다. 진목리는 은산5리 월경마을 외에도 통미(산), 순지 등 마을이 많았고 규모도 200호가 넘었다. 최재성은 초대 진목리농업협동조합장에 당선되었고 이후 연합조직인 남사면농업협동조합장에 올랐으며, 용인군농업협동조합에서는 남사면 대표로 군(郡) 조합 이사가 되었다.

진목리농업협동조합은 1960년에 설립되었다. 조합원들의 출자를 받아 운영자금을 조성했다. 당시 출자금은 벼 한 가마가 기본이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더 많이 출자하기도 했지만 최소 단위가 벼 한 가마였다. 출자금이 부담된 사람들은 빚을 내서 가입하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들은 가입하지 못했다. 농업협동조합이 처음 시행한 사업은 신용대출이었다. 하지만 사무실도 갖춰지지 못해서 출자금으로 장리쌀을 놓아 이윤을 높였다. 나중에는 다른 마을처럼 정미소(방앗간)를 운영했지만 운영이 어려워 조합원 중에 3명을 선출하여 조합정미소를 위탁운영했다. 조건은 1년에 벼 12가마를 세(稅)로 받는 조건이었다.

최재성은 농업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면(面)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라고 말한다. 리 단위의 조합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면(面) 단위로 리(理) 조합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원활해졌다는 말이다. 면(面) 단위 농협이 조직되었을 때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 자금으로 농협연쇄점을 운영하고 사무실과 영업장을 면 단위 조합 별로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면(面)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었을 때는 도(道) 단위의 '단위농협조합장 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최재성은 경기도 단위농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3) 은산리의 자연마을

은산리의 마을 분포

은산리는 1개의 법정 리(里)와 5개의 행정 리(里), 그리고 십 수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은산3리, 4리, 5리는 진위현 마산면에 속했고, 은산1, 2리는 원곡면 산하리 마을과 함께 양성현 승량원면에 속했다. 이것을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통폐합하여 은산1~4리를 묶어 은산리라고 했고, 은산5리 월경은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에 편재했다. 은산5리가 평택시로 편입된 것은 1983년이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남사면 진목리와 월경마을이 나뉘면서 1983년 행정구역 조정과정에서 평택시로 편입한 것이다.

(1) 은산1리

은산1, 2리 자연마을

은산1리는 은산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마을이다. 14세기 초 용인공 정래가 입향하면서 가장 먼저 정착한 마을이며, 주변의 마을들은 이 마을에서 분동(分洞)되었다. 그래서 자연지명이 '텃골' 이고 한자로 '기동(基洞)' 으로 표기한다. 은산1리는 남쪽으로 산하천을 사이에 두고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과 경계를 이룬다. 은산2리와는 남산 동쪽을 경계로 한다. 은산3리와는 동막골을 경계로 하며 서쪽으로는 태봉산을 경계로 진위면 마산리와 경계를 이룬다.

기동에는 남산을 중심으로 빙둘러 마을이 형성되었다. 초기 정착지이며 이름 있는 집안들이 많이 살았던 곳은 '텃골' 이고, 남산의 남쪽 기슭의 마을은 '겨둔말' 이다. 텃골에서 은산2리 방향으로 넘어가는 언덕은 '마루태기' 이며, 마루태기 아래는 웃말이다.

은산리의 인구는 1960년대 중반 800명대였다가 1970~80년대 초에는 이촌향도로 600~700명대로 줄어들었고, 1983년 월경마을이 은산5리로 편입되면서 1000명이 넘어섰다가 근래에는 700명대로 줄었다. 현재 은산1리는 34세대가 거주한다. 정병억(남, 1952년생) 은산1리 이장은 1970년대 마을 규모가 70~80호였다고 말하지만 1970년『평택군 통계연보』에 은산리 4개 마을의 전체 세대가 134호였음을 감안할 때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은산1리는 1980년대 초반에도 27, 8호는 꾸준히 유지했다. 이 가운데 텃골에는 10여 호가 거주했는데 정회식, 정병기 등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겨둔말은 5~6호가 있었고, 나머지는 마루태기와 웃말에 분포했다. 마루태기에는 삼봉 정도전 사당 문헌사가 있고, 웃말에는 정장순 가옥 등 큰 기와집이 있었다. 노령화와 젊

은층의 도시 정착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은 은산1리도 비슷하다. 정병억(남, 1952년생) 이장도 마을회관 주위로 초가집 5, 6호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 떠나고 빈집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성씨는 봉화 정씨가 대성(大姓)이다. 실제적으로 봉화 정씨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성씨는 혼인 관계로 입향했거나 가뭄 때 마을로 들어와 살다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1960년대 중후반만 해도 은산1리에는 마을 머슴이 있었다. 마을 머슴은 과거의 하인과 비슷해서 마을 어린이들에게까지 도련님, 아가씨라고 불렀다. 마을 머슴은 텃골 10여 호를 도왔는데 잔치가 있거나 큰일을 치를 때는 앞장서서 일을 해줬다. 그들의 후손은 대부분 외지로 나갔지만 일부는 마을 근처에서 살고 있다. 이들과의 상하 관계는 근대교육이 보편화하면서 바뀌었다. 신분의식이 희미해지고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신분보다 학년에 따라 형과 동생이 나뉘었다.

은산1리에는 부자도 많았고 한학을 공부한 사람, 근대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도 많았다. 1940~5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많다. 텃골의 지주였던 정회식은 간재 전우의 학통과 관련 있었던 한학자였고. 몇몇 인물들도 한학을 공부했다. 마을의 지주였던 정장순의 형제들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유수의 대학을 졸업했으며, 원곡면 산하리 신촌으로 이주한 정경순의 손자 정원섭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정회식의 손자 정호신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대우중공업 부회장을 지냈으며, 나머지도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은산1리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주 경작지는 은산1리와 산하리 평동 사이의 사낭골과 반자울, 우렁속, 은산1리와 3리 사이의 동막골이다. 이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일명 ‘산물’이 많이 내려오는 수렁논들이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천수답의 3배(1마지기에 쌀 3가마)가 넘었다. 우물도 5, 6개가 넘어서 식수도 풍족했고 덕암산과 태봉산을 곁에 두어서 땔감도 풍부했다.

은산1리와 2리는 본래 같은 마을이었다. 그래서 공회당이나 경로당도 공유했거나 공유하고 있다. 집성촌이다 보니 마을별로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1995년경에서야 건립했다. 전기는 마을 주민이었던 재일교포 정동순의 도움으로 1968년에 들어왔다. 수도는 새마을운동하면서 간이상수도를 놨다가 근래 광역상수도로 바뀌었다. 대중교통은 1960년대 말 합승버스가 들어오고 1974년 시내버스가 운행되었으며, 근래에는 진위여객 마을버스가 하루 16회 운행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당제나 산신제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우물고사(정제)와 줄다리기를 했다. 가정신앙도 발달했고 두레와 연반계(소동계)도 있었다. 집성촌락으로 상호 간의 유대관계도 끈끈하다.

(2) 은산2리

은산1리 윗말에서 내려다 본 은산2리

은산2리는 방촌과 아랫말이다. 방촌도 봉화 정씨 집성촌이다. 은산1리 기동에 정착한 봉화 정씨는 점차 세력이 확장되면서 은산2리 방촌, 원곡면 산하리 분토동과 던지골, 의신동, 개야동, 재평동으로 분동(分洞)되었다.

방촌이라는 지명은 '넓게 확장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다. 방촌 안에는 아랫말, 솔무랭이, 주막거리와 같은 마을이 있다. 아랫말은 방촌에서 동남쪽 아래에 형성된 마을이고, 솔무랭이(송우동)는 소나무가 우거진 구릉에 형성된 마을이며, 주막거리는 은산2리와 동막골이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에 발달한 주막촌을 말한다.

은산2리의 마을 규모는 약 40호였다. 주민 정광섭(남, 1960년생)은 어릴 때는 1리가 40호, 2리가 50호쯤 되었다고 말한다.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55세대 112명이 거주한다. 호(戶)로는 35호 남짓 된다고 한다. 근래 마을 입구에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외지인들이 많아졌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 남녀의 성비율도 비슷하다. 하지만 세대 당 인구가 1세대에 2명에 불과하여 노령화 현상이 심각해졌음을 알게 한다.

은산2리도 봉화 정씨 집성촌이다.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씨였고 지금도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마을 운영도 봉화 정씨가 주도한다. 정광섭(남, 1960년생)은 과거에는 정씨뿐이었고 나머지는 하인들이거나 혼인관계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인 타성이면서 여성인 조씨가 이장을 맡았지만 2022년 12월 대동회에서 봉화 정씨의 후손인 정효섭(남, 1951년생)이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집성촌이다 보니 촌수를 많이 따지고 집안일과 마을 일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설날 세배를 할 때도 마을 어른들에게는 모두 했다. 은산1, 2리를 비롯하여 산대(山垈) 지역 봉화 정씨들은 '소동계' 라는 상계(喪契)를 조직하여 운영했다. 관혼상제를 비롯해서 모든 일을 성씨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나눈다.

은산리에는 1970년 전후에도 공회당이 있었다. 공회당의 위치는 삼봉기념관 아래 주차장 터이

다. 본래 1, 2리가 같은 마을이었고 성씨도 같아서 공공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회당도 1, 2리가 함께 사용했지만 현재 경로당도 ‘산대경로당’이라고 해서 함께 사용한다.

은산2리도 지주가 많고 교육열이 높았다. 정광섭(남, 1960년생)에 따르면 80세, 90세 전후의 나이에도 대학교 졸업자가 많다고 했다. 지주였던 정종인인의 아들 정장순과 그의 동생들은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생산력도 높아서 은산2리가 경작했던 사낭골이나 동막골의 논들은 1마지기에 쌀 3가마를 생산했다. 옛날부터 부재지주도 없었다. 마을의 토지는 정종인, 정회식, 정종호 등 마을지주들과 주민들이 소유했다. 자영농 비율도 무척 높았다. 가장 큰 지주였던 정종인은 20섬 지기(약 6만 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다.

은산2리에는 삼봉 정도전 기념관과 문학관, 정도전의 장남 정진과 손자 정래를 모신 ‘희절사’라는 사당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사당 문헌사는 1리에 속하고 기념관과 문학관은 2리에 속하는 묘한 구조다. 은산2리를 비롯한 산대(山垈) 지역은 정월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했다. 하지만 당제나 산신제는 지내지 않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3) 은산3리

은산3리 미동

은산3리는 자연지명이 미동이다. 미동이라는 지명은 마을 뒤 ‘미등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지리지나 읍지(邑誌)에서는 ‘미등골’을 찾을 수 없다. 그보다는 1911년경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는『조선지지자료』-경기편과, 1912년에 조선총독부가 편찬한『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1922년에 편찬된 근대지도의 ‘은정동’이라는 마을이 주목된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내용을 기록한『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도 은산리라는 지명이 ‘은정동’과 ‘산대’에서 한 글자씩 차용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은정골은 은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마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은정동의 위치는 산대분교 뒤쪽이다. 이곳에는 현재 민가가 한 집도 없다(가설주택 1집은 있다). 1922년 지도에도 나타나는 마을이 100년밖에 안 된 현재 흔적조차 없는 이유를 마을 주민들도 알지 못했다.

은산3리는 2022년 6월 현재 43세대 79명이 거주한다. 이장 윤정희(남, 1968년생)는 호(戶)로는 25호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남자 42명 여자 37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성씨는 파평 윤씨가 대성(大姓)이며 봉화 정씨 1집에 불과하다. 평택지역의 파평 윤씨는 조선 정조 때 25세손 윤호가 지제동에 입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3리에도 이장 윤정희(남, 1968년생)의 6대조가 서산에서 입향했다고 하여 150~200년을 거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파평 윤씨는 전체 25호 가운데 6호가 거주한다. 비율상으로 크지는 않지만 마을의 운영은 아직도 파평 윤씨가 주도한다.

은산3리는 산대초등학교 동쪽에 마을의 중심이 형성되었지만 1977년부터 시작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동쪽 모퉁이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중심이 옮겨졌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마을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외양만 그럴듯하고 모든집들이 개성 없이 거의 똑같은 형태다. 개량사업 초기에 건축된 집들은 아궁이가 있는 재래식 부엌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 전후 가스나 보일러를 설치했고 일부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

은산3리도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 비교적 젊은층은 송탄 시내와 마을에 집을 두고 직장생활과 농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의 주 경작지는 동쪽에 형성된 말미들 일대다. 말미들 일대는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밭으로 경작되다가 1970년대 경제정리를 한 뒤로 논으로 전환한 곳이 많다. 그밖에 목축업 1집,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1집이 있다.

문화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다. 줄다리기나 마을제도 지내지 않는다. 파평 윤씨의 사당이나 종중 묘역도 조성되지 않았다. 다만 마을 입구 은산2리와 갈라지는 지점에 주막이 있었다. 1911년경 편찬된『조선지지자료』에는 '은정동 주막(산대주막)'이라고 기록되었다. 은정동 주막은 1980년대 초반까지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다.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포도밭이 조성되었다.

(4) 은산4리

은산4리는 자연지명이 말미다. 주민들 가운데는 마을의 지형이 말의 형상인데 꼬리 부분에 해당되어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조선시대 마산면의 끝쪽에 위치하여 유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지명으로는 '상리'가 있다. 상리(上里)는 마산면에 상리, 하리가 있을 때 맨 위쪽에 위치하여 유래되었을 것이다. 은산 4리는 근대 이전 양성현과 진위현의 경계였다. 상리(上里)라는 지명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었다. 상리는 말미라고도 부른다. '말미'는 끄트머리 마을에서 유래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주민들은 지형이 말의 꼬리 부분에 위치하여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주민 우종갑(남, 1938년생)에 따르면 말미는 본래 마을 좌측 비석산 기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비석산 기슭은 남향이어서 햇볕이 잘 들고 승주골, 방축골과 같은 문전옥답이 발달하여 살아가기에 적합했다. 비석산 아래에 처음 마을을 일군 성씨는 남양 홍씨라고 한다. 그러다가 조씨들이 입향했고 나중에 진위면 마산리 오룡동 등지에 살던 단양 우씨들이 이주하면서 대성(大姓)을 이뤘다. 단양 우씨가 입향한 뒤에도 청송 심씨, 달성 서씨, 전주 이씨, 안동 권씨가 들어오면서 현재와 같은 성씨 분포를 가져왔다. 해방 전후 남양 홍씨는 6~7호가 거주했다. 그러다가 해방 직후 종손인 홍종호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웃 마을인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와 봉명리로 이주했다. 이주 동기는 알 수 없다.

은산4리 상리(말미)

비석산 기슭에 있었던 은산4리는 약 300여 년 전 현재의 위치로 집단 이주했다. 우종갑(남, 1938년생)은 선대들에게 듣기로 옛날에 이(李)씨들이 비석산에 묘를 쓰게 되었는데 가문의 권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에 묘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씨 묘역은 근대 이후 집안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훼손되었고 묘역을 지키던 커다란 비석은 봉화 정씨가 가져갔다.

우종갑(남, 1938년생)은 과거 은산 4리는 약 20호 내외였다고 말한다. 1980, 90년대 이촌향도가 있은 뒤에도 인구는 줄었지만 호(戶)는 줄지 않았다. 현재는 55세대가 거주한다. 마을 우측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세대 수가 증가했다. 인구는 83명이고 이 가운데 남자가 50명, 여자가 33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같은 현상도 공장에 거주하는 남성 1인 세대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은산4리도 전형적인 농업지대다. 주 경작지는 마을 동쪽 마루들과 말미들 일대와 비석산 아래 승주골, 방축골 등이다. 안동 권씨의 입향 과정을 보면 일제강점기 권혁동의 부친이 마름을 보기 위해 진위면 가곡2리 개실에서 은산4리로 이주했다는 것을 볼 때 부재지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실 여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주민들 대부분은 논농사를 짓고 한 두 집만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와 축산업을 한다. 문화적으로도 줄다리기나 마을제의 흔적은 없지만 거북놀이와 두레풍물패가 잘 놀았다는 이야기는 전한다. 특히 말미두레는 들판 건너 은산5리 월경두레와 두레싸움을 많이 했다.

(5) 은산5리

은산5리는 진위천과 산하천이 만나는 벌판에 위치했다. 마을은 조선후기 건는들, 마루들, 황승들의 개간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마을의 자연지명은 ‘월경(越境)’이다. 월경이라는 지명은 ‘월경지’를 의심해볼 수 있지만 주민들은 조선후기 마산면에 속할 때 산하천 건너에 마을이 있어 유래되었다고 말했다. ‘월경’은 본래 진위군 마산면에 속했다. 1911년경 편찬

된『조선지지자료』에도 진위군 마산면의 자연마을로 상리(말미), 산내리, 동막리, 와곡리(마산3리), 신제리(마산3리)와 함께 '월경리'가 있기 때문이다.

진위군에 속했던 월경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진위군 북면 은산리에 포함되었다. 1917년 편찬된『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도 은산리에 '월경리'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재조정 과정에서 용인군 남사면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922년 지도에도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의 자연마을에 월경(越境) 마을이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 월경마을과 순지마을 사이로 건설되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행정구역 조정과정에서 다시 평택군으로 편입시켜 은산5리로 편재했다.

은산5리 월경

주민 최재성(남, 1932년생)에 따르면 은산 5리는 예로부터 100호가 넘는 마을이었다고 말한다. 주민 진흥섭(남, 1935년생)도 해방 직후 95호였다고 주장하여 최재성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1985년『평택군 통계연보』를 통해 추산해도 은산 5리는 1983년 진위면 은산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100호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은산5리의 인구는 125세대 274명이다. 남자가 147명, 여자가 127명으로 남초 현상도 나타난다. 과거에 비해 인구는 크게 줄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성(남, 1932년생)은 인구가 많은 이유로 '농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18, 19세기 마산리 앞 건는들, 황승이들, 마루들, 은산리의 말미들 일대가 개간되면서 경작지가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진위천에 황승보, 건는들보와 같은 수리시설을 확보하고 수전농업으로 경제기반을 삼았다. 들판에 형성된 마을의 속성상 식수와 땔감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주변의 임야지대와 산하천의 물로 충당했다.

하지만 하천 변에 마을이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수해를 많이 입었다. 주민 진흥섭(남, 1935년생)은 자신이 겪은 큰 수해만도 서너 번이 넘고 작은 수해가 빈번했다고 말한다. 은산 5리는 일제강점기만 해도 서울 부재지주, 일본인 부재지주가 있었고 농지도 경주 최씨를 비롯한 일부 지주들이 독점했다. 그러다가 해방 후 적산농지 불하와 농지개혁으로 자영농이 증가했고, 1972년

전후 경지정리로 용인의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었으며, 진위천의 제방을 높게 쌓으면서 해소되었다. 은산 5리는 당제와 우물고사(정제)를 지냈다. 당제와 우물고사는 들판과 물이 중요했던 동네답게 마을 귀퉁이와 우물에서 지낸다.

성씨는 매우 다양하다. 대성(大姓)은 경주 김씨와 경주 최씨다. 수적으로는 경주 김씨가 20호 이상이어서 가장 많고 경주 최씨는 6, 7호에 불과하지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 마을의 운영도 경주 김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2010년경에는 화성시 동탄일대의 화훼재배 농민들이 상당 수 이주했다. 동탄지역의 택지개발로 농지를 잃게 되자 은산5리 쪽으로 이주한 것이다. 현재 화훼농가가 4~5호쯤 된다. 규모도 상당하다.

4.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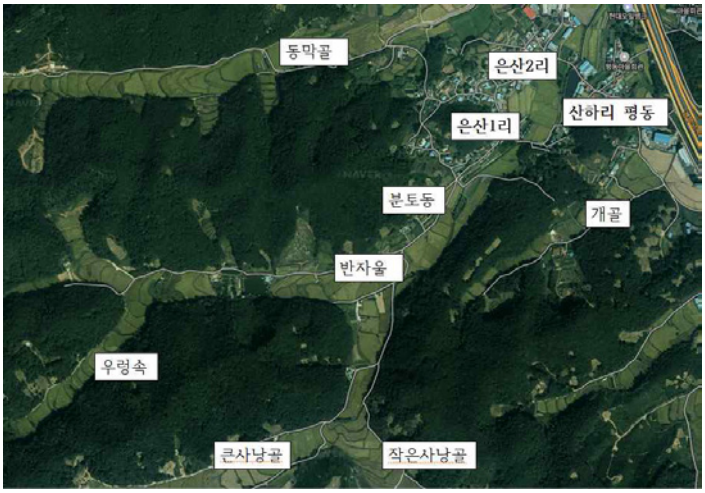
1) 농업

(1) 경작지와 경지정리

1961년 12월 31일 현재 진위면의 직업별 인구는 총인구 8,064명에서 농업인구가 6,798명이었다. 나머지는 상업인구 42명, 공무원 41명을 비롯해서 실업자와 기타인구였다. 1965년『평택군통계연보』에는 은산리의 전체 136호 가운데 농가(農家)는 116호에 달했다. 1975년『평택군통계연보』에도 전체 133호 가운데 농가(農家)가 108호였고, 1985년『평택군통계연보』에는 전체 232호 가운데 193호가 농가(農家)였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볼 때 은산리는 전형적인 농업지대, 그중에서도 논농사지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마을 별 농업상황이다.

① 은산1, 2리

은산1, 2리는 산하리의 마을과 묶어 산대(山垈)라고 한다. 산대지역은 봉화정씨의 공동경작구역 성격이 강하다. 은산1리, 2리의 주경작지는 덕암산과 태봉산 계곡이다.



은산1리, 2리의 주경작지

덕암산에는 본래 아흔 아홉 골짜기가 있다고 전하는데 골짜기도 깊고 수량도 풍부하여 수전농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생산력도 높아서 1970년대 이전 평택평야의 논들이 논 1마지기에 벼 1가마를 수확했고 구릉지대의 옥답들이 양석(벼 두 가마)을 수확할 때 이 지역은 평균 양석(2석)을 수확했으며 좋은 논들은 3가마까지 수확했다. 지금도 대부분 3가마나 3가마 반을 수확한다. 정병근(남, 1961년생)도 좋은 수렁논들은 3가마를 수확했는데 2000년대 이후 수로가 만들어진 뒤에도 비슷하거나 3가마 반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의 모두 수렁논들이어서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봉화정씨는 은산1리, 2리, 산하리 일대의 옥답(沃畓)을 장악하고 이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문의 위세를 유지했다. 은산1리와 산하리 경계의 반자울 입구에 거주하는 정병한(남, 1954년생)은 “여기는 농사죠. 다른 것 할 게 없죠. 옛날에는 골짜기 논들이 좋았잖아요. 여기 사낭골, 반자울, 저기 동막골 같은 데가 땅이 기름졌어요. 쌀도 통통해서 잘 익으면 갈라지는 바람에 볍씨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죠”라고 말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산대 쌀’은 높은 값에 거래되었다. 같은 쌀 한 가마라고 해도 산대 쌀이 무게가 더 나갔다.

은산1,2리의 주경작지

동막골

사낭골

반자울

2022년 현재 논밭의 비율은 논 70%, 밭 30% 정도다. 옛날에는 밭보다는 논의 가치가 월등하게 높았다. 논에는 주곡식인 벼를 생산했지만 밭에는 기껏 보리나 밀, 채소를 심었기 때문이다. 쌀은 재산이고 돈이었다. 주 경작지는 반자울(반재동), 사낭골, 동막골이었다. 산하천 변과 평동 옆으로 이어진 개골, 작은 개골도 경작했다. 수량이 풍부한 논이다 보니 1970년 전후 이동저수지 물이 공급되면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도 이 지역은 하지 않았다. 대신 반자울에 은산저수지를 만들고, 논마다 웅덩이나 논우물을 파서 농업용수를 충당했다.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된 것은 2001년경부터다. 대가뭄으로 산대(山垈) 일대의 논들이 햇볕에 타죽을 정도가 되자 뉴스

에도 보도되고 경기도지사가 직접 방문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때 경기도지사 특별지시로 농수로 건설을 하고 농업용수가 공급되었다. 농업용수는 지대가 높아서 양수기로 계곡 끝자락가지 물을 퍼 올린 뒤에 각 논들에게 공급하는 형태였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수세(水稅)가 폐지되면서 수세도 내본 적이 없다.

은산1, 2리에는 부재지주가 없었다. 대부분 마을지주였고 자영농의 비율이 높았다. 해방 전후 산대(山垈) 지역의 지주로는 은산1리의 정회식, 은산2리의 정종인, 산하리 평동마을의 정종호를 꼽았다. 이 가운데 경제력이 가장 높았던 지주는 정종인이었다. 정광섭(남, 1960년생)에 따르면 정종인의 재산은 20섬지기 정도로 추산했다. 통상 기름진 땅의 한섬 규모가 3천 평 정도였으므로 약 6만 평 규모라고 할 수 있다. 6만 평이라고 해도 생산력에 따라 수익은 천차만별이다. 산대(山垈) 일대의 논들은 대부분 옥토(沃土)여서 생산력이 엄청났다. 정회식과 정종호는 500석~7백석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종인은 일제강점 초기 측량학교를 졸업한 측량기사로 토지조사사업 때 부(富)를 축적했다. 정종호는 일제강점기 양정고보를 졸업한 농촌 지식인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는 양묘사업으로 큰돈을 벌었고 공도면장도 지냈다. 해방 후에는 정병기도 상당 수준의 지주였다. 정병기의 부친은 재일교포 사업가 정동순이다. 정동순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서 부동산 사업과 파친코, 호텔업 등으로 막대한 부(富)를 축적하였고 은산리에 거주하던 아들들의 경제기반을 마련해주는 한편 지역사회에 폭넓은 기부활동을 펼쳐 칭송을 받았다.

은산1, 2리 지주 정회식, 정종인 옛집(2008)

지주들의 경제기반은 농지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회식의 손녀 정중임(여, 1935년생)은 농지개혁 이야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쉬었다. 농지개혁 전 정중임 댁은 집안의 땅들을 거의 다 소작 줬다고 말했다. 소작료는 수확량의 절반이었다. 농지개혁은 소작농들이 농사짓던 땅들을 5년 또는 7년에 걸쳐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주들은 땅을 내어주고 푼돈을 받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거둬들인 상환금을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에 재투자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지주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했다. 일부 농지는 소작인들에게 분배한 뒤 다시 사들이기도 했다. 정중임 댁은 일부 토지를 종중토지로 서류변경을 해 놓는 방식으로 농지를 지켰다. 은산1리의 정OO씨도 농지분배를 한 뒤 다시 구입하고, 상환을 못해서 반환하는 땅을 다시 차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기도 했다. 지주들에게는 아픈 기억이지만 농지개혁으로 소작농들은 자영농으로 성장했다. 은산1, 2리가 오랫동안 농업지대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농지개혁으로 인한 자영농 성장과 비옥한 토지의 영향 때문이다.

② 은산3리, 4리

은산3리는 은정동에서 시작된다. 은정동은 은적골이라도고 부른다. 그러다가 200여 년 전 서산에 거주하던 파평 윤씨가 입향하면서 지금과 같은 마을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마을 규모도 작았고 독립된 마을로 발전한 시기도 늦다. 농지개혁 전까지만 해도 은산3리에는 큰 부자가 없었다. 은산1리 정중임(여, 1935년생)도 미동 쪽에는 부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은산3리 주민들은 은산1, 2리가 차지했던 동막골에서 소작을 짓거나 산하천 변의 비름백이들에서 농사지었다. 농지개혁의 영향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은산3리 윤정희(남, 1968년생) 이장도 '은산1, 2리 사람들은 사낭골이나 동막골에서 농사짓고 우리(3리)는 마을 앞에서 농사지었다' 고 말한다. 해방 전후 비름백이들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가뭄에 취약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경지정리가 이뤄지고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비옥한 토지가 되었다. 은산3리 노인회장 윤여창(여, 1945년생)도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하늘바라기였죠"라고 말한다. 그래도 들판 가운데(윤정희 이장 댁 논이 있는 곳, 일명 발동기 웅덩이)에 웅덩이가 있어서 모내기를 할 때는 그 물을 퍼내서 모를 심었다.

은산3리, 4리 주경작지

은산4리의 주 경작지는 방죽골, 승주골과 보개재미들, 진등말레 일대다. 우종갑(남, 1938년생)은 옛날에는 승주골과 방죽골이 한 마지기에 벼 양석(두 가마)이 생산되는 옥토(沃土)였다고 말했다. 이들 농지는 태봉산과 비석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있어서 농사짓기에 좋았다는 말이다. 반면 마을 앞 보가재미들, 진등말레는 하늘바라기(천수답)이었다. 농업용수를 구할 수 없어 구릉지대는 밭으로 경작되었고 논들도 소출이 매우 낮았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에는 일본인들이 자본을 제공하여 보가재미와 방죽골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은산4리의 경작지 승주골, 방죽골

해방 전후 은산4리 일대의 토지는 가수 최희준의 부친으로 잘 알려진 최한우의 땅이 많았다. 또 주민들의 대지(垈地)는 윤여경의 땅이 많았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도 “윤여경이라고 여자인데 그 사람이 터 도지를 받아갔고, 우리 동네 대지 1/3은 그 할머니 땅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다. 우종갑은 ‘윤여경은 남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자신의 수저를 갖고 다닐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 이라고 말했다.

수감을 했던 우종갑, 은산양수장. 보가재미, 진등말레

마을에는 지주라고 할만한 집이 없었다. 권혁동의 부친 권오응도 가곡2리 개실에 살다가 마름을 보기 위해 마을로 들어왔다. 주민들이 자작농으로 성장한 것은 농기개혁의 영향이다. 우종갑은 농지개혁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조봉암이 했지만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상환 기간은 5년이었다.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던 대지(垈地)는 분배되지 않았다.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지(農地)만 개혁했기 때문이다. 윤여경이 소

유했던 대지(垈地)는 농지개혁 10여 년 뒤까지도 도지(賭地)를 받아갔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돈을 주고 매입하면서 비로소 마을 사람들의 땅이 되었다.

은산4리의 경제력이 향상된 것은 1970년 전후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용인의 이동저수지 물이 들어오면서부터다.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농업생산력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구릉지대의 밭들도 논으로 개간되면서 농지보유량도 증가했다. 은산4리에는 '은산리양수장' 도 설치되었다. 경지정리 초기 양수장 수감(水監)과 홍농계장으로 활동했던 우종갑(남, 1938년생)은 은산리 양수장의 몽리면적이 3천 정보에 달했다고 말했다. 평택 일부지역을 비롯해서 송탄, 고덕, 원곡면 산하리 일대까지 농업용수가 공급되었다는 말이다.

③ 은산5리

은산5리 주경작지

은산5리 수로와 들판이 어우러진 말미들

벌자리들

은산5리는 산하천과 진위천 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의 주 경작지는 마을 주변의 황승이들, 벌자리들, 개울들이지만 일부 지주들은 모단들, 건는들에도 농지를 보유했다. 저습한 들판지역은 개간 시기가 늦고 농업용수의 부족과 수해로 농업생산력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은산5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위천에 보(洑)를 축조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았다.

근대 전후의 간척 또는 개간지역은 궁방전이거나 조선인 부재지주, 일본인 지주들에 의해 개간된 곳이 많다. 농지개혁 전 은산5리에는 서울의 부재지주 최상연의 땅이 많았다. 최재성(남, 1932년생)의 조부는 최상연의 땅을 관리했다. 그러다가 최상연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대지와 농지

를 봉남리 진위초등학교 앞에서 상업을 하던 일본인에게 매각했다. 이밖에도 서울의 부재지주 땅도 많았고 수원의 남OO씨도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마을의 부자들은 대부분 부재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마름들이었다. 최재성 댁도 마름을 봤지만 최문O 댁도 마름을 봤고, 경주 김씨 두 세 집과 경주 최씨 한두 집 정도가 중농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

해방 후 일본인이 소유했던 농지는 적산으로 분류되어 신한공사가 가져갔다가 정부수립 직전에 분배되었다. 지주들이 소유했던 농지는 1950년 농지개혁으로 소작농들에게 분배되었다. 마름들은 지주의 땅이 분배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최재성 댁의 경우에는 자작 20마지기와 소작 30마지기를 보유했는데 소작을 준 30마지기는 소작농들에게 분배되고 상환금을 받았다.

은산5리 황승들(황새미들)과 마루들

주민 진흥섭(남, 1935년생)은 최재성과 다른 기억을 갖고 있었다. 진흥섭은 “소작도 많았지만 자작하는 사람도 많았다” 고 말하면서 최재성의 조부는 적산농지 불하할 때 일본인 농지를 차지하여 약 350마지기의 농지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적산농지 불하 때 일본인이 소유했던 마을 뒤쪽의 벌자리들 봇논 3섬 8마지기(1만 2천 평 한 배미)를 모두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씨 댁에는 머슴을 10여 명씩 두고 일을 시켰다. 마을에서도 경주 최씨 댁 5, 6집이 모두 부유했다.

농지개혁 전 소작농의 삶은 고달팠다. 소작을 줄 때도 집안에 일할 수 있는 남자 장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주었고 여자들만 사는 집에는 소작을 주지도 않았다. 소작농들이 얻을 수 있는 소작지는 5마지기~10마지기 수준이었다. 일부 자작농지가 있으면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진흥섭은 소작료에 대해 ‘수확의 절반은 지주에게 주고 나머지 30%는 일본놈들이 빼앗아갔다’ 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타작을 해도 식량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

은산리의 농지들은 대부분 천수답이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진위천에 보(洑)를 쌓아 농업용수를 확보했다. 보(洑)의 축조는 2월경에 했는데 봇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나와서 일을 했다. 고속도로 다리 아래의 상승보는 모단들과 벌자리들에 농지를 소유했거나 소작짓는 사람들이 축조했다. 황승이보는 황승이들과 주변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건는들보는 마산리 앞 건는들의 토지 소유자들이 만들었다. 은산5리의 경제력은 1970년대 초 경지정리를 하고 이동저수지 물이 들어오면서 크게 향상되었다. 논 1마지기에 벼 1가마가 고작이었던 논들이 벼 3가마, 3가마 반을 수확한다. 2010년 전후에는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화훼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통한 화훼농업을 하고 있다.

(2) 농사관행과 작부체계

1940년 이후에 태어난 주민들은 지주-소작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 1930년대 중반쯤 태어난 사람들만 지주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였다. 농지개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은산리의 써레질과 못자리(은산2리)

은산1리는 경칩이 지나 춘분을 넘어서면 논갈이를 시작했다.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은 친정아버지는 봄에 땅이 풀리면 논갈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땅이 풀리는 시기는 양력으로 4월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논갈이는 애벌갈고, 두 번 갈고, 세 번 갈은 다음에 써레질을 했다.

곡우(4월 20일) 때가 되면 못자리를 했다. 윤여창(여, 1945년생)도 음력 4월 초쯤에는 씨나락을 뿌렸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주로 물못자리를 했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못자리에 심은 모들은 한 달을 길렀다. 볍씨를 소독할 줄도 몰랐다. 볍씨 소독은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요즘에는 못자리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농협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모판에 뿌려진 볍씨는 한 달쯤 길러서 모내기를 했다.

은산2리의 모찌기와 모내기

해방 전후에는 거름도 충분치 않고 자주 가물어서 제때 거름을 내고 모내기를 할 수가 없었다. 모내기는 5월 중순에서 시작했지만 보통은 양력 6월 초에 많이 했고 음력 6월 하지 때까지는 심었다. 윤여창은 그것을 '하지 모' 라고 불렀다고 했다. 손모를 심다 보니 지금과는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게 늦었다. 모내기는 이앙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줄모를 심었다. 줄모는 품앗이로 하거나 작업반이 있을 때는 작업반에서 해줬다. 힘은 들었지만 줄모를 해야 일의 효율성이 높았다. 가뭄으로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칠월 칠석(음력 7월 7일)에 호미모를 내기도 했다. 칠석에도 비

가 내리지 않으면 벼농사를 작파했다. 하지만 은산1, 2리의 경우에는 수렁논이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은산3, 4리는 들판 가운데 저수지(웅덩이) 물로 겨우 모내기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애써 심었던 모들이 타죽었다.

모내기는 줄모를 심었지만 사낭골이나 반자울 위쪽의 좁은 다랑논들은 혼자 손모를 심기도 했다. 모내기를 하고 보름쯤 지나면 두레패들이 김매기를 했다. 김매기는 모내기 후 두 주가 지나서 시작하여 백중(음력 7월 15일) 전까지 마쳤다. 백중이 지나면 풀이 더이상 자라지 않았다. 백중이 지나 추수가 시작되는 양력 10월 초까지는 휴식을 했다.

사낭골 물골 보기(정병근)

은산4리 논갈이

모판옮기기

모내기를 마친 논

1970, 80년대부터 농기계와 제초제가 보급되었고 농협과 협업체계가 형성되면서 농사관행은 변했다. 가족노동이나 공동노동을 통해 해결했던 모내기와 추수, 김매기가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이나 위탁영농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약화도 영향을 주었다. 근래에는 논갈이나 써래질, 모내기와 추수는 거의 대부분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에게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논에 심을 볏모도 농협에서 구입한다. 밭농사와 관련된 것들도 농협을 통해 구입한다. 정병한(남, 1954년생)은 1970년대 중반부터 볍씨 소독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빨간색 물에다 볍씨를 담가뒀다가 모판을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볍씨 소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독을 하고 나면 모판에 뿌리고 남는 볍씨를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농협에서 소독한 볍씨를 구입해서 뿌린다. 정병근(남, 1961년생)도 요즘에는 4월 5일 한식이 지나면 소독한 볍씨를 농협에서 구입해서 모판을 만든다고 했다. 모판에서는 약 25일 내외 길러서 모내기를 시작한다. 엣날에는 아카시아꽃이 필 때면 모내기를 했다. 요즘에는 양력 5월 초가 되면 모내기를 한다. 손모를 심을 때는 모가 많이 자라야했지만 기계 모는 조금 덜 자란 것을 사용한다.

은산1, 2리 정광섭(남, 1960년생)은 모내기와 추수 때는 품앗이를 했다고 말했다. 1970년대까

지만 해도 작목반을 조직하여 모내기하고 추수했는데 그것도 1980년대 이앙기가 도입되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농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농사가 조금만 많아도 머슴을 고용했다. 1970, 80년대에는 평택에 나가 머슴할 사람을 구해왔다. 당시 평택역 광장에는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머슴 살로 모여든 사람들이 인력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정광섭 댁도 평택역에서 머슴을 구했다. 통상 1섬지기(약 3천 평)이면 머슴 1명을 고용했다. 석 섬지기면 두 세명씩 고용하기도 했다. 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모든 일을 손으로 하다보니 머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정광섭(남, 1960년생)은 논 50마지기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상머슴으로 한 명을 고용하고 농번기에는 달몸(일종의 기간제)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에만 머슴을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썼다. 머슴은 상머슴, 애기머슴, 달몸으로 구분되었다. 상머슴은 논갈고, 밭갈고, 심지어 멍석을 짜는 등 모든 농사일을 능숙하게 할줄 알아야 했다. 애기머슴은 나이가 어린 수습 머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머슴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상머슴은 1960년대만 해도 1년 쌀 6가마를 지급했다. 그러다가 8가마, 10가마로 올랐고 1970년대 후반에는 12가마까지 지급했다. 달몸은 일한 기간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랐다. 농사 일이 집중될 때는 품꾼을 고용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품꾼들은 쌀 한 말에 4~5일씩 일해주다가 물가와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점차 올랐다.

머슴을 고용했던 은산1리의 정중임과 정홍섭

정중임(여, 1935년생)은 농사가 많아서 머슴을 두 명 고용했다. 1960년대만 해도 동네 하인은 있었지만 집에서 데리고 사는 하인은 없었다. 머슴들은 농사일도 했지만 땔감도 해주고 다른 집안일도 해줬다. 여성과 남성 품꾼의 삯도 서로 달랐다. 노동력의 차이 때문이겠지만 여성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정중임도 보통 쌀 한 말에 5일 정도를 일했다고 말했는데 가뭄이 들면 열흘씩 일해주기도 했다.

정병기(작고, 1928년생), 정홍섭(남, 1964년생) 댁은 논 2만여 평과 은산리 정미소를 운영했다. 그래서 머슴도 농사 머슴과 방앗간 머슴으로 구분하여 고용했다. 농사 머슴은 세경으로 쌀8~10가마를 지불했지만 방앗간 머슴은 기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용방식이 조금 달랐다.(본인은 처우 조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함)

벼베기는 추석에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했다. 벼베기는 농사가 적으면 가족노동으로도 했지만 대부분 품꾼을 고용하거나 품앗이를 했다. 1960년대 후반 작업반이 조직되면서부터는 작업반에서 해주고 나중에 셈을 했다. 모내기 때도 힘들지만 추수할 때는 무척 힘들었다. 아이들도 들에 나와서 이삭이라도 주워야 했고, 여자들은 아침밥부터 저녁밥까지 밥을 해서 일꾼들을 먹였고 하루 두 번씩 참도 내가야 했다. 손으로 벼를 벨 때는 신중해야만 했다. 볏단이 일정하고 고르게 만들

어져야 하고 볏단을 잘 세워놓아야 벼가 잘 말라서 타작하기에도 좋았다. 볏단을 잘못 세우면 잘 마르지도 않고 속에서 썩기도 했다. 가을장마가 지면 벼가 싹이 터서 품질이 떨어지고 탈곡도 늦어졌다. 정병근(남, 1961년생)은 옛날에는 11월 초순이면 서리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기도 했다고 말한다. 추수가 늦어지면 눈을 맞으며 탈곡할 때도 있었다.

은산1리 동막골의 추수장면

벼베기 전의 동막골

은산3리는 마을 앞 비름배기들이 주경작지였다. 비름배기들은 천수답이었다. 일제 말에는 들판 가운데에 저수지(웅덩이)를 만들었다. 윤여창(여, 1945년생) 노인회장도 “이장(윤정희, 1968년생)네 아버지 때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름백이들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저수지의 물을 퍼서 모내기를 했다. 1950, 60년대에는 발동기로 물을 폈다. 그래서 저수지를 ‘발동기 웅덩이’라고 불렀다. 은산3리는 1980년 전후에 경지정리와 수로를 건설하고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았다.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은산5리는 저습한 지역에 마을과 경작지가 분포했다. 그래서 수해(水害)와 한해(旱害)도 많이 겪었고 농업생산력도 낮았다. 은산5리의 옥토(沃土)는 ‘봇논’이었다. 진위천의 보(洑)와 가까이 있어서 ‘봇물’을 넉넉하게 공급받았던 논들이었다. 주민 진흥섭(남, 1935년생)은 마을의 부자들은 경주 최씨가 많았는데 이들은 머슴도 많을 때는 8~10명까지 고용했으며, 품꾼들도 30여 명씩 썼다고 말했다. 반면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논들은 함께 보(洑)를 축조하고도 봇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은산4리 앞 말미들처럼 지대가 높은 들은 가뭄의 피해도 컸고 생산력도 낮았다.

남사면 진목리 통미 쪽 개울논도 천수답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은 ‘봇논’ 갖기를 소망했다. 은산5리 마을 뒤쪽의 벌자리들은 1만 2천 평으로 대표적인 봇논이었다. 해방 후 적산이었던 벌자리들을 차지한 것은 최재성 댁이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최씨댁을 동경했다.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곡 논을 다량으로 소유한 은산1, 2리를 비롯한 산대(山垈) 사람들은 부유했고 나머지 마을은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산대(山垈) 지역의 경작지는 가뭄이나 수해 없이 매년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나머지 마을에서는 가뭄으로 농사를 작폐하면 산대(山垈) 지역에서 장리쌀을 얻어먹고 다음 해에 갚았다.

은산5리 진흥섭과 그의 집

은산4리 말미들 수로

은산5리를 비롯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산대(山垈) 지역으로 가서 머슴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상머슴도 쌀 일곱 가마를 주면 머슴살이를 했다. 진흥섭(남, 1935년생)은 쌀 한 말에 4~5일 일해줬고 나중에 품삯이 올랐을 때도 2, 3일씩 일했다고 말했다. 보릿고개에는 감자 한 말에 하루씩 일해주기도 했다.

(3) 농업기계화와 영향

은산리 농업은 농업기계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은산1리 정광섭(남, 1960년생)은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에 도입된 농기계는 경운기였다. 경운기를 처음 구입한 것은 은산1, 2리에서는 정동순의 아들 정병기이고, 산하리 평동마을에서는 정종호의 아들 정해순이었다. 이앙기는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고 콤바인과 트랙터는 1980년대 중후반은 넘어서야 구입하기 시작했다.

농기계는 평택시내에서 구입했다. 은산리도 평택동의 남흥철공소에서 구입한 사람이 많았다. 당시 남흥철공소가 일제 농기계와 대동공업(주)의 대리점이었다. 농기계 구입은 젊은층이 앞장섰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신문물에 쉽게 적응하는 데다 나이 든 사람들은 기계작동도 힘들어했다.

은산3리 윤정희(남, 1968년생) 이장은 1970년대 중반쯤 경운기가 도입되었고 이앙기는 1980년대 중후반에나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콤바인과 트랙터는 88올림픽(198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하여 은산1, 2리와는 시간적 차이가 났다.

정동순의 손자 정홍섭(남, 1964년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집에 경운기가 있었다고 했다. 집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 경운기 옆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고 말했다. 정홍섭 댁이 경운기를 구입했을 때 평택군 전체에 경운기가 1대밖에 없었다. 평택 전체에서 두 번째로 구입한 것이다. 3번째 구입은 평택고등학교 농과였다. 당시에는 경운기도 기사를 따로 두었다(정홍섭 댁은 정미소를 운영하여 기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다른 농기구는 일찍 구입하지 않았다. 1970년대 초반 정홍섭의 부친 정병기는 은산2리 앞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운기로 벼를 실어날라야 할 필요가 있어 경운기를 일찍 구입했다. 트랙터는 1987년에 구입했다. 당시 마을에 트랙터가 2, 3대밖에 없을 때였다. 경운기로는 벼를 운반하기도 했지만 벼를 심기 전에 로터리 치는 일을 했다. 정홍섭은 산대 일대의 논들은 수렁논이어서 경운기로는 논갈이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경운기로는 못하고 트랙터에 원판쟁기를 달아서 하는데도 푹푹 빠져서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원판쟁기는 빠지지 않는 논만 갈고 질퍽한 논들은 아예 논을 갈지 않고 로터리

를 친다고 했다.

은산4리의 우종갑(남, 1938년생)은 본인이 진위면에서 처음으로 이앙기와 콤바인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당시 농기계는 경운기는 대동(공업) 것을 많이 썼고 이앙기와 콤바인은 국제농기계 평택대리점에서 구입했다. 1980년대 초반 우종갑은 이기홍, 서정화, 권혁동과 함께 이앙기와 콤바인을 공동 구입했다. 평택 시내 국제농기계 대리점은 윤치원이 운영했다. 농기계를 구입하고 가장 먼저 운전을 배웠다. 당시 트랙터가 없던 시절이라 경운기에 트레일러를 달아서 이앙기와 콤바인을 싣고 은산리 뿐 아니라 마산리, 하북리, 야막리까지 가서 일해주고 삯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마산리나 하북리 일대에는 농기계가 없어 주문이 폭주했다. 비용은 평당 얼마씩 받았다. 희미한 기억으로는 1천 원씩 받았고 하루에 3천 평씩은 일한 것 같기도 하다. 당시 농번기에 종일 일하면 적게 일하면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 이상은 벌었다. 화폐 가치로 따질 때 엄청난 수익이었다.

모내기나 벼베기는 경지정리를 한 논에 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경지정리를 한 논들은 네모반듯해서 일의 효율성이 높았다. 쉴틈 없이 일하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점심밥도 기계 위에서 대충 때우기도 했다.

기계로 벼베기를 할 때는 아침 일찍 할 수가 없었다. 서리(초로)가 내린 벼들은 눅눅하고 쓰러져서 콤바인 날에 감기곤 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할 때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만 했다. 해가 짧은 데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마쳐야 했기 때문에 저녁 5시면 작업을 마쳤다. 이앙기와 콤바인은 2인 1조로 일했다. 1980, 90년대에는 튼튼하지 못해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잦았다. 처음 나왔던 농기계들은 3년쯤 사용하면 망가졌다. 수렁논들이 많아서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갔다. 그래서 전통의 문전옥답보다 경지정리가 잘된 과거의 천수답을 선호했다. 기계작동이 익숙해지면서 하루 3천 평씩 일하던 것이 1만 평씩 일하게 되었다.

근래 농기계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통제 때문이다. 은산3리 윤정희(남, 1968년생) 이장은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면 대형 트랙터 한 대가 1억 1천만 원, 콤바인은 1억 7천, 8천만 원을 한다고 말했다. 기계의 수명도 짧으면 6, 7년, 길어도 10년 이상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래되면 고장이 잦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농촌의 노령화로 직접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농기계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보유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농지를 갈아주고 써레질하고 심어주고 베어서 실어다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도 최소한 몇만 평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래서 농기계 영업을 하지 않고 자영농을 하려면 대형농기계보다 3천~4천만 원 수준의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한다.

농기계를 갖고 벼베기를 해주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한 마지기에 3만 5천 원쯤 받는다. 벼를 베고 나면 짚이 남는데 이것을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짚은 한 마지기에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쯤 생산된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것으로 벼베기의 비용을 보충하기도 한다.

은산5리 김학섭과 소형 트랙터

은산5리 김학섭(남, 1955년생)은 논농사는 소득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00년 전까지는 그래도 남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학섭은 “쌀금이 싼 데다 기계 쓰지, 비료값에 농약 값 세금 빼고 나면 없죠” 라고 말했다. 2022년 쌀값은 20만 원 미만이다. 경지정리 후 은산4리, 5리에서는 논 한 마지기에 벼 3가마를 생산한다. 그중에서 농기계 사용료 15만 원을 제하고 농약값, 비료값, 도정료 등을 빼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다. 농약값과 비료값도 엄청나게 올랐다. 요즘 논농사는 손해 안 보는 수준이지 수익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라고도 했다. 김학섭은 최소한 80kg 한 가마에 30만 원 선은 유지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조금 젊은 농민들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거나 직장생활과 농사일을 병행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다.

(4) 두레노동

은산리 일대의 두레는 들이 넓은 지역에서 김매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공동노동조직이었다. 벼농사는 크게 모심기, 김매기, 추수하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자의 특성에 따라 노동형태가 각기 달랐다. 모내기는 가족노동이나 품앗이, 품꾼을 고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산1리에서는 1섬지기 이상 농사를 지으면 머슴을 고용하기도 했다. 김매기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노동력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레를 조직해서 해결했다. 추수할 때는 비교적 긴 시간에 차례대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족노동이나 품앗이로 해결했다.

들이 넓은 은산 5리에는 두레가 조직되었다. 진흥섭(남, 1935년생)은 두레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거야 당연히 있었지’ 라고 대답했다. 그것마저도 경지정리하고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흥섭이 경험했던 두레는 노동조직으로서의 두레가 아니라 두레풍물패만을 의미했다. 1999년에 편찬된『진위면지』에는 은산리 일대의 두레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했다.

“은산리에는 각 마을마다 두레가 조직되었다. 두레는 보통 15명~30명 내외로 조직되었다. 마을이 큰 경우에는 두 개씩 조직되기도 했다. 두레는 좌상을 중심으로 총무 역할을 했던 공배와 풍물패를 이끄는 상쇠, 그리고 일반 두레꾼들로 구성된다.

김매기 작업은 3번에 걸쳐서 했다. 모내기를 한 뒤 15~ 20일이 지난 뒤부터 두레노동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애벌매기를 한다. 이때에는 아직 벼가 어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계속해서 잡초가 자라고 번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애벌매기가 끝난 뒤 10여 일

뒤에 두벌매기를 한다. 두 벌매기는 애벌매기와 같은 방식이지만 조금 쉽게 진행된다. 세벌매기는 일명 ‘훔치기’라고도 한다. 보통 두벌매기가 끝나고 10일쯤 뒤에 실시한다. 훔치기를 할 때는 벼 베기 좋게 땅을 골라주며 실시한다.

김매기 방식은 논의 생김새에 따라 다르다. 은산리에서는 ‘기러기형’으로 논을 맸다. 은산리의 사낭골, 반자울, 동막골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서 논둑이 반달모양으로 구불구불했다. 두레꾼들은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기러기가 날아가는 반대방향으로 늘어서서 김매기를 했다.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노동량은 4줄씩이다. 논 하나가 끝나면 논둑을 타고 넘어가 다른 논에서 김매기를 했다. 은산리에서는 이것을 ‘두렁넘기’라고 했다.

두레노동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했다, 보통 아침식사를 마치고 7시 이전 호미를 허리춤에 차고 풍물패의 악기를 보관한 공회당 앞이나 동네 마당으로 모인다. 일의 순서는 좌상이 정했다. 일할 장소가 정해지면 농기와 두레풍물패를 앞세우고 논으로 나갔다. 논으로 나간 뒤에는 선소리꾼만 남고 모두 논으로 들어간다. 두레꾼들은 선소리에 후렴구를 받으며 김매기를 한다.

참을 먹거나 점심을 먹을 때도 규율에 따라 행동한다. 참과 식사는 논의 주인들이 낸다. 보통 아침을 먹고 모이면 오전에 참 한 번, 오후에 참 한번, 점심밥까지 준비한다. 은산리이 마을에서는 오전 9시에 밥을 내고, 오전 11시에 참으로 술을 내며, 오후 1시에 참으로 밥을 먹었다. 오후 3시에는 참으로 술이 나오고 저녁 5시경에 밀로 만든 빵이 나왔다. 두레노동은 해가 질 때까지 진행되었다. 풍물패를 앞세워 마을로 돌아온 뒤에는 다음 날 일할 장소를 공지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세벌 매기가 끝나면 백중이다. 백중 때가 되면 호미걸이를 한다. 호미걸이는 ‘두레먹는 날’이라고 해서 임역원을 선출하거나 품값을 결산하고 악기를 정비하는 일을 말한다. 호미걸이를 할 때는 농사가 많은 집에서 술과 음식을 내기도 하고 품값으로 장만하기도 한다. 셈을 할 때는 농사가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일한 날짜를 따져서 돈을 받아갔다. 셈의 기준은 ‘쌀 한 말에 5일(다섯 가락)’이다.[20]”

은산2리 방촌 두레는 15~20명으로 조직되었다. 은산리에서는 두레를 작업반이라고 했고 좌상을 작업반장이라고 했다. 그것은 1960년대 중반 각 마을에 두레를 대신하여 작업반이 조직될 때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두레에는 1호(戶)에서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했다. 참여를 거부하면 김매기를 해주지 않았다. 은산1리 정병억(남, 1952년생) 이장은 어릴 때 두레를 봤다고 말했다. 본인은 어려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두레패가 논매러 가는 것을 봤다는 말이다. 하지만 두레패의 조직이나 운영을 기억하지 못했고 좌상이 있어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면 두레패들이 따라서 일하고, 기수가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고, 상쇠를 중심으로 풍물패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했다. 두레패의 인원은 12~15명 정도로 기억했다. 정병억이 기억하는 두레는 작업반으로 바뀌기 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은산1리 두레는 1960년대 중후반 가뭄이 심해지면서 없어졌다고 기억했다. 너무 가뭄이 심해서 호미모 조차 심지 못하자 부모들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밥벌이라도 하라고 도시로 내보내면서 젊은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자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두레패가 해체되고 얼마 있다가 조직되었다. 정병억은 그 시기를 새마을사업 시작할

20) 평택시·진위면지편찬위원회, 『진위면지』, 1999

때(1970년경) 전후로 기억했다. 은산1리는 텃골과 윗말로 나뉘어 두 개 반이 조직되었다. 작업반은 반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풍물패는 없었다. 모내기도 하고 논매기와 추수까지 했는데 작업반이 조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추수는 기계가 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다시 말해서 탈곡기와 발동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추수를 하고 탈곡기 작업반까지 생기면서 역할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1980년 전후 이앙기가 도입되면서 해체되었다. 김매기도 제초제가 도입되고 김매기 기계가 도입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

은산4리 진등말레들

개울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도 '두레가 있었냐' 는 질문에 '그거 없는 동네가 있었나' 라고 반문했다. 우종갑의 부친은 말미두레의 좌상을 했고 우종갑도 꽹가리를 치고 상모돌리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말미 두레패에서는 공석권이라는 사람이 기수를 했는데 힘이 장사였다. 기수가 힘이 쎄면 두레싸움에서 유리했다. 말미 두레는 장정 남자 20명 내외로 조직되었다. 마을이 작아서 한 집에서 두 명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3, 4명이 나오기도 했다. 많이 나와서 일한 집에는 백중 지나서 셈을 할 때 품삯을 지불했다. 품삯은 날품을 팔 때를 기준으로 일당을 쳐줬다.

말미두레는 은산5리 월경두레와 두레싸움을 많이 했다. 비록 은산 4리가 작은 마을이었지만 은산5리에 밀리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상쇠는 이복선이 했다. 장구는 이복흥을 기억했고 호적은 서일남, 징은 심재형이 쳤다고 기억했다. 말미 두레는 모내기 후 20일쯤 지나서부터 애벌매기를 시작했다. 그 뒤로 열흘에서 열닷새 간격으로 두벌매기, 훔치기를 했다. 훔치기는 세벌 매기인데 벼에 씨알이 맺히기 전에 손으로 벼를 흩어가면서 풀을 뽑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칠월 칠석까지 모내기를 해서 논매기 순서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두레패의 기강도 엄했다. 논매기 순서를 좌상이 정하면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랐다. 마을의 논들은 네것 내것 따지지 않았다. 우종갑은 '두렁넘기' 라고 들어봤냐고 했다. 네것 내것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매기를 할 때 이쪽 논에서 일하다가 끝나면 논둑을 타고 넘어서 그 옆의 논의 김매기를 했는데 이것을 두렁넘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논매기는 백중이 지나면 끝냈다. 백중이 지나면 풀이 더이상 자라지 않았다. 백중날은 '머슴생일' 이라고 해서 머슴들에게 휴가를 주기도 하고 백중놀이를 하기도 했지만 은산4리에서는 그와 같은 풍습이 없었다. 은산4리 말미 두레는 한국전쟁 직후 중단되었다.

은산4리 김순자(여, 1947년생)는 작목반 활동을 했다. 두레는 장정 남자들로만 조직되었지만 작목반은 여성들도 참여했다. 작목반을 조직할 때는 이촌향도가 나타났던 시기이다.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지자 작목반에 여자들도 참여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은산4리 작목반은 한 개 조직이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모내기도 하고 논매기도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했지만 추수에 대해서

는 반신반의했다. 작목반도 어떤 집은 한 사람만 나왔지만 어떤 집은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 참가하기도 했다. 품팔기도 어려웠던 시절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작목반에 참여해서 품을 팔았다고 했다. 말미 작목반은 1980년 전후 농기계 나오고 제초제가 보급되면서 없어졌다. 모내기도 이앙기로 하고 벼베기도 콤바인으로 하면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은산5리 진흥섭(남, 1935년생)은 두레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다. 또 두레패와 두레풍물패를 구분하지 못했다. 1960년대 은산5리 월경마을 두레의 상쇠는 서상훈이었다. 용인군 남사면에 속했을 때는 꽹가리로는 남사면에서 제일이라고 평가받았다.

(5) 축산업과 시설재배

은산리는 전형적은 논농사지대다. 지형적으로는 덕암삼과 태봉산 자락의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지만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해서 일찍부터 수전농업이 발달했다. 밭농사의 비율도 적은 편이다. 은산1~4리의 경우에는 논과 밭의 비율이 70:30 정도이며, 은산 5리는 90% 이상이 논이다. 그래서 축산업이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도 많지 않다. 은산1리는 특이하게도 1980~90년대에 사슴사육을 했었다. 은산1리 이장 정병억(남, 1952년생)은 1리에서만 여러 집이 사육했다고 말했다.

은산1, 2리에서 사슴사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1리 정병억(남, 1952년생)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큰 축산업보다는 사슴을 길렀다며 정희진, 정두순, 자신의 사촌형, 정중임 등 8집의 이름을 거론했다. 1호(戶) 당 사육 두 수는 10마리 내외였다. 사슴사육은 수익이 좋았다. 녹용으로도 팔았고 고기로도 팔았기 때문이다. 돼지 사육은 농가에서 목돈마련을 위해 1, 2마리씩 기르는 것이 고작이었고 축산업으로 했던 사람은 2리의 정계근 정도였다. 정계근은 삼봉정도전 사당 아래에 축사를 만들고 젓소를 사육했다. 그러다가 은산3리 앞으로 이전했고, 근래에는 정효섭도 3리 앞에서 젓소를 사육하고 있다.

1리 출신으로 3리에서 거주하다시피 하는 정홍섭(남, 1964년생)은 은산리 일대가 축산업이나 하우스를 하는 집들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80년 전후에는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몇 집 있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폐업했고 지금은 정효섭(남, 1951년생)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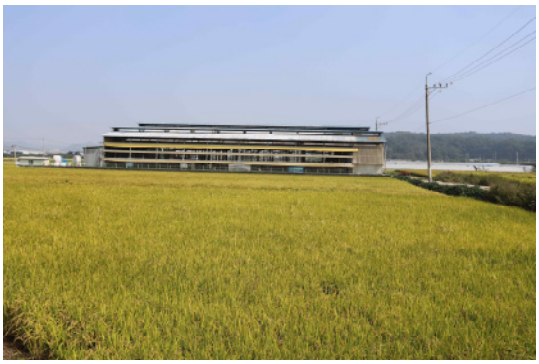
은산2리에서는 정계근(남, 1944년생)과 정효섭(1951년생)이 축산업을 한다. 정계근은 1975년경 삼봉 정도전 사당 주차장 건너편에서 축산업을 시작했고, 정효섭은 1979년 버스 종점 건너편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젓소 3마리를 구입했다. 당시에는 젓소 한 마리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했다. 축산업을 시작하고부터 우유값도 안정되었고 1983년부터는 소 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자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했던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 1986년 해외에서 젓소를 대규모 수입했다. 수요과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시작된 젓소 수입은 소값 폭락을 가져왔다. 송아지 한 마리에 2만 원도 나가지 않으면서 축산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1980년대 축산농가에서 수확한 우유는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수거했다. 농가에서는 오전에 젖을 짠 뒤 각자의 집에 마련된 물탱크에 넣고 저어주며 상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집유차는 오픈된 트럭이었다. 당시 매일유업에는 지금과 같이 탱크로리를 갖춘 집유차가 없었고 축사에 냉각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 90년대가 수익이 좋았다. 당시에는 사료보다 풀을 뜯어 먹였고 배합사료를 약간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료비가 적게 들었다.

지금은 사료비가 전체 매출액의 60%가 넘는다. 마을 내에 축사가 있으면서 주민들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침출수라던가 각종 규제도 점점 심해진다. 정계근과 정효섭은 축사를 은산4리 앞 들판으로 옮겼다. 정효섭은 큰아들과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고용하여 축사를 운영한다. 근래에는 사료값 인상에 소값이 또 떨어져서 힘들다. 소문에 송아지 한 마리에 1만 원을 해도 사가지 않는다는 말도 들린다.

은산2리 정계근의 축사

은산3리 허덕일의 축사



은산2리 정효섭의 축사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까지 축산업에 종사한 은산5리 진흥섭

은산5리 진흥섭(남, 1935년생)은 1970년대 말부터 축산업을 했다. 은산5리에서는 진흥섭 말고도 두 세 집이 함께 했다. 진흥섭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번 돈과, 값싼 땅을 개간하여 넓힌 농지를 팔아서 축산업을 시작했다. 진흥섭이 팔아버린 농지는 진위천 건너편의 논 3천평이었다. 평당 5천 원으로 팔아서 소 3마리를 구입하여 시작했다. 당시에는 송아지 값이 무척 비싸서 값싼 논을 팔아서는 몇 마리 구입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1986~87년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당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의 비리로 '소값 파동' 이 일어나면서 소값이 폭락했다. 그래도 당장 포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15년 동안 축산업을 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면서 사육 두 수가 15마리로 늘었다.

1980년대 축산업은 이익이 많지 않았다. 1970년대만 해도 소 1마리를 사육하면 논 10마지기 수익이 나온다고 했는데 소값 파동 이후에는 사료값을 폭등하는데 소값은 폭락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소를 길러서 팔아치웠던 농지를 구입하지도 못했다. 손해를 보충해준 것은 송아지였다. 그래도 암소를 길러서 송아지를 여러 마리 낳으면 손해가 보상되었다. 1980년대 축산농가의 우유는 매일유업에서 수거했다. 아침에 짠 젓을 내놓으면 차량을 가져와서 싣고 가는 방식이었다.

은산4리 우제준은 2,000년경부터 은산4리 앞 들판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한다. 우씨는 본래 공무원이었다. 그러다가 20여 년 전 명예퇴직하고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오이재배를 했다. 그러다가 토마토로 영역을 넓혔고 지금은 쌈 채소 등 여러 가지를 한다. 토마토는 요즘 짭짤이 토마토가 유행이다. 재배만 하면 불티나게 팔린다. 하지만 우씨는 짭짤이 토마토에 대해 부정적이다. 짭짤이는 토마토마다 호스로 소금물을 연결하여 적당량 공급하고 물과 영양분도 조정해줘야 해서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영양분이나 건강에도 크게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산5리 나란히 화훼농원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노동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노동력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무척 힘들다.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은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걸핏하면 계약위반이라며 신고하고 항의한다. 우씨의 부인 심씨는 ‘베트남 아이들은 고집 쎄고 영악하다’ 고 말한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속성상 다른 집 하우스에 품앗이도 나가야 하는데 베트남 노동자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순한 태국 노동자를 고용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수급이 어려워 인건비도 크게 올랐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

하우스 시설재배를 통해 생산된 상품은 손으로 선별작업을 거쳐 박스로 포장해서 트럭에 실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보낸다. 1980년 전후에 시설재배를 했던 사람들은 용산 청과물시장이나 수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과거에는 선별작업이나 박스 포장도 사람을 고용해서 했다. 지금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ARP로 보내 선별작업과 박스포장, 운송을 위탁한다. 사람들 중에는 ARP로 보내는 것을 꺼려 직접 하기도 하지만 주인이 힘든 데다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번거롭고 손해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농협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농협 ARP도 포화상태라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가락동에 보낼 때는 평소 거래하는 도매상이 있으면 지정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가락동으로 보내 경매를 실시한다.

은산4리와 5리에는 화훼농가가 많다. 은산4리 앞 진등말레들에는 ㈜셀그린(대표 왕영성)과 챈그린 화훼농업회사가 있다. ㈜셀그린은 채소, 화훼,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로 2000년 화성시 영천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동탄지역이 택지개발되면서 수도권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진위면 은산리로 내려왔다. 은산5리에는 2010년부터 동탄지역의 화훼농가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는 서운기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했었고 또 한 사람은 남사면 진

목리에서 하고 있다.

(6) 농가부업

은산리 농가의 부업은 많지 않다. 새끼 꼬고, 멍석이나 메꾸리, 지게를 만드는 일은 부업보다는 생활 도구제작에 가까웠다. 가마니치기나 목화재배와 길쌈은 일제 말부터 공출했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만 했다. 가마니치기는 겨울 농한기에 했다. 새끼꼬는 것은 동네 사랑방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가마니치기는 집안에서 가족끼리 했다. 그래야만 가족끼리 팀을 이뤄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었다.

가마니치기는 공출도 했지만 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 1980년 전후 마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곡식은 가마니에 담았다. 가마니는 벼 담는 가마니와 허드레로 사용하는 가마니로 분류되었다. 벼담는 가마니는 짱짱하게 짜야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기게 짰다.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은 농사가 많지 않아서 가족끼리 가마니를 쳤다고 했다. 가마니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작업했다. 종일 열심히 해도 한 팀이 10장을 치지 못했다. 일제 말에는 가마니를 쳐 놓으면 공출로 가져갔지만 기억이 희미하고, 해방 후에는 지게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 서정리장, 오산장에는 가마니장이 섰다. 가마니를 팔아서는 쌀이나 보리를 샀다.

모친이 길쌈을 했던 민오순, 은산3리 윤여창

장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마니를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장으로 갔다. 우마차가 있는 집에서는 마차에 싣고 가기도 했다. 은산5리에서는 오산장에 내다 팔았다. 민오순(여, 1940년생)의 부친은 오산장에 가려다가 가마니를 너무 많이 져서 수위가 높아진 진위천을 건너다가 빠져 떠내려가기도 했다.

은산1리~4리에서는 겨울철 부업으로 나무장사도 했다. 은산리 일대는 덕암산과 태봉산이 가까이 있어서 나무하기에 좋았다. 남사면이나 동천리 쪽으로도 많이 다녔다.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은 부친도 나무장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동네 사람들 나무장사 하느라고 고생많았지' 라고 말해서 마을 주민들도 겨울철 부업으로 흔히 땔감을 해서 팔았음을 말해줬다. 산에서 하는 나무는 솔가래와 솔가지(삭정이)였다. 해방 전후에는 서정리장에다 팔았지만 한국전쟁 뒤 지산동에 송북시장(아침장)이 생기면서는 여기에 팔았다. 하루에 나무 두 짐을 해서 팔면 쌀 두 되나 세되 값을 벌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농지를 넓힌 사람들도 있었다.

정중임(여, 1935년생)도 은산1리에서는 한국전쟁 뒤 송탄에 기지촌이 발달하면서 나무장수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무장수는 주로 여자들이 했다. 땔감은 태봉산이나 덕암산에서도 했지만 멀리까지는 이동면 어비리 부근까지 가서 해왔다. 여성들은 땔감을 이고 동막골이나 반자울과 우렁속을 지나 송탄 송북시장(아침장)에 가서 팔았다. 1950, 60년대만 해도 기지촌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과 요리를 했기 때문에 땔감이 많이 필요했다.

은산5리 민오순(여, 1940년생) 길쌈을 부업으로 했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민오순은 결혼하여 청북읍에서 살다가 친정이 있었던 은산5리로 다시 돌아와 부모와 가까이서 살았다. 부모는 본래 전라도에 살다가 은산리로 이주했는데 어머니가 길쌈하는 솜씨가 좋았다. 은산5리에서는 누에를 치는 사람이 몇 집 있었다. 누에고치를 따면 그것을 삶아서 실을 뽑았는데 그게 기술이 좋아야 실을 잘 뽑을 수 있었다. 누에를 삶을 때는 솥에다가 뜨듯하게 삶으면 일정하게 가느다란 실이 나왔다. 이것을 뽑아서 물레에다가 감았다가 틀에 걸고 짰다.

민오순의 어머니는 은산5리로 올라온 뒤 농지가 적고 식구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자 명주실을 뽑는 김쌈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살았다. 종일 길쌈을 해주면 쌀 몇 되씩 벌었다. 나무장사를 하거나 농사 품팔이보다 수입이 좋았다. 민오순은 ‘어머니에게는 명주실을 뽑는 특기술이 있었다’ 고 자랑했다. 민오순의 어머니는 목화로 솜을 빼내고 면실을 뽑는 길쌈도 했다. 당시 은산5리에는 목화를 심는 사람들도 많았다. 면실은 씨아에 목화를 넣고 돌려서 씨를 빼낸다음 솜과 실을 분리해야만 했다. 민오순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엄마는 솜을 기계로 안 틀고 손으로다가 목화를 따서 씨아를 돌려서 씨를 빼서, 지금은 기계로다가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활(시위를) 튕기듯이 이렇게 탁탁해서 그걸 솜을 죄(모두) 펴가지고 이제 막대기에다 이렇게 솜을 말아서 씨아에다 해서 물레로 돌려서 실을 빼는 거지.”

민오순(여, 1940년생)의 어머니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누에와 목화에서 실을 뽑아 풀을 발라 날아서 물레에 감아주면 주민들은 베틀에 실을 걸어서 바디를 이동하며 명주나 면포를 짰다. 풀 바른 면실의 경우 뻣뻣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베틀 아래에는 불을 피워두었다. 불은 숯불로 은은하게 피워야 했다. 숯불이 은은해야만 풀이 굳지 않고 줄이 튼튼해졌다. 그다음으로 명주실을 바디에 걸었다. 이것을 맨다고 했다. 보통 명주의 경우 20자, 15자, 10자씩 실을 뽑아 베틀에 감아서 짰다. 민오순은 어머니의 길쌈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다. 길쌈하는 일이 워낙 힘들었고 1950년대 말부터 나일론이 나오면서 화학섬유로 만든 옷들이 흔해졌기 때문이다.

은산1리 정중임(여, 1935년생)은 은산2리에서는 엿을 고아서 엿장수와 떡장수를 했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정종O씨 부부가 했는데, 엿을 만들려면 온 가족이 들러붙어 밤에 잠도 못자며 저어줘야 했다. 고아서 만든 개엿은 두 사람이 양쪽을 잡고 쭉쭉 늘여서 엿가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엿과 떡은 송탄 송북시장(아침장)이나 서정리장, 평택장, 오산장에서 팔았다.

(7) 도정시설

추수한 곡식을 도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농촌에서는 디딜방아와 연자방아, 절구통이 가장 중요한 도정도구였다. 정미소는 해방 이후부터 설치되었다.

은산1리에는 디딜방아와 연자방아가 있었다. 정중임(여, 1935년생)은 본인의 집에도 전용 디딜방아가 있었고 은산1, 2리에만 도합 4개(정중임, 정광섭, 정광섭 큰집, 정씨네)가 있었다고 말했

다. 연자방아는 은산1리 마루태기의 개인 집에 설치되었다. 연자방아를 운영하려면 힘 좋은 소가 있어야 했다. 은산리에서는 개인이 연자방아와 소를 갖고 도정을 해주었다. 은산1리의 디딜방아는 4개가 모두 8인용 방아였다. 여섯 명이 오른다리와 왼다리에 각각 세 명씩 서서 발로 밟아주고 두 사람이 확에 곡식을 담거나 뒤집어 주는 방식이었다. 보통 8명이 일을 하면 한 번에 한 말씩은 도정이 가능했다. 디딜방아는 1, 2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했다. 8인용이어서 혼자서는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함께 해야만 했다.

산대정미소를 운영한 정홍섭

정중임댁의 디딜방아 확

2020년 야막리로 이전한 은산5리 삼정정미소

은산3리 디딜방아 확

연자방아는 디딜방아보다 한 번에 찧는 양이 많았다. 축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주민들은 연자방아를 사용하고 삯을 줬다. 하지만 오래전에 없어져서 삯을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지는 못했다.

정미소는 해방 후에 만들어졌다. 초기 정미업은 은산1리에 거주하는 정중임(여, 1935년생)의 작은아버지 정지행이 운영했다. 정지행은 세 사람과 합자해서 일제 발동기를 구입한 뒤 마차에 싣고 다니며 도정해주고 삯을 받았다.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정중임 집 마당에서 도정했다. 한국전쟁 전 한 가마니를 도정하면 쌀 3되~5되 정도의 삯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정병기(작고, 1932년생)는 1950년대 말부터 은산리에서 정미소를 운영했다. 당시 은산1, 2리와 산하리에는 정미소가 네 개가 있었다. 은산1리, 2리에 하나씩 있었고, 산하리 평동과 신촌에도 있었다. 그것을 모두 매입해서 없애고 은산2리 입구에 크게 지었다. 다시 말해서 은산리, 산하리 일대 미곡 도정을 독점한 것이다. 정미소는 막내아들 정홍섭(남, 1964년생)이 상속받아 운영했다. 정홍섭이 운영했던 1980, 90년대 정미소는 발동기를 사용하다가 자동차 엔진으로 교체했다. 발동기 시절에는 시동을 거는데도 혼자서는 못 할 정도로 무거웠다. 탕탕탕하는 소음도 무척 컸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방아를 찧으면 벼 한 가마의 도정료는 약 4kg이었다. 80kg 한 가마를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싣고 오면 3.6kg를 받았고 정미소에서 경운기로 실어오면 4kg을 받는 방식이었다. 살로 받을 때는 1가마에 4되쯤 되었다. 벼를 실어 올 때는 처음에는 우마차를 사용했지만 1970년경부터는 경운기를 도입했다. 당시 경운기를 도입했을 때는 경운기 기사를 따로 두었다. 일종의 방앗간 운송기사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은산리 산대정미소는 봉화정씨가 거주하는 산대(은산1, 2리와 원곡면 산하리, 남사면 진목리 통미) 마을의 미곡을 도정했다. 통미는 일부는 은산리에서 도정했지만 일부는 은산5리 삼정정미소로 갔다. 은산리 정미소는 1990년대 초 정홍섭이 홍OO에게 세를 주면서 물러났고, 임대 운영했던 홍씨는 2000년경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했다. 정홍섭은 1980년대 삼정정미소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에 ‘두 정미소의 규모는 비슷했고 정미는 삼정정미소가 더 많이 했지만 삯으로 벌어들인 것은 자신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은산3리에는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디딜방아가 한 개 있었다. 마을 규모가 20, 30호 내외이다 보니 여러 개가 필요치 않았다. 연자방아는 없었다. 디딜방앗간이나 정미소를 가기 힘들 때는 곡식도 절구질을 해서 도정했다. 정미소는 은산2리 입구 정병기가 운영하는 ‘은산정미소’를 이용했다. 추수하고 벼가 다 말라서 타작한 뒤 정미소에 연락만 해주면 소달구지나 경운기를 가져와서 실어갔다. 정병기의 ‘은산정미소’에는 보리방아나 밀방아를 찧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보리나 밀방아를 찧을 때는 성은리 방앗간까지 가서 찧어왔다.

은산5리는 1960년 진목리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정미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미소 운영은 조합에서 허가를 내서 직영하기가 힘들어 조합원 중 3명을 선출해서 1년에 살 12가마를 받기로 하고 임대를 줬다. 그러다가 리(里) 단위 농협이 면(面) 농협으로 통폐합되면서 정택진에게 매각되었다. 정택진은 남사면 봉명리 사람으로 한국전쟁 당시 우익활동을 했던 인사인데 한국전쟁 뒤 치안책임자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고 알려졌다. 이 때 축적한 부로 은산5리에 와서 정미소를 운영했지만 일찍 사망하였다. 정택진의 사망 뒤 뒤를 이어 몇 사람이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공길영이 맡아서 운영했다. 진흥섭(남, 1935년생)에 따르면 공길영도 용인시 남사면 사람으로 정미소를 운영했지만 1990년대부터 농협정미소가 만들어지고 경쟁력에서 밀려나자 2020년경 진위면 야막리로 이전 운영하고 있다.

(8) 유통과 판매

은산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미곡이다. 그밖에도 보리와 밀, 깨, 콩, 채소가 생산되지만 대부분 자급자족을 한다. 해방 전후의 유통은 장시(場市)를 통한 유통방법과 마을로 들어오는 행상들과의 상품거래, 마을의 소규모 상점이나 이동농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운동 때 설치된 구판장을 통해 이뤄졌다.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장시(場市)를 이용하지만 봉남리의 송탄농협 하나로마트나 송탄지역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은산리의 자연마을에서 이용한 장시(場市)는 평택장, 서정리장, 송북시장(아침장), 진위장, 오산장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남사장과 안성장을 이용했다. 평택장까지는 30리 내외였고 오산장은 20리 내외, 진위장은 마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5리~10리, 서정리장은 15리, 송북시장(아침장)은 10리가 조금 넘었다.

사낭골에서 도일동 빈터고개 넘어가는 길

동천리 사후동 기나지고개

은산1리와 원곡면 산하리 경계에 거주하는 정병한(남, 1954년생)은 1960년대 중반 진위장에 갔던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진위장에서는 국밥과 꽈배기 같은 간식거리를 팔아서 무척 좋았다. 하지만 장시 규모가 작아서 생필품이나 의류를 구입하거나 소와 같은 가축을 팔 때는 오산장을 이용했다. 오산장은 평택장과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지만 평택장이 은산1리 사낭골과 덕암산을 넘어서 도일동과 칠원동을 거쳐 걸어가는 길이 무척 험했지만, 오산장은 하북에서 오산까지 시외버스가 다녀서 훨씬 수월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지산동의 송북시장(아침장)이 발달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농산물을 팔고 오는 사람이 많았다. 서정리장은 규모가 작아서 물건이 많지 않았다. 은산1리나 산하리 사람들이 서정리장을 갈 때는 반자울에서 지산동 동막으로 넘어간 뒤 다시 흰치고개를 넘어 장안동을 거쳐서 갔다. 다른 길로는 동막에서 우곡(소골)을 지나 파라다이스 유원지 옆(지산 건영아파트)으로 지나가기도 했다.

은산2리 정병근(남, 1961년생)은 부모님이 평택장을 많이 다녔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장에 갈 때면 쌀 두세 말을 지게에 지고 갔다. 당시 쌀은 상품 가치가 가장 높았던 상품이었고 은산리의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했다. 평택장은 큰 장이어서 살 것들이 많았다. 생필품이나 아이들 용돈이라도 마련하려면 평택장으로 갔다. 서정리장도 다녔지만 규모가 작아서 평택장과 비교되지 않았다. 송북시장(아침장)은 여성들이 아침 일찍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많이 이용했다. 오산장은 소를 살 때나 팔 때 많이 다녔다. 오산 우시장은 소도 많았지만 소값이 좋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소문났다. 안성장은 크기는 했지만 너무 멀어서 어지간하면 이용하지 않았다.

은산4리 김순자(여, 1947년생)는 지산동 송북시장(아침장)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김순자가 장시를 이용했던 1970, 80년대는 306번 지방도(삼봉로) 정비가 이뤄졌던 시기다. 그래서 큰 도로를 따라 진등을 넘어 마산리를 거쳐서 갔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는 합승버스가 다녔다. 봉남리를 거쳐 송탄까지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다녔는데 이것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장을 다닌 것은 1974년경 은산리까지 협진여객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서부터다. 두세 시간마다 들어왔는데 버스를 타고 송탄 송북시장(아침장)까지 가서 깨도 팔고 쌀도 두 어 말씩 이고 가서 팔았다. 김순자는 서정리장, 오산장, 평택장도 봤지만 필요하면 50리를 걸어서 안성장을 보고 오기도 했다고 하였다. 평택장은 버스가 들어온 뒤부터 다녔다. 당시 마을로 들어오던 협진여객 버스는 송탄을 지나 평택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평택장과 오산장은 같은 농산물이나 가축이라도 값을 더 쳐줬다. 그래서 값을 더 받고 싶거나 소를 팔러 갈 때, 큰 물건을 구입할 때는 오산장과 평택장으로 갔다.

은산5리 민오순(여, 1940년생)은 오산장이나 남사장을 봤다고 말했다. 진위장은 작아서 잘 다

니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1970년대쯤 없어졌다. 오산장까지는 20리였다. 옛날에는 20리면 손쉽게 다녀올 수 있는 하루 거리라고 생각했다. 오산장에 갈 때는 마을 뒤쪽 고속도로 다리 아래에서 징검다리로 진위천을 건너 동천2리 사후동 기나지고개(높은재)를 넘어다녔다. 기나지고개를 넘어가면 고현리 앞에 주막거리도 있었다. 주막거리에는 야바위꾼들도 있어서 오가는 장꾼들을 유혹했다. 평택장이나 서정리장은 너무 멀어서 거의 가지 않았다. 남사장까지도 20리였지만 오산장보다 상품이 많지 않아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다.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은 평택장, 서정리장, 송북시장(아침장), 오산장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평택장은 은산1리와 사낭골을 지나 덕암산 빈터고개를 넘어 칠원동을 지났다. 서정리장은 동막골을 지나 태봉고개를 넘어 동막마을과 흰치고개를 넘어 장안동을 거쳐 갔다. 은산3리에서 서정리장까지는 15리쯤 되었다. 장에 갈 때는 곡물과 채소를 가져갔다. 가까운 지산동의 송북시장(아침장)에는 이른 아침 채소를 가져가서 많이 팔았다면 거리가 먼 평택장은 쌀이나 값이 나가는 것을 가져다 팔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다. 겨울 농한기에는 땔감을 지고 지산동 송북시장(아침장)이나 중앙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윤여창의 친정아버지도 주로 아침장에 팔러 다녔다. 오산장에 갈 때는 동천리 기나지고개를 넘기도 했지만 봉남리와 견산리를 거쳐 삼남대로를 따라서 백토고개를 넘어갔다. 거리는 기나지고개를 넘는 것과 비슷했다.

2) 산업시설

은산리 일대에는 근래들어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산업시설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공장들이다. 은산리 일대에 산업시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의 발달과 비교적 저렴한 땅값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은산리의 산업시설이다.

표) 은산리 산업시설

회사명	위치	업종	비고
장원건설	진위면 은산길 38 101호	건설업	
신아건업	진위면 은산길 38	콘크리트 시멘트 제조	
㈜한국켄트메타스	진위면 은산길 3-11	정밀광학기기, 시계제조	
천연염색공방 옛빛	진위면 은산길 39	천연염색	
한국빅텍	진위면 은산길 34-8	수도설비공사	
JM 디메탈	진위면 은산길 34	물류, 창고업	
CNI 솔루션	진위면 은산길 30	반도체 제조	
정다운 식품	평택시 삼봉로 642	떡, 한과	
J 에스텍	평택시 삼봉로 638	전자부품	
해성테크	평택시 삼봉로 636	제조업	
광명기업	평택시 삼봉로 622	제조업	
대명정밀	평택시 삼봉로 622	금형제조	
영림 프라임 샤시	평택시 삼봉로 622	샷시설비	
평원섬유	평택시 삼봉로 612-10	섬유원단, 벨벳	

회사명	위치	업종	비고
다솔하이텍(주)	평택시 삼봉로 612	전기설비	
HD현대교역	평택시 삼봉로 612	미용베드, 맛사지 침대	
서광섬유	평택시 삼봉로 612-11	섬유제품	
대성엠테크	진위면 은산4길 70-24	농막	
메탈브릭	은산4길 70-22	장난감, 메탈퍼즐	
이투	진위면 은산4길 70-22	제조업	
투비테크	진위면 은산4길 70-14	산업용 기계	
신일포장	진위면 은산4길 70-45	포장용 상자	
신화산업	진위면 은산4길 70-43	화학물질 제품제조	
케이디 엠씨	진위면 은산4길 70-33	기계장비 제조	
동양 루브실(주)	평택시 삼봉로 612-8	실리콘, 구리스	
휠코	진위면 은산4길 73	전자부품	
에스디 에이치	진위면 은산4길 75	제조업	
에스알티	진위면 은산4길 79	제조업	
한창전기	진위면 은산4길 97	전자, 전기	
유지메탈	삼봉로 560	제조업	
건도산업	평택시 삼봉로 560	비료, 질소화학물질 제조	
탑 엔지니어링	진위면 은산4길 14	설계, 엔지니어링	
오성FA2공장	평택시 삼봉로 544	농공시설	
엘 컨테이너	평택시 삼봉로 526	컨테이너 제작, 임대	
한국특수녹화	평택시 삼봉로507	조경건설	
제이테크	평택시 삼봉로 507	제조업	
센텍	평택시 삼봉로 507	제조업	
그린자원환경	평택시 삼봉로 474	고물상	
태성자원	평택시 삼봉로 474	고물상	
부성상사	평택시 삼봉로 468	고물상	
한길건설	진위면 은산4길 32-44	건설업	
㈜셀그린	평택시 삼봉로 563-21	원예, 화훼	
보광 ENG	진위면 은산길 41	식품기계제작	
동원식품	진위면 은산리 51-5	물엿, 맛나당	

경부고속도로 산하리 평동부근

은산2리 ㈜한국빅텍

은산2리 마을 안쪽까지 들어온 공장들

은산3리 정다운 전통과자공장과 제이에스텍

은산4리 ㈜신일포장

은산2리 종점슈퍼 및 식당

은산2리 골목 입구의 공장지대

은산4리 한솔푸드시스템공장

5. 사회생활

1)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마을에서 살아가려면 다양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소가 필요하다. 대동회를 비롯한 마을조직과, 상례와 같은 갑작스럽게 닥친 큰일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해결하고, 살림을 늘릴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계(契),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회도 필요하다. 주민들의 소통에 필요한 도로나 교량건설, 공회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공공시설, 디딜방아와 연자방아같은 도정시설, 우물과 빨래터, 상여집 같은 시설도 필요하다. 근대 이후에는 전기, 수도, 버스와 같은 근대시설이 가설되었다. 전기의 도입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TV, 냉장고, 전기밥솥은 주방혁명을 가져왔고, LPG나 도시가스, 보일러의 도입은 난방과 요리에 변화를 주었다.

은산리의 공동시설은 공회당,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진료소, 산대분교, 디딜방아, 연자방아가 있다. 은산1, 2리는 전기도입도 빨랐고 가스의 사용도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

① 마을회관

은산2리 마을회관

은산3리 마을회관

은산4리 마을회관

은산5리 마을회관

은산1리 마을회관은 1995년경에 지었다. 본래는 은산1, 2리가 은산2리의 공회당(정도전 사당 주차장 자리)을 함께 사용했는데 1995년 은산1리에도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이다. 하지만 경로당은 은산2리의 산대경로당을 사용하고 마을회관은 회의가 있을 때 잠시 사용하다보니 곰팡이가 끼고 관리가 안 되어서 건물 유지가 어렵다.

은산2리에는 해방 직후에도 공회당이 있었다. 공회당의 위치는 삼봉 정도전 사당 주차장에 있었다. 2023년 신임 이장으로 선출된 정효섭(남, 1951년생)은 건물의 규모가 30~40평 규모였다고 기억했다. 지붕에는 슬레이트를 얹었으며 회의실과 작은 창고, 부엌이 달리 구조였다. 공회당에서는 서당이 열리기도 했고, 1950년대 중반 산대초등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는 야학교실을 운영하기도 했고 임시교사로도 사용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1970년대 '은산리 새마을유아원'도 공회당에서 운영되었다고 기억했다. 지금은 주차장 위쪽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었다. 경로당이 따로 있어서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운영되지만 경로당으로 가지 못하는 젊은 주민들이 모여서 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한다.

은산리 새마을유아원(1970년대)

은산1, 2리 공동창고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 노인회장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부터 마을회관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사무실과 방 한 칸 정도의 작은 규모였는데 나중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다시 신축했다는 것이다. 윤정희(남, 1968년생) 이장도 은산3리의 마을회관 겸 경로당은 1980년 전후 취락구조개선사업 때 지었다고 기억했다.

은산4리에는 1970년대 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마을회관이 건립되었다. 지금의 마을회관은 2015년에 신축했다. 과거 마을회관은 대동회나 마을의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 지금도 마을회의나 각종 모임이 이뤄지지만 경로당의 역할이 크다. 노인회에서는 경로당에 모여 공동식사도 하고 쉼터로도 사용한다.

은산 5리에는 1960, 70년대에도 공회당이 있었다. 지금의 마을회관 경 경로당은 2000년대 초에 건립했다. 공회당은 대동회나 개발위원회 개최를 위해 사용했고, 소방장비와 마을 두레패의 악기들이 보관되었다. 지금은 마을회관으로도 사용하지만 노인회의 경로당으로 많이 이용된다.

② 우물과 수도시설

은산1, 2리에는 우물이 많았다. 1리에는 정중임(정회식의 손녀, 1935년생)의 집 아래를 비롯해서 크게는 서너 개, 작게는 대여섯 개가 있었다. 2리에는 버스종점 옆 팔각정 자리에 공동우물이 있었다. 2리 주민들은 모두 이 우물물을 길어다 먹었다. 2리 공동우물의 수량은 풍부했다. 뒤에 산이 있어 물골이 잘 터졌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물긷는 도구는 물동이와 물지게였다. 여성들이 물동이로 길었다면 남자들은 물지게를 졌다. 마을이 산비탈에 형성되어 물긷는 일은 힘들었다. 그래서 물긷기는 주로 남자들이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자가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관정을 박아서 펌프를 놓았다가 전기가 들어온 뒤에 자가수도를 놓기도 했고 마을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 2000년경에는 송탄정수장에서 물이 들어왔다. 송탄정수장 물이 공급되면서 물긷기는 옛날이야기가 되었고 우물들도 대부분 메워지고 한두 개만 남았다.

은산1리 정병억(남, 1952년생)은 정중임과 기억이 조금 달랐다. 정병억은 ‘우물이 몇 개였나’라는 질문에 작은우물까지 7개는 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산밑에 마을이 있어 대부분 석간수여서 수질이 좋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물은 대부분 바가지로 퍼먹다가 나중에 두레박을 도입했다. 우물의 깊이는 3m정도였지만 좀처럼 물이 마르는 법이 없었다. 정병억은 은산1리에서는 여자들이 물을 길었다고 말했다. 수량이 부족해서 고생한 적도 없다. 1970년대 중반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간이상수도를 놓았다는 증언은 일치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우물은 자가수도가 되거나

폐정(廢井)되었다. 현재 과거의 우물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정병억의 집 옆에 있었던 공동우물이다. 정중임의 집 아래에 있는 우물은 실제 사용하지는 않는다. 자가수도는 1980년 전후에 놓기 시작했다. 각자 우물을 파서 모터를 달아 수도를 놓는 방식이었다. 정병억은 은산1리에서 간이상수도를 놓은 것은 1978년이라고 기억했다. 2007년경부터는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교체했다.

은산1리 공동우물

은산2리 공동우물 터(정자 있는 곳)

은산3리는 마을 전체가 길어 먹었던 공동우물 1개와 작은 우물 1개가 있었다. 윤여창(여, 1945년생)은 공동우물은 마을 입구 공장이 있는 옛 마을회관 옆에 있었다고 하였다. 은산3리 공동우물도 수량이나 수질이 좋아서 부족하지는 않았다. 윤여창의 어린시절에는 여성들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었다. 나중에는 물동이와 물지게가 병용되다가 1970년대에 수도로 전환되었다. 물동이는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해서 물을 꽉 채우면 힘들었다. 그래서 절반이나 2/3쯤만 채워서 길었다. 1960년대 초반쯤에는 양동이로도 물을 길었다. 당시에는 양동이를 일본어로 '바께스' 라고 불렀다. 윤여창의 집에는 웅덩이 우물이 두 개가 있었다. 집 뒤에는 한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고, 아래 쪽에는 근처 4호(戶)가 함께 식수로 사용했던 바가지 우물이 있었다. 간이수도는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설치했다. 간이상수도는 우물을 깊게 파서 모터를 달아 마을 뒷산 두 곳에 물탱크까지 끌어올린 뒤 마을 전체에 공급했다. 간이상수도는 2007년경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폐정되었다.

은산3리 윤정희(남, 1968년생) 이장도 현재 마을회관 앞 공장 끝에 공동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우물 한 개로 마을 전체가 먹었기 때문에 빨래라던가 허드렛일은 산하천 냇물을 이용하기도 했다. 1970년대 중후반쯤에도 펌프를 설치하거나 우물을 파서 자가수도를 놓은 집들이 몇 집 있었다. 1980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때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 커다란 관정을 박아서 물을 끌어 올리고 마을 뒷산에 물탱크에 저장한 뒤 집집마다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광역상수도는 2014~5년 사이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했다.

은산4리에는 공동우물이 2개가 있었다. 윗동네의 우물은 수량이 풍부했지만 아랫동네 것은 물이 부족했다. 1970년대 전후에는 집안에 우물을 파서 펌프를 설치하는 집들이 생겼다. 김순자(여, 1947년생)도 1970년대 초에 시집을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웃동네와 아랫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지만 자신은 울안의 우물물을 먹었다고 말했다. 은산4리는 산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었지만 샘도 깊게 파야 물이 나왔고 수량도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을 긷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물이 많이 고인 새벽에 물긷기도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 친척집의 식수까지 긷

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1970년대 초 전기가 들어오고 우물이 있던 사람들은 모터를 달아서 자가수도를 놨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관정을 깊이 파고 마을 뒷산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집집마다 공급했다. 2000년부터는 송탄정수장에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은산5리에는 마을 주위로 다섯 개의 공동우물이 있었다. 진흥섭(남, 1935년생)도 손으로 꼽아보더니 5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이 저지대에 있다 보니 수질은 썩 좋지 않았다. 주민들 중에는 산하천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기도 했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산하천은 무척 맑았다. 빨래나 허드렛일을 산하천에서 하는 경우도 많았다. 1970년대에는 자가우물을 파서 펌프를 설치하거나 전기가 도입된 후 자가수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마을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을 시작했다. 간이상수도는 깊이 관정을 박아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집집마다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최재성이 나서서 다시 했다. 2015년경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물 걱정을 덜었다.

③ 전기

은산1, 2리와 산하리는 1968년 전기가 가설되었다. 마을출신으로 제일교포 실업가로 성장한 정동순이 돈을 내서 전기를 끌어왔다. 1960, 70년대만 해도 전기는 ‘끌어온다’고 말할 정도로 가설이 힘들었다. 전봇대를 세우는 돈을 수요자가 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었다. 1968년 당시 전기도입 비용은 480만 원이었다. 정동순은 새마을사업 때 은산1, 2리와 산하리에 소를 사서 기증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

은산4리 전 이장(2007~2022년까지 14년 동안 이장역임) 우제승(남, 1956년생)은 1972~3년 사이(우제승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에 전기가 도입된 것으로 기억했다. 전기가 도입되면서 부잣집에서는 가장 먼저 텔레비전을 구입했다. 초기에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몰려가서 함께 시청했다. 1970년대 중·후반에는 선풍기를 도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냉장고는 1980년대 초·중반, 전기밥솥은 198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주택을 개량하여 입식부엌을 만들고 가스랜지를 구입하여 LPG를 취사에 사용하는 집들이 늘었다. 그래서 곳곳에는 LPG 배달업체가 생겼고 집집마다 주택을 개량한 뒤 기름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집들이 많아졌다.

은산1, 2리에서는 전기가 가설되면서 변화가 많았다. 가장 큰 변화는 자가수도 설치였다. 텔레비전은 정병기 댁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정병기의 부친 정동순이 일본에서 직접 가져와서 설치했다. 선풍기도 정동순이 가져와 설치했다. 냉장고는 1970년대 후반에서나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기밥솥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등잔이나 남포등을 켰다고 말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선풍기같은 근대문물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보일러 난방도 가능해졌다. 모든 것이 전기와 관련되었다.

④ 의료

진위면 전체가 비슷했지만 특히 은산리 일대는 교통의 오지였다. 그래서 근대의료시설의 혜택

을 가장 적게 받았던 지역이다. 근대 의료기관은 진위면소재지인 봉남리에도 없었고 대부분 송탄의 지산동의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무속신앙이나 불교, 기독교와 같은 신앙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은산리 보건진료소

방문진료 장면

방문진료 장면

한울요양원

은산리의 의료기관은 '은산리보건진료소' 가 유일하다. 은산리 보건진료소는 1983년 은산3리에 설립되었다.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 노인회장은 은산3리에 보건진료소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건소 지은 땅이 저기 6.25 난리 때 우리 마을로 피난 나왔던 사람이 회관을 지으라고 땅 100평을 사줬어. 그래서 거기다가 회관을 지었는데 회관을 지을 때도 돈을 대줬어. 그 사람은 6.25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야. 여기로 피난 왔을 때 구장을 봤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방이 없으니까 이장네 집에 연결해서 살게 해줬어.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이 동네를 나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우리 동네를 제2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회관을 지어준 거야.(중략) 진료소가 우리 마을에 있게 된 것은 1983년 우리 남편(이규홍)이 새마을지도자를 볼 때인데 평택군에서 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은산리 5개 부락에 지을만한 땅이 없었어. 그때 우리가 피난민이 사준 땅 100평(당시 마을회관은 다른 곳에 이전 신축)을 내주고 우리 마을로 진료소를 끌어들인 거야. 지금이라면 땅을 내줄 마을이 많을 텐데 당시만 해도 어려웠던 시절이라 마을마다 터를 내주기가 어려웠는데 우리가 터를 내주고 끌어들인 거야."

1983년 10월 1일 개소했던 은산리 보건진료소는 2005년 5월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6월 재건축했다. 규모는 대지 141평에 지상 2층 연건평 50평(전용면적 166㎡) 규모다. 신축과정에서

는 과거 은산보건진료소 부지로 제공했던 땅 100평을 평택시에 기부채납했다. 진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한다. 또 보건진료소장 1인이 상주 진료하며 진위면 주변의 태양한의원 한의원, 하북치과의원, 타임성형외과의원 의원, 하북한사랑의원 의원 등과 협력한다.

은산2리에는 한울요양원(진위면 은산길 56-14)이 있다. 한울요양원은 2019년 12월 9일에 장기요양시설로 지정받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2022년 12월 현재 여자 노인 8명이 요양중이며, 직원은 1급 요양보호사 3명, 계약직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시설직 1명이 일하고 있다.

2) 마을 조직과 운영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예로부터 마을에는 촌장(村長) 또는 이정(里正)이 있어서 마을을 책임지고 행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대동회도 마을운영의 중심역할을 했다. 근대 이후에는 행정조직의 최하 단위인 마을에 구장을 두었다. 구장은 1950대에 이장(里長)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장(里長) 아래에는 반장(班長)을 두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지도자가 이장과 함께 마을사업을 주도했다. 그밖의 자치조직으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같은 조직과 마을에 따라 연반계같은 상계(喪契)가 운영된다. 1958년부터는 마을마다 이동농업협동조합이 운영되었다. 이동농업협동조합에는 조합장과 총무같은 조직이 있어 조합의 운영뿐 아니라 마을운영에도 영향력을 끼쳤다. 1970년대에는 ‘개발위원회’나 ‘번영회’와 같은 협의체도 운영되었다.

① 은산1리

은산1리 전경

은산1리 마을회관

은산1리에서는 대동회가 마을총회의 역할을 한다. 대동회는 양력 12월에 개최되고 이장이 의장역할을 수행한다. 대동회에서는 회계보고와 마을사업 보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이장 선출을 한다. 새마을지도자와 반장 등 임원들은 이장이 지목한다. 은산1리 이장 정병억(남, 1952년생)은 옛날에는 마을사랑방에서 원로들이 이장을 지목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시기부터 대동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역할이 컸다. 개발위원회도 이때 조직되었다.

2022년 현재 은산1리의 마을조직은 이장 1명, 새마을지도자 1명, 반장 2명으로 조직되었다. 은

산1리 이장은 정병억(남, 1952년생)이다. 정병억은 새마을지도자를 거쳐 2011년 이장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11년째 연임한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

1970, 80년대만 해도 이장의 역할이 무척 많았다. 마을 행정사무를 비롯해서 새마을사업을 주도했고 각종 전달업무도 많았다. 면사무소와 거리가 멀어서 호적신고나 사망신고까지 이장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3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이장들이 농협에서 비료를 타와서 저울로 달아 배급도 했다. 퇴거하거나 이사를 와도 이장에게 동향을 보고해야만 했다. 지금은 행정사무와 전달사항도 수행하지만 농촌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평택시와 면사무소에서 노인층에 대한 보조가 나오면 파악해서 수령하는 일이 가장 많다. 주민등록 이동상황 파악도 이장의 역할이다. 심지어 도로 변의 보안등이 고장나도 이장에게 고쳐달라고 한다. 이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지금은 한 달에 30만 원이 지급된다.

새마을지도자는 이명호다. 새마을지도자는 1970년대에는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총무와 같은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진위면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조직되었지만 1년에 한 두 번 회의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정병억 이장은 2000년대에 새마을지도자를 6년 동안 수행했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하고 봉사활동도 다니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반장은 이장 아래의 행정조직이다. 이장의 행정사무를 전달받아 각 반(班)에 전달한다. 반장은 이장이 지명한다. 부녀회는 1970년대 새마을부녀회로 조직되어 지금에 이른다. 2022년 현재 부녀회장은 정옥자다. 부녀회는 마을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수집하여 이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동회를 비롯한 마을행사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는 역할도 한다.

노인회와 청년회는 자치조직이다. 노인회는 은산1, 2리가 연합하여 운영된다. 경로당도 은산2리의 산대경로당을 함께 이용한다. 청년회는 1960, 70년대 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을 때는 활성화되었지만 지금은 해체되었다.

② 은산2리

마루테기에서 내려다 본 은산2리

산대경로당

은산1리는 대동회와 개발위원회 아래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으로 조직되었다. 대동회는 연 1회 연말에 개최한다. 역할은 사업보고와 예결산 심의, 신규사업 논의, 이장 선출과 같은 일을 한다. 2022년 12월의 대동회에서는 기존의 조명숙 이장이 정효섭(남, 1951년생) 이장으로 교체되었다. 개발위원회는 년 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되는 일종의 운영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 정원은 10명이다. 정효섭(남, 1951년생) 신임 이장은 은산2리의 개발위원회는 이장을 포함하여 전직 이장들도 참여하지만 젊은층도 참여시켜 다양한 계층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장 아래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반장이 있다. 은산 2리는 2개 반(班)으로 나눠졌지만 반장은 1명이 활동한다. 반장은 이장을 보좌하고 말단 조직으로 행정사무를 분담한다. 부녀회와 노인회는 자치조직이다. 은산2리 부녀회는 상호 친목과 마을 대소사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노인회는 1리와 2리가 함께 운영된다. 경로당도 2리의 산대경로당을 함께 사용한다. 그것은 본래 두 마을이 봉화 정씨 집성촌인데다 과거에는 같은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노인회장은 정중임(여, 1935년생)이 맡았지만 연말에 오순덕으로 교체되었다. 현재 노인회원은 50여 명이다.

③ 은산3리

은산3리 이장 윤정희

노인회장 윤여창

은산3리는 이장 1명, 반장 1명으로 운영된다. 마을이 작다 보니 반장은 노인회장이 겸직하며 역할도 없다. 이장 윤정희(남, 1968년생)는 ‘마을 규모가 작아서 노인회장을 형식적으로 반장으로 해놨지만 역할은 전혀 없고 이장이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한다’ 고 말했다. 부녀회도 없다. 여성들이 노령화되다 보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모두 고사해서 조직 내에는 편성되지 못했다. 새마을지도자도 있지만 마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1960, 70년대에는 4H구락부와 청년회 활동이 활발했다. 1960년생 전후에는 4H 활동이 활발했는데 당시에는 회원들도 많았고 마을 봉사활동과 일손돕기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것이 1970년대에는 청년회 활동으로 이어졌다.

④ 은산4리

은산 4리의 마을조직도 다른 마을과 비슷하다. 기본조직은 대동회(총회), 개발위원회(운영위원회), 이장(1명), 새마을지도자(1명), 반장(2명)이다.

1970년대 이장을 역임한 우종갑과 권혁동(2014)

대동회는 연말에 개최한다. 다른 마을처럼 연말 예결산과 사업보고, 이장선출 등이 중요한 역할이다. 개발위원회의 역할도 연중 주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 회의를 한다. 은산4리에서도 개발위원은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나 전직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에서 12명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대동회와 개발위원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이장이 수행한다. 이장은 마을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마을을 대표하여 진위면의 각종 회의와 주민자치회에 참석한다.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각종 마을사업을 상위 기관에 요청하는 일도 이장의 역할이다. 전 이장 우제승(남, 1960년생)은 과거 1970, 80년대처럼 역할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은 진위면사무소에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2007년 우제승이 이장으로 선출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별도로 리세(里稅)도 걷었다. 리세는 대동회 때 쌀 1말씩 걷어 임장을 비롯한 임원진에게 분배했다. 그러다가 우제승이 이장이 된 이듬해부터 폐지했다. 일부에서는 리세(里稅)를 걷어야 소속감이 생긴다며 반대했지만 이중징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단시켰다.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은 1970, 80년대에는 매우 컸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 반(班)은 윗말(1반), 아랫말(2반) 등 2개로 나눠진다. 반장은 이장이 지명하는데 이장을 보좌하고 평택시나 농협관련 행정사무를 분담한다. 부녀회는 자치조직이다.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선출한다. 2022년 현재 부녀회장은 박임자다. 부녀회는 평택시와 진위면에 '새마을부녀회'라는 연합체가 있다. 마을에서는 효도잔치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경로당의 노인들을 위해 연말 김장담그기 봉사 등을 한다. 이 같은 행사를 할 때는 마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은 1968년부터 이장을 했다. 당시에도 대동회에서 이장을 선출했다. 은산4리에서는 대대로 단양 우씨 집안에서 이장을 했다. 1968년 1.21사태가 일어났던 해에 이장(里長)도 우씨였는데 마을 업무에 태만했다. 참다못한 우종갑이 '마을 종'을 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은산4리에는 600년 된 느티나무에 종을 매달아 높고 억울한 민원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종을 쳐서 마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모이자 우종갑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장을 다시 선출하자고 제의했다. 그렇게 해서 전임 이장이 불신임을 받아 탄핵되었고 우종갑이 이장, 권혁동이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다. 당시 이장의 역할은 비료를 타다가 무게를 달아 분배하고 석유도 타다가 나눠주고, 호적업무와 입·퇴거 업무, 새마을사업, 퇴비증산, 전기도입, 간이상수도 사업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이장을 하려면 집안일을 팽개치다시피 해야 할 때도 많았다. 각종 업무로 마을을 방문하는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농협 직원들을 접대하는 것도 이장이었다. 그렇게 1년여 동안 이장 역할을 수행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이장(里長)을 맡기지 말라는 지시였다. 결국 우종갑은 1년 만에 이장직을 내려놨고 뒤를 이어 권혁동(남, 1940년생)이 이어받았다. 단양 우씨 외에 타성에서 맡은 이장으로는 최초의 일이었다. 당시 이장 수당은 5천 원이었다.

⑤ 은산5리

은산5리는 연말에 개최되는 대동회가 총회 역할을 한다. 대동회에서는 예결산 보고와 사업 보고, 이장을 비롯한 마을 임원 선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대동회 아래에는 개발위원회가 있다. 발위원회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조직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역할을 한다. 개발위원은 12명으로 조직된다. 주로 전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위원이다. 개발위원회는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장 서병찬(남, 1960년생)은 2022년에는 5~6회쯤 개

최되었다고 말했다.

행정조직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반장, 부녀회장으로 구성된다. 이장은 임기가 2년으로 대동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장에게는 진위면사무소에서 활동비로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마을에서도 1년에 1회 리비(里費) 명목으로 호(戶)당 1만 원을 걷어 마을 임원들에게 지급한다. 과거에는 리비(里費)가 년 쌀 한 말이었다. 이장 아래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반장이 있다. 은산5리도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은 과거 새마을운동을 할 때처럼 크지 않다. 반(班)은 4개가 있고 각 반마다 반장이 선임되어 이장을 보좌하고 마을 행정을 나눠 맡는다. 부녀회도 새마을운동 때는 역할이 컸지만 지금은 마을 행사의 음식준비와 마을 여성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부녀회장으로는 박옥자가 수고한다. 자치조직은 청년회와 노인회가 있다. 마을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청년회는 유명무실해졌지만 노인회는 크게 활성화되었다. 현재 노인회원은 80명이다.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매일 공동식사를 하며 봄과 가을에는 경로여행을 다녀온다.

3) 은산리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운동

이동농업협동조합은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0년이 넘어서다. 이동농업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950년 농지개혁법이 실시되기 전부터 논의되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1956년 농협은행이 출범했고, 1958년부터는 리(里) 단위에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게 되었다.

1960년 전후 은산리는 1리~4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5리 월경마을은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에 속했다가 1983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초대 조합장은 은산1리 정병기였다.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들에게 출자를 받았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우종갑(남, 1938년생)은 1960년대 중반에 조합 일을 했다. 당시 송탄조합장은 해방 직후 서정리금융조합장을 지낸 황규삼이었다. 우종갑은 조합장 정병기가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서정리로 찾아가서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조합명칭은 ‘은산리농업협동조합’으로 명명했다. 은산리농업협동조합에서는 조합 사업으로 방앗간을 운영했다. 당시 은산리에는 은산1리 정병기 정미소를 비롯해서 은산4리에는 4명이 합자 운영하던 정미소도 있었다. 합자로 운영되던 말미정미소는 나중에 우종임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조합에서 인수해서 운영하였다.

남사면 농업협동조합장을 지낸 최재성

새마을운동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은산2리

은산리정미소는 5년쯤 운영되었다. 주로 4리에서 생산되는 벼만 도정했다. 1리~3리의 벼는 2

리 입구의 정병기의 산대정미소가 있었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았다. 규모 면에서도 2리의 산대정미소와 경쟁할 수도 없었다. 비교적 적은 양이었지만 4리 것만 도정해서도 1년에 쌀 10가마 정도의 수익이 났다. 은산리 정미소는 약 5년쯤 운영했다. 그러다가 1968년부터 면(面)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처분했다. 면(面) 단위조합이 설립될 때는 마을조합을 해체하고 출자금을 돌려준 뒤 개인자격으로 입회했다.

1960년대 은산 5리는 용인군 남사면 진목리 농업협동조합에 속했다. 당시 남사면에는 11개 리(里)가 있었다. 진목리에는 1960년 이동협조합이 설립되었다. 최재성(남, 1932년생)은 초대 진목리농업협동조합장이었다. 진목리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를 받았다. 출자금은 벼 1가마가 기준이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많은 금액도 출자했다. 출자가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했고 일부는 빚을 내거나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가입하기도 했다. 리(里) 단위 조합 위에는 면(面) 단위 조합이 있었고, 그 위에는 군(郡) 단위 조합이 조직되었다. 최재성은 면(面) 단위 조합의 대표가 되어 용인군 단위농협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진목리농업협동조합은 초기에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신용대출을 해야 했지만 사무실이나 사무조직도 갖춰지지 못했다. 그래서 출자금으로 장리쌀을 놨다. 나중에는 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마을 방앗간을 인수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조합원 3명을 추천해서 1년 벼 12가마를 세(稅)로 받기로 하고 임대를 주었다. 리(里)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는 마을이 많지 않자 제3공화국 정부는 1968년에 리(里) 단위 조합을 면(面) 중심으로 통폐합한 뒤 농협중앙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서 연쇄점 사업과 사무실, 영업장을 마련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최재성은 남사면 단위농협 조합장에 선출된 뒤 단위조합장 경기도협의회 회장까지 지냈다. 평택지역은 정부의 시범지역으로 지역단위 농협이 출범할 때도 용인지역은 면(面) 단위 체제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진위면은 서탄면, 고덕면, 송탄지역과 함께 송탄농협이 되었지만 용인군 남사면에 속했던 은산 5리만은 예외였다.

은산리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했다. 은산 2리는 새마을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마을이다. 정효섭(남, 1951년생) 이장은 은산2리의 새마을사업이 활발했던 이유로 정종흠의 역할을 언급했다. 정종흠은 봉화 정씨 종중일 뿐 아니라 마을 대소사를 앞장서 이끌어서 주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는 정병근과 정계근(남, 1944년생)이 앞장섰다. 정종흠과 정병근, 정계근 등은 1970년 수원의 농업진흥청에서 교육을 받고 크게 자극받아 취락구조개선사업,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 하수구 조성사업, 지붕개량, 부엌개량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지도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토지를 기부받아 4m 넓이의 마을안길을 넓힐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하수구 사업을 실시하고 복개하여 도로를 5m로 더욱 넓혔다. 토비증산사업에도 앞장섰다. 결과 1978년경 새마을우수마을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4) 사회관계

은산1, 2리는 반상(班常)의 구별이 있었고 두레, 계, 줄다리기가 발달하였다. 해방 전후에는 신분제적 관념도 남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솔거노비들도 남아 있었으며 한국전쟁 뒤에도 마을 하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06년경 인터뷰한 정광순(남, 1935년생)에 따르면[21] 산대(山垈-은산1, 2리, 산하리, 남사면 진목리 통미) 일대에 약 25호쯤은 하인들이었다고 말했다. 정광순은

하인들은 문서 있는 하인과 없는 하인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문서 있는 하인은 본래부터 신분적으로 하인이었던 사람들이라면 없는 하인은 떠돌던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인들은 봉화 정씨의 종중 위토를 경작하거나 가마꾼이나 상여꾼, 견마잡이, 마을의 잡일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 또 봉화 정씨 집안의 자제들에게는 ‘도련님’이나 ‘아가씨’, ‘서방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① 신분제도

신분제적 관념이 강했던 은산1, 2리 산대지역

봉화 정씨 종훈(宗訓)

하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한국전쟁 뒤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은산2리 정종세(남, 1927년생)는 이들이 남아 있게 된 것은 사회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대교육이 확대되면서 하인들의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게 되자 신분적 질서보다 학교 선후배 관계, 동네 선후배 사이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굳이 봉화 정씨 집안에 의지하지 않아도 취직할 공장이나 직장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남아 있는 과거 하인층의 자손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제법 있다.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마을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족제도

가족관계는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대가족제도가 일반적이었다. 한 집에 조부모와 부모,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다. 1960, 70년대 산아제한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4~5명의 자녀를 두는 사람이 많았으며 많은 경우에는 5~8명씩 두는 경우도 있었다.

21) 김해규, 『마을과 지명이야기』 3, 평택문화원, 2008

은산3리와 윤여창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은 아버지 형제들은 5남매이고 자신의 형제들은 1남 6여였지만 남동생은 어려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윤여창이 성장하던 시기만 해도 남아선호가 뚜렷했다. 아들을 두지 못하면 양자를 두어서라도 재산을 상속하고 제사를 받들게 했으며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윤여창 집안에서도 아들만 다섯을 낳은 막내 작은아버지의 아들 가운데 막내아들을 양자로 들였다. 형님댁 재산이 욕심난 데다 아들의 군역(軍役)을 면제받게 하려고 보냈던 양자였다. 결국 막내 작은아버지의 욕심은 형제간의 갈등을 빚었고 파양(罷養)으로 마무리되었다. 작은집에서는 조카의 군대 문제가 해결되고 재산상속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자 스스로 파양을 선택했다. 그래서 윤여창은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괄시당하지 않고 산다' 며 힘주어 말했다. 자신은 2남을 두었다. 아들 둘을 둔 것을 하늘의 축복으로 여긴다.

③ 봉화 정씨

은산리는 1, 2리가 봉화 정씨 집성촌이고 4리는 단양 우씨가 대성(大姓)이며, 5리에는 경주 김씨와 경주 최씨가 대성(大姓)이다. 집성촌에는 아직도 위계질서가 강하고 종중의 위력이 크다.

은산1, 2리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의 평동, 새말, 모양말, 용인시 남사면 통미마을과 함께 '산대(山垈)' 라고 부른다. 산대(山垈)에 속한 마을은 봉화 정씨 문헌공파 마을이다. 은산3리 미동, 은산4리 상리(말미)에도 한두 집씩은 거주한다. 산대(山垈)의 봉화 정씨들은 사낭골, 반자울, 동막골 등 은산리의 가장 비옥한 옥토를 장악하고 600여 년을 살아오면서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다른 성씨들의 우위에 섰다.

봉화정씨 세거비　　봉화정씨 종가

삼봉 정도전 유적

문헌사

삼봉기념관

삼봉집 목판

봉화 정씨 문헌공파의 입향조는 삼봉 정도전의 장손자 정래다. 정도전에게는 세 아들(네 아들이라고도 함) 진(津), 영(泳), 유(遊)가 있었다. 그 가운데 제1차 왕자의 난 때 장남 진(津, 1361~1427)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삭직되어 수군에 충군되었고 부인 최씨도 관노비가 되었다. 9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뒤 1407년(태종7) 판나주목사로 복권되었고 세종 때 공조판서와 형조판서에 올랐다. 정진은 조선개국 후 공신(功臣)의 후손으로 연안부사에 임명되었을 때 “훈가(勳家)의 아들이니 서무(庶務)는 친히 보지 못할 것이다”[22]라는 주변의 염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며 부지런하여 선정(善政)을 베풀어서 칭송이 자자했다. 복권(復權) 이후 판한성부사, 형조판서 등을 지내며 인품과 능력에서 칭송을 받았다. 사후에는 세종이 3일간 조회를 폐하고 제문(祭文)과 부의(賻儀)를 내리며 슬퍼했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 우찬성이 추증되었고 희절(僖節)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희절(僖節)은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청렴하여 절제함’[23]을 의미했다.

정진(鄭津)은 래(來)와 속(束) 두 아들을 두었다. 정래(鄭來)는 용인현령을 지냈고 정속(鄭束)은 직산현감을 지냈다. 정래는 용인현령을 지낸 뒤 진위면 은산1리 텃골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후손들이 은산1리 기동, 2리 방촌,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통미로 분동되면서 봉화 정씨의 세계를 이뤘다. 정래의 후손들 중에는 벼슬로 크게 출세한 인물은 많지 않다. 10세손 정인창은 무관으로 당상관(堂上官)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랐고 13세손 정잠은 정3품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14세손 정동준은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제수되었다. 봉화정씨는 은산1,

22) 『세종실록』 세종9년 3월 6일, 「정진(鄭津)의 졸기」, 1427
23) 『세종실록』 세종9년 3월 6일, 「정진(鄭津)의 졸기」, 1427

2리 일대 사낭골, 반자울, 동막골과 같은 비옥한 경작지를 배경으로 600여 년 동안 진위면 일대의 반가(班家)로 명성을 떨쳤다. 근·현대에도 이와 같은 전통이 계승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많다.

삼봉 정도전 단묘

희절공 정진 묘

용인공 정래 위패

부정공 정인형 묘

정진(鄭津)의 둘째 아들 정속(鄭束)의 후손들은 경상도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다가 정속이 일찍 사망하자 두 아들 정문형과 정인형은 은산리에 거주했던 백부 정래에게 의탁하여 학문을 수련했고 각각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다. 정문형(1427~1501)은 성종 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공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고, 동생 정인형(1448~1494)은 1465년(세조12)에 문과에 급제한 뒤 사헌부 감찰로 영남 암행어사를 지내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칭찬을 받았고 임금으로부터 아마(兒馬) 1필을 하사받았다. 그 뒤 외직으로 진위현령, 군수 등을 지냈고 내직으로 들어와 당상관인 통정대부 군기시 부정(副正)에 올랐지만 일찍 사망했다. 정문형의 묘는 과천시에 있지만 정인형의 묘는 은산1리 정진의 묘 위에 있다.

봉화 정씨 문헌공파 후손 정광섭(남, 1960년생)은 '은산1, 2리는 집성촌'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일 성씨가 모여 살다 보니 제사도 많고 촌수도 크게 따지며 예의를 차릴 일이 많다고 했다. 설날에 세배할 때도 부모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 했다.

시제는 음력 10월 초 사흘부터 지내기 시작한다. 종중에는 정종인, 정동순 등의 노력으로 종가가 재건되고 종답이 마련되어 하인들에게 농사짓게 하면서 생산물로 음식을 준비하여 시제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시제를 지내면 집안 어른들 20, 30여 명과 제사 음식을 먹으려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요즘에는 출향인들이 많아지면서 10여 명쯤 모인다.

표) 봉화 정씨 계보

순서	이름	관직	비고
시조	정공미	봉화호장, 호부령	
2세	정영찬	비서랑동정	
3세	정균	검교군기감정	
4세	정운경	형부상서	개경
5세	정도전	조선개국공신, 봉화백	한양, 아들 진, 영, 유
6세	정진	형조판서	아들 래, 속
7세	정래	용인현령	은산리 입향
8세	정장손	종사랑 참봉	종9품
9세	정백종	의흥위 후부장	조선전기 오위 중 하나
10세	정인창	경상좌도 우후	종3품 무관직
11세	정수(1501~1569)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당하관 무관직
12세	정세의(1543~1635)	군자감 참봉	종9품, 군수품 관리
13세	정잠(1575~1635)	제용감정	정3품 통훈대부
14세	정동준(1595~1675)		
15세	정규(1636~ ?)		
16세	정상문(1665~1728)		

④ 단양우씨

단양 우씨는 고려(1014) 때 정조호장(正朝戶長)을 지낸 우현(禹玄)이 시조다. 우현의 9세손 우현보(禹玄寶)가 단양부원군에 봉해지면서 단양을 본관으로 삼았다. 하지만 조선 건국 과정에서 정도전 등 건국주도세력과 갈등을 빚어 개국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방원이 주도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큰 공을 세워 우현보는 추성보조공신, 아들들은 추성원종공신에 봉해지면서 가문이 다시 일어섰고 관직에도 다시 진출했다.

평택은 우현보의 아들 안정공(安靖公) 우홍강의 넷째 우원유(禹元瑜)가 입향해서 안정공파가 가장 많다. 우원유는 진위면 마산1리로 들어와 정착했고 독곡동 오리골, 은산4리 상리, 지제동[24]으로 확산되었다. 우원유의 손자 우신은 예종 때 순천 부사를 지냈으며, 증손 우윤공은 여주목사와 내금위장을 지내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은산4리에는 약 300여 년 전부터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14대손 우담의 후손들이 많다. 가장 많을 때는 은산4리 전체 32호 중 10여 호가 거주했고 현재는 6호가 남았다.

마산리 단양우씨 묘역

순천부사 우신의 묘

24) 지제동에는 11대손과 13대손의 후손들이 거주한다.

한성부 좌윤 우척의 묘

은산4리 단양우씨 종가

후손 우종갑(남, 1938년생)은 진위면에서는 단양 우씨가 첫째이고 안동 권씨가 두 번째라고 주장했다. 우원유가 입향한 마을은 마산1리 오룡동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입향조 우원유의 묘가 실전되어 아쉽다. 우종갑은 우원유의 입향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단양 우씨가 진위면에서 17대를 거주했으니 대충 추정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1대를 25~30년으로 계산하면 약 450~500년쯤 거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산3리 단양 우씨 종중 묘역을 살펴보면 단양 우씨는 입향 후 관직 진출이 활발한 편이었다. 안정공 홍강의 3세손 우신은 세조와 예종 때 순천부사를 지냈고, 4세 우윤은 연산군과 중종 때 여주목사와 내금위장을 지냈다. 평택현(팽성읍)에 거주했던 우남양은 성리학에 능하여 김안국, 김정국 형제를 비롯해서 사림 학자들과 교류했으며,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학행이 뛰어나서 후대의 칭송을 받았다. 해방 후에도 은산4리의 우제항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국회의원을 지냈다. 천체물리학을 전공한 우종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온 뒤에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후손들은 진위면 마산1리 오룡동에 정착한 뒤 이웃마을 오리골로 분동되었고, 지제동과 은산4리 말미에도 거주하게 되었다. 지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후손들을 파악하면 30~40호 내외다. 거주 기간에 비해 후손들의 세력이 무척 미약한 편이다.

단양 우씨의 결속력은 강한 편이다. 마산리 단양우씨 묘역 옆에는 재실을 건립하였고 묘역도 실전된 묘의 제단까지 만들어 정성껏 시제를 지낸다. 시제는 10월 초하루부터 시작한다. 우선 서울이나 단양에서 먼저 시작하고 진위로 돌아와 음력 10월 초 이틀쯤에 우원유를 비롯한 평택지역 조상들의 묘에 시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친족관계가 매우 끈끈했다. 항렬을 따져 위계를 세우고 예절을 중시했다. 하지만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친족관념이 약해지면서 친족관계는 매우 약해졌다. 후손 우종갑(남, 1938년생)은 “요즘 후손들은 제족(諸族)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종중 일을 하는 젊은 후손들 중에도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종중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종중 내 분파 간에도 이해관계가 갈리기도 한다. 지제동 단양 우씨와 오룡동과 은산리 단양 우씨는 지제동이 큰집이지만 갈라질 때 종중 재산을 나눠서 가져갔기 때문에 시제를 지낼 때 그쪽 산소에는 제를 지내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종중 회장을 봉사보다는 이권으로 생각해서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각 지파가 돌아가면서 맡기로 약속했지만 젊은층이 종중을 이끌어갈 때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종중의 위토(位土)도 사

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이 있어 우여곡절을 겪은 뒤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다.

단양 우씨는 입향 후 4개 파로 갈라졌다. 그 가운데 은산4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4파이다. 4파의 종손은 우종천이다. 그런데 종중 일이나 시제에 참석하지 않자 마산리 오룡동의 3파에서 우제방을 종손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우종갑 등이 족보를 펴 놓고 따졌다. 그래서 우제항의 아버지에게로 종손이 수정되었다. 종중 위토도 문제였다. 몇몇 후손들이 종중 위토를 사유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문제도 우종갑(남, 1938년생) 등이 나서서 무마했다.

단양 우씨와 봉화 정씨는 사이가 좋지 않다. 불화의 원인은 고려 말 조선 초로 올라간다. 삼봉 정도전의 조모는 단양 우씨 집안의 서얼 출신이었다.

‘우현보의 족인 중에 김진이라는 중이 있었다. 김진은 중으로 지내며 자신의 종 수이의 아내와 간통하여 딸을 낳았다. 나중에 환속한 김진은 수이를 내쫓고 아내를 빼앗아 함께 살았다. 김진의 딸은 단양 우씨 우연에게 시집갔다. 거기에서 난 딸이 봉화의 정운경에게 축하하여 세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이 정도전이었다.’

고려 말 이색, 정몽주, 우현보, 이숭인 등은 역성혁명을 추진했던 정도전, 조준 등과 대립했다. 당시 우홍수를 비롯한 우현보의 다섯 아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였고 손자 우성범은 공양왕의 부마였는데 우홍수와 우성범의 형제는 사사건건 정도전의 출생을 놓고 비난하며 무시했다. 정도전의 그때의 치욕을 잊지 않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보복을 했다. 이성계의 즉위 조서에 “우현보, 우홍수, 우홍득 등은 고려 말 도당을 결성하고 반란을 모의하여...” 와 같은 내용을 담았던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결국 이성계의 비호로 우현보는 살았지만 아들 우홍수, 우홍득은 곤장 100대를 맞고 장살(杖殺) 당했다.

단양 우씨 집안에서는 우홍수와 우홍득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평택으로 입향하게 된 것도 정도전의 탄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선 초부터 지금까지 가문끼리 혼맥을 맺지 않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도전의 후손 봉화 정씨가 진위면 은산1, 2리, 원곡면 산하리 일대로 낙향했다. 은산 4리의 단양 우씨는 봉화 정씨의 집성촌들과 이웃하며 살게 되었다. 껄끄러운 적과의 동침인 셈이다.

후손 우종갑(남, 1938년생)에게 봉화 정씨와의 관계를 물었다. 우종갑은 ‘다름 없이 지내고...’ 라며 말끝을 흐리더니 혼인 관계는 어떠냐는 질문에 ‘전혀 안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씨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은 선대 어른들의 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래전 본인들 끼리 연애해서 혼인했던 사람은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통미(산)에 사는 사람인데 서로 사랑하여 결혼시키지 않을 수 없었지만 30여 년 전 족보를 새로 편찬할 때는 봉화 정씨로는 안 되어서 본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래 정씨로 올렸다고 했다.

5) 관혼상제(冠婚喪祭)

(1) 상례(喪禮)

① 상계(喪契)

은산1, 2리를 비롯한 산대(山垈) 지역에는 상계(喪契)가 운영되었다. 산대(山垈)에서 운영한 상계는 ‘소동계’라고 했다. 소동계는 은산1, 2리, 3리, 진목리 통미, 산하리 평동, 신촌으로 나눠서 운영되었다.

銀山里. 山下里

小洞契座目

下戶補助契規則

第一條 本契 山下 銀山 下戶補助契라 稱함.
第二條 本契 相救相問을 主로 하야, 貧戶는 春秋로 下戶에 戶稅를 補給하고 下戶는 何時든지 貧戶喪家의 勞力함을 目的함.
第三條 本契 位置는 時宜를 決定야 置함.
第四條 本契 任員은 契員中으로서 選定함.
第五條 本契에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야 左에 任員을 置함.
一. 長 一人
二. 會計 一人
三. 書記 一人
四. 幹事 一人
第六條 任員의 職務는 左와 如히 定함.
契長은 契中 一切 事務를 總體代表함.
會計는 契中 財政을 掌理함.
書記는 契中 諸般 記錄에 從事함.
幹事는 契中 諸般 器具를 掌理하고 契長의 命令을 受하야 出納에 從事함.
第七條 任員에 任期는 滿一個年으로 함.
第八條 本契區域은 基洞,上村,中里,下中里,下村, 方村, 坪里, 新村으로 함.
且不得已한 時는 地限에 不在함.
第九條 本契員으로 備品大量을 사용한 時는 賃金半額으로 하고 下契員은 無賃으로함.
第十條 前條의 半額割는 契員自身에 限하고 親族에는 例外로 함.
第十一條 本契員으로서 區域外에 轉出할 時는 脫退者로 하야 權利를 喪失함.
第十二條 本契員으로서 自退者는 出資를 返付치 아니하고 下戶로서 加入을 追願하는 者는 何時든지 加入을 許可하고 白米壹斗를 收納함.
第十三條 契員에게(貧戶에 限함) 必要를 從하여 臨時出資케 함.
第十四條 規則의 改廢는 總會에서 行함.

第十五條 處罰은 左와 如히 定함.
幹事가 契長의 命을 從치 아니하는 時는 三十錢의 罰金을 徵收함.
契員으로서 喪을 當한 時 下契員中 勞力치 아니하는 時는 第一次 戒諭하고 二次에 改度치 아니하는 時는 二十錢의 罰金을 徵收함.
第十六條 以上 各項 規則 遵守할 事로 하여 別紙 連名簿에 連名捺印함.
-. 壬寅年 公會時 決定됨. 上下番 一回의 參升五合으로 定함.
-. 遺骨奉送時는 大量費를 免除함.(國家戰死)

소동계는 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소동계 좌목』과 재정출납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소동계는 진위면 은산1, 2리, 원곡면 산하리, 남사면 진목리 통미 마을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소동계원이 되려면 쌀 3되를 가입비로 냈다. 계원들은 상(喪)이 발생하면 상여대여비로 백미 1두를 냈고 계원이 아닌 사람은 백미 1두를 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마을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를 받아 소동계 운영비 및 상여 수리비에 사용했다.

소동계는 모두 16조로 구성되었다. 또 신분에 따라 계원과 하계원을 구분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14개 조로 규칙을 개정했다. 계장은 소동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었다. 규칙을 어긴 회원은 처벌을 받았다. 임원인 경우에는 벌금 30전, 계원은 1차 계유(戒諭) 뒤 2차로 20전을 내게 했다. 회원의 자격은 후손들에게 상속이 가능했다. 국가를 위해 사망했을 때는 상여 대여비가 무료였다. 소동계의 가입가 탈퇴는 자유로웠다. 하계원의 경우 가입비는 백미 1두였다. 탈퇴시에는 출자금을 되돌려받지 않았으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갈 때는 권리가 상실되었다. 상여를 메는 것은 옛날에는 상여꾼을 다른 곳에서 데려왔지만 나중에는 계원들이 했다. 그러다가 그마저 사람이 없어 마을 청년들이 멨다.

운영이 잘됐던 소동계는 1990년대 초 우연치 않게 해체되었다. 산대초등학교에 풍금이 한 개 있었는데 그것을 도둑질하던 사람이 붙잡혔다. 마을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마을로 끌고가서 멍석말이를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도둑질한 사람이 ‘집단폭행’으로 고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을 충당하려고 소동계의 기금을 모두 소진했고, 문중에서도 얼마간의 비용을 도왔으며, 나중에는 집집마다 거출까지 했다. 결국 이 문제로 소동계 기금이 바닥나면서 계(契)도 해산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장례 풍속이 집안이나 마을에서 치르기보다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된 것도 해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② 묘역(墓域)

은산1, 2리는 봉화 정씨의 종산이 있다. 하지만 조상의 묘가 한곳에 모아진 묘역은 없다. 정진과 정래, 정인형의 묘는 은산2리 마루테기 서쪽 능선에 있다. 정도전의 단묘는 남산 정상에 있으며, 후손들의 묘도 각기 다른 곳에 있다. 은산3리 은정골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은산1리 정중임(여, 1935년생)은 “종중 땅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은산4리의 공동묘지는 마을 우측 공장지대 뒤편에 있다. 어린이들은 공동묘지를 무척 무서워했다.

③ 상여(喪輿)

은산1, 2리를 비롯한 산대(山岱) 지역은 상여집을 함께 사용했다. 상여집은 은산2리 입구 봉화 정씨 세거비 뒤쪽에 있었다. 소동계에서 상여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한 개로는 부족해서 논 가운데에 상여집을 짓고 한 개를 더 장만했다. 은산1리 정중임(여, 1935년생)은 ‘1개가 있으면 상이 두 개가 나면 곤란하니까 하나를 더 장만한 거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산1리에서는 정씨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하루 사이로 사망했다. 그때 상여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다. 정중임은 상여 메는 것이나 선소리는 상민층(상사람들)이 했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안 해서 외지사람들을 데려다가 썼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상여를 메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이촌향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마을에 있던 하인들도 떠난데다 외지에서 사람을 데려오기도 힘들어지자 직접 메기 시작한 것이다.

은산3리와 4리는 상여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상여집이 언제 마련되었는지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상여집은 은산3리와 4리 사이 공장지대 뒤편의 공동묘지 앞에 있었다. 은산5리는 마을 서쪽 산하교 건너에 상여집이 있었다. 세 마을은 상(喪)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상례를 돕고 상여도 멨다고 했다.

(2) 혼례(婚禮)

① 정중임(여, 1935년생) 사례

은산1리 정중임(여, 1935년생)은 26세에 혼인을 했다. 언니가 늦게 혼인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1960년경까지만 해도 양반 집안에서는 신분과 집안을 봐가며 혼인을 성사시켰다. 정중임도 어른들이 시켜서 하게 되었다. 중매는 안중에 살던 친척(이교범의 부인 정씨)이 했다. 집안끼리 대사이다 보니 집안도 따졌다. 남편은 현덕면 운정리 함평 이씨 집안의 이계은이었다. 당시 남편은 군대에 복무하고 있었다. 혼례가 결정되고 나서야 그다음 주에 휴가를 나와 만났다. 사진 교환도 안 했고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다. 집안을 믿고 혼담이 오간 다음에 만난 남편이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남편 이계은은 오형제 중에 넷째였다. 집안은 부자였지만 형제가 많다 보니 재산상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시댁 큰아버지 이국헌은 포승 일대에서 알아주는 지주였다. 시아버지는 이일헌으로 이국헌의 넷째 동생이었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재산이 넉넉하지 않았고 남편이 또 넷째 아들이다 보니 상속재산이 거의 없었다.

혼례를 올렸던 친정집과 남편 이계은

혼례는 친정집 마당에서 올렸다. 정중임의 친정은 마당이 커서 혼례를 올리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혼례를 올린 뒤에 하룻밤도 자지 않고 시댁으로 갔다. 시댁에서 혼례를 치르러 올 때는 트럭을 타고 왔고, 정중임씨가 시댁으로 갈 때는 자가용을 타고 갔다. 당시 친정 삼촌이 재무부에 근무했을 때라 자가용이 있었다.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시댁으로 간 뒤 3일 만에 재행을 왔다. 재행을 와서는 하룻밤만 잤다. 남편이 군인이어서 다시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혼 후 1년 반 동안 독수공방을 했다. 시댁에서 남편 없이 시작한 신혼생활은 힘들었다. 분가는 남편이 전역하고 몇 달 더 살다가 했다. 평택지역에서는 분가를 '세간난다' 고 한다. 세간날 때는 큰아주버니가 재산을 거의 나눠주지 않았다. 집도 안 사줘서 곁방살이로 시작했고 땅은 논 5마지기를 주면서 3형제가 나눠 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3형제가 50만 원씩 나눠가졌다.

고향에서는 살 수 없어서 남편은 전역 후에 대우자동차에 취업했다. 당시만 해도 회사생활은 월급도 적고 일은 많았다. 인천 부평지역에서 생활했는데 아이들 키우며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3년쯤 근무했을 때 남동생 정호신이 친정집에 내려와 집도 지키고 재산도 관리하며 농사지으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인천 생활 6, 7년 만에 은산 1리로 내려왔다. 은산리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남동생이 사슴도 사주며 키워보라고 해서 사슴농장도 하며 4남매를 키웠다. 아들 둘은 대학을 졸업하여 회사에 다니고 딸들은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다.

② 김순자(여, 1947년생) 사례

은산4리 김순자는 친정이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다. 김순자는 1970년에 혼례를 올렸다. 은산4리는 외삼촌의 처가 동네였다. 시어른들이 외삼촌 처가에 마실을 다니다가 '좋은 혼처가 있으면 중매하라' 는 말에 어찌어찌해서 맺어졌다. 혼담이 오가던 중에 맞선을 봤다. 서로 마음에 들어 정식으로 약혼식도 하고 약혼사진도 찍었다. 결혼식은 약혼 후 1년 만에 했다. 결혼하기까지 1년 동안 몇 번의 데이트도 했다.

결혼식은 신식으로 했다. 남편이 신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예식은 송탄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였다.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다. 시어른들이 예식은 식식으로 해도 신혼여행은 안 된다고 해서 가지 못했다. 첫날밤은 시댁에서 보냈다. 3일쯤 지나서는 친정에 재행을 다녀왔다. 김순자는 결혼 예물로 시계, 반지, 목걸이 세트를 모두 받았다. 신랑에게는 시계와 반지를 해줬다. 양복은 해주지 않았다.

김순자(가운데)

윤여창

③ 윤여창(여, 1945년생) 사례

윤여창은 은산3리 토박이다. 평택여자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외지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살림하며 농사일 하며 지냈다. 결혼은 27세에 했다. 당시에는 여자가 25세를 넘기면 노처녀라고 했다. 집안의 막내딸이다 보니 부모님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혼은 중매로 했다. 이질녀가 서울에 살았는데 남편을 소개해줬다. 첫 만남은 이질녀와 남편과 셋이서 서울의 다방에서 만났다. 나이도 찼고 사람도 괜찮아 보인 데다 조실부모했다는 말에 가정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다는 판단에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윤여창보다 6살이 많았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문공부를 많이 해서 해박했다. 첫 만남 뒤 1년 동안 데이트를 했다. 당시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몇 번 만나지도 못했다. 결혼식은 서울 세운상가의 예식장에서 했다. 남편이 구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예식장 결혼이 흔치 않았을 때였고 시골에서는 구식결혼을 선호하던 시기였다. 예식장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갈 때는 아버지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었고 윤여창은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결혼식 후 식당에서 피로연을 했고 신혼여행으로 인천 송도유원지에 다녀왔다. 첫날 밤도 송도유원지의 여관에서 보냈다.

신혼생활은 서울의 약수동에서 샛방살이로 시작했다. 그렇게 1년쯤 함께 살았고 큰아이도 임신했는데 남편이 속세를 벗어나 절로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절로 들어갈 거면 부모님 돌아가신 뒤 가라고 말렸다. 그런데도 돈 벌러 간다고 나가더니 기어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 수가 없어 친정집으로 내려왔다. 남편은 입산을 한 뒤에도 옷과 생필품, 식량을 보내 달라고 연락을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서울로 올라와 윤여창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남편이 스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내려왔다. 그때부터 은산3리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④ 은산5리 민오순(여, 1940년생) 사례

은산5리 민오순은 1962년 23살에 박재관(남, 1935년생)과 결혼했다. 박재관은 어연리가 고향이었다. 시댁은 청북읍 어연리에서 부자였다. 농지도 많고 살림도 넉넉했다. 남편은 부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5살 위의 형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매는 마을로 들어오던 방물장수가 했다. 둘째 아들인데 인성도 좋고 농사도 많이 짓는 부자

니까 결혼하면 논밭도 나눠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 하였다. 중매쟁이에게는 답례로 버선과 옷 한벌을 주었다. 맛선은 송탄 신장동의 미군기지 앞 식당에서 봤다. 신랑은 키가 1m 80cm가 넘고 훤칠해서 금방 눈에 띄었다. 친정 식구들도 신랑의 외형을 보고는 무척 좋아했다. 맛선 후 데이트는 거의 하지 않았다. 중매쟁이가 그 집안의 사정을 소상하게 이야기했고 논도 주고 밭도 주고 생활력도 강해서 결혼전에 벌어 놓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믿었다.

민오순과 그의 집

결혼식은 친정집 마당에서 전통혼례로 치렀다. 결혼예물은 금반지를 받았다. 혼례가 끝난 뒤에는 마을 사람들은 신부 댁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신랑 쪽 사람들은 따로 음식을 장만해와서 먹였다. 혼례와 피로연이 끝난 뒤에는 하룻밤을 자지 않고 곧바로 시댁으로 갔다. 시댁으로 갈 때는 트럭을 탔다. 당시만 해도 사람에 따라 마을 입구에서 가마를 타고 들어가기도 했지만 민오순은 트럭을 타고 곧장 시댁 앞까지 갔다. 시댁으로 가려면 은산리에서 송탄과 평택을 거쳐 궁안교를 넘어서 갔다. 고덕면과 청북읍을 연결하는 동연교는 아직 건설되기 전이었다.

결혼 후 시댁에서는 2년을 살았다. 결혼 직후 임신을 하자 친정에서는 친오빠들을 통해 출산에 필요 기저귀와 배냇저고리, 닭이라든가 미역같은 것을 보내줬다. 이것을 큰동세가 질투했다. 큰동세는 9남매 집안의 둘째 딸인데도 오빠나 언니들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는데 아랫동세가 친정으로부터 사랑을 받자 부럽기도 하고 질투 났던 것이다. 더구나 민오순은 어머니에게 배워서 옷도 잘 만들고 바느질도 잘했다. 큰동세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밭일하러 나가면 빨래라던가 청소, 설거지를 민오순에게 맡기고 아이를 업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지만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참다못한 남편이 동네에 허름한 집을 얻어 2년만에 분가했다. 분가한다고 하자 시아주버니는 남편에게 ‘니가 벌은 돈이 있으니 나가서 그거로 살아라’ 며 재산을 분배해주지 않았다. 분가해서 남편이 벌어 놓은 돈으로 논 7마지기를 샀다. 그렇게 살다가 친정 오빠들이 결혼하여 하나둘씩 서울로 떠나자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은산5리로 이사 왔다.

(3) 제례

철거된 정호신 댁 사당의 벽감과 옛집

제례는 조상숭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통해 혈족이나 동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유교에서는 제례를 효(孝)로 이데올로기화하여 강조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는 매우 중요시하였다. 제례에는 사당제, 기제, 시제, 이제, 묘제, 차례 등이 있다. 요즘에는 기제와 시제, 차례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제사는 친속이 돌아가신 날 자시에 지냈다. 조선 후기에는 4대 봉사를 했다.

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차례(茶禮) 또는 다례(茶禮)라고 한다. 차례는 음력 정월 초하루와 추석에 지낸다. 차례는 기제사보다 간략하게 지낸다. 반가에서는 사당에 제를 올릴 때 매월 보름에는 술잔을 올리지 않고 찻잔만을 올렸는데 이것이 차례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차례를 지낼 때에도 4대에게 각자 따로 지냈지만 지금은 한 번으로 끝낸다. 시제는 음력 10월경에 종중 주도로 지낸다.

정중임(여, 1935년생) 댁은 봉화 정씨 소종가였다. 사당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대청 중앙에 신주를 모시고 4대 봉사를 했다. 4대 봉사를 하다 보니 1년에 8번 쯤은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남동생 둘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러다가 큰 남동생(정호신)의 아들이 변고로 일찍 사망하자 ‘내가 조상들을 지금껏 정성으로 모셨는데 큰아들이 죽었다’ 며 크게 실망하고 위패를 절에 모셨다.

4) 의 · 식 · 주

(1) 의(衣)

근 · 현대 100년 동안 의(衣) 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으로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옷감으로 옷을 지었지만, 근대 이후 광목처럼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옷감이 판매되었고, 해방 후에는 화학섬유가 보급되고 대량생산과 소비가 본격화되면서 유행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풍조가 나타났다.

최재성 조부·조모의 회갑 때 입은 대례복, 정중임의 옛집 대청 벽면의 사진

은산4리 김순자(여, 1947년생)은 결혼할 때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다. 결혼식용 치마는 폭이 넓어서 일할 때 불편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통치마를 두 개만 사달라고 했는데 한 개만 사줘서 폭이 넓은 치마를 올려서 묵은 뒤 일했다. 결혼 전에는 미니스커트가 크게 유행했다. 김순자도 처년 때(1960년대 후반)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결혼 후에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아이를 낳고 살이 찌면서 입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줬다. 1960, 70년대에는 광목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기성복도 많이 나와서 굳이 광목을 사다가 옷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은산5리 토박이 민오순(여, 1940년생)은 1950년대 신장동 미군기지촌에서 홑이불 뜯은 것을 사다가 옷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홑이불로 저고리도 만들고 치마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다. 어릴 때는 바느질로 옷을 만들었지만 조금 커서는 재봉틀이 나와서 옷을 만들기가 수월했다. 당시만 해도 바느질을 못하면 시집갈 때 많이 혼났다. 시집갈 때 재봉틀을 사주는 것이 최고의 혼수품이기도 했다. 민오순은 결혼 전 미군들이 진위천 냇가에서 자갈을 퍼갈 때 일해주고 일당을 벌었다. 자갈을 미군 트럭에 싣는 것도 도와줬고 트럭을 타고 미군들과 함께 부대에 들어가서 자갈을 퍼주고도 돈을 받았다. 그것으로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며 놀았다. 그러다 보니 기지촌의 영향으로 신식 옷들이 빨리 보급되었다. 1950년대 신발은 남자는 검정고무신을 신었고 여자는 흰고무신을 신었다. 여름철에는 짚으로 게다처럼 만든 와라지를 신기도 했다. 슬리퍼도 매우 빨리 보급되었다.

은산5리 노인옥(여, 1958년생)은 어릴 때는 나일론옷이나 누비바지를 많이 입었다고 기억했다. 나일론으로 만든 누비바지는 겨울철 따뜻하기는 했지만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불똥이라도 튀면 금세 구멍이 나버렸다. 1980년쯤 되면 옷들이 흔해졌다. 돈만 있으면 싼값으로도 쉽게 옷을 살 수 있었다. 마을에 옷장수들이 보따리를 이고 돌아다니며 팔기도 했다.

(2) 식(食)

식(食)생활을 위해서는 곡식과 채소, 식수, 땔감 등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 산업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식생활은 농촌의 생산물을 중심으로 자급자족을 많이 했고 필수품만 시장에서 구입했다. 은산리는 기지촌과 가까운 지산동의 송북시장(아침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새로운 식료품이나 공산품들이 빨리 들어왔다.

은산2리 정병근

산하리 정병한

정병근(남, 1961년생)은 어릴 때부터 쌀밥만 먹었다고 말했다. 은산1, 2리와 원곡면 산하리 일대는 땅이 기름지고 가뭄을 타지 않아서 쌀이 풍부했고 품질도 좋았다고 말했다. 겨울에는 세끼를 먹었고 점심에도 밥을 해 먹었다. 농번기에는 밥을 네 번씩 먹었다. 아침밥은 든든하게 먹었다. 들에 나가야서 일해야만 했기 때문에 잘 먹어야 했다. 두어 시간 지나서 오전 새참을 먹었다. 새참도 밥과 술을 먹었다. 점심 때가 지나서 오후에는 곁두리를 먹었다. 곁두리는 오후에 먹는 참을 말했다. 말이 새참이지 먹는 것은 일반 밥상과 다를 바 없었다. 하루 일이 끝난 뒤에는 저녁밥을 먹었다. 들에서 일할 때는 여성들이 일일이 밥을 해서 광주리에 이고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여성들도 무척 고생했다.

윤여창(여, 1945년생)의 아버지는 수수푸레기를 먹었다. 종종 작은집에 가서 밥을 먹고는 했는데 작은집 식구가 12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곡식을 아끼려고 수수가루를 죽처럼 쒀서 먹었다. 이것을 수수푸레기라고 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밥에 대한 욕심도 많았다. 밥을 푸고 있으면 아이들의 눈길은 어머니의 손으로 갔다. 윤여창의 아버지는 종종 작은집에 갔더니 밥도 조금 줬다고 투덜댔다. 스스로도 평생동안 농사를 지었으면서도 쌀을 아끼려고 보리밥을 먹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보리밥만 먹어서 제발 쌀밥 좀 먹자고 사정을 했어도 듣지를 않았다.

은산리 일대는 땔감이 흔했다. 다만 은산5리만큼은 주변에 땔감이 없어서 남사면이나 동천리 쪽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다. 땔감은 남자들이 많이 하러 다녔다. 겨울철에는 땔감을 해서 송탄 기지촌에 팔러다니기도 했다. 1970년 전후에는 정부가 아궁이개량정책을 폈다. 아궁이를 줄이고 연탄아궁이를 만드는 정책이다. 은산4리 김순자(여, 1947년생)도 1970년대쯤에는 연탄아궁이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연탄아궁이를 만들었어도 큰방에는 나무를 땠고 작은 방에만 연탄으로 취사와 난방을 했다.

은산4리는 새마을보일러를 거의 쓰지 않았다. 대부분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1990년 전후에 입식부엌을 만들며 기름보일러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기름보일러 대신 당시에는 값이 쌌던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집들도 많았다. 하지만 심야전기는 곧 사용요금이 비싸져서 후회했다. 김순자는 집을 고쳐서 입식부엌을 만든 것이 1990년이라고 기억했다. 입식 부엌을 만들고부터 밖에서 식사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무척 편했다.

은산5리 민오순(여, 1940년생)은 물동이로 물을 길었던 기억이 있다. 마을에는 노깡을 넣어 만든 공동우물이 5개쯤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오지그릇에 김치를 넣어서 담가두었다. 집안에는 큰 물독이 있었다. 물독에 물이 가득 차면 가마솥에도 물을 부어두었다. 땔감을 할 때는 원곡면 성은리로 많이 갔다. 성은리에서 나무를 해다가 송탄 아침장에서 팔기도 했다.

(3) 주(住)

은산리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기와집은 많지 않고 대부분 초가였다. 기와집은 은산1, 2리의 정회식, 정종인의 집 정도였다. 그러다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대대적인 지붕개량이 이뤄졌다. 지붕개량사업은 초가를 슬레이트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주태개량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고속도로변의 미관을 위해 외관이 서양식 주택과 비슷한 주택들을 대대적으로 짓게 했다. 1980년 전후에는 연탄아궁이가 보급되면서 새마을보일러를 설치하는 집들이 나타났고, 1990년대 부터는 입식부엌과 보일러 난방, 가스 취사가 시작되었다. 일부 주택들은 슬라브식으로 신축하기도 했다.

① 은산1리 정호신 가옥[25)]

폐가된 옛 정호신 가옥(2008)

경기도인정 종가(宗家) 인증서(1999)

정호신은 은산1리의 지주이며 한학자였던 정회식의 손자다. 아버지는 정지용이며 한양대를 졸업하고 대우중공업 부회장을 지냈다. 정호신 가옥은 정회식, 정지용이 지었다. 1999년에 편찬된 『진위면지』에는 1922년에 건축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집을 지키고 있는 정호신의 누님 정중임(여, 1935년생)은 1922년에는 초가집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기와를 얹었고, 1999년에 진위면지에서 조사한 집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1946년경)에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신 가옥은 사랑채를 먼저 짓고 4년 뒤 안채가 건축되었다.

정호신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헛간채로 구성된 튼 ㄷ자형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안채는 기와이며 사랑채와 헛간채는 슬레이트 지붕이다. 본래는 안채가 ㄱ자로 설계되었고 사랑채가 ㄴ자로 설계된 튼 ㅁ자형이었지만 나중에 구조가 바뀌었다. 안채는 외쪽부터 방, 사당, 방, 대청, 안방이 나란히 배치된 형태다. 사당(祠堂)은 본래 정중임의 부친 정지용이 거쳐하던 방이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 대청마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 놓았고, 아버지가 기거하던 방(건너방)에는 신주를 모신 것이다. 안방에서는 꺾어져서 부엌과 광, 나뭇간이 있다. 특이한 점은 안채의 방 한 개를 사당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사당에는 퇴칸에 벽감을 설치하여 위로 4대까지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정호신 가옥도 1990년대 초 입식으로 개조했다. 안방 퇴칸에 문을 달아서 손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으며 부엌 광과 나뭇간이 연결되었다.

사랑채는 자연석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납도리를 결구한 민도리집으로 1고주 평사량 구

25) 평택시·평택시문화원, 『진위면지』, 1999 참고

조다. 벽체 외벽은 흙벽 위에 부부적으로 시멘트 몰탈을 발랐다. 2칸 반짜리 광은 안채를 향해 열려 있으며 상부에 살창이 있고 둔테목이 남아 당초 판문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문은 퇴칸에 달려 있는데 문을 오른쪽 기둥에 붙여 설치하여 약간 치우친 모습다. 2칸 큰 사랑방은 터져 있으며 전면에 두짝여닫이문과 영창을 두고 툇마루를 가설하여 외부를 향해 열려 있는 전형적인 경기도의 사랑방 모습을 보여 준다. 큰사랑방 오른쪽 벽에는 벽장이 있고 그 하부에는 함실아궁이를 두어 대문간에서 불을 땔 수 있다. 큰사랑방 왼쪽 3/4칸 규모의 공간은 책방이었다.

정호신 가옥은 18년 전(2004년)에 철거했다. 집이 춥고 관리가 어려워 정호신이 철거를 하고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현재는 지하 주차장만 지은 상태다. 정중임, 이계은 부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지은 건물에 방을 들여서 거주하고 있다.

② 은산1리 정장순 가옥[26)]

정장순 가옥 사랑채

장장순 가옥에 신축한 정병근 가옥(2022)

정장순 가옥은 은산1리 윗말에 있다. 가옥의 아래 방면으로는 은산2리 방촌과 아랫말이 있다. 비교적 높은 지대에 가옥이 위치하여 굽어보는 느낌을 갖는다.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사로 마주 보는 튼 ㄷ자형 배치에 곳간채가 사랑채 옆으로 배치되었다. 이 집은 산대(山垈) 지역의 부호였던 정종인이 지었다. 정종인은 광무정권에서 측량학교를 나온 측량기사다. 토지조사사업 때 부(富)를 축적한 천석꾼 수준의 부호로 알려졌다. 종중 일에 관심이 많아서 1912년에는 대구 용연사에 있었던 삼봉집 목판을 은산리로 옮겨왔으며, 종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정종인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정장순이며, 다른 아들들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세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했다.

안채는 전형적인 경기도의 전퇴집을 토대로 방의 규모를 늘린 8칸 전퇴집이다. 구성을 보면 왼쪽부터 누마루, 건너방(거름방), 대청, 안방이 나란히 놓이고 ㄱ자로 꺾여서 부엌과 다락, 부엌광, 나뭇간을 두었다. 대청은 3칸으로 툇마루에서 부엌 퇴칸으로 연결 마루를 설치했으나 부엌 쪽에문은 내지 않고 마루에서 쓰는 벽장과 부엌에서 사용하는 붙박이 찬장을 상하 2단으로 설치하였다. 대청 뒷벽은 안방 쪽은 머름과 두 짝 여닫이문을 내고, 거름방 쪽은 상하 2단으로 문과 벽장을 설치하였다. 대청에는 시렁을 두었다. 건넌방은 2칸으로 트여 있으며 앞에 툇마루를 두었다. 누마루 아래는 함실아궁이가 마련되었다.

안방은 상하 두 칸으로 조금 큰 편이다. 윗방 대청 벽에 접어 여는 두 짝 문을 내고, 옆벽에는

26) 평택시·평택시문화원, 『진위면지』, 1999 참고

두 짝 여닫이문과 영창을 달았으며 쪽마루를 설치하여 출입하기 편하게 하였다. 아랫방은 대청으로 하부에 머름을 설치하고 두 짝 여닫이문을 내었으며 옆벽은 터서 확장한 상태다. 안방과 부엌이 연결된 벽에는 벽장과 다락을 설치하였다. 부엌은 좌우로 판문을 달고 부뚜막을 설치하여 솥을 걸었고 붙박이 찬장을 설치하였다. 부엌에는 부엌 광과 나뭇간이 있다.

가옥은 민도리집이다. 배면만 홑처마를 하고 나머지는 겹처마를 쓰고 시멘트기와를 덮은 팔작지붕을 올렸다. 대청 부분은 오량 구조이며 방은 1고주 오량으로 종도리 하부에 장혀를 받치고 소로와 뜬 창방을 두어 판대공을 받았다. 이 집에는 내외 벽이 남아있다. 안채 부엌벽에 의지하여 2단으로 만든 내외벽을 설치하였는데 기와를 올린 구조이다.

사랑채는 ㅡ자 평면 형태다. 정면 7칸 반으로 앞뒤 모두 퇴를 둔 형태로 자연석을 외벌대 돌린 기단 위에 역시 자연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올린 민도리집의 오량 구조이다. 지붕은 홑처마에 한식 기와를 올린 팔작지붕이다. 구조는 대문간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방, 마루방, 방, 반침을 두었다. 맨 왼쪽 방은 3칸으로 트여 있으며 옆에 툇마루를 두었다. 대문간 들어서면 오른쪽에 사랑방 난방을 위한 함실 아궁이와 나뭇간이 설치되었다. 집이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어 바깥마당은 좁은 편이고 안마당은 넓다. 안채 좌측에 단을 형성하여 장독대를 마련하고 내외담에 연결하여 네모난 화단을 꾸몄다. 사랑채 옆의 건물은 광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장순 가옥은 2020년경 정병근(남, 1961년생)에게 매각되어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2층 양옥을 신축했다.

③ 은산1리 정오섭 가옥

은산1리 정오섭 가옥은 일명 '일본집'으로 부른다. 이 집은 정병기(남, 1928년생)가 부친이었던 재일교포 실업가 정동순의 지원을 받아 신축했다. 정동순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부동산업과 유흥업으로 크게 돈을 벌었다. 전시체제기에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 오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고향 은산리로 보내서 선산을 지키며 살도록 배려했다. 정병기는 논농사를 짓는 한편 은산2리에서 산대정미소를 운영하며 슬하에 6남 1녀를 두었다. 큰아들 정용섭(남, 1948)을 비롯해 위로 4형제는 도시로 나가 살고 현재 가옥은 5남 정오섭이 거주하고 있다.

6남 정홍섭(남, 1964년생)에 따르면 가옥은 1958년경에 건축된 것이라고 한다. 정동순이 일본에서 설계와 건축자재를 가져왔으며 건축은 정병기가 했다. 가옥은 전통 한옥과 일본식 다다미집의 장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정광섭(남, 1960년생)이 말하기를 정오섭 가옥은 다락이 무척 넓어서 어릴 때 놀러 가면 숨을 곳이 많아서 좋았다고 말한다.

④ 은산5리 최재성 가옥(우측)

최재성 가옥 외부와 안채

은산5리 최재성은 집안도 부유했고 용인군 단위농협 이사, 진위향교 전교, 경기도 향교연합회 회장, 평택군의회 의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했던 지역 유지다. 그의 조부는 서울의 부재지주 최00의 마름을 보며 경제적 기반을 쌓았고 최재성 대에 와서 더욱 재산이 늘었다.

최재성 가옥은 조부가 최재성의 8세(1939년)되던 해에 건축했다. 건축용 자재는 수원 용주사에서 마차로 싣고 와서 지었다. 조부는 서울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주택을 보는 안목이 남달랐다. 보통 시골 사람들은 아담하게 짓는데 비해 조부는 번듯하게 지었다는 것이다.

주택은 ㄱ자형 튼 구조였고 앞에는 사랑채와 대문간이 있었다. 안채는 부엌과 안방, 대청마루, 건너방이 나란히 있었으며 마루 옆에는 퇴를 냈다. 광(창고)는 두 개였다. 규모가 컸는데 서울 부재지주의 마름을 봤기 때문에 소작료를 징수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크게 지었다고 했다. 창고는 한국전쟁 때 좌익들을 잡아 가두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사랑채는 방 1개에 대문간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문간방이 있었다. 지붕은 이중 서까래를 설치하고 부연을 달은 뒤 기와를 올렸다. 그러다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슬레이트로 바꿨다.

가옥은 1986년 최재성이 서울에서 낙향할 때 자재를 가져다가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기둥은 다시 다듬어서 락카를 칠했으며, 마루를 개조하여 거실을 만들었다. 부엌도 입식으로 고쳤으며 난방도 보일러를 설치해서 해결했다. 사랑방은 아이들이 있을 때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⑤ 은산3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은산3리는 마을 규모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했다. 또 말미들과 산하천을 경계로 경부고속도로와 마주 보고 있었다. 정부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국가적 이미지 개선을 한다며 고속도로 주변 마을의 취락을 서유럽 형태로 개선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우선 정부가 저리 융자를 알선하여 부지를 매입하게 하며 주택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구조개선사업은 1977년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다. 대상 마을은 은산1리~4리까지이며, 개인마다 차이가 나지만 대지 100평에 건평 20~30평 내외였다. 부엌은 아궁이와 연탄을 병행하도록 했다.

은산1, 2리의 취락구조개선 주택

은산3리 취락구조개선단지

은산2리 개조한 새마을 주택

은산4리 취락구조개선 주택

윤여창(여, 1945년생)의 부친은 한국전쟁 전후 마을 구장을 지냈고, 남편은 1970년대 새마을지도자와 1980년대에는 진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지내며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주도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1977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대지를 매입할 자금을 지원해줬고 건축을 할 때는 1호(戶)에 6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해줬다. 대지는 1호에 1백 평을 분양했다. 대지매입 비용은 1호(戶)에 20만 원이었는데 마을 이름으로 정부의 저리대출을 받아 매입하여 분양한 뒤 건축 후 다시 거둬들였다. 거둬들인 부지 대금은 나중에 마을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신축 희망자를 모집하고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신축사업이 진행되었다. 은산3리 마을은 본래 산대분교 동 쪽에 위치해서 주택신축부지를 마을 입구 경사면에 마련하였다. 건축비용은 주택마다 달랐다. 뾰족한 지붕에 방2개와 부엌과 마루를 기본구조로 했지만 각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변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었다. 초기 주택들은 아궁이 부엌을 했다. 그러다가 1990년 전후에 입식으로 바꾸고 보일러를 설치한 집들이 많아졌다.

윤여창의 남편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주도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택지는 확보하지 않았다. 그의 집은 부친이 마련한 집터에 건축되었다. 먼저 1972년에 벽돌구조로 방 2칸 마루, 부엌 한 칸을 지었다. 벽돌집은 날림으로 지었다. 건축비가 2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엉성하게 블록을 쌓아서 밖의 불빛이 보일 정도였다. 아궁이 부엌이었고 방은 3개였다. 방 한 개는 부모님이 거주했고 한 개는 윤여창 부부가 살았으며, 다른 한 개는 아이들 방이었다. 1997년 기존의 주택을 헐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지었다. 건축비용은 4천만 원이 들었다. 하지만 건축업자를 자못 만나서 재판 끝에 마무리했는데 지붕이 새고 날림으로 지어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

은산2리 튼 ㄷ자 집

1996년 준공한 은산2리 정OO의 슬라브주택

산하리 던지골(은산1리 경계) 정병한의 구옥

은산4리 최상용의 집 마당

6. 문화생활

1) 교육

(1) 유교교육

은산리에서도 산대(山垈) 지역은 봉화 정씨의 집성촌이다. 일찍부터 교육에 관심이 높았고 한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많았다. 근래 한문학에 조예가 있었던 인물로는 정회식이 꼽힌다. 손녀 정중임(여, 1935년생)에 따르면 정회식은 수원향교 명륜당에서 한문을 수학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서지류를 살펴보면 먼저 봉화 정씨 일가의 4대 문집이 있다. 4대 문집은 정치능(1792~1866)의 『소리당집』, 정옥진(1825~1905)의 『화강유고』, 정일영의 『석음유고』, 정회식의 『겸와유고』 다. 이밖에도 조선 숙종 때 이혁의 예학 관련 서적인 『사례찬설』, 주자가례를 해설한 이의조의 『가례증해』, 김육의 『유원총보』, 간재 전우의 『간재사고』 가 있다. 소장 서책을 중심으로 본다면 정회식의 선대들은 대대로 한학을 공부한 유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예학뿐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에도 관심을 두었고, 정통 유학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서책으로는 간재 전우(1841~1922)의 문집이다.

전우(田愚)는 최후의 정통 유학자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이재-홍직필-임원회로 이어지는 계통에서 학문을 수련했으며, 이이와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하려고 노력했다. 고종 때 관직에 나가 사헌부 장령을 지냈고 순흥부사, 중추원 찬의 등을 제수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개회파에 맞섰으며 고종의 강제 퇴위 후 나라가 어려워지자 전북 군산과 부안의 도서를 돌며 학문에 정진했고 제자를 길러 도학(道學)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정회식의 소장 문헌에서 『간재사고』 가 나왔고 예학 관련 서적이 있는 것은 봉화 정씨의 학맥이 기호학파와 관련이 있고, 정회식은 간재 전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정회식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산대(山垈) 일대뿐 아니라 은산리와 마산리 일대에는 제자들이 많았다. 1950년대 중반 은산2리 공회당에서 야학을 열고 한문을 가르칠 때도 정회식이 간여했을 가능성이 많다.

(2) 산대분교

은산리는 근대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은산1, 2리는 90살, 100살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서울대학교나 연·고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부호였던 정종인의 아들들은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을 졸업했으며, 산하리로 이거한 3.1운동 독립유공자 정경순의 손자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면장(面長)과 교사로 일했다. 은산4리 우종갑의 형제 3명은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은산1리 정회식의 손자 정호신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우그룹 재무부장과 대우중공업 부회장을 지냈다.

은산리에서 이처럼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를 배출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교육에 대한 열정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대교통에서 소외되다 보니 통학에 어려움이 많았다. 1945년생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진위면 봉남리의 진위초등학교에 다녔다. 당시만 해도 마을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학생들은 걸어서 통학했다. 1954년에는 은산3리에 산대분교가 개교했다. 산대분교는 1957년 산대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산대국민학교가 개교하면서 통학 거리가 크게 줄었다. 중학교는 진위중·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평택중·고등학교 또는 평택여중·고에 진학하지 않으면 서울로 유학을 갔다. 평택으로 진학을 해도 자취하거나 하숙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얻어 놓고 유학을 보냈다. 1953년 장당동에 효명중학교, 1957년에 효명고등학교가 개교했고, 1962년에는 신장동에 태광중·고등학교가 개교했지만 진학률은 낮았다. 장당동까지 통학하려면 태봉고개나 우렁속을 넘어서 동막을 지나 15리를 걸어가야 했는데 길이 험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지 못했다. 1970년대 중반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서 중·고등학교 통학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거리는 멀었지만 시내버스가 봉남리와 송탄을 거쳐 평택까지 오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은산3, 4, 5리도 비슷했다. 교육열은 높았지만 교육여건이 나쁘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통학문제 해결은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다.

산대분교

산대국민학교는 근대교육에 대한 산대(山垈)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학교 건립에 앞장선 인물은 원곡면 산하리 평동에 거주하는 정종호였다. 정종호는 일제강점기에 서울의

양정고보를 졸업한 농촌 지식인이었고 지역에서는 공도면장을 지냈으며 양묘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지주였다. 정종호는 본인도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서 산대지역 주민들의 기부를 받았다. 봉화정씨 종중도 적극 호응하여 위토(位土)를 매각하여 대지구입에 힘을 보탰다. 정종호는 학교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은산2리 산대공회당에 야학을 열어 근대교육에 굶주린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사는 정종호가 외부에서 초빙해왔다고 한다.

주민들의 열망과 적극적인 활동에 평택군교육청도 반응했다. 결과 1954년 산대분교가 개교할 수 있었다. 학교건물을 지을 때는 주민들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고사리같은 손으로 흑벽돌을 찍어 힘을 보탰다. 3년 뒤에는 산대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건너가서 사업에 성공하여 재일교포 실업가로 명성이 있었던 정동순은 학교 증축도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용품, 실험기자재, 운동기구, 악기를 지원했다.

← 산대분교 건립에 앞장섰던 정종호 송덕비(頌德碑)

산대초등학교에는 은산리 4개 마을(은산 5리는 용인군 남사면으로 다님)과 산하리의 3개 마을 학생들이 다녔다. 학생 수는 개교 초기에는 150~200여 명이었고 가장 많았을 때가 300여 명쯤 되었다. 그러다가 1980, 90년대 이촌향도와 젊은층의 도시 정착이 많아지면서 학생 수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1994년에는 다시 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가 되었다. 1998년 3월 1일에는 병설유치원이 개교했지만 2006년에는 47명까지 줄었다.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자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폐교(廢校)를 논의했다. 그러자 총동문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당시 총동문회장이었던 은산1리 이장 정병억(남, 1952년생, 산대초등학교 2회 입학생)은 교육청으로 쫓아가서 따졌다. “우리가 형편상 분교까지는 이해한다. 학교를 산대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건립하고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것인데 폐교(廢校)시킬 거면 다시 돌려달라.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항의했다. 결국 동문회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산대분교는 폐교를 면할 수 있었다. 정병억은 그럼에도 학교운영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은산리 아이들은 두세 명에 불과하고 전인교육을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먼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다. 또 교사 1명에 학생 수가 3, 4명이다 보니 교육의 질은 높은데 옛날처럼 북적거리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산대분교는 2022년 말 현재 교사 7명, 학생 수 22명이다.

(3) 주민들의 교육경험

정병억(남, 1952년생)은 은산1리에 거주한다. 정병억은 1957년에 승격된 산대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평택으로 유학하여 평택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은산1, 2리의 정병억의 동기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교도 3명이나 진학했다. 동기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 정조순은 만도기계(주) 평택공장 사장도 지냈고, 비슷한 또래들 중에는 보건소장, 중앙과 지방부처

의 공무원, 교사를 한 사람들도 많다.

은산리 학생들의 통학에 크게 기여한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정병한

은산1리와 인접한 산하리 던지골에 거주하는 정병한(남, 1954년생)은 산대국민하교 9회 졸업생이다. 당시 산대국민학교는 은산리와 산하리 아이들이 다녔는데, 산하리의 일부 아이들은 원곡초등학교로 다녔고, 은산5리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2km 거리의 봉남리 진위초등학교나 용인군 남사면으로 다녔다. 산하리 평동마을이나 은산1, 2리에서 봉남리까지는 10리가 넘었지만 산대국민학교까지는 5리(2km)에 불과했다. 원곡면 내가천리까지는 10리가 되지 않았다. 통상 산하리와 지문리 사이의 보가재미고개를 넘어 지문리를 지나서 걸어다녔는데 길목에 서낭당도 있는 데다가 음침해서 아이들이 무서워했다.

산하리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원곡면 칠곡리에 있었던 원곡고등공민학교(4km)로 다녔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은산리와 원곡면 산하리 아이들은 산대국민학교를 졸업하면 7~8km 거리의 진위중학교를 다녔다. 정병한의 집은 장리쌀을 놓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했다. 그래서 산대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안성으로 유학가서 안성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산하리에서 안성까지는 16km였다. 평택까지는 12, 3km였고 용인까지도 16km였다. 안성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하숙했다. 안성까지 가려면 성은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고도가 높아서 자전거를 끌고 한 번 넘어가면 녹초가 되었다. 당시에는 한 달 하숙비가 쌀 2, 3말이었다. 정병한의 아버지는 하숙비와 별도로 1달 용돈으로 5천 원씩 주었다. 청소년기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용돈이 넉넉하다 보니 공부보다는 노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도 간신히 했다.

은산1리 정병근(남, 1961년생)은 산대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진위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산대초등학교 17회, 진위중학교 10회다. 진위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데 진위고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입학을 설득했다. 은산1리에서 진위중학교까지는 7~8km나 되었다. 선배들은 대부분 통학수단이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학했지만, 정병근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에는 합승버스가 들어오더니 곧 시내버스가 들어왔다. 그래서 버스통학을 했다. 시내버스는 두세 시간마다 한 대씩 들어왔다. 그래서 아침에 버스를 놓치면 학교까지 걸어갔다. 당시 시내버스는 거리마다 요금이 달랐고 학생들은 50% 할인해주었다. 짐들도 운임을 따로 받아서 크기에 따라 버스 차장과 흥정을 했다. 평택으로 진학한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걸어서 통학할 수가 없어 자취나 하숙을 하거나 은산5리 고속도로 농산물 집하장까지 걸어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평택까지 통학했다. 당시에는 고속도로에 농산물집하장이 있었고 그레이 하운드와 동양고속 고속버스가 정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보고 은산5리까지 걸어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공도면 진사리에

서 내려 평화여객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비전동 평택중·고등학교까지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녹초가 되었다. 그래서 평택중·고등학교로 진학했던 정병한의 두 형들은 평택에서 하숙을 했고 주말에 집에 올 때는 칠원1동-도일동- 빈터고개-사낭골로 넘어오는 길로 걸어서 왔다.

은산1리 출신의 정홍섭(남, 1964년생)은 은산리의 교육열은 알아줬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만 넉넉하면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 정홍섭의 조부는 재일교포 실업가 정동순이었고 부친은 정병기였다. 집안이 부유하다 보니 정홍섭의 6형제는 모두 서울로 유학을 갔다. 부친은 1969년 서울 수유리 버스 종점 부근에 700만 원을 주고 2층짜리 상가를 매입해서 자녀들이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도록 배려했다. 당시 700만 원이면 논 100마지기를 사고도 남았다. 서울집의 살림은 할머니가 올라와서 해줬다. 하지만 정홍섭은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은산리로 내려와 진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은산리의 1945년생 이전 아이들이 다녔던 진위초등학교와 세월교

은산3리 윤여창(여, 1945년생)은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했다. 45회로 은산리에서 진위초등학교를 다닌 마지막 졸업생이었다. 당시 진위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많았고 통학 거리도 10리 가까이 되었다. 당시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학업을 중단했다. 윤여창의 언니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여창은 중학교 진학에 성공했다. 총명했고 형제들 중 막내이기 때문에 얻은 행운이었다. 중학교는 평택여자중학교로 진학했다. 은산리에서 진위국민학교를 졸업한 남녀 동기생 15명 중에서 유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했다. 평택까지 통학이 어려워 학교 근처에서 자취했다. 주말에는 집에 왔다가 동막골을 지나 태봉고개를 걸어서 넘어간 뒤 지산동 건지미를 지나 현재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버스를 타고 평택까지 갔다.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가려면 새벽 4시, 5시에 밥을 먹고 나서야 가능했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은 4남 1녀의 둘째다. 그의 형제들은 두 명이 서울대학교를 다녔고 막내 남동생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막내 여동생은 인천교대를 나와 교사가 되었고 우종갑만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우종갑은 진위초등학교 40회로 입학해서 8년을 다니고 42회와 함께 졸업했다. 집안에 농사일을 거들 사람이 없어 학교를 드문드문 다니다가 수업일수가 부족해서 늦어진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김옥근이라는 담임선생님이 ‘너는 하루걸이(말라리아)에 걸렸냐. 학교를 하루 걸러 다니게’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학력도 많이 떨어졌다. 우종갑은 4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초등하교를 졸업하고 그 뒤로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다. 우종갑은 자녀들을 서울로 유학보냈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시켰는데 그만 아이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아이들은 큰딸과 작은딸은 중학교에 다녔고 아들 둘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다.

큰형 우종옥은 진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20살에 안성시 양성면의 양성중학교에 입학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이 늦어졌다. 1946년에 개교한 양성중학교는 1952년에 정식 인가를 받았지만 우종옥이 입학한 1955년만 해도 사립학교였다. 학교도 건축되지 못해서 양성면 덕봉리 덕봉서원을 교사(校舍)로 사용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3개월을 다녔던 우종옥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서울의 이모 댁으로 도망가서 양성중학교 3개월 다닌 것으로 졸업장을 발부받아 동도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학교행정이 부실했고 양성중학교 교장이 사촌이모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도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얼마를 다니다가 학교가 시원치 않자 마포고등학교로 옮겼다.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는 고려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뒤 재수를 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했다. 졸업한 뒤에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나중에 프랑스에 유학갔다가 돌아와 한국교원대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

우종옥의 저서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이력

손아래 동생 우종로는 한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 때문에 낙향하여 2년 간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마포고등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실력이 출중하자 학교 측 배려로 주간으로 옮겼고 2년 만에 속성으로 졸업하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영어에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아 군대도 통역관으로 입대했다. 그러다가 월남에 파병되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전사했다. 막내 남동생 우종열은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한화그룹에 입사했다. 한화그룹에서는 전무까지 지내다가 정년 퇴임했다. 막내 여동생은 인천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

은산5리 최재성(남, 1932년생)은 진위국민학교를 졸업했다. 동네 아이들은 모두 남사면으로 다녔지만 할아버지의 배려로 진위국민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당시 진위국민학교는 2km 거리였고 남사는 4km나 되었다.

2) 종교

은산리는 개신교의 교세가 약하고 불교신자가 많다. 천주교 신자도 매우 적다. 교회는 은산1, 2리의 경우 원곡면 산하리 산대은평교회(원곡면 평동길 37)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통미마을의 진목교회로 다닌다. 은산4리, 5리에서는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통미마을의 진목교회(남사읍 어진로 102번길 88-2)를 다닌다. 은산1리 정중임(여, 1935년생)은 은산1, 2리에서 두세 가정이 다닐 거라고 말했지만 확인한 결과 산대은평교회에 두세 집, 진목교회로도 두세 집이 다니고 있었다. 은산3리와 4리에서도 1~2가정은 진목교회에 출석한다. 진목교회는 1969년에 창립했다. 지금은

남사면 진목리 통미마을에 예배당이 있고 은산5리에는 교육관과 사택이 있다. 본래 은산5리에도 월경교회가 있었지만 20여 년 전 담임목사가 은퇴하면서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통미마을의 진목교회 사택에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은퇴목사님의 배려로 두 교회를 합치면서 통미 진목교회가 예배당이 되고 은산5리 월경교회가 사택과 교육관 역할을 한다. 현재 진목교회의 교인은 50여 명이다. 그 가운데 은산5리에서는 7~8가정이 출석한다. 은산1리~5리 전체를 합하면 12~2가정이 출석한다고 볼 수 있다.

진목교회 교육관 및 사택

만기사

불교신자들은 원곡면 산하리 감로암(원곡면 행골길 172-97)을 비롯해서 진위면 동천리 만기사, 양성면 방신리의 운수암, 멀리는 서탄면 장등리 보국사까지 다녔다.

은산1리 정중임(여, 1935년생)은 불교신자다. 조부모와 부모님의 산소는 은정골 부근에 모셨지만 위패는 서울의 절에 모셨으며 본인은 원곡면 산하리 감로암으로 다닌다. 감로암으로 다니기 전에는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운수암으로 다녔다. 그러다가 진위면 봉남리의 원각사를 조금 나갔고, 40여 년 전부터 감로암으로 다니고 있다. 감로암은 조계종인데다 마을과 가까워서 나가게 되었다. 산대노인회장은 강원도의 사찰을 다니고 있다. 마을주민들도 대부분 불교신자가 많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이면 절에 가느라 북적거린다.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의 은평산대교회가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 은산1리에서는 3명이 다니고 2리에서는 두 명이 다닌다. 이웃한 산하리 평동마을에서도 두세 명에 불과하다. 성당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은산2리 조명숙 전 이장은 성당에 나간다. 은산2리 정광섭(남, 1960년생)도 불교신자가 많다고 말했다. 절에는 여성들이 많이 다닌다. 남자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은산4리도 불교 신자가 많다. 김순자(여, 1947년생)는 “교회는 최상용씨 한 사람 다니고 다들 절에 다녀요”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도 만기사와 감로암, 보국사를 많이 다닌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두 집쯤 된다. 성당은 송탄으로 다닌다. 은산5리 민오순(여, 1940년생)도 불교 신자가 많고 개신교인은 적다고 말했다. 마을 안의 진목교회는 교인이 적어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통미의 진목교회와 통합했다는 것이다.

3) 문화재

(1) 삼봉 정도전선생 사당(문헌사)

문헌사

문헌사에서 내려다 본 산대(山垈)지역

여말선초의 정치가이며 사상가였던 삼봉 정도전(1337~1398)의 사당이다. 정식 명칭은 문헌사(文憲司)지만 평택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정도전 선생 사당'으로 명명되었다. 정도전은 본관이 봉화,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峯)이며 고려 후기 형부상서를 지낸 정운경의 아들이다. 부친이 이곡(李穀)과 교분이 있어 그 인연으로 이색(李穡)의 문하에서 정몽주, 이숭인 등과 수학했다. 1360년 성균시, 136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갔다. 전교주부, 통례문지후 등의 관직을 지내다가 북원의 사신 접대를 기피하여 전라도 거평부곡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복권되지 못하여 서울 삼각산 아래에 거쳐하면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했다. 이성계를 만나 역성혁명(易姓革命)의 뜻을 주고받았고 위화도 회군(1388)을 통해 이성계와 함께 권력을 잡았다. 조준 등과 전제개혁을 실시하여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사대부(士大夫)와 농민(農民)들에게 토지가 분배되도록 했다. 1392년에는 역성혁명(易姓革命)에 반대하는 정몽주 일파를 제거하고 조선을 개국했다. 조선건국 후 개국1등공신 봉화백으로 문하시랑찬성사 겸 판상서사사(門下侍郎贊成事兼判尙瑞司事), 판삼사사 겸 판삼군부사(判三司事兼判三軍府事), 삼도 도통사(三道都統使) 등의 요직에 올라 정권과 군권을 장악했다.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하여 유교적 국가이념을 확립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했으며, 한양 천도(遷都)를 주도했고, 사병혁파를 통해 중앙집권 강화를 도모했다. 또 명나라와 외교적 갈등 과정에서 『진도』를 저술하여 병사들을 훈련하고 요동수복을 계획했다. 정도전은 왕도정치와 재상정치를 지향했고 왕과 재상, 삼사가 상호 견제와 비판을 통해 쉽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지향했다. 하지만 후계자 문제로 왕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재상중심의 정치와 사병혁파 문제에 대한 갈등을 빚어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 일파에게 제거되었다. 사후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1865년(고정2)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복권되었고 문헌(文憲)이라는 시호와 유종공종(儒宗功宗)이 쓰인 현판을 하사받았다. 1872년(고종9)에는 왕의 치제문(致祭文)이 내려졌으며, 죽산부사 이현경 외 7인의 수령(首領)이 정응경의 사당에서 거행된 제사에 참석했다. 1912년에는 산하리 287번지(현 은산1리 텃골)에 사당이 건립되었고 시호를 따서 '문헌사(文憲司)'로 명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용연사에 보관 중이던 '삼봉집 목판'도 함께 옮겨왔다. 1930년에는 종가 터 뒤쪽인 은산리 202번지로 이전했으며, 1970년에는 종래 위치보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은산리 189번지에 중건했다. 1988년에는 문헌사 안쪽에 '목판고'를 지어 삼봉집 목판을 보관했다.

2004년에는 삼봉 정도전 관련 문헌과 유물을 전시한 '삼봉기념관'이 건립되었고, 2005년에

는 문헌사 아래에 희절사를 건립했다. 희절사는 정도전의 장남이며 형조판서를 지낸 정진(鄭津)과 두 아들 정래(鄭來)·정속(鄭束)을 모신 사당이다. 건립 당시에는 정진(鄭津)만 배향하고 입향조 정래(鄭來)의 사당은 따로 건립하려고 했지만 두 아들도 함께 배향하기로 결의되어 현재는 세 분의 위패가 모셔지게 되었다. 2017년에는 삼봉문학관 및 교육관이 건립되었다. 또 2012년부터는 평택시가 주최하는 ‘삼봉서화대전’이 개최되어 삼봉 정도전의 문학과 예술을 선양하고 있다.

(2) 삼봉집 목판

삼봉집 목판(2013)

삼봉집(三峯集)은 삼봉 정도전의 문집(文集)이다. 삼봉집은 1397년(태조 6) 장남 정진(鄭津)이 초간본을 간행했다. 1465년(세조 11) 증손자 정문형이 초간본에서 누락된 시문과 다른 저술들을 추가하여 ‘삼봉선생집’으로 중간했고, 1487년(성종 18)에는 누락된 시부(詩賦)와 경제문감 별집 등 120여 장을 증보하여 삼간했다. 그 후 1791년(정조 15)에는 왕명에 의해 규장각에서 저작분류를 재편하고 교정과 주석을 붙여 14권 7책으로 재편집된 『삼봉집』 목판을 경상감영을 통해 간행했다. 이때 간행된 목판으로 삼봉집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목판은 태백산 사고에 보관되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 전후 대구 용연사에서 이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용연사 목판고가 허물어지고 보관이 어렵게 된 것을 확인한 18대손 정종인이 1912년 진위면 은산리로 옮겼다. 목판은 14권 228판으로 구성되었는데 옮길 당시에는 34판이 훼손 유실되어 1914년 사시교지(賜諡敎旨)와 치제문(致祭文)을 더하여 봉화 정씨 종중에서 추가로 제작 보충하고 발문을 달았다. 1916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영인본을 발간했으며, 1921년에는 회동서관에서, 1935년에는 봉화정씨대동보소에서 간행하였다.

삼봉집 권1~권4에는 시문, 권5~권6은 경제문감(經濟文鑑)상하, 권7~권8에는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상하, 권9에는 불씨잡변(佛氏雜辨), 권10에는 심기리편(心氣理篇), 심문천답(心問天答), 권11~권12에는 경제문감별집(經濟文鑑別集)상하, 권13에는 진법(陣法), 습유(拾遺), 권14에는 부록이 담겨 있다. 『삼봉집』 목판은 글자 새김이 정교하고 삼봉 정도전의 사상과 문학을 망라하여 사료적 가치뿐 아니라 기록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본래는 사당 안에 쌓아 두었던 것을 1988년 봉화 정씨 종중에서 문헌사 안에 목판고를 짓고 보관했으며, 2004년 삼봉기념관이 건립되면서 현재는 이곳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 총 268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2판은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한다.

(3) 삼봉 정도전 단묘와 제단비

정도전선생 묘 가는 길

삼봉 전도전선생 단묘

정도전의 시비(詩碑)

단묘 위치

삼봉 정도전(1337~1398)은 여말선초의 대학자이며 정치가다. 조선은 정도전이 이성계를 선택하여 건국되었다고 할 만큼 개국(開國)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지대했다. 개국 후에도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사병혁파, 한양천도, 요동수복계획 등을 추진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태조 이성계도 정도전을 일컬어 '한(漢) 고조(유방)에게는 장자방(장량)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삼봉(三峯)이 있다' 고 말할 정도였고, '유종공종(儒宗功宗)' 의 어필을 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계 선정 과정의 갈등과 사병혁파 문제 등으로 이방원 등과 갈등을 빚다가 제1차 왕자의 난 때 남은 등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일부 기록에는 정도전이 목숨을 구걸했다고 하고『태조실록』의 '정도전 졸기' 에도 앞에서는 "도전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많은 책을 널리 보아 의논이 해박(該博)하였으며, 항상 후생(後生)을 교훈하고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일로써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한 뒤에는 "도량이 좁고 시기가 많았으며 또한 겁이 많았고, 고려사를 왜곡 폄하한 불충과 조선왕실을 해친 천하의 역적"[27]이라고 기록했다. 실록의 기록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은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 일파가 일방적으로 폄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도전은 죽음 앞에서 절명시 '자조(自嘲)' 를 짓고 담담히 죽음을 맞았다. '자조(自嘲)'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조(自嘲) /정도전

마음을 보존하고 성찰하기에 한결같이 공력을 다 기울여(操存省察兩加功)

27)『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1398) 8월 26일 기사

서책 속 성현의 교훈 저버리지 않았다네(不負聖賢黃卷中)
삼십 년 긴 세월 쉬지 않고 고난 속에 쌓아온 사업(三十年來勤苦業)
송정에 한 번 취하니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松亭一醉竟成空)

정도전은『맹자』를 금과옥조로 여겼다.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사상적 근거도『맹자』에서 찾았다. 그가 꿈꾸었던 조선은 성리학의 이상이 실현된 국가였다. 위 절명시는『맹자』의 사상을 금과옥조로 삼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국의 업(業)을 쌓았지만 제1차 왕자의 난으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도전이 죽임을 당한 뒤 시체는 버려졌다. 시체를 수습하여 묘를 썼다는 기록도 없다. 한 때 서초구양재고등학교 정문 옆에서 정도전의 묘로 추정되는 묘가 발굴되었지만 확증할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한경지략』에는 ‘정도전의 집이 수진방에 있었는데, 중학(사부학당 중 하나)이 자리 잡은 곳은 정도전 집안의 서당(書堂) 터였으며, 제용감 자리는 안채가 있던 곳이고, 사복시 자리는 마굿간 자리’라는 기록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수진방(壽進坊)으로 개항기에는 사사관리서와 황성신문 사옥, 농상공학교, 수진측량학교가 있었으며, 사학 중 중학당이 있던 곳에는 수송초등학교가 자리 잡았다. 그러다가 수송초등학교가 1977년 폐교된 뒤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서울지방국세청, 석탄회관 등이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른다.

진위면 은산1리 남산 정상에는 삼봉 정도전의 단묘와 단비, 시비가 있다. 단비의 정면에는 ‘조선개국원훈 봉화백 문헌공 삼봉 정선생 제단(朝鮮開國元勳 奉化伯 文憲公 三峯 鄭先生 祭壇)’이라고 쓰였고 뒷면에는 고종 때 내부 회계국장, 규장각 부제학과 등을 지낸 정봉시(鄭鳳時)가 비문을 짓고 17대 후손 정재훈(鄭在勳, 1835~1912)이 글씨를 썼다고 되었다. 제단과 제단비를 건립한 시기는 1910년 전후로 추정된다. 그것은 비문에 정봉시가 규장각 부제학을 지낸 시기가 1909(순종2)이고[28], 정재학의 사망이 1912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단에는 음력 10월 3일 봉화정씨 문헌공파 시제 때 제를 올린다.

(4) 정진(鄭津, 1361~1327) 묘

본관은 봉화이며 정도전과 경주 최씨 사이에 태어났다. 1382년(우왕8) 낭장이 되고 사재령(司宰令)·전농령(典農令)과 같은 벼슬을 지냈다. 1391년(공양왕3) 단핵받아 삭직되었다가 1392년 조선개국 후 공신(功臣)의 자제로 연안부사에 등용되었다. 연안부사로 부임할 때는 공신의 자제로 공사(公事)에 소홀할 것이 염려되었지만 바르고 부지런하며 청렴하게 정사를 펴 칭송을 받았다.

28)『순종실록』3권, 순종 2년(1909) 10월 23일 양력 1번째 기사

정진 묘(2022)와 사당 희절사(2008)

이후 판사재감사, 경흥부윤, 공조전서, 형조전서를 지냈으며, 중추원부사로 있을 때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삭직되어 수군(水軍)에 충군되었다. 그러나 1407년 다시 복권되어 판나주목사가 되었고 인녕부윤에 재직할 때는 크게 치적을 쌓았다. 1419(세종1)에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이후 판한성부사,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형조판서에 올랐다. 그가 사망했을 때는 세종이 3일간 조회를 폐하며 슬퍼했고 치제문과 부의(賻儀)를 하사했다. 시호는 희절(僖節)이다.

정진(鄭津)의 묘는 서울 역삼동에 있었다. 그러다가 1970, 80년대 강남지역이 개발되면서 진위면 은산1리로 이장하여 지금에 이른다.

(4) 은산리 3.1운동 유적

← 은산2리에 세워진 은산리 3.1운동 표석

은산1, 2리는 1919년 3.1만세시위가 일어났던 마을이다. 당시 은산리 주변에서는 3월 21일 야막리, 3월 31일 봉남리, 원곡·양성의 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었다. 은산리에서도 4월 1일 정경순, 정문학, 최선유가 주도하는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정경순, 정문학은 삼봉 정도전의 후손으로 봉화 정씨의 집성촌 은산1, 2리에 거주했다. 정경순과 최선유의 「판결문」에는 봉기를 모의한 곳이 정재운의 사랑방이었다고 했다. 당시 정경순이 24세였고 대부분 20~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정재운의 사랑방에서 함께 짚신을 삼고 있다가 정경순이 '다른 곳에서도 만세를 부르니 우리도 부르자' 고 선동했다. 정경순이 만세를 부르자고 하자 정문학과 정재운은 머뭇거렸다. 그러자 정경순이 '만약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방화를 당한다' 고 하며 강권했다. 세 사람은 정재운의 사랑방을 나와 마을 뒷산(현재 문헌사와 삼봉기념관이 있는 언덕으로 추정함)에 올라 3회 정도 만세를 불렀다. 이들의 만세 소리에 동네사람들 30여 명이 산 아래쪽에 모여들었고 정경순 등은 이들과 다시 만세를 불렀다. 그때 정성숙과 최선유(당시 32세)가 '봉남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가세 만세부르자' 고 군중들을 선동했다. 봉남리까지 행진한 이들은 봉남리 헌병주재소 앞에서 최선유의 선창으로 다시 만세를 불렀다.

이 사건으로 정경순, 정재운, 정문학, 최선유 등은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정경순, 최선유는 1919년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다시 상고하

여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들의 공훈을 인정하여 정경순은 2000년에 대통령 표창, 최선유는 2019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았다. 현재 삼봉기념관 주차장 입구에 ‘은산리 3.1운동’ 표석이 설치되었다.

4) 마을신앙

은산리는 마을신앙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다. 당제나 산신제를 지낸 기억이 없고 은산1리와 들판에 위치한 은산5리에서만 당제와 정제(우물고사)를 지냈다. 서낭이나 장승도 없다. 거리제나 보제, 둑제를 지내지도 않았다.

은산1리 공동우물

개인치성을 드린 은산4리 느티나무

은산1리는 정제(우물고사)를 지냈다. 이장 정병억(남, 1952년생)은 자신이 어릴 때 당제를 지냈다고 했다. 그런데 정병억이 말한 당제는 사실 정제(우물고사)였다. 정병억의 주장으로는 우물에 당제와 정제를 겸해서 지냈다고 말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정제는 1리, 2리가 함께 했는데 공동우물을 돌아가며 지냈다. 정월 초하루가 지나면 마을에서는 만신에게 가서 생기복덕을 따져 날을 잡고 제관을 선출했다. 제물은 소머리로도 했지만 대부분 통돼지를 잡았다. 매년 거행되던 은산1리 정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초기에 중단되었다.

은산4리 김순자(여, 1947년생)는 “옛날 어른들은 당제를 지냈다고 하는데”라고 하였지만 확인한 결과 은산4리 윗말의 느티나무에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린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돼지 잡고 소 잡아서 드린 마을 제사’라고 했더니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은산4리 우종갑(남, 1938년생)도 당제나 산신제에 대해서는 어릴 때도 본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은산5리는 당제와 정제를 지냈다. 이 마을에서는 정제(井祭)를 우물고사라고 했다. 토박이 민오순(여, 1940년생)은 “이 동네는 소 잡아서 크게 지냈어요”라고 대답했다. 마을 주위의 공동우물 세 군데서 지냈는데 소를 잡아서 통째로 올리고 과일과 북어포 등을 함께 올렸다고 말했다.

같은 마을 진흥섭(남, 1935년생)도 “해마다 정월 명절에 소를 잡아서 지냈다”고 말했다. 마을제는 마을의 정해진 장소 세 군데서 지냈다. 당집이나 당목은 없었다. 마을에서는 이것을 ‘당제사’라고 불렀다. 정월이 되면 당제사 일주일 전에 만신에게 찾아가 생기복덕을 따져서 제관을 선출하고 날을 잡았다. 제수를 준비하는 사람을 당주라고 했다. 소는 마을 사람들이 잡았다. 제일(祭日)이 가까우면 제관(祭官)은 금기를 지켰고 청년들은 당제 지내는 곳과 우물을 청소했다. 금기(禁忌)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펴며 청수(淸水)를 떠놓았고 외출을 삼갔다. 젯상에는 소의 머리

와 각 부위를 올렸고 삼색실과와 포, 술을 함께 올렸다.

당제는 새벽 1시(자시)에 지냈다. 제의를 행하는 것은 제관과 당주, 유사 한두 명이 했다. 절을 하고 축원하고 난 뒤에는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공동소지로 한 번만 올렸다. 마을 귀퉁이 세 곳에서 당제를 지낸 뒤에는 우물에 정제(井祭)를 지냈다. 정제는 같은 날 공동우물 한곳에서만 지냈다. 제물은 당제와 동일했다. 제의가 끝나면 소고기를 골고루 나눠서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했다. 소고기는 액막이 음식이라고 했다. 소머리와 내장은 푹 삶아서 당제를 지낸 뒤 당주의 집이나 마을회관에서 나눠 먹는다. 이때는 술도 한 잔 나눠 마신다.

진흥섭(남, 1935년생)은 세 번이나 제관으로 선출되었다. 옛날에는 제관에 선출되면 흠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증표였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은산5리 당제는 새마을운동 초기에 중단되었다. 주민들의 열정도 식은 데다 정부에서 미신타파운동을 편 것이 영향을 끼쳤다.

은산5리 최재성(남, 1932년생)은 당제는 마을 위쪽의 홍두렁배미에서 지냈고 정제는 우물 세 곳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정월이 지나면 생기복덕을 따져서 날을 잡고 흠 없는 사람으로 제관을 뽑았다. 제삿날은 정월 대보름을 넘기지 말아야 했다. 대보름 이후에는 농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재성의 어린 시절에는 소를 잡아서 지냈다. 소를 잡아서 머리와 내장 각 부위를 제상에 올렸다가 나중에는 소머리로 바꾸었다. 소고기는 액막이 음식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골고루 나눠 먹었다.

이상에서 볼 때 은산5리의 당제와 정제는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했고, 제를 드리는 장소도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제물의 변화도 눈에 띈다.

5) 가정신앙

가정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 가신(家神)은 집안 내에 일정한 영역을 갖고 있으며 맡은 역할도 다르고 위계가 있다. 평택지역에서 발견되는 가신(家神)은 성주, 터주, 조왕, 대문신, 우물신, 대감신, 업신, 산신, 측신이 있지만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은 성주와 터주, 대감신 정도다.

성주는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다. 삼신은 출산을 관장하며, 집터를 관장하는 터주는 터주대감으로도 부른다. 조왕신은 부엌을 관장하고 대문은 대문신, 우물은 우물신, 화장실은 측신이 관장한다. 재수와 복은 대감신의 몫이며 삼신은 제석과도 겹친다.

청북읍 민가의 제석주머니, 정중임(여, 1935년생) 옛집의 업과 터주가리(2008)

은산1리 정중임(여, 1935년생)은 옛날에는 터주와 성주, 제석, 대감 등을 모셨다고 말했다. 동네에서도 그것 안 해 놓는 사람이 없었다. 정중임 댁의 가신들은 어머니가 죽으면서 모두 부숴버

렸다. 터주가리는 가을에 떡 해먹을 때 만들었다.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업가리라고 해서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엉을 둘렀고, 다른 하나에는 조그만 단지에 벼 3되 3홉을 넣어서 볏짚으로 터주가리를 했다. 터주가리는 매년 새로 했다. 가을에 햇곡식을 거두면 가장 먼저 터주가리부터 했다. 누마루에는 성주대를 달았다. 성주대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지로 용(龍)자를 써서 매달았다. 안방에는 제석주머니를 달았다. 제석주머니에도 햅쌀 3되 3홉을 넣고 한지로 싸서 매달았다. 제서주머니의 쌀은 일반 가정에서는 칠월 칠석에 내려서 밥해 먹었지만 정중임 댁은 가을 추수 후 떡을 해먹을 때나 내려서 갈아주었다. 대감독은 해 놓지 않았다. 조왕신이나 측신, 대문신을 섬기지도 않았다. 다른 집에서도 일반적으로 터주가리, 성주대, 제석주머니를 해놓았다. 정중임 댁은 2004년경 구옥을 철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해 놓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을 부수면서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은산5리 민오순(여, 1940년생)도 가신(家神)을 섬겼다. 민오순은 터주가리, 제석주머니를 만들어 매달았다. 일반 가정에서도 터주가리와 제석주머니는 일반적으로 많이 했다. 터주가리는 가을에 햇곡식을 추수하면 작은 항아리에다가 쌀 닷되를 담아서 땅에 뭍고 이엉을 엮어 빙둘러 씌웠다. 제석주머니는 칠월 칠석 때 바꾼 것으로 기억했다. 제석주머니의 쌀을 꺼내서 쌀밥을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다고 말했다. 제석주머니에는 쌀 3되 3홉을 넣었다. 친정어머니는 가을에 추수해서 첫 곡식을 수확하면 햅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석주머니부터 채웠다. 민오순 댁은 대감독도 만들었다. 친정어머니는 항아리에 햅쌀을 담아서 다락에 올려놓았다. 대감독의 쌀은 여름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면 그것으로 흰죽을 쒀서 먹였다. 보릿고개에 흰죽이라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었다.

6) 전통놀이

① 줄다리기

은산1, 2리에서는 줄다리기를 했다. 줄다리기는 산대(山垈)지역 봉화 정씨가 상호 친목과 풍농을 기원하는 대동놀이였다. 현재 은산리 주민들은 다리기에 대한 기억이 매우 희미했다. 대체로 1960년대 중후반까지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2006년 정광순(남, 1935년생), 2022년 정중임(여, 1935년생), 정병억(남, 1952년생), 정효섭(남, 1951년생)의 기억을 토대로 은산리 줄다리기를 재구성해보겠다.

줄다리기는 산대(山垈) 지역 봉화 정씨의 가장 큰 행사였다.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의 정광순(남, 1935년생)은 산대(山垈) 줄다리기는 3년에 한 번씩 정월대보름에 개최되었다고 했다. 정월 14일에는 두레패들이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를 해서 흥을 돋우고 기금을 모았다. 마을 청년들은 마차를 끌고 다니며 집집마다 짚을 걷었다. 마을 장정들은 대보름 며칠, 2주 전부터 새끼를 꼬아서 암줄과 숫줄을 엮었다. 줄은 매년 새로 만들었다. 엮은 줄은 은산2리 방촌에서 산하리 평동으로 넘어가는 은산 2교에 길게 늘어뜨렸다. 대보름에는 보통 낫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도 깨고 윷놀이도 하며 술과 음식을 나눴다. 어둠이 밀려들고 대보름달이 떠오르면 여자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이것을 ‘달맞이’라고 했다. 줄다리기는 달이 뜨기 직전에 시작했다. 먼저 풍물패가 길놀이로 흥을 돋우고 마을 남자들은 여장한 남자아이는 암줄, 남자아이는 숫줄에 태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길놀이가 끝나면 각 마을의 풍물패가 서로 기예를 겨루며 풍물을 쳤다.

줄다리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은산1, 2리와 산하리와 남사읍 진목리 통미 사람들로 편을 나눠 승부를 가르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일제 말 초등학교 운동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을 안까지 놀이방식을 들여오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승부가 나면 이번에는 암줄에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처녀·총각들, 성인 이하의 아이들이 줄을 잡았다. 숫줄에는 장정 남자들이 잡았다. 남녀로 나뉘어 거행되었던 줄다리기는 반드시 암줄이 이겨야 했다. 그래야만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청년들이 줄을 어깨에 메고 마을을 돈 뒤 은산 2리 마을 입구에 가져다가 버렸다. 줄이 잘 썩어야 마을에 들어오는 액운을 막는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줄다리기 방식은 1950년대 중반까지 거행되다가 중단되었다. 정광순도 줄다리기가 중단된 뒤 더이상 노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줄다리기가 행해졌던 은산리와 평동의 경계 은산 2교

정병억이 줄다리기를 했다고 증언한 버스종점 앞

은산2리 정광섭(남, 1960년생)은 줄다리기 때 편을 나누는 방식으로 본동과 빈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은산1, 2리가 본동이고, 평동, 신촌, 통미, 미동을 빈동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부를 내는 줄다리기는 본동과 빈동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짚을 거두는 시기도 대보름 1주일 전이라고 말했다. 그래야만 줄을 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줄을 매번 다시 꼬았다는 것은 정광순의 기억과 같았지만, 줄다리기가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거행되었다고 한 것은 차이가 났다. 줄다리기의 장소도 은산 2교 다리가 아니라 구 공회당 앞(현 은산2리 마을회관 앞)이라고 하였다.

정병억(남, 1952년생)은 비교적 또렷한 기억을 말해줬다. 줄다리기는 버스종점 앞 마당에서 많이 했으며 나중에는 공회당 앞에서 거행했다고 말했다. 줄다리기의 시기도 보통 저녁에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낮에 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저녁에는 달집태우고 쥐불놀이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짚을 거두는 시기도 한 달 전이라고 해서 사뭇 달랐다. 줄의 두께는 약 30cm라고 했다. 줄다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산대(山垈)의 봉화 정씨였고 3, 4리처럼 다른 마을의 타성들은 쉽게 참여하지 못했다. 통상 정월대보름에는 아침에 제사를 지냈다. 점심때는 절기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어둑해지면 줄을 벌리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풍농을 기원했다. 줄달리기가 끝나면 달집태우고 쥐불놀이 하고 놀았다. 정병억은 암줄에 누가 올라갔냐는 질문에, 줄을 높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 아이들은 무서워서 못 올라갔다며 여장 남자가 올라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다. 은산2리에 담력이 쎈 여자가 있어서 그분이 젊을 때는 여자가 줄을 탔다고

말했다. 줄다리기를 매년 했다는 주장도 앞의 정광섭과 동일했다.

정중임(여, 1935년생)도 버스가 지나다니는 구 공회당 앞에서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기억했다. 대보름날 낮에는 윷놀이도 하고 풍물패가 지신밟기도 했다고 한다. 풍물패는 지신을 밟고 고사반을 해주며 기금을 모았다. 은산리 종점슈퍼 앞에 거주하는 미순씨 아버지가 고사반을 잘했다.

은산2리 이장 정효식(남, 1951년생)은 은산리 산대줄다리기는 최소한 1970년 이전에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본인이 1972년에 입대를 했는데 그 시기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효식의 부친 정병삼(남, 1918년생)은 풍물을 잘쳤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이면 낮부터 지신밟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녁에는 줄다리기의 길놀이를 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산대줄다리기는 1950년대 중반까지는 3년에 한 번 은산1, 2리와 산하리가 나뉘어서 개최되었고, 연희 방식은 한 번은 승부를 내기 위해, 또 한 번은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암줄과 숫줄로 나뉘어 잡고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는 버스종점 앞과 은산2리 공회당 앞 큰 길가에서 매년 거행되었고 암줄과 숫줄로 나뉘어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산2리 공회당에서 거행했던 줄다리기도 1960년대 말에는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장 정효식(남, 1951년생)은 젊은층의 도시 정착으로 청년들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② 거북놀이

은산1, 2리는 거북놀이를 했다. 산대지역의 거북놀이는 성인 남자들이 했다. 대보름에 바지게에 수숫대로 발을 엮어 뒤집어 씌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북이 춤을 추고 음식을 얻어먹는 놀이였다. 은산2리 이장 정효식(남, 1951년생)도 아버지 정병삼(남, 1918년생) 세대에서 많이 놀았다고 말했다.

은산4리도 거북놀이를 했다. 전 이장 우제승(남, 1956년생)은 은산4리에서는 정월대보름에 거북놀이를 했다고 말했다. 거북놀이는 마을 청년들이 했다. 바지게에다 수수잎을 엮어서 거북이처럼 뒤집어 쓰면 거북의 머리 역할을 하는 곰배가 끈으로 거북을 이끌고 앞에 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를 따르며 집집마다 방문하여 놀아주고 음식을 얻어먹는 행위였다.

③ 쥐불놀이와 두레싸움

정월대보름에는 아이들이 쥐불을 놀았다. 본래 쥐불놀이는 논둑을 태워 미리 있을 병충해나 들쥐들을 없애 농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1950년대생들은 쥐불놀이를 깡통돌리기나 달집태우기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깡통에 못으로 구멍을 내고 긴 끈을 달아서 안에 숯불과 나무를 넣어서 돌리면 불이 일었다. 이것을 한참 돌리다가 하늘로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불꽃놀이를 연상하게 했다.

은산4리 우제승(남, 1956년생)도 쥐불놀이를 기억했다. 은산4리에서는 주로 마을 앞 보가재미들과 같은 들판이나 산하천 냇가에 나가서 쥐불을 돌렸다. 골목길에서 돌리면 초가나 나뭇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진흥섭(남, 1935년생)은 두레싸움을 기억했다. 은산5리 월경마을은 은산4리와 두레싸움을 많이

했다. 두레싸움은 농기를 수평으로 놓고 누가 더 많이 흔드는가에 따라 승부를 가렸는데 이기는 쪽에 농기에 달았던 꿩장목을 빼앗고 형님 두레가 되는 놀이였다. 두레싸움에 이기려면 기수가 몸집이 크고 힘이 강해야만 했다. 또 싸움의 결과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치열하게 싸웠다.

7) 설화와 전설

① 덕암산 부엉바위 전설

덕암산(장군봉)

은산1리 정종봉(남, 1931년생)은 2006년 면담에서 덕암산 부엉바위 전설을 이야기했다. 산대(山垈)지역에서는 덕암산을 장군봉이라고 불렀다. 부엉바위는 덕암산 장군봉 남쪽 2km지점에 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우물과 오래된 참나무 숲이 자라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우물을 용의 눈, 참나무 군락은 눈썹, 구덩이는 콧잔등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해 마을 사람이 이곳을 명당으로 여기고 콧잔등에 묘(墓)를 썼다. 그런데 얼마 후 마을에 시주 왔던 노승(老僧)이 산세를 둘러보더니 큰일 났다며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 멀쩡했던 아이들이 아프고 마을 청년들이 몸져눕는 등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동네사람들은 삽과 가래를 들고 산에 올라가 묘를 파헤쳤다. 그러자 묘에서는 난데없는 회오리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용이 되기 직전의 이무기가 시커먼 피를 토하며 죽었다. 상서롭지 않은 일이 있은 뒤 후환을 두려워했던 주민들은 삼 년에 한 번씩 음력 7월이면 우물을 청소하고 제를 올렸다.

현재 우물은 그대로 남았지만 용의 눈썹과 같았던 참나무는 한 개만 남았다. 곧게 뻗은 나무가 탐이 난 마을 사람이 베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무를 베고 나자 그 사람의 눈이 멀어버렸다. 그 뒤로 산대 사람들은 우물과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졌다.

② 용눈의 절설

이번 이야기는 위의 부엉바위 전설과 연관되었다.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의 덕암산 자락에는 용의 눈이라고 하는 연못이 두 개가 있다. 두 우물은 하나는 맑은데 다른 하나는 탁했다. 어느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묘를 쓰려는데 마침 용이 승천 중이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농구(農具)로 용의 눈을 찍어서 승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승천하려던 자리에는 두 개의 연못이 생겼다. 그런데 연못 하나는 맑았지만 다른 하나는 탁했다. 탁한 연못은 농기구에 찍힌 용의 눈이었다고 한다.

정광섭(남, 1960년생), 봉화 정씨 용인공파 19대손, 진위향교 전교

일시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장소	진위면 은산2리 마을회관	
구술자	정광섭(남, 1960년생)	
면담자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봉화 정씨 몇 대손이세요?

저는 용인공파(파조 정래)로는 19대손이고, 삼봉의 21대손입니다.

부친은?

정병설이고 한학을 조금 하시다가 진위초등학교를 나와 농사를 지었죠.

은산1, 2리는 봉화 정씨가 대성(大成)인데 옛날 마을규모는 어땠어요?

우리 어릴 때(1970년대 초)는 1리가 40호, 2리가 50호쯤 되었어요. 그러다가 젊은 애들은 도시에 정착하면서 지금은 1리가 27~8호, 2리가 35호로 줄었죠. 1리는 그렇지 않은데 2리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씨 분포는 어땠어요?

우리 어릴 때는 봉화 정씨가 대부분이었죠. 나머지 성씨는 봉화 정씨하고 혼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었고, 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 하던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아무래도 마을 운영은 정씨 위주로 이뤄졌겠네요?

그렇죠. 친족관계가 영향을 많이 주었죠. 이장도 정씨들이 대부분 했고. 지금 2리 이장이 다른 성씨로는 처음으로 선출되었을 거예요.

마을 공동시설을 여쭐께요. 마을회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에는 공회당이라고 했죠. 여기 삼봉기념관 아래 주차장 있는 곳에 있었죠.

공회당은 어떻게 활용되었어요?

마을 대동회나 행사가 있을 때 썼죠.

옛날 사진을 봤더니 은산리에 유치원도 있었던데요?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공회당에서 운영했어요. 은산유치원이라고. 거기서 야학당도 운영했죠.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사람들이 방학 때 내려와서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대학 다니던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이 동네가 교육열이 높았어요. 먹고 살만해서 그랬던가 봐요. 80세에서 90세 전후에 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럼 인물들도 많이 배출했겠네요?

몇몇 있죠. 정장순씨라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 나중에 공화당 사무국장을 지냈죠. 그 분 동생은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다가 교장을 지냈고요. 셋째는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선수였고, 넷째는 정원섭이라고 서울농대를 나와서 원곡 면장도 지내고 평고 교사도 하고 그랬죠.

정호신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도 대우중공업 부회장까지 지냈으니까 출세한 거죠. 정명신이라고 동생분은 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정병목씨는 건대를 졸업했는데 사업하면서 동문회장도 지냈죠.

예전에 인터뷰하다 보니 동네에 세 분의 지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종인씨, 정종호씨, 정지용씨를 꼽았죠. 정종인씨는 일제 때 측량기술자였다고 해요. 옛날에 측량기술 가지고 있으면 눈먼 땅을 많이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분 아들이 정장순씨 형제들이죠. 정종호씨는 일제 때 임업을 했던가 봐요. 경기도임업협회 부회장까지 지내고 공도면장을 했죠. 좋은 일 많이 해서 집 앞에 송덕비도 세웠어요. 그분 아들이 정해순이고, 정지용씨는 한학자였어요. 아들이 정회식(겸와[1]), 손자가 정호신이죠. 6.25 전에는 무료 서당도 열어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이거 말고도 서당이 한 개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어요?

1리는 정효신씨가 이장을 할 때 했고, 2리는 정지열(종흠)씨가 이장을 했죠. 새마을운동 때 했던 일들은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지붕개량하고, 길 넓히고, 하수구 정리하고, 퇴비증산하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새마을운동 때 아이들이나 여성들도 많은 일들을 하던데요?

애들도 하기는 했지만 마을길 청소하거나 꽃심기 같은 거나 하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절미운동이라고 했나 밥할 때 식구 수대로 쌀을 절약했다가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 같은 걸 했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식구들이 많았죠?

식구 많았죠. 보통 한 집에 5~6명씩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합하면 10명씩 함께 살았죠.

산아제한에는 협조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때는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날 때고 아들 둘 딸 둘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이어서 정부시책이

1) 겸와는 정회식의 호이다.

라도 따르기 힘들었죠.

언제부터 산아제한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1980년대는 되어야 줄어들었죠. 너도나도 애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많이 낳아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은산리에 버스는 언제 들어왔어요?

1970년대 초부터는 다녔죠. 처음에는 합승버스였어요. 유치원 버스처럼 생긴 25인승인가 되는 버스요.

하루에 몇 대 들어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대 여섯 번 들어왔죠. 그러다가 버스 들어오고. 그때는 도로 사정이 나빴어요. 찻길도 지금 도로 말고 산 밑으로 나 있는 비포장도로였는데 먼지도 나고 좁고 질퍽대고 그랬죠.

도로 사정은 언제 나아졌어요?

1980년대 시멘트 포장을 하면서 좋아졌죠. 시내버스 다니고 나중에 아스팔트 포장하고 하면서 지금처럼 된 거죠.

우물은 몇 개였어요?

1리에는 3, 4개 있었고, 2리는 사당 아래에 하나 저기 버스종점 옆으로 하나 있었죠. 그거로 다 물길어다 먹었어요.

수량은 어땠어요?

수량은 많았어요. 뒤에 산이 있으니까 물이야 잘 나왔죠.

물은 누가 길었어요?

남자들이 길었어요. 여자들도 물동이로 긷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길었죠. 물지게로.

물 사정이 좋아진 것은 언제쯤?

1970년대 중반쯤에는 자가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정도 많이 파고. 마을에서도 간이상수도를 놨다가 1990년대 후반인가 2000년인가쯤에 송탄정수장에서 물이 들어온 거죠. 지금은 그걸 먹어요.

전기는 언제 도입되었어요?

1973년일 거예요. 정동순씨가 돈을 내서 전기를 들여왔죠. 그 양반은 일본에서 파친코하고 극장을 운영했던 제일교포 사업가인데 새마을사업 때는 평동마을하고 신촌에 소도 사서 기증하고

많은 도움을 줬어요. 민단 동경지부장도 하고 감찰부장도 지내고 했다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 여쭐께요. 이 지역의 경제 사정은 어땠어요?

여기는 논이 많아요. 계곡에 논이 있어서 산물로 농사를 지었죠. 여기는 가뭄도 별로 없었어요. 저기 은산5리 같은 마을은 힘들었어도 우리는 먹고사는 데 지장없었죠.

경지정리와 수로 건설은 언제 했어요?

그건 2000년대 초일 거예요. 그때 엄청나가 가물었는데 여기도 모내기도 못하고 난리였죠. 경기도지사도 내려오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하면서 소란을 떨었는데 그때 특별지시로 수로건설했어요.

수세는 안 냈어요?

우리는 안 냈어요. 수로를 만들 때쯤에 김대중 대통령이 수세(水稅)를 폐지했잖아요. 그 뒤로는 가뭄이란 게 없죠.

소출은 얼마나 되요?

옛날에도 마지기 당 양석(두 가마)은 나왔어요. 가물도 안 좋은 논은 대석(1가마)을 소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양석이었어요. 지금은 3가마쯤 나와요. 여기는 논이 좋아서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부유했죠.

마을의 지주는 어느 집이었어요?

우리 마을은 부재지주가 거의 없었어요. 마을지주들이 많았는데 정종인과 그분 아들 정장순씨가 부자였죠. 정장순씨는 20섬지기는 된다고 했어요.

약 6만 평은 되네요?

그렇죠. 우리 마을로는 큰 부자죠. 논들도 가뭄 안 타는 문전옥답이니까 좋았죠.

모내기는 어떻게 했어요?

모내기하고 추수할 때는 품앗이 했죠. 우리 어릴 때는 작목반이 있었네. 1리하고 2리가 따로 했는데 이앙기가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죠.

농번기 일손(품꾼)들은 어떻게 수급했어요?

우리도 평택역에 가서 일꾼들 데려다 썼어요. 거기 가면 머슴하러 온 사람들 많았거든요.

보통 농사를 얼마만큼 지어야 머슴을 썼어요?

1섬지기(약 3,000평)면 머슴 한 명을 썼죠. 옛날에는 순 손으로 일하니까 머슴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정선생님은 농사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는 논 50마지기는 되었죠.

그럼 머슴 한 명 가지고는 안 되었네요?

머슴은 한 명만 쓰고 농번기 때만 쓰는 달몸이라고 있어요. 농번기에는 달몸도 한 명 썼죠.

세경은 얼마를 줬어요?

상머슴은 많이 줬어요. 처음에는 6가마 주다가 8가마를 줬고 나중에는 10가마, 12가마까지 줬죠.

상당히 많이 줬네요?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썼죠. 상머슴은 논 갈고 밭 갈고 다 할 줄 알아야 했거든요.

달몸들이나 품꾼들은 얼마씩 줬어요?

그건 시대마다 다른데 한두 가마 수준이죠. 품꾼들은 쌀 한 말에 4일도 일해주고 5일도 일하고. 그러다가 점차 올랐죠.

농업기계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동네도 1970년대 후반부터라고 봐야죠. 경운기가 그때 보급됐으니까. 정해순씨하고 정병기씨가 경운기를 처음 샀을 거예요.

이앙기하고 콤바인, 트랙터는 언제 보급됐어요?

이앙기는 1980년대 초반은 돼야죠. 콤바인은 조금 더 늦고, 트랙터가 그 뒤고.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평택에서 사오죠. 거기에 대리점이 있으니까.

남흥철공소에서 사왔나요?

그랬던 거 같아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농기계를 구입했어요?

농사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주로 구입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 작동도 어렵고.

요즘 기계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지으면 수지타산이 맞나요?

그러니까 어렵죠. 곡가는 떨어지는데 기계 값하고 농약값, 비료 값은 오르고...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해요?

우리 동네(1, 2리)는 하우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마을 뒤로 산이 많아서 산그늘도 일찍 오고 일조량도 떨어지고 논들도 푹푹 빠지고 해서 어렵죠.

축산업은요?

축산업도 거의 안 해요. 정효섭씨라고 한 집이 했었죠. 정도전 사당 아래에 축사가 있었는데 냄새도 많이나고 해서 민원이 있어 은산3리 쪽으로 옮겼죠. 외지인이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농가부업은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야 부업이라고 할게 있나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나무해다가 송탄에다 팔고 그랬죠. 여기가 땔감은 많아요. 아궁이에 불 땔 때까지는 했을 거예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마니를 많이 쳤는데 그것도 팔지는 않았고.

엿을 만들어 팔거나 하지 않았어요. 도일동에서는 엿을 많이 했다던데요?

여기는 하는 것 못 봤어요.

마을에 새마을 주택이라고 뾰쪽한 지붕을 한 집들이 많던데요?

1970년 전후 고속도로 놓으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은 집들이죠. 여기가 고속도로 가시권 지역이잖아요. 정부에서 정리 융자를 해줬는데 1리는 6집, 2리는 더 많은데 몇 집인지 모르겠네.

주택개량은 언제 했어요?

새마을운동 때 슬레이트 지붕하고 벽돌집들을 많이 지었죠. 입식 부엌을 한 것은 1990년 전후나 되어야 했고요. 아무래도 입식을 한 것은 전기와 가스 들어오고 보일러 놓고 하면서 시작된 거죠. 전기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사용하고.

은산1, 2리는 집성촌이잖아요. 같은 성씨끼리 살면 제사도 많고 촌수라든가 따지는게 많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야 학교 학번으로 나누지만 어른들까지만 해도 촌수 따지고 항렬 따지면서 대했죠.

설날에 세배할 때는 8촌까지는 했나요?

동네 어른들은 다 한 것 같고 8촌은 아녀도 가까이 사는 친척들은 모두 했어요.

시제는 언제 지내요. 시제 지낼 때는 몇 명이나 모이고요?

우리는 음력 10월 초부터 시작하죠. 비용은 종답 농사지은 것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종답을 하인들이 지었어요. 옛날에는 시제 지내면 제사 음식이라도 하나 주워먹으려고 20~30명씩은 모였는데 요즘에는 열 명쯤 모여서 지내죠. 아무래도 직장 다니고 외지에 살고 하니까 어려워요.

은산리 일대가 상계(喪契) 조직이 좋더라고요. 소동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동계는 은산1, 2리와 은산3리, 진목리 통미(산), 평동, 신촌으로 나눠서 운영되었어요.

소동계 좌목을 보면 상계와 하계로 나눠지던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혹 하인들도 가담하면서 생겨난 것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소동계는 지금도 운영되나요?

운영이 잘 되다가 1990년대 초반에 해체되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기 3리에 산대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정종호, 정동순씨가 주도해서 세운 학교요.

정동순씨가 재정을 부담했던 것이 아닌가요?

공도면장을 지낸 정종호씨가 주도했죠. 그 때 (봉화정씨) 종중회장이 그분이었어요. 정동순씨는 도움을 줬을 뿐이고. 문중에서도 돈을 냈어요.

소동계 해체 문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산대학교에 풍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금을 어떤 도둑놈이 훔쳐 가다가 발각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가문의 위세가 대단할 때인데, 도둑놈을 경찰에다 신고하지 않고 마을에서 데려다가 멍석말이를 했어요. 옛날에는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혼내주고는 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집단 폭행이 된 거죠. 도둑질했던 놈이 경찰에다 고소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죠.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문제 해결한다고 소동계 돈하고 문중에서도 얼마를 댔고, 집집마다 거출도 했어요. 그래서 소동계가 해체된 거예요. 운영이 잘 됐었는데.

상여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상여는 2리 입구 비석 세운 데 옆에 있었죠. 소동계에서 관리했어요.

어떤 마을에서 사용했어요?

주변 마을에서 다 썼죠. 기동, 방촌, 평촌, 신촌....

은산1, 2리가 줄다리기로 유명하다면서요?

대보름에 했죠. 1, 2리를 본동이라고 하고 평동, 신촌, 통미, 미동을 빈동이라고 불렀는데 본동과 빈동이 나뉘어서 했어요.

짚은 어떻게 구했어요?

짚은 마을 청년들이 대보름 1주일 전부터 마차를 끌고 집집마다 돌면서 거출했어요.

줄은 언제부터 꼬았고요?

보름 며칠 전부터 꼬았죠.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줄이 두꺼워서 오래 걸렸죠. 암줄과 숫줄을 따로 꼬았고.

매년 다시 했어요, 아니면 지난해 사용한 것에 덧씌웠어요?

매년 다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여기 큰길(마을 회관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나 어릴 때라 기억이 가물거리네.

여기도 암줄에 여자를 숫줄에는 남자를 올라타게 하고 놀았나요?
오래되고 어릴 때가 기억이 안 나요.

대보름 낮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지신밟기 하죠. 우물에다가 고사반도 올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지신밟고 음식 대접받고.

연말에 대동회도 개최하나요?
하죠. 12월에 하는데 이장도 선출하고 결산도 하고 그러죠.

은산1, 2리는 교회가 없어요?
산하리 평동마을에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되요?
얼마 안 되요. 절에 많이 다니지.

절은 어디를 많이 다니고요?
만기사도 다니고 신촌에 감로암이라고 거기도 다니고. 자세히는 몰라요. 여자들이 많이 다녀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요?
성당도 거의 없어요.

정중임(여, 1935년생), 은산1리, 봉화정씨 소종가 정회식의 손녀

일시	2022년 9월 30일(금)
장소	정중임씨 자택
구술자	정중임(여, 1935년생)
면담자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어르신은 이곳에서 태어나셨나요?

이번에 헐어버린 집 말고 전에 헐어버린 집, 그 전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집을 여러 번 지었네요. 태어난 집은 초가였나요?

18년 전에 헐어버린 집 그 전 집도 6.25 전에 지었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그 전에 집은 초가였고. 초가였다가 기와를 얹은 거지. 내가 태어난 집이 그 집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와봤던 기억으로는 안채 가운데에 신주를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거주하셨던 거름방(건너방)에 신주 모셨지. 대청 위에다가 할아버지하고 아버님 사진 걸어놨고.

조부와 아버님 성함은?

할아버지는 정회식, 아버지는 정지용, 우리 남자 동생이 정호신이죠.

정겸와라는 분은 누구세요. 정광섭씨 인터뷰할 때 조부님 성함이 '겸와'라고 했는데 혹시 호를 그렇게 쓴 것 아닌가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어르신은 형제가 어떻게 되요?

우리는 6남매요. 우리 할아버지는 3남 1녀를 두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6남매를 둔 것이지.

아버님 형제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아버님(정지용)은 할아버지에게 한학 배우고 국민학교 졸업한 뒤 농사지으며 집에 사셨고, 둘째 작은아버지는 우리 집 옆에 사셨고, 막내 삼촌은 서울에서 상업학교 졸업하고 재무부 회계과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근무하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안 어르신들 수명이 짧은 편이었네요?

그래요. 다들 장수하지 못했어. 우리 아버님은 교통사고로 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수하지 못하고.

아버님은 고향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 따라서 서당에서 공부도 가르쳤고 마을 이장도 보고 종중 일도 하면서 돌아다녔죠. 할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버님 삼형제 모두 필적도 좋으시고 그랬죠.

할아버지와 아버님 성품은 어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성격이 불같았죠.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냈어요. 아버님은 성품이 점잖았어요. 국민학교만 졸업했는데도 필적도 좋으시고 품위가 있었죠.

어르신은 몇째고요?

내 위로 언니가 한 분 있어요. 계용이라고 1934년생인데 돌아가셨지. 그 밑으로 나였고 아래로 계숙이라는 여동생이 있어요. 계숙이는 이름이 싫다고 나중에 ‘원형’으로 고쳤지. 그 밑이 호신, 명신이예요. 여섯째 여동생도 일찍 갔지.

일찍 작고했네요?

우리 막내는 40도 안 돼서 갔어요. 딸만 셋 낳고.

어르신 어머님은 위로 딸만 내리 셋 낳는 바람에 시부모님에게 구박받았겠어요?

우리 조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어른들이 어디 그래요. 젊잖았어요.

할아버지,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고 6개월쯤 지나서 돌아가셨데요. 아버님은 서울에서 종중회의를 마치고 미아리 살고 있는 동생을 보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우신 분이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날벼락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날벼락이죠.

어르신은 이 집에서 나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하신 거예요?

응

딸들은 모두 초등학교만 가르친 거예요?

다들 초등학교예요, 딸들은. 언니하고 나는 초등학교 나왔지만 그래도 셋째는 수원의 매향학교(매향여고) 다녔고... 그래도 셋째는 막내잖아요. 하긴 개가 막내는 아니예요. 막내 위였지. 남동생들은 대학다니고 그래서 셋째 여동생도 대학 나오고 그랬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건 생각이 잘 안 나.

아들들은 모두 대학을 다녔네요?
그렇지.

정호신(큰동생)씨는 어느 대학을 다녔어요?
그 동생은 서울 도상(상업고등학교) 나와서 한양대 다녔다고 하더라고.

상고 졸업하시고 한양대 공대를 졸업한 거네요. 대학졸업하고 대우그룹에 입사한 거고요?
우리 삼촌이 제일 위에 있으니께(재무부 근무) 거기에서 넣어준 거지. 대우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부회장도 하고 그랬지.

막냇동생은 뭐 하셨어요?
그애는 용산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졸업하고 대우계열에 다녔지. 직장에 있다가.... 그런데 속을 썩이네. 지금도 잘 사는데 자꾸 욕심부리고.

집터 문제 때문이군요?
이 집터가 800평이예요. 우리 큰 동생한테 다 준건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 해서 도장 찍어 준 건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건 아니다' 라고 (둘째 남동생이) 들고 일어나서....

동생이 집에 대해서도 일부 권리를 주장한 거네요?
(동생이) 다 받았어요. 집도 두 번이나 사주고 땅도 주고 산도 주고 뭐 안 준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어째든 집안일인데 잘 상의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어르신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뭘 하셨어요?
하긴 뭘 해. 밥해 먹다가 시집갔지.

집에서 살림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시킨 거지.

어르신 어릴 때 집안의 재산은 어느정도였어요?
우리 집 재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일궜죠. 재산은 할아버지가 관리하셨지. 할아버지가 장만하시고 아버지도 장만하시고 그렇게 해서 퍼진 건데... 지금은 땅 많은 놈만 잡아먹는 세상이라 정부에서 농사지은 사람은 아주 땅 팔아야 세금만 잔뜩 내고 제 값도 못 받아요.

그럼 대략 얼마나 되었어요?
서너 섬 지기나 되었나.

만 평은 조금 넘었네요. 그냥 먹고 살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살만했죠.

여기 땅이 다른 지역보다 좋았으니까 그 정도 재산이면 소득이 많았겠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한학자였는데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수원의 명륜학교(수원향교 명륜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다니시고 당신이 실력이 있으시니까 혼자 공부를 많이 하셨지.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가르쳐주고.

아버님은요?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지.

어르신 혼인은 언제 했어요?
26살에 갔어요.

많이 늦었네요. 왜 늦어졌어요?
언니가 늦게 가는 바람에 늦어진 거지.

언니가 늦게 가신 거군요?
언니가 늦으니 내가 늦어진 거고 그렇죠.

그 시절에는 연예 결혼은 아니죠?
연애는 아니지. 집에서 밥이나 해 먹고 하다가 어른들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가는 거고.

어르신은 누가 중매했어요?
친척이. 친척이 해주서 안중으로 시집간 거지.

친척 중매로 안중으로 시집간 거네요. 집안도 좀 봤어요?
그런 것도 보죠.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

바깥 어르신은 집안이 어디예요?
함평이지.

함평 이씨군요?
내기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야. 구루물이라고.

거기는 운정리잖아요. 현덕면 운정리. 그 마을에 이계은 어르신이 사는데 아세요?
우리집 양반도 이계은이예요. 구루물 그 양반하고 나이하고 이름이 같지. 그 양반(현덕면 운정

리 이계은씨)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집 양반이 전화좀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계은씨가 '신관이 좋은가 봐요, 목소리가 좋은 거 보니' 라고 해서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저는 엊그제 작은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뭔 말을 해. 그 양반 큰아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였나 교통사로로 잃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되었더라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고는 끊었지. 계은씨도 어릴 때 어머니가 운정리에 재혼해서 들어온 건데.

어르신은 결혼할 때 맞선은 안 봤어요?

우리 집 양반이 군대에 있었을 때야. 혼인 이야기 오가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봤지.

아니 결혼 약속이 다 되었는데 나중에 보는 것이 무슨 맛선이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도 못 하잖아요?

사진 교환도 안 했고. 그래서 사진도 못 보고 하게 된 거지. 이교범씨라고 알아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교범씨 마나님이 우리 집안(봉화 정씨)에서 시집을 갔어. 그렇게 연관되서 중신을 한 거지.

맛선도 안 보고 집안 믿고 혼인한 거네요?

서로 믿고 하는 거지.

시댁은 살만한 집이었어요?

우리 시댁은 살만한데 시집가니까 여러 형제라, 우리집 양반이 오형제 중에 넷째 거든. 그러니까 차례가 안 오지.

시아버님 함자는 어떻게 되요?

일자 헌자. 큰 백부님은 국자 헌자.

이국헌씨는 포승 일대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는데요?

큰집은 부자였죠. 우리 시아버님이 이국헌씨 넷째 동생이었어요. 지금도 부자예요. 부자더라고. 우리 시아버지도 그렇고 우리집 양반도 그렇고 넷째니까 받은 것은 많았지.

혼례는 어디에 올렸어요. 구식으로 했어요?

우리집에 마당이 넓었어요. 마당이 크니까 여기서 하게 되었지.

옛날 혼례가 궁금한데요, 친정에서 혼례를 치르면 그날은 이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나요?

우리는 잠도 안 자고 그냥 갔어요.

하룻밤도 안 자고요?

그전에는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 시집에 가서는 운정리 계은씨네 옆이 우리 집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거지.

지금은 집이 없고 텃밭이던데요?

우리 장조카가 죄다 팔아먹었지. 우리 시아주버니 돌아가시고 나서 죄다 팔아먹고 서울 가서 살고 있지.

하룻밤도 안 자고 가서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시작한 거네요?

그렇지. 재행 다녀온 뒤에는 시집살이했지.

재행도 다녀왔어요. 며칠 만에요?

재행은 3일 만에 오는 거지.

시댁에 들어갈 때는 가마 타고 갔나요?

그때는 가마를 안 탔어요. 차 타고 가고 오고 그랬어.

차가 있었어요?

이 집이 그러니까 나는 자가용을 타고 갔는데 저쪽에서는 트럭을 타고 왔더라고.

어르신 댁에 자가용이 있었으면 상당한 부자였네요?

삼촌이 재무부에 계실 때니까 차가 있었지.

재행을 오면 며칠을 묵다 가요?

하룻밤 자고 갔지. 그때가 우리 집 양반이 군인이었으니께 다시 들어가야 하잖아.

그럼 결혼하고도 한동안 독방 신세로 지낸 거예요?

1년 반은 혼자 살았죠. 1년 반.

독수공방하셨네. 세간(분가)은 언제 났어요?

결혼하고 큰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우리 양반 제대하고 몇 달 더 살다가 세간났죠. 큰집에서 한 2년 못 되게 살았어요.

세간 날 때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는 받은 것도 없어요. 큰집에서 집도 안 해줘서 곁방살이 했어요. 땅도 5마지기를 주면서 세 형제가 나눠 가지라고 하니께 그게 얼마나 되요.

부잣집인데 동생을 곁방살이 시켜요?

그런데도 집을 안 사주더라고 형이. 5마지기 땅도 세 형제가 팔아서 50만 원씩 나눠가졌어요.

그거 몇 푼 되요. 진짜 옛날얘기지.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여.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집 양반이 제대 후에 대우에 들어갔어요. 거기 있었는데 월급도 적고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집 지킬 사람도 있어야 하니까 내려온 거지.

대우그룹에서는 몇 년을 근무하신 거예요?

대우에서는 한 3년은 있었어요.

오래 안 계셨네요?

그러다가 애들도 키우고 집 볼 사람도 필요하고 하니까 여기로 온 거지.

대우 다닐 때는 서울에서 사셨어요?

아니 대우자동차니께 인천에서 살았지.

그럼 인천에서는 얼마나 사신 거예요?

인천서는 6, 7년은 살았을 거예요. 6, 7년 살다가 여기로 내려왔지. 거기서 벌어서는 애들 공부 못 시켜. 여기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아들딸이 4남매인데 다 대학 가르치고 그랬지.

여기 내려온 뒤로는 호구지책이 있었나요?

좋잖아. 남동생이 우리 집 땅 있는 거 농사 지어서 우리 다 먹으라고 내줬지. 그거로 애들 가르치고 그랬다고. 우리 동생이 그러니까 큰동생이 사슴 기르라고 사슴도 사주고 해서 그것도 하고 기틀을 잡아서 애들 공부시켰지.

얼마나 길렀어요?

10년은 넘게 길렀지. 그렇게 40년 살았네요.

큰동생 정호신씨가 농사짓고 사슴 길러서 먹고살라고 배려한 거네요?

동생 때문에 애들도 가르치고 다 그런 거지. 우리 4남매 대학 시키고. 애들이 재주는 있어도 학비 들어가잖아. 우리 큰딸은 대학 학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농사지으며 사슴도 키우며 지금까지 40년 살았던 거네요?

사슴은 지금은 안 키워. 기운 없어서 다 팔았지.

자녀가 4남매라고 했나요?

4남매지. 아들 둘 딸 둘.

모두 대학 다닌 거예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영전자 다니고, 작은아들은 순천향대 나와서 직장 다니고. 딸 둘은 서울교대 나와서 교사를 해요.

마을 이야기를 여쭐께요. 옛날에 우물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우리집 밑창이에도 우물 하나 있었어. 우리는 집안에 우물이 있었고. 우리 우물은 저 뒷산에 있어요. 지금도 그거 먹어.

동네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큰우물이 우리 집 옆에 있었고, 그거 지금도 있을 거여. 우리 집 일대 열 가구(10호)쯤은 여기 우물 길어다가 먹었지. 우리 집 내려가서 논가운데도 있었고 버스종점 앞 팔각정 있는데도 하나 있었고. 거기는 물이 잘 나와. 2리 사람들이 많이 길어다 먹었지. 노인정 옆에도 있었는디 거기도 2리 사람들이 길어다 먹었고. 종점에서 올라오다가 철조망 울타리 친 집에도 우물 작은 것이 있었고 여기저기 많았어.

물은 누가 길었어요. 어르신은 물지게를 진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일꾼들이 져다 주는 것 먹었지.

일꾼은 몇 명이었어요?

우리는 농사가 많아서 둘을 뒀었어.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머슴을 말하죠?

그렇지. 그때는 동네 하인은 있었지만 집에는 없었지.

나무(땔감)은 누가 했어요?

나무도 일꾼들이 해줬지.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면서 나무해다 주고 다했지. 아주머니들도 큰일 생기면 우리 집으로 죄다 와서 도와주고.

큰일 있을 때는 아주머니들이 도와줬군요?

동네 아주머니 말고도 옛날에는 마을에 아랫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 동네에도 아랫사람(하님)들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지. 지금 다 떠나고 죽고 해서 그렇지.

아랫사람들이라면 하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하인이라고 했지.

그 사람들도 동네에 같이 살았네요?

같이 살면서 일 도와주고, 큰일 있으면 도와준 뒤 뭐 좀 얻어먹고 그랬지. 그 전엔 여자들은

마땅한 일이 없잖아. 남자들이 다 일하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큰일 치르면 와서 도와주고 좀 얻어 먹고...

옛날에는 여성들을 하찮게 대했죠?

그렇지, 여자들은 품을 팔려고 해도 안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몰라도 일 못하면 품팔기도 어려웠어.

품삯은 얼마를 줬어요?

우리는 품 팔아본 적이 없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쌀 한 말 받고 5일을 일해줬다고. 가물 때는 열흘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6.25 때 우리 집 옆에 헛간이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50, 60명씩 와서 살고 그랬다고. 트럭으로 실어다 봐서 살았지.

그분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 옆에 아까 선생님 내려온 데 있잖어 거기에 헛간이 큰 게 둘 있었는데 거기서 살았지. 6.25때는 모든 게 엉망이었지 뭐. 미국에서 원조로 들어오는 거 그거 조금씩 죽 끓여서 먹고살았고.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그냥 얻어먹으러 댕기고 별짓도 다 했지.

앞에서 여쭸던 이야기인데요, 이 동네는 우물도 많고 물도 넉넉했네요?

그렇지. 우물은 많았지. 물이 없어서 헤메지는 않았는데 가물면 힘들었지. 가물 때는 잠도 안 자고 물을 받았나봐. 난리였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지만.

이 집(정중임 댁)으로 물을 빌리러 오고 그랬겠네요?

응 물을 빌리러도 오고 그렇게 했어요, 가물 때는. 가물 때는 물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어떻게 모른채 해.

마을에 디딜방아 같은 것도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도 디딜방아 있었죠. 동네에도 있었고. 네 개는 있었던 거 같어. 1, 2리만 네 개. 아랫말에도 있었을 거여. 여기 요 밑에도 있었고. 여기 1리를 윗말이라고 그래요. 저기(2리)는 아랫말이라고 하고.

방촌은 아랫말이고 기동은 윗말이었네요. 어르신 댁은 집안에도 디딜방아가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집안에도 디딜방아가 있었어요.

연자방아는요?

연자방아는 없었어요. 연자방아는 여기 올라오는(2리에서 정중임씨 댁으로 올라오는 마루턱) 마루태기에 2층집 있잖아요, 그 집에 연자방아가 있었지.

연자방아는 동네에 한 개는 있었다는 거네요. 디딜방아를 찧으려면 몇 사람이 일해야 해요?
여덟 사람은 필요했지. 여섯 명이 밟고 두 명이 밑에 가서 확에다가 벼를 담고.

엄청 컸네요?
다리가 이만(큰 손동작)하니까 이쪽에(왼 다리) 세 사람, 이쪽에(오른 다리) 세 사람이 서면 여섯이고, 밑창에 둘이 더 있으니까 모두 여덟이지.

8인용이네요. 여덟 명이 했으면 엄청 큰 것이잖아요?
컸죠. 거기다가 벼 넣어가지고... 공이가 이렇게 있으면 확이 아래에 있고, 확 있는디서 두 명이 일하고 오른 다리, 왼 다리에 세 명씩 서서 밟으면 방아가 찧어졌죠.

보통 한 번 찧으면 얼마씩 할 수 있었어요?
한 번에 한 말쯤은 했어요. 가만 있어라, 우리 집에 한 개 있었고, 광섭이네(정관섭씨) 한 개, ... 광섭이네 큰 집 안에도 한 개, 정씨네도 있었고 이렇게 4개 있었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했어요?
다 같이 썼지. 서로 찧어야지 혼자는 못하잖아.

크기는 어땠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크기는 똑같아.

연자방아가 디딜방아보다는 나아요?
연자방아는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잖아. 소가 하니까 한 번에 많이했지.

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집 소가 있잖어. 그거 쓰고 삯을 줬지. 저기 올라오는데 그 집 앞에 돌이 지금도 있을 걸. 철망 두른 집 뒤에 있는 거.

남의 것 쓰면 어째든 삯을 줘야 해ㅆ네요?
당연했지.

이 동네에 방앗간은 언제 생겼어요?
옆에 살고 계시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다른 사람 셋이 어울려서 우리 마당에 놓고 찧었어.

작은아버지 함자는 어떻게 되요?
지자 행자, 정지행씨. 이분이 둘째 삼촌이야. 이분께서 동네사람 둘하고 합자해서, 그 당시에는 발동기 갖고 다니며 하는 거잖아요.

일본제 구보다 발동기였나요?
그건 모르고.

마당에서 방아를 찧었으면 마당이 상당히 컸네요?
우리 마당이, 저거 저렇게 집을 허물어서 그렇지 큰 마당이예요. 동네서는 큰 마당이었지.

보통 한 가마니를 찧잖아요. 삯은 얼마를 줬어요?
세 되 줬나, 다섯 되 주었나.... 그건 난 몰라요. 그런거 관심 있었나 뭐.

마을에 정종봉 어르신 계시죠?
그 양반 요즘에 바깥에 못 나와.

사모님이 더 아프셨잖아요?
사모님은 너무 일을 많이해서 그래. 낮에 일하고 밤에도 잠도 안 자고 빨래하고... 밤에 빨래를 했어요.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러면 안되요.

어르신은 은산 1, 2리의 옛날 지주들 기억나세요. 6.25 전에 땅 많이 소유했던 분들요. 일본사람들도 살았나요?
일본 사람들 땅은 없었어요. 여 아래쪽 정병기씨, 그 집 땅이 좀 많았고 정장순씨가 제일 많았던 편이고. 제일 많은 집은 아무래도 정장순씨네라고 해야지.

정장순씨는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분 아니예요. 그 분보다 아버지가 더 부자였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

저 아래 산하리 평동의 공도면장했던 분 계시잖아요. 그 분도 부자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 해순이 아버지인데... 생각 안 나네.

외부 사람(부재지주)는 없었단 말이죠?
모두 정서방네가 부자였어. 외지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고. 정섭이네도 부자고 우리 삼촌네도 부자고. 장순이 삼촌도 부자였고. 다 정서방네가 부자였지. 저기 신촌(산하리)은 종도씨라고 그이도 면장했는데... 정경도라는 분이 부자였고. 그런데 나중에 집도 다 팔아먹고 그랬지.

상리(3리) 쪽에는 부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좀 살긴 했어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

옛날에는 소작인도 많았잖아요. 마을에 소작농은 얼마나 되었어요?
집안 땅들은 거의 다 소작 줬어요. 소작 준 거 많아요. 그것이 토지분배 때 빼앗긴 것이 많았지.

소작주면 보통 얼마를 받아요?

그건 난 몰라요.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분배농지(농지개혁) 할 때는 그 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소작농)한테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그때 재산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지...(침묵)

어르신 댁은 분배하고 남은 땅이 1만 평 정도 되었던 건가요?

많았죠, 많아서 분배되고 또.. 이제... 토지 분배할 때 조상답(종중답)으로 해 놓으면 덜 빼앗겼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는 종중답으로 묶어 놓고 해서...

다른 지주들도 토지가 많이 줄었겠어요?

우리는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다시 사고 그랬어요. 이 아래 정일O은 땅을 내놓고 다시 구입하고, 다른 사람들 내놓은 것도 차지하고 해서 부자되었어요.

그럼 어르신 댁은 땅을 빼앗기기는 했는데 그것을 다시 산 거네요?

막말로 우리같은 집이 따로 산다고 치면, 우리 할아버지(정회식)가 우리 큰언니, 그 언니가 살았으면 100살이 넘었거든 그 언니 낳고서 샀는데 그때 샀던 가격으로 따지면 분배하고 받은 것은 헐값이지. 지금도 땅 팔면 남는 거 없어요. 우리 동생이 30년쯤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땅을 팔았는데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이 없더래요. 우리는 직불제 신청을 안 했더니 동생(정호신)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땅을 파는데 세금이 더 많더래요. 그냥 거져 나라에다 준 거였어요.

농민들도 세금이 그렇게 높나요?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직불제 지원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동생도 서울에 집하고 땅이 있으니 안 되고 나도 소작주고 농사를 안 지으니께 그렇게 된 거죠. 빨갱이보다 더해요. 법을 모르고 땅을 팔면 손해요 손해.

땅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게 나은 편이네요?

정광섭씨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땅을 줬는데 서울에 사는 아들을이 내려와서 농사를 조금 지었대요. 그거 팔 때는 아주 돈 많이 받았데요. 지금 우리 큰 동상(정호신)은 지금 자기 앞으로 있는 거는 저기(동막골)에 있는데 그거 농사지어서 식량 가져다 먹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판다고 하면 남는 것이 하나 없게 생겼어요. 세상에 그런...

그래도 그렇게 세금 낸 거로 정부에서 어르신들 연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몇 푼이나 준다고...

이 마을은 교통이 무척 불편해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걸어서 진위학교 다녔죠. 우리 애들은 내가 서울로 인천으로 데리고 댕겨서 나중에 우리 내려오고도 거기에(인천) 방을 얻어서 저희끼리 밥 해먹고 다녔어요.

어르신이 진위학교 다닐 때는 어디로 걸어다녔어요?

지금 길(마을 동쪽 삼봉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은산)3리 뒤로해서 공동묘지 지나서 큰길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봉남리 냇가(진위천)에서 뛰엄다리가 있었어요. 거기 넘어 다녔지. 비와서 물이 불어나면 업어서도 건너고 저기 다리(국도 1호선 신리교)로 돌아서도 다녔고.

그때도 큰길이 있었네요?

옛날에는 마차길이었지. 나중에 넓혔어요. 저기 봉남 5리로 갈라지는 곳에는 옛날에 산이 있었다고, 지금은 공장도 짓고 그랬잖아, 그게 산이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적에는 그게 다 산이었어요. 그쪽에는 공동묘지도 있고 좀 무서운 데였어요.

공동묘지는 어디쯤에 있었어요?

3리쯤에. 그쪽은 조금 무서웠지.

공동묘지에는 어떤 사람들 묘가 있어요?

거기야 아무나 묻는 거지. 종중 땅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아무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쓰는 거지. 자기네 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산에다가 묻었지 거기 가나.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묻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동묘지도 아니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워낙 산 있는 사람이 많아서 공동묘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납골장에 가는 사람도 많고.

공동묘지는 언제 생겼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있었지. 왜정 때 생겼을 거예요.

상여는 동네 상여를 썼나요?

2리 마을 입구에 삼동네(은산1, 2, 3리) 상여가 있었어요. 거기 남건토건이라고 쓴 간판 아래에 있었지. 옛날에는 거기하고 그 아래 논 가운데 상여틀이 한 개가 있었어요.

그 상여를 같이 사용한 거죠?

산대(山垈) 일대가 다 썼어요. 여기가 정씨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지. 한 개가 있으면 둘이 죽으면 곤란하니까 두 개를 장만한 거고. 저 아래 섭이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하루 상관으로 돌아가셨지. 그때 두 개를 모두 사용했어요. 섭이네가 삼추(삼취)여.

삼추가 뭐예요?

마누라가 셋이라는 말이지. 초추(초취)는 딸만 세 명 낳고 죽었고, 재추(취)를 얻었는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열일곱 살 먹어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하나 더 얻어서 셋이네. 딸들도 어려

서 죽었고. 둘째 부인 아들이 죽어서 후손이 없으니까 부인을 또 둔 거여.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께 둘째 부인이 셈이 났는가벼.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러니께 섭이 어머니가 또 아들을 낳아서 아들 둘에 딸 하나 낳고 또 낳다가(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애들 키우며 살은 거예요. 뒤치다꺼리 다 한 거지.

그분은 지금 살아 계셔요?

아니, 돌아가셨지. 그분은 시집올 때 재산도 가지고 온 양반이야. 두 번째 부인이. 그 두 번째 부인이 처음 시집갈 때는 감나무에서 ㄸ러어져서 불구자가 된 사람한테 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후사 없이 죽으면서 재산을 가지고 재가한 거야. 그러다가 섭이 엄마가 애를 낳자 샘이 나서 아이를 낳은 거야. 한 집안에 여자 둘이서 사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섭이 어머니가 애를 낳다 죽은 거야. 셋째인가 넷째인가 낳다가. 재산도 섭이가 거의 받았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 두 아들은 권한이 없었다고. 조금 받았나 어쩐지 모르겠네. 어째든 재추, 삼추하면 집안이 안 좋아요.

은산리는 상여 나갈 때 선소리는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선소리나 상여 메는 것은 상(상민층) 사람들이 했어요. 동네사람들도 안 하고 어른들도 양반이라고 안하고 해서 상이 나면 다른 데서 데려오기도 했어요. 외지사람들을 데려다가 쓴 거지. 동네 사람들이 상여 메기 시작한 것은 40, 50년쯤 되었나...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동네 사람들이 메기 시작한 것은 나중 일이네요?

우리 오고 난 뒤(인천에서 은산리로 낙향한 40여 년 전)에도 동네사람들이 하더라고. 할 사람이 없이니까.

그러니까 40여 년 전 어르신이 은산리로 내려왔을 때는 동네사람들이 한 거네요?

그렇지. 상(상민층) 사람들 마을 떠나고 하대받는 게 싫어서도 떠나고 나니까 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저희 또래(60대)쯤 되면 학교 선후배나 나이로 따지지 양반, 상놈은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그 영향도 있겠죠?

그렇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집은 하인 집이고 어떤 집은 양반 집이었어도 진위국민핵교 같이 다니면 형님, 동생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틀이 박힌 거지. 틀이 바뀌니까 동네서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따지더라고. 요즘은 결혼도 집안 안 따지고 하잖아.

어르신 댁은 절기 따라 음식해 먹고 그랬나요?

우리 어머니는 해 드셨지. 절기마다 제사도 차리고 다 했어요.

제사는 몇 번 차렸어요?

4대 봉사 한 거지.

그럼 최소한 여덟 번은 지냈네요?

그렇지, 부부니께 여덟 번 지낸 거지.

지금도 4대 봉사해요?

우리 동생(정호신)이 여적까지 했는데 아들이 죽으면서 절로 보냈어. 절에다가 위패 모시고 있지.

제사 지낼 때는 여기 와서 했어요?

여기 와서 지냈어요. 그냥 그랬던 건데 내가 조상들을 이렇게 대우했는데 큰 아들이 죽었다며 안 하려고 해서 그냥 절로 모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동생이 그냥 절로 다니며 제사 지내요.

어떤 절에 모셨어요?

서울에 있는 절이지. 어딘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옛날부터 교회도 없고 하니까 절에 많이 다녀요. 저 아래 산대교회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요. 은산1리에서 다니는 교인은 셋이야. 아랫동네(2리)는 둘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들을 안 다니더라고. 교회 있는 동네(산하리 평동마을) 사람 둘하고 여기 있는 집, 끝머리 들어오는데 사는 노인네 하나 댕기고. 주로 절을 많이 가지.

어르신은 어디 절 다니세요?

우리는 산하리 들어가는 데 감로암이라고 새로 생긴 절에 댕기죠. 우리 어머니도 절에 댕기긴 했었는데, 반제(공도읍 반제리) 거기에 있는 절(운수암)에 다녔어요. 거기 다니시다가 여기 봉남리 절(원각사)에 다니시다가 돌아가셔서 나는 감로암으로 옮겨왔죠. 감로암이 조계종이고 그래서 감로암에 다니기 시작한 지 근 40년 됐어요.

그럼 어르신 인천에서 낙향한 뒤로 줄곧 다니셨네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요?

다 각자 댕겨요. 저기 만기사도 좀 다니고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보국사도 다니더라고. 저기 서탄 장등리에 있는 보국사. 우리 노인회장은 강원도에 있는 절에 다니고.

어째든 불교 믿는 사람이 많네요?

제일 많이 믿는다고 봐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성당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2리 조이장님이 성당에 나간다고 하드만.

그러니까 마을에서 절에 많이 다니고 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은 적네요?

얼마 안 되네. 초파일이면 여기는 절에 가는 사람이 많어. 그래도 한 가지 믿음은 있어야 하니까.

옛날에 어르신댁을 왔을 때는 터주도 있고 성주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다 있었지.

지금은 안 해 놓으신 거죠?
다 우리 어머니가 부수고 가셨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우리엄니, 90세로 가셨는데 여기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셨어. 아니 어머니가 93세에 작고하셨네.

어머니와 몇 살 차이세요?
이제 생각도 안 나요.

큰언니와 어머니 나이 차이는?
우리 어머니 열일곱에 시집오셨는데, 우리 언니가 살아 있으면 91살인데....

따져보면 1904년생이네요. 당시 집안에 섬겼던 신은 뭐가 있었어요?
그 때는 그냥 제사만 지내고 터주가리가 있었고...

터주가리는 언제 만들어요?
가을에, 가을에 떡 해먹을 때.

터주 안에는 무엇을 집어 넣어요?
하나는 그냥 업가리 하고, 하나는 곱다리라고 해서 벼 2되, 3되를 단지에다 넣어서 볏집으로 터주가리를 해주지.

매년 만들었나요?
그건 매년 하는 거예요. 그 이듬해 가을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어르신 댁에는 두 개가 있었네요. 하나는 업가리고, 다른 하나는 터주가리고. 부엌에 조왕신을 섬긴다던가 대청마루에 뭘 달아 놓는 다 던가 하지는 않았어요?
부엌은 안 했어요. 대청 용마루에는 했지. 이걸 성주대라고 그래. 주머니같은 걸 한지로 싸서.

성주대 안에는 뭘 집어넣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한지에다가 글씨만 써서 매달아 놓지.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용용 자를 썼던 거 같아요.

제석주머니는 안 달았어요. 안방에?
달았죠. 쌀 서너되 해서 이렇게 가운데 걸었지.

쌀은 햅쌀로 하죠?
햅쌀 서너되 해서 한자로 싸가지고 이렇게 매달어.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걸어 놓으면...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보릿고개에 배고프면 성주대 언제 내려서 쌀밥 해주나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다른 집들은 7월 칠석이면 내려서 밥해 먹더라고. 우리는 가을 떡 할 때나 갈아줬어요.

대감독은 안 했어요. 항아리에 쌀 담아서 대청같은 곳에 놔두는 거요?
그런 건 안 했어요.

변소에 측신을 섬긴다거나 봄에 대문간에 엄나무 가시를 묶어 놓는 거는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다른 집들도 터주가리, 성주대, 제석주머니 같은 것을 다른 집에서도 했나요?
다들 세 가지는 하는 집이 많았죠.

지금은요?
지금은 안 하죠.

은산리가 줄다리기가 유명했잖아요?
산대 사(네) 동네가 짚을 얻어서 줄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줄다리기했어요.

줄다리기는 어디에서 했어요?
지금 여기 버스 들어오는 큰길에서 했어요. 회관(2리) 앞에 찻길.

어떤 분은 교회 옆 평동 넘어가는 다리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서 했어요. 회관 앞 큰길에서 한 거예요.

보통 대보름날 낮에는 뭘 했어요?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놀았어요. 농악대들이 지신밟는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쌀 한 말씩 고삿밥으로 놓고 축원해주고 그랬어요. 저 아래 버스 종점 앞 팔각정 있잖아요. 팔각정 앞 그 집 할아버지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렇게 비는 것도 잘하고. 그분이 고사반 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우물에 가면 또 뭐라고 빌고.

그분 성함은 어떻게 되요?

미순이 아버지인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네. 어째든 미순이한테 물어봐야지. 고사반을 거기가 온 동네 다 다니면서 해줬어요. 고사반 잘하고 기억력도 좋고 솜씨가 좋아서 그림도 잘 그렸어요. 봄이 되면 대문에다 글씨를 써서 붙이잖아. 입춘대길도 잘 써주고. 집 안이 잘되라고 용(龍)용(龍)자도 잘 써주고.

이분은 조금 배운 분이었네요?

우리 할아버지(정회식)에게도 배우고. 글씨도 잘 쓰고 공작도 날아갈 듯이 그리고 그랬어요. 이 양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넘어. 거기 이름이 뭔지 모르겄어. 내가 기억이 가물거려서 원.

옛날 팔각정 뒤에 기와집 큰 거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정)장순씨네. 지금 2층집 지은데가 장순씨네 터유. 옛날 기와집 헐고 2층집 다시 지은 거여.

기와집 절반이 헐렸던데요?

그 집은 종가집. 옛날에 종손이 없어서 종손을 만들었어. 거기가 내순씨라고 정내순. 장순이 아버지가 자기 집터에다가 집도 지어주고.

그 집 불났잖아요?

그 집은 불 안 났었지. 그 집 아들이 죽고... 아들이 배부른(임신한) 기집 얻어가지고 돌아댕기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째든 이 사람이 종손이 아닌데 양자로 들었어요. 천석꾼이었던 장순이 아버지가 종손을 만들어서 자기 집 옆에다가 집을 지어준 거예요. 장순이 아버지가 종손을 만든 건데 실패작이야. 죽은 아들은 정병무, 그 아래는 정경무인데 미국 가서 살고.

지명 몇 가지 여쭐께요. 장군봉 같은 거요. 엄나무모랭이, 솔모랭이, 마루태기, 주막거리, 동막골, 가마골, 동안골, 동안고개 같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태봉고개도 있고?

태봉고개는 저기 태봉산 넘어서 동막 지나 장에 갈 때 걸어 다녔지.

어디 장에 갈 때 넘어다녔어요?

글루 장에 다녔는데.... 그루 은산 5리. 서정리장 가는 길이야. 은산5리 최 뭐시지....

아 최재성 의원요?

그 양반이 시(市, 시의회)에 다닐 때였으면 길 냈어요. 그런데 종갑(은산4리 우종갑)이하고 두순이(정두순씨) 하고 회관에 다니다. 지금은 집들을 많이 지어서 거기 못 한데요. 이제는 집값을 다 물어줘야 해서.

개야동이나 둔전곡은요?

그런 건 몰라요.

갯골은 어디예요?

갯골은 저 산너어가 갯골이유. 거기가 산하리지.

옛날 도일리 넘어가는 골짜기는요?

사낭골. 사낭골이고 빈터고개라고 해요. 작은사낭골이 있고.

사낭골 우측 골짜기는요?

안쪽 중턱은 반자울이고 그 안쪽은 우렁속이라고 해요. 그 너머로 넘어가면 장안말이유. 동막, 장안말로 넘어가는 길. 동막골 넘어가려면 태봉산 넘어가는 거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산리 안골로 넘어가는 거고. 4리 지나서 넘어가도 안골이고, 반자울로 넘어가도 안골이고. 거기가 마산리유. 마산리 지나서 오룡동이고. 지금 송탄에 가려면 나무를 이고 글루 가서 팔고.

언제부터 나무해서 팔았어요?

6.25 후에. 송탄 생기면서 시작해서 다 여자덜이 해다팔았지.

아궁이 불 땔 때까지는 했나요?

그렇슈. 많이들 했어요. 그거 해서 땅 산 사람도 있어유. 이걸 남사면 가서 나무해다가 파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디. 남사가 나무가 많아서 거기 어비리 수리조합있는디 거기 가서 해온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안 했지만.

여기는 엿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엿장사하는 사람들? 엿장수, 장떡장수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분들 이름이 생각나세요?

작은아들은 종백이인데.... 그 분 큰 양반 이름은 잊어버렸슈.

그럼 종백씨 부친이 하셨네요?

아버지보다는 형하고 형수가 했지. 그래서 종백씨 마나님이 시집와서... 새댁이 마실갈 디라도 있슈. 그거 떡 장사, 엿장사 하는 것 뒷바라지하느라 며느리가 굶어 죽는다고 했슈.

그거 힘들잖아요?

힘든일만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슈. 인천서... 저 수원서 인조공장다니다 중매로 시집 와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슈. 양반동네라고 왔다가. 치매가 와서 갖은 고생 다하다가 94살이나 되 가지고 돌아가셨어. 내가 하늘 복도 못 타고났나 보다라고 한탄했어.

가마골은 어디예요?

가마골은 여기 조금 넘어가서요. 여기인데 태봉산 넘어가는 디 중간쯤에 논골이 있는디 거기가 가마골이유.

진너머는요?

가마골 조금 못 가서 골짜기가 진너머고. 비탈 있는디는 은정골이라고 하고. 공동묘지에서 넘어오면 은정골이유. 옛날에 거기가 은 캤데요. 우리 산소 있는디가 숫돌고지인디 그 옆이가 은정골이유. 옛날이 거기에 큰 구덩이가 있었거덩. 그런디 누가 비석을 세우면서 메워버렸어. 은정골하고 숫돌고지 사이에 큰 구덩이가 까마득하게 있었는디 요 근래에 없앴어. 여기 바로여. 동막골 올라가는 디 산 기슭에 집 같은 거 있고. 조조그만거 고 위에 있지. 이 근래 와서도 있었는디 한 3년 되었나... 무덤도 없는디 비석을 해 놨더라고.

다른 이름들은?

골마다 다 이름이 있지. 요 우리집 아래는 터골이고, 그 아래 내려가는 골짜기는 진너머라고 하고, 터골은 웃말이라고 하고.

정병근(남, 1961년생) 은산2리 거주. 사낭골에서 도랑을 관리하다가 인터뷰함

일시	2022년 5월 15일	
장소	은산리 사낭골	
구술자	정병근(남, 1961년생)	
면담자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사낭골이 무척 깊고 넓네요?

엄청 넓죠. 여기가 큰 사낭골, 작은사낭골로 나뉘어요. 저기 전원주택 옆으로 도일동 넘어가는 골짜기가 큰사낭골, 여기 덕암산 아래가 작은 사낭골. 덕암산 능선이 평택시하고 안성시의 경계죠.

사낭골 일대는 경지정리가 안 되었네요?

안 됐어요. 골짜기 논이라 그런지 경지정리를 안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수리조합 물도 안 들어왔을 텐데?

여기는 순전히 물논들이잖아요.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논웅덩이나 샘을 파서 고리박으로 퍼가지고 농사지었죠. 나중에(2001년) 어비리저수지 물이 들어오면서 웅덩이들이 없어졌지만 예날에는 많았어요.

그럼 논농사를 많이 지었겠네요?

여기는 논농사죠.

방죽이나 저수지는 없었나요?

방죽은 동막골에 한 개 있었어요. 방죽 없이도 논물이 있으니까 필요 없었죠.

논농사 많이 지었으면 쌀밥만 먹었겠어요?

우리는 쌀밥만 먹었죠. 농번기에는 밥도 네 번을 먹었어요. 아침밥 먹고 논에 나가면 오전에 새참을 먹고, 점심 때 지나서 오후에는 곁두리라는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었으니 네 번이죠.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세 번 먹었죠.

점심은 고구마나 감자로 간단하게 때우지 않았어요?

여기는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어지간한 집은 살만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5리(진목)는 가뭄이 들면 농사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은산리)는 어지간하면 모를 심었거든요. 큰 부자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넉넉한 편이라는 생각은 있었던 거죠.

곁두리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아요?

오후 참을 곁두리라고 불렀어요. 말이 참이지 일반적으로 밥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옛날에는 밥도 많이씩 먹었잖아요. 그거(참) 준비하려고 여자들이 고생 많았죠.

저 아래 쪽에서 물어보니까 못자리는 한식 때쯤 했고 모내기는 5월 중순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못자리를 한식 무렵에 했어요. 모내기는 아카시아꽃이 필 때쯤에 했구요. 여기는 가뭄 때문에 호미모를 심거나 메밀을 심는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모내기를 했죠.

추수는 언제 했어요?

벼베기는 이르면 추석에 시작해서 10월말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벼 벨 때는 힘들었어요. 애들도 놀 틈이 없었죠. 하다못해 이삭이라도 주우라고 했어요. 벼 베는 것도 잘 해야 되요. 잘 세워 놔야 벼가 잘 말라서 타작하기 좋죠. 잘못하면 밑에서 썩어요. 탈곡은 10월에 많이 했는데 늦으면 11월 초에 하기도 했어요. 가을장마가 지거나 하면 벼를 말리지 못하니 탈곡이 늦어질 수밖에요. 11월 초순이면 눈이 내려요. 눈 맞으면서 탈곡했다니까요.

학교는 어디를 다녔어요?

저는 산대초등학교 하고 진위중학교, 진위고등학교 나왔죠. 산대초 17회, 진위중 10회로 졸업했어요. 중학교 졸업하는데 사립학교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 학교로 보낼라고 하는 거. 저도 외지로 나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밤늦게까지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지치고 짜증나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죠.

학교 통학은 어떻게 했어요?

산대초등학교는 걸어다녔지만 진위중고등학교는 여기에서 7~8km가 되요. 그래도 우리 때는 합승버스(봉고차)가 다녀서 쉬웠지만 우리 누이나 형님들은 걸어 다녔죠. 봄가을에는 괜찮지만 겨울이나 여름에 20리 가까운 길을 걸어가려면 여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갈 때가 되니까 합승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다녔죠.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협진여객 버스가 마을로 들어왔어요. 하루 여섯 번 들어왔는데 두 시간마다 한 대쯤 들어온 거죠. 그거(시내버스) 한 번 놓치면 걸어 가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죽어라 뛰어가고 그랬죠. 옛날에는 시내버스에 사람도 많이 탔지만 짐들도 많이 실었어요. 버스에 짐을 실으면 차장하고 손님하고 흥정을 해요. 짐들도 운임을 따로 받았어요. 그만큼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참 그때는 거리에 따라 차비도 달랐네. 우리는 하북까지 얼마를 냈더라. 20원 냈었나? 수업료가 2,000~3,000원 했으니까 차비가 그쯤 됐을 거예요.

평택으로 갈 때도 버스 타고 나갔나요?

평택 갈 때도 버스를 탔는데 하북까지 나가서 용남여객 시외버스 타고 나가면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려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았죠. 평택으로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걸어다닐 수도 없었어요. 멀잖아요. 그래서 은산5리 진목마을 옆으로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고속버스가 섰어요. 농산물집하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버스도 지나가다가 섰어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평택시내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죠. 처음에는

‘그래이 하운드’ 라고 하는 고속버스가 다니다가 나중에는 동양고속이 정차했어요. 그거 타고 진사리에서 내려서 평화여객 버스 타고 학교로 간 거죠. 고속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큰형하고 작은형은 평고 앞에서 하숙을 했어요. 하숙하다가 집에 올 때는 도일동 빈 터고개를 넘어서 걸어왔죠.

정병한씨는 시장은 평택장은 멀어서 잘 안 가고 오산장을 가다가 서정리장과 송탄 아침장(송북시장)을 많이 갔다고 해요. 선생님은 어땠어요?

저희는 평택장을 많이 갔어요. 저도 어머니가 장에 갈 때면 지게에 쌀 두세 말씩 지고 따라가기도 했었죠. 평택장은 큰 장이어서 그곳에 가야 물건이 많았어요. 서정리장도 많이 다녔지만 장이 작았잖아요. 가까워도 거기서 사는 것과 평택장에서 살 것들이 달랐어요. 아침장(송북시장)은 농산물을 팔러 어머니들이 다니고는 했죠. 어쨌든 생필품이나 애들 용돈 줄 것 마련하려면 평택장에 가야 됐어요.

오산장이나 안성장은 다니지 않았어요?

오산장도 다녔죠. 소를 팔 때나 송아지를 살 때. 안성장은 너무 멀구요. 평택장에 가야 머슴을 구하기도 했어요. 우리 집에는 1년에 쌀 10가마를 세경 받는 큰머슴이 있었는데 농번기 때는 바빠서 달몸이라고 한두 달만 쓰는 머슴을 따로 구했어요. 달몸들은 1달에 쌀 한 가마를 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1970년대)만 해도 달몸들은 평택역 광장에 가면 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 전라도에서 품팔거나 달몸을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수백 명씩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한두 달 일하는 사람들이라 성실하게 일해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막가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 알고 데려다 썼어요. 사람 손이 귀하니 어쩔 수 없었죠.

큰머슴(상머슴)에 달몸까지 쓸 정도였으면 부자였던 가봐요?

큰 부자는 아니고 우리 집이 기와집인데다 논도 두 섬 지기(약 6천 평)쯤 있었죠. 여기(은산리)에서는 두 섬 지기면 살만하다고 했어요. 1마지기에 200평씩 하는 논으로 따져서 두 섬 지기.

소출은 어땠어요?

여기 논들은 소출이 좋았죠. 수로(水路)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한 마지기에 3가마씩은 나왔어요. 지금은 3가마 반씩 나오고요.

(놀라며)대단하네요. 도일동만 해도 계곡의 문전옥답만 3가마쯤 나왔지 평야지대 논들은 1가마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쌀은 질이 좋기로도 소문났어요. 장날에 평택장이나 서정리장에 싣고 가서 소매할 때 산디쌀이라고 하면 금방 팔렸어요. 같은 한 말이라도 산디쌀이 무거웠데요. 쌀알도 번질번질하고 통통해서 눈에 확 띄었죠. 우리 어머니도 쌀 두 말씩 이고 장에 다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팔렸다고 했어요. 그거 팔아서 우리들 용돈 주고 생필품 사고 그랬죠.

골도 깊고 논도 많았으면 부자들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은산리 부자라고 하면 알짜배기라고 했죠.

대표적인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정종인씨 댁, 정병기씨 부친인데 누구였는지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정동순씨, 해천댁이라고 했던 정해천씨네가 부자로 꼽혔죠. 정종인씨는 아들이 정장순이고 손자는 정병훈인데, 삼봉할아버지 사당 아래에 아흔아홉칸 기와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 주인이었죠. 잘 살았는데 손자 때로 오면서 집안이 기울었죠. 그래서 손자 정병훈씨가 팔아버렸어요. 지금은 절반은 철거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고쳐서 살고 있죠. 정호신씨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도 부자였고.

정동순씨는 산대초등학교를 세운 재일교포 정동순씨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분이 일제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손자가 정오섭인데 은산1리 위쪽 정호신씨댁 가기 전에 일본식 다다미건물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요. 오토바이 사고로 거동이 어려운데 아직도 살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집에 가면 방이 많아서 술래잡기하기 좋았죠. 숨을 데가 많았어요.

정동순씨가 마을에 많은 도움을 줬나봐요?

그럼요. 저기 산대초등학교 입구에 송덕비도 있잖아요. 그분이 일본에서 재일거류민단 단장도 했어요. 민단 관계자들을 데리고 와서 마을을 구경시키고는 했어요. 마을에 논을 사서 마을답으로 기부하고, 초등학교 지을 때 희사하고, 매 년 아이들 학용품 사서 나눠주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때만 해도 귀했던 연필깎기하고 일제 연필을 나눠줬어요. 미국에서 달나라 갔다 왔을 때는 달에 착륙하는 사진이 들어간 필통을 수백 개 구입해서 나눠주기도 했죠. 그거 저도 받았는데 오랫동안 썼어요. 학교에 영사기를 기증했는데 그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도 봤고, 밴드부 악기도 기증해서 밴드부가 생겨나기도 했고요, 진위향교하고 진위국민학교에도 기부하고 여러 곳에 좋은 일 많이 했죠. 정동순씨가 학교 올 때는 학생들이 나가서 두 줄로 서가지고 환영 행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을 많이 받았죠.

윤여창(여, 1945년생), 은산3리 노인회장

일시	2022년 11월 3일	
장소	평택시 진위면 은산3리 마을회관	
구술자	윤여창(여, 1945년생)	
면담자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본관은 어디세요?

파평 윤씨

은산3리 파평 윤씨인가요?

그렇지

부친 성함은?

우리 아버지는 윤석의, 어머니는 이흥순. 우리 아버지가 정동순씨와 동갑이예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한학도 하셔서 필체도 좋으셨고 한문도 잘했지. 어릴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동순씨하고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나봐. 우리 아버지만 피부병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와왔고 정동순씨는 일본에 남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

돌아와서는 뭘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정치 때 구장을 본 양반이야.

구장하셨어요. 그럼 동네 유지네요?

지금 말하자면 이장이지. 일본정치 때 구장하면 뭘 했냐면 옛날 징용, 징병 뽑아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께 이게(힘이) 쎘다고. 진위면에서 우리 친정아버지 모르면 간첩이야.

집안이 그러셨네요?

윤석의씨 하면 진위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르신은 파평 윤씨라고 했잖아요. 무슨 파예요?

파는.... 잘 모르겠네.

아버님은 몇 년생이세요?

그것도 잘 몰라.

몇 연도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기억같은 거 없어요.

아까 아버지가 한학을 했다고 했죠?

공부는 했는데 한문은 기가막히게 잘하고 그러셨어. 저 앞에 비석 세운 사람, 정동순씨하고 친구라니까. 함께 일본으로 돈 벌러 갔고. 정동순씨는 일본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하더만.

맞아요?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진위면에 파출소도 지어주고 다 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피부병 때문에 돌아왔다고 했잖아. 거기가 물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피부병 때문에 있지를 못하겠더래. 돈 복은 따로 있나봐. 정동순씨는 돈을 엄청 벌었잖아.

정동순씨는 한 게 많더라고요. 여기 산대국민학교도 그 양반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산대초등학교도 그 양반이 누구냐.... 정종호씨. 그 양반이 앞장선 거잖아. 나중에 정동순씨가 도와주고. 그래서 폐교 어쩌고 했는데 못 없앤거 아냐. 이게 본래 본교였어요. 지금은 분교지만. 우리가 진위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생이야.

아 어르신이 그렇게 되세요?

우리가 45회 졸업생. 진위초등학교 다니는 게 워낙 멀었으니까, 그때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학교를 설립한 거야.

그렇죠?

다들 사재를 털어서 건립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돈을 거뒀나요?

그렇지 집집마다. 그렇게 해서 땅을 구입해서 해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건들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교육청에서 손을 못 대지. 니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냐고 하면... 학교 기가맥히게 잘해놨어. 교육청에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교를 했는데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애들이 없으니께 줄어드는 거지. 학생이 없으니께 진위분교가 된 거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경주 이씨야. 이흥순. 저기 칠곡리(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이씨야.

그쪽도 괜찮은데 여기 평택 경주 이씨는 대단했어요?

칠곡리도 7개 부락이 다 경주 이씨야.

맞아요. 거기 용소마을이 이씨들 많더라고요?

거기도 많고 다른 마을도 많고.

아버지는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신 거네요?

워낙 식구들이 많으니까 돈 벌러 갔다가 돌아온 거지.

집안 경제력은 어떠했어요?

경제력이 힘드니까 일본까지 간 거지. 그런데 피부병이 와 가지고 일도 못하고 엄청 고생만 했다더라고.

일제 말에 구장은 오래했어요?

오래한 거는 잘 모르고... 6.25 때 피난가자고 하는 걸 안 가고 버텼어. 6.25난리도 여기에서 겪었어 우리가. 6.25 때 이 마을 뒤에 미군들이 와서 진을 쳤어. 여기가 1977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을 하면서 제일 첫째로 그 사업을 한 거야. 취락구조개선하면서 산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바뀌었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융자해주고.

아버지께서 분배농지 받은 거 기억나세요?

그것은...

집안이 먹고 살만해진 것은 아버지 때인가요?

우리 아버지도 엄청 지독한 양반이야. 옛날 박정희 정권 때 고리채 정리를 해줬죠.

예, 그렇죠?

빚을 탕감해준 거. 그런 덕도 본 거고.

그때 빚을 탕감받은 거군요?

그런 것도 된 거고. 워낙 먹고 살기 바빠서 뭐 하니 김장거리 심을 곳이 없어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맘대로 무도 심어 먹지 못하고 그랬는데... 아 세상에 무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나 흔해서 버리는 거지.

맞아요. 음식이 넘쳐서 버리죠?

요즘에 아무리 농산물 비싸네 비싸네 해도 너무 흔하지. 쌀값 싸고. 옛날에 쌀밥이 어디 있어. 쌀밥이 어딨어요, 보리꼽살 내서 밥만 끓여서 먹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기를 일단 농사를 지으면 나는 좋은 거부터 먹고 싶어. 일단 농사를 지었으면 좋은 거부터 먹고 봐야지 왜 보리밥부터 먹냐고. 좋은 거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냐. 꽁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쌀을 아껴서 옛날에는 장리쌀을 놨잖아요.

맞아요?

한 가마 얻어가면 다음 해 한 가마 줘. 곱장리라고. 하도 지독하게 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게

된 거고 그 덕에 내가 사는 거지 뭐. 우리는 꽁보리밥을 먹어도 이 양반이 남 주기는 좋아해.

그래요?

우리 것 장리쌀 줬다가도 그냥 띠어 먹히고. 남주기는 좋아하는 양반이야.

성품이 좋으셔서 남주기는 좋아하고 실속은 못 챙기는 분이셨군요. 그래도 아버지 때 땅을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늘리신 거네?

그렇지. 우리 집에 땅이 어딨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땅 사 가지고 그 땅 끝에 가서 앉아가지고 담뱃대 피워 물고. 옛날에는 곰방대라고 담뱃대로 피웠잖아요.

논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논이 저기 양수장(은산4리 북서쪽) 있는데 있었어. 거기에서 일꾼 얻어서 (추수할 때) 일하면 하루에 밥을 몇 끼를 해줘야 해.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좋아. 지금이야 콤바인으로 삭삭 베어버리면 끝나잖아. 옛날에는 일꾼 하나만 얻어도 밥해줘야지, 참 내가야지, 하루에 다섯 끼를 해줬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침밥도 해줬어요?

그렇지, 아침도 해줘야지. 참 해줘, 점심해줘, 또 참해줘, 저녁까지 먹였네.

그렇게 밥을 많이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밥을 해서 주고, 모심을 때 밥해서 이고 거기까지 가려면 머리에다 이고 줄을 서서 걸어가야 돼. 밥을 이어야지, 국도 이어야지, 반찬 가져가야지. 그렇게 고생하라고 그 양수장 쪽에 땅을 2천 평이나 사가지고. 거기는 땅이 하늘바래기야.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하늘바라기였죠?

거기에 웅덩이가 하나 있어. 지금 이장네(윤정희 이장) 논이 있는 거기에서 발동기로 물을 퍼내가지고 모내기를 했다고. 이 주변 논들이 다 거기서 물을 퍼내서 모심었어.

그럼 거기에 보(洑)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거기 웅덩이에서 지하수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발동기 그거 가져다 놓고 퍼 가지고 여기(은산3리 앞) 벌판에 모내기했던 거야.

웅덩이 이름이 뭐였어요?

옛날에 우리는 ‘발동기 웅덩이’ 라고 했어. 발동기로 물 퍼냈다고. 그게 누구네 거냐면 이장(윤정희 이장)네 논에 있었어. 이장네 아버지 때부터 썼던 거라고.

이거 가지고 마을 앞 논들에 물을 공급했네요?

옛날에 그 물 가지고 다 (벼) 심어 먹었어. 지금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남사면에 저기(이동저수지) 생겨가지고 물이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고 저 위(은산1리)까지도 올라가잖아. 양수기로 퍼올려 가지고.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럼, 좋은 세상이지 말고. 내가 좋은 세상 놔두고 이렇게 늙는 게 억울하지.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흔해빠진 데 먹을 수가 없어. 입맛이 없는 거지. 입맛이 없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허허.

입맛이 없겠죠. 우리가 달달한 거 많이 먹으니 밥맛이 없지. 옛날처럼 일해봐요?

맞어, 옛날처럼 일하면 맛없다고 밥 안 먹고 그러지 못하지. 요즘에는 일을 안하니까 그래.

옛날에는 밥을 한 그릇 먹고도 조금만 뛰어다니면 푹 꺼지잖아요. 요즘에야 기름진 음식도 많고?

그러게요. 그렇게 없는 세상을 살아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개구졌데요. 우리 종조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작은엄마지. 우리 작은할머니도 시집왔는데 식구가 12식구였데.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3형제,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가서 밥을 먹고는 했는데 옛날에 없으니까 수수푸레기를 해서 밥을 푸는데 12그릇을 푸려면 얼마나 힘들어.

옛날에 수수푸레기를 많이 드셨군요?

그렇 많이 먹었지. 그래가지고 작은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푸는데 우리 아버지가 밥 더 안 주나 들여다보고 그랬데. 삼촌댁보고 내 밥은 적게 펐다고 욕하면서. 그래도 삼촌댁(작은할머니)이 조카라면 끔찍하게 위했다고 그래.

우리 어릴 때도 제 사촌이 식탐이 많아서 밥을 목구멍에서 게워 나올 때까지 먹었어요. 그런데도 체하지 않더라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어요.

맞아요.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농사지으면 그랬다니까. '아버지 농사지었으면 우리도 좋은 것좀 먹어봐요' 그러면서. 쌀도 좋은 거 먹고 보리밥 먹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 양반(아버지)이 고집이 쎘어요.

저희도 아버지가 값이 싸다고 항상 정부미를 먹었어요?

정치를 잘했니 뭐니 해도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해놨으니까 23호 심어도 떨어져도 3배출이야. 안남미 쌀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벼가 떨어지는데도 3배출이 났다고. 그 덕분에 쌀밥 먹게 되었지. 정치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배고픈 것 해결한 것은 잘했다고 봐야지.

어르신 아버지는 자녀는 몇 명 두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5남매. 딸 둘 아들 셋.

딸이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지. 아버지 위에 큰아버지가 계셨어.

아, 아버지 형제들이 5남매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형제들 중에서 몇째셔요?

아버지가 둘째, 장조카도 손이 없었어요.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조차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장조카라고 하면 껌뻑하고 얼마나 받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게 있데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못 두고 딸만 여섯이야. 아들을 못 두고 내가 막내야. 어머니도 아들을 못 낳고 돌아가셨어.

그러셨어요?

내가 딸로 태어나서 살다보니까 아들은 꼭 있어야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 아들이 없으니까 알게 모르게 괄시를 해.

형제들 내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아. 아무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아들은 둬야한다, 아들을 둬야 하고. 아들은 하나만이라도 둬야 된다. 재산을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를 떠나서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 지금도 그것은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

어르신이 직접 경험했으니 더 그러겠죠?

뭘 한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 아버지가 딸만 여섯이라고요. 어르신이 막내고?

그렇다니까. 아들을 못 두니까 옛날에는 아들 세력이 여간 쎘어. 우리 아버지 아래의 막내 삼촌이 아들만 다섯이야.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떨었구만?

내가 괄세받은 생각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디에다 다 적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은 두고 봐야 되겠다’. 자식(아들)이 먹여 살려서가 아니야. 자식(아들)은 울타리여, 자식(아들)은 든든해, 절대적이다. 절대적으로 둬야한다는 게 아주 뼛속에 지금도 내 머리속에서 잊지를 못해.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아들 못 둬가지고 괄세도 받았지만 무시당해.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당한 수모가 컸으면 어르신 어머니는 어땠어요?

양자를 들일 수도 있었는데 남의 자식 들여다가 왜 절 받기를 바라냐고. 우리 막내삼촌이 아들이 다섯인데 우리도 아들이 없지, 우리 종조할머니도 아들이 없어 그려섰어요. 그러니까 그 쪽(작은아버지)가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양자 드리려고 …. 우리 아버지는 양자를 했다가도 파양을 했어. 파양해서 (사촌동생이) 돌아가버렸어. 내가 부모님 재산을 안 주지.

아버지가 양자를 들였군요. 어디에서요. 작은집에서?

네.

작은집에서 양자 들였다가 파양했군요?

파양했어. 파양해서 왜 그때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면 군대를 안 가잖아. 군대를 기피하려고 양자를 가게 한 거야. 군대 피하려고. 군대를 피하려고 양자를 온 거지 큰아버지를 위해서 양자 온 게 아니야.

서로 생각이 달랐군요?

어, 생각이 달라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종조할머니 댁도 그렇고.

그래서요?

양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니까 호적이 엉망이 되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진짜 호적이 이상해지는데도 양자를 보냈어. 그래서 양자가 왔어. 그것도 형이 있는데도 막내를 양자로 보낸 거야. 그것은 아니지. 주려면 장남을 줘야지 막내를 주는 법이 어딨어.

양보해도 둘째는 줘야하지요?

막내 이 새끼가 군대를 안 가려고 그걸 피하려고 온 거야. 머리를 쓴 거지.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 어차피 안 가면 좋은 거니까 해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산문제가 생겼지.

재산상속에 문제가 발생하네요?

재산에 욕심을 냈는데 내가 안 주지. 그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너한테는 내가 재산을 안 준다' 그랬지. 양자로 들어온 애가 옛날에 가수 박재홍이라고. 그 사람의 사위야. 남자가수 있었죠 박재홍이라고. 우리 집 양자 온 막내가 그 사람 사위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원해서 파양해갔어.

군대는?

군대는 안 갔죠.

목적은 달성했네요?

달성했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 '병신 자식이라도 자식(아들)은 둬야한다' 고. 그래야 괄시 안 받지. 내가 그런 걸 겪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경주이씨 잖아요. 집안도 괜찮으셨는데?

내가 남동생을 봤어. 못 본 것은 아닌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마당 바닥에서 놀게 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호미모 내고 벼를 심어야 하니까. 옛날에는 물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호미로 벼를 심었잖아. 그렇게 일하느라 정신팔려가지고 애를 보살피지 못한 거야. 애가 먹을 게 없으니

까 먹지를 못하니까. 쌀이라도 있어야 암죽이라도 끓여서 먹이지. 그 귀한 아들을. 그러니까 길을 가는 노인네들이 그랬어. ‘저 귀한 아들을 이렇게 마당 바닥에다 돌리느냐고. 그랬더니 그 애가 못 살고 가더라고.

영양실조로 죽었네요?

거두지를 못 해가지고... 여기가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아들 하나 길러서 의사 한 명 만들어야 한다고. 얼마나 원한이 찾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 복이 없는 거지 뭐.

그러면 남동생이 몇 살에 죽었어요?

어릴 때, 그냥 마당 바닥에 앉았더니. 그런데 앉았으면 옛날에는 닭도 돌아댕기고 그냥 닭똥도 주워 먹고 그러잖아.

영양실조 뿐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도 컸네요?

그렇게 주워 먹었어도 병이 나서 죽은 것은 아니야. 영양실조로 죽은 거지. 제대로 못 먹어서 쌀이라도 있어서 미음이라도 쒀 먹였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건디. 내가 그래서 그래. ‘아, 자식은 그래서 뼈아프게 뼈저리게 있어야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그건 머리 속에서 안 떠나.

어르신이 딸 가운데 막내면 귀여움을 받았겠어요?

귀여움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 아버지가 이제 저하고 농사일을 하고 그러니까는, 아버지 쫓아다니며 일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하면 힘이 덜 든다’ 그런 말씀은 하셨어.

그래도 막내딸을 보면 힘이 났던 거네요?

‘너하고 일을 하면은 힘이 덜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말은 기억해.

그러면 어르신은 진위초등학교를 나왔나요. 이때가 6.25사변 났던 해였죠?

그렇죠. 그래 피난간다고 그 때도 구장을 보셨던 거야. 그래 인민군들이 내려오면 개를 잡아서 흙을 발라 구워먹는다고 우리 개 잡아먹고 피란 가자고, 그런데 그때 우리 집이 저 위에 꼭대기에 있을 때인데 거기서 엄마가 죽어도 그냥 여기있다가 앉아서 죽는다고 움직이지 않자 아버지만 피난가다가 원곡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당신은 거기까지 가셨다가 돌아오셨더라고. 우리 아버지만.

여기는 그러면 6.25 때 지방좌익들이 쎘어요?

그렇지.

윤씨네가 완장을 찼어요 정씨네가 찾어요?

허허(침묵...) 윤씨네도 본토박이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5대니까 7대, 8대까지 간 거잖아. 그런데 여기가 정씨네 때문에 붙어나지 못해. 그 정씨들 때문에.

봉화 정씨가 이 마을까지 영향을 주어요?

여기는 윤씨네고 저기 은산 1리, 2리가 정씨네가 200호가 넘어요. 타성이 들어와서 살지 못했던 데가 여기야. 살지를 못해. 지금은 다 변해가지고 정씨네들이 힘을 못써. 옛날에는 대단했지.

이 동네는 어땠어요?

이 동네는 그럭저럭.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그래도 정씨네가 윤씨네를 못 건드리는 이유는 있어. 지금 이쪽하고 저쪽에.

어째든 정씨가 윤씨를 못 건드렸네요?

못 건드린 이유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구장하면서 워낙 꼿꼿하고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르신 아버님이 구장을 하는 바람에 그랬네요?

우리 아버지가 경우도 바르고 확실하셨어. 칼로 끊는 것 같여. 공사도 분명하셨고 맺고 끊는 것이 대단했지. 그리고 정씨네는 벼슬아치가 없잖아. 여기 윤서방네는 파가 두 파야. 그런데 윤진사가 진사벼슬을 따가지고 삼현육갑을 따져서 들어왔다는 거잖아.

저도 들었어요?

저기 이장네 그쪽에서 양자로 들어왔다고.

이장님에게 들었어요?

이장은 나이가 어려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거야. 이쪽에서 양자를 가셔서 진사 벼슬을 따가지고 삼현육갑을 따져서 여기(은산3리)로 내려왔다는 거야.

둘째인가요?

둘째지. 몇 대인지는 잘 몰라도, 그냥 하는 소리만 들어서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했으면 알 텐데 어릴 때는 그냥 하는 소리로만 들었지.

진사벼슬을 했으니 양반가문이네요?

양반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씨가 무시를 못했다고, 무시를 못했어. 파평 윤씨가 양반이라면서.

그래서 관계로 볼 때 정씨가 위세가 있었지만 윤씨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네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르신 아버님이 구장도 하고 경우가 바르시니까 그랬기도 하겠고요?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대우받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저쪽 동네(은산1, 2리)에도 아버지 친구분들이 많아. 그 양반들이 옛날에는 일본놈들이 나와가지고 공출이라는 걸 해갔잖아. 공출해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데요. ‘공출해가려면 우리 집부터 해가라’ 그랬데요.

아버지가 당당했네요?

정서방네가 얼마나 기승을 부렸는데요. 타성들이 들어와서 살지를 못했던데가 여기ㅇ예요. 여기가 4개 부락이야. 한 200호가 돼. 그러고 부자들도 많어.

그러면 은산3리는 경제적으로도 1, 2리보다 밀렸나요?

경제적으로는 못 따라가지.

아무래도 저쪽은 못 따라가죠. 사낭골이나 동막골은 전부 정씨네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은산3리, 4리 앞은 옛날에 전부 천수답이야?

맞아요. 옛날에는 안개비만 내려도 정씨네 땅은 모를 심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천수답이야. 옛날에 수리조합이 들어오기 전에도 1, 2리는 1마지기에 양석이나 3가마를 했다고. 여기가 못 따라갔어. 경제적으로는 그쪽을 못 따라간다니까.

1, 2리가 경제적으로 월등했네요?

그럼, 더구나 지금은 슈퍼오닝 나오지, 미질 좋지, 최고 브랜드 쌀 나오는데 뭘. 이쪽 은산리 쌀은 알아줘야 해.

계곡에서 생산되는 쌀이 최고죠. 문전옥답인데요?

그럼. 그쪽 쌀은 알아줘야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정도전씨가 여기로 내려와서 자리잡을 때 그랬다며. 그 소리도 우리 아버지가 하시데. ‘백대천손 후거지지.’ 큰 벼슬아치는 나오지 않았어도 지금 사당도 만들어 놓고 잘 살잖아.

윤씨는 산소는 어디에 있어요?

윤씨네 종중은 내가 잘 몰라.

시제 지내는 산은 어디예요?

가평 어디에 있다는데 여기는 없어.

파주는 갔는데 여기는 없었네요?

어디에는 있데. 종중도 있고 시제도 지낸다는데 잘 몰라.

어르신 초등학교 때는 학교까지 걸어다녔네요?

비가 내리면 개천(진위천)이 여기(가슴)까지 차올라.

몇 회인데요?

45회. 마지막 졸업생이야.

학교 갈 때는 걸어다녔네요. 지금 길하고 같아요?

그때는 길이 없었죠. 샛길로 걸어다녔지. 이 도로도 본래는 샛길이었어. 이 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겨우 마차나 경운기 다니는 사람 하나 다닐만한 길이었는데 이 길을 버스가 다니게 하려고, 마을버스가 다니게 하려고 부락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저기 진위 쪽으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어.

저도 지나가다 봤어요?

봤어요. 비 하나가 있는데 내가 맨날 보면서 '저것 좀 5개 부락 이장들이 나서서 풀좀 깎아서 정리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아 길옆에 있는 거요?

버스정거장 뒤에 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 부락 앞 도로할 적에 후원한 사람들 내용이 다 있다고. 구원해준 명단이 다 있어. 지금 보면은 풀이 수북해. 나 혼자 찾다보니 이런 소리 하면 다들 미쳤다고 그래. 이장들 보고도 '저것을 관에서도 보호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데...

그럼저 저 길이 마을주민들이 돈을 내서 확장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하나 댕길만한 길이었는데 이제 버스를 댕기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어딨어. 길을 놔야 버스가 다니잖아.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기도 하고 부락 사람들도 내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명단이 다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길을 넓힌 거네요. 학교도 주민들이 발의해서 만든 거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은 거야. 그 비석을 보면 언제 했는지 날짜까지 나올 거야. 그 뒤로 그렇게 해 놓고는 조금씩 발전하니까 넓히고 해서 2차선이 되고. 옛날에는 얼음 깔리면 차가 못 다니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있는 길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산 밑으로만 밑으로만 나 있었던 거야. 저기 마산리까지. 그러다가 조금씩 발전해나가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저씨(남편)도 참여를 하고 하고 하면서 넓힌 거야.

그러면 산밑으로 난 길을 지금처럼 넓힌 것은 언제죠?

그것도 기억을 못하나. 그때 넓힌 다음 군(평택군)에서 지원해서 조금씩 넓히다보니 지금처럼 2차선이 된 거야.

그럼 도로를 확장한 것이 새마을운동 할 때인가요?

새마을운동 때가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은 얼마 안 돼(윤씨는 현재와 같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며 확장한 것으로 착각함). 산 밑으로 났던 것을 지금 지나가는 길로 만든 것은 20년이 더 되지.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도 길이 있었거든요?

아마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일 거여.

버스가 안 다닐 때는 어르신이 초등학교 가려면 산밑으로 난 도로로 걸어다녔다는 말씀이군요?

여기 4리 옆으로 양수장 쪽으로 가면 삼갈래로 길이 갈라지잖아. 거기에서 향교 쪽으로 가면 향교 앞에 징검다리가 있었어. 거기(진위천) 물이 얼마나 맑고 좋았는데. 다슬기도 많고. 거기가 비가 오면 둑이 이렇게(가슴 높이로) 찬 다니까. 가슴까지 차면 애들이 창문밖을 내다보니라고 공부를 못해. 집에 갈 생각에 걱정하느라고.

그러네요. 다리가 없으니 방법이 없었네요?

봉남리 다리 놓은 지가 몇 해나 되었어. 없었지.

멀리 1번 국도를 돌아가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돌아가면 학교가 끝나버려.

물차면 그냥 돌아왔어요?

그럼, 그냥 왔지. 못 가면 그냥 돌아오는 거야.

어르신 어릴 때는 또래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녔나요?

국민학교는 남자나 여자나 다들 다녔지.

어르신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평택여중 다녔어요. 몇 회인지는 모르겠네.

형제들은 모두 중학교 진학을 했나요?

언니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 언니들이 못 받은 사람은 나는 받았다고 봐야지.

어르신 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진 건가요?

조금 나아졌다고는 봐야지.

어르신 친구들 중에는 중학교 진학자가 있었나요?

없어. 초등학교 들어가서 진위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남녀 합쳐서 15명이었어.

그중에 중학교는 몇 명이 진학했어요?

여자로는 나 혼자.

평택으로는 어떻게 다녔어요. 통학했어요?

통학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자취도 시켜줬지. 처음에는 자취하고. 내가 그럭저럭 다니다가 졸업했어. 그냥 통학도 하고.

버스 타고요?

통학하려고 해도 그때는 버스가 없었어.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은 송탄에 가야 평택 가는 버스가 있었지. 너무 돌아가서 송탄까지 걸어갈 때가 많았는데 동막골(은산3리 남서쪽 골짜기)로 해서 태봉고개(태봉산을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서 동막으로 넘어가서 소골, 건지미 지나서 송북초등학교 앞에 길이 있었어요. 거기서 버스를 탔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있는데 거기서 탄 거여.

몇 리나 되요?

한 시오리, 20리는 된다고 봐야지.

학교 가려면 몇 시에 나갔어요?

여기서 새벽 4시, 5시에 나가야돼.

그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것도 문제네요?

집에는 이제 자취하니까 주말에만 오는 거지.

통학도 하셨다면서요?

통학은 못해. 통학은 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 아는 사람네에 방이 하나 있다고 해서 빌려주더라고. 그럭저럭 세상 살았어요.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뭐 하셨어요?

하신 뭘 해. 우리 엄마가 일 시켜 먹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

서울로도 안 가고요?

서울에도 안 보냈지.

막내라고 귀하다며 안 보낸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무나 부려먹었어. 그렇게 부려먹었으니까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살은 거야.

아들이 없으니 그렇게 되었네요?

양자 들인 것 파양되지, 내 인생도 결혼해서 살다보니 삐딱한 방향으로 나가지 그래서 집으로

온 거야. 여기에 와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3년, 엄마도 3년 도합 6년을 모시고 살았지. 우리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도 고생했지만 어르신도 고생 많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면 잘 모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르신 기질을 보면 도시로 나갔어도 한가닥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때는 병원에도 제대로 댕길 수도 없고 뇌졸중으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사는데...

그건 그렇고 어르신은 은산리에서만 평생을 살았네요. 중학교 졸업하고부터는?
네, 여기서만 살았죠.

처녀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집안일 하고, 살림하고, 그렇지. 들에 나가서 농삿일도 하고.

농사일은 뭐해요?
모내기도 하고 별거 별거 다 하지. 안 해본 거 없네.

농기계 운전도 해봤어요?
내가 경운기는 배웠는데 그거 배운다고 경기도 교육도 갔었는데 농기계는 안했어.

결혼은 몇 살에 하셨어요?
스물 여섯, 일곱...

옛날로 따지면 늦게 하신 편이네요. 왜 이렇게 늦게 하시게 되었어요?
몰라요. 살다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늦게 보내신 거예요. 일부러.

딸이 나이 먹으면 부모님이 서두르지 않아요?
친정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보니까 제사도 내가 지내주었어요. 내가 모셨는데 며느리를 얻고 나니까, 며느리 없을 때는 내가 시장에 나가서 사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몫은 내 몫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끊고 절에다 모셨어. 큰아들 결혼시키면서 절에다 모시고서는 초하루면 꼬박 다녔는데 지금은 무릎이 시원찮아서 못 가고 있지. 큰아들 결혼하고 나서도 몇 번은 지냈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내 몫이니까 너희들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다’ 라고. 그래서 내 대에서 제사를 끝낸다. 그리고서 절에다가 모셨지. 우리 아저씨(남편) 제사만 아들이 지내.

회장님(노인회장)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나는 우리 아버지 꼭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어느 날 (우리 부모님) 제사를 끊고서는... 우리 애들도 (제사를) 안 한다고는 안해. 지금도 팔월이고 설이고 제사를 지냈다고. 우리 작은아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 애한테 그랬어.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고, 나중에 엄마 제사도 지내야 해. 그렇게 두 번을 지내야 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두 번 일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제사는 절(용주사)에다 모시고 나까지 지내고 우리 아저씨(남편) 제사만 아이들이 지내라고 한 거야. 애들한테도 그랬어 '너희는 명절에 아버지 제사만 지내라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절에 간다' 고 했지.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추석이고 설이고 우리 아이들은 지 아버지 차례를 지내고 나는 절로 가서 우리 부모님 모신다고. 절에 가서 '막내딸 왔습니다' 하고 절하고 와요.

자녀분들이 착하네요. 어르신은 27살에 결혼했나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중매결혼한 거야. 이질녀가 서울에 살았어. 그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소개를 한 거야. 그런데 살다보니까 그 집안에도 풍파가 있더라고.

서울 어디에서 만났어요?

다방에서 만났지. 그 사람(남편) 만나서 풍파도 많이 겪고 그래서 그래. 내가 딸 하나 아들 하나야. 나는 애국자야. 가족계획 그 난리칠 때 둘만 낳아 잘 기르고 허허.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정부 시책을 잘 따른 거야. 작은애만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데. 손녀가 하나 손자가 하나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하고 엄나 산소도 집 옆에 있어요.

성공했네요. 부모님은 아들 못 낳아서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못 누리신 행복을 제가 누리고 삽니다' 라고 산소에 가서 그래. 엄마 아버지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아들 없어서 설움받고 손자 없어서 설움받고 한 것을 아들도 손자도 있고 엄마 아버지 덕에 막내딸 호강하며 행복하게 합니다 하고 그러지.

어르신은 결혼식을 어디에서 했어요. 구식이예요, 신식이예요?

예전에 세운상가 있죠, 세운상가 거기서 했지.

최신식으로 했네요. 결혼식장 이름은?

.....재미 있는 것은 나는 드레스를 입고 우리 아버지는 한복을 입었어. 그것도 대조적이죠.

그러네요?

우리 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입고 내 손 잡고 들어갔다니까 허허. 그러니까 격동기야. 구식에서

신식으로 바뀔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도 아버지는 두루마기를 입고 나는 면사포를 쓴 사진이 남아 있어요.

역사적인 사진이네요.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한참 찾아봐야 하는데. 다음에 찾으면 보여줄게.

당시에 맞선 보고 얼마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 1년 뒤에 했을 거야.

1년은 사귄 거네요?
네. 1년 안 됐나 그랬을 거여.

그럼 어르신은 서울로 올라가서 데이트하고 그랬어요?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얼떨결에 결혼하고... 풍파 많이 겪었어요.

바깥어르신 때문에요?
많이 겪고 살았어 내가. 그 얘기는 그만해. 그 얘기는 내 개인사야 허허.

당시 신혼여행을 다녀왔나요?
신혼여행이라고 (인천) 송도 갔다 왔어.

인천에 송도신도시에 있었던 송도유원지요?
거기 갔다가 왔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왔지. 우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워낙 철두철미하고 유교사상이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사람이야.

아, 바깥어르신이?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사람이고 조카는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이 양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고,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우기고 안 간 거야 본인이.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문은 기가맥히게 잘해요. 한문을 배운 거야. 한문 좋지, 필적 좋지. 기가맥히게 잘해.

어디에 반했어요?
반한 것은 없어. 그냥 괜찮아 보이기는 했어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 사람이 조실부모해가지고 형수 손에서 컸어. 큰 조카하고 이 사람하고 한 살 차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젓을 먹고 자란 게 아니라 형수 젓을 먹고 컸어.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형수 젓을 먹고 가족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도 내 가족은 위하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게 절대적인 거야. 사랑도 받아본 놈이 줄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 가족은 사랑하겠지 생각한 것은 오판이야.

정말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줄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핀트가 빗나간 거야. 그래도 어째든 헤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았으니까 난 성공했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해로했으면 성공한 거죠?

결혼해 가지고 인생 실패만 안 하고 살았으면 성공한 거야.

바깥 어르신은 생존해계시나요?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10년 되었어 10년. 5년을 병원생활하고 서울 성모병원을 안방 드나들듯 했어.

그러면 아버지 3년 어머니 3년 남편 5년을 병수발한 거네요?

그렇지.

어르신 대단하네요. 바깥어르신과는 몇 살 차이였어요?

여섯 살.

그럼 바깥어르신도 굉장히 늦게 결혼한 셈이네요?

서른 넘어서 33살에 한 거지. 너무 늦었어.

어르신 입장은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을 보셔야할 형편이었잖아요. 결혼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된 거였나요?

그게 아니었지.

신혼생활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그 양반(남편)이 여기에 오게된 것을 아무도 몰라. 남들은 하기 좋은 말로 '처갓집에 아들이 없어서 와서 거느리고 살았다' 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나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비밀이예요?

비밀이지 그럼.

그럼 신혼생활은 어디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셋방 얻어가지고 살다가 이 양반이 이탈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양반이 갑자기 절로 들어간다고 해요.

절에 들어간다고요?

절로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절로 가는 것은 내가 안 말려. 내가 말리지는 않는데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거든 가라’.

바깥 어르신이 불교신자였어요?

그게 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던가봐. 그래가지고 절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절로 갈 거면 왜 결혼해요?

누가 알어, 뭐를 했는지. 그거는 안 말리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결혼하고서 절에 간다고 하면 좋다는 부모 없잖아. 그래서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가라고 그랬더니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고 어느 날 보따리 싸가지고 절로 들어갔어.

아이도 있는데요?

애는 뱃속에 두고.

신혼 초에?

그럼.

그럼 결혼은 왜 해요?

애는 뱃속에 두고 참 그걸 보면...

결국에는 입산했다가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절로 가니까는 셋방 살다가 내가 친정으로 올 수밖에 없어. 갈데가 없으니까. 돈 벌어야 살림을 하고 살죠. 그래서 살림하는 엄마 아빠에게로 온 거야. 오라고 해서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럼 나중에 바깥 어르신은 다시 내려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머리를 들고 들어오는데 어떡해.

바깥 어르신 말이예요. 절에 들어갔다면서요?

절에서 내려와서부터는, 절에는 빈주먹 들고 들어가면... 전에는 탁발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신도들이 바치는 걸로 먹고 사는 세상이요.

맞아요, 옛날에는 탁발해서 먹고 살았어?

옛날에는 탁발해가지고 바랑 걸머지고 먹고 사는 세상인데 빈 주먹만 들고 들어갔는데 어디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려왔잖아.

절에는 몇 년 동안 계셨어요?

2년인가, 애를 낳고 그러니까는 돈 부쳐라 쌀 보내라 옷 보내라... 절에 있으면서. 황당하잖아.

아니 집을 나간 사람이 무슨 권리로 요구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안 내려왔어. 자기가 돈벌러 간다고 해 놓고 보따리 싸 같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내려왔는데, 이제 서울에서 약수동에서 살았을 때 나한테도 편자가 오고 여기 우리 아버지한테도 편지가 간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편지를 갖고 서울로 쫓아 올라온 거야. 돈 부쳐라, 옷 부쳐라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진짜.

그건 낫두껍죠?

그건 아니지. 그 꼴을 내가 보나, 안 보지.

이혼 안하고 사신 것이 참 용하네요?

그러니까 그래. 애, 이렇게 살아도 너하거 나하고 헤어지지 않고 인생 실패 안하고 살아서 손자 손녀까지 보고 네 호강까지 싸잡아서 복받고 산다 그랬어.

바깥 어르신은 은산리로 내려와서 농사지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다시 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안 했고요?

그렇지는 안았는데 여기(은산3리) 새마을사업할 때 지도자 한다고 전력을 쏟고... 아이구 참 내.

새마을사업도 주도했어요?

여기 이 동네 취락구조개선 할 적에 이 양반이 한 거예요.

그때 이장하셨어요?

이장은 안하고 새마을지도자. 진위면 새마을지도자 총회장까지했어요.

진위면 새마을협의회 회장까지 했어으면 끝발이 쎘는데?

그때는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대단했어. 전두환이 전경환이. 전경환이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회장도 하고 표창까지 받았어요. 진위면 협의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 표창은 전두환 때요?

응 전두환 때.

그럼 전두환, 전경환 때이네요?

그렇지.

그럼 취락구조 개선도 바깥 어르신이 주도했단 말이죠?

이 동네 집들이 워낙 흠집이 많았어. 동네에 헌집이 많으니까 이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제일 취약한 부락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는 저기(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는 그 돈을 끌어온 거야. 정부지원 받아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았군요?

정부지원을 받아서 땅 사고, 집 지을 적에 한 집에 60만 원씩 해주고.

집을 지을 때는 희망자만 했어요?

그렇지. 동네 일이라면 발 벗고 뛰니까.

희망자 중심이었네요?

아녀, 희망자가 아니라 전 가구 모두 60만 원을 융자로 해준 거야. 저금리로다가.

집 지을 때는 얼마를 들었어요?

최고로 많이 들었던 집은 요기 회관 앞의 이 집인데...

집집마다 건축비가 달랐네요?

잉, 달랐어. 개인이 짓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터를 사줬어. 터를 사주고는 딱 100평씩, 100평씩 끊어줬어요. 땅값도 20만 원인가 되었는데 부락 돈으로 해주고는 나중에 회수했어. 부락에서 받았으니까 다시 회수했어요.

회수했군요?

부락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개인한테 불하를 했으니까 다시 받은 거지.

매입한 사람들은 순순히 돈을 냈나요?

안 낼 수가 없지. 등기를 내야하는데 부락에서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안 되잖아. 책임자들이. 그렇게 땅값을 받아가지고 부락자금을 만든 거야.

마을기금이 그렇게 조성되었군요?

마을자금을 만든 거예요. 마을 공동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되니까 돈을 안 낼 수가 없지.

취락구조사업을 했던 시기가 1977년부터인가요?

1977년도에는 시작을 한 거고 늦게 한 사람들은 1980년대 초까지 했고.

1980년대 초에도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럼. 참 우리동네 사람들 고생들 많이 했어. 물이 없어 가지고 저거(간이상수도) 저기를 파 가지고 이장네 집 뒤 거기를 파가지고, 파다보니까 옹벽이 뭉게지잖아. 그 때 사람들 참 고생들 많

이 했어.

그러면 어르신 댁은 얼마들여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데 욕심이 없어서 이것(집터)도 하나 못 받았어.

그럼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
집은 저 쪽에 우리 아버지가 사는 터에다가 집을 지었지. 내가.

아이고, 본인 것은 못 챙겼구만?
지것도 못 챙긴 바보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 놓은 터에다가 내가 지은 거야. 우리 아버지 집터에다가 나도 집을 두 번 지어봤어요.

그래요. 아버지 집 짓고 어르신 집 짓고?
여기 취락구조 집터도 선택만 하면 되는 거여. 거주하던 사람이면 누구든 100평씩 주는 건데 그것도 욕심을 못 내고 못 챙기고...

굉장히 양심적이시네요. 어르신 댁은 언제 지었어요?
우리 집은 1972년에 보로꾸(벽돌)로 지었다가 1997년에 또 지었어. 그것도 업자를 줬더니 업자놈이 돈을 해처먹어 갖고 감방을 가서 억지로 억지로 마무리 했지.

사건사고가 많았던 집이네요?
개판오분전이지.

지금 집은 슬라브집인가요?
슬라브집인데 지붕이 새가지고...

얼마 주고 지었어요?
그거 4천만 원인가 줬는데 여기(취락구조개선집) 집들은 끄떡이 없는데 그놈의 업자새끼를 줬더니...

뽀쪽집인가요?
보로꾸집. 보로꾸집을 지었더니 하늘이 다 보이고 물이 새고.

벽돌집을 지을 때는 얼마를 줬어요?
그건 한 200만 원이나 줬는지 모르겠네.

1972년 집은 아궁이 집인가요?
아궁이집이여.

방은?

방은 세 개.

여기에서 아이들 키우고 다 했네요?

그렇죠. 그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부모님 방, 우리 방, 애들 방.

농사는 몇 평이나 지었어요?

농사는 얼마 안 되었어. 농사도 한 3천 평쯤 되는데 우리 아저씨(남편)가 다 팔아잡수고 가셨어.

공수래 공수거였네요?

거기도 이야기하면 길어요 허허.

돈이 많지는 않았네요. 밭은 얼마나 되었어요?

밭은 지금 살고 있는 터 옆에 것 하나야. 600평인데 우리 아버지가 사 놓으신 거야. 거기에서 대지로다가 150평이 빠지고 나머지에 고추 심고 그러는 거야.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네요. 3천 평이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내 지금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 나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못 둔 것 나는 아들 둘이나 두고 손자 두고 손녀딸 두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말해.

어르신은 솔직히 다 이루신 거야?

저 우리 아저씨 보고도 내가 그랬어. 내 말을 좀 듣지 맨날 소주병만 들고 다니다가 병원에 가서 고쳐가지고 나오면 간암인데 또 술 퍼마시고...

바깥 어르신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소주병만 들고 다녀서. 내가 그래서 ‘당신이 못 누리고 간 것 내가 다 누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지.

동네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결국 술로 간암이 와서 돌아가셨네요. 술 드시고 주사는 없었어요?

술마시는 사람이 주사가 없다면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농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께요. 옛날에 논농사의 경우에는 농사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옛날에 논 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갈았으니까... 땅 풀리면 갈지 뭐.

땅 풀릴 때가 4월쯤 되나요?

그렇지, 한 4월은 되어야 땅 풀리지. 옛날에 못자리는 물못자리 하고.

논 갈고 물은 어디에서 댔어요?
논갈이도 애벌 갈고, 두 번 갈고, 세 번 갈고 그 다음에 써레질을 해야 모심는 거지.

모내기는 언제했어요?
옛날에는 음력 6월까지 심었어요.

모판은 언제 만들었어요?
4월. 벼 씻나락 뿌리는 것은 음력 4월 초는 될 거여.

4월 초에 모판을 만들어서 며칠을 길러서 모내기를 했어요?
논바닥에다가 모판을 만들어 놓고서 벼 씻나락을 그냥 끼얹졌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모판에서 며칠 길러요?
며칠이나 마나 이제 싹 틔워 갖고 물 잡아 놓으면 그냥 거기서 자라는 거지. 자리면 가져다 심는 거고.

모판에서 자라는 기간이 20일쯤 되요?
20일은 넣어야 되요. 아니 30일은 되어야 할걸. 한 달은 길러야 모내기를 했어.

옛날에는 모내기가 진짜 5월 말 6월은 되어야 했던 거 같아요?
6월은 무슨. 하지 때까지 심었다니까. 옛날에 손으로 심었으니까 하지 때까지 심었지. 작업반 해서 심으러 다닐 때 '하지 모'라고 했어. 지금은 그렇게 하면 못 먹잖아.

지금은 생육기간 때문에 안 돼죠. 가물 때 모내기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들 많이 했지.

가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가물 때는 비올 때만 기다려야지 어떡해. 조그만 물이라도 있으면 심었고.

진위천 물은 끌어오지는 않았어요?
진위천 물이 어딨어 순전히 하늘바라기지. 저기 양수장 주변도 다 하늘바라기였어.

웅덩이는 이장님 댁 논에 있었던 것밖에는 없었고요?
여기서 퍼서 심었는데 그것도 가물면 힘들어. 다들 하늘바라기여. 저거 저거 뭐야 저거(이동저수지) 생기기 전에는.

이동저수지 수리조합이 생긴 것은 언제인지 기억나요?
새마을운동 할 때 생긴 거예요. 어비리 저수지. 그것도 몇 년도에 생긴 건지는 몰라. 그러니까

새마을 집(주택개량사업) 지을 때 생겼어. 그건 기억나네. 지금 저기서도 한 30년쯤 지나니... 한 30, 40년 지났나보다.

옛날에 마을에 두레는 있었어요?
두레는 없었어요.

그럼 김매기는 누가해요?
피사리도 하고....

피사리는 주인들이 했어요?
그렇지, 주인들이 했지. 품앗이로도 하고. 주인들이 품앗이 해가며 서로 품앗이했지.

품앗이로 김매기도 했네요?
그렇죠. 집안사람끼리 할 수 있으면 그냥 하고 부족하면 일꾼 불러다 쓰고.

어르신네는?
우리는 농사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했지.

옛날에 농가에서 부업으로 무엇을 했어요. 가마니치기 같은 거요?
옛날에는 가마니는..

가마니쳐다가 장에다 팔아보지 않았어요?
나도 가마니쳐서 팔아도 봤어.

여기도 했어요?
가마니 치고, 돋자리 치고.

겨울에 하나요?
겨울에 하지.

어디 장에 팔았어요?
오산장. 우리 아버지는 강을 건너다가 떠내려가기도 했어.

어디, 진위천에서요?
저 지금 은산5리 지나서 기나지고개(높은재), 지금 거기 뭐야 그쪽으로 가다가 금성(LG전자) 공장 옆으로 있는 거기.

예, 그렇죠?

거기가 도둑놈이 많이 나는데. 저쪽에서 넘어오는 거기가 도둑놈이 많이 나오고 거기를 기나지고개라고 했어. 거기 넘으면 거 고현리, 청호리 있잖어.

오산 고현동 기나지고개를 넘어다녔네요. 여기가 도둑놈이 많았다고요?

여기도 그렇지만 견산리 한승아파트 넘어가는 고개도 길이 좁았지. 산직말 넘어가는 데.

그쪽 길로도 넘어다녔어요?

산직말 쪽으로도 넘어다니고 이쪽(고현동)으로도 넘어다니고.

산직말 지나서 오산까지는 몇리나 되었어요?

오산까지는 20리 잡아. 평택은 30리를 잡고.

평택은 걸어다닐 때 어디로 다녔어요?

평택도 옛날에는 걸어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다녀요. 옛날에는 다들 걸어다녔어요. 예제울, 빈터고개로 해서 칠원리 쌍용 앞에 있는 마을로 걸어다녔어요.

장은 어디를 봤어요. 서정리장도 봤어요?

서정리장도 보죠.

서정리 갈 때는 어디로 다녔어요

서정리는 동막으로 해서 소골로 해서 흰치고개 넘어서 장안말 지나서 다녔지.

서정리는 몇 리나 되요?

서정리는 시오리(15리)는 되지.

장에는 뭘 가지고 다녔어요?

농사지어서 곡식가지고 다니고 그랬지 뭐가 있어요.

나무해다 팔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동네 사람들 나무장사하느라고 고생했지. 나무해다가 송탄에다 팔고. 솔가래, 솔가래가 떨어지면은 그거 긁어다가 팔고. 우리 아버지도 나무장사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주로 아침장(송북시장)에다 팔았지.

아침장에다 팔았네요?

그렇지. 거기가 옛날에는 논바닥이고 다 저기였잖아.

송북시장이라고 하는 데죠. 은산리에서는 나무장사해서 땅 샀다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나무장사 해서 돈이 좀 되요?

나무장사해서 땅 산 사람들 있는데 다 망했어. 재산은 악으로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렇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쫓아다니면 잘 안되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고 지악이 반 독이란다.’ 이 말이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도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제가 그래서 기록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산 지식은 지금 좋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누르면 번쩍번쩍해서 다 나오고 뭐 하나 누르면 저기도 봐봐 여기도 와와하는데...

장작도 해다 팔았어요?

장작, 솔가래, 옛날에는 솔가지. 옛날에 나무장사하던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 다 없어.

나무해서 갖다 팔면 하루에 얼마를 벌었어요?

곡석(곡식)을 팔고 사는 게 금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아니, 나무해다 팔면 얼마를 벌었냐고요. 저기 예제울(도일동) 사람들은 하루 쌀 3되는 벌었다고 하던데요?

쌀 3되 값이라. 그때 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 200원을 했는지 300원을 했는지. 워낙 귀했던 시절이라(동문서답함)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데 나무 한 짐, 두 짐을 팔면 쌀 3되 값은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쌀 한 되에, 쌀이 하도 귀하니까 쌀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지금 가만히 계산해봐요. 옛날에는 쌀 한 말을 팔려면(사려면) 품 한 가락(하루 품삯)에 200원, 300원 했나, 2천 원 3천 원 했나 할 적에 열 가락 이상을 팔아야 쌀 한 말을 샀어. 하루 품삯 200원, 300원 할 때지. 그런데 지금은 하루만 나가서 벌어도... 아 나는 그거 생각해. 쌀밥을 먹으려면 품을 팔으면 한 열흘을 일해야 쌀 한 말을 사는데 지금은 하루 일당이 얼마야. 참 내, 세상이... 하루 일해도 쌀 한 가마 사고 그래.

다른 마을에서는 5일은 일해줘야 쌀 한 말 얻었다고 하던데 여기는 열흘이나 일해줬네요?

우리 동네 그 양반도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콩을 맛떡을 쳤잖아. 맛떡을 치면은, 옛날에는 장판을 깐 게 아니라 자리를 깔았지. 그런데 이 양반이 우리 집에 마실이라도 오면은 저 벽에 있는 흙도 뜯어 먹고 방 바닥 흙도 뜯어 먹어요. 배가고파서 먹은 거야 그게. 그걸 먹는다고. 뜯어 먹고 해서 재산을 모은 양반이 있어. 왜 그러냐면 아궁이에다 불을 때니까 방바닥 흙이 고소한 거야. 콩 냄새가 안 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왜 저걸 먹나’ 그랬는데. 지금도 애들보고 그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래. ‘야 아무개 할머니 흙 잡수고 살았다’ 라고 하면 엄마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안 봤으니까 거짓말로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껴서 돈을 모은 거네요?

그렇게 하고도 살았던 양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땅을 샀는데 아들 때까지는 그게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손주 때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손자가 하나도 없이 날렸지.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땅도 엄청 많이 샀는데. 그렇게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손자가 싸그리 팔아서 주워 먹고 조졌어. 흙을 먹고 세상에 모은 돈인데.

예로부터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재산만 모으면 나중에 문제되더라고요. 그렇게 악으로 재산을 모았으니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켰겠나고요?

그 아들도 고생을, 9살부터 남의 집 머슴으로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내 재산 네 재산, 내가 많다 니가 많다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아들이 약을 먹어가지고... 흐이그.

재산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났네요?

그런 것도 보고 살았어요. 재산은 많이 모았는데 그렇게 악으로 번 재산을... 그것만 잘 지키고 살았어도 저희 형제는 끄떡없이 살 건데 싹 팔아가지고. 그래도 저희들 자수성가를 했다고 그러데. 자기들 먹을 것은 벌고 산다더라고.

은산3리에 우물은 몇 개가 있었어요. 물 길어 먹을 때 우물요?

우물이 옛날에 회관 앞에 공장 앉은 자리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로 동네 사람들이 다 먹었던 거여.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물이 좋아서 마르거나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부족하지는 않아도 서로 물을 길어먹으려고 경쟁하지는 않았어요?

경쟁은 뭘. 옛날에는 독에다 (물을) 이고 다녔잖아.

어르신도 독에 이고 다녀봤어요?

그렇죠. 해봤어요. 물지게도 져봤고. 물동이 이고 다니는 건 힘들어.

어르신 연배까지도 물동이를 이었군요?

그럼, 나도 해봤어. 물지게도 해보고. 물동이는 힘들어. 누가 들어줘야되고. 힘드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머리에) 이고 다녔지.

그래도 물동이 이는 것은 만만치 않은데?

힘드니까 바께쓰. 바께스로도 길었고.

집안에 물항아리도 있었겠네요?

없었어요.

그러면 길어온 물은 어디에 보관해요?

우리 집 뒤에도 우리가 먹을만큼의 조그만 우물이 있었어. 우리 하나만 먹을 만큼.

조그만 웅덩이가 있었네요?

고 아래에도 우물이 있었고.

웅덩이 우물이네요?

지금은 거기에도 건물도 올라가고 모심고 했더라고, 지금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웅덩이 물을 떠서 드셨다는 말이네요?

그게 워낙 우물로 쓰려고 돌로 쌓았던 거야. 그래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고. 그랬던건데 지금은 사람도 살지 않고 안 먹으니까 없어진 거지.

회관 앞 우물도 먹었지만 어르신 집 뒤편의 우물도 길어먹었네요?

회관 쪽 물은 그쪽 (사는) 사람들만 먹었지. 우리 집 쪽에는 4집만 먹었고. 거리가 멀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 우물을 먹은 거야.

어르신 동네에도 작은 우물이 있었네요?

작은 우물이 있어. 지금도 그 웅덩이가 있기는 있어. 옛날에는 이 우물을 먹고 살았는데 다 무너졌구나 하고 생각되지 지금 가서 들여다보면.

바가지로 퍼먹던 물인가요?

바가지로 퍼먹었어요. 거기가 ‘네집 메’ 인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주택개량사업하면서 여기 (회관 근처)로 내려오고 수도를 놓고 하면서 안 쓰게 된 거지.

수도는 언제 놨어요?

수도를 놓은 거. 수도는 새마을운동하면서 놓은 거야.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바깥 어르신이 놓은 거죠?

네, 우리 아저씨가 한 거지.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터를 밖에다 두면 겨울에는 얼어버리잖아. 그러면 반장이 엄청 고생해서 뜨거운 물 퍼다가 녹여서 물 나오게 해주고. 그런데 (반장하던) 그 친구도 갔어(죽었어).

물탱크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다 두고 저기다도 두고 했는데 그러다가 치우고, 전기까지 여기다 놓고 했었는데 다 거둬 치웠어요. 새마을운동할 때 간이상수도 하고 이제 광역상수도 들어오고 다 치웠어. 팔당댐 상수도 하면서 다 없어졌어.

기본시설은 간이상수도 때 다 해 놨고 팔당댐 들어오면서 치워버렸군요?
그렇지. 그래도 이 동네는 물 때문에 큰 고생은 안했어.

은산3리에도 디딜방아 같은 거 있었어요?
아, 우리동네도 있었어요. 한 개. 우리 디딜방아도 해 보고. 그거 힘들지.

어르신 어릴 때인가요?
응, 어릴 때지.

연자방아는?
없었어요.

저기 정동순씨 손자 정홍섭씨 하우스 아래쪽에 보니까 옛날 디딜방아로 썼던 확 같은 거 있던데 그게 마을에서 사용하던 건가요?
그런거지. 그거 다 이제는 고물이지 뭐.

그러면 옛날에는 곡식 찧어 먹는 게 무척 힘들었네요?
힘들었죠, 절구질.

방앗간은 없었어요?
방앗간은 2리 정동순씨 아들 병기씨가 하던 거. 우리도 방아를 찧었는데(절구에 찧은 것을 말함) 그것은 보리방아. 보리를 심어도 찧을 데가 없어서 못 먹었어. 저쪽으로 가야 되고. 보리방앗간은 여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리쌀은 성은리 그쪽에 방앗간에서 찧어야 돼. 거기 가서 찧어와야 하고, 옛날에는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그랬잖아.

맞아요, 옛날에는 보리방아 밀방아가 달랐어?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서 찧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기도 어렵고 찧기도 힘들었네?
그렇지. 어렵고, 심으려면 많이 심어야 되고. 그래야 가져가도 찧어주잖아.

은산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잘 챙겨주네요?
안 챙겨주면 어떡할 거야. 내가 보건소 자랑도 해야지. 보건소 지은 땅이 저기 6.25 난리 때 우리 마을로 피난 나왔던 사람이 회관을 지으라고 땅 100평을 사줬어. 이건 자랑이니까 하는 거예요. 100평을 사줬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회관을 지었는데, 회관을 지을 때도 돈을 대줬어. 그래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아저씨(남편)...

돈을 내준 사람도 마을에 살았어요?

아니, 그 사람은 6.25 때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이야. 피난민인데 여기로 피난와서 살다가 지금 이장네 집에 할머니가 계셨어. 그 때가 우리 아버지가 구장을 볼 때인데 우리는 방이 없으니까 이장네 집에 연결해서 살게 해줬어. 그랬다가 그 사람이 동내를 나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우리 동네를 제2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회관을 지어준 거야.

그분이 나중에 자수성가했나보네요?

라이온스클럽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행사 때마다 행사하고 오면은 돈을 자루로 담아가지고 왔다고 해. 그 사람이 터 사줬지 건물 지어줬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복 터진거야. 진료소가 우리 마을에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 아저씨(남편)가 새마을지도자를 볼 때인데 평택군에서 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은산리 5개 부락에 지을만한 땅이 없었어. 지금만 해도 땅을 내주려고 애썼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진료소 지을 땅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피난민이 사준 땅) 땅을 내준 거야. 100평 있던거. 그걸 서슴없이 내준 거야. 그래서 우리 아저씨(남편)가 진료소를 여기(은산3리)로 끌어들인 거야.

회관 옆자리를 준 거네요?

잉 그렇지. 옛날에는 봉남리에 보건소가 있고 진료소를 지어야 하는데 여기하고 동천리에 지은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만 해도 땅 줄 사람이 많어. 그때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라 터가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지어라’라고 한 거야.

바깥 어르신 덕에 동네 사람들이 덕을 본 거네요?

그래도 덕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허허.

바깥 어르신은 함자가 어떻게 되요?

이규흥씨.

보건진료소가 언제 들어왔어요. 취락구조할 때인가요. 전두환, 전경환 그 때인가요?

아마 그때쯤 될 거야.

새로 지은 것은 언제 지었어요?

이건 몇 년 안 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전의 지도자들이 잘해서 얼마나 편해.

그렇죠?

아침에 추운데 은산5리같은 동네는 자전거 타고 와야지.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 건물도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지금에야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안 내주지.

그럼 은산3리는 어르신 아버지와 바깥 어르신 덕을 많이 본 거네요. 공덕비 하나 세워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 허허.

제가 잘하셨다고 기록해 놓을께요?
지금 이 건물(진료소) 준공식할 때만 해도 우리 아저씨(남편)가 살았어.

바깥 어르신 생전에 지었군요?
10년도(2010)인가 11년도(2011)에 돌아가셨으니까. 지은지 한 10년은 되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때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마을에서 땅을 아예 보건소에 내준 거야. 이제 보건진료소 땅이 그쪽(평택시)으로 넘어간 거지.

마을회관은 언제 지었어요?
오래되었어.

지금 회관 전에도 옛날 건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 옛날에도 있었지.

회관은 피난민 그분이 지원해 준 것은 아니죠?
이건 아니야. 워낙 동네 땅이고.

새마을운동 때도 회관이 있었네요?
그렇지. 이렇게 방 한 칸하고 해가지고 써먹던 거.

원래 회관 위치가 어디였어요?
그 위치 그 자리야.

그러다가 지금 위치에 따로 지은 거네?
지금 회관은 취락구조개선할 때 따로 지은 거고.

은산3리에 당제같은 거 지냈어요?
당제나 산신제 같은 거는 없었어요.

집안에 터주가리같은 거 해 놓고 살지는 않았구요?
그런 것도 없었지.

동네에서 줄다리기같은 놀이는 했어요?
줄다리기도 안 했고.

민오순(여, 1940년생), 진위면 은산5리

일시	2022년 5월 11일
장소	은산5리 자택
구술자	민오순(여, 1940년생)
면담자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어머님은 친정이 어디세요?

우리 친정동네는 저기 전라도인데 거기서 우리들 어렸을 때 여기로 이사왔어요.

어릴 때 이사왔군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이리로 이사왔죠.

그럼 동네 결혼하신 거네요?

아니죠. 우리 엄마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낳아서 어릴 적에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 마을에서 자라신 거잖아요. 동네 결혼을 하시고?

아니지, 동네 결혼은 아니야. 우리 남편은 평택사람이여.

몇 살 때 올라왔어요?

나는 어려서 왔을 거여. 몇 살 때 왔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서울에서 많이 사는데 서울로는 못 가고 여기에서 정착한 거지. 여기가 그전에는 농사짓기가 좋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잠깐 살다가 올라가겠다고 하고는 8남매를 낳고 산 거지.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웠을 거여 허허. 아니다,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다섯이다. 9남매다 9남매.

형제가 많네요?

많지. 아홉(명)이 다 살았어. 딸 오형제에 아들이 넷인데. 그냥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워낙 저기요, 우리 아버지가 맏이라고 공부를 많이 시키셨데.

부친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했어.

무슨 공부를 했어요?

한문공부니 뭐 그런 거를 아주 유식하게 잘했어요.

신식공부는요?

학교도 다니고 한문 공부도 하고. 할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많이 가르쳤데요.

어머니(친구 어머니임)는 여흥 민씨인가요?

우리가 워낙 저기잖아. 우리 민씨가 제대로된 본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자계열, 장손계열이라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쎘지.

원래 민씨들이 조선시대에 왕비를 많이 배출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 동네 와서 엄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어. 아버님이 이장이나 이런 것도 하셨고. 우리 친정아버지는 자식들이 타관에 와서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항상 고향으로 자식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제대로 길러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거를 강조하셨다고. 고향으로 자식들을 다시 데려가서 존경받으며 살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으셨지.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셨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배우기도 잘 배우시고 저기도 그렇게 저기해서 이 동네가 이렇게 커도 동네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존경받고 살았어요. 동네에서 행동거지도 좋고 말씀도 잘하고 하시니까 '아무개네 아버지' 하면 그 양반 점잖은 양반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말이고 행동이고 저거하게 살지 않았으니.

타지에 사셨으니까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겠죠?

위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문씨인데...

어머니는 어디 문씨예요?

그런 건 몰라도...

어쨰든 친정아버님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네요. 은산리로 오셔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솜씨가 좋아서 명주(길쌈), 옛날에는 누에 먹여가지고...

누에치셨네요?

아냐 누에에서 실 뽑는 솜씨가 좋았어. 동네서 그런 것(누에치기)을 맥이면 그걸 가져다가 명주실을 뽑고 씨를 빼서 틀에다 걸고 짰지. 우리 엄마가 그런 기술이 좋았어. 우리는 친정엄마가 이걸 팔아가지고(길쌈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직접 팔기도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동네에서 그런걸 먹이면 우리 엄마가 가져다가 일을 해서, 그때는 쌀로다가(품값을) 몇 되 주고 그랬는데 품값을 받아다가 이제 저걸 (살림을)하고 고향에서 가져온 저기가(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땅 사서 농사짓고 살았지.

밑천이 있었네요?

밑천도 있었지. 명주실을 날아서 짜주면 쌀 몇 되 주고.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못하는 기술, 김쌈 기술 특기술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살 수 있었지.

어머니가 쓰시던 물레같은 거 남았어요?
그런 것 다 버렸지.

지금 평택박물관 만드는데 그곳에 기증하면 좋았을텐데요?
그런 것은 제 버렸어. 집수리하고, 집 짓고 하면서 다 없어졌지.

맞아요. 수리하고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자개농도 있었고 많았는데.

어머니도 길쌈 기술을 읽혔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힘든 거라고 안 가르쳐줬어. 이거(손으로 짠 옷감을 보여주며) 우리 엄마가 짜신 거야. 우리 엄마가 입던 건데. 이건 모시, 이건 삼베. 그래서 우리 엄마 솜씨라 내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아니 이거를 손으로다 하나 하나를 짜서...(침묵) 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마름개질 해서 바느질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한 거지. 우리 엄마가 직접 손으로 한 것이다 생각하고....

바깥어르신은?
우리 아저씨는 그렇게 저기한 사람인데 일찍돌아가셨어.

그러게요. 아버님이 일찍 작고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게. 남자들은 자기를 저거하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여자 말을 안 들어요. 나도 오남매를 낳았어. 아들 둘을 낳고 딸 셋에다가.

누구를 먼저 낳았어요?
위로다가 딸 둘을 낳고 그다음에 낳으니께 아들이니께, 그 애들을 가르칠 생각을 해야하는데 아들은 둘은 있어야한다고 또 낳으니께 딸이니까 아들을 하나 더 낳은 거지. 형제가 있어야 서로 의지하고,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니께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다섯이야.

아까 말씀드린 길쌈에 대해서 여쭐께요. 길쌈하는 순서 좀 가르쳐줄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솜을 기계로 안 틀고 손으로다가 목화를 따서 씨아를 돌려서 씨를 빼서, 지금은 기계로다가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활 튀듯이 이렇게 탁탁해서 그걸 솜을 제 펴 가지고 이제 막대기에다 이렇게 솜을 말아서 씨아에다가 해서 물레로 돌려서 실을 빼는 거지. 목화도 그렇게 하고 그걸 따서.

목화도 심었어요?

목화도 했어. 우리 어머니가 길쌈을 하니께 목화도 심고 재배해서 따서 그랬어.

삼같은 거는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심고 다른 사람들이 심은 거를 우리 엄마가 다 (삼베를) 짤 줄 아니께 실을 뽑아서 짠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짠 것이 명주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명주도 하고 목화도 심어서 목화도 하고 그다음에 모시도 하시고. 모시는 저기잖아 누에를 먹여가지고...

아니 그건 비단(명주)이잖아요?

나는 그걸 안 했지만 우리 엄마는 했어요.

그럼 어머니의 친정엄마는 누에치기도 하신 거네요?

양잠이라고 그랬지 옛날에는 그걸 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거(누예) 고치를 삶아서 이렇게 실을 빼면 그게 실이 만들어지고...

누에를 삶아서 나중에 실을 내는 거네요. 요즘에는 볼 일이 없어서 어떤방식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엄마가 하는 것을 다 봤으니께 그건 알지. 뭐부터 하냐면 명주같은 경우에는 누에를 먹여가지고 고치를 따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걸 삶아서 실을 뽑는 거지.

동네 사람들도 누에치기를 했어요?

했지. 했지만 동네사람들은 실을 뽑을 줄을 모르니께 우리 엄마가 다 그런 집들 것을 모아서 하셨지.

그러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했어요?

그렇지. 모아서 하는 게 집집마다 가서 이제 누에 실을 뽑아주고 하루 품값을 받았지. 실을 뽑은 뒤에는 하나하나 날아야(명주를 짜는 행위)하잖아. 다 20자면 20자씩, 15자면 15자씩.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 집에 가서 그걸 베틀에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일(명주나 삼베, 모시 짜는 일)을 하는 거야. 짜는 건 그 사람들이 했지.

씨를 뽑아서 날아주면 마을 사람들이 명주나 베를 짰던 거네요?

그렇지. 실을 뽑아서 우리 엄마가 날아서 이제 베틀에다가 매서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바디로 베를 짠 거지.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걸 할줄 모르는 거야.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을 줄도 모르고 나를 줄도 모르고 맬 줄도 모르고 하니깐.

베틀에 올리는 것을 맨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풀 발라서, 날아서 풀발라서... 그 밑창에다 불 펴놓고.

불을 피워놓고 일했어요.

그렇지, 불을 피워놔야 풀 바른 것이 굳지 않잖어. 그게 실에다가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나 봐요. 그렇게 해서 다 풀을 발라서 그러면 밑창에다 은은하게 불을 피워서. 그래같고 이렇게 매면서 바디에다가 감아서 매고 매고.

불은 숯불인가요?

그렇지 숯불을 은은하게 피워야 그게 말라가면서 실에서 굳어가면서 저게 되는 거여. 그러면 베틀에다가 감어.

어릴 때 많이 봤지만 그걸 설명하려니 힘들죠?

아니 내가 어려서 동생들이 밑창으로다 많으니까 엄마가 그걸 다른 집에 일하러 가면 엄마젓을 먹이러 가는 거유. 엄마젓만 먹여가지고 오고 이제 엄마는 일하고 나는 집에 와서 또 애들 보고 그랬으니까. 내가 큰 딸이라 저기 엄마 일하는 거 보고 동생을 돌보고 그랬지.

옛날에는 큰누나가 동생들 다 키웠잖아요?

내가 밥해 먹이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다 했지 뭐.

어머니께서 집안을을 도맡아 했네요?

근데 사실은 길쌈이 엄청 힘든 일이잖아. 보통 힘든 일이야 여자들이... 그거 아무나 못했어. 그거 우리 엄마가 기술이 좋으니까 했지.

옛날 여자어른들이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물으면 길쌈이 힘들었다고들 하시잖아요?

못해요, 아무나.

그러면 어머니 덕분에 이 마을에서 양잠을 많이 했네요?

그래도 먹이는 집(양잠하는 집)은 많지 않았어. 몇 집에서 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치가 열리면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거를 솥에다가 뜨듯하게 삶아서, 고추에서 여러 개를 하면 일정하게 가느다랗게 나와, 고치에서.

이것을 물레에다가 감는 거예요?

그걸 10자, 20자 실을 뽑아서 베틀에다가 감아서 짰지.

물레는 언제 써요?

물레는 다른 거 할 때 썼지.

물레는 뭘 할 때 썼어요?

잘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보면 실을 뽑아서 물레라는 것에 감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베틀에서 짜고요?

그러네, 실을 날아서 베틀에 감고 그랬나보네.

그러면 친정어머니는 평생동안 길쌈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 형제들 다 키우고는 안 했지. 8남매 기르고 출가시킨 뒤에는 안 한거여. 자식들이 다 잘됐으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길쌈하는 법을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그걸 힘들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시대야 다 사 입고하니께 신경을 안 썼지. 우리 팔남매가 저기를 했는지 우리 외가집이 서울에 살아서 다 서울로 가서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짓고 산 사람이 별로 없어.

형제들이 4남 5녀잖아요.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다 서울로 유학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큰오빠는 공부를 좀 더 시키고 일을 안 시켰어. 큰오빠도 동생들이 나무해오면 때고 집에서 책이나 보고 그냥 어정어정 사는 거여. 큰형이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 동네서 안 살라고 나갔지.

그럼 모두 나가 살았어요?

그렇지. 큰오빠는 결혼 후에는 서울 올라가서. 서울 가서 요령은 있으니께 집을 사서 팔고 투기를 해서 집을 몇 채 샀지. 그런데 아들들이 모두 없앴나봐. 내가 생각할 때 큰오빠하고 큰올케는 부부지간에 우리 오빠는 돈을 버는 데 몰두하고 우리 올케는 오남매를 낳아서 그 애들 밥해먹이고 빨래해서 입히고 그랬지. 무슨 돈에 대해서 신랑하고 호흡을 맞춰가며 저걸(저축을) 안 하고... 이쪽에서 벌면 저 쪽에서 저축도 하고 요령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오빠 돌아가시니께 아들들이 죄다 없앴지. 다 없어지더라고. 남겨둔 재산도 큰아들만 가지고 다 없앴데.

본래 자식들을 잘 키워야 재산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올케도 신랑하고 같이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아니께 지 아들에게도 '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인 줄 아냐' 라고 말하고 알뜰하게 저기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다른 형제들은요?

다른 오빠들은 잘 살아요. 둘째 오빠는 아들만 4형제를 뒀는데.

둘째 오빠는 무엇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장사하고 나중에는 둘째 오빠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돈을 부풀리는 걸 해가지고.

둘째 오빠도 재테크를 잘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셋째 오빠는 송탄에서 살았는데.

셋째 오빠는 직업이 뭐였어요?

본래 서울에 살다가 처갓집이 송탄이라 내려왔는데 장사를 했지. 송탄에서 가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극장 앞에서 가게를 하니까 그 가게가 그때만 해도 자기 돈이 없으니까 가게를 얻어서 세를 내가면서 했는데도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게 주인네가 자기도 큰 돈을 벌고 싶어서 그 가게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 내줬는데 갈데 없으니까 송탄사거리 거기에다가 허름한 집을 하나 샀는가봐. 거기가 허름해서 쌌으니까. 우리 오빠가 거기로 이사를 가서 가게를 했다고. 가게가 처음에는 잘 안되더니 그래도 이제 거기에 병원이 앞에 서고 사거리니까 장사가 잘 되어서 괜찮다고 해.

셋째 오빠도 살만해졌네요?

살만한 것이 아니라 집이 세 채나 되요. 애들도 아들 형제에 딸 하나인데.

막내 남동생은?

막내 동생은 나보다 밑이예요. 나머지는 다 오빠야.

부모님이 딸들도 공부좀 시켰어요?

딸 중에서 우리 큰언니하고 나만 공부를 못했어. 동창들은 다 초등학교는 나왔는데.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거야. 우리 언니도 좀 다니다가 말았지.

그러니까 큰언니와 어머니는 다니다 말고 나머지는 졸업한 거네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시골에 살면서 보니까 공부라는 게 꼭 필요한 거여. 그래서 내가 엄마 아버지더러 동생들은 중학교라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자고 했더니 그래도 그애들은 중학교도 다니다 중퇴하고 다 서울로 가서 여동생들도 저기 했는데, 그래도 저기… 당시만 해도 딸은 특히 나 안 가르치고 그래서 중퇴한 사람도 많고. 그래도 나 때문에 중학교 물은 먹었지.

어머니 덕분에 동생들이 상급하교 공부를 했군요?

그래도 동생들 셋은 서울로 가서 그래도 미련하지는 않고 우리 엄마를 닮아서 눈이 트였지. 벌이는 저기 해서 돈을 엄청 잘 벌고 큰 부자로 살어.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살아.

참 잘됐네요?

애들도 3남매만 낳았는데 자식들 집도 다 사주고.

잘 사시네요?

우리 막내여동생은 아주 큰 빌딩을 갖고 있지. 걔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 아들만 사형제 집의 셋째 아들한테 갔는데 그렇게 저거하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가게를 했는데 그 때 같이 살았나봐. 옛날에 연탄 땔 때인데 연탄가는 것을 잘하니께 시부모가 아주 예뻐했어요. 그 얘가

이쁘기도 제일 예뻐 그 막내 여동생이. 그러니까 동생 남편이 연애걸어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시부모에게 얹혀 살았던 거야. 큰아들네는 다 나가서 살고. 자식들 결혼해서 데리고 살아보니까 셋째 며느리가 쓸만한 거야. 그래서 가게를 막내동생네에게 주려고 그랬었나봐. 막내동생도 서울에서 컸고 신랑도 똑똑하지만 돈은 없고. 그런디도 우리 동생이 그랬데. 부모님 가게 물려받지 말고 우리끼리 나가서 가게해서 먹고 살자. 그렇게 나가니께 시부모는 아무것도 안 주었지. 너희가 힘들면 살다가 들어오겠지 했나봐. 그런데 막내동생이 엄청 야물딱져요. 이쁘기도 했지만 똑똑했어. 신랑은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싫다고 내가 맡이도 아닌데 왜 시부모 모시고 사냐며 '셋방을 살더라도 나가 살겠다' 며 데리고 맨손으로 나왔지. 그런데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빌딩까지 산 거야.

성공했네요?

아직 내 이야기가 길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신랑이 조금 버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리고 그랬는데, 우리 동생이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낳았잖아. 그런데 신랑은 서점인가 뭐를 해서 학교에 책을 납품해서 그래도 잘 벌었으니까. 돈 좀 벌자 콧대가 쎄 가지고 우리 동생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한 건가요?

아니지, 조금씩 이렇게도 벌고 저렇게도 벌고 한 거지. 그런데 신랑은 자기가 번 돈이라고 돈을 벌어서는 색시한테는 안 주고 그랬어. 그래도 동생은 자기가 조금씩 벌어서 아이들도 길러가며 살았는데 신랑이 동생 앞에서 바람을 핀 거여. 동생 콧대를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그러다보니까 남자 콧대가 쎄니까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살겠어. 여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한 거여. 동생은 신랑하고 헤어져서 애들 다 키우고 집을 하나 사서 되팔고 또 사서 되팔고 해서 돈을 불린 거여. 그렇게 돈을 불려서 빌딩도 사고 신랑한테 간섭을 안 당하고 사니께 해외여행만 댕기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사니께 얼마나 좋아.

여자가 경제력을 가지면 기를 펴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는 이혼한 건가요?

이혼은 안 하고 따로 사는 거지 뭐. 지금에서야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지.

어쨌든 어머니 초등학교 중퇴하고 그 뒤로 동생들 건사하고 집안일 했단 말이예요. 큰언니는 집안일 안 했어요?

우리 언니는 저기 화성 조암이라는 곳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때만 해도 그 집도 살많했는데, 시아버지가 평생을 여름에도 모시두루메기에다가 점잔하게 입고 살았고 형부도 키가 훤칠하게 크고 잘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도 그림같이 이뻐. 그 언니하고 우리 막내동생하고가 형제들 중에 제일 이뻤어. 그런데도 이쁘거나 뭐하거나 내색하지 않고 물길어다 먹고 밥 내가면서 살았지. 우리 엄마(친정어머니) 닮아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 시아버님 모시 적삼은 다 만들어서 드리고. 그런 걸 꾸면서 저거 하고 그러니까 시댁에서도 엄청 존경받고 그랬지. 우리 언니는 아들 삼형제에 딸 형제를 낳았어. 그런데 형부가 일찍 죽고 애들 삼형제 기르면서 살았지. 그런데 그 삼형제가 엄마 아버지가 장만한 재산을 죄다 없앴어.

말년에 조금 안 좋으셨네요?

그래서 우리 언니도 큰아들하고는 못살고 큰며느리가 딸만 둘 낳았는데 좀 싸가지가 없었나봐. 그러니까 우리 큰조카도 교회댕기다가 이제 색시하고 헤어져서 교회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우리 언니는 둘째 아들네가 무슨 장사를 하니까 손주 봐준다고 가서 살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져서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르신 어릴 때는 이 동네사람들도 물길어다 먹었지요?

이 동네에 몇 집 건너 노깡 넣은 우물이 있었지. 노깡 물이 몇 개 있어서 그거 길어다가 먹었지. 우리 어릴 때는 냉장고가 없어서 김치통도 넣었고.

어머니 때는 뭘로 물길었어요?

우리는 동이, 물동이로 물길었지. 김치도 냉장고가 없으니께 끝을 묶어서 달아매서 먹고, 우물에다가. 오지그릇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밑창을 싸서 우물 안에다 담갔지.

그럼 우물 안에 김칫독이 여러 개가 달려 있었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할 줄 몰랐어도 집에서 양념할 파, 마늘,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을 농사지었다고. 나중에 고향에 내려간다고 여기에다 고향 땅을 팔아서 땅을 샀으면 부자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자식을 타향에서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다 데리고 내려간다며 안 팔았던 거여. 그래서 이제 여기와서 이렇게 공부는 했는데 일은 안 해봤으니까 시골일을 못하서 남의 집 가서 품팔이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다고.

그럼 아버지는 뭐하고 사셨어요?

아버지는 들에 나가면 남이 여기 전기 전지(밭) 옆에 빈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감자, 고추같은 거를 심으면 이제 집에서 재를 가져다가 거름도 주고 하면은 곡식이 잘되요. 이 동네가 흙세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 해다가 주면 그거 먹고.

밭에는 뭐 심었어요?

옥수수, 감자, 호박 그런 것들을 심지. 여기에는 따비밭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만 남의 집 일을 못가니까 거기다 재나 똥거름을 주면 고구마나 감자가 맛있어. 팥죽을 쒀도 맛있고, 콩죽을 쒀도 맛있고. 전지(밭) 옆에서 농사가 잘되면 땅 주인들이 그 땅을 빼앗는 거여. 그러면 땅이 좋은 다른 데 가서 농사짓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길쌈을 해서 먹고 사는 겨. 이제 가을에는 전라도에서 몇 가마씩 쌀이 올라오고. 그것도 거기에 땅이 다 있는 거를 이제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동생에게 농사지어서 먹으라고 맡겨둔 거여. 간수를 잘 하라고 맡겨뒀는디 일년에 얼마씩이나 줬는지는 몰라요. 그랬는데 그 땅도 작은아버지가 다 팔아서 없앴지. 우리 아버지는 원래 착하시기만 해서 동기간들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살았어. 동생들도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결국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따비밭이라도 일구고 그래서 자식들하고 그럭저럭 먹고살았어. 잘 가르치고 잘 먹고는 못 살았어도 굶기지는 않은 거지. 우리 아버지가 따비밭에서 곡식을 해오면 우리 엄나가 그거를 그 전에는 꺼먹솥이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콩죽을 한솥씩 쒀두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이 집에서 뭔 구수한 냄새가 나' 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남에게 퍼주는 걸 좋아해서 한 자백이 퍼줬다고. 누가 '맛있겠네' 라고 하면 그걸 자기 먹을 것도 없는대도 한 사발 먹고 가라고 퍼주고 그랬어. 그런데 큰 며느리를 얻고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엄청 미워하더라고. 내 식구 배불리 먹여야지 왜 남을 퍼먹이느냐고.

며느리는 싫어할 수 있죠?

맞는 말이여. 근데 내가 볼 때 남을 주고 사는 게 이담에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물 한 모금이라도 주고 산 사람은 이 다음에 자식들이 끝이 좋은데 남의 거 얻어 먹으려고 발바둥치는 사람들은 별로 저기하지 않더라고.

옛날에 물길어 먹고 했으면 집안에 물독이 큰 게 있었겠네요?

물독에다 다 길어 부으면 큰 가마솥에다가 부어 놓고 그랬지. 물깃는 것은 우리 큰오빠는 안해줬어도 둘째오빠나 셋째 오빠는 잘 해줬어요. 나무도 해다 놓고.

여기는 나무하러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은산1리나 태봉산 같은 데로 갔나요?

아니 여기는 성은리로 많이 갔어. 은산리로도 좀 가고. 성은리 아주 먼 데로 갔지.

멀리 다녔네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무해 가지고 오면 우리 둘째 오빠나 셋째 오빠가 송탄에다 가져다 팔았지. 옛날에는 (송북시장에) 솔가리 한 지게씩 져다 주면 얼마씩 주고 그랬어.

그럼 나무장사를 한 거네요?

그렇지. 여자들은 산에 가서 나무해오고 남자들은 송탄에 팔고 그런 거지. 그때 솔가래 솔나무 밑창에서 긁어다 해오면 오빠들은 팔러가고. 그래도 큰오빠는 안 했슈.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큰오빠는 좀 그랬어요. 동생들만 시켜먹고 본인은 안하고.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갖고 나가니까 머리는 영리해서 집을 몇 채 사가지고 잘 살더라니까.

옛날 진위천에 보(洑)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

여기 학농원(동천리) 쪽에 막았던가요?

보(洑) 도랑이 있었지.

아니 보(洑) 도랑 말고 보(洑)를 막았던 거요. 장안보인가?

그거는 잘 모르지. 자세히 모르겠어. 보(洑) 도랑, 저 위에서 물 내려오는 거 그거는 알지.

어머니는 몇 살에 결혼했어요?

내가 몇 살에 결혼한 것도 이제 잘 모르겄네. 우리 큰딸이 오십 몇 살이니까.

아드님이 쉰 다섯 살쯤 되니까 큰딸이면 57, 8세는 되겠네요?

우리 큰딸이 내가 23살되던 해 낳았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내가 딸 둘 낳고 큰아들을 낳은 거요.

그럼 딸들이 60살이 넘었겠네요?

그렇게 되나.

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는 딸들도 많이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남편)는 또 안 가르치려고 하고. 돈 드는데 그냥 조금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공장생활하면 돈 벌어서 저희 시집 가고 다 해가지고 갈 거니까 그냥 중학교만, 아니면 초등학교만 가르치자고 해서 많이 싸웠어요.

교육에 관심이 적었던 가봐요?

아이구 아쭈 쌈을... 내가 그 애들을 가르치려고 이런 데서(하우스) 오이같은 거 박스에 담는 것도 하고.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한 거네요.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바깥 어르신 함자는?

박재관.

박재관 어르신과 몇 살 차이였어요?

나는 용띠고 우리 아저씨는 돼지띠.

어디 분이었어요?

평택, 지금은 초등학교가 있는 어연리인가.

어연리면 청북읍이잖아요. 어연리 분이었어요. 청북읍 어연리?

우리 시댁은 그래도 농사도 많고 잘 살았어. 그런데 우리 아저씨(남편)도 배우지는 않았어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아버지도 없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는 다섯 살인가 차이나는 형하고 사는데 그 형이 그렇게 우리 아저씨를 욕을 하고 그랬다고. 우리 아저씨가 덩치가 컸어요. 키도 180cm가 넘고. 그 집 형제들이 덩치가 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잖아. 그러면 맨날 형이 동생 많이 먹는 걸 욕하더라고. 미련하게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사발이 크잖아. 그 사발에다 수북하게 먹고도 더 먹으니까 미련해서 밥 많이 먹는다고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고. 엄청 욕을 했어.

결혼 중매는 누가 했어요?
이 동네로 장사 댕기는 언니가 했지.

엣날에는 방물장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그랬나?
어연리 그 집 둘째 아들인데 사람도 괜찮고 농사도 좀 많고 그러니까 논도 좀 줄거고 그래서 살만하다고.

둘째 아들이고 잘 산다고 했군요?
시집이 재산도 좀 있고 둘째고 하니까 중매를 한 거지.

이 당시에는 중매쟁이한테는 뭘 줬어요?
그때는 뭐, 버선이나 한 켤레 줬나. 버선주고 옷 한 벌 주고.

옷도 해줬어요?
돈으로는 안 주고 버선이나 옷으로 사례했고. 우리 엄마가 중매쟁이한테 뭐든 줬겠지.

맛선은 어디에서 봤어요?
송탄에서 만나서.

다방에서요?
다방은 아녀, 식당같은데서. 송탄 미군부대 앞에 식당에서 봤어.

맛선 볼 때 맘에 들었어요?
신랑이 키가 크고 훤칠하니께 눈에 확 띈 거지. 우리 식구들은 다 키가 작았는데 키가 훤칠하고 젊으니께 눈에 확 띈 거지.

한눈에 반했네요?
그러니께 친정식구들이 다 좋아했지. 동네사람들도 좋아하고.

맛선보고 얼마 뒤에 결혼식 했어요. 데이트는 안 했어요?
데이트는 안했어요. 중신쟁이가 그 집이 어떻고 저떻고 애기를 해줬으니께 이제 둘째니 재산도 줄테고 저거했는데. 우리 아저씨가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생활력은 강해가지고 결혼 전에 자기가 벌어가지고 돈이 좀 있었어요.

결혼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구식이예요 신식이예요?
구식이지, 그때만 해도.

그러면 친정 마당에서 했겠네요?

그렇지. 잔치를 하면 집에서 다 차려가지고 동네사람 먹이고.

그럼 신랑 동네에서 온 사람들은 누가 먹여요?

우리가 먹였나. 아니 그쪽에서도 음식을 해와서 먹였던 거 같은데.

혼례 끝내고 첫날밤은 은산리에서 보냈어요?

아니, 잔치하고 바로 갔던 거 같은데.

어머니는 시댁 갈 때 뭘 타고 갔어요?

트럭타고 갔지. 그 전에는 트럭타고 가서 동네 입구에서 가마타고 가고도 했는데 나는 트럭만 타고 간 거요. 지금은 직접 가지만 그 때는 평택으로 돌아서 어연리로 간 거지. 그때만 해도 어연리 다리가 없었잖아.

어연리 다리를 이승만 정권 말기에 놨을 거예요?

맞어.

결혼 후 시댁에서는 몇 년을 살았어요?

큰 집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2년인가를 같이 살았어. 그런디 우리 큰동세가 그 집이 9남매인가 하는 집의 둘째 딸인데,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시집을 갔을 때 내가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오빠들 시켜서 자꾸 뭐를 보내주는 거여.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그런데 우리 큰동세는 9남매나 되는데도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먹고 살만도 한데 생전 친정에서 뭘 안 보내는 거여.

뭘 안 보냈군요?

하나도 온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시집을 가고 동생네가 시집을 오고 나니까 친정에서 그렇게 자꾸 보내고 닭을 사서도 보내고 한단 말야. 미역 사서 보내고 닭 사서 보내고. 다 그런 거 해서 푸짐하게 기저귀감, 애 옷 그런 걸 해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아들들한테 들려서 보내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오빠들이 어연리까지 가져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큰동세가 질투를 이만저만한 게 아니야.

아무래도 부럽고 질투났겠죠?

그런데 어연리는 음식도 그렇고 빨래도 웅덩이 물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동세가 시어머니, 시누이, 신랑이 다 밭에를 가고 나면 애를 업고 마실 가버리고 나에게만 빨래고 뭐고 다 시키는 거요. 그러니께 우리 아저씨가 빨리 시간(분가)을 날려고 어연리 산 꼭데기 싼데다 얼기설기 집을 지어서 세간을 난 거여.

그러니까 큰동세 시집살이가 가장 힘들었던 거네요?

아녀, 내가 빨래도 다 해주고, 내가 바느질도 잘해서 자기 동전저고리 따 꿰메주고 음식 시세

도 맛있게 잘하고. 그러니께 식구들이 나를 칭찬을 많이 한 거지. 우리 큰동세가 다른 것은 못해도 신랑 비위를 엄청 잘 맞춰줘. 그러니께 시어머니, 시누이가 엄청 싫어하지. 다들 들에 일하러 나가면 애를 업고 나가버리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빨래고 뭐고를. 그러다가 신랑 올 때쯤 되면 돌아오고. 그러니께 신랑은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엄청 싫어하지.

큰동세가 눈총을 많이 받았네요?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방에 들어앉아 아주 깨가 쏟아졌어. 그러니께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는 여우짓 한다고 엄청 싫어했던 거지. 큰아들보고 안 듣는데 욕을 하는 거지. 저렇게 알랑거리니께 그런다고. 그래도 큰동세가 내가 음식시세 잘하고 바느질 잘하고 그러니께 미워하지는 않더라고.

어머니는 결혼할 때 패물로 뭘 받았어요?

그 때는 뭐 별거 안 받았어요. 반지같은 거 좀 받고. 반지는 하나 받았고. 금반지 달랑받았는데 없어졌어.

어르신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금반지에 시계와 목걸이도 받던데요. 신혼여행도 가고?

그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신랑에게는 뭘 해줬어요?

몰라, 해준 것도 생각 안 나.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우리 며느리를 볼 때 내가 돈을 벌어서 있기도 했지만 잘해주려고 했지.

2년 살다가 세간 난 거네요. 시어머니가 붙잡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얼른 가라고 했지. 동세가 나만 시켜먹고 밥도 잘 안하고 하니께 나가라고 했지. 우리 신랑도 그런게 보기 싫으니께 빨리 나가려고 하고. 내가 나가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분가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우리 집 양반이 모아 놓은 돈이 제법 많았어. 외삼촌이 사는 그 동네에 가서 머슴을 몇 년 살아서 쌀이 몇십 가마가 되어서 땅을 몇천 평을 사고 집도 짓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해에 고리채정리라던가 그게 터졌잖아. 10가마 가져가면 1가마만 주고 말고 했던 거 터져가지고 쌀 몇십 가마 받고 말아버렸어. 그 돈으로 논 일곱마지기 산 게 전부야. 형이 니가 벌은 거 있으니께 그거로 살으라고 하니께 우리는 일곱마지기밖에 없게 된 거지.

그럼 시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은 형이 다 차지한 거네요?

삼형제인데 그 막내동상(생) 주고 우리 아저씨에게는 니가 벌은 거 있으니까 그거로만 살라고 떼어버리고 안 나눠준 거지.

그것은 동생이 힘들게 번 거잖아요?

그런데 형이 안 주니께 어쩔 수 없었지.

외삼촌도 조카 것 가져갔으면 갚아야지 않아요?

아니 외삼촌도 빌려준 것 관리만 했지 본인이 가진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께 달라고도 못하고… 누구한테 몇 가마 감해주고 하는 걸 조카한테 얘기해서 줄여주고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러면 어르신은 어연리에서 언제까지 살았어요?

어연리서는 얼마 안 살았어요.

그럼 일곱 마지기 농사지어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 애들 어리고 우리 내외만 사니께 돈은 많이 안 들지. 나무해서 때고 돈 드는 게 없었지. 그래가지고 저걸 했는데 우리 친정이 이 마을에서 살다가 오라버니들이 서울로 다 이사를 간다고 하니께 어연리 형하고도 잘 맞지 않고 하니까 이제 저(은산5리) 아래 동내 차기집 동네로다가 온 거지. 우리 부모님 살던 집으로. 집이고 논이고 다 사가지고 왔어. 그런디 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친정집 재산을 다 가진 걸로 알지.

친정집에 집과 논도 좀 있었던 가 봐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사고 따로 몇 마지기 더 사고 집 사고 그래서 동네로 왔더니 동네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우리 아저씨 듣는데 그랬나봐. ‘박재관이 너는 처갓집 거 다 가지고 집이고 논이고 가지고 사는 거지 뭐 산 게 있냐’ 고 그렇게 말을 했었나 보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그랬다고 그래. ‘이놈들은 내가 다 사 가지고 온 거지 우리 처남들이 병신이냐, 거져 주게. 매제라고 거저 주냐고’ 하면서 싸우고. 맨날 그랬어요. 그 가게가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인디 우리 아저씨가 곧아서 술 한잔을 먹어도 거저는 안 먹어.

그럼 은산5리로 이주해서는 농지도 좀 늘었겠어요. 농사지을 때는 몇 마지기까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마지기가 안 됐어.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저기지, 열댓 마지기는 됐지. 아니 그때는 그것도 안 됐어, 한 10마지기?

그럼 나중에 늘렸어요?

그렇지. 우리 양반이 좀 약으니께 논이라는 게 잘 생긴 것도 있고 못 생긴 것도 있는데 저기 한 3천 평 있는 게 아주 네모 반듯해. 모양 좋고 쌀맛도 좋고 그래. 전지가 농사 짓기가 좋아.

위치 좋은 데로 잘 사셨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처갓집 덕에 잘 산다’ 고 자꾸 그런 소리를 했어. 억울하지. 그래서 엄청 욕을 한 거고 막 치고 박고 싸워. 술에 취하면 그냥 술상을 다 때려부숴가면서 사웠지. 나도 내 뼈가 닿도록 일해서 살지 처갓집 짚단 하나 거져 안 가져왔다고 그러지.

어르신이 모내기할 때 품을 사잖아요. 하루 품삯은 얼마였어요?

우리 젊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품삯이 똑갔었지. 상당히 줬는디 얼만지는 잘 모르겄네.

자녀교육은 잘 시켰나요?

우리 아저씨는 애들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어.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주의지. 내가 억지로 가르치려고 들고 우리 양반은 뭐하러 그 고생하며 가르치려냐고 뭐하고 하고... 내가 애들 가르친다고 나므이 집 모내기 다니고 노지에다 심은 오이밭에 가서 일하고, 벼베기도 다니고 벼라별 일 다 했네. 벼는 말여, 볏단을 잘 세워놔야 벼가 잘 마르고 나중에 타작할 때도 좋찮남. 하루 죙일 벼를 베면 다음날 아침에는 걸어다니지도 못했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애들만큼은 가르쳐야되겄다 생각혀서 농사일 하고 일 다니고 그랬지.

자녀는 몇을 두었어요?

우리, 우리는 아들 둘에 딸 셋. 우리 큰애는 중앙대학교 다녔고 작은애는 안성농업학교(한경대학교) 있잖어 거기를 다녔고, 딸들도 고등학교는 졸업시켰어.

이 동네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어디로 다녀요?

산대국민학교에 다녔지. 그전에는 진위학교 다녔고.

주로 걸어다녔어요?

우리 때야 걸어다녔지만 우리 애들 가르칠 때는 자전거도 타고 그랬지.

진위학교까지는 얼마나 됐어요?

2, 3km나 되나. 애들 키울 때 하북까지는 10리라고 했거든. 내가 진위에 금성사(현 LG전자)에도 다녔어. 거기는 오래 다녔지. 처녀들하고 라인에서 일하고 월급받아서 애들 키우고 그랬지.

금성사 처우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대우를 잘해줬지. 월급이 쎘어.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땐디 거기 안 다녔으면 어려웠지.

이 동네 사람들은 어디 장(場)을 봤어요?

오산장도 보고 옛날에는 남사장도 보고.

진위장이나 아침장(송북시장)은 안 봤어요?

그쪽은 잘 안 갔지. 진위장은 쬐그맸다가 없어졌고.

오산까지는 몇 리나 되었어요?

거기는 20리. 하루거리였지.

어떻게 다녔어요?

여기 동천2리 있잖어, 절뒤(사후동)라고 거기에서 높은재(고현동) 넘어서 다녔다구. 높은재 넘어가면 주막도 있었어. 지금 초등학교 있는디. 거기 야바위꾼들도 많았는디 그 놈들이 홀릴려고 허 참.

평택장이나 서정리장은?

거기도 거의 안 가. 멀잖어.

남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요?

남사도 20리. 옛날에는 다 걸어다녔쥬.

은산5리에서는 무슨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여기야 똑같지 뭐. 벼농사, 밭에다 보리하고 밀 심고.

오이 재배는 안 했어요?

오이도 했지. 세 집인가 몇 집인가.

오이는 어떻게 유통해요?

옛날에는 자루에 담아서 용산청과물시장에 납품하다가 나중에는 가락동으로 갔지. 거기서 소매상들에게 넘기고.

축산업이나 하우스재배는?

여기는 그런 거 없어. 하우스도 요즘에 동탄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우리 집 아저씨가 소는 키웠지.

몇 마리나요?

여러 마리는 못했어. 그냥 오산장에서 송아지 사다가 키워서 파는 거지.

현재 농지는 얼마나 있어요?

논 3천 평. 그거 농사지어서 매상하면 1년에 7, 8백만 원이나 버나. 벼농사지어서는 돈 안 돼요.

은산5리는 당제사 같은 거 지냈어요?

옛날에 지냈지. 여기도 소 잡아서 크게 지냈어요.

어디에서 지냈어요?

세 군데서 지냈어요. 여기는 크게 지냈다고. 통째로 소를 잡아서 올리고 과일 같은 거, 북어포 올리고 그렇게 지냈지.

직접 경험하신 적은 있어요?

아니, 나는 안 했고. 동네 사람들이 했지. 우리 아버지 같은 연배들이 한 거지.

집안에 터주가리같은 거 했었어요?

그전에는 했지, 터주가리도 하고 대청에 제석주머니도 매달고. 그건 집집마다 했을꺼여.

터주가리는 언제 만들었어요?

가을 햇곡식 나올 때.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쌀 닷 되 담아서 짚으로 이엉을 역에서 뺑 둘러씌웠지.

제석주머니는요?

그건 칠석 때인가 그 때 바꿨어. 거기에는 쌀 3되인가 들어가잖아. 그거 꺼내서 쌀밥 먹고 그랬지. 맞어 칠월 칠석 때 꺼내 먹었던 거 같텨. 우리 엄마(친정어머니) 계실 때는 햅쌀 제일 좋은 걸로 했었지.

대감독은요?

대감독이 뭐여.

항아리에 쌀 담아서 놓는 거요?

우리 엄마 계실 때는 햅쌀 담아서 다락에다 올려놓고 했지. 그거 말하나.

그걸 거예요?

여름에 아픈 사람이 생기잖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아프면 그거(대감독 쌀) 꺼내서 흰죽을 쒀서 맥였어. 보리고개 때야 먹을 게 있남. 그거라도 먹으면 일어나고 그랬지.

어르신 어릴 때는 어떤 옷들을 입었어요. 6.25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다르죠?

6.25 때는 여기에도 서울 사람들이 피난 많이 왔어요. 친척들 찾아서도 오고 그냥 도망오기도 하고. 여기 봉남리에 인민군들이 많았다고. 그 인민군들 도망갈 때 동네사람이 물항아리에 숨겨주었다가 걸려서 총살당하고 그랬어.

6.25 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광목이나 명주로 된 옷들을 입었나요?

여기는 송탄에 미군들이 들어왔잖아. 거기(기지촌) 가면 미군들 홑이불 뜯은 거 팔었어. 그거 사다가 잘라서 옷 만들어 입고 그랬지. 돈 벌어서 홑이불 사서 저고리도 만들고 치마도 만들어 입고.

옷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옛날에야 다 바느질이지 뭐. 우리 어릴 때 재봉들이 나왔지. 그전에는 순전히 손으로 바느질해서 옷 만들었어. 여자들 시집갈 때 바느질 못하면 많이 혼나고 그랬다고. 나는 시집 올 때 재봉틀을 사줬어. 그것으로 결혼할 때 혼수품 만들고 적삼, 행주치마 만들고 그렇게 결혼했다고.

결혼 전의 여자들은 무엇해서 돈 벌어요?

농촌에서 뭐 할 게 있나, 품 팔어서도 벌고. 우리 때는 여기 진위천 냇가에서 미군 트럭들이 와서 자갈을 퍼가고 했다고. 그거 해주고 돈 벌었지.

미군트럭들이 왜 자갈을 퍼갔어요?

미군부대 안에 집을 지었겄지. 우리고 그거(트럭) 타고 송탄 가서 트럭에 있는 자갈 퍼주고 영화보고 돈 벌고 그랬다고. 젊은 때잖어. 노래도 부르고 자갈도 퍼나르고 놀고... 재밌었지.

나일론 옷은 언제 나왔어요. 결혼 전에도 나일론 입었죠?

여기는 신식옷이 빨리 들어왔어. 미군부대가 있잖어. 거기가 있으니께 옷들이 빨리 들어오더만.

신발은 뭘 신었어요?

남자는 거먹고무신, 여자는 흰고무신. 여름에는 와라지도 신고, 미군 때문에 슬리퍼도 일찍 들어오고.

은산5리 사람들은 주로 뭘 믿어요. 마을 안에도 교회가 있던데?

진목교회? 거기 비었지. 목사님이 통산(용인시 남사면 진목리)가 있어. 교회가 작으니께 합친 거지.

어느 동네 사람들이 통미교회를 다녀요?

우리동네 사람들도 다니고, 산대, 진목리, 순지 사람들이 다니지. 우리 동네에도 있었는데 잘 안되니까 통미에다가 교회를 짓고 다 모은 거지.

은산5리에서 산대 쪽으로는 시내버스가 몇 번 다녀요?

여기서는 두세 번이나 다니나. 하북에서 많이 들락거리지. 아니면 요즘에는 자가용 많이 타고.

진흥섭(남, 1935년생), 진위면 은산5리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장소	진위면 은산5리 도로변
구술자	진흥섭
면담자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몇 년생이세요?

1935년생.

어르신은 토박이시라면서요. 해방되던 시기에 몇 호나 되었어요?

95호.

옛날에도 마을이 컸네요?

그려.

주변 마을에서는 옛날에 은산5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산하천)가 옛날에 용인 남사면과 진위면하고 경계였거든. 본래 이 마을이 남사면인데 고속도로로 짤려가지고 진위면으로 넘어온 거지.

어르신네는 언제 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용인 백암에서 여기 노서방네로 처가살이 왔어.

처가살이를 오신 거였네요?

우리 아버지가 나 24살에 돌아가셨어.

어르신이 큰아들인데요?

내가 큰아들이지.

집안은 옛날부터 농사지었어요?

여기는 다들 농사지었지.

어르신 어릴 때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분배농지하기 전에는 이 동네가 소작을 많이 지었어요 아니면 자작도 많았어요?

자작도 좀 많이 있고, 이 동네가 저기 최재성이 그 사람이 일꾼 열 명씩 두고, 그 사람 할아버지가.

일꾼을 열 명씩이나 두었어요?

그럼 마름을 봤으니께. 일본사람 땅을, 그것을 전부 걷어들여가지고는 자기 논을 한 350마지기 그렇게 하니까, 손으로 일할 때니까 한 일곱, 열 명씩 일꾼을 두었던 거지.

그러네요. 그러면 최재성 전교 할아버지 함자는 어떻게 되요?
그건 모르지. 최재성이 양자로 들어간 거여. 본래는 둘째인데.

최재성씨 집은 본래 어디였는데요?
여기 동네인데 그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막내인데 미국가고 둘째는 큰아버지가 서른 서너 더냇살에 죽었는가봐. 딸 하나 낳고 죽으니까 최재성이네가 작은 집인데 양자로 간 거지.

작은집에서 큰 집으로 양자를 갔군요?
그렇지. 그 사람 동생은 저기 살어.

저도 최전교님하고는 가깝게 지내요?
그려, 그 사람이 여기 저기 일들을 많이 했으니께.

어르신도 옛날에는 소작을 했나요?
그 땐 어려웠지. 소작이라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이 동네가 봇들논이 두 개가 있어서...

보(洑)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또랑이고 하나는 이 아래로다가(산하천) 도랑이 있었는데 저쪽과 여기에 보(洑)가 있었지.

이쪽 동천리 있는데요?
요기 마산리 있는데, 우리 동네 위에서 보(洑)가 있어서 마산리 그 쪽으로 물을 대고.

진위천에 장안보도 있었다는데요?
그려.

장안보 위치는 어디예요?
저기에 있었어. 저기 다리에서 100미터 위로 올라가서.

아래에도 하나 있었어요?
저기 남사면 삼거리 다리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요 아래(봉남리 방향)로 내려가면 진위천 장아들은 거기에 보(洑)를 막아가지고.

장아들 보는 여기에 따로 있었나요. 저 위쪽 보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건 건넌들보, 여기 황승이들에는 황생이보, 저 아래는 장아들보.

보(洑)가 세 개나 있었나요?

가마짝으로 흙을 담아서 막아가지고 농사짓고.

언제 막아요. 2월쯤에 막았나요?

2월쯤 되면 3월 달 그 때는... 도랑도 가래질로 제 쳐야 되잖어. 이 위에는 옛날부터 보가 있고... 보들에 논이 있는 사람은 농사가 잘되고 쌀금이 옛날에는 좋아서 일꾼을 한 서른 명은 시켜 먹었을 거여.

일꾼을요?

봇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여. 집집마둥 일꾼을 쓰면 30명을 될 거라고.

봇들농사는 뭐예요?

저기 봇물 대서 농사짓는 사람들 있잖어. 그렇게 하면 높은들은 다 묶이는 거지. 비가 안 오니께 모를 심을 수 있나. 보들은 농사짓기 좋고 저기 높은데(은산3, 4리 들판) 있는 논은 안 되고.

아 봇들은 가물어도 농사짓고, 높은들은 천수답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지. 높은들은 천수답이여.

높은들은 농사 못 지을 때도 많았네요?

비와야 짓지. 그래서 어떤 때는 3년씩 모내기도 못하고 묵히고 그랬다고.

저 위쪽은?

그렇지, 저기 말미들이나 저쪽 집들 가는데가 다 그렇잖아.

아, 통산(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통미(통산) 마을) 그 쪽으로도요?

그렇지, 통산 쪽도 하늘바래기지. 통산도 보를 막아서 봇들논들은 잘 먹어. 나머지가 그렇지.

말미(은산3리, 4리) 사람들도 결국에는 계곡 논이 없었으면 마을 앞 논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었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대(은산1, 2리 및 원곡면 산하리) 사람들이 부자여 그 전에는.

맞아요. 은산1, 2리가 부자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산에서 물이 나는데 해마다 농사를 짓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장리 쌀 얻어다 먹고 다음 해 일해서 주고 그런겨.

그래서 그 동네(은산1, 2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동네(은산5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그 때는 일곱 여덟가마만 주면 머슴 두는 거 아녀.

머슴들 세경이 (일년에) 일곱 여덟가마였어요. 품삯은요?
쌀 1말에 2, 3일은 해줘야지.

아니 옛날에는 5일씩도 해줬다면서요?
오일도 하고 감자 한 말 먹고 하루 일해주고 그러는 거여.

감자 한 말에 하루, 보리쌀 한 말은요?
그려, 그렇게 했어.

어르신도 고생 많았네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진 것이 언제부터죠?
경지정리하면서 나아졌지.

경지정리하고 어비리저수지 물이 내려온 게 언제부터예요. 새마을운동 때인가요?
그 때는 언제인가 몰라.

그건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지 뭐. 그게 언제적인데.

어르신이 축산업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몰라, 그 때 논을 한 평에 5천 원씩인가 팔았어. 내가 저 냇갈 건너에 논 3천 평이 있었어. 그거 팔아가지고 소 3마리를 사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럼 논을 팔아서 소를 샀어요?
예. 그냥 살 때마다 전두환이 동생이 소를 막 들여와가지고는 소값이 폭삭 내려 앉아서...

그럼 어르신은 논 3천 평을 평당 5천 원씩 팔아서 축산업을 시작했고, 그 시기가 새마을운동 할 때(대체로 1970년대 말)였네요. 처음에 3마리를 샀다고요?
그때는 (논 팔은 거)갖고는 소 3마리밖에 못 사요. 세 마리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아요.
우리 때는 소 한 마리 팔으면 한 마리 값밖에 안 되여. 우리보다 앞에 (소) 먹인 사람들은 괜찮았지. 그때는 조금 바쌌으니까.

어르신 때는?
우리 때는 전경환이가 저기서 소를 막 들여오느까 똥금이지.

어르신은 젓소 먹이신 건가요?
그렇지. 한 15년 했어.

나중에 몇 마리까지 늘었어요?

열 댓 마리 했어. 열 댓마리. 똥금이니 뭐 어떻게 해여. 할 수가 없지.

엄청나게 손해보셨네요?
그렇지, 그거 팔아서 땅도 못 사고. 땅금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안 되지.

이래저래 손해봤네요?
그래 못 샀어. 남은 게 서른 댓 마지기 있어, 지금은.

젓소 처음 시작할 때는 젓소 한 마리 키우면 논 열마지기로 버는 값이 나왔다면서요. 어르신 할 때는 수익이 어땠어요?
우리 때는 수익이 별거 없어요. 새끼 낳고 그러면 소금이 비싸니까 그거로 조금 벌었지.

송아지가 비쌌군요?
새끼 값도 비싸기도 하고 그 때는 소를 먹이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부자들이야 아주.

어르신이 은산5리에서는 처음으로 소 축산업을 시작한 건가요. 같이 한 사람은 없었구요?
두 서너 마리 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었는데 죽었지.

조금씩은 했네요. 당시 우유는 어디에서 수거해갔어요?
매일유업.

차가 와서 가져가는 건가요?
그려.

어르신은 큰 재미는 못 봤네?
그려. 소 처분하고 땅도 못 샀어. 그래도 한 30마지기는 남았어. 그거 가지고 살어.

본래 땅이 많으셨네요?
그전에 내가 저기 재주를 부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군인을 24살에 제대했는데, 내가 휴전되고 3개월 뒤에 19살에 군인을 갔는데 그 때 여기서 3,500명이 같이 갔어. 수원 매산국민학교에 모인 사람이. 4개군, 4개군인데 평택군, 화성군, 용인군, 안성군.

6.25 직후였네요?
그러니까 휴전되고 조금 지나서 겨울엔가 갔어. 휴전되고 3개월 지나서.

그때는 군대 가면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어요?
훈련도 많이 16개월하고.

훈련을요?

그럼, 8주, 8주 16주를 했어. 전반기하고 후반기 교육하고.

자대는?

논산서 훈련하고 금화 20사단에서 했어. 우리가 21연대 3대대거든. 그런데 예비군 훈련소를 창설하기 위해서 1개 대대가 20사단에서 서울 뒤에 제1군 훈련소 있잖아. 거기에 20사단하고 딴 사단하고 함께 거기다 1년 반을 집 짓고 훈련소를 만들었어.

몇 살에 전역했어요?

24살.

전역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내가 4월 달에 제대했는데 아버님이 10월에 돌아가셨어.

그 전에 편찬으셨어요?

그냥 괜찮았는데, 그 전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50살도 못 살고 죽고 그랬어.

맞아요. 못 먹기도 하고?

그러더니 1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그때가 10월 달 지금 같은 계절인데 배추밭을 매고 오시더니 목이 맥히더니 물도 안 넘어가. 그래서 수원 도립병원으로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해. 목구멍에 구멍 뚫어서 밥을 넣어야한다고 그래. 그래서 집으로 모셨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 그래도 우리 8남매 다 살았어.

집안에 재산은 좀 있었어요?

재산은 뭐 처가살이를 왔으니 뭐 있겠어. 노서방네에서 준 거 쬐끔 논 댓마지기 있고 남은 집일도 해주고 살았지.

집안 재산은 어르신이 일으킨 거네요. 어르신은 뭘 해서 재산을 일궜어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3년 간 일했어.

젊은시절에요?

그때 왜 올라갔냐면은 저기 저 골짜기가 적산여, 30정보. 저 적산을 수원 저기서 관리해요, 산림계에서.

국유림이네요?

처음에는 평택에서 관리하더니 나중에는 수원으로 넘겼지. 일본사람이 남긴 거니까.

본래 적산이었군요?
해방될 때 어 떤 놈이 총가지고 말렸어.

일본놈들 거였네?
그려. 봉남리 가게 보고 그러던 놈인데 그 놈이 거기와 살면서 총 가지고 쏴 가지고 못 들어가. 말린 나무도 많고 나무들도 크고 그랬는데.

일본사람 집도 거기에 있었어요?
집은 봉남리에 있었고 거기서 가게 했다니까. 그랬는데 내 어려서 이제 학교도 댕기고 그러니까 아는데, 거기에 1년은 다녔어 왜정 때.

봉남리 진위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진위학교 2년 다니고 해방되었지.

그 뒤로는 못 다녔어요?
해방되고 6학년까지 다녔지.

그럼 왜정 말기에는 일본말만 했겠네요?
학교서는 안 하지, 우리 끼리는 하고. 학교서는 (일본말) 가르치는데 집에 와서는 안 하고 그랬지.

그랬어요?
그 전에는 (학교다닐 때도) 죄다 걸어다닌 거 아녀.

다시 돌아가서요, 어르신은 남대문시장에 가서 뭘 했어요?
그때는 동네에서인데 노름이 무척 쎘잖어. 젊은 사람들이 노름을 무척해요.

이 동네도 주막에서 노름했어요?
없었는데 남 몰래 돌아다니고 숨어서 노름을 무척하잖어. 노름판에서 어떻게 하다가 뒷돈을 댔어. 정확히 뒷돈 댄 거는 아니고. 그랬는데 저기 골짜구니 800평 논이 안에 있었어.

적산 있는데 말이죠?
응, 지금 거기에 골짜구니를 뚫고 있지. 거기에 평택으로 가는 굴을 뚫고 있잖어.

굴 뚫고 있는 데가 어르신 땅이었어요?
내가 그걸 사서 성공했지. 왜 그랬냐면 내가 쌀 9가마에 그걸 샀슈. 본래는 그 땅이 충청도에서 올라온 놈이 그걸 샀는데 산사태가 나 가지고 몇 해를 농사를 못 지었던 땅이여. 그거 800평을 사서 도자(불도저)를 가지고 밀어서 논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내가 쌀 9가마를 주고 사서 농사를 지었더니 쌀이 9가쯤 나오더라고.

산사태로 토사에 밀린 땅을 어르신이 다시 개간해서 농사지은 거네요?

저사람(충청도 사람)이 대충 만든 것을 내가 자꾸 더 개간해서 늘리고 그랬지. 거기서 쌀이 여간 나와.

땅은 좋았어요?

땅은 좋았어. 물이 나오고 샘이 있고 그래서.

샘논이었네요?

그걸로 우리집 먹고 살고 여기(천수답) 모가 자빠진 논 버려진 논이 있어도 그냥 살 수 있었지. 어쨌든 노름하는 젊은 사람들 뒤에 앉았다가 노름돈을 대주게 되었는데 이제 이사람도 내주고 저 사람도 받고 그랬는데, 저기 이 아래에 종이공장 하는데 그 쪽 땅을 노름하던 놈이 샀나봐.

그땅은 묵은 논이었어요?

거기는 토사가 밀려서 묵었지. 전에는 도자(불도저)가 있어 뭐가 있어 토사기 밀리니께 노상 묵힌 거지. 그 땅을 아까 말했던 충청도 사람이 샀었나봐. 그 사람도 본래는 올라와서 논도 사고 농사지어서 많이 벌었어. 나중에 노름해서 집 팔아 먹고 내뺐지만은. 그거를 내가 쌀 세 가마에, 1,500평인데 샀어. 거기 아주 자갈밭이여. 그걸 샀시유. 그걸 사 가지고 등기도 없는 거, 필지는 8필지고 필지마다 이름도(지목도) 달랐어. 내가 쌀 세 가마에 그걸 사가지고 담배도 한 번 해 보고, 뽕나무도 심어보고, 누에도 쳐보고 많이 했는데, 그렇게 거기를 농사짓는데 자꾸만 둑이 터지는 거여. 장마만 지면 도랑이 내려왔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보다 서너 살 아랫놈인데, 전상득이 동생놈이었는데, 내가 빚 얻은 것 돈을 갚았어야 하는데 그거를 일년 장리쌀해서 준다고 해서 빌려준 거여.

정리하면, 쌀 9가마 받은 것을 전상득씨 동생분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다는 말인가요. 노름하다가?

아니 노름은 안 했어. 그냥 동네에서 살다가 야밤에 도망가버린 거여, 내가 장리쌀 빌려줬는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려고... 어떻게 혀 형제들은 여럿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머니하고 마누라하고 싸우고서는 아까 자발같이었던 땅에다가 집을 세 칸 지었어요.

어르신이 직접요?

그렇지, 내가 1년을 지은 거야. 그냥 벽돌로, 벽돌을 사다가.

정확이 거기가 어디였어요?

저기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길 갈라지는데(정수장 근처 삼거리) 그 쪽으로 산이 있잖아. 거기 계곡 들어가는데. 거기가 적산이여. 이렇게 협곡이 있어, 거기서 한 10m쯤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을 1년을 지었어, 벽돌로 세 칸을. 그런디 문도 안 짜고 이제 방도 못 들이고 지붕만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집 모양만 만들었네요?

그려, 이엉까지는 덮어놨지. 어째든 그 해에 노름이 무척 쎘다고. 거기에 꼈다가 빚을 져서 어떻게 혀, 노름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빚 얻어쓰고 도망간 놈을 찾으러 갔어. 그놈이 본래는 이북서 피난 내려와서 동네서 머슴을 살았는데 강원도 철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도망간 양반이 철원으로 갔다고요?

그렇지. 철원으로 갔다고 해서 황소를 팔아서 빚을 갚고 그놈을 찾아서 이름만 들은 철원으로 찾아갔어. 사실 나도 도망간 거지. 철원으로 가서 4개 동인가 5개 동인가를 찾아서 철원 시내를 뒤졌어. 그 때 철원시내가 아주 무섭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찾긴 찾았어, 밤어. 몇 개 동을 찾으면서 석영이라고 이름을 대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다가 극장 앞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더니 젊은 애들이 석영이 석영이 그러더니 우리 집에 석영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려. 그래서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석영이를 만났어. 저희 오촌 아저씨네 집에 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장가도 안 들었던 때였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찾긴 찾았네요?

찾으면 뭐혀. 그 사람이 그려. 여기는 휴전선 철조망 넘어들어가서 농사 짓고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거라고. 여기 있어봤자 돈을 받기 힘드니 지금은 못 주니까 자꾸 가라고 그려. 나도 가지고 갔던 돈도 떨어져 가고 그려서 할 수 없이 하루 저녁 저기하고 밥은 굶고 서울로 왔어.

그럼 어르신은 당시에 결혼했었나요?

결혼은 했지. 안식구는 여기 장지리라고 처가집에 갔다놓고는 혼자 올라갔던 거지.

사모님은 처가에 놓고 어르신만 철원으로 서울로 갔던 거네요?

우리 집은 팔남매에 드글드글하니께 알아서 농사를 짓고 그러니께 처가에 데려다 놓은 거지. 팔남매가 여기서 죄다 사니께.

서울로 와서는?

서울로 내려와서 취직을 하려고 했지.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걸어 다니며 해도 잘 되어. 내가 그때 처음으로 밥 한 그릇 얻어먹었어.

서울에서요?

응. 여기서는 내뺏고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떡혀. 그래서 어떻게 한 그릇 얻어먹기는 했다고. 그러다가 걸어서 저기 광주 쪽에 남한산성, 밤에 거기에 올라간 거여. 서울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거기 올라갔다가 경찰지서에서 붙잡혀가지고 지서에서 하루 저녁을 잤어. 아침에 일어나 서울로 돌아와야하는데 하도 배고파서 한 집에 들어가서 밥좀 얻어먹으로 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 그래서 용인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광주하고 용인하고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런 이야기도하고 거짓말도 조금 하고 그랬더니 밥도 잘 주고 나올 때는 담배도 한 갑 주더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밥을 얻어 먹어봤어.

어르신 평생에 처음 얻어먹은 밥이네요?

남한산성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여기 저기 돌아댕기며 일하려고 해도 안 받아줘. 목공일이나 뭐나 하려고 해도 잠자리까지 다 되는 집이 있어야지.

먹고 자고하면서 일할 곳을 찾은 거잖아요?

안 되더라고, 안 되어. 그래서 어쩌다가 뚝섬까지 갔어. 우리 동네애가 뚝섬에서 산다는 말을 들었어 남의 집 농사일을 하며 산다더라고. 그래서 뚝섬 가서 하우스를 죄다 돌아댕기며 여기 이희진이 있냐고 하면서 한 열 집을 다니니께 거기서 만났어.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는 있으니께 거기서는 서로 자기네(하우스)서 일하자고 그려. 일손이 없으니께. 돌아댕기며 젊은사람들 인사도 시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일 좀 하자고 그러더라니까. 그것을 보더니 이 친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처 작은아버지가 남대문 시장에 있으니 거기로 가자고.

그럼 어르신을 소개한 것은 이희진씨네요?

그 사람들 지금은 동네에서 다 떠났어. 5남매가 있었는데 죄 죽었고 떠났어.

어쨌든 이희진씨가 소개한 거네요?

그사람이 자기 마누라보고 남대문시장에 나를 데려다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데려다줬는데 나보고 ‘아이고 우리동네에서 있던 아저씨가 어떻게 왔냐’ 며 반가워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6.25 때 우리 동네에 피난왔던 사람들인데 전라도 사람도 많았고. 그 사람들이 나보고 일하려면 당장 리어커 한 대 사야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떡혀. 우리 오촌이 서울 시경에 있었는데, 그 사람 나하고 동갑이야 지금도 살아 있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들어주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지금 이장 보는 사람 아버지가 우리 동네 이장을 30년을 봤어. 25살부터. 죽은지 한 참 되었고 그이가 나보다 10살 위인데. 그 사람에게 쌀 한 가마값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주더라고. 그때 보니까 내가 지어 놓은 집은 1년이 지나니까 무거워서 자빠져 버렸더라고.

아이고 아깝네요?

방도 안 들이고 지붕만 해 놓고 갔으니 성할 리 없지.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리어커 장사를 했지.

리어커로는 무슨 장사를 했어요?

되는대로 하는 거지. 포도가 나오면 포도장사를 하고, 토마토 나오면 그거 하고, 되는대로 했어요. 한 3년 했어. 그런데 서로들 배운 것도 있고 똑똑하다가 같이 있자고도 하고 했었지.

사모님은 계속 처갓집에 놓고 일했던 거예요?

처갓집에서 딸 하나 낳고 또 아들을 낳았시유. 그래서 애를 둘을 낳고...

그 와중에서도 종종 내려와서 아이를 만드셨네요 허허?

어떻게, 그래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3년을 있었는데 내 남동생이 나보다 6살 아래인데 여기서

못 살겠다고 형님이 좀 내려와달라고 그러더라고.

동생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 동생이 지금은 서울 구로동에 사는데 자기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서울로 간다고 해서는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

구로동에요?
그래서 내가 방하나를 얻어주고는 그쪽에서 붙잡는데 내려왔지.

서울에서는 돈 좀 벌었어요. 그거로 고향으로 내려와서 땅을 산 건가요?
땅은못 사고 저기는 사고 소 사고 마차사고 여러 가지 해서...

그래도 금의환향한 거네요. 빈털털리로 가서?
거기서 번 돈으로 동생 세간날 때 집 하나 얻어주고 농사지으며 산 거지. 골짜구니 논하고 종이공장 논하고 풀어서 논을 만들고 해서 농사지었지.

아 황무지 1,500평 말이죠. 그걸 논으로 만드셨네?
도자(불도저) 대가지고 풀어서 논으로 만들었지. 처음에 담배 심고, 뽕나무 심고 하다가 나중에 도자로 밀어서 논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재산이 좀 불어나니까 축산업을 시작한 건가요?
그걸 팔았어.

짓고 계셨던 집은?
그건 오래되니까 헐어졌지 뭐.

다른 이야기를 여쭐께요. 왜정 때 동네에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최서방네. 최서방네 마름보던 집이 저 교장네도 있어. 그 집 사촌인가 육촌인가 하는 집인디 중학교 교장, 서울에서 교장까지 했는데 전부 끌어다가 집안 내 사람들 소사(학교 기능직) 열 명도 더 시켰을 끼여.

그 분이 취직을 많이 시켜줬네요. 그분 댁도 부자였어요?
아이고, 말도 못하지.

그럼 동네에서는 최씨네가 큰 부자였네요?
최씨네 대 여섯 집이 다 부자였어.

최씨네가 마름을 해서 부자된 거네요. 그럼 땅 주인은 누구였어요?

땅주인은 죄다 일본놈들이었어. 여기가 죄다 일본놈들 땅 아니예요.

그럼 해방되고 모드 적산이 되었네요?

최재성이가 봇들 3섬 8마지기 땅(진위천 변 고속도로 안쪽 땅, 12,000평)을 가졌다니께

한 섬에 보통 3천 평이니까 1만 평쯤 되네요?

이거 한 배미가 12,000평. 이거 둑 막아서 만든 게 한 배미여.

옛날 둑 박기 전에는 진위천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내가 세 번을 장마 겪었는데 여기서는 안 들어오지만 저 위 은산리(1, 2리)에서 물이 막 내려오는 거여.

산하천이 범람했군요?

그려. 옛날에는 냇갈이 조그많고 그랬으니까 전부 냇갈에서 물을 퍼다 먹고 그랬잖어.

이 동네는 우물이 없어서 냇가물을 먹었어요?

우물이 있으면 뭐해여, 냇가물이 더 좋았는데.

우물은 몇 개 있었어요?

우물은 저기 다섯 개, 다섯 개여.

다섯 개나 있었는데 냇가 물이 더 좋아서 냇가물을 길어 먹었네요. 동네에 수도를 놓은 것은 새마을운동 때인가요?

새마을운동 때도 했는데 께 시원찮아서 저기 저 사람(최재성씨 등)이 되고 나서 저 산 꼭데기에 물탱크를 만들어 퍼올려가지고 동네로 물을 보내서 먹었지.

전에도 했는데 시원찮아서 다시 했군요?

그렇지. 그러다가 상수도 하면서 지금처럼 한 거지.

어르신, 방앗간(삼정정미소)은 누가 운영했어요?

그거 지금도 해요(2020년 진위면 야막리로 이전함).

안 하던데요. 동네사람들이 이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공길영이가 했어.

공길영씨가 동네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도 전에는 노름쟁이였어. 저기 용인 남사면 사람인데.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방앗간은 오래되었는데 여러 사람이 운영했던 거여. 정택진이가 하고...

처음 운영하신 분이 정택진씨인가요?
그렇지, 정택진이지.

그게 언제 쯤이예요. 6.25 전인가요 후인가요?
지나서 했지. 정택진이가 저기 (남사면 봉명리) 남뜸 사람이라고. 거기 가서 정택진이가 6.25 후에 빨갱이 했던 사람들 다 죽으니께, 거기에 정택진이가 치안으로 들어가서 한 10년인가 5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갱이 죄덜 죽고 하니께 여자들만 있고 그러니까 땅을 빼앗다시피 해서 부자되가지고 여기 와서 방앗간을 한 거지.

그런 이유로 이동네에서 방앗간을 했군요?
그사람 일찍 죽었어.

여기는 해방 후 일본사람 땅(적산)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최재성)도 일본사람 땅이 많으니께 해방되고 한 배미를 내 앞으로 해놓은 거지. 적산 땅이니까.

여기는 적산농지 불하하면서 부자된 사람이 많아요?
있어. 나도 일곱마지기인가 적산 땅 받았어. 그거 몇 년 부어나가는 거잖아.

동네사람들은?
많지.

옛날에 이동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마을에서도 했나요?
동네에서 했지.

이동조합 방앗간은요?
동네에서 운영했었어. 했는데 하다가 안되니까 넘겨준 거여.

이동조합 방앗간이 이사람 저사람으로 넘어갔군요. 조합장은 누가했어요?
조합장이 누구냐... 조합장이 동네는 따로 있고 남사면 조합장은 최재성이 했고.

남사면 진목리 조합장은?
진목리 조합장은 젊은 애들이 하기도 하고 원주민들이 돌아가며 하기도 하고. 이장하는 것처럼 했던 거지.

한 사람이 쭉 하지는 않았네요?

최원준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그 사람도 일찍 죽었어, 35살에 죽었어.

동네에는 지명들이 있잖아요?

말미들 어디 많지.

말미들은 어디를 말해요?

저기 말미 마을 앞들이지 뭘. 여기가(은산5리 뒤)가 벌자리,

마을 뒤쪽이 다 벌자리라고 해요?

잉. 저쪽(마을 북서쪽 들판)은 황승이들하고 마루들이고.

어디가 마루들이예요?

저 아래(진목리 통미마을 쪽)가 마루들이지.

여기는 들판이름들 밖에 없네요?

많았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없지.

이 동네가 물난리를 많이 겪었다면서요?

내가 너댓 번 났어. 저쪽(진위천과 산하천)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가슴 위까지 찼어.

물이 그정도로 차올랐어요?

그 때 내가 서화택이네를 15년을 다녔는데, 서화택이 선거운동을 했거든.

선거운동을?

진위면 책임자를, 유치송이부터. 두 사람 다 죽었지만 그래도 결국 서화택이가 국회의원을 못 했잖아.

그래도 안중지역에서는 좋은 일 많이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위면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책임자를 맡은 거여.

어르신도 돈 좀 썼겠네요?

아니 그래도 내가 요령 껏 돈 점 벌어서 괜찮아. 나 돈 있어, 내가 그 때부터 땅 흥정을 했슈. 그래서 동탄사람들 이사올 때 2, 3억은 벌었어.

동탄사람들요?

동탄서 이사들 많이 와서 땅 많이 샀잖어.

동탄사람들, 여기 화원하러 내려온 사람들 말이죠?

전부 통탄서 많이 왔지. 동탄서 이사오는 데 내가 흥정꾼했기 때문에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연결을 많이 시켜줬지.

일종의 부동산이나 거간꾼 하신 거네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

사모님은요?

3년을 드러누워 있더니, 마루에만 앉아서 일도 못하더니 어떡해, 4~5개월이 되었네. 쓰러져서 마루에서 못 일어나는 거여. 그래서 굿모닝 병원에 한 달 누워있다가 마산리 요양병원에 데려다 놨네.

안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계세요. 아이고?

그래서 혼자 있지 뭐. 그래도 내가 농사 짓고 여적 해요.

진짜, 아직도 일하시네요?

내가 그래서 아직도 벼를 못 베었어. 모레 토요일에 베기로 했는데.

30마지기 있다는 거요?

마흔마지기.

논이 늘었네요?

딴 사람 것도 조금 있어. 전에부터 내가 하던 거 어떻게 못해준다고 혀. 혼자 있으니까 벼도 못 베고 깨도 못 털고 어떡해. 주말되서 애들 오면은 벼베고 깨 털고 해야지,

자녀는 몇 명 두셨어요?

아들 셋이지.

동네 근처에 사세요?

다들 서울살고, 인천살고 그러는데 나 혼자 집에 있으니께 내려오는 거지.

효자들이네요. 자녀분들이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해서 내려오고?

아니 그래도 내가 죽으면 (저승으로) 가져가겠어, 술이나 먹는데. 저기 돈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다 (자식들) 줄 거여. 죽으면 그거 가져갈 수 있나.

어르신 마을에 당제나 우물고사 지냈어요?

그럼.

당제는요?

저기했는데, 해마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정월 명절 때 제사지냈어.

정월에 날 잡아서 지냈죠?
그러.

당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을에 세 군데 있었어.

제단은 네모난 건가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슨제라고 해요. 거리제예요 우물고사예요?
동네 제사라고 ‘당지사’라고. 제 지내고 노나먹고.

정월에 지냈으면 날 잡아서 지내요?
그럼, 생기복덕 따져서 날 잡고.

제주도 뽑잖아요?
제관 모두 뽑아서.

흠 없는 사람 뽑는 거잖아요. 제사는 누구누구 지내요?
제사지내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 있고.

음식준비하는 사람을 당주라고 했어요?
이제 몇 명이서 가서 지내고 소 잡는 것은 동네사람들이 하고 끝나면 잔치하고 그랬어.

고기를 나눠 먹은 거예요? 고기는 제사 지낸 뒤에 나눠 먹고, 소머리는 제사 후에 삶아서 같이 먹었지 않아요?
그때 그랬슈.

언제까지 지냈어요?
새마을운동 할 때까지는 했어.

우물에도 지냈어요?
우물에도 한 군데 지냈어.

우물고사도 같은 날 지냈어요?
같은 날, 한 날에 지냈어.

소 잡은 걸로 당제도 지내고 우물고사도 지내고 그랬어요?

새벽 1시에 지냈어. 우물 세 군데를 돌아댕기며. 나도 세 번 (제관으로) 뽑혀가지고 돌아댕기며 지냈어.

제관은 며칠 전에 뽑아요?

일주일 전에 뽑아. 그거 뽑히면 금줄치고 청수 떠 놓고 황토 펴고 밖에 안 나가고 그랬어.

제물은?

소머리하고, 소잡은 거 있잖어, 간하고 내장하고 종류별로 갔다 바쳤지.

다 하셨네요. 그러면 제관 있었고, 당주 있었고, 따라가는 유사들 몇 명 있었고. 이 마을에서도 소지를 올렸어요?

소지는 당지사 지내는 데 하나 올리고 말지.

공동소지네요?

그려그려.

두레도 있었어요. 논매기하던 두레요?

그거야 당연히 있었지.

대단했어요?

그럼. 저기하고는 없어졌어.

언제?

경지정리하고 어쩌고 하면서 없어졌지.

두레패에 좌상은 누구였어요?

꽹가리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질문을 이해하지 못함)

동네 어른 중에 좌상을 세우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

상쇠는 누가 잘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이장 아버지가 잘했지.

이름은?

서상훈이. 그 사람이 꽹가리는 남사면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재성이(최재성) 동생이 재길인데. 서상훈이는 각성바지여. 25살에 이장을 보기 시작해 가지고 30년을 봤어. 그런데

동네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최재성이 동생이 여기 김서방네가 많어. 경주 김씨. 그래서 맨날 싸움이 나. 김씨가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최재길이나 남사면사무소 부면장을 했는데 딸을 데려간 거여.

최재길씨가 부면장까지 했어요?

아니 최재길이 아니라 김학두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재길이가 학도 딸하고 결혼했으니, 여기가 최서방네가 일곱 집인가 되어.

최재길씨가 김학두씨 딸과 결혼했군요?

그랬으니께 그 패가 여간 많어. 사돈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니까 둘이 합치니까 세력이 많지. 그러니께 이장을 그쪽에서 빼앗아갔지. 여기 새마을사업하면서 회관을 짓고 할 때 그렇게 되었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일이군요?

그래서 20년을 서로 말도 안하고 파가 갈려서 서로 다니지도 않고 말도 않고. 여기 김서방네가 서른 집하고 사돈들 뭐고 해서 최가들까지 넘어가니께, 옛날에는 모심고 논에 모찌고, 벼베고 하는 거 다 손으로 한 거 아녀. 마을에 일이 안되어. 그래서 따로 따로 이장을 둘을 세웠지.

이장을 둘을 세웠어요?

그럼, 그렇게 되었지. 저기를 하다가 열명이 친목회를했는데 그애들이 서상훈이 이장시키려고 하다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한달 반씩 고생하고 나왔어. 나보다 열 살 아래인데 10명 중에 7명이 죽었어.

그 사람들 억울하게 간 거잖아요?

면사무소 가서 싸우고어쩌고 하니께 다 잡아간 거여.

아까 어르신과 물난리났던 이야기 하시다가 말았는데 어느정도였어요?

냇가가 좁아서 그 때는, 지금은 냇가 물이 얼마나 깊어, 그 때는 한 길도 안 되었어. 그러니까 장마만 지면 동네로 들어오는 거여.

산하천 둑방이 그리 높지 않았군요?

여기가 원래 그래. 은산리 위에서 (보)터지니까 산하리 거쳐서 물이 여기로 몰려드는 거 아녀.

결국 산하천이 문제였네요?

그려. 내가 3번인가 물난리 났었어. 우리 집도 집안까지 들어와서 처마까지 차 오르고. 그때 집들을 많이 지었어. 물이 찼다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 때 집을 새로 지은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산하천 제방을 높이고 했군요?

(평택)시에서 높여줬잖아.

최재성(1932년생, 남), 진위면 은산5리, 전 평택시의회 의원

일시	2022년 5월 11일(수)	
장소	진위면 은산5리 자택	
구술자	최재성(남, 1932년생)	
면담자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전교님은 은산5리가 고향인가요?
나는 여기가 아주 고향이지.

본관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경주 최씨 화숙공파요.

화숙공의 몇 대손이세요?
우리 시조가 고운 최치원이예요. 최치원의 31세지.

이 마을에는 경주 최씨가 여러 집 있나요?
처음에는 9호 정도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섯 집밖에 없어.

이 마을은 어떤 성씨가 많았어요?
경주 김씨가 많았어요. 한 20호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경주 김씨에 대해 알아보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김학철이라고 그분이 종친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아흔넷이요. 그런데도 정정해요.

전교님 보다도 나이가 많네요?
우리 옆집에는 나보다 일곱 살이 많은 사람도 살아 있어. 요양원에 가 있지만.

전교님은 이 마을에서 몇 대 거주했어요?
여기에서 6대를 살았을 거요. 6대가 맞아요.

그러면 전교님 자제분들하고 손자까지 하면 7대, 8대쯤 되네요?
손자 아래로다가 하면 9세가 되는 거지.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유래를 알고 계시나요?
그건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 전에 듣기로는 우리가 충청도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어

요. 홍천인가 홍성인가 그쪽이었을 건데… 지손이니까 분가를 한 거지.

옛날에는 이 마을을 ‘월경(越境)’이라고 불렀나요?

그렇지, 냇가(산하천) 건넌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건데… 일제강점기 사람들이 그냥 냇가 너머에 있다고 월(越) 자를 써서 불렀던 거지 (주: 조선 후기에도 월경으로 부름).

일제 강점기에 잘못 바뀐 지명이 많아요. ‘진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은 참나무들이라고 해서 그러지. 여기가 참나무가 많았데요. 여기를 옛날에는 ‘참나무들’ 이라고도 불렀어.

이 지역에 본래는 용인시에 속했잖아요?

이제 유래를 따져보면 전에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월경동 이렇게 불렀던 말예요.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월경마을이었네요?

월경마을이었는데 동쪽으로다가 고속도로가 나면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평택시 진위면으로 편입된 거죠.

이 마을은 옛날부터 마을규모가 컸나요?

우리 마을이 옛날부터 백호(百戶)라고. 여기도 그렇지만 순지(남사면 진목리 순지마을)도 108호 쯤 되고.

순지도 100호가 넘어요?

여기 호(戶) 수가 크다고. 용인시에 있을 적에 제일 수도마을(중심 마을)이라고 그랬단 말야. 남사면의 가장 큰 마을.

마을이 큰 이유는?

여기가 농지가 많아요. 농지가 많으니께 외부에서 여기로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갖고 그랬던 모양이예요.

전교님 어린 시절에는 마을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어릴 때도 변동이 크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95호, 100호는 정말 큰 마을이잖아요.

이 마을 아이들은 진위초등학교에 다녔나요?

진위초등학교에서는 타(他) 면(面)이라고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나는 어티끼 우리가 여 일곱 명이 갔는데 나 하나만 받아줬다고. 우리 할아버님이 학교에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좋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동네 아이들은 어디로 학교를 다녔어요?

남사(면)로 가요. 남사가 훨씬 멀죠. 거기는 십리라고. 여기(진위초)는 2km쯤 되고 남사는 4km나 되고.

남사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거리가 가까운 진위초로 가는 것이 낫네요?

그럼 가까우니까. 전에는 대게가 다... 우리 부친부터도. 진위초 100년사를 보면 내가 초대 회장이야. 1대, 2대 회장을 지냈지. 여기 경력이 다 그대로 있다고.

권혁동씨도 있네요?

우리 후배니까. 나이는 나하고 같은데 학교는 2년 후배예요. 내가 경기도 향교재단 이사장도 했잖아. 이사장 할 때 태광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효명고등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같은 곳에 인성 교육하러 갔었다고. 그거 경기도지사 임창렬씨에게 내가 하자고 안을 내서 시작한 거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관도 짓고. 그래서 거기(경기도)에서 후원해서 하게 된 거여. 경기도 내 전교하고 향교 장의들이 교육한 거지. 그거 당시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이계석이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임창렬 지사가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니까 잘 좀 말해보라고 했다고. 서화택도 의원을 했었고. 임지사가 그래. 그걸 유교 이름으로 하면 기도교나 불교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하여서 승낙된 거였어.

진위향교 전교를 하셨잖아요?

내가 진위향교 전교를 두 번했어. 내가 서울에서 여기로 내려와서 동문회 회장을 맡은 관계로 한 것이 동기가 되었거든. 혹시 아는가 모르지만 평택시 노인회 회장을 출마했던 서탄에 차상봉씨라고 알어. 그 분이 나를 자꾸 사양말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야. 그분이 진위초등학교 선배여. 고덕면의 안병엽씨 같은 분. 내가 향교 전교를 가서 하는데 성균관에서 나보고 재단이사 그것을 경기도하고 인천직할시에서 한 명씩 하는 건데 그걸 하라고 해서 출마했는데 내가 9표를 얻고 상대방이 3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지. 내가 성균관 고문을 하다가 지금은 원로로 있는데 코로나도 심하고 해서 갈 수도 없고 하다고. 일하는 사람들 격려도 하고 해야 체면이 서는데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지면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어. 향교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있고.

전교님 다른 이야기좀 여쭐께요. 진위초를 졸업한 뒤에는 중학교는?

서울로 가서 숭문나왔지. 숭문중·고등학교. 그것도 6.25사변 나가지고. 그때는 중학교가 6년여.

이 당시에 시골에서 고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인텔리잖아요?

내가 실력이 좋지 않아서 별로 좋은 학교를 못 갔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부친이 6.25사변 때 이 동네에 계시다가 학살당했어. 그때 대동청년단 거기 많이 (관여)하셨다가.

선친께서 대동청년단을 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내가 군에 입대했지. 논산 제2훈련소 고급부관실 심사부에 있었다니까. 훈련병 면담 해가지고 특과 보내고 했다고. 어디 학교 헌병학교, 병참학교 보내고 하는 걸 우리가 한 거여.

계급은요?

그냥 사병이었고.

그러니까 병과 부여하고 하는 역할을 했네요. 부친께서 대동청년단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때는 여기가 (용인시) 남사면이니까 남사에서 했지. 여기 고속도로 나고 나서 우리가 평택사람 됐다니까.

대동청년단 남사면 대장이었네요?

그건 아니고 간부를 했어. 그때는 좌익들한테 우익단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동네가 그때 폭동을 일으켰어요. 인천상륙작전해서 (국군이) 밀고 들어오니께 좌익 부역했던 사람들 막 잡아다가... 우리 집에 창고가 큰 거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근처에 있는 (좌익)사람들 붙잡아 가둬두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가두고 그랬는데. 저기 박기영이라고 들어봤나. 진위 사람인데 그 사람들 인민(위원회) 뭐라고 하는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총 쏘며 쳐들어온 거여.

그러니까 좌익들을 전교님댁 창고에다 가둬두었던 거군요?

그렇지. 그런디 좌익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니까 피난을 나간 거야. 나부터도 안성 쪽으로 피난을 갔어.

정리하면 전교님 댁 창고에 좌익들을 가둬두었더니 진위의 박기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좌익들이 마을로 쳐들어온 거군요. 갇혀 있던 사람들 구한다고요?

군대에 가서 낙오된 육군 사병이 있었는데 그 당시 카빈 총이 있었단 말여. 그 총으로 쏴서 박기영이가 죽었어. 그 당시 이 동네 사람들도 5명이 죽었어요 그때. 안성여자고등학교 뒷산에 거기에 계곡이 있어요. 장마에 패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인민군 후퇴하던 사람들이 우익들을 끌고 가다가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30여 명이 죽었어. 서탄사람들, 진위사람들 다 끌려가다가. 우리 아버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거기에서 시체 찾아다가 모셨는디....(침묵). 그래서 나는 우리 집 환경이....

전교님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네요?

그렇지 내가 19살에 돌아가셨지. 그래서 인저 거기에 나왔지만 고2 적에 사변(한국전쟁) 난 거여. 그때 나는 마감된 거여 나는.

6.25 때 일들로 학업도 중단하고 군대도 간 거네요?

군대는 영장받아서 간 거지. 나이가 되어서.

군대는 몇 년 하셨어요?

나, 2년하고 제대했지.

짧게 하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친 게 아니고 의가사. 상의군이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가정 사정 때문에. 호주라든가 몇 대 독자라든가 하면 의가사 해주잖아. 내가 윤봉길 의사 아들하고 신익희 선생 외손자 같은 사람들하고 논산훈련소 심사분리과에 있었어. 거기에는 한마디로 배경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의가사 제대도 빨리할 수 있었지.

의가사 제대도 빨리할 수 있었네요?

우리가 그 때 용산에 육군본부에 출장을 몇 번 갔는데 육군 소장이 부탁한 아이를 데려다가 주었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식사대접하면서 제대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 2년은 근무했으니까. 그래서 '글쎄 하면 좋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곧바로 제대했어. 그 당시 육군장성 말 한마디면 끝났지 뭐.

말 한마디로 제대했네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배경도 없었고 하는데. 그랬더니 보급반에 있던 과장이 '왜 나한테 얘기 한번 없었냐' 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저 허허실실 얘기한 거밖에 없었다' 고 그랬지.

전역 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제대하고는 용인군 제향군인회 부회장을 했어요. 그러고는 남사면 면의원이 되어서 부의장까지 했지. 남사면 면의회 부의장까지 했어.

그 당시 면(面)의원은 어떤 사람이 출마했어요?

상의용사로 제대해가지고 책임 맡아서 한 사람들, 지방에서 지역유지들. 대게 10여 명 선출했다고.

몇 명이 경쟁했어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씩 나왔는데 내가 용인군에서 최고 득표를 했어.

의원님이 최고 득표를 하게 된 배경은요?

그거는 내가 재향군인회 용인군 부회장을 할 때 남사면 회장도 했거든. 그 때 당시에 선거를 하면 내가 마이크를 들고 선전하고 그랬어.

선거 선전부장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표를 많이 받은 거네요?

그럼, 그런 것은 내가 많이 했지. 나이도 내가 제일 어린 사람인데 부의장을 했지. 의장을 시키려고 해도 나이가 어려서 못 했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28밖에 안 되네.

굉장히 젊을 때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들이지 뭐.

면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어요?

부의장을 하면서... 그때는 지방자치가 4:6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7도 될까 말까 했는데, 자체 고유사무보다도 정부 사무가 더 많았던 때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못 되었던 거지. 확 풀어놓지 못한 거지. 우리가 평택시의회를 할 때는 지방자치가 되가지고는 활성화가 되고 했는데.

주로 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심의 같은 것을 했나요?

그렇지, 의회에서 예결산.

이 당시 면사무소 업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면사무소는 그 때도 지방화시대가 덜 되어서 우리 선배나 그런 사람들은 일제로부터 다 이렇게 굳어져서 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야 자유 개방도 확대된다고. 그런디 그렇게 누가 해줘야 뭐가 되가는 상태가 되는데 자발적으로 개척정신이나 이런 건 없었지.

5.16 이후로 지방자치가 없어졌잖아요. 그 뒤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뒤로는 바로 농협에 들어가서... 일제 때 금융조합이 농업은행이 되었거든. 농업은행하고 협동조합으로 이렇게(통합) 구성이 될 때, 초창기지. 그때는 이동조합장여. 여기 진목리 200호 되는 조합장을 한 거지.

진목리 이동농업협동조합장을 한 거네요?

내가 초창기 사람이여. 여기(남사면) 리 단위로 할 때면 11개 리거던. 11개 마을 조합장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군(郡) 조합 이사가 되는 거여. 내가 면(面) 대표가 되어서 군(郡) 조합 이사가 되었지.

남사면의 조합장 대표로 군조합 이사가 되었네요. 진목리 이동조합은 어떤 일을 했어요?

진목리 이동조합은 출자, 자립해서 살려면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자체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자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벼 한 가마씩 출자를 했어. 그것이 기본이 됐지.

가난한 사람은 출자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지. 심지어 빚을 내서 한 사람도 있었지만 워낙 어려운 사람들은 못한 거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들어오고 그랬지.

처음에 모든 주민이 조합원이 되지는 못했네요?

그렇지. 벼 한 가마를 출자해서 조합이 된 거여.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1960년도에 우리가 이동조합이 설립이 됐고 단위조합 별로, 면(面) 단위 조합이 생긴 것이지.

출자된 자금으로 진목리 이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 때 당시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다가... 신용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사무실도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네마다 장리쌀이나 놓고 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게 1972년도 아니 1968년도에 면(面) 단위 조합, 그것이 돼가지고 정부 중앙농협(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준거여. 연쇄점하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 영업장하고를 각 단위조합 별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도 그러니까 단위조합이 그 때까지. 단위조합장 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단위조합장 경기도협의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동조합장한 사람을 다 알지.

진목리 이동조합은 방앗간이나 대출사업을 안 했어요?

이동조합에서 그거를 해야 하는데 허가를 내가지고 운영을 한다니까 그게 힘들었어. 그래서 조합원 중에 3명을 추천해서 방앗간을 운영하게 한 거여. 1년에 벼 12가마를 내놓기로 하고.

그럼 조합 방앗간이 있었네요?

그런 셈이지.

그럼 진목리 이동조합은 대출사업도 하고 방앗간도 운영했네요?

그렇지. 장리쌀 대출도 하고 방앗간도 하고. 그러다가 1968년에 면(面) 단위 농협으로 통합되고 내가 조합장이 되어서 경기도회장을 했지.

면(面) 단위 조합장이 된 뒤 경기도조합장 협의회장까지 하셨군요?

포승에 곽영노라고 알지. 그 사람하고 함께 활동했는데 평택에서는 활발하게 했지. 군 단위 조합장도 하고 기호농조 조합장도 하고.

면(面) 단위 조합이 묶여서 지역단위 조합이 되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평택시가, 우리가 할 적인데 평택시가 전국 농협에서 시범케이스로다가 도(道) 단위에서 하나씩을 정한 거여. 거기서 평택이 지정된 거여. 진위, 서탄 고덕 이렇게 해서 송탄농협이 되고, 평택은 워낙 크니까 되고. 본래 팽성하고 같이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따로 했지. 그러고 오성면, 안중면, 청북, 현덕, 안중하고 다섯 개가 서부농협으로 묶였지.

진목리 월경마을 이쪽은 남사(면)으로 간 거예요?

고속도로 나가지고 진위로 넘어온 때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녀.

그럼 농협 활동도 송탄농협으로 옮겼겠네요?

송탄농협으로 옮긴 것은 아니지. 고속도로 나가지고 내가 활동을 좀 한 것으로는 고속도로에 농산물집하장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은 여기 오산도 유치하려고 하고 신갈도 하고, 안성에는 원곡에다가 하려고 하고 했는데 여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전히 농촌지역이었다고. 내가 집하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때 서상린 국회의원, 내가 그 사람하고 나중에는 좋지 않게 헤어졌지만 그 사람한테다가 내가 꿈이 있다면 이거다.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서 교통이 아

주 불편한데 여기다 설치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지.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고향에 가서 확실하게 말하려면은 좀 하나 보여줘야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 타에 타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건설부장관에게 직접 가더니 면담을 시켜준 거여. 건설부 장관이 열렬하게 악수를 하고는 그래. ‘염려 말고 가라고’. 이 말만 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돌아서 나온 거야.

공사는 언제 해줬어요?

그거, 금방 도자(불도저)가 와 가지고 흙 실어나르더니 그냥 덮고 작업을 해서 빨리했어. 그렇게 집하장을 설치해가지고 고속버스 간이정거장까지 만들어줬지. 그러다가 내가 조합장을 내놓고 애들이 서울에서 공부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15년을 있다고 온 거여.

15년이나 서울에 계셨군요. 서울에서 내려와서는 무엇을 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위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하라고 해서 그걸 막 했지.

전교님이 서울에 가신 것은 1972년인가요?

1972년인가, 3년인가 되지. 내가 조합장을 5년을 했으니까.

그럼 1972년에 올라가서 1987년까지는 계셨네요?

15년은 안 되고 14년쯤 되었을 거여.

서울에 가서는 무엇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처음에 가서 화성산업(주)에 전무를 했어.

화성산업은 제법 큰 기업이잖아요?

컸죠. 전철공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공사는 제천에서 강원도 철암.

그쪽에 철도를 놓은 거예요?

철도가 아니라 전철, 전철역이여. 석탄 생산하고 하는데. 쌍용 있지 쌍용양회.

쌍용양회면 단양 그쪽이네요?

그쪽이여. 영원, 단양, 철암. 거기 가는 전철을 놓는 공사인데 그거 빔 세워 가지고 이렇게 채워서 하는 철로 있잖어. 화성산업이 운동장만혀. 철탑이라고 철탑. 여기도 철탑 세운 거 있잖어. 철탑을 세우고 거기에 선을 대서 공사하지. 거기에 터널이 몇 군데 있어. 터널에서 인사사고 나서 내가 현장에 출장도 여러 번 가고 그랬지. 그 회사가 울산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해준다고 자유당 간부가 했었는데 그게 안 됐지 뭐여. 내가 있을 때도 회사가 빚이 있었어. 거기서 3년 간 있다가 은행에서 관리하는 법정관리 회사가 됐단말여.

법정관리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경상도 경산 있지. 거기 국회의원했던 김형우가 맡아간 거여. 그 사람한테 인계해주고 내가 나왔지. 그 사람이 우리 진위학교에 대선배인데 마산리에 이기택씨라고 상업학교 나와서 조흥은행에 근무했거든. 내가 그곳(화성산업)에 있다가 그 사람이 일본에 가게 되가지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어. 그양반이 조종해주는데 그 동생을 내가 대표이사를 하라고 해서. 한국영선주식회사라고. 왜 한국을 넣었냐면 일본의 요코하마하고 합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 일본에는 요코하마 영선주식회사가 있고 나는 한국 영선주식회사 대표를 하고. 내가 농촌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그 때만 해도 젊은 용기로 대들었어. 그거도 2년 반 했어. 하다가 도저히 일본 여행객들 있잖아요, 그 여행객들이 선물 사거는 거 포장을 해서 일본 자택까지 가져다 주는 사업이거든. 일본놈들이 한국 목공예한 것 호랑이 꼬랑지가 떨어졌니 뭐니 해서 골치아파 그만두었지.

20대부터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았네요. 그러다가 1987년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집을 한 번 소개할게. 우리 집이 대들보도 우리 조부님이 이걸 지으신 거야. 저걸 짓는데 이걸 보면은 마루도 옛날 탈마루를 그냥 살린 거여.

그러네요. 이런 마루를 하면 진짜 부자인데?

그러고 저렇게 부연 달고. 이중 서까래를 바깥에 해 놓고. 내가 이걸 시골로 내려올 적에 뼈다귀만 남겨두고 서울에서 자재를 가져다가 전부 고쳤지.

조부님이 이 집을 지을 때 이런 목재를 주변에서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용주사 있는데 알지? 거기서 마차로다가 끌고와서 이 집을 지은 거여.

돈도 많이 들었을 거 같은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 가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과는 다르지. 시골은 아담하게 짓지 이처럼 번듯하게 하는 게 없었거든. 이 집이 내가 8살 때 지은 거여.

그럼 1940년에 지은 거네요. 그럼 일제 말이네요?

기둥을 깍는 사람을 내가 봤다고. 거기에 락카칠을 한 거지.

방은 몇 개였어요?

방은 세개여. 저기 들어오는 데 하나고 안쪽에 두 개고. 옛날에는 나무를 때는 방이잖어. 거실 있는데가 마루가 있었고 옆으로 퇴가 있었고.

사랑채는요?

옛날에는 사랑채가 있었는데 오래된 거라 헐고 내가 새로 지은 거지.

광은 몇 개였어요?

창고는, 그 전에는 우리가 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그 전에는 서울에 지주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가마니에 넣어서 쌓아 놓는 커다란 창고가 두 개가 있었어. 6.25 때 사람들 잡아다가 가둬두고 한 거지.

마름을 일제 때 했나요?

그렇지.

누구네 마름을 했어요?

나도 어려서 8살 먹어서 서울 가서 있었었는데 서울의 삼각지에 최상연씨라고 있었어. 그 사람이 지주였었단 말여. 그 양반이 집안이 잘못되어가지고 일본사람에다가 이걸(땅) 넘겼어요. 농토, 집터 이런 것들을.

그럼 일본사람 마름도 했겠네요?

그걸로 끝난 거지.

해방되었을 때 집안 농지는 얼마나 있었어요?

자작 농지는 많지 않았고. 소작 준 것은 좀 있었고.

소작지는 농지개혁 때 나눠주었겠네요?

토지개혁에 의해서 상환농지로 해서 분배한 거지.

분배한 농지는 얼마나 돼요?

한 30마지기는 되지.

많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가지고 계신 게 20마지기 되었고.

농지개혁으로 손해를 많이 보셨네요?

20마지기는 그대로 되고 30마지기는 연부 상환액 부어가지고 자작으로 된 거지. 그게 조봉암이가 초대 농림부장관이 되가지고 그 사람이 주장해가지고 한 거여. 내가 토지개혁이라고 하면 반 공산화라고 생각해.

조봉암씨가 사회주의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럼 모스크바대학 나왔는데. 국회부의장도 하고. 대통령도 출마하고.

이 동네가 왜정 때나 해방 후에도 부재지주 땅이 많았던가 봐요?

그럼. 외지에 서울 지주 땅..... 또 수원에 남 뭐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의 땅을 농사짓는 사람도 많았고.

서울지주 땅도 많았고요. 일본사람 땅도 많았어요?

그러게 일본사람이 그러게. 동네 지주는 김씨네 몇 사람, 최씨네 몇 사람 있었고.

김씨도 마름을 봤어요?

그럼. 최씨네, 최문환 교장선생네 그 집도 봤고.

동네 부자라면 마름 본 집들이 부자였네요?

이 동네 특이한 부자는 없었어.

전교님 댁 정도가 부자였네요?

실속은 없었던 거지. 남의 땅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사업도 하고 하면서 땅을 많이 장만했지.

집안 재산이 늘어난 것은 전교님 역할이 컸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초를 이뤄놓고 내가 일으킨 거지.

전교님 인생을 보면 20대 군대 다녀와서 역할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군대 2년 2개월을 했지만 군에서 많이 배웠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 육군 고급 부관학교 거기 가서 내가 교육을 두 달 받았고, 군대에서 착실한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사실 대단한 사람들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그 분들 영향을 받았고. 시골에서 보면 소총부대 일선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 내가 그거 좀 봐주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적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러지.

전교님 일생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어디를 가도 제일 막내쟁이다 싶었단 말여. 그때도 내가 단위조합장할 때도, 경기도 연합회장을 할 때도 훌륭한 사람들 많았단 말여. 이용철씨, 이승학씨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해준 거여. 그 양반들이 마음으로 사랑하니께 도와주고 그런 거지. 그렇게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평택에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마칠 때쯤인데 원유철이가 몇 차례 한나라당에 들어오라는 거여. 하지만 내가 정치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고 그냥 이끌려서 하는 건데, 내가 24살부터 직책을 맡았단 말야. 내가 67살에 부의장을 마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마해서 했는데 주위에서 한 번은 더 해야되지 않냐고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거는 하지 않는다고.... 그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건데 김창수같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나와서 의장을 하라' 고 설득하는 바람에 나갔는데... 원유철이 말대로 입당 안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안 되도 입당할 의사가 없다' 하고 그렇게 끝나고 성균관의 재단 이사가 되었지.

그럼 전교님은 1987년 낙향하신 뒤 계속 사회활동을 하신 거네요?

한 2년은 가만히 있었지. 그랬다가 진위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한 거고.

그러다가 진위향교 전교를 하신 거고요?

향교는 내가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거기 있는 내 선배가 안이충라고 마산3리에. 안이중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동문회장이 향교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자꾸 권유를 하길래 나갔지. 전윤상이라고 아나 몰라.

전윤상의원 알죠?

전윤상이가 내 고종사촌여. 고모의 아들이여. 전윤상이도 거기 향교에 그 때 나왔어. 나왔는데 내가 생각도 안하는데 나를 유도회장을 시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교가 되었지. 안병엽이하고 몇 사람이 추대해서. 그래서 내가 안전교를 사랑하는 거여.

지금 안 전교님요?

그려, 그 사람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여. 그 사람이 처음에는 향교에 안 나왔는데 나하고 거래관계도 없었고. 그런데 나를 가깝게 대하드라고. 내가 그 사람 아버지를 잘 알아요. 농사지을 적에 보(洑)의 물대고 해서 잘 아는데..

장안보를 말씀하시나요?

건는들보라고 했어. 황승보도 있고 건는들보도 있고. 건는들보가 마을 뒤 제방 있는데 있지. 그게 마산리 지나서 덕봉리까지 가는 거요.

황승보는요?

마을 아래에 있었지. 마을 주변에 물 대는 거.

장안보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장안보는 향교 있는데 거기 있는데 견산리들에 물을 대지.

들판마다 보(洑)가 따로 있었네요?

그렇지.

건넌들보는 누가 쌓았어요?

이 동네만 쌓지 않고 마산리, 그 사람들이 쌓았지. 그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이 동네는 건넌들보 보다는 황승보를 많이 썼고 우리하고 몇 사람만 건넌들보를 쓴 거여. 이 동네는 다 황승보를 썼고.

은산리 일대도 황승(이)보를 썼나요?

거기는 지대가 높아서 물이 안 올라가요. 낮아야 물이 들어가지. 그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대더라고.

전교님 평택시의회에도 진출했잖아요. 의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계기라는 것은 딴 거 없고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교에 장의하고 진위초 동문회장하고 하는데, 그 의회 관계는 원래 저기 한상민이 또 저기 학교(진위초) 뒤에 사는 이 뭐시냐 그양반들이 같이 출마했어요.

그때가 1991년 제1회 선거죠?

그래 그때 출마했는데, 처음에 은산리 정종봉네 옆에 이종복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네.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그 사람하고 몇 사람이 우리집에 찾아와서 나오라고 권유를 하기에 한마디로 거절했어. 조용히 농사를 짓다가 편안하게 가겠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는데 또 임재용이라고 면장하던 사람 알아. 고노군이 은산리에 정주성이 또 우종갑이 그 사람들이 한 여덟사람이나 되어. 그 사람들이 나를 차에 태워서 음식점으로 갔어. 여기서 대답을 안하면 집에 못가십니다라고 그래 허허. 그런데 전혀 출마 의사도 없고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서화택씨가 찾아왔단 말야. 와가지고 최선생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서상린하고 정면에서 싸우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고.

서상린 의원과 싸웠어요?

서상린이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나도 서상린이 한티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은 용인의 각 기관장들하고 군수도 오고. 그 때는 군수도 국회의원 앞에서 막 기었어. 조합장하던 사람, 지역에 용인대표도 하고 부부장 하고, 보건소장도 오고 여덟 사람쯤 있었어요. 거기 서상린이가 술먹다가 갑자기 간다고 한단말여. 그때 국회의원이 7대인지, 8대인지. 서상린이가 6대, 7대, 8대를 했단 말여. 그 때는 용인하고 안성하고 같은 지역구였거던. 그 때 뭐냐면 조용일이라고 그 사람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용인사람이니까 대표로 나왔는데 그 사람 표가 서상린이보다 앞섰단 말여. 그러니까 성깔이 나가지고 '용인 쌍놈의 새끼들 다리를 놔줘, 제방을 쌓아줘, 학교를 지어줘' 라고 욕을 하잖어. 그래서 내가 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철도 제대로 안난 지 몰랐어. 그래서 서상린이 보고 '뭐를 잘못했기에 용인사람보고 그렇게 욕하냐고' 말했어.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개겨' 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말로 하지 용인 쌍놈의 새끼가 뭐냐 말야. 용인에는 쌍놈만 사냐. 애들도 있지만은 어른도 있고 점잖은 분도 많고 부모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렇게 말하냐고.' 아 그래 가지고 말을 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 '윗사람이 말씀하는데 그러냐고.'

아무래도 말리겠죠?

아니 자존심이 없나.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유권자들인데 그 사람에게 죄인마냥 그냥 벌벌 기어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보건소장으로 있는 이대영이가 이상민이하고 외사촌간인가 그래. 그 사람이 밖에다 부르더니 뭐라고 따다부따 하면서 '왜 욕하고 그러냐고 말야, 당장 가서 빌라' 고 하더라고. 그러자 그(서상린) 사람이 큰 절을 해가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것으로 해달라' 고 그랬다고.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된 거야. 그래서 세상 인심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고속도로 집하장 만들 때 도와주고 해서 고맙기는 한데,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그때 병신노릇 했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해.

전교님이 그때 당당하게 옳고 그름을 말했으니까 지금도 당당하게 사시죠?

지금도 농협 후배들은 나보고 당당하게 살았다고들 해 허허. 지금도 얘기를 해요. 안석준 전교하고 윤순씨라고 아는지 모르는데 농촌지도소장했던 사람. 안병국이라고 봉남리 사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안석준이 일을 잘해. 내가 키우려고 노력하지.

성균관에서 옛날에 관장이 두 명 나와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최근덕이고 청양사람 최창규하고. 나하고 같이 경주 최씨지. 최근덕이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최창규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어. 나한테 두 관장이 고집이 쎄다고 그러더만. 나를 부관장을 시키려고 몇십 번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내가 그랬어. ‘부관장이라는 게 두 명이나 세 명이서 해야지 아니 돈이나 받아먹으려고 부관장을 열 여덟 아홉명을 세우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매관매직과 다른 게 뭐냐고 그랬지. 지금 성균관 이사들은 선거로 선출해. 그래서 내가 9대 3으로 이사가 되었지만. 돈만 가져다주면 되는 그런 방식은 잘못된 거지.

마지막으로 여쭐께요. 이 마을이 옛날에 당제를 지냈다면서요. 세 곳에서 지냈다는 말이 있던데요?

내가 아는 거는 정제(井祭)라고 그렇게 지냈어요. 정제를 지내는 우물이 세 개가 있었어요. 아니 그전에는 홍두렁배미라고 여기 마을 위에 있는데 대게 정월 보름 전에 그때 지냈지.

옛날에는 소 잡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소를 잡아서 우리 어릴 때는 소머리를 올려놓고 지냈지. 옛날에는 소를 잡아서 대동회에서 집집 마다 나눠 먹었고. 나중에 소머리로 바뀐 거고. 그리고 산이 있는 동네에서는 산신제를 많이 지내고.

이 마을은 지명이 어떻게 되어요. 마을도 나눠 부르지 않아요?

구레뜰도 있고 건넌들, 황승이들. 누르 황자. 은산리쪽은 개울이라고 했어. 고속도로 쭉 올라가면서 개울이 있고, 말미 앞에는 말미들이라고 했고.

이 마을 사람들은 구레들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다른 곳에서 지었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은 황승이들이고 마루들에서도 짓고.

마루들은 어디예요?

저기 서쪽에 황승이 왼쪽에 있지. 벌자리도 있었고. 벌자리는 아마 여기(북동쪽) 개울 있는디.

농사는 어디가 잘 되었어요?

그전에는 모단이라고, 일 모단이, 2 벌자리, 3 개울, 4 황승이, 5 마루들이렇게 불렀다고.

그럼 모단이가 제일 좋은 땅이었네요?

그렇지 모단이가 문전옥답이지.

여 백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V.

진위면 동천리 마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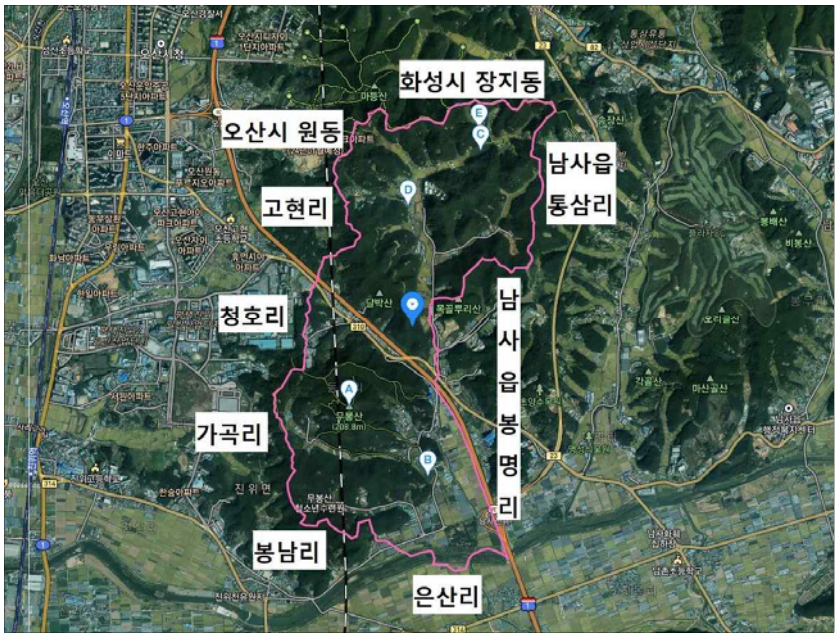
장연환

여 백

Ⅳ. 동천리 마을조사

1. 지리적 환경

1)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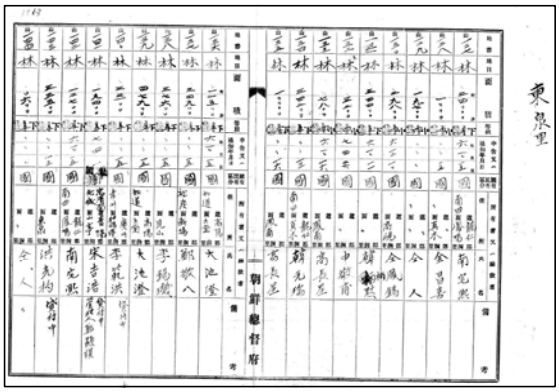
진위면 동천리의 지리적 위치

동천리는 진위면의 동북쪽에 있으며, 평택시 전체로 보아도 동북쪽 끝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와 봉명리, 북쪽으로는 화성시 장지동, 서쪽으로는 오산시 원동과 진위면 고현리·청호리·가곡리·봉남리, 남쪽으로는 진위면 은산리를 접한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쪽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몇 갈래를 이루고, 산 갈래 사이로 남북으로 길게 골짜기들이 형성되었다. 여러 갈래의 산줄기 가운데 가장 서쪽으로 북쪽에서부터 청룡봉-달박산을 거쳐 남쪽의 무봉산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있다. 무봉산은 해발 208.6m이고 산줄기는 남쪽으로 계속 뻗어내려 진위천변의 봉남리 황새바위까지 이어진다. 무봉산 북쪽의 청룡봉과 달박산은 150m 내외의 높이다. 동천리는 청룡봉으로부터 무봉산까지의 산줄기를 포함하며 남쪽 무봉산 동편 아래 기슭에 동천1리 동추골이 있고, 북쪽으로는 동천2리 사후동이 자리 잡았다. 두 마을 사이로는 예로부터 안성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고, 길이 있는 골짜기를 따라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와 310번 지방도인 남부대로가 지난다. 그러나 두 마을의 경계는 고속도로나 남부대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동편 달박산이 있는 산등성이다.

동천리 마을과 주변 모습

평택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동천리 일대는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발달하였다.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동천리는 자연마을이 두 곳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은 다른 행정 마을의 면적에 비해 적지 않다. 남북으로 기다란 모양을 하고 있으며, 두 마을 사이도 산으로 막혀 있고 거리 또한 멀다. 산과 골짜기가 많아 마을도, 경제 기반이 되는 경작지도 모두 산기슭에 있다. 골짜기가 많은 만큼 지명도 다양하다. 동천리 임야의 상당 부분은 도유림(道有林)이다. 1912년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동천리에는 사유림보다 국유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도 동천2리 사후동에는 도유림이 있으며 또한 5년 전 마을 아래쪽으로부터 새뜸 위쪽 품무골까지 임도(林道)가 개설되어 있다. 이 길은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지만, 입구를 막아서 일반인의 자동차 출입은 불가능하다.



1918년 동천리 임야조사부(출처:국가기록원)

동천2리 도유림에 조성한 임도

임도 입구

임도 출입금지 안내판

동천리가 자리 잡은 긴 골짜기로 사후천이 흐른다. 이 하천은 동천2리 사후동의 동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사후동 저수지에 모인 물이 동남 방향으로 흐르다가 사후동 중간말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흐르다가 동추골 너른터리 들판 동남쪽에서 진위천에 합류된다. 반대로 사후천을 거슬러 오르면, 진위천에서 북쪽 들판을 조금 지나면 사후천을 따라 길게 골짜기가 이어진다. 이 골짜기가 사후동에 이르러 능골, 사후동저수지가 있는 골짜기, 화개골, 여우바위골 등 여러 갈래로 나뉘며 급경사가 시작된다. 사후동저수지가 있는 골짜기와 능골은 비교적 기다란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골짜기 안에는 작지만 독자적 지명(地名)을 가진 골짜기들이 있고, 마을은 골짜기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물이 흐르는 대부분의 골짜기는 논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였다. 가령 능골의 아래쪽 북편의 절골은 양쪽 산의 거리가 매우 좁고 급경사를 이룬 지역이지만, 이곳에 크기가 작은 99배미의 다랭이논[1]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사후천은 조선시대 진위현과 용인현의 경계였다. 하류쪽은 물길일 분명하여 봉명리 쪽과 동천리 쪽의 경계가 명확하지만, 상류에 자리한 사후동 쪽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조선시대 읍지류나 지리지에서 사후동이 마을로 기록된 내용을 찾지 못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내용에서 ‘사후’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진위군 일북면 사후와 용인군 서촌면 사후로 나뉘었다. 여기서 언급된 ‘사후’라는 두 지명은 모두 지금의 사후동을 가리키는데, 그 경계가 어딘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도 작은 물길과 골짜기가 여러 개로 나뉘는 사후동의 자연지리적 입지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사후동저수지 위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사후천(치울들 옆)

사후천의 상류 쪽 골짜기에는 사후동이, 사후천 하류의 서편으로는 동천1리 동추골이 자리하고 있다. 동추골 사람들에게 사후천은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의 고기잡이 장소가 되는 정도였다. 사후천에는 피라미, 메기 등 물고기가 많아 여름에는 천렵 장소로 이용되곤 했다. 반면에 동천2리 사람들에게 이 하천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면 소재지인 진위면 봉남리 쪽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이기도 했다. 사후동 윗말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는 최창열(1949년생)씨가 진위국민학교에 다닐 때 학교까지 8km 거리에 물을 15회나 건너야 했다. 2000년 여름에는 사후천 골짜기 산 사이로 홍수가 바닷물처럼 쓸고 내려갔다. 이 때 폭우로 두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다. 사후천 둑이 무려 14곳이 터졌다. 또한 봉명리에

1) 골짜기가 매우 좁고 급경사인 이곳은 현재 골짜기 위쪽에 농산물 유통회사와 주택있고, 아래쪽은 주택과 회사로 오가는 길이 조성되어서 원래 모습을 알 수 없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절골과 더불어 ‘아흔아홉 배미’라고 부른다.

서 사후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세 군데가 유실되었다.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봉명4리에서 사후동으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가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사후천 옆 제방은 1972년 경지정리 당시에 어느 정도 조성되었지만, 2000년 수재를 겪고나서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남쪽 진위천변의 들판을 제외하면 동천리에 소재한 대부분의 경작지는 골짜기 사이에 있다. 1912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밭[田]이 185,101평, 논[畓]이 330,274평으로 전통적으로 밭보다 논의 비중이 컸다. 그러나 사후동 저수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수리시설이 없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었다. 골짜기의 낮은 지대를 따라 조성된 논들은 자연적으로 물이 나오는 샘논이었지만, 진위천이나 사후천에 접해 있으며 비교적 넓은 곳은 모래가 많고 용수 확보가 힘들었다. 동천1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홍찬의(1936년생)씨는 고속도로 옆 치울뜰이나 아랫말 저수지 아래쪽 경작지는 녹두밭 지역이라며, 동천리는 농업의 사각지대였다고 했다. 가뭄이 들면 호미모를 심거나 발동기로 물을 퍼올려야 했고, 저수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가뭄에 녹두만 심어서 먹었던 곳이라는 뜻이다. 동천리보다 하류 쪽에 있는 봉남리나 하북리 들판에 관개하는 이동저수지의 농업용수가 동천리 들판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천리의 들판에는 사후동 저수지와 동천1리의 아랫말 저수지 외에 다른 관개 시설이 없다. 사후동 저수지와 아랫말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20여 년 전부터 밭으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논농사용 용수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현재 동천리에는 대부분 골짜기 안쪽이나 평지를 가릴 것 없이 주택과 회사가 연이어 들어서고 있어서 전통인 농촌 마을의 본래 경관이 빠른 속도로 교란되어 가고 있다. 마을 토박이 주민들에 의하면 1990~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주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 주변으로는 들어서는 공장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무봉산과 사후천 기슭에 자리한 동천1리 동추골

동천1리 동추골은 무봉산의 동남사면과 남쪽으로 트인 평지가 만나는 지역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동천리(東泉里)로 불렀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후동을 포함한 동천리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이 되었다. 옛 마을은 현재 동천리 버스정류장 북쪽으로 있었으며, 현재 마을회관 북쪽에 동서 횡으로 난 길이 윗말과 아랫말을 구분하는 경계였다가, 마을 남쪽으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경주 이씨 묘역 아래쪽이 경계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2] 1980년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정부의 취락구조 개선 정책에 맞춰 새로운 마을이 들어섰다. 논과 밭이 혼재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마을이 조성된 것이다. 주변에서는 이곳을 달동네로 부르며, 현재 11집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 그 숫자상 마을이 처음 들어섰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1934년생인 홍찬의씨(남)에 의하면 그가 어렸을 때는 현재 아랫말이라고 얘기되는 경주 이씨 묘역 남쪽에 5~6집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동천2리 사후동은 사후천 상류에 있다. 옛 자연마을이었을 적 사후동은 윗말, 중간말, 비탈말, 새뜸, 아랫말로 나뉘어서 각기 5~8가구 정도가 살았다. 1995년 무렵 동탄이 개발된 이후 이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류회사인 ‘(주)건종’ 이 처음으로 자리 잡은 이후 크고 작은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금은 길이 있는 골짜기마다 주택 또는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

2) 성씨

(1) 동천1리 동추골

문헌에 따르면 동천1리 동추골에는 풍양 조씨(豊壤趙氏)와 충주 지씨(池氏)가 처음 들어오고 이후 이씨와 홍씨가 입향한 것으로 나오며[3], 동추골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 조영배씨(남, 1943년생)는 파주 장단에 살던 조씨와 지씨가 함께 동추골로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풍양 조씨 집안인 그의 집안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선 초기 높은 벼슬을 했던 집안 인물이 동천리에 사패지로 받은 땅이 있어서 조씨가 동추골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봉남리와 동추골의 경계인 황새바위 옆에 ‘지장군(池將軍) 묘’ 가 있다. 장군묘가 있어서 지씨 집안이 상당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근씨(남, 1949년생)는 동추골의 지씨들이 이 묘에서 시제를 지낼 때 참례하기도 했지만, 지장군은 동천리에 거주하는 지씨 집안의 직계 조상은 아니고, 충남 공주에 세거하는 같은 지씨 집안의 인물이라고 했다.

조씨와 지씨 두 집안의 가구수는 많지 않다.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조영배씨(남,1943년생)는 그가 어렸을 때 같은 집안이 3~4가구 있었고, 지금은 그의 집을 포함하여 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씨는 예전에 6가구가 살았지만 현재는 2가구이다.

풍양 조씨 집안 조영배

충주 지씨 집안 지상근

조씨와 지씨에 이어서 들어왔다고 전해지는 경주 이씨 상서공파는 평택의 대표적인 집안이다. 경주 이씨는 문과급제자 176명을 배출했고 다수의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다. 진위면 무봉산과 태봉산 일대와 동천1리, 가곡1리, 봉남3리에 경주 이씨 상서공파 묘역이 있으며 마산2리 수촌에도 묘역과 재실이 있다.

3)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67쪽.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2, 2014, 422쪽.

동추골 경주 이씨 묘역과 재실

이과와 이연보의 단소

묘역 맨 위에 상서공파 파조(派祖)인 이과(李適)와 그의 아들 이원보(李元普)의 단소(壇所)가 있고, 단소 아래로 손자 이승(李昇, 생몰미상)과 그 부인 전주 최씨, 이연손(李延孫)의 부인 파평 윤씨, 이수종 부부의 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있다. 묘역 왼쪽 위에는 재실인 동천재(東泉齋)가 있다. 재실은 1992년에 완공하였고, 묘역과 단소(壇所)는 2012년에 새롭게 단장하여 묘역 앞쪽에 '사단(祀壇)중수기' 를 세웠다. 매년 음력 후손들이 모여 10월 1일 이과, 이승, 이연손의 시제를 지낸다. 이수종의 10세손이자 종중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광우씨에 의하면 재실을 짓고 시제를 재실에서 지내다가 2012년부터는 다시 제물을 봉분마다 차려놓고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여 2018년도부터는 재실에서 시제를 지낸다.

진위면에서 경주 이씨가 오래 살아왔고, 동추골이 첫 입향지로 간주되지만, 경주 이씨의 숫자나 경제적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2006년 마을조사에 의하면 ‘동천리 30리 이내에서는 경주 이씨 땅을 밟지 않으면 나다닐 수 없었고, 가을에 도조(賭租)만 수 천 석을 거둬들였으며, 선영에 벌초할 때는 동네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분위기였다.’ 는 말이 전해온다고 할 정도였다.[4] 이 집안 출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이광좌, 어사 박문수의 외할아버지인 이세필, 이세필의 아들로 좌의정을 지낸 이태좌,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영의정을 역임한 이유원 등이 있고, 선산과 세거지가 동추골뿐 아니라 가곡리나 봉남리 일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 이 집안의 위세가 컸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동천리에 거주하는 이씨는 모두 10명[5]이며 그중 전답을 합쳐서 5천 평이 넘는 인물은 이규성[李圭聲, 전 4,123평, 답 6,232평], 이종화[李鍾龢, 전 14,600평, 답 11,272평] 2명이다. 1934년생인 홍찬의씨가 경주 씨가 마을에서 번성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근거는 주로 동추골 묘역에 있는 인물들과 시제 때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李始榮)이나 국회의원과 국정원원장을 역임한 이종찬(李鍾贊)을 비롯한 집안사람들이 많이 왔었던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었다. 그는 경주 이씨가 옛날에는 좀 살았지만 모두 떠나서 지금은 한 집도 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동추골 아랫말 저수지 옆 남양 홍씨 묘역

1912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부재지주를 제외하고 큰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집안은 남양 홍씨였다. 현재 1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남양 홍씨 문정공파의 동추골 입향조는 29대 홍병욱(洪秉郁, 1744-1778)이다. 그는 정치적 난을 피해서 처가인 경주 이씨가 있는 동추골로 들어와 정착하면서 이 마을 남양 홍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생몰연대로 보아 그는 조선 영조 때 활동했던 인물로 보이는데,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 시대의 주요 문헌에서 그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어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42대까지 있으니 남양 홍씨는 이 마을에서 350여 년 동안 13대를 살아왔다. 옛날에는 마을 전체 60여 가구 중 40여 가구가 홍씨였을 정도로 대성(大姓)을 이루었고, 현재도 11가구로 이 마을에서 단일 성씨로는 비중이 가장 크다.

동추골 아랫말저수지 길 건너편인 ‘동천리 367’에 남양 홍씨 묘역이 있다. 동추골 입향조인 홍병욱의 묘도 이곳에 있는데, 왼쪽부터 차례로 홍재인(洪在仁), 홍종규(洪鍾圭), 홍병욱(洪秉郁), 홍일섭(洪日燮)의 묘가 있다.

4)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68쪽.
5) 이공헌, 이규성, 이규완, 이만서, 이무쇠, 이성필, 이세헌, 이종화, 이종훈, 이화춘 등 10명인데, 이공헌과 이세헌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가 분포된 상황으로 보아 사후동 함평 이씨 출신으로 판단된다.

(2) 동천2리 사후동

사후동과 처음 연고를 가졌던 집안은 의령 남씨였다. 태종의 넷째 딸인 정선공주의 묘가 이곳에 자리 잡은 연유도 의령 남씨 집안이기 때문이다. 정선공주의 18세손인 남상필씨((남, 1943년생)씨는 려말선초 인물인 남재(南在) 때부터 의령 남씨의 소유였다고 했다. 그래서 정선공주의 묘를 사후동의 능골에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또한 평산 신씨 집안의 신자승이 정선공주의 사위였기 때문에 신씨 집안도 사후동에 연고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집안 사람들은 사후동으로 들어와 살지는 않았다.

사후동의 주요 성씨는 함평 이씨, 능성 구씨, 경주 최씨이며, 이 중 이 마을에 처음 들어온 집안은 함평 이씨로 전해진다. 입향조는 함릉부원군(咸陵府院君) 이해(李瀣, 1591-1670)[6]로 알려져 있다. 이해의 후손으로 사후동에서 태어나 오산으로 이주한 이계정씨(남, 1954년생)는 사패지로 받은 집안 땅이 사후동 저수지 근처로부터 장지리저수지까지였다고 했다. 그가 어렸을 때 사후동에서 함평 이씨가 많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4~5 가구가 거주한다.

새뜸에 거주하는 구본원씨(1942년생)의 증조부는 원래 용인시 남사면 통삼리에 세거하다가 새뜸이 있는 품무골의 전답 9천평을 매입하여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토지조사부에 당시 동천리에 주소를 둔 구연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 1명이 나온다. 그러나 그는 극히 적은 농지를 소유하였다. 한편,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에 거주하는 구영서는 대지 2필지를 포함하여 논 12,608평, 밭 8,026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씨 집안이 이전부터 사후동에 살아왔을 것이라고 간주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구본원씨의 증조부가 사후동으로 이주한 배경도 이전에 근거를 갖고 있었던 집안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그의 집안은 구본원씨와 그의 동생, 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사후동 이장을 30년째 맡고 있는 최창열(1949년생)씨는 기흥읍 고매리에서 살던 증조부가 사후동으로 이주하여 웃말에 터를 잡았고, 그가 비탈말로 이주하기 전까지 같은 집터에서 그의 손자까지 6대를 살았다. 현재 사후동에는 1가구가 거주한다.

3) 인구의 변화

조선시대 진위현의 인구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은『세종실록지리지』,『여지도서』,『호구총수』, 1891년『진위현읍지』가 있다.

조선시대 진위현의 마을과 인구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는 것은 영조 때 편찬된『여지도서』가 처음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청호리, 갈곶리, 가곡리, 후북리, 견산리와 함께 성북면(城北面)에 편성된 동천리에는 36호(戶)에 남자 49명, 여자 42명이 살고 있었다. 성북면 전체로는 287호이며 남자 348명, 여자 339명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6)『咸平李氏咸平君世譜』

『여지도서』의 진위현 성북면 인구

구분		동천리[7]	청호리	갈곶리	가곡리	후북리	견산리	합계
호수		36	47	30	30	30	114	287
비율		12.54	16.38	10.45	10.45	10.45	39.72	100
인구	남	49	54	30	41	54	120	348
	녀	42	46	42	31	49	129	339
	계	91	100	72	72	103	249	687
비율		13.2	14.6	10.5	10.5	15.0	36.2	100

당시 진위현 전체로는 1,801호 4,776명이었으니, 동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호수 2%, 인구 1.91%이다. 이를 『세종실록지리지』에 제시된 진위현 전체인 221호 535명에 대입하면 세종 당시 동천리에는 대략 4∽5호에 10∽11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나뉘었으며, 신리와 하북리 마을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호구 통계 또한 면(面) 단위로 작성되었다. 『호구총수』의 일북면과 이북면 호구를 합치면 268호, 965명이 된다. 여기에 『여지도서』의 동천리 비중을 각각 대입하면 33∽34호, 127∽128명이 된다. 두 통계가 작성된 사이에 호수는 약간 줄었고, 인구는 무려 40.47%가 늘었다. 『호구총수』가 편찬 후 100여년이 지난 1891년 『진위현읍지』에는 일북면과 이북면을 합한 통계는 299호, 595호이다. 『호구총수』와 비교하면 32호가 늘었고, 인구는 92명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인구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1960~1980년대의 인구 변화[8]

연도	호수(戶數)/세대수			인 구 수			진위면 합계		비고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호수	인구수	(기준일)
1963	91	12	103	300	315	615	1,375	8,404	1963.12.31.
1971	70	40	110	308	306	614	1,421	8,011	1971.12.31
1976	71	30	101	253	249	502	1,898	9,759	1976.10.01
1980	90	13	103	288	275	563	2,103	10,828	1980.01.31
1985	72	49	121	307	283	590	2,722	12,398	1984.10.01
1986	107	9	116	271	275	546	2,849	13,748	1986.11.01

1970년대 전후의 시기는 인구증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경기도의 도시로 대거 몰려들었다. 동천리에 살던 사람들도 1970년대 이후 다수가 마을을 떠나 서울 등지로 향하였다. 동추골에서 태어나 90세의 연세를 앞두고 있는 홍찬의씨(1934년생)는 옛날에 60가구 전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사후동은 대략 30~35가구 정도가 살았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은 위 [표]에 나타난 『평택시통계연보』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동추골의 지상근씨(남, 1949년생)는 옛날에 충주 지씨가 6가구 살았는데 1970년대 외지로 나가고 현재는 2가구가 살고 있다고 했다. 풍양 조씨도 4~5가구에서 2가구로 줄었고, 남양 홍씨 집안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다른 하나는 1970년대 하북리와 견산리

7) 사후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천리에 포함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8) 『평택군통계연보』

쪽에 매일유업, 영풍제지, 홍원제지, YKK를 비롯하여 가곡리에 동양잉크, 롯제제과 등 제법 큰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진위면에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전자는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요인이고, 후자는 인구가 유입되는 요인이다. 진위면은 두 가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즉 진위면은 전형적인 농촌의 조건을 갖고 있는 마을과, 회사들이 들어서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북리, 견산리, 가곡리 등은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전형적인 농촌이면서 회사가 있는 곳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동천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 인구 변화[9)]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진위면 합계		비고
		남	여	계	호수	인구수	
2006	211	282	227	509	5,476	13,805	
2010	255	308	255	563	5,934	13,773	
2015	259	291	260	551	5,652	12,699	
2020	275	290	231	521	5,862	11,391	
2022	271	279	232	511	6,147	11,401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가 되면 진위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용인이나 동탄이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 여건이 커졌다. 용인이나 동탄이 개발되면서 공장과 이주민들이 진위면 쪽으로 연이어 들어왔다. 1995년 터를 닦아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온 사후동 치고개 오른쪽으로 전원마을도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 2000년대부터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시설농이나 회사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사후동에서 약 1천 평 정도의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고 화훼농사를 짓는 정종권씨(남, 1953년생)는 2002년에 토지를 구입하여 2007년에 이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골짜기기 많아 인적이 뜸하며 지가가 저렴해서 서울이나 수원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점차 늘어난다. 현재 8가구가 살고 있는 할미재 아래 마을에서 만난 주민 2명은 수원에서 각각 2016년, 2017년에 이주하였다고 했다.

3) 교통

(1) 근대 이전의 교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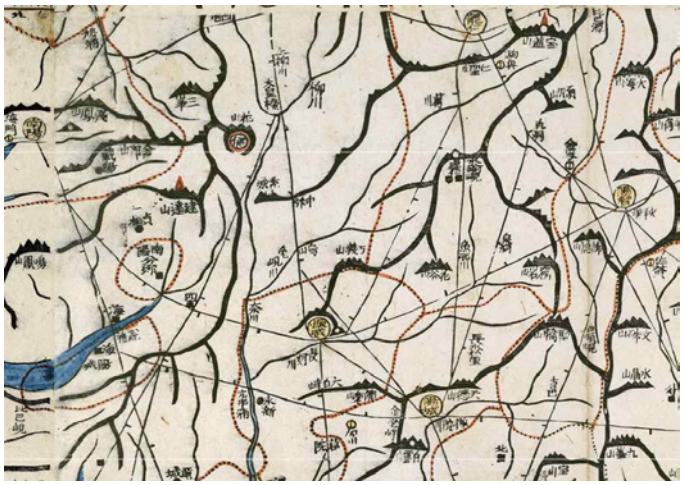
조선시대 시대 지도는 주로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과감하게 생략하였고, 당시 교통로 역시 주로 큰길 중심으로 표현하여 마을이 읍치에서 떨어졌거나 대로(大路)가 지나지 않으면 마을 주변의 교통로 같은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읍치였던 봉남리 주변은 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진위현의 동쪽에 치우친 봉남리에 대한 내용은 만기사와 무봉산 정도가 지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9)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제공 자료

18세기 해동지도 진위현

1872년 진위현읍지

1891년 진위현읍지



대동여지도의 진위현 부근

조선 후기에 이르러 도로와 포구를 이전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 작성된 대동여지도에는 동천1리인 동추골을 지나는 3개의 교통로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봉남교차로에서 동천1리 마을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진위현 읍치에서 용인 땅을 거쳐 양지현으로 이어진다. 이 도로는 ‘진위로’와 동천1리 앞에서 남사쪽으로 이어지는 ‘서촌로’의 원형으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길은 조선시대 삼남대로의 오산에서 양성현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남부대로(310번 지방도)이다. 양성현에서 수원과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인마(人馬)의 통행이 빈번했을 것이다. 그런데 1922년 작성된 지도에는 이 길의 동천리와 성은리 구간이 현재의 남부대로와는 다르게 동천리-월경동-남사면 진목리-외암리-원곡면 산하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도로가 지금처럼 변경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신작로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동천1리의 000씨(남, 1938년생)는 “기나지 고개의 도로(남부대로)가 일제 강점기에 2등 도로였다.”고 말하였다. 오산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남부대로가 2등 도로로 확장되면서 동천리-남사면 원암리 사이의 도로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2년 지도의 오산-성은리간 도로
(지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1956년 지도에 보이는 새로 개설된 구간
(지도출처:국가기록원)

1956년도 작성된 지도에서 새롭게 변화된 도로체계를 살펴볼 수 볼 수 있다. 지금의 경부고속도로의 외동천교 북쪽 아래에 이 도로에서 동추골과 사후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교차되는 사거리가 있는데, 이곳을 주막거리라고 불렀다. 동추골의 홍찬의씨(남, 1934년생)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해방 후에 안성과 오산을 오가는 장꾼들이 많아 4∽5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홍찬의씨의 부친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이 주막에 자주 왕래했으며, 손님이 오면 술 접대를 하는 곳이기도 했다. 주막은 경부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없어졌다.[10]

동천주막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주막거리

주막거리 주변의 현재 모습

세 번째 길은 동천1리 동추골에서 사후동-통삼리를 지나 지금의 오산, 화성, 용인으로 이어지는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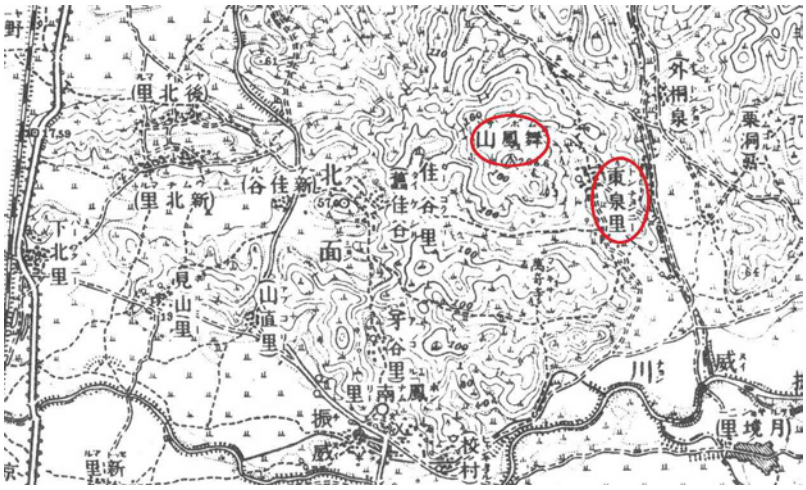
10) 2020년 평택문화원에서 번역하여 발행한『진교일기』에는 "(군수와) 친구삼아 흥겹게 천천히 걸으며 ……. 어느새 길이 멀어진 것도 몰랐는데, 우연히 용인 삼가점(三街店)에 도착하여 일고여덟 잔식 돌려가며 마셨다. ……"는 대목이 있다.(평택문화원,『진교일기』, 2020, 121쪽.) 삼가점이란 삼거리 주막인데 이곳이 동천리주막이 아닌가 생각된다. 1922년 지도에는 이곳이 남부대로에서 동추골로 들어가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이고, 사후천 건너에는 사후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다른 삼거리가 있다. 그런데 1967년 항공지도에 동천리쪽에 사후동으로 들어가는 동천리 쪽으로 있는 사거리를 이룬다. 홍찬의씨가 '이곳을 삼거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진교일기』에 등장하는 '삼가점'이 이곳으로 추정된다.

다. 사후동은 남쪽에서 사후동을 거쳐 화성시 장지동으로 이어지는 길과 남사읍 통삼리에서 오산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도 이 마을로 이어지는 길들이 근대 도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남사읍 봉명리에서 사후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2000년대 들어서 2차선 도로로 확장되었을 뿐이다. 근대 철도와 육로 교통이 발전하면서 4거리를 지나는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이유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후동에서 이웃 마을로 통하는 길은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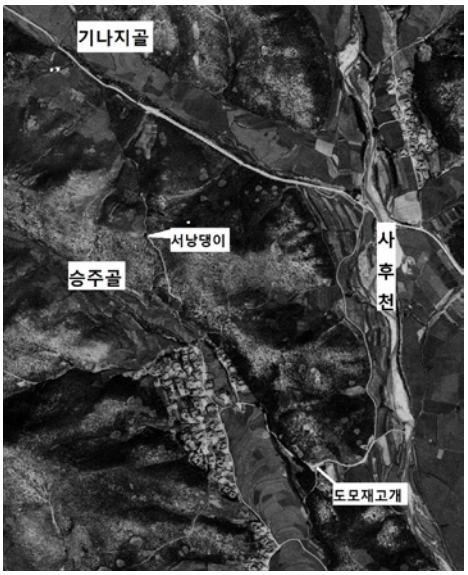
사후동저수지에서 동막으로 가는 길

능골에서 동막으로 넘어가는 고개

1922년 지도에서는 한 고을과 다른 고을을 이어주는 큰 길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거나 마을에서 큰 길로 나가는 소로(小路)들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길은 농민들이 이웃마을과 소통하거나 생필품을 구하러 5일장에 다니는 목적이나 등굣길 등 마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길이었다.



1922년 지도에 표시된 동천리와 교통로



동추골에서 오산으로 가는 길(1967년)

할미재로 이어지는 길

홍찬의씨(남, 1943년생)는 동추골에서 진위초등학교까지 걸어서 다녔다. 아이들은 현재의 마을 앞 버스정류장이 있는 공터에 모여 할미재천을 건너 산 아래쪽으로 난 길을 따라 봉남리에 있는 학교까지 갔다. 봉남리까지 가는 데는 대략 40분 정도 걸렸다. 학교에서 올 때는 학교 뒤 산길로 해서 친구들과 장난을 놀며 만기사 앞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산에도 나뭇꾼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서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들이 봉남리 학교 가는 길은 어른들이 진위면사무소에 가거나 1번 국도까지 걸어가는 길이기도 했다. 조영배씨(남, 1943년생)의 부친은 일제 강점기에 1번 국도 보수를 하는 부역에 나갔다가 추운 겨울에 점심으로 찬밥을 먹었다가 감기에 걸린 이후 평생 농사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앓으셨다. 그의 부친은 봉남리 코스가 아니라 할미재를 넘어 가곡리로 해서 1번 국도까지 질러갔을 수도 있었다.

승주골과 서낭댕이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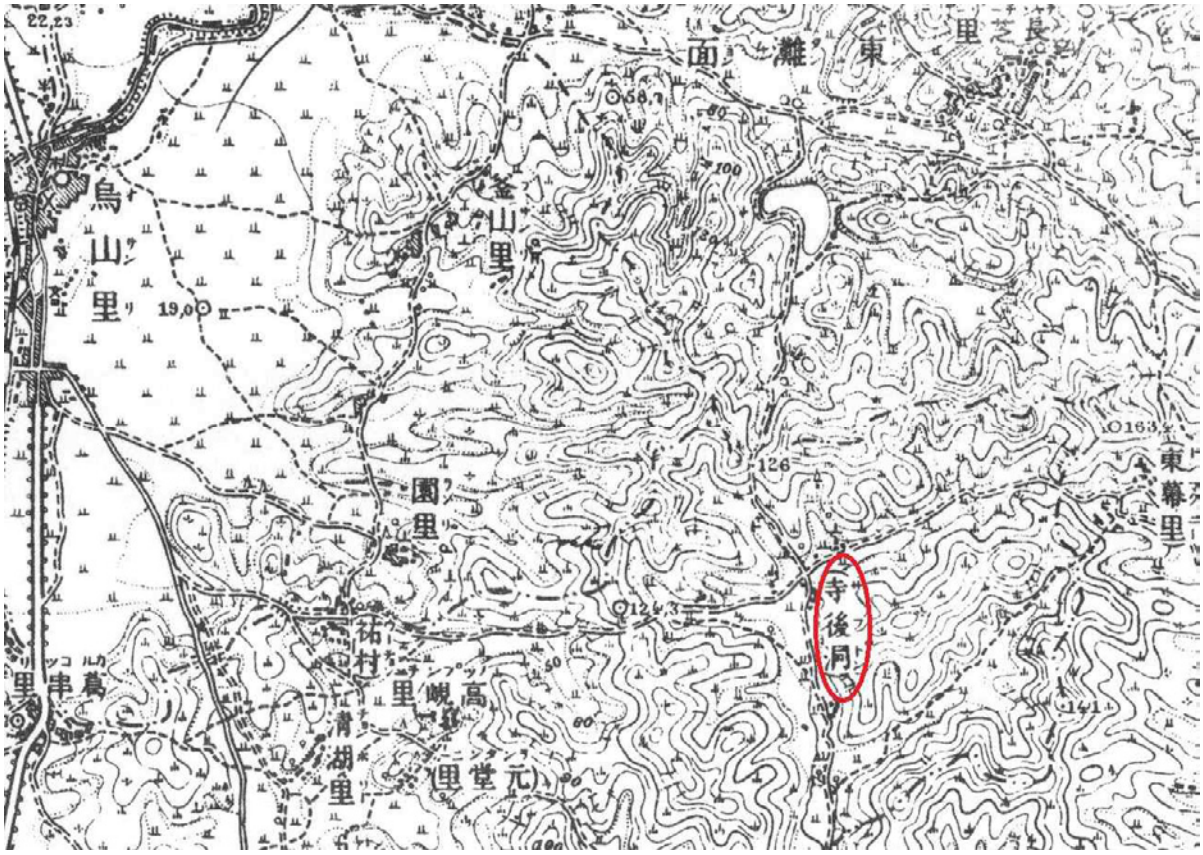
서낭댕이 현재 모습

교통로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권과 밀접하다. 동추골이나 사후동 사람들은 오산장을 주로 이용했고, 수

원이나 서울을 갈 때도 오산역과 오산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했다. 학교도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오산쪽으로 갔다.

동추골에서 오산으로 가는 데는 걸어서 질러가는 길과 마차길이 따로 있었다. 마차는 마을 동쪽 도모재고개를 돌아 현재의 달동네 뒤로 해서 지금의 경부고속도로 다리 북쪽 4거리에서 지금의 남부대로와 합류하여 기나지고개를 넘어야 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인 1970년대 이전에는 기나지 고개가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고 험하였다. 옛날에 마차에 쌀을 좀 무겁게 싣고 가면 힘들어서 헉헉대는 소의 입이 땅에 닿을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의 경사도는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낮춘 것이다. 오산쪽을 질러 가려면 승주골 입구에서 서낭댕이를 넘어 기나지골쪽 길에 합류하는 코스를 택하였다. 오산장까지는 아주 빨리 걸으면 45분에도 가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3시간도 걸렸다. 보통 사람 걸음으로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무봉산 남쪽 할미재골을 따라 올라가면 가곡리로 넘어가는 할미재가 있다. 이 고갯길은 동추골에서 가곡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 또한 1번 국도 있는 데까지 질러가는 길이기도 했다. 할미재를 넘지 않고 골짜기 북쪽 끝으로 가면 청호리 LG 디지털 파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만, 현재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이용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11]



사후동에서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1922년 지도)

11) 1970년대에 제작된 지도에는 골짜기 북쪽 끝 청호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할미재로 표시고 있다. 그러나 마을 토박이 주민들은 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할미재로 불러왔으며, 청호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잘 알지 못하였다.[홍찬의(남, 1934년생), 조영배(남, 1943년생), 지상근(남, 1949년생)]

사후동은 동추골 북쪽으로 사후천을 따라 골짜기가 깊어서 교통 사정이 매우 열악했다. 오산쪽이나 봉남리쪽으로 나가려면 고개를 넘거나 물을 건너야 했다. 1975년 새마을부녀회 관계로 진위면사무소에 갔던 차옥순씨(여, 1947년생)는 면사무소 직원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사후동에서 왔다고 하니까 면직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냐?" 고 할 정도였다. 어렸을 때 사후동 윗말에 살았던 최창렬씨(남, 1947년생)는 진위초등학교까지 8km를 걸어 다녔는데 개울을 10번 이상 건너야 했다. 봉명리에서 사후동까지 들어가는 길만도 4km 이상 거리였는데, 길은 마차가 간신히 다닐 정도 넓이였고 사후천에는 징검다리 정도가 놓여 있었다. 이 다리도 장마 때는 물길에 휩쓸리기 일쑤였다. 1972년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사후동으로 들어온 구본원-차옥순 부부는 트럭에 짐을 싣고 오는데, 차가 개울 바닥을 가로질러 건넜다. 그러니 일반 승용차는 바닥이 낮아 들어올 수가 없었다.

치고개

화고개

동추골과 마찬가지로 사후동 역시 생활권이 오산이었다. 사후동에서 오산까지 가는 데는 화고개와 치고개, 두 갈래 길이 있었다. 화고개는 웃말과 비탈말 사람들이, 치고개는 새뜸과 중간말, 아랫말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화고개는 화성시 장지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산으로 이어지는 길도 있었다. 1922년 지도에는 화고개에서 장지리 방향으로 길이 표시되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통하여 오산을 오가는 데 더 많이 이용하였다. 길은 '화고개-역말 저수지 옆-역말 앞-오산장' 코스로 이어졌다. 남사읍 통삼리 동막 마을 사람들도 이 코스를 따라 오산장을 다녔다. 그래서 윗말에서 사후동 저수지를 지나 동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동막고개라고 하였다. 치고개는 고현리와 당말을 지나 오산장으로 이어졌다. 이 길은 통삼리 멍개, 원포, 통골 사람도 많이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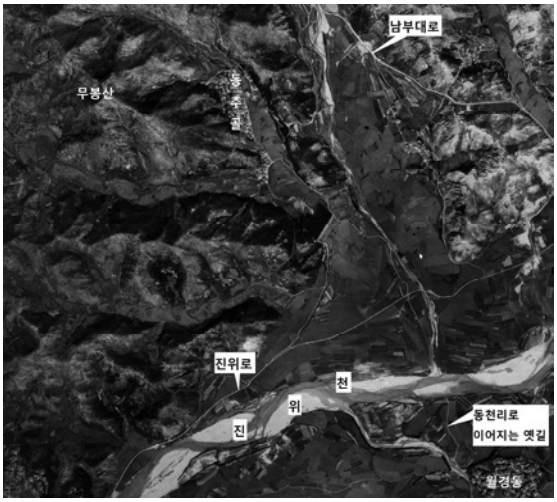
사후동에서 오산까지 가려면 5~6km를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길이 험하고 마차도 다닐 수 없어서 무거운 짐은 지게에 지거나 소 길마에 싣고 다녔다. 화고개는 현재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치고개는 고현리를 지나 오산으로 나가는 길목이어서 승용차의 통행이 많다. 동막고개는 시멘트 포장이 되었지만, 옛 길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다.

(2) 교통로의 변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 강점기에 오산에서 원곡면 성은리로 이어지는 지금의 남부대로(310번 지방도)가 2등 도로로 개설되었다. 2등 도로는 폭 5m, 부지 폭이 7m이며 인접하는 지방 최고 행정청을 연

결하는 도로이다. 이후 동천리와 주변의 교통로 사정은 큰 변화가 없다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경지정리와 새마을사업이 진척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동추골의 조영배씨(남, 1943년생)는 경부고속도로 동천리 구간이 1967년 가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70년에 완공되었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가파랐던 기나지고개가 낮춰지고, 고속도로와 만나는 사후천 근처에서 남부대로 일부 가 변경되었다. 고속도로는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과 호기가 교차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현재 동천1리 이장을 맡고 있는 홍석진씨(남, 1963년생)는 초등학교 때 지나다니는 차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기도 했고, 오산중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곧은길로 가자며 아침 일찍 고속도로를 따라 고현동이나 오산 나들목까지 걸어가기도 했다.



경지정리 전 동천리 주변 교통로(1967년)

현재의 동천리 주변 교통로

1972년에 치울들과 영장굴, 황생이들, 느른더리 등 사후천과 진위천을 접하고 있는 들판이 경지정리되었다. 이때 은산5리 월경동에서 동천리로 이어지는 길이 교란되어 사라졌다. 또한 진위로도 휘어진 구간을 곧게 했으며, 동추골 마을로 들어가는 길도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남부대로 동천1리 입구

1980년대를 지나면서 동천리 주변의 도로들이 확·포장 되기 시작하였다. 사후동 이장인 최창렬씨(남, 1947년생)의 기억으로는 사후동에 처음 서울여객 버스가 들어왔던 1982년까지도 남부대로가 포장되지 않았고, 1988년까지 비포장이었다가 1990년 전후 2차선 포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이 도로가 비포장이었던 시기에 주변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소마차를 끌고 나가 모래·자갈을 실어다 파인 도로를 보수하는 부역을 하였다. 2005년에 확장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에 오산에서 남사면 진목리 진목교차로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동천리로 이주한 김경찬씨(남, 1973년생)가 1981년 이곳에 올 때만 해도 동천리 앞을 가로지르는 진위로는 흙길이었다. 그의 기억으로는 4∽5년 후에 포장이 되었으니 1980년대 중반쯤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길은 이전에 사후천에 다리가 없어서 끊기는 길이었는데, 시멘트 포장을 하면서 남사면 봉명리 쪽 길과 연결되었다. 진위로는 2009년 봉남리-남사간 확·포장 공사를 시작하고 2017년 2월에 2차선으로 완공되어 지금과 같이 모습이 되었다. 만기사 입구와 동추골 진입로 사이에서 1천여 평 정도의 시설 딸기를 재배하는 김경찬씨는 몇 년 전부터 진위로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생산량 모두를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편이다. 홍석진 이장은 지나다니는 차들이 많아서 지금도 농사지으러 다니는 노인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될 정도인데, 경부고속도로 진위 나들목 개통으로 앞으로 점차 차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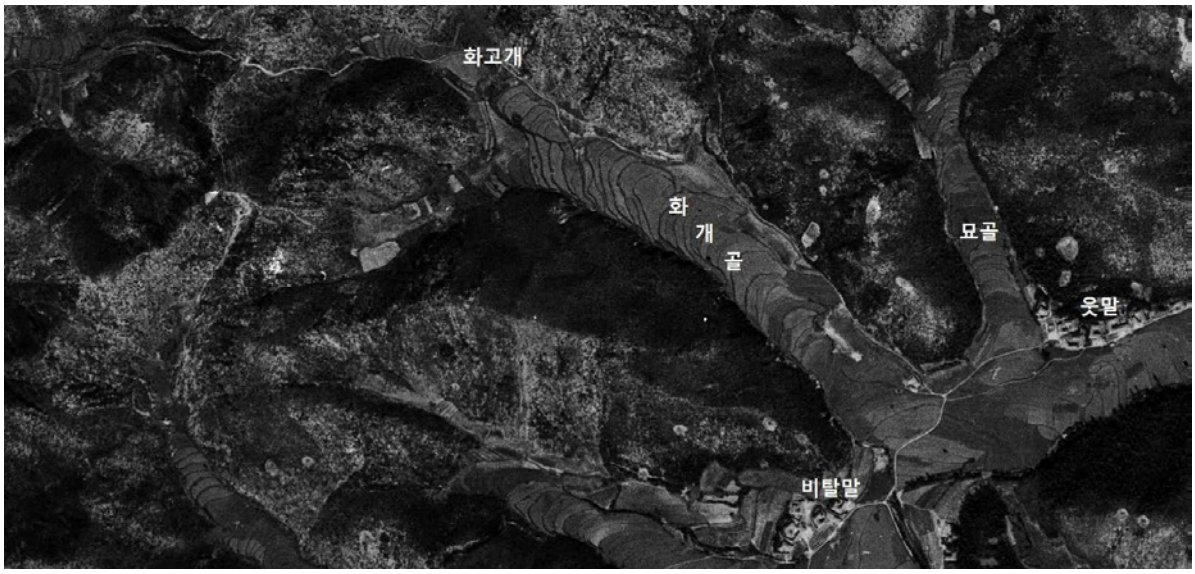
동추골 앞을 가로지르는 진위로

진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의 마을 진입로는 1997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98년 11월에 확·포장 준공을 했다. 마을 진입로가 2차선으로 개설되면서 자동차가 동추골 동편 도모재고개를 넘고 달동네 뒤편을 지나 남부대로까지 수월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사후천 상류에 자리한 사후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교통의 오지였다. 새마을운동 전까지 마을에는 마차 운행도 힘들어 대부분의 농사를 짓거나 오산장에 오갈 때 날라야 할 짐들은 지게나 소의 길마에 의존해야 했다. 화고개나 치고개를 넘는 마차길이 없어서 큰 짐들은 소 길마에 실어서 갔다. 길마에는 당시 90kg짜리 쌀 두 가마까지 싣고 다닐 수 있었다.

치고개길(1967년 항공지도)



화고개길(1967년 항공지도)

특히 개울을 많이 건너야 했던 사후동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일은 큰 숙원 사업이었다. 1971년 새마을 사업으로 정부에서 시멘트를 보조해주자 다리 놓기부터 시작하였다. 처음에서 징검다리처럼 다리를 놨으나, 이듬해인 1972년부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1979년까지 사후동 마을에 모두 8개의 다리가 완성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마을에는 2.5t 트럭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다리가 완성된 후 1980년 1월 최창렬씨(남, 1947년생)는 이장을 보게 되면서 마을 진입로 확장을 서둘러 폭 4m 길로 넓혔다. 이때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땅 임자인 봉명리 사람 2명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그 마을 사람들 광광버스 타고 관광 가는 날 동천1리 달동네 터를 닦던 불도저로 마을 진입로 입구인 봉명리에서부터 지금의 보건진료소 있는 곳까지 몰래 밀어버린 일화가 있다. 1986년 구본원씨(남, 1942년생)가 사후동 이장을 맡고 있을 때 경기도 감사과장이 이 마을에 왔었을 때 사후동와 경기도 감사과 사이에 자매 결연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마을에서는 시멘트를 지원받아 봉명리서부터 마을 앞까지 진입로를 포장하게 되었다.

2000년 7월 20일 하루 밤낮에 1,500mm의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수해를 입었다. 이때는 벼 이삭이

막 피기 전이었는데, 폭우로 불어난 물이 사후천 양쪽 산까지 차올라 바닷물 모양으로 흐를 정도였다. 이 당시 무봉산 산사태로 동추골 오현순 부녀회장이 무너진 집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후천 둑 14곳이 터지고 하천 주변의 벼논들은 쑥대밭이 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수해 복구를 위해 평택시에 230억원을 교부하였다. 평택시에서는 그 중 50억 원을 사후동 진입로 공사에 배정하여 2001년에 2차선 도로가 완성되었다. 2차선 도로를 개설할 때 사유지는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했지만 땅 소유주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당시 이장이었던 최창렬 이장은 땅 임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부산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사후동 진입 도로 시작점

아랫말 북쪽에서 치고개로 이어지는 도로와 동천교

2021년에는 26억원 확보되어 보건진료소 아래부터 광은기도원까지 2차선 도로가 완공되었다. 이로 인해 오지 마을이었던 사후동에서 오산시 고현동 고현초등학교까지 승용차로 5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치고개에서 고현리를 통과하는 2차선 도로 확장을 위해 평택시에서 세운 42억원의 예산 중 26억원이 확정되어 부지 매입까지 해 놓은 상황이다.

능골 야생동물연구소 진입로는 경기도에서 90억원의 예산을 세워 2021년 공사에 착수하여 2022년 6월에 2차선으로 완공하였다. 이 도로가 나는 바람에 평당 40만원 하던 도로 옆 토지가 100만원 정도로

올랐다고 한다.

2022년 6월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위 IC' 하행선이 개통되어 동천리 일대의 교통로와 마을 경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추골 이장인 홍석진씨(남, 1963년생)는 지금도 마을앞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데,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IC까지 개통되면 더 늘어날 교통량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위 IC'

(3) 대중 교통

동추골에 거주하는 000씨(남, 1938년생) 부부의 기억에 의하면 버스가 처음으로 동천리 가까이 들어온 지는 60년 정도 되었다. 이때는 현재의 남부대로로 오산-원곡면 성은리 사이를 오가는 버스가 아침·점심·저녁으로 하루 세 번을 다녔다. 버스를 타려면 봉명리 4거리 동천주막이 있는 곳까지 15~20분을 걸어가야 했다. 쌀 1가마 값이 1,600원이었던 당시 오산까지 가는 버스비는 10~15원 정도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봉남리를 경유하여 서울 양평동까지 다니는 시외버스가 동추골까지 들어왔지만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이후 하북에서 봉남리를 거쳐 은산리까지 갔다가 평택으로 나가는 협진여객이 이 있었지만, 동추골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 1989년 평택 동일공고에 입학했던 김경찬씨는 동천1리 집에서 봉남교를 건너 은산리 앞까지 가서 이 협진여객 버스를 타고 통학하였다.

진위여객[12]이 생기면서 동천1리에도 정기적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었다. 현재는 6-1번 버스가 두 시간에 1대씩 마을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봉남리에서 동추골 마을 앞 버스 정류장까지 들어와 돌려서 다시 봉남리를 경유하여 오산까지 운행되고 있다.

12) 진위여객은 1993년도에 버스 1대로 시작한 회사이며, 이때는 '봉남리-청호동-고현동-오산'을 오갔다. 2013년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뉴진위여객으로 회사명이 바뀌었다.(『2019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76쪽.)

동추골 버스정류장

동추골로 운행하는 버스

사후동은 1982년 이전까지 대중교통이 전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치고개 또는 화고개를 넘어 오산까지 걸어가서 버스나 기차를 타야 했다. 차옥순씨는 새뜸에서 치고개를 넘어 오산장까지 걸어가면 1시간 정도, 쉬면서 가면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했다. 구본원씨가 대학시절 서울로 통학할 때 부지런히 걸으면 오산역까지 50분이 소요되었다.

마을 진입로를 확장한 후 사후동 이장인 최창렬씨는 당시 오산과 서울을 오가는 서울여객 고속 직행버스 회사와 교섭을 시작하였다. 당시 회사 사장은 반대를 했지만, 전무가 마을 이장의 열의를 보고 찬성하여 1982년에 하루 세 번(아침, 점심, 저녁) 서울여객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버스는 오산 터미널에서 고현동 LG 전자 앞으로 해서 310번 지방도-봉명4리를 거쳐 사후동의 현재 보건진료소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마을 사람들은 1시간 이상 걸리던 오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동천보건진료소 앞 버스 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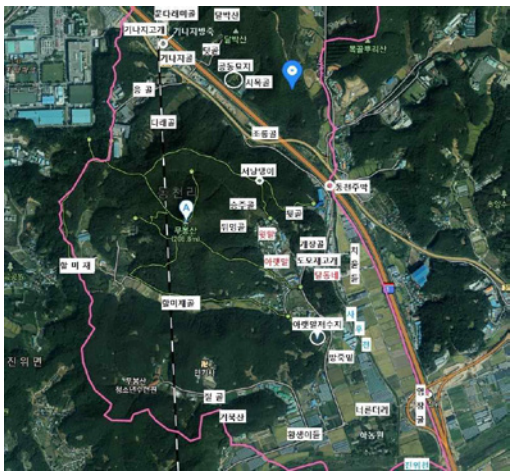
버스시간표

서울여객이 들어오게 되자 마을에서는 잔치를 벌여 자축하였다. 이 버스는 1990년도까지 다니다가 협진여객으로 바뀌면서 운행이 중단되었다. 협진여객은 하루 3회 운행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가곡여객 마을버스가 아침 9시 50분과 오후 2시, 하루 2회 들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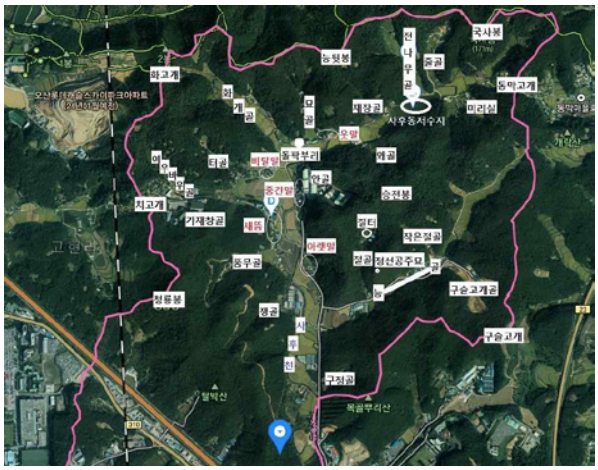
4) 지명

『조선지지자료』에는 동천리의 지명이 동천1리인 동츄골, 무봉산, 만기사, 기나지고개, 능골 등 극소수만 등장하며 심지어는 ‘사후동’도 없다. 아마도 산이 깊었던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천리는 들판이 적고 골짜기가 발달한 지역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명은 골짜기이며, 특히 사후동은 넓게 펼쳐진 들판이 거의 없어서인지 들판 이름은 전혀 들어볼 수가 없었다. 골짜기 명은 ‘ㅇ골’ 또는 ‘ㅇ굴’로 발음되고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골’로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들판 이름 역시 ‘ㅇ뜰’로 발음이 되지만 ‘들’로 정리하였다. 많은 지명이 있지만 그 유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손에 곱을 정도로 적다. 또한 1970년대에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것과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것도 있다.



동천1리 동추골 지명



동천2리 사후동 지명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동추골	자연마을	동추골 [東泉里]	동추골은 동천1리를 가리키는 마을명으로『여지도서』와『호구총수』에는 ‘東泉里’로 기록되었다.『조선지지자료』에는 ‘東泉洞’으로 나오며 ‘동츄골’이라는 한글 지명이 병기되었다. 여기에 한글명이 나온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이 ‘동천동’보다는 ‘동츄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것으로 보인다.
		윗말(웃말)	동추골 안쪽 마을 이름이다. 현재는 경계가 경주 이씨 묘역 아래가 웃말과 아랫말의 경계가 되지만, 홍찬의씨는 옛날에 아랫말에는 5가구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둘로 나누는 경계는 마을회관 위 삼거리 지점에서 동천리 은행나무 쪽으로 난 길이 경계라고 했다.
		아랫말	동추골의 바깥쪽 아래 마을이다.
		달동네	1980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도모재고개 동쪽 사후천변에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다.
	산	무봉산	해발 208.6m로『여지도서』에 용인의 응봉산(鷹鳳山)으로부터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舞峰山)	줄기가 이어진다고 했다. 평택 지역에서 가장 높고 이 산기슭에 청호리, 가곡리, 봉남리, 동천리가 자리하고 있다. 산 정상에 무봉산성이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야간에 비행하는 비행기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철탑을 세웠는데, 지금도 탑을 세웠던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산 정상에는 주변을 조망하는 시설물과 산불감시를 하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다.
		거북산	만기사가 있는 절골과 진위천 사이의 산으로, 형상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다.
		안산	마을 동쪽에 자리한 산이며, 동쪽으로 넘어가는 개장골이 있다. 산 등성이에 경주 이씨들의 묘역이 있는데, 이 집안은 동천리와 가곡리, 봉남리 등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경주 이씨와는 다른 집안이다.
		호랭이산	안산과 도모재고개 바로 남쪽 산으로 호랑이 모양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북쪽이 호랑이 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산 남쪽에는 묘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산등성에 청주 한씨의 묘역이 있다. 옛날에 청주 한씨가 시제를 지내러 왔다 가면 일행중의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시제를 지내러 올 때는 최소한의 인원인 2∽3명만 왔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들	뒤진물	아랫말저수지 바로 아래이며 '두집물' 또는 '뒤집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황생이들	보통 '황생이뜰'이라고 발음하며, '황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추골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서쪽 들판이다. 마을 주민들은 옛날에 황새가 많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조선지지자료』에는 '黃升坪(황승이들)'로 나와 있어, '황승이'의 발음이 '황생이'로 변형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너른더리	동천리 진입로 동쪽의 들판으로 학농원을 포함한 지명이다. 이곳이 동천리에서는 가장 넓은 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른들'에서 비롯된 지명일 것이다.
		영장굴	너른더리에서 사후천 너머 동쪽 들판이며, 경부고속도로 동편 들판의 일부도 포함된다. 원래 남사읍 봉명리에 속하였으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동천리에 속하게 되었다.
		간앞	간압은 영장굴 남쪽 진위천과 접하는 부근의 지명이다. 원래 남사읍 봉명리에 속하였으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동천리에 속하게 되었다.
		치울들	보통 '치울'이라고 하며 '치울뜰'로 발음한다. 원래 남사읍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봉명리에 속하였으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동천리에 속하게 되었다.
	골짜기	절골	만기사와 무봉산 수련원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이며, 만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절골이라고 하였다. 만기사와 무봉산 수련원 앞까지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골짜기 입구 남쪽으로는 경인환경, 성우이엔씨, 코아텍이라는 회사가 있다. 절골 입구와 아랫말 저수지 사이의 산자락에 안동권씨의 묘역이 있다.
		할미재골	아랫말 서쪽으로부터 할미재에 이르는 골짜기 이름이다. 이곳에는 골짜기 치고는 비교적 널따란 농지가 형성되어 있다. 마을을 벗어나면 4m 정도의 비포장 도로가 있으며 진위사 아래에 이르면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다. 할미재 너머 가곡리로 이어지며 할미재 아래에 새로 형성된 마을의 도로명 주소가 가곡2길이다. 골짜기 전체의 1/3쯤 되는 지점에 동천리 고인돌이 있고, 마을 서북쪽 골짜기 위로 젖소를 키우는 OK목장이 있다.
		뒤멍골	승주골 입구에서 서편 골짜기 이름이다. 뒤멍골 입구에 이연손과 이광좌의 묘가 있다.
		승주골	동추골 마을 북쪽 끝에서 서북쪽으로 이어진 골짜기 이름이다. 골짜기 아래쪽으로 농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서낭댕이가 있다.
		뒷골	마을 북쪽과 승주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며, 안산의 북쪽 끝에 해당된다. 이 골짜기를 넘으면 동천교회와 만나게 된다.
		개장골	도모재 고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서쪽으로 휘도는 지점 약간 남쪽에서 동쪽 안산 쪽으로 있는 자그마한 골짜기이다.
		다래골	남부대로의 무봉산교차로가 있는 지점 바로 남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오르는 골짜기로, 1980년대 한우 10여 두를 기르는 하늘목장이 있었다. 주택 4~5채의 주택이 있다.
		응골	다래골의 북쪽 등성이 너머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윗쪽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우 10여 두를 기르는 목장이 있었다. 현재는 골짜기 아래에서부터 위쪽까지 7~8개의 회사가 들어서 있다.
		문다래미골	기나지골로 고개를 오르기 전 지점 오른쪽 골짜기이다.
		기나지골	경부고속도로의 동천리 구간에서 북쪽 기나지 고개로 오르는 긴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골짜기이다. 기나지골과 기나지고개를 합쳐서 그냥 '기나지' 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전에는 마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소의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경사가 심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많이 낮춰졌다. 사후동에서는 '지나지' 라고 발음했다.
		텃골	달박산 서쪽 골짜기이다. 지대골이라고도 불렀으며, 예전에 달박골이라는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점차 달박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디새농원이라는 음식점이 있다.
		시목골	텃골 남쪽 골짜기이다. 젖소를 기르는 축사가 15년 전에 들어섰다.
		조롱골	기나지골의 남쪽으로 남부대로상에 놓여있는 진위육교 부근이다.
	하천	진위천 (振威川)	동천리 남쪽에 있으며, 현재 동천리부터 봉남교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개	할미재	할미재골에서 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이 고개 바로 아래에 주택들이 들어섰고, 이곳에서부터 가곡리로 이어지는 길은 시멘트 포장이 되었다. 고갯마루에는 돌 무더기가 있는 서낭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이 없다. 동천교회가 설립되기 전 동추골의 개신교 신자들이 가곡리의 가곡교회로 넘어다니는 고개였다.
		도모재고개	마을 동쪽 달동네로 돌아 넘어가는 고개다. 마을에서 돌아가는 지점은 지금보다 높았는데, 1986년 방앗간이 들어서는 터를 닦으면서 지금처럼 낮추었다.
		기나지고개 [箕峴]	기나지골에서 고현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예전에 동추골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오산쪽으로 나갈 때 많이 이용했다. 기나지골과 이 고개를 합쳐서 '기나지' 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서낭댕이	승주골 입구 오른쪽 길로 올라서 넘는 고개로 옛날 마을 사람들이 걸어서 오산쪽으로 나갈 때 넘었던 고개이다. '동천기나지' 또는 '작은 기나지' 라고 부르기도 했다. 고갯마루에 있는 서낭목인 참나무에는 오방색 천이 둘러져 있고, 돌무더기는 무너져 내린 상태이다.
	저수지	아랫말저수지	1944년에 조성된 저수지로 동추골의 아랫말 쪽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할미재골과 승주골의 물을 가두어서 저수지 아래 논들에 용수를 공급한다.
		기나지방죽	기나지골에 있는 100여평 정도의 작은 저수지였다. 기나지골에 있는 논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하였으며, 지하로 고속철도가 지나는 공사를 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거리	주막거리	예전 310번 지방도(남부대로)와 동추골에서 사후동으로 이어지는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길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던 주막이다. ‘동천주막’으로도 불리는데 주막이 처음에는 한 곳이었다가 해방 후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지면서 4~5곳으로 늘었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없어졌으며, 외동천교 북쪽 지점이 주막이 있었던 자리이다.
사후동	자연마을	사후동 (寺後洞)	동천2리의 마을명으로 지금은 보통 ‘사후동’으로 부르지만, 마을 토박이 주민들은 옛날에는 ‘절뒤’라는 말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정선공주 묘가 있는 능골 윗편에 있었던 절 뒤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이었다는 의미에서 절뒤라고 불렀다. 이 마을은 5개 마을로 세분되며 각각 윗말, 비탈말, 중간말, 새뜸, 아랫말로 불린다.
	산	승전봉	‘성정봉’ 또는 ‘승정봉’으로도 불린다.
		능뒷봉	묘골과 재장골 사이 능선 북쪽 정상이다. 남쪽 산 자락에 있던 함릉부원군 묘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국사봉	줄골 골짜기 위 오른쪽 봉오리 이름이다.
	골짜기	품무골	새뜸 남쪽 지점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다. ‘풀무골’에서 변형된 발음이며, 지금도 풀무골로 불리기도 한다. 도유림(道有林)에 개설된 임도로 오르는 길 입구가 있다.
		쟁골	품무골 남쪽 골짜기이다.
		가재창골	광은기도원 왼쪽편 세계성막복음센터 건물 위쪽 골짜기이다. 옛날에 가재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바위골	광은기도원 북쪽, 전원주택단지 동쪽의 골짜기로 동쪽 산등성이에 공기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터골	혜인요양원과 그 뒤쪽을 포함한 골짜기 이름이다. 1999년 혜인요양원 시설이 들어섰다.
		화개골	비탈말 오른쪽 골짜기로 오산쪽 또는 동탄시 장지동으로 넘어가는 화고개로 오르는 길이 있다.
		묘골	웃말 왼쪽 골짜기로, 이 골짜기 입구 서편 산자락에 함령부원군 이해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장골	사후동저수지 제방 아래 지점에서 북쪽으로 보이는 골짜기이다.
		전나무골	사후동저수지의 제방에서 상류쪽 2/3 지점의 북쪽 골짜기이다.
		줄골	전나무골 바로 동쪽 골짜기이다.
		미리실	사후동저수지 상류 끝 부분에 있는 자그마한 골짜기 중 동쪽 골짜기이다. 남사읍 통삼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왜골	사후동저수지 제방 아래에서 남쪽 골짜기이다.
		안골	㈜건종이라는 회사가 들어선 자리이다. 회사가 들어서면서 이 회사와 중간말 사이 북쪽으로 뾰죽하게 튀어나온 산자락을 평탄화해서 골짜기의 모습이 교란되었다.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절골	골짜기의 동쪽 산 능선에 정선공주의 묘가 있었고,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에 그녀의 넋을 위로하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절 아래로 99배미의 다락논이 있어서 '아흔아홉배미' 라고 불리기도 한다.
		작은절골	절골 바로 동쪽 골짜기 이름이다.
		능골	절골과 작은 절골 및 구슬개골로 이어지는 큰 골짜기 이름으로 정선공주의 묘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구슬고개골	야생동물학교가 들어선 골짜기 이름으로, 남사읍 통삼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구정골	동천길을 따라 사후동으로 가면 남사읍 통삼리와 사후동의 경계 북쪽 골짜기이다. 현재는 성은동산이라는 시설이 있다.
	하천	사후천	사후동저수지 상류 쪽 골짜기 위에서 발원하여 마을을 지나면서 여러 골짜기 물과 합해지고 동천1리 너른더리 동남쪽에서 진위천에 합류된다.
	고개	치고개	광은기도원 쪽 고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사후동 사람들이 고현리를 지나 오산으로 다니던 중요한 길목이다.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있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서낭당에 돌 하나씩 올려놓았고, 절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흔적이 없다.
		화고개	화개골에서 오산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치고개와 더불어 사후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사읍 통삼리 사람들도 많이 이용했던 고개이다.
		동막고개	사후동저수지 뒤쪽, 통삼리 동막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막 마을에서는 길마고개라고 불렀다.
		구슬고개	야생동물학교 자리인 구슬개골을 지나 남사읍 통삼리 통골, 멍게, 부군물 사람들이 오산에 갈 때 넘어 다니던 고개이다.
	저수지	사후동저수지	1969년에 착공하여 1971년에 완공된 저수지로 제방 밑 논들로부터 사후천이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기타	공기바위	여우바위골 동편의 '동천리 산82번지' 의 산등성이에 있었던 바위를 가리킨다. 바위가 6개가 있었고 큰 것을 규모가 집채만 했는데, 옛날 장군들이 이 바위들을 공기놀이 하며 갖고 놀았던 것이다. 1960년대 후반 무렵 사방공사를 하던 봉남리에 사는 임호성씨가 장난삼아 바위 밑을 삽으로 팠더니 바위가 모두 아래 골짜기 굴러 떨어졌다. 그 중 한 개가 최근까지 있었는데, 너럭바위처럼 편평하고 넓어서 1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몇 해 전 농지에 성토하면서 땅 속에 묻혔다.
		돌팍부리	사후동 윗말로 가다가 화개골과 갈라지는 삼거리 길의 북쪽이다. 이곳에 사람의 형상을 닮은 큰 돌이 있었는데, 높이가 사람 키의 2배쯤 되었다. 함릉부원군 이해(李瀣)이 묘가 있는 산이 제비혈이고,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안골(현재 건종이라는 회사가 있는 곳)의 동쪽 산자락이 뱀혈이었다. 함평이씨 종손이 이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땅을 가곡리에 있는 양씨 집안에 매각했는데, 양씨 집안에서 뱀의 기운을 막으려고 사람의 형상을 닮은 큰 돌을 세웠다. 이 돌이 땅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돌땅꾼이라고 불렀다. 이후 토지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돌땅꾼은 땅속에 묻혔다.

2. 역사적 환경

1) 행정구역의 변천

다른 법정마을과는 달리 동천1리 동추골과 2리 사후동은 두 마을이 서로 붙어있지만 산으로 막혀있는 모습이라 생활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까지 두 마을의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근대 시기 평택지역의 다른 마을들이 조선 후기 읍지류를 제외한 다른 문헌에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동천리 역시 영조 때 편찬된『여지도서』에 그 마을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때부터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까지 동천리는 동천1리 동추골만을 의미했다.

군현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천리는 ‘진위(振威)’와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공간상으로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했던 진위는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지역이었다. 처음에는 한강 유역에서 일어나 세력을 확장한 백제에 속했다가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부산현(釜山縣)을 두어 지배하였다. 이후 신라가 백제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후(660년) 1세기 정도가 지난 경덕왕(景德王) 16년(757)때 진위현(振威縣)이 설치되었다. 진위현은 완전히 독립된 현(縣)이 아니라 지금의 수원이 중심인 수성군(水城郡)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명종(明宗) 2년(1172)에 처음으로 지방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무(監務)가 파견되어 진위현을 담당하였다. 이때의 진위현은 조선시대의 진위현보다 규모가 작았다. 고려시대 양광도에 속했던 진위현에는 천장부곡(현 서탄면), 송장부곡(현 서정동, 이충동 일대), 영신부곡(동삭동), 종덕장(현 고덕면) 등 특수 행정 구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문헌에 등장한 동천리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군현제를 정비하였다. 조선 건국 후 본래 충청도에 속했던 진위현을 태조 7년(1398)에 경기좌도로 옮겼다가 경기좌·우도가 경기도로 개편된 뒤에는 경기도에 속하여 현재에 이른다. 세종 6년(1424)에는 수원 관내의 송장부곡 87호(戶), 부산(釜山)과 청호역의 59호, 용인현과 의신현의 6호를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 하여 진위현에 붙였다.[13] 이어서 세종 15년(1433)에는 수원부의 속현인 영신현을 같은 이유로 진위현에 편입시켰다.[14] 이렇게 하여 전체적인 골격이 갖추어진 진위현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어 각 군현은 읍치를 중심에 두고 여러 개의 면(面)을 편성하였다. 진위현의 면(面)과 마을 편성에 대한 내용이 영조 때 편찬된『여지도서』에 처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진위현에는 마산면(馬山面), 성북면(城北面), 서면(西面), 탄현면(炭峴面), 송장면(松庄面), 여방면(餘方面), 병파면(丙坡面), 성남면(城南面), 고두면(古頭面), 현내면(縣內面) 등 10개의 면이 있다. 동천리는 청호리, 갈곶리, 가곡리, 후북리, 견산리와 더불어 성북면에 속하였다. 이후 정조 때인 1789년에 편찬된『호구총수』에는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서면이 일서면과 이서면으로, 탄현면이 일탄면과 이탄면으로 각각 나뉘어져 13개의 면으로 기록되었다.[15] 이때 동천리와 갈곶리, 청호리, 동천리, 신촌리가 일북면으로, 가야곡리, 후북리, 하북리, 견산리가 이북면으로 편성되었다.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부·목·군·현이 모두 군으로 통일되는데, 이때 진위현은 진위군이 되고, 현내면이 군내면으로 바뀌는 등 일부 명칭이 변경되었다. 1914년 지방 행정구역이 대폭 통폐합되면서 현재 진위면 골격이 갖춰졌다. 이때 진위군 전체와 양성군 및 수원군의 일부가 진위군으로 편성되었고, 군내면(현내면), 일북면과 이북면 전체와 이서면 마산리의 일부 지역이 합쳐져서 북면(北面)이 되었다. 북면에 속했던 동천리는 '동천동, 사후(寺後), 용인군 서촌면 사후(寺後)'를 합하여 편성하였다. 1949년

13)『세종실록』24권, 세종 6년 4월 21일.
14)『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6월 23일.
15) 뒤이어 나온 1843년『진위현읍지』의 진위현 관내 면은『여지도서』와 내용이 같으며 1872년에 편찬된 읍지에는 다시 13개 면으로 기록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북면의 명칭이 진위면으로 바뀌게 되어 지금처럼 진위면 동천리가 되었다.

사후천을 경계로 동서쪽으로 자리잡은 사후동의 마을

동천동(동추골)이 영조때부터 기록에 등장한 반면에 사후동 또는 절뒤 마을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지리지나 읍지류 뿐 아니라 1911년 무렵에 편찬된『조선지지자료』에도 내용이 없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내용을 정리한『조선전도부군면리동 명칭일람표』(1917)에 처음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면 동천리의 범위를 ‘동천동, 사후(寺後), 용인군 서촌면 사후(寺後)’로 정하는 내용에서 비로소 ‘사후(寺後)’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북면 사후’와 ‘용인 서촌면 사후’가 같이 언급되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한 지역이 행정구역상 두 곳으로 나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함평이씨함성군세보』에는 사후동 화개골 입구 돌팍부리 뒤에 있는 이해의 묘 위치가 ‘용인 서촌 묘좌(卯坐)’라고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조선지지자료』에 용인군 서촌면 동막에 능곡(陵谷)와 나무골[木谷]이 있는데, 이는 각각 ‘능골’과 ‘전나무골’로 추정된다. 이로보아 현재 사후동 마을이 있는 넓은 계곡의 동쪽이 용인군 서촌면 동막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후천 서쪽편만 일북면에 속하는 사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끝난 후인 1922년 지도에 비로소 ‘사후동(寺後洞)’이라는 마을명이 등장하였다.

2) 역사적 경험

(1) 해방과 무봉산 폭동[16]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을 때 홍찬의씨(남, 1934)는 진위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해방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으나 어린 마음에도 ‘우리나라를 찾아서 기분이 좋았다.’는 느낌은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다. 특히 소식을

16) 무봉산 폭동의 전말에 대한 내용은 ‘김해규,『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38~41쪽’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들은 다음날부터 술을 마시고 풍물을 두드리며 마음껏 즐기는 잔치 분위기가 2∽3일 동안은 이어졌다.

무봉산과 동추골

평범했던 농민들과는 달리 해방 정국에서 정치적 국면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해방 후 좌익과 우익의 주도권 다툼 벌이는 국면에서 1945년 말 신탁통치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우익은 애국, 좌익은 매국' 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좌익은 좌익이 주도하는 민주적 임시정부 수립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총체적 지지를 선언하게 되자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였고 정국의 주도권은 우익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좌우대립의 정치구도 속에서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군정은 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을 계기로 좌익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좌익은 미군정의 탄압에 맞서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고,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 10월 사건을 계기로 남한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1947년 진위면에서 무봉산 농민폭동이 발생하였다. 당시 진위면 일대에서는 사회주의에 가담한 주도적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삐라를 뿌리며 선동하였다. 하지만 시간지 지나면서 좌익은 미군정과 보수 세력의 지원을 받은 우익에게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이는 1946년이 되면서 남한 내에 미군정과 우익에 의해 치안이 확립되고 각 지방에서 사회주의자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인민위원회가 불법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가곡리에서도 경찰과 대한청년단을 위시한 우익과 좌익세력들 사이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1947년 가을, 청년들은 들에 나가 바쁜 일손을 놀리며 가을걷이에 여념이 없을 때 우익과 경찰들이 합세하여 총을 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예기치 않은 사태에 미처 대항할 준비를 하지 못한 농민들은 입은 옷 그대로 농기구를 들고 무봉산으로 쫓겨 올라갔다. 쫓겨 가는 농민들을 상대로 우익들은 총을 쏘고 이 때문에 4명이 부상을 입자 농민들의 공포심은 더욱 높아졌다. 가야실의 이주현씨 말로는 무봉산에 쫓겨간 사람은 이웃마을인 동천리와 남사면 봉명리 남뜸 사람들을 합해 약 1천 명쯤 되었다고 한다. 저녁이 되자 경찰과 대한청년단은 물러갔다. 하지만 두려움에 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농민들은 동천리 사람들이 해다 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추위와 허기를 견뎠다. 다음날, 사태가 불리하기 돌아가자 이춘연 등 지도부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나머지 사람들은 재차 공세를 가하는 경찰과 우익들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잡혔다. 다행히 우익들의 테러는 없었다. 대부분 남아있던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쫓겨 온 단순가담자였기 때문이다.

동천리에서 무봉산 폭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1934년생으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홍찬의씨는 당시 살았던 집뒷쪽 능선으로 봉명리에서 무봉산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니는 소리만 들었다고 했다. 당시 그의 부친이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집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단속했던 기억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봉산 난동' 으로 이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17세 되던 해인 1951년 1·4 후퇴 때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2) 6·25 전쟁

무봉산 폭동 당시 어린 나이였던 홍찬의

동춧골에 사는 홍찬의씨는 6·25가 났을 때 16세였다. 6·25가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홍찬의씨네는 형편이 어려워 피난갈 생각도 못했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전쟁이 시작되고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인민군들은 동천리 옆을 지나가기만 했지 주둔하지는 않았다. 인민군은 기나지골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1번 국도에서 안성 방면으로 이어지는 남부대로(310번 지방도)는 일제 강점기에 2등 도로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남진하는 데 중요한 길목이 되었다. 그의 기억과는 달리 1943년생으로 전쟁이 났을 때 7세였던 조영배씨는 마을에 인민군들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그리 무서운 것도 못 느꼈고 기억도 가물가물 하지만 아랫말저수지 위쪽에 소나무 숲에 전차가 있는 것을 보았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전차를 숨겼던 소나무 숲

현재 모습

홍찬의씨는 무봉산 폭동과 6·25 전쟁 때의 사실을 다소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홍찬의씨는 봉명리에서 무봉산으로 이어지는 길목 옆인 ‘동천리 328-2번지’에 살았기 때문에 아군이 없는 밤이면 그의 집 뒤로 사회주의자들이 오가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었다고 할 정도로 기억이 생생하면서도 이것을 6·25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총격전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지는 않고, 오가는 고함소리는 컸다고 했다. 사태는 2~3일만에 끝났다. 진압되었다는 것만 알았지 사람이 얼마 죽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해 들은 것이 없다고도 말했다. 조영배씨는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동네 남자들이 멍석을 지게에 지고 무봉산에 올라갔는데, 국군이 시킨 것인지 인민군이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이다.

홍찬의씨는 6·25 전쟁 전후해서 사회주의에 가담하거나 무봉산 폭동에 가담했던 동추골 사람들은 없었다고 했다.[17] 다만 홍석구라는 인물이 1·4 후퇴 때 경찰에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는데, 마

17)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김해규는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에서 “진위면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선동에 여러 마을이

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가 사회주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나이가 1살 미달되어 의용군으로 붙잡혀 가지 않았다. 다만 겨울인데도 포승면에 가서 방공호 파는 일을 갔다 왔다. 당시 인민군들이 집안에서 한 사람씩 차출했는데, 그의 부친 나이가 많아 그가 부친 대신에 나가게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마을을 출발하여 밤새도록 방공호를 판 후 날이 밝기 전에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1·4 후퇴 때는 동추골에서 2명의 청년이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행방불명되었다. 한 사람은 18세였고 다른 한 사람은 25세 정도 되었다.

사후동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오산으로 이주하여 2022년 가을에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심었던 콩과깨를 수확하러 사후동에 왔던 주성중씨(남, 1945년생)는 6·25때 사후동에 수많은 피난민이 몰려들었다고 했다. 웃말에 있는 평산 신씨 재실인 동천재 자리에 있었던 그의 집에는 당시에 방뿐만 아니라 외양간과 헛간에도 피난민으로 꽉 찼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던 피난민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3) 사방사업

조선 후기~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황폐해진 산림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1948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던 정부에서 1962년 「사방사업법」을 제정하고, 다음해에는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에는 사방사업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18] 이에 따라 수원에 설치된 사방공사관리소가 주관하는 사방관리사업이 산이 많은 동천리에서도 1965년 무렵부터 시행되었다.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있으면서 사방공사에 인부로 다니던 홍찬의씨는 반장을 맡게 되었고, 이후 작업 주임의 제안을 받아 현장 내무를 담당하여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방공사 일에 뛰어들었다. 현장 내무란 현장에서 인부들이 일하는 것을 체크하고 합산하여 사무실에 제출하는 일을 담당한다. 인부들의 임금은 매 2주마다 밀가루로 지급되었다. 가장 높은 등급인 10점을 맞은 인부는 캐나다산 밀가루 5kg 정도를 받았고 1점이 깎일 때마다 윗 등급의 양에서 10%씩 줄어들었다.

사방사업이 이루어진 할미재골과 승주골

호응하였다. 특히 각곡리 가야실을 위시해서 신가곡, 후북과 신북, 동천리 절뒤와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남뜸과 같이 무봉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서술하였다.(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38~41쪽.)

18)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방공사는 봉남리를 시작으로 가곡리, 동천리, 노곡리 순으로 이루어졌다. 동천리에서는 주로 할미재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봄에는 주로 나무를 심었는데, 이 때 주로 리키다 소나무, 오리 나무,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었다. 가을에는 야개라고 하여 구불구불한 도랑을 반듯하게 펴는 공사와 급경사에 턱을 만드는 낙차공이라는 공사를 했다. 할미재천 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동천리에 산사태 피해를 줄 수 있는 승주골의 사방공사는 이 당시에 하지 않았고, 2000년 7월 폭우가 내린 후에 이루어졌다.

(4) 새마을운동

1969년까지 4년의 이장을 봤던 홍찬의씨는 1970년 새마을지도자를 맡았다. 새마을지도자로서 그가 했던 일은 지붕개량과 퇴비 증산과 모내기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당시에 슬레이트는 고속도로 주변 마을부터 보급되었다. 동천리는 1972년 한 해에 지붕 개량을 모두 마쳤다.[19] 당시 함석지붕으로 지붕개량을 하는 것도 고려를 했으나 여름에 뜨겁다는 이유로 모두 슬레이트를 선택하였다.

새마을사업으로 넓힌 동추골 마을길

지붕 개량이 끝나고 마을길을 넓혔다. 마을 앞을 돌아 나가는 큰 길을 먼저 넓힌 후 안쪽 길 넓히기로 이어졌다. 이때 마을 주민 소유인 땅은 주인의 희사를 받았지만, 마을에 살다가 타지로 이주했거나 외지인 소유인 땅은 허락 없이 그냥 밀어서 길을 넓혔다. 지붕 개량과 마을길 넓히기에 이어 길을 포장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시멘트만 지원했기 때문에 모래와 자갈은 마을 사람들이 소마차로 진위천에서 퍼왔다. 1971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부역으로 진위천에서 모래를 퍼다가 손수 블록을 찍어서 건물을 지었다. 처음에는 창고처럼 바닥도 시멘트로 했었는데, 서울로 나갔던 홍석용씨(남, 1939년생)가 비용을 대서 내부를 방으로 꾸며주었다. 후에 바닥이 직사각형인 건물의 2/3 지점을 막아 큰 쪽은 그대로 마을회관으로, 적은 쪽은 가게로 사용했다.

현재 사후동 이장인 최창렬씨(남, 1947년생)는 1969년 입대하여 1971년부터 1973년 제대할 때까지 군대 내에서부터 새마을교육을 받았다. 군 복무중 오전 정훈 교육 4시간을 받을 때는 우선 새마을운동 교육부터 1시간을 먼저 받았다.

사후동의 새마을운동은 1971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마을마다 시멘트를 100~300포씩 무료로 보조해주면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쓰게 하였다. 시멘트가 나오자 사후동에서는 제일 먼저 사후천에 다리

19) 000씨(남, 1938년생)는 본인 나이가33세 때인 1970년에 지붕개량을 시작하여 이듬해에 모두 마쳤다고 했다.

를 놓았다. 이전에 다리는 돌멩이를 징검다리 형태로 중간중간 모아놓고 위에 뗏장을 덮어서 건너다녔다. 이 다리가 큰비 오기만 하면 떠내려가서 돌멩이 대신 시멘트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건너다니는 시멘트 징검다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사후동 새마을사업에 헌신했던 최창렬 이장

1972년 휴가를 나와 사후천에 시멘트 징검다리 놓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놓은면 안 된다. 하나를 놓더라도 마차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다리를 놔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집집마다 나무로 된 부엌 대문을 떼어오라고 해서 틀을 짜서 시멘트 다리 하나를 군 휴가 중에 완성하였다. 이후 1973년 새마을사업 때부터 징검다리를 그만두고 시멘트 다리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모두 8개의 시멘트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시멘트만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는 마을 사람들이 부담했다. 마을에서는 2.5톤 트럭을 얻어 진위천변에서 모래를 실어오고, 자갈은 주민들이 논둑, 밭둑, 산에 다니면서 돌을 주워 바수걸이 달린 지게로 져다가 깨뜨려서 썼다.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은 마을 사람들이 부역으로 충당했다. 마을길 포장은 1975년도부터 199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1년에 보통 15~20일 정도씩 부역을 했지만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주민들 모두가 협조적이었다. 2000년부터는 도로 포장이 필요하면 평택시에서 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사후동의 지붕개량은 1971년에 시작되어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기와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다. 지붕개량, 마을 안길 넓히기와 더불어 1976년에는 부녀회가 조직되었다. 서울 출신으로 이 마을 출신인 구본원씨와 결혼하여 젊은 나이에 사후동으로 들어온 차옥순씨(여, 1947년생)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녀회는 절미운동부터 시작하였다. 절미운동에는 사후동 30여 가구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한 달에 한 번 부녀회장 집에 절미한 쌀을 모아 오산장에 팔았고, 대금의 일부를 모아 부녀회 기금으로 썼고, 나중에는 마을 구판장도 운영하였다.

새마을사업 때 면사무소에서 강조한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퇴비증산이었다. 퇴비는 네모진 한 변의 길이가 10~15m 되도록 네모 반듯하게 해서 집채만큼 쌓았다.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는 소풀 또는 퇴비 만들 풀을 두 짐씩 깎았다. 아침 먹고 또 풀을 깎아다 쌓았다. 그렇게 한 결과 퇴비 모범부락으로 선정되었다. 퇴비 증산은 다수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비료 보급이 저조했던 당시에 퇴비 증산이 생산을 늘리를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었다. 정부에서는 퇴비 증산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수확을 거둔 농민에게 포상을 하는 정책도 실시했다. 다수확상을 심사하기 위해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나와 자로 1평을 측정하여 알곡을 털어서 무게를 달았다. 이러한 심사 결과를 통해 1977년 사후동의 최창렬씨는 다수확상을 수상하고 상금으로 10만이라는 큰 돈도 받았다. 당시 진위면에서 이 상을 받은 사람끼리 농촌지도자회를 조직했는데 인원이 20명이었다. 모임의 초대회장은 은산4리 권혁동씨였다. 진위면 농촌지도자회는 45년인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회원은 50명이다.

1983년도에는 퇴비생산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농가에게 새마을중앙회에서 호주나 캐나다에서 들여온 소 1마리를 분양 받는 혜택을 줬다. 사후동에서는 대략 10집 정도가 그때 시가보다 싼 값으로 소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죽어서 실패를 보았다. 구본원씨네는 소가 새끼 낳다가 죽어서 어떤 정육점

에 죽은 소를 팔았다. 당시 소 1마리에 30만원 정도 나갔지만, 그 때 소는 10만원도 제대로 못 받았다.

3) 자연마을

동천리는 진위면 12개 법정리 중 동북쪽 끝에 있으며, 현재 1리와 1리로 두 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동천리’ 은 원래 1리인 동추골을 가리키는 마을명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후동을 포함하는 명칭이 되었다. 사실 두 마을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서 직선 거리는 가깝지만 서로 왕래하는 길이 멀었고, 전통적인 경제기반이었던 농지 소유 지역도 달랐다. 두 마을 모두 시장과 학교를 오산으로 다니긴 했지만 오산까지 다니는 길은 서로 겹치는 구간이 거의 없다.

평택의 다른 마을의 입지와 비교하면 두 마을 모두 산기슭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촛골과 사후동을 합하여 이름이 붙여진 골짜기와 고개의 지명이 각각 31개, 8개나 있다. 그러나 동천1리인 동추골이 무봉산 기슭에 있으면서도 진위천이 있는 남쪽으로 개방된 모습이라면, 사후동은 봉명4리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진 긴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 형성되었다.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동추골이 일찍부터 마을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면, 사후동은 하천이나 계곡으로 이루어져 여러 집이 모여 살아가는 자연마을이 형성되기에는 불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촛골이 동천리라는 이름으로 조선 후기 『여지도서』에 처음 나온다면, ‘사후’ 라는 명칭은 1917년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전통적인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조용하게 살아왔던 동천리가 최근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용인과 동탄 등 인근지역의 개발로 이주민과 회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동천리의 각 골짜기마다 전원주택이 들어서거나 회사들이 이주하면서 옛 경관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1) 동천1리 동추골

동천1리 동추골 마을 전경

동천1리 동추골은 무봉산 동쪽과 남쪽 계곡인 승주골과 할미재골이 만나면서 경사가 완만해지는 자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봉명리와 동천2리 사후동, 남쪽으로는 진위천 너머 은산리, 서쪽으로는 하북리와 가곡리, 북쪽으로는 청호리와 고현리를 접하고 있다.

동천리의 한자명은 ‘東泉里’ 이며,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 마을명이 처음 나타난다. 『조선지지

자료』에는 '東泉里'와 한글 이름인 '동츄골'을 병기하였다. 2008년 간행된『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에서는 '동칫골'이라고 했고[20], 2014년에 편찬된『평택시사』에는 '동치골이라고도 한다.'고[21] 되어 있다. '동츄골' '동추골', '동치골', '동칫골'은 조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발음상의 차이로 보인다. 문헌상의 근거를 고려한다면『조선지지자료』의 표기에 근거한 '동추골'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동천리 지명에 샘천자[泉]가 있고 계곡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1959년에 조사작성된「지명조사철」[22]에는 동천리 지명 유래에 대해 "샘이 잘나서 식수가 좋고 동리앞 전답에 물이 항상 흘러서 해마다 풍년이 드는고로 동천리라고 불리우고 있음"이라고 쓰여 있다. 이후 동천리를 소개하는 각종 문헌에서도 이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 마을이 평택에서 제일 높은 무봉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여러 계곡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50~60집이 살았던 이 마을에는 우물도 6개가 있었고, 마을 당제 때 쓰는 우물도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썼다. 하지만 이야기가 농경지로 옮아가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물론 할미재나 절골, 승주골 같이 골짜기에 위치한 경작지는 물이 풍부했지만, 비교적 넓은 들판인 황생이들이나 너른더리, 치울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밭으로 경작하는 땅이 많았다.

동추골 아랫말저수지

동추골 또는 동추골 주변에서 사람이 처음 살았던 흔적은 동천리 고인돌에서 추정할 수 있다. 할미재천을 오르는 비포장길 옆에 있는 이 유물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닿았음을 알려준다. 또한 942년(태조 25) 남대사(南大師)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는 만기사도 마을의 연원을 올릴 수 있는 단서는 되지만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동추골에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닿았던 근거들이 있지만, 세거해 온 사람들에게 구전된 이야기와 문헌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다.

평택에서 발간된 문헌에는 동천리에 조씨와 지씨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이씨와 홍씨가 차례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었다.[23] 이것은 그동안의 마을조사를 토대로 했고, 거의 정설처럼 굳어진 상황이다. 실제

20) 김해규,『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69쪽.
21) 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4, 평택문화원, 2014, 404쪽.
22)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

로 마을에서 세거해 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조영배씨(남, 1943년생)는 ‘조씨 조상인 한 인물이 조선 건국 때 공을 세워 동천리 쪽에 땅을 많이 받았다.’ 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다. 그는 실제로 할미재골의 양쪽에 조씨네 산이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파주 장단에 살다가 조상들이 남긴 땅이 있는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씨와 지씨는 혼인관계를 맺고 있어서 조씨가 올 때 지씨가 같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에는 두 집안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상근씨(남, 1949년생)는 ‘장단에서 처음 내려온 지씨 조상이 조카였던 조씨 인물과 함께 왔다.’ 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두 성씨가 입향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충주 지씨 집안의 선산이 달동네에서 동천교차로 쪽으로 나가는 길 중간 쯤 되는 산에 있었는데, 1980년대 종손이 산을 매각하였다. 풍양 조씨 집안의 선산은 할미재 입구 마을이 끝나는 지점 북쪽에 있다. 조영배씨가 어렸을 때 같은 집안이 3~4가구가 살았고 현재도 3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씨 집안은 옛날에 6가구가 살았지만 1970년대 서울로 이주한 집들이 있어서 현재는 2가구가 살고 있다.

경주 이씨 묘역 앞 표석인 ‘경주이씨상서공파선세유적’ 의 내용에 의하면 이항복의 5대조인 이승(李昇)이 조선 초에 진위면 동천리에 입향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승이 동천리 입향조인 것은 맞지만 경주 이씨가 본격적으로 세거한 것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갔다 돌아온 이수종(李秀宗, 1614-1666) 때부터라는 주장도 있다.[25] 고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이유원이 쓴 그의 묘비에는 효종 8년(1647)에 청나라에서 돌아온 후 죽을 때가지 동천리에서 9년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었다.[26] 이수종이 살았던 자리가 동천리 은행나무 아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27] 조씨와 지씨가 먼저 동천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마도 이수종을 입향조로 염두에 데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된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 사이에 조씨와 지씨가 먼저고, 경주 이씨가 나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수종을 입향조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경주 이씨가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360여 년 전으로 볼 수 있겠다. 이수종의 10세손인 이광우씨(남, 1948년생)는 예전에 경주 이씨가 많이 살았으나 타지로 많이 떠나서 지금은 한 집도 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경주 이씨와 관련되어서는 마을 서쪽의 묘역과 뒤멍골 입구의 이연손의 묘, 이광좌의 묘역이 있다.

---

23) 김해규, 『평택의 지명과 마을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67~68쪽.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2, 평택문화원, 2014, 422쪽.

24) 홍찬의(남, 1934년생), 000(남, 1938년생), 조영배(남, 1943년생), 지상근(남, 1949년생) 등 노인들뿐 아니라 이들보다 젊은 홍석진씨(남, 1963년생)도 입향 과정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

25) 김해규, 「경주이씨 육형제와 평택지역」, 『이석영·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 2019 평택학 학술대회 자료집, 48쪽.

26) 묘비는 고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이유원(李裕元)이 지었다.

27)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68쪽.

경주 이씨 재실

이수종의 10세손인 이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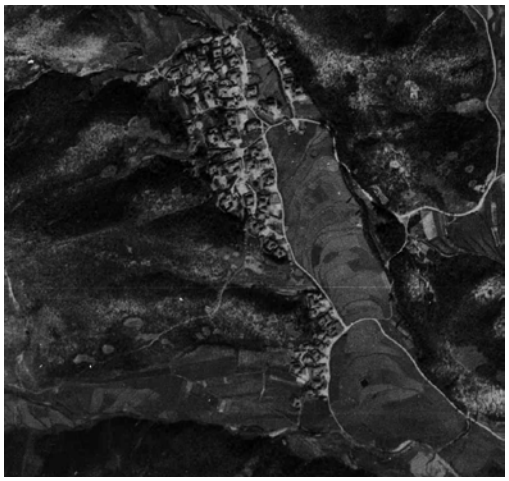
동추골의 다른 성씨와 달리 남양 홍씨는 입향조가 명확하다. 즉 영조 때 남양 홍씨 문경공파 29세인 홍병욱(洪秉郁, 1744-1778)이 정치적 난을 피해 처가가 있는 이곳으로 왔기 때문이다.[28] 1934년생인 홍찬의씨는 36세손이니 그의 7대손이며, 현재 입향조의 14대까지 살고 있으며, 마을에 살고 있는 성씨들 중 숫자가 가장 많은 11가구가 있다. 홍씨 집안의 선산은 기나지골 쪽에 많았으나 대부분 팔고 유골은 화장을 했다고 한다. 현재 마을 입구에 입향조 정병욱을 비롯한 4기의 묘가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원래 시제를 음력 10월 1일에 지냈으나 외지에 사는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시제 때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비교적 많이 참석하고 있다. 시제 후에 집안 회의 겸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2022년 집안 시제를 위해 모인 동추골 입향조의 후손

경주 이씨 집안에서는 실제로 세거하기 시작한 이수종의 집터가 동천리 은행나무 아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29] 그가 실제로 이곳에 살았는지는 고증할 길이 없지만 이곳이 서고동저형 지형이고 이곳에서 마주보이는 동쪽의 산을 지금까지 안산(安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나무 주변에서부터 마을이 확산되었다고 간주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28) 홍찬의씨, 홍석진씨와의 인터뷰.
29) 김해규, 「경주이씨 육형제와 평택지역」, 『이석영·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 2019 평택학 학술대회 자료집, 48쪽.

예전에 50~60가구가 살고 있었던 동추골은 윗말과 아랫말로 나뉘었다. 홍찬의씨는 윗말과 아랫말의 경계가 마을회관 바로 위 삼거리라고 했다. 그런데 조금 연배가 아래인 조영배씨와 지상근씨는 경주 이씨 묘역 아래 지점이 윗말과 아랫말의 경계라고 주장했다. 홍찬의씨는 지금 아랫말이고 하는 곳은 옛날에 5~6집 정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위 삼거리 지점이 맞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이장을 맡고 있는 홍석진씨(남, 1963년생)는 ‘옛날부터 줄다리기를 하거나 윷놀이를 할 때 윗말과 아랫말의 경쟁심이 무지 심했다.’ 고 했는데, 그 역시 웃말과 아랫말의 경계는 경주 이씨 묘역 아래라고 했다. 1967년 항공사진에는 이 마을의 원형이 그대로 보인다.



1967년의 동추골 마을

2022년 현재 마을 모습

동천1리를 가리키는 동추골은 원래 동천리 은행나무 동쪽에 형성된 마을 가리켰을 것이다. 이곳에서 점차 아랫말 쪽으로 확산되었다고 추정된다.

동추골 마을 확산 중에서 두드러진 곳이 달동네이다. 달동네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에 지어졌다. 이곳은 관청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입주 대상이었다.

달동네는 도모재고개와 사후천 옆에 있는 논과 밭을 당시 평택군에서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분양되었다. 처음 입주자들은 모두 동추골 출신들이었다. 대지는 크기가 조금씩 달랐지만 전부 100평 이상이었고, 땅값 5천 몇 백원 정도였다고 한다. 처음에 지어진 주택은 11채로 건평은 모두 20평으로 벽돌을 쌓아 지었다. 000씨(남, 1938년생)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당시에 460만원에 지었다. 집 규모만 통일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창고, 외양간도 모든 집이 똑같은 구조로 지었다. 고속도로 쪽에 보이지 않도록 집 뒤에 집집마다 같은 모습으로 지어졌다. 달동네가 조성되면서 마을앞 사후천 옆에 있는 소나무를 모두 베었다. 이곳 주민의 기억에 의하면 논 임자들이 수해 방지를 위해 치울들 북쪽에서 현재 마을 앞 동천교 다리가 있는 곳까지 치울들 서쪽에 1m 넓이로 40~50m 가량 심어놓은 소나무가 있었다. 대략 지름이 20cm 굵기로 자란 소나무를 공무원의 지시로 모두 베었다. 소나무가 고속도로에서 마을을 가렸기 때문이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갖다 연료로 사용하였다.

동천1리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새롭게 들어선 마을

달동네 주택

화장실 겸 창고

땅값과 집짓는 비용은 10년 후 2년에 걸쳐 갚았다.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비싼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빚이라도 얻어서 갚아야 했다. 새집이어서 좋기는 했지만 주택과 대지가 넓지 않아 달동네로 입주를 희망한 주민들이 많지는 않았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를 넣어놓을 공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이하게 이름 붙여진 '달동네' 는 뚜렷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생긴 이후 자연스럽게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 사람들은 원래 있던 동추골을 '안동네' 라고 부른다. 달동네 주택을 지으면서 놀이터를 조성하고 마을회관도 신축했다. 놀이터는 첫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고, 마을회관은 달동네가 단일마을로 독립하지 않고 동추골에 계속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

가 없어서 현재까지 임대를 주고 있다. 마을 우물은 사후천 옆에 옹달샘을 이용했다. 샘은 물이 좋았으나, 장마 때만 되면 사후천의 흙탕물이 넘쳐들었다. 이 우물을 대략 10년 정도 먹다가 집집마다 자가 지하수를 팠다. 20여 년 전에 상수도가 놓이게 되었다.

달동네 놀이터

달동네 우물자리

1971년 무렵 사후동 남쪽 너른더리들에 학농원(어린이농장)이 들어섰다. 학농원이 들어선 것은 동추골로서는 큰 변화였고, 이후로 외지 체험객들의 통행이 잦아졌다. 주말 같은 경우 체험객이 많을 때는 버스 20대 이상 들어오기도 했다. 이 당시 도시 사람들에게 왜가리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은 큰 구경거리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마차를 운행했다. 마차는 동천리 은행나무 있는 곳을 한 바퀴 돌았으며 때로는 만기사까지 가기도 했다. 은행나무와 그 주변에서 왜가리가 서식했기 때문이다. 외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였던 왜가리는 벼락을 맞아 은행나무의 큰 가지가 부러져서 수세(樹勢)가 약화되자 동쪽 안산의 서사면으로 옮겨갔다. 이곳은 평택시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정하였다.

2001년 수원에서 동천리로 이사한 김하배씨(남, 1953년생)는 자신이 이주해 온 2001년이나 지금이나 20년이 지나도록 큰 변화가 없는 마을이라고 하였다. 경부고속도로부터 봉남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오·폐수가 발생하는 음식점이나 공장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동천리를 둘러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의 말과는 달리 용인과 동탄이 개발되면서 외지인들의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논과 밭으로 쓰이던 마을 남쪽과 할미재천 쪽으로 주택들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으며, 현재 8가구가 새로 들어와 살고 있는 할미재 고개 아래에도 조만간 마을이 형성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다래골이나 응골 같이 깊은 골짜기에도 공장 또는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마을의 경관이 계속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외부 유입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는 전체 110여 가구 중 토박이의 비율이 50% 정도로 평택의 다른 마을에 비해 높은 편이다.

(2) 동천2리 사후동

1980년 이후 전체적으로 30년이 넘게 마을 이장을 맡았던 최창렬씨(남, 1947년생)는 이 마을이 ‘사후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최근이고 옛날에는 보통 ‘절뒤’라고 불렀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마을명이 생기게 되었던 근거는 능골 북쪽 능선에 있던 정선공주 묘이다. 남이 장군의 할머니가 되는 그녀의 묘가 있어서 능골이라는 지명도 생겼고, 그녀의 넋을 위로해주려는 절이 건립되어 절골이라는 골짜기 이름도 갖게 되었다. 절뒤라는 지명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절이 먼저 들어섰다는 사실을 읽

을 수 있다.

동천2리 사후동 전경

정선공주의 10대손인 남상필씨(남, 1943년생)는 정선공주 묘가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묘자리에서 보이는 곳은 모두 남씨 집안에서 조(租)를 받았다고 하니 사후동 주변이 남씨의 사패지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을에 남씨가 들어와 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의 선조 묘들이 광은기도원 뒤쪽 산에도 있었으나 지금은 후손들이 모두 이장하였다.

정선공주의 묘가 있었던 산은 평산 신씨의 종산이다. 이 산이 평산 신씨 소유가 된 것은 그녀의 딸이 평산 신씨와 혼인을 했기 때문이다. 즉, 정선공주의 딸이 평산 신씨인 신자승(申自繩)과 결혼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령 남씨 집안에서 사후동의 산과 전답의 일부를 평산 신씨 집안에 떼어주게 되었다고 한다. 신자승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증조부가 된다. 현재 사후동 작은절골 위 평산신씨 묘역에는 신자승과 그의 8명의 아들 중 3명(첫째, 셋째, 일곱째), 손자 1명의 묘가 있다. 여기에 묻혀 있는 첫째 아들인 신숙권은 신사임당의 조부이다. 시제는 음력 10월 1일에 신자승의 여덟 아들 후손이 모여 먼저 신자승의 시제를 지낸 후, 세 아들의 후손들이 각각 시제를 지낸다. 평산 신씨 문휘공파는 이 묘역이 있는 산을 포함하여 약 10만 평 정도의 종산이 있었는데, 현재 야생동물연구소 자리도 이 집안의 종산이었는데 매각한 것이다. 현재는 '동천리 산11번지'를 중심으로 5만 6천 여 평의 종산을 소유하고 있다. 웃말에는 평산 신씨 재실인 동천재가 있다.

평산 신씨 문희공파 대사성공 시제 장면

평산 신씨 문희공파 대사성공 종중 재실

현재 사후동에 있는 신씨 집안의 종산은 대략 6만 여 평에 이른다. 하지만 사후동에는 신씨도 들어와 살지는 않았다. 정선공주의 묘는 사후동의 지명의 중심이 된다.

사후동에 처음으로 입향한 집안은 함평 이씨 함성군파로 알려져 있다. 사후동에서 태어나 오산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계정씨(남, 1954년생)는 그의 11대조인 함릉부원군(咸陵府院君) 이해(李瀣, 1591-1670)가 처음 사후동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계정씨에 의하면 사후동에 이해가 받았던 사패지(賜牌地)가 남사읍 통삼리 동막 마을부터 화성시 장지동까지였다고 했다. 이해의 묘가 웃말의 묘골 서쪽에 있어서 집안에서는 그를 입향조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함릉부원군의 생몰연대를 볼 때 이 마을의 역사가 350년 전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서 살았다는 근거는 없다. 병조판서와 공조판서를 역임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한양에 거주했고, 사후(死後)에 이곳에 묻혔을 가능성이 크며, 이 그의 후손이 조상의 터전을 찾아 들어왔을 것이다.

함평 이씨 외에는 오랫동안 세거했다고 알려진 집안이 없다. 경주 최씨 관가정공파 31세손인 최창렬 씨는 그의 증조부가 기흥 고매리에서 사후동으로 이주하였고, 능성 구씨인 구본원씨(남, 1942년생) 역시 증조부가 남사읍 통삼리에서 사후동에 농지를 새로 구입하면서 들어왔다고 한다.

이장하기 전 함릉부원군 묘역

승전봉 북쪽 기슭으로 이장한 묘

조선 후기까지도 사후동은 독립된 마을로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 마을명이 등장하지 않으며, 1917년 간행된 『조선전도부군면리동 명칭일람표』에 북면 동천리에 편성된 지역으로 ‘사후(寺後)’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진위군 ‘일북면 사후’와 ‘용인군 서촌면 사후’가

따로 있다. ‘사후’라는 명칭이 하나의 마을로 간주되었다면 진위군과 용인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전체 호수(戶數)가 마을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적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전체 호수는 많았지만 사후동에 있는 집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5개 마을이 하나의 마을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1922년에 작성된 지도에 비로소 ‘사후동’이라는 마을명이 등장하고 있다.

사후동은 예전에 30~35가구가 살았으면서도 다섯 개의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졌다. 사후동 저수지로 가는 골짜기 입구에 웃말, 화개골 왼쪽에 비탈말, ㈜건종 서쪽 아래 사후천변 옆에 중간말, 마을회관 길 건너편에 새뜸, 마을로 들어가는 길 초입에 아랫말이 있다. 아랫말과 웃말에서 지냈던 당제 중 아랫말 당제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구전(口傳) 내용으로 볼 때, 다섯 개의 마을 중 가장 먼저 생겨난 마을은 아랫말로 추정된다. 당제를 따로 지내게 되었다는 얘기는 분동(分洞)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마을들이 대부분 한 군데 모여 있으면서 마을의 구역을 세분화해서 이름하는 것과는 달리 사후동은 다섯 개의 마을이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마을처럼 느껴지도록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주성중씨(남, 1945년생)는 예전에는 웃말 8집, 비탈말 5집, 새뜸 6집, 중간말 5집, 아랫말 7집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1967년 사후동의 마을 분포

사후동의 현재 모습

오랫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이 마을에 1963년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인 맥카피가 들어왔다. 그는 새터 위 치고개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젖소와 양 등을 키우는 축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선교를 하였다. 그러자 사후동에서는 그의 목장과 농지에서 품을 팔아 수입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았다. 1972년 오산 성호초등학교 앞에 기독병원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사후동 사람들에게는 기생충약이나 감기약 등 의약품을 나눠주기도 했으며, 우유나 양젖을 무료로 주기도 했다. 또한 선교사업을 위해 지금의 광은기도원 자리에 사후동수양관을 세우고, 1970년에서는 남사중학교를 세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맥카피의 선교사업으로 사후동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차옥순씨(여, 1947년생)의 시어머니는 이때 맥카피가 가축 기르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돼지와 육우를 길러 수입을 올렸다. 1978년에는 정부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했다.

1967년 맥카피농장과 사무실

현재 모습

맥카피가 목장을 지었던 자리는 구성회씨 소유의 땅을 무료로 임대했고, 사후동수양관을 세운 곳은 구성회씨에게 매입하였다. 그가 귀국하자 수양관이 있었던 자리는 그의 양아들인 염일부씨가 상속하였다가 서울 사람에게 매각하였고, 광명에 소재한 광은교회에서 이 토지 2만 8천 평을 1992년에 매입하여 1993년 광은기도원을 세웠다. 광은 기도원에서는 맥카피 선교사가 농구장으로 지었던 건물 앞으로 증축하여 사무실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은기도원에서는 추가로 계속 토지를 매입하여 전체 부지를 4만 평 정도로 넓혔다.

치고개 전원마을과 광은기도원

1990년대 중반 용인의 수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 요인이 생기자 부동산 업자가 치고개 북쪽 동사면(東斜面)에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짓고 분양하였다. 이후로도 주택 몇 채가 더 지어지면서 하나의 마을처럼 형성되었다. 동탄시가 개발되면서 주거지 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이전되었다. 지금은 골짜기마다 주택이나 창고형 공장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능골 야생동물학교 아래 있는 아리조명은 동탄이 개발되면서 2002년에 들어왔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성동씨는(남, 1963)동탄 개발 당시 정남이나 화성으로 이전한 업체들이 많았고 동천리 쪽으로는 일부가 이전했다고 한다. 능골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작은절골에 들어온 장동대씨(남, 1954년생)는 2010년에 평당 100만원에 구입했다. 봉명리에서 사후동으로 들어가다 길 중간쯤 도로 옆에서 화훼 농사를 짓는 정종권씨(남, 1953)도 동탄에서 화훼

농을 하다 2002년 토지를 구입하여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남사면 화훼집하장 가까이에 있는 땅을 알아보다가 이곳에 자리잡았다. 화훼농을 하는 곳은 사후동에는 본인 하나고 동천1리에는 2개의 농장이 있다. 이해극씨(남, 1952년생)는 농사를 짓기 위한 곳을 물색하다가 2019년 '동천리 290번지' 와 주변의 땅 약 5천 평을 매입하였다. 여기에는 1천평 정도의 연못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못은 예전에 '고향산천낚시터' 라는 이름으로 낚시터 영업을 하던 곳이었다.

2021년에는 구슬고개골에 야생동물학교가 들어섰다. 최창렬 이장에 의하면 마을에 생태공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야생동물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경기도청 동물보호과 소속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보호·치료하여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다. 현재 수의사 6명이 근무하며 야생동물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2021년 진입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 되었다.

원래 30~35가구가 5군데로 나뉘어 조용히 살았던 사후동 마을에 지금은 120가구로 예전의 네 배가 되었다. 최창렬 이장은 120가구 중 토박이는 1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4) 인물

(1) 이연손(李延孫, ? -1463)[30]

이승(李昇)의 아들다. 그의 부인은 세조비인 정희왕후의 동생이므로 세조와는 동서지간이 된다. 무과에 급제하였고, 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그 해 상호군(上護軍)으로 원종공신일등(元從功臣一等)에 올랐다. 1457년에 공조참의(工曹參議)를 거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가 되었으며, 이듬해 형조참의를 지내고, 1459년 다시 첨지중추원사를 제수받았다. 동년 7월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겸 전라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임명되었고, 1462년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역임하였다. 1463년(세조 9) 그가 사망하자 실록에는 "이연손은 성품이 강직(剛直)하고, 무과 출신이다. 여러 번 천전(遷轉)하여 참판(參判)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중궁(中宮)의 언니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그의 묘비문은 그의 14세손인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1873년(고종 10)에 개수한 것이다.

묘는 동천리 산 164-2, 이광좌 묘의 왼편에 있다.

이연손 묘

이광좌 묘

30) 한국사역대인물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세조실록』

이연손과 이광좌 묘

(3) 이광좌(李光佐, 1674-1740)[31]

호는 운곡(雲谷). 백사 이항복의 현손이다.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1697년 부수찬이 되었으며, 1703년 수찬·부교리·교리를 거쳐 사헌부헌납·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708년에는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중앙으로 돌아와 이조참의가 되었다. 1712년 부제학·평안도관찰사를 거쳐 다음 해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1715년에는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 해 숙종이 소론을 배척하는 병신처분(丙申處分)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가 1718년에 예조참판에 등용되었다. 1721년(경종 1) 호조참판을 거쳐 사직(司直)에 있으면서 왕세제인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적극 반대하여, 경종이 이를 취소하게 하는 등 경종 보호에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1721년과 이듬 해에 각각 김일경(金一鏡) 등의 소(疏)와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이 벌어진 신임사화가 일어났다. 이로써 노론이 제거되고 소론이 정권을 잡자 예조판서를 거쳐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이듬 해 좌부빈객(左副賓客)을 역임하고, 병조판서로 원접사(遠接使)가 되었다. 1723년에 우의정에 오르고, 1725년(영조 1)에는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노론의 등장으로 파직당하였다. 1728년에 정미환국으로 소론정권이 다시 등장하자 영의정에 올랐다. 이 때 실록청총재관(實錄廳摠裁官)이 되어 『경종실록』·『숙종실록』 보유편의 편찬을 맡았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노론측에서 김일경의 잔당이 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탄했지만 영조는 끝내 소론정권으로 난을 평정하였다. 이 난이 평정된 뒤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에 봉해졌다. 1729년에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영중추부사로 복직하였다. 1730년에는 소론의 거두로서 영조에게 탕평책을 소하여 당쟁의 폐습을 막도록 건의했다. 이 때 왕의 부탁으로 노론 민진원(閔鎭遠)과 제휴하여, 노론과 소론의 연립정권을 세웠다. 이로써 재임 기간에는 비교적 격심한 당쟁이 없도록 하는 데 힘썼다. 1733년에는 봉조하(奉朝賀)가 되었으며, 1737년에는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1740년 영의정으로 재직하던 중, 박동준(朴東俊) 등이 중심이 되어 삼사의 합계(合啓)로 호역(護逆)한 죄를 들어 탄핵을 해오자 울분 끝에 단식하다가 죽었다. 1755년 나주벽서사건으로 소론의 준소계열이 무너질 때 관직이 추탈되었다. 순종 때 복권되었다. 글씨와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다.

묘는 동천리 산 164-2, 이광좌 묘의 오른 편에 있다.

3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정선공주(貞善公主, 1404-1424)[32]

태종의 넷째 딸로 12세에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남휘는 조선 개국공신인 남재(南在)의 손자이고 남이(南怡)의 조부이므로, 정선공주는 남이의 할머니가 된다. 정선공주가 20세에 요절하자 세종은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여 찬수(饌需)를 거두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고 며칠 후 동생을 잃은 슬픈 마음을 담은 내용의 제문(祭文)을 내렸다. 예종 때 남이가 역적으로 처벌되자 왕이 정선공주에게 내렸던 노비를 내수사(內需司)에 다시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묘는 사후동 능골 동쪽 능선 위인 '동천리 산 14-1' 에 썼다. 정선공주가 사후동으로 내려오게 된 연유는 남편 남휘의 조부인 남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재가 조선의 창업주인 이성계와 가까지 지내면서 남재는 사후동을 이성계는 관악산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어떤 지관이 사후동이 후손에서 역적이 나올 형세라고 하자 남재가 왕의 후손에서 역적이 나오면 안된다고 하면서 사후동과 관악산을 서로 바꾸었다. 그래서 당시 사후동 일대를 남씨 집안에서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편인 남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선공주가 한동안 사후동에 살았다는 얘기도 구전되고 있다.

정선공주의 18대손인 남상필(남, 1943년생, 수원 거주)는 1970년 무렵 공주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파묘하는 장면을 보았다. 석관을 썼고, 관 겉으로는 회방아를 해서 단단하게 하고 다시 지름 50cm, 길이 1m 20cm 되는 나무 모양이 그대로인 숯으로 둘러싸고 숯 위에 다시 회방아로 다졌다. 도굴꾼들이 팠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회방아 때문에 안쪽이 훼손되지는 않았다.[33] 시신은 미이라 상태로 검은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수의는 비단이었으나 공기와 접촉하면서 이내 삭아버렸다.

(5) 신자승(申自繩, 1397-1469)[34]

대사성공 시제(사진:신영현 제공)

평산 신씨로 정선공주의 사위이며, 신사임당의 증조부가 된다. 1444년(세종 26) 생원으로 친시문과(親試文科)에 정과로 급제하고, 사간원 좌정언, 사헌부 지평을 거쳐 1451년(문종 1) 예조 정랑이 되었으나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다. 1452년(단종 즉위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1453년 예조정랑이 되고 1458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역임하였다. 1463년(세조 9) 집의(執義)를 거쳐 1469년(예종 1) 성균관대사성에 올랐다.

묘는 동천리 사후동 '동천리 산 11번지' 에 있다.

(6) 이해(李瀣, 1591-1670)[35]

광해군 때 대북파의 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 등에 의하여 아버지가 절도(絶島)에 유배되고 형인 한림 이정(李瀞)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죽자, 그는 벼슬을 단념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함릉군(咸陵君)에 봉하여졌다. 반정하던 날 심기원(沈器遠)이 궁중에

32) 『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상필씨(1943년생)·신영현(1942년생) 인터뷰.
33) 최창렬씨는 도둘꾼들이 본인이 군대가기 전에 2번, 제대 후에 1번에 걸쳐 도굴을 하려고 묘가 파헤쳐졌다고 했다.
34)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신영현(1942년생) 제공 자료
3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해 묘

쌓여 있는 물건을 나누어 가지자고 하였으나 분연히 거절하였다. 공신에게 지급되는 전답을 모두 반환하여 청백한 사람으로 칭송이 높았다. 이듬해인 1624년 개성부유수가 되고, 그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649년(인조 27) 인조가 죽자 장릉(長陵 : 인조릉)의 수릉관(守陵官)이 되고, 이어서 형조판서를 지내다가 1652년(효종 3)에 병으로 사임하였다. 그 해 한직인 판중추부사로 있다가 동지 겸 성절사(冬至兼聖節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인 1653년에 함릉부원군(咸陵府院君)에 진봉(進封)되고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1669년(현종 10)에 치사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처음에 충정(忠靖)으로 시호를 받았다가 숙종 때 충민(忠敏)으로 개시되었다.

이해의 증손(曾孫)인 이희겸(李喜謙, 1707-1770)은 여러 가지 이설이 있기는 하나 『청야만집(靑野謾集)』의 편자로 일컬어진다.

묘는 동천리 사후동 돌팍부리 북편 산자락에 있었는데 15년 전에 ‘동천리 산 28번지’로 이장하였다.

(8) 남하정(南夏正)[36]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시백(時伯), 호는 동소(桐巢)이다. 아버지는 성균관진사 남수교(南壽喬)이며, 어머니는 진주강씨로 부사(府使) 강석로(姜碩老)의 딸이다.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나 학문에 전심하여 경사(經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통달하였다. 특히 글을 잘 지어 문명을 크게 떨쳤다. 그가 지은 「출사책(出師策)」은 명문장으로 일컬어져 사람들은 그를 흔히 이식(李植)에 비교하였다. 1714년(숙종 40) 진사가 되었으나, 세도(世道)의 어지러움을 보고 벼슬을 단념, 진위(振威: 지금의 경기도 평택)의 동천(桐泉)에서 은거생활을 하며 후진 양성으로 일생을 보냈다.

효성과 우애가 남달랐으며,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성신(誠信)이 있었고, 자제들을 의리로써 가르쳤다. 또한 검약을 항상 생활신조로 삼았다. 저서로는 『사대춘추(四代春秋)』와 『동소만록(桐巢謾錄)』 등이 있다.

3.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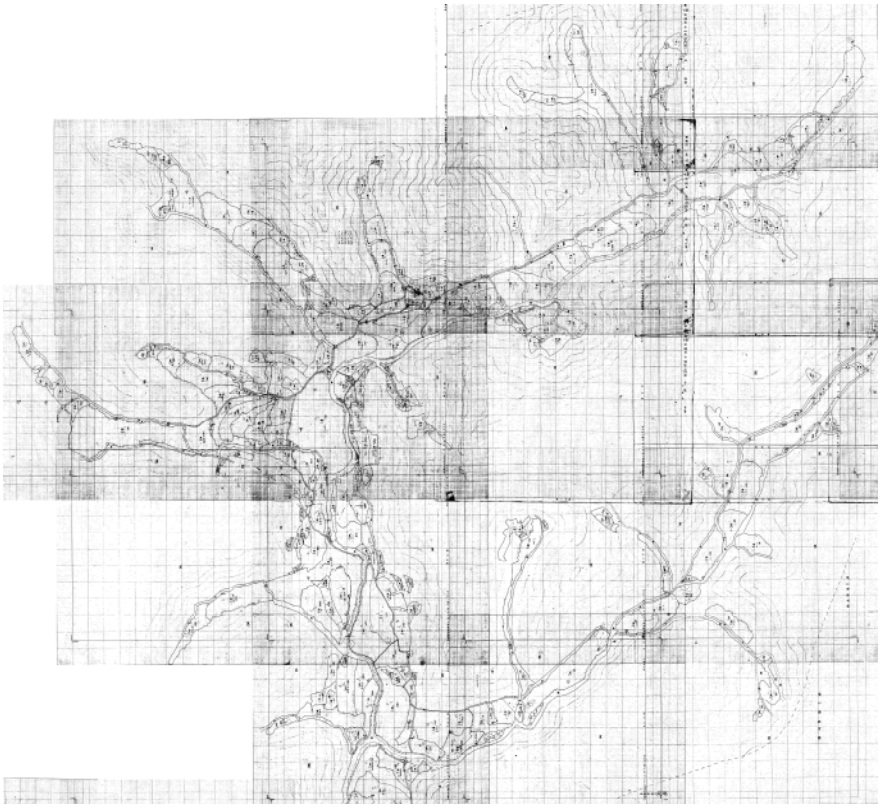
1) 농업

(1) 경작지 분포와 관개

동천리 동추골과 사후동은 전통적인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오던 마을이었다. 골짜기에 자리했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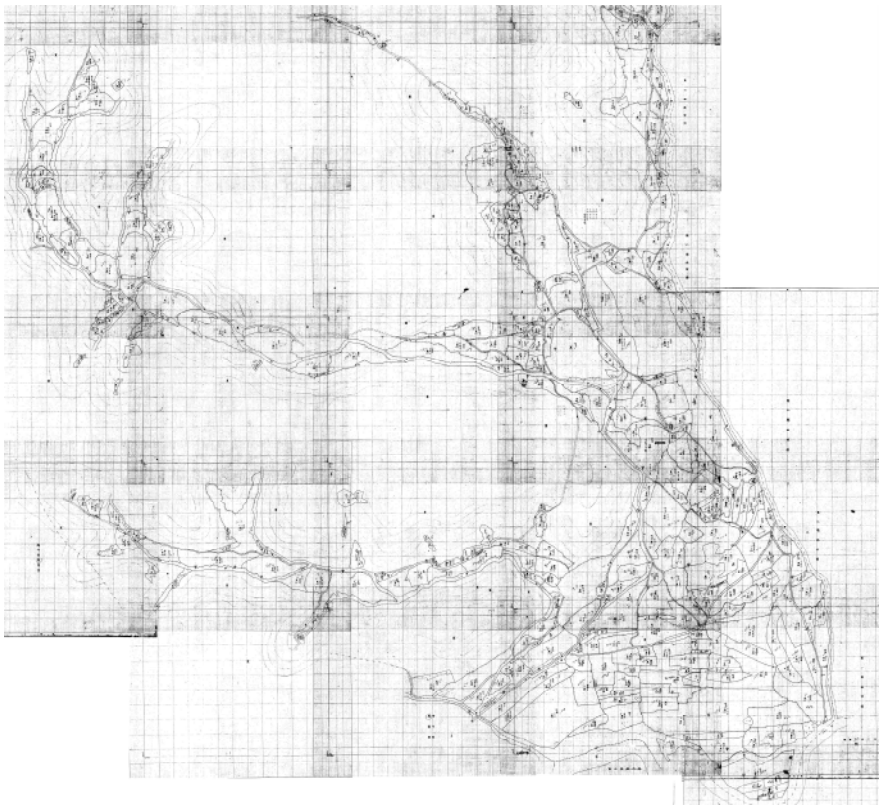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에 평택에서 흔했던 간척사업도 없었으며, 2000년 전후로 주택이나 회사가 들어온 곳도 농지로 경작하던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농지 분포의 기본 형태는 1912년 측량이 완결되어 작성된 지적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시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논이 330,247평이고 밭이 185,101평이다. 논이 밭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던 것은 농경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용수 확보가 쉬운 골짜기였기 때문이다.



동천2리 사후동 마을과 주변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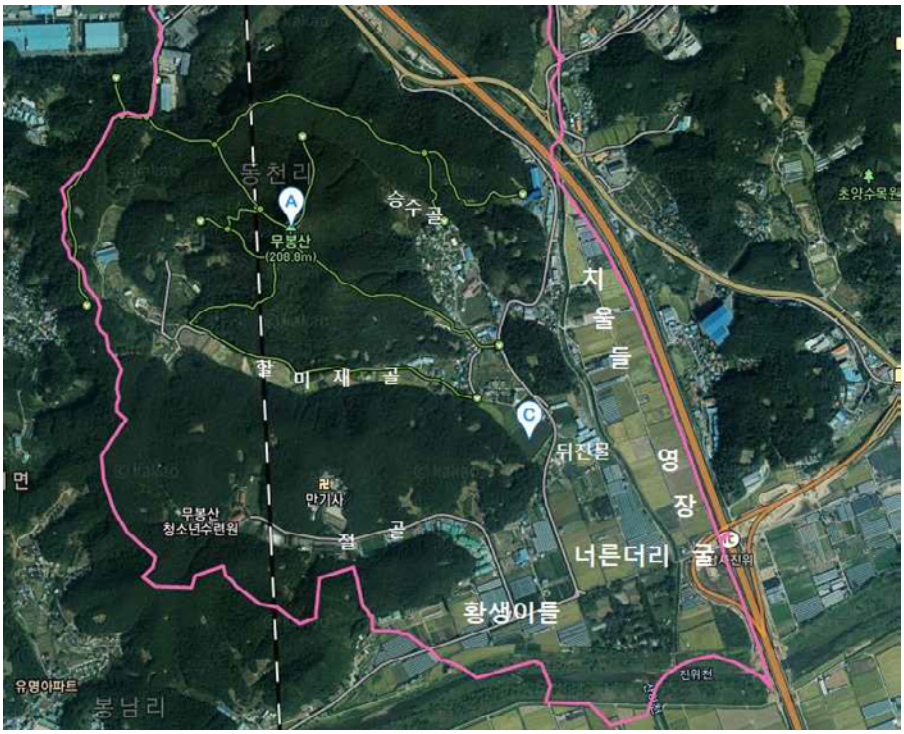
동천리는 산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이고 경작지 또한 골짜기에 분포되어 있어서 마을의 입지상 편평하고 넓은 들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들판을 가리키는 지명도 극히 적다. 마을 전체 영역이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사후동은 들판 이름이 전무하고, 동추골은 그나마 진위천변과 사후천 하류 부근에 황생이들, 너른더리, 치울들, 영장굴 같은 들판이 있다. 이러한 들판도 인근에 있는 봉남리나 견산리, 은산리, 마산리 등 진위천을 접한 마을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좁은 면적이다.



동천1리 동추골 마을과 주변 지적도

골짜기의 논들은 경사진 논두렁이 넓이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200평을 한 마지기로 계산했다. 또한 흙이 늘 물이 고이거나 젖어 있기 때문에 값도 비쌌다. 사후동의 최창렬씨(남, 1947년생)는 “수렁논은 주로 골짜기에 있었으며 농지 가격도 천수답보다 2~3배가 더 나갔다.” 고 했다. 천수답 가격이 평당 쌀 3∽4되였다면 샘이 나는 수렁논은 쌀 1말 가격이 나갔다. 농지 가격의 차이는 생산량의 차이고, 생산량의 차이는 농업용수와 토질의 비옥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사후동의 구본원씨(남, 1942년생)는 자신이 농사짓던 품무골은 물심이 좋아 웬만한 가뭄에도 모를 심었으며, 200평 한 마지기에 2가마 반의 소출이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동춧골의 000씨(남, 1938년생)는 “우리들 어려서만 해도 논 닷 마지기에 벼 두 마차에 다 실어왔는데, 지금은 논 닷 마지기면 다섯 마차, 여섯 마차를 실어도 못 다 싣고 이러는 걸” 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옛날 한 마지기당 소출은 따지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그가 얘기한 논은 천수답을 의미한다. 천수답은 하늘바라기 땅이기 때문에 해마다 소출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천수답에 호미모(최창렬씨는 마냥모라고 표현함)를 심을 경우 1마지기에 5말에서 1가마 미만이 나왔고, 심할 경우 수확이 1~2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① 동추골



동천1리 동추골 마을 농지 분포

동추골의 기나지골, 할미재골, 절골, 승주골은 골짜기가 길게 이어지고 물이 흐르는 개울까지 있다. 개울은 큰 가뭄이 들이 않으면 좀처럼 마르지도 않아 논에 물을 대기에 유리했다. 경사가 있는 다락논 형태로 논두렁이 불규칙하여 논갈이하거나 써레질 할 때는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용수 확보가 쉬워서 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내기에는 매우 유리하였다.

반면, 들판에 있는 논은 물 대기가 무척 어려웠다. 사후동에서 흘러내려 진위천으로 합류되는 사후천에 접했던 치울들이나 영장굴, 너른더리 들판도 농사지을 물을 얻기가 어려웠다. 이 지역이 사후천의 하류여서 흐르는 물이 거의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동추골의 000씨(남, 1938년생)는 “이 냇갈에 비 오면 물 있지, 비 안 오면 물이 어딨어!” 라고 할 정도였다. 오히려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 이 하천의 물이 넘쳐 침수로 피해를 보기 쉬웠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치울들의 논임자들이 하천 옆으로 1m 정도 폭으로 50m에 이르게 소나무를 심었고, 지름이 약 20cm에 이를 만큼 나무가 자랐다. 그런데 1980년 달동네가 생기면서 공무원이 나와 고속도로에서 새로 조성한 마을을 가린다며 모두 베어버리라고 했다.

사후천에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하천을 막아서 논에 물을 대는 보 시설도 전무하였다. 사후천이나 진위천과 접하는 들판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랐다. 그나마 논 한 쪽에 물이 나는 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논들은 인력으로 바닥을 한 길쯤 파서 발동기나 인력으로 물을 퍼서 올렸다. 000씨가 젊었을 때 발동기는 신태현이라는 지주가 동네 사람한테 팔아먹은 것 하나가 있었다. 발동기로 퍼낼 수 없으면 두레박으로 물을 펐다. 모내기철을 놓치면 호미모를 심어야 됐다. 장마철에 바짝 마른 논 위로 비가 내릴 때 얼른 논을 갈아 모를 심어야 했다. 늦으면 말복 때가지도 모를 심었지만, 더 늦으면 메밀을 심었다.

동천1리 진위천변의 황생이들

동천1리 동추골 동쪽 들판

진위천이라는 큰 하천과 산골에서 내려오는 사후천이라는 하천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너른더리와 황생이들은 논농사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곳은 바닥에 자갈과 모래가 많아 비가 내리면 금새 스며드는 곳이다. 들판이 진위천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진위천에 보를 막을 수도 없었고, 사후천은 물이 말라서 보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곳의 대부분은 밭으로 이용되었다.

홍찬의씨(남, 1934년생)는 “아랫말 저수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저수지 아래쪽으로는 가물면 물을 확보할 길이 없어 녹두만 심었어.” 1970년대까지 저수지 남쪽에서 진위천 쪽 편평한 땅으로는 건답이 많아서 날이 가물면 녹두를 심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당시 동천리를 ‘녹두 동네’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방이 되기 직전인 1944년에 아랫말저수지를 막았다. 이 저수지는 할미재천과 승주골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아 앞 들에 물을 대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저수지가 턱없이 작아서 저수 밑에 있는 작은 범위에만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달동네의 000씨(남, 1938년생)는 “요 방죽, 고기 동천리 방죽 밑창에 바로 거기 논 서너 섬지기 있었지. 그 외에는 요쪽으로 순전히 다 밭이었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지게로 흙을 날라다 제방을 쌓는 등 힘들게 조성되었으나, 이 저수지 물로 황생이들이나 너른더리 들판에 물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기나지골에도 기나지방죽이라 불리는 100여 평 정도의 자그마한 방죽이 하나 있었다. 이 방죽은 골짜기 아래쪽에 물을 댈 수 있었는데, 지하로 고속철도가 지나는 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동추골 아랫말 저수지 원경

동추골 아랫말저수지 근경

1972년 동추골 앞 들판에 한 필지당 900평 크기로 경지정리가 되었다. 이때 경지정리로 너른더리와 황생이들은 밭에서 논으로 바뀌었다. 이곳이 경지정리 되던 해에 진위천 상류에 이동저수지가 완공되었다. 그러나 저수지 물은 이웃 봉남리와 견산리의 장호들 같은 넓은 들판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동추골 앞 들판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물을 확보해야 했다. 발동기로 양수기를 돌려서 물을 퍼올려야 했다. 진위천에서 물을 퍼올리기에는 들판이 너무 넓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논에 관정을 박고 발동기로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다. 지상근씨(1949년생)네는 당시 황소 1마리를 30만원에 팔아 발동기와 양수기를 각각 1대씩 장만하니 돈이 딱 맞았다. 이 발동기와 양수기를 갖고 지상근씨는 논에 물을 퍼올리는 일을 했다. 물을 풀 목적으로 발동기와 양수기를 장만한 집은 이 마을에 6~7집이 있었다.

황생이들에서 양수 작업을 했던 지상근

물을 퍼올리려면 우선 논바닥에 관정부터 박아야 했다. 굵은 나무로 삼각형의 삼발이를 세우고 무거운 추를 끌어당겼다가 놓으면 추가 파이프를 내리쳐서 땅속으로 박는 방식이었다. 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6명 정도가 필요했다. 한 사람은 삼발이 위로 올라가서 일종의 선소리를 하고, 다섯 사람 정도가 추를 매단 끈을 선소리에 맞춰서 잡아당겼다가 일시에 놓는 일을 반복했다. 관정으로 쓰는 파이프는 4인치 굵기였고 땅으로 들어가는 쪽에 손가락 굵기의 구멍을 여러 개 뚫었다. 대략 18자 정도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관정 박는 작업이 끝난다. 관정을 박은 다음 양수기를 가동하면 처음에는 모래와 작은 자갈이 섞인 물이 올라오고, 파이프에 뚫었던 손가락 굵기의 구멍들이 거름망 역할을 해서 땅속에는 구멍보다 굵은 강돌들만 남는다. 파이프 주변이 모래땅이어서 돌들 사이로 금방 물이 고이기 때문에 땅 속이 물 저장탱크처럼 되는 것이다. 관정 속의 물은 풍부했다.

지상근씨는 너른더리 학농원 입구 맞은편에 관정을 박았다. 경지정리 된 논 900평 한 필지에 물을 다 채우는 데는 20∽30시간이 걸렸다. 모래가 워낙 많은 땅이라 물을 끊으면 금방 땅속으로 물이 스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변에 다른 사람 논에 물을 대는 일도 했다. 멀리 있는 논에 물을 대려면 도랑을 파고 흘려보냈다. 지상근씨는 당시에 한 시간을 퍼주면 2만원[37] 정도를 받았다. 그래서 너른더리나 황생이들에 있는 논들은 경지정리 후에도 농사 비용이 많이 들었다. 홍찬의씨는 “남는 게 없어서 농리정리 후 빚이 많아져서 논을 많이 팔았다.”고 했다. 당시 논 1평에 쌀 2되를 받았고 현금으로는 80원이었다. 홍찬의씨도 장례 빚을 청산하려고 논 7백 평을 이때 평당 쌀 2되에 처분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판 땅이 나중에 학농원으로 넘어간 것이다. 지상근씨는 자신이 소유한 발동기와 양수기로 어린이농장(학농원) 풀장에 물을 퍼올리기도 했다. 진위천의 물을 밤새도록 퍼야 다 채울 수 있었다. 당시 받은 댓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진면 20∽30만 원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도 동천리 앞 들판은 특별한 관개시설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설재배가 늘어나면서 지하수는 비닐하우스 난방을 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② 사후동

사후동은 전체적으로 골짜기 형태를 이루어서 넓은 들이 없다. 그래서 좁고 길게 발달한 골짜기의 논밭이 마을 사람들의 경제기반이다. 지금은 주택과 회사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2000년 전후까지도 골짜기의 대부분은 논이었다. 이러한 논들은 자연적으로 샘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모내기하기가 수월했다.

사후동 저수지에서 사후천을 따라 경부고속도로까지는 천수답이 많았다. 어디든 마찬가지였겠지만 천수답에서 벼농사를 짓는 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개울 바닥이나 수렁논 파가지고 두레박으로 퍼서 멍석 한 두어 자리 넓이에 물이 들어와 땅이 축축해지면 그것을 소로 비벼서 호미로 모를 심었다. 멍석 넓이만큼 심었다고 해서 이것을 멍석모라고 부른다. 날이 가물면 새벽 동이 트자마자 여기저기서 두레박으로 물 푸는 소리가 들렸다. 두레박은 양쪽에 끈을 매달고 2명이 물을 푸는 도구였다. 웅덩이 하나 파서 보통 멍석 댓 닢 정도의 넓이만큼 물을 댈 수 있었다. 계단식 논일 경우 1단을 올리고(이것을 한 턱걸이라고 함), 다시 그 윗 논으로 퍼올리기도 했는데. 이것을 두 턱걸이라고 부른다.

천수답의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동막고개로 가는 골짜기에 둑을 막아 사후동저수지를 조성했다. 최창렬씨(남, 1947년생)는 사후동 저수지의 조성과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려줬다.

37) 당시 1시간당 2만원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지상근씨는 정확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동천2리 사후동의 농지 분포

사후천 따라 펼져진 사후동의 들판

사후동 마을앞과 능골 농지

화개골의 농지

70년 12월에 군에 입대했던 최창렬 이장은 불도저가 산을 막는 제방을 쌓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사후천 저수지의 부지는 원래 4천 평이었는데 이 정도 물로는 전체 농업용수의 40% 정도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상류쪽 논 1,818평을 얻어서 수리계에서 1년에 쌀 12가마씩 주고 농사를 짓고 벼를 베고 나면 여기까지 물을 채우고, 또 농사철에 저수지 물을 빼면 모를 심었다. 그 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1년에 1회, 1개 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리 3%로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다. 최창렬 이장은 ‘사후동은 오직 벼농사만 짓는 동네인데 이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고 군수에게 브리핑하여 평택군수의 결정으로 지원을 받아 그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던 1,818평을 매입할 수 있었다. 대여금은 여기서 농사를 지어 얻은 수득과 저수지 물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걷은 수세로 매년 원금 2백만 원과 이자 3%를 합해 5년에

걸쳐 갚았다. 그러다가 2017년경에 평택시에서 3억 5천만 원에 저수지 용지를 모두 매입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수세를 부담했던 사람들을 찾아 수세 낸 금액에 비례하여 환원해 주었다. 5년 동안 수세를 80만 원 낸 사람은 이때 약 2천 6백만 원을 받았다. 최창렬씨는 1974년부터 현재까지 저수지를 관리하는 수리계장을 맡고 있다. 그는 앞으로 저수지 내력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기념비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마을로 올라가는 진입로 옆의 논들은 대부분 1~3m 정도 높인 것이다. 성토를 위한 흙은 수원과 동탄이 개발되면서 많이 나왔다. 화훼농사를 짓는 정종권씨(남, 1953년생)는 동탄이 개발되면서 2002년 평당 13만원에 논 2,270평을 매입하고 2007년 사후동으로 이주하였다. 매입한 후 지대가 낮고 수렁이어서 2004∽5년 무렵에 흙을 채워 2~3m를 돋웠다. 수원에서 오는 흙을 받았는데 당시 15톤 한 차에는 2만 원, 25톤 트럭은 3만원을 줘야 했다. 이렇게 해서 2,070평을 매립하는 데만 4~5천만 원이 들어갔다.

동천2리 사후동저수지 원경

동천2리 사후동저수지 근경

사후천변의 농지에 성토를 하면서 관개 방식도 달라졌다. 성토 전에는 하천의 수위와 논바닥이 비슷해서 지름 1m의 콘크리트 관을 묻어서 관개를 했는데, 지금은 하천보다 논바닥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창렬씨는 옛날에 수렁논은 뻘 같은 흙이어서 밥맛이 좋았는데, 성토한 논에서 나는 쌀은 밥맛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 했다. 성토한 흙이 모래 성분이 많은 마사질이어서 흙 속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후동 농지 거래 가격은 기억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났다. 최창렬씨가 군대가기 전인 1969년 무렵에 농지는 한 평에 쌀 2~3되 정도로 매매되었고, 1970년대에는 쌀 5되에 거래되었다. 당시에는 소 1마리 팔고 쌀 몇 가마 보태면 농지 5~6마지기를 살 수 있었다. 구본원씨는 1970년대 초반 샘이 있어 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논은 평당 쌀 1말, 천수답은 쌀 3∽4되 정도로 기억하였다.

최창렬씨에 의하면 현재 사후동의 지가는 농업진흥구역 기준으로 평당 50~60만원 정도 나간다. 현재 사후동저수지 밑에서부터 사후천 양쪽 논들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다. 지가가 높아져서 토박이들은 새로 땅을 구입하기가 힘들고, 주로 외지 사람들에게 매매되고 있다.

(2) 농지 소유 관계

1910년대 작성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부(이하 토지조사부)의 마을별, 개인별 토지 소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동천리	공성노	전	1	1,718
동천리	구연동	답	4	565
		전	1	72
동천리	김경선	전	1	425
동천리	김기연	전	1	669
동천리	김대근	답	1	226
		전	3	719
동천리	김덕노	전	3	307
동천리	김덕현	전	1	809
동천리	김만안	답	2	1,700
		잡종지	1	646
		전	2	1,562
동천리	김원일	답	1	818
		전	2	3,262
동천리	김창현	답	3	328
		전	2	297
동천리	김춘화	전	1	2,058
동천리	나윤필	전	1	549
동천리	만기사	社寺地	1	641
		전	2	636
동천리	문도심	답	1	1,338
		전	2	1,182
동천리	박공헌	전	1	255
동천리	박순일	답	1	301
		임야	1	122
		전	3	685
동천리	성치문	답	1	222
		전	2	908
동천리	손명선	전	2	1,488
동천리	윤상천	답	1	743
		잡종지	1	358
		전	2	1,091
동천리	이공헌	답	1	457
		대	1	89
		분묘지	1	268
		임야	1	155
		전	8	1,934
동천리	이규성	대	1	374
		전	5	4,123
동천리	이규완	답	5	6,232
		대	1	502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동천리	이만서	전	2	1,086
동천리	이무쇠	전	1	754
동천리	이성필	전	1	685
동천리	이세헌	답	1	10
		전	4	1,597
동천리	이종화	답	8	11,272
		대	4	5,211
		임야	1	1,032
		전	12	14,600
동천리	이종훈	전	1	130
동천리	이화춘	전	1	586
동천리	장천동	전	1	307
동천리	정만실 정현모	전	1	906
동천리	정현모	답	2	873
		잡종지	1	26
		전	7	10,138
동천리	조경집	전	1	1,578
동천리	조경칠	전	2	771
동천리	조순칠	답	4	2,346
		전	3	1,723
동천리	지용순	답	3	2,225
		전	3	2,548
동천리	지용재	답	4	5,546
		전	2	1,478
동천리	홍경로	답	1	629
		전	3	3,060
동천리	홍경진	답	4	3,669
		전	4	2,614
동천리	홍광표	답	2	10,141
		대	3	713
		전	1	20
동천리	홍광표외 8인	답	1	938
		분묘	1	533
		전	2	2,650
동천리	홍구연	답	3	3,891
		대	2	531
		전	5	4,072
동천리	홍기동	답	8	12,640
		대	2	657
		전	8	5,152
동천리	홍낙여	전	1	302
동천리	홍선표	답	2	1,250
		대	2	191
		전	2	1,268
동천리	홍성문	답	1	702
		전	1	454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동천리	홍성백	답	2	1,542
		전	2	1,404
동천리	홍성보	답	2	1,560
		잡종지	1	934
		전	3	2,551
동천리	홍성삼	답	3	1,140
동천리	홍성옥	전	1	327
동천리	홍성택	답	3	1,175
		잡종지	2	705
동천리	홍성표	답	2	685
		전	5	1,181
가곡리	고광천	답	8	5,786
		전	3	875
가곡리	고제항	답	1	2,166
가곡리	고창재	답	1	1,533
가곡리	권남규외 2인	답	1	395
		전	1	119
가곡리	권병남	답	1	461
		전	3	1,489
가곡리	권영무	전	1	149
가곡리	권영식	답	1	606
		전	1	148
가곡리	권영희	전	1	484
가곡리	권오상외 3인	답	2	2,945
		전	1	121
가곡리	권중려	답	3	1,144
		전	2	236
가곡리	권중석	답	1	119
		전	3	683
가곡리	권중일	답	3	1,474
		전	1	682
가곡리	권태용	답	2	1,206
		전	1	469
가곡리	권태형	답	2	1,333
		전	1	273
가곡리	안영준	전	1	168
가곡리	양필수	답	5	5,786
		잡종지	2	901
가곡리	이봉오	답	2	609
가곡리	이상태	답	3	2,456
갈곶리	김현성	답	2	1,322
견산리	유춘기	전	2	1,730
견산리	이석기	답	1	564
고현리	전봉석	답	3	3,208
고현리	전원석	답	1	865
		전	1	829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고현리	전재철	답	2	3,213
고현리	한병규	분묘	1	62
		전	1	228
금각리	홍순찬	답	1	1,436
봉남리	김태봉	분묘지	1	111
		전	1	847
봉남리	윤소사	전	1	1,750
봉남리	이준영외 4인	답	2	3,578
		대	2	641
		임야	1	4,441
		전	1	74
봉남리	임치선	답	2	292
봉남리	최희춘	답	1	2,893
서정리	정재교	답	1	847
은산리	이유철	답	1	541
		전	1	1,213
지산리	김연하	전	1	120
하북리	이긍재	대	1	96
		전	1	1,487
하북리	이면재	답	1	664
		전	1	631
하북리	이특래	답	1	258
		전	1	155
회화리	이광연	전	1	393
가평군 남면	조중길	전	1	1,489
과천군 하서면	안기용	전	2	1,383
남양군 압정면	정주석	전	1	90
수원군 남부면 귀천동	정득관	답	8	5,292
		임야	1	376
		전	6	7,356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	조경신	답	1	1,450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최원익	답	1	434
수원군 남부면 산루동	차재후	답	7	6,943
수원군 남부면 산루동	황운선	답	1	529
수원군 북부면 신풍동	이태진	대	1	313
		전	2	2,330
수원군 산성면 양산동	나윤실	답	1	2,216
		전	1	671
수원군 안영면 대황교동	김중호	전	1	550
수원군 어탄면 장지동	박건병	답	1	1,382
수원군 어탄면 장지동	박기병	답	3	3,175
수원군 어탄면 장지동	박승경	답	9	7,045
		전	6	2,500
수원군 어탄면 장지동	박승눌	답	5	4,577
수원군 어탄면 장지동	박승재	답	6	12,214
		전	1	483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수원군 어탄면 장지동	박승철	답	7	9,332
		전	1	420
수원군 어탄면 장지동	박준병	답	7	2,117
		대	1	267
		전	7	2,101
수원군 일용면 파장동	김경선	전	1	252
수원군 정림면 덕절리	박제정	답	2	2,403
수원군 종덕면 두릉리	한극렬	답	1	952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구연옥	답	1	23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구영서	답	15	12,608
		대	2	1,081
		전	15	8,026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구자옥	답	1	237
		대	1	184
		전	2	471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김태진	답	1	198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이섭	답	1	1,144
수원군 초평면 궐리	정원준	답	2	1,425
		전	1	689
안산군 군내면	목후석	답	1	1,061
안성군 거곡면 삼강리	황대원	답	1	230
양주군 상도면 가곡리	이호영	답	3	1,720
		임야	4	7,421
		전	2	263
용인군 남촌면 와미리	장규진	전	1	1,095
용인군 남촌면 월경리	서평실	분묘	1	110
용인군 남촌면 전궁리	박윤식	답	1	209
		임야	1	341
		전	4	1,579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김상우	전	1	64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김상원	답	1	647
		전	1	199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김성노	전	1	353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김흥노	전	1	46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박춘경	전	1	432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오응묵	답	1	179
		전	3	700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조병구	전	1	165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조심원	답	1	1,389
		전	2	503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조영실	전	1	506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조종응	전	3	607
용인군 서촌면 동막리	조치원	답	2	2,325
		전	1	254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김명서	전	1	438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남국희	답	2	613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남준희	잡종지	1	716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남택희	답	2	934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박치중	답	5	2,763
		전	2	596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이규완	답	1	776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이규원	답	1	770
		전	1	597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정기교	답	1	1,207
		전	1	237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정수만	전	2	1,430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정우석	답	3	4,665
		전	2	1,153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정춘석	전	1	530
용인군 서촌면 외동천리	정태영	답	1	454
		전	3	1,967
용인군 서촌면 율동	조성건	전	1	162
용인군 서촌면 통곡리	구하서	답	1	839
		전	1	173
용인군 흥룡면 진목동	김광삼	답	1	815
용인군 흥룡면 진목동	김성원	전	1	857
용인군 흥룡면 진목동	김응삼	전	1	597
용인군 흥룡면 진목동	조동인	답	4	7,266
		대	1	149
		전	1	670
용인군 흥룡면 진목동	최경환	잡종지	1	658
		전	2	1,255
용인군 흥룡면 진목동	최광선	잡종지	1	523
		전	2	743
용인군 흥룡면 진목동	최사국	잡종지	1	2,704
인천부 황귀천면	이계승	답	1	750
		전	1	619
죽산군 근삼면 상산리	안태승	답	2	1,133
경성부	권중일	답	2	2,183
경성부	김기택	답	3	3,796
경성부	김성환	답	1	1,936
경성부	김재성	답	1	1,793
경성부	김정배	답	3	1,897
경성부	김춘배	답	2	5,675
		대	3	1,522
		전	4	7,808
경성부	민대식	답	2	5,063
경성부	박대혁	답	1	1,373
경성부	박순복	답	4	3,359
		전	4	3,992
경성부	이병묵	답	9	8,295
		전	2	1,103
경성부	이영환	답	3	944
		전	1	534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경성부	조계현	답	1	444
경성부	최병두	대	2	197
		임야	1	102
		전	1	919
경성부	최상현	답	14	21,210
		대	1	462
		전	1	282
경성부	최한우	답	19	17,946
		전	4	2,671
충청남도 신창군 대서면	한영조	답	2	1,435
		임야	2	10,241
충청남도 연산군 적사곡면	이규석	대	1	499
		전	1	635
충청남도 직산군	정문원	전	1	616
충남 평택군 남면 안현동	안문열	답	1	594
충청북도 음성군 거곡면	신교회	답	2	1,947
충청북도 음성군 거곡면	신돈회	전	2	327
충청북도 청주군	이규협	임야	1	450
		전	1	616
경성부	倉內正之助	답	2	1,196
동경시	岩崎久彌	답	12	20,106
		전	9	9,887
주소불명	성경흠	답	1	370
		전	2	1,056

동추골에 처음으로 입향했다고 전해지는 조씨와 지씨 집안 인물은 모두 2명이고, 가장 나중에 들어온 홍씨는 15명의 농지 소유주가 있다. 이씨는 모두 10명이다. 이중 이공헌과 이세헌이 소유한 농지 소재지가 사후동에 해당되므로[38] 이 두명은 사후동의 함평 이씨로 추정된다. 이 두 명 가운데 이세헌은 일본인 지주 ‘대지진’의 땅을 관리했다고 한다.

동천리에 거주하면서 전답을 합쳐 1만평 이상 소유한 인물은 이종화, 정현모, 홍광표, 홍기동 등 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주 최병두는 연천, 용인, 진위, 부천에 걸쳐 논 135정보, 밭 45 정보(町步)를 소유했고 소작인이 414명이나 되는데, 진위군에는 논 26정보, 밭 4정보를 갖고 있었다.[39] 박대혁은 양주, 수원, 진위에 논 66정보, 밭 28정보가 있었다.[40] 그는 진위에서만 전답 합쳐서 32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동천리에는 논 1필지 1,373평에 지나지 않았다. 최한우는 가수 최희준의 부친으로 서탄면 황구지리, 회화리, 은산리 등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다. 일본인 암기구미는 진위면 하북리에 논 19,366평, 밭 2,006평, 야막리에 논 32,375평, 밭 7,578평을 소유한 지주였다.

동추골의 000씨(남, 1938년생)는 옛날에 ‘신태현이라는 지주가 있었는데, 700석을 거둬들였다.’고 했다. 당시 천수답이 많아 “1마지기에 1가마 나오기 어려운 논들도 많았는데 700석이면 얼마나 땅이 넓어!” 라고 했지만, 토지조사부나 토지분배문서에는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어탄면 장지동(현재

38) 이공헌이 소유한 토지의 지번이 11·17·115 116·197·120·122·128·209·235이고, 이세헌의 토지는 81·105·113·163·164번지로 모두 사후동 쪽에 해당된다.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 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103쪽.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 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97쪽.

동탄면 장지도)의 박준병은 동척농장을 관리하는 마름 역할을 했다고 한다.[41]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소작할 수 있는 농지를 얻을 수 있었다. 옛날 지주들에 대한 질문에 최창렬씨는 동척 및 박준병에 이어 일본인 '대지진[42]' 을 언급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대지진의 이름은 없고, 임야조사부에 '대지징(大池澄)' 이라는 인물이 동천리 국유림 22만 평 이상 되는 넓이의 연고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대지징이 바로 사후동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지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의 이름이 마을에서 일본인 지주로 전해왔다면 어느 시기 많은 농지를 소유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소유주 거주지별로 합계를 산출한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43]

거주지	전			답			대지			잡종지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동천리	49	126	88,691	30	77	75,164	8	16	8,268	5	5	2,669
가곡리	15	20	5,896	13	36	28,019				1	2	901
갈곶리				1	2	1,322						
견산리	1	2	1,730	1	1	564						
고현리	2	2	1,057	3	6	7,286						
금각리				1	1	1,436						
봉남리		3	2,671	3	5	6,763	3	2	641			
서정리				1	1	847						
은산리	1	1	1,213	1	1	541						
지산리	1	1	120									
하북리	4	4	2,273	2	2	922	1	1	96			
회화리	1	1	393									
서촌면 동막리	11	16	3,829	4	5	4,540						
서촌면 외동천리	9	16	9,289	8	16	12,182				1	1	716
서촌면 율동	1	1	162									
서촌면 통곡리	1	1	173	1	1	839						
용인군 남촌면	2	5	2,674	1	1	209						
어탄면 장지동	4	9	3,004	7	38	39,842	1	1	267			
흥룡면 진목동	5	7	4,122	2	5	8,081	1	1	149	3	3	3,885
청호면 오산동	2	17	8,497	5	19	14,210	2	3	1,265			
가평군	1	1	1,489									
과천군	1	2	1,383									
남양군	2	2	90									
죽산군				1	2	1,133						

41) 최창렬씨(남, 1947년생)과의 인터뷰.

42) 대지진은 김해규가 2006년 사후동에서 인터뷰할 때도 언급된 적이 있다.(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78쪽.)

43) 공동명의로 소유한 토지는 인원수를 1로 계산하였음.

거주지	전			답			대지			잡종지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수원군	6	12	11,848	9	24	21,644	1	1	313			
경성부	7	17	17,309	15	65	75,904	3	6	2,181			
인천부	1	1	619	1	1	750						
충청남도	2	2	1,251	1	2	1,435	1	1	499			
충청북도	2	3	943	1	2	1,947						
일본인	1	9	9,887	2	14	21,302						
주소불명	1	1	1,056	1	1	370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동천리 및 인근 마을 거주자, 서울 거주자, 원거리 거주자, 일본인으로 분류해 본 각 거주지별 토지 소유 비율은 아래와 같다.

동천리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율(%)	48.82	22.97	60.44	32.66

인근마을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현 진위면 및 서정리·서탄면 포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율(%)	8.45	14.58	5.39	11.03

현 동탄·오산·용인 중 인근마을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율(%)	17.48	24.42	12.29	·

서울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율(%)	9.53	23.19	15.94	·

서울 이외의 원거리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율(%)	9.70	8.22	5.94	·

일본인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율(%)	5.44	6.51	·	·

동천리는 전형적인 농업 마을이었다. 그런데도 이 마을 주민들의 토지 소유 비율, 특히 논의 경우가 22.97%로 매우 낮다. 동탄이나 용인, 오산 사람들의 논 소유 면적 24.42%로 동천리보다 오히려 높다. 이와 관련하여 "최창렬씨는 옛날부터 사후동 저수지 위쪽과 능골의 야생동물학교 위쪽은 동막 사람들이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 고 했다. 외동천 마을이었던 봉명리도 사후천을 경계로 동천리와 접하였기 때문에 동천리 쪽으로 와서 농사짓는 데 큰 장애가 없었을 것이다. 서탄면의 회화리나 금암리, 사리, 진위면의 야막리와 하북리, 봉남리 등지에 많이 분포되었던 용주사 소유의 토지가 동천리에서는 전

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 하다.

(3) 논농사

평택의 다른 농촌 마을과 같이 동천리 사람들도 논농사를 가장 중하게 여겼다. 골짜기마다 논들이 있어서 밭보다는 논의 비율이 높았다.

다랭이 논이 많은 동천리에서 논농사는 봄에 논을 갈고 논둑 손보는 일부터 시작했다. 겨울을 지나면서 얼었다 녹은 논둑이 푸석해지고 구멍난 경우도 있어서 삽으로 흙을 퍼서 논둑을 단단하게 해놔야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논에 물이 고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논을 갈기 전에 거름을 내었다. 거름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었다. 부엌 아궁이에서 재를 퍼다가 인분과 섞어서 썩힌 것이 있고, 봄에 풀하고 갈나무 순이나 풀을 깎아다가 논에 펴서 소로 갈아서 쓰기도 했다. 소나 돼지를 기르면 우리 바닥에 검불 깔아 준 것 걷어다가 퇴비장에 넣는다. 이걸 썩혀가지고 봄에 농사지을 논밭에 내는 것이다.

퇴비는 논밭까지 소로 실어 가거나 지게로 져서 날랐다. 소 길마에 얹어서 벼나 퇴비를 나르는 도구가 발채라는 도구가 있었다. 발채는 짚으로 주머니처럼 만들었는데, 퇴비용과 벼 싣는 용도로 만든 것이 따로 있었다. 퇴비용은 발채 밑을 막대기로 봉하고 퇴비를 싣고 가서 막대기를 빼면 주르르 흘러내리도록 만들었다. 벼 싣는 발채는 양쪽에 볏단 15단씩 해서 양쪽을 합치면 30단을 실을 수 있었다. 소가 못 들어가는 수렁논들은 지게나 바수걸이로 퇴비나 볏단을 날라야 했다. 1970년 전후해서 마을 30가구 가운데 7집 정도만이 소를 갖고 있었다. 소가 없는 집에서 하루 빌려 일을 하면 사람이 하루 가서 일을 해줘야 했다. 소가 있어도 수렁논 같은 데는 지게로 져서 가져가야 했다. 지게에 바수걸이를 달고 퇴비를 져다가 펴는 양을 헤아려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는다. 장화가 없던 시기라 수렁논에도 맨발로 거름을 지고 들어가 바닥에 부렸다가 호구(포크)로 전부 편 다음 쟁기질을 해서 논을 간다. 인분은 똥장군에 담아서 지게에 져서 밭에 뿌리는 방식이 많았다.

퇴비도 많이 했다. 특히 새마을운동 당시 퇴비 생산에 적극적이었다. 1966∽8년 동안 두 번 임기의 이장을 봤던 홍찬의씨는 이장 임기를 마치고는 1970년부터 3년 동안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하였다. 당시 면에서 독려하는 퇴비 증산에 열심이어서 광주 새마을대회 때 퇴비 증산을 입증하는 표창을 받았다. 당시 진위면에서는 견산1리와 동천리 2개 마을이 표창 대상이었다.

지금은 복합비료를 쓰기 때문에 논에 퇴비를 넣지 않아도 벼가 잘 된다. 화학비료는 생산력을 높여주었지만, 배급제로 나와서 풍부하게 쓸 수가 없었다. 1966년 33세의 나이로 이장을 봤던 홍찬의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료를 나눠주는 일을 했다. 농지 소유 면적에 비례해서 배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할당량을 정하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배당되는 비료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사후동의 최창렬씨(남, 1947년생)는 1982년까지 비료가 배급제였다고 기억하였다.

대개 한식 때 못자리를 하면서 논농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식 전에 미리 볍씨를 7∽10일 동안 물에 담가놓았다가 건져서 방에 2∽3일을 두면 싹이 터서 1∽2mm 자란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가 빠지면 뿌리는 경우도 있다. 쌀이 튼 볍씨를 바케스에 담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미리 손으로 반죽하여 반반하게 해놓은 모판에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게 살살 볍씨를 뿌리면 일단 못자리는 끝이 난다. 모가 자라면 중간중간 올라오는 피를 골라내야 한다.

모내기는 대개 6월에 했다. 지금 기계모는 5월 10일이면 심지만 옛날에 못자리에 벼를 길러서 심을 때는 모가 손으로 심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하기 때문에 6월 하지 전후해서 모를 심었다. 손으로 모를

쪄서 세 움큼씩 해서 한 첩(한 단) 만들어놓으면 모쟁이[44]가 건져서 바수걸이에다 져다가 모를 심을 논 여기저기에 심기 좋을 만큼의 간격을 두고 던진다.

1980년대 이앙기가 보급되면서 못자리를 만드는 방법도 완전히 바뀌고, 모내는 시기도 훨씬 앞당겨졌다. 파종부터가 다르다. 옛날에는 싹을 틔운 볍씨를 직접 논에 만들어 놓은 모판에 뿌렸는데, 이제 볍씨를 모판에 뿌려서 싹을 틔워 모를 길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모판에 볍씨를 뿌리는 시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식 때인 4월 5일 경이다. 모판은 그전에 200∽25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0원 정도 나간다. 모판은 개인적으로 사서 쓰다가 평택시의 경우 김선기 시장 때부터 모판에 필요한 상토를 시 예산으로 보조해줘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의 보조가 있기 전 모판에 넣을 상토값을 아끼려는 집에서는 산에서 황토를 퍼다가 이것을 체로 곱게 쳐서 상토를 대신했다. 최창렬씨는 지금도 집에 있는 모판에 시에서 보조한 상토를 깔고 볍씨를 파종해서 모를 길러서 심고 있다. 볍씨는 모판에 파종하고 마당에 두꺼운 비닐도 된 덮개를 덮어서 7일 정도 쌓아놓으면 싹이 1cm 정도 돋는다. 이 때 모판을 로타리를 쳐서 마른 못자리를 만들어 놓은 논에 갖다놓고 부직포로 덮어서 물을 대준다. 물을 대서 흥건하게 한 다음, 모판에 습기만 유지할 정도로 고랑에만 물이 조금 있는 수준으로 물을 뺀다. 이렇게 해놓고 30일 후면 모를 심는다. 빨리 심는 사람은 5월 5∽10일 경에 다 심고, 15일 경이 가장 많이 심을 때다. 그래서 보통 5월 20일이면 대부분 모내기를 마치게 된다. 늦게 심는 사람은 6월에도 심는데, 6월 30일 까지 심어도 소출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논에 배추를 심어 이모작을 하는 사람들은 배추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하는 집들이 대개 6월에 심는다. 대신 이모작을 해서 늦게 심는 집에서는 조생종을 심는다. 배추를 심어서 이모작을 하는 집 마산리, 신리, 하북리 같은 곳에 많으며 동천1리에 몇 집 있고 사후동에는 전혀 없이 모두 벼농사만 짓는다.

동추골의 홍찬의씨는 90세를 바라보는 지금도 2천 9백 평의 논에 농사를 짓고 있다. 그가 연로한 몸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하는 일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면서 모내기를 위한 모판을 사고 산에서 황토 찰흙을 파다가 잘록병 예방 농약을 섞어서 직접 모판을 만들었다. 지금은 농협에서 모판 1장당 1,500원을 보조 받고 자부담 1,500원을 보태서 3,000원에 구입한다. 평당 350∽400원을 지불하고 논을 갈고 써린다.

전통적인 논농사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고된 작업은 논매기였다. 논매기는 보통 애벌매기, 두벌매기, 세벌매기,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모내기가 끝난 후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애벌매기가 이루어진다. 이후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두벌매기, 두벌 매고 7일에서 10일 사이에 세벌매기를 한다. 두벌매기 까지는 호미로 하고, 세벌매기는 손으로 훔쳐주기 때문에 훔치기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피가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피를 뽑아줘야 했고, 세벌매기를 마쳐도 잡초가 있으면 네 번까지 매야할 때도 있었다. 논매기 작업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대개 품앗이를 했으며, 초벌매기와 두벌매기에서는 두레놀이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에 마세트 입제가 나오면서 논매기는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마세트 입제는 독한 제초제인데도 맨손을 뿌렸는데, 지금은 유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계를 쓰고 있다. 제초제가 나와 논매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지만, 지금은 농약을 뿌려주는 작업을 한다.

연세가 많은 홍찬의씨는 농약을 치는 데는 하루 25만원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고 있다. 본인이 농약을 사서 주면 농약 치는 기계를 갖고 다니며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모 심기 전에 한 번, 모심고 나서 한 1번을 개인이 농약을 치고, 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논에 한해서는 가을 수확 직전에 농협에서

44) 모를 찌면 이것을 바수걸이에 담아 모 심을 논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아한다.(최창렬씨 인터뷰)

드론으로 다시 한 번 농약을 친다. 농협에서 드론으로 치는 농약도 개인이 평당 얼마씩 계산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벼 수확은 보통 10월에 시작되어 11월까지 이어졌다. 탈곡하기 전 벼를 말리는 방법은 논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건답은 두세 움큼씩을 한 군데다 해서 논에 깔아놨다가 어느 정도 마르면 뒤집어서 말렸다가 단으로 묶는다. 단은 크게 묶는 사람도 있고 자그맣게 묶는 사람도 있었는데, 탈곡기 나오고 나서는 탈곡기에 갖다 대기 좋을 정도의 크기로 묶었다. 고라실논(수렁논)은 물이 많아 깔지를 못하니까 두 포기 벤 것으로 매듭을 엮어서 여기에다 벼 7∽8움큼씩 벤 것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논두렁에 죽 뉘여 놓는다. 7∽10일을 말리면 뒤집어 놓는다. 어느 정도 마르면 논둑에 5∽7단씩 쌓아 놨다가 집 마당으로 끌어들였다. 벼를 집으로 나르는 일은 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지게로 져서 나르기도 했다. 소길마 위에 얹어서 벼를 싣는 발채는 양쪽에 볏단 15단씩 해서 모두 30단을 실을 수 있었다. 소가 못 들어가는 수렁논들은 지게나 바수걸이로 퇴비나 볏단을 날랐다. 1970년 전후해서 마을 30가구 가운데 7집 정도만이 소를 갖고 있었다. 소가 없는 집에서 하루 빌려 일을 하면 사람이 하루 가서 일을 해줘야 했다.

논에서 벼를 다 끌어들이면 타작을 했다. 늦으면 12월까지도 타작을 하곤 했다. 타작에는 그네라고 불리는 벼 훑는 도구를 쓰거나 ,탈곡통(둥글레통)을 썼다. 그네는 벼를 한 움큼 잡고 빗처럼 된 데다 훑어내는 도구이다. 남자의 경우 잘 훑는 사람은 하루 2가마, 좀 더딘 사람이나 여자들은 1가마를 훑을 수 있었다. 탈곡통이 그네보다 효율이 좋았으나 값이 높아 사후동에는 두 개밖에 없었다. 탈곡통을 빌려다 쓰면 하루 가서 일 해주는 것으로 값을 치러야 했다.

논에서 수확하면 보통 1마지기에 두 가마 소출이 일반적인 기억이다. 하지만 농업용수의 확보나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컸다. 가뭄에 호미모(마냥모)를 심게 되면 1마지기에 5말 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농민들 생활은 늘 고단했다 더욱이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웠다. 외지인 농지 소유 비율이 높았던 동천리에서 몇몇 부자들을 빼고 남의 논을 경작하는 일은 일반적이었다. 동추골의 조영배씨(남, 1943년생)의 부친은 4천 평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중 2천 평이 소작이었다.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은 타작을 하고나면 수확한 벼를 지주와 1/2씩 나눴다. 사후동의 최창렬씨 부친도 4천 평의 논중에 2천평이 다른 집안 종중의 시제답이었다. 시제답은 가을에 시제에 필요한 제물을 차려주고 도지를 주지는 않았다. 이런 시제답은 서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수확후 도지로 주는 벼는 알곡만을 대상으로 했다. 즉, 타작을 할 때 이삭이 끊어져 벼 이삭같이 그냥 나오는 것을 '숭숭배기'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퀴로 긁어서 모아 농사짓는 사람이 가졌다. 수확량의 절반씩 나누었던 도지가 나중에는 1마지기당 1가마로 정해졌다가 지금은 5∽8말 정도로 내렸다. 특히 요즘 농사짓기 힘든 사람은 농기계를 갖춘 사람한테 도지를 받고 의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논들은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동춧골의 경우 90% 정도가 계약재배이며, 사후동은 70% 정도 계약 재배를 한다. 계약 재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쌀로 판다. 계약 재배는 농업인만 가능하며, 가령 농업인이 아니거나 외지인이 농사를 지을 경우 계약 재배는 불가능하다.

(4) 밭농사

동추골에서는 "골짜기는 주로 논이었으며 밭은 조금 낮은 지대에 있다." 고 입을 모았다. 000씨(남, 1938년생)는 "어린이농장이 자리 잡은 황생이는 모두 밭이었는데, 1970년대 초 농지정리 하면서 논으

로 바뀌었다.” 고 했다. 아랫말 저수지 아래쪽으로 논 서너 섬지기기 있었고, 그 외 동천리 남쪽의 들판은 거의 밭으로 이용되었다. 골짜기가 많은 사후동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들판이 많았던 동추골에 밭이 더 많았다.

논농사와 마찬가지로 밭농사도 곡물로 보리와 밀, 콩, 수수 등 전통적인 작물과, 고추와 배추, 무 등 채소류를 심었다. 요즘은 인적이 뜸한 산 밑 같은 곳에는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 때문에 작물이 제한되기도 한다. 000씨는 “예전에는 콩, 수수, 보리, 밀을 심었는데, 지금은 콩과 팥 같은 작물은 고라니가 많이 뜯어먹기 때문에 들깨나 고추를 심는 경우가 많다.” 고 했다.

밭에 주는 거름으로는 인분을 주로 썼다. 가을에 작물을 심을 때 밑거름으로 재를 주고 인분은 겨울에 보리밭 웃거름으로 주거나 작물 없는 밭에 끼얹었다가 봄에 갈아엎는 방식으로 거름을 한다. 화장실에 큰 항아리를 묻어서 인분이 차면 나무로 만든 똥장군으로 밭에 날라다 주었다. 항아리는 보통 똥장군으로 5~10통이 나오는데, 이것이 적으면 시멘트로 인분독을 크게 만들었다. 보통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 보리와 밀을 심었고, 싹이 나온 겨울(1∽2월)에 인분을 지게로 져다가 밭에 끼얹었다. 이때는 사람을 5~6명 얻어서, 한 사람이 퍼서 일정 거리를 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가져가는 릴레이 방식으로 멀리 1.5km 떨어진 밭까지 나르기도 했다. 인분은 밭에만 주고 논에는 주지 않았다. 대신 논에는 인분과 재가 섞인 것을 퇴비장에 쌓았다고 거름으로 섰다. 설거지 한 물도 인분하고 같이 썩여서 비료로 사용했다.

밭 농사는 주로 이모작을 했다. 먼저 콩을 심고 그 사이사이에 수수와 들깨를 심어 가을에 수확을 한 후 보리나 밀을 심는 방식이다. 가을에 콩을 거두고 나서는 보리나 밎, 마늘을 심었는데, 주로 보리를 많이 심었다. 벼를 심는 논은 이모작이 불가능하지만 천수답 같은 경우 모를 못 심으면 콩을 심어 수확한 다음에 보리를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했다.

(5) 노동력 확보와 농기계 도입

농사는 어른들의 몫이었고 아이들은 집안의 잔심부름을 했다.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 무렵에 들판에 매놓은 소에게 소풀을 뜯기고, 소꼴도 베고, 소 여물을 갖다 주기도 했다. 동추골의 조영배(남, 1943년생)씨는 초등학교 졸업한 후 15세부터 쟁기질, 써레질을 했다. 먼 곳의 논밭에 쟁기질을 하려면 소죽까지 짊어지고 가야 했다. 반면에 같은 마을의 000씨(남, 1938년생)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에게 풀을 뜯기는 가벼운 집안 일을 거들다가 본격적인 농사일은 18세에 시작하였다. 1934년생인 홍찬의씨도 1·4후퇴 후 10대 후반부터 품앗이를 다녔다.

대부분의 농사일은 품앗이로 했다. 사후동의 최창렬씨는 마을 사람끼리 품앗이로 일을 하다가 일손이 모자라 마을에서 일꾼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오산쪽이나 인근의 복명리 사람을 사다 쓴 경우도 있었다. 품삯은 3일 일하고 쌀 1말을 줬다. 농사일에 남의 소를 얻어 쓰면 2일을 일을 해줬다. 소만 빌리면 하루 일을 해줬지만, 쟁기질로 빌릴 경우는 쟁기와 써레 같은 논갈이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빌렸기 때문이다.[45] 자기 집 논에 모를 다 심으면 이웃마을까지 다니며 품삯을 받고 일을 했다. 사후동의 차옥순씨(여, 1947년생)는 1970년대 후반에 마을 여자들 몇 명이 함께 봉명리에 모를 심으러 다녔다.

가난한 사람들은 춘궁기에 쌀이 떨어지면 부잣집에서 먼저 쌀을 얻어먹고 쌀 1말에 3일씩 계산하여 일을 해줘야 했다.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겨울에 양식 떨어지면 쌀 1∽2가마씩 얻어먹고 한두 달씩 남의 일을 해줬으니, 거의 머슴살이나 마찬가지였다. 남의 쌀을 먹고 일해주는 것으로 갚지 않으면 높은

45) 반면에 사후동에서 오산까지 나무를 싣고 가는 경우에는 소 2일에 일 하루를 해줬다.(최창렬씨와의 인터뷰)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장례빚이 되었다. ‘장례쌀 이자가 비쌀 때는 1가마 갖다 먹고 2가마를 줘야하는 맞장례도 있었지만, 보통은 쌀 닷 말 정도였으며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서 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토박이 노인분들의 공통된 기억이었다. 홍찬의씨는 1971년 논 700평을 팔아서 장례쌀 원금과 이자를 합친 35가마를 갚아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 하북리로 고용살이를 왔던 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보리쌀을 들여와 1가마 빌려주면 이듬해에 쌀 1가마를 받는 방식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 하북리에 정육점까지 냈다.

농사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머슴을 두는 집이 많았다. 동추골에서 2천평 정도의 농사를 짓던 홍찬의씨네도 머슴을 뒀다. 머슴은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남쪽 지역에서 많이 왔다. 보통 설 쇠면 올라와 가을일 끝나고 이엉 엮어서 지붕을 하고 나면 내려갔다. 그가 어렸을 때 머슴은 1년에 쌀 7가마를 받았고, 나중에는 12가마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 12가마를 받는 일꾼은 기운도 세고 일도 다른 사람의 곱을 하는 사람이었다. 사후동 구본원씨(남, 1942년생)는 비교적 넉적한 집이어서 머슴을 어른 하나 애들 하나로 보통 2명을 두었다. 어린 머슴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16∽17세 전후의 나이였다. 어른은 9가마, 어린 아이는 2∽4가마를 세경으로 받았다. 머슴은 추수 끝나고 12월 동지 무렵에 집에 갔다가 이듬해 2월 무렵에 다시 왔다. 하지만 구본원씨네 고용되었던 머슴은 행랑방에서 1년 내내 기거하였다. 이 머슴은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내려와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되었던 사람인데, 10년 정도 그의 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결혼해서 분가하고, 그동안의 세경을 모아 마을에 논 800평을 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면서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홍찬의씨는 새마을지도자를 보면서 퇴비 증산과 함께 힘썼던 일이 모내기 공동 작업반 구성하였다. 공동으로 일을 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새마을지도자가 작업 조와 모내기 하는 논의 순서를 정했다. 그런데 작업하는 순서와 작업 시간을 놓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논의 물이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령 천수답의 경우 비가 오면 빨리 심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다툼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모래질이 많은 논은 모를 꽂기가 어려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등 같은 면적이라도 작업시간이 달라서 불만이 갖는 사람도 있었다. 사후동의 차옥순씨(여, 1947년생)는 1976∽7년에 작업반 조직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시골은 안 맞는다.’며 남자들이 호응하지 않았다. 차옥순씨는 작업반 구성을 추진하였지만 서울 출신이라 그때까지 모심는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7집이 작업반을 시작했다. 모내기 작업을 하는 날은 각 집마다 2명씩 일꾼이 나와서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작업반이 만들어지고 작업 효율이 좋아지자 다른 사람들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3개의 작업반이 조직되었다. 나중에 농기계도 같은 작업반원끼지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농기계가 도입되면서 마을 작업반의 역할은 약화되어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 동추골에서는 1980년대 초반 홍찬의씨가 경운기를 샀다. 트랙터는 1988년에 마을에서 두 번째로 들여왔다. 1984년에 트랙터를 구입한 지상근씨가 첫 번째이다. 이때 조를 이루어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4집에서 함께 구입을 했는데, 지상근씨는 트랙터를 샀고 나머지 3명이 콤바인 1대를 샀다. 사후동 마을 부녀회장이었던 차옥순씨는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받고 1980년 5마력짜리 경운기를 융자 받아 구입하였다. 그러나 기계를 다루는 일에 서툴러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나자 없애버렸다. 이후 경운기가 점차 보급되면서 소로 갈던 쟁기질이나 써레질이 경운기로 대체되었다.1980년대 중반에 이앙기가 들어오자 이것도 작업반 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구입하였다. 농약 치는 기계, 탈곡기도 같이 사서 돌아가면서 사용하였다. 다만 차옥순씨네는 농사가 많아 탈곡기를 단독으로 구입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트랙터가 보급되면서 인력이 점차 기계로 대체되어 갔다.

(6) 나무 장사

젊은 시절 장작장사를 했던 홍석용(좌)

동천리는 산이 많아 다른 마을보다 나무가 흔해서 가정에서 쓰는 연료 자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산이나 송탄에 내다 팔아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동추골의 홍석용씨(남, 1939년생)는 15~16세의 어린 나이에 장작 장사를 했고, 조영배씨(남, 1943년생)도 젊은 시절에 나무를 팔았다. 조영배씨는 장작을 지게에 짊어지고 송탄 K-55 부대 정문 앞까지 나갔다. 집에서 새벽 2~3시에 나뭇짐을 지고 출발해서 봉남리 다리를 건너 마산리를 거쳐 송탄으로 걸어갔다. 힘이 들어 2∽3회를 중간에 쉬고 부대 앞에 도착하면 아침이 되었다. 부대 앞에서 안 팔릴 때는 당시 부대 후문쪽인 사거리까지 가서 팔기도 했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나무를 팔러 다녔지만, 얼마를 받았는지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했다. 동추골에서는 자신이 직접 나무를 해서 팔기도 했고, 남사면의 산골마을인 원암, 사그막, 각토에서 나무를 사서 송탄에 나가 파는 사람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4바퀴가 달린 사발마차로 실어왔다. 지상근씨(남, 1949년생) 부친은 남사면에서 소나무 가지 자른 것(옆에 있는 홍찬의씨는 이것을 다발나무라고 했다.)을 마차로 실어오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혼나는 일도 있었다.

사후동의 최창렬씨는 본인이 직접 나무장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칠월비’라는 나무를 해서 오산장에 팔았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말복이 지나 나무 순이 억세지면 깎아서 차곡차곡 말려가지고 묶어다가 쌓아놨다가 말려가지고 땠는데, 이것을 ‘칠월비’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웬만한 산을 다들 하나씩 깎아가지고 말려서 묶은 것을 지게로 져날라다 연료로 사용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은 소 길마에 3동씩 싣고 오산장에 갖다 팔아서 용돈을 마련하였다. 오산까지 거리가 멀어서 하루에 1번만 가능했다. 사후동에서는 10집 정도가 나무장사를 했다. 당시 마을에 소 있는 집이 5~6가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소를 얻어야 했다. 이때 소를 얻으면 이틀 일 해주는 것으로 대가를 치렀다. 나무장사를 하는 겨울에 소를 얻어 쓰고 봄부터 여름 사이에 소 주인집에 가서 가래질[46]. 모내기, 논매기를 해준 것이다.

최창렬씨가 군대가던 해인 1970년에 쌀 1가마 4천원이었을 때, 칠월비 3동 가져가면 150원 정도 받았다. 나무장사는 마을 동쪽 사후동 너머 동막 사람들이 많이 했다. 이들은 동막 고개를 넘어와서 사후동을 지나 화고개로 해서 오산장을 드나들었다. 많을 때는 10바리[47]씩 지나가기도 했다.

(7) 시설농업

전형적인 논·밭 농업 위주였던 동천리에서 1980년대 초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농업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비닐하우스는 동추골에 주로 있고 사후동에는 2007년에 이주하여 화훼(철쭉)

46) 봄에 날이 풀리면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가래로 흙을 퍼서 논둑에 덮어서 논둑을 다지는 일이다.
47) ‘바리’란 길마 위에 발채를 얹고 양쪽 옆과 위에 나무 3동을 실은 소를 말한다.(최창렬씨 인터뷰)

농사를 짓는 정종권씨(남, 1953년생)가 유일하다.

황생이들의 비닐하우스

사후동에서 유일한 정종권의 비닐하우스

동추골 진위로 옆 김경찬의 딸기 농장

사후동에서 철쭉 재배를 하는 정종권

김경찬씨(남,1972년생)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81년에 아버지를 따라 동천1리로 부모님을 따라 이사왔다. 논산에서 토마토나 참외 농사를 짓던 그의 아버지 김재선씨(남, 1944년생)가 이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김재선씨는 처음 2년 동안 참외와 토마토를 재배하다가 딸기 농사로 바꾸었다. 김경찬씨는 학업을 마치고 아버지 농사를 이어받아 1천 여 평의 농지에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 예전에는 오산 시장에 출하를 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요구로 농장 현지 판매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생산량 모두를 농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김경찬씨는 그의 아버지가 비닐하우스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봉남리와 동천리의 경계지점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한 군데가 있었다고 기억하였다.[48] 1970년대 초반에 이웃한 야막리와 하북2리에서 시작된 시설재배가 이곳까지 확산되었을 것이다.

동추골 마을 출신으로는 홍선의씨와 홍석두씨가 비닐하우스에 토마토와 오이 농사를 시작했다. 홍석두씨가 올해 타계했으니 현재 이 마을 출신으로 시설농업을 하는 사람은 홍선의씨가 유일하다. 이외 대부분의 시설 재배는 새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재배 품목으로는 토마토와 오이 같은 열매 채소를 비롯하여 딸기, 난초 뿐만 아니라 황금향이라는 감귤과 다육이를 재배·판매하는 시설까지 점차 다양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48) 지나는 사람에게 동천리로 보이지만 행정상으로는 동천리와 경계를 접하는 봉남리 쪽이다.

(8) 도정시설과 방앗간[49]

동추골 웃말 안쪽인 ‘동천1길 33-29(동천리 564-1)’에 연자방아가 있었다. 그러나 1934년생인 홍찬의씨도 연자방아 돌만 봤고 실제 방아를 찧는 것은 보질 못했다.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되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돌은 마을사람들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동추골에는 연자방아만 있었고 디딜방아는 없었다고 한다.

동추골 정미소 위치

웃말에 있었던 연자방아 위치

아랫말 홍대복의 정미소 자리

도모재고개에 있었던 최대업의 정미소

동춧골 정미소는 ‘동천리 343-3’ 자리에 있었는데, 홍찬의씨 집안이면서 4살 위인 홍대복씨가 운영하였다. 안채에 살림집이 있고 바깥채에서 방앗간을 운영했다. 이 정미소에서는 쌀 한 가마에 2∽3되 정도를 방아삯으로 받았다. 홍찬의씨가 60대 나이였을 무렵 홍대복씨는 나이가 들어 힘들다며 문을 닫

49) 동추골은 홍찬의(남, 1934년생)·지상근(남, 1949년생)·윤순이(여, 1958년생), 사후동은 최창렬(남, 1947년생)·구본의(남, 1942년생)·이재천(남, 1963년생)과의 인터뷰.

았다. 이 방앗간이 문을 닫은 후 1987년 도모재 고개에서 최원재씨(남, 1959년생) 부부가 건물을 새로 짓고 정미소를 차렸다. 최원재씨는 이전에 하북리 진위역 북쪽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다가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문을 닫고 1986년에 도모재고개로 왔다. 도모재 고개가 지금은 편평하게 닦였지만, 그들 부부가 이곳에 왔을 때는 고개와 지금의 터가 산자락처럼 높았다. 이 고개를 낮추고 정미소를 짓는 데만 1년이 걸렸다. 터를 닦은 후 50평의 건물을 짓고 정미소를 개업해서 1997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했다. 동천리 뿐만 아니라 하북리, 가곡리나 멀리 서탄면 마무리 사람들도 이 정미소를 이용하였다. 최원재씨의 부인인 윤순이씨(여, 1958년생)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방아삯으로 10% 정도를 받았다."고 했다. 방앗간은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었지만 최원재씨가 힘이 들어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자 1987년 폐업을 결정하였다. 최원재씨 부부는 정미소를 했던 건물에서 생닭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미소가 문을 닫은 뒤 마을 사람들은 은산5리에 있는 정미소를 이용하게 되었다. 2000년 무렵부터는 가정용 도정기가 나오면서 정미소를 이용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벼를 농협에서 수매하고 집에서 먹을 쌀은 가정용 도정기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벼를 모두 농협에 수매하고 각 가정에서 필요한 쌀은 사서 먹고 있다.

마을 방앗간에서는 벼와 보리방아를 찧었고 고추와 떡방아는 오산장으로 다녔다. 지금은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어 방앗간에 연락하면 방앗간에서 차로 실어가서 방아를 찧고 다시 집까지 갖다 준다. 대신에 방아삯은 거리에 비례해서 운송비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

사후동에는 연자방아가 둘 있었다. 하나는 새뜸 마을회관 입구에서 도로 맞은 편에 있다가 도로 옆 경사면에 묻혔고, 다른 하나는 윗말 우물 옆에 있었다. 연자방아가 가동되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새뜸에 있었던 연자방아 위치

웃말에 있었던 연자방아 위치

구본원씨(남, 1942년생)에 의하면 디딜방아는 아랫말 '동천리 221-9'에 있었다. 여기서는 주로 벼와 보리방아, 수수, 조를 찧었고[50], 다른 곡물은 절구에다 찧었다. 디딜방앗간은 네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와 이엉으로 지붕을 덮어 비나 눈을 피하도록 했는데, 6·25 전쟁 전후에 없어졌다. 디딜방아가 없어지고 나서 이 마을에 살았던 박상렬씨가 1956년 무렵 중간말 '동천2길 36-2(동천리 206)'에 정미소를 차렸다. 이재천씨(남, 1961년생)에 의하면 사후동 사람들이 이 정미소는 사후동 사람들만 이용했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봉명리 새말에 있는 정미소로 가는 집이 있었다. 최창렬씨는 중간말 정미소가 1975~6년 무렵에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후 사후동 사람들은 오산 시장 안에 있는 협동방앗간으로 다녔

50) 최창렬씨는 여기서 벼 도정만 했고, 보리와 밀은 소가 짊어지고 오산에 가서 방아를 찧었다고 했다.

다. 소 길마에다 벼를 싣고 치고개나 화고개를 넘어다녔다.[51] 최근 들어서는 은산 5리 고속도로 옆에 있는 정미소[52]를 이용했다.

2) 축산업

1970년대 평택 인근에서는 젖소를 기르기 시작한 농가가 많았고, 심지어는 일반 주택의 마당에서 젖소를 기르는 일명 마당목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53] 이러한 시기에도 동천리에서는 논·밭 농사만 주로 하였기 때문에 축산업에 뛰어든 집은 없었고 집집마다 돼지 1∽2마리를 길렀고,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길렀다. 동춧골에서는 농사를 짓는 집은 소 한 마리 정도는 길렀으며[54], 사후동의 최창렬씨는 1970년대 30여 가구가 살았던 사후동에서 소를 키우는 집은 7∽10집 정도였다고 했다.

아랫말에 있었던 디딜방아 위치

1976년 제작된 지도에는 동천1리 응골 위로 ‘우신목장’이 표시되어 있다. 지상근씨(남, 1949년생)는 지도 표기와는 달리 ‘우산목장’으로 기억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우 10여 마리를 키웠다고 한다. 1980년대 다래골에도 한우 10여 마리를 키우는 하늘목장이 들어섰으나 곧 그만두었고, 지금은 골짜기 위로 주택 4~5채가 있다.

동천리 은행나무 북쪽 살고 있는 홍석용씨(1939년생)의 아들이 1980년부터 사슴을 키웠다. 처음에 4마리로 시작해서 18마리 정도까지 늘었으나 2020년에 그만두었고, 1984년에는 타지에서 이사와 목장을 짓고 8년 동안 젖소를 길렀던 집도 있었다. 젖소를 길렀던 자리에는 7년 전쯤 하원제약이라는 회사의 창고가 들어섰다.

1980년 무렵 사후동의 구본원씨네는 일종의 부업으로 소와 돼지를 키웠다. 1963년 사후동에 들어온 맥카피 선교사가 소와 양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주도하여 소 5마리를 키웠다. 구본원씨 어머니는 암송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커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분양 받은 사람이 갖고 어미 소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 소를 팔아서 돈을 모으는 방식이었다. 소 외에 돼지는 모돈만 5마리를 키웠다. 돼지는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많이 낳을 때는 10마리의 새끼도 낳았다. 당시 한 때는 돼지 값이 좋았고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쌀 1가마 값까지 올랐을 때는 웬만한 농사보다 수지가 맞았다. 1983년도에는 새마을중앙회에서 퇴비생산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농가에게 호주나 캐나다에서 들여온 소 1마리를 분양 받는 혜택을 줬다. 사후동에서는 대략 10집 정도가 그때 시가보다 소를 싼 값으로 분양

51) 이에 대하여 구본원씨(남, 1942년생)는 박상렬씨가 운영하던 방앗간이 1960년대 후반에 없어지자 치고개나 화고개를 넘어 오산에 있는 정미소로 다녔지만, 사후천에 시멘트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산 정미소에 있는 트럭이 벼를 싣고 가서 도정하여 다시 갖다 주었다고 했다. 구본원씨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도정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구본원씨나 최창렬씨보다 뒷 세대인 이재천씨(남, 1961년생)는 사후동 정미소가 없어진 뒤 벼를 마차에 싣고 봉명리 새말이나 지금의 고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정미소로 다녔다고 하였다.

52) 이 정미소는 봉남리에 있다가 은산5리로 옮겼는데,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2020년에 야막리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라라 그린팜 정미소’이다.

53) 평택문화원, 『2020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보고』, 2020, 372쪽.

54) 홍찬의조영배·지상근 인터뷰.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죽어서 실패를 보았다. 구본원씨네는 소가 새끼 낳다가 죽어서 어떤 정육점에 죽은 소를 팔았다. 당시 소 1마리에 30만원 정도 나갔지만, 그 때 소는 10만원도 제대로 못 받았다.

동추골 할미재 아래 OK 목장

사후동 능골 영진목장

현재 동천리에는 동천1리 할미재골에 있는 OK목장을 비롯하여 세 군데 목장이 있다. 가곡리로 넘어가는 할미재 고개 북서쪽인 '동천리 641번지'에 있는 OK목장은 가곡2리 출신인 권혁창씨(남, 1973년생)가 운영하고 있다. 원래 권혁창씨의 부친인 권오군씨가 1979년부터 가곡리에서 목장을 운영하다가 2006년 무렵에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권혁창씨는 수원 축협에 다니다가 5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부친이 운영했던 목장일을 이어받았다. 이 목장은 현재 퇴비사를 포함한 1천 여 평의 축사에 젖소 127마리와 남쪽 맞은편에 한우 7마리를 초지 방목으로 키우고 있다. 권혁창씨는 다른 지역에 1만 5천여 평을 임대하여 옥수수를 재배해서 여름 사료로 쓰고, 다른 1만여 평의 땅에는 호밀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심어서 겨울용 사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이 목장의 소들이 먹는 전체 사료 중에 10% 정도만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권혁창씨는 평택시청 하천 관리 부서에 진위천변을 조사료 생산지로 문의를 해봤는데, 평택시에서는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임대할 수 없고 단체에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목장은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의 수당으로 월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합법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목장일이 여러 가지로 숙련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최저시급보다 많은 보수를 요구한다. 난방과 샤워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숙소로서 손색이 없지만,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현재 숙소로 사용한 관리사를 건축하고 있었다. 그 비용이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혁창씨는 127마리의 젖소를 키워 매일우유에 거의 최고 단가인 1리터당 1,180원에 납품하여 연간 매출액은 6억 원이 조금 넘는다. 그중 20∽25% 정도가 순익이 되지만, 올 해 사료용 수입 풀이나 배합사료 값이 기존 가격 대비 30% 이상 올라서 순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전체 납품액에서 6.9%가 빠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적용되면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OK목장이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천1리에 속하지만, 도로명 주소로는 가곡2길로 되어 있다. 길도 동추골 마을로 가는 길은 비포장이고 할미재 너머 가곡리 쪽으로만 시멘트 포장이 되었다. 권혁창씨는 가곡2리에 살고 있지만 마을 일에 여러 가지로 협조하고 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포장된 길에 쌓인 눈을 혼자 트랙터로 치우고, 젖소 배설물을 완전 발효시킨 퇴비를 농사짓는 주민이 희망하면 무료로 살포해주고 있다. 마을 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지만, 마을에 행사를 하거나 주민들이 여행을 가는 일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후원하고 있다.

이 외 동천1리에는 고속도로 동쪽 시목골(동천리 588-1)에도 10여 년 전에 외지인이 들어와 젖소를 키우고 있다. 사후동 능골에는 오산에 살았던 송재덕씨가 땅을 매입하고 목장을 운영하다가 30년 전에 김영진씨가 매입하여 현재까지 한우를 키우고 있다. 현재 한우 80마리 정도의 규모이다.

3) 상업 및 유통

동추골이나 사후동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하러 오산장을 이용하였다. 동추골 사람들은 서낭댕이를 넘거나 도모재고개를 돌아 동쪽의 현재 310번 지방도로를 따라 오산장에 다녔다. 오산장까지는 아주 빨리 가면 45분,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3시간도 걸렸고, 보통 사람 걸음으로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사후동에서는 치고개나 화고개를 넘어서 오산장까지 갔다. 치고개는 아랫말과 새뜸, 중간말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고현리로 넘어 오른 쪽 산길로 걷다가 지금의 고현동 마을 앞 작은 고개를 넘어 당말을 지나 오산장으로 갔다. 이 길은 통삼리 멍개, 원포, 통골 사람도 많이 이용했다. 또한 윗말과 비탈말 사람들은 화개골로 올라가 화고개를 넘어 역말 저수지 옆을 지나고 역말 앞을 통해서 오산장까지 갔다. 통삼리의 동막 사람들도 이 길을 통해 오산장에 갔으며, 특히 동막에서 나무장사 하는 사람들이 소에 나무를 싣고 오산에 나무팔러 많이 오가는 길이었다. 사후동에서 오산까지는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많은 짐을 싣고 갈 때 동추골에서는 마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사후동에서 오산 가는 길에는 마차가 다닐 수 없어서 지게를 이용하거나 소 길마에 짐을 실었다.

현금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에서 살 물건이 있으면 곡식을 갖고 장에 가서 팔았다. 주로 쌀을 가져가고, 콩이나 팥, 깨 등 잡곡을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 지고 갔다. 쌀이나 곡식이 없는 경우에 남자들이 오산장에 나무를 팔고 생필품을 구입하기도 했고, 도토리를 주어다 묵을 쑤어 팔거나, 나물을 캐다가 삶아서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비누나 성냥 같은 필수품을 샀고, 특별한 반찬거리로 동태, 고등어, 갈치 같은 생선도 샀다. 점심때가 되어 배고프면 찐빵으로 허기를 달래기도 하고, 아이들 간식거리로 찐빵을 사오기도 했다. 1970년대까지는 장에 나가서 배가 고파도 돈이 귀하였기 때문에 국밥 한 그릇을 못 사먹을 정도였다.

동추골 홍찬의씨가 어렸을 때 마을 북쪽 그가 살던 집 위(동천리 328-1)에 술을 파는 일종의 마실방이 있었다. 집은 허름한 오막살이 모습이었고 주인은 홍찬의씨가 예닐곱 살쯤 되었을 때 화성군 정남면 쪽에서 이사왔다. 아내는 술을 빚어 팔았고, 남편은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곳에서는 주인이 손수 술을 빚어서 팔았기 때문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 역할을 하였다. 집에 손님이 올 때 술대접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 술집은 10여년 이상 유지 되다가 마을 사람들이 점차 동천주막으로 다니면서 없어졌다.

동천주막은 경부고속도로 외동천교 북쪽 아래로, 현재 주소로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870-7’에 있었다. 이곳은 안성과 오산을 오가는 길과 사후동에서 동춧골을 거쳐 봉남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교차되는 지점으로 장꾼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홍찬의씨는 이곳에 주막이 원래 하나였다가 1945년 해방 이후 오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3∽4곳 정도까지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1967년 항공 지도에는 여전히 1곳으로 보인다. 주막은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홍석용씨는 서울로 올라갔다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60년 동추골로 들어와 친구와 함께 가게를 열었다. 같은 집안이자 동갑내기인 홍석태씨와 각기 쌀 2가마씩 대고 ‘동천리 339’에 있는 집 사랑방을 얻어 가게를 시작했다. 성냥이나 비누 같은 생필품이나 잡화류를 팔았는데 1년 반 정도 운영하다 홍석용씨가 군에 입대하게 되어 홍석태씨 형인 홍석우씨가 가게를 인수하여 ‘동천리 337-1’로 옮겼다.

마을회관 겸 가게 건물

홍석우가 운영하던 가게 자리

홍석우씨 가게는 마실방을 겸하였다. 과자류와 담배, 술, 석유 등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팔았다. 당시에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저녁 식사 후 이곳에 모여서 화투놀이를 하는 등의 여가를 즐기는 장소였다. 홍찬의씨는 저녁밥만 먹으면 이곳에 모여서 잡담하고 나이롱뽕하고 놀았다고 회상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간단한 요기도 할 수 있었다. 국수와 주인이 직접 만든 메밀묵도 팔았기 때문이다. 술은 조그만 항아리에 배달해 오면 잔으로 따라서 팔았고, 소주도 잔으로 사먹었다. 홍석용씨(남, 1939년생)는 이것을 고리술 또는 고리소주라고 했다. 소주는 오산에서 사오고, 막걸리는 봉남리 양조장에서 가져왔다. 가게가 있던 자리에 지금 2층 주택을 신축중이다.

1970년, 홍석용씨가 사랑방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집 앞마당을 집주인이 빌려주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창고를 지었다. 후에 서울 생활을 하던 홍석용씨가 사비를 들여 건물 내부를 3:1로 나누고 넓은 쪽에 방을 들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적은 쪽 공간에서 창고자리 주인이 가게를 차려 운영하던 것이다.

동추골과는 달리 사후동에는 가게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부녀회장이었던 차옥순씨가 사후동의 절미저축 운동 사례를 발표한 결과 우수 사례 마을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으로 마을 구판장을 시작하였다. 마을에 가게가 없었기 때문에 생필품을 위주로 했던 구판장은 영업이 잘 되었다. 처음에는 한 달 주기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판매를 담당했다가 마을 중심에 있는 집으로 고정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집 딸이 판매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렇게 잘 운영되었던 마을 구판장은 차옥순씨를 비롯한 부녀회원들이 오산장에 물건을 사러갔다가 공금을 소매치기 당한 것을 계기로 문을 닫게 되었다.

4) 제조업 및 유통업

(1) 동천1리

상 호	업 종	주 소
경인환경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진위면 진위로 181-55
성우이엔씨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진위면 진위로 181-39
코아텍	그 외 기타 축산업	진위면 진위로 181-21

상 호	업 종	주 소
바이엘크롭사이언스	농화학제품	진위면 진위로 149
글로셈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진위면 진위로328번길 58
삼우텍	전기용 기계ㆍ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진위면 진위로328번길 56
케이-미디어플러스	주방가구 유통, 판매	위면 진위로 271
대원포장	포장	진위면 진위로 303
신신진건설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진위면 동천1길 6 가동
아이테크		진위면 동천1길 60
디엔산업	창호제조	진위면 동천1길 60
석산유통	식품유통	진위면 동천1길 54
케이에스티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진위면 동천1길 28
위테이프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진위면 진위로 318
글로벌팩	포장	진위면 진위로328번길 1
유통로지스	포장 및 충전업	진위면 진위로 341-21 1층
플레저카라반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진위면 남부대로 657
스틸브로	전기공사	진위면 남부대로 645 (우)17711
비비단열	건설자재	진위면 남부대로 641
대정테크놀러지	산업용 로봇 제조업	진위면 남부대로 635
고속로지스	운송업	진위면 남부대로 627-2
한라스포츠해피런	운동기구	진위면 남부대로 627-3
현대케미칼	포장완충제	진위면 남부대로 617
삼희기업	지붕, 내ㆍ외벽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진위면 남부대로 630-20
갑부산업개발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진위면 남부대로 630-22
거해슈레다공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진위면 남부대로 630-27
져스텍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진위면 남부대로 630-46
레드애로우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진위면 남부대로 630-48
동성에이앤티	제조업	진위면 남부대로 630-59
오스텍	산업용 로봇 제조업	진위면 남부대로 630-67 2~3층

(2) 사후동

상 호	업 종	주 소
에이엠테크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진위면 동천길 132-52
농업회사법인 백성	농약유통업	진위면 동천길 132-66
열성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진위면 동천길 119-18
에스시티주식회사	전기판넬 제작	진위면 동천길 119-20

상 호	업 종	주 소
제이와이엔진니어링	엘지협력회사	진위면 동천길 119-20
에스팩	수출포장	진위면 동천길 119-20
㈜건종	신발도매업	진위면 동천2길 14-15
명신에프엔에스	신발도매업	진위면 동천2길 14-21

4. 사회생활

1) 공공시설

(1) 동천보건진료소

동천보건진료소

진위면 3개리의 일부가 1995년 오산시로 넘어가기 전에 보건진료소는 고현1리인 지금의 LG전자 앞에 있었다. 이 진료소에서는 고현 1·2·3리, 청호 1·2리, 갈곶 1·2리, 동천 1·2리 등 9개 마을과 인근의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사람들이 이용했다. 1995년 갈곶리, 고현리, 청호리 일부가 오산시에 통합되려하자 이 보건진료소가 안중읍 안중리로 이전되려고 했다. 이때 사후동의 최창렬 이장이 평택보건소에 가서 '기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던 진료소인데, 고현리가 오산으로 넘어갔으니 이것을 사후동으로 옮기자,' 고 제안하여 1995년 사후동 마을회관 1층으로 이전되도록 했다. 최창렬 이장은 이때부터 2013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2004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끌어서 보건진료소 단독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무산되었고,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현덕면 인광리로 넘어갔다. 다시 2009년에 신축을 추진하여 경기도 1억, 평택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때 확보된 예산은 건물 신축비였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 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다시 마을 주민과 주변의 찬조를 받아 1억 2천만 원을 모아 진료소 신축부지 153평을 구입하여 평택시에 기부채납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에 1층 30평, 2층 30평 규모로 지금의 동천리보건진료소를 준공하게 되었다. 2022년 현재 1층은 원장실과 휴게실이 있고, 2층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워둔 상태다.

진료소 휴게실

동천보건진료소 준공 건립비

동천리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 1명[김수진(여, 1993년생)]이 근무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하루 약 8~10명이 진료소를 찾고 있으며, 주로 고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을 처방받는다. 중환자는 응급조치 후 진위면 봉남리에 있는 119 구조대에 의뢰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동천 1·2리, 고현리를 비롯하여 남사면 봉명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값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료, 65세 미만은 900원을 받고 있다. 보건진료소 입구 우측 동천보건진료소 준공건립비에는 당시 성금을 출연했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전경

수련원 정문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은 '진위면 진위로 181-94(동천리 679)' 에 위치하고 으며, 전체 부지 134,846m2, 건축연면적 7,590m2의 규모를 갖고 있다. 수련원이 들어서기 전에 이곳에는 어린이 농장에서 설치한 어린이 체험 시설이 있다. 무봉산 수련원은 1999년 10월에 준공하여 2000년 2월 1일 '재단법인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설립되면서 문을 열었다. 수련원측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자연권 수련시설을 조성하여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친자연적 체험활동, 심신수련 활동, 자기개발 및 정서함양 활동, 지적탐구 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봉사 활동을 통하여 배움을 실천하여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육성케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라고 설립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수련원 진입로

중앙현관 로비

천문대

잔디구장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의 수련프로그램 운영 현황

영역	세부 강좌 내용
자아역량	태양관측, 천체관측, 진로체험
갈등조절역량	협력게임
문제해결역량	응급처치, 범인찾시, QR코드
성취동기역량	두드림(난타, 매직풍선, 도예, 첼린지

영역	세부 강좌 내용
대인관계역량	포크댄스, 협력게임
리더십역량	컬러리더십, 회의진행법
신체건강역량	인공암벽, 오리엔티어링, 야간산행, 펀아처리(국궁서바이벌), 서바이벌
시민성역량	영농체험, 어울림마당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의 주요 시설

구분		규모	주요 내용
숙박시설	화랑관	32명 수용	10인용 28실, 지도자용 2실
	무봉관	536명 수용	6인용 30실, 1층 침대방, 2·3층 온돌방 TV, 개별세면, 샤워, 화장실, 휴게실
연수시설	대강당	400명 수용	빔프로젝트 조명, 음향시설 등 교육기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세미나와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가능
	중강당	150명 수용	빔프로젝트 등 프리젠테이션 강의가 가능하며 집중교육 및 토론식 교육, 회의에 적합
	세미나실 /소강당	50명 수용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등 교육기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소규모 세미나와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가능
활동시설	도예교육관	80명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살리는 코일링, 페인팅, 전기물레성성(환원가마 1대, 전기가마 1대)
	천문우주관	80명	슬라이드 돔(굴절식 망원경 4대), 7M 원형돔(16인치 반사굴절식전자동망원경 1대), 태양관측용 천체망원경 3대, 빔프로젝트 등 프리젠테이션 강의
	수영장	900명	야외 수영장
	눈썰매장	900명	청소년/성인 슬로프와 유아용 슬로프를 구비함.
	인공 암벽장	6M×10M	야외 인공 암벽장
	서바이벌 게임장	100명	팀 대항 전략과 전술을 펼치며 조직력을 높이는 서바이벌 게임 진행 가능함.
	짚라인 /챌린지장	100명	사계절 언제나 가능함.
체육시설			잔디운동장, 소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부대시설	식당	300명	
	로비		휴게 및 전시 공간, 인터넷 가능
	교사 휴게실	20명	스크린골프/당구대, 노래방 기기
	접견실,귀빈실	10명	VIP·내외빈·강사들 접견 할 수 있는 공간
	보건실	3명	환자를 위한 휴식 공간
	매점		지하 1층, 음료, 기념품 판매
	북카페		

(3) 야생동물학교

경기도야생동물학교

야생동물학교는 '동천길 132-93(동천리 57번지)' 의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 내 전체 3만8천198㎡ 규모 부지에 국비 28억 원과 도비 77억 원 등 모두 1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2020년 6월 착공해 2021년 11월 20일 완공되었다. 현재 수의사 6명이 근무하며,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2021년 진입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 되었다.

이곳은 경기도청 동물보호과 소속으로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와 치료 등을 받은 야생동물 중 자연 복귀가 가능한 동물은 재활훈련과 방사를, 불가능한 영구장애 동물은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야외 계류장에서 실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계류장 내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구조된 후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자연 복귀가 불가능한 동물이다. 전시 공간에는 야생동물 관련 체험물이 설치돼 있다. 야생동물을 벽면 영사해서 특정 동물을 터치하면 각 동물의 움직임과 울음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성숙한 인격 형성과 생명 존중 의식,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 등을 배워볼 수 있는 학습장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

2) 마을조직

(1) 이장

임기 2년의 이장은 마을 대동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거나 추대하는 형식으로 정한다. 이점은 평택 지역의 다른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장은 마을 일을 총괄하며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면사무소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이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면사무소측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린다. 옛날 이장은 마을 경조사를 모두 챙기고 이사오는 사람과 이사 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장 집을 통해야 했다. 퇴거를 할 때도 이장 도장을 받았다.

동천1리 이장 홍석진

동천2리 이장 최창렬

동추골의 홍찬의씨(남, 1934년생)는 1968년부터 3년 동안 이장을 맡았다. 당시에는 마을회의를 이장 집에서 열었다. 정부에서 나오는 비료를 나눠주는 일이 이장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에 비례해서 비료를 나눠줘야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계산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장은 지금처럼 마을 대동회에서 선출하였다. 이장과 더불어 마을의 잔심부름을 하는 소사도 뽑았다. 이장은 대동회에서 뽑고, 소사는 대동회에서 선출된 이장이 지명하였다. 소사는 이장의 명을 받아 여러 가지 잔일을 도맡았다. 경조사 등 마을 주민의 집에 일손이 필요하면 가서 잔일을 하거나 심부름도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소사를 부르진 않았다. 일을 시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장은 주로 마을 행정과 관련된 일을 했다면 소사는 몸으로 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장보다 바삐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소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맡는 일이었다. 소사가 없어진 뒤에는 반장들이 소사 일을 대신 했다.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리세(里稅)를 거둬서 이장과 소사에게 수고의 댓가로 주었다. 리세로는 봄에 보리 2말, 가을에 벼 2말을 거둬서 이장에게 1말, 소사에게 1말을 줬다. 봄과 가을에 보리와 벼로 냈던 리세가 시간이 지나 전체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서 봄에는 보리쌀, 가을에는 쌀로 바뀌어었다.

현재 동추골의 이장은 비교적 젊은 홍석진씨(남, 1963년생)이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타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10년 전쯤 고향 마을로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애정도 많고,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할미재 부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권혁창씨(남, 1980년생)는 “이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며 자주 방문하고 있다.” 며 현재 이장의 적극성을 평가하였다. 그래서 그는 현재 가곡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추골 마을 일에 협조적이다. 또한 홍석진 이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채소 모종이나 비료, 소금 등을 신청해 놓으면 노인 분들이 갖고 가기가 어려워 이장이 대신 배달을 해준다. 현재는 장기 프로젝트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주민들과 더불어 마을 기금으로 저수지 둘레를 중심으로 마을 주변에 벚나무 등 300주의 나무를 심었다.

사후동 최창렬씨는 1980년 이후 현재까지 42년 사이에 32년째 이장을 맡고 있다.. 이장을 보던 1980년 전후에 마을 이장은 주로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새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동저수지 관리를 담당한 수리계장도 30년 넘게 맡고 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 1982년 오산에서 서울여객이 사후동까지 운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고현리에 있던 동천진료소도 사후동으로 유치하는 데 앞장섰으며, 봉명리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넓히고 정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헌신적 노력을 마을 주민들도 인정해서 노인회 주관으로 마을회관 앞에 최창렬 이장의 공적비를 세웠다. 새마을사업 같은 마을 일과 면에서 열리는 회의에 다니느라 바빴지만 별도의 보수가 없었고, 가을에 주민들이 각기 쌀 1말씩의 리세를 걷었다. 대략 30가구 정도여서 걷은 쌀은 3가마가 되었다. 이 쌀로 대동회 때 마을 사람들이 먹는 밥과 반찬을 마련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반장에게 신발값 명분으로 약간의 댓가를 지불하였다. 지금은 평택시에서 매달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마을회관 옆 최창렬 이장 공적비

(2) 대동회

대동회는 매년 12월에 열리는 가장 큰 마을의 정기 행사이다. 대동회가 열리면 이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마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다음해의 계획을 주민들과 논의한다.

동추골 대동회는 매년 12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며, 마을 사람들의 80%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홍석진씨는 마을의 원주민 뿐만 아니라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까지 함께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할미재 부근에서 OK목장을 운영하는 000씨(남, 1971년생)는 “이장님이 여기 마을 사람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이사온 000씨는 ‘토박이들이 자기들끼리 생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동추골에서 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주로 주민들의 찬조를 받아 모은다. 원주민들을 비롯하여 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찬조를 하여 마을의 각종 행사 진행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 올 해(2022년)의 경우 겨울에 있을 대동회를 제외하고 1,100만원 정도가 모금되어 마을 행사 진행에 넉넉하게 썼다.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홍석진씨는 마을 주변의 회사에는 구걸하는 것 같아서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했다.

사후동 대동회는 매년 12월 하순에 날을 잡아 열린다. 마을 회의는 마을회관에서 했지만, 대동회는 이장 집에서 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점심을 이장 집에서 대접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대동회 때 쌀 1말씩을 낸다. 새로 이사온 사람은 당해에는 쌀 2말을 냈다. 이것으로 이장네 집에서 밥과 반찬을 하는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 구둣값 명목으로 주었다. 현재 대동회에서는 그해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2년에 1회 이장을 선출하며 마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 후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동회를 마치게 된다.

(3) 부녀회

동추골의 새마을 부녀회는 1970년대 초반에 조직되었다. 부녀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된 주요 사업은 절미운동이었다. 절미운동을 통해 집집마다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는데, 쌀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절약하여 모았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식기(食器)를 보관하는 찬장을 사는 집이 많았다. 이전에는 식기를 시렁에 올려놓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럴 경우 나무로 불을 때는 부엌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서 위생상 문제가 많았다. 동추골에서는 아직도 당시에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부녀회장들이 있다. 유연순 회장은 진위면 연합회부녀회장이었으며, 오현순 부녀회장은 마을 전체 행사가 있을 때나 마을 주민중에 초상이나 잔치할 일이 생기면 부녀회원들과 함께 상차림을 주도하는 등 적극성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00년 7월 20일 장마로 무봉산 산사태로 당시 부녀회장인 오현순씨 부부가 살림집을 치고 나간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불행한 사태를 겪기도 했다. 지금은 부녀회가 마을 행사가 있을 때 회관에 모여 음식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동추골 부녀회장이 면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았다.

사후동 차옥순씨(여, 1947년생)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각 마을마다 부녀회가 조직되어 가고 있는 시기인 1975년 무렵 면사무소측의 권유로 절미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듬해 사후동 부녀회를 정식으로 조직하고 초대회장이 되었다. 부녀회의 주요 활동은 절미운동이었다. 절미운동에는 당시 거주했던 30여 가구 모두가 참여했다. 집집마다 일정한 규격의 양철에다가 ‘절미농가’라는 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여주었다. 또한 참여하는 모든 집 항아리에는 ‘절미저축’이라는 글씨를 썼다. 집집마다 절미운동으로 모은 쌀은 한 달에 한 번 부녀회장 집에서 모아 오산장에 가서 팔았다. 보리밥만 먹는 집에서는 적은 돈이나마 현금으로 냈다. 절미를 해서 모은 돈의 일부를 떼어서 부녀회 자금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오산의 서울여객 회사에 찾아가 애걸하여 이 회사 버스를 무료로 얻어서 속리산 관광을 갔다. 이를 계기로 이후에는 절미운동으로 모은 기금으로 해마다 한 번씩 5∽6년 동안 모내기를 마친 후 관광을 다녔다.

동천2리 사후동 부녀회를 설립한 차옥순 부부

차옥순씨는 자신이 경험한 절미저축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구까지도 사례발표를 하러 다녔다.[55] 나중에는 변웅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MBC TV 프로그램의 명랑운동회에도 출연하였다. 처음 진위면에서 사례 발표 후 우수사례 마을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으로 마을 구판장도 시작하였다. 마을에 가게가 없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구판장은 영업이 잘 되었다. 처음에는 한 달 주기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판매를 담당했다가 마을 중심에 있는 집으로 고정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집 딸이 판매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렇게 잘 운영되었던 마을 구판장은 차옥순씨를 비롯한 부녀회원들이 오산장에 물건을 사러갔다가 공금을 소매치기 당한 것을 계기로 문을 닫게 되었다. 절미운동과 더불어 작업반 조직에도 힘을 쏟았다. 그래서 마을에 3개조의 작업반이 조직되어 농기계가 나올 때까지 지속되었다.

현재 사후동 부녀회장인 이옥희씨(1953년생)는 25년 전에 사후동으로 이주하였고 차옥순씨 다음 회장이었던 최봉화씨에 이어 10년이 넘게 부녀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사후동 부녀회는 2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제일 젊은 축인 60대 초반이 3명이고 대부분 65세 이상이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이 협조를 받아 부녀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버이날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월·수·금요일에 노인회원 식사도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부녀회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 노인회와 공동으로 봄과 가을에 마을 청소를 하고, 면민체육대회나 대동회 때 식사를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전담한다.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봄이나 가을에 마을 주민 전체가 야유회를 갔는데, 야유회 때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 과정에서 노인들을 보살피는 등의 역할을 한다.

사후동 부녀회원은 현재 연 1회,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부녀회장이 주도적으로 농협에서 김과 액젓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상품 1건당 1천원을 떼어 부녀회 기금으로 돌린다. 보통 김은 1년에 5백 톳 정도를 판매하지만, 액젓의 판매는 다소 부진하다. 이 사업 역시 부녀회장이 주도하며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찾아 다니며 팔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모인 기금은 야유회 비용 등 부녀회 사업 비용으로 쓰인다.

(4) 노인회

동추골 노인회는 50여 명에 이르지만, 최근에 이사오거나 노인정과의 거리가 멀어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개 35명 정도의 인원이 모인다. 노인회에서는 매년 4월에 마을 청소를 하고, 가을에는 추석을 앞두고 청소를 하고 있다. 또한 봄과 가을, 매년 2회에 걸쳐 야유회를 다녔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다.

사후동 노인회 인원은 모두 37명으로 남자는 20명, 여자 17명이다. 노인회 회장은 임기 4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노인회는 평택시에서 회원수에 비례해서 쌀과 운영비를 보조받는다. 사후동의 경우 현재 쌀은 매 분기당 20kg, 운영비는 매달 26만원을 받으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점

55) 차옥순씨는 이 당시 사례발표했던 수기나 상장 등을 모아 놨다가 1994년 주택을 신축하면서 모두 버렸다고 한다.

심 때 마을회관에 모여 식사를 한다. 현재 노인회의 기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노인회와 부녀회가 주도하는 봄·가을 마을 꽃 가꾸기, 청소, 풀 깎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마을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민들의 찬조를 받아 2년에 한 번 정도 야유회를 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에서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치매예방운동 같은 프로그램을 마을 노인정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을 노인정이 폐쇄된 상태이다.

(5) 향우회

홍석진 이장에 의하면 예전부터 동춧골에 청년회가 있었다. 청년회의 전신은 1970년대에 조직된 4H였다. 4H는 고등학생 정도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조직만 갖춰놓고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옛날에는 외지로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 청년회도 잘 운영되었었다. 가령 15년 전까지만 해도 진위면민 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20∽30대는 거의 모두 모일 정도였다. 이후로는 점차 외지로 나간 젊은이들이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어 홍석진 이장이 귀향을 하면서 10년 전에 청년회를 끝내고 향우회로 바꾸었다. 이때 새로 조직된 향우회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심이고, 외지에 나간 사람들도 희망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고정 회원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15명인데, 앞으로도 마을에 거주하는 50~60대들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회비는 월 1만원으로 계산하여 1년에 12만원을 내놓는다. 향우회의 주요 사업의 방향은 '꽃마을가꾸기 사업'이다. 동천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지었던 국유지가 여기저기 있는데, 농사 짓던 분이 연세가 많아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땅을 찾아 호두나무 같은 유실수를 심는 것도 주요 추진 사업이다. 각 마을마다 조직된 마을개발위원회를 향우회원들이 겸직하여, 향우회가 곧 마을개발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6) 상포계, 상조(相助) 문화

동추골이나 사후동에서 상포계나 연반계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상을 당하면 이장이 상가 집일을 주도적으로 도왔고, 부조는 개인적인 성의 표시였다.

1934년생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홍찬의씨도 상계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친목계 같은 것을 조직하여 결혼식이나 환갑 잔치가 있거나 상을 당하면 쌀 1말 정도 부조를 했다. 이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통 쌀 2∽3되, 국수 1관, 막걸리 1말 정도로 부조를 했다고 한다. 1979년에 그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대략 70말 정도의 막걸리가 들어갔을 정도로 초상이 나면 문상객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술은 봉남리 양조장에서 자전거로 배달해 주었다. 자건거 1대에 5말을 실을 수 있어서, 계속 자전거로 배달을 했다. 상을 당하면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도 많이 왔다. 홍찬의씨가 동천주막에서 술마시면서 알게 된 친구들도 와서 장례 기간 내내 와서 묵었다.

장례식은 보통 3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 청년회에 속한 젊은이들이 인근 마을에 부고를 전하고 손님들에게 술대접을 하고 사랑방에 불을 지피는 잔심부름을 했다. 부녀회에서는 주로 상차림을 맡았다.

사후동에도 상포계나 연반계가 없다. 초상이 나면 상가에 쌀이나 보리쌀로 조의를 표시했다. 결혼식 같은 잔치가 있으면 콩나물 1시루 길러다 주거나 국수 1∽2관을 갖다 줬다. 점차 현금으로 1~2만원 했는데, 최창렬씨는 요즘은 5만원도 낯간지러워 10만 원 정도 보낸다고 했다.

2)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1) 마을회관

동추골에 마을회관이 없었던 시기에 마을회의는 주로 이장 집에서 열렸다. 동추골 마을회관은 1970년 무렵 홍석우씨네 땅에 마을사람들이 창고를 지었던 데서 출발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창고는 마을 사람들이 부역으로 진위천에 가서 모래를 퍼다가 블록을 찍어서 지었다. 이후 서울 생활을 하던 홍석용씨가 창고 넓이의 2/3 정도를 막고 방을 들여주어서 마을회관이 되었다. 서울에 사는 이 마을 출신이 사준 TV도 들여놨다. 현재의 마을회관 신축은 2014년 마을 동쪽으로 고압선이 설치되면서 보상으로 나온 3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시작되었다. 이 돈으로 부지 100평을 마련하고, 학농원 안에 있었던 마을 공동소유 토지 6백평을 평당 25만원에 매각한 금액에다 평택시에서 보조 받은 돈을 합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마을회관 뒤쪽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창고를 지었다. 창고는 현재 임대중이다. 마을회관은 단층 30평으로 운동기구를 구비하고 식당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천1리 옛 마을회관

동천1리 현재 마을회관

동천2리 마을회관

동천2리 마을회관 원경

사후동은 원래 마을회관이 없어 당시 부잣집인 구성회씨의 2칸짜리 사랑방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다가 구성회씨가 회관 부지 98평을 마을에 희사하였고, 이 자리에 1973년 마을회관을 처음으로 지었다. 마을 사람들이 손수 블록을 찍어서 벽을 쌓고,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서까래를 하여 기와를 얹었다. 건평은 13평 정도 넓이였다. 이후 1990년 이자헌 국회의원 교보사업으로 1,500만원을 지원 받아 1층 15

평, 2층 12평의 슬라브 건물을 지었고, 1층은 보건진료실, 2층은 마을회관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신축할 당시 마을에 기금이 없어서 지원에 대응하는 자부담 비용을 대지 못해 콘크리트에 철근을 규정대로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슬라브를 지지하는 보가 부러져 천정이 가라앉을 위험이 따르자 2000년에 9백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으나, 2020년 진위면에서 폐쇄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1억 7천만원 지원하고 2천 5백만원을 자부담하여 2020년 착공해서 2021년에 현재의 마을회관 겸 노인정을 완공하였다. 새로운 마을회관은 단층 35평으로 지었다.

마을회관 앞에는 부지를 희사했던 구성회씨 공적비와 사후동 마을에 공이 컸던 최창렬 이장의 공적비가 있다.

마을회관, 노인정 정면 출입구

구성회온정비

이장 최창렬공적비

(2) 학농원(學農園)

학농원 전경

학농원은 '진위로 206(동천리 442번지)' 에 있다. 설립자인 이범식씨는 서울공대를 졸업했는데, 대학 때 4·19혁명에 참여하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다.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을 계획했을 당시에 그는 건국대학교 교수이면서 개인 사업으로 서울 정동 이화여고 정문 건너편에 이탈리아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탈리아노는 3층으로 규모가 매우 컸으며, 당시로는 좀처럼 구경하기 어려운 훈제 요리로 유명하여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레스토랑이었다. 김포공항 쪽에도 레스토랑이 있었고, 양쪽을 모두 합치면 직원 수가 90명이었다.

학농원 전경과 진위천

고 박은선 전 원장(2006년) [사진: 김해규 제공]

본관으로 사용하는 옛 숙소 건물

이탈리아노(2006) [사진:김해규 제공]

이범식씨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 아이들에게 자연과 숲이 어우러진 곳에서 아이들이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에 관심이 많았다. 이후 자신과 뜻이 맞는 지인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이탈리아노 레스토랑에서 주로 만나 논의하면서 교육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이때 함께 의논했던 인물로는 재무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지낸 남덕우, 정치가로서 3공화국 때 민주당 총재를 역임했던 박순천 같은 인물들도 있었는데, 정년퇴직한 교장 출신들이 많았다.

처음 대상지로 고려했던 장소는 양평, 만리포, 군포, 진위 등 여러 곳이었고,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한 곳도 여러 군데였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 최종적으로 진위면 동천리 현재 학농원 자리를 선정했다. 여기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진위천 때문이었다. 자연스럽고 맑은 물이 흐르는 진위천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어서 그가 체험 교육 공간으로 구상했던 이상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그는 1968년 이곳을 매입하여 1971년 어린이들의 체험 교육을 위해 어린이농장 학농원의 문을 열었다.[56] 규모는 대략 3만 평 정도였는데, 공사 전에는 잡종지가 대부분이었다. 이 넓이의 땅을 처음부터

56) 어린이농장이 들어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동추골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다소 차이가 있다. 1934년생으로 학농원이 들어서기 전 토지 매입에 관여했던 홍찬의씨가 기억하는 동천리 사람들의 토지 매각 시기와 과정은 아래와 같다.
‘1971~2년 무렵 마을 사람들은 쌀 2되 또는 쌀 2되에 해당되는 120원에 농지를 팔기 시작했다. 홍찬의씨네 집도 형편이 어려워 700평의 논을 팔아 장례쌀 빚을 갚았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장례쌀로 인한 빚을 청산하기 위해 땅을 팔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농지는 처분했던 이유는 대부분 빚을 갚기위한 방편이었다.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서울 영등포에 사는 차기순씨였다. 그가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농지 값을 올려 평당 쌀 3되를 받고 넘기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4~5년(2년동안)에 걸쳐 매입한 땅을 어린이농장 설립자인 이범식씨에게 넘겼다.’
홍찬의씨의 기억에 따르면 학농원은 빨라야 1975년 무렵이 되지만, 2006년 김해규가 학농원 설립자인 이범식씨 부인인 박

모두 매입한 것 같지는 않다. 조영배씨(남, 1943년생)는 “학농원에 임대한 땅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동추골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4년 학농원 안에 있던 600평의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던 사실도 있었다. 학농원이 문을 열고 나서도 임대했던 땅을 계속 매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농원 앞 진위로

어린이 체험학습

1971년 당시만 해도 평택과 오산 지역이 농촌의 모습에 까까웠기 때문에 자연학습장인 어린이농장에는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서울에서 왔다. 농촌 체험은 통상 1박2일 과정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1971년 숙박시설도 만들었다. 또한 150평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방갈로를 짓고 마당에는 잔디를 심는 시설도 마련했다. 숙박 시설은 2층 콘크리트 건물로 지금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1979년 봉남교 옆에 송탄취수장이 설치되면서 봉남교 북쪽의 진위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폐수 방류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1박2일 프로그램을 당일치기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진위천에서 마음껏 아이들을 뛰놀게 하려는 계획도 실행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당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두부만들기, 야생화 체험 동천리까지 걸어가서 학 구경, 진위천에서 물고기 잡기 등 다양했고, 예절교육과 나라사랑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있었다. 훗날 이범식씨가 타계하고 부인인 박은선씨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운영을 맡았을 때 초창기에 교육 받았던 어린이가 46세의 나이가 이곳을 방문하였다. 그는 “예전에 교육을 받고 많이 감동했다.”면서 당시 교육받으면서 느끼게 된 마음을 털어놓았다.

학농이 문을 연 초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다. 비용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금, 그리고 서울 이탈리아노 레스토랑 운영 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차관급 공무원들의 후원금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1980년대부터 1990년도까지가 학농원이 가장 번화한 시기였다고 말했다.[57] 손님이 한참 많을 때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버스가 20~30대 이상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체험객이 많아지자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마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때 조영배씨를 비롯한 5~6명의 주민이 학농원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마차을 운영했다. 농원측에서 탐방객 수요에 따라 불렀는데, 많을 때는 마차 4~5대, 적은 때는 2~3대가 필요했다. 마차는 오전 11시 무렵과 오후 3~4시 무렵, 하루 2회 운행했다. 학농원에서 마을로 들어와 동천리은행나무 왜가리 서식지를 보고 돌아 나갔다. 때로는 만기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조영배씨는 그 때 받았던 보수를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학농원 근처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찬씨(남, 1973년생)는 초등학교 2학년인 1981년에 동천

은선 원장과의 인터뷰에서 1968년에 매입하고 1971년에 문을 였었다고 했다.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75쪽) 이 내용을 갖고 홍찬의씨에게 다시 확인했더니 그는 당시 남북적십자회담이 있었으며, 학농원은 1972년에 이루어진 경지정리 후에 들어선 것이라고 하였다.

57) 현재 학농원의 대표인 이규상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타계하신 1993년도가 학농원 탐방객의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라고 하였다.

리에 와서 어릴 때 체험객들이 마차 체험하는 장면을 많이 봤고, 학농원으로 놀러갔던 기억도 있다. 마을 아이들은 가서 놀기는 했지만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한 것 외에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현재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자리에도 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보았다. 이규상 대표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자리를 임대해서 극기훈련장을 마련했던 것이다. 짚라인, 균형잡기, 암벽오르기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을 갖추었다. 1990년대 말 수련원이 들어서면서 극기훈련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1980~1990년대는 인근 송탄시에 사는 아이들도 학농원 수영장으로 물놀이는 했던 아이들이 많았다. 당시 인근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학농원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 아이들의 소풍이나 체험학습 장소로도 각광을 받았다. 승용차 문화가 확산되던 1990년대 중후반 학농원 인근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로 많이 찾던 장소도 학농원이었다.

학농원이 한창 번창하였던 1993년, 이범식씨가 타계하자 부인인 박은선씨가 원장이 되어 운영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1999년 경기도 화성에서 씨랜드참사 사건[58]이 일어나자 이후 2년 동안 탐방객이 거의 없어 운영이 어렵워지자 학농원 안에 이탈리아노 레스토랑을 개업하였다. 이즈음에 학농원은 주변 마을 사람들의 민원에 시달리게 되었다. 즉 진위천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 때문에 마을 사람이 학농원의 건축물들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은선 원장의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잘 해결 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박은선 원장은 2009년 전후부터 이벤트 회사에 전체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고 본인은 이탈리아노 레스토랑만 운영하였다. 박은선 원장은 2020년 타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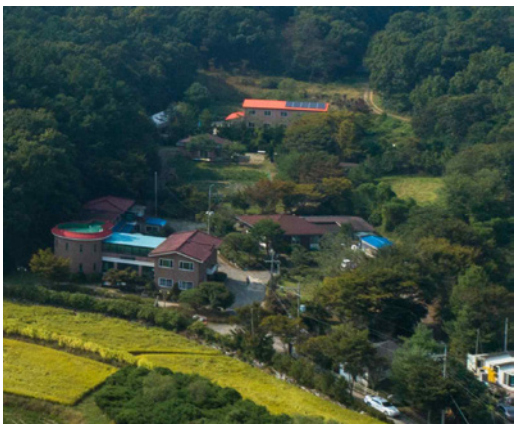
설립자인 이범식 선생의 손자이자 현재 학농원 대표를 맡고 있는 이규상씨는 5년 숲해설가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5년 전부터 직접 이곳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부채가 쌓였던데다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너무 힘들어져서 농원 전체의 1/3 조금 안 되는 넓이와 예전에 숙소로 썼던 본관 건물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부채를 청산하였다. 이탈리아노 레스토랑 건물은 경매로 매각되었다가 이곳을 임대 운영했던 이벤트 회사에서 인수하였다. 현재는 리모델링 중이다.

숲해설가였던 이규상 대표는 인근에서는 보기 드물게 여기어 오래된 나무가 많아 좋은 환경 교육 장소가 되고 있으며, 자신은 새로운 개발보다는 이곳을 원래 모습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에는 최소 50년 이상 된 메타세콰이어나 플라타너스 같은 오래된 나무가 거대하게 서 있고, 자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숲이 잘 유지되고 있다. 한편, 현재 오래된 건물 2동이 있다. 숙소로 지어졌던 본관 건물은 1971년에, 박은선 원장이 기거했던 건물은 1980년에 각각 건축되었다. 이 건물들은 진위천의 모래를 파다가 이곳에서 벽돌을 찍어서 지었다. 지금도 못이 박히지 않은 정도로 단단하지만, 누수가 심해 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상 대표는 낡은 건물도 신축보다는 유지·보수 하는 길을 선택했다.

학농원은 현재 주말이면 본관 건물에 카페를 열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계절별 체험학습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8)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아이들 19명 교사 4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다.

(3) 혜인요양원



혜인요양원 전경

이해인 원장

혜인요양원은 사후동 비탈말 서쪽인 '동천2길 45-29(동천리 156)' 에 있다. 간호사 출신인 강해인씨(여, 1952)가 1999년 시설을 완공하고 2000년 1월에 정식 인가를 받은 요양시설이다. 간호사 출신이 세운 요양원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호이다. 전체적인 부지가 3천 여 평에 요양시설, 교회, 텃밭, 산책코스, 관사 등을 갖추고 있다.

강해인 원장은 우리나라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는 처음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에 퇴직을 하고 혜인요양원을 세웠다. 이 요양원이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집안 어른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문화가 낯설었고, 전국에 치매 요양 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초창기에는 요양보호사 교육도 실시하여 3기까지 배출하였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3) 가정 생활

(1) 혼례

동추골 홍찬의씨는 이웃 청호리에 살았던 부인과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중매는 사촌 매부가 했다. 어머니와 함께 기나지 고개 너머 청호리 신부집까지 40분 정도를 걸어가서 맞선을 봤다. 결혼식 당일 집안 어른 몇 분과 함께 집을 나서 오전에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한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은 걸어서 동촛골 신랑 집으로 왔다. 재행갈 때는 떡과 고기 등 음식을 짊어지고 갈 2∽3명의 사람을 사서 대동하고 처가댁에 갔다. 당시 재행 때는 2~3명의 남자가 짊어지고 갈 분량의 음식을 해서 사람을 사서 짊어지고 가거나 소마차에다 싣고 갔다. 재행을 가서는 그 마을 젊은 사람들한테 매를 죽도록 맞았다고 할 정도로 시달렸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결혼을 앞두고 예물이나 예단 등을 신부댁과 상의하여 반지를 주고받았다. 반지 교환은 당시 가장 기본적인 결혼 예물이었다고 한다. 반지 외에 신부 집에서 양복 1벌과 오바라고 불리는 코트를 해줬다. 외아들이었던 그는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동추골 000씨(남, 1938년생)는 25세에 선을 봐서 결혼했다. 당시 결혼 연령대에 비추었을 때 보통 나

이였다. 동생 한 명이 신부가 되는 수원 할머니 집 앞에 살았던 봉남리의 외사촌 형님이 중매를 섰다. 어머니와 시누이, 중매잡이 세 명이 선을 보러 갔고, 신부 쪽에서는 신부의 할머니가 동천리에 와서 신랑을 보는 것으로 혼약이 성사되었다. 이후 신랑이 사주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고 신부 옷감 한두 벌 같이 넣어서 신부댁으로 갔다. 당시에는 서로의 사주(四柱)가 오가는 것으로 약혼식을 대신했고, 약혼식이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던 때였다. 이후 3∽4회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둘이 만났다. 당시에 다방은 어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생각해서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 했다. 2월 초에 사주를 갖다주고 10월에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올렸다. 혼례식을 하러 신부집에 갈 때는 트럭을 불러 친구들과 함께 타고 갔다. 혼례식에는 ‘우유샌님’이라고 불리는 집안 어른이 반드시 따라가서 혼례식 하면서 먼저 신부로부터 절을 받는다. 우유샌님으로는 집안 내 어른이 가는데, 보통 아버지가 가시고 아버지가 없으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대신할 수 있다. 친구들은 보통 5∽10명 정도가 따라간다. 혼례식을 치른 후에 신랑·신부는 택시를 타고 친구들은 혼수품을 실은 트럭을 타고 돌아왔다. 예물로는 시계와 반지를 했으며, 혼수는 장롱과 신부가 입을 옷이었다. 재행을 갈 때는 주변 아주머니들이 함께 인절미를 장만해가지고 갔고, 친정에서는 계피떡을 해주었다. 막내였던 그는 결혼 이듬해에 군에 입대하였다. 군 제대 후 분가를 해서,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5년 동안 형님 내외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세간을 난 것이다.

(2) 장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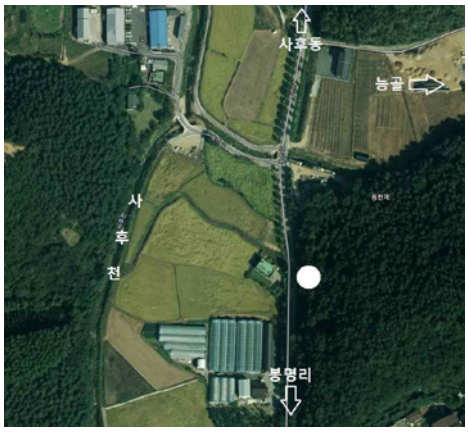
사람이 죽으면 지관을 불러 묘자리를 잡았다. 기나지 고개 너머 지금은 오산으로 편입된 고현리 주막에 있었는데, 아내는 술을 팔고 다리 하나가 없는 남편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지관을 했다. 홍찬의씨는 사후동에도 주옥성이라는 지관이 있었으나 고현 주막의 지관만큼의 인기는 없었다고 했다. 최창렬씨에 의하면 그의 할아버지인 최봉화씨가 마을 아이들에게 한문과 붓글씨를 가르치면서 지관역할도 해서 사후동과 주변 마을 사람들의 묘 자리를 많이 잡아주었다.

동천리 공동표지

묘는 자기 산이 없으면 친척 소유의 산에 묘를 쓰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동묘지에 묻었다. 공동묘지는 ‘동천리 산117-1’에 있다. 이 묘지는 평택시에서 관리하며, 40년 전부터 관리비를 받고 있다.

동천1리는 오래 전부터 상여가 있었다. 상가에서 상여를 쓰고 특별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었다. 상여는 마을 서쪽 할미재천 옆인 ‘동천리 388’에 있다. 상여집은 벽돌로 쌓고 지붕은 나무로 서까래를 만들어 슬레이트로 덮었다. 동추골 상여집은 상여뿐만 아니라 줄다리기 줄도 보관해야 해서 다른 마을 상여집에 비해 다소 긴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이다.

동추골 상여집 위치



사후동 상여집 위치

상여집 옆 할미재천

동추골 상여집

상여집 내부

사후동은 1978년 무렵에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상여를 장만했다. 이전에는 주로 통삼리 동막에서 빌려다 썼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춧골에서 발인 하루 전날에 가져왔다. 이웃 마을에서 상여를 빌리면 쌀 3~5말에서 많게는 1가마를 댓가로 지불했다. 상여는 사후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옆인 동천리 산 2번지 하단 도로 옆의 상여집에 보관했다. 상여집은 벽돌로 쌓은 시멘트 담에 슬레이트 지붕이었다. 2005년도 이후 상여를 쓰지 않아 상여집도 없어진 상태다.

4) 의식주

(1) 식수 사용

"동천리는 옹달샘이 유명했지, 그래서 동녘 동자, 샘 천자지" 라는 홍찬의씨의 얘기는 동천리의 유래를 한문으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말이다. 이것은 실제로 동천리에 우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천리에는 모두 6개의 공동 우물이 있었다.

현재는 3군데가 살아있으며 나머지는 메꿔져서 주택이나 길 속으로 들어가 흔적이 없다. 물이 흔해서 그런지 우물제를 별도로 지내지는 않았고, 설날 이후 지신밟기를 할 때 우물가에서 잠시 풍물을 치며 "뚫어라 뚫어라 샘구녁 뚫어라" 라고 했던 것이 전부이다.

1960년대에는 지하수를 파고 펌프 우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주골 아래 살았던 홍찬의씨네

는 옹달샘 물이 좋았고 물을 쓰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마을 뒷산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공동 상수도 시설을 했다. 물탱크는 경주이씨 묘역 산 위에 설치했다. 상수도는 1995년 무렵에 설치되었다.

달동네는 마을 앞의 사후천 옆에서 나오는 샘을 공동 우물로 사용했다. 물은 풍부하면서도 맛도 좋았지만 여름이면 사후천 물이 불어 흙탕물이 들어가곤 했다. 그래서 몇 년 이 물을 먹다가 집집마다 펌프를 설치했다. 1995년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 물을 쓰지 않았고, 지금을 사후천 제방 길 밑에 묻혀 있다.

동추골 공동우물 위치

동천리 은행나무 남쪽편의 우물

동추골 우물과 홍석용씨

사후동은 각 웃말, 비탈말, 중간말, 새뜸, 아랫말이 각기 우물이 있어 모두 5개의 우물이 있었다. 새뜸과 중간말 우물은 바가지 우물이고, 아랫말과 비탈말, 웃말 우물은 두레박을 사용하였다. 이재천씨(남, 1961년생)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웃말 우물 앞에는 연자방아로 쓰이던 돌이 있었다. 사후동 역시 동추골과 마찬가지로 우물제만을 별도로 지내지 않았고 지신밟기 할 때 간단하게 농악을 치면서 “뚫어라 뚫어라 샘구녁 뚫어라” 라고 합창하며 의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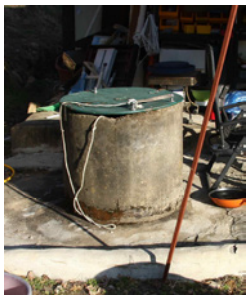
중간말 우물

웃말 우물

비탈말 우물

새뜸 우물

아랫말 우물


웃말 개인집 우물

사후동에서는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았다. 우물물도 좋아서였겠지만 무엇보다 주택들이 서로 멀리감치 떨어져 있었던 이유가 컸다. 1970년대 중반에 12가구가 관정을 파고 펌프 우물을 설치했다. 상수도는 다소 늦게 들어왔다. 이재천씨(남, 1961년생)가 2017년 자신의 집을 허물었을 때까지는 상수도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2018년에 상수도가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상수도은 고현리를 통해 치고개를 넘어서 왔다.

(2) 식생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잠깐 쌀밥을 먹었지만 대개 1월부터는 쌀 조금에 보리쌀을 많이 섞어 먹었다. 그러나 이것도 집안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자인 경우는 계속 쌀밥을 먹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직장에 다니다가 사후동에서 부잣집 며느리 생활을 했던 차옥순씨(여, 1947년생)는 다른 사람들 보리밥 먹을 때 쌀밥을 먹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의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였다. 밥을 할 때 밑에 보리쌀을 밑에 깔고 위에 쌀을 얹어서 밥을 해가지고 보리쌀은 짐승주고 쌀밥만 일꾼들을 줬다. 그런데 밥을 잘 할 줄 몰랐던 초창기에 보리밥과 쌀밥이 섞이도록 해서 시어머니께 핀잔을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는 평택의 다른 지역과 비슷하였다. 쌀이 적었기 때문에 아침 먹고 점심은 누른밥을 끓여서 먹었고, 저녁에는 죽을 많이 쒀먹었다. 또 밀을 많이 심어서 칼국수면을 만들어 감자, 파 넣고서 끓여먹었다. 이것을 장국이라고 불렀다. 특히 1960∽70년대 사방사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캐나다산 밀가루로 지급해서 밀가루는 더욱 풍부해졌다. 동추골의 홍석진씨(남, 1963년생)는 어린 시절 간식으로 집에서 찐 빵을 간식으로 많이 먹었다.

동추골의 조영배씨(남, 1943년생)는 “옛날에는 점심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침, 저녁에 죽을 많이 쒀먹었다.” 고 했다. 저녁 죽으로는 흰죽, 호박죽, 콩나물 죽, 시래기죽 등이 있었고, 특히 삶은 호박에다 밀가루를 풀어서 만든 호박푸레기를 많이 해먹었다. 시래기죽은 잔뜩 넣고 쌀은 아주 조금 넣어 죽을 쒀 먹었다. 감자 고구마는 간식거리로 먹었지만 식사를 대신하는 먹거리였다. 어려운 사람들은 저녁에 고구마 쪄서 먹고, 물 많이 마시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동춧골의 000씨(남, 1938년생)는 24세인 1962년도에 라면을 처음 먹었다. 당시 장가를 들려고 댕기풀이를 하려는데 친구들이 라면 맛을 보고 싶다고 해서 라면을 사러 수원까지 다녀왔다. 당시 오산에서는 라면을 구할 수가 없어서 수원까지 버스 타고 가서 라면을 사왔던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배고프면 라

면이라도 먹지’ 라는 말은 라면이 귀했던 시절을 모르는 말이라고 했다.

사후동의 최창렬씨(남, 1947년생)는 진위초등학교 다닐 때 진위천 장둑 타고 댕기면서 군것질로 삐래기 한 움큼씩 뽑아서 까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는 개떡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었다. 보리 수확한 후에는 보리개떡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 보리 방아를 찧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겨는 거칠어서 사람이 못 먹으니까 소나 돼지 사료, 두 번째 나오는 겨에 소다와 사카린 넣고, 나중에는 당원이 나왔을 때는 당원 넣어 개어 놨다가 찌면 색깔이 불그스름하고 아주 맛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옛날 보리개떡만큼 맛있는 게 없는 거요.” 라고 당시의 개떡맛을 평가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개떡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간식으로 먹기도 했다.

반찬은 밭과 들에 나는 나물과 채소가 전부였다. 가을에 김장을 하면 겨우내 김치와 동치미나 무짠지가 반찬의 전부였다. 봄이 되면 들녘에 냉이와 쑥, 달래 뿐만 아니라 산에는 고사리와 취나물이 6∽7가지 이상으로 산나물이 풍부했다. 산나물은 반찬으로도 해먹었지만, 식사 대용으로도 먹었다. 밥 반 사발, 나물 반 사발을 넣고 비비면 한 사발이 되었다. 나물을 많이 넣고 비벼서 먹었으니 나물도 식량이 되었다. 초여름이면 열무가 나와 열무김치를 먹기 시작하였고 여름에는 오이김치, 호박나물 등 밭에서 나는 채소류가 반찬의 전부가 되었다.

오산장에 나가 사오는 생선도 가끔 맛보았다. 당시에는 비닐봉지가 없어서 생선을 짚으로 엮어서 가져왔다. 주로 사오는 생선으로는 명태와 고등어, 물오징어였다. 그나마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이다. 조기 같은 생선은 비쌌기 때문에 명절이나 제사 때나 맛볼 수 있었다.

돼지고기를 평소에 먹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설이나 추석 때 마을에서 길러서 잡은 것을 3~5근 사다가 먹거나 제사 때 돼지고기 적이나 닭 산적을 먹을 수 있었다.

(3) 연료

산이 많은 동천리는 땔감이 풍부한 편이었다. 그래서 나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짚은 이엉을 엮기도 하고, 여물이나 땔감으로도 썼다. 이엉을 3년에 한 번 다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엉을 끌어 모아서 연료로 사용했다.

동춧골에는 70년대 중반부터 연탄 때는 집이 몇 집 있었다. 이때 석유곤로가 나와 음식 조리하기가 다소 편리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연탄 아궁이와 나무 때는 아궁이를 따로 갖추었고 음식은 곤로에다 조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탄 아궁이는 연탄 보일러로 교체했다. 연탄 보일러 난방을 3∽4년 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기름보일러로 바꾸었다가 곧 심야전기 난방으로 교체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염원하지만, 도시가스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최창렬씨는 ‘칠월비’ 라는 나무에 대해 얘기했다. 이것은 말복 지나서 나무순이 억세지면 깎아서 차곡차곡 말려가지고 묶어다가 쌓아놨다가 말려가지고 땠던 땔감을 의미한다. 여름에 칠월비 깎은 것을 가을에 때고, 가을일 마치고 지붕에 이엉까지 엮어서 얹으면 산에서 나무를 해다 땠다. 산에서 해오는 나무는 보통 오전과 오후에 각각 1짐씩 해서 하루 2짐을 했다.

사후동에서 가장 먼저 연탄을 사용한 집은 구본원씨네였다. 그의 부인인 차옥순씨의 친정아버지가 연탄 장사를 해서 이미 1970년대에 수원에서 삼천리 19공 연탄을 트럭에다 1,500장씩 들여왔다. 이 바람에 다른 세 집도 연탄을 땠지만, 다른 대부분의 집들은 1990년대까지도 나무를 땠다. 연탄은 주방 부엌에서 사용하고 소죽을 끓이거나 허드렛물을 데우는 데는 나무 땔감을 사용했다. 당시로는 연탄이 비쌌기 때문이다. 연탄을 때던 세 집이 1994년 사후동에서 처음으로 기름보일러를 놨다. 사후동 역시 아직까지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는다.

(4) 주택

동추골이나 사후동 마을에 남아 있는 옛날 주택들은 대부분 ‘ㄱ’ 자 집이다. 이 주택들은 새마을운동 이전에 초가집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옛날 주택들은 안방과 문간방, 광, 부엌, 마루 등을 갖추고 있다. 부엌에 아궁은 3개가 있었고 문간방 아궁은 따로 두었다. 기와집이 4~5채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초가집이었다. 1971년 새마을운동 때 지붕개량으로 슬레이트를 올렸다.

사후동에서 기와집은 부잣집이었던 구씨와 이씨 두 집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초가집. 지붕은 보통 3년에 한 번 바꾼다. 아직도 남아 있는 옛날 집들은 대부분 ‘ㄱ’ 자 집들이다. 1994년 구본원씨네를 포함한 세 가구가 처음으로 슬래브 주택을 신축하였다. 이때 새마을사업의 연장 선에서 1,5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 융자가 있었다.

(5) 전기, 전화

일제 강점기 때 무봉산 꼭대기에 비행기의 야간 비행 이정표 역할을 하는 20m 정도의 철탑이 설치되었다. 이 철탑에 불을 켜야 했기 때문에 가곡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전기가 들어왔고, 이웃한 봉남리도 1927년부터 전기불을 켤 수 있었다. 그러나 동춧골은 1971∽1972 무렵에 전기가 들어왔다. 홍찬의씨는 당시 “석유 2통이면 1년 내내 불을 켜는데 전기는 뭐하러 끌어오느냐”며 반대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늦어졌다고 했다.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1970년대 초반 마을에 행정전화가 설치되었다. 전화는 옛 마을회관 건물의 한쪽을 막아 운영되었던 가게에 놓았다. 당시 전화선을 지지하는 전주(電柱)가 없어서 봉남리에서부터 동추골까지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베다가 전주를 세웠다. 이 전주를 세우는 바람에 봉남리에서 집집마다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들어올 수 있었다. 스피커는 볼륨만 달려 있어 소리의 크기 조절만 가능했다.

차옥순씨에 의하면 사후동 전기는 1976년에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오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를 했고, 자부담 비용은 5년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전봇대를 세울 때는 마을 사람들이 부역식으로 나가서 일을 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마차에다 실어서 인부들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일했다. 당시 인부들은 교통편이 없어서 공사 기간 동안 마을회관 같은 데서 숙식하며 지냈다. 식사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공하였다. 전기는 기본 배선이 3군데였다. 그래서 전등은 3개만 켤 수 있었고, 나머지는 개인이 선을 이어야 했다. 몇몇 집은 전기 시설이 가설되자 실제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쌀 3가마 값을 주고 텔레비전을 사다 놨다. 그 이듬해에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는 쌀 10가마 값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이장 집에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이장이 스피커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 알려주었다. 행정전화가 들어온 후 몇 년 뒤에 사후동 집집마다 가정집 전화를 놨다. 비용은 전화비에 산입하여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전화번호는 전화국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했는데, 이때 마을 주민 90%가 전화를 놨고, 이 후에 설치한 집들은 비용을 훨씬 많이 부담해야 했다.

5. 문화생활

1) 교육

동천리 아이들은 진위국민학교에 다녔다. 동춧골에서 진위초등학교는 3km로 대략 30∽40분 정도 걸렸다. 사후동에서는 8km 거리로 당시 진위초등학교로 다니는 마을 중 가장 멀었다.

1934년생인 홍찬의씨는 1941년 진위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마쓰야마로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었고, 출석도 일본어로 불렀다. 그렇지만 아이들끼리 놀 때는 한국어를 썼다. 소풍은 주로 만기사로 다니고, 가끔은 진위향교로도 가서 보물찾기 같은 놀이를 했다. 겨울에는 1년에 한두 번 4·5·6학년을 대상으로 소풍삼아 토끼 사냥을 나가기도 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알고 나서는 ‘아 우리나라가 좋아졌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8월 16일부터 며칠 동안 풍물을 치며 잔치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추골에는 30∽4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다. 등교할 때는 마을 학생들이 모두 지금 동천1리 마을 버스정류장 공터에서 모여서 함께 등교하였다. 줄을 지어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을 부르면서 걸었고, 키가 작았던 홍찬의씨는 맨 앞에 섰다. 등굣길에는 다함께 했지만 하굣길은 각자 친구들과 집에 왔다. 1∽2학년 때는 정해진 길로 다녔지만,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동기들과 경주하듯이 뛰기도 하고 놀면서 학교 뒷산으로 올라 만기사 쪽 산길로 걸어서 집에 왔다. 당시에는 나뭇꾼들이 다니는 산길이 제법 잘 나 있어서 산길로 집에까지 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1947년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친 홍찬의씨의 동기 6명 중 한 명만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 친구는 후에 한양대학교까지 입학하여 대학까지 마쳤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례였다. 000씨(남, 1938년생)가 진위초등학교 다닐 때, 동추골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약 40여 명이었으며 10명이 넘은 동기생 중 중학교에 간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당시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큰 부잣집이나 가능한 일이었기에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생각을 안 했다.” 고 했다. 6남매 중 장남이었던 조영배씨(남, 1943년생)는 아버지가 병환중이어서 농사지을 일손이 부족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농사일을 했다. 이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진학률은 늘어났다. 특히 오산중학교가 개교하여 걸어서도 통학이 가능하게 되면서 중학교 진학률은 늘어났다. 오산중학교까지는 걸어서 대략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1970∽80년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서 대학진학률도 점차 증가하였다. 현재 마을 이장인 홍석진씨(남, 1963년생)는 본인보다 5~6년 선배 때부터는 상급학교 진학율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동추골에 살았던 그의 동기들은 대부분 대학까지 진학하였다.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없었던 것도 진학률이 낮았던 큰 이유였다.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시기에 자취나 하숙을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동추골 아이들이 주로 진학했던 오산중학교는 1948년 성호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하여 1950년 중학교로 인가받았다.[59] 평택 중학교는 1947년 개교하였으니[60], 그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수원이나 서울로 가야 했던 것이다. 오산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중학교 진학률은 오르기 시작했다. 20여년 전 봉남리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있기 전에는 하북쪽으로 이어지는 버스가 없었다. 그래서 진위중학교보다는 오산중학교 쪽을 택하였다. 홍석진씨가 중고

59) 오산중학교 홈페이지(www.osan.ms.kr)
60) 평택중학교 홈페이지(pyeongtaek-m.goept.kr)

등학교 다닐 때 10분을 걸어 봉명4리 쪽으로 가면 오산과 성은리를 오가는 버스가 1시간에 1대 정도씩 다녔다.

사후동 최창렬씨의 조부인 최봉화씨는 마을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웃말 최창렬씨네 살림집 뒤 정자 느티나무 밑에서 가르치고, 겨울에는 사랑방에서 가르쳤다. 학생은 보통 10명 정도인데,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나 늦게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이었다. 그의 2년 선배까지는 2년에 걸쳐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대학까지 마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당시에는 10세 때 취학하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최창렬씨는 조부한테 천자문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최봉화씨는 지관(地官)으로 마을 사람이 사망하면 묫자리를 많이 잡아주기도 했다.

최창렬씨는 진위초까지 8km를 가방도 없어 보자기에다 책을 둘둘 말아서 메고 뛰어다녔다. 학교까지는 빨라야 1시간 30~40분이며 거의 2시간까지도 걸렸다. 동기는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인데 남녀학생 같이 다녔고, 한 해 후배 8명도 함께 등교했다. 늦으면 벌을 받을까봐서 14명이서 열을 지어 뛰어가곤 하였다. 늦으면 야단을 맞거나 앉아서 손들고 있는 정도의 벌이었다. 당시 진위초등학교에서는 사후동이 제일 멀었고, 눈이나 비가 오면 출석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가 살았던 웃말에서 학교까지는 개울을 10번이 훨씬 넘게 건너야 했다. 비가 많이 오면 개울물이 허리까지 찼지만, 떠내려가서 죽거나 하는 사고는 없었다.

사후동 새뜸에 사는 구본원씨는 대여섯 번 개울을 건넜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 가는 길은 지금의 마을 진입로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봉명리를 거쳐 사후천 옆을 따라 달동네를 지나 동추골 앞을 넘어서면 황새바위 쪽에서 물이 쏟아지는 큰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까지 가면서 건너는 마지막 개울이었다. 등교하는 데 2시간쯤 걸렸고, 지각은 다반사였다. 아침에는 곧장 학교를 갔지만 올 때는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 구워먹는 등 놀면서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구본원씨 동기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었다. 등교 때는 학교에서 마을별로 모여서 오라고 해서 마을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학교까지 갔다. 고학년 선배들은 잘 따라오지 못하는 저학년 아이들을 챙겨주는 끈끈함도 있었다.

1942년생인 구본원씨 동기는 6명중에 2명이 오산중학교에 진학하고, 1명은 진위고등공민학교에 갔다. 그 중 2명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사친회비 못 내서 학교 못 가는 친구들도 많았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만 졸업하였다가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후동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였기 때문에 새뜸에 살았던 이재천씨(남, 1961년생) 3년 선배부터 진위초등학교를 다니면 진위중학교에 가야하고, 성호초등학교를 다녀야 오산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오산쪽의 성호초등학교까지 거리가 6km로 진위초등학교보다 가까웠지만,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후동 아이들은 진위초등학교를 배정받았다. 그래서 이재천씨는 진위초등학교를 배정받아 다니다가 오산중학교를 다니려고 3학년때 성호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는 자신의 4~5년 후배들부터는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오산중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차옥순씨는 1985년도쯤에 성호초등학교가 더 가까운데 2km가 더 먼 진위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성호초등학교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2) 종교

(1) 개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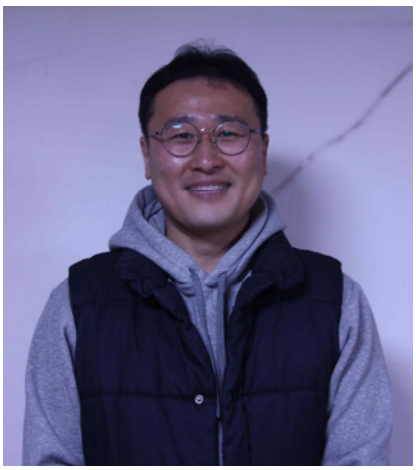
① 동천교회[61]

동천교회를 설립한 진태범 목사

진태범목사 사택(좌), 동천교회가 시작된 곳(우)

동천교회는 ‘진위로 341-15(동천리 321-4)’에 있다. 1982년 동천교회가 설립되기 전 동추골 기독교인 3∽4명이 할미재 너머 가곡리에 있는 가곡제일교회를 다녔다. 당시 진위중·고등학교 교사였던 진태범 목사는 동추골에서 멀리 가곡리까지 다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후 가곡제일교회에서는 1981년 11월 진태범 목사[62]를 중심으로 동천리에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그해 12월에 교회 설립 부지 442평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1982년 2월 ‘동천리 356-6’ 달동네 공회당에서 창립 예배가 거행되었다. 이 건물은 달동네 마을 놀이터 옆에 있으며 처음 마을이 조성되었을 때 마을회관으로 쓰기 위해 건축되었다. 처음 달동네 공회당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웃에 있는 주민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똥물을 뿌렸던 일이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교회가 출발하면서 동천교회에서는 어린이집도 운영하였다. 당시에는 마을에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 운영도 순조로웠다. 동천리 아리들뿐아니라 동쪽 고속도로 건너 봉명리 아이들까지 입학하였다. 이 시기 달동네 가장 남쪽에 지어진 집에 살았던 진태범 목사는 사후천 옆 달동네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옆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다. 1988년 7월에 현재 교회 건물(43평)과 사택(34평)이 완공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성장로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다가 2015년에 동천교회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손현선 목사가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61) 손현선 동천교회 담임목사(남, 1980년생)·홍찬의씨(남, 1934년생)와의 인터뷰 및 동천교회 요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62) 진태범 목사는 진위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교감을 역임했고, 용인 태성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하였다.



손현선 담임목사

달동네에 있던 시기 동천교회 어린이집

교회 사택 신축장면

친교의 시간

옛날에는 70~80명의 신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손현선 목사 부임 당시인 2015년에는 20명이 채 안 된 숫자였다. 2022년 현재는 신자가 30여 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동천1리에 사는 신자는 15명 정도이며 나머지 신자들은 서울, 용인, 송탄 쪽에서 다니고 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주로 동천리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들이다.

홍찬의씨는 58세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부인 이영순씨는 무릎 통증 등 몸이 많이 아팠고 이를 낫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만기사 뿐만 아니라 용인, 병점 등에 있는 절까지 가서 불공을 드렸다. 부인이 아픈 몸으로 멀리 있는 절까지 다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사후동 갈릴리기도원에서 나눠지는 전도지를 보았다. 거기에는 쓰여있는 '믿음으로 만병을 고친다' 는 내용에 마음이 가서 부인더러 "믿으려면 여길 가라" 고 권하였다. 이후 이영순씨는 매일 새벽 사후동까지 30분 이상을 걸어서 새벽기도를 다녔다. 그 무렵부터 홍찬의씨도 점차 신앙심을 갖게 되어 부인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장로 직분을 갖고 있다.

② 소망교회

소망교회

소망교회는 달동네에서 동남쪽, 사후천 건너편[진위로328번길 17-12(동천리 372)]에 기독교대한침례회 새봄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는 5년 전에 오산 쪽에서 이사를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동천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망교회를 다니는 동천리 사람들은 없다.

③ 맥카피 선교사와 사후동 수양관[63]

맥카피 선교사

맥카피(Wibour Thomson Mcafee, 1917-2019)는 미국 캔자스 주 가넷에서 출생하였으며 건축가였다, 50대에 선교사가 되었다. 1960년에 한국 홀트아동복지회에 파견되어 1960년 10월 미국 크레어모트모임과 콜로라도 스프링모임에서 한국 선교사로 천거를 받아 거창고등하고 건축 감리를 하면서 거창 장팔리교회를 개척하였다. 이후 1963년 평택시 진위면 사후동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축산과 의료 복지 분야에서 헌신했으며, 1965년 엠마오통신학교, 1968년 남사중학교, 1972년 오산기독병원를 각각 설립하였다.[64]

구본원씨에 의하면 맥카피 선교사가 지인을 통해 이 마을 출신인 구성회씨를 알게 되었고, 구성회[65]씨가 맥카피 선교사에게 자신의 토지를 무료로 임대하여 주었다. 맥카피가 처음 사후동에 왔을 때 기거할 곳이 없어 사후동 새뜸에 있는 구본원씨(1942년생)[동천길 175-14(동천리 244-1)] 사랑방을 빌려 살다가 ‘동천리 145-1’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여 옮겨갔다. 이곳에 그는 2층 건물을 지어 살림집 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맞은편 골짜기인 ‘동천길 210(동천리 145)’와 그 주변에 있는 목장과 직원들 숙소도 지었다. 목장과 직원[66]들 숙소를 지었던 곳은 사후동 구성회씨 소유였는데 맥카피가 임대를 했다. 그는 여기서 젖소와 양을 많이 키웠고, 닭, 토끼 같은 동물도 많이 키웠다. 야산을 개간하여 봉숭아, 자두 같은 과일 나무 뿐만 아니라 수박, 참외, 옥수수도 많이 길렀다.[67] 개간을 하고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즉, 개간을 하여 작물을 기르고, 옥수수를 심어 엔슬리지 같은 소와 양의 사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수입을 올려주었다. 특히 전답이 없는 사람들은 밭이나 목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곳으로 출근하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

63) 이 내용은 사후동에 거주하는 최창렬(남, 1947년생)·구본원(남, 1942년생)·차옥순(여, 1947년생)·이채천(남, 1963년생) 및 광은기도원의 오영집 장로와의 인터뷰 내용과 남사중학교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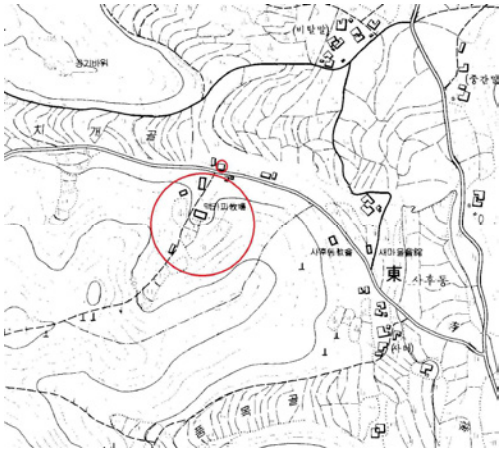
64) 『국민일보』 2015.04.18.

65) 구성회씨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2·3공화국에서 국무총리 수석 비서관, 농림부 농정국장, 한국은행 국고부장, 어음교환 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의 토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기증하였고, 사후동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에 그의 온정비를 건립하였다.

66) 이재천씨(남, 1963년생) 기억에 의하면 당시 직원으로는 목부(牧夫) 2명과 식사와 청소 등 잔일을 전담하는 여자 2명 정도가 있었다.

67) 이재천씨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이 농장에서 수박과 참외, 복숭아 서리를 많이 했고, 닭이나 토끼를 몰래 잡아다 마을회관에서 끓여먹고 놀았다고 한다. 그는 또 후에 사후동 수양관 터의 운동장 같이 편평한 곳에서 축구놀이도 하고, 실내 농구장에서는 놀았던 기억도 갖고 있다.

다. 구성회씨 부인인 차옥순씨(여, 1947년생)는 당시 젖소가 얼룩소가 아니라 한우같이 생긴 소로 기억하고 있다.



1976년 지도의 맥카피 농장

맥카피 농장과 직원 숙소가 있었던 골짜기

맥카피가 세운 사후동수양관

사후동수양관의 식당 앞

1972년 오산 성호초등학교 앞에 기독병원을 설립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구충제와 영양제를 무료로 주고, 아이 낳은 산모가 젖이 안 나오면 양젖도 무료로 주었다. 간호사였던 그의 친딸 앨렌도 기독병원에 근무하였다.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통조림이나 과자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 때라 미국에서 오는 통조림이나 과자를 많이 얻어먹었다. 이때 맥카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10여 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다.

1975~6년 무렵에는 지금의 광은기도원 자리인 '동천길 247(동천리 152-5)'에 토지 2만 8천여 평을 구성회씨에게 매입하여 '사후동수양관'을 건립하였다. 수양관이 건립되기 전에 이 터에는 사료용 옥수수를 많이 심었고, 농구장 건물이 있던 자리는 운동장처럼 닦여져 있었다. 이 옥수수대들을 마차로 농장 앞까지 옮겨서 엔슬러지를 만들었다. 한편 맥카피는 1968년 남사읍 봉무리[남사읍 내기로 27(남사읍 봉무리 435)]에 남사중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그가 사후동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한국인 염일부라는 수양아들과 김흥자를 수양딸로 두었고, 김미자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하여 키웠

다. 그런데 그는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았으면서도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맥카피 선교사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1977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맥카피는 건강 악화로 1979년 사후동을 떠나 미국으로 갔고, 이후에 그가 세웠던 사후동 수양관 자리에는 현재 광은기도원이 있다.

④ 광은기도원/세계성막복음센터[68)]

광은기도원 정문

사후동 마을회관에서 2차선을 따라 고현리 치고개 쪽으로 올라가면 고갯마루 바로 직전 좌측 '동천길 247(동천리 152-5)'에 광은기도원이 있다. 기도원 맞은편 북서쪽으로는 전원주택 단지가 있다. 사후동의 광은기도원과 세계성막복음센터는 광명시에 소재한 광명교회 소속이다. 광명교회는 1974년 지금의 광명시 광명5동 288-127(당시 주소는 시흥군 서면 광명리 49-89)에 예배당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었으며, 현재는 광명시와 고양시, 시흥시에 다른 3개의 지교회(支敎會)가 있으며, 대한 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이다.

광은기도원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1963년 미국에서 건너와 선교활동을 벌였던 맥카피 선교사가 사후동수양관을 운영했던 곳이다. 1979년 맥카피 선교사가 귀국하면서 이곳을 수양아들인 염일부씨에게 증여했고, 다시 서울의 김장로라는 인물에게 매매되었던 것을 광은교회에서 기도원을 짓기 위해 1992년 부동산소개소를 통해 구입했다. 이듬해인 1993년 구입 당시 넓이는 2만 8천여 평이었는데, 이후 산과 논을 계속 추가 매입하여 현재는 4만 여 평의 넓이로 확장되었다. 1993년 8월에 기도원 운영이 시작되었다. 인근의 평택과 오산, 안성에 소재한 교회들이 많이 이용하며, 이 외에 전국 각지에서 교회 단위로 기도원을 찾고 있다. 2005년에는 세계성막복음센터를 완공하여 오픈하였다.

맥카피가 운영했던 사후동수양관 당시 건물은 대부분 헐렸고, 실내 농구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앞쪽으로 2층 건물을 증축하고 1층은 사무실, 2층은 기존의 건물과 연결하여 예배실로 꾸몄다.

68) 오영집 장로(남, 1954년생)와의 인터뷰. 오영집 장로는 1993년 광은기도원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광은기도원의 전체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광은기도원의 내력뿐만 아니라 사후동 마을 사정에 대해서도 많은 기억을 하고 있다.

광은기도원

현재 예배당, 숙소, 세계성막복음센터 등 모두 7개동이 들어서 있다. 특히 2005년에 완공된 세계성막복음센터는 1층에 성막 갤러리, 성막세미나실, 성막 연구소, 토기 전시장, 복식 전시장이 있고, 2층에는 구약 시대 제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성막과 노아의 방주, 홍수 때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물, 구약시대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3층에는 650여 개의 토우인형으로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과 부활, 마가의 다락방 등을 재현했고, 솔로몬 성전 모형이 있다. 교회 측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고증하여 재현하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서 구입한 진품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 유일의 장소라고 언급하였다. 여러 시설이 있는 만큼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길 오른 쪽으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을 재배 전시하는 '성서식물원' 도 있어 성서의 내용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은교회측에서는 해외선교보다 국내 선교에 중점을 두고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세계성막복음센터 내부에 고증을 통해 재현해 놓은 전시물 및 체험 시설이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국외에서도 찾는 신도들이 있다. 기도원과 성막복음센터의 규모가 커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연간 5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선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 운영하는 중이다.

⑤ 풍성한 교회[69]

사후동 작은 절골 입구 '동천길 132-67(동천리 69)' 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 교회와 토브영성센터가 있다. 이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15년이 넘었다. 5년 전에 지금의 풍성한 교회로 바뀌었다.

⑥ 사랑의 교회/갈릴리 기도원[70]

사랑의 교회는 '동천리 산 100' 에 있었다. 이 교회는 의사 출신인 박승철 목사가 설립하였다. 그는 '동천길 210(동천리 145)' 의 주택에 살면서 길 건너편 산밑(주택의 주소와 지번이 같음)에 갈릴리 기도원도 운영했다. 이 기도원은 노인들이 숙식을 하는 요양원 비슷하게 운영된 시설로 예전에 맥카피 선교사가 건축한 건물이었다. 그는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있는 맥카피가 사용하던 2층짜리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1층은 창고로 썼다. 그가 세웠던 사랑의 교회와 사무실 건물 그리고 갈

69) 사후동 최창렬(남, 1947년생) 이장과의 인터뷰.
70) 오영집 장로와의 인터뷰.

릴리 기도원은 2000년 여름 폭우로 모두 무너져 버려서 교회와 기도원은 문을 닫게 되었다. 현재 교회와 기도원이 있던 자리는 빈 터만 남아 있고, 박승철 목사가 살았던 주택은 비어 있다.

⑦ 사후동 교회[71]

진태범목사는 2003년에 은퇴한 후 사후동에 ‘사후동 교회’를 세워 전도 사업을 계속하였다. 교회는 동천2리 마을회관에서 길 건너 서남쪽 맞은편인 ‘동천길 185(동천리 234)’에 있었다. 당시 신자로는 진태범 목사 자녀 2명과 마을 사람을 합쳐 15명 가량 되었다. 2020년 완공된 동천진료소 앞에서 광은기도원까지 2차선 도로가 나면서 터의 일부가 수용되어 교회는 문을 닫았고, 이후 진태범 목사는 오산으로 이주하였다. 현재는 빈 터만 남아 있다.

⑧ 성은동산

서울 송파구 성은교회 소속의 기도원 겸 수양관, 양로원 시설이다. 2012년 대지 5천여 평에 건물 5동을 건축하여 기도원 겸 수양관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문을 닫아 지금까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시설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하였다.

성은동산 전경

(2) 천주교

동추골 도모재고개에서 방앗간을 운영했던 최원재씨(남, 1959년생)네는 온 가족이 천주교를 다닌다. 그의 부인인 윤순이씨(여, 1958년생)는 결혼 전에 성당에서 교리를 배웠지만 결혼하면서 그만두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딸의 결혼을 앞두고 혼인 날짜를 잡으러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딸을 성당에 보내라고 얘기한 수 온 가족이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 지금 오산 갈곶동 성당이 본당이다. 윤순이씨에 의하면 동추골의 천주교인은 모두 4명이며, 본토박이는 없고 죄다 이사들어온 집들이다. 세 집은 성당에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몸이 불편한 한 명은 성당 버스가 매주 태우러 오고 있다.

구본원씨(남, 1942년생)는 사후동에서는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는 오산에 사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는데,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그 역시 1996년부터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다. 2000

71) 오영집 장로와의 인터뷰.

년부터는 그의 부인인 차옥숙씨(여, 1947년생)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오산성당으로 나갔는데, 2000년도 초반에 갈곶동 성당이 설립되면서 교적을 옮겨 이곳으로 다닌다. 사후동에는 다른 성당에 다니는 교우가 2명 더 있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 거동이 힘들어서 성당에 나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3) 불교

① 만기사[72)]

만기사

봉남리에서 진위로를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다 '만기사' 라는 안내판을 따라 좌회전 하여 들어가면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오른쪽 위 '진위로 181-82(동천리 548)' 에 만기사가 있다. 만기사는 대한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이다.

일주문

대웅전과 삼성각

72) 만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에서 서술하였다.

원경스님

원경 스님과 박헌영, 송담 스님의 부도

만기사에는 박헌영의 아들이면서 여주 흥왕사, 안성 청룡사, 여주 신륵사의 주지를 차례로 역임한 원경 스님이 2021년 12월 입적할 때까지 26년간 주지를 맡았다. 만기사 서쪽 언덕에는 만기사 주지였던 원경스님, 그의 부친 박헌영, 원경 스님의 스승 송담 스님의 부도 3기가 나란히 있다. 원경스님이 주지였던 시기에 만기사는 사역(寺域)을 넓히고, 새로운 전각들을 신축하였다.

주요 건물터는 2단으로 되어있는데 맨 윗 단의 중앙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567호 만기사철조여래좌상을 모신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좌측에는 원통전(圓通殿) 우측에는 삼성각(三聖閣)이 있다. 원통전 좌측으로는 납골묘가 조성되었다. 중앙 계단 아래 중앙에 5층탑을 세우고 동쪽에 무봉선원(舞鳳禪院), 서쪽에 감로당(甘露堂)이 있다. 대웅전을 마주하는 남쪽 정면에는 명부전이 있다. 만기사 대웅전 아래 축대에 창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이 다른 돌들과 같이 쌓여있었다. 약사불, 대좌, 석탑 부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20여 년 전에 여러 전각들이 있는 부지를 넓히기 위해 계단형 축대를 새로 쌓으면서 치워졌다.

만기사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추골이나 사후동, 봉남리, 은산리, 남사읍 봉명리 등 주변 마을의 불교 신자들이 많이 왔던 절이다. 봉남리에 마을회관 서쪽에 만기사 포교당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봉남리에는 만기사 땅이 있다.[73] 동추골의 경우 현재 만기사에 다니는 집은 3~4집 정도이나, 이제는 주변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승용차를 타고 멀리서까지 찾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

만기사는 진위초등학교의 단골 소풍 장소였다. 동추골이나 사후동에서 만난 1970년대 이전에 진위초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시기에 관계없이 대부분 소풍은 만기사로 다니고, 가끔 진위향교로도 갔다. 동추골의 홍석진씨(남, 1963년생)는 오산중학교 다닐 때도 이곳으로 소풍을 왔던 적이 있었다.

② 진위사(대한불교 대덕종 본사)[74]

73) 봉남리 동부마을 안병국씨(남, 1937년생) 인터뷰(2019년)

74) 김우주씨(남, 1971년생)와의 인터뷰. 김우주씨는 현재 진위사의 총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절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성일 스님의 수양아들로 엄동순을 어머니로 모셨다. 엄동순의 아들인 성수 스님은 큰 형님벌이 된다.

진위사(구)

새롭게 이전한 진위사

진위사는 원래 견산리 한국야쿠르트 뒤인 '견산리 산3-1' 에서 1971년 엄동순(여)이 창건하고 주지는 성일(속명 김동호) 스님이었다. 1995년 절터를 나드리화장품 회사에 매각하고 잠깐 '견산리 산4번지' 에 있으면서 주지스님이 할미골로 와서 별도로 절을 운영하다가 2010년에 이곳 '동천리 631-1' 로 완전히 옮겼다. 보통은 진위사로 불리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불교 대덕종 본사' 로 지역 종교단체로 등록되었다.

성일 스님이 2000년에 주지에서 물러나고 설립자 엄동순의 아들인 성수 스님이 새로 주지를 맡았다. 성수 스님은 속명이 김성수로 마곡사 문중으로 대전 고산사에서 8년, 조계종 포교국장 8년, 부여 고란사 주지 8년을 역임하였다.

신자들이 많을 때는 300명에 이르렀으나 봉남리, 견산리, 하북리, 신리나 서탄 쪽과 오산에 많았고, 동천리 마을 사람은 몇 명 안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포교에 역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위사는 포교 보다는 고시원 운영이 주된 사업이었다. 고시원은 진위사가 견산리에 있었던 1975년부터 시작되었고, 동천리 진위사에서는 1997년부터 방 10개로 다시 시작되어 점점 규모가 커졌다.

진위사에 오는 고시생들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뿐 아니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고시생이 가장 많을 때는 120명이었다.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인데, 2010년 기준으로 숙식 일체를 제공하고 월 30~40만원이었다. 이것은 이윤 사업이 아니라 인재 양성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어서 재정은 현상유지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사찰 고시원으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곳이었다. 이곳을 거쳐 간 행정·사법·외무고시 합격자만도 최소한 100명은 넘었고, 변호사 고승덕씨도 이곳 출신이다.

2016년 큰 스님인 성일스님이 입적하자 지인들의 지원이 끊기고 경기 또한 좋지 않아 고시생은 60∽50명 정도로 줄었다. 80∽100명이 되어야 간신히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데다가 성일 스님이 남긴 재산도 많았지만, 빚도 많았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고시생의 숫자는 더욱 줄었다. 운영이 힘들어 2021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시생을 받지 않았다. 고시원의 마지막 인원은 23명이었다. 이때는 고시생보다 독거노인이 많았다.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4천 여 평에 이르는 진위사 자리를 매각하고 현재 자리인 2021년 12월에 현재 자리인 '동천리 651번지' 로 옮겼다. 성일 스님이 진위사를 짓기 위해 골짜기의 4만 5천 평의 땅을 매입하였는데, 조금씩 매각하였고 그 자리에는 전원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

3) 당제

동천1리 동추골 당집 위치

동천2리 사후동 당집 위치

동추골에서는 음력 10월 중에 길일을 잡아서 당제를 지냈다. 당집은 안산 서사면(西斜面) 아래(동천리 산160-2)에 네 기둥을 세우고 흙벽에 초가집이었다. 대동회에서 제주와 제를 지내는 일을 돕와 심부름할 사람까지 두 사람을 선출하였다. 제주는 첫째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했다. 하지만 아랫말의 ‘절집 할아버지’ 라는 사람이 주로 당주가 되었다. 나중에는 ‘뚱땡이 아주머니’[75]가 지내기도 했다.

승주골 중턱에 생수가 솟아나는 옹달샘을 당제를 위한 우물로 사용하였다. 당제에 올리는 제주는 당주가 담갔다. 제물은 소머리를 썼는데, 마을에서 소를 잡아 머리는 제물로 쓰고 고기는 집집마다 나누었다. 제주는 3일 전부터 당집에 촛불을 켜 놓았으며, 제사 당일 자정부터 1시 사이에 제주와 심부름꾼만 올라가서 제를 지냈다. 당제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매년 당제를 지낼 때마다 추렴하였다. 동추골 당제는 19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2009년에 편찬된 ‘『평택민속지』상’ 에는 동추골에서 당제 외에 산신제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76] 필자가 만난 마을 사람 중에서는 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가 없었다. 다만 승주골에 기나지 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인 서낭댕이에 서낭당 있는데, 이곳에서 무당들이 제를 올린다고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떤 무당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지금도 있는 서낭목인 참나무에는 오방색의 천이 감겨 있고, 돌무더기는 무너져 내린 모습이다. 요즘도 가끔 무당들이 제를 지낸다고 한다.

동추골의 서낭당

75) 처음 홍찬의씨가 여자가 당제를 지냈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조영배씨(남, 1943년생)는 그녀가 무당기가 좀 있었으며 선무당 정도는 된다고 했다. 처음 홍찬의씨와 인터뷰 할 때 제주가 여자였다고 했는데, 이 분을 기억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76) 여기에는 [표]에 목록으로만 되어 있고 산신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다.(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상, 179쪽.)

사후동 당제는 아랫말 당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해방되기 전인 일제 강점기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웃말 사람들은 따로 지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나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아랫말 당집 자리는 승전봉 아래 '동천리 산23번지'로 지금도 편평하게 당집 터가 남아 있다. 웃말 당집 자리는 묘골 위 '동천리 120번지'로 지형이 교란되어 당집 자리를 찾기 어렵다. 당제는 아랫말과 윗말 모두 음력 10월 초하루 같은 날로 정해져 있었다. 당주는 주로 최창렬씨의 조부였던 최봉화가 생기복덕을 맞춰서 뽑았다. 당주로 정해지면 당주 부인이 생리를 해서도 안 되고, 성관계도 금지되었다. 당주는 당제가 끝날 때까지 초상집에 문상을 가지 않았으며 험한 일을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웃말의 경우 당집 바로 아래에 있는 우물을 이용했는데, 제를 지내기 전날에 당주가 우물 청소를 했다. 제주는 당주가 빗는다.

제사 당일 날이 어둑해지면 당제가 시작되었다. 당제를 지내기 위해 아랫말과 윗말에서는 각각 돼지 1마리씩 잡았다. 돼지를 잡으면 돼지 창자에 피만 넣고 만든 순대와 배추 등의 야채를 넣고 순댓국을 끓여서 마을 사람들이 나눠먹었다. 최창렬씨는 지금 맛있는 순대국 집에 가도 그렇게 맛있는 순대국을 먹을 수 없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돼지는 내장을 제외하고 앞다리, 뒷다리, 목을 나누는 사각을 떠서 머리까지 모두 제물로 바쳤고, 돼지 외에 다른 제물은 쓰지 않았다. 제사가 끝나면 머리와 족발 4개, 뼈 일체는 당주가 가져가고 고기는 호수별로 똑 같이 나눴다. 제사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제사 지낼 때마다 집집마다 얼마씩 부담하였다. 사후동 당제는 최창렬씨가 군대 가지 전인 1968년도까지 지냈다.

4) 두레와 지신밟기

동추골의 조영배씨(남, 1943년생)는 이 마을 두레패에서 버꾸잡이였다. 그가 기억하는 두레패의 구성은 좌상, 상쇠, 부쇠, 북 1명, 징 1명, 장구 1명이고 버꾸잡이는 보통 5~6명이고 많을 때는 12~13명까지 있었다. 깃발에는 꿩깃털이 10개 이상 꽂혔다고 했으니, 주변 마을에서 형님 두레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홍찬의씨에 의하면 동추골의 두레패가 들판으로 나가면 멀리 이웃한 봉명리나 멀리 은산 5리, 은산 4리 두레 깃발이 절을 했다. 상대방 마을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공손하게 숙이면 이쪽에서 반절 수준으로 가볍게 깃발을 숙였다.

동추골 두레패 버꾸잽이를 했던 조영배

조영배씨는 가을일이 끝나고 나면 거의 매일 악기를 두드리며 놀았다고 하는데, 일종의 연습이 아닐까 싶다. 설 쇠면 대보름까지 지신밟기를 했다. 집집마다 다니며 대청 앞에 깃발을 꽂아놓고 우물, 장독을 지나 뒤란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 이때 집주인은 쌀 1말을 받쳐놓았고 술상도 차려주었다.

홍찬의씨는 농악을 하고 싶었지만, 상쇠였던 부친이 못하게 말려서 농악을 할 수 없었다. 그가 이장을 보던 1970년 전후 동추골 두레패는 평택군 농악대회에 나가 1등상을 받았다. 이후 인천에서 열리는 도 대회에도 출전하게 되었다. 당시 대회에 출전하려면 구성원들의 옷을 해입어야 하는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군 대회까지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지만 도 대회에는 50만원의 비용을 보조해 주었다.

1970년대 들어서 두레는 차츰 식어들어 없어지게 되었지만 농악의 맥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

금은 설날에만 농악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60~70대인 5~6명이 설날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

사후동에서 일반적인 두레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논매기를 두벌매기 할 때까지 두레를 놀았다. 최창렬씨의 부친은 북잽이를 했고, 상쇠는 박관양, 북잽이는 최병칠, 장구잽이는 박상열, 징잽이는 정영혜가 맡았으며, 버꾸잽이는 젊은이 여러 사람이 담당하였다. 논매기 할 때는 마을에서 두레를 치며 나가 논매기 전에 깃발을 꽂아놓고 한 번 놀고 나서 일을 한다. 한 논에서 일이 끝나면 다른 논으로 이동하면서 두레를 놀았다.

두레패는 설날과 추석 때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을 빌어주었다. 각 가정집으로 돌다가 우물이 있으면 우물 앞에서 “뚫어라 뚫어라 샘구녁 뚫어라” 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빌기도 했다. 집에 들어가서 장독대 앞에서 뒤란을 돌아 나오고,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서도 고사를 지낸다. 이때 집주인은 경제 형편에 따라 술상을 차려주고 보리쌀 1말도 내놓고, 쌀 1말을 받쳐놓는 집도 있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막걸리 술상만 내놓았다. 각 가정에서 내놓은 곡식은 모아서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정월에는 설날부터 대보름 때까지 했으나, 추석에는 추석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만 했다. 사후동의 두레는 최창렬씨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했고 이후에 사라졌다.

5) 전통놀이

(1) 동천리 줄다리기

동천리 줄다리기 행사 장소

동천리 줄다리기는 1970년대 초반까지 실시되었다.[77] 줄다리기 준비를 위해 집집마다 농사 짓는 면적에 비례하여 짚을 거두었다. 집집마다 한두 사람씩은 자발적으로 나와 일을 했다. 안 나오는 집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는 없었지만 안 나오면 죄책감이 들 정도였으며, 대개는 부부가 다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마을 사람 전체가 매달려도 줄 엮는 데만 대략 1줄일 이상 걸렸다. 홍석용씨(남, 1939년생)는 줄의 굵기가 한 아름에 가까워 지금 생각해보면 지름이 50cm는 될 것 같다고 했다. 굵은 줄이 있고,

77) 1934년생인 홍찬의씨는 1960년 무렵에 없어졌다고 했지만, 1963년생인 홍석진씨가 자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줄다리기 장면을 봤다고 했으니 1970년대 초반에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굵은 줄에 가는 줄을 고리처럼 해서 양 옆으로 매달아 사람들이 당기기 쉽게 한다. 암줄과 숫줄이 따로 있고 줄 하나의 길이가 40~50m로 매우 길었다. 앞에는 거대한 고리를 만들어 숫줄을 안쪽으로 넣은 다음 비녀로 고정을 시킨다.

줄다리기는 경주 이씨 묘역 서쪽 큰길 위에서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 오전에 모여서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줄다리기는 12시쯤 시작이 된다. 줄다리기 시작 전부터 두레패의 풍물 공연이 이어진다. 동추골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후동이나 봉명리, 은산리에서 온 구경꾼들도 모여들어 술 한잔씩 마시며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편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데, 여자는 길의 낮은 쪽에서 당기고 남자는 마을 안 쪽 약간 높은 곳에서 당긴다.[78]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들기 때문에 여자가 이기도록 의도된 연출이다.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암줄과 숫줄이 이어진 곳에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올라가 춤을 춘다. 지상근씨는 "남자는 우리 형님이 춤추고, 여자는 아랫말 뚱땡이 아줌마가 췄다."고 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다함께 줄을 들고 마을 동쪽에 '동천리 388'에 있는 상여집에 보관했다가 이듬해에 다시 보수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2년을 사용한 줄은 폐기하고, 3년째는 다시 줄을 제작하였다. 상여집 문 앞에는 줄을 보관하고 뒤쪽으로 상여가 있었다. 앞쪽 공간이 필요한 만큼 동추골 상여집은 다른 마을 상여집보다 길게 지어졌다.

줄을 보관했던 상여집

상여집 내부

(2) 대보름에 밥 훔쳐먹기

홍석진씨는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몰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밥을 훔쳐다가 먹는 놀이를 했다. 대보름부터 2~3일 정도 이 놀이를 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밥 훔치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눈 감아주었다. 훔친 밥은 방을 혼자 쓰는 친구 방에 가서 비벼먹었다. 집집마다 음식 맛이 달랐던 것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3) 아이들 놀이

78) 동추골 줄다리기는 남자와 여자로 편을 갈랐다가 나중에는 윗말과 아랫말로 나누어져 대결을 벌였던 것 같다. 홍찬의씨는 처음에 아랫말과 윗말로 편을 짰다고 했지만, 홍찬의씨보다 나이가 15년 아래인 지상근씨는 남자와 여자로 편을 나누었다고 했다. 이들보다 훨씬 젊은 홍석진씨는 "옛날에 줄다리기와 척사대회를 할 때 아랫말과 윗말로 나누었고, 경쟁의식도 심했다."고 했다. 따라서 원래는 남자와 여자로 편을 나누었는데, 줄다리기가 없어질 즈음에 아랫말과 윗말의 대결로 바뀐게 아닌가 생각된다.

토박이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어렸을 때 놀았던 구슬치기나 자치기, 제기차기, 여름에 물놀이와 천렵, 겨울에 썰매타기와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의 놀이를 기억하고 있다.

동추골의 홍찬의씨는 초등학교 마치고 돌아와서는 주로 구슬치기와 자치기를 하고 놀았는데, 자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치기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었지만, 여름철에 많이 했다. 주로 마당에서 놀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자치기를 위한 구멍을 파놓았고, 구멍을 잘 만들어 놓은 데를 선호했다. 000씨(남, 1938년생)는 구슬을 학교 앞 가게에서 샀는데, 구슬 살 돈이 없으면 흙으로 만들어서 놀았다. 흙구슬은 쉽게 깨졌기 때문에 유리구슬 가진 아이들은 흙구슬 가진 아이들하고 놀지 않으려 하기도 했다.

1963년생인 홍석진씨는 여름철에 종종 천렵을 했다. 진위천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동추골 아이들은 동쪽 사후천에서 주로 물고기를 잡았다. 천렵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구경삼아 조금 나이 많은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했다. 싸리나무로 발을 만들어 흐르는 물에 설치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때 잘 잡혔다. 주로 피라미가 많았고, 가끔은 메기가 잡히기도 했다. 000씨(남, 1938년생)는 물을 막아 퍼내서 잡기도 하고 싸리나무로 만든 통발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맞두리 그물과 투망은 주로 어른들이 쓰는 도구였다.

현재 동추골 마을회관 주변이 예전에는 모두 논이어서 겨울철에는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겨울철에는 이 논바닥이나 진위천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으며, 눈이 많이 오면 길바닥에서도 썰매를 탔다. 겨울철이면 이곳에 아이들이 모여 연날리기도 하고 쥐불놀이, 제기차기도 하면서 놀았다. 1963년생인 홍석진씨 어렸을 때인 1970년대가 되면 축구, 야구 등으로 바뀐다. 물론 저수지에서 수영도 했다. 당시 저수지는 물이 맑아서 여름이면 아이들의 좋은 물놀이 장소였다.

사후동에서 동추골 동쪽을 지나 진위천으로 흘러드는 사후천

사후동의 구본원씨는 진위초등학교 다닐 때 하교길에 물고기 잡아 구워먹기도 했다. 그의 기억으로는 사후천에 가재도 많았고, 중태기(버들치), 붕어, 메기, 구구리(동사리) 등 물고기 종류가 많았다. 아이들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꿰미에다 꿰어서 구워먹었다. 그러나 집에까지 들고 오진 않았다. 최창렬씨는 사후천에서 미꾸라지, 중태기, 구구락지(구구리, 즉 동사리), 메기, 뱀장어를 잡았다. 이곳은 계곡 상류여서 피라미 종류의 물고기는 없었다. 그는 초등생부터 군 제대한 젊은이들까지 고기잡이를 즐겼다고 했다. 장마때는 얼레미로 몇 사발씩 잡았고 삼태기 그물로도 잡았다. 겨울에 수렁논을 파면 물이 나는

곳에서 미꾸라지를 한 번에 한 양재기씩 잡을 수 있었다. 잡은 물고기는 무와 고추장만 넣고 끓여도 맛이 좋아 2그릇 이상씩을 먹었다. 이렇게 많았던 미꾸라지가 제초제나 살충제 같은 농약을 쓰면서 없어지기 시작했다.

여름철 사후동의 물놀이 장소는 중간말과 새뜸 앞의 사후천이었다. 마을에서는 이 두 곳을 앞냇갈이라고 불렀다.

이재천씨는 서리에 대한 추억이 있다. 10대 중·후반에 남에 밭에 몰래 가서 수박이나 참외, 옥수수를 따다가 친구네 집에 모여서 먹거나 밤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먹었다. 당시 마을회관은 늘 문이 열려 있었다. 닭과 토끼 같은 짐승도 서리의 대상이었다. 맥카피 선교사가 운영했던 농장에는 닭과 토끼가 많아 자주 서리를 했고, 닭 여러마리를 자루에 담아 온 적도 있었다. 당시 맥카피 농장에 그와 같은 또래의 혼혈아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함께 닭을 서리하여 마을회관에서 삶아먹기도 했다. 당시에는 주인에게 걸려도 한 번 혼나면 그만이었다. 이재천씨는 그런 서리 문화는 사후동에서 자기들 세대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다.

(4) 전설

■ 의령 남씨가 사후동에 연고를 갖게 된 사연[79] - 남재(南在)와 이성계가 서로 가까웠을 때 둘은 각각 관악산과 사후동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어떤 지관이 사후동이 후세에 역적이 나올 형국이라고 하자 남재는 '왕의 후손에서 역적이 나오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성계에게 관악산을 갖고 자신이 사후동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성계가 수락하게 되어서 남재가 사후동을 차지하게 되었다.

■ 절골 빈대[80] - 옛날에 어떤 스님이 사후동을 지나가다가 절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절터에 가보기로 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곧게 생긴 기둥하나가 남아 있었다. 얼른 가서 만져보려 손을 댔더니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빈대가 서로 엉켜서 기둥형태를 이루었던 것이다.

■ 승전봉[81] - 옛날 건너편 작은봉과 전쟁을 하여 이겼기 때문에 승전봉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 동천리 은행나무 - 약 100년 전부터 백로가 날아들었는데, 이곳에서 서식한 백로가 느는 만큼 동추골 마을이 부촌으로 발전하고 좋은 경사만 생긴다. 또한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 때 나무 전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노랗게 물들면 그 다음해의 농사는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고 단풍드는 일자가 한 달 정도 걸쳐서 들면 그 다음 해에 농사는 가뭄이나 천재지변으로 흉년이 든다.[82]

6) 문화재/보호수 등

(1) 만기사

79) 정선공주의 18대손인 남상필씨(1943년생)에 의하면 이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집안에 구전되고 있다.
80) 사후동 이장인 최창렬(남, 1947년생)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
81) 김해규, 『평택의 지명과 마을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79쪽.
82)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01, 1174쪽.

• 소재지: 진위로 181-82(동천리 548)

만기사

① 창건과 내력[83)]

만기사는 942년(태조 25)에 남대사(南大師)에 의해 지금의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동천리에서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려주는 확실한 기록은 전해오지 않는다. 만기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이 책의 불우(佛宇)조에 ‘만기사가 무봉산(舞鳳山)에 있다.’라고 간단히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1843년에 편찬된『진위읍지』에는 “절 북쪽에 있는 돌구멍에서 맑은 샘물이 나오는데 맛이 아주 달고 차가웠다. 예날 세조가 이 절에 수레를 멈추어놓고 우물에 나아가 물을 마셔보고 ‘맛이 단 샘물이니 감로천(甘露泉)이라고 하라’고 하여, 사람들이 어정(御井)이라고 한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후1843년 편찬된『진위읍지』에도 ‘만기사가 무봉산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1899년에 편찬된『진위읍지』에도 여전히 “현 북쪽 5리 무봉산 남쪽 산기슭에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기록들은 20세기 초까지도 만기사의 사세(寺勢)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00년대 초에 발간된『사탑고적고(寺塔古蹟攷)』에는 “옛 터가 북면 동천리에 있다. 수십년 전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전에 발간된 읍지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1843년과 1899년에는 전혀 없는 기록이며, 1871년에 제작된 진위현 지도에서도 현재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웅전에 모셔진 철조여래좌상이 양 손과 오른 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복원한 것으로 보아 어느 시점에 폐사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1972년 주지인 혜송(慧松)이 대웅전과 삼성각(三聖閣)·요사채 등을 중수하였고, 1979년 실화(失火)로 요사채가 전소되자 1980년 크게 확장, 중건하였다.

현재 이 사찰에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 유물인 만기사철조여래좌상의 양식이나 규모로 보아 창건 당시의 규모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웅전이 있는 곳의 축대에 같이 쌓여졌던 약사여래상의 일부나 석탑이나 승탑 부재들을 보더라도 만기사는 비교적 큰 사찰이었을 것이다.

83)『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 2014, 138~139쪽.

현재의 사역(寺域)의 전체적인 모습은 2021년에 입적한 원경스님이 중창한 결과이다. 경내는 축대를 기준으로 크게 두 단으로 구성되는데 윗단 정면에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의 대웅전이 있고 오른쪽으로 삼성각, 왼편으로는 종각과 원통전이 있다. 원통전 서편에 납골묘가 있다. 아랫단 동쪽으로 무봉선원(舞鳳禪院)이라는 현판이 있는 종무소가 있고, 남쪽 대웅전 맞은편으로 명부전이 있는데, 명부전 중앙 통로에 천왕문이 있다. 명부전 서쪽으로 요사채가 있고 요사채 앞에 어정(御井)으로 전해지는 감로수가 있다. 마당 가운데에 5층탑이 자리하였다.

어정 보호각

어정

② 만기사철조여래좌상[84]

만기사철조여래좌상

만기사 철조여래좌상은 1972년 7월 22일 보물 567호로 지정되었다. 불상의 높이는 1.43m이며 고려 초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불상은 만기사가 고려 초에 창건되었다는 유일한 증거물이다.

광배(光背)와 대좌(臺座)는 없고 불신(佛身)만 남아 있다. 현재의 불상은 몸에서 떨어져 따로 보관해오던 팔과 손을 다시 원상태로 접합하였다고 한다.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복원하기 전의 왼손 모양이 현재와 같다면 석가여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체가 가늘고 긴 편이나 무릎 폭이 넓어 안정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깨와 가슴 등의 신체에 양감이 줄어들고 옷 주름의 형식화가 진행되었으나 몸에 밀착하게 입혀진 법의의 흐름이 신체의 굴곡과 조화를 이루는 점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의 조각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불상은 개금(改金)이 되어 본래의 모습과 분위기를 느

84)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14, 140~141쪽.

끼기는 어렵다.

③ 사라진 유물들[85]

사라진 유물(불상, 탑, 석등 부재)

만기사 대웅전이 있는 축대에는 신라말~고려 초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 부재나, 승탑 부재, 약사여래로 추정되는 파손된 불상, 석탑 부재 등이 같이 쌓여 있었다. 파손된 불상과 함께 축대를 쌓는 돌로 사용된 석탑의 덮개돌, 석등 부재, 팔각원당형 승탑의 몸돌 등은 나말여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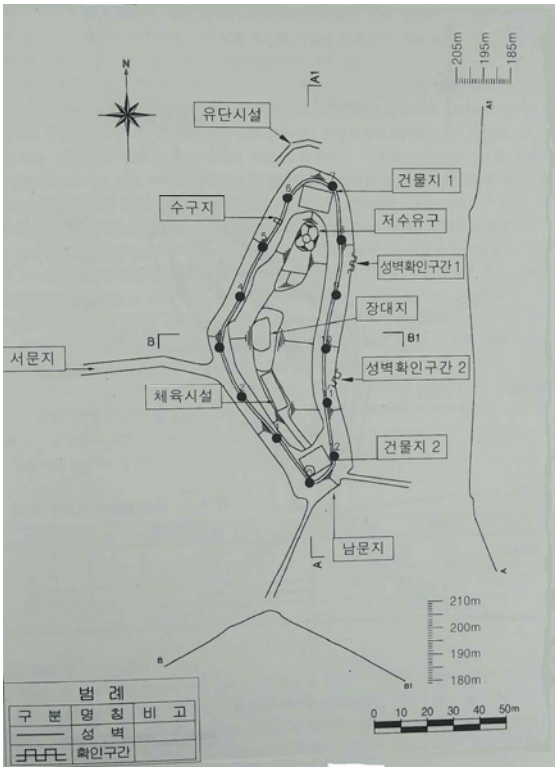
약사불로 추정되는 석불은 머리 부분이 파손되고 몸통만 남았었는데 높이 52cm, 어깨폭 28cm, 무릎폭 42cm의 크기였다. 불신의 비례라든가 균형잡힌 신체와 조각수법 등에서 철불보다 시기가 더 올라가는 작품으로 짐작된다. 이 불상은 상·중·하대로 구성된 대좌에 올려져 있었다. 이 세 부분은 각각 다른 조형물의 부재였을 것으로 보였는데, 복련이 표현된 팔각의 하대석은 높이가 약 26cm이다. 또한 석탑 부재는 폭이 약 52cm이며 덮개돌이다.

이러한 여러 유물들은 대웅전에 모셔진 철조여래좌상과 더불어 이 절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 사역을 늘이고 다시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이 유물들이 사라졌다. 이 유물들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2) 무봉산성[86]

무봉산성(山城)은 진위면 동천리 소재 무봉산의 9부 능선에 있다. 동서로 긴 타원형이며, 성벽의 둘레는 약 320m이다. 성벽의 재질은 석성(石城)이며, 축성(築城)방식은 테뫼식이다. 성벽은 남벽과 서벽이 유실되어 성벽의 어깨선만 남아있다. 북벽과 남벽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뒷채움석이 노출되어 토루의 내부는 돌로 쌓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동벽은 외벽이 3m-4.5m이며 내벽은 2m 내외이다. 또 안쪽으로는 높이 2m, 너비 3-4m의 회곽도를 설치하였다.

85) 평택시·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148~149쪽.
86)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상권, 2001, 700~701쪽.



무봉산성 평면도

동벽 노출 상태

백제 토기류

성벽에 시설된 구조물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정상부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곳이 장대지가 아닌가 추정된다. 샘의 흔적도 보이지 않아, 음료는 계곡이나 서사면의 암반부근의 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안으로의 진입로는 동천리와 구 가곡(가야실)에서 서벽을 따라 오르는 길이 있고, 동벽과 북벽 쪽에는 능선 따라 오르는 길이 있다. 추정건물지는 동벽내부와 서벽 능선의 평탄지대로 추정된다. 음료수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봉산성과 같은 작은산성(山城)은 장기 농성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필요에 따라 성밖의 샘과, 주변 계곡 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 안으로 통하는 진입로는 동천1리와 구 가곡 마을에서 서벽과 동벽, 북벽에 연결된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때 무봉산성은 진위현의 주산으로서 유사시에 병력을 확보하여 단기적인 농성(籠城)을 하였던 산성(山城)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천리고인돌

동천리 고인돌

동천리 고인돌 원경

동추골 마을에서 할미재골 길을 따라 가곡리 쪽으로 약 500m 가량 되는 지점인 ‘동천리 산 177-2’ 맨 아래 길 옆에 있다. 고인돌의 형식은 개석식으로 추정되고 암질은 화강암이다. 고인돌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크기는 360×220×80cm 정도이다. 동-서로 길게 되어 있으며, 측면으로 돌을 다듬은 흔적이 있다. 윗면에서 중앙에서 측면 방향으로 불규칙한 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에 의해 침식된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 흔적이 자연적인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인돌 서쪽으로 2m 가량 떨어진 지점에 90×40cm 정도의 석재가 땅속에 묻혀있으나 고인돌의 받침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4) 동천리 은행나무

동천리 은행나무

안내판

동천리 은행나무는 평택시 지정 보호수로 마을 동쪽과 산이 맞닿는 곳인 ‘산 165-3’ 하단에 있다. 마을에서는 7~8백년이 되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을 당시의 수령이 700년이었다.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는 100여년 전부터 학과 왜가리 100여 마리가 날아들어 서식하였다.[87] 50~60여년 전에 벼락을 맞아 가지가 많이 다치자 왜가리들은 마을 동쪽 안산(安山) 숲으로 둥지를 옮겼다. 부러진 가지들을 보수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만 왜가리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옮기지 않았다. 이곳은 1971년에 문을 연 학농원을 찾은 어린이들의 탐방 코스 중 하나였다. 1980~90년대 어린이농

87)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01, 1173쪽.

장인 학농원에 체험객이 한창 붐비었던 시기에 마을 주민들이 체험객을 소마차에 태워 마을 돌아 나가는 주요 코스이기도 했다.

(5) 야생생물보호구역

동추골 왜가리 서식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안내판

동천1리 동추골 동쪽 안산(安山) 산록인 '동천리 산 160-3' 에는 해마다 왜가리가 많이 날아들고 있다. 홍석용씨(남, 1939년생)는 동춧골을 왜가리 마을 또는 황새 마을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주로 왜가리가 오지만 예전에는 백로도 많았었다. 처음에는 동천리 은행나무에 둥지를 트고 살았다. 그런데 40∽50년 전에 은행나무가 벼락을 맞아 가지들이 부러지자 왜가리는 마을 동쪽 숲으로 서식지를 옮긴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1992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 안내판[88]을 설치하는 등 왜가리서식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석용씨는 왜가리가 3월에 와서 하지(夏至)가 되면 나간다고 했다. 올해도 100여 마리 넘게 왔는데, 매년 이정도 숫자가 동천리를 찾고 있다. 왜가리 서식지에는 말라죽은 고목들이 군데군데 보인다. 왜가리 배설물이 독해서 말라죽은 나무들인데, 홍찬의씨는 말라죽은 것은 아카시 나무이며 참나는 죽지 않는다고 했다.

88) 이곳의 주소가 '동천리 산 160-3'인데 안내판에는 '동천리 산165-3'으로 잘못 되어 있다. '동천리 산165-3'은 동천리 은행나무가 서 있는 자리와 그 뒤쪽 숲의 주소이다.

조영배(남, 1943년생, 동추골)

일시	2022년 7월 31일
장소	조영배씨 자택
구술자	조영배씨는 동추골 풍양 조씨 입향조의 후손으로 평생 동추골을 떠나지 않고 농업에 전념하며 살았다. 청년 시기에는 두레패에서 버꾸잡이를 하는 등 마을의 변화와 관련된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동천1리에서 태어나신 거죠?

여기서 뭐 태어나서 여적지 여기서 사는 거요. 원래 저 안동네에서 살다 일리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온 지 한 20년 넘었어요.

여기는 골짜기 이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할미골, 할미재라고.

옛날에 어르신 어렸을 때는 여기 좀 무서웠을 것 같애요. 이렇게 갔으면...

아이 무섭기는 뭐. 나무 해 때고 옛날에. 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말았지만, 국민학교 졸업 한 국서부터 농사지은 사람이여. 열다섯 살부터 쟁기질 해구 소, 거 옛날엔 나무발로 된 쓰레라고 있지? 그걸로 쓰리고. 그러면 소죽 짊어져야지, 쟁기 짊어져야지...

소죽질...?

소 부릴래니깨 소죽 가지고 나가야지.

소죽이요?

예... 열다섯 살에 그거 소죽 걸머져야지, 쟁기 걸머져야지, 그러면 한 짐이었어요.

집에서 소죽을 먹여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소죽을 먹여요?

아침 먹이고 종일 가서 해야 되니까. 한나절을 해든지 해야 되니까, 소죽 가져가야 되지.

국민학교는 여기서 진위초등학교 다니셨어요?

예. 초등학교 졸업 맞고 또 아버님이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왜정 때 집에서 뜨듯한 밥 싸가지고 갔는데 지금 갈곶리 있지요? 갈곶리 옛날 그 국도 그거 외정 때 맨들은 국도 아니에요? 그게 노동일로다가 길을 맨들은 거예요. 동지섣달에 밥 싸가지고 가서 그 찬밥 잡숫고 체해가지고 그 후로 계속 속에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돌아가

셨는데, 그래도 한갑은 지내고 돌아가셨어. 그렇게 고생을 해고시고두.

그 도로가 1번 국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1번 국도.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1번 국도를 닦을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셔서...
그렇죠. 여기 집에서 뜨듯한 밥 가지고 갔지만 동지섣달에 그 추운 데 가서 찬밥 돼가지고 그거 찬밥 잡숫구 체해가지고 그게 큰 병이 된 거예요.

장남이세요?
제가 장남이죠... 7남매에 장남.

몇 남 몇 녀예요?
4남 3녀

그러면 거의 아버님께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랬으면, 오빠나 형 역할도 했지만 아버지 역할도 좀 하셨겠네요?
할머니: 아이고 시동생들, 시누이들 다 우리가 시집 보냈어요. 다 내가 다 치르고 뭐 다, 뭐 길르다시피는 아니지만 뭐 돌보고 살았지 내가.

그럼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서 내가 학교도 못 다니구 열다섯 살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거들고, 형제는 여럿이구.

그럼 그때 농사는 얼마나 지셨어요?
그때 몇 천 평 졌지. 한 4천여 평, 한 5천여 평 됐나? 그 정도 지었는데...

국민학교는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9살에 들어갔어요.

남들보다 한 1년 늦게 들어가셨네?
아니 그때 6·25 때문에 그래서 늦은 거예요. 6·25 때문에.

그러니까 6·25가 일어났을 때...
50년도 아녀. 그때가. 그런데 그때 내가 학교 들어갈 나이거든요. 그때가... 6·25 때문에 늦어진 거지. 결국.

6·25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때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기 그, 저기 북한에서 넘어오구, 인민군들 넘어오구 그래가지고 싸

우는 거, 직접 싸우는 건 못 봤는데, 지나간 다음에 뭐 여기 전차 같은 거, 탱크 같은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이 마을에 전차, 탱크 같은 게 들어왔었어요?
응. 저 아래 내려가면 숲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숲이 어디, 지금 학농원 있는 데인가요?
아니. 요기 들어오시는 초입에 그 동네 몇 집 있죠 거기? 거기가 그...
할머니: 옛날에 거기 집이 아니었었어요. 숲이었었어요. 옛날에.

여기 숲이 있었어요?
예 여기에 숲이 있어.
할머니: 거기 사람이 댕기는 길이고 숲이지, 찻길 없었어요.
옛날에는 사람 당기는 길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소마차 하고.

여기 인제 6·25 때 탱크가 있었고요. 그럼 인민군들도 여기 동네에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지가 어리고 뭐 자세한 건 모르는데, 우리 아버님만 해두 저 멍석 같은 거, 꺼적 같은 거 짊어지구 이 무봉산에 올러가고 그것까지 알어요.

멍석, 거적을 무봉산에 왜 가지고 가죠?
그니깐 나도 잘 모르지. 그게 인민군 애덜 우리,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인민군이나 얘들이 사용할라구 그러는 건지, 우리 한국 저기가 쓸라고 가져가는 건지, 자세한 건 몰르는데...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무서운 것도 있구. 뭐 나이가 어리니까 무서운 것두 잘 몰렀지. 그래도 뭐 대낮에 직접 싸우는 걸 본 것도 아니구 그러니까. 밤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걸머지고.

밤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 기억만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자세한 것두 몰르구.

여기 전쟁 났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시죠?
전쟁 났다는 건 나중에 인저, 뭐 6·25 전쟁 난 거는 이제 뭐 군인들이 뭐 피난, 싸우고 뭐 ‘피해서 내려갔다.’ 뭐 ‘올라간다.’ 뭐 그런 것도 들어서 인제.

그런 소문들만 주로 들으셨구나. 피난 같은 건 안 가셨어요?
간 사람들이 동네에서 많이, 간 사람은 가고 안 간 사람들은 안 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 갔어요. 우리 집안은.

집안이 조씨잖아요. 이 동네에 조씨가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토박이래요. 여기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조씨하고 지씨가 토박이래요. 이 동네 창설자래.

조씨하고 지씨 중에 어느 성 씨가 먼저 들어왔대요?
같이, 거지반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저도 몰러요.

지금은 풍양 조 씨가 여기 몇 가구나 살고 있죠?
없어요. 여기 조카하고 동생 하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집이요?
다 떠나서. 옛날에 여러 집 살았다는데, 다 떠나구 없어요.

어르신은 어렸을 때는 여기 풍양 조씨가 몇 가구나 살았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몇 집이 없었어요. 한 서너 집이 되요. 우리 아버지가 막낸데 큰 집하구 조카들하고 뭐 몇이 없어서.

근데 왜 이렇게 떠났다는 얘기는 없고요?
아이 모르지 뭐. 자세히 안 물어봐서.

지 씨는 몇 집이나 살아요?
두 집 살아요. 두 집

어르신 여기서 국민학교 다닐 때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난 2차선 도로 그 길 따라 가나요?
여기 저수지로 해서 오셨죠. 글루, 글루 해서 그 알로...

여기 요렇게 지금 현재 길 있는 데로요?
예. 저수지로 올라오는 길, 글리요... 길이 좀, 농지정리 해는 바람에 길이 좀 변경이 되긴 됐지만 글리 길이...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뭐 누가 그때만 해도 뭐 시계가 있어 뭐 있어? 재보지도 않었지. 적어도 뭐 30~40분 이상 걸렸겠지. 여기서 3킬로가 넘는데. 봉남리가.

어르신 동기 같이 다닌, 같은 학년에 이 마을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때는 많았지. 우리 학교 다닐 제는... 지금은 없어.

남학생 여학생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됐어요?
동기로 말하면은 한 대여섯, 예닐곱 명 됐었지. 여자들하고 하면 한 여남은 됐지.

학교는 동기들끼리 모여서 갔나요?
모여서 뭐 보통 몇 명씩 가고 그랬지 뭐.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장난이라든가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물어보나마지 뭐. 뭐 옛날에 장난이, 장난할 게, 뭐 기계가 있어요? 뭐 공이 있어요? 뭐 별로...

이제 저학년 때는 오전 수업하고 오잖아요?
우리는 그때 6.25 바람에 늦게 들어간 사람들 따져서 비교적 많았어요. 인원이. 그래서 우리는 3반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백오십 몇 명이에요. 우리 학년이.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씩 해갖고 세 개 반 있었네요.
그때 왜냐하면 그 6·25 바람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나도 늦었는데, 나보담 네 살씩 더 먹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어르신 1년 선배는 몇 개 반 정도 됐어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보다 상당히 적었죠. 우리는 그때 인제 6·25 바람에 늦은 사람들 뭐 해서 많았구. 진위학교가 좌우지간 우리 학년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인원이.

어르신은 아무래도 학교 갔다 오고 나면 집안일 거들고 그러셨겠네요?
예. 나는 오직 어디 갔다 오면 일해는 게 저기여.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안일, 농사일은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15살,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15살, 국민학교 졸업 맞구 나서부터 일핸 사람이여. 내 논갈이를, 아버님이 들에서 논갈이 해면 나 학교 가다가도 해보고 오다가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일핸 사람이여.

그래서 쟁기질을 완전히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몇 살 때부터였어요?
그때 한 15살부터 했대니까요.

15살 때부터 쟁기질 하시고 써레질 하시고 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 동네 어른들이 날 보구 “아무개 자식은, 저 자식은 애가 됐다.”구, 쓸모 있는 놈이라구 그랬어요.

그때 식구는 몇 식구였어요?
동생들하고 아홉 식구지요.

그러면 이 아홉 식구가 아까 말씀하신 논 4천 평 가지면 농사 져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되

나요?
아 먹는 거는 배 안 곯구 먹었어요.

그때 논은 해마다 모내기를 할 수 있었어요?
못핼 때두 있었지요. 가물어서.

근데 여기가 논이 모내기를 해마다 할 수 있는 논도 있고 아닌 논도 있잖아요. 주로 해마다 할 수 있는 논은 골짜기 논인가요?
옛날에는 대부분 골짜기 논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물 땜에 그랬는데 지금은 외려 저기 들논은 관정 박어가지고 물이 다 나오는데...

어린이 농장이 이게 몇 년도에 일로 왔어요?
그게 농지정리 되고 나서 들어왔으니까 아마 70년도, 70 몇 년도에 들어왔을 거여.

어린이 농장에 한 3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3만 평인가, 2만 평인가 그렇게 돼요.

그때 그러면 여러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학농원에서 사신 거네요?
사가지구 해구, 임대로 해서 해구. 그렇게 자리 잡은 거지.

농사지으실 때 옛날에는 농약 안 줬잖아요?
농약 없었지. 옛날에는 다 호미루 매구. 세 벌 매구 또 나중에 풀 나면 또 손으루 훔친다구 그래지. 훔쳐. 그렇게 해서 먹고 살은 거지.

그러면 논을 총 4번을 매는 거예요?
뭐 네 벌도 매구, 세 벌도 해구. 세 벌까지 하여튼 호미루다가 매서 엎어서 해구. 또 나중에 또 풀 나면 또 한 번 해주구 그랬으니까.

논 맬 때 두레 같은 거 치고 그랬었죠?
두레 가지구 대니면서.

둘에 혹시 구성된 거 기억나세요?
아 구성된 걸 알고말구요. 나도 그거를 막 핸 사람인데 뭐.

뭐 하셨어요?
상모돌리기.

맨 위에 좌상 있고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전부 꼬치꼬치 뭐, 그거 전부 그렇게 할려면 한도 끝도... 아이 옛날에 그 두레 아주 구성이 돼 있었어요. 여기에. 옛날부터.

그 두레가 몇 년도까지 있었어요?

몇 년돈지도 나, 나 어려부터 이전에 있었으니까 뭐.

마을 제사도 여기 지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것도 없앴어요. 저 향교모냥 막 하나 지어놓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앴어요.

거기가 어디였었어요?

저 안동네 들어가야 알아요. 여기서는 뵈지도 않어요... 아 요 농사도 2천여 평 짓는 거요. 요거.

지금요?

예. 다 팔아먹구... 동생들 치다꺼리 해랴, 뭐 해랴.

아 여기가(집터와 붙은 논) 이천 평이에요. 집터랑?

이거 아래로 모 심은 거랑... 저 아래까지.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여기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부자 아니신가요?

아이고 부자는 무슨 부자.

그러면 농기계 같은 경우 이렇게 다 갖추고 있나요.

농기계 있는데, 힘들어서 인제 내년부턴 사서 핼라구 그래요. 갈고 쓰리고 하는 거. 심는 거두. 트럭타는 있는데, 아이구 인저 힘들어서 트럭에다 끌고 다니는 것두 정신이 없더라구. 인저 나이가 먹어가지구.

그러면 이제 사람들 사서...

인저 해주는 사람들한테. 사서.

여기서 몇 가마 정도 나와요?

아이 거 확실핸 건 몰라요. 매상 해기 땜에.

옛날에는 어르신 어렸을 때는 한 마지기당 몇 가마 정도 나왔어요?

옛날에 젊어서 농사지을 적에 그때는, 지금은 많이 나는 거지. 옛날엔 사람으로 전부 해구 할 적에는 쌀 3가마 먹기가 어려웠어요. 한 마지기에.

한 마지기가...

150평... 지금은 보통 삼배출 먹잖아... 날이나 가물고 우짜구 하면 양석, 쌀 두 가마 먹기두

어렵구. 옛날에. 물 귀해구 뭐 해니까.

지금은 인제 삼배출은 보통 나오고?
나오고.

사배출은 어렵죠?
사배출은 뭐 들논에서 뭐 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거즘은 사배출 나온다고 그래는데, 몰라요 뭐.

어르신 어렸을 때 여기서 일하시느라 놀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 이렇게 노는 게 뭐 뭐 있었어요?
자치기 같은 거 해구 뭐. 여자들하구 어떤 때 해면 사방치기라고 그러지? 유리조각 같은 거 던져서 뭐 해구 그러는 거. 그런 거 해구 뭐. 그때만 해도 뭐 놀이기구가 뭐, 노는 게 뭐 없었지.

어디서 했어요?
내가 그때 동네 가운데서 살다 왔는데, 회관 그 부근에서 살었는데 일리 내려 온 거여.

그럼 그 회관 앞에 그쪽에서 하셨어요?
거기서 연날리기, 일리, 이 알로 보고 해면 충분해. 연날리기 그런 거는 충분해.

줄다리기..
줄다리기 해구 뭐 해구. 여기 이거 들여놓은 게 나오지만, 여기에 가을 일 끝나면, 벌써 줄다리기, 동네 집집마다 짚 걷어서, 동아바 드려서, 동아바가 이렇게 굵거든요. 이렇게 굵은데 그거 다 수리해구.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보관을 해 두었었나요?
보관했다가 다시 인제 시원찮은 것들 보수하구. 또 가을 끝나면 좌우지간 두레 노는 게 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돌어댕기매 고사 지내구, 술들 잡숫고, 떡 해면 떡 나오면 떡도 잡숫고 그렇게 놀다 가구. 그게 아주 말하자면 일과나 마찬가지로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면 가을 일 끝나면 그냥 매일 노는 날이네요?
예. 그때만 해두 그거 구경해러 이 근방에서 다 왔어요. 그 줄다리기 해구 해는 거 보러.

홍찬의(남, 1934년생, 동추골)

일시	2022년 8월 15일 / 10월 9일	
장소	마을회관 앞 마실방	
구술자	홍석진씨는 1968년부터 3년간 이장을 맡은 것에 이어 새마을지도자를 지냈다.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 분으로 평이 나 있다.	
면담자	장연환	

이 마을에 홍씨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희도 역사가 보면은 깊죠. 따지고 보면은 지금 42대를 살고 있는데, 29대 할아버지가 여기 처음 오셔서 우리를 전부 번성하게 해 주시는데, 29세에서부터 42대를 따지고 보면은 몇 백 년 되었어요.

어르신이 42대예요?

저는 삼십육 대고. 29대 할아버지가 여기를 오셨대요.

홍씨는 지금 몇 가구나 살아요?

저희 가구는 대략 지금 하면 12가구... 아 12가구, 또 떠나고 그러면 11가구, 그렇게 되죠. 12가구라고 해두 되구...

옛날에는 몇 가구 정도 살았어요? 많았을 때는요?

많죠 뭐 여기가 한 육십호 된대면은 한 40호. 2/3는... 이제 죄 떠났죠.

옛날에는 조씨가 얼마 몇 가구나 살았었어요? 어르신 어렸을 때는? 60가구 정도 됐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 4가구인가?... 4가구.

지씨는요?

지씨도 마찬가지지 뭐, 여기 지금 현재... 두 집, 상철내 집하고... 더 있어요?... 아... (현재) 네 집이네.

옛날에는 여기 60가구 정도.... 60가구면 인근에서 큰 마을이었나요?

옛날에는 이 골짜기 논이 있고, 여기 들판이 있잖아요. 농사짓기는 어디가 좋았어요?

좋아진 거는 아무래도 경지정리가 좋아진 거지.

농사는 어디가 잘 됐어요. 만약에 똑같이...
농사는 아무렇해도 물 참는 데가 좋았지.

네 물 잘 댈 수 있는 데요?
그렇죠.

여기(치울들)는 가물 때는 모를 못 심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거 전혀죠. 전혀... 그리고 여기가 녹두밭 지역이라고도 별명이 있어 동천리가...

아 녹두밭 지역이요?
여기 저 저수지 밑창으로는 그때 당시에 벼를, 뭐 호미모를 한다든지, 그때는 발동기로 물을 퍼서 했단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저수지 밑이면 여기...?
아 그러니까 저수지가 오기 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풀밭이었고 순전히 심는다는 게 녹두만 심어서 먹다시피 했대.

그 저수지는 저기 어비리 저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것두 혜택을 못봐.

여기는 혜택 못 봐요?
얘네들 그 계획을 전부 했는데요. 저기 고속도로. 남사 지역, 여기 현재 여기여. 여기는 와요. 여기까지는 온다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인제 동천리 넘어서, 동천리 넘어서 일로는 안 와.

그럼 여기는 물을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혜택이 없어.

지금도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동천 방죽,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혜택 보고, 나머지는 돈워 가지구, 그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전부 저 지하, 지하수 농사지어.

저수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왜정 시대에 막었대요.

아 일제 시대요?
예. 일제 때 먹었는데, 그때 그 막어 가지고서 있는 거 가지고 시에서 수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크기가 그만했어요?

크기?... 크기도 그렇구, 그 자리에다가 더... 보수를 했으니깐...

그러면 (지도를 보며)그 저수지가 여기잖아요. 이 저수지가 이 밑에 들판, 이 길 양쪽 해가지고, 이 안에 들판에 물을 대는 건가요?

예. 요거 한도 내에 해가지고서 사용해요.... (지도를 보며) 이거 다 이용헬라고 핸거지. 여기 약(바이엘) 공장까지 있는거지. 다 쓸라고. 그런건데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 그니까 왜냐허면 배수, 배수 똘이 그 당시에는 완전치가 못했어요.... 그래 지금두 요기서만 사용을 하지. 요기서만 사용하고. 요건 어린이농장이네...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여기에는 지금 딴 거 전부 재배해잖아요.

아 그러니까 동천리 들어오는 입구 이 서쪽으로는....

예. 딴 걸로 전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논 같은 경우는 인제 지하수 쓰고요?

이거 저 지하수, 하우스 하는 데는 지하수. 여기도 지하수 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오다 보면은 이거 지금 허연데 이게 다 돋은 자리네... 돋은 자리야. 요거 조금 냉기고 욜로 욜로... 거긴 다 이거 지하(수)고 여기도 지하(수)고 다 지하(수)요... 여기 하우스네 이게. 그거 다 지하(수)지 뭐....

그래도 여기 계곡이 물이 많아서, 이 사후천이라든가 이런 물이 많아서. 이 사후천에다 막으면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아 사후천지, 사우천보는 동천2에 있어. 2리에, 여기... (지도에서 확인 후) 그 막었는데, 이것이 물이 양이 좀 있어요. 여기 저 산골 논이니까 물이 참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언제든지 여기가 물이 좀 많이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일루 이제 사용을 한다고. 그 인제 사용을 하면은... 어 진위 저 사후천이 (지도에서 사후천 물길을 가리키며)욜로 내려갔잖아요. 욜로 내려갔다고. 여기도 지금 현재 요것이 내 땅이에요. 요거, 요거 요렇게 된 게. 허연 거, 이거. 그래 인제 이런 데에서 좀 물을 쓸려고 하면은, 여기에 협조를, 막을 때 당시에 협조 안 했다고 물을 안 줘. 하하하...

아 지금도요?

하하 지금도 그려.

그럼 여기는 뭘로 농사지세요?

지하(수). 그러고 하천물... 하천물... 하천물이 저 남어돌어가는데 요새는. 그 지역에는 다 이것이, 여기 사후동이고, 여기 고속도로니까, 여기 기나지(오산쪽으로 가는 고개) 이 쪽으로 오산 쪽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전부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요. 그리고 요기 동천방죽이라고 또 여기 하나가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여기쯤에요?

예. 기나지 방죽이라고 그러지.

기나지방죽이요?

예. 기나지방죽.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여기가 에 전부 건물이 풀려가지고 건물이 들어가서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요거 방죽 안에다가 지금 고속철도, 고속철도 무슨 관리소인지 뭔지 사용하고 있어... 그 자리....

당집은 어디예요?

당집? 하하 당집이 지금 없어졌어. 하하하...

거기서 당제는 언제까지 지냈어요.

아 당제가, 그거 난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언제 없어졌느냐? 아무래도... 6·25, 6·25 후 바로 없어졌나 본데.

어르신은 거기서 같이 제사 지내고 이런 거는...

제사 지내는 거는 구경, 구경도 못하죠. 그건 뭐 깨끗한, 청결한 사람만 댕기니까. 그거 밑창에서 인제 살았으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어 보시오. 그게 나타나네...

홍석용: 그때 당시 마을에서 인저 거 지낼 날짜가 나오면은 청결한 사람이 세네명 뽑아가지고 고 사람만 해지, 딴 사람은 못 가죠.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동회를 해면은 나와. 그러면 인저 거기서 쪼끔,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 당제 지내는 순서, 예를 잘 모르니까 좀 배울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있어. 심부름꾼. 당제 지내면은 우물도 다시 만들어. 먹던 물은 사용을 안 하니까.

근데 보통 당제 지낼 때 쓰던 우물이 있지 않나요?

아 쓰던 물이요? 쓰던 물은 어디서 하냐면 지금 이 승주꿀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 그 위로 올라가면 거 중턱에, 중턱에 옆에서 물이 자꾸 그 땅 속에서 나오는 지역을 맨들어. 그걸 그때 그 우물만 사용하지 딴 사람 사용을 안 해요.

그럼 한 번 쓴 우물은 안 쓰고 매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물이 좋으면 다시 그걸 덮어두니까. 수멍 이렇게 양회 수멍을 이렇게 해가지고 덮으니까. 고 이듬해를 쓴다 그래 보잖아요. 아무래도 그거 물이 깨끗치가 않잖아.

승주골 쪽에서?

예. 승주골 중턱, 개천 중턱에서 이용을 많이 해지.

당제는 언제 지냈어요?
당제는 10월, 음력 10월달에 주로 많이했지.... 가을 농사 져서 바치는 거니까... 음력 10월 그러면 11월달....

보통 언제쯤 지내나요? 몇 시쯤?
야간에 지내. 밤, 새로 1시경

굉장히 늦게 지내내요. 다른 동네는 해 넘어가면 지내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촛불을 그 3일 전부터 켜놔. 그 당재 지내려면은. 그 사람이 가서 벌써, 당제라면 일 년에 한 번 지내니까, 하루 가서 청소를 또 말끔히 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고 다 그거 경계를 닦어야 되고. 그런 준비 해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제주가 하나요?
그렇죠. 그 깨끗한 사람이 다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거기 청소하고 이러는 거는 며칠 전에 하나요?
그러니깨 3일, 3일 전이지 뭐... 3일 전에 거 가서 살어.

거 가 산다는 거는 그러면....
산다는 건 거가, 왔다갔다 청소하고 야간에 불 켜놓으니까. 왔다갔다 하고 또 그 사람도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또 저 낮에 와서 좀 잠을 붙이던지, 저녁에 또 새벽에 가서 또 불을 끄고 간다든지 그러죠.

3일 동안 쉬지 않고 촛불을 계속 켜놓는 거예요?
밤에.

제사 음식은 뭐뭐 했어요? 제물...
음식은 보통 뭐 지금 배, 사과, 소... 소, 보통 제사 지내는 제물 보다 좀 약하게 뭐 몇 가지 놓고, 대추, 밤.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 삼색 과일 놓고. 소 머리 놨어요?
무슨 저기 고기 적 같은 거 해놓고, 인저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소 잡아서 동네 사람이 먹는 거지... 목을 놓아요. 목을.... 소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그때 당시 옛날에는 집이... 추념한 부락 돈이 모자라면 걷어서... 사용하더라구.

그러면 이 제가 끝날 때까지 소를 잡았었어요?
소 동네서 잡기도 하고 예전엔. 인저 그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푸주간에서 잡아다가 노놔. 제사 지내는 거기 거기서 좋은 걸로만 딱 뛰어서 지내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정육점 가가지고 제물만 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를 거기다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머리, 보통 머리 놓지 않나요? 소 머리....

머리, 머리도 놓죠.

그럼 머리만 사갖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니지. 잡어다가, 잡어다가, 잡어다가 인저 놓잖아요... 오늘 저녁에 제사다 핸다면 오늘 잡아오잖아요.

예. 한 마리를요...

예. 잡아서 이제 머리를 갖다 놓고 고기도 저 적 갖다 놓고 그러겄지

그러니까 이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머리 갖다 놓고 나머지는 노놘다고 몫을... 집집마다.

두레는 언제까지 있었어요?

농악은... 없어진 것은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30년, 50년 전이네. 50년 전, 그런 거 내용은 없어요? 저기 저 동천리서 시, 그러니까 평택군에서 어....

홍석용: 내가 어려서는 평택군에서 1등 한 적이 있나 봐. 여기가 두레로는 잘 놀아갖고 1등, 어려서는 그건 들었어.

인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저 군 대항에서 1등.

어르신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 잘 생각난지 모르겠는데 한 삼30대... 였지. 30대.

직접 두레 농악 하시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정신이 없지만... 농악에 참여는 안 했고 어 저기여. 사무관계라는 했어요.

악기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 악기도 사야 돼겠구, 먹어야 하잖아.... 먹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홍석용: 옷을 또 다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도 막...

아 도 대항, 부천에 가서 했는데, 차량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도 대항은 군에서 부담. 얼마 정도나 그때 나 왔어요?

그때 정신(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뭐 50만 원인가 얼만가... 잘 모르겄네. 500만 원인가 얼만가... 그때...

그때는 50만 원도 굉장히 큰 돈 아니었나요?
그거 가지고, 그 연습이다 대항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이 두레를 만든 목적은 논매기 할 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논매기 할 때 하는 거예요? 두레 할 때는....?
홍석용: 그거는 인제 칠 때, 각 부락마다 옛날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부락대회 해갖고, 면 단위 해갖고, 또 군 단위 해구. 뭐 이렇게 해잖아요. 그니깨 각 부락에 잘 해구, 잘못해구 있었지요.

그니까 그건 대회 나간 거고요. 대회 나가기 전에 각 마을에 있을 때, 여기서 주로 이제 어떤 때는 모내기 할 때도 두레를 치는데.... 어떤 데는 또 논매기 할 때만 치더라고요.
그렇죠.
홍석용: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농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농악은 우리 부락이 (문헌에) 어떻다고 나왔어요?

그냥 있었다고만 나왔어요.... 봉남리도 두레가 좀 유명했다고 그러고요.
역사가 제일 높았지.

아 여기가요?
응. 우리 부락이. 왜 높았느냐면요... 정월 대보름이라면은 줄다리기를 해. 줄다리기를 해면은 벌써 그것이 뭐 하루 이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저 찬조금 뭐 이런 게 나왔지만, 그땐 막걸리를 집에서 해던지... 그때 당시에 시작헐 때는 막걸리를 집에서 막 제조를 해도 무관했다고. 근데 그 후부텀은 그 법이 자꾸만 저 세금 관계 때문에 세무청에서 말렸잖아요. 왜정시대 이후부터...

예. 못하게 했죠.
그래 가지구 못해먹구 그랬잖아요. 그 바람에 없어졌는지는 몰라두 농악이 시시하게 없어졌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후부텀은. 그런데 그 전에는, 정원 대보름이면 줄다리기를 해면은 요 근방에서 전부 구경와요.

아... 근방이라고 하면?
남사. 저 진목, 뭐 지금은 은산5리지만 그쪽으로 보이는 데서 심지어는 오산 저 저 도시에서도 와

줄다리기 하면서 같이 농악을 하니까 그걸 같이 보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네들 가만한 게 아니라 술을 또 잠깐 빚어주니까, 술을 한 잔씩을 주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줄다리기 할 때도 술 주니까, 그것도 한 잔 먹고 싶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사실은 좋은지 몰라도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일단 농사를 짓고 나면은 이 부락에 처음 핸 건 몰라도, 줄다리기 짚을 엮어요. 인제 짚이, 인저 제공을 해. 저 농사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지으면 적게 내놓으면, 그 줄을 며칠을, 한 일주일 이상서부터 그거를 엮어.

홍석용: 그 줄이 우리 아름으로 한 아름씩 됐어요... 한 아름씩 돼가지고 아마 한 50m 이상씩 됐어요. 길이가. 그 양쪽에 여자 남자 해가지고 갈라서 이렇게 편 갈라 갖고 핸 거지.

아 줄이 한 아름 되고, 그 길이는 50m 정도요?

홍석용: 한 50m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크게. 그러니깨 며칠씩 걸렸죠.

그럼 이 줄은 매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 보관해요. 행여집에다가 보관을 핸다구.

상여집에다가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저 2년만 쓰구 이제 또 삼 년 되면은 다시 맨들어.

상여집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저기, 지금 다 쓰러졌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감쪽같은 게 아니라, 다 썩었어. 없어요. 하하.... 거기서 그냥 거름이 되고 말았어 그냥. 없어.... 그때 이제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지었냐면 담집이야. 저기 저 담, 담집을 지어서 행여 집을 맨들었지. 그냥 한비짝으로는 그 줄, 줄다리기 줄. 한비짝으로는 행여. 이렇게.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 날 매년...?

예 대보름이여.

그럼 이제 일주일 전부터 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줄 만드는 거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주로 청년들. 힘 있는 사람들. 다 맨들 줄 아는 사람들. 뭐 지금이라도 지금도 핸다면은 우리네도 가서 뭐 맨들기는 그 하지만, 그 줄을 엮을래면은 한비짝에 돌리고 한비짝에선 짚을 집어주고 한비짝에서는 이 저... 엮으는 거지.... 돌려서 이렇게 자꾸 비틀어지는 거지. 비틀어져. 그래가지구 이렇게 반을 꺾어.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는 거지.

홍석용: 동네 그니깨 그날은 다 나와야 뎌. 뭐 여자고 남자고. 예를 들어 한 집에 하나씩은 나와야지.

안 나오면 눈치가 뵈고, 자기도 죄책감이 있어서 나와야지.

줄다리기 하는 날이요?

그럼요

홍석용: 아니. 그거 맨드는 거, 그 저 줄 맨들 때도. 줄다리기 핼 때도 다 나와야 뎌.

안안밖이 다 오는 거요. 안안밖...

아 부부지간에?

그럼요. 식구가 능히 할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되는 거여. 허허허.

그러면 이날 음식도 장만하고 그러는데... 음식은 뭐 장만해요?

보통 그냥 밥이지 뭐.

홍석용: 막걸리에다가 그거 국밥식으로다 해더래도...

인저 중요한 일 핼 때는 밥을 인저, 부인들은 대동으로 그냥 짓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먹고 와라. 먹고와라.”면 일 안 벌어져요. 지금두 마찬가지겠지만 일 시킬 때는 그렇게 시켜야지. 그럼요... “몇 시에 나와라. 먹고 오후 몇 시에 나와라.” 이러면 아무래도 게을러지고, 늦어지고 일이 되겠어요?

그 줄다리기가 언제 시작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건 모르죠. 하하하... 어른들이 하시는 거 보고

홍석용: 계속, 그러니까 동네가 생기면서 계속 저기 해겠죠.

인저 시작하는 건 몰라. 그건 몰라도...

어르신이 아까 두레가 여기가 제일, 인근에서 제일 오래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줄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줄다리기, 요 근방에서 소문난 거는 줄다리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지.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줄다리기는 그때도 내가 어렸을 적에 하고서 말았으니까, 6 · 25 전.

홍석용: 6 · 25 전까지 했을 거야. 아마.

아 6·25 전에 끝났어요?

예. 난리 나고서 안 했을 거여.

그럼 이제 명절 때 언제 놀아요. 지금은?

설날.

그니까 그게 끊어진 게 아니고...

있어요. 남아 있어요. 뿌리는 남아 있어요.

논매기 할 때만 안 하지 그냥 그 명맥은 유지가 되는 거네요?
지금도 술 취하면 젊은 사람들 몇 가지 두들기고 댕겨요.
홍석용: 그 댓 명이 두들기니까, 고 댓명이 술 한 잔씩 먹고 그 거나하면...
그 집이로 댕겨서 축복 들여주고 그래.

아 그건 이제 대보름 때요?
홍석용: 아니요. 명절 때.
정월 때 주로 많이 하지, 그러니까.

명절 당일날 하나요?
홍석용: 아 당일날도 하고 그 이튿날도 하고 그래.
당일날도 하고, 인저 대보름날도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뜻 맞으면 "한 번 두들기자" 그러면서 두들기나봐. 하하하...

젊다고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홍석용: 그 사람들도 지금 한 60대 다 이상 됐죠

여기 옛날에 거북 놀이 같은 건 안 했었어요?
거북놀이 같은 거는 구경 못했어.

그러면 여기는 상계 같은 건 없었어요?
응?

상계요? 상포계.
상포계가 뭐요?

초상이 나면 그 집에 이렇게 얼마씩 돈 주려고, 이제 장례 비용 같은 거 주려고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하자면은, 뭐 저기네. 뭐 옛날식으로 해면 계돈이다. 이렇게....

초상이 나면 이렇게 얼마씩 주잖아요.
아 있죠... 지금은 저 그것도 좀 드물지만, 그거 저기지 부주(조). 말하자면 부주금. 아 있었지요. 그 전에는 부주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술 한 말, 그 집이 술이 필요하니까. 초상 나면. 옛날에 조상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술이 칠십 말, 팔십 말씩 들어가요. 삼일 장사하려면... 그때 술이 그렇게 심했다고.

3일 동안 술 70. 그러니까 막걸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 막걸리. 그 복남리 양조장에서 그냥 노다지 그냥. 자전거에 싣고 오면 5말밖에 못 실어.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와. 싣고. 그때 심했어요.

선친께서 타계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 43년 됐어요. 어머니 들어가신 데는 53년. 그걸 지금도 내가 기재를 해놓거든. 몇 해다. 추모가 올해 몇 해다. 몇 해다. 그걸 적어놔요. 어머니는 6월 달이고, 아버님은 10월 달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어머니 추모식을 했지.

(술이) 70말 들어가면 손님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아이 옛날에는 상을 누가 당했다 하면은 이웃 동네서 그렇게 많이 와요. 지금은 친척이나 오지만, 조금 뭐 좀 사둔(사돈) 먼 사둔들은 안 와. 옛날에는 알았다 하면 술 친구도 그냥 와서 삼일 동안을 그냥 먹어 그냥. 퍼먹어. 하하하....

홍석용: 옛날에는 부주돈이 없었나봐요. 옛날에는. 지금은 부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가는 게 예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잡숴...

응. 오는 게 예지. 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친구가, 남사(면) 친군데, 술 친구지. 요 동천주막에서 새긴(사귄) 친구들. 아 와서 그냥 묵이는데 뭐 묵여...

홍석용: 그러니까 잡수고선....

동천주막이라는 게, 어디에요?

고속도로 다리 있는 데.

그 동천주막은 누가 운영했어요.

아 그 개인이지.

건물(주막)이 몇 개 됐어요?

뭐 그때나 이때나 활력이 좀 있는 사람이래야 장사하지.

홍석용: 여자들도 있었어요.

대여섯 집 있었어요.

장꾼들도 여기 많이 지나다녔겠네요?

예. 장꾼들도 많이 먹지.

그러면 여기는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잠자고 갈 수 있는 시설은 없었어요?

그거는 몰라.

마을에 가게 같은 건 없었나 봐요?

가게?... 옛날에 가게, 가게.... 뭐... 무슨 가게?

뭐 물건 팔고 이런 가게요.

수퍼? 옛날엔 그 저 숨어서 파는 건 있었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그 옛날엔 그것도

간섭 안 했지... 담배도 갖다 놓고 팔고. 무슨 저 과자도 갖다 팔아놓고. 술도 팔고 그랬지. 석유, 석유. 바로 이 집이, 이 집 터였었는데 뭘.

아 바로 요 앞에요?

아 여 오거리 아녜요? 우리 부락에 그래도 이게. 여기서 나오지. 저기서 오지. 여기로 가지. 저기서... 하하하...

그러니까 이 집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마실 글로 오는 거예요. 나도 뭐 그냥 밥만, 저녁밥만 먹으면은 마실 다니는 게, 사람 모여서 잡담하고, 나이롱 뽕하고 요런 재미로.

그럼 먹는 건 주로 뭐 뭐 있었어요?

주로 뭐, 하하하...

홍석용: 국수지. 국수... 국수 삶아주는 거, 저기 저 메밀묵.

메밀, 국수. 뭐 밤새도록 놀면....

떼다가 파는 건 없었어요? 뭐 과자 종류나 이런 거?

홍석용: 술 그런 거 사와야지. 옛날엔 고리술이라고 해, 고리술. 그거 저 해다가 따라서 파는 거지.

그럼 이거 고리 소주는 어디서 가져와요?

홍석용: 오산서 사와야지. 오산서.

막걸리도 오산에서 가져오고요?

홍석용: 막걸리는 봉남리.

저 그 아까 상당하면 다른 마을에서는 이렇게 집집마다 뭐 쌀 두 되씩, 세 되씩. 이렇게 걷어주고 이런 게 있는 마을도 있거든요.

상당한 집에다? 그건 그전, 옛날 옛날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대요?

어르신 젊었을 때는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아는 기억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때 술. 나도 술을 빚어서 '누구네 무슨 육순 생일이다.', 뭐 저 집이 대상, 삼년상 뭐 초상 그러잖아요? 삼년상 제사니까. '우리 집이 해왔으니까 품을 갚아야 겠다.' 없는 쌀 가지고 해다가 세무서 직원한테 걸려가지구 세금구 저 한두 번 낸 적도 있어요. 그 바람에 재산이 줄었다구. 우리도.

홍석용: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없었구.

예. 쌀이나 술 같은 거...

홍석용: 쌀이나, 쌀. 그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나도 그건 아는데. 잔치를 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해면, 뭐 저 국수를 이렇게 한 묶음 있잖아. 이거. 한 관이라 그러나 지금. 그런 거 하나 해구. 또 술 한 말을 해줬으면 또 술 한 말 갖다 드려야 되구.

마을 전체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없구. 아 저기 있었어. 그 쌀계. 그건 있어요. 한 말씩. 지금 한 두 되 얘기를 했지만 한 마리씩, 쌀을 걷어서 그 집에 줘. 그러면 우리가 상 당해가지고 했던지 그 애들 결혼식이 있다면은 그때 또 그 친목. 친목계. 그러니까 가족 친목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한식이가 뭐 대장이었지

홍석용: 그니까 그것도 이 동네에서 다 전체 동민이 다 핸 건 아니고...

이제 초상이 나면 고인들은 이제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매장하죠.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선산으로 가죠?

그렇죠. 산으로 가죠.

보통 이렇게 묘를 쓸 때 지관을 부르나요? 아니면 그냥...

홍석용: 옛날에 거의 다 지관 불렀죠.

지관은 어디서 왔어요? 주로 어디 사람이 지관을 했어요?

지관 요기 저. 지금은 저기 저 고현동이 됐지. 오산. 거기도 주막이여.

고현동에도 주막이 있었어요?

거기도 주먹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거 기나지 고개거든. 고개 너머도 술집이 있고. 고개 이쪽에 안에도 술집이 있고. 동천주막. 그러니까 거기 주막에서 술 팔며 지관 보는 사람이 있어. 안식구는 술 팔고. 남자는 직관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홍석용: 그리고 다리 하나 없었죠?

그렇지.

지관을 봤어요?

응. 그러니까는 구학문을 많이 배운 거지. 그 양반은 인저 앉아서.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했어요.

아 여자는 술 팔고요?

부인은 주막. 주막 역할을 많이 한 거지. 주막, 술집.

저기 사후동에도 풍수를 잘 보는 분이 계셨다고 그러던데요?

아 주옥송이라고... 주옥송.

이분도 이제 지관 일을 많이 보셨어요?
네. 그분 좀 봐요. 그런데 인기는 못 끌었어.

여기 마을은 어떻게 나눠요? 윗말 아랫말 이렇게 나눠요?
불르긴 보통 아랫말. 아까 저 줄다리기 얘기 나왔죠?... 그건 아랫말, 윗말을 편을 갈라가지고 한다구.

아 줄다리기를요. 그럼 줄다리기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 장소가 주로 큰 길을 이용해서 한다고. 부락 요거, 여기서 요거 아랫말 아니고 웃말 이렇게 나눠서 할 때도 있고....

남자 여자로 나누지 않고요?
아녀. 아랫말, 윗말로 나눠서...

그러면 이웃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고 구경만 하고요?
그렇죠.

그럼 아랫말, 웃말이 하는데, 보통 아랫말이 이겨요? 웃말이 이겨요?
다 아랫말이 이기더라고.

윗말하고 아랫말만 있었어요? 그럼 이런 데는 집이 없었어요?
여기는 추후로, 여기 지금 집 생긴 거는 추후로 이렇게 생긴 거여. 이건 달동네라고 하지.

여기 달 동네요? 여기 왜 달동네라고 그래요?
몰러 글쎄. 그렇게 부르더라고.

여기 옛날부터 그 사람이 살았었어요? 옛날에도 여기 집들이 있었어요?
아 취락 구조. 적십자 당시.
홍석용: 새마을 사업할 때 거기 지은 거예요. 거기 동네가 들어가서 달동네라고 그랜 거예요... 새마을 사업핼 때 그거 핼 때, 그거 생긴 거 아네요.

여기 우물이 다섯 개인데 옛날에 우물제 같은 건 안 지냈어요?
우물제? 우물제는 안 지내고 당제. 아까 얘기했던 당제.

우물 고사는 없고요. 우물 고사가 없는 거는 물이 흔해서 그런 건가요 여기?
그건 모르겠어요.

한마지기가 몇 평이에요? 논?

홍석용: 150평? 관평수는 150평이고, 산골 다랭이는 200평인가봐.

200평 한 마지기 있고, 150평 한 마지기 있고.

한 마지기에 몇 가마 정도 났어요?

쌀? 그때야 뭐 쌀...

홍석용: 지금은 60평에 한 가마 나지만, 그때는 뭐 70평, 80평...

그러면 한 마지기에 대략...

쌀 2가마.

오늘 감사합니다.

차옥순(여, 1947년생, 사후동)

일시	2022년 9월 25일
장소	차옥순씨 자택
구술자	차옥순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1971년 사후동 시댁으로 이사왔다. 이후 사후동에 처음으로 부녀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 결과 사후동이 절미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인터뷰 도중 남편 구본원씨가 출타했다가 돌아와서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자	장연환

서울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예.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학교 졸업하시고, 거기서 취업하시고요?

예. 그 해에 공무원 시험 받고, 그러니까 66년인가, 67년인가 그때 발령 났어요. 7월 1일자로 아마 발령 났을 거예요... 66년에 졸업했고, 66년인가 67년인가, 하여튼 졸업하면서 시험 받고, 금방 또 그 해에 발령이 났으니까.

어디서 근무하셨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과요... 거기서 센서스 했어요. 인구 센서스, 뭐 상업 센서스, 하여튼 통계라는 통계는 다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컴퓨터를 배웠어요. 이때부터.

그때 컴퓨터 했던 경험이 지금 컴퓨터라든가 뭐 이렇게 인터넷 하는 데 적응...?

아이 하나두 안 되구, 인제... 여기 와서, 우리나라가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런 영향은 많이 받았죠. 많이 가르쳐줬구 또 내가 참여두 했구. 평택시에도 많이 가서 아르켜줬고 그랬지. 지금 컴퓨터하고 그때는 자판부터 달라요. 우리는 그때는 전부 다 일본식. 일본에서 이 컴퓨터 키 본체도 일본 거구, 이 자판두 숫자만이지 기호는 전부 다 일본 글씨로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글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할아버지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69년도에 결혼했죠.

69년에 결혼하셨으면 서울에서?

예. 서울서 결혼해서 서울 삼선동에서 살다 미아리로 이사 갔다, 그랬다가 72년도에 이제 일로 내려왔죠.

이쪽으로 내려오시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요?

첫째는 인제 배우자의 직업 때문에.

아 할아버지 직업 때문에요?

예. 출판사에 근무하다가 이제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그렇게 빨리 취해지지가 않으니까, 여기 이제 선교사가 이제 연결 연결해가지구 ‘남사중학교에 티오가 하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전공 과목으로 가르키질 않구, 처음에는 아마 한문 선생으로 왔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학과를 나왔으니까 역사 가르키구, 여러 과목 가르켰어요.

한 달에 적금은 얼마 정도 들으셨어요? 그때?

그때 몇 천원씩 핸 거 같애요.

두 분 이제 봉급 아껴가지고 생활비하고?

그때는 생활비가 별로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아침두 안 먹구 출근한 거 같애. 그리고는 와서 저녁 한 끼 해먹구. 또 쌀은 어머니가 주시구 뭐 반찬 같은 거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실 적마다 뭐 가져와서 생활비가 별로 안 들은 거 같애요. 그래서 야 빨리 저축해서, 왜냐하면 거기 삼선동에 고모가 살았는데, 그 집을 우리 보고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저 집을 사야지’ 그 맘 먹구 저축했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들이나 지금 어머니들이나 반찬에다 주시는 건 똑같네요?

예. 아유 지금은 그래두 차가 있으니까. 인제 그때 어머님이 이구, 지구. 여기서 걸어서 오산와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리셔서, 서울역에서 또 왔다구 거기서 기다리시면, 우리가 모시러 가고 그랬죠.

여기서 오산도 기차 타러 가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 갔죠.

할머니 여기 내려오실 때는 인제 버스가, 대중교통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걸어 왔죠. 아니 근데 그때는 막 냇갈두 있어서 그냥 저기 차도 못 들어왔어요.

그럼 이사짐은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트럭에 트럭, 트럭 타고 왔죠.

아 트럭으로 여기까지요?

그렇죠.

구본원: 그 저기 이렇게 오시다 보면 다리가 몇 개 되잖아요. 그때는 다리가 없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인제 물루, 저 뭐 비오구 그러면은 물이 더 많구, 이만큼 되구. 가물적에는 뭐 징검다리 놨으니까, 이 트럭 같은, 저기 바퀴 큰 차들은 다니구 했는데, 저 결혼해서 내려올 제만 해두 저

기...

자가용은 못 들어왔지.

구본원: 차가 그냥 냇갈에 빠지구. 하하. 그 정도루다가.

처음에 어르신께서 시골 가서 살자고 그럴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하하... 안 좋았죠 뭐. 안 가려고 막 그랬죠 뭐. 안 간다구 그랬는데, 가면 더 좋다구 막 그래. 하하하.... 안 간다고 그랬어요. 싫다구 막 그랬지. 뭣 모르니까.

제일 싫은 점이 뭐였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었는가요? 아니면 시골가면...?

시골이라는 개념이요. 왜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살지 않구, 이렇게 놀러 오는 거는 좋았어요. 한 번 인제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하구 한 번 여기를 와봤는데, 친구들은 다 싫다 그랬는데 나는 괜히 좋더라고요. '아이야 참 좋다 야.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그때가 아마 가을이었나 봐. 10월 9일쯤인데 한글날 놀러 왔나 보다. 이 앞에 보리가 싹이 이렇게 났든가? 하여튼 몰라. 뭔지 파란 게, '어머 지금두 잔디가 있나 봐!' 했더니 그게 보리라고 그러구. 하여튼 이렇게 저기 시골에...

구본원: 시골 물정을 하나두 몰렀어요. 그래 인제 이 농기구, 무슨 삼태기래든가 뭐 키, 그런 걸 전혀 보질 못했으니까 지금 모냥 뭐 이렇게 저기...

인터넷이 있나 뭐가 있나.

구본원: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그래니까 일 해다가 어른들이 뭐가 필요해면, 뭐 도리깨 좀 찾아와라. 그러면 도리깨가 뭔지도 몰러서. 허허허...

처음에 오셨을 때요?

그요. 매년 그랬어요. 뭐 처음 뿐만 아녜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아 지금 어머님이 저 일을 핼 때, 이 연장 중에서 뭐가 필요할까? 이거가 필요할까? 저거가 필요할까?' 그 눈치르 이거 가지고 가보면, '아 그거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뭐뭐다.' 그러면 또 '지금 저거 해는 데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 눈 대중으루 배웠어요. '아 저거 할 땐 이걸 갖다 드리는구나.' 그래도 애로 많었어요. 이렇게 가을이었는데, 어머님이 벼를, 지금은 다 탈곡을 기계가 하지만 그 당시는 사람이 베서 궁글레 통으로 털었는지, 몰라요 뭘로 털었는지는 생각 안 나는데, 요 마당에다 멍석, 지금은 멍석이 비닐로 됐지만 그때는요 새끼를 꼬은 멍석을 쫙 널고, 그 위에다 벼를 쫙 널어놓으셨어. "야 저녁에 해질 무렵에 저 명석을 채덮어라." 채덮는 게 뭔지 알어야죠. 어머니가 어떻게 해라 그러지 않구 "채덮어 놔라. 이슬 맞으면 내일 말리기 힘들다." 그래. 네. 그래놓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물어보질 않구, 저 앞집 여자가 해는 것만 쳐다봐요. 저 여자는 어떻게 저걸 하나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덮어. '아 저게 채덮는 거구나.' 그러구 했어요. 하구 되게 혼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님이 널을라구 보니까, 이렇게 털어서 채덮어야 해잖아요. 그냥 덮었으니까 벼 이삭이 이쪽에 다 묻구, 또 그걸 갖다 이렇게 덮었으니까 이쪽에 다 묻구. 그러니까 벼 이삭이 다 땅에 떨어졌지 뭐예요. 아 이제 벼를 쭉 깔았으면, 채덮으면, 이걸 모아야 되잖아... 모으구, 이쪽에 벼

있는 걸 탁탁탁탁 털어서 벼 멍석을 이쪽에 턱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농기구 이름 같은 거 잘 모르고 그런 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다 아시게 되는 데?

인제 그래가지구요. 아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만 해두 머슴이 있어서 농사에 전혀 관여는 안 했어요. 또 남편이 돈을 벌어 오니까 어머님도 뭐 시키지두 않구. 그때는 식구가 많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밥만 해구, 설거지만 해구, 애기만 키우면 그냥 땡이었어요. 근데 인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도 아는 것 같애. 근데 언젠가 동네에 모내기 철이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구요. ‘모내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0명씩 일꾼을 얻어서 모를 심어요.

그때는 품앗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품앗이 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꾼 백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는 걱정을 했는데, 인제 내가 그때 이제 75년돈가, 76년도쯤 됐을 거예요. 어 저기 동네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고 뭐, 막 그러니까 진위면, 그때만 해도 이 마을에는 부녀회가 없었어요. 부녀회장이 없었어요. 최초로 부녀회장이 된 거, 마을 분들이 진위면에 한번 가보라고 막 그래.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인제 그때 당시 부녀회가 막 조직이 되는 시기라, 그게 인제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개발을 해면서 농촌에 새마을사업이래는 게 시작이 있어요. 그래가지구 부녀회가 조직이 막 돼. “어디서 오셨느냐?” 그래서 여기서 왔대니까, 그 면직원들도 깜짝 놀라요. ‘거기두 사람이 사는 데냐?’고 그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인제, 아 그러면 우리두, 그리고 교육을 이제 진위면에서 받구, 평택시에 가서, 그때는 평택 군이예요. 근데 그때만 가두 젊었으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그래두 이렇게 시골티가 안 났나 봐요. ‘어유 시골에서 저런 여자가 있었나.’ 그리구…

햇빛도 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이렇게 티가 났겠지. 그리구 옷 입는 것두 좀 시골 여자들, 부녀에 오는 여자들하구 뭔가 달랐으니까 평택 부녀회에서 눈 여겨봤나 봐요.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사신 지가 그러면 한 4년쯤 지난 다음에?

군에서, 잊어버리지두 않어, 근데 군에, 새마을과에 오영택 과장이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눈여겨보고는 ‘아유 진위면에 저런 여자가 있구나.’ 해갖구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새마을사업을 하구, 이제 부녀회를 조직해서 뭘 시작했냐면 처음부터 절미저축. “밥 할 때 한 주먹씩 저축하세요.” 그래갖구 그 쌀을 모아서 이제 부녀회 자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구 77년돈가에 이제 뭐를 내가 작성했냐면요, ‘아 부녀회를 해구 이렇게 이제 작업반이라는 걸 만들면 일할 때 수월해겠구나.’ 그러고 했는데 마을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모를 심을 줄 알아요. 시골 물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배운 것만 가지구 시골은 안 맞는다.’구 남자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작업반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예. 내가 작업반 만들었어요. 만들려구 하니까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그러니까 부녀회를 75년에 하시고...

그때 이제 부녀회래는 것도 없어. 이렇게 몇몇 사람들 모아놓구 '절미운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두 부녀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내가 이제 면이구 어디구 갔다오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구 그때만 해구 테레비구 없구 뭐 전화기도 한 대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구 전기불구 안 들어오구.

그러니까 정식 부녀회가 아니고 그냥...

그렇죠. 인제 그렇게 하다가 진위면에서 그러면 사후동도, 날 보고 "부녀회를 한번 조직해보셔요." 충고를 해줘서, 인제 와서 "그럼 우리도 부녀회 합시다." 그래 '내가 부녀회장을 하구 당신네들은 절미운동에 참여해라.'고 그래갖고 그 장부를 해서, 명단을 적어서 진위면에 내니까, 그니까 이제 동천2리 부녀회가 이제 설립이 된 거지.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76년도예요.

72년도에 내려오셔가지고 75년도에 인제 면사무소에 다니면서 부녀회를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절미운동하시다가 76년에 정식 부녀회가 만들어진 거네요?

예. 그러면서 절미운동이, 잘해서 상도 받았어요. 진위면에서. 이렇게 인제 그 모으는 절미가 연말 결산을 해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이제 얼마씩 얼마씩 넣은 걸 다 모아서 팔어갖구 그걸루 인제, 부녀의 자금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인제 그래가지구 몇 년도인지는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인제 그렇게만 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봄에 인제 서울여객이, 찾아갔어요. 우리가, 인제 부녀회에서 몇 명이 찾어갔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가 관광을 한 번 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으니까 차 좀 하나 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여객이 처음으로 관광차를 무료로 대줬어요. 돈 안 받구... 하루 당일치기루. 그래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속리산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속리산이 경치가 좋더라고요. 뭐 법주사두 있구 뭐도 있구, 그래서 속리산으로 간다니까. 가깝잖아요. 그 서울여객이 우리 보구 도시락만 준비해구 기사님 도시락까지 싸오라구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저 각자 얘기를 해서 인저 김밥을 싸서 속리산을 갔어요. 갔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 그러는 거야. 막 투덜대는 거야. 여기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시골이잖아요. 시골에서 어디 여행 간다고 그래니까, 화려하구 좋은 데인 줄 알았더니 굽이굽이 말티, 이렇게 굽이굽이 산에서 산 속으로 왔다구... 얼마나 굽이굽이 가요 송리산 들어가는 데. 지금은 잘해놨지만 그때는요 아주 굽이굽이, 그냥 버스가 막 이렇게 흔들리구 그냥.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법주사 앞에 내려놓으니까 밥들도 안 먹구 다 그냥 불평만 하니까. '이게 무슨 놀이 왔냐.'고 막. 이제 그때만 해도 시골 사람들은 먹으면, 술 먹구 춤추구 이게 놀인데, 아주 산골에서 산골로 왔다구 '어서 시골 구경 그냥 처음 했냐.'구 '이런 데구 놀이 왔다.'고 막 불평을 해.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좋은 데로 갈게. 어디 가고 싶으시니까(어디 가고싶냐고 물으니까), 간 데가 있어야 알지. 그래서 '그러면 서울로 갈까?' 아이 서울은 사람 많아서 또 싫대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구. 인제 그 해부터 한 해 한 해 절미운동을 해서 돈을 모아서 모를 다 심구 관광차는 이제 우리 돈으루 얻어서 해마다 한 5~6년은 관광을 다녔어요.

그러면 서울여객으로 속리산을 가신 게...

최초였어요.

77년쯤 되나요? 76년 모아가지고...

더 될 것 같애. 하여튼 고 때에요. 하여튼

76년 7년...

그렇죠... 그게 처음으로 관광 시초를 해고는, 인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노는 게, 아 이렇게 차 타고 가면 노는 걸루 알구 계속 갔어요. 계속... 왜냐면 모 심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때부터 작업반도 시작했어요. 그니까 처음에는 안 해서, 이렇게 인제 친한 사람들끼리 부부, 부부, 부부가 일곱 집, 딱 일곱. 30가구가 넘는데 다 반대고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만 하세요.’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았어요. 그래 그 젊은 사람 부부들만 모았어. 조금 뜻 있는....

아 절미 운동...

절미운동은 전체가 다 시키구, 30가구가 다 했구.

그때 여기 마을에 30가구가 살았어요?

예. 30가구가 살았어요. 그 절미운동은 집집마다 다 했어. 문표를 다 하나씩 써서 붙여줬어요. ‘절미농가’, ‘절미농가’ 써서 대문간에다 붙여 줘.

대문에다가 이렇게 나무판으로요?

아니요. 저기 이렇게 양철대기루... 써서. 절미농가 집이라구.

페인트로 써가지고요?

예. 30가구 다 붙여줬어요.

또 안에 들어가면 항아리 같은데도...

예. 항아리에다는 인제 종이로 써서 ‘절미저축’.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쓰지 않고 그냥 항아리 아니어도 아줌마가 마음대로 조금씩 모으셨다가, 한 달에 그 모은 걸 다 가져와.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옛날에, 맨날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인제 됫박으로 되어서 ‘아줌마는 1되’ 그러면 1되 값. 이제 그걸 또 모아서 장에 가져가서 팔아요.

그러면 절미해가지고 모으면,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리구 그걸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줘요. 모아놓은 것만큼. 그래서 인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늘구, 그러면 인제 돈을 주잖아. 내가 그러면 거기서 또 얼마씩 받아서 자금을 만들었어요.

프로 몇 프로 정도 하셨어요?

아니요. 절미저축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내구, 조금 한 사람은 조금 내구 뭐 그렇지, 지금처럼 뭐 내라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때만 해두 참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쌀을 먹지만 그때는 이렇게 쌀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쌀하고 보리하고 막 혼합 먹었어요.

네. 그러면 절미할 때는 그럼...

다 쌀로만. 보리는 넣으면 안 됐어요. 보리는 갖다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쌀밥 안 해 먹고 보리밥 먹는데...

그 사람은 안했죠. 안 했어요.

그러면 30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 했어요?

참여는 거의 다 했어요. 30가구가. 자기가 쌀은 안 가져와두 이렇게 저 부녀회금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천 원이라도 다 냈어요.

아 부녀회 회비는 이렇게 내고, 절미는...?

절미는 자기가 인저, 자기가 저축한 돈이야 그거는. 지금 말하면. 그땐 잘 됐어요. 단합이. 내가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말 잘 들었어요.

처음에 출발하실 때는, 절미운동 76년도에 시작하실 때는 전 가구가, 30가구가 전부다 했어요?

그럼요. 전부 다 했어요. 그때는요 그래갖고 이제 총무도 있구 뭐 여러 반장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됫박으로 쌀 받아오구 그랬어요. 1달에 1번씩.

1달에 1번씩 장부에다 적어가지고 인제 주고, 모으고. 그러면...

하다가 안 해는 사람도 있구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되게 잘해서 상두 받구 뭐. 그러다 인제 이게 소문이 자꾸 자꾸 나오니까, 이제 진위면에서 평택군으로. 그래가지구 이거 절미저축 사례 발표도 진위면에 가서 했더니, 그 인제 군에서 와서 보더니 아우... 그때 그러니까 몇 년돈가? 뷔페를 나는 경기도에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뷔페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가 80년대 초였을 거야. 1980년도에 뷔페를, 5천원짜리 뷔페인데...

그 당시에요?

예. 굉장히, 그니까 경기도에서 해주는 뷔페인데요. 그 사람이, 오영택 씨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구....

오영택 씨....?

그러니까 과장이었어요. 평택군... "먹을 만큼만 가져오세요. 많이 가져와서 남기면 사람들

이...” 신문기자도 막 와서 사진 찍구 그래니까. 아 그래서요. ‘아유 이거 냉기면 안 되지.’ 그라구 쬐끔 가져 왔어. 아 다 먹고 나니까 그냥 음식이 그득해지 뭐여. 아이 지금 같으면 가서 또 갖다 먹는데, 그때만 해도 또 갖다 먹는 것구 몰르구... 아유...

한 80년쯤... 그러니까 그때 상을 뭐 이렇게....?

상두 타구 그랬으니까. 그게 아마 82~3년쯤 됐을 거 같애. 왜냐면 그때부터 인제 새마을사업이 막 활성화되구 그래서, 대구로 어디로 이렇게, 인제 성공 사례 발표해러 다녔어요. 그리고 mbc 방송국에 방송도 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그게 인제 면에서 사례 발표하신 거는 그럼 몇 년도예요?

면에서 먼저 했죠. 그때는 사례 발표를 하든가 할 때 인제 ‘우리 동네 절미저축을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타부락도 하세요.’ 이렇게 막 그래. 그때는 진위면의 자연 부락이 26개인가 요렇게 밲에 없었어요. ㄱ런데 지금은 아마 37개인가 35개쯤 됐을 거야. 그 사람들은 미리 옛날부터 부녀회장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아 절미저축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면서...

그러면 절미저축 자체가 아니라 절미저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라든가 저축을 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은행에다가 예금이라는 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금도 할 능력이 없지. 돈이 없으니까, 예금하는 조차를 꿈에도 못 꾸는데, 밥은 늘 해먹잖아요. 농사를 지니까. 그니까 고기서 한 주먹만 저축해, 한 주먹. 많이씩두 아니구. 내가 밥, 다섯 식구 밥에서 한 주먹만은 넣어두 되구, 빼두 되잖아. 그죠? 그걸 한 달 동안 모으면 담은 한 되박이 되고, 두 되박이 되면, 요게 저축의 씨앗이 된 거예요. 종자돈이.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갖다 팔면은 어렵지만 우리가 여럿이 그걸 가지구 하면, 한 말이 되면 한 말을 팔어서 한 되 값을 주면 그 사람은 고게 종잣돈이 되는 거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럼 보통 한 집에 한 달에 얼마 정도나 해왔어요?

많이 해는 사람은 몇 되, 좀 많이도 갖고 왔어요. 근데 인제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면 대강 인제 한 달에 한 되에서 두 되. 그리고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은 한 말두 가져 왔어요. 자기 거니까. 이거 뭐 해서 나를 주는 게 아니라, 핸대로 도로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기금은 뭐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모으셨어요?

첫 해는 가구당 아마 1천 원씩 걷은 것 같애. “1천 원씩만 내세요.” 그니까...

1년에요?

그렇지. 일 년에 한 번 걷어요. 일 년에 한 번 걷은 거, 고걸 인제 종잣돈으로 하구, 그다음에 인제 절미운동에서 또 해구.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타왔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를 줬나? 하여튼 상품으루 구판장을 시작했어요. 구판장. 그거는 이제 구판장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상금을 받어왔

는데 그게 인제 부녀회 기금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 그래 구판장을 하자.'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이 동네는 가게가 전혀 없어요. 지금두 없지만 그때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물건 사려면 오산까지...

오산까지 가야 돼. 구판장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그 구판장 아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구 그걸루 여행두 가구 막 그래다가 인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구판장을 어떻게 했냐면, 한 곳에 모여서 해는 게 아니라, 한 달은 이 집에서 하구, 인제 이 집에서 못 핸다 그러면 또 다른 집으로 오구. 이렇게 이렇게 집집이 돌려다니다 보니까...

아 매달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이가 더 핸다 그러면 두 달두 가구 세 달, 그렇게 해다 보니깐요 이게 안 맞아요. 대차대조표가 안 맞어요. 아무래도 이사해다 보면 분실되는 것두 있구 뭐 해실되는 것두 있구 그냥. 자기가 팔았다고 적는다구 그래두 덜 적구. 아 자꾸 아가지가 나.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구 어느 집, 이 마을 제일 중심 되는 집, 지금은 다 헐리구 없어졌지만, 고 집에 딸이, 학교 졸업핸 딸이, 초등학교 졸업핸 딸이 있는데, 엄마가 아팠나 해서 집에서 이거 해, 밥 해 먹고 있는, '네가 이거를 판매하면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인제 그 집에서 인제 정착을 했지.

그러면 집집마다 돌아가는 거는 몇 년 정도 했어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오래 했을 걸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요 시장을 갔다가 쓰리를 맞었어요. 인제 구판장 물건을, 지금은 뭐 이렇게 배달이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다 사 오는 거야. 그랬는데 그날이 장날이었는데,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갔는데, 인제 그날도 장, 물건을 다 사가지구 오는데... 이 부녀의 돈이 그때 많었어요. 그 지갑을 장날 쓰리꾼이 쓰리를 해갔는데 몰렀어요. 훔쳐간 걸 몰렀어요. 아 몰르구 물건을 사다 보니까는 지갑이 없지 뭐예요. '아 어떻게 하냐. 이거 물건도 못 사오구.' 그래 집에 와서 그냥 저 아저씨한테 돼지게 혼났어요. 해지 말라고. 부회장도 하지 말고 다 나가라고 막, 돈을 홀랑 잃은 거 우리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녀회 인제, 일부러 훔쳐가, 내가 핸 것구 아니구 내 실수로 그런 거니까 야 그냥 부녀회 돈 그냥 없애. 그냥 없애, 물어내지 말어라. 집에서 난리가 나구 막 부부 싸움해구 막, 그 사람들이 죄다 우리 집에 왔는데 그렇게 난리가 난 거지 뭐. 잊어버렸대는 소식을 듣구. 그래서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구판장이 안 핸 거예요.

그때는 또 마침 자동차 문화도 좀 보급되고 그래서....?

아녜요. 그때까지 자동차 없었어요. 자동차는요 아마 우리가 자동차 사기를 90년도에 샀었거든요. 그 90년도에 들어와서나 자동차 문화가 됐지, 80년대까지는 그냥 다 걸어 다녔구, 버스 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인제 작업반을, 진짜 작업반을 했어요. 2년인가 3년은 잘 했는데, 사람들이요, 내가 뭐를 못 심잖아요. 심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성은 해놔두, 나는 참여는 안 했지. 내가 모를 심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요. 그니까 어머니가 대신에 인제 일꾼들하구, 어머니가 다 나갔지. 한 집에 무조건 두 명은 나와야 되니까. 그래 내가 하루는 인제

밥을 해가지구 어머니 밥을 주러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모를 찌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모는 어떻게 찌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 앉아 봐. 이렇게 이렇게 뽑아 하는데, 막 뽑으면 안 돼. 이렇게 돌려 돌려 돌려서.” 이렇게 해서 묶고 또 이렇게. “내가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인제 그 옆에 이렇게 논이 있는데 고기서 어머니가 이렇게 심는 거라구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까짓 거, 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남의 머릿속에 있는 글도 배우는데, 그까짓거 눈으구 보면 금방 배우니까 해보라.”구. 해보라구 자꾸 그러셔서 연습을 몇 번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논에 와서 우리 모심는 날, 이렇게 쪼틀기, 가운데는 감히 들어가지두 못해요. 줄모을 띠니까, 거기 감히 들어가지도 못해, 쭈쭈리기 논에서 심어보는 걸 한참 연습을 했지.

아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무슨 뭐 모종 모를 심냐. 몰 해냐고.

그러니까 너무 배게 심으셔갖고?

응. 이제 어머니가 간격을 가르켜주구. 요렇게 간격을 요렇게. 또 그렇게 심으니까 또 너무 드물다구 그래시구. 그렇게 1년인가는 연습, 1년인가 2년은 아주 연습 공부만 해다가 본격적으루, 어머님이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러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모를 심었어요. 그니까 한 1~2년은 옆에 잘하는 남자 옆으루 들어가.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이쪽 사람이 도와주구, 이쪽으로 올 때는 이쪽 사람이 도와주구. 나는 네 다섯 개만 심으면 이 사람들은 열 몇 개씩 심어주구. 그렇게 이제 1년인가 2년은 도와주더라구요. 내가 핸대는 것만 해도 신통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잘 심었어요. 그 다음에는 막....

손이 빠르셨을 것 같아요.

남의 집에두 가서 심어주고, 타 동네까지 일꾼들 없다고 그래면 ‘우리 가서 심고 돈 벌읍시다.’ 그래 갖고 막 그렇게 다녀...

그때는 하루 가면 얼마 정도 줬어요?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애요... 돈 얼마 받었나? 하여튼 받어갖고 그때 나가서 옷 사입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다가 인제 88년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면서부터는요 우리 이 동네두 기계화가 됐어요.

그전에 그러면 작업반은...

오래 했어요.

한 집에 두 명씩...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 여자고 남자고. 남자 둘 나와두 되구, 여자 둘 나와두 되구, 부부가 나

와두 되고 그래. 하여튼 둘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러면 30가구 전체가 참여했어요?

일곱 가구만 했대니까요. 이 뜻 맞는 사람만 했어.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마을 전체가 일곱 집, 이렇게 작업반, 조렇게 작업반. 이렇게 많어두 안 되잖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못 해잖아. 그러니까 14명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끼리. 저쪽에 사는 사람은 고기 사는 사람끼리. 저 웃말 사는 사람, 전부 작업반이 조성이 돼서 잘 하다가, 이제 기계화되니까 인제 이게 없어졌어요. 작업반이.

일곱 가구가 아까, 관광 다니던 일곱 가구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관광은 전체가 다 갔죠. 작업반 안 해도 데리고 갔죠.

아니 아까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아 맨 처음에는요 관광을 어떻게 갔냐면요 고 일곱 사람들이 그거 했잖아요. 그 사람, 여자들끼리만 온양온천에, 현충사에 기차 타고 갔었어요. 현충사 제일 먼저 갔어요. 그것두 김밥 싸가지구. 애기 업구. 그때 쪼끄만 애기들 막 있을 때라 애기 업구, 그러구.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작업반 같이 하던 그 일곱 가구가 인제 이 돈을 모아가지고 관광도 가고...

예. 그 사람들이요. 그게 처음 간 게 현충사. 그다음에서는 인제 '아 이러지 말고 우리도 버스 타고 갑시다.' 그래서 인제 서울여객에 가서 사정사정 했더니, 관광차도 아니여 그냥 버스였을 것 같애. 그거 하나 줬어요. 공짜루.

그러면 그 작업반이 조직이 된 게...

76년도일 거 같애요. 76년에, 77년도 고땔 거 같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구, 마을분들이 '아 모는 잘 심으나, 못 심으나 협동이구나.' 그러고는 인제 저쪽 사람들두 해구, 이쪽 사람들두 해구 막 그랬어요.

보통 7가구 8가구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요?

예. '아 작업반이 저렇게 좋다.' 그래 처음에는 잘 심는 사람들끼리만 해다가, 그 품앗이라는 걸 하다가 작업반이라는 걸 해니까 막 흉 봤어요. 내가 모심으루 들어가면요 모도 안 심구 나와서 구경해요. 내가 어떻게 심나 막 그런 거. '아 이렇게 줄을 띠구 하면은, 협동을 하면 잘 심으나, 못 심으나 이게 되는구나.'를 이제 우리를 본보기루 보구 자기네들도 하자 그래서 이제 작업반이 시작됐지.

그러면 전체가 한 일곱 가구, 여덟 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 개 정도가 있었겠네요?

여기 하나 있었구, 저기 있었구, 저기 있었구. 세 개인가는 있었을 것 같애. 세 개는 내가 기억해요. 인제 고것구 처음에는요 잘 심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았어요. 자기네들끼리. 너 나, 너 나 뭐 그래갖구요 급수를, A급 B급 이렇게 급수도 멕였어요. 그래 A급은 A급끼리. 나는 C급이었

어요. 맨날 C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인제 나중에는 다 같이 했어. A급 B급 해지 말어라.

그럼 A급 B급으로 나누는 뭐, 차이가 있나요? 나중에?

아유 그럼요. 만약에 인제 하루에 열 마지기를, 오늘 요 논을 다 심어야지, 계획 해잖아요. 잘 심는 사람은요 나 같은 C급보다 훨씬 빨리 다 심죠. 우리는 천천히 심으니까. 느리구. 아이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나중에... A급은 일 많이 했고 C급은 조금 했으니까, 뭐 돈으로 얼마큼 내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아 똑같애요. 품값은 똑같애. 그니까 나중에 인제 A급이 ‘아 그냥 다 같이 해자.’ 그래서 인제 섞어서, A급, B급, C급 다 섞어서 했지. 처음에는 나 시켜주지도 않아요. A급에 붙여주지두 않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논이 다섯 마지기고 이 사람은 열 마지기...

그거는, 열 마지기면요 품이... 내가 돈으루 내요 나중에. 인저 계산을 다 해요. 인제 우리 집에 서른 명이 왔잖아요. A급이 왔건, C급이 왔건 하여튼 서른 명이 와서 모를 오늘 심었잖아요. 근데 내가 30일 동안 일을 다 못 다니잖아. 그럼 난 돈을 내야 돼. 그렇게 해서 평준화했죠.

하루 일당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거 아녜요?

일당으로 계산했나? 몰라요 그런 건 잘 생각 안 나. 하여튼 돈 내요.

작업반이 76년 무렵에 처음 조직이 됐으면 한 10년 넘게 했네요?

예.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기계 문명이, 저 이앙기...

구본원: 그래고서는 80년도 들어와서는 이앙기를 가지구...

응. 이앙기 사서. 이앙기두 또 작업반 하는 사람들끼리 샀어요.

구본원: 사가구선 같이 운영했죠.

아. 그러니까 이앙기가 들어오고 나서도 작업반을 했네요?

구본원: 예.

고 일헌 사람들끼리.

그럼 그 이앙기는 개인이 산 게 아니고 돈을 모아서 산 거예요?

돈 모아서 샀죠.

구본원: 5명이 이렇게...

같이 샀죠. 동네서 똑같이. 기계두 사구 이렇게 인제 농약두 쳐야 되잖아요. 농약 기계두 같이 사구. 다 같이 샀어요.

농약 뿌리는 것도 같이 사고, 이앙기 같이 사고. 트랙터는 같이 사기가 좀 어려웠을텐데요?

그때는 트랙터가 없었어요. 탈곡기.

구본원: 그땐 있어두 못 샀지 시골에.

아 여기 들어오지두 못해. 논이 쪼끔해서요... 탈곡기두 같이 사다가 우리는 많으니까, 우리가 단독으루 샀어. 탈곡기는... 벼 터는 기계. 다 같이 했어요.

이앙기가 80년에 들어왔다고요?

구본원: 80년도 아마... 중반쯤 될거야.

88 올림픽 고것보다 전에 들어왔죠?

85~6년도, 이때?

그랬을 것 같애요. 정확히는 몰라두 한 85년도.

구본원: 그때 당시에는 다 사람이 저기 농사지었지, 기계가 별루 없었어요.

트랙터는 그럼 몇 년 후에 들어왔어요?

구본원: 트랙타는....

90년도 훨씬 넘었죠. 2천년도...

구본원: 한.... 그땔 거여 90년 경에 들어와서 눈 써리구 그랬지. 트레타. 처음에는 경운기로 써리다가...

경운기는 언제쯤 처음...?

경운기는 일찍 들어왔어요.

구본원: 그것두 80년도에 샀어요.

아니 내가 맨 먼저요, 그것도요, 여성 경운기 운전면허 따가지구 요 평택 저기 농림부엔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구 내가 샀어요. 5마력짜리. 그래갖구 해다가 사고 낸다구 이니가...

구본원: 지소도에서 했지 그때.

그때가 80년이에요? 1980년?

예. 샀어. 인제 내가 기계루 핸다구...

구본원: 저기 마력수가 작구... 힘이 없어갖구 안 되더라구.

5마력이라, 여성용이니까... 그래서 인제 내가 했어요. 여기 밭을 갈구 그래다가, 돌리구 뭐해구, 그런 걸 잘못해갖구 사고를 냈어요. 그래갖구 이니가 그냥 다 때려부시라구. 막 뭘 해냐고 그래갖구 없애버렸지.

모도 못 심으셨던 분이 이때쯤 되면 경운기도 몰고...

왜냐면요. 인제 모두 잘 심어줬죠.

구본원: 저 지도소에서 인저 경운기사라구 교육받구...

인제 여성들, 교육받구 내가 샀어. 하하하...

구본원: 경운기를 인제 융자루다가 이렇게 해줘갖구 샀죠.

근데 막 혼났어요. 사고내갖구. 막 들이받았어요. 이 전보산대두 들이받구 막 그냥.

구본원: 이렇게 큰 경운기가 아니구 쪼끄만 거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게 된 거는,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권해가지고 교육을 받았나요?

인제 내가 부녀회장이니깐요 진위면이구, 평택군이구 막 돌아다니니까 인제 다 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 되라구. 나는 농협 직원도 될수도 있었... 농업협동조합에서요 부녀회장 하라구 권유두 많이 받았는데, 이니가 하도 반대 해는 바람에....

전체 부녀회장...?

아뇨. 지금 농협 부녀부장. 그 자리두 들어왔었어요. 청탁이. 조합장이 맨날 와서 해라구. 저 시험 안 보구 와두 자기네가 채용하겠다구. 근데 이니가 막 반대해는 바람에 못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가라고 그랬어요. 니가 벌어오는 돈으루 사람 사서 우리가 농사짓구 핸 테니까 다니라구. 이니가 반대해. 여자가 너무 활개치구 다닌다구.

진위농협이요?

하북농협.

그때가 언제쯤 돼요?

초창기. 하북이 막 신설됐었어요.

구본원: 그때는, 지금은 저 송탄농협이 이렇게 4개 면이 합동해서 이렇게 저기지만, 진위 단독농협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요 저니가 묶어놓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유 활발하게 활동할 건데. 조합장이 부녀부장 자리 그냥, 막 하북농협이 창설되면서 부녀부장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두 내가 새마을사업으루 해서 전국을 막 헤매구, 테레비에두 막 나오구 그래니까, 군에서두 다 알아보구,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닐라구 마음을 먹었는데, 이니가... 그때는 시할머니도 계셨어요 참. 우리 집에... 그러니까...

집안일 때문에?

아니, 집안 일 아니라 체통이 안 스잖아. 남자가 활보를,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한다고. 그때만 해두 되게 좀 이렇게 아직 개발 되,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를 않으니까. 안 된다구 막 반대해서... 그러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으루 막, 그래서 못 했어요. 아이 그전에는 굉장히 활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제 절미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절미저축하구, 부녀회 창설했구, 구판장 운영했구. 또 그거 뭐야 작업반 운영했구. 그때는 잘 됐어요. 마을 분들이 호응을 잘 해줬어요.

구본원: 그때 당시 저희 마을이 한 35호 되는데, 가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오산 가서, 도매점에 가서 물건을 떠다가, 생필품 떠다가 요 동네에서 조금 이문을 붙여서 팔아서, 나머지 이

문은 자금으루 쓰구, 공동 자금으루.

잘 됐어요. 그때는 단합이 잘 됐어요. 뭐 하자. 그러면 반대해는 사람이 없구 마을분들이 잘 호응을 해줬어요. 지금 같으면 못 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못해요. 그리고 왜냐면 시골 사람들이 내가 서울에서 왔다니까 내 말을 잘 들었지.

또 그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또 배우신 것도 많고...

그렇지. 그러니깐 말을 잘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글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았나요?

많았어요. 이름도 모르구.

그러면 절미운동 같은 거 하고, 인제 사례 발표를...

성공사례 발표를 제일 먼저는 진위면에서 했지. 인제 '우리 부락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니까 인제 진위면에서 1년에 표창을 주구, 뭐 상금도 줬을 거야. 그러니까 인제 그걸로 해서 아마 저기 구판장을 핸 거 같애요. 그래니까 인제 그게 소문이 나니까, 군으루 또 갔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 새마을과가 있어요. 그분이 인제 데리구 도에도 가구, 어디두 다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 말두 잘하구 글두 잘 쓰구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걸, 서울서부터 여기 내려오구 경제기획원 다닌 거서부터 죽 성공사례를 내가 초안을 작성해서 보여주니까, '초안이 잘 되셨다.'구. 거기다 인제 쪼끔 살만 붙이면 된다구 그래갖구, 그걸 인제 도에 가서 성공사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그렇겠네요. 이렇게 내려오신,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과정하고, 여기서 이제 절미운동하시고, 돈 모으고....

그렇지. 그런 걸 토대루 살아온 과정... 시골에서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 뭐 몰라서 그러구 막 이런 데 디구, 불 때서 밥 하는 걸 생전 안해보다가 가마솥 때서, 불 때다가 여기 다 화상 입었어요. 여기 다 디고, 온몸을 다 디고...

부엌 불 때다가요?

응. 그거 핼 줄 몰르는 걸 해다가. 그냥 불이 확 나오는 바람에 그냥, 여름이니까 그냥 치마 입고 해니까 그냥, 알몸이니까 그냥 알다리를 다 뎄죠. 그렇게 인제 시골 적응기. 뭐 그런 거 성공사례 발표했지요. 그때는 인제 군에서 도에서, '아 그러면, 이왕이면 텔레비두 나가시라구 해서 mbc 변웅전이 하는 새마을사업, 그때가 뭐 명랑오락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텔레비에두 나가구 막 그랬지.

시골생활 적응기. 그래서 이제 그 불에 이렇게 디고... 또 다른 거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때 적으셨던 거.

하도 오래, 4~50년 전 일이라. 뭘 적었을까. 하여튼 키 포인트는 절미저축을 시작으루 했구. 그다음에 구판장 했구. 그다음에 저기 작업반 작성해서 작업반 했구. 그다음에 그 안에, 작업반

해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인제 새마을사업 성공사례 발표가 됨으로써 인제 인지도가 넓어진 거지. 인지도가. 왜냐면 군에서두 알아봐주구, 도에서두 가구 그러면서 이제 또 도 산림계하구 또 우리 부락이 자매 결연이 이루어졌구, 인제 그러면서 활동 그때 많이 하다가 88년을 기준으루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인제 군에서. 왜 안 했냐면요. 인제 아이들 커가면서 처음에는 애들이 초등학교만 여기서 다니구 중학교는 서울로 갈라구 이걸 다 정리하구 인제 나갈라구 그랬지. 나갈라구 그러구 서울루 갔어요. 내가 갔는데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어. 왜냐하면 내 수준의 사람들은 이미 과장, 계장, 다 수준이 그 정도루 자리를 다 잡았구, 우리는 그때 들어가면 초기, 시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구 도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돈을 벌자.’ 돈을 벌자 그래 갖구 그때부터는 인제 마을에서 손을 띠었지. 그때부터는 이제 마을 사업을 안 했어요. 내가.

88년...

그게 기점이었어요.

서울에 올라갔다 오시고 나서...

예. 기점. 88년도 그때부터 내가 직업을 가졌지.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아 그 이후로는요. 내가 보험설계사 했어요. 삼성생명. 그래서 잘 나갔어요. 그것두 계장까지 핼 건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다가 중간에... 내가 차를 몰고 다녔어요. 내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 데 입구, 다리 있죠? 거기에서 그냥 빨리 집으로 왔으면 안 당핼텐데, 저기서 막 차가 지그지그 와서 ‘아 저 차, 저거 보내고 가야지.’ 분명히 저거 사고라는 걸 직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야 되는데 나를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서 있는 나를... 술 먹구.

구본원: 젊은 사람인데.

그때는 티코를 몰고 다녔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세게 받으니까 일루 밀리구, 일루 탁 밀리는데, 뒤에 차가 서야 되는데, 뒤에 차가 또 밀려서 일로 가갖구 그냥 이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여기가 다 까지구, 죽었는 줄 알았어요. 티코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부딪히면 가루가 되는 걸. 두 번 부딪히니까 그냥. 근데 그때 당시 이 분은 등산 가구 집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인제 그냥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저기 사후동 부녀회회장 사고 났다.’ 그니까 이제 나는 그냥 차에 실려서 갔으니까, 누가 왔는지 갔는지두 몰르구 병원에. 굉장히 오래도록 고생을 했지. 그런 바람에 모든 걸 다 놨지.

그때가 언제쯤 돼요?

96년이요.

그러면 설계사 한 7~8년 하셨겠네요?

오래 했죠. 애들 대학 다닐 때까지 다 뒷바라지 했죠. 88년도서부터 그때까지 했어요... 사고만 안 났으면 계속 하는 건데 그냥.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그냥 박살난 걸요 뭐.

마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어요. 진짜 공로 크지.

인제 어르신은 이 동네 토박이시지만, 할머니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인제 들어오신 경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마을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긴 한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인제 외지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했다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더 호응을 잘해줬어요. 더, 더욱 더. '같이 뭐 합시다.' 그러면 협조두 잘하구. '이렇게 합시다. 놀러 갑시다.'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다 했는데.

그게 그러면 예전하고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왜냐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구, 여기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외지 물 먹구 이렇게 와보니까, 시골 사람들은 좀 순박해구 단순한 걸 악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죠?

그렇죠. 다 도시에서 왔죠.

그럼 도시 생활 습성 때문에 농촌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도 있겠네요?

예. 안 맞으니까. 그리구 수준두 다르잖아.

구본원: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구 직장 다니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으니깐 뭐 이웃이 이렇게 필요칠 않죠.

지금은 협동 안 돼요.

구본원: 그러니까 인제 70년대, 80년대 중반꺼정은....

잘 됐어요.

구본원: 서로 상부상조해야 농사지으니까. 혼자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 해구 서로 도와주구 이렇게,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인저 살기가 조금 나아지구 농기계가 기계화 되구 그래다 보니까, 나 혼저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모를 심을 수 있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서루 주민들끼리 유대감이 좀 멀어지는 거여.

그전에는요 요맘때면은요 저녁 먹으면요 전부들 모여 앉어서 얘기하구 그랬어요.

구본원: 그때는 없어두 서루 노놔먹을 줄 알구...

노놔먹구. 떡해서 그냥 주면, 가을이 되면 문을 못 닫어요. 떡집이. 하두 많어가지구. 노놔먹었어요.

구본원: 여기서 떡을 해가지구 저 꼭대기꺼정 밤에 그걸 돌리구 그랬지.

응. 식기전에 줘야 된다구. 식으면 떡 맛 없잖아요.

추수 다 끝나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구본원: 가을떡을 해서....

그걸 집집마다 하는 거예요.

구본원: 그렇죠. 집집마다. 농사지으면....

이 집이 떡 갖구왔으면, 우리가 내일 떡 갖고 갈게. 우리가 해서 또 주면, 저 집이. 우리는 오늘 할게.... 계속 한 달동안 떡을 해서 노놔줘요.

그게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가을 떡을?

그럼요.

구본원: 그렇죠. 그러니깐 80년대꺼정 이렇게 서로 노놔 먹다가 인제 외부 사람이 들어오구 인저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인제 자기, 남한테 손 안 빌리구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제 떡을 하면은 우리는 저기잖아. 농사짓던 사람들의 집만 주잖아.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안 줘요. 그러면 인제 아침에 나와서 “우리는 떡 먹었는데.” “어디서 났어?” “쟤네 집에서 떡 갖고왔어” “근데 우리는 왜 안 줘?” “어머 집에 안 가져왔니?” 그랬대. “아 걔네는 왜 떡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아 걔네는 저번에 뭐 했는데 우리 안 줬는데 내가 왜 줘!” 이렇게 되면서 인제 점점점점 멀어졌어. 그래서 안 했어.

가구 수가 또 많기도 하잖아요?

구본원: 예.

그럼요. 지금은 80가구나 돼요.

근데 80가구를 어떻게 다 나눠줄 수 있겠어요?

아 지금은 못 줘요.

구본원: 농경사회에서는 서루 돕구 살어야 해기 때문에 이웃사촌 간에 친척 모냥 이렇게 서루 지냈는데, 사회가 이렇게 인저 먹구살기 편해구 발달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웃이 같이 살어두 서루 왕래가 없어요. 여기는 도시두 아니구 시골두 아니구.

아주 어중떠요. 여기 사람 다 외지 사람이잖아요.

구본원: 그래갖구 옛날에는 인저 같이 농사를 지으니까, 만약에 멍석을 널어놨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면...

막 가서 덮어줘요.

구본원: 이웃에 사람이 없으면 가서 다 그거 비설거지 해주구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니 해주구 욕먹어요. 자기네 집에 와서 그런 거 만졌다구.

구본원: 자기 거 꺼들이면 남은 뭐 비를 맞든, 뭐했든 그냥 들어간다구.

최창렬(남, 1947년생, 사후동)

일시	2022년 8월 4일
장소	진위면사무소 앞 부동산명가
구술자	최창렬씨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사후동 이장을 맡은 햇수가 30년 이상되었으며, 사후동저수지 수리계를 34년째 담당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사후동 마을에 관계된 많은 일들에 헌신해 왔기 때문에 마을 노인회가 주도하여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그의 공적비를 세웠다.
면담자	장연환

사후동에 몇 대째 살아오셨어요?

6대째 살아....

어르신은 어렸을 때 마을에 몇 가구나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아는 거는 스물여섯 집이 살았었어요... 그 전에는 호수(戶數)가 더 적었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사시고 그럴 적에는, 그때는 뭐 한 20가구도 채 안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6대째 살았었으면 몇 가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아뇨. 우리가 저기... 고메리, 기흥 고메리에서. 거기가 우리 조상들이 터전을 마련하고 사시면서 다 돌아가셔서 거기서 다 모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사시다가 우리가 일리 온 거예요.

이장님은 그 동네에서 학교는 어디로 다니셨어요?

학교는 진위초등학교.

진위초등학교까지 걸어서 다니셨죠?

걸어서 다녔죠. 옛날에 이 가방도 없어서 보재기에다가 둘둘말아 싸고 메고에서 뛰어댕겼죠 뭐. 멀어가지고 한 8킬로를 다닐래니까 밤낮 지각해고 그러니까. 뛰어다니다시피.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은 뭐 거기서 여기 오면은, 뭐 한 아무리 빨리 와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내지 한 시간 사십 분... 거의 2시간까지도 걸렸었고요. 두 시간... 그때는 저 개울이 많아가지고 개울을 또 발 빠지지 않으려고 돌어 댕기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두 시간씩은, 학교 오는데 그리 두 시간. 가는데도 한 두 시간 걸리고 그랬었죠.

아 주로 뭐 하고 노셨어요?

노는 거는 뭐 가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전부 씨름도 해구. 또 그때는 인저 뭐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뭐 사먹을래도 돈 없구 그러니까. 진위천 장뚝 타고 댕기면서 삐래기. 삐래기 한움큼씩 뽑어서 그거 까먹구...

그러면 거기가 제일 멀었나요? 진위초등학교에서?

진위에서는 여기가 질 멀었었어요. 질 아주 그냥, 평택에서도 질 맨 북쪽에 끄트머리에 있구.

그러면 선생님들도 많이 봐줬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뭐 어려서 뭐,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늦게 오면 야단해구. 뭐 이렇게 잠깐 손 들고 있으라고, 벌을 스구, 그래구 그랬는데, 뭐 때리고 그래는 건 없었어요. 때리고 그러지 않았었구.

비나 눈 올 때는 오기가 아주 안 좋았을 것 같애요?

비가 많이 오고 눈 많이 오면 출석을 못했어요... 비 많이 오구, 눈 많이 오구 그래면은 학교를 못 왔죠.

비 많이 오면 개울 건너기가 힘들죠?

그렇죠. 개울 건너기 위험스러우니까. 장마가 그냥 뭐 여기(허리)까지 차고 그래니까. 별안간에 폭우 쏟아지면 벼락물이 내려오잖아요.

더러 사고 나거나 그런 일도 있었나요?

그런 거는, 사고는 없었어요. 우리 댕기면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거나 그런 저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빠졌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학교를 못 왔구. 눈 또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그때 그럴 때 못 온거지.

개울은 몇 번이나 건너요?

겨울은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개울이 한 열다섯 개 정도 되요... 개울을 한 15번 건너야 되요. 징검다리 아니면 발 벗고 건너구. 비 와서 떠내려가면 발 벗고 건너구.

아유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고생 많이 했죠 뭐. 그때 뭐 자전거가 있어요. 뛰어댕기고 걸어 다니구 그랬지 뭐.

그때 길은 넓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 길은 그저... 우마차 간신이 댕기구,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걸어댕기는 리어카나 정도 다니는 길이었어요.

차는 거의 못 다녀...?

아이 차는 뭐 차, 마차도 저기두 못 다녔었죠 그때는.

그럼 마을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는, 인저 짐 같은 거 큰 거 싣고 나올 때는, 우마차로 싣고 나오나요?

우마차가 아니구. 소, 농사 지을 때 쌀 싣고 댕기구, 벼 싣고 댕기는 소 길마 있잖아요. 소 이렇게 등에다 길마 만들어 가지구 거기다가 인저 벼 싣는 발채라고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싣고 다니구. 오산장에두 쌀을, 길마에다가 쌀 두 가마 소 등에다가 싣구, 오산 싣구 나가구 그했죠. 저 마차길이 없어가지구.

쌀은 두 가마 정도 실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소 등에다 쌀 두 가마. 옛날에는 (쌀 1가마가) 90kg죠. 90kg.

그 쌀 두 가마를 싣고 오산장에 갔다가...

오산장에 소로다가 끌구가서 쌀가게, 쌀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싸전. 싸전에 가면 거기서 인제 다시 또 모말로 되요. 모말로 되지 뭐 키로 수두 뭐 그때는 없었구. 모말로다가 쌀 10말...

지게로는 얼마까지 져요? 쌀?

아니 뭐 방앗간에 가서 저기 쌀 질 때, 한 가마씩은 지고 댕기는데, 인제 오산에는 보통 인제 다섯 말. 모말로다 다섯 말, 세 말 내지 다섯 말은 오산장에 지고 댕겨요. 쌀 가서, 가면 오산서 쌀 팔어가지구 시장 봐가지구. 걸어다녔지요.

근데 오산까지는, 장까지는 굉장히 멀잖아요?

멀죠.

거리로 얼마나 됐어요.?

거리로두 뭐. 걸어 다니면, 오산 시장까지 갈래면은 한 5키로, 5~6키로 되죠.

그러면 여기도 한 시간 반 정도는 걸렸겠네요?

그렇죠. 한 시간 반 정도 걸어가서 시장보고. 그냥 거기서 또 또 뭐 사서 들고서 또 물오징어, 뭐 동태 같은 거 이 새끼에다가 해지, 지금 비니루 같은 게 어딨어! 그때. 짚으로다가 뭐 해가지고 새끼로다가 해서 들고 다녔지 뭐. 옛날에 그래도 장에 가서 동태, 물오징어 이렇게 한 꿰미씩 사다가 끓여 먹는 정도면, 괜찮게 사는 집이여.

좀 괜찮게... 동태나 물오징어 정도면요?

동태하고 물오징어, 고등어지 뭐. 다른 거 없지.

시장 가서 반찬거리로 사오는 게?

반찬거리로 사오는 거지.

뭐 조기 같은 거는 안 하고요?

조기 같은 건 비싸서 못 먹고.

조기는 그 당시에 고등어하고 차이가 많이 났나봐요?
조기는 그때 비싸가지구. 조기는 제사 때나 맛보는 거지. 흔하게 동태, 물오징어, 고등어죠 뭐.

장에 가는 길은, 그러면 어떻게 갔어요?
장에 가는 거는... 이 웃말 사람들은 이 와고개로 다녔구... 화고개로 해서 오산 원동. 원동으로 해서 오산 시장까지.... 아랫말은 그 치고개라구. 치고개로 해서, 고현동으로 해서 그 당말, 당말이라고 있어요. 당말. 글루 해서 인제 시장까지 가는 가구.

그때 이렇게... 보통 집집마다 쌀밥은 좀 어려웠잖아요?
쌀밥은 어렵죠. 보리밥이지, 뭐 보리밥. 보리밥에다 쌀 약간 섞어가지구.

흰쌀밥은 이 어느 정도 먹었어요? 인저 가을 일 끝나고 인저 추수하면?
가을 저 타작해구 나서 쌀밥 좀 먹다가, 인저 뭐... 1월 달서부터는 인저 보리 밥, 많이 섞어먹는 거죠. 보리쌀 많이 섞어먹는 거지.

그러다 인저 여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인저 꽁보리밥도 드시고...
그렇죠. 꽁보리밥이죠. 꽁보리밥 그리고 저 밀. 보리 농사, 밀 농사 해가지구 인저 밀국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칼국수라고 그래지. 칼국수. 옛날에 칼국수라 그러지 않고 장국이라 그랬지 그거. 장국이라구.

그 당시에는 겨울에 먹을 거리 떨어져가지고, 겨울하고 봄에 굶으면서 지낸 사람도 꽤 됐는데...?
그렇죠. 점심 안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 저녁. 죽을 많이 쒀먹었지.

죽은 주로 어떤 죽을 쒀먹어요?
죽은 뭐 쌀로다가 흰죽. 흰죽, 뭐 호박죽. 호박 같은 거 심어서 호박죽.

그럼 반찬은 뭐 김치 한 가지 가지고 거의 하셨겠네요?
거의 김치죠 뭐. 김치, 깍두기지 뭐 다른 거 뭐...

겨울 반찬은요?
예. 시골에서 뭐 그 저기 뭐, 시금치 그런 거 심어서 반찬 해먹구, 열무 같은 거 심어서 김치 그런 거 해 먹구, 배추 심어서 김장 배추 해 먹구 그렇지.

(이장님 동기가) 아까 6명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섯 명 중에 중학교는 몇 명이 갔어요?
중학교, 한 사람 백이 못 갔어요... 아 두 사람, 두 사람.

어르신 가셨어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병환에 계셔가지구 농사지을 사람이 없구 그래가지구 난 어려서부터 농사

일을 했어요.

그럼 고등학교는 더더욱이 못 가겠네요?

못 갔지요. 그리고 저 중학교 우리 친구들 둘 가구, 고등학교 한 사람. 수원 유신고등학교 간 친구가 하나 있구... 그때는 저기 초등학교구 저기 저 뭐 사친회비라고 왜 월사금 냈잖아요. 그거 밀려가지고 쫓겨가구 막 그랬었는데 뭐 초등학교두.

그러면 그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뭐 지게 작대기 지고 산에 가서 나무해오구, 소 풀 베오구. 뭐 농사 뭐야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농사일 했지요. 농사일.

그러면 동생분들도 나중에 다 이장님께서 결혼 시키고 그랬겠네요?

아이 동생들은 내가, 인저 성장하면서 내가 다 가르친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다 가르키구.

그러면 지금도 그 동생분들이 거의, 원래 장남은 인저 아버지 대신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죠. 아버지 대신 내가 동생들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쉰셋인가 쉰 넷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르신 몇 살 때?

나 군대갈 때. 군대 갈 때니까 그때가. 스물 한 살인가 두 살에 갔나? 그때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돌아가셨어.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거 와서 장례도 내가 못 치렀다구.

그러면 국민학교 졸업하시고 군대 갈 때까지는 계속 농사지으신 거예요?

농사지었죠.

몇 평이나 지셨어요?

농사는 뭐 그 당시... 한 4천 평 됐나?

논 4천 평이면 그래도...

우리 땅이 다 아니구. 우리 땅은 뭐 한 2천 평밖에 안 됐었구, 남의 땅.

2천 평만 돼도 생활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요?

아이 2천평 가지고 뭐를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지. 옛날에 쌀이 많이 나요? 지금처럼? 그 저 한 마지기에 쌀 2가마도 힘드는데. 비료도 없구, 퇴비두 없는데. 산에 가서 저 풀하고, 봄에 인제 풀하고 가다, 옛날에 다 나무를 다 했다니까 산에 그 새순이 나오잖아요. 뭐 갈나무 같은 거 뭐 이만큼 저 베고 풀이 나면 그걸 깎어다가 논에다가 뿌려서 펴가지구 소로 갈어가지구, 그거 썩혀가지구 농사를 지었는데.

풀 베는 거는 이장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어려서.

비료 같은 거는 거의 못 쓰고요?
비료는 뭐 그때 배급제니까, 어쩌다 쬐끔 부락에 나오면, 비료 쬐끔 그거 어디 뭐. 비료두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비료 안 뿌려도 그냥 복합 비료 같은 거 막 많이 뿌리고 해면 벼가 잘 되잖아요 지금은. 그때 무슨 복합 비료가 있고, 무슨 비료가 있었어요! 마을에 몇 포 인제 나오면, 그 당시에 인저 어른들 이장 보면서 인저 그 논의 비율해서 몇 키로씩 나눠주지.

한마지기는 몇 평이었어요?
한마지기 200평이요... 그 경지정리 해면 150이고. 이 시골에는 전부, 왜냐면 논두렁이 넓고 그러니까.

남의 농지 한 2천 평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논이죠?
논이지.

그러면 도지는 얼만큼...?
쌀 한 가마씩.

도지는 비싼 편은 아니었네요?
비싼 거지죠. 뭐 그 당시에 쌀도 안 나는데, 뭐 두가마 나면 한 가마 주고, 한 가마 얻어 먹는 건데 뭐... 지금은 우리 동네 보통 이런 데 150평이면 쌀 3가마 나지만, 우리 동네 200평 한 마지기에 인저 쌀 3가마 치는 거구. 그 당시에는 쌀 두가마 나오기두 힘들었구. 그나마 또 뭐 저수지가 없어서, 자주 날이 가물어 가지구, 늦게 장마 진다면 마냥모 심구 그러면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 먹기도 힘들었었죠.

마냥모를 심으면....
마냥모가, 봄 가뭄이 여름까지 가물어 가지구 뭐를 못 심잖아요? 논밭 다 갈어놔서 모 심을 준비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못 심잖아요. 그냥 장마 칠월 장마 지면은 그때 인저, 그때서 인저 하지, 초복 때 모를 심고 그랬는데.

하지, 초복 때요?
하지나 초복 때 모를 심구, 중복 때까지도 심었어요.

마냥모를 심으면 한 마지기에 얼마 정도 났어요?
마냥모를 심으면 쌀 한가마 먹기두 힘들었어요... 마냥모 심으면 쌀 한 가마.

만약에 그러니까... 마냥모도 못 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요! 비 늦게 와가지구 인제 뭐 말복 때. 말복 때, 그때 비 오면 뭐 안 심는 거지 묵히는 거지... 중복 때도 비 안 오면은 그 후로는 못 심어 인저. 비와도 못 심어요. 말복 땐데, 말복 때는 인저 그때 심어야 그냥....

그러니까 말복 지나면 마냥모도 못심는다는 거죠?

마냥모도 못 심는거지. 소로다 갈어서 써럭질 해가지구 손으로다가 모 쪄가지고 손으로 심는 거지 뭐.

호미로 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인저 날 가물다가 그 웅뎅이 파가지구. 물, 개울 바닥이나 수렁논 파가지구, 두레박으로 푸면 그 저 멍석모라고 멍석 한 두어 자리 물 들어오면 그거 저 소로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구 호미로다가 물이, 물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물이 많어야 물 속에 흙이 있어서 이렇게 심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축축한 데다가 호미모로다 심지.

그러니까 멍석모라는 것은 멍석만큼 심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멍석만큼 물 퍼서, (물이) 돌면은... 아이 비참했죠. 그때는. 날이 가물면 여기저기서, 아침 훤히 밝으면 그냥 물푸는 소리. 두레박이로다가 양쪽에서 물 푸는 소리. 혼자는 못 푸잖아요. 둘이 양쪽에서 그냥 그러구... 그 웅뎅이 하나 퍼봐야 멍석 한 댓 닢 돌은 거지 뭐.

멍석 한 다섯 닢 정도...?

그래요. 뭐 멍석 댓 닢 돌으면, 그거 비벼가지구 호미모 심구.

그런 물 사정이 나아지게 된 건 언제부턴가요?

71년도서부터.

그러니까 1971년도가....

저수지 막구서. 사후동 저수지 막구서부터는 인저 물 걱정 안 해다 시피 헌거지.

군대 가시기 전에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물 푸고 뭐 그래서 한 마지기에 한두 가마 정도가...?

많이 나야 두 가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늦게 뭐 하지, 중복 때 심으면 쌀 한가마 나고 뭐... 그러니까 그때는 먹구 살기들두 힘드는 거여. 도지 주고 뭐 어쩌구 그러면...

아니, 아까 이 장님 같은 경우는 4천 평 중에 2천 평은 자작이고 2천 평은 남의 땅이라고...

그건 인제 시제답... 뭐, 종중 땅인데, 그거 지어먹구 제사 차려줘. 가을에 시제, 시향 지내주는, 제사 차려주는 거지.

시제답은 그냥...

그거는 도지를 안 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런 건 서로들 맡을라고 그래.

못 자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못자리는 지금하고 그때하고 틀리죠. 못자리는 인저 뭐 망종 때.... 망종 때 못자리 시작해는 거여. 망종 때 못자리를 시작해서 볍씨 못자리 만들어서 볍씨 갖다 뿌려서 모내기 시작핸거여.

그다음에 모내기는 대체로 그 당시에는...?

모내기는 인제, 모내기는 6월달에 했어요. 6월달에...

그다음에 인저 타작은?

타작은 인제 보통 한 10월... 10월에 벼 베서 인제 11월까지, 뭐 12월까지 타작해구 그랬죠 뭐.

그때 타작 할 때 도구는 어떤 걸 썼어요?

도구는 인제 그네. 이렇게 발판 해서 잡아당기는 거. 그거 해다가 또 인저 탈곡통이라고 있어요. 그 밟을 수 있는 거. 그거 나온 거죠.

그네 쓰다가 탈곡통 쓰면 효율이 좋은가요?

아이 좋죠. 빨르지 아무러캐두. 그것도 부잣집이나 있었지 뭐, 아무나 함부로 돈이 없어서 못 샀지... 부락에 부잣집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런 거는 빌려다 쓰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빌려다 쓰구. 거 빌려다 쓰면 하루 가서 일해 줘야 돼요... 거 두 사람이 밟는 거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네요?

그거 하루 빌려다 쓰면은 하루 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집에 가서 하루 농사일을 해줘야 돼. 무슨 일이든지. 타작을 해주든지, 뭐 벼를 비어 주든지 뭐 어쨌든. 그거 빌려다 쓰면 그집이 타작핼 적에, 부잣집 타작핼 적에 혼자는 못 해잖아요! 그때 가서 하루 빌려다 쓰구 가서 하루 일해주구.

도정은 어디 가서 했어요?

도정은 마을에 정미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정미소... 쌀 방앗간. 벼 방앗간.

그럼 고추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해요?

그런 건 오산 가서 빻아왔어... 고추방아는 오산 가서. 보리방아, 밀방아두 저기 저 오산 가서 빻구.

고추방아야 고추 크기, 양이 얼마 안 되지만, 보리나 밀방아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을 텐데요. 오산까지 갈려면 소에다가?

소에다가 했어... 보리방아 찧으면은, 겉에 깎이는 거, 그거는 받어서 소나 돼지 사료로 주구.... 그리고 인저 두 번째 나오는 보리 가루가 또 있어요. 그거는 받어다가 보리개빵이라고 그

러지 뭐...

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보리개빵. 소다 넣구, 예날에 저 당원이라고 있어요. 소다 넣구, 당원 넣구 그거 찌면은 그냥 거무불그스름허게 보기가 좋죠.... 지금 아무리 저기 저... 다과점, 빵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맨들어두 옛날에 이거 얼마나 맛있었어. 배가 고프니까 맛있던 거지 그게.

이건 주로 인제 군것질거리였던 거죠?

그렇죠. 군것질거리지. 배고프니까 그것도 쪄먹는 거여. 점심에 쌀 없어서 못해는 사람은 이거 보리개떡 쪄서 그냥 먹구 다 그런거지 뭐.

그 나무는 아무 산에나 가서 해도 상관없었어요?

나무는 그냥 뭐 몰래 가서 해다 때는 거지 뭐... 자기 산 있는 사람, 또 남의 산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말리면서 해 땠는데, 없는 사람들은 남의 산에 가서 몰래 해 때는 거죠.

거기는 산이 많아서 연료는 좀 풍부했겠어요?

연료는 그래도 풍부했어요. 연료는 뭐,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부락 내에서 해 때는 거구.

인저 (볏짚이) 땔 거는 별로 없었겠네요?

땔 거는 주로 산에서 해다 땠어요. 산에 가서 뭐 여름에 칠월비 뜯구.... 여름에 산에 가서 7월비 깎어 말려가지구..

뭘 깎는 거예요?

나무를요... 7월달에. 왜냐면은 봄에는 풀하고 저 갈나무가 순이 나니까, 야들야들해니까... 여름엔 이젠 좀, 찬바람 나고 그러면은, 인저... 중복 지나서, 말복 지나서는 인제 이게 가랑잎이나 갈나무나, 순 나온 거나 또 풀 나온 거, 그게 억세지잖아요. 영글어가지구. 인제 그걸 깎어서 차곡차곡 말려가지구 묶어다가 싸놨다가 떼는 게 7월비여 그게... 웬만한 산들 다들 하나씩 다 깎어가지구 말려서, 전부 묶어서 져내려다가 쌓아놨다가. 또 저기 핸 사람들은 오산장에 갖다, 소에다가 석동씩 싣고 가서 파는 사람도 있구... 소에다가 세 동씩 싣구 나가서 팔어서 가용 돈들 쓰구.

그 세 동 갖고 가면 얼마나 받았어요?

그저 한 150원? 석 동 가지고 가면 한 150원.

이 나무 장사는 언제쯤 했어요?

그 어른들은 오래 했구, 어른들은 오래 했구...

아 그 7월비 깎아가지고...

말려가지구 인저 많이 해는 사람은, 용돈 필요한 사람은 싣고 가서 오산서 팔구... 나무 많이 해는 사람은 겨우내 나무 장사 했어요.

이장님은 그러면 국민학교 졸업하고 농사짓고 그럴 때, 여름에 농사짓고 겨울에는 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겨울에도 나무 해 때고 그러는 거죠 뭐. 놀 새가 어딨어! 겨울에두 나무...

하루에 한 짐 정도 하나요?

아이, 두 짐씩 했지... 아침에 한 짐, 오후에 한 짐. 그때는 먹구 나무 해는 게 겨울에 일이죠. 날씨 춥구 그래니까 나무 많이 해다 쌓아놔야. 눈 많이 쌓이구 그러면 때구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가서 한 짐, 저녁에 가서 한짐.

그 다음에 인저...

7월비 깎어서 뭐 그거 인제 가을 일 해면서 때구... 뭐 남으면 또 뭐 팔기두 해구. 또 인저 지붕까지 다해면 또 인저 겨울에 먹구 나무에다 때는 거지. 뭐 춥고 그래니까.

나무 장사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몇 분이나 되셨어요?

나무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한 10여 명 됐었어요.

많았네요. 이분들은 매일 가지는 않죠?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틀에 한 번씩은 가죠. 이일에 한 번씩은 가지. 소가 없어서 남의 소 얻어다가 팔려가지. 소 있는집.

나무 장사하는 집은 좀 생활이 어려워서 소가 있을 정도가 안 되나요?

소는 없었어요. 소 한 마리 그때 있었으면 부잣집이여.

그때 소가 마을에 몇 마리 정도 있었을까요?

소가 그때 몇 마리 있었냐면... 하나 둘 셋 네 집이, 한 다섯 집 밲이 없었어요. 소... 5~6집 있었지.

그러면 겨울에... 소 얻어다가 나무 팔로 가면...

두 번 얻어다가 일 하루 해주구.

이틀 얻으면 하루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응. 하루 한 번밲이 장사 못해잖아요. 아침에 끌구 가서 팔구 오구. 그럼 인제 그 이튿날 또 두 번째 가면은 인저 이틀째. 두 번 얻어다 쓰면 일 가서 하루 해주구.

인저 겨울에 일해 줄 건, 겨울에 일해 줄 건 없잖아요?

겨울에 일 해줄 건 없죠. 그거 모았다가 봄에 가서 인저 가래질, 옛날에 논뚜랑 가래질 했잖아요. 시골에 다 논뚜랑 가래질 했잖아요. 그 물 새나가고 그러니깐. 그... 물이 없으니까, 논두랑을 가래질해서, 비 오면은 물하고 흙하고 가래질해서 착착 해가지구 발로 밟아서 삽으루 싹 해놨잖아요.

가래질이라는 게 그 저기 쟁기질 아닌가요?

쟁기질 아니죠. 가래질은 사람이 해는 거지. 가래 한 사람 장치되구(가래 자루를 잡고) 앞에서 두 사람이 줄 해가지구, 셋이 해는 게 가래질. 뒤에서 한 사람은 논두랑, 가래질 해나가면 논두랑, 이렇게 (물이) 다 새지 않게, 다 밟아서 삽으로다 싹 바르잖아요.

그러면 소 얻어다가... 이틀...

그 나무 장사, 나무 장사 핼 적에.

그러니까 인저 말씀은 겨울에 소를 빌려 가면 그걸 계산을 해놨다가 며칠 빌려 가는지 계산해 놨다가 인저 농사철에 일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 나무 장사 소 얻어다가, 두 번 오산 갖다 팔면, 일하러 가서 해 주구. 또 하루 어쩌다가 소 없는 사람이 내 논하고 남의 농사짓는, 그냥 그 갈고 뭐 쓰럭질 해구, 뭐 그런 거 하면, 하루 빌려오면 하루 가서 또 일 해주구.

그러니까 나무 장사할 때 빌려간 거는, 소를 쓰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틀에 하루를 가서 일해 주고. 그 소를 빌려다가 농사 일 하면 하루를...

그렇죠. 논 갈구, 쓰럭질 해구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잖아요. 아침서부터. 그러면 그걸 하루 가서 해주는 거구. 탈곡통 하루 밀려다 쓰면 가서 하루 일해주는 거구.

전기는 몇 년에 들어왔어요?

전기는 인저 칠십... 내가 73년도 제대해가지고 와서, 74년도 반장 보구 새마을 지도자 보면서 퇴비증산을 했어요... 그때 이장이 주영석씨여, 이름이... 내가 지도자 보구 그러면서, 면에서 그때는 이 퇴비를 많이 독려를 했어요. 이 풀 깎으라고, 퇴비. 그래 퇴비 많이 해면 전기 끌어준다구. 그때까지는 석유 등잔, 호롱불이라고 그래지. 등잔불에서 살았어요.

남포는 인저 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썼나요?

그렇지요... 퇴비 증산하면 면에서 인저 시에서. 평택군이었었지. 전기 끌어주겠다 그래가지구 3년 동안 퇴비를 했어요... 74, 75, 76, 77년도까지 퇴비해 가지구, 그래구 78년도에 전기 들어왔어요. 퇴비를 뭐 그냥 네모 반듯하게 쌓아가지구, 집퇴비(집채)만큼 했으니까.

공동으로 했나요? 그 퇴비 쌓아놓는 걸 공동 퇴비장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농가마다 각자.

집 안에 퇴비장을 두고요?

아이 마당, 마당 옆에다, 인저 바깥에서 보잖아요... 담장 안에 말고 배깥에, 배깥 마당에. 배깥 마당에 다 소 매고 그래는, 소 뒤엄자리라고 그래잖아요. 소도 매구, 외양간에다만 맬 수 없잖아요. 소죽 먹으면 또 내다가 또 바깥에 저 소 뒤엄 자리라구. 소 매구 그러는 데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네모 반듯해게 보통 기레기(길이), 기레기 10m. 길이가 10m, 하여간 보통 15m, 10m 해가지구.

그러면 길이가 15m, 이쪽이 10m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구. 하여간 집탱이만치, 서로다 경쟁이 돼가지구. 하여간 아침에 나가면 뭐 퇴비 두 짐. 풀 두 짐씩 깎구, 밥 먹으면 또 가서... 하루 열 짐씩구 깎어다 쌓는데 뭐. 퇴비를.

밥 먹기 전에 두 짐을 했어요?

그렇지. 아침에. 아침에 두 짐 깎어다 퇴비 쌓구. 또 소풀 하고 해서 소두 주구. 그래고서 인저....

상도 받았겠네요?

그 당시에 상두 받었지요.

그래서 좀 농업 생산이, 그러니까 쌀 생산이 좀 늘어났나요? 이 퇴비 하면서?

아무케두 좀 낫죠.

두 가마 반 정도는 나왔나요?

그렇지. 두가마, 두가마 반은 보통 나오구.

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분은, 오히려 저기 배깥에다가 화장실을 크게 만들어요. 독을. 거기다가 화장실 지어서, 거기서들 대변, 소변 보구....

밑에는 대체로 항아리 넣고요?

아니. 큰 옹벽을 해가지고 독을 묻지. 항아리야 얼마나 돼, 그까짓거. 그거 뭐 10지게 정도, 10통 정도. 그저 한 5통이나 10통, 10지게 정도, 옛날에 똥통이 있었잖아요? 그 저기 나무루 해서...

예. 똥장군이요.

예. 똥장군, 지고 댕겼잖아. 지게로다가. 뭐 독이 커야 그거 10지게 나오구. 그렇잖으면 5지게.

1년에요?

1년이 아니라 인저 그렇게 차면은 갖다가 인저 그거 보리 밭에 주구, 감자 밭에 주고 뭐 채소 밭에 주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 김장밭에도 다, 배추밭에도 그거 그 똥 줬지 뭐. 거름이 없으니까.

인분은 주로 밭에만...?

밭에. 보리밭. 밀밭. 또 저기... 고추, 감자. 고추두 다 인분 좋죠. 다. 고추두 인분 주구 뭐 비료가 없으니까. 그래 일부러, 그냥 뭐 저 설거지 물. 그 부엌에서 왜 그 설거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가 화장실에다가 부어서 썩여가지구, 인분하구 썩여가지구 줬는데 뭐.

그 지게에다가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보통 1.5km, 1.5km 이렇게 되는 밭에 갈래면은, 혼자 거기까지 지고갈래면 몇 번 쉬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인저 인분독을 크게 맨들어. 양회로다가. 양회로다가 크게 해가지구 보통 한 5명 이렇게 얻어가지구, 이렇게 한 사람이 퍼서 어디까지 가면 거기서 또 받어서 가져가구, 가져가구. 그 힘 덜 들게 해느냐구. 5~6명이 이렇게 인분 하루 일 가면 그렇게 퍼서 하는 거지.

일꾼을 5~6명을 사서 인분을 푼다는 거죠?

그렇지. 멀리 갖다가, 그 밭에, 보리밭에 주고 그려래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언제 보셨어요? 74년도부터?

아니, 74년도, 75년도에 반장을 보구... 76년도까지 반장 보구. 77년도서부터 79년도까지 새마을 지도자 보구. 80년도서부터 이장을 본 거지... 이장 보기 시작해가지구 현재까지 32년째 이장을...

동네 산 증인이시네요.

평택시에서는 아마 내가 제일 이장 오래 봤을 거요.

새마을사업은 퇴비 증산할 때 같이 하셨나요?

그렇죠. 같이 했죠. 퇴비 증산해랴, 새마을사업 세멘트 나오면, 박대통령 왜 70년대 새마을운동 시작돼가지구, 마을마다 100포, 200포, 300포 줘가지구, 새마을사업 핸 거지.

1971년도부터요?

예. 세멘트가 부락에 뭐 100포에서 뭐 한 300포 이렇게 나와가지구. 인저 다리를 놓는데 징검다리를 빨래터처럼 해서. 비가 오면 떠내려가니까, 자갈을, 돌멩이 놓구 뗏장 갖다가 떠다 놓구 밟구 댕겼는데, 비가 오면 떠내려가니까, 인저 빨래돌 것처럼 네모 반듯해게. 이런 식으로 놓는 거여. 이런 식으루.

그러니까 마을에 다리 놓는 게 제일 급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군대 가서 70년대 가서, 71년도서부터 군대두 새마을운동 교육을, 정훈 교육을 새마을운동 교육을 가르켰다구. 새마을운동은 잘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살고자 하는 운동이다. 뭐 그래가지구 뭐, 뭐 마을길도 넓히구, '새벽 종이 울렸네' 고 노래도 있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마을마다 뭐 마을길두 넓히구 초가집도... 그리고 그 다... 노래두 있구. 군대에서도 71년도, 72년도, 73년도 나 제대핼 때까지 정훈교육 해면은, 물론 나라 지키는 국방교육을 했지만은 주로 새마을 교육은 한 시간씩은 꼭 새마을 교육을 했어요. 오전에 저기 4시간

교육해면은 한 시간은, 정훈 교육하면은 한 시간은 새마을 교육부텀 먼저 했으니까. 그래 나는 아주 군대에서부터 새마을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제대할 때는 좀 남다른 생각을 좀 하셨겠네요?

그래서 72년도에 휴가를 와가지구, 72년도에 휴가를... 그러니까 70년도 군대 가서 71년도에, 그해 가을인가 그 1년 만에 휴가 보내주잖아요.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새마을, 그때 세멘트 71년에 나와가지구 징검다리 놨더라구. 그래서 우리 동네두 다리 떠내려가지 않게 잘 놨네. 그래 딛구 댕겼는데. 인저 72년도에, 그때 휴가를 나오니까 세멘트 나온 거 가지고 인저 또 그런 다리만 놓으러 들더라구.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하날 놓더라두 하다못해 마차두 댕기구, 경운기두 댕기구, 차두 댕기는, 승용차로두 댕기는 다리를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구 집집마다 부엌 대문, 부엌 대문이 나무 대문 아녀. 시골이 다. 이 가다(틀)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공사해면은 쇠로다 된 거고 뭐, 그게 뭐야, 그거 갖다 탁탁 끼면 그냥 옹벽 치고 그래잖아요. 또 그거 나오기 전에 또 뭐 베니다판으로다가 가다 쳤잖아요. 대부분...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서 빌려올 돈두 없구. 그래니까 집집마다 부엌 대문 띠어오라구 그래가지구, 그걸 대구 다리를 하나 놓은 거여.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다리를 놨는데. 마차두 댕기고, 경운기두 댕기구, 사람도 댕기구, 택시두 댕기게끔만. 뭐 큰 담푸차는 못 댕기구. 그런 다리를, 내가 인저 그렇게 설계 해서 놓기 시작핸 거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휴가 와가지고 놓은 거여.

아 휴가 와서 그걸 설계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그 다리가 어디였어요? 맨 처음에 놓은 다리가?

그 다리가 중간말 앞다리라구... 중간말... 사후천 중간말 앞에 다리를 하나 놓은 거지.

이게 인제 최초 시멘트 다리네요?

예. 조그맣게 그 저 경운기 다니구, 마차 다니구, 그렇게 해서 놓은 거... 그렇게 놓구 보니까, ‘아 이제 징검다리 놔서는 안 되겠다.’ 그때서부터 자리를 놓기 시작한 거요. 그렇게 해구서 인저 73년도 사업서부터 인저 그렇게 놓기 시작핸 거지.

73년도 사업부터는...

그렇지. 놓기 시작해가지구, 73년부터는 징검다리는 폐지해구, 그 다리로다가, ‘하날 놔두... 세멘트 100포, 300포 나와두, 하날 놔구. 그런 다리에 하날 놓더라두, 징검다리 10개 놓는 거보다 낫다.’ 해가지구. 그렇게 되니까 좋잖아요. 차두 댕기고, 뭐 경운기, 마차두 다니구, 비와두 뭐 발 벗지 않구 다니구. 그렇게 해서 인저 다리 놓는 기술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마을에 인저 내가 제대해구 와서 새마을지도자 보고, 반장 보고. 새마을 지도자 보면서 다리를 몇 개를 낳았냐면은... 하나, 둘, 셋, …… 여덟 개. 여덟 개 정도 놨어요.

79년까지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하면서만 놓은 게요?

예. 여덟 개 놓은 거여... 여덟 개로다, 소교량이지 뭐 소교량.

여덟 개 정도 놓으면 마을에서 웬만한 곳은 인제 다 리어카가 다닐 수 있게 됐겠네요?

그렇지. 아니 리어카만 아니라 마차까지 다 다니구, 웬만한 저기 저 2.5t까지 다 다니게 놨지. 그렇게 해다가 2000년도, 2000년도에 동천리 지역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났어요. 아마 한 1500미리, 비가 한 1500미리 왔어. 1500m 이상이 왔어요.

하룻밤에요?

아 하룻밤하고 그 이튿날 낮 사이에 그렇게 와가지구. 그때 저 무봉산 사태로다 해서, 무봉산 산사태로 해서 동천1리 오현순 부녀회장님이 산사태루 집이 깔려가지구... 그냥 산사태가 확 집을 치구 나가니까, 집을 덮치면서 그냥 밀고 나간 거요. 거기에 깔려서 돌아가시구. 우리 동네는 그냥 뭐 진입로가 다 끊어, 진입로가 세 군데가 끊어지구. 하천 뚝 몇 군데가 텨졌냐? 가만 있어 봐. 하나, 둘, 셋, …… 하천둑 한 14곳이 터져가지구 뭐 벼 잘 된 거 그냥 다 쑥대밭이 됐었지 뭐... 막 벼가 필라고 그랠 적에..

이때가 며칠이었죠?

그때가 2000년도 7월 20일 날. 2000년도 7월 20일 날 장마에 아주 물 폭탄이지 뭐 그냥... 벼가 막 배구 그럴 적에. 벼가 다 동이 올라오구, 이삭 거름 줄라구 그럴 적에. 그 때 그냥 아주 그냥 싹 쓸은 거요 그냥.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물바다가, 바다 같이 내려갔어. 물이. 뭐 하천이 소용없어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그 논을 갖다 하얗게 그냥 바다같이 쓸구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구 어디 갔다 오다가, 올 수 없어서 산이로다가, 산이로 산이로 해서...

그때 인제 길도 다시 닦고...?

차도 예를 들어서 단차선으루 댕기다가 많으면 2차선 내구, 그것도 또 차가 많아서 밀리구 그러믄 4차선 내듯이, 겨울에도 물 내려가는 물길이 좁으니까 둑이 터지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때 사후천 개수공사를... 그때 시에서 수해 복구로다 한 50억 지원해줘가지구.

그러니까 사후천 정비 공사하는 데만 50억?

아니. 그거하고 2차선 하구 해는 데... 그런데 2차선 해기 전에 도로, 마을 진입로 확장을 내가 먼저 했죠. 이장 보면서. 80년대에 이장 보면서... 80년 1월 이장되면서, 81년도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그거를 확장을 했어요. 확장 공사를 해가지구,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단차선이래두 한 4m 길로다가 확장을 해가지구...

4m 정도요?

응. 4m 정도로다가 확장을 해서 오산-서울 고속 직행 버스를 끌어들인 거여... 서울여객이죠... 오산-서울 고속 직행을 우리 부락에 하루 3번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산 오는 직행버스가 마을에 들어오게끔요?

응.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끔.

그럼 오산 섰다가...?

오산-서울만 왔다갔다 해는 건데, 우리 동네 별도로 들어가 준 거요.

그러니까 인제 서울에서 오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산역에서 서울 다니는 고속 직행이 있었어요. 서울여객. 고속 직행 버스를 우리 부락에 내가 끌어들인 거라구...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가 세 번을 끌어들인 거여. 그 때 그걸 끌여들이니까 마을 사람들 뭐 그거 타면 관광 가는 기분이... 걸어댕기다가...

그럼 사후동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보건진료소 있는 데, 보건진료소 들어오기 전에 거기가 종점이죠 뭐. 거기가 종점이었었지.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는 버스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죠. 그전에 무슨 버스가 다녀요. 버스가 다니기는.

그럼 버스 타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됐어요?

서울 가려면은 오산으루 나가야지. 오산으루. 걸어가야지.

치고개 넘어가지고요?

예. 글리 걸어 댕겼죠. 서울 갈래면 오산 가서. 차 타구, 열차 타구 이렇게 댕겼는데, 그걸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이장 보면서 서울여객에 가서 내가 그 사장한테 말하자면 하소연을 했대든가, ‘우리 버스 끌어들일라고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도로를) 해놨으니까, 좀 우리들 부락까지 좀 운행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구 그때 서울여객 사장은 반대를 했어요. 거기 댕겨야 고속버스가 운영비두 안 나오구, 음 시골길 댕기면서 위험하구... 그 때는 이 저기 오산서 여기 저 소방학교 남자 가는 길두 비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하실 때 놨던 다리가 버스도 이렇게 다닐 수 있었나요? 아니면 4미터로 넓힐 때 그 다리를 다시 놨나요?

아니. 그 다리로 다녔어요. 버스가 까지는 살살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오산까지만도 갈 수 있었어요?

오산까지 가구, 거기서 서울 갈래면 그거 타고 서울까지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획기적인 발전을 시작핸 거지... 내가 이장 보면서 전적으루.

82년도에 오산까지 버스비는 얼마였어요?

몰라요 그거.

마을회관은 언제 지었어요?

마을회관... 2020년도 착공해서 21년까지 했죠... 코로나 때문에 준공식을 여태 못핸 거여.

옛날 마을 이장님 어렸을 때는 마을 회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다가 나 군대 갔다가 오니까 마을회관을 인저 그... 옛날에 그 브로꾸, 브로꾸를 찍어서, 산에서 나무, 서까래 비어다가, 기화로다가 올린 거요... 쪼그맣게 하나 졌다가...

몇 평 정도 됐어요?

그때는 뭐 한 열두어 평. 열두어 평밲이 안 돼요. 저 서너 평. 짓구... 그거는 지원 받아서 진 게 아니구 그냥 자력이루 지은 거여.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이렇게 구분돼 있더라고요?

막었죠. 거기.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마을회관 드나들 수 있게 방문두 해놓구. 같이 쓰게끔...

그리고 인게 그 앞에 있는 비석은 그러면 70년대....?

구성회... 그분이 마을회관을 기증을 해주신 거죠.

그때가 처음 지을 때...?

그때 한 98평을...사를 해준 거지. 그래서 초창기에 마을회관을 거다가 쪼끄맣게 졌다가, 그거 헐구 내가 이 장 보면서 그 1,500만원인가 그, 그때 또 1,500은 또 큰돈이니까... 그 이자헌씨 교보사업으로다 지원해줘 가지구 2층으로 지었는데, 그게 인제 그 당시엔 업자가, 그땐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마을에 돈이 없지만 못 댔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줘야 철근 열 개를 다 써주는 건데, 안 되니까 철근 다섯 개 쓴 거지 뭐. 아 그러니까 날림 공사지. 그리고 중간에 내가 또 한 900만 원 끌어다가 보수 사업을 했어요. 보수 사업을 해구 보건진료소를 또 끌어오구.

그럼 그 전에는 마을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어디서 모였어요?

그 전에는 그냥 그 부잣집 사랑방. 구성회씨, 그 구성회씨. 그 부잣집 사랑방.... 마을회의를 거기서 했어요... 두 칸짜리.

구성회, 이분의 집은 어디쯤 됐나요?

그 마을회관 고 뒤에요.

현 마을회관이 보건진료소라고 되어 있는 지도를 보며)지금 보건진료소라고 표시된 자리가 마을 회관 같은데요?

거기 보건진료소를 내가 유치를 했었죠.

아 마을회관 1층에?

1층에 보건진료소 유치해구, 2층에 회의실 썼죠.

그러면 그때...

보건진료소가 고현리에, 오산시 고현동에. 진위면 고현리에 있을 적에, 오산으로 가기 전에 고

현리에 있었다가, 오산시로다가 94년도에 고현리가 갔잖어요?

그러니까 마을 회관을 1층, 2층으로 졌는데, 그 1층을 그 뒤에 보건진료소 인제, 그러니까 평택 3개 시·군이 통합이 될 때, 고현리에 있던 보건 진료소를 이쪽으로 끌어오게 된 거라는 거죠?

내가 끌어온 거예요. 그거 안중으로 가는 건데, 내가 평택보건소에 뛰어내려가가지구 “무슨 소리냐. 아니 고현리로다가 있는 거 여기 고현 1·2·3리, 청호 1·2리, 갈곳 1·2리, 동천 1·2리, 아홉 개 부락이 사용해는 거, 고현리가 오산으로 갔으니까 이건 우리 동네로다가 끌어다 놔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동네로 다 해겠다.” 그랬더니 보건소장이, 평택보건소장이 “그럼 장소가 있느냐?” 이거여.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가지 1층, 2층인데, 1층에다가 우리 임대료도 안 받구, 주민 건강 진료를 위해서 그냥 거기다 유치해주시오. 그리고 우리 2층만 회의핼 때만 사용하면 된다. 이층.” 그렇게 해서 안중으로다 가는 건데 일리 끌어온 거지.

그러면 고현리에 있을 때는 어느 마을 사람들이 (진료를)했었어요?

고현에 있을 때는 거기 고현 1리·2리·3리 청호 1리·2리.... 동천 1리·2리... 그렇게 7개(마을).... 그리고 남사 봉명리. 인근 마을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그 사람들두 진료오면 다 약 주고 해니까.

95년에 이쪽(마을회관 자리)으로 온 것이, 지금 현재 자리로 간 것은 몇 년인가요?

왜 보건진료소를 내가 끌어왔냐면은 2003년도에 1억 5천을 끌어왔었어요. 저기 2004년도에, 그때 1억 5천을 끌어다가 보건진료소를 질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동천 1리, 2리가 의논해서 지어라.’ 그래서 서로 싸운 거요. 나는 ‘우리 동네에다 지어야 되겄다.’ 거기는, 1리는 ‘1리가 인구가 많고 호수가 많으니까 자기 자기네한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들 옥신각신해다가 현덕으로다가 뺏긴 거여.

그러니까 이제 동천1리 사람들이 새로 짓는 건 동천인리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하고...

거기 지어야 된다구.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보건소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다 져야 된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니까 시장, 국회의원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저 현덕으로 주라구. 그래구서 2009년도에 추진한 거예요. 그때 도에서 1억, 시에서 2억 8천...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건물만 지어주는 거. 1층 30평, 2층 30평. 건물만 지어주는 거 나온 거지. 땅이 없으면 또 안 지어줘요. 그래 땅을 갖다가, 우리 동네 돈도 없고 땅도 없어서, 누가 희사해는 사람두 없구 그래서, 내가 된 댕기매 1억 2천만 원을 찬조를 받었어요. 다니면서... 찬조 받어서 땅을 구입해서 시로다 기부채납. 기부채납 해가지구 보건소를 신축. 신축하여 지금 현재 마을 주민 건강을 돌봐주구 운영을 해고 있다. 그리고 요거 인저 동천 1리, 2리, 고현리 남은 부락하구, 봉명리 일부 부락두 오면 진료를 해주구. 그러니까 동천 보건진료소여.

그래서 몇 평이었어요? 그게?

1층 삼십 평, 2층 삼십 평.

아니 대지요.

대지가 153평. 그거를 샀어요. 그 찬조받아서 사서 기부채납. 우리가 땅을 주구 사서 기부채납..... 안 해면 안 지어줘요.

진짜 100년 대계 사업 하셨네요.

아 그렇죠. 나 아니면 이거 못 해내지.

그 버스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좋아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우리 동네다 끌어다 놓구는 정말... 주민들이 뭐 정말... 노인네들이, 차 없구 그런 사람들이 오산 나갈래봐요. 버스 타구 가던지, 아니면은 택시 불러, 그렇잖으면 택시 불러 타구...

그래서 완공된 게 언제였어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예산을 끌어왔잖아요?

2011년도에 완공되구 준공시켰지. 2011년도에 준공시키구.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V.

진위면 고현리 마을조사

장연환

여 백

Ⅴ. 고현리 마을조사

1. 역사와 지리

1) 역사

고현리 원경

고현리의 자연마을은 1995년 4월 20일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현재 평택시 진위면에 속하는 고현리는 2000년 전후에 주택이 늘어나면서 조성된 마을이다.

고현리의 자연마을이 처음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1791년 편찬된『호구총수』다.『호구총수』진위현 조에는 일북면에 속한 마을로 ‘신촌리’를 언급한다. 오산시 고현동 전윤상(남, 1935년생)[1]은 신촌(새말)이 고현동에 속했고 진주 강씨의 집성촌이었는데 큰길가여서 도둑들이 때문에 오산시 원동으로 집단이주했다고 말했다. 1911년경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는『조선지지자료』경기편에는 고현리와 우촌이 나오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의 진위군 일북면에도 동천리, 청호리와 함께 고현리와 우촌이 나온다. 1917년『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진위군 일북면의 고현리 일부와 우촌이 통폐합되어 ‘고현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고현리 일부는 고현1리로 편재되었고, 우촌(祐村)은 고현 2리가 되었다. 고현 1리는 높은재이다. 옛날에는 마을 남쪽 삼남대로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높아 유래된 마을 명이다. 고현2리 우촌은 단양 우씨가 대성(大姓)이어서 유래되었다. 그러다가 우(禹)를 (祐)로 표기하면서 지금에 이른다.

고현리는 일제강점기 오산시가 성장하면서 생활권이 오산으로 바뀌었다. 시장도 2km밖에 안되는 오산장을 가장 많이 다녔다. 초등학교는 진위초등학교나 갈곶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중등학교

1) 2013년 8월 10일 오산시 고현동 경로당에서 인터뷰

부터는 오산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평택시로 볼 때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데다 농촌지역이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고현리, 청호리 일대의 주민들은 1990년대 초반 불만을 토로하고 평택군청 앞에 몰려가서 오산시 편입을 주장했다. 19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대부분 지역이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1967년 고현리

2) 교통

고현리는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시대에도 마을 부근으로 삼남대로의 보로(步路)와 역로(驛路)가 지났다. 이웃한 부산동 역말에는 청호역이 있었으며, 갈곶리에는 이방원이 설치되었다. 근대 이후에도 일제 말 오산-양성 간 310번 지방도(남부대로)가 건설되어 양성, 안성지역과 소통을 원활하게 했다. 310번 지방도는 소화 14년(1939) 대가뭄 때 만주에서 잡곡을 가져다가 배급 주면서 만들었다. 서북쪽으로는 국도 1호선 및 경부선 오산역과 연결시켜 교통이 매우 편리했다. 행정의 중심인 진위면 봉남리까지는 4km였지만 오산역과 오산장까지는 2km에 불과했다.

고분다리주막

옛 고현1리에서 바라본 남북대로(오산 방향)
(2008년)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조선 말기부터 마을 주변에는 주막이 발달했다. 조선 후기 읍지·지리지에도 ‘청호점’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일찍부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고현1리 전희상(남, 1936년생)은 주막은 모두 3개가 운영되었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주막은 고현2리와 청호리 경계의 고분다리 주막이었다. 일제강점기 고분다리 주막에는 작부를 두고 장사를 했다. 그래서 진위에서 순사들이 칼차고 와서 술을 먹다가 작부들에게 홀려 돈을 다 털리고 가곤 했다. 기나지고개 정상부에도 동천리주막이 있었다.

3) 인구

고현리의 인구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1964년『평택군 통계연보』에는 56호 321명이 거주했다. 이 가운데 남자는 156명, 여자는 165명이었고 농가가 45호로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1970년『평택군 통계연보』에는 54호 347명이 거주했다. 남자는 166명, 여자는 18명으로 여자가 조금 많았으며 농가는 44호였다. 1978년『평택군 통계연보』에는 59호 358명이 거주했다. 남자는 174명, 여자는 184명이었으며 농가는 38호였다. 이 시기부터 농가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농가가 많아진 것은 오산과 진위 일대의 산업화 영향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9년 뒤인 1987년『평택군 통계연보』에는 116호 460명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가와 비농가 비율도 63호대 53호로 비슷해졌고 남녀 비율도 남자 237명, 여자 223명으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오산시의 확장에 따른 인구의 유입과 주변지역 산업화로 인한 인구 유입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8년 마을조사 때 주민 전윤상(남, 1935년생) 등은 마을 규모가 60세대라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토박이가 30호[2]였으며 나머지는 외지인들이라고 하였다. 당시에도 인구가 급증하는 우촌 인구까지 120세대가 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윤상(1935), 전희상(1936) 등은 해방 전후에는 22, 23호였다고 말했다.

옛 고현1리 마을회관(2008년)

옛 고현1리 마을 주민들
(2008년, 좌측부터 전희상, 전진상, 전수항, 전윤상)

4) 성씨

고현리는 1리는 천안 전씨 집성촌이고 2리는 단양 우씨가 많았지만 2013년 당시에는 밀양 박씨도 많았다. 당시 호(戶)는 18호였지만 그 후 공동주택과 각종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호(戶)가 크게 늘었다.

1리의 천안 전씨는 문효공파다. 천안 전씨 고현동 입향조는 전순영이다. 전순영은 전윤상(남, 1935년생), 전희상(남, 1936년생)의 8대조라고 했다. 전순영의 부친은 충북 충주에 거주하다가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로 이주하였다. 이주 후 4남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막내가 고현리 입향조 전순영이었다. 주민 전희상은 아들과 손자까지 포함하면 고현동에서 10대를 거주한 것이 되므로 거의 300년쯤 살았다고 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윤상은 위로 6대조 전동원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고 5대조는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증조부는 미관말직이나마 참봉을 지냈으니 시골에서 이만하면 반가(班家)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5) 지명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고현리	마을	고현1리	삼남대로가 지나는 마을 앞에 높은 고개가 있어 '높은재' 로 불렀는데 이것을 한자로 '고현(高峴)' 으로 표기했다.
		고현2리	단양 우씨가 집성촌을 이뤄 '우촌(禹村)' 이라고 했던 것이 '우촌(祐村)' 이 되었다.
		새말(터)	고현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호구총수』에는 신촌리라고 했다. 진주 강씨가 집성촌을 이뤘지만 도둑이 많아서 오산시 원동으로 이주했다.
	산 · 들 · 곡	말등산	고현1리 뒤에 있다. 동천2리 사후동과 경계다. 산이 말의 형국에서 등 쪽에 해당되며, 산 정상부 앞쪽이 말머리, 뒤쪽이 엉덩이다.
		청룡봉	고현리와 동천2리 사후동의 경계에 있다.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강씨마름	새터 마을에 있던 산으로 진주 강씨의 묘가 있었다.
		알봉	안미골 뒤의 봉우리다.
		안미골	말등산 아래의 골짜기다.
		청량골	말등산 아래 골짜기다. 절터가 있다.
		각골(갓골)	고현1리 앞 LG디지털파크 쪽에 있던 골짜기다.
		사골	고현1리 LG디지털파크 쪽에 있던 골짜기다.
		원당골	고현1리 초입에 있다.
		당말	부산동 역말 부근에 있다. 삼남대로 변이고 서낭당이 있었다.
		가마미	삼남대로 변에 있었고 가마꾼들이 지나던 곳이다.
		두재비골	청룡봉 아래의 골짜기다. 청룡과 황룡이 두꺼비와 싸우는 형국이다.
		치고개	고현1리에서 동천2리 사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고현리에서는 절뒤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으로 ‘절뒤 고개’라고 부른다.
		거북바위	치고개 위에 있는 바위다. 거북모양으로 바위를 옮기려다가 사람이 치어 죽었다.
		선디골	1995년 행정구역 조정 전 오산과 경계에 있었다. 어떤 사기꾼이 바닷가에 가서 선바위로 사기를 쳐서 소금 한배를 받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분다리주막	고현초등학교 길 건너편 고분다리에 있던 주막이다. 고현리와 청호리 일대에서 가장 컸다.
		동천리 주막	기나지고개 정상부 주유소 건너편에 있었던 주막이다.
		밀머리 두께우물	옛 고현1리 앞 삼남대로 변에 있었다. 물이 우물 위로 넘쳐 흘렀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서 대로를 따라 여행하던 사람들의 식수가 되었다. 조선 전기 맹사성이 소를 타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하다. 옛날 고을 원님이 지나가다가 우물 뚜껑을 해 놓으라고 명령하였다. ‘옛날에 원님이 지나가는데 마침 날이 가물어 농민이 흙이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모쟁이를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농민의 옷은 비에 맞아 흙탕물이 줄줄 흘렀다. 이것을 본 원님이 저놈이 계집 둘을 두어서 저 모양이다’ 라고 소리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현1리 마을숲	고현1리 마을 앞에 있었다. 150~200년 된 버드나무 12그루로 된 숲과 우물이 있었다. 우물에는 정월에 날을 잡아 정제(정지사)를 지냈다.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우장군 묘	옛 고현1리와 2리 사이에 있었다. 단양 우씨 집안의 무관을 했던 사람의 묘이다. 고현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후손들이 양성으로 이장했다.

2. 사회 · 경제 · 문화

옛 고현1리는 천안 전씨 집성촌이다. 고현2리도 단양 우씨가 많았다. 고현1리는 친족관계가 끈끈하다. 주민들끼리의 호칭은 아저씨, 할아버지, 조카 등으로 부른다. 옛 고현1리 뒷산에는 종중묘도 있다. 이곳에는 입향조 전순영을 비롯해 조상들의 묘가 있다. 음력 10월 초에는 시제도 지낸다. 옛날에는 시제를 지낼 때 후손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관심이 크게 줄었다.

고현리는 농업지대였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고현1, 2리 주민들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다. 농사는 앞고실들이나 고분다리들 일대, 멀리는 역말 부근까지 다니며 농사지었다. 1964년『평택군 통계연보』에는 고현1, 2리 56호 중 45호가 농사를 지었다. 1970년에도 54호 가운데 44호는 농가였다. 나머지 10여 호는 공무원이나 교사, 회사원이었다. 그러다가 1978년에는 59호 가운데 38호만이 농사를 지었고, 1987년에는 전체 116 가운데 농가가 63호에 불가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현상이 오산시 일대의 공업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산시가 발전되면서 우촌과 같은 마을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었고 대부분은 회사원이었다는 말이다. 2008년 마을조사 때 주민 전윤상(남, 1935년생) 등은 마을 규모가 60세대라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토박이가 30호[3]였으며 나머지는 외지인들이라고 하였다.

고현리에서는 두레가 발달했다. 전윤상(남, 1935년생) 등은 주변 마을에서 고현리 두레가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했다. 고현리 두레는 좌상도 있었고 상쇠도 있었지만 일찍 중단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고현1리 높은재 마을에서는 정제를 지냈다. 이 마을에서는 정제를 '정지사(정(井) 제사)'라고 부른다. 정제는 고속도로에 파묻힌 장자우물에 드렸다. 비록 우물은 묻혔지만 정제만큼은 중단하지 않았다. 제일(祭日)은 정월에 좋은 날을 잡았다. 제주도 흠 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선출했다. 본래는 주민들에게 거출해야지만 2008년 당시에는 마을 공동답이 있어 그 수익금으로 제를 지냈다. 제물은 당주가 준비했다. 소머리와 삼색실과 포와 술을 준비했다. 정제는 밤 10시경에 지냈다. 간단히 절을 하고 축원하고 헌작하고 끝낸다. 소지는 올리지 않았다.

3. 마을 현황

1995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자연마을이었던 고현1·2리는 모두 오산시로 편입되고, 고현리는 청룡골이라는 골짜기와 산만 남았었다.이 마을은 북쪽으로 오산시 원동, 서쪽으로는 오산시 고현동, 동남쪽으로는 동천리를 접하며, 마을 앞에 고현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아래로 논들이 분포한다. 저수지는 일제 강점기에 조성되으며, 저후지 남쪽 길 위로 올라가면 맨 위에 고현낚시터는

3) 전윤상(1935), 전희상(1936) 등은 해방 전에는 18호였다가 해방 후 22, 23호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골짜기에 20여 년 전부터 주택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가구 정도 거주하는 마을이 되었다. 현재 마을 주민 중 50~60대는 5~6가구 정도이고 나머지는 70~80대 노인들이다.

사후동으로 넘어가는 치고개

고만석

이장 전태상

청룡골 위쪽으로는 예전부터 동천2리 사후동 사람들이 오산을 다니던 치고개가 있다. 치고개를 넘어와서 마을 북쪽의 얕은 능선을 넘어 오산시 원동 당말과 역말저수지를 차례로 지나 오산으로 갔다. 지금은 북쪽 등성이로 넘어가는 옛길의 흔적은 없어지고 서쪽 경부고속도로 아래로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 있다. 고만석씨(남, 1952년생)가 오산에서 저수지 뒤쪽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락논 저수지 위쪽으로도 다락논이 있어 길도 제대로 없었는데, 치고개 너머에 농장과 사후동수양관을 운영했던 맥카피 선교사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혀 놓았다. 이때 치고개도 2~3m를 낮췄다. 이렇게 닦은 길은 15년 전쯤 광은기도원 측과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시멘트로 포장하여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 처음 들어온 인물은 현재 고현리 이장을 맡고 있는 전태상씨(남, 1944년생)이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나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2000년경에 주택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이후 들어선 주택들은 대부분 고현 저수지 위쪽과 오른쪽으로 위치한다. 처음에는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사용했는데, 지하로 고속전철이 지나가면서 물이 고갈되자 6~7년 전에 수도 시설을 했다.

전태상씨를 제외한 주민들은 모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고, 전태상씨가 청룡골 논 대부분을 경작하고 있다. 골짜기 경사가 있어서 계단형의 논들은 1980년도 전후해서 수반정리[4]를 했다. 청룡골 논들은 수렁논도 있었지만 천수답도 많았다. 고현동저수지 수량으로는 천수답에 물을 댈 수 없어서 전태상씨가 주도하여 평택시 보조를 받아 지하수 관정을 두 개 뚫어서 물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했다.

4) 들판의 논들을 일정한 평수로 구역을 나누어 정리하는 반면 산골의 논은 굽은 논두렁만 곧게 펴서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넓이가 일정하지 않는데, 이를 수반정리하고 한다.(전태상씨 인터뷰)

고현리 저수지

저수지 앞 농지

고현리가 버스가 다니는 남부대로(310번 지방도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했다. 남부대로는 한 시간에 한 대 이상의 버스가 다니지만, 걸어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2년 전 전태상 이장이 평택시에 의뢰하여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은 천원만 내면 송탄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른 오산 쪽으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오산역으로 갔지만 지금은 진위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또한 오산으로 가지 않고 송탄 송북시장 쪽으로 다닌다.

고만석(남, 1952년생, 고현리)

일시	2022년 10월 2일	
장소	고만석씨 자택	
구술자	고만석씨는 20여 년 전 사후동으로 넘어가는 치고개 길목 옆 마을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고현리 마을이 형성되거 가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여기 고현리 태생은 아니신 거죠?

아니죠. 서울 왕십리에서.

왕십리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네요?

건설, 건설에 왔다가, 70년도에 건설회사, 저 장항 갔다가 오산 와서 여기 건설, 금성전기하고, 금성 기숙사 지을 때 와가지고.

실례지만 건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토목이죠. 뭐 토목.

오산에서 정착하시기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였어요?

그때가 70년도에, 71년도부터 여기서 정착한 거지.

71년도부터 오산에요?

응.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71년도면 이때 우리나라 나이로 스무 살에 내려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18살부터 저기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나이가 굉장히 모호했나 봐. 친구들이 다 열일곱 살인데, 스물일곱 서른 살 짜리가 다 친구. 내가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나이를 안 믿어주는 거야. 그때두

회사 은퇴하시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죠.

회사 다니면서요?

예. 다니면서 인자, 그 차를, 오산 역전 옆에서 집을 사 가지고 살았는데, 그 화물차, 그때는 길이 좁고 그런데, 인자 집 앞에다 차를 댔길래 "아 이거 남의 대문 앞에는 좀 비껴서 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내 차, 내가 내린 걸 보구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놈이 가서 브레이크를 잘라놓은 거여. 그 이튿날 인제 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푹 들어가 버리더라고.

아 그 화물차?

예. 그래 가지구, '아이고 씨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들하고 이걸 사자고 그랬는데 나는 안 사고 인자 이 둘이 산 거죠.

몇 살 때쯤 들어오셨어요?

그때가... 마흔 한 대여섯인가? 그렇게 됐나?

그때 처음 들어오실 때 여기는 뭐 집들이 있었어요?

아무 것도 없었 논밭이었죠. 논. 그러고 옛날에는 여기 다랑논이 저 끝에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락논이었어요.

아까 절뒤 고개로 가는 데요?

예. 지금 저기 포크레인 소리 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이게 다락논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와서, 여기 니아카 길 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구, 와가지구 인자 여기 와서 모 심고, 우리는 저기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인자 여 너머가 기독교 병원, 옛날 미군들 그 사람들이 이 너머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땅을, 이 길을 인자 빌려가지고, 길 값을 내고, 길을 내고 다닌 바람에 이게 길이 난 거지.

요 너머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아니고, 옛날 기독교 병원에 미군들이 그 있었어요.

지금 광은기도원 자리에요?

아니. 그 밑에 가면은 길 옆에, 내리막에 집 한 채 있는 거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우유를 다 이렇게, 짓고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없어졌지. 인자.

기독교 병원 하시던 분들이요?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미군들이.

주로 남자들이었나요?

아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것 같앴어요. 그때는... 살림도 여기서 허고. 인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부부지간에 왔다 갔다 한 건가요?

사람이 한 몇 명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뭐, 뭘 허는 건지는 확실히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옛날 미군차 가지구, 미군 그 찝차 같은 거를 가지고 넘어다녔으니까. 여그를. 그때는 이게 언덕이 높었어요. 높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간 거예요?

예. 한 2~3m 지금 낮춰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쪽 길을 내가지고...?

예. 길을 세를 주고서 길을 다 내가지고 다녔어.

동네 사람한테요?

그때는 동네 사람도 없었죠. 저 너머 사람들도 그냥 걸어만 다녔지. 차도 못 다니고.

처음에는 길이 되게 좁았겠네요?

예. 좁았어요. 니아카 길 하나 겨우. 한 이 정도 돼가지고 마차도 못 다녔는데.

그러면 이게 포장된 건 언제예요?

포장된 거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이거, 이 동네 사람들이 돈을 저기 해가지고 헌 거구.

그쪽(치고개 아래 전원마을)하고도 같이 돈을 모아서요. 저게 포장된 게 그러면 언제쯤 돼요?

지금 얼마 안 돼. 저쪽 너머(사후동 쪽)는 포장이 지금 다 될 걸랑요. 길도 넓히구. 넓히구 했는데, 여기도 헌다고 그래놓고 해 주질 않아요. 시에서. 하하하...

그럼 한 10년쯤 되나요? 저기 포장한 게, 이길을 포장한 게?

예. 10년... 인제 조금 조금 헌 거지. 한 번에 다 한 것도 아니고. 원래는 저, 지금 여기 호박밭 저 건너, 저 길로 다녔어요. 저 길로. 저 건너 지금 소나무 있는 데로, 글로 해가지고...

원래 그럼 고개가 저쪽으로 났던 거네요?

예. 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났던 건데, 인자 우리가 저기 해가지고, 여 서로 지금, 여 논 임자하고 이 밑에 땅 임자들하고 저 기부채납 허듯이 해가지고 인자, 이 담에는 땅 팔 때는 땅값은 그 평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증을 해가지고, 해줘 가지고 이렇게 낸 거여.

그러면 이거 포장하기 전까지, 그니까 저쪽 기독교 병원 관계자들이 살 때는 저 산 밑로 다녔네요?

예.

근데 이 길은 동천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도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한 달이면 2~30만원은 기름값이 더 나오고, 일로 오면은 한 2~30만 원 덜 들어간다는 거 아녀. 저쪽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돌아가면 멀잖아요. 오산으

로 가는... 생활은 다 우산권인데, 그런데 이 시에서도 이 길 포장 하나도 안 해주고...

어르신 여기 들어올 때는 고현리가 오산 쪽으로 편입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저 밑에가. LG전자 앞에가 편입된 다음에. 같은 동네였는데 거기는 고현동이고, 지금 우리 여기는 고현리로 돼 있지.

근데 혹시 마을에서 '(오산) 고현리 쪽으로 편입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아니, 저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랬지. '평택시에서 이렇게 저기 하니까, 우리 저 뭐야 오산시로 편입해 달라고 한 번 저기 하자.' 하하하... 그랬지. 근데 마음대로 누가 또 나서서 할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럼 어르신은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여기 고현리 쪽이 (오산에) 편입됐을 때, 사람들이 편입되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안 되고 싶었다든가 이런 말씀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집이 없었죠. 오산이라 편입, 저 밑에 동네가 오산시로 편입될 당시에는 여기 집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소리를 못 헌 거지. 그때는 여기는 평택이래도, 누가 사람이 여기 안 살았으니까.

그럼 오산 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산 쪽 고현동 사람들은, 원래 그쪽 토박이들이요, 그쪽으로 편입되고 싶어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인저, 그거는 시민들이 편입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LG 땜에 그 앞에까지 저기를 해가지구, 오산시에서 저기 해가지구 그거 편입을 시킨 걸로 아는데. 내가 알 때는... 나도 그때 거기 살았는데두 뭐 반대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요?

응. 오산이로 편입된다는 게 좋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봐도,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야. 나도 그 우촌마을 하고, 지금도 거기 많이 살고 그쪽에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촌말 쪽에요?

응. 70년도에 처음에 내가 거기 셋방 살 때 천 원 주고 살았어. 하하하...

그때 보증금 얼마에 천원이었어요?

보증금도 없이 그냥 한 달에 천 원 주고 살았으니까. 70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세 사는 사람이 없더라구. 거기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근데 아는 사람 땜에, 여 같이 이거 기숙사 짓구 건설할 때, 그 일을 그때 당시에는 농사 일허구 거기 가서 일하는 양반이, 자기네 집 건너 방에 비었으니까 와서 살으라고 그래가지구,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천원 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 한 칸에 뭐 부엌 어느 정도?

예. 그때는 연탄 아궁이에다가 그 부엌도 누구 말마따나 문도 없구, 그냥 한대지 부엌도. 그때

당시에, 하하하... 그러니까 방만 하나.

어르신은 여기 들어오시고 나서 오산으로 출퇴근하신 거예요.?

그렇죠. 출퇴근 헌 거죠. 여기서. 그때는 여기 여 길이 비 오면, 장마지면 길이 다 없어져갖고, 막 그랬어요. 하하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지금 마흔 저기, 딸내미가 마흔 셋인가 그런데, 걔가 울고 다녔던 게, 그때 당시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다닐 땐데...

여기서 갈 때, 저 앞에 버스 오는 데까지 걸어가야 겠네요?

그 애들은 걸어 다녔죠. 여기서 걸어 다녔어요. 다.

그럼 차는 어디서 탔어요?

차는, 그때 당시에 여기 앞에까지는 마을 버스만 다녔어. 딴 버스도 안 다니고. 마을버스 저 88이라고 지금 다니는 거. 그것만 왔다 갔다 했어. 학교까지.

동네까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저 밑에까지만 들어왔어.

저 밑에 저기....?

예. LG, 거기.

그 도로는 언제 포장된 거예요.

지금 그것도 길이 넓어진, 전에는 확실히 내가, 70 몇 년도까지는 마차길로 해서 비포장이었어요. 그 길이, 저 성은리까지 가는 길이, 다.... 비포장이었고. 그때 당시는 뭐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그냥 농로길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LG 들어오면서 길이 넓어지고 이렇게 인자 막 저거 헌 거지.

그럼 이 동네 들어온 길은 언제 포장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됐다니까. 우리가 이건 다 허다시피 했다니까.

아, 마을에서요? 저 고속도로 밑에서 여기까지요?

아니. 저수지 밑에까지는 거기 인제 시에서 헌거고, 그것도 인제 사람이 못 다니구, 우리가 그냥 나라시 허고 다녔다니까. 길이 다 끊어지고 막 그랬을 때.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저수지 밑에도 포장이 안 됐었나요?

예. 안 됐었죠. 그래가지구 그냥 뭐 빠져가지구, 장화 신고도 못 다닐 정도로 빠지고 다녔는데.

그럼 그 길은 시에서 포장을 언제쯤 했나요?

글쎄. 그게 기억이 그래요. 그런 거, 내가 뭐 저기 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고...

들어오시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10년이라도, 한 5~6년 뒤에 했나요?

그렇죠. 한 5~6년, 그러니까 한, 지금 길이 된 게 한 20년 됐을까 말까 할껄. 그러니까 여기. 그 전에 한 5~6년은 그냥, 비포장으로 그냥 빠져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구.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나서 5~6년 후에 포장됐겠네요?

나도 차도 여기까지 못 끌고 오고, 거기다 대고서 걸어 들어오고.

아 길이 이제 비 모면 막 파여버리니까요?

예. 못 다니고. 차도 갠신히 한 대도, 갠신이 들어올 정도도 안 됐으니까 첨에는.

그러니까 넓이도 좁은 데다가, 그냥 길 파이고 그러니까?

예. 지금은 가에 그래도 공구리 쳐가지고, 길이 제대로 해놨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고 그냥 비만 많이 오면 논으로 터져가지고. 논도 깊었었거든. 옛날에는. 깊어가지고 글로 다 터져가지고 들어가 버리구.

그러면 지금, 논 현재 높이는 옛날보다 흙을 좀 돋은 건가요?

한 2m 돋군 거죠. 지금, 지금 현재는.

그럼 옛날에는 완전히 골짜기처럼 돼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길에서 한 1m는 밑으로 들어갔었죠.

그니까 그 길도 원래는 좁았는데 좀 넓히고?

그거 이제 논주들한테 좀 저기 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희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희사해가지고. 그니까 완전히 나라에다 희사한 게 아니구, 길 임시로 인자 그렇게 헌 건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체로 은퇴하시고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시내에서 이렇게...?

아니 지금두 다 시내에서, 뭐야 저쪽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구. 저그(옆집)는 가서 인저 뭐야, 거기서 사업을 허고, 이 친구(앞집)도 바깥에 나가 가게 허면서 지금 저길 허고.

어르신도 회사 다니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예. 나도 얼마 전까지 일했는데, 지금 한 2~3년 또 쉬는 거야. 지금 한 2년째 쉬는거야.

옛날에 출퇴근할 때 오산까지는 승용차로 다니셨어요?

그렇죠. 승용차 아니면은 인자 화물차 가지고 있을 때는 화물차, 버스 가질 때는 버스 여까지 끌고와서, 버스 대놓고.

지금은 마을까지 차가 들어오나요?

마을버스는 안 들어오구, 우리 차, 인제 승용차만 들어오는 거죠. 승용차들, 내 차 가진 사람들 가지고 다 인자. 요새는 웬만하면 다 차 있으니까. 차 끌고 다니니까.

그러면 여기 아이들은 등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뭐 평택시에서 평일 날은 택시를 천원 주면 여기까지 들어와서 타고 나간다는데, 이것도 오산으로는 안 되고 진위면 쪽으로, 인자 진위역까지는 그 택시를 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하하하... 택시가 인자 여기 저수지까지 와서 진위역까지 가든지, 송탄까지 가는 거는 되는데, 이쪽 오산 쪽으로 가는 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평택시쪽 택시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오산 쪽으로 많이 다닐 거 아녜요?

그렇죠. 오산 쪽으로 많이 다니죠.

평택으로 다닐 일은 별로....

별로 없죠. 인제 진위면이나 갈 때나 이제 뭐 저기 허지, 평택에는 별로 가는 일이 없지 뭐. 오산에서 다 하니까.

시장 가고 이런 것도 다 오산쪽으로 가고요?

예. 오산장에 가서 다 봐오는 거지. 마트도 오산 쪽에 가서 보고. 여기서 평택으로 갈라면 진위면 지나던지 송탄까지 가야 되니까. 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산이 제일 가깝고.

마을분들 모여가지고 대동회 같은 거는 해요?

예. 해요. 여기도 허고, 이 넘에도 허고. 옛날에는 넘어가서 했는데, 우리는 인자 고현동으로 인자 우리 마을만 해가지고, 우리 고현동으로 인자 저기 허고. 저 너머는 동천리, 동천2리로 그렇게.

옛날에는 동천2리로 모였어요?

예. 모였었어요. 여기는 인원이 얼마 안 돼가지구. 그랬는데 지금은 인자 여 고현동으로 해가지구 우리끼리 인자 여기, 이 동네만 다시.

그럼 이렇게 따로 모이게 된 거는 얼마나 돼요?

지금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3~4년 됐나? 4~5년 됐나?

근데 마을회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능력이 안 되잖아. 조그만 동네 누가, 시에서 저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땅을 구입 허는 것도 안 되고.

그럼 어디서 모여요?

그냥 가정집에서들 모여가지고. 저희 집에서 여기서도 모이다가, 이장네 집에서도 모이다가, 여 또 왜 반장이라고 계시는데, 모상호 씨라고. 그 반장네 집 가서도 모이고. 그니까 동네 여기저기 왔다 허는... 하하하...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대체로 연세 많으신 분들인가요? 어르신 또래 전후로?

저기 모씨 형제분들은 나보다 좀 더 많고, 저 건너도, 컨테이너에도 한... 근 80 다 돼가는 양반. 여기도 한 80 넘은 양반도 계시고. 저 위에도 한 80 다 되는 분, 70세 대여섯 되는 분.

그럼 대체로 한 70대에서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50~60대도 별로 없나 봐요?

50대 한 댓 명 되죠. 60대 정도.

전태상(남, 1944년생, 고현리)

일시	2022년 8월 21일	
장소	전태상씨 자택	
구술자	전태상씨는 고현1리에서 태어나 청호2리에서 살다가 마을이 오산으로 통합되면서 고향인 진위면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고현리로 들어왔다. 기억력이 좋아 고현리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의 사정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윤한택	

고현리가 원래 천안 전씨 집성촌이었나요?

고현리가 그렇지.

지금 여기는 마을이, 위에는 25년 전에 형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쪽에. 저수지 뒤쪽으로는?

25년? 25년... 25년이면 몇 년 전인가?

한 90년대 95~6년도 무렵이죠.

내가 이거 우리 집에 이게, 내 집 지은 지가 한 22년 됐걸랑.

그럼 그전에는 고현리 다른 동네에 사셨었어요?

여기 인제 고현리가 경부고속도로 걸루 기점으로 해서 그 좌측, 좌측에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부락이 고현리하고 같은 부락이었었잖아. 그게 95년도에 인제 오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떨어져 나왔었지. 그래서 인제 그 저쪽은 오산시 고현동이고 여기는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 있다가 90 몇 년도에, 95년돈가 94년도에 오산으로 일부 편입이 되면서 이 고현리가 인제 따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요게. 그래서 그때 그 호수가 몇 호 안 돼가지고, 평택시에서 행정하기가 곤란하니까, 동천2리 사후동에다 같이 편입을 시킨 거야.

여기를요?

예. 고현리를. 편입을 시키면서 그 고현리 이름은 놔두고 뭐 이장도 없고, 뭐 그냥 반장 하나 세워놓고 그냥 행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민원을 인제 그 제기했어요. 고현리로. 고현리 이름이 살아있으니, 고현리를 편입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90 몇 년돈가 그 후에 그 도로명 주소가, 이게 발탁이 됐었잖아요.

예. 도로명 주소 실시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을 동천길 350번지로 해놨더라고요. 우리 집을. 그래서 내가, 그때 난 인제 저

쪽에 갔던 게, 이장도 아닌데, 나는 너무 이게 아닌 거야. 나는 고현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산에도 갔다가도 내가 어려, 맨첨에는 여기 후미실에, 청호2리라고 거기 살았었어요. 근데 오산으로 갔다고. 그래서 나는 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호적까지 다시 다 옮기고서 일루 이사를 온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럼 여기 고현리에서 몇 대 사셨어요? 몇 대째 사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들부터 인제 살은 거지. 고연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58대손이니까 뭐 역사적으로 대개 여기 내 족보들이 있는데 올해 여기서 기거했던 거예요.

윤한택: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원자 석자 쓰시는 거 아닙니까?

원자 석자. 원석씨. 그래... 원석씨가 우리 할아버지여.

이 고현리가 천안 전씨가 대성이고, 다른 대성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고현리가 이렇게 오산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었죠?

고현 1,2리가 있었어.

1리하고 2리가 있었는데... 1리는 몇 가구나 살았었어요?

그게 고현1리가 다해서 한 40, 40 몇 가구 살았지.

95년도 통합되기 전에요? 오산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요?

예. 인제 뭐 김씨네, 한씨네 이렇게 살고, 우리 전씨가 인제 집성촌이었지.

그다음에 2리는 몇 가구 정도 됐어요?

2리는 한 25가구? 우촌말이라고. 거기가 우촌말이라고 그랬어. 옛날에.

1전씨들은 주로 1리에서 살았나요?

1리에 많이 살았지.

고현리가 오산으로 왜 편입되었다든가 이런 거, 편입 과정은 어떻게 알고계세요?

응. 그거는 옛날부터 여기가 인제 그 생활권이 오산이다, 그러니까 나는 데모하는데 안 갔고, 인제 갈곶리, 청호1·2리 인제 그렇게지... 그렇게 인제 얘들이 '생활권이 오산이니까 오산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그 평택군 할 적에 가서 데모를 해는 거니까. 그 데모 하니까 맨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이 이자헌씨가 3선인가 이렇게 평택에서 하고, 또 김선기씨가 인제 그때 인제 그 시장, 아 군수 했었고, 마산리에 저기 우제항씨가 경찰서장 했었어요. 그리고 진위면장이 그때 누군가, 하여튼 뭐 고때 진위면에 그 관공서 큰 우두머리들은 전부 다가 진위면 일대에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니까, 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 그래! 니들 가고 싶으면 가

라.’ 그래서 밤에 인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 김선기씨 갈곶초등학교 자기 그 1회가 2회 졸업생이잖아요. ‘이걸 오산으로 보내주면 내가 후에도 모교를 오산으로 팔아 먹었다.’는 스타일을 받으니까 고거 빼고, 영진약품 빼고, 엘지전자 빼놓고. 이거 다 빼놓고 도면을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서 일부 오산으로 편입을 시켜준 거야 그때. 그때 오산에 그 이 사람들이, 가져갈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초선이었었어.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주는 대로 가져간 거지 오산은. 근데 오산으로 가져갔는데도 공동묘지를, 시 공동묘지를, 인제 그 옛날에 인제 사람이 이렇게 작고하시면 산들이 없고 화장 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시에서 산을, 큰 산을 뭐 한 몇천 평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 청호1·2리, 갈곶1·2리, 고현1·2리, 이렇게 산을 인제 그 부락으로, 저기 그 땅을 등기를 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 이름으로 땅을 등기를 내가지고, 거기다 갖다 무조건 산소를 써라.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산을, 그 한 만평 정도를 이게 넘어가면서 오산으로 다 줘버린 거잖아.

이장님 말씀 들으면 이쪽 사람들은 원래부터 오산으로 편입되기를 원했던 거네요?

그렇지요. ‘생활권이 오산이다.’ 그러고. 여기서 인제 면사무소는 가꺼운데, 평택을 내려가면 요게 평택이 여기서 40리면은 16km잖아요. 그 인제 ‘가기가 인제 불편하다. 뭐 하다.’ 그래도 나는 여기로 호적이 넘어갔다, 근거 자료가 남아 있어. 오산으로 갔다가도 내 호적을 다 파다 다시 일로 옮긴 사람이야. 일로 이사를 오면서.

애착심이 대단하시네요.

어. 그래고 인제 뭐 별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서역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코레일이 지하로 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도면 보면 딱 나오는데. 그래다 보니까 지하수를 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우리 부락 사람들이 먹었던 건데.

상수도 안 들어왔고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이, 한 80m 이상에다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니까, 물이 고갈이 돼서 안 나오는 거요.

지하수가요?

응. 그래서 내가 부락민하고 인제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인제 내가 이장을 볼 젠데,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 저기 저 충청도 그 뭐야 그 저기 가서 이거 작성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돈을 받든지, 니네들이 상수를 놔주던지 하자.’ 그 시에다가 인제 우리가 했더니, 돈이 3억 2천 밲에 없다는 거요. 3억 2천. 그 공사비가 얼마냐면 6억 4천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내가 인저 세종시에다가 내가 탄원서를 지금, 그때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갈 임새야. 그 우편으로 한번 등기를 보냈더니 반응이 없는 거여. 그래서 다시 인제 전화를 해봤더니, 이 새끼들이 저 경비실에서 이 서류를 제 관서를 보내지 못한 거야. 그래 내가 난리 친 거 아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보따리를 싸들고 세종시 갔었어요. 가가지고 다 돼가지고, 내가 한 달 만에 여기 조사 나오게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이 코레일이, 코레일에서 내가 3억 2천을 우리 부락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시청을 준 사람이야. 그래서 6억 4천을 가지고, 상수도

가 어디 들어왔냐면, 엘지전자 정문 앞에까지 왔었잖아요. 오산 물은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 허울 봐서 이게 고속도로 터널을 기리 하나도 못 박게 하고, 파지도 못하게 해서, 이 좌측에 그 수로 터널 복판위로 보온관을 해가지고 요 수도를 우리 부락에 놔준 거예요 이거. 내가, 솔직히 내가, 딴 사람들은 철탑하고 코레일하고 이런 거를 뭐야 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민원 넣어도 못 한다는 거여. 딴 사람이 못하거나 마나 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왔어.

조만간에 도시가스도 들어올 것 같네요.

아 그래서 내가 인제 지금 계속 해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인제 뭐 국회의원, 뭐 시의원, 뭐 이렇게 죄 있는데, 내가 턱 까놓고 전부 다 얘기를 다 했어요. 요때 이런이런 일도 있었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래 했다고 해서. 도시가스만 들어놓고 내 나이가 벌써 한 80 얼추 돼가니까. 44년생이니까 1년만 있으면 80이잖아요. 그런데 부락민들이 도시가스부터, 이 도로 이거부터 여기 그 물이, 저 고현 저수지 여기 보이지만, 고현 저수지 이거 하나 가지고, 고속도로, 그 경부고속도로 요 밑창에 그거하고 저수지, 조그만 저수지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해에. 그래 내가 한 3년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내가 받아내가지고 대관정 삼천만 원씩 두 굴을 파서 물이 하루에 150톤씩 쏟어지게 내가 만들어줬잖아요.

저수지로 안 되니까?

저수지로 아주 모자라니까. 인제 그 물 해결은 거의 해결했어. 그래 암만 가물어도 인제 이거 퍼내고 저수지 물 좀 아껴 쓰고 그래니깐 그렇게 인제 돼서 인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인제 내가 일을 그만 보겠다고 자꾸만 그래도 부락민들이 안 된다고, 하시는 김에 좀 해달라고 자꾸만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저수지는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6.25 때, 일본 놈들한테 압제 받을 적에, 그 당시에 지게로다가 양쪽 산을 지게로 파다 메운 거여. 이거 오래된 거지. 일본 제정 때라고 봐야지.

일제 시대요?

그렇게 되는 거여. 지게로, 지게로 바소를 달아서 지게로, 삽질해서 올려서 퍼서 저수지 뚝을 막은 거니까 오래된 거지.

그럼 저수지 전에는 여기 물을 어떻게 댔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아이 그러니깐, 이게 뭐 물이 없으니깐, 비가 오면 그냥 이렇게 해고...옛날에 인제 이게, 논에 구탱이 인제 듬봉이라고 그러죠. 우물 조끄맣게 있는 거. 그거 퍼서 인제 비 안 오면 인제 푸고, 우물 앞에 좀 심구, 자꾸만 조금 신구 막 그런 식으로 인제 이게 심었던 거야. 이거 다가. 그리고 인제 여기가 골짜기니까 인제 습지논이야. 전부 다 빠져. 막 소도 막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흙들을 많이 돋워가지고, 높아가지고 인제 빠지는 건 없는데...

옛날에도 이 고현저수지 가지고 물 대기는 좀, 다 대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힘들었죠.

인제 물 안 나오면 그 샘에서...

그런데 조금 이렇게 푸는 거. 이게 둘이 마주서서 이렇게 푸는 두레박질하는 거 있잖아. 그거로다 해서 우물 앞에만 심고, 그냥, 호미로다가 그냥 마른 땅에다 모 심어놓고 그거 먹을 때 기다리고. 비 오면 먹구, 못 먹구.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여기 노인네들이 불쌍한 거지.

그때는 한 마지기 얼마나 나왔어요?

우습지 뭐 비료, 쌀이나 마나 그 뭐 우습지 뭐. 비료가 이렇게 뭐 지금마냥 많어 뭐. 산에 가서 갈잎, 떡갈비 뜯어다가 넣어서 그게 퇴비라고 하고. 소 먹이는 사람은 소 퇴비 그거 해서 좀 갖다, 지게로 져다 부어서, 그거 해고. 비료가 뭐 별 수 있었나 그전에.

그때는 또 논매기도 많이 했죠?

아 그거 전부 다 논이루 매구. 논을 한 번 매고, 두 번 매고, 세 번까지 매고, 그래도 시원찮으니까 흙탕물을 지어준다 그래가지구 손이로다 또 젓구 댕겼잖아. 네 번 했어. 네 번.

마지막에는 흙탕물을...?

저어줘야 잘 된다고. 그래서 네 번씩 했다고. 네 번씩. 애벌 매고, 두벌 매고, 세벌 매고, 벼에 인제 저 한 초복, 이게 초복, 중복, 말복 때 벼가 한 마디씩 올라오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인제 말복 시기가 얼마, 한 열흘 앞두고 사람을 그냥 막 얻어가지고 막 흙탕물을 지어주고 댕기는 거여. 맨손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때 인제 논매기 하면서 두레 같은 건 안 했어요?

했죠. 선소리두 두고, 북 치구. 한 사람은 아주 그거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두레는 언제까지 했었어요

아... 꽤 오래됐죠. 한 지가 오래됐지. 두레 놀고 또 나와서 술 먹고 뭐 이거 뭐 선소리 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이뭉술씨라고, 상여 나가면 선소리 주구. 그 양반은 뽑혀 댕겼던 양반인데... 아 이분은 뽑혀 댕겼어. 이 근방에서 그 양반 댁에다 다 선소리, 상여나, 그전에 전부 상여잖아? 상여 나가면 선소리두 잘 두고, 그 선소리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을 매장해놓고 또 인제 회방아 다질 때 선소리를 주잖아요. 아주 이 양반은 아주 그냥, 원래 또 유식하고 그래서 이뭉술씨라고 그 고현리 여기, 이 청호1·2리, 이건 다, 그분이 다... 그분은 일을 가도 일 안 하잖아요. 이거 논매기 할 적에 그냥 논두렁에 서서 그냥 선소리 내주고. 하하하...

그래도 품싹은 받을 거 아니에요?

품삯이이 아니고. 돈이 어디 있어 품삯을 받아. 품앗이여. 내가 가서, 사장님네 가서 일 하루 해주면 그분이 와서 하루 해주면 그걸로 끝나. 돈이 어디 있어서 품삯을 받아요 옛날에.

그러면 이분은 가서 선소리 해 주고, 그럼 선소리 해 주는 게 일종의 품앗이....

그렇지. 똑같은 거요... 그분네 일해면 가서 뭐 해주고, 또 그분이 인저 농사가 최근에 짓다가 없으면, 옛날에 담배, 풍년초잖아요. 그 말아먹는 담배. 그거 그냥 한 봉 사다주면 땡이여 옛날엔 뭐. 하하. 아 그전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전병석씨인데, 우리 아버지가 죄송한 얘긴데 일본어, 중국어 이거에 그냥 융통하신 분이여. 뭐 우리 초상집이 있는 데 가서두 딴 사람이 '무슨 이씨요.' 그러면 축같은건 그냥, 우리 아버지는 외워버리시는 분이잖아. 그 인제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전부 다 이게 한글로 안 쓰고 한문으로 편지가 왔잖아. 그래 내가 인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 동네 여기 동천, 저기 청호1·2리, 고현1·2리 이 사람들이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가져오는 거여. 왜 그러냐면 그거 읽어 달라고.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식해셨는데...

여기 국민학교는 어디로 다니셨어요?

진위. 진위 47회인데. 내가 인제 진위서 47회 졸업 맞고, 그 후임자가, 이 바로 인제 그 48회 졸업생들이 갈곶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야. 48의 졸업생이 갈곶초등학교 1회. 거기서 다니다가 여기 와서 1년 있다 졸업 맡은 애들이지.

그러니까 48회에는 5년 동안은 진위국민학교를 다니고...?

응. 1년은 갈곶초교. 그때 인제 이게 큰 거니까. 갈곶초등학교가. 분교가 생긴거여. 또 인제 거기 진위 거기서는... 또 이 갈곶초등학교보다 분교가 산디초등학교가 있었어. 은산리에. 거기가 먼저, 갈곶초등학교보다. 근데 인저 여기는 자꾸만 주위가 번성하니까, 학교가 조그맣었는데, 자꾸만 증축을 해서 지금 학교가, 단층이었었잖아요 옛날에는 갈곶초등학교가. 지금 몇 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산디초등학교는 폐쇄했다가 최근에 그거 좀 살려졌나 봐.

윤한택: 그때가 초등학교 졸업하실 때... 그때가 인제 6.25가 터지고 그랬을 텐데요.

아이 여기서 일곱 살 때도 내가 건강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요 농사가 많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반공 구뎅이요, 땅을 깊이 파구서 볏짚을, 뭐 딴 거 뭐 있어 옛날에, 볏짚을 바싹 말린 걸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마니잖아. 그 쌀을 가마니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집성촌에 살으니까, 다른 사람들 별로 땅이 없구 쌀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방공 구뎅이에다 가마니에다가 쌀을 담아서 그냥 방공구덩에다 한 40가마를 집어 넣구, 피난을 안 가시는 거여. '그걸 지켜야 너들 멕여 살린다.' 고. 그리고선 저 어려선 나를 업고 걸리구 해서 여기 용인, 거기 어디냐? 남사 쪽에 그 각궁말이래는 데가 있어. 각궁말에 가서 피신을 해구 오니깐, 우리 아버지는 그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여. 쌀을.

방공호 안에 들어가 계신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그냥 계신 거여. 그냥 막 일본놈이 와서 죄 쑤셔갖구 죄 그냥 하는데두 우리 아

버지는 꼼짝도 한 해고 거기서 계셨대는 거 아녀.

인민군들한테 방공호를 안 들켰나 보죠?
안 들켰죠.

방공호를 어디다 팠어요?
그 집 뒤에. 보이지 않게. 그래가서는 안 들키고서 인제 또 우리 아버지가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글도 유식해구 머리가 좋으니깐, 뭐 들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갔다. 오니깐 딴 집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폭격을 맞고 뭐 하는데, 그래도 집안네가 말이 살으니까 죄 오라고 해서 또 노놔주는 거여. 인제 그 쌀을 먹구, 폭격 맞고 뭐 집 부셔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전에 집이 그 큰 집 아녀 그게. 오막살인데 노인네가 그렇게 그냥 되게. 웬만한 사람은 그냥 등치가 좋으셔 가지구, 웬만한 사람은 그냥 그 전부 다 패대기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깨 겁이 나서 대들지도 못했던 거야 노인네들. 우리 할아버지두 그렇고.

6.25가 났을 때 6.25가 났다는 건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기억나세요?
그 7살이니까 뭐 그냥 피난 간 건만 아는 거야. 뭐 가는 데 막 그냥 우마차에다 소 끌구 그냥 뭐 이거 이사짐 싣구, 먹을 것 싣구 그냥 떠나는 거, 이런 거 보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간 거지 뭐. 차가 있어 뭐 있어. 우마차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가까운 데로 가셨어요?
아니 멀리 갈 수나 있어? 차가 있어 뭐 있어. 그래 거기만 가도, 거기 또 여기 우리 저 아저씨의 따님이 거기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내가 못살, 우리 아버지가 못 살으면 우리를 반갑게 안대해줘. 그러니까 인제 아유 전병석씨 마나님하고 아들이니깬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인제 가서, 그러니까 맨날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인제 이렇게 오다가다 만나서 얘기하면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그 사람들 못 살으니까 그냥 그럼 오라고 해서 쌀 또 그냥 몇 가마씩 주고.

그럼 거기서 얼마나 있다가 오셨어요?
거기서 한 3개월 있었나, 3개월... 3개월 되니까 뭐 이렇게 조금 뜸한다고, 우리 아버님이 저기 그냥 한복 입고 그냥 이렇게 배낭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얀 거 이렇게 십자로 걸머지고 오셨더라구. 가자고. 좀 전쟁이 뜸해니깨 가자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 따라 돌어온 거지.

진위국민학교 다니시고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진위! 진위중고등학교. 저 하북에 있는 거. 저기 매일유업 옆에.

그때 동기분 중에서는 중학교 몇 명이나 갔어요?
간 사람이 없어.

12명 중에 12명이 다 못 갔어요?

12명 중에 여자들 혜영이 하나하고 송자 하나하고, 두 명은 여자들 가고 나머지는 간 애들이 없어.

오히려 남자가 2명 가고 아무도 못 갔을 것 같은데, 여자가 2명 가고. 그 집은 인제 좀 잘 살았나요?

아니 인제 혜영이래는 애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고, 혜영이하고 혜란이를 그 할머니가 키웠는데, 걔네들은 인저 할머니가 옛날 그 푸닥거리 만신이었었잖아. 만신. 그러니깐 요리조리 해서 돈을 잘 벌구 먹을 게 넉넉하니까, 얘들은 보냈는데 딴 애들은 간 애들이 없어.

그 여학생 두 명만.

응. 송자하고 혜영이만 중학교까지 가구...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서울에 취업 가고 이런 것보다는 집안일, 농사일을 하는 거죠? 그니까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 엄청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뭐, 지금 돈 100만원에 팔으라구 하면 안 팔지. 절대농지두.

절대 농지요?

응. 일로 올라오면서 요... 이게 네모 반듯반듯 하잖아요. 이게 야막리나 봉남리나 그 일대는 농지 정리라고 하고, 이거는 수반정리 한 거야. 수반.

수반 정리요?

응. 이건 수반 정리한 거야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요?

그렇죠. 수반정리라는 건 뭐냐면, 저런데 야막리나 이런 데는 농지정리야. 그러니깬 한 구간이 1,200평, 2400평. 이게 딱딱 끊는 데는 농지정리라고 하고, 이 수반정리는 뭘 뜻하느냐면 논두렁만 펴가지고 평수가 일정치가 않아. 그걸 가지고 수반정리라고 하는 거야... 이 용어를 모르셨다고요? 에 하하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기 형태만 맞추는 거고, 평수는 그냥 생긴 대로 해서...?

그렇지. 기장도 마찬가지고. 야막리 그런데는 농지정리야. 정확히 농지정리고 그거는. 요거는 수반정리야.

그러면 수반정리는 이 고속도로 이쪽으로만 된 건가요? 고현리 쪽으로?

아니. 오산시 고현동... 저쪽에 청호동 앞에도 일대가 다 수반 정리가 됐던 거야. 같이. 그런데

절로(오산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다 지금은 수반 정리한 거야. 이 동천리, 여기 지방도로 넘어가서, 이 엘지 너머, 지금 이쪽에는 경부고속도로고 이거 지방도로,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다 수반정리한 거야. 그때 같이 핸 거야.

그 경지정리할 때는 감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반정리할 때 감보율 같은 거는 없어요?
없었어.

옛날에 연료는 나무를 주로 땠겠어요?
나무지. 연료는 나무.

주로 나뭇가지 같은 걸 했나요? 아니면 낙엽 같은 걸 했나요?
최근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하기 전엔 진달래 뿌락지, 잔디 뿌락지까지 말려서 캐다 땠어.

진달래 뿌리...
진달래 뿌락지, 고자백이라고 갈잎 뿌락지. 그 화장깽이 갖고 해서 그거 죄다 캐다 말려서 땠어.

지푸라기 같은 경우도 혹시 때고 그랬었어요? 가을걷이 끝나면?
가을에 지푸라기나마나 옛날에 비료가 있어 뭐 있어. 벼가 뭐 얼마 됐어? 겨우 지붕 해놓으면 짚이 없었어.

연탄은 언제 들어왔어요?
연탄.... 연탄 들어온 제가 한 40년 넘었지. 40년.

전기는요?
전기 들어온 거는 여기가, 여기 이십년, 내가 집진 제가 22년 됐는데, 22년, 그 한 20 한 5년 됐겠지. 전기 들어온 제, 여기 들어온 제.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여기 늦게 들어왔지. 내가 집 짓구 들어온 거니까. 이 여기는 이쪽에서 못 들어오구 저 용인 봉명선이잖아요. 봉명리 쪽에서. 늦게 들어왔죠.

고속도로 이쪽만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동쪽만?
그렇지. 저쪽에는, 그 청호1리는 6·25 전에 들어오고. 청호1리는. 나머지는 그 또 후에 들어온 거여. 여기 청호2리, 여기 고현리, 저 고현2리는 그 후에, 한참 후에 들어왔지. 일본 제점 때 들어온 거는 청호1리만 들어왔어. 최고 먼저 들어온 거야. 그래 맨날 부러워서 그런 거 아녀.

여기서 장은 어디로 다녔어요?
장 보러 오산이지 뭐 오산.

오산장은 여기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가면 인제 도보러 간다구 그래도 뭐 한 시간 안이면 가지 않아요?... 그 전에 걸어다니면. 지금은...

여기서 청호리로 해가지고요?

청호리 여기 저 고현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 길 따라, 옛날 그 길 남은 거예요. 그대루.

고현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원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응.

대략적으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오산이 2km야.

오산장까지요?

역전을 말하는 건데, 이게 한 3km 되겠지. 여기서 기준을 잡으면 역으로 기준을 하잖아. 오산역에서 평택까지 하면 16km 뭐 이렇게.

이 농지들(고현 저수지 아래 들판)은 어르신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논이었어요?

아 그렇죠. 계속 옛날부터 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할아버지 나이로 봐서 이게 타장마당이니까 뭐. 옛날부터 있는 논이여.

지금 여기는 전체 몇 가구 정도 살아요?

가구수로만 하면 한 20가구? 우리 고현리가 한 20가구 돼.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VI.

진위면 청호리 마을조사

김해규

여 백

Ⅵ. 청호리 마을조사

1. 역사 · 지리적 환경

청호리 전경

청호리는 평택시 진위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다. 엘지로를 경계로 오산시와 경계를 이루며, 310번 지방도(남부대로)를 경계로 오산시 고현동과 나뉜다. 동쪽으로는 무봉산과 달박산을 경계로 동천리와 구분되며, 남쪽으로는 가곡2리, 서쪽으로는 갈곶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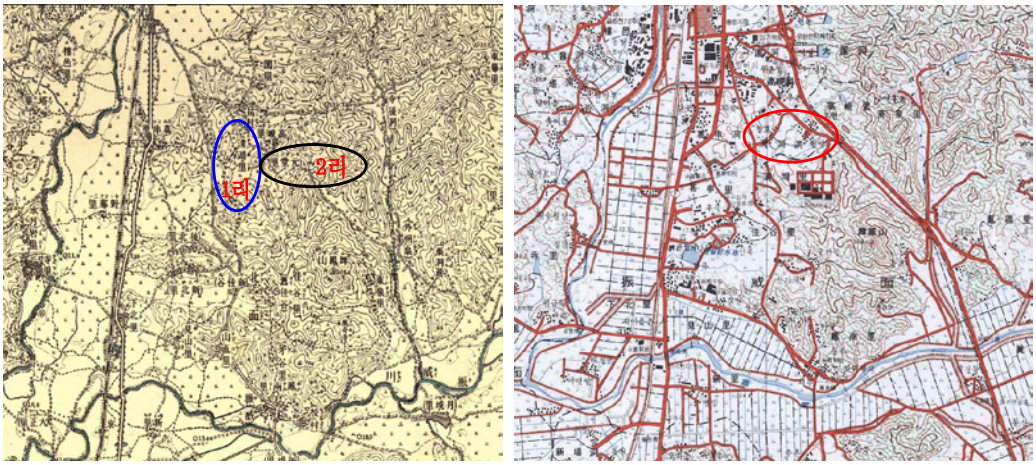
예로부터 청호리는 교통의 요지였다. 수원까지는 약 20km 내외였으며, 서울 경복궁까지 약 52km였다. 서쪽의 갈곶리-가곡리 방향으로는 삼남대로 이방원이 있었으며, 현재 오산시 원동의 역말에는 청호역이 있어 안성시 원곡면 가천역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청호역은 조선시대에 진위현에 속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원도호부에 속했다. 예컨대 16세기 초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진위현 편에는 언급되지 않고 수원도호부 편에만 수록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후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1794년에 편찬된『수원부 읍지』에도 “청호면, 부(府)에서 20리 떨어져 있으며” 라고 했으며, 또 “청호역, 부(府) 남쪽 25리에 있으며” 라고 하였다. 그런데 1831년 편찬된『화성지』에는 청호면에 속한 마을로 ‘갈곶리, 기문동, 당리, 원통리, 부산동, 수덕동, 천변동’ 을 언급하고 있어 과연 조선후기의 청호면에 현재의 청호리가 속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이 같은 의심을 해소해주는 문헌이 1791년 편찬된『호구총수』다.『호구총수』의 일북면 조에는 ‘갈곶리, 동천리, 신리와 함께 청호리’ 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봤을 때 조선시대 청호역(靑好驛)과 청호면은 수원도호부에 속했지만 청호리 마을은 진위현에 속했음을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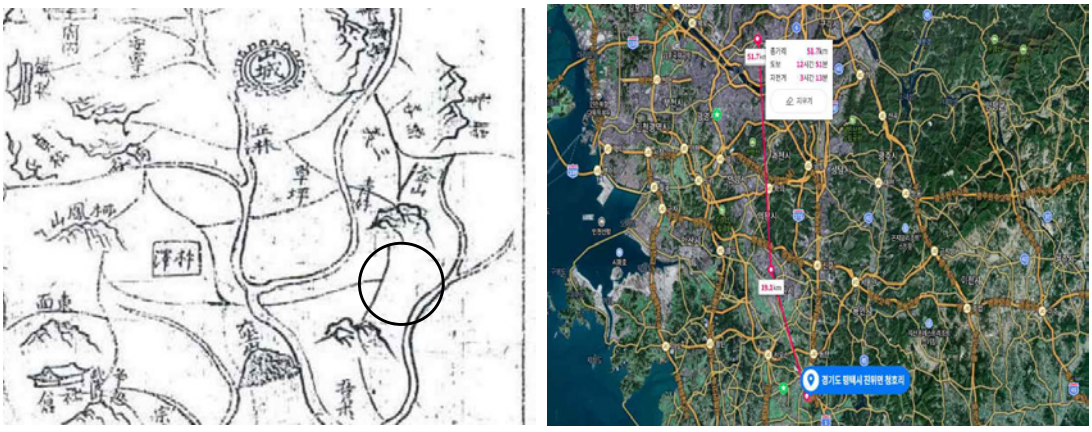
위의 내용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과 1911년경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조선지지자료』경기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도 일북면의 마을에 동천리, 월경리, 갈곶리, 우촌, 고현리와 함께 청호리가 나오고 있고,『조선지지자료』에도 진위군 일북면에 속한 마을로 동천동과 함께 고현리, 청호리, 갈곶리, 우촌이 언급되었다.

청호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청호리, 원당리, 고현리 일부를 통폐합하여 만들어졌다. 행정 리(里)로는 본래의 청호리가 1리가 되었고 원당리가 2리로 편재되었다.



1922년 지도 청호리 자연마을, 1987년 간행 2만 5천:1 지도의 청호리

청호리는 수원과 약 50리, 서울과는 120리쯤 떨어져 있다. 과거 진위현의 읍치(邑治)이며 진위면 소재지인 봉남리까지는 4km쯤 된다.



수원부 읍지(1794) '수원부 지도'의 청호면, 청호리에서 수원 및 서울까지 거리

근대 전후에는 생활권이 진위면 봉남리와 밀접했지만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수원군에 속했던 오산리가 발전하면서 2km 거리의 오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과거 청호리에 거주했던 전태상(남, 1944년생)은 자기 또래들까지는 걸어서 진위초등학교를 통학했지만 한 살 아래 후배들부터는 가까운 갈곶초등학교로 다녔고, 중·고등학교도 서울이나 수원으로 유학 가지 않으면 오산으로 진학한다고 말했다. 철도도 오산역을 이용하는 것이 가깝고 다른 교통수단도 오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다만 행정사무를 볼 때만 봉남리의 진위면사무소와 비전동의 평택시청으로 갈 뿐이었다.

2. 마을의 변화와 삶

1995년 4월 행정구역 조정 이전의 청호리는 1리, 2리 두 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었다. 1리는 원청호였고 2리는 원당(리)이었다. 원청호는 큰청이라고도 했으며, 원당은 작은청이로 불렀다. 호

(戶)는 1964년『평택군 통계연보』에는 74호(戶)라고 했다. 1975년에는 81호로 증가했으며, 1985년에는 LG전자 평택공장 등의 영향으로 117호로 증가했다. 1995년 4월 청호리의 대부분이 오산시에 편입될 때는 청호 1리 40호, 2리 37호 합 77호였다.

평택과 오산을 가르는 엘지로

오산시에 편입된 청호동 지역

마을이 폐동되고 공동택지로 개발되는 2008년의 오산시 청호동

인구는 1964년『평택군 통계연보』에 남자 222, 여자 215 합 437명이었다. 1975년에는 남자 236명, 여자 224명 합 460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10년 뒤인 1985년에는 남자 324명, 여자 244명 합 568명으로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1980년대부터 남초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1984년 LG전자 평택공장의 준공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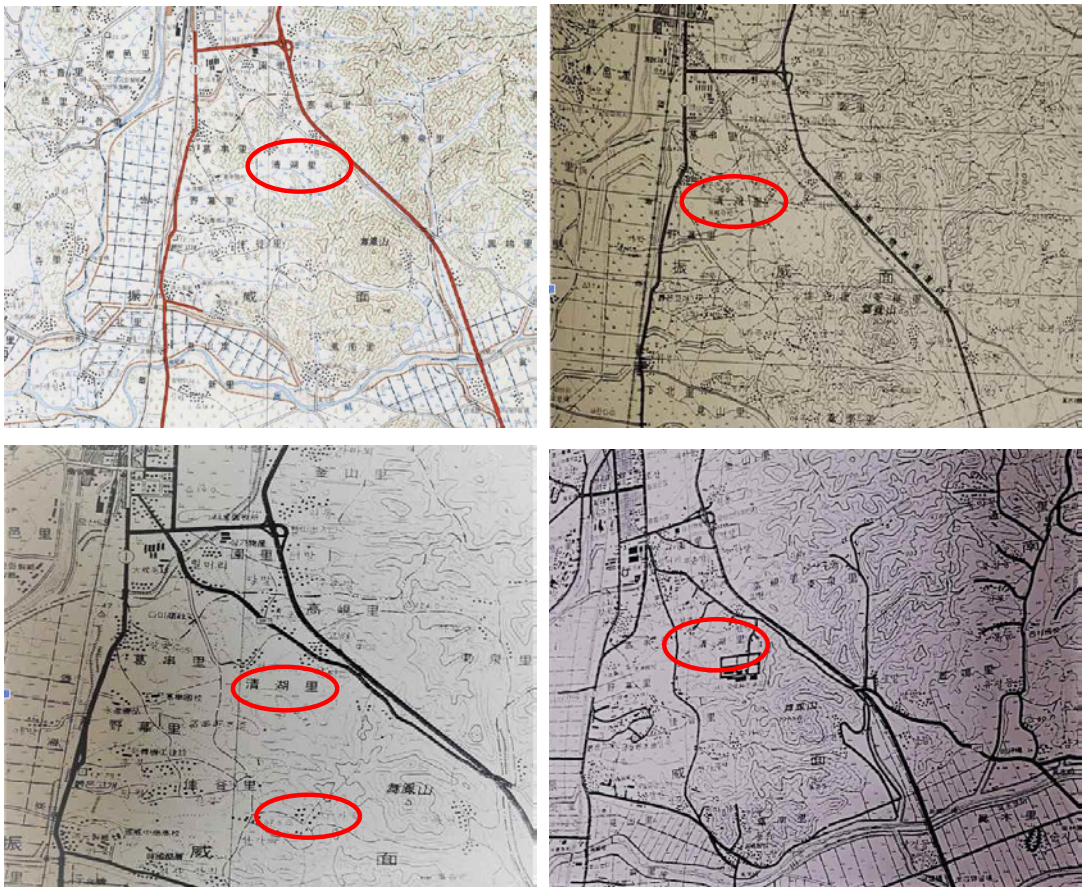
청호리는 19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1리, 2리가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청호리 주민들은 행정구역 조정 이전부터 오산시로의 편입을 희망했다. 평택시의 최북단 마을이어서 정치·행정·복지·문화적으로 소외받았고 생활권이 오산시와 밀접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청호리를 비롯해서 갈곶리, 고현리 주민들이 평택군청에 몰려가 군수와 국회의원, 경찰서장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가 1995년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어 그해 4월 20일 엘지로를 경계로 청호리 두 개 마을과 갈곶1리, 고현리 두 개 마을(일부 면적 제외)이 오산시에 편입되어 오산시 청호동과 갈곶동, 고현동이 되었다. 오산시에 편입된 청호리에는 1992년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이 전개되었다. 과거 청호1리에는 청호 LG아파트와 오산 자이아파트, 오산 청호 엘리시아 아파트다. 청호 2리에는 청호 휴먼시아 1단지와 오산 청호 LH 2단지가 입주했다. 옛 마을에 살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근처 고현2리 우촌말의 오산빌리지(1990년

1) 1990년대 초 평택군수는 김선기, 국회의원 이자헌, 평택경찰서장은 은산4리 출신의 우제항이었다.

입주) 등으로 이주했지만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 다만 천안 전씨 집성촌인 고현1리와 청호 1리 주민들은 '향우회' 를 조직하여 1년에 1회는 친목 모임을 갖고, 1회는 경로잔치를 열며, 상례(喪禮)에는 조문하며 서로 돕고 있다. 다음은 청호리에 건설된 공동주택이다.

표)청호리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명	입주 시기	세대 수	비고
청호 LG 아파트	1992년 4월	160세대	
오산 자이 아파트	2007년 8월	1,060세대	
오산 청호 엘리시아 아파트	2010년 3월	275세대	
오산 청호 휴먼시아 1단지	2011년 10월	1,275세대	
오산 청호 LH 2단지	2018년 2월	448세대	



지도로 보는 청호리 마을환경의 변화

1995년 4월 행정구역조정 과정에서 진위면에 남게 된 지역은 민가 5호(戶)와 LG전자 평택공장 뿐이다. 40년 전에 이주한 김명호 청호리 이장은 6호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토착민은 1호뿐이고 구마저도 집은 다른 곳에 두고 가게만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진위일반산업단지 내 빌라들이다. 빌라(다세대주택 포함)들은 거의 모두 회사 기숙사로 사용된다. 주민들의 직업도 97% 이상이 회사원이다. 2022년 6월 27일 현재 청호리의 세대 수는 432세대 인구는 443명이다. 이 가운데 남자는 358명인데 반해 여자는 85명에 불과하다. 세대 당 인구수가 1:1에 가깝다. 남

초현상이 극심한 것도 특별하다. 주민들의 거의 모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진위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더욱 증가하며 인구 이동도 빈번하다고 말한다. 또 실거주자가 없어 정체성이나 정주의식, 공동체성도 매우 약하다.

3. 지명유래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청호리	마을지명	청호리	평택시 진위면에 속한 행정 리(里)이다. 1995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청호1리, 2리는 오산시에 편입되고 LG디지털파크와 진위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부근의 빌라 및 다세대주택들만 남았다.
		청호1리	원청호, 큰청이라고도 불렀다. 1995년 4월 20일 행정구역조정으로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오산시 청호동 오산 자이아파트, 청호 LG아파트, 오산청호 엘리시아 아파트 터에 있었던 자연마을이었다.
		청호2리	자연지명으로는 원당(골) 또는 작은청이라고 불렀다. 1995년 4월 20일 행정구역조정으로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오산 청호 휴먼시아 1단지, 오산 청호 LH 2단지 터에 있었다.
	들판	고분달들	청호1리, 2리 사이에 형성된 들판으로 고분다리(굽은다리) 아래에 형성되어 유래되었다. 청호리의 주경작지였다.
		앞공실들	청호1리 앞의 들이다. 청호리의 경작지였다.
		똥꼴	삼남대로 변에 있었던 골짜기다. 옛날 안동에서 과거보러 갈 때 말타고 지났다고 전한다.
		사태	LG디지털파크 안에 있던 마을로 네 집이 살았는데 산사태로 모두 이주했다.
		백토고개	삼남대로 진위면 가곡리와 청호리 사이에 있던 고개다. LG디지털파크 지역이다.
		기나지고개	청호리와 고현리에서 동천리로 넘어가는 긴 고개. 지형이 게처럼 생겨서 ‘그이나지 고개’ 였는데 음이 변하여 지금처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2)]
		높은재	고현1리에서 청호리로 넘어가는 고개다.
		고분다리주막	현재 고현초등학교 건너편 고현리와 청호리 경계에 있었던 주막이다. 굽은 다리가 있었고 오산에서 양성으로 가는 310번 지방도 변의 가장 큰 주막이었다.
		청호점	조선 말기 청호리 앞에 있었던 주막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나온다.
		청호리저수지	조선말기 ‘청호제언’ 이라고 했다. 청호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LG디지털파크	진위일반산업단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장이다. 1981년 공사를 시작하여 1984년 완공되었다.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초기에는 금성사 평택공장이었지만 1995년 LG디지털 파크로 이름을 바꿨다.

4. 성씨 · 경제 · 문화

1) 성씨

청호리는 연일 정씨, 전주 이씨, 천안 전씨가 대성(大姓)이다. 연일 정씨는 포은 정몽주의 후손들이며, 전주 이씨는 효령대군파다. 천안 전씨는 청호2리에 많았다. 전태상(남, 1944년생, 청호2리 토박이)은 천안 전씨 후손이다. 천안 전씨는 고현1리와 청호 2리에 많은데, 본래 고현1리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분동(分洞)하면서 청호2리에도 수가 많아졌다고 한다.

천안 전씨는 충북 충주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로 이주했고 그 가운데 막내였던 전순영이 고현리로 이주하면서 세거가 시작되었다. 전순영은 고현1리 전윤상(남, 1935년생)의 위로 8대조다. 전윤상의 아들과 손자까지 포함하면 10대, 300년 가까이 거주한 셈이다. 입향 후 후손들이 문무과로 관직에 진출하여 양반 가문의 체통을 지켰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항렬을 중시하고 종중의 역할이 컸다.

2) 경제

청호리의 생업은 농업이었다. 1964년『평태군 통계연보』에도 전체 74호 가운데 62호가 농가(農家)였고 12호가 비농가(공무원, 상업 등)였다. 1975년에는 전체 81호 가운데 64호가 농가, 17호가 비농가였다. 그러다가 1985년에는 전체 117호 가운데 농가 60호 비농가 57호로 큰 변화를 보였다. 1985년에 비농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금성사 평택공장(현 LG디지털파크)이 준공되면서 회사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청호2리에 거주했던 전태상(남, 1944년생, 현 고현리 이장)은 1995년 4월 청호리의 자연마을이 오산시에 편입되고 곧 택지개발로 주민들이 흩어질 때 원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농업, 그 가운데서도 논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축산업은 이정호가 했고,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없었으며, 배 과수원은 전길상과 박덕규 두 사람이 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주민이 회사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진위일반산업단지 내 생산공장에서 일한다. 다음은 진위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이다.

2) 고현2리 이장 전태상(남, 1944년생, 전 청호2리 주민)의 주장이다.

청호1리에서는 당제나 산신제를 지내지 않았다. 어쩌면 존재했지만 오래전 중단되었을 수도 있다. 전태상(남, 1944년생)은 당제나 산신제가 없는 이유를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웃마을인 고현2리 우촌마을에 100여 년 전 우촌감리교회가 창립했는데 주민들 상당수가 교회에 출석했다. 청호2리에서는 정월에 정제(우물고사)를 지냈다. 우물고사는 ‘향나무 우물(커다란 향나무 4그루가 있는 우물)’에 지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형식과 절차는 기억하지 못했다.

여 백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VII.

진위면 갈곶리 마을조사

장연환

여 백

Ⅶ. 갈곶리 마을조사

1. 역사와 지리

갈곶1리 전경과 진위2산단로

갈곶2리 한일아파트와 엘지로

2014년『평택시사』의 지명유래에는 갈곶리를 ‘가룻이’라고 불렀으며 ‘옛날 오산천으로 바닷물이 유입될 때 곶(串)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1911년『조선지지자료』에 부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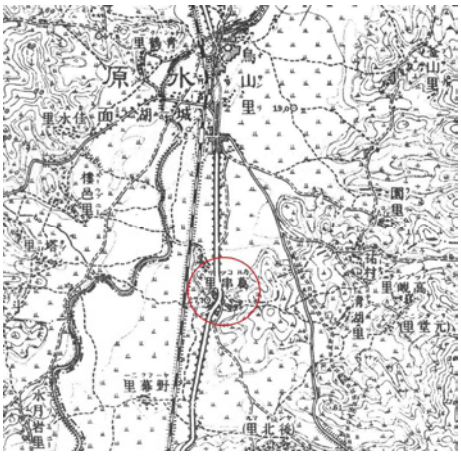
한글명이 ‘갈옷’으로 나오는데, 이를 소리나는대로 표기하면 ‘가롯’이 되니, ‘가롯’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릇’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자명의 ‘葛串’이라는 한자명에 주목하여 마을의 지형이 곶(串)의 형태이기 때문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그런데 ‘갈옷’과 ‘葛串’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겠다.

갈곶리는 청호리, 고현리와 더불어 진위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청호리, 남쪽으로 가곡리, 서쪽으로 야막리, 북쪽으로는 오산시 고현동을 접한다. 주민들은 각성바지이나 1910년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강씨, 김씨, 송씨, 공씨, 이씨, 최씨, 한씨로 각성바지 마을이지만, 1999년 편찬된『진위면지』에서는 성황당에서 입향조로 알려진 강좌상과 강좌상을 모시던 마부에게 제의를 바쳤다는 조사 내용이 있으니, 강씨가 입향조이거나 마을 개척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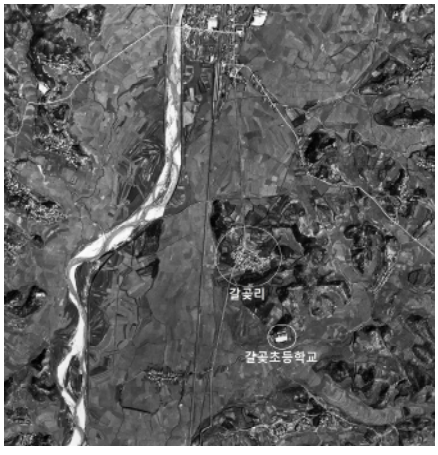
조선 영조 때 편찬된『여지도서』에 갈곶리는 동천리, 청호리, 가곡리, 후북리, 견산리와 함께 진위현 성북면(城北面)에 편성되어 처음으로 마을명이 등장한다. 호수(戶數)는 가곡리, 후북리와 같이 30호였으나, 인구는 가곡리와 더불어 가장 적은 72명이었다. 당시 견산리는 114호였고, 이웃한 청호리는 47호, 동천리는 36호가 있었다.

『여지도서』이후의 기록인 1794년의 『수원부읍지』에 청호면 갈곶리가 있으며, 1831년의『화성지』에도 기문동, 당리, 원통리, 부산동, 수덕동, 천변동과 더불어 갈곶리가 기록되었다. 그런데 1791년『호구총수』에 진위현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나누어졌고, 동천리, 신리, 청호리와 함께 갈곶리가 등장한다. 19세기에 편찬된 진위현 읍지도 마찬가지로 갈곶리를 성북면 또는 일북면에 포함시키고 있다. 1911년 편찬된『조선지지자료』에도 수원군 청호면 갈곶리와 진위군 일북면 갈곶리가 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원군 청호면 지역, 갈곶리 삼동 일부’가 진위군 북면 갈곶리로 편성되면서 갈곶리는 모두 지금의 평택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갈곶리 마을의 오랜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을에 제당이 있다는 것이다. 1999년에 편찬된『진위면지』에는 갈곶리의 성황당제가 상세하게 조사되어 기록되었다. 조사하기 3년 전에 낡을 성황당을 헐고 새로 신축하여 ‘성황당(城隍堂)’이라는 현판까지 달았다. 제는 음력 10월 1일 밤 11시경에 지내는데, 마을주민 40여명 정도가 참석한다. 제의 순서는 다른 마을들처럼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무사를 기원하지만, 마지막 소지를 올릴 때는 마을에 입주한 기업체의 번성까지 기원하였다.



1922년 지도의 갈곶리와 주변 교통로



1967년 갈곶리와 주변 교통로

조선시대 갈곶리와 동쪽 청호리 사이로 삼남대로가 지나고 오산과의 거리도 가까워서 교통상 불편은 없었만, 1910년대 후반 지금의 국도 1호선인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갈곶리의 교통은 여건은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 신작로는 이 마을과 오산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트럭 같은 근대 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게다가 1905년 경부선 철도 개설에 따른 오산역 설치 이후 오산장은 규모도 커지고 물산도 풍부해졌으며 오산역을 통해 서울이나 수원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면사무소에 가거나 진위초등학교를 다니는 것 외 교육이나 대부분의 생활은 오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갈곶초등학교와 한일아파트

갈곶초등학교

1959년 갈곶초등학교가 개교하고 가곡리, 갈곶리, 야막리, 청호리, 고현리 아이들은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오산쪽과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올 2월 10일 졸업한 31명을 포함하여 4,2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갈곶리는 전기와 전화도 일찍 들어왔다. 이재선씨는 ‘갈곶리에 오산우체국장이 살았기 때문에 왜정시대부터 전화도 들어왔다.’ 라고 하며, 전기도 왜정시대부터 들어왔다고 했다.

1995년 행정구역 변경 이전에 갈곶리는 1·2리로 나뉘었다. 1리는 오산시로 통합된 원갈곶이고 2리는 갈곶초등학교 주변에 있었는데, 갈곶초등학교 서쪽에 4~5호가 모여 있었고 나머지는 한 집씩 떨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1984년 들판 남쪽 산록에 일명 피난민촌이라는 마을이 생겨났다. 원래 이곳은 공동묘지로 평택군 소유지였는데, 박봉만씨(남, 1942년생)와 윤기찬씨를 비롯한 4가구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갈곶1리가 오산시에 통합되어 오산시 갈곶동으로 바뀌고, 갈곶초등학교와 한일아파트를 경계로 한 남쪽이 진위면에 남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갈곶 2리인 마을이 갈곶 1리로, 한일아파트를 갈곶 2리로 재편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지명

갈곶리는 진위제2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존의 지형이 완전히 교란되었고 마을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원주민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 지명에 대한 조사를 하기 어려웠다. 『평택시사』(2014)에 실려 있는 지명을 참고하여 수록한다.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갈곶리	마을	가룻이	오산시로 통합된 옛 갈곶1리의 마을 이름이다. 『평택시사』에 “옛날 오산천으로 바닷물이 유입될 때 곶(串)이 형성돼서 유래됐다.”고 했으나, 『조선지지자료』에는 ‘갈옷’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연음되어 발음되는 ‘가롯’이 바뀌어 ‘가룻이’리 바뀐 것으로 보인다.
		피난민촌	1984년 새로이 형성되어 갈곶2리에 포함되었다가 1995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갈곶1리가 되었다. 『평택시사』에 “한국전쟁 뒤에 형성된 피난민촌”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갱변	갈곶2리의 자연지명 오산천변에 마을이 형성돼 유래됐다고 한다. 그런데 ‘갱변’은 ‘강변’의 사투리이므로 언덕 아래 새롭게 자리잡은 주택들이 오산천의 지류인 창갈천 옆 강변 옆이어서 붙여진 지명으로 추정된다.
	하천	뱃터	옛날 배가 닿았던 나루터이다.
		창갈천	고현동에서 갈곶리와 야막리를 차례로 지나 서탄면으로 넘어가는 금암교 바로 남쪽에서 오산천과 합류된다.

3. 마을의 변화

1910년대에 작성된 갈곶리의 토지조사부에는 논이 298,684평, 밭이 136,201평인데, 이중 갈곶리 농민 소유의 토지는 논이 12,155평, 밭이 22,021평에 지나지 않았다. 논밭 합쳐서 전체 농지 중 7.86%만이 갈곶리 주민의 소유였다. 인근 마을인 가곡리 사람과 서울 지주들의 농지가 많았다. 논의 소유주는 강씨가 4명, 김씨가 2명, 송씨가 2명으로 총 8명에 지나지 않았다. 밭을 소유한 인물은 강씨 8명, 김씨 8명이고 최·이씨가 2명, 공·송·한씨가 각각 1명이었다. 이들의 경제 상황은 해방 후 농지 개혁이 되어서야 나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현리의 생업 기반은 마을 주변과 서쪽 오산천변과 남쪽 창갈천 옆 들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창갈천에 방죽을 막아 농업용수를 확보했다. 피난민촌 북쪽에서 갈곶초등학교 남쪽까지 길게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두어 모내기에 이용하였다. 벌판이 넓은 만큼 둑도 길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완공 후에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다. 가곡리 출신인 이재선씨(남, 1935년생)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방죽과 비석을 봤는데, 비석에는 둑 쌓는 작업 책임자 등 공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의 명단이 있었다고 했다. 방죽둑은 길로 이용이 되었는데, 후에 2차선 도로로 넓혀 마을의 큰 길이 되었다.

마을 주변 배과수원(1967년)

방죽 제방과 들판

방죽 제방위의 길(2006, 김해규 제공)

진위제2일반산업단지

전통적인 논밭농사 외에 갈곶리에는 과수농이성했다. 과수원은 갈곶초등학교 뒷산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재선씨 의하면 원래는 사과밭이 많았었는데, 점차 배농사로 바뀌었다고 했다. 배농사는 수입이 좋아 과수원 주인은 사장님 소리도 들었다.

전통적인 농촌 마을인 고현리는 1970년대 산업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평택시통계연보』에 의하면 1971년 640명이던 인구가 1976년에는 1,252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홍원제지, 영풍제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를 비롯해서 오산쪽 들어선 회사들로 인해 유입 인구가 늘었던 결과이다. 1984년 청호리에 들어선 LG전자도 갈곶리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진위제2일반산업단지 조감도(출처: 평택시민신문)

갈곶초등학교와 엘지로

갈곶리는 현재 완전한 도시 모습으로 바뀌었다. 가곡리에 들어선 진위산업단지에 이어 진위제2산업단지가 갈곶리에 들어서면서 농촌 마을은 순식간에 도시의 모습를 갖게 되었다. 제2진위 산업단지는 2015년에 공사가 착공되어 2017년까지 이어졌고, 논들이 많았던 한일아파트와 피난민촌 북쪽에 회사와 원룸, 상가로 변하였다. 갈곶2리 한일아파트 부녀회장인 조미자씨(여, 1957년생)는 금새 도시로 변하면서 집밖으로 나가면 창갈천 옆으로 산책로가 있기는 하지만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다고 하였다.

4. 마을 현황

갈곶1리에 처음 들어온 박봉만

박봉만씨는 서울 개포동에 살다가 이곳이 개발되면서 1984년 당시 이주 보조금으로 10만원을 받고 봉남리 원각사 뒷산에 임시로 기거하다가 그해 11월 자신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 3명과 이곳으로 들어왔다. 이곳이 평택군 소유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대료로 평택군에 5만원을 내고 5년을 살다가 1989년에 각자 불하를 받았다.

처음 들어왔을 때 비닐하우스를 치고 땅바닥에 호스를 깔아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고 살았다.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창갈천 물을 떠다가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다. 1995년 무렵에 남쪽 산너머에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물을 쓰려고 그의 집 앞에 관정을 파서 이 물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쓰게 되었다. 전기도 남쪽 가곡3리 후북 마을 가정집에서 선을 이어서 사용하였다. 길은 황토여서 비만 오면 곤죽이 되어 장화를 신고 다녔다.

갈곶1리 진입로(동쪽)

갈곶1리 진입로(서쪽)

골목풍경

마을회관 신축예정 부지

그렇게 15~6년을 살다가 20여 년 전에 전기도 가설되고 상수도도 들어오게 되었다.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온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피난민촌’으로 불렀던 것은 이들의 생활 모습이 피난민과 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는 4집이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집이 더 늘어서 현재는 12가구가 살고 있다. 2013년 이 마을로 이주하여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김봉자씨(여, 1957년생)는 처음 이사 올 때나 지금이나 가구수는 바뀐 게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갈곶리 중 한일아파트를 빼고 모두 1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130가구에 이른다. 이중에는 회사 다니는 1인 가구가 많고 원룸 두 동은 회사 기숙사로 쓰고 있기도 하다. 1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외지인인데다 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길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거주지가 달라서 마을일과는 상관없이 지낸다. 마을 이장이 이들을 대상으로 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들은 마을과 무관하다.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연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마을길도 처음에 정착한대로 되어 있어 승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집들이 많아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개발을 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다. 현재는 부녀회도 없고, 개발위원회는 조직이 되어 있지만 특별한 활동이 없다. 주민들의 다수가 노인들인데다가 생활이 어렵다보니 마을 공동체에 큰 관심을 갖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마을회관이 없었는데, 공단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마을회관 부지로 100평

을 내놓았다. 하지만 평택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부담금 10%를 마련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건축하지 못했는데, 이장이 서둘러서 올해 어렵게 자기부담금을 마련하여 내년 초 마을회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갈곶1리 이장 김봉자

갈곶2리 부녀회장 조미자

한일아파트는 1996년에 완공되었다. 아파트는 5개동 24평형과 32평형으로 490세대가 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동마다 따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놀이터도 각 동별로 5개소가 설치되었고 각 건물 사이에 길이 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아파트 건물 사이의 길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일아파트 정문

한일아파트 상가

건축된지 오래된 아파트라 시세와 임대료가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이주율로 높은 편이라 자연마을과는 달리 마을주민으로서의 일체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을조직으로는 크게 동대표회의가 별도로 있고 다른 마을처럼 이장, 부녀회, 노인회가 있다. 세대수도 많고 이주율도 높아 실질적으로 마을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비중이 높지 않다. 마을 대동회는 열리지 않고, 임기 2년인 이장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고 있다. 2000년에 서울에서 이주해온 조미자씨는 부녀회장을 맡은 지 10년째 되는데, 처음 부녀회를 맡을 때 전 부녀회의 명단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부녀회의 조직이 부실했다. 현 부녀회장이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부녀회장의 노력으로 설이나 추석 때 김을 팔아 한 톳당 천원씩 수익금을 남겨 8년 동안 60만원을 모아 노인정에 살균소독기를 놓았을

정도로 기금이 부실하여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 노인회는 남자 23명, 여자 39명인데 독거노인인 많은 편이다. 매주 월·수·금요일 점심시간에 25~3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봄과 가을 야유회를 다닌다.

김봉자(여, 1957년생, 갈곶1리)

일시	2022년 12월 17일	
장소	김봉자씨 자택	
구술자	2013년에 오산에서 갈곶1리로 이주하여 현재 피난민촌 이장을 맡고 있다. 마을 노인들의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고,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여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도 다른 데서 이주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인제 오산에서 요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제 방문요양하고 교육원을 하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그러는데 인제 요양원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산 거예요.

요 집자리를요?

예. 주택이 60평 정도 되면 공동생활 가정을 할 수 있어서 60평을 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공동생활 가정을 했어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경험을 해보려고 제가 요양원을 크게 할려는 꿈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면 안 되기 땜에 조그만 하게 9명 공동생활 가정을 했어요. 가정적인 요양원을.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그래갖고 여기서 인제 그거를 하는데, 동네 분들이 그… 서로 몇 가구 아닌데도, 서로 이렇게 헐뜯고 이래서 저는 일절 상대를 안 하고 있다가, 박봉만 어르신만 이웃이니까 제가 또 떡 잔치 이런 거 하면은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했는데, 저 어르신이 '이 동네가 쓸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이장 좀 부탁한다.'고… 근데 제가 바빠서 '아이 저는 못하겠다.' 그랬는데 인제 막 000라는 사람이 개판을 쳐놓고 그 뒤로 또 000가 하면서 마을 회관을 제대로, 그 시기에 못 져가지고 마을회관 자리에 압류가 돼 있어요. 지금 2천만 원이. 취득세 낸 게. 취득세를 시에서 마을회관 자리니까 안 냈는데, 그 봐주는 건데, 그거를 그 시기에 안 줬다고 그 취득세를 압류를 해 놔 버렸어요. 한 2천만 원을 지금.

마을회관을, 지금 그러면 부지만 있는 거예요?

부지만 있는 거예요. 그니까 부지를 줄 때 그것도 잘못됐더라고요. 부지를 받고 나서 1년 후에 그걸 지으라니, 1년 안에. 그게 1년 안에 도저히 못 져.

돈 문제 때문인가요?

돈도 그렇고. 그게 인제, 그러니까 000부터 잘못된 거야. 그때 자기 호주머니에 채울라고 하지 않고, 자기 돈이 10프로가 있어야 돼. 마을 회관을 지으려면 평택시에(서)는 1억 7천을 주구. 천 700만 원이 저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인제 돈이 없으니까 박영호는 박선채가 개판 치다 보니까, 돈은 없고 하니깐. 그것도 마을 주민들한테 모여서 ‘이러이러니 어쩌면 좋냐?’ 했어야 되는데, 우야무야 하다가 2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니까 취득세를, 인제 감면 받은 거를 니네가 1년 안에 노력을 안 했으니깐 그 돈을 내라 해는데, 내라고 했으면 그때도 또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거야. 혼자만 고민하고.

이 100평을 언제 받았어요? 몇 년도쯤에?

오래됐죠. 여기 산업단지, 도시개발이 할 때.

이게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너무 자리는 좋은 자리를 받았는데, 지금 100평이라는 거기서 질 수 있는 게 80프로인데, 우리는 16평밖에 못 져요. 자재값이 올르고 평택시에서 돈 1억 7천 주니까. 그 돈 갖고 질래니까, 16평밖에 못 져요. 그 좋은 땅에다...

그니까 부지가 전체 100평인데, 이 건축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평택시에서 얼마 보조해 주는 거...?

1억 7천이요.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안 줘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우리가 10프로를, 1,700을 해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다시 100만 원씩 걷어서 해놨어요. 그걸 통장을 따로 해서 해놔야 평택시에서 저희들한테 인제 ‘올해는 당신들이 져라.’ 이게 떨어져야 져요. 근데 그것도 떨어지기 전에 1년은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압류를 딱 해놨어요. 해결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은 마을 분들이 모이면 어디서 모여요?

저희 집에서 모이고, 저는 이장 그 돈(이장 수당) 받는 걸로 매달 모일 때마다 저는 그냥 안 보내요. 선물을 다 사서 한 보따리씩 싸서 보내요. 제가.

이장 수당 받은 그 돈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써요. 제가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으니까.

이장 수당이 지금...?

30만원, 나오는데 뭐 축의금, 조의금 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이장 돈 받아 갖고’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니깐,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베풀고 사는 건데. 그래서 박

봉만 어르신이 아셔요. 그래서. 다른 이장 할 때는 전부 차 한 잔도 다 동네 돈으로 했는데, 제가 동네 이 밑에 청소하는 것도 사람 제 돈으로 사서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지요.

지금 이 주택 부지가요?

주택 있는 데를 300평을 샀는데, 이 밑에 중간을 제가 또 더 샀어요. 그니까 500평이 넘어요. 제가. 그러는데 여기다 건물을 질라다가. 여기가 20프로 밖에 못 져요. 그래서 제가 갈곶동, 오산 갈곶동에 집 가까운 데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느라고 70억이 들어갔던 거예요.

요양원 하실려고 지으신 거예요?

요양 통합 서비스를 다 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까지 다 해요. 그래갖고 정신이 없이 바뻐요. 매일 맨날... 제가 인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니까 토요일날은 제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쐬러 나가요 제가. 그냥 어디든지 그냥 차 몰고 나가요 제가. 주말에는. 그러구 인제 일요일 날은 오전에 또 교회 갔다 오면 오후에는 또 바쁘고.

여기서 인제 요양 사업하시려고 일로 들어오신 거네요?

예.

몇 년에 들어오셨죠?

제가 지금 여기 이게 8년 9년이니까. 9년 됐어요.

그때 여기 들어오셨을 때는 몇 가구나 살았어요?

그때도 뭐, 가구 수는 뭐 변한 게 없어요.

여기가 근데 자연 마을 이름이 피난민촌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예. 피난민촌 그래서 '6.25 때 피난 오신 분들이 정착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저기서, 서울에서. 박봉만 어르신이 말씀 안 하셔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재개발되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더라구. 하우스에서 살다가 이걸 인제 당신들이 공동묘지를 다 일궈갖고, 많이 일구는 사람이 자기 땅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몇 분이서. 근데 저는 인제 그런 것도 몰르구 온 건데, 여기 인제 오산 가깝고 그렇기 땜에 온 건데, 아우 이 동네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인제 요양 사업 허면서 일본이 이런 요양 이런 게 앞질러 가기 땜에 일본을 몇 번 인제 견학겸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일본은 이런 자연마을에, 자연마을 그대로 그 집을, 집에서 노인들이 한 가정에서 살듯이 하면서, 한 가정에 세 분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한 분이 가서 해드리고. 이런 마을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국가가 지원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평택시청에 그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제 딸을 시켜 갖고 정장선 시장님을 몇

번 만났는데. 제가 그런 거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일본을 갔다, 가보니 이 동네는 낙후돼 가지고 지금 이 동네가 개발하기도 평수가 적구.

지금 갈곶1리?

예. 여기 마을 몇 가구가 저쪽은 차도 못 들어가요. 공장에서. 마지막 공장이 문을 딱 닫아갖고. 저희 집하고 박봉만 어르신은 여기 도로라도 접해져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그런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저기가 있으면 당신이 첫 번째로 갈곶1리를 그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평택시가 커지다 보니까 좀 바빠요 시장님이? 이런 동네에 신경을 못 써요. 솔직히...

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장님의 뜻을 마을분들이 헤아려서 같이 또 협조도 해야 되고...

마을 분들은 좋대요. 지금 제가 그런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제발 좀 이 동네에 뭐라 두 해서, 그런 걸 하면 자기들은 다른 데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도로도 없고, 그리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구.

도시가스 안 들어오고 인제 전기하고 수도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전기하고 수도만 들어오니까. 그러구 또 이게 자연 녹지니까 20프로밖에 못 짓는 거.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야. 박봉만 어르신은 지금 동탄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놨는데 보기만 하고 안 사가. 저 같어도 봐요 땅을 사서 건물 짓잖아요. 20프로 밖에 못 짓는 땅에다가 뭔 건물을 짓겠어요.

아 박봉만 어르신도 지금 인제 나가실려고...?

내놨어요. 왜 그러냐면 동탄에 아파트를 사, 저기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는데, 평생 여기서 고생허셨으니깐. 그러는데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되거든. 저 어르신 세금 땜에.

세금이 뭐 많이 나오나요?

인제 1가구 2주택으로. 여기도 주택이 안에 있거든. 그러는데 못 팔아 20프로 짜리라.

근데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여기 뭐 산업단지 있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산업단지 생겨서 여기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마을 주민들이 또 정장선 시장님한테 가서, “당신이 시장 나올 때 공약한 부분 아니냐.” 공약을 했어요. 제가 듣기 싫은 소리 땜에 몇 번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를 해줘라.”

그러니까 자연 녹지를 풀어달라는?

풀어줘라. 자연 녹지만 풀어줘도 괜찮아. 근데 자연 녹지를 안 풀어주니까 건물들을 못 짓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오구. 그러니까 공장들만 들어오는 거야.

근데 공장도 20프로 밖에 못 짓는 거 아닌가요?

공장은 다 그렇게 안 짓잖아요. 공장 들어오면 풀어줘요.

근데 이 주변이 다 공장이고 주택가고 그런데 이 마을만 딱 자연 녹지가 있는 거예요?

예. 공장을 지으면 풀어줘요. 여기 지금 한탑이 이 배밭을 샀어요. 2천 500평을. 그래서 인제 2월부터 공사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저런 공장들만 들어오다 보니깐, 동네가, 그러니까 공장들 저렇게 풀어줄 때 이 동네도 풀어줘야 되거든.

또 풀어주면 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을을 좀 가꾸기보다는 박봉만 어르신처럼 이렇게 팔고 나가셔 버리면 결국은 공장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아름답게 꾸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낫지. 여기는 시내 가깝고 해서 전원주택을 만들어도 와요. 그러는데 20프로 밖에 못 지니까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전원주택은 20프로 정도만 돼도. 이렇게 좀 마당 좀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게 조성을 해놔야지. 도로가 반듯반 듯 해고, 조성을 하기 전에는 안 들어와. 쉽지 않아. 왜 그냐면 이게 저 봐요. 여기 바로 요 앞집도, 그런 땅 사가지고 뭐를 짓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로 정리부터 해야 돼. 그런 걸 할라면.

하기야 100평이면 20평밖에 못 지으니까, 전원주택도 쉽지가 않겠네요. 땅 값은 비싸고.

땅값은 또 짱짱이들 받을라고 하고. 제가 그때 여기를 200만 원씩 사갖고 들어왔거든요. 저희 집은 대지예요. 다.

2013년에요?

예. 200씩 사 갖고 온 거예요. 여기를. 그러구 나서 그 뒤로 밑에는, 여기는 여기 주인이 저한테 이거 사가지고, 팔어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원장님 이 밑에 땅 싸게 줄게 사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여기 보니까 넓은 길은 요 아래 길하고, 박봉만 어르신 집 앞에 진입로 그쪽하고, 이장님 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요 길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차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예. 힘들어요. 저는 인제 건물을 지으면 이 길을 안 쓰고 저 도로에서 그냥 들어와서 주차장 만들고 5층으로 4층을 질라고 허는 거지.

이장님은 지금 몇 대 이장님이세요? 이 마을에?

제가 5대째네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장님처럼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러면 생활 정도는 좀 어려운 편이겠네요.

그렇죠. 어렵죠. 또 나이들이 있고. 어려워요.

그분들은 그럼 회사 다니거나 그러셨나요?

그 뭐 그냥 부업도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먹고 노는 것 같애요. 다.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지.

젊었을 때는 이 주변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든가 그랬겠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먹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애기도 이 동네 그 희업이 언니라고 그 언니가 76세인데, 일부러 제가 연세는 있어도 그 양반 돈 벌게 해줄라고 와서 보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제 토요일, 일요일은 안 오고.

그럼 대체로 지금 현재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다 해도 그거 팔어갖고 나가서 어디서 뭐 하겠냐고요? 돈만 날리게 생겼지.

그러면 시에서 요새는 보조도 좀 해 주고 그렇지 않나요?

보조라는 거는, 또 집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안 되잖아요. 집이 있다구. 잘난 집이 있어서.

아 집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도 안 되고?

안 되고. 노령 연금은 나올 거예요... 그거 받고 뭐 자식들이 조금씩 주나 어쩌나? 생활하겠죠.

지금 현재 몇 가구나 돼요?

한 12가구 돼요. 아유 안타까워, 안타까워. 이 동네 사람들.

이 마을은 12가구지만, 또 마을에 이렇게 등록된 가구 수로는?

230가구요.

그러면 나머지 가구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산업단지 내에 원룸이나, 아니면 한일아파트 진로마트가 있어요. 한일아파트 위에. 진로마트 앞에 그 원룸이 다 갈곶1리로 들어가요. 한일아파트만 따로 떨어지구.

한일아파트만 갈곶2리로 들어가고?

예.

나머지 주변에 있는...?

원룸은 갈곶1리로 들어가요. 희한하게 쪼개놨어요.

그럼 이장님이 그쪽까지 다 관리를 하시겠네요?

아유 이번에 주민등록 그거 조사하는데 아주 질려버렸어요. 제가. 원룸 애들이 문도 안 열어주구.

이분들은 대부분 1인 가구인가요?

예. 여기 인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렇더라구요. 기숙사로 또 두둥이 쓰더라고요. 회사 기숙사.

마을 기금은 이장님이 하실 때는 전혀 없었나 보네요?

없어 갖고 1,700을 만들어 갖고 지금 10프로로 통장을 해놨는데, 이번에 인제 마을회관 건립 때문에 신청을 했더니 문화재 땜에 표본 조사를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인제 평택에서 막...

지표조사요?

예. 그러는데 저도 우리 건물 할 때 문화재 그거 조사하라고 해갖고 한 1억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그랬는데 여기 이 잘난 땅에 최고 싼 데가 350이래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설계...

보통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인제 대동회라고 그래가지고 12월에 하잖아요?

아이 우리는 할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해갖고 매달, 인제 어떤 때는 바쁘면 제가 매달 못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할 때두 있어요. 있는데, 저는 회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다 해놔요. 회의록. 갈곶1리 마을회의록. 싹 해갖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넣어 놓고...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놔야지. 사인도 받고 온 사람들. 다 해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해놔야지 근거 자료가 되지 안돼요. 인제 대동회 할 거예요. 인제 돈 없으니까 또 제가 한 턱 쏴야지... 이게 압류 통지서. 압류. 등기부 등본, 다 제가 이거 해놔요. 이 통지서를 박영호가 받고 말도 안 한 거예요. 이 압류됐잖아요... 이렇게 송탄출장소에서 이거를 받고 말도 안 한 거예요. 아유 진짜... 내가 다 근거로, 안 없애고 놓는 거예요. 이런 게 투명해야지 나중에라도 떳떳하거든... 이 잘난 거 허면서 투명하게 해야지, 작은 돈 갖고 욕심 부려야 잘 살지 못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실 때는 마을 현안들 주로 얘기하시고?

예. 제가 인제 면에서 인제 이장 회의에 갔다 온 거 얘기하고, 동네 분들 별일 없나. 그렇게 하고 그래요.

대동회 때는 뭐 해요?

대동회는 뭐 인제 같이 밥이라도 한 해 보내니까 먹고, 인제 문화재 이런 얘기도 하고, 마을회관이 인제 내년 한 2월달까지는 다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 2월 완공이면 지금...

1층으로 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금방 짓지.

그럼 마을에서 하는 거는 아까 계속 말하씀하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거 하고 12월에 인제 대동회 하는 거 정도 있고요?

예. 어제 면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대동회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 해 보내는데 대동회는 해야지. “대동회 해봐야 뭔 돈 나오냐? 내 돈으로 식사 사야지!”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구.

면에서 그걸 파악하는 거는 뭐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말도 안 해요. 그냥 파악만 하는 거래요. 아유 보조도 없는 것 같애.

마을에 또 다른 조직은 없어요? 뭐 부녀회라든가...?

부녀회 헐 사람이 있어야지... 인원도 없고.

그리고 마을 개발위원인가 이런 것도?

아니 인제 개발을 할라면, 그게 해야 되는데 아유 개발 안 돼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인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없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인제 안 되면 어떡해. 뭐 이 동네가 이렇게 낙후, 진짜 이 동네는 평택시에서 어떻게,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 동네를 지들이 알아서 소각장이라도 만들으라고 이렇게 정장선 시장님한테 가서 떠들었다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금 사는 데는 어떤 지장이 없을 텐데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돈 값어치가 안 올라가니까.

주변 지역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이 밑에는, 우리 마을회관 받은 자리는 평당 지금 뭐 3천 이래요.

이장님이 마을에 대한,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마을에 대한 애정이 좀 많으신 거 같은데...?

저는 안타깝죠. 저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거 좁은 평수 팔아봐야 아파트 하나도 안 나오는 집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번에 회의할 때.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면 여기 돈이 없어서 당신들은 집을 못 지으면 차라리 나이 잡숴서, 저는 복지사업을 하니깐, 나이 잡수면 임대 아파트를 가셔라. 그러구 내 앞으로 재산을 만들지를 말어라. 그래야 이것 혜택 저거 혜택을 본다. 나중에 요양원을 가도, 몇 십만 원 가지면, 노령연금 가지면 거기다 조금 보태면 간다. 그러니까 이 잘난 거, 집을 내 명의로 할라고 하지를 말고 개발행위 해갖고 내가 도저히 못 되면, 조성하면 값어치가 올라가면 그때 팔어서, 팔어갖고도 집을 사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솔직히. 동네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니 그게 제가 복지사업을 해 보니깐, 돈이 많으면 모를까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집을 내 이름으로 가질 필요가 없어. 그 집 때문에 혜택을 볼 걸 못 봐. 저는 서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왜, 뭣허러 땅 많고 헌 거 자식한테 막 일찍 줘요? 돈 가져가면 틀린데, 태도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잘난 거, 몇 십 평 갖고 아파트 하나도 못 살 거면 나는 임대 아파트로 가라는 거야.

박봉만(남, 1942년생, 갈곶1리)

일시	2022년 8월 6일	
장소	박봉만씨 자택	
구술자	박봉만씨는 1984년 서울 개포동 재개발로 봉남리를 거쳐 공동묘지였던 이 마을에 처음으로 들어와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래서 피난민촌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이 마을에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이 마을을 내가 다 얘기허께요. 이 마을의 창설자입니다 잉.

어르신께서요?

예. 이 마을의 창설자... 이 마을을 만든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앉았는 자리가 여급니다.

28-70이요?

예. 시방 우리가 앉았는 자리가 시방 여기여. 여기. 그런데 이 지역도가, 이 지역도가 89년도 이게 해결이, 89년도 이것이 마을이 됐어요. 마을이 이렇게 되야 있는데, 마을을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

아 처음에 네 사람이요?

예. 네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네 사람이 인자... 내가 여그 84년 11월에 왔어요 잉.

84년 11월달에요?

응. 그러면 이 당시에는 네 사람이야. 네 사람, 네 식구, 네 식구가 왔는데...

네 집이 왔네요.

네 가정. 그 당시에 어떻게 왔느냐. 서울의 인구, 나 서울에서 왔어요. 네 사람이 다. 네 사람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오면서 84년 4월 나는 18일 날 오고. 어디로 왔느냐. 여기 진위면 뒤여. 진위면사무소 뒤에로 왔고. 왔는데, 거기서 11월달까지, 10월까지 거기서 살었지.

봉남리에서요?

예. 그러다가 여그 11월에 이리 왔어요. 여그가, 이 지역이 시유지입니다.

아 원래 시유지였어요?

예. 이것이. 시유지인데, 우리가 서울서 그 당시에 인구 분산시킨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인구 분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냐 허면, 내가 우리가 있을 때는 저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했죠. 전두환 대통령이 해서 인구 분산시킨다고 해서 그 보조금 돈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를 내가 와서, 4월 18일에 와서 두 사람이 저그다가, 저 봉남리에 뒤에다가 저...

몇 분이나 같이 오셨어요?

아니 두 사람 있었어.

봉남리로요? 아 두 집이 오셨군요?

두 집 왔어. 두 집이 와가지고 여기 와 보니까, 평택에 그런 사람, 우리 같이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이 갈곶리 281-7인데, 7은, 그것은 우리가 측량 후에, 측량을 했어요. 인자 여그서 5년을 살었어.

현재 이 집터에서요?

예. 인제 여기서 5년 살고 이것을, 그 당시에는 평택군이었습니다. 평택군이었었는데 평택군에서 불하를 했어요. 불하를. 저 그면은 11월 말경. 89년 불하를 했어요.

여기 그때, 그 불하를 받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인자 입찰해서 했으니까.

처음에 여기 89년 11월에 이쪽에 들어오실 때, 그때는 여기 임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임대로 들어왔죠.

84년 11월에는 임대료, 임대는 얼마나 했었어요?

임대는 그때 당시에 그 저 5만 원인가 얼만가 시방.

그냥 전체요?

전체를, 아니 개인이 '내가 이만침 쓰겄다. 저 만침 쓰겄다.' 인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4년이 지났는데 5년 차 인제 불하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89년도에 임대를 했다는 얘기지. 아니 저 개인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는 이제 네 분이서 평수는 똑같았어요?

평수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평수는 똑같지 않고, 그전에 여기도 갈리하던 분이 있었어요. 또 관리허던 분이 시방 여 노인넨데, 관리해던 분은 돌아가셨지.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인자 아들이 임대해가지고 아들까지 그 인자, 우리는 네 사람이지만, 이 주민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 땅 관리허던 아들.

아 시유지 전체를 관리하던 분이요?

예. 관리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사람이, 다섯 사람이 분양을 했구나.

그니까 인제 외지에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네 분. 그리고 여기, 그러면 그분은 현지 토박이었겠네요?

긍게로 그분은 80 한 70 한 몇 년도부터 관리를 했대요. 긍게 여기가 그전에는 이 동네, 마을 공동묘지로 있대요.

아 여기가 공동묘지였어요?

응. 긍게 그 전에는. 내가 84년 11월에 여기 왔으니까, 그 후로는 여그 권병필이라는 분이 여그 관리를 했어요. 응. 가곡리.

그때 그러면 처음 들어오신 분이 어르신하고, 네 분 성함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하던 사람이 나찬우. 저 나이는 몰라. 어... 박... 박 뭣인데. 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기찬.

이분들이 전부 다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내가 나이가 제일 적습니다. 내가 나이 젤 적어요. 저 두 분은 고인이 되고. 두 분은 나하고 인자 살고 시방. 생전에 있고. 고인 되어서 떠나갔어요. 다. 딴 데로 갔고. 여기 시방 사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살고.

그럼 이 중에 지금 여기 같이 사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하고 시방 현재 있는 분? 윤기찬이허고 나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는 오늘 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89년, 84년부터 설움으로 살어 왔지. 여까장 오면, 이 동네 사람들 아무래도 괄세 헐 것 아녀.

뭐 괄세하고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괄세,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거시기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몸 관리 한 사람들은 살고. 내가 그전에는, 내가 시방 현재 내 나이가 젤로 적으니까 시방 그렇게 했고. 두 분은 고인 되야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갔고... 그 이상입니다. 그니깨 인저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이 기적도까지 시방 보여줬잖아. 이것이 언제 되얐냐... 89년도 되얐을 거요. 긍게 89년도에 이렇게 잘게 되었지만, 지금은 11가구가 여기 살고 있는데....

현재 11가구요?

응.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네 개가 되어 가지고, 네 개가 돼서 자기 재산 만들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구가 많아요.

어르신은 서울 어디서 오셨어요?

나 거시기 서울 개포동에서 왔어요.

근데 개포동이 그때는 개발이 안 됐을 때잖아요?
응. 개포동이 막 발전 될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개포동 개발되면서 이쪽으로 이주에 오신거요?
예. 개포동 발전 막 그냥 아파트 생기고... 그거 아시네.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서울이 더 좋지 않나요? 시골보다?
먹고 살기는 모르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노동일이 힘이 없어 못 허잖아요. 힘만 있으면 그냥 하루에 지금 나가면 십 몇 만원이라는데. 그 당시에는요, 나는 노동일이라고는 안 해본 사람인데, 나는 장사로만, 장사 쪽으로만 살아온 사람인데. 직장생활을 허고 장사 속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노동일이라도 해서, 할라고 하면은요, 와이로 써서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 와이로 써서. 지금같이 노동일을 할라고 하면은 천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노동이 서울에서는 못 헙니다. 없어요. 그냥 "나 좀 데리고 가." 와이로 써가지고.

그렇게 부탁하고 해야지 인제 겨우 일자리...
예. 노동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서럽지니깨, 내 것 없으니까 서울에는 냉랭해요. 에이 잡것, 내가 자식 6남매 데리고, 자식 6남매를 데리고 내가 여기 왔소.

할머니랑 같이요?
예. 그니깨 여덟 식구가 온 거죠. 여그 와서 우리 큰딸이 효명고등학교 이 청바지 하나 가지고 3년을 입었다면서, 나는 그것을 몰르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청바지 하나 가지고 3년을 입었다고.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효명고등학교도, 저 우리는 야채 장사라도 허고 나가면, 가서 지가 밥해 먹고 나가가지고. 여기는 그 당시에 하우스를 이렇게 치고 살았어.

아 처음에 하우스 짓고 살았어요?
여그 지금은 저 가곡리 지구 사는 사람들도 여그가 그런 사람들인가 잘 몰라요. 여그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아니라, 네 가정.

네 가정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어르신은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나머지 세 집은 어디서 왔어요?
긍게 여그 와서 거시기여. 나머지는 상계동서도 왔고, 영등포서도 왔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넷이서 약속하고 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 약속을 안 한거지. 여그서 만난거지.

그러니까 어르신이 처음에 봉남리로 가셔서...

처음에 봉남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개포동에서 여기 평택을 세 번 왔소. 왜 세 번 왔느냐. 내 자식이 여섯, 딸내미들이 큰 딸내미, 작은 딸내미 셋째, 넷째, 내가 넷째가 그때 인제, 우리 큰 딸이 고등학교로 들어갈 때고. 저 우리 셋째는, 아 막내는 인자 요만할 거고, 그리고는 인자 중학교 댕길 적에 국민학교, 국민학교 입학 허고 막 이런 사이입니다. 입학, 이런 사이인데, 거시기 저 걔들이, 걔들 데리고 오고. 저기 저 사람들도 거 서울에서 다 이사왔죠. 둘은. 서울서 다니다 왔죠. 개포동 중학교, 저 거시기 국민학교도 다니고. 저 다니다 오고, 우리 큰딸래미는 저 거시기 개포 무슨 중학교냐.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거서 대니다가 온 거니까... 그렇게 허고 나는 자식, 딸들이 많으니까, 딸들이 많으니까, 여가 위법지구였습니다.

위법지구요?

저 학교에서 여그 올라면 여자들은, 여식 애들은 조금 안 좋아요.

아 좀 무섭고 좀...

위법지구니까. 저녁 때 잉. 여기 동네 길도 오솔길이여. 오솔길.

그때는 뭐 집도 없고 그냥 산으로, 이렇게 산길로...

오솔길이니까 참 심허게 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놈들 좀 관리허고 거시기 헐라니까,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여기가 입구가 된 거여. 여기 경운기로 우리가 다 길을 만드는 거요. 그렇게 만들었어. 여그가 입구 이렇게 허고. 딴 사람들도, 여그 그 당시에... 응 저그 고등학생, 고등학생 하나가 또 있어, 데리고 있더라. 그렇게 허고. 학생들 데리고 온 사람이 세 사람인가?

어르신은 아까 왜 처음에 하우스 처음 짓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비닐하우스 짓고 사신 거예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여기서 정작 돈이 없으니까. 4월달이면 조금 춥습니다. 4월달. 조금 추워요. 왜 춥냐. 뭐 아직 눈 내리는 때는 아니에요. 4월달이니깨. 그래서 와서 면사무소 뒤요. 면사무소 가면 무슨 절간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로 바로 넘어가 가지고. 그렁게 지금 면사무소나 봉남리 가면은 나이가, 어른이 나이가 80 넘어서 한 90 되는 사람들이나 우리 살아가는 것을 알지.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 뒤, 절 뒤에서 처음에 사셨던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고개 탁 넘어서. 그 면사무소 고개 넘어가기 전에. 고기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저 시방도 생존해 있는데, 나이가 나보다 적어요. 나이가 나보다 적는데, 그 사람이 시방 잘 아는데, 지금도 있더라고 거기 그 집에.

그러면 거기서 있다가 일로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인자 여가 한 면 아닙니까. 진위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선배가 있었어요. 나찬우라고... 선배가 있었어. 선배가 있으니까, 서로 없는 사람이니까, 서로 객지 나와가지고, 돈 없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어르신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어떻게 생활해요. 말도 못허죠. 말도 못 허제. 설움도 많제.

장사하셨어요?

예. 저 야채 장사도 허고, 채소 장사도 거고 뭐, 고물 장사도 허고 뭐. 뭐 되는대로 다 했지. 그냥 생기는 대로 다 하지. 도둑질은 안 했어요.

야채 장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야채는 오토바이로 했죠... 고물 장사는 경우기 가지고. 경운기 가지고요. 경운기도 할 줄 몰라 가지고, 이 밭에서. 여기 저기 길이 밭입니다. 저 길이 밭이요.

옛날에 밭이었어요?

예. 길이 밭이여. 이것이 15년 전, 긍게로 지금부터 2015년. 이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2014년부터 17년까지요?

응. 2014년, 15년부터 했어요. 15년부터 해가지구 17년에 다 끝난 거여. 여기 밭이, 그냥 논이고, 이게 논이었거든요. 논이니까 다 밀어붙이고 인자 측량 해가지고 공장들 들어오고 이렇게. 지구가 여기는 변했어요. 그니깨 갈곶리가 여기는 아까 이 지적도 해서 이렇게 조그마하지만은, 갈곶리가 이 학교가, 이 공장이 다 갈곶리입니다. 지금 현재 갈곶리여.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럼 물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요? 말도 말아요. 물을. 설움도. 저그 저 학교 앞에 흘러가는 물, 개천 물, 질러다가 먹기도 허고, 거 가서 빨래도 하고. 여기 저 개천 압니까? 여기 개천 봤어?

예. 여기 창갈천이요.

이거 저 공장 끝에. 거그 가서 빨래도 허고. 거그 가서 거시기도 허고, 저 먹기도 허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여그다가... 참 아이고. 그 얘기 인저 그만 헙시다. 그만해. 개천물도 먹었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우물을 만들었어요?

우물은 맞죠. 우물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 여그가, 이것이 우물입니다.

아 요 자리요?

이게 우리가 판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판 것이냐면, 저그 저, 여그 가면 알루미늄 공장이 있어요... 저그 공장, 양은 공장. 양은 공장에서 여그를 팠어요. 물을 여그서 끌어갈라고... 그놈 같이 조금 먹고. 저 물이 그냥 이런 데서 나오니깨, 거기다 호스 하나 대놓고 여기서 가정으로 좀 연결도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몇 년도쯤 됐어요? 어르신 몇 살 때쯤

그때가 2천 한 7~8년 되니까... 2005년? 아니 2005년이 아니라 천 한 5년도나 4년도...

95년. 94년, 5년이요?

응. 그러고는 내가, 나는 직장생활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우리 아는 양반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아는 양반을 만나가지고 저 직장 하라고 그러대. 내가 인자 차 운전도 못 허니까, 인저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여그서. 나 살어온 거 묻지 마시오. 나 여그서 오토바이 타고 아침 8시까지. 광주 경안 알아요? 광주 경안, 용인 지나서. 아침 8시, 노가다들이 7시에 시작허잖아요. 7시까지 거그, 오토바이 타고 도착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여기서 5시께, 5시에 나가면 늦는다고 인자 5시쯤 나가면. 거 가면 7시. 거 가서 울기도 허고. 추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영하 17도... 그렇게 살았소.

여기서는 그러니까 회사도 다니고, 장사도 하시고 그렇게?

그럼요. 여기서 뭐 뜨내기가. 여기 와서 저 장사, 뭐 참외 장사도 하고 뭐 다 했죠.

처음에 그러면 전깃불도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전기 불이 뭐요. 저그 저, 저쪽 동네에서 좀 끌어다가 했고. 끌어다가. 그 동네에서 인자 좀 주니까.

요 뒷 동네에서요?

그 집에서 우리가 주기로 허고. 저쪽 가면 저 등 너머. 저 등 너머 거시기 가면은. 거기서 인자 서로 소개해가지고. 불이 없으니까 거시기 저 전기도 끌어다가. 그거 공짜로 끌은 거 아녀. 암암리로 끌어오는 거 아녀요. 돈 주고 끌어오는 거지... 삼지줄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구. 그리고 맨 처음에 와서는 호롱불 켰지. 누가 줘요?

처음에는 호롱불 켜시고요?

호롱불이 아니라 그 촛대불 키고, 저 그, 그 가스 있잖아요. 등불.

그런데 처음에 여기가 공동묘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공동묘지, 여기서 거시기 했대요.

근데 공동묘지였다는 얘기만 들으셨어요. 그때도 묘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예. 묘지 있는데, 묘지. 여그도 묘지 있는 거 나는 저그 저 제일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여기 저

만치 가면. 거그다가 의뢰해서 파내기로 허고. 그 임자 없는 것들. 다.

그래도 인제 육남매 잘 키워놓고 그러시니까, 인제 보람은 있으시잖아요?
인자 그걸로 너무, 어쩔랑가 너무 그냥 나쁜짓 않게 허고 이. 나쁜 짓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힘들게 사셨지만 떳떳하게 살으신 거잖아요.
응. 그렇게 살고. 지금도 절대로 그러기 싫어요. 우리 싫어요. 뭐 어디 가면, 관청이고 뭐이고,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헙니다. 그대로 애기허고.

여기 수도는 언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수도 들어온 제는 그렇게 한 20년 되지요.

그럼 저 우물 드시다가 인제 그 다음에...?
우물을 그렇게 해다가 저 공장에서 이렇게 빨아갔다고. 빨아가니까 남는 것은 인자 동네에서 먹고. 그 전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상수도 들어온 거예요?
수도 들어오고. 마을이 지대로 형성이 되얐죠. 없는 마을이지만 마을을 형성이,

그러면 전기는 몇 년에 들어왔어요?
전기도 다 끌었죠.

언제쯤 끌었어요?
전기가 먼저 들어왔을까? 그게 20, 한 20년 되겄네.

참 처음에, 84년도 그때는 겨울에 난방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난방도 없죠. 난방도 없으니까 거그 연탄, 연탄 사다가. 있잖아요 그 물 뜨시게 해는 거.

저 새마을 보일러 말인가요?
응. 새마을보일러, 그렇게 살았죠. 저 호스 이렇게 방바닥에다 깔고. 집은 이렇게 치고, 하우스... 하우스 치고... 맨 첨에 와서는 땅바닥에다 호스 깔고 이렇게 허고, 이놈 치고, 이렇게 깔고.

아 맨 처음에 왔을 때, 땅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연탄 보일러 호스 깔고...
그러믄요. 아이 저 비 안 들어오게 해놓고, 물 안 들어오게 해놓고, 땅바닥에다가 해서 세면 깔고는 그렇게 해서 호스 넣어놓고 해서. 아이고 그 왜, 왜 과거 거를 물어보는 데는 내가 좀 안 좋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VIII.

토지대장을 통한 변화양상 분석과 해석

윤한택

여 백

20세기 초 진위군(振威郡) 일북면(一北面)·마산면(馬山面)의 토지 소유 양상을 통해서 본 사회 구성 변화의 일단

1. 들어가며.

평택은 현대 디지털 산업의 쌀인 반도체 생산기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근대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 전쟁인 한국전쟁 당사자 미군이 ICBM에 대항하여 우주군사령부 건설을 계획하는 등 그야말로 현대 세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다. 이러한 변화를 마을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전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만하다.

평택문화원이 근 10년에 걸쳐 이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런 문제의식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문화연구가 문화 권력, 문화 상품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그 생산성을 담보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을 반영하는 마을의 토지 소유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 조선후기 대한제국기로부터 통감부·총독부로 전화해가던 광무 연간의 토지 대장인 광무양안을 통해 해당 마을의 변화를 추적하는 의미이다.

덧붙여, 이 시기 토지대장이 중세로부터 근대로의 전환기에 모든 변화의 기저에 가로놓여 있는 지명 데이터를 가장 상세하고 광범위하며 공신력 있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올해 2022년의 조사 대상 지역에는 이러한 변화를 추동해 온 LG전자 평택공장, 평택하이테크협동화공단, 진위일반산업단지, 진위2일반산업단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광무양안 상에서는 진위군 일북면, 마산면에 해당한다.

일북면에는 자연동으로 신촌평(新村坪), 황생평(篁笙坪), 개농평(介農坪), 황성평(篁成坪), 황성평(黃成坪), 월경(月境), 월경리(月境里), 얼이평(孼伊坪), 두주물(斗周勿), 사동(寺洞), 만기사전곡(萬奇寺前谷), 고현(姑峴), 동천수내평(桐泉藪內坪), 내동천하리(內桐泉下里), 동천동(桐泉洞), 상리(上里), 호현(虎峴), 외동천(外桐泉), 월하동(月下洞), 어인곡(於仁谷), 해현평(蟹峴坪), 문달암곡(文達巖谷), 기동(基洞), 구정평(九井坪), 쟁쟁곡(錚錚谷), 사후동(寺後洞), 소사후동(小寺後洞), 사후기동(寺後基洞), 치우현(致雨峴), 청양곡(靑陽谷), 문달암(文達巖), 갈천평(葛川坪), 고현촌(高峴村), 우촌전평(隅村前坪), 우촌(牛村), 곡교전평(曲橋前坪), 하청호(下靑湖), 소청호동대(小靑湖洞垈), 원당후평(元堂後坪), 원당전평(元堂前坪), 원당곡(元堂谷), 해현하원당곡(蟹硯下元堂谷), 신기(新基), 안미동(安味洞), 각곡(角谷), 방축평(坊築坪), 후곡(後谷), 수원저이평(水原這伊坪), 장승곡(長承谷), 수원저리평(水原這里坪), 편교평(片橋坪), 접죽곡(接竹谷), 창갈평(蒼葛坪), 소냉정(小冷井), 합당곡(合堂谷), 끽묵곡(喫墨谷), 갈곶촌전평(葛串村前坪), 갈곶촌대(葛串村垈), 갈곶(葛串), 노내평(路內坪), 수원진위양군접계(水原振威兩郡接界), 가루평(柯樓坪),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水原振威兩郡接界越坪), 대평(大坪), 원미평(元尾坪), 화도평(化島坪), 야막후평(野幕後坪), 합평(蛤坪), 하창갈(下蒼葛), 원미평(元味坪), 각곡(各谷), 냉정평(冷井坪), 삼원곡(三院谷), 다남곡(多男谷), 사태곡(沙汰谷), 산후곡(山後谷), 응방곡(鷹方谷)이 있고, 마산면에는 동막(東幕), 우곡(牛谷), 와곡(瓦谷), 내곡(內谷), 와동(瓦洞), 마루평(馬樓坪), 월경전평(月境前坪), 산대(山垈), 도감동(都監洞), 장구평(長九坪), 동막동(東幕洞)이 있다.

2. 자연동별 현황[1)]

2-1. 일북면

전답 전 3,822.6부, 답 10,593.2부, 도합 14,415.8부이고, 호구 172호로, 호당 평균 전 22.4부, 답 61.9부 도합 84.3부이며, 와가가 5간, 초가가 653간이다.

2-1-1. 가루평(柯樓坪)

총결수는 전 173.2부, 답 379.1부이다.

성씨는 강(姜), 김(金), 류(柳), 민(閔), 박(朴), 백(白), 서(徐). 송(宋), 양(梁), 엄(嚴), 오(吳), 윤(尹), 이(李), 임(林), 장(張), 정(鄭), 조(趙), 주(朱), 최(崔), 한(韓), 홍(洪)씨와, 법인인 궁내부(宮內府)[2)], 용주사(龍珠寺)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時主)[3)] 전 3.8부, 시작(時作)[4)] 전 3.8부 답 14.6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21.4 답 21.2, 시작 전 29.9 답 28.7부이다.

류씨는 시작 전 4 답 6.8부이다.

민씨는 시주 답 83.8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29.9 답 21.5, 시작 전16.5 답 89.6부이다.

백씨는 시주 전 19.3, 시작 전 19.3부이다.

서씨는 시주 전 7.9, 시작 전 7.9부이다.

송씨는 시주 전 4.5, 시작 전 4.5부이다.

양씨는 시주 전 5 답 11.4, 시작 전 5 답 5.1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5.3부이다.

오씨는 시작 전 3.4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35.6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0.9 답 109.9, 시작 전 11.4 답 35.8부이다.

장씨는 시작 전 9.5 답 10.5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4.4부이다.

조씨는 시작 전 3.4 답 16부이다.

주씨는 시작 답 14.2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44.2, 시작 전 44.2 답 34.6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9 답 46.5, 시작 전 3.1 답 6.2부이다.

홍씨는 시주 답 20.8, 시작 답 5.1부이다.

법인으로 궁내부는 시주 전 3부이다.

용주사는 시주 전 0.7 답 21부이다.

2-1-2. 각곡(各谷)

---

1) 부록 표1, 표3

2) 조선말기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

3) 토지소유자이다.

4) 경작자이다.

총결수는 전 33.4부, 답 35.9부이다.
성씨는 권(權), 김(金), 양(梁), 이(李), 정(鄭). 최(崔)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권씨는 시주 전 5.8 답 22.5, 시작 전 9.9 답 13.52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0.9, 시작 전 0,8부이다.
양씨는 시주 전 8.6 답 4.9. 시작 전 8.6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8.5, 시작 답 8.5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11.5. 시작 답 7.4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6.6, 시작 전 6.6부이다.

2-1-3. 각곡(角谷)

총결수는 전 48.7부, 답 225.8부이다.
성씨는 강, 김, 박, 안, 양, 엄, 유(兪), 유(劉), 이, 임, 장, 전(全), 정,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3.9, 시작 전 3.9 답 20.6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1, 시작 전 1.1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3 답 29.5, 시작 전 1.3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1.3, 시작 전 1.3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8.8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12.6부이다.
유(兪)씨는 시작 답 12.3부이다.
유(劉)씨는 시작 전 8.3부이다.
이씨는 시작 전 0.6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5.9 답 26.9, 시작 전 5.9 답 31.3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8.9 답 58.4부이다.
전씨는 시작 답 7.1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3.9 답 26.8, 시작 전 3.9 답 26.8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12.6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0.5, 시작 전 0.5부이다.

2-1-4. 갈곶(葛串)

총결수는 전 111.8부, 답 145.1부이다.
성씨는 강, 김, 민, 박, 이, 임(林), 장(張), 정, 조,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23.4, 답 8.7, 시작 전 23.4 답 15,6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0.2 답 8.6, 시작 전 10.2 답 43.9부이다.
민씨는 시주 전 4.6 답 25.4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36.8 답 17.2, 시작 전 37.1부이다.
서씨는 시작 전 4.6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1 답 15.1, 시작 전 25.4 답 20.7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27.5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0.9, 시작 전 2.7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2, 시작 전 6.1 답 20.1부이다.
최씨는 시작 전 2.3 답 17.3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8.8 답 70.1부이다.
법인으로 용주사는 시주 전 4.1부이다.

2-1-5. 갈곶촌대(葛串村垈)

총결수는 전 260.2부, 답 7.5부이고, 대주지[5]는 108.4부 가주지[6] 128.5부에 초가가 184간이다.
성씨는 강, 김, 민, 박, 서, 송, 오, 유(劉), 이, 임, 장, 전, 조, 최, 한, 홍, 황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31.8, 시작 전 53, 가주지 4부에 초 32간이다.
김씨는 시주 전 31.7, 시작 전 41.5, 가주지 33.1부에 초 60간이다.
민씨는 시주 전 7.7, 대주지 4.5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24.5, 대주지 2.3, 시작 전 18.9 가주지 8.5부에 초 12간이다.
서씨는 시작 전 4, 가주지 7.5부에 초 36간이다.
송씨는 시작 전 3.7 가주지 3부에 초 4간이다.
오씨는 시작 전 7부이다.
유씨는 시작 전 0.6, 가주지 1.9부에 초 3간이다.
이씨는 시주 115.1, 대주지 94.8, 답 7.5, 시작 전 90.5 가주지 18, 답 7.5에 초 26간이다.
임씨는 시작 전 4.9, 가주지 4.9부에 초 6간이다.
장씨는 시작 전 19.1 가주지 3.9부에 초 5간이다.
전씨는 가주지 4.5부이다.
조씨는 시작 전 3.3, 가주지 5.5부에 초 7간이다.
최씨는 시주 전 10.7, 시주 전 2.7 가주지 3.3부에 초 5간이다.
한씨는 시주 전 40.7, 시작 전 2.7 가주지 1.4부에 초 3간이다.
홍씨는 가주지 2.4에 초 2간이다.
황씨는 가주지 2.2에 초 4간이다.

2-1-6. 갈곶촌전평(葛串村前坪)

총결수는 전 74, 답 9.8부이다.
성씨는 강, 김, 박, 엄, 오, 이, 조,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4.4, 시작 전 4.4이다.
김씨는 시주 전 31.3 답 9.8, 시작 전 48.3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4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9.8부이다.

5) 자가 소유 건물 대지이다.
6) 자가 보유 건물 대지이다.

오씨는 시주 전 10.5, 시작 전 10.5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7, 시작 전 1.7부이다.
조씨는 시작 전 9.1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12.1부이다.

2-1-7. 갈천평(葛川坪)

총결수는 시주 전 39.2, 답 187.4부이다.
성씨는 강, 김, 박, 우, 유(劉), 이, 장, 전, 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2.7 답 9.6, 시작 전 2.7 답 9.6부이다.
김씨는 시주 답 25.4, 시작 답 19.8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1.1 답 35.1 시작 전 11.1 답 50.1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1.6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39.7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62.6, 시작 답 33.4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5.6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13.7 답 21.2, 시작 전 15.3 답 21.2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10.2, 시작 전 10.2, 답 8부이다.

2-1-8. 개농평(介農坪)

총결수는 전 5.6, 답 158.7부이다.
성씨는 강, 곽, 김, 류, 변, 서, 신, 윤, 이, 임, 정(鄭), 정(丁), 최, 한씨, 법인으로 궁내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3.5 답 7.9이다.
곽씨는 시작 답 7.2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2.1 답 4.4, 시작 전 2.1 답 16.2부이다.
류씨는 시주 답 5.9, 시작 전 3.5 답 25.45부이다.
변씨는 시작 답 29.4부이다.
서씨는 시주 답 7.2부이다.
신씨는 시주 답 3.8, 시작 답 3.8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7.9, 시작 답 7.9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65.6, 시작 답 28.3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11.65부이다.
정(鄭)씨는 시주 답 16, 시작 답 12.5부이다.
정(丁)씨는 시작 답 6.7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6.1, 시작 답 6.1부이다.
한씨는 시작 답 3.5부이다.

2-1-9. 고현(姑峴)

총결수는 전 65.1, 답 215부이다.

성씨는 고, 권, 나, 박, 안, 우, 이, 장, 조,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씨는 시주 전 1.7 답 35.7, 시작 전 1.7 답 35.7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2.7 답 15.2, 시작 전 2.7 답 15.2부이다.
나씨는 시주 전 0.7 답 35.5, 시작 전 0.7 답 35.5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3.1 답 30.9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4.5, 시작 전 4.5부이다.
우씨는 시작 전 12.4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7, 시작 전 5.4부이다.
장씨는 시작 전 1.6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13.1 답 52.1, 시작 전 13.1 답 83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22.3 답 18.2, 시작 전 23 답 45.6부이다.

2-1-10. 고현촌(高峴村)

총결수는 전 22.4 대주지 19.5, 답 39, 가주지 32.7부에 초 48간이다.
성씨는 김, 박, 변(卞), 신, 안, 양, 임, 전, 정,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0.6 대주지 0.5, 답 9.9, 시작 전 2.9 가주지 1.6 답 9.9에 초 6간이다.
박씨는 시작 답 17.2부이다.
변씨는 시주 답 8.9부이다.
신씨는 가주지 1.5부에 초 2간이다.
안씨는 대주지 7.1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8.3부이다.
임씨는 가주지 0.8에 초 2간이다.
전씨는 시주 전 20.2 대주지 10.9, 답 3.4, 시작 전 17.9 가주지 8.8 답 3.4부에 초 20간이다.
정씨는 시주 전 1 답 7, 시작 전 1 가주지 4.6 답 7부에 초 9간이다.
한씨는 시주 전 0.6 답 1.5, 시작 전 0.6 가주지 2 답 1.5세 초 9간이다.

2-1-11. 곡교전평(曲橋前坪)

총결수는 이씨 대주지 0.7, 가주지 0.7부에 초 2간이다.

2-1-12. 곡교평(曲橋坪)

총결수는 전 46.3부이다
성씨는 김, 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답 33.3, 시작 답 33.3부이다.
송씨는 시주 답 13, 시작 답 13부이다.

2-1-13. 구정평(九井坪)

총결수는 전 35.1, 답 14.4부이다.
성씨는 박, 이,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박씨는 시주 전 17.1, 답 9, 시작 전 15.7 답 9부이다.
이씨는 시작 전 1.4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18 답 5.4, 시작 전 18 답 5.4부이다.

2-1-14. 기동(基洞)

총결수는 전 53, 답 368.8부이다.
성씨는 김, 오, 윤, 이, 임, 정, 조, 지, 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답 3.6, 시작 답 3.6부이다.
오씨는 시작 전 4.3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4.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3.4, 시작 전 7.1부이다.
임씨는 시주 답 49.2, 시작 답 49.2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118.6, 시작 답 118.6부이다.
지씨는 시주 답 6.4, 시작 전 6.3 답 6.4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15.4 답 191, 시작 전 15.4 답 191부이다.

2-1-15. 끽묵곡(喫墨谷)

총결수는 전 85.3, 답 7.1부이다.
성씨는 강, 김, 류, 민, 박, 양, 우, 윤, 이, 임, 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5.3, 시전 전 16.8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26.8, 시작 전 34.5부이다.
류씨는 시작 전 5.1부이다.
민씨는 시주 전 5.1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3.3, 시작 전 4.2부이다.
양씨는 시주 전 2.7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2.9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15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1.8, 시작 전 13.8, 답 7.2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6.6, 시작 전 4.8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6.1, 시작 전 6.1부이다.

2-1-16. 내동천하리(內桐泉下里)

총결수는 전 4.2 대주지 26.4, 답 85.1, 가주지26.4부에 초 69간이다.
성씨는 나, 문, 안, 우, 이, 장, 정, 지, 현, 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나씨는 가주지 0.7부에 초 2간이다.
문씨는 가주지 3.5부에 초 10간이다.
안씨는 시주 1, 대주지 4.3, 시작 전 1부이다.
우씨는 가주지 3.7부에 초 6간이다.
이씨는 대주지 6.1, 시주 답 22.2, 가주지 4.1 시작 답 58.3에 초 7간이다.

장씨는 가주지 1부에 초 3간이다.
정씨는 시작 0.7부이다.
지씨는 가주지 1.5부에 초 5간이다 .
현씨는 시주 전 2.5, 시작 전 2.5 가주지 1.2부에 초 3간
홍씨는 시주 전 0.7 대주지 14.2, 가주지 10.7, 시작 답 26.8에 초 33간이다.

2-1-17. 냉정평(冷井坪)
총결수는 전 39.5 답 520.9부이다.
성씨는 강, 고, 권, 김, 서, 양, 이, 현, 호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궁내부,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0.9 답 19.3부이다.
고씨는 시주 답 44.3, 시작 답 44.3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32.3 답 135.2, 시작 전 33.2 답 241.8부이다.
김씨는 시작 답 105.9부이다.
서씨는 시주 답 27.1부, 시작 답 14.6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104.3, 시작 답 4.5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71.8, 시작 답 65.1부이다.
현씨는 시주 답 32.1, 시작 3.4부이다.
호씨는 시주 전 6.3, 시작 전 6.3 답 31.3부이다.
법인으로 궁내부는 시주 답 60.6이다.
용주사는 시주 답 16.2부이다.

2-1-18. 노내평(路內坪)
총결수는 전 3.3, 답 20.2부이다.
성씨는 김, 이, 장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1.7, 시작 전 3.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6, 답 20.2부이다.

2-1-19. 다남곡(多男谷)
총결수는 전 1.6, 답 29.6부이다.
성씨는 강, 권, 양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8.6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1.6 답 20.4, 시작 전 1.6 답 29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0.6부이다.

2-1-20. 대평(大坪)
총결수는 답 212.2부이다.
성씨는 강, 김, 민, 박, 송, 양, 이, 장, 조,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궁내부, 용주사

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8.6, 시작 답 23.4부이다.
김씨는 시주 답 26, 시작 전 231부이다.
민씨는 시주 답 7.1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44.6, 시작 답 63.4부이다.
송씨는 시주 답 8.7, 시작 답 23.2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7.8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109.2, 시작 답 19.5부이다.
장씨는 시작 답 17.7부이다.
조씨는 시작 답 43.2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17.7, 시작 답 17.7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212.2, 시작 답 19.2부이다.
법인으로는 궁내부가 답 31.6부이고, 용주사가 31.3부이다.

2-1-21. 동천동(桐泉洞)
총결수는 이씨 전 1.5, 대주지 7부로, 와 5간 초 5간이다.

2-1-22. 동천수내평(桐泉藪內坪)
총결수는 전 5.6, 답 74.1부이다.
성씨는 안, 이,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안씨는 시주 전 3.7, 시작 전 3.7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1.4, 시작 답 1.4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1.9 답 75.7, 시작 전 1.9 답 72.7부이다.

2-1-23. 두주물(斗周勿)
총결수는 전 273.6, 답 104부이다.
성씨는 공, 권, 김, 나, 문, 백, 손, 이, 장, 정, 조, 차, 현,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씨는 시주 전 14.2, 시작 전 14.2부이다.
권씨는 시주 답 2.1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29.7, 시작 전 29.7부이다.
나씨는 시주 전 4.3, 시작 전 4.3부이다.
문씨는 시주 전 27.4 답 66.7, 시작 전 31.2, 답 66.7부이다.
백씨는 시주 전 2.9 답 4.3, 시작 전 2.9 답 4.3부이다.
손씨는 시주 전 1.9, 시작 전 1.9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0.5, 시작 전 20.5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1.7, 시작 전 1.7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55.1 답 0.7, 시작 전 55.1 답 0.7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12.4 답 2.7, 시작 전 12.4 답 2.7부이다.
차씨는 시주 전 4.2, 시작 전 4.2부이다.

현씨는 시주 전 3.8, 시작 전 3.8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95.5 답 27.5, 시작 전 95.5 답 29.6부이다.

2-1-24. 만기사전곡(萬奇寺前谷)
총결수는 답 91.1부이다.
성씨는 고, 류, 지,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씨는 시주 답 16.1부이다.
류씨는 시작 답 16.1부이다.
지씨는 시주 답 45.7, 시작 답 45.7부이다.
홍씨는 시주 답 29.3, 시작 답 29.3부이다.

2-1-25. 문달암(文達巖)
총결수는 전 23.4, 답 120.1부이다.
성씨는 김, 박, 변(卞), 송, 신, 심, 안, 예, 이, 장, 전, 정,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3.4, 시작 전 3.4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6 답 35.6, 시작 전 1.6 답 34.3부이다.
변씨는 시주 답 10.6, 시작 답 1.4부이다.
송씨는 시작 전 4.9부이다.
신씨는 시주 답 1.8, 시작 답 10.75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19.8, 시작 답 19.8부이다 .
안씨는 시주 전 0.6, 시작 전 0.6부이다.
예씨는 시작 답 19.9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4.9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26.6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6.5 답 14.4, 시작 전 6.5 답 20.7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11.3, 시작 답 13.95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6.4, 시작 전 6.4부이다.

2-1-26. 문달암곡(文達巖谷)
총결수는 답 67.7부이다.
성씨는 윤, 전, 정, 조,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윤씨는 시주 전 23.8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26.3, 시작 전 26.3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6, 시작 답 6부이다.
홍씨는 시작 답 23.8부이다.

2-1-27. 방축평(坊築坪)
총결수는 전 25.5, 답 74.2부이다.

성씨는 권, 김, 오, 임, 장, 전, 정,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권씨는 시주 답 4.4, 시작 답 4.4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2 답 2.1, 시작 전 1.2 답 15.6부이다.
오씨는 시작 전 1.2 답 3.6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12.2 답 23.7, 시작 전 12.2 답 23.7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1.2 답 17.1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18.6, 시작 답 18.6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7.4, 시작 답 7.4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10.9, 시작 전 10.9부이다

2-1-28. 사동(寺洞)
총결수는 전 1.8, 답 42.1부이다.
성씨는 문, 안,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문씨는 시주 전 0.4 답 10.1, 시작 전 0.1 답 10.1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14.6, 시작 답 14.6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1.4 답 17.4, 시작 전 1.4 답 17.4부이다.

2-1-29. 사태곡(沙汰谷)
총결수는 전 7.3, 답 67.6부이다.
성씨는 고, 권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씨는 시주 답 24.2, 시작 답 24.2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7.3 답 43.1, 시작 전 7.2 답 43.1부이다.

2-1-30. 사후기동(寺後基洞)
총결수는 전 4.3, 답 96.1부이다.
성씨는 노, 박, 변(邊), 이, 전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노씨는 시주 전 0.4, 시작 전 0.4 답 5.4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1 답 52, 시작 전 1.1 답 46.6부이다.
변씨는 시주 답 1.3, 시작 답 1.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8, 시작 전 2.8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32.8, 시작 답 32.8부이다.

2-1-31. 사후동(寺後洞)
총결수는 전 2.9, 대주지 1.5부에 초 2간이다.
성씨는 노, 이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노씨는 시주 전 1.2, 시작 전1.2 가주지 1.5에 초 2간이다.
이씨는 시주 전 1.7, 대주지 1.5,, 시작 전 1.7부이다.

2-1-32. 산후곡(山後谷)
총결수는 전 10.5, 답 56.9부이다.
성씨는 고, 권,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씨는 시주 전 5.7, 시작 전 5.7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4.8 답 44.9, 시작 전 4.8 답 44.9부이다.
홍씨는 시주 답 12부, 시작 답 12부이다.

2-1-33. 삼원곡(三院谷)
총결수는 전 33, 답 120.9부이다.
성씨는 고, 권, 이, 진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씨는 시주 전 1.7 답 31.7, 시작 전 1.7 답 18.2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21.6 답 71.3, 시작 전 21.6 답 71.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9.7 답 17.9, 시작 전 9.7 답 17.9부이다.
진씨는 시작 답 13.5부이다.

2-1-34. 상리(上里)
총결수는 전 22.9. 대주지 34.9, 답 39.7 가주지 34.9부에 초 79간이다.
성씨는 강, 공, 김, 박, 백, 안, 윤, 이, 정, 조, 차, 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가주지 2.1부에 초 3간이다.
공씨는 가지주 1.2부에 초 3간이다.
김씨는 시작 전 1.6 가주지 2.1부에 초 8간이다.
박씨는 가주지 1.3부에 초 4간이다.
백씨는 시작 답 11.2부이다.
안씨는 가주지 4.7부에 초 7간이다.
윤씨는 가주지 2.부에 초 10간이다.
이씨는 시주 전 16.6 대주지 21.3, 전 37.1, 시작 전 11.9 가주지 2.1 답 15부에 초 5간이다.
정씨는 대주지 1,6, 가주지 2.9부에 초 7간이다.
조씨는 사주 전 1 대주지 1.2 대 2.6, 시작 전 1 가주지 3.3 답 13.5에 초 4간이다.
차씨는 시작 전 3.1부이다.
홍씨는 시작 전 5.3 대주지 10.8, 시작 가주지 1.5부에 초 25간이다.

2-1-35. 소냉정(小冷井)
총결수는 전 24 답 47.6부이다.
성씨는 강, 권, 김, 민, 임, 현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4, 시작 전 4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12.3 답 34.9, 시작 전 12.3 답 41.1부이다.
김씨는 시작 전 5.8 답 6.2부이다.
민씨는 시주 답 12.4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1.9, 시작 전 1.9부이다.
현씨는 시주 전 5.8부이다.

2-1-36. 소사후동(小寺後洞)
총결수는 전 6.8 대주지 3.2, 답 111.5부이다.
성씨는 박, 변(邊), 이, 전, 정,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박씨는 시주 전 2 대주지 3.2 답 45, 시작 전 2 가주지 3.2 답 45부로 초 8간이다
변씨는 시주 전 4.8, 시작 전 4.8부이다.
이씨는 시작 답 15.75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45.8, 시작 답 45.8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14.5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6.2부이다.

2-1-37. 소청호동대(小靑湖洞垈)
총결수는 전 38.3, 대주지 18부로 초 70간이다.
성씨는 강, 김, 류, 박, 안, 유(兪), 이, 임, 장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가주지 1.1부로 초 6간이다.
김씨는 시주 전 5.9 대주지 10.3, 시작 전 5.9 가주지 8.8로 초 27간이다.
류씨는 가주지 0.8로 초 4간이다.
박씨는 시주 전 22.1, 시작 전 22.1이다.
안씨는 가주지 0.9부로 초 4간이다.
유씨는 가주지 0.6부로 초 3간이다.
이씨는 시주 전 0.9 대주지 2.7, 시작 전 0.9 가주지 1.9로 초 7간이다.
임씨는 시주 전 4.4 대주지 3.2, 시작 전 9.4 가주지 3.9로 초 13간이다.
장씨는 시주 전 2 대주지 1.8부이다.

2-1-38. 소청호전평(小靑湖前坪)
총결수는 전 13.6, 답 120부이다.
성씨는 김, 박, 양, 이, 임, 장, 전, 정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작 답 22.3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2.9, 시작 전 36.6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37.4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23.9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23.2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31.8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4.9 답 9.9, 시작 전 4.9 답 9.9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8.7 답 4.1, 시작 전 8.7 답 28부이다.

2-1-39. 수원저리평(水原這里坪)

총결수는 전 14.7, 답 102,6부이다.
성씨는 강, 김, 서, 이, 임, 정(丁), 정(鄭)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내장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13.9, 시작 답 13.9이다.
김씨는 시주 전 10.3 답 19.5, 시작 전 10.3 답 33.6부이다.
서씨는 시작 답 7.3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14.1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4.4 답 22.5, 시작 전 4.4 답 22.5이다.
정(丁)씨는 시주 답 25.3부이다.
정(鄭)씨는 시작 답 25.3부이다.
법인으로 내장원은 시주 답 7.3부이다.

2-1-40. 수원저이평(水原這伊坪)
총결수는 전 19.6, 답 2.9부이다.
성씨는 김, 서, 안, 이, 장, 정(鄭)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관둔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3.6, 시작 전 3.6부이다.
서씨는 시작 전 2.9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3.3, 시작 전 3.3부이다.
이씨는 시작 전 9.8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9.8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2.9부이다.
법인으로 관둔이 시주 전 2.9부이다.

2-1-41. 수원진위양군접계(水原振威兩郡接界)
총결수는 답 212.8부이다.
성씨는 강, 김, 민, 박, 서, 엄, 유(兪), 이, 임, 정, 한, 황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궁내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작 답 12.7부이다.
김씨는 시주 답 21.6, 시작 답 38.9부이다.
민씨는 시주 답 79.5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26.5부, 시작 답 31.4부이다.
서씨는 시작 답 5.6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7.6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7.2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52.8, 시작 답 69.3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4.8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12.7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6.9부이다.
황씨는 시작 답 6.6부이다.
법인으로 궁내부는 시주 답 12.8부이다.

2-1-42.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水原振威兩郡接界越坪)

총결수는 전 255.8, 답 208.8부이다.

성씨는 강, 공, 김, 민, 박, 송, 엄, 오, 윤, 이, 임, 장, 정, 조, 최, 한, 황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궁내부, 보광사(普光寺),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7.5, 시작 전 7.5 답 36.3부이다.

공씨는 시주 전 3.7, 시작 전 3.7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4.6 답 21.6, 시작 전 34.5 답 25부이다.

민씨는 시주 답 58.4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45, 시작 전 61.4부이다.

송씨는 시작 전 16.3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8.1부이다.

오씨는 시작 전 15.2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19.5 답 14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79.7 답 31.7, 시작 전 85.8 답 28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卜 14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5.7, 시작 전 5.7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11.4부, 시작 답 3부이다.

조씨는 시작 전 7.3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67.3, 시작 전 67.3 답 21.3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22.2 답 6.6, 시작 전 7, 답 6.6부이다.

황씨는 시작 전 5.5 답 5.1부이다.

법인으로 궁내부는 시주 답 8부, 보광사 시주 전 13부, 용주사 시주 전 22.6 답 12.1부이다.

2-1-43. 신기(新基)

총결수는 전47.3, 답 204.2부이다.

성씨는 김, 박, 신, 안, 양, 윤, 이, 장, 정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4.5, 시작 전 4.5 답 19.8이다.

박씨는 시작 전 1.1 답 90부이다.

신씨는 시작 답 9.8부이다.

안씨는 시작 전 16.7, 답 7.5부이다.

양씨는 시주 전 27.1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19.1 대주지 5, 답 62.9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7, 답 53.2, 시작 전 22 가주지 5 답 72.3으로 초 3간이다.

장씨는 시주 전 16.7, 답 61부이다.

정씨는 시작 전 3 답 4.8부이다.

2-1-44. 신촌평(新村坪)

총결수는 전 88.1, 답 3.1부이다.

성씨는 곽, 김, 류, 이, 장, 전. 최,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궁내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곽씨는 시주 전 2.7, 시작 전 2.7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9.7, 시작 전 26.9부이다.
류씨는 시주 전 8.6, 시작 전 29부이다.
이씨는 시작 전 732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1.5, 시작 전 1.5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14.7, 시작 전 14.7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8.8, 시작 전 8.8부이다.
홍씨는 시주 답 0.4, 시작 답 0.4부이다.
법인으로 궁내부는 시주 전 34.8부이다.

2-1-45. 안미동(安味洞)

총결수는 전 12.4, 답 125.8부이다.
성씨는 강, 김, 노 신, 안, 윤, 이, 임, 장. 전, 정,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작 답 11부이다.
김씨는 시작 답 15.7부이다.
노씨는 시작 답 9.3부이다.
신씨는 시작 답 27.2부이다.
안씨는 시작 답 3.1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60.8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1 답 3, 시작 답 3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10.7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18.9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7.9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2, 답 7.4, 시작 전 2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8.3 답 27.8, 시작 전 8.3 답 27.3부이다.

2-1-46. 야막후평(野幕後坪)

총결수는 전 5.4, 답 159.3부이다.
성씨는 강, 김, 류, 박, 엄, 오, 윤, 이, 한, 황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2.5 답 11.9, 시작 전 2.5 답 11.9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2.9 답 7.8, 시작 전 2.9 답 15.3부이다.
류씨는 시작 답 6.5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28.3, 시작 답 32.4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2.5부이다.
오씨는 시작 답 10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15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90.7, 시작 답 56.5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5.6, 시작 답 4.7부이다.
황씨는 시작 답 15.6부이다.

2-1-47. 어인곡(於仁谷)

총결수는 답 70.1부이다.
성씨는 김, 남, 문, 신, 조, 지,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답 17.2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3.4, 시작 답 3.4부이다 .
문씨는 시주 답 14.6. 시작 답 14.6부이다.
신씨는 시주 답 3, 시작 답 3부이다.
조씨는 시작 답 17.2부이다.
지씨는 시주 답 16, 시작 답 16부이다.
홍씨는 시주 답 15.9, 시작 답 15.9부이다.

2-1-48. 얼이평(孼伊坪)

총결수는 전 148.3, 답 9.1부이다.
성씨는 김, 남, 백, 우, 이, 정, 조, 현,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21.1, 시작 전 21.1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2.8, 시작 답 2.8부이다.
백씨는 시주 전 1.3, 시작 전 1.3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28.9, 시작 전 28.9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3부, 시작 전 3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19.6, 시작 전 19.6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15.7, 시작 전 15.7부이다.
현씨는 시주 전 21.2, 시작 전 21.2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37.5 답 6.3, 시작 전 37.5 답 6.3부이다.

2-1-49. 외동천(外桐泉)

총결수는 전 22 대주지 4.2, 가주지 4.2, 답 61.9부로 초 15간이다.
성씨는 김, 남, 박, 성, 손, 오, 우, 윤, 이, 정, 조(曺), 조(趙), 지, 한,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답 7.7, 시작 답 4.8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2.8, 시작 답 2.8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7.4 대주지 2.4, 시작 전 7.4 가주지 0.8부로 초 4간이다.
성씨는 시주 전 4.4, 시작 전 4.4 가주지 0.6부로 초 3간이다.
손씨는 시작 전 0.9부이다.
오씨는 가주지 1부로 초 4간이다.
우씨는 시주 답 0.5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0.9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36.9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8.4 답 6, 시작 전 8.4 전 6부이다.
조(曺)씨는 가주지 1.3부로 초 2간이다.
조(趙)씨는 시주 답 5.6, 시작 답 8.5부이다.

지씨는 시작 답 1.7부이다.
한씨는 가주지 0.5부로 초 2간이다.
홍씨는 시주 전 0.9 대주지 1.8, 시작 전 0.9 답 37.6부이다.

2-1-50. 우촌(牛村)

총결수는 전 57,1 대주지 15.2, 답 75.4 가주지 15.2부로 초 47간이다.
성씨는 김, 박, 백, 신, 양, 유(劉), 이, 임, 장, 전, 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6.7 대주지 6.4, 시작 전 5.1 가주지 3부로 초 10간이다.
박씨는 시주 전 37 대주지 7.1, 시작 전 35.6 가주지 9.8, 시전 답 22.8부로 초 27간이다.
백씨는 시작 전 0.8부이다.
신씨는 가주지 1.3 시전 답 7.7부로 초 5간이다.
양씨는 시주 답 0.6, 시작 답 0.6부이다.
유(劉)씨는 시작 답 1.65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 대주지 1.7부이다.
임씨는 시작 전 2,2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13.5, 시작 전 5.8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10.9 답 1, 시작 전 10.69 답 1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0.5 답 15.7, 시작 전 0.5 답 15.7부이다.
현씨는 가주지 1.1부로 초 5간이다.

2-1-51. 우촌전평(隅村前坪)

총결수는 전 51.3 대주지 0.7, 답 119.9 가주지 1.4에 초 4간이다.
성씨는 김, 박, 심, 양, 유(劉), 이, 장, 전,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7.2 대주지 0.7 답 36.5, 시작 전 6.5 답 36.5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20.5 답 14.4, 시작 전 20.5 가주지 0.7 답 19.9부에 초 2간이다.
심씨는 시주 답 13.7, 시작 답 13.7부이다.
양씨는 시주 전 5.6 답 5.5, 시작 전 5.6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26.4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26.4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11.5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14.3, 시작 전 14.3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11.4, 시작 전 11.4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3.7 답 0.5, 시작 전 3.7 답 1.1부이다.

2-1-52. 원당곡(元堂谷)

총결수는 전 39.3 대주지 2.6, 답 58 가주지 2.6부에 초 8간이다.
성씨는 강, 김, 신, 이, 임, 장, 전, 정(鄭),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2.5 답 6.1, 시작 전 2.5 답 6.1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0.5, 시작 전 0.5부이다.
신씨는 시주 전 1.1, 시작 전 1.1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5.5 대주지 2.6, 시작 전 16.6부이다.
임씨는 시작 전 5.3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17.2 답 4.4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6.2 답 13.9, 시작 전 1.3 답 13.9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6.3 답 0.9, 시작 전 7.1 가주지 2.6 답 5.3부에 초 4간이다.
한씨는 시주 답 1.3, 시작 답 1.3부이다.

2-1-53. 원당전평(元堂前坪)

총결수는 전 39 대주지 10.3, 답 275.5 가주지 10.3에 초 21간이다.
성씨는 강, 김, 박, 변(卞), 이, 임, 장, 전, 정(鄭),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덕온궁(德溫宮)[7]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4 답 1.1, 시작 전 4.8 답 1.1부이다.
김씨는 시주 답 26.6, 시작 전 136.45부이다.
박씨는 시작 답 0.4부이다.
변씨는 시주 답 27.2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8.3 대주지 8.8, 시작 전 3.9 가주지 2.5 답 39.05부에 초 6간이다.
임씨는 시주 답 1.1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158.9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35 답 10.6, 시작 전 3.5 가주지 2.1 답 10.6부에 초 5간이다.
정씨는 시주 전 23.2 대주지 10.3 답 40.8, 시작 전 26.8 가주지 5.7 답 79부에 초 10간이다.
한씨는 시주 답 8.8, 시작 답 8.8부이다.
법인으로 덕온궁은 시주 답 0.4부이다.

2-1-54. 원당후평(元堂後坪)

총결수는 전 43.2, 답 14부이다.
성씨는 김, 박, 이, 전, 정(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김씨는 시주 전 13.7 답 3.5, 시작 전 3.6 답 3.5부이다.
박씨는 시작 답 7.8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2.7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4.3 답 7.8, 시작 전 4.3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25.2 시작 전 35.7 답 2.7부이다.

2-1-55. 원미평(元味坪)

총결수는 답 113.9부이다.
성씨는 권, 김, 박, 양, 정(丁), 정(鄭)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7) 덕온공주는 조선왕조 순조(1800~1834)의 셋째 딸로 남령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에게 하가하였다.

이 중 권씨는 시주 답 10.7, 시작 답 34.3부이다.
김씨는 시작 답 21부이다.
박씨는 시작 답 16.8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14, 시작 답 13.5부이다.
정(丁)씨는 시작 답 14.1부이다.
정(鄭)씨는 시주 답 38, 시작 답 14.2부이다.
법인으로 용주사는 시주 답 37.1부이다.

2-1-56. 원미평(元尾坪)

총결수는 답 335.8부이다.
성씨는 강, 김, 박, 양, 윤, 이, 임, 전, 조,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궁내부,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16.8, 시작 답 16.8부이다.
김씨는 시작 답 64.6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59, 시작 답 26.2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8.8, 시작 답 8.8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38.1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68.3, 시작 답 82.5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19.5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21.3, 시작 답 9부이다.
조씨는 시작 답 55부이다 .
최씨는 시주 답 41.8, 시작 답 26.4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57.8, 시작 답 20.6부이다.
법인으로 궁내부는 시주 답 5.5부, 용주사는 시주 답 18.4부이다.

2-1-57. 월경(月境)

총결수는 전 26.6 대주지 8.2, 답 113.2 가주지 13.2부에 초 16간이다.
성씨는 강, 김, 노, 서, 안, 윤, 이, 전,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궁내부, 수어둔(守禦屯)[8]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20.3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6.6 답 2.7, 시작 답 27.7부이다.
노씨는 시주 전 14.1 대주지 3.2, 시작 전 14.1 가주지 3.2 답 7.4부에 초 4간이다.
서씨는 시작 답 20.3부이다.
안씨는 시작 전 1.1부이다.
윤씨는 대주지 2.9 시주 답 8.4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3 대주지 2.1 답 15.2, 시작 전 2.3 가주지 3.2 답 26.7부에 초 9간이다.
전씨는 시작 답 2.2부이다.

8) 조선왕조에서 남한산성 방어를 위해 설치한 군영의 둔전

최씨는 시주 전 3.6 답 34.6, 시작 전 9.1 가주지 1.8 답 47.6부에 초 3간이다.
한씨는 시작 답 5.3부이다.

2-1-58. 월경리(月境里)

총결수는 전 187 대주지 16.2, 답 141.4 가주지 16.2부에 초 44간이다.
성씨는 김, 나, 남, 노, 류, 박, 서, 송, 안, 우, 윤, 이, 전, 정(丁), 정(鄭), 조, 지, 최, 한,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18.9 대주지 3.9, 시작 전 18.9 가주지 1.5부에 초 5간이다.
나씨는 시주 전 0.5 답 9.8, 시작 전 0.5 가주지 0.8 답 9.8부에 초 3간이다.
남씨는 시주 전 19.2, 시작 전 19.2부이다.
노씨는 시주 전 1.4, 시작 전 7.2, 가주지 1.8, 답 21.8부에 초 4간이다.
류씨는 시작 전 1.1 가주지 1.1부에 초 3간이다.
박씨는 시주 전 11.8부이다.
서씨는 시주 답 0.5, 시작 전 13.1 답 0.5부이다.
송씨는 시주 전 0.6, 시작 전 0.6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2.5, 시작 전 3.4부이다.
우씨는 시작 전 11.8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29.4 답 80.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6 대주지 0.7 답 6.1, 시작 전 11.5 가주지 0.7 답 7.1부에 초 2간이다.
전씨는 시주 답 16.4, 시작 전 35.6 가주지 2.4, 답 73.9부에 초 5간이다.
정(丁)씨는 시주 전 1.3 답 17.8, 시작 전 1.3, 가주지 0.9 답 17.8부에 초 3간이다.
정(鄭)씨는 시주 답 3.3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3, 시작 전 3 가주지 1.3부에 초 3간이다.
지씨는 시주 전 8.7, 시작 전 8.7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22.5 대주지 11.6, 시작 전 21.4 가주지 4.7 답 3.3부에 초 14간이다.
한씨는 시주 답 7.2, 가주지 1.1 시작 답 7.2에 초 2간이다.
홍씨는 시주 전 35.5, 시작 전 15.3부이다.

2-1-59. 월하동(月下洞)

총결수는 답 56부이다.
성씨는 김, 이, 정(鄭), 조, 진, 최,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답 7.5, 시작 답 7.5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4.9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6.1, 시작 답 0.6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13.3, 시작 답 4.9부이다.
진씨는 시주 답 2.5, 시작 답 2.5부이다
최씨는 시작 답 5.5부이다.
홍씨는 시주 답 21.7, 시작 답 35부이다.

2-1-60. 응방곡(鷹方谷)
총결수는 전 2.8, 답 3.2부이다.
성씨는 고,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씨는 시주 전 1.7, 시작 전 1.7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1, 답 3.2, 시주 전 1 답 3.2부이다.

2-1-61. 장승곡(長承谷)
총결수는 전 29.5, 답 113.7부이다.
성씨는 강, 김, 노, 박, 이, 임, 장, 정(鄭)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12.9, 시작 답 12.9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5.3 답 5.1, 시작 전 3.7 답 53.5부이다.
노씨는 시작 전 4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1.1 답 61.2, 시작 전 11.1 답 35.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4 답 14.7, 시작 전 8.1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11.1, 시작 전 11.1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7.8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28 답 12, 시작 전 21.5 답 12부이다.

2-1-62. 쟁쟁곡(錚錚谷)
총결수는 전 136.7 대주지 3.4, 답 358.2 가주지 3.4부에 초 7간이다.
성씨는 구, 노, 류, 박, 변(邊), 안, 이, 정, 한,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구씨는 시주 전 9, 답 9, 시작 전 9 답 9부에다.
노씨는 시작 전 4.8, 답 85.5부이다.
류씨는 시작 답 5.7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43.6 답 104, 시작 전 59.8 가주지 1 답 69.3부에 초 3간이다.
변씨는 시주 전 7.7 대주지 1.5 답 10.1, 시작 전 2.8 가주지 1.5 답 10.1에 초2간이다.
안씨는 시주 전 8.7 대주지 0.9 답 24.3, 시작 전 2.2 답 22.2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61.2 대주지 1 답 73, 시작 전 29.6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0.4, 시작 전 1.9 답 2.8부이다.
최씨는 시작 전 20.6 가주지 0.9 답 26.7부에 초 2간이다.
한씨는 시주 답 10.6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6 답 116.2, 시작 전 6 답 126.2부이다.

2-1-63. 접죽곡(接竹谷)
총결수는 전 4.9 답 52.5부이다.
성씨는 김, 노, 임, 정, 현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작 답 20.2부이다.
노씨는 시작 전 4.9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32.3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4.9 답 5.3부이다.
현씨는 시주 답 47.2부이다.

2-1-64. 창갈평(蒼葛坪)

총결수는 전51.1, 답 570.9부이다.
성씨는 강, 권, 김, 노, 민, 박, 변(邊), 안, 양, 오, 유(兪), 이, 임, 장, 전. 정(丁), 정(鄭),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교궁위(校宮位)[9], 내장원(內藏院)[10],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작 답 49.3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23.2 답 75.6, 시작 전 31.1 답 134.5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0 답 36.3, 시작 전 10 답 112.5부이다.
노씨는 시작 답 14.8부이다.
민씨는 시주 답 53.2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8.9, 시작 답 20.4부이다.
변씨는 시주 답 18.4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10.2, 시작 답 10.2부이다.
양씨는 시주 전 1.5 답 30.8, 시작 전 1.5 답 30.8부이다.
오씨는 시작 답 28.1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21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9 답 95.4, 시작 전 1.1 답 74.7부이다.
임씨는 시주 답 11.2, 시작 답 20.2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9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7.9, 시작 답 8.8부이다.
정(丁)씨는 시주 전 7.4, 시작 전 7.4부이다.
정(鄭)씨는 시주 답 67.7, 시작 답 45.6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20.4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59.8부이다.
법인으로 교궁위는 시주 답 21부이고, 내장원은 시주 답 38.6부, 용주사 시주 답 6.3부이다.

2-1-65. 청양곡(靑陽谷)

총결수는 전 4.7, 답 231.5부이다.
성씨는 김, 류, 박, 백, 신, 이, 장, 전, 정(鄭), 피,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1.2 답 15.4, 시작 전 1.2 답 15.4부이다.
류씨는 시작 답 8.4부이다.
박씨는 시작 답 3.6부이다.
백씨는 시작 답 6.6부이다.

9) 각 지방 문묘(文廟)의 위토
10) 조선왕조 말, 대한제국 시기 왕실 경비를 관할하던 관청

신씨는 시주 답 14.7, 시작 답 14.7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6 답 69.7, 시작 전 1.6 답 61.3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10.2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1.9 답 17.8, 시작 전 1.9 답 17.8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22.6, 시작 답 22.6부이다.
피씨는 시주 답 13.8, 시작 답 13.8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3, 시작 답 3부이다.

2-1-66. 치우현(致雨峴)
총결수는 답 58.1부이다.
성씨는 박, 이, 전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박씨는 시주 답 44.2, 시작 답 3.9부이다.
이씨는 시작 답 40.3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13.9, 시작 답 13.9부이다.

2-1-67. 편교평(片橋坪)
총결수는 전 2.4, 답 244.1부이다.
성씨는 강, 권, 김, 노 박, 백, 심, 안, 유(劉), 유(兪), 이, 임, 장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작 답 7.6부이다.
권씨는 시주 답 20.3, 시작 답 20.3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2.1 답 58.1, 시작 전 2.1 답 70.5부이다.
노씨는 시작 답 22.35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14, 시작 답 19.2부이다.
백씨는 시작 답 11.85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53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8.2, 시작 답 27.3부이다.
유(劉)씨는 시작 답 9.4부이다.
유(兪)씨는 시작 답 9.2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32.7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0.3 답 32.6, 시작 전 0.3 답 46.4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25.2부이다.

2-1-68. 하창갈(下蒼葛)
총결수는 전 22.8, 답 412.9부이다.
성씨는 권, 김, 박, 양, 이, 정, 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권씨는 시주 전 8.4 답 257.1, 시작 전 18.1 답 313.8부이다.
김씨는 시작 답 30.7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4.7, 시작 전 4.7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39.7, 시작 전 2.5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62.1, 시작 답 32.9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29, 시작 답 8.2부이다.
최씨는 시작 답 17.8부이다.
법인으로 용주사는 시주 전 10 답 25부이다.

2-1-69. 하청호(下靑湖)

총결수는 전 7.7 대주지 2.6, 답 110.7 가주지 2.6부에 초 3간이다.
성씨는 김, 박, 송, 심, 유(劉), 이, 전, 정.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김씨는 시주 전 7.7 대주지 2.6, 시작 전 7.7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6.5, 시작 답 6.5부이다.
송씨는 시주 답 11, 시작 답 11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21.2, 시작 답 21.2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29.6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60.6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8.9, 시작 답 8.9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2.5부이다.
최씨는 가주지 2.6 시작 답 17.6부에 초 3간이다.
한씨는 시작 13.4부이다.

2-1-70. 합당곡(合堂谷)

총결수는 전 9.8, 답 26.9부이다.
성씨는 강, 김, 노, 심, 이, 임, 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5.2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5.7 답 14, 시작 전 5.7, 답 14부이다.
노씨는 시작 답 10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2.9, 시작 답 2.9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5, 시작 전 1.5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2.6, 시작 전 2.6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4.8부이다.

2-1-71. 합평(蛤坪)

총결수는 전 117.4, 답 414부이다.
성씨는 강, 곽, 권, 김, 류, 박, 서, 송, 안, 양, 윤, 이, 장, 전, 정(丁), 정(鄭), 조,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5.8 답 27.1, 시작 전 5.8 답 33.9부이다.
곽씨는 시작 답 10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61.2 답 12.7, 시작 전 48.4 답 56.5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3.4 답 9.8, 시작 전 3.4 답 51.1부이다.
류씨는 시작 답 13.8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5.5 답 46.3, 시작 전 11.8 답 38.3부이다.
서씨는 시주 전 1.8 답 21.9, 시작 전 1.8 답 21.9부이다.
송씨는 시주 전 3.2, 시작 전 3.2 답 17.3부이다.
안씨는 시작 답 13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5.4, 시작 전 5.7 답 0.9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46.4, 시작 답 4.5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1.4 답 131.1, 시작 전 22.1 답 55.1부이다.
장씨는 시작 답 10.2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12.5, 시작 답 12.5부이다.
정(丁)씨는 시작 답 16부이다.
정(鄭)씨는 시주 전 11.6 답 49.3, 시작 전 11.6 답 49.3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12.6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3.5 답 1.2, 시작 전 3.5 답 1.2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16.6부이다.
법인은 용주사가 시주 답 12.1부이다.

2-1-72. 해현하원당곡(蟹硯下元堂谷)

총결수는 전 10.9, 답 147.7부이다.
성씨는 김, 윤, 이, 임, 장, 전, 정(鄭),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덕온궁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작 전 2.3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52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6.4, 시작 전 6.4 답 3.1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22.1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2.3 답 25.2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11.7, 시작 답 11.7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2.2 답 36.6, 시작 전 2.2 답 88.6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10.9, 시작 답 22.2부이다.
법인은 덕온궁이 시주 답 11.3부이다.

2-1-73. 해현평(蟹峴坪)

총결수는 답 54.1부이다.
성씨는 김, 이, 전, 정(鄭), 조,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답 20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5.9, 시작 답 5.9부이다.
전씨는 시주 답 16, 시작 답 16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8.9, 시작 답 8.9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3.6, 시작 답 3.6부이다.
홍씨는 시작 답 20부이다.

2-1-74. 호현(虎峴)

총결수는 전 62.9 대주지 2, 답 12.9 가주지 2부에 초 4간이다.

성씨는 박, 서, 윤, 이, 정(鄭), 조, 지,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동천동중(桐泉洞中)[11]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박씨는 시주 답 1, 가주지 1.2, 시작 답 1부에 초 2간이다.

서씨는 시주 전 0.3, 시작 전 1.7 가주지 0.8 답 5.6부에 초 2간이다.

윤씨는 시주 답 2.9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8.6 대주지 2, 답 5.6, 시작 전 7.2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15.7 답 3.4, 시작 전 15.7 답 3.4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1.5, 시작 전 1.5부이다.

지씨는 시주 전 8.4, 시작 전 8.4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12.8, 시작 전 12.8부이다.

2-1-75. 화도평(化島坪)

총결수는 전 70.8, 답 140.8부이다.

성씨는 권, 김, 류, 민, 박, 윤, 이, 임, 정(鄭),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권씨는 시주 전 7.2 답 21.5, 시작 전 7.2 답 21.5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3 답 31.6, 시작 전 1.3 답 33.4부이다.

류씨는 시주 답 4.7, 시작 답 4.7부이다.

민씨는 시주 답 11.6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42.1 답 24.9, 시작 전 42.1 답 38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1.9, 시작 전 1.9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3.1 답 10.8, 시작 전 13.9 답 11.8부이다.

임씨는 시주 답 8.2, 시작 답 8.2부이다.

정씨는 시작 답 11.3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4.4, 시작 전 4.4 답 8.2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4.3부이다.

법인으로 용주사는 시주 전 10.8 답 19.5부이다.

2-1-76. 황생평(篁笙坪)

총결수는 전 168.8, 답 78.2부이다.

성씨는 곽, 김, 류, 문, 박, 변(邊), 심, 안, 윤, 임, 전, 최,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교궁위, 궁내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곽씨는 시주 전 3.6, 시작 전 3.6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6.3 답 2.8, 시작 전 16.3 답 12.8부이다.

류씨는 시주 전 12.4, 시작 전 16, 답 13.2부이다.

11) 동천동 마을 위토이다.

문씨는 시주 전 11.9, 시작 전 11.9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27.2, 시작 답 2.8부이다.
변씨는 시주 전 13.8, 시작 전 13.8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7.5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12.8, 시작 전 12.8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5.3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15.6, 시작 전 15.6 답 0.7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17.8 답 22.7, 시작 전 17.8 답 22.7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30.4 답 8.6, 시작 전 30.4 답 22.6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30.6 답 3.4, 시작 전 30.6 답 3.4부이다.
법인은 교궁위가 시주 전 3.6부, 궁내부가 시주 답 0.7부이다.

2-1-77. 황성평(篁成坪)

총결수는 전 8, 답 35.6부이다.
성씨는 김, 노, 류, 변(邊), 심, 이, 정, 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궁내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2.5, 시작 전 2.5부이다.
노씨는 시작 답 13.4부이다.
류씨는 시주 전 0.9, 시작 전 0.9부이다.
변씨는 시작 답 14.8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13.4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14.8, 시작 답 6.6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4.6, 시작 전 4.6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0.8, 시작 답 0.8부이다.
법인은 궁내부가 시주 답 6.6부이다.

2-1-78. 황성평(黃成坪)

총결수는 전 157.6, 답 635부이다.
성씨는 강, 공, 김, 남, 류, 백, 변(邊), 서, 손, 심, 안, 우, 윤, 이, 임, 장, 전, 조, 최,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궁내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18.2부이다.
공씨는 시주 전 6.5, 시작 전 6.5 답 21.6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6.9 답 65.3, 시작 전 6.9 답 145.2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14.2, 시작 답 14.2부이다.
류씨는 시주 전 1.2, 시작 전 1.2 답 43.9부이다.
백씨는 시주 전 3.9, 시작 전 3.9부이다.
변씨는 시작 답 54.8부이다.
서씨는 시주 전 7.4 답 13, 시작 전 7.1 답 1.9부이다.
손씨는 시주 전 15.2, 시작 전 15.2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1.1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13.1 답 22.5, 시작 전 13.1 답 22.5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4 답 20.2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13.2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1.7 답 195.9, 시작 전 11.7 답 21.8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27.1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2.6, 시작 전 2.6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1.2 답 14.2, 시작 전 1.2 답 14.2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20.2 답 6, 시작 전 20.2 답 22.6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8.4 답 108, 시작 전 8.4 답 131.2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55.3 답 92.5, 시작 전 55.3 답 115.9부이다.
법인은 궁내부가 시주 답 41.7부이다.

2-1-79. 후곡(後谷)

총결수는 전 38.7 대주지 3, 답 86.9 가주지 3에 초 11간이다.
성씨는 김, 서, 안, 오, 유(劉), 이, 임, 장, 전, 정(鄭),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내장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11.6 대주지 0.9 답 13.2, 시작 전 18.7 답 22.6부이다.
서씨는 시작 전 3.1 답 11.6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4.8, 시작 전 4.8부이다.
오씨는 시작 전 0.7 가주지 1.3부에 초 3간이다.
유씨는 시주 전 8.7 대주지 1.3, 시작 전 2.6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9.4, 시작 답 26.3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0.8 대주지 0.8 답 4.4, 시작 전 0.8 답 4.4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0.8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2.1 답 20.3, 시작 전 2.1 가주지 3 답 20.3부에 초 6간이다.
정씨는 시주 전 5.9 답 28, 시작 전 3.6 가주지 0.9 답 1.7부에 초 2간이다.
최씨는 시주 전 2.3, 시작 전 2.3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4부이다.
법인은 내장원이 시주 전 3.1 답 11.6부이다.

2-2. 마산면

전답 전 2,464.6부, 답 8,654.7부, 도합 11,119.1부, 호구 157호로, 호당 평균 전 15.7부, 답 55.1부 도합 70.8부이며, 초가가 559간 수용(水舂)이 1좌이다.

2-2-1. 내곡(內谷)

총결수는 전 70.2 대주지 12.5, 답 463.4 가주지 12.5부에 초 28간이다.
성씨는 김, 남, 노, 박, 서, 송, 안, 이, 정(鄭), 최,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내수사(內需司)[12]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김씨는 시작 전 7.2 가주지 1.2 답 42.2부에 초 2간이다.

남씨는 시주 답 25.1, 시작 답 25.1부이다.
노씨는 시주 전 3 답 5.3, 시작 전 5.7 가주지 1.5 답 22.2부에 초 3간이다.
박씨는 시주 답 16.5, 시작 답 5.9부이다.
서씨는 시주 답 74.2, 시작 답 15.6부이다.
송씨는 시주 답 42.9, 시작 답 51.6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39.5, 대주지 11.3 답 106.8, 시작 전 36.8 가주지 7.3 답 131.2부에 초 17간이다.
이씨는 시주 전 14.8 대주지 1.2 답 192.5, 시작 전 7.6 가주지 1.6 답 146.2부에 초 3간이다.
정씨는 시주 전 2.4, 시작 전 2.4부이다.
최씨는 시작 답 25.4부이다.
홍씨는 시작 전 2.5 가주지 0.9부에 초 3간이다.
법인은 내수사가 시주 전 235부이다.

2-2-2. 도감동(都監洞)

총결수는 전 139.9, 답 502.1부이다.
성씨는 김, 맹, 박, 송, 윤, 이, 정, 조,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향탄(香炭)[13]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작 답 10.6부이다.
맹씨는 시주 전 13.4, 시작 전 13.4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3.4, 시작 전 3.4부이다.
송씨는 시주 답 10.6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17.5, 시작 전 17.5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0.2 답 37.2, 시작 전 10.2 답 37.2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86.8 답 359.2, 시작 전 86.8 답 348.5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37.9, 시작 답 10.3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4.5, 시작 답 4.5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8.6 답 4.2, 시작 전 8.6 답 4.2부이다.
법인은 향탄이 시주 답 9.5부이다.

2-2-3. 동막(東幕)

총결수는 전 281.8 대주지 23.3, 답 699.3 가주지 20.3부에 초 75간이다.
성씨는 강, 김, 남, 류, 박, 윤, 이, 장, 조, 최, 한,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19.6, 가주지 0.9 시작 답 17.6부에 초 3간이다.
김씨는 시주 전 32.4 대주지 5.8 답 25, 시작 전 45.8 가주지 5.1 답 81부에 초 22간이다.
남씨는 시주 답 22.3부이다.
류씨는 시주 전 4.2, 시작 전 4.2부이다.

12) 조선왕조 왕실 재정 관할 관청
13) 능의 제사에 쓰는 향과 숯 비용 공급 토지로, 여기서는 인근 정조대왕능인 건릉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시주 전 3.7 답 3.3, 시작 전 3.7 답 3.3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23.1, 시작 답 9.7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03.4 대주지 2.8 답 349.6, 시작 전 89.5 가주지 9.2 답 319.8부에 초 31간이다.
장씨는 시주 전 14.1 대주지 1.3, 시작 전 15.3 가주지 3.2 답 3부에 초 10간이다.
조씨는 시주 전 33.1 답 2.7, 시작 전 43.6 가주지 1.8 답 28.4에 초 8간이다.
최씨는 시주 전 35.4 대주지 5.8 답 62.4, 시작 전 37.4 답 62.4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43.5 대주지 6.4 답 187.2, 시작 전 41.1 답 168.4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12 대주지 1.1 답 4.1, 시작 전 12 답 4.1부이다.

2-2-4. 동막동(東幕洞)

총결수는 답 312.1부이다.
성씨는 윤, 정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윤씨는 시주 답 10.8, 시작 답 10.8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301.3, 시작 답 301.3부이다.

2-2-5. 마루평(馬樓坪)

총결수는 전 44.1 대주지 1.7, 답 1567.9 가주지 1.7부에 수용(水舂) 1좌이다.
성씨는 강, 김, 남, 노, 류, 박, 변(邊), 서, 송, 신, 심, 안, 양, 엄, 우, 유(兪), 유(劉), 윤, 이, 임, 장, 전(全), 전(田), 정, 조, 최, 한,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교궁, 내수사, 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110.8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3 답 66.5, 시작 전 3 가주지 1.7 전 234.3부에 수용 1좌이다.
남씨는 시작 답 27.9부이다.
노씨는 시주 답 18.5, 시작 답 28.3부이다.
류씨는 시주 전 10.7 답 30, 시작 전 10.7 답 277.3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13.6, 시작 답 36.8부이다.
변씨는 시주 전 20.2 답 12.5, 시작 전 20.2부이다.
서씨는 시주 전 6.8 답 22.8, 시작 전 6.8 답 66.45부이다.
송씨는 시주 답 17.5, 시작 답 17.5부이다.
신씨는 시주 답 32.9, 시작 답 11.6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19.8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13.5, 시작 답 43.5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5.3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10.9부이다.
우씨는 시주 답 8.8부이다.
유(兪)씨는 시작 답 24부이다.
유(劉)씨는 시작 답 48.5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80.5, 시작 전 8.8부이다.

이씨는 대주지 1.7 시주 답 467.3, 시작 답 149.4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42.35부이다.
장씨는 시작 답 23.7부이다.
전(全)씨는 시주 전 0.5 답 26.2, 시작 전 0.5 답 73.8부이다.
전(田)씨는 시주 답 0.8, 시작 전 85.5부이다.
정씨는 시작 답 17.1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113, 시작 답 19.8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2.9 답 195.5, 시작 전 2.9 답 247.35부이다.
한씨는 시작 답 47.45부이다.
홍씨는 시작 답 15.4부이다.
법인은 교궁이 시주 답 24부이고, 내수사가 답 79.3부이며, 향탄이 답 170.3부이다.

2-2-6. 산대(山垈)

총결수는 전 136.1 대주지 6.3, 답 4.4, 가주지 6.3부에 초 13간이다.
성씨는 전(全), 정, 조,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全)씨는 시주 전 8.9, 시작 전 10.1 가주지 1.8에 초 4간이다.
정씨는 시주 전 94.3 대주지 6.2 답 4.4, 시작 전 94.9 가주지 4.5 답 4.4에 초 9간이다.
조씨는 시주 전 31.4, 시작 전 29.6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1.5, 시작 전 1.5부이다.

2-2-7. 와곡(瓦谷)

총결수는 전 84.7 대주지 7.8 답 453.9 가주지 7.8부에 초 14간이다.
성씨는 강, 남, 노, 박, 백, 변(邊), 서, 송, 심, 안, 우, 이, 전(田), 정, 최, 현,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교궁, 내수사, 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11.2 답 1.1, 시작 답 1.1부이다.
남씨는 시주 전 2.8 답 76.7, 시작 전 1.4 답 39.3부이다.
노씨는 시작 답 13.1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7, 시작 전 1.3부이다.
백씨는 대주지 1.5, 가주지 1.5 시작 답 32.6부에 초 3간이다.
변씨는 시주 답 11.8부이다.
서씨는 시주 답 71.8, 시작 답 38.3부이다.
송씨는 시주 전 13 답 19.7, 시작 전 13 가주지 3.1 답 26.1에 초 2간이다.
심씨는 대주자 0.5 가주지 0.5에 초 3간이다.
안씨는 시주 전 17.6 답 40.2 시작 전 17.6 답 84.2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8.5 답 42.2, 시작 전 8.5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3.7 대주지 5.8 답 150.4, 시작 전 38.3 가주지 2 답 137.2부에 초 4간이다.
전(田)씨는 시작 답 10.9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0.3, 시작 전 16.9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2.8, 시작 전 4.2 답 44.1부이다.

현씨는 가주지 0.7 시작 답 9부에 초 2간이다.
홍씨는 시작 답 2.2부이다.
법인은 교궁이 시주 답 2,2부이고, 내수사가 시주 전 1.3 답 16.3부이며, 향탄이 시주 전 1.7 답 20.6부이다.

2-2-8. 와동(瓦洞)

총결수는 전 106.7 대주지 13, 답 692.2 가주지 13부에 초 27간이다.
성씨는 강, 김, 남, 노, 류, 박, 백, 변(邊), 서, 손, 송, 안, 엄, 윤, 이, 임, 장, 전(田), 정, 조, 최, 현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교궁, 내수사, 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59.1부이다.
김씨는 가주지 0.6 시작 답 70.5부에 초 2간이다.
남씨는 시주 전 3 대주지 0.7 답 4.8, 시작 전 6.2 가주지 1.4 답 4.8에 초 5간이다.
노씨는 시작 답 15.8부이다.
류씨는 시주 전 3.8 답 2, 시작 전 23.1 답 61.8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7.9 답 9.2, 시작 답 53.5부이다.
백씨는 시작 답 16.4부이다.
변씨는 시작 답 38.6부이다.
서씨는 시주 답 25.9부이다.
손씨는 시작 답 6.7부이다.
송씨는 시주 전 19.3 답 46.2, 시작 답 37.5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25.8, 시작 전 6.7 답 13.7부이다.
엄씨는 시주 전 3.1, 시작 전 3.1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12 답 19.2, 시작 전 5.3 답 12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50.6 대주지 12.3 답 309.4, 시작 전 50.2 가주지 10 답 249.1부에 초 17간이다.
임씨는 시작 답 15.8부이다.
장씨는 시작 답 2.1부이다.
전씨는 시작 전 1.2부이다.
정씨는 가주지 1 시작 전 14부에 초 3간이다.
조씨는 시주 전 3.1, 시작 전 3.1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3.9, 시작 전 8 답 62.1부이다.
현씨는 시작 답 11.2부이다.
법인은 교궁이 시주 답 7.4부, 내수사가 시주 답 2.1부, 향탄이 시주 답 133.4부이다.

2-2-9. 우곡(牛谷)

총결수는 전 336.3 대주지 89.2, 답 1541.9 가주지 94.7부에 초 188간이다.
성씨는 강, 고, 권, 김, 남, 노, 류, 박, 변(邊), 서, 소, 손, 송, 심, 안, 엄, 우, 유(劉), 윤, 이, 인, 임, 장, 전(全), 전(田), 정, 조, 주, 최, 한, 현,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내수사, 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4.5 답 43.5, 시작 전 4.5 가주지 0.7 답 5.6부에 초 2간이다.

고씨는 시작 답 18.6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2.4 답 8.2, 시작 전 2.4 가주지 2.2 답 8.2부에 초 3간이다.
김씨는 시주 전 68.6 대주지 5.2, 답 58.5, 시작 전 76.4 가주지 8.4 답 55.6부에 초 15간이다.
남씨는 시주 전 1.9 답 20.2부이다.
노씨는 시주 전 1.9 대주지 2 답 10.7 시작 전 1.9 가주지 1 답 36.9부에 초 6간이다.
류씨는 시작 전 0.4 가주지 2.7 답 67.4부에 초 8간이다.
박씨는 시작 전 6.5 대주지 1.9 답 19.4, 시작 전 5.4 가주지 5 답 23.5부에 초 10간이다.
변씨는 시작 답 11.3부이다.
서씨는 시주 전 75.6 대주지 13.1 답 152.8, 가주지 1.2 시작 답 31.5부에 초 2간이다.
소씨는 시주 답 8.6, 시작 답 8.6부이다.
손씨는 가주지 3.2 시작 답 9.3부에 초 8간이다.
송씨는 시주 전 5.7 대주지 10.4, 답 15.2, 사작 전 6.8 가주지 1 답 15.2부에 초 2간이다.
심씨는 시작 답 42.4부이다.
안씨는 시작 답 26.3부이다.
엄씨는 대주지 0.8, 가주지 0.8부에 초 3간이다.
우씨는 시주 전 28.6 대주지 30.2 답 232, 시작 전 46.25 가주지 19 답 220부에 초 29간이다.
유씨는 시작 답 35.5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0.8 답 63.7, 시작 전 0.8 가주지 2.1 답 56.6부에 초 2간이다.
이씨는 시주 전 117.5 답 616.6, 시작 전 151.2 가주지 36.5 답 533.3부에 초 70간이다.
인씨는 사작 답 15부이다.
임씨는 가주지 1.3 시작 답 20.9에에 초 3간이다.
장씨는 시작 답 54.5부이다.
전(全)씨는 시작 답 6.7부이다.
전(田)씨는 시작 전 0.6 가주지 0.7부에 초 2간이다.
정씨는 시작 답 20.2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21.1 답 75.9, 시작 전 21.1 답 27.4부이다.
최씨는 대주지 3.7 시주 답 20.8, 시작 전 3.9 가주지 7.9 답 57.2부에 초 20간이다.
한씨는 시주 답 46.3, 시작 답 46.3부이다.
현씨는 대주지 1.5, 가주지 1.5 시작 답 5.6에 초 2간이다.
홍씨는 시주 답 21.1부이다.
법인은 내수사가 시주 전 1.2 답 50.6부, 향탄이 시주 답 77.8부이다.

2-2-10. 월경전평(月境前坪)

총결수는 전 737.8 대주지 89.7, 답 1744.2 가주지 77.6부에 초 136간이다.

성씨는 강, 곽, 김, 나, 노, 류 ,맹, 문, 박, 변(邊), 서, 설, 송, 신, 심, 안, 양, 연, 우, 윤, 이, 장, 전(全), 전(田), 정(丁), 정(鄭), 조, 최, 한, 홍, 황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교궁, 무위영(武衛營)[14], 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14) 조선왕조 대궐 수비 관아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17.2부이다.
곽씨는 시작 답 9.2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98.6 대주지 12.9 답 162.5, 시작 전 88 가주지 13.5 답 248.9에 초 27간이다.
나씨는 시작 답 9.9부이다.
노씨는 가주지 1.9 시작 답 28.1부에 초 5간이다.
류씨는 시주 전 3.4 답 17.3, 시작 전 3.4 답 17.3부이다.
맹씨는 시주 전 11.2 답 104.4부이다.
문씨는 시주 전 3.9 시작 전 6.7 가주지 3부에 초 6간이다.
박씨는 시주 답 12.9, 시작 전 2 답 12.9부이다.
변씨는 시주 답 29.7, 시작 전 10.4 가주지 5부에 초 8간이다.
서씨는 시주 전 1.6 대주지 3.6 답 18.6, 시작 전 42 가주지 8.1 답 42.3부에 초 17간이다.
설씨는 시주 전 6.6부이다.
송씨는 가주지 4.8 시작 답 11.5부에 초 2간이다.
신씨는 시주 전 2.6, 시작 전 2.6부이다.
심씨는 시주 전 3.2 답 125.9, 시작 전 3.2 가주지 1.5 답 42.3부에 초 3간이다.
안씨는 시주 답 2.4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0.5부이다.
연씨는 시작 전 6.6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58.5 대주지 7.9, 답 62.8, 시작 전 67 가주지 6.5 답 187.2부에 초 11간이다.
윤씨는 시주 전 55.1 대주지 5.9, 시작 전 26.8 답 55.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25.1 답 356.1, 시작 전 98.7 답 126.5부이다.
장씨는 가주지 1.2부에 초 3간이다.
전(全)씨는 시주 전 4.1 가주지 6 답 13.1, 시작 전 10.2 가주지 8.8 답 62.3부에 초 21간이다.
전(田)씨는 시주 답 10.5, 시작 답 10.5부이다.
정(丁)씨는 시주 전 89.7 답 34.6, 시작 전 89.7 가주지 2.3 답 34.6부에 초 5간이다.
정(鄭)씨는 시주 전 155.4 답 227.8, 시작 전 152.6 가주지 10.1 답 466.8부에 초 23이다.
조씨는 시주 전 11.9 대주지 7.7, 답 126.1, 시작 전 11.9 가주지 3.9 답 44.5부에 초 6간이다.
최씨는 시주 전 61.8 대주지 14.3 답 228.6, 시작 전 80.1 가주지 8.6 답 275.6부에 초 12간이다.
한씨는 대주지 1.5, 가주지 1.5 시작 답 16.1부에 초 4간이다.
홍씨는 시주 전 2.9, 사작, 전 2.9 가주지 6.1부에 초 2간이다.
황씨는 시주 답 4, 시작 답 4부에다.
법인은 교궁이 시주 답 26.6부, 무위영이 시주 답 1부, 향탄이 시주 전 34.3 대주지 13.7 답 128.2부이다.

2-2-11. 장구평(長九坪)

총결수는 전 243.4 대주지 23.2, 답 663.8 가주지 23.2부에 초 50간이다.
성씨는 곽, 김, 맹, 문, 박, 변(邊), 서, 우, 윤, 이, 장, 전(全), 정(丁), 정(鄭), 조, 최, 한, 홍씨이고, 법인은 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곽씨는 시작 답 2.7부이다.

김씨는 시작 답 18.5부이다.
맹씨는 시주 답 6.1, 시작 답 6.1부이다.
문씨는 시주 전 1.4, 시작 전 1.4부이다.
박씨는 가주지 2, 시작 답 8.9부에 초 4간이다.
변씨는 시주 답 29.6부이다.
서씨는 시주 전 17.6 답 3.1, 시작 전 22.5 답 3.1부이다.
심씨는 시주 답 25.4, 시작 답 25.4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4.9, 답 69.5, 시작 전 4.3 답 69.5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11 대주지 1.1 답 2.6, 시작 전 16.1 가주지 3.6 답 8.2부에 초 12간이다.
이씨는 시주 전 7 대주지 2.5 답 62.1, 시작 전 6.4 답 64.8부이다.
장씨는 시작 답 33.2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2.1 답 27.5, 시작 전 2.1 답 36.3부이다.
정(丁)씨는 시주 전 0.6 답 8.3, 시작 전 0.6 답 8.3부이다.
정(鄭)씨는 시주 전 167.9 대주지 19.6 답 273.3, 시작 전 172.4 가주지 17.6 답 311부에 초 34간이다.
조씨는 시주 답 5, 시작 답 5.8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3.2 답 41.1, 시작 전 3.2 답 48.2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2.8, 시작 전 2.8부이다.
홍씨는 시주 답 10.7, 시작 답 10.7부이다.
법인은 향탄 시주 전 13.9 답 94.3부이다.

3. 주요 성씨별, 호주(법인)별 현황[15)]

3-1. 일북면

호당 평균 전 22.46부, 답 61.9부, 도합 84.3부이다. 호주(법인)는 이 면 평균을 상당정도 상회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3-1-1. 강씨

전 112.6부, 답 532.3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강영호가 가루평, 갈곶, 갈곶촌대, 갈곶촌전평, 끽묵곡, 창갈평, 합당곡, 합평, 대평,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 원미평에 전 24.4, 답 47.7부를 소유하고 전 27.1부 답 111.1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16)]에 해당하고, 강창성이 개농평, 냉정평, 다남곡, 월경, 황성평에 전 4.4부, 답 74.3부를 소유하고, 전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2. 권씨

전 188.3부, 답 866.2부를 소유하고 있다.

15) 부록 표2, 표4
16)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5.2)지주제의 유형과 동향」

호주별로는 권이쇠가 냉정평, 창갈평, 하창갈, 합평에 전 28.3부, 답 130.3부를 소유하고 전 22.6부, 답 130.3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에 해당한다.

3-1-3. 김씨

전 400.6부, 답 641.1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김백출이 각곡, 방축평, 우촌, 우촌전평, 하총호, 후곡, 소총호동대, 원당전대, 창갈평, 편교평, 합당곡에 전 38.3부, 답 121.5부를 소유하고, 전 39.7부, 답 135.5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김성옥이 갈곶촌대, 갈곶촌전평, 대평,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 야막후평, 합평, 화도평, 원미평에 전 16.6부 답 41.6부를 소유하고, 전 24.3부 답 105.1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김응삼이 가루평, 대평,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 창갈평, 편교평, 화도평에 답 96.2부를 소유하고 이 중 31.5부를 경작하며 나머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김천분이 각곡, 냉정평, 소청호동대, 우촌, 편교평, 하창갈에 전 9.2부 답 22,8부를 소유하고, 전 7부 답 104.8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3-1-4. 민씨

전 17.4부, 답 347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민성덕이 가루평, 갈곶, 갈곶촌대, 수원진위양군접계에 전 12.3부 답 193부를 소유하고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민성학이 대평, 화도평, 소냉저, 창갈평, 갈곶촌대,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에 답 142부를 소유하고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5. 박씨

총결수는 전 375.3부, 답 1034.3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박석산이 전 44.5부 답 187.5부를 소유하고, 전 4.2부 답 44.9부를 경작하며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박충기가 소사후동, 쟁쟁곡, 사후기동, 치후현에 전 7부 답 194.9부를 소유하고, 이 중 전 7를 제외하고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6. 양씨

전 18.4부, 답 315.8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양성업이 냉정평, 다남곡, 각곡, 원미평, 창갈평, 하창갈, 합평에 전 10.1부 답 199.7부를 소유하고, 이 중 전 10.1부 답 38.4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7. 윤씨

전 109.1부, 답 651.1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윤유덕은 가루평, 끽묵곡, 합평에 전 15부 답 66부를 소유하여 전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윤의록은 기동, 문달암곡, 외동천, 월경, 월경리, 호현에 전 34.6부 답 110.1부를 소유하여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8. 이씨

전 499.9, 답 1987.8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이검득이 고현, 내동천하리, 동천동, 상리, 얼이평, 월하동, 정쟁곡, 호현, 황성평, 월경리에 전 78.8부 답 261.2부를 소유하여 이 중 전 19.1부 답 16.8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이영대는 가루평, 갈곶, 갈곶촌대, 대평,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 야막후평, 원미평, 합평, 화도평에 전 39부 답 252.1부를 소유하여 이 중 전 14.6 답 110평을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이을길은 갈천평, 소청호전평, 수원저리평, 신기, 우촌, 원당전평, 장승곡, 창갈평, 하청호에 답 174부를 소유하여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이일산은 개농평, 원당곡, 원당전평, 월경, 황성평(篁成坪), 황성평(黃成坪)에 전 4.4부 답 147.3부를 소유하여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이일선은 가루평, 갈곶촌대, 끽묵곡, 노내평, 대평,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 야막후평에 전 109.1부 대주지 92.5부 답 107.6부를 소유하여 전부 대여하는 병작지주이다.

3-1-9. 임씨

전 67.5부 답 179.8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임창실이 방축평, 소냉정, 소청호동대, 소원저리평, 원당곡, 원당전평, 장승곡, 편교평, 해현하원당곡, 화도평, 후곡에 전 34.7부 답 89.7를 소유하고 전 40.3 답 118.9를 경작하는 병작지주이다.

3-1-10. 장씨

전 74.3부 답 498.5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장삼득이 각곡, 갈천평, 문달암, 방축평, 소청호동대, 소청호전평, 수원저이평, 신기, 안미동, 우촌, 원당곡, 원당전평, 장승곡, 창갈평, 편교평, 해현하원당곡, 후곡에 전 61.9부 답 466.8부를 소유하여 이 중 답 5,8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11. 전씨

전 150부, 답 485.4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전영도가 방축평, 사후기동, 원당전평, 원당후평, 청양곡, 치우현, 합평에 전 7.8 답 97.2부를 소유하여 경영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3-1-11. 한씨

전 127.7부, 답 585.9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한연득이 가루평, 갈곶, 대평, 수원진위양군접계, 화도평, 야막후평, 원미평에 전 3.5부 답 217.9부를 소유하여 이중 답 25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한풍덕은 가루평, 갈곶, 갈곶촌대, 대평, 수원진위양군접계,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 야막후평, 원미평에 전 64.6부 답 185.5부를 소유하여 이 중 답 7.7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12. 홍씨

전 300.1부, 답 672.4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홍성일이 고현, 기동, 내동천하리, 두주물, 만기사전곡, 상리, 외동천, 황성평, 황생평에 전 37.7부 답 86.5부를 소유하고 전 37부 답 142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3-1-13. 용주사

가루평, 갈곶, 냉정평, 대평, 수원진위양군접계월평, 원미평, 창갈평, 하창갈, 합평, 화도평에 전 47.9부 답 199부를 소유하고 있다.

3-2. 마산면

호당 평균 전 15.7부, 답 55.1부, 도합 70.8부이다. 호주(법인)는 이 면 평균을 상당정도 상회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3-2-1. 강씨

전 15.7부, 답 278.9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강창성이 마루평, 와곡, 와동, 우곡, 월경전평에 전 11.2부 답 241.7부를 소유하여, 이 중 답 5.6을 경작하고 나머지를 모두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2-2. 김씨

전 218.4부, 답 312.5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김기호가 마루평, 월경전평에 전 43부 답 77.3부를 소유하고 전 25.9부 답 107.5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3-2-3. 남씨

전 7.7부, 답 149.1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남정금이 와곡, 내곡에 전 2.8부 답 122부를 소유하고 전 1.4부 답 39.3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2-4. 맹씨

전 24.6부, 답 110.5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맹수득이 도감동, 월경전평, 장구평에 전 24.6 답 110.5를 소유하고 이 중 전 13.4부 답 6.1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2-5. 서씨

전 101.6부, 답 369.2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서임득이 내곡, 마루평, 와곡, 와동, 우곡, 월경전평에 전 75.6부 답 352.8부를 소유하여 이 중 답 31.5부를 경작하고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2-6. 우씨

전 100.5부, 답 415.3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우계화가 마루평, 월경전평, 장구평, 우곡에 전 28.3부 답 94.6부를 소유하고 전 27.6부 답 166.1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3-2-7. 윤씨

전 96.4부 답 221.5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윤계손이 마루평, 우곡, 도감동, 동막, 와동오 전 12부 답 156부를 소유하고 전 5.3부 답 64.6부를 경작하며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2-8. 이씨

전 452.4부, 답 2373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이만득이 도감동, 월경전평, 장구평에 전 17.4부 답 219부를 소유하고 전 14.8부 답 39.5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이수억은 내곡, 동막, 마루평, 와동, 우곡에 전 83.4부 답 464.5부를 소유하여 전 77.8부 답 230.94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겸 경영형 지주이다. 이순남은 마루평, 와동, 우곡에 답 344.1부를 소유하여 이 중 답 61.5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이일선은 내곡, 마루평, 와동, 우곡, 월경전평, 장구평에 전 45.5부 답 397.8부를 소유하여 이 중 전 4.5부 답 45.7부를 경작하고 나머지 모두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2-9. 조씨

전 100.6부, 답 750.3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조순득이 마루평, 와동, 우곡에 답 236.6부를 소유하여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조치복은 월경전평에 전 110.4부를 소유하여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2-10. 정씨

전 506.8부, 답 1172.1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정노미가 도감동, 동막동, 산대, 장구평에 전 9.8부 답 105.1부를 소유하여 이 중 전 8.6 답 전액을 경영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정삼돌은 도감동, 동막동, 산대, 장구평에 전 13.3부 답 86,8부를 소유하여 전액 경영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정순금은 전 27.6부 답 69.8부를 소유하고 전 0.9부 답 126.7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정취돌은 전 27.9부 답 77부를 소유하고 전액 경영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3-2-11. 최씨

전 110부, 답 564.5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최사득이 마루평, 월경전평, 장구평에 전 32.9부 답 245.8부를 소유하여 전 24.5부 답 238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3-2-12. 한씨

전 58.9부, 답 341.4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한순길이 도감동, 동막, 산대, 우곡, 장구평에 전 29.4부 답 128.6부를 소유하고 전 27부 답 125.6부를 경작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3-2-13. 교궁

월경전평, 마루평, 와곡, 와동에 답 60,2부를 소유하고 있다.

3-2-14. 내수사

내곡, 마루평, 와곡, 와동, 우곡에 전 5부, 답 148.8부를 소유하고 있다.

3-2-15. 향탄

마루평, 도감동, 와곡, 우곡, 월경전평, 장구평, 와동에 전 48.2부 답 666.1부를 소유하고 있다.

4. 나가며

이상에서 경기도 진위군 일북면과 마산면의 1901년 광무양안을 바탕으로 자연동별, 성씨별, 호주(법인)별로 나누어서 그 소유, 경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세인 조선후기를 거쳐, 근대인 개항기로 변화해가고 있던 당시 사회 구성의 변화도 엿볼 수 있었다.

첫째, 성씨별로는 일북면에 강씨, 권씨, 김씨, 민씨, 박씨, 양씨, 윤씨, 이씨, 임씨, 장씨, 전씨, 한씨, 홍씨가, 마산면에 강씨, 김씨, 남씨, 맹씨, 서씨, 우씨, 윤씨, 이씨, 조씨, 정씨, 최씨, 한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둘째, 호주별로는 강창성, 김응삼, 민성덕, 민성학, 박석산, 박충기, 양성업, 윤유덕, 윤의록, 이검득, 이영대, 이을길, 이일산, 이일선, 임창실, 장삼득, 한연득, 한풍득, 남정금, 맹수득, 서임득, 윤계손, 이만득, 이순남, 이일선, 조순득 등 전통적 병작지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강영호, 권이쇠, 김백출, 김성옥, 김천분, 전영도, 홍성일, 김기호, 우계화, 정노미, 정삼돌, 정순금, 정취돌, 최사득, 한순길은 경영형 지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수억의 경우 병작겸 경영형 지주의 특성을 띠기도 한다.

넷째, 법인으로 용주사, 교궁, 내수사, 향탄 등이 일관되게 존재하며, 특히 마산면에는 정조대왕 건릉 인근의 특성을 반영한 향탄의 집중적 배치와 이와 연관될 듯한 도감동 지명의 존재가 주목을 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고려 전시과, 조선 과전법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오던 중세 신분적 토지소유관계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신분적 외피를 탈각하고 순수한 경제적 관계로 전환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경기도 진위군 일북면, 마산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구성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능화를 지향하는 현대로의 사회 변화의 역사적 계기를 자연스럽게 연관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표1. 일북면(동별)

표2. 마산면(동별)

표1. 일북면(동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一北面							東接龍仁界
一北面							西接二北面
一北面							南接邑內面
一北面							北接水原界
一北面	辰~霜28字	171戶(원169) /지계172호	3822.6 /지계3834.2	10593.2 /지계10591.3			14415.8(原129.39.4) 瓦家5間, 草家645間 /지계144.25.5 와5간 초653간
일북평균			22.4	61.9			84.3
柯樓坪	姜善翊	姜	0	0	0	12	
	姜永交	姜	0	0	0	10.1+4.4+21.1	
	姜永西	姜	0	0	0.7	20.8+4+6.5+11+4.6	
	姜永浩	姜	1.1+8	0	1.1+8	12.1	
	姜元京	姜	3.8	0	3.8	14.6	
	소계		12.9	0	13.6	121.2	
	宮內府		0	3	0	0	
	金敬實	金	0	0	0	12.7	
	金敬元	金	0	0	3.5	0	
	金德守	金	3	0	3	0	
	金德玄	金	1.9+1.1+1.2	1.1	1.9+1.1+1.2	1.1	
	金德興	金	0	0	0	3.5+3.3	
	金明玉	金	0	8.1	0	0	
	金善元	金	0.7+4.8	0	0.7+4.8	0	
	金善翊	金	0	0	0	8.1	
	金姓一	金	6	0	6	0	
	金應三	金	0	12	0	0	
	金中連	金	2.7	0	2.7	0	
	金治兆	金	0	0	5	0	
	소계		21.4	21.2	29.9	28.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柳光瑞	柳	0	0	4	6.8	
	閔聖德	閔	0	11.4+5.3+12.1+16.5+12.6+6.2+14.6+5.1	0	0	
	소계			83.8			
	朴敬來	朴	8.6+7.9	0	8.6+7.9	16	
	朴敬西	朴	0	0	0	13.1	
	朴敬順	朴	0	0	0	3+5.2+4.6+16.5+8.1	
	朴敬元	朴	0	0	0	19	
	朴石山	朴	1.6+5	4.6+6.8+10.1	0	0	
	朴元七	朴	0	0	0	4.1	
	朴乙吉	朴	6.8	0	0	0	
	소계		29.9	21.5	16.5	89.6	
	白萬甲	白	4.4+4.3+1.5	0	4.4+4.3+1.5	0	
	白小萬今	白	3.4+5.7	0	3.4+5.7	0	
	소계		19.3	0	19.3		
	徐敬顔	徐	3.4	0	3.4	0	
	宋學道	宋	4.5	0	4.5	0	
	梁應周	梁	5	5.1+6.3	5	5.1	
	嚴敬化	嚴	0	0	0	5.3	
	吳萬西	吳	0	0	3.4	0	
	龍珠寺		0.7	14.5+6.5	0	0	
	尹斋用	尹	0	16	0	0	
	尹有德	尹	0	4.6+4+11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소계		0	35.6			
	李德在	李	0	0	0	14.5	
	李聖台	李	0	12.7	0	0	
	李承台	李	0	10.1	0	0	
	李億石	李	0	4.9	0	4.9	
	李永大	李	0	3.3+3.5	0	0	
	李應三	李	0	0	0	6.3	
	李一先	李	1.5+8	10.5+10.6	0	0	
	李治五	李	0	21.1+14.2	0	0	
	李致元	李	11.4	0	11.4	10.1	
	李學水	李	0	19	0	0	
	소계		20.9	109.9	11.4	35.8	
	林元日	林	2	0	2	0	
	張順得	張	0	0	0	10.5	
	張順西	張	0	0	8+1.5	0	
	鄭鳳吉	鄭	0	4.4	0	0	
	趙順五	趙	0	0	3.4	0	
	趙在乭	趙	0	0	0	6.9+9.1	
	朱學道	朱	0	0	0	14.2	
	崔德心	崔	0	0	0	11.4	
	崔卜同	崔	3.2+5.4	0	3.2+5.4	0	
	崔石甫	崔	0	0	0	12.6	
	崔世必	崔	12	0	12	0	
	崔時文	崔	4.5	0	4.5	0	
	崔仁西	崔	7.3	0	7.3	10.6	
	崔哲釗	崔	9.4	0	9.4	0	
	崔致星	崔	2.4	0	2.4	0	
	소계		44.2	0	44.2	34.6	
	韓年得	韓	3.5	8.1+5.2+9.1+13.1	0	0	
	韓應先	韓	0	0	0	6.2	
	韓豊德	韓	4	4.1+6.9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韓興孫	韓	1.5	0	1.5+1.6	0	
	소계		9	46.5	3.1	6.2	
	洪承水	洪	0	20.8	0	0	
	洪允玉	洪	0	0	0	5.1	
	계		173.2	379.1			
各谷	權京大	權	2.1	0	2.1	0	
	權善任	權	0	3.7	0	3.7	
	權小敬云	權	1.8	0	1.8	0	
	權禮上	權	0	0	4.1	4.9	
	權玉烈	權	1.9	0	1.9	0	
	權二月	權	0	5.3	0	5.3	
	權從奉	權	0	13.5	0	13.5	
	소계		5.8	22.5	9.9	27.4	
	金順節	金	0.9	0	0.9	0	
	梁成業	梁	8.6	4.9	8.6	0	
	李永立	李	0	8.5	0	8.5	
	鄭卜得	鄭	4.1	0	0	0	
	鄭一先	鄭	7.4	0	7.4	0	
	崔妙全	崔	1.2	0	1.2	0	
	崔漢順	崔	5.4	0	5.4	0	
	계		33.4	35.9			
角谷	姜用甫	姜	3.9	0	3.9	20.6	
	金德玄	金	1	0	1	8.8	
	金白出	金	2.1+3+8.5	3+1.6+2.4+9.4+15	2.1+3+8.5	3+1.6+2.4+9.4+15	
	金士興	金	0	0	0	29.5	
	金上順	金	6	0	6	10.6	
	金千分	金	0	14.3+4.1+4.4	0	14.3+4.1	
	金淸汝	金	0	0	0	7.8	
	金致成	金	0	8.6	2.6	8.6	
	金學仁	金	1.1	0	1.1	0	
	소계		21.7	62.8	24.3	115.1	
	朴學俊	朴	1.3	0	1.3	0	
	朴興德	朴	0	29.5	0	0	
	安民甫	安	2.6	0	0	0	
	梁性友	梁	0	8.8	0	0	
	嚴寬益	嚴	0	0	0	12.6	
	兪致在	兪	0	0	0	12.3	
	劉致在	劉	0	0	8.3	0	
	李玉童	李	0	0	0.6	0	
	林在實	林	0	9.6	0	9.6+4.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林昌實	林	5.9	5.6+11.7	5.9	5.6+11.7	
	소계		5.9	26.9	5.9	31.3	
	張三得	張	0.6+8.3	7.1+12.3 +7.8+20. 6+10.6	0	0	
	소계		8.9	58.4			
	全石仁	全	0	0	0	7.1	
	鄭三節	鄭	1.1	3+2.7+3. 1	1.1	3+2.7+3.1	
	鄭順一	鄭	2.5	0	2.5	0	
	鄭時萬	鄭	0.3	18	0.3	18	
	소계		3.9	26.8	3.9	26.8	
	崔漢順	崔	0	12.6	0	0	
	韓熙西	韓	0.5	0	0.5	0	
	계		48.7	225.8			
葛串	姜善翊	姜	10.1	0	10.1	0	
	姜永交	姜	0.9	0	0.9	0	
	姜永西	姜	7.6+4.8	0	7.6+4.8	0	
	姜永好	姜	0	5.7+3	0	5.7+3	
	姜元京	姜	0	0	0	6.9	
	소계		23.4	8.7	23.4	15.6	
	金德興	金	0	8.6	0	8.6	
	金道眞	金	0	0	8.4	11.3	
	金明汝	金	8.4	0	0	0	
	金時中	金	0	0	0	8.5	
	金新元	金	1.3	0	1.3	0	
	金銀三	金	0	0	0	6.1	
	金治文	金	0	0	0	9.4	
	金治先	金	0.5	0	0.5	0	
	소계		10.2	8.6	10.2	43.9	
	閔聖德	閔	4.6	6.9+9.4+ 9.1	0	0	
	朴敬來	朴	2.6	0	2.6	0	
	朴敬烈	朴	0	0	3.6	0	
	朴石山	朴	3.3	5.6+11.6	0	0	
	朴乙吉	朴	30.9	0	30.9	0	
	소계		36.8	17.2	37.1		
	徐士明	徐	0	0	4.6	0	
	龍珠寺		4.1	0	0	0	
	李光年	李	1	0	1	0	
	李光三	李	0	0	9.8	0	
	李德在	李	0	0	3.6	0	
	李聖七	李	0	0	3.3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億石	李	0	9.2	0	9.2	
	李永大	李	1+9.8+3.8	0	1+3.8	0	
	李一先	李	3.6+1.8	5.9	0	0	
	李致交	李	0	0	2.9	0	
	李治云	李	0	0	0	5.6	
	李致弘	李	0	0	0	5.9	
	소계		21	15.1	25.4	20.7	
	林敬國	林	0	0	0	10.2	
	林元一	林	0	0	0	8.2+9.1	
	張淳得	張	0.9	0	0.9+1.8	0	
	趙自善	趙	0	0	4.1	0	
	趙自成	趙	0	0	0	11.6	
	趙在亘	趙	2	0	2	8.5	
	崔德新	崔	0	0	2.3	0	
	崔石甫	崔	0	0	0	17.3	
	韓年得	韓	0	10.2+8.5+6.1+8.5	0	0	
	韓豊德	韓	3.6+2.9+2.3	17.3+8.2+11.3	0	0	
	소계		8.8	70.1			
	계		111.8	145.1			
葛串村垈	姜錫祚	姜	0	0	(3.2)	0	초8간
	姜善翊	姜	13.2	0	13.2	0	
	姜永交	姜	0	0	15+ (1.7)	0	초3간
	姜永三	姜	0	0	(0.8)	0	초2간
	姜永西	姜	12.6+6	0	0.5+12.6+6+3+(1.5)	0	초6간
	姜永好	姜	0	0	2.7+(4)	0	초11간
	姜元京	姜	0	0	(1.9)	0	초2간
	소계		31.8	0	53(13.1)		초32간
	金敬實	金	0	0	(3.3)	0	초2간
	金貴山	金	0	0	(3.1)	0	초7간
	金德水	金	0	0	(3.2)	0	초3간
	金德眞	金	0	0	2.4	0	
	金德玄	金	0	0	(1.1)	0	초2간
	金德興	金	6	0	6	0	
	金道眞	金	0	0	(1.7)	0	초3간
	金范俊	金	0	0	(1.8)	0	초2간
	金石亘	金	22.2	0	0.5++22.2+ (2.8)	0	초6간
	金聖德	金	0	0	1.2+(1.5)	0	초2간
	金成玉	金	0	0	(2.3)	0	초12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十月	金	0	0	(2.3)	0	초7간
	金允文	金	0	0	(3.1)	0	초4간
	金仲玄	金	0	0	(2.4)	0	초3간
	金治德	金	9.5	0	9.5	0	
	金治文	金	0	0	(3.5)	0	초5간
	金治兆	金	0	0	(2)	0	초2간
	소계		31.7	0	41.8(33.1)		초60간
	閔聖德	閔	4+3.7	0	0	0	
	閔聖學	閔	(2)+(2.5)	0	0	0	
	朴敬來	朴	0	0	(2.5)	0	초6간
	朴敬烈	朴	0	0	1.4	0	
	朴敬順	朴	0	0	14.3+(4.4)	0	초3간
	朴敬友	朴	0	0	1.2	0	
	朴敬元	朴	0	0	(1.6)	0	초3간
	朴石山	朴	14.4	0	0	0	
	朴承化	朴	8.1+(2.3)	0	0	0	
	朴春一	朴	2	0	2	0	
	소계		24.5(2.3)	0	18.9(8.5)	0	초12간
	徐敬安	徐	0	0	4+(5.2)	0	초11간
	徐士弘	徐	0	0	(2.3)	0	초4간
	宋致上	宋	0	0	3.7+(1.7)	0	초2간
	宋學道	宋	0	0	(1.3)	0	초2간
	吳萬釗	吳	0	0	7	0	
	劉光年	劉	0	0	0.6+(1.9)	0	초3간
	李光年	李	0	0	1.4+24.4+(3.4)	0	초4간
	李光三	李	0	0	(2)	0	초3간
	李德在	李	0.5+2.1+1.2+(2.6)	0	14.4+2.1+1.2+(2.6)	0	초5간
	李承七	李	0	0	4.6+(3.2)	0	초4간
	李承台	李	1.2+0.5+(2.8)+(1.5)	7.5	0	0	
	李永大	李	24.4	0	0	0	
	李應三	李	0	0	(2.3)	0	초2간
	李一先	李	11.2+9.7+4.6+1.	0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4+3.3+7.5+2.7+1.4+1.2+1.8+0.6+1.5+3+2.4+7+2.7+7.6+1.2+(4.4)+(3.1)+(2.4)+(1.6)+(1.9)+(3.9)+(5.2)+(3.2)+(1.3)+(3)+(3.4)+(1.9)+(2.4)+(1.7)+(3.3)+(1.6)+(1.5)+(4.9)+(3.3)+(2.3)+(2.3)+(2.5)+(2.4)+(1.4)+(1.5)+(3.1)+(1.8)+(2.3)+(2.2)+(3.2)+(4)+(1.7)+(3.2)+(1.1)+(3.5)				
	李致交	李	0	0	7.5+1.2+(1.5)	0	초2간
	李治元	李	7.5	0	7.5+8.1+	0	초4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2.4)		
	李治弘	李	6.9	0	11.2+6.9 +(1.6)	7.5	초2간
	소계		115.1(94. 8)	7.5	90.5(18)	7.5	초26간
	林敬國	林	0	0	1.5	0	
	林元一	林	0	0	3.4+(4.9)	0	초6간
	林長成	林	0	0	8	0	
	張淳得	張	0	0	1.8+9.7+ 7.6+(3.9)	0	초5간
	全治德	全	(0.8)+(1. 7)+(2)	0	0	0	
	趙順佐	趙	0	0	3.3+(3)	0	초3간
	趙在乭	趙	0	0	(2.5)	0	초4간
	崔仁西	崔	2.7	0	2.7+(3.3)	0	초5간
	韓年得	韓	8	0	0	0	
	韓豊德	韓	14.3+3.4 +15	0	0	0	
	韓興孫	韓	0	0	2.7+(1.4)	0	초3간
	소계		40.7	0	2.7(1.4)	0	
	洪允玉	洪	0	0	(2.4)	0	초2간
	黃千石	黃	0	0	(2.2)	0	초4간
	계		260.2(11 0.7)	7.5	(128.5)		초184간
葛串村前 坪	姜永好	姜	0.4+4	0	0.4+4	0	
	金敬元	金	7.7+3.1	0	7.7+3.1	0	
	金貴山	金	1.5	0	1.5	0	
	金明汝	金	0	9.8	0	0	
	金成玉	金	0.9+5.9 +7.8	0	0.9+5.9+ 7.8	0	
	金十月	金	3.3+1.1	0	3.3+1.1+ 12.1	0	
	金允文	金	0	0	4.9	0	
	소계		31.3	9.8	48.3	0	
	朴石山	朴	4.9+9.1	0	0	0	
	嚴敬化	嚴	0	0	0	9.8	
	吳成伯	吳	10.5	0	10.5	0	
	李治弘	李	1.7	0	1.7	0	
	趙自化	趙	0	0	9.1	0	
	韓豊德	韓	12.1	0	0	0	
	계		74	9.8			
葛川坪	姜用甫	姜	2.7	9.6	2.7	9.6	
	金三興	金	0	8.8	0	8.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應敎	金	0	5.6	0	0	
	金致成	金	0	11	0	11	
	소계	0		25.4	0	19.8	
	朴京三	朴	0	17.1	0	17.1+9.3	
	朴京先	朴	0	0	0	12.6	
	朴京學	朴	0	0	0	2.4	
	朴性俊	朴	0	8.7	0	8.7	
	朴順亘	朴	0	9.3	0	0	
	朴淸出	朴	3.2+6.8 +1.1	0	3.2+6.8+ 1.1	0	
	소계		11.1	35.1	11.1	50.1	
	禹春實	禹	1.6	0	0	0	
	劉性伯	劉	0	0	0	12	
	劉性周	劉	0	0	0	12.1+3.3+ 12.3	
	소계		0	0	0	39.7	
	李公一	李	0	0	0	12.9	
	李泉伊	李	0	2.4	0	0	
	李順一	李	0	20.5	0	20.5	
	李乙吉	李	0	3.3+12.3 +12.1+12	0	0	
	소계		0	62.6	0	33.4	
	林善泉	林	0	0	0	5.6	
	張三得	張	0	12.6+12. 9	0	0	
	全性石	全	0.8	0	0.8	0	
	全永三	全	0	0	1.6	0	
	全元石	全	0.8+1.3 +2.2+6. 5+1.3	1.9+0.4	0.8+1.3+ 2.2+6.5+ 1.3	1.9+0.4	
	全在洽	全	0.8	15	0.8	15	
	全致根	全	0	3.9	0	3.9	
	소계		13.7	21.2	15.3	21.2	
	崔德彬	崔	3.1+0.5 +6.6		3.1+0.5+ 6.6	8	
	계		39.3	187.4			
介農坪	姜昌成	姜	3.5	7.9	0	0	
	郭化實	郭	0	0	0	7.2	
	宮內府		0	23.3+2.9 +7.7	0	0	
	金基洪	金	0	2.2	0	2.2+11.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洪明	金	2.1	0	2.1	0	
	金興西	金	0	2.2	0	2.2	
	소계		2.1	4.4	2.1	16.2	
	柳性交	柳	0	0	3.5	7.9	
	柳在奉	柳	0	3.4	0	3.4	
	柳才仁	柳	0	2.5	0	2.5+11.65	
	소계		0	5.9	3.5	25.45	
	邊甲豊	邊	0	0	0	29.4	
	徐寬乭	徐	0	7.2	0	0	
	申元長	申	0	3.8	0	3.8	
	尹成實	尹	0	7.9	0	7.9	
	李萬得	李	0	0	0	7.7+2.9	
	李順男	李	0	11.8	0	0	
	李永元	李	0	9.4+8.3	0	9.4+8.3	
	李一山	李	0	6.7+29.4	0	0	
	소계		0	65.6	0	28.3	
	林命乭	林	0	0	0	11.65	
	鄭君集	鄭	0	12.5+3.5	0	12.5	
	丁云先	丁	0	0	0	6.7	
	崔士潾	崔	0	2.6	0	2.6	
	崔希先	崔	0	3.5	0	3.5	
	韓元集	韓	0	0	0	3.5	
	계		5.6	158.7			
姑峴	高小業 禮	高	0	3.9+1.2+ 6.1+17.4	0	3.9+1.2+ 6.1+17.4	
	高業禮	高	1.4+0.3	7.1	1.4+0.3	7.1	
	소계		1.7	35.7	1.7	35.7	
	權貴乭	權	2.7	0	2.7	0	
	權同列	權	0	4.8	0	4.8	
	權順成	權	0	10.4	0	10.4	
	羅允實	羅	0.7	35.5	0.7	35.5	
	朴興卜	朴	12.4+0.7	30.9	0	0	
	安京文	安	4.5	0	4.5	0	
	禹性天	禹	0	0	12.4	0	
	李儉得	李	1.6	0	0	0	
	李順男	李	5.4	0	5.4	0	
	張文在	張	0	0	1.6	0	
	趙萬今	趙	2.5	18.2+33. 9	2.5	33.9	
	趙成甫	趙	0	0	0	30.9	
	趙性仁	趙	10.6	0	10.6	18.2	
	소계		13.1	52.1	13.1	83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洪洛汝	洪	0	14.7	0	14.7	
	洪大連	洪	0	12.7	0	12.7	
	洪性寬	洪	3.7	0	3.7	0	
	洪性文	洪	3	0	3	0	
	洪性一	洪	6+1.9	0	6+1.9	0	
	洪性七	洪	0.7	0	0.7	0	
	洪云五	洪	0	0	0.7	0	
	洪興得	洪	1.8+2.2+3	18.2	1.8+2.2+3	18.2	
	소계		22.3	45.6	23	45.6	
	계		65.1	215			
高峴村	金九然	金	0	0	0.6	0	
	金召史	金	0	0	(0.5)	0	초3간
	金元石	金	(0.5)	0	0	0	
	金千世	金	0	0	1.7	0	
	金致成	金	0.6	9.9	0.6+(1.1)	9.9	초3간
	소계		0.6(0.5)	9.9	2.9(1.6)	9.9	초6간
	朴京三	朴	0	0	0	8.3	
	朴京眞	朴	0	0	0	8.9	
	卞白出	卞	0	8.9	0	0	
	申化三	申	0	0	(1.5)	0	초2간
	安民甫	安	(0.8)+(1.5)+(2.3)+(0.8)+(1.3)+(0.4)	0	0	0	
	소계		(7.1)	0	0	0	
	梁白仁	梁	0	8.3	0	0	
	林善泉	林	0	0	(0.8)	0	초2간
	全永三	全	1.3	0	1.3+(2.5)	0	초3간
	全永直	全	(1.4)	0	(1.4)	0	초3간
	全元石	全	1.7+5.8+0.9+(2.5)+(1.8)+(1)+(0.8)+(1.2)	0	5.8+0.9+(1.2)	0	초5간
	全在明	全	1.2+5.6+0.6+(1.1)	2	1.2+5.6+(1.8)	2	초3간
	全在順	全	0	0	(0.8)	0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全在哲	全	2.1	1.4	2.1	1.4	
	全在洽	全	1+(1.1)	0	1+(1.1)	0	초3간
	소계		20.2(10.9)	3.4	17.9(8.8)	3.4	초20간
	鄭建實	鄭	0	0	(1)	0	초2간
	鄭萬乭	鄭	1	0	1	0	
	鄭萬實	鄭	0	0	(2.3)	0	초5간
	鄭三節	鄭	0	7	0	7	
	鄭小萬乭	鄭	0	0	(1.3)	0	초2간
	소계		1	7	1(4.6)	7	초9간
	韓性西	韓	0	0	(0.4)	0	초2간
	韓允西	韓	0	1.5	(0.8)	1.5	초3간
	韓希西	韓	0.6	0	0.6+(0.8)	0	초4간
	계		22.4(19.5)	39	(32.7)		초48간
曲橋前坪	李性文	李	0	0	(0.7)	0	초2간
	李小乙吉	李	(0.7)	0	0	0	
曲橋坪	金武得	金	0	6.8	0	6.8	
	金應敎	金	0	15.8	0	0	
	金致成	金	0	10.7	0	10.7+15.8	
	소계	0		33.3	0	33.3	
	宋順甫	宋	0	13	0	13	
	계		0	46.3			
九井坪	朴汝先	朴	1.4+7.1	1.3+7.7	7.1	1.3+7.7	
	朴用西	朴	8.6	0	8.6	0	
	李順每	李	0	0	1.4	0	
	鄭欽丹	鄭	18	5.4	18	5.4	
	계		35.1	14.4			
基洞	金局玄	金	0	3.6	0	3.6	
	吳三甫	吳	0	0	4.3	0	
	尹宜祿	尹	4.3	0	0	0	
	李卜成	李	7.1+6.3	0	7.1	0	
	林春分	林	0	12.4+36.8	0	12.4+36.8	
	鄭欽丹	鄭	2.2+9.4+8.3	0	2.2+9.4+8.3	0	
	趙萬今	趙	0	49+8.2	0	0	
	趙性甫	趙	0	0	0	49	
	趙性仁	趙	0	20.5+21.	0	20.5+21.3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3+4.8		+4.8	
	趙順七	趙	0	14.8	0	14.8+8.2	
	소계		0	118.6	0	118.6	
	池用才	池	0	6.4	6.3	6.4	
	洪京眞	洪	1.8+5.5	21.8+17.5	1.8+5.5	21.8+17.5	
	洪貴連	洪	6.8	0	6.8	0	
	洪大連	洪	1.3	6.3+2.8+25+21.1	1.3	6.3+2.8+25+21.1	
	洪性甫	洪	0	2.3+3.2+7.9	0	2.3+3.2+7.9	
	洪性一	洪	0	39.2+25.9	0	39.2+25.9	
	洪興得	洪	0	11+7	0	11+7	
	소계		15.4	191	15.4	191	
	계		53	368.8			
喫墨谷	姜文叔	姜	4.8	0	4.8	0	
	姜永三	姜	0	0	2.9	0	
	姜永好	姜	0.5	0	0.5	0	
	姜元敬	姜	0	0	6.8+1.8	0	
	소계		5.3	0	16.8	0	
	金貴山	金	3.9	0	3.9	0	
	金德水	金	3.9	0	3.9	0	
	金德實	金	7	0	7	0	
	金德興	金	0	0	2.7	0	
	金明汝	金	4.9	0	0	0	
	金承德	金	1.8	0	1.8+2.9	0	
	金承一	金	0.8	0	0.8	0	
	金十月	金	0	0	4.9	0	
	金治文	金	2.8+1.4	0	2.8+1.4	0	
	金治兆	金	0	0	2.4	0	
	소계		26.8	0	34.5	0	
	柳光西	柳	0	0	5.1	0	
	閔古山	閔	5.1	0	0	0	
	朴敬來	朴	0.6	0	0.6+2.9	0	
	朴敬西	朴	0.7	0	0.7	0	
	朴石山	朴	2	0	0	0	
	소계		3.3	0	4.2	0	
	梁善三	梁	2.7	0	0	0	
	禹共拾	禹	2.9	0	0	0	
	尹有德	尹	6.8+5.8+2.4	0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光三	李	4.4	0	4.4	0	
	李德在	李	3.8	0	3.8+2	7.2	
	李應三	李	3.6	0	3.6	0	
	李一先	李	0	7.2	0	0	
	林敬玄	林	1.8	0	0	0	
	林元一	林	4.8	0	4.8	0	
	崔仁西	崔	2.4+3.7	0	2.4+3.7	0	
	계		85.3	7.2			
內桐泉下里	羅允實	羅	0	0	(0.7)	0	초2간
	文德實	文	0	0	(1.4)	0	초2간
	文道心	文	0	0	(1.1)	0	초2간
	文平五	文	0	0	(1)	0	초6간
	安京文	安	1+(1)+(1.4)+(1.2)+(0.7)	0	1	0	
	禹性九	禹	0	0	(2.6)	0	초3간
	禹性三	禹	0	0	(1.1)	0	초3간
	李儉得	李	(1.1)+(0.9)	36.1+20.3	0	0	
	李萬甲	李	0	0	(1.5)	0	초4간
	李萬西	李	0	0	0	36.1	
	李萬釗	李	0	0	(2.6)	0	초3간
	李順男	李	(1.5)	0	0	0	
	李億貴	李	0	22.2	0	22.2	
	李化卜	李	(2.6)	0	0	0	
	소계		(6.1)	22.2	(4.1)	58.3	초7간
	張文才	張	0	0	(1)	0	초3간
	鄭君京	鄭	0	0	0.7	0	
	池用才	池	0	0	(1.5)	0	초5간
	玄用甫	玄	1.2	0	1.2+(1.2)	0	초3간
	玄用眞	玄	1.3	0	1.3	0	
	洪京回	洪	0	0	(0.9)	0	초2간
	洪局玄	洪	0	0	(0.9)	0	초3간
	洪洛汝	洪	(1.8)	0	(1.8)	0	초5간
	洪洛玄	洪	0	0	(1.4)	0	초3간
	洪性寬	洪	0	0	(1.5)	0	초5간
	洪性民	洪	(0.9)+(1.4)	0	(1.4)	0	초5간
	洪性三	洪	0	0	(0.9)	0	초5간
	洪性一	洪	0.7+(1.5)+(0.9)	6.5	0	6.5+20.3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洪成七	洪	(1.5)+(1)+(2.6)+(1.1)+(1.4)+(1.9)	0	(1.9)	0	초5간
	소계		0.7(14.2)	6.5	(10.7)	26.8	초33간
	계		4.2(26.4)	85.1	(26.4)		초69간
冷井坪	姜昌成	姜	0.9	19.3	0	0	
	高興伊	高	0	18.4+13+22.9	0	18.4+13+22.9	
	宮內府		0	0.3+6+6.1+9.6+12.4+7.3+18.9	0	0	
	소계		0	60.6	0	0	
	權甲申	權	0	2.1+2	0	2.1+2+19.3	
	權京大	權	4.5	7.4	4.5	7.4	
	權京云	權	0	0	0	3.7	
	權貴乭	權	0	26.7+5.3	0	26.7+5.3	
	權今丹	權	0	16.7	0	16.7	
	權今乭	權	0.5	5.6	0.5	5.6	
	權今禮	權	3.4	5.1	3.4	5.1+9.6+6	
	權乭南	權	6.6	0	6.6	0	
	權卜尙	權	0	0	0.9	0	
	權善任	權	4.8	0	4.8	0	
	權性乭	權	0	0	0	0.3+7.3	
	權小汝尙	權	0	5.8	0	5.8	
	權順成	權	0	3.8	0	3.8	
	權有大	權	6.5	0	6.5	0	
	權二釗	權	0.7+1.5	13.9+6.1+11.6+8.6	0.7+1.5	13.9+6.1+11.6+8.6	
	權二月	權	1.5+2.3	14.5	1.5+2.3	14.5+16.2	
	權壬申	權	0	0	0	11.5+17.2+10.6+4.9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소계		32.3	135.2	33.2	241.8	
	金萬奉	金	0	0	0	19.4	
	金元兼	金	0	0	0	6.1	
	金千分	金	0	0	0	24.8+15.5+24.8+15.3	
	소계		0	0	0	105.9	
	徐京安	徐	0	7.9+4.6+14.6	0	14.6	
	梁性業	梁	0	15.5+15.3+24.8+4.5+19.4+24.8	0	4.5	
	소계		0	104.3	0	4.5	
	龍珠寺		0	16.2	0	0	
	李設男	李	0	3.8	0	3.8	
	李順男	李	0	34.4	0	0	
	李銀卜	李	0	10.6+3+4.9+2.8+3.7+3.7	0	3+2.8+3.7	
	李春實	李	0	0	0	34.4	
	李判金	李	0	4.9	0	4.9+7.9+4.6	
	소계		0	71.8	0	65.1	
	玄萬今	玄	0	11.5+3.4+17.2	0	3.4	
	扈文汝	扈	0.8+5.5	0	0.8+5.5	12.4+18.9	
	계		39.5	520.9			
路內坪	金成三	金	0.3+1.4	0	0.3+1.4	0	
	金勝德	金	0	0	1.6	0	
	李一先	李	1.6	20.2	0	0	
	張順得	張	0	0	0	20.2	
	계		3.3	20.2			
多男谷	姜昌成	姜	0	8.6	0	0	
	權大成	權	0	5.5	0	5.5	
	權同列	權	1.6	0	1.6	0	
	權卜南	權	0	11.6+1.5	0	11.6+1.5	
	權性乭	權	0	0	0	8.6	
	權氏同	權	0	1.8	0	1.8	
	소계		1.6	20.4	1.6	29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梁性業	梁	0	0.6	0	0.6	
	계		1.6	29.6			
大坪	姜永浩	姜	0	8.6	0	8.6+6.2+18.6	
	宮內府		0	16.9+14.7	0	0	
	金京元	金	0	0	0	14.1	
	金善業	金	0	0	0	18	
	金成玉	金	0	11	0	11+14+48.3	
	金性一	金	0	0	0	6.6+9.5	
	金心元	金	0	0	0	14.7+16.9	
	金應三	金	0	7.7	0	7.7+7.8	
	金中連	金	0	0	0	11.7	
	金春山	金	0	7.3	0	7.3	
	金治文	金	0	0	0	13.2	
	金治先	金	0	0	0	20.6+9.6	
	소계		0	26	0	231	
	閔性學	閔	0	7.1	0	0	
	朴敬來	朴	0	0	0	25.2	
	朴敬順	朴	0	13	0	13+2.2+17.2	
	朴石山	朴	0	13.2+9.6+8.8	0	5.8	
	소계		0	44.6	0	63.4	
	宋致祥	宋	0	8.7	0	8.7	
	宋學道	宋	0	0	0	14.5	
	梁應朱	梁	0	7.8	0	0	
	龍珠寺		0	17.2+14.1	0	0	
	李德才	李	0	0	0	14	
	李承台	李	0	11.7	0	0	
	李永大	李	0	5.5+18+13.9+19.6	0	5.5	
	李一先	李	0	2.2+14+6.6+17.7	0	0	
	소계		0	109.2	0	19.5	
	張順得	張	0	0	0	17.7	
	趙子成	趙	0	0	0	15.6	
	趙子化	趙	0	0	0	6.9	
	趙在德	趙	0	0	0	20.7	
	崔仁西	崔	0	17.7	0	17.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韓年得	韓	0	18.6+9.5+6.9+14.5+12.1+15.6+20.7	0	12.1	
	韓豊德	韓	0	20.6+48.3+25.2+6.2+14	0	0	
	韓興先	韓	0	0	0	7.1	
	소계		0	212.2	0	19.2	
	계		0	504.8			
桐泉洞	李儉得	李	1.5	0	1.5	0	
	李準榮	李	(7)	0	(7)	0	와5간 · 초5간
桐泉藪內坪	安京文	安	3.7	0	3.7	0	
	李億貴	李	0	1.4	0	1.4	
	洪洛汝	洪	0	29.3+1.1	0	29.3+1.1	
	洪成七	洪	1.9	9.7+30.7+1.9	1.9	9.7+30.7+1.9	
	소계		1.9	72.7	1.9	72.7	
	계		5.6	74.1			
斗周勿	孔自先	孔	6.4	0	6.4	0	
	孔春實	孔	7.8	0	7.8	0	
	權二月	權	0	2.1	0	0	
	金德玄	金	7.5+10.6	0	7.5+10.6	0	
	金萬元	金	3.7+2.6	0	3.7+2.6	0	
	金平叔	金	5.3	0	5.3	0	
	소계		29.7	0	29.7		
	羅允實	羅	4.3	0	4.3	0	
	文德實	文	0.9+1.8	0	0.9+1.8+3.8	0	
	文道心	文	3.2+1.4+2.3	1.9	3.2+1.4+2.3	1.9	
	文平五	文	11+5.5+1.3	17.3+0.8+11.8+5	11+5.5+1.3	17.3+0.8+11.8+5	
	文平五	文	0	17.3	0	17.3	
	文興伊	文	0	9.4+3.2	0	9.4+3.2	
	소계		27.4	66.7	31.2	66.7	
	白一甫	白	2.9	4.3	2.9	4.3	
	孫化集	孫	1.9	0	1.9	0	
	李馬得	李	19	0	19	0	
	李萬西	李	1.5	0	1.5	0	
	張文在	張	1.7	0	1.7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鄭君集	鄭	0	0.7	0	0.7	
	鄭仁甫	鄭	55.1	0	55.1	0	
	趙成甫	趙	4.5	0	4.5	0	
	趙成仁	趙	0	2.7	0	2.7	
	趙性集	趙	3.8	0	0	0	
	趙希年	趙	2.6+1.5	0	2.6+1.5	0	
	소계		12.4	2.7	12.4	2.7	
	車元西	車	4.2	0	4.2	0	
	玄用甫	玄	3.8	0	3.8	0	
	洪九連	洪	0.6	0	0.6	0	
	洪國玄	洪	3.7	0	3.7	0	
	洪洛玄	洪	7.6	10.7	7.6	10.7	
	洪大連	洪	14.5+4.7	11.4	14.5+4.7	11.4	
	洪性寬	洪	17.6	0	17.6	0	
	洪性甫	洪	1.3+1.4	5.4	1.3+1.4	5.4	
	洪性三	洪	3.8	0	3.8	0	
	洪性一	洪	17.6	0	17.6	0	
	洪云五	洪	14.6+8.1	0	14.6+8.1	0	
	洪興得	洪	0	0	0	2.1	
	소계		95.5	27.5	95.5	29.6	
	계		273.6	104			
萬奇寺前谷	高小業禮	高	0	10.8+5.3	0	0	
	柳永西	柳	0	0	0	5.3+10.8	
	池用才	池	0	9.4+6.6+29.7	0	9.4+6.6+29.7	
	소계		0	45.7	0	45.7	
	洪性三	洪	0	14.4	0	14.4	
	洪性一	洪	0	14.9	0	14.9	
	계		0	91.1			
文達巖	金成五	金	2.6+0.8	0	2.6+0.8	0	
	朴京一	朴	0	0	0	26.6	
	朴順學	朴	0.7+0.9	17.9+17.7	0.7+0.9	17.7	
	卞白出	卞	0	1.4+2.2+7	0	1.4	
	宋允吉	宋	0	0	4.9	0	
	申永之	申	0	1.8	0	1.8+8.95	
	沈千卜	沈	0	19.8	0	19.8	
	安永俊	安	0.6	0	0.6	0	
	芮兩汝	芮	0	0	0	2.2+7+1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7	
	李小乙吉	李	4.9	0	0	0	
	張三得	張	0	26.6	0	0	
	全永三	全	0	0	0	6.3	
	全元石	全	0	4.5+9.9	0	4.5+9.9	
	全在己	全	1.6	0	1.6	0	
	全在順	全	2+2.9	0	2+2.9	0	
	소계		6.5	14.4	6.5	20.7	
	鄭建實	鄭	0	0	0	8.95	
	鄭士然	鄭	0	6.3	0	0	
	鄭順禮	鄭	0	5	0	5	
	韓希西	韓	1+2.2+3.2	0	1+2.2+3.2	0	
	계		23.4	120.1			
文達巖谷	尹宜祿	尹	0	23.8	0	0	
	全永直	全	0	11.6	0	11.6	
	鄭欽丹	鄭	0	10.9+15.4	0	10.9+15.4	
	趙萬今	趙	0	6	0	0	
	趙成甫	趙	0	0	0	6	
	洪京眞	洪	0	0	0	23.8	
	계		0	67.7			
坊築坪	權同列	權	0	1.3+4	0	1.3+4	
	金白出	金	1.2	0	1.2	13.5	
	金學允	金	0	2.1	0	2.1	
	吳文汝	吳	0	0	1.2	3.6	
	林在實	林	0.7	4.4+7.8+7.9	0.7	4.4+7.8+7.9	
	林昌實	林	4.5+0.9+3.5+2.6	3.6	4.5+0.9+3.5+2.6	3.6	
	소계		12.2	23.7	12.2	23.7	
	張三得	張	1.2	13.5+3.6	0	0	
	全永道	全	0	18.6	0	18.6	
	鄭三節	鄭	0	2.6+4.8	0	2.6+4.8	
	韓希西	韓	10.9	0	10.9	0	
	계		25.5	74.2			
寺洞	文道心	文	0.4	0	0.4	0	
	文平五	文	0	10.1	0	10.1	
	安京文	安	0	14.6	0	14.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洪九連	洪	0	6.1	0	6.1	
	洪洛玄	洪	0	11.3	0	11.3	
	洪性采	洪	1.4	0	1.4	0	
	소계		1.4	17.4	1.4	17.4	
	계		1.8	42.1			
沙汰谷	高道化	高	0	17.5	0	17.5	
	高業禮	高	0	6.7	0	6.7	
	權貴乭	權	0	2.8+7.4	0	2.8+7.4	
	權今丹	權	0	8.6	0	8.6	
	權乭男	權	0	3.5+14.8	0	3.5+14.8	
	權同烈	權	2.4+4.9	0	2.4+4.9	0	
	權從今	權	0	6	0	6	
	소계		7.3	43.1	7.3	43.1	
	계		7.3	67.3			
寺後基洞	盧性集	盧	0.4	0	0.4	5.4	
	朴連順	朴	0.6	0	0.6	0	
	朴正魯	朴	0	11	0	11	
	朴充己	朴	0	5.4+35.6	0	0	
	朴致道	朴	0	0	0	35.6	
	朴致西	朴	0.5	0	0.5	0	
	소계		1.1	52	1.1	46.6	
	邊成然	邊	0	1.3	0	1.3	
	李順德	李	2.8	0	2.8	0	
	全永道	全	0	14.9+27.9	0	14.9+27.9	
	계		4.3	96.1			
寺後洞	盧性集	盧	1.2	0	1.2+(1.5)	0	초2간
	李萬應	李	1.7+(1.5)	0	0	0	
	李順德	李	0	0	1.7	0	
	계		2.9(1.5)	0			초2간
山後谷	高道化	高	5.7	0	5.7	0	
	權甲申	權	0	7.2+9.1	0	7.2+9.1	
	權貴乭	權	0	8.2	0	8.2	
	權今丹	權	2.7	0	2.7	0	
	權卜同	權	0	8.7	0	8.7	
	權小從今	權	2.1	0	2.1	0	
	權五男	權	0	11.7	0	11.7	
	소계		4.8	44.9	4.8	44.9	
	洪介同	洪	0	12	0	12	
	계		10.5	56.9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三院谷	高業禮	高	0	13.5	0	0	
	高興伊	高	1.7	18.2	1.7	18.2	
	權貴亘	權	3.2	0	3.2	0	
	權今亘	權	0	9.6	0	9.6	
	權今禮	權	2.7	0	2.7	0	
	權大成	權	0.6	0	0.6	0	
	權亘南	權	0.5	26.9	0.5	26.9	
	權卜南	權	0	18.7	0	18.7	
	權卜尙	權	2+10.2	16.1	2+10.2	16.1	
	權宗今	權	2.4	0	2.4	0	
	소계		21.6	71.3	21.6	71.3	
	李永立	李	1.4+8.3	8.7	1.4+8.3	8.7	
	李化春	李	0	9.2	0	9.2	
	陳奉然	陳	0	0	0	13.5	
	계		33	120.9			
上里	姜元兼	姜	0	0	(2.1)	0	초3간
	孔春實	孔	0	0	(1.2)	0	초3간
	金萬元	金	0	0	(0.8)	0	초3간
	金俊汝	金	0	0	1.6+(0.8)	0	초3간
	金平心	金	0	0	(0.5)	0	초2간
	朴興卜	朴	0	0	(1.3)	0	초4간
	白一甫	白	0	0	0	11.2	
	安京文	安	0	0	(1.8)	0	초4간
	安春玉	安	0	0	(2.9)	0	초3간
	尹成鎭	尹	0	0	(2.3)	0	초10간
	李儉得	李	5.2+1.7+3.1+4.6+0.4+1.6+(0.8)+(2.5)+(0.9)+(2)+(1.3)+(2.1)+(1.8)+(1.3)+(0.8)+(2.3)+(1.1)+(2.3)+(2.1)	2.6+11.2+10.9+10.3+2.1	5.2+1.7+4.6+0.4+(2.1)	2.6+10.3+2.1	초5간
	소계		16.6(21.3)	37.1	11.9(2.1)	15	초5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鄭君集	鄭	0	0	(1.3)	0	초4간
	鄭順一	鄭	(1.6)	0	(1.6)	0	초3간
	趙古釗	趙	1	0	1	0	
	趙萬今	趙	(1.2)	0	0	0	
	趙性仁	趙	0	2.6	(2)	2.6	초4간
	趙性七	趙	0	0	0	10.9	
	趙順七	趙	0	0	(1.1)	0	초3간
	車元西	車	0	0	3.1	0	
	洪京眞	洪	0	0	(2.3)	0	초3간
	洪貴連	洪	0	0	(0.8)	0	초2간
	洪奇連	洪	3.2	0	3.2	0	
	洪洛汝	洪	(0.5)+(1.5)	0	0	0	
	洪大連	洪	0	0	(1.2)	0	초3간
	洪性文	洪	0	0	(0.9)	0	초3간
	洪性民	洪	(2.9)	0	0	0	
	洪性甫	洪	0	0	(0.8)	0	초4간
	洪性一	洪	1+0.8+0.3+(0.8)+(1.2)+(0.8)+(0.8)	0	1+0.8+0.3+(2.5)	0	
	洪云五	洪	0	0	(0.8)	0	초2간
	洪興得	洪	(2.3)	0	(2.3)	0	초6간
	洪希連	洪	0	0	(1.5)	0	초2간
	소계		5.3(10.8)	0	5.3(13.1)	0	초25간
	계		22.9(34.9)	39.7	(34.9)		초79간
小冷井	姜用甫	姜	4	0	4	0	
	權甲申	權	12.3	2.1	12.3	2.1	
	權京大	權	0	7+15.3	0	7+15.3	
	權萬奉	權	0	0	0	6.2	
	權從今	權	0	10.5	0	10.5	
	소계		12.3	34.9	12.3	41.1	
	金德玄	金	0	0	0	6.2	
	金春實	金	0	0	5.8	0	
	閔成學	閔	0	12.4	0	0	
	林昌實	林	1.9	0	1.9	0	
	玄萬今	玄	5.8	0	0	0	
	계		24	47.3			
小寺後洞	朴九汝	朴	(1.2)	0	(1.2)	0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朴連順	朴	0.7+1.3+(2)	2.9+9.3	0.7+1.3+(2)	2.9+9.3+5.1	초5간
	朴元順	朴	0	0.9	0	0.9	
	朴充奇	朴	0	5.1+26.8	0	0	
	朴致西	朴	0	0	0	26.8	
	소계		2(3.2)	45	2(3.2)	45	초8간
	邊成然	邊	1.5+3.3	0	1.5+3.3	0	
	李萬今	李	0	0	0	6.2	
	李萬吉	李	0	0	0	9+5.5	
	全永三	全	0	45.8	0	45.8	
	鄭三節	鄭	0	5.5+9	0	0	
	韓壬節	韓	0	6.2	0	0	
	계		6.8(3.2)	111.5			초8간
小靑湖洞 垈	姜用甫	姜	0	0	(1.1)	0	초6간
	金德玄	金	0	0	(1.6)	0	초4간
	金百出	金	2.1+1.1+(0.8)+(0.9)+(1.8)+(1.1)+(1.3)+(0.8)+(0.8)	0	2.1+1.1	0	
	金上順	金	0	0	(1.7)	0	초8간
	金石允	金	0	0	(1.8)	0	초5간
	金千分	金	0.7+2+(1.7)+(1.1)	0	0.7+2	0	
	金淸汝	金	0	0	(1.8)	0	초4간
	金春實	金	0	0	(0.8)	0	초4간
	金學允	金	0	0	(1.1)	0	초6간
	소계		5.9(10.3)	0	5.9(8.8)	0	초27간
	柳致云	柳	0	0	(0.8)	0	초6간
	朴京先	朴	0	0	22.1	0	
	朴宜然	朴	22.1	0	0	0	
	安京云	安	0	0	(0.9)	0	초4간
	兪致在	兪	0	0	(0.6)	0	초3간
	李玉丹	李	0	0	(0.8)	0	초3간
	李春化	李	0.9+(1.6)+(1.1)	0	0.9+(1.1)	0	초4간
	林在實	林	0	0	5+(1.2)	0	초3간
	林俊實	林	0	0	(1.3)	0	초4간
	林昌實	林	3.5+0.9	0	3.5+0.9+	0	초6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4)+(1.8)		(1.4)		
	소계		4.4(3.2)	0	9.4(3.9)	0	초13간
	張三得	張	5+(1.2)+(0.6)	0	0	0	
	계		38.3(18)	0			초70간
小靑湖前坪	金有成	金	0	0	0	22.3	
	朴京三	朴	0	0	0	6+6.9	
	朴京先	朴	0	0	0	8.6	
	朴京眞	朴	0	0	0	15.1	
	朴宜然	朴	0	6+6.9	0	0	
	소계		0	12.9	0	36.6	
	梁性五	梁	0	15.1+22.3	0	0	
	李小乙吉	李	0	7.3	0	0	
	李乙吉	李	0	3.9+12.7	0	0	
	林在實	林	0	0	0	23.2	
	張三得	張	0	8.6+23.2	0	0	
	全永直	全	4.9	0	4.9	0	
	全致弘	全	0	9.9	0	9.9	
	鄭萬乭	鄭	0	0	0	3.9+12.7+7.3	
	鄭三節	鄭	2.3	4.1	2.3	4.1	
	鄭順禮	鄭	6.4	0	6.4	0	
	소계		8.7	4.1	8.7	28	
	계		13.6	120			
水原這里坪	姜用甫	姜	0	13.9	0	13.9	
	金德玄	金	2.3	0	2.3	0	
	金百出	金	0.7	19.5	0.7	19.5	
	金石允	金	4.7	0	4.7	0	
	金成三	金	0	0	0	14.1	
	金春實	金	2.6	0	2.6	0	
	소계		10.3	19.5	10.3	33.6	
	內藏院		0	7.3	0	0	
	徐光連	徐	0	0	0	7.3	
	李乙吉	李	0	14.1	0	0	
	林昌實	林	4.4	22.5	4.4	22.5	
	丁上京	丁	0	19.1+6.2	0	0	
	鄭順禮	鄭	0	0	0	19.1+6.2	
	계		14.7	102.6			
水原這伊	官屯		2.9	0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坪	金石允	金	0.4	0	0.4	0	
	金淸汝	金	3.2	0	3.2	0	
	徐光連	徐	0	0	2.9	0	
	安敬云	安	3.3	0	3.3	0	
	李玉丹	李	0	0	9.8	0	
	張三得	張	9.8	0	0	0	
	鄭七每	鄭	0	2.9	0	2.9	
	계		19.6	2.9			
水原振威 兩郡接界	姜永交	姜	0	0	0	4.9+7.8	
	宮內府		0	12.8	0	0	
	金敬實	金	0	0	0	4.8	
	金德興	金	0	8	0	8	
	金成三	金	0	0	0	10.8	
	金新元	金	0	6.7	0	6.7	
	金銀三	金	0	0	0	1.7	
	金春山	金	0	6.9	0	6.9	
	소계		0	21.6	0	38.9	
	閔聖德	閔	0	6.7+7.6+10.8+6.7+4.8+8.6+7.8+20.9+5.6	0	0	
	소계	0		79.5	0	0	
	朴敬來	朴	0	0	0	6.7+6.7	
	朴敬順	朴	0	0	0	12.8	
	朴石山	朴	0	12.7+6.6	0	0	
	朴石山	朴	0	7.2	0	0	
	朴元七	朴	0	0	0	5.2	
	소계		0	26.5	0	31.4	
	徐士明	徐	0	0	0	14.3+20.9+7.8	
	徐士弘	徐	0	0	0	5.6	
	嚴敬化	嚴	0	0	0	7.6	
	兪成三	兪	0	0	0	7.2	
	李承台	李	0	4.8	0	0	
	李承台	李	0	4.7+16+5.2	0	0	
	李億石	李	0	16.5+5.6	0	16.5+5.6	
	李治交	李	0	0	0	8.6	
	李治先	李	0	0	0	12.7	
	李致元	李	0	0	0	4.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治弘	李	0	0	0	5.2+16	
	소계		0	52.8	0	69.3	
	林敬國	林	0	0	0	4.8	
	鄭鳳吉	鄭	0	7.8+4.9	0	0	
	韓年得	韓	0	1.7	0	0	
	韓豊德	韓	0	5.2	0	0	
	黃千石	黃	0	0	0	6.6	
	계		0	212.8			
水原振威 兩郡接界 越坪	姜永交	姜	0	0	0	8.4	
	姜永浩	姜	7.5	0	7.5	0	
	姜元京	姜	0	0	0	7.3+20.6	
	孔今丹	孔	3.7	0	3.7	0	
	宮內府		0	8	0	0	
	金德興	金	0	0	0	8.5	
	金石山	金	14.6	0	14.6	0	
	金成玉	金	0	16.5	7.7	16.5	
	金應三	金	0	5.1	0	0	
	金應必	金	0	0	12.2	0	
	소계		14.6	21.6	34.5	25	
	閔聖學	閔	0	13.3+20.6+10.5+14	0	0	
	소계		0	58.4	0	0	
	朴敬來	朴	0	0	0	14	
	朴敬順	朴	0	0	0	10.5	
	朴石山	朴	0	8.8+3.9+10.3+8.1	0	8.8+3.9+10.3	
	朴乙吉	朴	0	13.9	0	13.9	
	소계		0	45	0	61.4	
	普光寺		13	0	0	0	
	宋學道	宋	0	0	16.3	0	
	嚴敬化	嚴	0	0	0	8.1	
	吳萬釗	吳	0	0	15.2	0	
	龍珠寺		9.9+5+7.7	12.1	0	0	
	尹斗用	尹	7.3	14	0	0	
	尹二月	尹	12.2	0	0	0	
	李光年	李	22	0	22	0	
	李德才	李	0	0	9.9	12.1	
	李萬同	李	19.2	0	19.2	0	
	李萬孫	李	0	0	13	0	
	李小春	李	6	0	6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每						
	李億才	李	0	0	5	0	
	李永大	李	0	9.8+8.5+6.1	0	9.8+6.1	
	李永每	李	3.5	0	3.5	0	
	李一先	李	16.3+5.5	7.3	0	0	
	李子斤釗	李	7.2	0	7.2	0	
	소계		79.7	31.7	85.8	28	
	林永叔	林	0	0	0	14	
	張大平	張	5.7	0	5.7	0	
	鄭奉吉	鄭	0	8.4+3	0	3	
	趙才乭	趙	0	0	7.3	0	
	崔德信	崔	0	0	0	8+13.3	
	崔同伊	崔	5.1	0	5.1	0	
	崔萬石	崔	2.9	0	2.9	0	
	崔世必	崔	19.5+5.9	0	19.5+5.9	0	
	崔順五	崔	7.7	0	7.7	0	
	崔判乭	崔	26.2	0	26.2	0	
	소계		67.3	0	67.3	21.3	
	韓時年	韓	15.2	6.6	0	6.6	
	韓豊德	韓	7	0	7	0	
	黃春交	黃	0	0	5.5	5.1	
	계		255.8	208.8			
新基	金九然	金	1.6+2.9	0	1.6+2.9	0	
	金萬甫	金	0	0	0	19.8	
	朴京三	朴	0	0	0	11.3	
	朴京學	朴	0	0	1.1	0.7+18.4+2.9	
	朴順京	朴	0	0	0	29.6+27.1	
	소계		0	0	1.1	90	
	申化三	申	0	0	0	9.8	
	安京云	安	0	0	16.7	7.5	
	梁白仁	梁	0	27.1	0	0	
	尹興得	尹	1.1+0.7+15+0.7+1.6+(5)	2.9+18.4+11.3+0.7+29.6	0	0	
	소계		19.1(5)	62.9	0	0	
	李卜乭	李	1.7+5.3	0	1.7+5.3	22.5	
	李順一	李	0	15.7+5.4	0	15.7+5.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7.5	
	李玉丹	李	0	0	15+(5)	11.2	초3간
	李乙吉	李	0	9.8+17.5 +4.8	0	0	
	소계		7	53.2	22(5)	72.3	초3간
	張三得	張	16.7	11.2+22. 5+19.8+7 .5	0	0	
	소계		16.7	61	0	0	
	鄭建實	鄭	0	0	0	4.8	
	鄭自實	鄭	0	0	1.6+0.7+ 0.7	0	
	계		47.3	204.2			
新村坪	郭化實	郭	0	1.7+1	0	1.7+1	
	宮內府		14.4+20 .4	0	0	0	
	金德眞	金	2.6	0	2.6	0	
	金珠元	金	11.9	0	11.9	0	
	金珠玄	金	5.2	0	5.2	0	
	金衡好	金	0	0	7.2	0	
	소계		19.7	0	26.9	0	
	柳樂己	柳	5.5	0	5.5	0	
	柳性交	柳	3.1	0	3.1	0	
	柳才允	柳	0	0	20.4	0	
	소계		8.6	0	29	0	
	李善有	李	0	0	7.2	0	
	張德守	張	1.5	0	1.5	0	
	全順京	全	2+2	0	2+2	0	
	全順汝	全	8.9	0	8.9	0	
	全順益	全	1.8	0	1.8	0	
	소계		14.7	0	14.7	0	
	崔小男	崔	6.8	0	6.8	0	
	崔致永	崔	0.7	0	0.7	0	
	崔希春	崔	1.3	0	1.3	0	
	소계		8.8	0	8.8	0	
	洪成玉	洪	0	0.4	0	0.4	
	계		88.1	3.1			
安味洞	姜在元	姜	0	0	0	11	
	金千石	金	0	0	0	9.2	
	金學仁	金	0	0	0	6.5	
	盧性玄	盧	0	0	0	2.8+6.5	
	申化三	申	0	0	0	27.2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安京云	安	0	0	0	3.1	
	尹興得	尹	0	9.2+10.1+3.3+27.2+11	0	0	
	소계		0	60.8	0	0	
	李卜乭	李	0	3	0	3	
	李卜禮	李	2.1	0	2.1	0	
	林善祿	林	0	0	0	3.3	
	林在實	林	0	0	0	7.4	
	張三得	張	0	6.5+6.5+2.8+3.1	0	0	
	全局玄	全	0	1.9	0	1.9	
	全億釗	全	0	0.7	0	0.7	
	全永三	全	0	5.3	0	5.3	
	全致然	全	0	0	0	10.1	
	소계		0	7.9	0	18	
	鄭萬乭	鄭	1.6	0	1.6	0	
	鄭三節	鄭	0	7.4	0	0	
	鄭自實	鄭	0.4	0	0.4	0	
	韓性周	韓	4.7	0	4.7	0	
	韓希西	韓	3.6	22+5.8	3.6	22+5.8	
	계		12.4	125.8			
野幕後坪	姜永交	姜	0	0	0	3.9	
	姜永西	姜	2.5	8+3.9	2.5	8	
	金敬實	金	2.9	0	2.9	0	
	金德玄	金	0	0	0	2.3	
	金道眞	金	0	0	0	5.2	
	金成玉	金	0	7.8	0	7.8	
	소계		2.9	7.8	2.9	15.3	
	柳光年	柳	0	0	0	3.3+3.2	
	朴敬西	朴	0	0	0	1.9+13.1	
	朴石山	朴	0	1.6+2.8+6.5	0	0	
	朴汝化	朴	0	5.9	0	5.9	
	朴乙吉	朴	0	8.3	0	8.3	
	朴春一	朴	0	3.2	0	3.2	
	소계		0	28.3	0	32.4	
	嚴敬化	嚴	0	0	0	1.5+1	
	吳萬西	吳	0	0	0	10	
	尹杗用	尹	0	1.9+13.1	0	0	
	李光年	李	0	0	0	8	
	李光三	李	0	0	0	1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德在	李	0	6.1	0	6.1	
	李乭伊	李	0	2.8+8	0	0	
	李善汝	李	0	0	0	2.8	
	李永大	李	0	8.9+1+14 +4.7+4.7 +5.2+1.5 +10+3.2	0	0	
	李殷居	李	0	0	0	8.9	
	李一先	李	0	1.5+3.9	0	0	
	李治交	李	0	0	0	1.5	
	李致順	李	0	6.4	0	6.4	
	李學水	李	0	8.8	0	8.8	
	소계		0	90.7	0	56.5	
	韓然得	韓	0	2.3	0	0	
	韓豊德	韓	0	3.3	0	0	
	韓興先	韓	0	0	0	4.7	
	黃仁敎	黃	0	0	0	6.5	
	黃春交	黃	0	0	0	4.7+1.6+ 2.8	
	계		5.4	159.3			
於仁谷	金萬春	金	0	2.1+15.1	0	0	
	南卜同	南	0	3.2+0.2	0	3.2+0.2	
	文德元	文	0	14.6	0	14.6	
	申化三	申	0	3	0	3	
	趙希連	趙	0	0	0	2.1+15.1	
	池用才	池	0	16	0	16	
	洪京眞	洪	0	10.9	0	10.9	
	洪京回	洪	0	5	0	5	
	계		0	70.1			
笋伊坪	金己好	金	6.2	0	6.2	0	
	金德玄	金	5.8	0	5.8	0	
	金萬元	金	6.2	0	6.2	0	
	金俊汝	金	2.9	0	2.9	0	
	소계		21.1	0	21.1	0	
	南卜同	南	0	2.8	0	2.8	
	白一甫	白	1.3	0	1.3	0	
	禹春業	禹	26.5+2. 4	0	26.5+2.4	0	
	李儉得	李	3	0	3	0	
	鄭君京	鄭	4.1	0	4.1	0	
	鄭君集	鄭	15.5	0	15.5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趙成仁	趙	15.7	0	15.7	0	
	玄用甫	玄	10.6+10.6	0	10.6+10.6	0	
	洪介同	洪	5.3+4.1	0	5.3+4.1	0	
	洪京會	洪	4.3	0	4.3	0	
	洪九連	洪	9.2	0	9.2	0	
	洪性三	洪	9	0.9	9	0.9	
	洪性先	洪	0	3.3	0	3.3	
	洪性采	洪	4.3	0	4.3	0	
	洪性七	洪	1.3	0	1.3	0	
	洪興得	洪	0	1.5+0.6	0	1.5+0.6	
	소계		37.5	6.3	37.5	6.3	
	계		148.3	9.1			
外桐泉	金局玄	金	0	4.8+2.9	0	4.8	
	南卜同	南	0	2.8	0	2.8	
	朴用西	朴	7.4+(0.6)+(1)+(0.8)	0	7.4+(0.8)	0	초4간
	成致文	成	4.4	0	4.4+(0.6)	0	초3간
	孫化集	孫	0	0	0.9	0	
	吳三甫	吳	0	0	(1)	0	초4간
	禹春葉	禹	0	0.5	0	0.5	
	尹宜祿	尹	0.9	0	0	0	
	李卜上	李	0	1.7	0	0	
	李旬男	李	0	35.2	0	0	
	鄭氏丹	鄭	8.4	0	8.4	0	
	鄭欽丹	鄭	0	4.6+1.4	0	4.6+1.4	
	曺性甫	曺	0	0	(1.3)	0	초2간
	趙性先	趙	0	1.1	0	1.1	
	趙性仁	趙	0	4.5	0	4.5	
	趙希連	趙	0	0	0	2.9	
	池用才	池	0	0	0	1.7	
	韓任眞	韓	0	0	(0.5)	0	초2간
	洪大連	洪	0	1.9+0.5	0	1.9+0.5	
	洪性先	洪	0.9	0	0.9	0	
	洪性一	洪	0	0	0	35.2	
	洪興得	洪	(0.5)+(1.3)	0	0	0	
	소계		0.9(1.8)	2.4	0.9	37.6	
	계		22(4.2)	61.9	(4.2)		초15간
牛村	金白出	金	1.5	0	1.4+1.5+	0	초6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5)		
	金士永	金	0	0	(1.5)	0	초4간
	金千分	金	2.2+2.2	0	2.2	0	
	金致成	金	0.8+(2.1)+(1.3)+(1.1)+(1.9)	0	0	0	
	소계		6.7(6.4)	0	5.1(3)	0	초10간
	朴京三	朴	4+1.5+2.2+2.3+1.4+5+1.8+(1.5)+(1.5)+(1.3)	0	4+1.5+2.2+2.3+5+1.8+(1.3)	0	초5간
	朴京一	朴	0	0	(1.7)	0	초4간
	朴京眞	朴	0	0	(2.1)	0	초5간
	朴京學	朴	1.9+2.5+8.7	22.8	1.9+2.5+8.7+(1.9)	22.8	초5간
	朴順萬	朴	(1.7)+(1.1)	0	(1.1)	0	초4간
	朴順甫	朴	2	0	2+(1.7)	0	초4간
	朴淸出	朴	3.7	0	3.7	0	
	소계		37(7.1)	22.8	35.6(9.8)	22.8	초27간
	白允實	白	0	0	0.8	0	
	申永之	申	0	0	(1.3)	7.7	초5간
	梁白仁	梁	0	0.6	0	0.6	
	劉性集	劉	0	0	0	1.65	
	李德必	李	0	7.6	0	7.6	
	李成卜	李	0	0	0	1.65+10.9	
	李小乙吉	李	2+(1.7)	0	0	0	
	李乙吉	李	0	3.3+10.9	0	0	
	소계		2(1.7)	21.8	0	20.15	
	林在實	林	0	0	2.2	0	
	張三得	張	0	7.7+5.8	0	5.8	
	全在明	全	1.1+4.3	1	1.1+4.3	1	
	全在順	全	0.5+5	0	0.5+5	0	
	소계		10.9	1	10.9	1	
	韓希西	韓	0.5	0.9+14.8	0.5	0.9+14.8	
	玄自俊	玄	0	0	(1.1)	0	초5간
	계		57.1(15.	75.4	(15.2)		초47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2)				
隅村前坪	金武得	金	0	14.4	0	0	
	金白出	金	0	20.3+1.8	0	20.3+1.8	
	金士興	金	0	0	0	14.4	
	金致成	金	1.9+1.7+0.7+(0.7)	0	1.9+1.7	0	
	金致俊	金	2.9	0	2.9	0	
	소계		7.2(0.7)	36.5	6.5	36.5	
	朴京三	朴	2.7+9.9	0	2.7+9.9	0	
	朴京眞	朴	0	0	0	5.5	
	朴京學	朴	2.2	0	2.2	0	
	朴性俊	朴	0.7	0	0.7+(0.7)	0	초2간
	朴順甫	朴	0	14.4	0	14.4	
	朴淸出	朴	5	0	5	0	
	소계		20.5	14.4	20.5(0.7)	19.9	초2간
	沈千卜	沈	0	13.7	0	13.7	
	梁白仁	梁	5.6	5.5	5.6	0	
	劉成伯	劉	0	0	0	1.6+24.8	
	李小乙吉	李	0	1.6+24.8	0	0	
	張山龍	張	0	11.5	0	11.5	
	全在明	全	3.2	0	3.2	0	
	全在順	全	3.5	0	3.5	0	
	全在洽	全	7.6	0	7.6	0	
	소계		14.3	0	14.3	0	
	崔德彬	崔	0	11.4	0	11.4	
	韓希西	韓	3.7	0.5	3.7	0.5+6	
	계		51.3(0.7)	119.9	(1.4)		초4간
元堂谷	姜用甫	姜	2.5	6.1	2.5	6.1	
	金九然	金	0.5	0	0.5	0	
	申化三	申	1.1	0	1.1	0	
	李萬書	李	3	0	3	0	
	李卜乭	李	1.7	0	1.7	0	
	李玉丹	李	0	0	11.9	0	
	李一山	李	0.8+(1.4)+(1.2)	0	0	0	
	소계		5.5(2.6)	0	16.6	0	
	林昌實	林	0	0	5.3	0	
	張三得	張	11.9+5.3	4.4	0	0	
	全永直	全	0	2.2+2.9+	0	2.2+2.9+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2.1		2.1	
	全元石	全	3.2	6.2+18	3.2	6.2+18	
	全在順	全	1.3	13.9	1.3	13.9	
	全在喆	全	0.6	0	0.6	0	
	全致根	全	1.1	0	1.1	0	
	소계		6.2	45.3	6.2	45.3	
	鄭建實	鄭	0	0	0	4.4	
	鄭順乭	鄭	4.4	0.9	4.4+0.8+(1.4)	0.9	초4간
	鄭七每	鄭	1.9	0	1.9+(1.2)	0	초4간
	소계		6.3	0.9	7.1(2.6)	5.3	초8간
	韓希西	韓	0	1.3	0	1.3	
	계		39.3(2.6)	58	(2.6)		초8간
元堂前坪	姜用甫	姜	1.5+0.9	1.1	1.5+0.9	1.1	
	姜在元	姜	0.8	0	0.8	0	
	姜致先	姜	0.8	0	0.8+0.8	0	
	소계		4	1.1	4.8	1.1	
	金萬億	金	0	0.8+1.3	0	0.8+1.3	
	金百出	金	0	18.8	0	18.8	
	金士永	金	0	0	0	11.8	
	金石仁	金	0	5.7	0	5.7+29.3+27.2	
	金淸汝	金	0	0	0	23.25	
	金春實	金	0	0	0	18.3	
	소계		0	26.6	0	136.45	
	德溫宮		0	0.4	0	0	
	朴順京	朴	0	0	0	0.4	
	卞一成	卞	0	27.2	0	0	
	李卜乭	李	3.9+0.8+(1.5)+(1)	0	3.9+(1)	23.25	초3간
	李卜禮	李	0	0	(1.5)	0	초3간
	李玉丹	李	0	0	0	15.8	
	李乙吉	李	(2.1)	0	0	0	
	李一山	李	3+0.6+(2.1)+(2.1)	0	0	0	
	소계		8.3(8.8)	0	3.9(2.5)	39.05	초6간
	林昌實	林	0	1.1	0	1.1	
	張三得	張	0	7.1+6.6+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8.3+23.5+11.8+29.3+46.5+15.8			
	소계		0	158.9	0	0	
	全局玄	全	0	0	(2.1)	0	초5간
	全永道	全	3.5	0	3.5	0	
	全元石	全	0	10.6	0	10.6	
	鄭德實	鄭	0	0	1	0	
	鄭萬乭	鄭	0	26.4	0	26.4	
	鄭三節	鄭	7+8+4+1+(1.5)	8.6	7+8+4+(1.5)	8.6	초5간
	鄭戍禮	鄭	0	0	0.6+3+(2.1)	23.5+7.1+6.6	초3간
	鄭順乭	鄭	3.2	0	3.2	0	
	鄭時萬	鄭	0	5.8	(2.1)	5.8	초2간
	소계		23.2(1.5)	40.8	26.8(5.7)	78	초10간
	韓允西	韓	0	1.4	0	1.4	
	韓希西	韓	0	7.4	0	7.4	
	계		39(10.3)	275.5			초21간
元堂後坪	金萬億	金	4.8	0	0	0	
	金萬億	金	5.3	0	0	0	
	金學允	金	3.6	3.5	3.6	3.5	
	朴善京	朴	0	0	0	7.8	
	李乙吉	李	0	2.7	0	0	
	全永道	全	1.8+2.5	0	1.8+2.5	0	
	全永甫	全	0	7.8	0	0	
	鄭萬乭	鄭	0	0	4.8+5.3	2.7	
	鄭三節	鄭	1.6	0	1.6	0	
	鄭順禮	鄭	2.1+0.6+1.3	0	2.1+0.6+1.3	0	
	鄭時萬	鄭	2.5+3.5+7.8	0	2.5+3.5+7.8	0	
	鄭七每	鄭	5.4+0.4	0	5.4+0.4	0	
	소계		25.2	0	35.3	2.7	
	계		43.2	14			
元味坪	權萬奉	權	0	0	0	9.5	
	權伯丹	權	0	10.7	0	10.7	
	權順烈	權	0	0	0	1.7+12.4	
	소계		0	10.7	0	34.3	
	金致文	金	0	0	0	7+14	

동명	성명(법인)	성 씨(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朴永根	朴	0	0	0	16.8	
	梁成業	梁	0	14	0	0	
	梁有德	梁	0	0	0	13.5	
	龍珠寺		0	12.4+9.5+13.5+1.7	0	0	
	丁君甫	丁	0	0	0	14.1	
	鄭性集	鄭	0	9.7	0	9.7	
	鄭一先	鄭	0	7+16.8+4.5	0	4.5	
	소계		0	38	0	14.2	
	趙順得	趙	0	14.1	0	0	
	계		0	113.9			
元尾坪	姜永浩	姜	0	3.7+13.1	0	3.7+13.1	
	宮內府		0	5.5	0	0	
	金善京	金	0	0	0	29.5	
	金性德	金	0	0	0	12.3	
	金星玉	金	0	0	0	1.2	
	金允文	金	0	0	0	12.1	
	金治文	金	0	0	0	9.5	
	소계		0	0	0	64.6	
	朴石山	朴	0	16.9+9.5+6.4	0	0	
	朴乙吉	朴	0	16.5+9.7	0	16.5+9.7	
	소계		0	59	0	26.2	
	梁應朱	梁	0	8.8	0	8.8	
	龍珠寺		0	12.1+6.3	0	0	
	尹㐲用	尹	0	9.9+12.6+15.6	0	0	
	李光年	李	0	0	0	5.7+15.2	
	李光三	李	0	0	0	30	
	李德才	李	0	0	0	6.3	
	李若水	李	0	1.2	0	0	
	李永大	李	0	4.9+9.4+6.4+4.6+12.3+29.5	0	4.9+9.4+6.4+4.6	
	소계		0	68.3	0	82.5	
	林元日	林	0	0	0	12.3	
	林春曄	林	0	0	0	7.2	
	全治德	全	0	12.3+0.7	0	0.7+4.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4.7+3.6		3.6	
	소계		0	21.3	0	9	
	趙乭伊	趙	0	0	0	15.6+9.9	
	趙順佐	趙	0	0	0	12.6	
	趙在乭	趙	0	0	0	16.9	
	소계		0	0	0	55	
	崔德行	崔	0	0	0	5.5	
	崔性來	崔	0	5+4.3+15.2+9.9+5.7	0	5+4.3+9.9	
	崔仁西	崔	0	1.7	0	1.7	
	소계		0	41.8	0	26.4	
	韓然得	韓	0	6.1+6.8+30	0	6.1+6.8	
	韓豊德	韓	0	7.7+7.2	0	7.7	
	소계		0	57.8	0	20.6	
	계		0	335.8	0		
月境	姜昌成	姜	0	20.3	0	0	
	宮內府		0	10.3+7.7	0	0	
	金基浩	金	5.5+1.1	1.9+1.8	0	1.9+1.8	
	盧先一	盧	0.9+13.2+(3.2)	0	0.9+13.2+(3.2)	0	초4간
	盧性信	盧	0	0	0	7.4	
	徐萬奉	徐	0	0	0	20.3	
	守禦屯		0	13	0	0	
	安春玉	安	0	0	1.1	0	
	尹黔祿	尹	0	5.3	0	0	
	尹宜祿	尹	(1.1)+(1.8)	0.9+2.2	0	0	
	李德元	李	0	0	0	7.7+10.3	
	李萬得	李	1.5+0.8+(2.1)	0	1.5+0.8+(2.1)	0.9	초5간
	李性玄	李	0	0	(1.1)	0	초4간
	李一山	李	0	7.4	0	0	
	李學仁	李	0	7.8	0	7.8	
	소계		2.3(2.1)	15.2	2.3(3.2)	26.7	초9간
	全京守	全	0	0	0	2.2	
	崔光先	崔	0	0	5.5	0	
	崔士局	崔	3.6	0	3.6	0	
	崔士得	崔	0	20.9+12.1	0	20.9+12.1	
	崔士玉	崔	0	1.6	0	1.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崔春三	崔	0	0	(1.8)	0	초3간
	崔希一	崔	0	0	0	13	
	소계		3.6	34.6	9.1(1.8)	47.6	초3간
	韓允西	韓	0	0	0	5.3	
	계		26.6(8.2)	113.2	(13.2)		초16간
月境里	金基元	金	2.5	0	2.5	0	
	金基浩	金	2.7+1+(2.4)+(1.5)	0	2.7+1+(1.5)	0	초5간
	金性元	金	0.7	0	0.7	0	
	金元實	金	12	0	12	0	
	소계		18.9(3.9)	0	18.9(1.5)	0	초5간
	羅德寬	羅	0.5	8.3+1.5	0.5+(0.8)	8.3+1.5	초3간
	南卜同	南	1.4	0	1.4	0	
	南一萬	南	2.7+15.1	0	2.7+15.1	0	
	소계		19.2	0	19.2	0	
	盧京律	盧	0	0	(1.8)	0	초4간
	盧性心	盧	1.4	0	3.9+1.9+1.4	21.8	
	柳元康	柳	0	0	1.1	0	
	柳昌汝	柳	0	0	(1)	0	초3간
	朴興卜	朴	11.8	0	0	0	
	徐性實	徐	0	0.5	6.5	0.5	
	徐性必	徐	0	0	6.6	0	
	宋興允	宋	0.6	0	0.6	0	
	安春玉	安	2.5	0	2.5+0.9	0	
	禹性九	禹	0	0	11.8	0	
	尹宜祿	尹	6.5+0.9+3.9+9.6+4.4+4.1	2.1+39.7+11.6+21.8+5.1	0	0	
	소계		29.4	80.3			
	李黔得	李	1.9+6.6	4.1	0	0	
	李萬得	李	7.5	2	4.1+7.5	5.1+2	
	李元實	李	(0.7)	0	(0.7)	0	초2간
	소계		16(0.7)	6.1	11.5(0.7)	7.1	초2간
	全京五	全	15.7	0	15.7	0	
	全光三	全	0	0	(2.4)	0	초5간
	全性五	全	0	16.4	5.9	4.1+11.6+39.7+16.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2.1	
	全性又	全	0	0	4.4	0	
	全性才	全	0	0	9.6	0	
	소계		0	16.4	35.6(2.4)	73.9	초5간
	丁性充	丁	1.3	0	1.3+(0.9)	0	초3간
	丁順一	丁	0	17.8	0	17.8	
	鄭日立	鄭	0	3.3	0	0	
	趙京玄	趙	0	0	(1.3)	0	초3간
	趙致云	趙	3	0	3	0	
	池龍在	池	8.7	0	8.7	0	
	崔光先	崔	(1.8)	0	(1.8)	0	초2간
	崔士局	崔	6.9	0	6.9	0	
	崔士得	崔	1.1+0.8+1.3+9.9+(1.3)+(1.1)+(0.9)+(0.8)+(1.8)+(1.4)+(1)+(1.5)	0	0.8+9.9+(1.5)	0	초6간
	崔成汝	崔	0	0	(1.4)	0	초6간
	崔性回	崔	0	0	0	3.3	
	崔順化	崔	0	0	1.3	0	
	崔永回	崔	2.5	0	2.5	0	
	소계		22.5(11.6)	0	21.4(4.7)	3.3	초14간
	韓云京	韓	0	7.2	(1.1)	7.2	초2간
	韓元集	韓	0	0	20.2	0	
	洪樂汝	洪	1.4	0	1.4	0	
	洪樂玄	洪	1.8	0	1.8	0	
	洪性民	洪	20.2	0	0	0	
	洪成七	洪	3.8	0	3.8	0	
	洪云五	洪	1.9	0	1.9	0	
	洪興得	洪	6.4	0	6.4	0	
	소계		35.5	0	15.3	0	
	계		187(16.2)	141.4	(16.2)		초44간
月下洞	金洛玄	金	0	0	0	7.5	
	金萬春	金	0	7.5	0	0	
	李儉得	李	0	4.9	0	0	
	鄭君集	鄭	0	0.6	0	0.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鄭欽丹	鄭	0	1.5+4	0	0	
	趙萬今	趙	0	13.3	0	0	
	趙希連	趙	0	0	0	4.9	
	陳甫然	陳	0	2.5	0	2.5	
	崔碩老	崔	0	0	0	1.5+4	
	洪局玄	洪	0	0	0	13.3	
	洪性文	洪	0	0	0	16.6+5.1	
	洪興得	洪	0	16.6+5.1	0	0	
	소계		0	21.7	0	35	
	계		0	56			
鷹方谷	高業禮	高	1.7	0	1.7	0	
	權氏乭	權	0	2.6	0	2.6	
	權壬奉	權	1	0.6	1	0.6	
長承谷	姜用甫	姜	0	12.9	0	12.9	
	金德玄	金	0	0	0	12.5	
	金萬億	金	1.6	0	0	0	
	金上順	金	0	0	0	13.4	
	金石允	金	0.9+2.8	5.1	0.9+2.8	5.1	
	金成三	金	0	0	0	14.7	
	金淸汝	金	0	0	0	7.8	
	소계		5.3	5.1	3.7	53.5	
	盧性連	盧	0	0	4	0	
	朴敬先	朴	0	11.5	0	11.5	
	朴順敬	朴	5.6	10.4	5.6	10.4	
	朴順學	朴	0	0	0	13.4	
	朴春一	朴	2.9+2.6	0	2.9+2.6	0	
	朴興德	朴	0	26.8+12.5	0	0	
	소계		11.1	61.2	11.1	35.3	
	李三汝	李	0	0	8.1	0	
	李億石	李	4	0	0	0	
	李乙吉	李	0	14.7	0	0	
	林俊實	林	5.3	0	5.3	0	
	林昌實	林	5.8	0	5.8	0	
	張三得	張	0	7.8	0	0	
	鄭萬乭	鄭	0	0	1.6	0	
	鄭順禮	鄭	1.6+11.4	9.2	1.6+11.4	9.2	
	鄭時萬	鄭	6.9+8.1	2.8	6.9	2.8	
	소계		28	12	21.5	12	
	계		59.5	113.7			
錚錚谷	具三分	具	1.7+2+4	1.6	1.7+2+4	1.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3		+1.3		
	具一今	具	0	6.9+1.5	0	6.9+1.5	
	盧性根	盧	0	0	4.8	26.4	
	盧性集	盧	0	0	0	59.1	
	柳亘石	柳	0	0	0	5.7	
	朴汝先	朴	5.2	0	5.2	0	
	朴連順	朴	11.3+1.5+13.7+0.4	13.8	11.3+1.5+13.7+0.4+14.6	13.8+14.2+13.4	
	朴元順	朴	0	5.5	0	5.5	
	朴春應	朴	3.9	3	3.9	3	
	朴充奇	朴	4.3+2.7	11.6+3.8+7.2+59.1	4.3+2.7	0	
	朴致西	朴	0.8	0	1.4+0.8+(1)	7.8+11.6	초3간
	소계		43.6	104	59.8(1)	69.3	
	邊成連	邊	0.6+4.8+1.3+1+(1.5)	10.1	0.6+1.2+1+(1.5)	10.1	초2간
	소계		7.7(1.5)	10.1	2.8(1.5)	10.1	
	安京文	安	0	22.2	0	22.2	
	安占分	安	2.2	0	2.2	0	
	安占釗	安	6.5+(0.9)	2.1	0	0	
	李儉得	李	0.3+1.9+1.5+14.6+14.1	14.2+9.9+13.4+3.4+5.7+26.4	0.3+1.9	0	
	李亘明	李	1.8+13.4	0	1.8+13.4	0	
	李萬應	李	8.6+1.4+(1)	0	0	0	
	李云西	李	3.6	0	3.6	0	
	李占三	李	0	0	8.6	0	
	소계		61.2(1)	73	29.6	0	
	鄭四節	鄭	0	0	1.5	0	
	鄭致夫	鄭	0	0	0	2.8	
	鄭欽丹	鄭	0.4	0	0.4	0	
	崔成甫	崔	0	0	14.1+6.5+(0.9)	7.2+3.8+2.1+9.9+	초2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3.7	
	소계		0	0	20.6(0.9)	26.7	
	韓順卜	韓	0	7.8	0	0	
	韓任眞	韓	0	2.8	0	0	
	洪大連	洪	6	10.9+6.3	6	10.9+6.3	
	洪性文	洪	0	21.5	0	21.5	
	洪性民	洪	0	18+2+5.5+32.5+14.3+5.2	0	18+2+5.5+32.5+14.3+5.2	
	洪性采	洪	0	0	0	10	
	洪興得	洪	0	10	0	0	
	소계		6	116.2	6	126.2	
	계		136.7(3.4)	358.2	(3.4)		초7간
接竹谷	金春實	金	0	0	0	20.2	
	盧性三	盧	0	0	4.9	0	
	林在實	林	0	0	0	27	
	林俊實	林	0	0	0	5.3	
	鄭順一	鄭	4.9	5.3	0	0	
	玄萬今	玄	0	27+20.2	0	0	
	계		4.9	52.5			
蒼葛坪	姜永好	姜	0	0	0	25.3+6.4	
	姜用甫	姜	0	0	0	17.6	
	校宮位		0	11.5+9.5	0	0	
	權金禮	權	4.8	9.1	4.8	9.1	
	權大成	權	0	12.4	0	12.4	
	權同列	權	0	15.1	0	15.1	
	權百永	權	0	0	0	9.5	
	權上云	權	0	0	2.3	0	
	權善任	權	2.3	3.6	0	3.6	
	權小卜男	權	0	0	0	33.3	
	權小順乭	權	0	0	0	6.3	
	權小從今	權	0	5.9+4.7+3.4	0	5.9+4.7+3.4	
	權二釗	權	3.3+12.8	5	3.3+12.8	5	
	權二月	權	0	0	0	9.6	
	權任奉	權	0	0	7.9	0	
	權從今	權	0	16.6	0	16.6	
	소계		23.2	75.8	31.1	134.5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德玄	金	0	0	0	12.5+8.9	
	金百出	金	9.5	7	9.5	7	
	金上旬	金	0.5	1+7.5	0.5	1+7.5	
	金元根	金	0	0	0	10	
	金應三	金	0	5.3+10+5.5	0	0	
	金淸汝	金	0	0	0	18.4	
	金春實	金	0	0	0	9.5+8.4	
	金學仁	金	0	0	0	12.6+16.7	
	소계		10	36.3	10	112.5	
	內藏院		0	17.6+21	0	0	
	盧德順	盧	0	0	0	0.9+7.9	
	盧性三	盧	0	0	0	6	
	閔成學	閔	0	6+16.7+9.6+8.4+12.5	0	0	
	소계		0	53.2	0	0	
	朴順學	朴	0	8.9	0	8.9	
	朴長石	朴	0	0	0	11.5	
	邊一萬	邊	0	18.4	0	0	
	安德好	安	0	4.7	0	4.7	
	安得分	安	0	5.5	0	5.5	
	梁成業	梁	1.5	24.7+6.1	1.5	24.7+6.1	
	吳萬西	吳	0	0	0	28.1	
	龍珠寺		0	6.3	0	0	
	兪致在	兪	0	0	0	21	
	李得分	李	0	33.3	0	0	
	李民甫	李	1.1	0	1.1	0	
	李三汝	李	0	0	0	10.7+5.5+5.3	
	李彦卜	李	7.9	13.8+17.7	0	13.8+17.7	
	李永立	李	0	4.4+10.8+6.5	0	4.4+10.8+6.5	
	李乙吉	李	0	8.9	0	0	
	소계		9	95.4	1.1	74.7	
	林俊實	林	0	11.2	0	11.2+9	
	張三得	張	0	9	0	0	
	全敬有	全	0	0	0	0.6+8.2	
	全永甫	全	0	7.9	0	0	
	丁君善	丁	7.4	0	7.4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鄭萬亨	鄭	0	10.6	0	10.6	
	鄭三節	鄭	0	12.6+15	0	15	
	鄭順禮	鄭	0	5.4	0	5.4	
	鄭順一	鄭	0	9.5	0	0	
	鄭時萬	鄭	0	14.6	0	14.6	
	소계		0	67.7	0	45.6	
	崔在信	崔	0	0.9+8.2+ 10.7+0.6	0	0	
	소계		0	20.4	0	0	
	韓順吉	韓	0	25.3+6.4	0	0	
	韓時連	韓	0	28.1	0	0	
	소계		0	59.8	0	0	
	계		51.1	570.9			
靑陽谷	金成五	金	0	5.8	0	5.8	
	金致成	金	0.3	9.6	0.3	9.6	
	金平中	金	0.9	0	0.9	0	
	柳性玄	柳	0	0	0	8.4	
	朴允實	朴	0	0	0	3.6	
	白允實	白	0	0	0	6.6	
	申化三	申	0	14.7	0	14.7	
	李德必	李	0	14.7+8.3 +6.5	0	14.7+8.3 +6.5	
	李小乙 吉	李	0	8.4	0	0	
	李順一	李	1.6	4.1+10.8 +9.2+7.7	1.6	4.1+10.8+ 9.2+7.7	
	소계		1.6	69.7	1.6	61.3	
	張性然	張	0	6.6	0	0	
	張性然	張	0	3.6	0	0	
	全億釗	全	0	0.5	0	0.5	
	全永道	全	0	9.4	0	9.4	
	全元石	全	0	14	0	14	
	全在明	全	1.9	2.8+22.3 +15.3	1.9	2.8+22.3 +15.3	
	全在洽	全	0	17.8	0	17.8	
	소계		1.9	82.1	1.9	82.1	
	鄭萬亨	鄭	0	11.7	0	11.7	
	鄭士然	鄭	0	10.9	0	10.9	
	皮允甫	皮	0	13.8	0	13.8	
	韓希西	韓	0	3	0	3	
	계		4.7	231.5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致雨峴	朴連順	朴	0	3.9	0	3.9	
	朴充己	朴	0	23.9+1.4+15	0	0	
	소계		0	44.2	0	3.9	
	李順德	李	0	0	0	23.9	
	李占三	李	0	0	0	1.4+15	
	소계		0	0	0	40.3	
	全永道	全	0	13.9	0	13.9	
	계		0	58.1			
片橋坪	姜用甫	姜	0	0	0	4.4	
	姜致善	姜	0	0	0	3.2	
	權乭男	權	0	13.4	0	13.4	
	權同列	權	0	3.1+3.8	0	3.1+3.8	
	소계		0	20.3		20.3	
	金百出	金	0	28	0	28	
	金石允	金	0	8.3	0	8.3	
	金應三	金	0	16.8+5	0	0	
	金千分	金	2.1	0	2.1	0	
	金淸汝	金	0	0	0	8.4	
	金春實	金	0	0	0	12.4+8.4+5	
	소계		2.1	58.1	2.1	70.5	
	盧德順	盧	0	0	0	10.5	
	盧性三	盧	0	0	0	11.85	
	朴敬一	朴	0	0	0	14.4	
	朴興德	朴	0	9.2+4.8	0	4.8	
	白允實	白	0	0	0	11.85	
	沈靑龍	沈	0	14.4+4.4+23.7+10.5	0	0	
	安敬云	安	0	8.2	0	8.2+11.4+7.7	
	劉性周	劉	0	0	0	9.4	
	兪致在	兪	0	0	0	9.2	
	李小乙吉	李	0	9.4	0	0	
	李判今	李	0	7.7+3.2+12.4	0	0	
	소계		0	32.7	0	0	
	林在實	林	0	0	0	6.7	
	林昌實	林	0.3	10.9+4.1	0.3	10.9+7.1+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7.6		4.1+17.6	
	소계		0.3	32.6	0.3	46.4	
	張三得	張	0	11.4+7.1 +6.7	0	0	
	계		2.4	244.1			
下蒼葛	權京大	權	0	9.7+7.8+ 17.6	0	9.7+7.8+1 7.6	
	權京乭	權	0	2.7+18.7 +3.8	0	2.7+18.7+ 3.8	
	權萬奉	權	0	0.6+6.2+ 5.9	0	0.6+6.2+ 5.9	
	權上云	權	0	3.3	0	3.3	
	權善任	權	0	8.6	0	8.6	
	權小二 月	權	1.6	0	1.6+6.2	1.2	
	權順列	權	0	0	0	20.8	
	權禮尙	權	6.8	1.2+12.2 +9	6.8	1.2+12.2+ 9	
	權玉烈	權	0	0	3.5	8.7+5.1+3	
	權二釗	權	0	9.1+7.2+ 8.4+17.9 +7.8+22. 9+7.8+4	0	9.1+7.2+ 8.4+17.9 +7.8+22. 9+7.8+4	
	權任奉	權	0	0	0	21.4	
	權從奉	權	0	2.7+2.4+ 28.5+3.5 +1	0	2.7+2.4+ 28.5+1	
	權千今	權	0	18+8.6	0	18+8.6	
	소계		8.4	257.1	18.1	313.8	
	金宜先	金	0	0	0	11.3	
	金千分	金	0	0	0	6	
	金致云	金	0	0	0	13.4	
	소계		0	0	0	30.7	
	朴乙卜	朴	4.7	0	4.7	0	
	梁成業	梁	0	5.2+12.6 +6+2.5+ 13.4	0	2.5	
	소계		0	39.7	0	2.5	
	龍珠寺		6.2+3.5	7+3+8.7 +1.2+5.1	0	0	
	소계		10	25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今得	李	0	11.3	0	0	
	李設男	李	0	0	0	3.5	
	李成來	李	0	16.6	0	16.6	
	李彦卜	李	0	21.4	0	0	
	李判今	李	0	12.8	0	12.8	
	소계		0	62.1	0	32.9	
	鄭性業	鄭	0	6.9+1.3	0	6.9+1.3	
	鄭一先	鄭	0	20.8	0	0	
	崔性云	崔	0	0	0	5.2+12.6	
	계		22.8	412.9			
下靑湖	金白出	金	1.7+5.4 +(2.6)	0	1.7+5.4	0	
	金春實	金	0.6	0	0.6	0	
	소계		7.7(2.6)	0	7.7	0	
	朴宜然	朴	0	6.5	0	6.5	
	宋元文	宋	0	11	0	11	
	沈千卜	沈	0	21.2	0	21.2	
	劉成伯	劉	0	0	0	29.6	
	李善良	李	0	0	0	2.5	
	李小乙 吉	李	0	29.6	0	0	
	李乙吉	李	0	17.6+13. 4	0	0	
	소계		0	60.6	0	0	
	全永甫	全	0	8.9	0	8.9	
	鄭三節	鄭	0	2.5	0	0	
	崔德均	崔	0	0	(2.6)	17.6	초3간
	韓性西	韓	0	0	0	13.4	
	계		7.7(2.6)	110.7			초3간
合堂谷	姜永好	姜	0	5.2	0	0	
	金敬元	金	2.7	0	2.7	0	
	金德玄	金	3	0	3	0	
	金百出	金	0	1	0	1	
	金性一	金	0	13	0	13	
	盧德順	盧	0	0	0	4.8+5.2	
	沈千卜	沈	0	2.9	0	2.9	
	李三汝	李	1.5	0	1.5	0	
	林俊實	林	2.6	0	2.6	0	
	崔在信	崔	0	4.8	0	0	
	계		9.8	26.9			
蛤坪	姜善益	姜	0	2.9+15.8	0	2.9+15.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姜永交	姜	2.9	0	2.9	0	
	姜永三	姜	0	0	0	3.7	
	姜永好	姜	2.9	8.4	2.9	8.4	
	姜元京	姜	0	0	0	3.1	
	소계		5.8	27.1	5.8	33.9	
	郭在云	郭	0	0	0	10	
	權京大	權	5.3	0	5.3	0	
	權京云	權	6.6+2.3	0	6.6+2.3	0	
	權京玄	權	4.5	0	4.5	0	
	權萬奉	權	9.6	7.9	9.6	7.9	
	權上云	權	0	0.6	0	2+0.6	
	權善國	權	0	0	0	12	
	權善任	權	0.8+2.3	0	0.8+2.3	0	
	權順烈	權	3+1	0	3+1	0	
	權順興	權	10.7	0	0	0	
	權禮尙	權	1.2	4.2	1.2	4.2+12.6	
	權玉烈	權	0	0	0	0.8+1.1	
	權有大	權	3.9	0	1.4+2.2+ 3.9	11.1+1.4+ 2.8	
	權二釗	權	4.3+5.7	0	4.3	0	
	소계		61.2	12.7	48.4	56.5	
	金德守	金	0	0	0	7.8	
	金德實	金	0	0	0	8	
	金石乭	金	0	6.3	0	6.3	
	金性德	金	0	0	0	4	
	金成玉	金	0.7	3.5	0.7	3.5	
	金成一	金	0	0	0	4.5	
	金時中	金	0	0	0	4.7+6.9	
	金彦三	金	0	0	0	2.9+2.5	
	金致德	金	0	9	0	0	
	金致文	金	2.7	0	2.7	0	
	소계		3.4	9.8	3.4	51.1	
	柳光年	柳	0	0	0	13.8	
	朴京來	朴	0	7.4	0	7.4	
	朴京西	朴	0	1	0	1	
	朴敬順	朴	0	0	0	9	
	朴京元	朴	0	3	0	3	
	朴卜先	朴	4.8	0	4.8	0	
	朴卜先	朴	3.7+3.3	0	3.7+3.3	0	
	朴石山	朴	0	15.5	0	15.5	
	朴乙吉	朴	2.3+1.4	1.4+11.1 +4.5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朴春一	朴	0	2.4	0	2.4	
	소계		15.5	46.3	11.8	38.3	
	徐景安	徐	1.8	0	1.8	0	
	徐乙吉	徐	0	7.9+7.2+6.8	0	7.9+7.2+6.8	
	소계		1.8	21.9	1.8	21.9	
	宋學道	宋	3.2	0	3.2	3.8+13.5	
	安永俊	安	0	0	0	13	
	梁成業	梁	0	2.5+2.9	0	0	
	梁有德	梁	0	0	5.7	0.9	
	龍珠寺		0	4.5+2.8+1.1+0.8+0.9+2	0	0	
	소계		0	12.1			
	尹德汝	尹	0	0	0	4.5	
	尹有德	尹	0	3.8+3.1+8.5+13.8+3.7+13.5	0	0	
	소계		0	46.4	0	4.5	
	李光年	李	0	1.8	0	1.8+5	
	李今得	李	0	16+13	0	0	
	李德裕	李	0	12+5.7	0	5.7	
	李德在	李	0	1.1	0	1.1	
	李乭伊	李	0	2	0	2	
	李分丹	李	0	10	0	0	
	李設男	李	0	0	10.7	0	
	李永大	李	0	19.5+6.8+3.5+4+8	0	19.5+6.8+3.5	
	李永立	李	3.9	0	3.9	0	
	李仁上	李	2.3+1+4.2	0	2.3+1+4.2	0	
	李一山	李	0	10.2+9.7	0	0	
	李致交	李	0	0	0	9.7	
	李致弘	李	0	7.8	0	0	
	소계		11.4	131.1	22.1	55.1	
	張順得	張	0	0	0	10.2	
	全永道	全	0	11.5+1	0	11.5+1	
	丁君甫	丁	0	0	0	16	
	鄭卜得	鄭	4.1	21.8+19.	4.1	21.8+19.3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3+8.2		+8.2	
	鄭一先	鄭	7.5	0	7.5	0	
	소계		11.6	49.3	11.6	49.3	
	趙順得	趙	0	12.6	0	0	
	崔仁西	崔	0	0	0	8.5	
	崔漢順	崔	3.5	1.2	3.5	1.2	
	韓順吉	韓	0	6.9+4.7+5	0	0	
	계		117.4	414			
蟹硯下元堂谷	金順五	金	0	0	2.3	0	
	德溫宮		0	11.3	0	0	
	尹興得	尹	0	52	0	0	
	李卜乭	李	3.4	0	3.4	0	
	李卜禮	李	3	0	3	0	
	李玉丹	李	0	0	0	3.1	
	林昌實	林	0	0	0	22.1	
	張三得	張	2.3	3.1+22.1	0	0	
	全局玄	全	0	11.7	0	11.7	
	鄭德實	鄭	0	0	0	52	
	鄭萬乭	鄭	1.1	0	1.1	0	
	鄭萬乭	鄭	1.1	0	1.1	0	
	鄭時萬	鄭	0	0.7+6.2+4.4	0	0.7+6.2+4.4	
	鄭自實	鄭	0	2.6	0	2.6	
	鄭七每	鄭	0	15.2+7.5	0	15.2+7.5	
	소계		2.2	36.6	2.2	88.6	
	韓希西	韓	0	10.9	0	10.9+11.3	
	계		10.9	147.7			
蟹峴坪	金用眞	金	0	20	0	0	
	李安美	李	0	5.9	0	5.9	
	全永直	全	0	16	0	16	
	鄭欽丹	鄭	0	8.6	0	8.6	
	趙古釗	趙	0	3.6	0	3.6	
	洪局玄	洪	0	0	0	20	
	계		0	54.1			
虎峴	桐泉洞中		15.6	0	0	0	
	朴順穆	朴	0	0	(1.2)	0	초2간
	朴汝先	朴	0	1	0	1	
	徐性必	徐	0.3	0	1.4+0.3+(0.8)	5.6	초2간
	尹宜祿	尹	0	2.9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儉得	李	7.2+1.4+(0.8)+(1.2)	5.6	7.2	0	
	鄭君集	鄭	8.2	3.4	8.2	3.4	
	鄭萬亘	鄭	2.3	0	2.3	0	
	鄭順一	鄭	5.2	0	5.2	0	
	소계		15.7	3.4	15.7	3.4	
	趙性甫	趙	0	0	0	2.9	
	趙希連	趙	1.5	0	1.5	0	
	池性化	池	4.6	0	4.6	0	
	池用才	池	3.8	0	3.8	0	
	洪洛汝	洪	0	0	15.6	0	
	洪興得	洪	12.8	0	12.8	0	
	계		62.9(2)	12.9			초4간
化島坪	權禮成	權	7.2	21.5	7.2	21.5	
	金道眞	金	0	0	0	12.8	
	金性德	金	0	0	0	1.8	
	金成玉	金	1.3	2.8	1.3	2.8	
	金應三	金	0	16+12.8	0	16	
	소계		1.3	31.6	1.3	33.4	
	柳光西	柳	0	4.7	0	4.7	
	閔性學	閔	0	7.9+3.7	0	0	
	朴敬順	朴	0	0	0	9+7.9	
	朴共西	朴	0	0	0	4.3	
	朴石山	朴	0	8.1	0	0	
	朴乙吉	朴	21.8+7.3+2.8+10.2	2.9+5.7+8.2	21.8+7.3+2.8+10.2	2.9+5.7+8.2	
	소계		42.1	24.9	42.1	38	
	龍珠寺		3+7.8	7.1+5.7+5.6+1.1	0	0	
	소계		10.8	19.5	0	0	
	尹二月	尹	1.9	0	1.9	0	
	李德在	李	3.1	0	3.1	0	
	李亘伊	李	0	9	0	0	
	李性來	李	0	0	7.8	0	
	李性培	李	0	0	3	0	
	李永大	李	0	1.8	0	0	
	李云居	李	0	0	0	3.7	
	李治順	李	0	0	0	8.1	
	소계		3.1	10.8	13.9	11.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林昌實	林	0	8.2	0	8.2	
	鄭性集	鄭	0	3.7	0	3.7	
	鄭順一	鄭	0	0	0	5.7+5.6	
	崔明七	崔	4.4	0	4.4	1.1+7.1	
	韓年得	韓	0	4.3	0	0	
	계		70.8	140.8			
篁笙坪	郭化實	郭	0.6+3	0	0.6+3	0	
	校宮位		3.6	0	0	0	
	宮內府		0	0.7	0	0	
	金基洪	金	4.4	0	4.4	0	
	金德俊	金	5.2	0	5.2	0	
	金生玄	金	0	2.8	0	0	
	金順化	金	1.2	0	1.2	0	
	金致云	金	0	0	0	5.3+7.5	
	金興西	金	5.5	0	5.5	0	
	소계		16.3	2.8	16.3	12.8	
	柳石甫	柳	9.8	0	9.8+3.6	0	
	柳才允	柳	0	0	0	13.2	
	柳日其	柳	2.6	0	2.6	0	
	文道心	文	5.2	0	5.2	0	
	文平五	文	6.7	0	6.7	0	
	朴命喆	朴	0	26.4+0.8	0	0	
	朴順先	朴	0	0	0	2.8	
	邊甲豊	邊	13.8	0	13.8	0	
	沈寬亘	沈	0	7.5	0	0	
	安京文	安	10.5+2.3	0	10.5+2.3	0	
	尹桂先	尹	0	5.3	0	0	
	林自化	林	0	0	0	0.7	
	林才允	林	14.7	0	14.7	0	
	林才化	林	0.9	0	0.9	0	
	全順京	全	2.3+2.4 +2.4	0	2.3+2.4+ 2.4	0	
	全順益	全	0.8+6.8	22.7	0.8+6.8	22.7	
	全順一	全	2.3+0.8	0	2.3+0.8	0	
	소계		17.8	22.7	17.8	22.7	
	崔三奉	崔	0.9+4.9	0	0.9+4.9	13.2	
	崔又三	崔	0	1.5	0	1.5	
	崔仁洪	崔	0	5.8	0	5.8	
	崔致永	崔	0	0	0	0.8	
	崔希先	崔	1.8+7.8 +3.3	0	1.8+7.8+ 3.3	0	
	崔希一	崔	3.2	1.3	3.2	1.3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崔希千	崔	6.6	0	6.6	0	
	崔希春		1.9	0	1.9	0	
	소계	崔	30.4	8.6	30.4	22.6	
	洪成民	洪	13.8	0	13.8	0	
	洪成甫	洪	9.4	0	9.4	0	
	洪成玉	洪	0	3.4	0	3.4	
	洪成一	洪	7.4	0	7.4	0	
	소계		30.6	3.4	30.6	3.4	
	계		168.8	78.2			
篁成坪	宮內府		0	5.2+1.4	0	0	
	金京一	金	2.5	0	2.5	0	
	盧善一	盧	0	0	0	11.7	
	盧性一	盧	0	0	0	1.7	
	柳成允	柳	0.9	0	0.9	0	
	邊甲豊	邊	0	0	0	14.8	
	沈千乭	沈	0	13.4	0	0	
	李德元	李	0	0	0	1.4	
	李萬得	李	0	0	0	5.2	
	李一山	李	0	14.8	0	0	
	鄭宜澤	鄭	4.6	0	4.6	0	
	崔友三	崔	0	0.8	0	0.8	
	계		8	35.6			
黃成坪	姜昌成	姜	0	13.3+4.9	0	0	
	孔自先	孔	0	0	0	20.2+1.4	
	孔春實	孔	6.5	0	6.5	0	
	宮內府		0	1.5+1.8+3+16.6+18.8	0	0	
	소계		0	41.7	0	0	
	金基元	金	0	10.9	0	10.9	
	金基浩	金	0.3+0.9+1+1.6	25.9+9.2	0.3+0.9+1+1.6	1.1+25.9+13+9.2	
	金士行	金	2.5	0	2.5	4.9	
	金性成	金	0	0	0	1.5	
	金性元	金	0.6	19.3	0.6	19.3	
	金順西	金	0	0	0	56+0.6	
	金順化	金	0	0	0	2.8	
	소계		6.9	65.3	6.9	145.2	
	南卜同	南	0	14.2	0	14.2	
	柳元康	柳	0	0	0	6+4.7	
	柳自允	柳	0	0	0	16.6	
	柳自仁	柳	0	0	0	16.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柳昌汝	柳	1.2	0	1.2	0	
	소계		1.2	0	1.2	43.9	
	白一甫	白	2.2+1.7	0	2.2+1.7	0	
	邊甲豊	邊	0	0	0	41.5+13.3	
	徐基好	徐	0	13	0	0	
	徐道玄	徐	0.8+0.5+1.3	0	0.8+0.5+1.3	0	
	徐萬奉	徐	1.7+0.2	0	1.7+0.2	1.9	
	徐性實	徐	1.5+1.4	0	1.5+1.4	0	
	소계		7.4	13	7.1	1.9	
	孫明先	孫	11.4	0	11.4	0	
	孫子化	孫	3.8	0	3.8	0	
	沈千乭	沈	0	1.1	0	0	
	安京文	安	6.9+6.2	7.7	6.9+6.2	7.7	
	安春玉	安	0	14.8	0	14.8	
	禹桂花	禹	0	20.2	0	0	
	禹春業	禹	4	0	4	0	
	尹桂先	尹	0	10+12.2	0	0	
	李甲同	李	0	4.9	0	0	
	李儉得	李	6.6	1.4+56+0.6+20.2	0	1.8	
	李萬得	李	0	0	0	18.8	
	李萬西	李	3.6	0	3.6	0	
	李順男	李	0	16.6+2.8+4.7	0	0	
	李億貴	李	0	10.4+8	0	0	
	李元實	李	1.5	1.2	1.5	1.2	
	李一山	李	0	2.1+20.5+5+41.5	0	0	
	李興得	李	0	0	6.6	0	
	소계		11.7	195.9	11.7	21.8	
	林自化	林	0	0	0	10+12.2	
	林千萬	林	0	0	0	4.9	
	張成七	張	2.6	0	2.6	0	
	全京順	全	0	6.4	0	6.4	
	全成伯	全	1.2	4.6+2.3+0.9	1.2	4.6+2.3+0.9	
	소계		1.2	14.2	1.2	14.2	
	趙京三	趙	0	0	0	20.5	
	趙成仁	趙	20.2	0	20.2	0	
	趙順得	趙	0	6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趙春西	趙	0	0	0	2.1	
	崔光善	崔	0	0	0	20.2	
	崔士局	崔	1.8	0	1.8	0	
	崔士得	崔	4.9	25.2+22.2	4.9	25.2+22.2	
	崔士先	崔	0	8.3	0	8.3	
	崔成汝	崔	0	21.7	0	21.7	
	崔性集	崔	0.4+1.3	0	0.4+1.3	0	
	崔春三	崔	0	7.5	0	7.5	
	崔致西	崔	0	0	0	3	
	崔興卜	崔	0	10	0	10	
	崔希先	崔	0	6.1	0	6.1	
	崔希春	崔	0	7	0	7	
	소계		8.4	108	8.4	131.2	
	洪九連	洪	9.1	15.5	9.1	15.5	
	洪洛汝	洪	15	31.2	15	31.2	
	洪洛玄	洪	6.4	0	6.4	10.4	
	洪大連	洪	8.2	0	8.2	0	
	洪性寬	洪	0	0	0	8	
	洪性文	洪	0	7.5	0	7.5	
	洪性先	洪	8.3	0	8.3	0	
	洪性一	洪	2	0	2	0	
	洪性采	洪	0	0.9	0	0.9	
	洪性千	洪	0	0	0	5	
	洪性七	洪	3.2	2.6+9.6+10.1	3.2	2.6+9.6+10.1	
	洪云五	洪	0.9	5.9	0.9	5.9	
	洪興得	洪	2.2	1.3+0.5+5+2.4	2.2	1.3+0.5+5+2.4	
	소계		55.3	92.5	55.3	115.9	
	계		157.6	635			
後谷	金白出	金	2.2+(0.9)	13.2	2.2	13.2	
	金石允	金	5.2+3.2+1	0	5.2+3.2+1	0	
	金有成	金	0	0	4+2.3	0	
	金春實	金	0	0	0	9.4	
	金學允	金	0	0	0.8	0	
	소계		11.6(0.9)	13.2	18.7	22.6	
	內藏院		3.1	11.6	0	0	
	徐光連	徐	0	0	3.1	11.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安敬云	安	4.8	0	4.8	0	
	吳文汝	吳	0	0	0.7+(1.3)	0	초3간
	劉性周	劉	0.7+2+0.6+(1.3)	0	2+0.6	0	
	李相連	李	0	0	0	16.9	
	李順一	李	0	9.4	0	9.4	
	林昌實	林	0.8+(0.8)	4.4	0.8	4.4	
	張三得	張	0.8	0	0	0	
	全敬有	全	0	0	(0.8)	0	초6간
	全億釗	全	2.1	0	2.1	0	
	全致弘	全	0	13.8+6.2+0.3	0	13.8+6.2+0.3	
	소계		2.1	20.3	2.1(0.8)	20.3	초6간
	鄭萬乭	鄭	2.3	0	0	0	
	鄭順禮	鄭	3.6	1.7	3.6	1.7	
	鄭順一	鄭	0	16.9+9.4	0	0	
	鄭學先	鄭	0	0	(0.9)		초2간
	소계		5.9	28	3.6(0.9)	1.7	초2간
	崔丙一	崔	1.4	0	1.4	0	
	崔成甫	崔	0.9	0	0.9	0	
	韓熙西	韓	4	0	0	0	
	계		38.7(3)	86.9			초11간

표2. 마산면(동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馬山面							東接余方面
馬山面							西接一炭面
馬山面							南接松庄面
馬山面							北接郡內面
馬山面	端~非22號	157戶(원144)	2464.6(水舂1.7)	8654.7			11119.1(原9075.3) 瓦家0, 草家559間 水舂1座
마산평균			15.7	55.1			70.8
內谷	金春西	金	0	0	1.1+3+1.3+0.5+1.3+(1.2)	5+3.6+13.4+3.1+2.1+15	초2간
	소계		0	0	7.2(1.2)	42.2	
	南雙今	南	0	0	0	25.1	
	南丁金	南	0	25.1	0	0	
	內需司		2.5	0	0	0	
	盧正賢	盧	3	5.3	2.7+3+(1.5)	5.3+1.1+8.2+0.9+6.7	초3간
	朴京執	朴	0	5.9+10.7	0	5.9	
	徐壬得	徐	0	3.6+6.3+9+8+13.4+13.3+15.6+5	0	15.6	
	소계		0	74.2	0	15.6	
	宋京七	宋	0	0	0	6.7	
	宋凡眞	宋	8	42.9	8	42.9	
	安成今	安	0	0	0	7.6	
	安成得	安	0.8+0.3+4.6+2.9+2.9+2.5+1.1+1+(0.	0	0.8+0.3+4.6+2.9+2.9+2.5+1.1+1+(1.9)	10.7+8+9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9)+(1.9)				
	安小春吉	安	0.8+0.3+(1)	13.1+4	0.8+0.3+(1)	13.1+4	초4간
	安小春每	安	0.6+0.3	2.4	0.6+0.3	2.4+13.3+6.5	
	安順山	安	4.6+(1)	0	1.1+4.6+(1)	0	초2간
	安宗中	安	1.1+2.7+(1.5)+(1.6)	10.7+16.6+7.6+6.5	0	0	
	安春吉	安	(1.9)	5.7+5.9	1.4+(1.9)	5.7+5.9	초5간
	安春每	安	0.4+1.4+3.3+3.9+(1.5)	29.8+0.8+3.7	0.4+3.3+3.9+(1.5)	29.8+0.8+3.7	초3간
	安春石	安	4	0	4	10.7	
	소계		39.5(11.3)	106.8	36.8(7.3)	131.2	초17간
	李京先	李	0	0	(1.6)	16.6	초3간
	李卷今	李	0	15.1+3	0	15.1+3	
	李今甫	李	1.5+3	0	1.5+3	6.3	
	李小水億	李	0	8.2+6.2	0	0	
	李水億	李	0	15.8+22.7+19.3+18	0	15.8+22.7+19.3	
	李玉哲	李	1.3+1.1++1.3+0.5+0.4+1.4+3+(1.2)	13.4+2.1+15+3.1	0.4+1.4+1.3	0	
	李一先	李	0	5.6	0	5.6	
	李宗中	李	1.3	0.9+1.2+1.1	0	0	
	李春成	李	0	15.8+14+9.1	0	2.9+15.8+14+9.1	
	李忠今	李	0	2.9	0	0	
	소계		14.8(1.2)	192.5	7.6(1.6)	146.2	
	鄭岳發	鄭	2.4	0	2.4	0	
	崔文三	崔	0	0	0	6.2+18	
	崔順每	崔	0	0	0	1.2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洪有得	洪	0	0	2.5+(0.9)	0	초3간
	계		70.2(12.5)	463.4			초28간
都監洞	金今成	金	0	0	0	10.6	
	孟水得	孟	12.3+1.1	0	12.3+1.1	0	
	朴卜禮	朴	3.4	0	3.4	0	
	宋大卜	宋	0	10.6	0	0	
	尹桂孫	尹	0	7.8	0	7.8	
	尹明分	尹	0	3.6+9+8.4	0	3.6+9+27.6+8.4+9.5	
	尹分每	尹	17.5	0	17.5	0	
	尹小明分	尹	0	10.2	0	10.2	
	소계		17.5	39	17.5	76.1	
	李萬得	李	0.8	8.6+18.5	0.8	8.6+18.5	
	李春月	李	9.4	10.1	9.4	10.1	
	소계		10.2	37.2	10.2	37.2	
	鄭貴近	鄭	8.3+3.8	8.1+2.9+2.9	8.3+3.8	8.1+2.9+2.9	
	鄭老未	鄭	0	5.7+9.3+6.2+3.2+9.1+23.1	0	5.7+9.3+6.2+3.2+9.1+23.1	
	鄭德立	鄭	4.7	5.4	4.7	5.4	
	鄭德三	鄭	3.3	1.8	3.3	1.8	
	鄭崙男	鄭	10.1	0	10.1	0	
	鄭卜己	鄭	2	0	2	0	
	鄭卜同	鄭	9.4	8+9.4+7.6+5.8	9.4	8+9.4+7.6+5.8	
	鄭三乭	鄭	0	12.7+8.2+5.5+7.9+3.3	0	12.7+8.2+5.5+7.9+3.3	
	鄭生伊	鄭	0	3.5+4.2+4.2+2.1	0	3.5+4.2+4.2+2.1	
	鄭石同	鄭	3.4	0	3.4	0	
	鄭善業	鄭	1.5	0	1.5	0	
	鄭善汝	鄭	0	6.7	0	6.7	
	鄭小卜同	鄭	0	40.6	0	40.6	
	鄭小卜三	鄭	0	8.1	0	8.1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鄭小石奉	鄭	0	13.4	0	13.4	
	鄭順今	鄭	0.9	11.5+5.9	0.9	11.5+5.9	
	鄭順得	鄭	0	7.7+8.6	0	7.7+8.6	
	鄭順萬	鄭	10.4	0	10.4	0	
	鄭順卜	鄭	0	20	0	20	
	鄭新立	鄭	0	2.9	0	2.9	
	鄭氏孫	鄭	0	6.8	0	6.8	
	鄭禮春	鄭	0	0.9	0	0.9	
	鄭二同	鄭	0	8.4	0	8.4	
	鄭一乭	鄭	0	10.7	0	0	
	鄭芿奉	鄭	0	4.6	0	4.6	
	鄭自斤禮	鄭	2.5	16.9	2.5	16.9	
	鄭吹丹	鄭	9.8	7.5	9.8	7.5	
	鄭吹乭	鄭	11.6	5.5+0.6+4.1+7.7	11.6	5.5+0.6+4.1+7.7	
	鄭學吉	鄭	5.1	0	5.1	0	
	소계		86.8	359.2	86.8	348.5	
	趙自斤乭	趙	0	27.6+1.1+9.2	0	1.1+9.2	
	崔聖好	崔	0	4.5	0	4.5	
	韓順吉	韓	8.6	4.2	8.6	4.2	
	香炭		0	9.5	0	0	
	계		139.9	502.1			
東幕	姜永執	姜	0	17.6	(0.9)	17.6	초3간
	姜永集	姜	0	2	0	2	
	金德禮	金	0	4.9	0	4.9	
	金明先	金	0.7+0.6	0	0.7+0.6	0	
	金士弘	金	0	0	0	25.7	
	金聖列	金	3.5+3.1+4.5+1.2+1.3+(0.9)	0	3.5+3.1+4.5+1.3+(1.9)	0	초8간
	金聖文	金	0.2	0	0.2	0	
	金性眞	金	0	0	2.4+(2.1)	0	초2간
	金順眞	金	(0.9)+(1)+(1.5)	0	0	0	
	金允一	金	0	0	(1.1)	0	초3간
	金允必	金	3.5+(1.5)	2.7+5.5	4.3+0.3+3.5+(1.5)	2.7+5.5+15.7+14.6	초6간
	金才白	金	1.2	0	1.2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治寬	金	4.2+5	0	4.2+5	0	
	金治理	金	0	0	(1.5)	0	초3간
	金致日	金	3.4	8.3	3.4+7.6	8.3	
	金洪玉	金	0	3.6	0	3.6	
	소계		32.4(5.8)	25	45.8(5.1)	81	초22간
	南道士	南	0	7.4+2.6+9.9+2.4	0	0	
	柳守璨	柳	4.2	0	4.2	0	
	朴京回	朴	0	3.3	0	3.3	
	朴白性	朴	3.7	0	3.7	0	
	尹桂孫	尹	0	9.9+1.9	0	1.9	
	尹有德	尹	0	7.8+3.5	0	7.8	
	소계		0	23.1	0	9.7	
	李京老	李	0	9.1	0	9.1	
	李卷今	李	7.6	6.4	0	6.4	
	李貴男	李	2.6	11.3+14.9+19.1+12.9+16.4+1.6+4.9+15.8+15.4+5.4+1.2+8.4+14.4+7.8	2.6	11.3+14.9+19.1+12.9+16.4+1.6+4.9+15.8+15.4+5.4+1.2+8.4+14.4+7.8	
	李明石	李	2.8+15.3+1+6.7	3.6+23.6	2.8+15.3+1+6.7+(3.2)	3.6+23.6	초10간
	李士允	李	0	3.3	0	3.3	
	李小水億	李	1.6	0	1.6	0	
	李水億	李	4.8+4.3	25.7+2.2+4.4+14.6+15.7+25.4+8.3+3.9	4.8	2.2+4.4+8.3+3.9	
	李春男	李	0	0	3.9		
	李春奉	李	0	0	0	8.3	
	李春奉	李	4.2+5.8+5.9+0.4+4+1.	3.2+22.2	4.2+5.8+5.9+0.4+4+1.4	7.4+2.4+2.6+9.9+3.2+2	초6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4		+(3.2)	2.2	
	李春成	李	5.8+1.6+(1)	0	5.8+1.6+(1)	0	초7간
	李忠石	李	11.9+1+2.7+3+1.4+(1.8)	6.3+5+6+2.9	11.9+1+2.7+3+1.4+(1.8)	6.3+5+6+25.4+2.9+3.9	초8간
	李忠釗	李	1.7+5.9	8.3	1.7	0	
	소계		103.4(2.8)	349.6	89.5(9.2)	319.8	초31간
	張京云	張	4+1.2+0.5+(1.3)	0	4+1.2+0.5+(1.3)	0	초3간
	張良心	張	2.2+1.7+4.5	0	2.2+1.7+4.5+(0.9)	3	초4간
	張成玉	張	0	0	(1)+1.2	0	초3간
	소계		14.1(1.3)	0	15.3(3.2)	3	초10간
	趙德卜	趙	12.2	0	12.2	0	
	趙性實	趙	4.9	2.7	4.9	2.7	
	趙致交	趙	0.3	0	0.3	9.9	
	趙治九	趙	3.4+0.3+10.8+1.2	0	3.4+10.8+1,2+(1.8)	15.8	초8간
	소계		33.1	2.7	43.6(1.8)	28.4	초8간
	崔春德	崔	7.5	0	7.5	0	
	崔春卜	崔	9+3.4+1.5	23.1+4.2+3.2	0.8+9+3.4+5.9+1.5	23.1+4.2+3.2	
	崔治德	崔	5.9+3.4+0.8+3.9+(1.8)+(1.9)+(2.1)	15.6+16.3	5.9+3.4	15.6+16.3	
	소계		35.4(5.8)	62.4	37.4	62.4	
	韓順吉	韓	4.5+1.2+6.4+0	11.6+23.6+26.7+	4.5+1.2+6.4+0.	11.6+23.6+26.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9+2.4+1.1+(3.2)	22.8+0.8+21.4+3+10.5	9+1.1	22.8+0.8+21.4+10.5	
	韓任節	韓	15.5+5.3+2	1.7+7+15.8+11.9+24.2	15.5+5.3+2	1.7+7+11.9+24.2	
	韓春吉	韓	0.7+3.5+(3.2)	6.2	0.7+3.5	6.2	
	소계		43.5(6.4)	187.2	41.1	168.4	
	洪卜丹	洪	0	4.1	0	4.1	
	洪卜德	洪	2.5+0.7+0.9+6+1.9+(1.1)	0	2.5+0.7+0.9+6+1.9	0	
	소계		12(1.1)	4.1	12	4.1	
	계		281.8(23.2)	699.3	(20.3)		초75간
東幕洞	尹分每	尹	0	10.8	0	10.8	
	鄭今山	鄭	0	9.1+7.9	0	9.1+7.9	
	鄭老未	鄭	0	10.4+5.6	0	10.4+5.6	
	鄭德立	鄭	0	39.1	0	39.1	
	鄭乭明	鄭	0	9.7	0	9.7	
	鄭三乭	鄭	0	16.5+26.7	0	16.5+26.7	
	鄭順今	鄭	0	10.8+40.5	0	10.8+40.5	
	鄭順得	鄭	0	38.7+12.8	0	38.7+12.8	
	鄭詮卜	鄭	0	42.6	0	42.6	
	鄭自根禮	鄭	0	6.5+24.4	0	6.5+24.4	
	소계		0	301.3	0	301.3	
	계		0	312.1	0		
馬樓坪	姜昌成	姜	0	16.8+24.6+11.9+3.6+17.6+17.6+18.7	0	0	
	소계		0	110.8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校宮		0	18.7+5.3	0	0	
	金癸弘	金	0	0	0	13.1	
	金近三	金	0	6.1+11.3	0	6.1+11.3	
	金箕浩	金	2.4	5.2+1.8+6.7+13.2+10.7	2.4	5.2+1.8+6.7+12.5+13.2+10.7	
	金箕弘	金	0	11.5	0	11.5+11.7	
	金德準	金	0	0	0	10.1+2.3	
	金尙然	金	0	0	0	10.7	
	金成伯	金	0	0	0	8.8	
	金成春	金	0.6	0	0.6	0	
	金順益	金	0	0	(1.7)	0	水舂1좌
	金順一	金	0	0	0	11.45	
	金永準	金	0	0	0	10.65	
	金云西	金	0	0	0	16.8	
	金致云	金	0	0	0	9.35	
	金弘明	金	0	0	0	9.9	
	金興西	金	0	0	0	11.45+11.9+17.1	
	소계		3	66.5	3(1.7)	234.3	水舂1좌
	南雙今	南	0	0	0	17.5+10.4	
	內需司		0	10.7+19.6+13.1+8.7+17.9+9.3	0	0	
	소계		0	79.3	0	0	
	盧善日	盧	0	18.5	0	18.5	
	盧性心	盧	0	0	0	19.8	
	柳京春	柳	0	8.6+7.1	0	8.6+7.1+12.6+30.5+17.3	
	柳樂起	柳	10.7	0	10.7	9.3+15.8+18.7+17.9	
	柳性敎	柳	0	0	0	3.6+13.5+17.6+1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0.7	
	柳在一	柳	0	14.3	0	14.3	
	柳眞起	柳	0	0	0	19.6+6.6+28.4+18.7+6.5	
	소계		10.7	30	10.7	277.3	
	朴今成	朴	0	0	0	7.1	
	朴明哲	朴	0	13.6	0	0	
	朴順先	朴	0	0	0	15.4+14.3	
	소계		0	13.6	0	36.8	
	邊甲風	邊	20.2	0	20.2	0	
	邊一萬	邊	0	12.5	0	0	
	徐明汝	徐	0	0	0	9.35	
	徐成實	徐	4.9+1.9	0	4.9+1.9	6.3+13.2+18.7+7.8	
	徐永甫	徐	0	11.1	0	11.1	
	徐壬得	徐	0	11.7	0	0	
	소계		6.8	22.8	6.8	66.45	
	宋凡眞	宋	0	17.5	0	17.5	
	申元長	申	0	21.3+4.4+7.2	0	4.4+7.2	
	沈千乭	沈	0	19.8	0	0	
	安卜實	安	0	13.5+3.9+3.6+17.5	0	0	
	安小春吉	安	0	4.8+8.7	0	4.8+8.7	
	安順先	安	0	0	0	13.6	
	安中烈	安	0	0	0	16.4	
	소계		0	13.5	0	43.5	
	梁聖友	梁	0	5.3	0	0	
	嚴寬先	嚴	0	0	0	10.9	
	禹季化	禹	0	8.8	0	0	
	兪碩甫	兪	0	0	0	18.7+5.3	
	劉善京	劉	0	0	0	8.2	
	劉再允	劉	0	0	0	22.4+12.1+5.8	
	소계		0	0	0	48.5	
	尹季孫	尹	0	22.4+28.6+14.1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尹季好	尹	0	15.4	0	0	
	尹成實	尹	0	0	0	8.8	
	소계		0	80.5	0	8.8	
	李桂今	李	0	0	0	21.7	
	李卷今	李	0	10.8+21.7	0	10.8	
	李今得	李	0	2.3+10.1	0	0	
	李今甫	李	0	0	0	6.6+8.6	
	李今甫	李	0	0	0	17.6	
	李上得	李	(1.7)	0	0	0	
	李碩甫	李	0	0	0	8.2	
	李善有	李	0	0	0	17.5	
	李聖大	李	0	10.9	0	10.9	
	李水億	李	0	9.9+6.6+8.6+12.1+14.4+9.4+23.7+10.4+7.1	0	14.4+9.4+23.7	동범 · 남거 · 동거
	李順男	李	0	15.8+15.4+10.4+14.2+56.1+24+17.5+12.6	0	0	
	李日先	李	0	8.2+22.9+8.2+6.1+16.4+30.5+17.3+8.2+17.1+8.4	0	0	
	소계		(1.7)	467.3	0	149.4	
	林景實	林	0	0	0	19.25	
	林自和	林	0	0	0	23.1	
	張德水	張	0	0	0	15	
	張尙玉	張	0	0	0	8.7	
	全敬釗	全	0	0	0	24.6	
	全敬五	全	0.5	26.2	0.5	26.2	
	全敬才	全	0	0	0	14.6	
	全順一	全	0	0	0	8.4	
	소계		0.5	26.2	0.5	73.8	
	田順京	田	0	0	0	2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田順元	田	0	0.8	0	3.9+3.6+6.1+0.8	
	田順益	田	0	0	0	32.9	
	田順一	田	0	0	0	14.2	
	소계		0	0.8	0	85.5	
	鄭瑞久	鄭	0	0	0	6.7	
	鄭岳發	鄭	0	0	0	10.4	
	趙順得	趙	0	10.7+6.3+10.9+32.9+18.5+18.7+15	0	0	
	趙春西	趙	0	0	0	8.2	
	趙致凡	趙	0	0	0	3.4+8.2	
	소계		0	113	0	19.8	
	崔今同	崔	0	26.4+4.6+1.5	0	26.4+4.6+1.5	
	崔士得	崔	0.9	7.8+7.2+37.2+8.8	0.9	7.2+37.2+8.8	
	崔士成	崔	0	6.4	0	6.4	
	崔仕玉	崔	0	11.1+13.2	0	11.1	
	崔成汝	崔	0.9	0	0.9	0	
	崔性喜	崔	0	3.3	0	3.3	
	崔永喜	崔	0	0	0	10.65	
	崔又三	崔	0	0	0	18.7+18.5	
	崔仁弘	崔	0	8.8+8.2+5.5	0	8.2+5.5	
	崔致德	崔	0	2.9	0	2.9	
	崔致西	崔	0	0	0	5.3+11.4+9.3	
	崔喜一	崔	1.1	0	1.1	7.8	
	崔喜天	崔	0	23.7	0	23.7	
	崔喜春	崔	0	18.9	0	18.9	
	소계		2.9	195.5	2.9	247.35	
	韓奉哲	韓	0	0	0	19.25	
	韓元準	韓	0	0	0	14.1+14.1	
	소계		0	0	0	47.45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香炭		0	5.8+38.5+7.8+14.6+9.3+8.2+6.5+6.7+3.4+6.6+28.4+11.4+23.1	0	0	
	소계		0	170.3	0	0	
	洪夫成	洪	0	0	0	15.4	
	계		44.1(1.7)	1567.9			水舂1좌
山垈	全益甫	全	0	0	1.2+(1.8)	0	초4간
	全化玉	全	8.9	0	8.9	0	
	鄭老未	鄭	1.2+4.2+1.4+(1.8)+(1.3)	0	4.2+1.4	0	
	鄭德立	鄭	0.5+2.5	0	0.5+2.5	0	
	鄭德三	鄭	0.9	0	0.9	0	
	鄭乭伊	鄭	0	4.4	0	4.4	
	鄭同釗	鄭	(1.9)	0	(1.9)	0	초4간
	鄭萬孫	鄭	1.5	0	1.5	0	
	鄭卜同	鄭	7.8	0	7.8	0	
	鄭卜山	鄭	(1.3)	0	1.8+(1.3)	0	초2간
	鄭三乭	鄭	2.9+6.7+3.7	0	2.9+6.7+3.7	0	
	鄭小卜同	鄭	18	0	18	0	
	鄭順奇	鄭	8.8+8.8	0	8.8+8.8	0	
	鄭順明	鄭	0.4	0	0.4	0	
	鄭永分	鄭	6.8	0	6.8	0	
	鄭二同	鄭	5.4	0	5.4	0	
	鄭二萬	鄭	0.8	0	0.8	0	
	鄭自斤禮	鄭	0.9+1.8+2.5+4	0	0.9+1.8+2.5+4	0	
	鄭自今	鄭	1.7	0	1.7	0	
	鄭春實	鄭	0	0	(1.3)	0	초3간
	鄭吹乭	鄭	1.1	0	1.1	0	
	소계		94.3(6.	4.4	94.9(4.5	4.4	초9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3)		)		
	趙自斤乭	趙	1.8+13.9+13.9+1.8	0	13.9+13.9+1.8	0	
	소계		31.4	0	29.6	0	
	韓順吉	韓	1.5	0	1.5	0	
	계		136.1(6.3)	4.4			초13간
瓦谷	姜昌成	姜	11.2	1.1	0	1.1	
	校宮		0	2.2	0	0	
	南丁今	南	1.4+1+0.4	10.2+5.9+23.2+16.6+20.8	1+0.4	10.2+5.9+23.2	
	소계		2.8	76.7	1.4	39.3	
	內需司		1.3	16.8	0	0	
	盧德興	盧	0	0	0	13.1	
	朴今成	朴	0	0	1.3	0	
	朴分玄	朴	1.7	0	0	0	
	白順得	白	0	0	0	11.8	
	白順明	白	(1.5)	0	(1.5)	20.8	초3간
	邊春一	邊	0	11.8	0	0	
	徐壬得	徐	0	11.2+9.5+17.6+27.1+6.4	0	11.2+9.5+17.6	
	소계		0	71.8	0	38.3	
	宋京七	宋	0	6.6	0	6.6+6.4	
	宋凡眞	宋	0.7+9.2+1.2+1.9	8.3+4.8	0.7+9.2+1.2+1.9+(3.1)	8.3+4.8	초2간
	소계		13	19.7	13(3.1)	26.1	초2간
	沈春甫	沈	(0.5)	0	(0.5)	0	초3간
	安成得	安	0	0	0	16.8	
	安小春吉	安	0.6+2.1	0	0.6+2.1	0	
	安小春每	安	4.5	5	4.5	5	
	安順山	安	0	0	0	4.6	
	安順先	安	0	0	0	27.1	
	安宗中	安	0	4.6	0	0	
	安春吉	安	0.5+0.7+1.7+3.2+0.8+	5.9+24.8	0.5+0.7+1.7+3.2+0.8+3	5.9+24.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3.5		.5		
	소계		17.6	40.3	17.6	84.2	
	禹萬亘	禹	0	1.6+21.6	0	0	
	禹宗中	禹	0	19	0	0	
	禹台山	禹	2.2+6.3	0	2.2+6.3	0	
	소계		8.5	42.2	8.5	0	
	李桂今	李	0	0	(2)	0	초4간
	李卷今	李	0.4+1.2+0.3+2.6+1.9+0.7+(3.1)+(2)+(0.7)	0	0.4+0.3+2.6+11.2+1.9+0.7	0	
	李今甫	李	0	0.5	0	0.5+1.1	
	李小水億	李	0.4	4.5+0.8+0.2	0.4+1.7	4.5+0.8+20.6+0.2	
	李壬戌	李	1.3	12.1	1.3	12.1	
	李宗中	李	0	1.9+10.9+13.1	0	0	
	李春成	李	2.1	0	2.1	0	
	李忠今	李	7.2	9	7.2	9	
	李忠釗	李	2.5+1.8	14.6+6.9+16.2	2.5+1.8	14.6+6.9+16.2	
	李治云	李	1.3	9+24.1+4.8+4.7+7.2+9.9	1.2+1.7+1.3	24.1+4.8+4.7+7.2+9.9	
	소계		23.7(5.8)	150.4	38.3(2)	137.2	초4간
	田占禮	田	0	0	0	10.9	
	鄭岳發	鄭	0	0.3	0	16.6+0.3	
	崔明西	崔	0.6	0	0.6	0	
	崔永實	崔	0.7+1.5	0	0.7+1.5	1.6+19+21.6	
	崔日奇	崔	0	0	1.4	1.9	
	소계		2.8	0	4.2	44.1	
	香炭		1.7	20.6	0	0	
	玄京叔	玄	0	0	(0.7)	9	초2간
	洪兢老	洪	0	0	0	2.2	
	계		84.3(7.8)	453.9			초14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瓦洞	姜昌成	姜	0	16.1+0.7+3.5+16.4+6.7+13.6+2.1	0	0	
	소계		0	59.1	0	0	
	校宮		0	7.4	0	0	
	金聖大	金	0	0	0	25.2	
	金性老	金	0	0	0	20	
	金成春	金	0	0	0	19.5	
	金化實	金	0	0	0	5.8	
	金化永	金	0	0	(0.6)	0	초2간
	소계		0	0	(0.6)	70.5	초2간
	南雙今	南	3	4.8	3+(0.7)	4.8	초2간
	南自每	南	(0.7)	0	3.2+(0.7)	0	초3간
	內需司		0	2.1	0	0	
	盧德興	盧	0	0	0	14.4	
	盧正賢	盧	0	0	0	1.4	
	柳石甫	柳	0	0	0	5.6	
	柳聖交	柳	0	0	0	6.9	
	柳性實	柳	2.2	0	2.2	13.6+13.8	
	柳水贊	柳	1.6	1.2	1.6	1.2	
	柳順京	柳	0	0	19.3	2.1	
	柳章甫	柳	0	0.8	0	0.8	
	柳在允	柳	0	0	0	5.6	
	柳支鳳	柳	0	0	0	7.2	
	柳眞奇	柳	0	0	0	5	
	소계		3.8	2	23.1	61.8	
	朴奇性	朴	0	0	0	14.4+3.1+11	
	朴己一	朴	0	0	0	7.9	
	朴大興	朴	7.9	1.5	0	0	
	朴德元	朴	0	0	0	9.4	
	朴明哲	朴	0	7.7	0	0	
	朴順得	朴	0	0	0	7.7	
	소계		7.9	9.2	0	53.5	
	白順一	白	0	0	0	16.4	
	邊益煥	邊	0	0	0	38.6	
	徐壬得	徐	0	5.9+20	0	0	
	孫子化	孫	0	0	0	6.7	
	宋凡眞	宋	19.3	3.4+12.7+26.8+3	0	12.7+26.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3			
	安道也之	安	0	0	6.7	0	
	安卜實	安	0	19.5	0	0	
	安小春吉	安	0	4.3+2	0	4.3+2	
	安順山	安	0	0	0	7.4	
	소계		0	25.8	6.7	13.7	
	嚴上云	嚴	3.1	0	3.1	0	
	尹桂孫	尹	5.3+6.7	12+7.2	5.3	12	
	李儉得	李	0	28.8	0	0	
	李京心	李	0	0	0	4.6	
	李卷今	李	0	0	(1.8)	0	초3간
	李今甫	李	0	1.6	7.9	12.6+1.5+1.6+0.7+5.9	
	李樂仁	李	0	0	0	27	
	李萬石	李	7	0	7	0	
	李先有	李	0.6	0	0.6	0	
	李小水億	李	3+3.2+8	2.7	8+(1.4)	2.7	초4간
	李水億	李	4.1+1.7++0.9+1.1+14.6+2.9+(1.4)+(0.7)+(1.8)+(0.6)+(2.7)+(1)+(1)+(1.3)+(1.8)	29.7+18+14+11.2+12+11.8+6.2	4.1+1.7+0.9+14.6+2.9+(1.8)+(2.7)	29.7+18+12+11.8+6.2	
	李順男	李	0	39.2+5.6+18.2+1.2+9.8+8.1	0	0	
	李順汝	李	0	0	0	5.6	
	李巖回	李	0	5.6	0	0	
	李一先	李	0	38.6+11.2	0	11.2	
	李壬戌	李	0	11.7	0	11.7	
	李宗中	李	0	1.4	0	0	
	李中化	李	0	0	0	9.8+8.1	
	李春成	李	0.7	0	0.7+(1.3	0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		
	李忠今	李	1.8	6.2+2.9+2	1.8	6.2+18.2+2.9+14.4+2	
	李忠釗	李	0	1.7+1+7.9	(1)	1.7+1+7.9	초7간
	李治云	李	1	1.1	0	13+1.1	
	소계		50.6(12.3)	309.4	50.2(10)	249.1	초17간
	林元順	林	0	0	0	15.8	
	張尙玉	張	0	0	0	2.1	
	田順一	田	0	0	0	1.2	
	鄭岳發	鄭	0	0	(1)	14	초3간
	趙順得	趙	0	6.9+27+13.8	0	0	
	趙治順	趙	3.1	0	3.1	0	
	소계		3.1	47.7	3.1	0	
	崔性實	崔	0	0	0	3.5	
	崔性直	崔	0	0	0	3.3	
	崔性眞	崔	0	0	0	16.1	
	崔順每	崔	0	0	1.1	0	
	崔日奇	崔	0	0	3	39.2	
	崔在萬	崔	1.2	0	1.2	0	
	崔才五	崔	2.7	0	2.7	0	
	소계		3.9	0	8	62.1	
	香炭		0	12.6+5+11+14.4+3.1+5.8+25.2+5.6+9.4+4.6+13+7.9+15.8	0	0	
	소계		0	133.4	0	0	
	玄京叔	玄	0	0	0	11.2	
	계		106.7(13)	692.2			초27간
牛谷	姜萬乭	姜	0	0	(0.7)	0	초2간
	姜令集	姜	4.5	0	4.5	0	
	姜昌成	姜	0	8+7.4+17.6+5.6+4.9	0	5.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소계		4.5	43.5	4.5(0.7)	5.6	초2간
	高君實	高	0	0	0	18.6	
	權男伊	權	0	0	4.5+8.45+2+(1.5)	1.5	초3간
	權順得	權	2.4	8.2	2.4+(2.2)	8.2	초3간
	소계		2.4	8.2	17.35(3.7)	9.7	초6간
	金冠玉	金	0	0	19.1	0	
	金萬有	金	0	0	0	12.2	
	金明乭	金	0	0	0	12.1	
	金明伊	金	0	0	3.3	2.5+3+4.5+4.5	
	金士先	金	0	1.7	7.1+0.4	1.7	
	金尙俊	金	13.2	0	13.2	0	
	金性老	金	0	4.5	0	4.5	
	金小桂每	金	5.1+2.4	0	5.1+2.4	0	
	金小同	金	3	42.4	0	0	
	金小有卜	金	(0.9)	0	(0.9)	0	초4간
	金順眞	金	0.7+6.8	0	0.7+16.3+6.8	0	
	金有卜	金	(1.4)	0	(1.4)	10.6	초3간
	金二君	金	0	0	(1.6)+(1.6)	0	초3간 · 초3간
	金二分	金	2	0	2	0	
	金丁山	金	(2.9)	0	(2.9)	0	초2간
	金宗中	金	19.1+16.3	0	0	0	
	金眞玉	金	0	9.9	0	0	
	소계		68.6(5.2)	58.5	76.4(8.4)	55.6	초15간
	南甘哲	南	1.9	0	0	0	
	南丁今	南	0	20.2	0	0	
	內需司		1.2	15+23.5+12.1	0	0	
	소계		1.2	50.6	0	0	
	盧德興	盧	0.9+1+(1)+(1)	10.7	0.9+1+(1)	14.1+4.3	초6간
	盧完一	盧	0	0	0	18.5	
	소계		1.9(2)	10.7	1.9(1)	36.9	초6간
	柳石希	柳	0	0	0	31.6	
	柳先京	柳	0	0	0	6.9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柳聖安	柳	0	0	0	17.6	
	柳順京	柳	0	0	0.4	0	
	柳長甫	柳	0	0	0	11.3	
	柳長夫	柳	0	0	(1.5)	0	초4간
	柳正己	柳	0	0	(1.2)	0	초4간
	소계		0	0	0.4(2.7)	67.4	초8간
	朴今奉	朴	0	0	(1.4)	0	초2간
	朴今成	朴	3.9+(1.9)	0	0.9+(1.9)	0	초3간
	朴德云	朴	2.6	0	2.6	0	
	朴德元	朴	0	0	(1.7)	0	초5간
	朴命哲	朴	0	4.9+4.6+9.9	0	0	
	朴順京	朴	0	0	0	9.9	
	朴用伊	朴	0	0	0.4+1.5	7.4	
	朴允伯	朴	0	0	0	6.2	
	소계		6.5(1.9)	19.4	5.4(5)	23.5	초10간
	邊性三	邊	0	0	0	11.3	
	徐壬得	徐	4.4+3.7+2.4+3.5+4.8+1.7+1.1+16.9+1.5+3.3+2.2+1.8+17.1+1.1+2.6+0.4+4.5+0.6+2+(0.7)+(1.2)+(6)+(1.5)+(1.5)+(2.1)	31.5+26.3+2.5+11.2+1.5+10.1+3.6+6.6+51.5+8	(1.2)	31.5	초2간
	소계		75.6(13.1)	152.8	(1.2)	31.5	초2간
	蘇日卜	蘇	0	8.6	0	8.6	
	孫宜寬	孫	0	0	(1.7)	9.3	초5간
	孫自化	孫	0	0	(1.5)	0	초3간
	宋京七	宋	5.7	0	5.7+(1)	0	초2간
	宋凡眞	宋	(1.2)+(1	15.2	0	15.2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8)+(1.6)+(1.9)+(0.8)+(1.3)+(1.8)				
	宋昌石	宋	0	0	1.1	0	
	소계		5.7(10.4)	15.2	6.8(1)	15.2	초2간
	沈春甫	沈	0	0	0	42.4	
	安伊哲	安	0	0	0	26.3	
	嚴相云	嚴	(0.8)	0	(0.8)	0	초3간
	禹京甫	禹	(0.4)	0	(0.4)	0	초2간
	禹桂化	禹	0	6.4	0	6.4	
	禹萬石	禹	0	14.4	0	14.4	
	禹卜同	禹	0.2+0.4+(1.2)+(1)+(1.1)+(1.1)	9.4	1.1+(1.2)+(1.3)	9.4	초4간
	禹世分	禹	(1.3)	0	(1.3)	0	초3간
	禹世化	禹	0	11+7.5	0	11+7.5	
	禹小禮化	禹	1.2+(1.9)	7.9	3+1.2+(1.9)	7.9	초4간
	禹小允禮	禹	0	25.4	0	25.4	
	禹小二男	禹	0	0	2.6	0	
	禹詮同	禹	0	0	8.45	0	
	禹禮丹	禹	1+1.1+0.8+1+0.2+(2.3)+(0.9)+(0.7)+(1.7)+(6.3)+(1.4)+(1.7)	8.6+6.8+8.2+10.2+3+23.2+21.5+8.5+4.6+4.5+4.5+13.7	1.2+1+1.1+0.8+1+0.2+(2.3)+(6.3)	8.6+6.8+8.2+10.2+23.2+21.5+8.5+4.6+13.7	초4간 · 초6간
	禹玉禮	禹	0	4.7	0	4.7	
	禹允禮	禹	0	7	0	7	
	禹伊男	禹	22.7	17.7	22.7+(1.7)	17.7	초3간
	禹丁山	禹	(4.1)+(2.6)	0	1.7	0	
	禹且今	禹	0	3.3	(2.6)	3.3	초3간
	禹千釗	禹	0	0	0.2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소계		28.6(30.2)	232	46.25(19)	220	초29간
	劉順京	劉	0	0	0	35.5	
	尹季孫	尹	0	7.1+42.9+2.1	0	42.9+2.1	
	尹孟烈	尹	0.8	0	0.8+(2.1)	0	초2간
	尹有德	尹	0	0.6+11	0	0.6+11	
	소계		0.8	63.7	0.8(2.1)	56.6	초2간
	李京先	李	0	0	0	6.7+1.1	
	李桂今	李	0	0	0	7.3+17.7	
	李卷今	李	3.2	4.3+5.1+10.4+8.5+10	0	4.3+5.1+10.4+8.5	
	李貴男	李	0	12.6	0	12.6	
	李今甫	李	2.6	0	2.6+(1.8)	0	초4간
	李萬西	李	0	13.9	17.1+3.5+(1.1)	13.9+6.6+8+3.6	초4간
	李明石	李	0	8.7	0	8.7	
	李明千	李	0	0	1.8	0	
	李上奉	李	0	20.4+4.7	(6)	20.4+4.7	초4간
	李小桂今	李	0	0	0	12.5	
	李小上奉	李	(0.7)	0	(0.7)	0	초2간
	李小水億	李	2.2	18.5+3.4+9.6+16+4.5	2.2	3.4+9.6+16+4.5	
	李小順禮	李	0	5.7	0.4+2.2+(1.5)+(1.8)	10.1+5.7	초2간 · 초3간
	李小春切	李	0	0	(4.1)	0	초3간
	李守億	李	4.2+14.7+10.8+6.6+5.5+3.2+0.4+3.8+0.9+(1.5)+(1.5)+(1.6)+(1.7)+	8.3+6.7+7.7+6.7+10+17.4+12.5+14.1	4.2+14.7+10.8+6.6+5.5+3.2+3.8	8.3+7.7+17.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7)				
	李順南	李	0	18.4+28.7+21.3+23.4+11.5	0	18.4+28.7+21.3	
	李順烈	李	0	0	3.7	0	
	李順禮	李	0	5.4	(1.4)	5.4	초3간
	李順釗	李	0	0	(1)	0	초2간
	李順汝	李	0	0	0.9+(1.5)	9.7+10.6+19.5	초3간
	李順任	李	0	0	(0.7)	0	초4간
	李順千	李	0	0	0	11.2	
	李雙泉	李	0.9+1.2+0.6+0.6	0	0.9+1.2+0.6	0	
	李巖回	李	0.9+0.4+1.5+(1.2)+(1.4)+(1.8)+(1.1)+(1.5)+(1.5)+(1.5)	10.6+19.5+9.7	1.5	0	
	李一先	李	4.5	35.5+6.9	4.5	0	
	李壬戌	李	4.4+0.8+(1.8)+(2.2)	7.7+11.5+12.3+19.3	0.8+(1.8)+(2.2)	7.7+11.5+12.3+19.3	초3간 · 초5간
	李宗釗	李	(2.5)	0	(2.5)	0	초3간
	李宗中	李	1.9+1.9+1.3+1.6+2.5	4.3	1.9+1.9+1.3+1.6+2.5	0	
	李春男	李	(1)	0	(1)	0	초2간
	李春乭	李	0	12.4	0	12.4	
	李春卜	李	1.2	0	1.2+3.2	0	
	李春成	李	0.4+0.5+3.2+(0.7)	0	0.4+0.5+3.2	0	
	李春切	李	0.4+0.5+1.7+(1.3)	7.4+7.3+3.1+33.2	4.8+0.4+0.5+1.7+(1.3)+	7.4+7.3+3.1+33.2	초3간 · 초4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2)		
	李忠今	李	2.8+6.3	1.2+18.7	4.4+2.8+0.6+6.3+(1.5)	1.2+18.7	초4간
	李忠釗	李	0	7.3+12.3	0	12.3	
	李治云	李	0	4.8+5.6	0	4.8	
	李學老	李	15.4	0	15.4	0	
	李化西	李	0	8.4	1.9+(1.8)	8.4	초4간
	李興甲	李	0	9.2	0	9.2	
	李興山	李	2	0	2+(0.9)	4.9	초4간
	李興申	李	0	0	(1.7)	0	초4간
	소계		117.5	616.6	151.2(36.5)	533.3	초70간
	印昌云	印	0	0	0	15	
	林士集	林	0	0	0	20.9	
	林元順	林	0	0	(1.3)	0	초3간
	張德水	張	0	0	0	23.5	
	張成玉	張	0	0	0	21.1	
	張學奉	張	0	0	0	9.9	
	소계		0	0	0	54.5	
	全金奉	全	0	0	0	6.7	
	田占禮	田	0	0	0.6+(0.7)	0	초2간
	鄭岳發	鄭	0	0	0	20.2	
	趙德卜	趙	21.1	0	21.1	0	
	趙順得	趙	0	31.6+4+22.6+17.7	0	4	
	趙仁奉	趙	0	0	0	23.4	
	소계		21.1	75.9	21.1	27.4	
	朱凡眞	朱	0	0	0	51.5	
	崔桂云	崔	0	9.1	(1.5)	9.1	초3간
	崔貴奉	崔	0	1.1	0	0	
	崔性直	崔	(0.9)	0	(0.9)	0	초3간
	崔小男	崔	0	0	0	4.6+4.9	
	崔水釗	崔	0	10.6	0	10.6	
	崔汝七	崔	(1.7)	0	(1.7)	0	초3간
	崔用實	崔	(1.1)	0	3.9+(1.1)	0	초3간
	崔日奇	崔	0	0	0	10+10	
	崔才五	崔	0	0	(1.9)+(0.8)	8	초4간 · 초4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소계		(3.7)	20.8	3.9(7.9)	57.2	초20간
	韓順吉	韓	0	4	0	4	
	韓順兆	韓	0	17.2+3.4	0	17.2+3.4	
	韓壬切	韓	0	10.2+11.5	0	10.2+11.5	
	소계		0	46.3	0	46.3	
	香炭		0	12.2+18.6+6.2+20.9+10.6+9.3	0	0	
	소계		0	77.8	0	0	
	玄石倫	玄	0	0	0	5.6	
	玄仁叔	玄	(1.5)	0	(1.5)	0	초2간
	洪卜丹	洪	0	21.1	0	0	
	계		336.3(89.2)	1541.9	(94.7)		초188간
月境前坪	姜昌成	姜	0	16+11.2	0	0	
	郭昌根	鄭	0	0	0	9.2	
	校宮		0	26.6	0	0	
	金京九	金	0.4+(1.8)+(2.3)	0	0.4+(1.8)	0	초4간
	金京聿	金	0	26.5+9.9+5.2+8.4	0	26.5+5.2	
	金京一	金	0	0	0	4.6	
	金近三	金	15+(2.6)+(1.9)+(1)	12.1	15+(2.6)	12.1	초3간
	金己元	金	9.8	19.8	9.8	19.8	
	金箕鉉	金	0	7.1+10.6	0	7.1+10.6	
	金箕浩	金	17.1+2.3+2.7+15.7+2.8+(1.9)	24.2+8.7+6.8	2.3+2.7+15.7+2.8+(1.9)	24.2+8.7+6.8	초7간
	金德裕	金	0.8+0.7	0	0.8+0.7+(2.4)	11+3.3	초5간
	金士行	金	0	0	(1.5)	0	초2간
	金聖來	金	0	0	0	10	
	金性魯	金	0	0	(2)	0	초3간
	金性元	金	0	1.2+12.3	0	1.2+12.3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8.2	
	金順化	金	0	0	0	11.1	
	金時月	金	0.3+0.8+3.5+(1.3)	0.8	03.+4.5+0.8+3.5+(1.3)	13.8+0.8+10.3+13.9+1.8+3.5+3.2	초3간
	金永眞	金	0	0	7.2+1.2	0	
	金應石	金	9.1+17.6	8.9	17.6	8.9	
	소계		98.6(12.9)	162.5	88(13.5)	248.9	초27간
	羅德寬	羅	0	0	0	9.9	
	盧敬云	盧	0	0	0	35	
	盧君凡	盧	0	0	(1)	0	초2간
	盧先一	盧	2.7+2.4	7.3	2.7+2.4	7.3+26.6+8.6	
	盧性心	盧	0	0	(1.9)	28.1	초5간
	소계		5.1	7.3	5.1(2.9)	105.6	초7간
	柳云先	柳	1.5+1.9	0	1.5+1.9	0	
	柳彰汝	柳	0	17.3	0	17.3	
	孟水得	孟	2.2+9	10.9+8.5+1.3+9.2+11.6+6+31.2+25.7	0	0	
	소계		11.2	104.4	0	0	
	武衛營		0	1	0	0	
	文石山	文	1.8+1	0	1.8+1	0	
	文應汝	文	0	0	(1.5)	0	초3간
	文從汝	文	1.1	0	1.1+2.8+(1.5)	0	초3간
	소계		3.9	0	6.7(3)	0	초6간
	朴卜禮	朴	0	12.9	0	12.9	
	朴成七	朴	0	0	2	0	
	邊甲風	邊	0	0	10.4+(1.9)+(3.1)	0	초3간 · 초5간
	邊一萬	邊	0	18.2+11.5	0	0	
	徐道先	徐	(3)	0	(3)	0	초4간
	徐尙得	徐	0.8+0.8+(0.6)	2.2	0.8+4.7+18.6+0	2.2+15.8+8.3	초2간 ·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8(0.6)+(1.4)		
	徐成實	徐	0	0	17.1+(3.1)	16	초8간
	徐壬得	徐	0	7.3+4.6+4.5	0	0	
	소계		1.6(3.6)	18.6	42(8.1)	42.3	초17간
	薛老未伊	薛	6.6	0	0	0	
	宋興允	宋	0	0	(4.8)	11.5	초2간
	申德三	申	2.6	0	2.6	0	
	沈千乭	沈	0	1.8+12.1+13.8+8.6+35+11+14+12.3+17.3	0	11+17.3	
	沈忠得	沈	3.2	0	3.2	0	
	沈判釗	沈	0	0	(1.5)	1+13	초3간
	소계		3.2	125.9	3.2(1.5)	42.3	초3간
	安八奉	安	0	2.4	0	0	
	梁石同	梁	0	0.5	0	0.5	
	延士乭	延	0	0	6.6	0	
	禹季分	禹	8.5+6.2++6.2+(1)	1.4+12.4	8.5+6.2+9.2+6.2+(1)	35.7+1.4+12.4	초3간
	禹季化	禹	5.6+0.7+0.5+12.1+6+3.4+(3.4)	2.3+22.8+4+19.1	5.6+0.5+12.1+6+3.4+(3.4)	14+2.4+2.3+22.8+14.9+2.5+5.3+4+24.6+3.4+13.1+19.1	초3간
	禹小季分	禹	(1.4)	0	0	0	
	禹小季化	禹	0.9+8.4+(2.1)	0.8	0.9+8.4+(2.1)	0.8+8.5	초5간
	소계		58.5(7.9)	62.8	67(6.5)	187.2	초11간
	尹京分	尹	15.6	0	15.6	0	
	尹萬興	尹	1.7+18.6+3.7+4.7+2.8+2.9+(1	0	2.9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5)+(1.5)+(1)+(1.9)				
	尹明分	尹	0	0	0	9.6+22.9	
	尹分每	尹	0	0	0	1.3+10.9	
	尹分伊	尹	0	0	3.2	10.6	
	尹宜泉	尹	5.1	0	5.1	0	
	소계		55.1(5.9)	0	26.8	55.3	
	李甲乭	李	4.9	0	0	12.3+3.8	
	李己同	李	2.2	0	2.2	0	
	李德原	李	14.9+2+(2.4)	0	9.1+14.9	0	
	李萬得	李	15.8	3.4+24.6+15.8+14.9+8.3+5.3+13.9+10.3+13.1+3.5+10.6+14+13+35.7+2.5	13.2	10.6	
	李無言	李	0	1.6	0.7+8	1.6+15.2	
	李奉生	李	0	8	0	8	
	李水億	李	10.4+(3.1)	0	0	0	
	李順男	李	0	11.1	0	0	
	李順哲	李	9.2+3.1+0.8+8	16.4	3.1+0.8	0	
	李永茂	李	8.1	0	0	0	
	李仁汝	李	0	0	0	13+14	
	李一先	李	41	6+8.5+18.2+14+18+11.9+15.2+13+2.9+13.4+3.2	0	6	
	李一業	李	2.2	0	2.2+41	0	
	李一葉	李	0	0	1	18.2+1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在元	李	2.5	0	2.5	0	
	李學仁	李	0	5.8	0	5.8	
	소계		125.1	356.1	98.7	126.5	
	張相七	張	0	0	(1.2)	0	초3간
	全敬水	全	0	0	(1.8)	0	초4간
	全敬五	全	2.9	0	2.9	0	
	全光三	全	0	13.1	0	13.1+8.4	
	全光云	全	0	0	3.8+0.6+1.7+(2.3)+(1)	13.4+16.4	초5간 · 초3간
	全性五	全	(2.3)+(1.8)	0	(1.8)	0	초4간
	全聖友	全	0.3	0	0.3	0	
	全成一	全	0	0	(1.9)	0	초5간
	全聖才	全	0.9+(1.9)	0	0.9	11	
	소계		4.1(6)	13.1	10.2(8.8)	62.3	초21간
	田聖在	田	0	6.8+3.7	0	6.8+3.7	
	丁健之	丁	0.2	2.1	0.2	2.1	
	丁聖忠	丁	31.7+3.8+5.6	18.2+2.7	31.7+3.8+5.6	18.2+2.7	
	丁順一	丁	9.8+38.6	11.6	9.8+38.6+(2.3)	11.6	초5간
	소계		89.7	34.6	89.7(2.3)	34.6	초5간
	鄭京甫	鄭	0	11	0	11	
	鄭大卜	鄭	0	22	0	22	
	鄭德三	鄭	1.1	15.4+3.8	1.1	15.4+3.8	
	鄭道吉	鄭	11.5	0	11.5	0	
	鄭道也之	鄭	0	0	0	8.5	
	鄭同吉	鄭	1.2	14.4+16.5	1.2	14.4+16.5	
	鄭同釗	鄭	10	0	10	0	
	鄭得成	鄭	0	0	9+(0.8)	0	초2간
	鄭萬化	鄭	2.1+13.2	0	2.1+13.2	8.9+16.7	
	鄭民水	鄭	(1.5)	0	0	7.6	
	鄭卜德	鄭	(1.5)	0	(1.5)	0	초3간
	鄭卜同	鄭	1.8	0	1.8	0	
	鄭卜三	鄭	0	15.1	0	15.1	
	鄭三卜	鄭	1	0	1	0	
	鄭生伊	鄭	0.9	6.3	0.9	6.3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鄭石同	鄭	0	6.2+8.3 +9.1	0	6.2+8.3 +9.1	
	鄭石奉	鄭	0	0	0	11.9	
	鄭成得	鄭	0	0	2.2	0	
	鄭小同吉	鄭	19.7	0	19.7	0	
	鄭小順得	鄭	1.6	0	9+1.6	13.6+6	
	鄭水天	鄭	0	4+3.6	0	4+3.6	
	鄭順今	鄭	26.7	0	0	25.7+31. 2	
	鄭順丹	鄭	0	7.5	0	7.5	
	鄭順得	鄭	5.8+12. 2+11.2	16.4+1.9 +15.6	5.8+12.2 +11.2	16.4+1.9 +15.6	
	鄭順萬	鄭	1.1+1.5 +0.4+5 .4+(4.4)	0	1.1+1.5+ 0.4+5.4 +(4.4)	0	초4간
	鄭氏孫	鄭	2.9+3.5 +(3.4)	0	2.9+3.5 +(3.4)	0	초4간
	鄭業成	鄭	6.4	0	6.4	0	
	鄭詮奉	鄭	0	4.3	3.7	4.3	
	鄭年成	鄭	0	0	0	8.5	
	鄭禮春	鄭	8.8+3.2	0	8.8+3.2	0	
	鄭云甫	鄭	0	6.3	0	6.3	
	鄭自今	鄭	0	8.1	0	8.1	
	鄭再孫	鄭	0	0	0	9.6+18.7	
	鄭占禮	鄭	0	13.9	0	13.9	
	鄭周西	鄭	0	0	0	2.9	
	鄭出男	鄭	0	3	0	3	
	鄭吹丹	鄭	0	12.3+1.2	0	12.3+1.2	
	鄭吹乭	鄭	2.2	0	2.2	0	
	鄭興龍	鄭	0	1.6	0	1.6	
	소계		155.4	227.8	152.6(10 .1)	466.8	초23간
	趙京三	趙	(2.4)+(1 .5)+(2. 4)	8.1	(1.5)	13.4+8.1	
	趙卜伊	趙	0	7.6	0	0	
	趙分伊	趙	3.1	0	3.1	0	
	趙千石	趙	8.8	0	8.8	0	
	趙春西	趙	0	0	(1)	0	초3간
	趙吹卜	趙	0	3.3+14.1 +18.7+1 6.7+28.1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9.6+8.9+11			
	趙致凡	趙	(1.4)	0	(1.4)	11.2+4.5+7.3	초3간
	소계		11.9(7.7)	126.1	11.9(3.9)	44.5	초6간
	崔光先	崔	0	4.2	0	4.2	
	崔奉丹	崔	0	12.9	0	12.9	
	崔奉得	崔	0	11.2	0	11.2	
	崔士國	崔	11.5+1.9	1.5+23.9+8.5	11.5+1.9	1.5+23.9+8.5	
	崔士得	崔	1.2+7.4+2.8+7.2+1.5+2.6+3.6+1.2+4.5+(1.9)+(1.2)+(1)+(1.8)	12.9+6.8+6.5+12+17.5+17.4+38+42.4	7.4+2.8+1.5+2.6+3.6+1.2+4.5	12.9+6.8+6.5+12+17.5+17.4+38+42.4	
	崔士先	崔	(6.1)	0	0	0	
	崔性執	崔	(2.3)	0	15.8+(2.3)	0	초3간
	崔性會	崔	12.3+2.3	9.1	2.8+12.3+2.3(1.5)	9.1	초4간
	崔性喜	崔	0	0	0	14+12.1	
	崔億萬	崔	0	2.6	0	2.6	
	崔永喜	崔	0	0	0	12.3	
	崔宗在	崔	0	1.2	0	0	
	崔春三	崔	0	0	8.1	9.8	
	崔致西	崔	1+0.8	0	1+0.8+(2.4)	0	초3간
	崔喜一	崔	0	11.6	(2.4)	11.6	초2간
	소계		61.8(14.3)	228.6	80.1(8.6)	275.6	초12간
	韓明西	韓	2.8	1.9+2.6	0	1.9+1.2+2.6	
	韓云京	韓	0	0	0	9.8+14.1	
	韓元西	韓	(1.5)	0	(1.5)	16.1	초4간
	소계		2.8(1.5)	4.5	(1.5)	45.7	초4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香炭		4.5+3.8+9+0.6+3.2+13.2+(0.8)+(1.5)+(1.5)+(4.8)+(2)+(3.1)	12.3+8.5+9.6+9.8+3.8+22.9+10.6+11+10+13.6+16.1	0	0	
	소계		34.3(13.7)	128.2			
	洪聖天	洪	2.9	0	2.9+(6.1)	0	초2간
	黃在令	黃	0	4	0	4	
	계		737.8(89.7)	1744.2	(77.6)		초136간
長九坪	郭成七	郭	0	0	0	2.7	
	金德有	金	0	0	0	7.9+7.1	
	金性乃	金	0	0	0	3.5	
	柳昌汝	柳	0	10.2	0	10.2	
	孟水得	孟	0	6.1	0	6.1	
	文石山	文	1.4	0	1.4	0	
	朴星七	朴	0	0	0	8.9	
	朴容西	朴	0	0	(2)	0	초4간
	邊仁萬	邊	0	29.6	0	0	
	徐君京	徐	0	0	4.9	0	
	徐永甫	徐	17.6	3.1	17.6	3.1	
	沈千乭	沈	0	5.2+3.6+16.6	0	5.2+3.6+16.6	
	禹季分	禹	2.8+1.5+0.6	4.1+2.6+0.9+9.4	2.8+1.5	4.1+2.6+0.9+9.4	
	禹季化	禹	0	20+8.7+2.5	0	20+8.7+2.5	
	禹小季化	禹	0	16.2+5.1	0	16.2+5.1	
	소계		4.9	69.5	4.3	69.5	
	尹京分	尹	0	0	(1.3)	0	초5간
	尹明分	尹	6.9+2.1+2+(1.1)	2.6	2.8+2.3+6.9+2.1+2+(1.1	2.6	초5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		
	尹分伊	尹	0	0	0	5.6	
	尹小明分	尹	0	0	(1.2)	0	초2간
	소계		11(1.1)	2.6	16.1(3.6)	8.2	초12간
	李甲乭	李	0	0	0	4	
	李德元	李	0	0	0	8.2+1.8	
	李萬得	李	0.8	1.8+1.2	0.8	1.8	
	李萬釗	李	2.8	0	0	0	
	李茂元	李	0	0	2.2	2.3+1.2	
	李奉生	李	1.5+0.7 +(1.3)+ (1.2)	1.9	1.5+0.7	1.9	
	李順哲	李	1.2	8.2	1.2	8.2	
	李一先	李	0	12.5+13. 6+19.3+ 3.6	0	19.3+3.6	
	李一業	李	0	0	0	12.5	
	소계		7(2.5)	62.1	6.4	64.8	
	張星七	張	0	0	0	3.6+29. 6	
	全京水	全	0	0	0	5	
	全京五	全	0	8.6	0	8.6	
	全京雨	全	0	8.7	0	8.7	
	全聖局	全	0	0	0	3.8	
	全性伯	全	2.1	0	2.1	0	
	全性在	全	0	10.2	0	10.2	
	소계		2.1	27.5	2.1	36.3	
	丁根之	丁	0.6	0	0.6	0	
	丁性忠	丁	0	8.3	0	8.3	
	鄭今乭	鄭	1.5+1+(1.7)	0	1.5+1+(1 .7)	0	초3간
	鄭老未	鄭	2+1	32.5	2+1	32.5	
	鄭大興	鄭	0	12.2	0	12.2	
	鄭德立	鄭	5.6+3.5	3.6	5.6+3.5	3.6	
	鄭乭伊	鄭	14.7	0	14.7	0	
	鄭同吉	鄭	0	9.9+1+2 .8	0	9.9+1+2 .8	
	鄭同釗	鄭	0	6.4	0	6.4	
	鄭萬孫	鄭	3	0	3	0	
	鄭萬阿	鄭	0	0	0	1.1	
	鄭萬化	鄭	1	2.6	1+6.8	2.6	
	鄭卜同	鄭	1.1	16.6	1.1	16.6	
	鄭三乭	鄭	0	6	0	6	
	鄭生伊	鄭	1.6+7.1	0	1.6+7.1	0	초5간 ·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9)+(0.9)		+(1.9)+(0.9)		
	鄭瑞九	鄭	0	0	0	6	
	鄭石奉	鄭	0	6.3	0	6.3	
	鄭性元	鄭	0	0	0	6	
	鄭小順得	鄭	3.8+4.6+7.3+(2.3)+(2.2)	0	3.8+4.6+7.3+(2.3)+(2.2)	0	초2간 · 초2간
	鄭小吹丹	鄭	1.9+4.1	0	1.9+4.1	0	
	鄭順今	鄭	0	1.1	0	1.1	
	鄭順得	鄭	2.6+9.7+0.4+1.2+1+1.7+1.4+3.5+10.7+2.6+(0.7)+(2.3)+(1.3)	12.3+14.8	2.6+9.7+0.4+1.2+1+1.7+1.4+3.5+10.7+2.6+(2.3)	12.3+14.8	초5간
	鄭順萬	鄭	0	15.7	0	15.7	
	鄭舜政	鄭	3.8	0	3.8+(2)	0	초4간
	鄭業成	鄭	2.3+(2)	17.8	0	17.8	
	鄭詮男	鄭	4.3	4.7	4.3	4.7	
	鄭詮奉	鄭	0.6	0	0.6	0	남범 · 서산
	鄭一乭	鄭	0	0	0	5	
	鄭一業	鄭	0	0	0	13.6	
	鄭自斤禮	鄭	5.6+4+1.4	10.2+13.9+7.1+13.3	5.6+4+1.4	10.2+13.9+7.1+13.3	
	鄭自今	鄭	1.9+1+1.4+(2)+(2.3)	0	1.9+1+1.4+(2.3)	0	초5간
	鄭宗文	鄭	1.8	0	1.8	0	
	鄭主賢	鄭	0	0	(1.3)	0	초3간
	鄭千孫	鄭	2.9	0	2.9	0	
	鄭春實	鄭	0	0	0	6	
	鄭吹丹	鄭	0	3.4	0	3.4	
	鄭吹乭	鄭	6.8+1.1+2.5+1.4+1.2	32.5+5.8+11.2+9.6	6.8+1.1+2.5+1.4+1.2	32.5+5.8+11.2+9.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鄭夬亘	鄭	3.9	0	3.9	0	
	鄭太禮	鄭	6.4	0	6.4	0	
	鄭漢江	鄭	14	0	14	0	
	鄭化實	鄭	0	0	(0.7)	0	초2간
	소계		167.9(19.6)	273.3	172.4(17.6)	311	초34간
	趙治凡	趙	0	0	0	5.8	
	崔奉得	崔	0	5	0	0	
	崔士得	崔	0	4.6+26.7	0	4.6+26.7	
	崔性五	崔	0.4	0	0.4	0	
	崔性會	崔	0	4.8	0	4.8	
	崔億萬	崔	0.6+2.2	0	0.6+2.2	0	
	崔治西	崔	0	0	0	7	
	崔喜一	崔	0	0	0	5.1	
	소계		3.2	41.1	3.2	48.2	
	韓順吉	韓	2.8	0	2.8	0	
	香炭		6.8+4.9+2.2	1.8+1.1+2.3+3.5+4+6+2.7+8.9+8.2+12+5.8+3.6+7.9+7+5.1+5.6+3.8+5	0	0	
	소계		13.9	94.3	0	0	
	洪順萬	洪	0	10.7	0	10.7	
	계		243.4(23.2)	663.8	(23.2)		초50간

평택지역 마을조사 및 아카이브구축 사업

마을은 짧게는 수 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이상 존속되어온 공동체다.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은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다. 근대 이후 도시화와 공업화는 마을을 사라지게 하고 마을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파괴했다. 이렇게 사라지는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택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전통의 경관과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마을의 변형 왜곡도 심하고 전통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은 주민들이 흩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구술, 각종 사료 및 유물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한다.

첫째, 지역사 이해에 가장 필요한 마을, 사라지는 마을을 우선 조사한다.
둘째, 조사를 할 때는 지역에 이해가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활용한다.
셋째, 조사연구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조사 후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갖고 추진한다.
다섯째,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추진한다.
활용방안으로는 마을지 편찬, 문화축제, 마을역사만들기사업 등이다.

■ 주제 별 조사대상 마을

①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사라지는 마을(2014년~)
② 미군기지 주둔과 관련된 기지촌마을(2018년)
③ 전통의 읍치(邑治) 또는 지방통치조직과 관련된 마을(2019년)
④ 전통의 수로교통이나 어업과 관련된 포구마을
⑤ 구릉지대에 위치한 전통마을
⑥ 해방 전후 간척지에 형성된 들판마을
⑦ 상업이 발달한 시장마을

■ 연도 별 조사 마을

2014년 포승읍 | 희곡리(3), 신영리(4)
이충동 | 동령마을
세교동 | 은실마을 등 9개마을

2015년 용이동(2), 소사동(3), 동삭동(3), 칠원동(3), 합정동(1배미)
안중읍 | 현화리(2)
현덕면 | 화양리(2), 운정리(3) 등 19개마을

2016년 현덕면 | 권관리(5), 기산리(3), 대안리(4), 신왕리(2)
진위면 | 가곡리(7-5)), 마산리(4) 등 23개마을

2017년 현덕면 | 장수리(1)
포승읍 | 내기리(6-4), 도곡리(11-5), 원정리(10-5), 홍원리(7), 석정리(9-6) 등 27개마을

2018년 현덕면 | 방축리(2), 도대리(3), 인광리(7-5), 황산리(3), 덕목리(5) 등 18개마을
미군기지 관련마을 팽성읍 | 대추리, 도두리, 함정리, 본정리, 안정리
서탄면 | 적봉리, 장등1리, 신리, 야리, 황구지리, 금각리
신장동 | 구장터

2019년 진위면 봉남리, 팽성읍 객사리, 원평동

2020년 송탄동 브레인시티 개발구역 | 도일동,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 모곡동

2021년 진위면 '진위테크노밸리(진위4산업단지)'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 | 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2022년 진위면 은산리, 동천리, 고현리, 청호리, 갈곶리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마을기록사업 ⑨

진위면(은산리, 동천리, 고현리, 청호리, 갈곶리)

조사 · 집필진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윤한택(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장수아(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소장)

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진행 및 사진

최치선(평택문화원/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

*구술 중 일부 내용은 이 보고서에 다 수록하지 못했다. 원문은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마을 아카이브에 게제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제보자의 초상권, 개인신상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책에 실리는 것을 거부하였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수록하지 않았다.

평택마을기록사업 ❾

진위면(은산리, 동천리, 고현리, 청호리, 갈곶리)

2022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발행일	2022년 12월 27일
발행인	이보선(평택문화원장)
기획	오민영, 최치선
저자	김해규, 윤한택, 장수아, 장연환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인쇄	(주)이다
저작권자	평택문화원, 2022
ISBN	ISBN 978-89-93983-67-8 : 비매품/무료

※ 이 책의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